

교사용 지도서

중학교

역사

정재정 | 김태식 | 박근칠 | 최병택 | 강신태 | 구본형
장종근 | 박찬석 | 강성주 | 김종현 | 김지현

(주)지학사



머리말

역사는 인간이 살아온 내력을 학습하고 탐구하는 과목이다. 인간의 삶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요소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각 분야의 상호 관계를 종합하여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역사는 국가 간 · 지역 간에 사람, 물자, 정보, 문화 등의 교류를 바탕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역사를 학습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역사는 물론 세계사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와 필요성에 따라 새로이 편찬된 역사 교과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게 되었다. 교사용 지도서를 활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자로 하여금 개별적인 사실의 나열과 단순 암기보다는 중요한 개념과 논리적인과 관계를 이해시킴으로써 과거의 사실들을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와 세계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며 이를 공간과 연결시켜 학습자가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둘째, 다양한 지도와 도표, 통계 자료 및 각종 멀티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중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수 기법을 활용하면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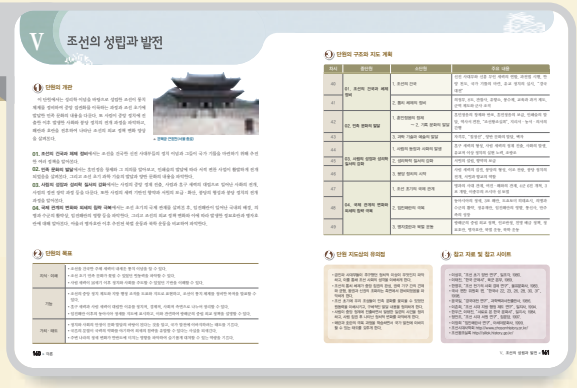
셋째, 교사가 주도적으로 내용 요소를 재구성하여 학습자의 인지 발달 단계와 학습 수준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끊임없이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파악한 후 교과서와 지도서를 활용하여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학습자들이 역사에 대한 통찰력과 역사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선생님들에게, 이 책이 보탬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지은이 일동

지도서 한눈에 보기

1 대단원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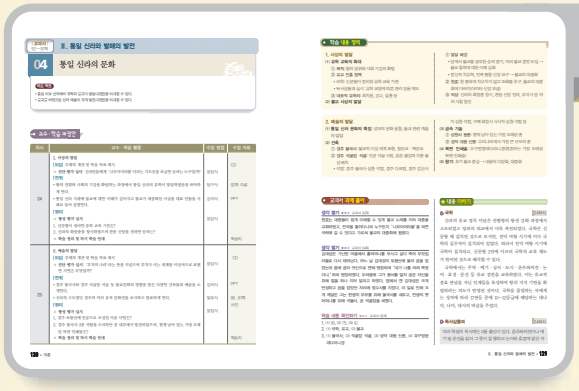
❶ **단원의 개관**: 단원의 전체 구성과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❷ **단원의 목표**: 지식 · 이해, 기능, 가치 · 태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❸ **단원 지도 계획**: 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을 차시별 · 단원별로 구분하여 구조화하였습니다.

❹ **지도상의 유의점과 참고 자료**: 수업 진행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깊이 있는 수업을 위하여 참고할 만한 문헌과 인터넷 사이트를 제시하였습니다.

2 중단원 교수 · 학습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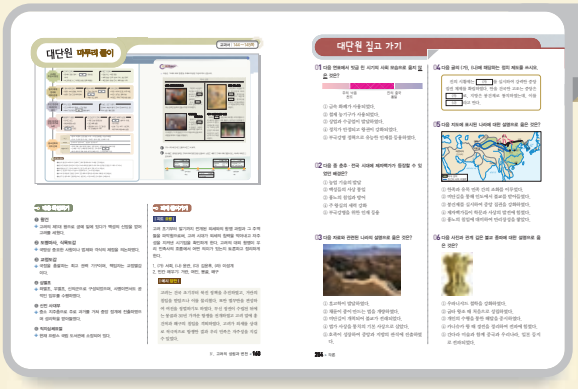


❶ **교수 · 학습 과정안**: 중단원별로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교수 · 학습 활동 내용과 수업 방법 및 자료를 차시별로 구분하여 안내하였습니다.

❷ **학습 내용 정리**: 소단원별 주요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판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❸ **교과서 과제 풀이**: 교과서에 수록된 생각 열기, 탐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답과 해설, 예시 답안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❹ **내용 더하기**: 수업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할 보충 자료와 심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3 대단원 되짚어 보기

❶ **대단원 마무리 풀이**: 교과서의 대단원 마무리 문제에 대한 정답을 수록하였으며, 쪽지 시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형태의 '생각의 열쇠'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제 풀어가기의 활동 안내 및 예시 답안을 제시하여 수행 평가로서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❷ **대단원 짚고 가기**: 대단원별 형성 평가 문항을 수록하여 단원 학습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정답을 바로 제시하여 문제 해결의 수월성을 높였습니다.

교사용 CD 한눈에 보기



*교사용 CD는 새 학기에 제공됩니다.

- 수업 진행용 CD에는 보충 자료 및 퍼즐, 플래시 등이 담긴 디지털 교과서를 수록하여 알차고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강의 준비용 CD에는 PPT 자료, 교과서 · 지도서 본문, 교수 · 학습 과정안, 학습 활동지, 멀티미디어 자료, 중단원별 · 대단원별 형성 평가 문항을 담았습니다.

차례

총론

Ⅰ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개요 12
Ⅱ 2009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해설 15
Ⅲ 교과서와 지도서의 개발 방향 및 구성 체제 34
Ⅳ 연간 교수 · 학습 과정안 36

각론

역사 ①

Ⅰ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42

01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의 목적 44
02 한반도와 세계 여러 지역의 선사 문화 48
03 고대 문명의 형성과 발전 53
04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59
05 고조선 이후 여러 나라의 발전 64

Ⅱ 삼국의 성립과 발전 72

01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 74
02 백제의 건국과 발전 79
03 신라의 건국과 발전 84
04 가야 연맹의 성립과 발전 88
05 삼국과 가야의 문화 및 대외 교류 93

III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104

01 고구려의 대외 전쟁 106
02 신라의 삼국 통일 110
03 통일 신라의 발전 114
04 통일 신라의 문화 120
05 발해의 성립과 발전 124
06 신라 말의 사회 혼란과 후삼국의 성립 128

IV 고려의 성립과 변천 136

01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그 의의 138
02 통치 체제의 정비와 대외 관계 142
03 무신 정권과 농민, 천민의 봉기 148
04 대몽 항쟁과 반원 자주화 노력 152
05 불교문화와 귀족 문화 158

V 조선의 성립과 발전 166

01 조선의 건국과 체제 정비 168
02 민족 문화의 발달 174
03 사림의 성장과 성리학 질서의 강화 178
04 국제 관계의 변화와 외세의 침략 극복 186

차례

VI 조선 사회의 변동 196

01 조선 후기의 정치 변화 198
02 사회 변화와 실학의 등장 204
03 조선 후기 문화의 새로운 변화 210
04 세도 정치와 농민 봉기 215

VII 통일 제국의 등장 224

01 중국 통일 제국의 형성과 유교의 성립 226
02 인도 통일 왕조의 등장과 불교의 발전 234
03 서아시아 통일 제국의 등장과 페르시아 문화 238
04 고대 지중해 세계와 크리스트교의 성립 242

VIII 지역 세계의 형성과 발전 256

01 중국의 재통일과 당 제국의 문화 258
02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과 발전 264
03 인도와 동남아시아 세계의 전개 268
04 이슬람 세계의 형성 272
05 중세 유럽의 형성과 발전 276

Ⅸ 전통 사회의 발전과 변모 288

01 중국 전통 사회의 발전과 동서 교류 290
02 일본 무사 정권과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모 298
03 이슬람 국가의 발전과 서아시아 세계 303
04 이슬람 세계의 확대와 인도 · 동남아시아의 변화 307
05 유럽 사회의 변모와 절대 왕정의 등장 311

역사 ②

Ⅰ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국권 수호 운동 324

01 개항과 개화 정책의 추진 326
02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동학 농민 운동 332
03 독립 협회와 대한 제국 340
04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 변화 346
05 국권 수호 운동 350

Ⅱ 민족 운동의 전개 358

01 3 · 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 360
02 1920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의 전개 368
03 전시 수탈의 강화와 광복을 향한 노력 374
04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의 전개 381

차례

III 대한민국의 발전 390

01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392
02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400
03 경제의 성장과 문화의 발전 405
04 통일을 위한 노력 408
05 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 414

IV 산업 사회와 국민 국가의 형성 420

01 산업 혁명의 전개와 자본주의의 확립 422
02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 427
03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발전 434
04 근대 국민 국가 체제의 성립 440
05 제국주의의 등장과 식민지 분할 445

V 아시아 · 아프리카 세계의 변화와 민족 운동 452

01 중국의 근대적 국가 체제 수립 운동 454
02 일본의 근대적 국가 체제 형성 462
03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반제국주의 운동 467
04 서아시아의 개혁 운동과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473

VI 현대 세계의 전개 480

01 제1차 세계 대전과 러시아 혁명 482
02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 490
03 제2차 세계 대전과 평화를 위한 노력 496
04 전후 새로운 세계 질서의 전개 502
05 현대 세계의 변화와 과제 506



총론

Ⅰ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개요	12
Ⅱ	2009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해설	15
	1.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의 개요	15
	2. 역사 교육의 의의	16
	3. 역사 교육의 목표	16
	4. 내용 영역과 성취 기준	18
	5. 교수 · 학습 방법	26
	6. 평가의 계획과 실시	31
Ⅲ	교과서와 지도서의 개발 방향 및 구성 체제	34
Ⅳ	연간 교수 · 학습 과정안	36

I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개요

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

① 성격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며,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나가는 교육과정이며,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이 교육과정은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주요 개정 내용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1~10학년 • 선택 중심 교육과정: 11~12학년	• 공통 교육과정: 1~9학년 • 선택 교육과정: 10~12학년

- **학년군 · 교과군의 도입**: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기존 10~13과목에서 8과목으로 축소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도입 및 강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등 비교과 활동을 강화하였다.
- **학교별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권 확대**: 각 학교마다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며, 과목별로 연간 수업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을 위한 지원**: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과 학교는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정

- 중학교 사회과에 '사회', '역사' 과목명 사용
- 중학교 지리 영역에 독도 교육 강화, 세계화 관련 내용 확대
- 중학교 사회 교과군 구성의 변화

도덕 사회	→ 사회(역사 포함) / 도덕

④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

학교급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
고등학교	(영어 1)	1학년 (영어 2)	2학년 (영어 3)	3학년

2.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①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다.

-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② 중학교 교육 목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민주 시민 자질의 함양에 중점을 둔다.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게 한다. 또한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며,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아울러 소통 능력을 기르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추도록 한다.

③ 구성 방침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이는 기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기간을 축소하고 선택 중심 교육과정 기간을 확대한 것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년군을 설정한다. 또한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 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영역 학습 강화와 진로 · 적성 등을 감안한 적정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그리고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축소하여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 활동'을 신설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 평가, 교과 평가의 개선,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 실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체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3.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① 편성과 운영

중학교는 '공통 교육과정'에 해당하며, 공통 · 의무 교육의 완성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시기이다. 또한 자신의 진로, 요구, 희망, 진학 계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간이기도 하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편성한다.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 · 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선택 과목은 한문, 정보, 환경과 녹색 성장,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 어, 스페인 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 어, 아랍 어, 베트남 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으로 한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구분		1~3학년
교과(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 / 도덕	510
	수학	646
	과학 / 기술 · 가정	272
	체육	374
	예술(음악 / 미술)	272
	영어	340
	선택	204
창의적 체험 활동		306
총 수업 시수		3,366

▲ 시간 배당 기준

학년군 및 교과(군)별 배당 시간은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으로, 각 학교는 교과(군)별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융통성 있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총 수업 시수는 '최소 수업 시수'로, 모든 중학교가 3년간 반드시 편성 · 운영해야 하는 시간이다. 어느 교과(군)에서 20%를 감축한다면 감축한 분량을 다른 교과(군)에서 증배하여 총 수업 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각 학교의 재량에 따라 총 수업 시수 이상으로 수업 시수를 편성할 수도 있다.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고,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다.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한다.

-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 편성과 탄력적 운영**: 학교는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3년간의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안내한다.
- **교과(군)별 이수 시기와 수업 시수의 자율화**: 이수 시기와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교과(군)별 수업 시수의 20% 범위 내 증감 운영**: 학교의 특성, 학생 · 교사 · 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 **예술(교과)군 편성 · 운영**: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 · 운영한다.
- **선택 과목의 개설**: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또한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 · 도 교육청의 편성 ·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진로 교육의 강화**: 학교는 학생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로 교육을 강화한다.
- **전입 학생의 학습 결손 방지**: 전입학 학생들이 교과 집중 이수로 인하여 교과를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학 등으로 교과 중복 수업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학생의 선택으로 이수 교과목을 면제하고 다른 교과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②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각 학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하도록 한다.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는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또한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며,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에 힘쓴다.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하며,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발표 · 토의 활동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학교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 실질적 체험 학습이 되도록 지역 사회의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 ·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 평가 활동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 · 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교과의 평가는 선택형 평가보다는 서술형이나 논술형, 수행평가의 비중을 늘려서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실험 · 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정의적 · 기능적 ·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의 평가는 타당한 평가 기준과 척도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한다.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생이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평가는 활동의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 활용한다.

Ⅱ 2009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해설

1.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의 개요

① 개정 방향과 중점

2009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내용을 강화하였다.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역사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 정체성을 고양하기 위한 내용 요소를 강화하였다. 또한 다문화 · 다민족 사회에 적합한 내용 요소를 보강하였으며, 한국사와 세계사를 보다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필수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학습 요소를 적정하게 조절하고, 학교급별로 중복되는 내용 요소와 내용 위계 체제를 조정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일화와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 한국사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고, 중학교에서는 정치사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사 요소를 연계해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사회 · 경제사와 사상사, 대외 관계사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통 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묶어 '역사' 과목으로 편성하여 학습하게 하였고, 선택 교육과정인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② 중학교 역사과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

(가) 정치사 · 문화사 중심 구성

중학교 역사 과목은 과도하고 어려운 내용 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편제되었다. 그리하여 경제사와 사회사는 생략하고, 정치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문화사 요소를 덧붙이도록 개정되었다.

(나) 성취 기준의 감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역사 과목의 성취 기준이 2007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한국사는 기존에 50개였던 것이 42개로, 세계사는 기존 35개에서 27개로 줄었다. 이는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다) 한국사와 세계사의 비율 유지

한국사와 세계사의 비율은 3 : 2로 유지하였다. 다만 한국사는 기존에 10개 영역에서 9개로 축소되었고, 세계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6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구분		한국사	세계사
2007 개정	(상)	•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 삼국의 성립과 발전 • 통일 신라와 발해 • 고려의 성립과 발전 • 고려 사회의 변천 • 조선의 성립과 발전	• 통일 제국의 형성과 세계 종교의 등장 • 다양한 문화권의 형성 • 교류의 확대와 전통 사회의 발전
	(하)	• 조선 사회의 변동 • 근대 국가 수립 운동 • 민족 운동의 전개 • 대한민국의 발전	• 산업화와 국민 국가의 형성 • 아시아 · 아프리카 민족 운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 현대 세계의 전개



구분		한국사	세계사
2009 개정	①	•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 삼국의 성립과 발전 •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 고려의 성립과 변천 • 조선의 성립과 발전 • 조선 사회의 변동	• 통일 제국의 등장 • 지역 세계의 형성과 발전 • 전통 사회의 발전과 변모
	②	•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국권 수호 운동 • 민족 운동의 전개 • 대한민국의 발전	• 산업 사회와 국민 국가의 형성 • 아시아 · 아프리카 세계의 변화와 민족 운동 • 현대 세계의 전개

2. 역사 교육의 의의

① 역사 교육의 의미

역사 교육은 역사를 소재로 인간을 교육하는 활동이다. 과거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이를 기초로 역사적 사고력과 통찰력을 신장시키며, 바람직한 역사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 활동인 것이다. 역사 교육에서 '역사'는 역사적 내용을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교육의 목적이 되고, 역사를 소재로 바람직한 역사적 기능과 태도를 함양한다는 측면에서는 교육적 수단이 된다.

역사 교육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다. 여기에는 한국사와 세계사는 물론, 인류의 과거에 관한 기록이나 사료, 탐구 방법까지 포함된다. 역사 교육을 통해 과거의 인간 활동을 이해하고, 그것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은 역사 교육의 중요한 목표이다. 나아가 역사 교육은 바람직한 역사적 기능과 태도, 가치관을 함양한 인간으로 변화시키려는 의도적인 활동이다. 역사 교육은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수 · 학습 과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② 역사 교육의 성격

역사 교육은 과거, 현재, 미래를 서로 연결하여 배우는 교육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성과 관련된 개념들이 필수적이다.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여러 개념뿐만 아니라 변화와 계속성, 인과 관계, 발전 등과 같은 시간 관련 개념들을 중시한다. 역사 교육에서는 이러한 시간 관련 개념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 교육은 인간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교육 활동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이 인간 생활의 전체적인 측면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서로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역사 교육은 문학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방법을 포괄해야 하는 교육 활동이다. 역사는 과거의 인간 행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 인간들의 성격, 감정, 동기,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서 유추, 상상, 감정 이입 등과 같은 문학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한편 역사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과학적인 탐구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비판, 종합, 평가하는 과학적 탐구 과정도 필요하다.

3. 역사 교육의 목표

① 역사 교육의 목적

역사는 현재 문제가 어떠한 기원을 가지고 어떻게 발달했는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며, 과거의 사회와 현재의 사회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현재 및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의미 있는 교훈을 제공한다. 즉 역사는 학습자가 직면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데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역사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지적 안목을 높여 세계를 올바르게 볼 수 있게 하고, 학습자를 자유인으로서 성장시키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역사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훈을 얻고자 함이었다. 인류의 집단적 경험을 배우고 과거 인간의 잘못된 경험들을 반성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활동이나 생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역사 교육을 통해 교훈을 얻으려고 할 때에는 과거 인간의 행위를 단순히 선악의 논리로 파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역사 교육에서는 배우는 내용 자체가 중시되기도 한다. 역사를 학습하는 일은 하나의 상식을 갖추는 것으로,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면 다른 학문을 배우는 데 배경 지식이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역사는 사람들의 흥미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떤 역사적 사실을 다룰 것인가 하는 내용 선정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역사 교육은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도 한다. 사람은 역사를 배움으로써 자기 민족이나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 국가의 형성 과정을 파악하며 다른 민족과 구분되는 민족 정체성을 갖는다. 이러한 경우 정신을 지나치게 중시하거나 자기 민족의 문화와 전통은 미화하고 부끄러운 역사는 감추는 등 올바른 역사관 형성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국수주의적 경향으로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역사 교육의 목적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역사의식을 기르는 데 있다. 역사의식은 역사에서 다루는 각 시대와 사회의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시간적 감각이자 역사에 대한 예리한 의식이다. 역사의식은 자신이 역사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존재 의식과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변화(발전) 의식, 내가 역사를 이끌어 가는 주체의 하나라는 자아의식, 역사는 각 시대마다 사람들의 사상이나 행동에 따라 특성을 가진다는 시간 의식으로 구

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시간적 변화에 대한 관념이 필요하며 비판 의식을 가져야 한다.

② 역사 과목의 목표

역사 과목은 과거 인류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현재 우리의 삶과 모습을 과거와 연관시켜 살펴봄으로써 인간과 그 삶에 관하여 폭넓은 이해와 안목을 키우는 과목이다.

중학교 역사 과목은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한국사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관시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특히 정치사와 문화사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과도한 학습 부담은 줄이고 문화적 창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인간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고, 나아가 과거와 현재, 나와 타인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존중하는 능력과 자세를 기르도록 한다.

역사 과목은 우리나라와 세계의 역사를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치사와 문화사를 중심으로 역사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적 사고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학생 스스로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시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국가와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역사 과목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 세계 역사의 주요 사실과 개념을 이해한다.

둘째, 우리나라와 세계 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그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고 역사적 통찰력을 기른다.

셋째, 우리나라와 세계의 역사와 문화 현장을 견학하고 체험함으로써 문화 창조 능력을 함양한다.

넷째,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탐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섯째, 오늘날의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의 역사적 배경과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여 현대 세계와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확대한다.

여섯째, 시 · 공간 속에서 달라지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③ 역사 교육의 행동 영역별 목표

(가) 지식 · 이해

역사 과목의 목표로서 지식 · 이해는 역사의 기본적인 사실, 개념, 일반화 등을 기억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암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의미나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 과목에서 지식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실들이 꼽히는데, 여기에는 한국사와 세계사의 핵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역사의 특수한 용어나 시간 개념이 포함된다. 또한 방법적인 지식, 역사의 원리 및 일반화, 이론과 구조에 속하는 지식까지 지식 · 이해 영역에 해당한다.

(나) 기능

역사 교육에서 기능은 학습자의 역사적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역사 과목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능으로는 역사를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역사 지도나 연표 해독 능력, 참고 자료 활용 능력 등 구체적인 학습 능력의 신장과 관련된 기능이다. 그리고 고차적 사고력의 향상과 관련된 기능이 있는데, 문제 해결 및 탐구 기능 등이 포함된다. 이 기능은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을 수립하며,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 해석하는 과정 등에 필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역사적 인물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감정이입, 추체험 등의 상상적 이해와 관련된 기능도 있다. 이러한 기능은 다른 교과의 목표와 차별화된 특징이다.

(다) 가치 · 태도

가치 · 태도 목표는 학습자가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역사와 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다. 가치 · 태도 목표는 지식 · 이해, 기능 목표에 비하여 달성하거나 그 결과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역사 과목에서는 자유, 평등, 정의 등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민주 시민의 자질로서 요구되는 가치, 국가 및 민족의 일원으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 세계의 일원으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치 · 태도 교육을 할 때에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일련의 가치를 주입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가치를 선택하게 하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이를 토대로 일관성 있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내용 영역과 성취 기준

① 역사과 내용의 구성 요소

교육과정 설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이다. 역사 과목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다.

- **구체적 사실**: 역사 수업의 내용 요소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역사의 구체적 사실이다. 구체적 사실이란 한국사와 세계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인명이나 지명은 물론 실학, 개화 등과 같은 복잡한 사건이나 운동을 총칭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실을 암기하는 데 그치는 수업을 지양하려면 사실 그 자체보다는 주제나 개념과 연결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 **개념**: 개념은 어떠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한 무리의 사물이나 행동을 집약한 것으로, 다양한 범위에 걸쳐 개별적이고 분리되어 있는 정보를 일정한 범주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한다. 개념을 학습하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들을 유의미하게 습득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비효율성을 줄여 준다.
- **일반화**: 일반화는 두 개 이상의 사건이나 현상,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진술이다. 일반화는 개별적인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인간과 사회의 구조에 대한 통찰력을 주어 그것이 움직이는 방식을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일반화는 개념과 함께 여러 개별적인 사실들을 조직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 **탐구 방법**: 전통적으로 역사 교육에서는 내용을 중시해 왔으나, 최근 문제의 인식, 증거의 수집 · 비판 · 해석, 문제 해결에 이르는 탐구의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산되었다. 역사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의 연구 방법까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 **사회적 요구와 관련된 내용**: 역사 수업을 진행할 때 역사 내용과 함께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연결시켜 다루면 학습자는 역사 사실을 보다 생동감 있게 이해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하게 된다. 이때 교사는 단순한 사건보다는 각 분야별로 쟁점이 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논쟁이 되는 문제는 모든 측면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자료들은 정확성, 최신성, 진실성, 균형성 등을 갖춘 것을 택하도록 한다.

② 내용 선정의 기준

역사 교육에서 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중요성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후에 계속되는 사건들이나 오늘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을 선택하거나, 사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중요성을 판단하여 선택한다.

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현대 세계의 중요한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역사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타당한 내용인지를 확인하며,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와 여러 역사적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 현재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필요나 흥미, 발달 단계에 적합하며, 시대적 · 사회적 요구에 맞는지, 적절한 범위와 깊이를 아울러 가지고 있는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내용 조직의 원칙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나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내용을 조직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계속 반복되게 하는 계속성의 원칙, 선행하는 경험과 내용을 기초로 다음의 경험과 내용이 전개되는 계열성의 원칙, 내용들을 상호 연결하고 통합하는 통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선정된 학습 내용은 깊이나 수준에 따라 몇 단계로 나누고 학년에 따라 계열을 정한다. 학습 내용을 계열화할 때에는 학습자의 심리적 발달 단계 및 경험의 확대 과정을 고려하여,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누적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한다. 학습 내용은 단순하고 구체적인 것에서 복잡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주관적인 것에서 객관적인 것으로 확대되도록 계열화한다.

한편 핵심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심화 · 확대하는 방식으로 계열화하기도 한다. 역사의 핵심적인 개념이나 원리는 그대로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제나 구체적인 사실만 바뀌게 되는 것이다. 고금상이(古今相異), 변화, 계속성, 관련성, 특수성과 보편성, 인과 관계, 시대, 발전 등 역사의 보편적인 개념들이 학습자의 인지 발달 단계와 경험의 확대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학년별로 계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법을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라고 한다.

④ 2009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의 내용

(가) 내용 체계

〈근대 이전〉

구분	영역	내용 요소
한국사 영역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의 목적 • 한반도와 세계 여러 지역의 선사 문화 • 세계 여러 지역의 문명의 형성과 발전 •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 고조선 이후 여러 나라의 등장
	삼국의 성립과 발전	•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 • 백제의 건국과 발전 • 신라의 건국과 발전 • 가야 연맹의 성립과 발전 • 삼국과 가야의 대외 교류 및 문화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 고구려의 수 · 당과의 전쟁과 그 의의 • 신라의 삼국 통일과 의의 • 통일 신라의 발전과 의미 • 통일 신라의 문화적 특징 • 발해의 발전과 문화 • 신라 사회의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
	고려의 성립과 변천	•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의의 • 통치 체제 정비와 고려의 대외 관계 • 무신 정권과 농민 · 천민의 봉기 • 고려의 대몽 항쟁과 반원 자주화 노력 • 고려 시대 문화의 특징과 변화
	조선의 성립과 발전	• 조선 건국과 통치 체제의 정비 • 민족 문화의 발달 • 사림 세력의 성장 배경, 과정, 의미 • 양란의 배경과 극복 노력
	조선 사회의 변동	• 조선 후기 정치 운영의 변화 • 사회 개혁 방안의 내용과 의미 • 문화 변동의 배경과 양상 • 세도 정치 시기 농민 봉기의 사례와 의미
세계사 영역	통일 제국의 등장	• 춘추 · 전국, 진 · 한의 정치 · 문화적 변화 • 마우리아 왕조와 쿠샨 왕조의 변화와 불교 • 페르시아의 발전과 쇠퇴, 문화의 특징 • 그리스 폴리스, 로마의 정치 · 문화적 변화와 크리스트교
		• 삼국 분열 이후 수 · 당의 정치 · 문화적 변화
세계사 영역	지역 세계의 형성과 발전	•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과 일본 고대 국가의 발전 • 인도 · 동남아시아의 정치 변화와 이슬람교의 유입 • 이슬람교의 성립 및 전파와 이슬람 제국의 발전 • 서유럽 세계의 형성과 비잔티움의 역사
	전통 사회의 발전과 변모	• 송, 원, 명, 청의 정치적 변화와 동서 교류 • 일본 무사 정권의 출현과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모 • 서 · 남아시아 이슬람 국가들의 성립과 발전 • 대서양 무역의 확대 • 절대 왕정의 성립

〈근대 이후〉

구분	영역	내용 요소
한국사 영역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국권 수호 운동	• 개항 전후의 국내외 상황, 개화 정책의 추진 • 갑신정변, 동학 농민 운동, 갑오개혁의 개혁안과 지향점 • 독립 협회의 활동, 대한 제국의 개혁 내용 • 신문물 수용의 배경, 과정 및 양상 •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의 흐름
	민족 운동의 전개	• 3 · 1 운동의 배경과 과정, 의의 • 1920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의 다양한 흐름 • 1930~40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의 흐름 • 민족 말살 정책에 맞선 민족 문화 수호 운동
	대한민국의 발전	• 광복,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분단과 6 · 25 전쟁의 전개 • 4 · 19 혁명 이후 정치 · 문화적 발전 • 1970년대 이후 평화 통일 노력과 북한의 실상 • 주변 국가와의 역사 갈등 해결 노력
세계사 영역		• 영국의 산업 혁명과 영향 •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구분	영역	내용 요소
세계사 영역	산업 사회와 국민 국가의 형성	• 미국 독립 전쟁과 국가 수립,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국민 국가 체제의 성립 • 제국주의의 개념과 특징
	아시아 · 아프리카 세계의 변화와 민족 운동	• 제1, 2차 아편 전쟁, 태평천국 운동, 양무와 변법, 의화단 운동, 신해혁명 • 메이지 유신과 일본 천황제 국가의 확립 •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반제국주의 운동 • 서아시아, 북아프리카의 개혁 운동과 민족 운동
	현대 세계의 전개	• 제1차 세계 대전의 배경과 러시아 혁명 •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변화 • 제2차 세계 대전의 배경 및 평화를 위한 노력 • 1945년 이후 독립 국가의 탄생과 냉전 • 자본주의의 확대와 국지적인 갈등

(나) 영역 및 학습 내용 성취 기준

[근대 이전]

Ⅰ.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역사 학습의 목적, 선사 문화의 발전에서 국가 형성까지를 다룬다. 역사가 현재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었음을 인식하고,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선사 시대의 삶을 유추해 본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국가가 형성되고 문명이 성장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뒤를 이은 여러 나라의 성장을 살펴본다.

① 역사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역사를 학습하는 목적을 이해한다.

② 한반도와 세계 여러 지역의 선사 시대 문화 발전 과정을 도구의 변천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유물과 유적을 바탕으로 선사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유추한다.

③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문명의 공통점을 파악하고, 국가가 형성되고 문명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이해한다.

④ 고조선의 성립을 단군 신화 중심으로 파악하고, 고조선의 발전을 철기 문화의 발달과 연결하여 이해한다.

⑤ 고조선 이후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 등 여러 나라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하였음을 설명한다.

Ⅱ. 삼국의 성립과 발전

삼국이 성립하여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을 다룬다. 삼국이 제도 정비와 영토 확장을 통해 발전하는 과정을 파악한다. 삼국과 가야의 문화가 지닌 특징을 이해한다.

① 고구려의 성장과 영토 확장에 따른 대내외적인 변화를 설명한다.

② 백제의 건국과 성장 과정을 파악하고, 대외 활동의 양상을 이해한다.

③ 신라의 건국과 발전 과정을 체제 정비 및 영토 확장과 연관지어 파악한다.

④ 삼국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점을 추출하고, 가야 연맹의 성립과 변화 과정에 나타난 삼국과의 차이를 파악한다.

⑤ 삼국과 가야가 이웃 나라와 교류한 양상을 파악하고, 문화적 특성을 불교 예술과 고분 등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Ⅲ.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고구려의 대외 항쟁부터 삼국 통일의 과정을 거쳐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후삼국 성립까지를 다룬다. 삼국 통일의 과정을 파악하고, 삼국 통일로 우리 민족사의 기틀이 다져졌음을 이해한다. 통일 이후 신라의 대내외적 발전을 이해하고, 신라와 함께 발해가 민족사의 한 축을 이루었음을 살펴본다.

① 고구려의 수 · 당과의 전쟁 배경과 과정을 파악하고, 역사적 의의를 설명한다.

② 삼국 통일의 과정을 동아시아 국제 정세 속에서 이해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파악한다.

③ 통일 이후 신라의 대내외적 발전 양상과 그 의미를 이해한다.

④ 통일 이후 신라 문화를 불교 예술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⑤ 발해의 성립과 문화적 특징을 통해 고구려와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발해의 발전상을 이해한다.

⑥ 신라 하대 사회의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을 이해한다.

Ⅳ. 고려의 성립과 변천

후삼국 통일과 고려 전기의 제도 정비, 무신 정변 이후 고려 후기 사회의 변천을 다룬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갖는 의의를 이해하고, 고려 전기 귀족 중심의 사회가 형성되었음을 파악한다. 고려 후기 지배 세력의 변화를 이해하고, 고려 문화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본다.

①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과 태조의 정책을 통해서 고려의 통일이 지니는 의의를 파악한다.
② 고려 전기 정치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귀족 중심의 사회가 형성되었음을 이해하고, 대외 관계를 전쟁과 교류로 나누어 설명한다.
③ 무신 정권과 농민 · 천민 봉기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고려의 지배 체제가 동요되었음을 이해한다.
④ 대몽 항쟁의 과정, 원 간섭기 권문세족의 성장과 반원 자주화의 노력을 이해하고, 고려 사회의 개혁 과정에서 신진 사대부가 성장하였음을 파악한다.
⑤ 고려 시대 문화의 특징과 변화를 고려청자, 불교 예술, 인쇄술, 역사서 편찬 등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Ⅴ.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의 성립 이후 문물제도의 정비를 통한 정치 · 문화적 발전, 왜란과 호란의 극복 과정을 다룬다. 이 시기에 유교 이념에 의해 조선 정치의 기틀이 마련되고 운영되었으며, 민족 문화가 발달하였음을 이해한다.
①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유교 이념에 따라 조선의 통치 체제가 정비되었음을 이해한다.
② 조선 전기 민족 문화의 발달을 훈민정음 창제, 과학 기술의 발달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③ 사림 세력의 성장 과정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 사림 세력의 성장 배경을 향약과 서원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④ 왜란과 호란의 대내외적 배경을 알고, 외침에 맞선 다양한 노력을 중심으로 양란의 전개 과정을 설명한다.

Ⅵ. 조선 사회의 변동

조선 후기 사회 변동의 양상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다룬다. 이 시기에는 사회 변동 속에서 정치 운영의 변화, 문화의 변동이 있었음을 이해한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학자들의 사회 개혁 방안이 제기되었으며,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났음을 설명한다.
① 조선 후기 정치 운영의 변화를 탕평 정치와 붕당 정치를 중심으로 이해한다.
②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제기한 사회 개혁 방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학의 성격과 의의에 대해 파악한다.
③ 조선 후기 문화 변동의 배경을 파악하고, 문화 변동의 양상을 문학과 그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④ 세도 정치 시기의 농민 봉기가 지니는 의미를 대표적 사례를 통해서 파악한다.

Ⅶ. 통일 제국의 등장

고대 문명의 형성 이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등장한 통일 제국의 정치적 변천과 그 특징을 다룬다. 지역별로 통일 제국이 성립하여 확대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제도의 정비 내용 및 문화적 특징을 이해한다. 아울러 각 지역의 문화 발전이 유교, 불교, 크리스트교 등 세계 종교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파악한다.
① 춘추 · 전국 시대, 진 · 한에 이르는 정치 · 문화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 · 한 제국이 이후 중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② 북인도를 통일한 마우리아 왕조와 분열기를 거쳐 건립된 쿠샨 왕조의 정치적 변천을 이해하고, 불교의 성립과 전파 과정을 탐구한다.
③ 서아시아를 통일한 페르시아의 발전과 쇠퇴 과정을 중앙 집권적인 제도의 정비 과정 및 그리스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며, 페르시아 문화의 특징을 이해한다.
④ 그리스 폴리스로부터 헬레니즘과 로마 제국에 이르는 정치 · 문화적 변화를 이해하고,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발전을 파악한다.

Ⅷ. 지역 세계의 형성과 발전

고대 통일 제국이 해체된 후 동아시아, 인도와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유럽에서 공통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를 기초로 지역 세계가 형성 · 발전하는 과정을 탐구한다. 각 지역 세계의 정치와 문화의 특징을 파악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① 삼국의 분열 이후 수 · 당의 통일 제국에 이르는 정치적 변천과 수 · 당 시대 문화의 성격을 파악한다.
② 동아시아 각지에 공통의 문화 요소가 전파되어 단일한 지역 세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탐구하고, 일본 고대 국가의 발전에 대해 이해한다.
③ 인도(굽타 왕조)와 동남아시아의 정치적 변천과 이슬람 세력의 유입 과정에 대해 탐구한다.
④ 이슬람교의 성립과 주변 지역으로의 전파, 이슬람 제국의 발전에 대해 파악한다.
⑤ 서유럽 세계의 형성과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를 크리스트교와 결부지어 이해한다.

Ⅸ. 전통 사회의 발전과 변모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아시아와 유럽 전통 사회의 모습과 정치적 변화를 다룬다. 송과 몽골 제국, 명 · 청 제

국의 성립이 가져온 아시아 세계의 발전과 변모 양상을 파악한다. 인도와 서아시아에 성립한 이슬람 국가들의 발전과 이슬람 세력이 확대되는 모습을 살펴본다. 신항로 개척으로 인한 유럽의 팽창이 유럽과 비유럽 세계에 가져온 결과를 탐구한다. 아울러 여러 지역 세계 간 문화 교류 양상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를 지니도록 한다.

① 송으로부터 청에 이르는 중국의 정치적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몽골 제국이 동서 교류의 확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② 일본에서 무사 정권이 출현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임진왜란을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모라는 맥락에서 파악한다.
③ 서아시아와 남아시아 이슬람 국가들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파악하고, 이 지역에서 여러 민족과 종교의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이 펼쳐졌음을 살펴본다.
④ 르네상스로 인한 유럽 사회의 변모를 이해하고, 신항로 개척과 대서양 무역의 확대가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세계 양쪽에 미친 변화를 파악한다.
⑤ 서유럽과 동유럽의 절대 왕정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이해한다.

[근대 이후]

Ⅰ.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국권 수호 운동

개항을 전후한 시기부터 일제에 의한 대한 제국의 국권 침탈까지를 다룬다.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과 개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을 파악한다. 일제의 침탈 과정과 이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파악한다.

① 흥선 대원군 집권기의 대내외 정책, 강화도 조약 체결의 대내외적 배경, 개항 이후 개화 정책의 추진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이해한다.
② 갑신정변, 동학 농민 운동, 갑오개혁에서 지향했던 새로운 사회를 구체적 개혁안을 통해서 살펴본다.
③ 독립 협회의 활동, 대한 제국의 성립 과정과 개혁 내용을 파악한다.
④ 개항 이후 신문물이 수용되는 배경과 과정을 이해하며, 수용의 양상을 교육, 언론, 문예 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⑤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의 흐름을 설명하고, 특히 일제에 의해 독도가 불법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파악한다.

Ⅱ. 민족 운동의 전개

대한 제국의 국권 상실 이후부터 8 · 15 광복 직전까지를 다룬다. 일제 강점기 일제의 통치 정책을 파악하고, 이에 맞서 광범위하게 전개된 민족 운동의 흐름을 파악한다.

① 3 · 1 운동이 일어난 배경과 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안다.
② 3 · 1 운동 이후 일제 통치 정책의 변화와 1920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의 다양한 흐름을 이해한다.
③ 만주 침략 이후 일제 통치 정책의 변화와 1930~40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때의 민족 운동이 광복과 연관됨을 이해한다.
④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맞선 우리 민족의 다양한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을 설명한다.

Ⅲ. 대한민국의 발전

8 · 15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발전 과정을 다룬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경제 성장,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음을 이해한다. 주변국과의 영토 문제와 역사 갈등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

① 광복과 미 · 소의 분할 점령,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분단과 6 · 25 전쟁을 국내외 정세와 관련지어 파악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3 · 1 독립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음을 이해한다.
② 4 · 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경제 성장, 대중문화의 발달과 국제 교류의 확대를 설명한다.
③ 1970년대 이후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었음을 파악하고, 북한 사회의 변화와 오늘날 북한의 실상을 이해한다.
④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변 국가와의 역사 갈등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찾아본다.

Ⅳ. 산업 사회와 국민 국가의 형성

산업 혁명과 시민 혁명으로 인한 서양 근대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다룬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 혁명이 자본주의의 발달과 산업 사회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파악한다.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시민 혁명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국민 국가 체제를 성립시켰음을

이해한다.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의 국민 국가들이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 원인과 과정을 탐구하고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①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 혁명으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확립되었음을 이해하고 산업 혁명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탐구한다.

② 프랑스 혁명의 배경과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나폴레옹 전쟁과 빈 체제의 수립으로 유럽의 국제 질서가 새롭게 편성되었음을 파악한다.

③ 미국 혁명의 배경과 과정, 국가 수립 이후의 성장을 살펴보고, 19세기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독립 양상과 라틴아메리카의 변화를 파악한다.

④ 빈 체제 이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되었음을 알고, 19세기 유럽을 국민 국가 체제의 성립이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이해한다.

⑤ 국민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산업화와 제국주의 등장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제국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한다.

Ⅴ. 아시아 · 아프리카 세계의 변화와 민족 운동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아시아 · 아프리카 인들의 투쟁과 근대적 국가 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개혁 운동을 이해한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 서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나타난 제국주의의 침략상과 변혁 운동의 전개 과정을 탐구한다.

① 제1, 2차 아편 전쟁과 태평천국 운동, 양무와 변법, 의화단 운동과 신해혁명 등의 전개 과정과 성격을 파악한다.

② 일본이 문호 개방 이후 메이지 유신과 천황제 국가의 확립을 거쳐 제국주의 국가로 변화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③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저항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을 이해한다.

④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전개된 개혁 운동과 민족 운동에 대해 파악한다.

Ⅵ. 현대 세계의 전개

세계 대전과 냉전을 중심으로 현대 세계의 전개 과정을 다룬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의 원인과 결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해한다. 아시아 ·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과 독립 이후의 노력을 살펴보고, 사회주의권의 추이와 냉전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1945년 이후 세계사의 흐름을 파악한다.

① 제1차 세계 대전의 배경과 전개 과정 및 전쟁의 특징을 알고, 러시아 혁명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②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아시아에서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하고 민주주의가 확대되었음을 설명한다.

③ 제2차 세계 대전의 배경을 경제 공황과 파시즘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유럽과 아시아의 제2차 세계 대전 전개 과정과 전쟁 중 국제 평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있었음을 설명한다.

④ 1945년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많은 독립 국가가 탄생하고 중국과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되었으며, 미국과 소련의 냉전으로 한국과 독일이 분단되었음을 파악한다.

⑤ 사회주의 정권이 해체된 후 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이해하고, 냉전이 종식된 현재에도 종교나 민족의 차이에 따른 국지적인 갈등과 전쟁이 존재함을 알고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⑤ 내용 조직의 방법

- **연대기적 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역사적 사실을 일어난 순서에 따라 조직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각 나라나 민족의 발달 과정이나 흐름을 파악하고, 중요한 사건이나 제도, 사상 등의 변천 과정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연대기적 방법으로 내용을 조직하면 학습자의 시간 개념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변화와 계속성을 파악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역사 사건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인 수준에서 그칠 우려가 높으며, 역사 사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 **분야사적 방법**: 특정 분야의 발달 과정을 순서대로 탐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다.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와 같은 분류사로 내용을 조직하면 학습자의 관심을 특정 분야에 집중시키면서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직접적이고 친밀한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에 용이하며 쉽고 재미있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반면 특정 분야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시대 전체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 **문화권적 방법**: 일정한 문화권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지역적인 요소보다는 역사적 · 문화적 요소를 강조한다. 문화권적 방법은 공통된 문화를 내용 조직의

기반으로 삼기 때문에 산만하게 배치되어 있는 개별 사실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문화권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 역사를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하지만 광범한 지역의 문화를 한꺼번에 묶기 때문에 문화권 내의 여러 민족과 국가의 특수한 발전이나 성격을 무시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⑥ 교수 · 학습 자료의 의미와 선정

(가) 교수 · 학습 자료의 개념과 성격

교수 · 학습 자료(교재)는 교수 · 학습 활동 과정 속에서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 교재를 사용할 때에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도하여 효과적인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이에 따른 다각적인 학습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교재에는 학습자에게 제시될 학습 내용이 담겨 있으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사의 수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교재는 수업 목표를 구현하는 수단이자 교수 · 학습 방법을 선정하고 평가하는 데 참고할 기준이 된다. 학습자는 교재를 통하여 역사의 내용을 접하게 되고, 교재에 담긴 자료를 탐구함으로써 지식과 정보를 추출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나) 교수 · 학습 자료의 선정

역사 학습의 교재로 사용할 자료는 매우 다양하다. 여러 자료 가운데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선수 학습의 정도, 흥미와 능력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교재를 선정할 때에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부합하는지, 학습 내용에 적합한 자료인지, 학습자 수준에 맞는 난이도인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료의 내용이 오류와 편견에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학습 환경에 적절한 자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료를 구입하거나 제작할 때 소비되는 비용이 학습의 효용성에 비추어볼 때 경제적인 것인지도 교재 선정의 기준이 된다.

⑦ 교수 · 학습 자료의 종류

역사 수업에서 주로 활용되는 교재는 교과서를 비롯한 인쇄물 형태의 문자 자료와 사진, 슬라이드, 필름 등 비(非)문자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또는 과거의 직접적인 유물과 유적, 기록물, 문서 등의 1차 자료와 후대 사람들이 과거를 해석하여 제시한 각종 문헌 등 2차 자료로 나뉘기도 한다.

(가) 교과서

가장 기본적인 역사 교재이다. 교과서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구조화한 것이다. 교사는 교과서를 통해 체계적인 역사 지식의 이해 및 역사적 태도와 관점을 기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때 교과서가 학습해야 할 절대적 수업 도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교과서 이외의 자료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신의 수업 목적에 따라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나) 시각 자료

교과서 이외에 여러 가지 그림, 지도, 사료, 탐구 문제 등을 학습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각 자료를 이용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적극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또한 과거를 보다 실감나고 가깝게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이 되어 학습자의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역사 지식의 기억과 전이를 도울 수 있다.

- **역사 지도**: 역사 지도는 과거 역사적 사실의 위치와 분포를 비롯하여 역사적 사건의 변천 과정, 역사적 상황에 영향을 주는 사회 · 경제적 요인 등의 인문적 조건이 표시된 지도이다. 역사 지도에는 단편적인 역사 사실을 지리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도와 역사의 시간적 변화를 계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도, 역사적 사실의 해석에 유용한 지도 등이 있다. 역사 지도는 같은 시대 여러 지역의 공간을 비교하여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며, 입체적인 역사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역사적 상황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이동하는가에 대한 상상적 이해를 유도하기도 한다.
- **연표**: 연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사의 전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역사 연표를 활용하면 역사적 사실의 횡적인 연관성 및 인과 관계를 추출하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으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실의 의미와 맥락적 관계를 읽을 수 있다. 실제 수업에서 연표는 대부분 한 단원이나 주제, 시대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전에 개괄적인 흐름을 보여주거나 단원을 정리하는 데 사용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학습자 스스로 연표를 제작하는 과정을 거치면 한 단원을 마무리하는 수업이 가능하다. 연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시간 동안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사실들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업을 종합하거나 정리하는 단계에서 유용하다.

• **사진 · 그림**: 사진 · 그림은 학습자의 역사적 상상력과 흥미를 자극하고, 역사 지식의 기억과 전이를 도우며 역사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한다. 사진 · 그림은 학습자의 역사적 사고와 유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습 과제와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수많은 사진 · 그림 자료 가운데 중요하거나 수업 목적에 유용하고, 학습자의 역사 이해 수준에 적합한 자료를 선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각종 유물과 유적 등을 슬라이드 필름으로 보여줄 때에는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사의 설명과 해석이 중요하다.

(다) 사료

사료는 역사 연구의 기본 자료로서 과거의 기록에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내용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는 곧 학습자 스스로 역사가의 연구 과정을 경험해 보게 하는 것을 뜻한다. 사료를 교수 · 학습에 활용할 때에는 학습자 수준에 맞게 재편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어나 한자어는 현재의 언어로 바꾸고, 사료에 등장하는 용어나 제도, 인물, 사건 등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사료를 활용한 수업은 과거의 기록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을 추출하고 그에 대하여 해석함으로써 당시의 사회상을 재구성하며,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학습 방법이다. 사료 학습은 학습자의 사고력과 탐구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유용하다. 학습자는 사료 학습을 통해 사실과 견해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사료에 기술된 내용과 후대 역사가들이 해석한 내용을 구분하고, 여러 사료를 비교하여 사료에 기록된 내용이라도 왜곡되거나 과장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증거가 부족하면 과거에 대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역사는 계속해서 다시 쓰인다는 점을 알게 된다.

(라) 문학 작품과 시사 자료

• **문학 작품**: 문학 작품은 현재 역사 수업에서 자주 활용되는 자료는 아니지만 역사를 보다 생생하게 느끼고 상상하게 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과거에 만들어진 문학 작품은 학습자의 감정이입과 공감적 이해를 북돋는 사료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을 역사 수업을 활용할 때에는 문학 작품의 내용을 학습자가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쓰인 작품도 많지만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지어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야 한다. 역사 교재로서 문학 작품을 선정할 때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것을 고르고 허구적인 내용이 지나치게 많이 담긴 것은 배제한다. 그리고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기와 작품에 등장하는 사건 ·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 학습을 하여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 **시사 자료**: 신문에 게재된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사고와 정보 처리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수업을 신문 활용 수업(NIE)라고 한다. 역사를 소재로 작성된 사설이나 기고문, 최근 역사 연구 동향이나 추세를 소개하는 기사 등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문뿐만 아니라 잡지나 과거의 상황을 가상으로 하여 기사 형태로 만든 역사 신문도 활용이 가능하다. 시사 자료를 역사 수업의 자료로 활용할 때, 교사는 자료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분석 · 평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자료의 내용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며, 내용에 담긴 해석에 대하여 학습자 스스로 비평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영상 자료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영화 등 영상 자료를 활용하면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교수 · 학습 활동에 생동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영상 자료를 통해 간접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역사가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복합적 산물임을 학습자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 교사는 영상 자료를 수업에 활용할 때 작품에 내재된 관점을 정리하고, 내용이 역사적 자료로 객관적인지 평가 · 토론하여 상반된 역사 해석의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영상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사극이나 영화에 담긴 역사적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함으로써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한다.

(바) 박물관

박물관은 인류와 자연에 관한 모든 유형의 물적 증거 자료로서 교육적 ·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유물과 표본들을 수집, 보존 ·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을 대하기 어려운 역사 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교사는 지역 박물관을 견학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자기 지역사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학습자로 하여금 박물관의 전시 유물을 자세

히 관찰하거나 묘사하게 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

(사) 컴퓨터 자료

다양한 유형과 수준을 가진 컴퓨터 자료는 학습자가 보고, 듣고, 느낌으로써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다.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다양하고 생생한 그림 및 동영상을 통해 역사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내며, 교과서나 교사의 강의에 전부 담을 수 없는 풍부한 역사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하고 심화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컴퓨터 자료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언제나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교수 · 학습 방법

① 교수 · 학습 계획의 수립

(가) 교육과정의 고려

교수 · 학습 계획을 세울 때에는 교육과정 상의 목표와 내용을 확인하여 학습자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역사적 사고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목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체계, 영역 및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그리고 학습 내용은 각 영역별 특성을 살려 학습 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선정하되, 영역별 내용 간의 관련성, 학년군별 내용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역사 수업은 학습자의 역사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역사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체계와 영역,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수 · 학습 자료를 개발한다. 그리고 학습 과제의 성격, 과제 해결을 위한 기본 절차와 방법, 사전 지식의 활용, 학습 활동, 피드백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한다. 수업의 단계, 활동, 자료 등을 조직할 때에는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주어진 역사 지식을 수동적으로 학습하게 하기보다는 학습자가 학습 주제를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조화하여 설계한다.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학습 경험은 난이도와 통합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수업을 계획하여 학습자 스스로 역사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여 개개인이 구성한 지식에 대해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학습자의 흥미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다양하게 구조화하여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나) 학습자 고려

교수 · 학습 계획을 세울 때에는 학습자의 학습 준비 정도나 성취 기준 도달 정도를 파악하고, 개인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습자의 개인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학교의 실정, 학습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수업 시간이나 방과 후 교육 활동 등을 활용한다.

학습 과제는 개인차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학습자의 학습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학습 목표와 학습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학습자의 개별 수준이나 흥미, 관심 등을 고려하며, 학습 과제를 제공하는 시기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염두에 두고 교수 · 학습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수 · 학습 활동과 평가 자료를 개발하여야 한다. 학습자의 관심, 흥미, 선행 학습 경험, 학습 준비도, 학업 성취 수준 등을 파악하여 자료를 개발하며, 교수 ·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문헌 자료, 지도, 연표,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역사 교재를 활용하여 학습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며,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자료를 개발하도록 한다.

② 수업 설계

수업 설계란 효율적인 교수 · 학습을 위하여 수업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조직하는 것이다. 수업 체제는 교사의 의도와 관심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며, 수업의 전개 과정에서 끊임없이 재설계된다. 수업 설계는 수업 과정안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수업 과정안은 하나의 주제나 단원의 학습을 위한 시수 계획에 따라 단위 수업의 전개 과정을 작성한 것이다. 이는 대체로 계획, 진단, 지도, 발전, 평가의 단계로 구체화된다. 수업 설계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의 목표와 내용을 모두 중시하는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 역사 수업은 대부분 내용과 범위가 먼저 결정되고, 그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수업 방법을 구상하는 내용 중심의 수업 설계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수업 목표와 목적

을 구상하고 이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수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 실제 수업 현장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를 미리 계획하고 예측하여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수업의 절차와 방법은 학습자의 특성과 수업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상하는 것이 좋다.

셋째, 교사의 입장에서 수립하는 수업 설계뿐만 아니라 학습자 입장의 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와 계획도 필요하다. 수업 설계의 교사의 수업 목표와 내용 전달은 물론, 학습자의 사전 지식, 흥미, 능력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대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즉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어떻게 자극하고 그들의 관심과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학습 목표와 교수 · 학습 활동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전통적인 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과서 진도 위주의 강의식 수업 방법에 지나치게 의존하였기 때문에 역사 수업이 무미건조한 암기식 수업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의 배경, 의의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 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수 · 학습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③ 교수 · 학습 방법의 선정과 점검

(가) 학습자의 수업 참여와 역사적 사고력 함양 도모

교수 · 학습 활동은 학습자의 수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역사 경험을 통해 역사적 사고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첫째,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 학습자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과제를 제시하여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둘째, 학습 목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수 활동과 학습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셋째, 개별적 역사 사실의 나열적 암기를 지양하고, 주요한 역사 사실에 대한 인과 관계를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넷째, 역사 학습 내용과 연계하여 박물관 탐방, 지역의 역사 현장 탐방 등의 체험 기회를 갖도록 한다.

다섯째, 학습자에게 학습 활동에 대한 점검 기회를 제공하여 반성적 성찰이 가능한 학습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학습 목표와 내용을 고려하여 강의법, 문제 중심 해결법, 창의성 계발 학습법, 탐구 학습법, 현장 체험 학습법, 개별화 학습법, 정보 통신 기술(ICT) 활용 학습법, 토의 · 토론 학습법, 협동 학습법 등 다양한 교수 · 학습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이때 극화 학습, 제작 학습, 추체험 학습 등을 통해 역사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와 내적 동기를 유발하고, 사료 및 사진 자료, 도표, 연표와 역사 지도,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생동감 있고 재미있는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학생들의 탐구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학습 내용에 따라 사료 학습, 주제 학습, 인물 학습, 탐구 학습, 토론 학습, 정보 통신 기술(ICT) 활용 학습, 협동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교수 · 학습 모형을 활용하고,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토론, 발표, 논술,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을 연계하여 지도한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 요구되는 정보 처리와 활용 능력 신장을 위해 신문 활용 교육(NIE), 인터넷 활용 교육(IIE), 이러닝(E-Learning) 교육,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학습자의 개인차 고려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 · 학습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수업 내용을 순차적으로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기보다는 교사의 교과 전문성을 살려 주제의 순차를 조정하거나 몇 개의 주제를 합하여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 또는 하나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방안을 고려한다. 그리고 자기 지역과 관련된 지역의 역사를 배울 때에는 지역의 인물을 선정하거나 일화를 발굴하여 가르치는 등 교사의 관점과 학생의 수준 · 흥미 등을 고려하여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수업 시간 중에 학습자의 반응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며,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고 보충 또는 심화할 수 있는 학습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증대하도록 한다. 그리고 차시 수업의 학습 목표와 관련된 학습 과제를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선수 학습 정도에 따른 개인차를 줄여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교사는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인차를 고려한 소집단을 구성하여 교수 · 학습을 전개하도록 한다.

④ 교수 · 학습 활동 유형

(가) 강의식

- **개념과 특징**: 강의식 수업은 교사가 학습자에게 역사적 개념, 인물, 제도, 사건 등을 말로 설명하여 전달하는 방식이다. 강의는 어떤 특정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고자 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다. 단순한 지식을 전달할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과 상황이 복잡하게 연결된 역사 지식을 이해시키는 데에도 교사의 일목요연한 정리와 설명은 유용하다.

  강의식 수업은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교사가 역사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논리적인 설명 능력을 갖추고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이야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강의식 수업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 **문제점**: 강의식 수업은 무조건적인 암기, 반복을 통하여 단순히 역사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방법으로 비판받아 왔다. 역사에 대한 이해에 앞서 단편적인 사실만을 나열하거나 어려운 용어로 학습자가 이해할 수 없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의식 수업은 교과서의 역사 해석을 역사를 보는 유일한 관점으로 인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 **활용 방안**: 강의식 수업을 할 때 문답법을 병행하면 수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강의식 수업이 원활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강의의 목적이 분명한지, 내용이 잘 조직되어 있는지, 교사의 설명 방식이 능숙한지,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친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강의식은 자칫 지루해지기 쉬우므로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가 목소리와 표정, 유머 등을 적절히 사용하거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거나 서로 상반되는 흥미로운 주장을 대비하여 설명하는 등 강의 내용 자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유용하다. 또 각 사실들 간의 관계를 연결하여 제시하는 연상이나 암기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학습자가 강의 내용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 기회를 주도록 해야 한다. 교사의 강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는 보조 학습 자료를 활용하거나 학습자 간 토론 활동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문답식

- **개념과 특징**: 문답식 수업은 원래 교사가 학생의 사고를 이끌어 주는 방식을 말하는데, 대개 학교 수업에서는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발문과 응답이라는 대화식 수업 방법을 가리킨다.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역사적 사실, 개념, 현상에 대한 자신의 기존 인식과 지각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역사적 지식과 사고, 태도를 보다 분명히 하도록 한다.
- **발문의 유형과 기능**: 교사가 발문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기 위함이다. 학습자의 사고는 단순한 암기나 이해에서부터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능력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합적이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사고 수준과 폭에 따라서 발문의 유형이 달라져야 한다.

  제한형 발문은 학습자가 즉각적인 추측이나 기억에 의해 답변을 할 수 있는 단순한 질문으로, 학습자의 단순 기억을 요구하는 단답형 질문이다. 확장형 발문은 다양한 응답을 요구하거나 학습자로 하여금 추론, 분석 등의 폭넓은 사고를 유도하는 질문이다. 확장형 발문은 학습자의 확산적 사고나 평가적 사고를 가능하게 해 준다.
- **수업에서의 발문 양상과 활용 방안**: 실제 수업에서 교사의 발문은 다양한 형태가 혼합되어 이루어진다. 강의식 수업에서의 발문은 대부분 설명을 매끄럽게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학습자의 적절한 응답이나 사고 활동에 대하여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토론식이나 탐구식 수업에서는 확장형 질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질문의 내용도 비교, 대조, 분류, 예시 등을 유도하는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문답식 수업에서 바람직한 발문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연령과 능력에 적합한 간결하고 쉬운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며, 애매하고 일반적인 물음은 피한다. 질문은 학습자의 활발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되, 추궁하는 듯한 질문은 자제한다. 중요한 질문은 사전에 준비하고 정리하여 충동적이고 일시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하며, 질문을 한 후에는 학습자로 하여금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준다. 질문은 학습자의 지적 능력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하여 학습자의 사고와 도전 의식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가 틀린 답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학습자에게 기회를 주거나 같은 학습자에게 다른 표현을 써서 다시 물어 보는 확인 질문을 한다. 학습자의 반응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하고 격려와 칭찬을 한다.

(다) 탐구식

- **개념과 특징**: 탐구식 수업은 학습자가 특정 주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는 학습 활동이다. 이 방식은 학습 내용과 방법을 교사에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전개하는 발견학습의 형태를 띤다. 탐구식 수업에서는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사실의 의미를 해석하고 내면화하도록 한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탐구 수행에 필요한 요소들을 안내하여 학습자가 학습 방향을 결정하고 자료를 조사하며 검토할 수 있게 한다.
- **탐구식 수업의 절차**



- **교사의 역할**: 학습자의 발달이나 능력에 따라 탐구의 수준은 달라진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의 사전 지식 정도를 확인하여 수준에 맞는 과제를 개발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자가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탐구 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는 학습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안내하고 자극해야 하며, 탐구의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자유롭고 주체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를 유도하고 함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사는 미리 학습자의 역사적 관심과 태도, 사고의 흐름을 예상하고 계획적인 질문을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학습자의 사고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에 적절하게 도움을 주도록 한다. 학습자의 질문이나 반응을 통해 학습자의 사고 활동을 기록하여 추후 학생 지도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토론식

- **개념과 특징**: 토론식 수업은 어떤 주제에 대한 논쟁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 내거나 상반된 관점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이다. 토론식 수업은 학습자 간의 원활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학습자끼리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능력과 자질을 겨루는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협동과 경쟁의 원리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토론식 수업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식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주체적인 참여와 노력에 의해 전개되어야 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정보와 의견을 검증하는 기회를 갖고, 자아의식과 사회성, 자신과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토론식 수업은 학습자의 문제 해결 능력, 합리적 사고 능력, 추리 능력을 기르는 데 유용하다. 학습자는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간결하고 논리적이며 정확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토론식 수업은 논란이 되는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효과적이며, 학습자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학습자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을 확실하게 하여 학습의 내면화에 기여하며, 토론의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교사의 역할**: 교사는 토론식 수업에 앞서 학습자에게 토론 전개 요령이나 토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먼저 안내하는 것이 좋다. 교사는 여러 소집단의 토론 과정을 관찰하고 평가하며, 토론에 필요한 적절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토론 도중 학습자들 사이에 감정 대립이 일어나거나 특정 학생에게 발언이 독점될 때에는 적절히 개입하여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한다. 토론이 끝나면 소집단별 토론 내용을 전체 학습자에게 발표하게 한 후 의견을 모으거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도 있다.

(마) 역할극

- **개념과 특징**: 역할극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행동 결정을 추체험해 보는 과정이다. 역할극은 학습자의 역사적 태도와 역사의식을 자극하고 점검해 보게 하며, 역사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수업 방식이다. 또한 역사적 문제 상황을 재연하여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은 학습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 **유의 사항**: 역할극은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빠질 우려가 있고, 무거운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힘들다. 또한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교사는 역할극 실시에 앞서 수업 주제를 선정할 때 신중해야 하며, 수업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 학습자들의 연기가 끝난 후에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바) 시뮬레이션

- **개념과 특징**: 시뮬레이션은 실제 상황과 유사한 학습 환경이나 이에 토대를 둔 학습 활동을 가리킨다. 시뮬레이션 학습은 실제 상황을 단순화하여 경험하는 측면이 강하다. 역사 수업에서 시뮬레이션은 실제의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상황을 설정하며, 학습자들은 그 상황에 참여하였던 역사적 인물의 입장에서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시뮬레이션 학습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인식하고 이해하게 된다. 또한 역사적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상황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뚜렷하게 기억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뮬레이션은 학습자 간의 협력을 높이고, 상황 분석 능력, 의사 결정 능력 등 여러 기능을 발달시키는 데 유용하다.
- **수업 절차**: 시뮬레이션 학습은 일반적으로 '도입 → 참여자 훈련 → 모의 학습 운영 → 참여자의 결과 보고' 단계를 거친다. 도입 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에서 다룰 역사적 상황을 선택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단순화하여 학습 상황으로 설정한다. 참여자 훈련 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의 형태와 규칙, 과정을 정하고, 상황을 분석하여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인물을 선정한 후 역할을 분배한다. 모의 학습 운영은 실제로 시뮬레이션이 전개되는 단계이다. 학습자가 상황에 맞추어 연기를 하고, 교사는 시뮬레이션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조정하고 관리한다. 모의 학습이 끝나면 참여자 결과 보고 단계를 거친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깨달은 것, 주어진 상황에서 느꼈던 어려움이나 갈등 등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교사는 이러한 경험들을 교과나 학습 내용과 연결시킬 방안을 모색한다.

(사) 제작 학습

역사 수업에서는 만들기, 그리기, 스크랩북 제작, 독후감 쓰기, 논설문 쓰기, 답사 보고서 작성 등 매우 다양한 제작 활동이 가능하다. 역사는 추체험 방식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교과서나 문헌 자료 등의 평면적인 수업 자료로는 추체험을 통한 역사 이해를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제작 학습이 필요하다.

만들기와 그리기는 미술 활동을 역사 수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떤석기나 토기, 고분 벽화 등을 직접 만들거나 그림으로써 대상을 집중적으로 관찰하여 특성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답사 보고서 작성은 박물관이나 유적지를 답사하거나 견학한 후에 그 과정과 의미를 글로 정리하는 활동이다. 단순히 유적이나 유물의 특징을 나열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제작 배경이나 역사적 의의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스크랩북 제작은 학습자 자신이 관심을 가진 사건, 시대, 인물, 주제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일종의 참고 자료집을 만드는 것이다. 이때 단순히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활동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과제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독후감이나 논설문 쓰기는 역사와 관련된 책을 읽거나 하나의 주제 또는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글로 정리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역사의식과 논리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다. 한편 과거 시대를 배경으로 역사 소설이나 수필, 일기 등을 직접 창작하게 하여 배경이 되는 시대와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 지식을 갖추게 할 수 있다. 중요한 시대나 주제를 정하여 역사 신문을 만드는 것도 유용하다. 시기를 결정하고 중요한 사건들을 비중에 따라 선정하여 기사로 작성함으로써 학습자는 과거의 시대와 사건, 인물로 시간 여행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⑤ 교수 · 학습 과정안의 작성

교수 · 학습 과정안은 각 단원별 교수 · 학습 절차를 단위 시간별로 미리 계획하여 실제 수업 진행을 원만하게 이끌기 위한 계획안으로, 수업의 목표, 수업 내용, 진행 방법, 교수 · 학습 자료, 평가 방법 등을 계획하여 서술한 것이다. 교사는 교수 · 학습 과정안을 작성함으로써 수업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에 필요한 여러 수업 계획을 마련한다.

교수 · 학습 과정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업 상황을 예측하고 수업의 과정과 방법을 여러 차례 연습해 봄으로써 실제 수업의 전개 과정과 일치시켜야 한다. 하지만 실제 수업은 수업 환경,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의욕, 교사의 수업 준비 정도에 따라 계획과 달리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을 계획할 때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필요한 자료와 수업 환경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업 과정이나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또한 연습을 통하여 시간 분배에 유의해야 하며, 어떻게 학급 질서를 유지하면서 계획된 수업을 진행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6. 평가의 계획과 실시

① 평가의 계획

평가는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이해하고 성취 수준을 높이며 교육 내용과 교수 · 학습 방법의 적절성을 진단하는 마무리 과정이다. 또한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기록이나 자료를 토대로 학습자의 학습을 진단하고 안내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 내용, 교수 · 학습 방법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평가 항목과 성취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어떤 항목의 능력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능력의 함양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평가 항목을 구성하고, 평가 기준은 성취 기준의 내용 기준과 행동 기준을 바탕으로 설정한다. 평가 문항은 개인차의 변별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학생과 사회 집단에 공정성을 갖춘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평가 문항은 객관식 문항과 주관식 문항을 배합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② 평가의 방향과 평가 도구

평가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따라 추출된 요소를 준거로 시행해야 한다. 교사는 평가가 교육의 한 과정임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학습 과정과 성취 수준을 이해하고 발달을 돕는 차원에서 시행해야 하며, 지식 · 이해, 기능, 가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역사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을 근거로 평가하되, 단편적인 역사 지식의 암기를 요구하는 데에서 벗어나 역사적 사고 기능과 역사에 대한 관심과 태도 영역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내용은 각 영역의 학습 내용에서 균형 있게 선정하되, 학년별 수준과 범위를 고려한다.

평가 도구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를 갖추어야 한다. 타당도는 평가 도구가 얼마나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평가 도구가 측정하려고 의도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신뢰도는 얼마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하는지, 측정하고 있는 정도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가리킨다.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이와 비례하여 낮아진다. 객관도는 채점자가 얼마나 주관적 오차 없이 믿을 만하고 일관성 있게 평가하고 있느냐를 뜻한다. 채점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그 평가 도구는 객관도가 낮은 것이다. 또한 한 명의 평가자가 시간 간격을 두거나 상황을 달리하여 평가했을 때 같은 대상에 대해 다른 평가 결과가 나오는 것 역시 객관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 도구 및 기준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만들고, 평가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합리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③ 평가의 유형과 방법

(가) 평가의 유형

평가는 접근 방법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가 내용에 따라서 역사 지식의 이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식 평가, 역사적 태도와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가치 평가, 역사적 사고 능력 및 탐구 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기능 평가로 나뉜다. 한편 상대 평가와 절대 평가로 구분하기도 한다. 상대 평가는 학습자의 학업 성취 결과의 상대적 서열이나 비교를 중시하는 측면이 강하다. 상대 평가를 규범 지향 평가라고도 하는데, 이는 학습자의 성적 수준을 집단의 기준에 비추어 보기 때문이다. 교육 목표의 달성 여부보다 학습자를 분류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절대 평가는 교육에서 의도했던 교수 목표의 달성 여부에 일차적인 관심을 둔다. 절대 평가는 교육 목표의 달성 여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목표 지향 평가라고도 한다. 학습자가 '얼마나 성취했느냐' 보다는 '무엇을 성취했느냐' 에 더 관심을 갖는다. 절대 평가는 학습자의 성취를 확인하여 해석하고 그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전 과정이 항상 교육 목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나) 투입 시기에 따른 평가 방법

평가는 투입되는 시점에 따라서 학습을 하기 전에 학생들의 역사적 기능과 태도의 사전 성취도를 측정하는 진단 평가(사전 평가), 학습 과정 중에 학습자의 수업 내용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형성 평가, 일련의 학습 과제나 독립된 교수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학습자의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총괄 평가로 나눌 수 있다.

- **진단 평가**: 진단 평가는 수업의 출발점에서 학습자의 초기 학습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다. 진단 평가의 실시 목적은 학습자의 사전 학습 정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하여 수업에 도움을 받고 교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다. 진단 평가는 계획된 학습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학습에 대한 준비도, 즉 지식과 기능을 학습자가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형식으로 실시된다. 한편 해당 수업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 적성, 기능과 같은 특성을 판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진단 평가의 결과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교수 전략을 탐색하는 데 활용된다.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학습자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면 학습자의 선행 지식 등에 비추어 적절한 학습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교사는 진단 평가의 결과를 보고 학습자에게 어떤 수준의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지, 어떤 교수 방법이 적합할지를 결정한다. 진단 평가는 수업의 전개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학업 성취에 실패하는 원인을 발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 **형성 평가**: 교사는 수업 중에 학습자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거나 과제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답변을 유도한다. 또는 수업을 끝내기 직전에 해당 차시 수업에서 다루었던 학습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평가 문항을 풀어 보게 한다. 이와 같이 학습의 과정에서 실시되는 모든 형태의 평가를 형성 평가라고 한다. 대부분의 형성 평가는 성적을 산출할 목적이 아니라 학습자가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형성 평가는 교수 · 학습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학습자의 학업 성취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 과정을 개선하는 데 활용된다. 형성 평가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학업 성취를 격려하여 학습 동기를 강화하고,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학습 방법 및 절차를 교정 · 보완할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형성 평가가 최종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형성 평가는 한 단위의 학습 과제가 끝나고 새로운 수업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부과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형성 평가를 통해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겪는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교정해 주어야 한다. 형성 평가의 결과는 학습자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활용되지만, 교사의 수업 방법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한다. 교사는 형성 평가의 각 문항에 반응한 오류를 분석하여 그 원인이 교수 방법의 착오에 있는지를 검토하고, 다른 예시를 사용하거나 보조 교재를 투입하는 등 다른 교수 방법을 모색하여 교수 과정 및 학습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 **총괄 평가**: 총괄 평가는 일련의 학습 과제나 독립된 교수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학습자의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총괄 평가는 교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의도하고 계획했던 교육 목표를 학습자가 얼마나 성취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 목표를 기준으로 학업 성취를 얼마나 충실하고 타당하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평가 도구의 가치가 결정된다. 총괄 평가는 형성 평가와 비슷하거나 같은 평가 도구가 사용될 수도 있다. 총괄 평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수 목표의 수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난이도의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평가 문항을 단답형, 선다형, 서술형 등 다양하게 개발하고, 보고서 형식 등의 글쓰기 평가도 필요하다. 총괄 평가의 용도는 학습자의 성적을 서열화하기보다는 학습 과제의 성취 정도를 확인하여 교수 · 학습에 활용하는 것에 있다. 또한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여 학습 동기를 자극하고 피드백을 받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 형태에 따른 평가 방법

역사 학습에서 평가 방법은 형태에 따라 크게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지필 평가는 학습자가 종이에 답을 써서 역사 지식의 습득 정도나 자신의 역사적 사고를 표현하고 이를 통해 교사가 학습자의 학업 성취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지필 평가는 크게 선택형 평가와 서술형 평가로 나눌 수 있다.

[지필 평가]

- **선택형 평가**: 선택형 평가는 진위형, 배합형, 선다형 등으로 나뉜다. 선택형 문항은 객관성과 신뢰성, 내용 타당도가 높으며 형식이 비교적 단순하다. 또한 제작이 용이하고 채점과 통계 분석이 쉽다. 그러나 학습한 내용을 골고루 표본하려면 문항 수가 많아야 하며, 자칫 단순한 암기력 측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 또한 선택형 평가 문항은 주어진 답에서 정답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추측 요인에 의해 정답을 맞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와 상상력을 표현할 기회에 제약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역사적 사실을 추론하게 하는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 선택형 문항은 역사적 사고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기는 어렵지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여러 형태의 평가 문항을 제시하면 다양한 역사적

사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서술형 평가**: 서술형 평가는 역사적 분석력, 판단력 등 학습자의 종합적인 역사적 사고를 평가하는 데 적절하다.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의 개념과 원인, 결과를 묻거나, 상황 분석, 관계 진술, 사실의 분류, 문제 제기 등을 내용으로 평가 문항을 개발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는 선택형보다 출제를 위한 준비가 용이하며 학습자의 태도, 가치관 등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때 유용하다. 서술형 평가 문항을 개발할 때에는 학습자의 사고 발달 수준에 적절한 문항을 구성해야 하며, 지식 외에 비판력, 분석력, 응용력 등의 사고 기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응답의 범위나 정도를 적절히 제한해야 하며, 학습자가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무엇을 묻고 있는지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다. 교사는 서술형 평가의 평가 기준을 미리 제시하여 학습자가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서술형 평가는 역사 해석 능력이나 사고력 등 고차적인 사고 기능을 측정하는 데 효과적이고,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좋은 문항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채점의 객관성과 신뢰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학생의 답안을 읽고 채점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의 부담이 크며, 문항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학습 목표를 골고루 표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려면 여러 개의 제한형 평가 문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술형 평가는 평가해야 할 집단의 수가 적고, 문장에 의한 표현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거나, 학습자의 태도나 의견을 측정하고자 할 때, 평가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행 평가]

수행 평가는 본래 평가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해 보는 시험을 의미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 전통적인 평가와 대비되는 새로운 대안적인 평가 방법을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수행 평가는 답에 이르는 사고의 과정을 측정하는 평가이며,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측정하는 평가이다. 즉 수행 평가에서 '수행'이란 문제에 대한 답에 이르는 사고 과정의 수행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수행 평가의 도구는 매우 다양하다. 어떤 평가 도구가 효과적인가는 수행 평가를 통하여 무엇을 측정하려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측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논술이나 서술형 시험, 마인드맵 그리기 등이 유용할 수 있다. 학습 과정이나 활동을 평가하는 데에는 포트폴리오와 같은 방식이 적합하다. 포트폴리오는 학습자 자신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만들거나 수집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아 놓은 작품집을 말한다. 포트폴리오는 개별 학습자가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볼 수 있고, 학습 활동의 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역할극, 극화 학습, 모의재판, 시뮬레이션 게임 등의 방식은 그 자체가 학습 활동이면서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함께 드러내는 수행 평가 방식이기도 하다.

수행 평가는 수업 과정 자체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으며, 학습자의 사고 활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답을 구하는 사고의 과정과 학습 활동 과정을 측정하는 수행 평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습 의욕을 자극하고, 학습 과정과 평가의 연계성,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

수행 평가의 개념이나 성격이 모호한 경향이 있으므로 일부에서는 수행 평가의 방식으로 단순히 서술형의 외양을 갖춘 문항을 만들거나 보고서 형식의 과제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행 평가의 개념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다양한 수행 평가 방식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수업 과정과 평가 대상을 가급적 일치시켜 교사나 학습자가 과중한 부담을 지는 것은 피하도록 해야 한다. 수행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타당도와 신뢰도의 문제이다. 수행 평가의 장점으로는 타당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 꼽힌다. 반면 신뢰도와 객관도 또는 실용도는 수행 평가의 큰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수행 평가는 채점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명의 평가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답안을 분석적으로 채점하는 것이 좋고, 최대한 역사 학습의 수행과 관련된 것을 평가 척도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평가의 활용

평가 결과는 학습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수업 방법을 반성하며 개선할 점을 찾아서 교수 · 학습 과정 및 교수 · 학습 자료, 평가 도구를 수정 · 보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평가 결과의 해석 및 활용은 평가의 실시 못지않게 중요하다. 교사는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성취 수준 이외에 교수 ·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분석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학습자, 동료 교사, 학부모, 교육 관련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역사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하도록 한다.

Ⅲ 교과서와 지도서의 개발 방향 및 구성 체제

1. 교과서의 개발 방향

(1) 역사과에 제시된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성취 기준), 교수 · 학습 방법 및 평가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2) 내용의 수준과 범위는 학생의 흥미와 관심, 발달 단계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으며, 단원의 수, 학습 분량 등을 고려하여 역사 ①은 한국사 6개 단원, 세계사 3개 단원으로 구성하였고, 역사 ②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각각 3개 단원씩 구성하였다.

(3)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내용에 적합한 소재의 생각 열기, 도움 글, 사료 돋보기, 역사적 인물 이야기, 역사 가로지르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탐구 활동을 수록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였다.

(4)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역사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도움 자료와 활동 과제를 제시하여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한국사와 세계사의 비중을 교육과정에 준하여 균형 있게 안배하였으며, 각 문화권별로 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6)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자 교수 · 학습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용 자료(사진, 삽화, 지도, 도표 등)를 제시하였다.

(7) 교수 ·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시하였고, 교과서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많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8) 필수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적절히 안배하여 학습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내용 요소와 위계 체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경제 · 사회사 대신 학생에게 친숙한 정치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화사 요소를 덧붙여 역사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9) 편집 디자인 및 지면 활용은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성하였으며, 가독성을 높여 눈이 편안하도록 구성하였다.

2. 교과서의 구성 체제

(1) **대단원 도입**: 단원을 대표하는 사진과 전체적인 내용 흐름, 주요한 역사적 사실로 구성된 연표를 제시하여 대단원의 학습 내용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소단원별 도입**: 중단원별로 성취해야 할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소단원 시작 부분에 사진, 그림, 지도 등을 활용한 생각 열기를 제시하여 학습 내용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3) **본문**: 내용 이해를 돕는 사진, 지도, 도표, 삽화 등 시각 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하였으며, 보조단에는 역사 개념이나 어려운 용어를 보충 · 설명하여 학생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탐구 활동**: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활동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 스스로 역사적으로 사고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도움 글**: 본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생생한 도움 자료를 시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다.

(6) **사료 돋보기**: 사료와 해설을 제시하여, 역사 자료를 접하고 해석하는 역사 탐구의 한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7) **역사적 인물 이야기**: 학습 내용과 관련된 인물을 선정하여 흥미롭게 역사적 인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역사 가로지르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이루어진 역사적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여 한국사와 세계사를 아울러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깊이 있는 역사**: 다양한 자료와 함께 생각해 보기 활동을 제시하여 심화 학습을 유도하였다.

(10) **걸어서 역사 속으로**: 역사 유적지에 대한 내용을 생생한 사진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역사의 현장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 **대단원 마무리**: 대단원의 학습 내용을 도식화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며,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신문 제작, 글쓰기, 체험 등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대단원 학습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지도서의 개발 방향

(1) 총론에 개정 교육과정 개요와 역사과 교육과정 해설, 교과서 및 지도서의 개발 방향과 구성 체제, 연간 교수 · 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여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역사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격, 목표, 내용 체계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2) 각론에는 단원 개관(단원의 성격과 구조, 단원의 학습 목표, 단원 지도 계획 등)을 제시하고 관련 참고 자료를 안내하여, 학습 지도에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교수 · 학습 안내서 및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교육 내용은 초등학교 사회 및 고등학교 한국사 · 세계사 교과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그 수준과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주요 내용과 접근 방식을 달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교과서와 지도서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교과서 내용에 대한 해설을 상세하게 서술하였으며, 교수 · 학습 방법, 평가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 및 활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4. 지도서 각론의 구성 체제

(1) **대단원 도입**

① 단원의 개관: 해당 단원의 교육적 의의와 전체적인 흐름, 학습 전개의 개요를 제시하였다.

② 단원의 목표: 대단원 수준의 포괄적인 목표를 지식 · 이해, 기능, 가치 · 태도의 영역별로 나누어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③ 단원의 구조와 지도 계획: 중단원, 소단원별 주요 학습 내용과 차시 계획을 표로 제시하여 대단원 지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대단원을 지도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학습 요소와 연계하여 안내하였다.

⑤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대단원 지도에 필요한 참고 서적과 인터넷 사이트를 제시하여 수업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 **중단원 도입**

① 학습 목표: 해당 중단원의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다.

②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별 교수 · 학습 과정안을 표로 제시하여 해당 중단원을 총 몇 시간에 걸쳐 학습하게 되는지 밝혔고, 차시별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및 자료를 제시하여 수업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3) **학습 내용 정리**: 해당 중단원의 핵심 내용을 소단원별로 나누어 요약 정리하여 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교과서 과제 풀이**: 교과서에 제시된 과제와 활동(생각 열기, 탐구 활동, 깊이 있는 역사, 학습 내용 확인하기 등)에 대한 정답과 활동 안내, 예시 답안, 지도상의 유의점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5) **내용 더하기**: 교과서 본문 내용은 물론, 사진 · 지도 · 도표 등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해설하였고, 각종 보충 참고 자료를 제시하여 수업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6) **대단원 마무리 풀이**: '내용 확인하기'의 각 문제에 대한 정답과 다른 각도의 설명을 덧붙였으며, '과제 수행하기'에 대해서는 지도 요령과 예시 답안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대단원 짚고 가기**: 대단원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선다형 문제와 주관식 · 서술형 문제를 실었으며, 그에 대한 정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5. 지도서 활용상의 유의점

(1) 지도서에 제시된 차시별 교수 · 학습 과정안, 과제 풀이 등은 하나의 예시이므로, 학교의 여건에 따라 교사가 창의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특정 단원의 내용을 지도할 때에는 한국사와의 관련성이나 다른 문화권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지도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학습 자료의 활용에 있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교수 · 학습 및 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4) 지도서에 제시한 인터넷 자료는 참고 자료이므로, 교사는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활용하여야 한다.

Ⅳ 연간 교수 · 학습 과정안

다음의 연간 교수 · 학습 과정안은 집중 이수제에 따라 1주당 5시간 수업을 예상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표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므로 학교 실정과 여건에 맞추어 교사가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역사 ①

대단원	중단원 및 주제	차시
Ⅰ.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01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의 목적	1
	02 한반도와 세계 여러 지역의 선사 문화	2
	03 고대 문명의 형성과 발전 문명의 형성, 중국의 고대 문명	3
	인도의 고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4
	이집트 문명, 페니키아와 헤브라이	5
	04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고조선의 성립	6
	고조선의 발전	7
	05 고조선 이후 여러 나라의 발전 여러 나라의 성립	8
	여러 나라의 생활과 풍속	9
Ⅱ. 삼국의 성립과 발전	01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 고구려의 성장	10
	고구려의 발전	11
	02 백제의 건국과 발전 백제의 건국	12
	백제의 중흥 노력	13
	03 신라의 건국과 발전 신라의 건국	14
	신라의 발전	15
	04 가야 연맹의 성립과 발전 가야 연맹의 성립	16
	가야 연맹의 발전	17
	05 삼국과 가야의 문화 및 대외 교류 삼국과 가야의 문화	18
	삼국과 가야의 대외 교류	19
Ⅲ.	01 고구려의 대외 전쟁	20
	02 신라의 삼국 통일	21

대단원	중단원 및 주제	차시
Ⅲ.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03 통일 신라의 발전 통일 국가의 체제 정비	22
	통일 신라의 활발한 대외 교류	23
	04 통일 신라의 문화 사상의 발달	24
	예술의 발달	25
	05 발해의 성립과 발전 발해의 성립과 영토 확장	26
	발해의 문화와 대외 관계	27
	06 신라 말의 사회 혼란과 후삼국의 성립 신라 말의 사회 혼란	28
	새로운 세력의 등장과 후삼국의 성립	29
Ⅳ. 고려의 성립과 변천	01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그 의의 고려의 후삼국 통일	30
	태조의 정책	31
	02 통치 체제의 정비와 대외 관계 통치 체제의 정비	32
	북방 민족과의 관계, 고려의 대외 교류	33
	03 무신 정권과 농민, 천민의 봉기 무신 정권의 성립	34
	농민과 천민의 봉기	35
	04 대몽 항쟁과 반원 자주화 노력 몽골의 침략과 고려의 항쟁, 원의 내정 간섭과 권문세족의 성장	36
	공민왕의 반원 자주화 노력,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	37
	05 불교문화와 귀족 문화 불교와 다양한 사상의 발달	38
	예술과 과학의 발달	39
Ⅴ.	01 조선의 건국과 체제 정비 조선의 건국	40

대단원	중단원 및 주제	차시
Ⅴ. 조선의 성립과 발전	통치 체제의 정비	41
	02 민족 문화의 발달 훈민정음의 창제, 기록 문화의 발달	42
	과학 기술과 예술의 발달	43
	03 사림의 성장과 성리학 질서의 강화 사림의 등장과 사화의 발생	44
	성리학적 질서의 강화	45
	붕당 정치의 시작	46
	04 국제 관계의 변화와 외세의 침략 극복 조선 초기의 국제 관계	47
	임진왜란의 극복	48
	병자호란과 북벌 운동	49
Ⅵ. 조선 사회의 변동	01 조선 후기의 정치 변화 통치 구조의 변화	50
	붕당 정치의 전개와 탕평책	51
	02 사회 변화와 실학의 등장 실학의 발생 배경	52
	실학의 등장	53
	03 조선 후기 문화의 새로운 변화 과학 기술의 발전과 국학 연구	54
	서민 문화 발달과 예술의 새 경향	55
	04 세도 정치와 농민 봉기 사회 모순의 심화와 새로운 종교의 등장	56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	57
Ⅶ. 통일 제국의 등장	01 중국 통일 제국의 형성과 유교의 성립 춘추 · 전국 시대의 사회 변화	58
	진 · 한 통일 제국의 성립	59
	유교 사상과 문화의 발전	60
	02 인도 통일 왕조의 등장과 불교의 발전 마우리아 왕조와 불교의 확산	61
	쿠샨 왕조와 대승 불교의 발전	62
	03 서아시아 통일 제국의 등장과 페르시아 문화 페르시아 제국의 발전	63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	64
	04 고대 지중해 세계와 크리스트교의 성립 고대 그리스의 사회와 문화	65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 로마 공화정의 발전과 쇠퇴	66

대단원	중단원 및 주제	차시
Ⅶ.	로마 제국의 발전과 크리스트교의 성립	67
Ⅷ. 지역 세계의 형성과 발전	01 중국의 재통일과 당 제국의 문화 중국이 분열된 남북조 시대	68
	수 · 당 제국의 중국 재통일, 당 제국의 문화	69
	02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과 발전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70
	일본 고대 국가의 발전	71
	03 인도와 동남아시아 세계의 전개 굽타 왕조와 인도 고전 문화의 확립, 이슬람교의 인도 전파	72
	동남아시아 각국의 성립과 발전	73
	04 이슬람 세계의 형성 이슬람교의 성립과 발전	74
	이슬람의 사회와 문화	75
	05 중세 유럽의 형성과 발전 서유럽 봉건 사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	76
	비잔티움 제국, 크리스트교 문화의 발달	77
	중세 유럽 사회의 변화	78
Ⅸ. 전통 사회의 발전과 변모	01 중국 전통 사회의 발전과 동서 교류 송의 경제 발전과 서민 문화의 발달	79
	몽골 제국과 동서 교류의 확대	80
	명 · 청 제국의 발전과 전통 사회의 성장	81
	02 일본 무사 정권과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모 일본 무사 정권의 출현	82
	에도 막부와 일본의 발전	83
	03 이슬람 국가의 발전과 서아시아 세계 서아시아의 새로운 이슬람 국가	84
	오스만 제국의 성립과 발전	85
	04 이슬람 세계의 확대와 인도 · 동남아시아의 변화 무굴 제국의 발전	86
	동남아시아 세계의 발전	87
	05 유럽 사회의 변모와 절대 왕정의 등장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88
	신항로 개척과 대서양 무역의 확대	89
	유럽의 절대 왕정	90

역사 ②

대단원	중단원 및 주제	차시
Ⅰ.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국권 수호 운동	01 개항과 개화 정책의 추진 흥선 대원군의 개혁과 통상 수교 거부 정책, 강화도 조약과 여러 나라와의 수교	1
	개화 정책의 추진과 갈등	2
	02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동학 농민 운동 갑신정변	3
	동학 농민 운동	4
	갑오개혁	5
	03 독립 협회와 대한 제국 독립 협회	6
	대한 제국과 광무개혁	7
	04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 변화 근대 문물의 수용	8
	근대 문화의 형성	9
	05 국권 수호 운동 일제의 국권 침탈	10
	의병 항쟁, 애국 계몽 운동	11
Ⅱ. 민족 운동의 전개	01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	12
	3·1 운동의 전개	13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과 활동	14
	02 1920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의 전개 문화 통치와 식민지 수탈 정책의 전개, 실력 양성 운동의 전개, 사회 각 계층의 민족 운동	15
	민족 협동 전선 운동, 국외 독립운동의 전개	16
	03 전시 수탈의 강화와 광복을 향한 노력 병참 기지화 정책	17
	더욱 격렬해진 무장 투쟁 운동	18
	광복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19
	04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의 전개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한 저항	20
	문학과 예술 활동	21
Ⅲ. 대한민국의 발전	01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광복과 신탁 통치 문제	22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23
	6·25 전쟁	24

대단원	중단원 및 주제	차시
Ⅲ. 대한민국의 발전	02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자유 민주주의의 성장	25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26
	03 경제의 성장과 문화의 발전 경제의 성장	27
	문화 발전과 국제 교류	28
	04 통일을 위한 노력 북한 사회의 변화	29
	남북 관계와 통일 정책	30
	05 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 중국과의 역사 논란	3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교과서 문제	32
Ⅳ. 산업 사회와 국민 국가의 형성	01 산업 혁명의 전개와 자본주의의 확립 영국 혁명	33
	산업 혁명의 전개, 산업 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	34
	02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 프랑스 혁명	35
	나폴레옹 시대	36
	03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발전 미국의 독립,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37
	남북 전쟁과 미국의 발전	38
	04 근대 국민 국가 체제의 성립 자유주의의 발전	39
	민족주의의 발전과 19세기 문화	40
	05 제국주의의 등장과 식민지 분할 제국주의의 등장	41
	제국주의 열강의 세계 분할	42
Ⅴ. 아시아·아프리카 세계의 변화와 민족 운동	01 중국의 근대적 국가 체제 수립 운동 아편 전쟁과 중국의 문호 개방	43
	태평천국 운동, 양무운동, 변법자강 운동	44
	의화단 운동, 신해혁명과 중화민국의 성립	45
	02 일본의 근대적 국가 체제 형성 일본의 개항과 메이지 유신	46
	일본의 제국주의화	47

대단원	중단원 및 주제	차시
Ⅴ. 아시아·아프리카 세계의 변화와 민족 운동	03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반제국주의 운동 인도의 민족 운동	48
	동남아시아의 반제국주의 운동	49
	04 서아시아의 개혁 운동과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서아시아의 근대 국가 수립 운동	50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51
Ⅵ. 현대 세계의 전개	01 제1차 세계 대전과 러시아 혁명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과 전개	52
	러시아 혁명	53
	02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 베르사유 체제의 유럽	54

대단원	중단원 및 주제	차시
Ⅵ. 현대 세계의 전개	아시아·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55
	03 제2차 세계 대전과 평화를 위한 노력 대공황의 발생과 파시즘의 출현	56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과 전개,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국제 연합의 성립	57
	04 전후 새로운 세계 질서의 전개 냉전 체제의 형성과 전개	58
	아시아·아프리카의 독립 국가 탄생, 제3세계의 성립과 유럽 통합 운동	59
	05 현대 세계의 변화와 과제 사회주의 정권의 해체와 자본주의 세계의 확대, 현대 세계의 당면 과제	60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 2009 개정 교육과정 http://cutis.mest.go.kr/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 중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 사회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 정선영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3.
- 백순균, "수행평가의 이론과 실제", 원미사, 1998.
- 최상훈, 이영효 외,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책과함께, 2007.
- 김한종, "역사교육의 이론", 책과함께, 2009.
- 김한종,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함께, 2005.
- 양호환,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원, 2006.
- 최완기, "역사교육과 학습내용의 선정", 느티나무, 2003.

각론





역사 ①

Ⅰ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42
Ⅱ	삼국의 성립과 발전	72
Ⅲ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104
Ⅳ	고려의 성립과 변천	136
Ⅴ	조선의 성립과 발전	166
Ⅵ	조선 사회의 변동	196
Ⅶ	통일 제국의 등장	224
Ⅷ	지역 세계의 형성과 발전	256
Ⅸ	전통 사회의 발전과 변모	288

I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1 단원의 개관

이 단원에서는 역사 학습의 목적, 선사 문화의 발전에서 국가 형성까지를 다룬다. 역사가 현재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었음을 인식하고,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선사 시대의 삶을 유추해 본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국가가 형성되고 문명이 성장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그 뒤를 이은 여러 나라의 성장 과정을 살펴본다.



▲ 순천 고인돌 공원

01.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의 목적에서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의미를 알아보고, 역사 서술이 사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짐을 파악한다. 또한 역사의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역사 학습을 통해 현재를 바르게 이해하고,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으며,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을 키울 수 있음을 파악한다.

02. 한반도와 세계 여러 지역의 선사 문화에서는 도구의 발전이 인류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한반도와 세계 여러 지역의 유물을 비교하여 선사 문화의 발전 단계와 농경 사회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03. 고대 문명의 형성과 발전에서는 인류가 관개 농업을 바탕으로 문명과 국가 발전을 이룩하였음을 이해한다. 또한 중국, 인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등 각 지역 문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하여 비교하도록 한다. 나아가 페니키아 인의 표음 문자,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 등 현재까지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요소들을 찾아 정리하도록 한다.

04.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에서는 고조선에 관한 기본적인 문헌 자료에 나타난 단군 건국 이야기 등을 통해 고조선의 성립 배경 및 성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조선의 성립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후기 고조선의 발전을 철기 문화의 발달과 연결하여 이해한다.

05. 고조선 이후 여러 나라의 발전에서는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만주와 한반도에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 등 여러 나라가 성장하였음을 파악하고, 여러 나라의 발전 과정과 생활 모습 및 각각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도록 한다.

2 단원의 목표

지식 · 이해	•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 세계 각 지역의 선사 문화가 지닌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다. •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그 뒤를 이은 여러 나라의 성장을 이해할 수 있다.
기능	• 세계 농경 문화의 여러 발상지를 지도에 표시할 수 있다. • 유물과 유적을 보고 각 초기 문명의 문화적 특징을 추론할 수 있다. • 한국의 고대 문화 형성 과정을 세계 다른 문화의 성립 과정과 비교할 수 있다.
가치 · 태도	• 고대 문명의 문화적 특징을 우열 관계로 비교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한국 고대 문화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기른다.

3 단원의 구조와 지도 계획

차시	중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
1	01.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의 목적	1. 역사의 의미 ~2. 역사 학습의 목적	사실로서의 역사, 랑케, 기록으로서의 역사, 사료, 역사의식, 역사 학습의 목적
2	02. 한반도와 세계 여러 지역의 선사 문화	1. 구석기 문화 ~ 2. 신석기 문화	빙하기, 언어, 불, 현생 인류, 뗀석기, 주먹도끼, 연천 전곡리 유적, 사냥과 채집, 무리 생활, 농경과 목축, 간석기, 토기, 움집,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원시 신앙(토테미즘, 애니미즘), 암사동 유적지
3	03. 고대 문명의 형성과 발전	1. 문명의 형성 ~ 2. 중국의 고대 문명	관개 농업, 도시 국가, 청동기와 문자, 갑골문, 봉건제
4		3. 인도의 고대 문명 ~ 4.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1)	인더스 문명, 하라파, 모헨조다로, 아리아 인, 카스트제, 브라만교, 수메르인, 지구라트,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 히타이트
5		4.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2)	나일 강, 파라오, 피라미드, 신정 정치, 페니키아, 표음문자, 헤브라이, 유대교, 올메카 문명, 마야 문명
6	04.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1. 고조선의 성립	비파형 동검, 반달 돌칼,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 토기, 벼농사, 고인돌, 단군왕검, 홍익인간
7		2. 고조선의 발전	세형 동검, 덧띠 토기, 검은 간 토기, 철제 농기구, 위만조선, 중계 무역, 명도전, 왕검성, 8조법
8	05. 고조선 이후 여러 나라의 발전	1. 여러 나라의 성립	널무덤, 독무덤, 고리자루 큰칼, 부여의 대가, 고구려 5부, 옥저, 동예, 읍군, 삼로, 삼한, 신지, 읍차
9		2. 여러 나라의 생활과 풍속	영고, 순장, 우제점법, 부경, 동맹, 서옥제, 민며느리제, 책화, 무천, 천군, 5월제, 10월제, 소도

4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 역사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발견하고,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문명은 농업을 기반으로 성립하여 주변 지역들과 빈번한 상호 교류를 통해 발전을 이룩해 왔다는 점에 유의한다.
- 고조선 시기의 한반도와 요동, 만주 지역이 문화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 고조선의 중심지에 대해서는 평양 중심설, 요동 중심설, 요동에서 평양으로의 이동설 등 여러 학설이 존재하고 있음에 유의한다.

5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 로버트 웬키, 안승모 역, "선사 문화의 패턴 1 – 인류, 문화와 농업의 기원", 서경, 2003.
- 로버트 웬키, 김승옥 역, "선사 문화의 패턴 2 – 고대 문명의 기원과 발전", 서경, 2003.
- 한국 고고학회, "한국 고고학 강의", 사회평론, 2007.
- 이기백 편, "한국사 시민 강좌 제2집: 고조선의 제문제", 일조각, 1988.
- 송호정,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 한국 고대사 학회,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동향", 서경문화사, 2007.

Ⅰ.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01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의 목적

학습 목표

- 역사의 뜻과 역사 연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역사 학습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내용	수업 방법	수업 자료
1	1. 역사의 의미 ~ 2. 역사 학습의 목적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의미를 이해하게 한다.	강의식	12쪽 자료
	• 역사 서술의 바탕이 되는 사료의 의미를 설명하고, 주변의 사료를 이용하여 '나의 역사'를 정리하게 한다.	탐구식	13쪽 자료
	• 올바른 역사 해석을 위해서는 역사의식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강의식	PPT
	• 역사를 배우는 목적을 여러 자료와 사례를 제시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 세계화 시대에 자의식을 갖고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유연성을 기르도록 한다.	강의식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역사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단서가 되는 자료는?	문답식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역사의 의미

(1) 역사의 두 가지 의미

① **역사의 두 측면**: 사실과 평가

② '사실로서의 역사'

- 객관적 역사: 인간이 과거에 이룩한 사실을 의미
- 랑케: "편견을 갖지 말고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서술하라."

③ '기록으로서의 역사'

- 주관적 역사: 역사가가 의미 있다고 평가한 사실을 의미
- 카: "역사란 역사가가 과거 사실을 해석하고 평가하여 재구성한 것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2) 역사의 특성과 변화

① **역사의 특성**: 한 지역의 주민이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오랜 시간 동안 형성(언어, 문자, 복장, 음식, 풍속 등) →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성 형성

② **역사의 특성 변화**: 다른 나라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새롭고 독특한 역사 형성

(3) 역사 서술 방법

① **역사 서술**: 추려 낸 사료를 바탕으로 역사를 재구성

② **사료의 종류**

- 기록물: 돌, 대나무, 종이 등에 문자로 쓰인 것
- 비기록물: 건물 터, 무덤, 탑, 불상, 노래 등

2. 역사 학습의 목적

(1) **역사의식의 함양**

① **역사 학습**: 과거 사람들의 경험을 담은 역사를 학습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교훈 습득

② 역사의식

- 의미: 과거 사례를 참고로 한 사고와 판단의 근거, 다른 사안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논리
- 유용성: 올바른 선택의 지침, 정체성의 근거, 과거를 바탕으로 한 미래 방향의 예측

(2) **역사 학습의 목적**

① **현재에 대한 바른 이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역사를 통해 자아, 사회, 국가, 세계를 올바르게 파악

② **삶의 지혜와 교훈 습득**: 업적 계승, 부끄러운 과거의 반성 · 극복 → 발전된 미래 건설

③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 함양**: 다양한 역사적 자취의 논리적인 탐구와 유추 → 사고력과 비판력 향상

(3) **역사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자세**

① **현재의 세계**: 교통수단과 교역 체계의 발달 → 지구촌 형성, 세계화 시대

② **오늘날의 역사 인식**

- 한국인의 투철한 자의식
-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개방성과 유연성 필요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2쪽

역사가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사실로서의 역사') 중에서 의미 있는 사실을 선택하여 주관적으로 역사를 서술('기록으로서의 역사')하기 때문이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3쪽

1. 수첩, 편지, 용돈 기입장, 성적표, 상장, 건강 기록부, 웃어른들이나 형제 · 자매의 이야기, 친구의 기억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 지도 요령 사실을 단순하게 나열하기보다는 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역사 신문, 보고서, 자서전 등 다양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시 사회 · 문화적 배경을 포함할 것을 유도한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4쪽

박물관을 견학하면서 과거 인류의 범죄를 반성하고, 인류가 함께 공존공영하는 길을 찾으려는 것이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5쪽

1. (1) 사, (2) 기, (3) 기, (4) 사
2. (1) ㉢, (2) ㉡, (3) ㉢, (4) ㉠, (5) ㉡, (6) ㉠
3. 현재를 바르게 이해하고,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고 반성하는 태도를 기르며,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을 기르기 위해서이다.

내용 더하기

❀ 헤로도토스의 "역사" 1차시

"역사"는 헤로도토스(B.C. 484~B.C. 425)가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항쟁 유래부터 페르시아 전쟁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기록한 책으로, "페르시아 전쟁사"라고도 한다.

헤로도토스는 "역사"에 각 지역의 지리, 풍속, 역사, 삽화, 종교 등 다양한 사항을 수록하였으며, 이러한 다양한 사항을 동서 간의 항쟁이라는 일관된 역사 속에 집어넣고 페르시아 전쟁도 그 한 부분으로서 파악하고 있다. 헤로도토스는 신이 인간의 오만에 대해 징벌하는 존재라고 믿었으며, 페르시아의 패배도 크세르크세스 1세의 오만 때문이라고 보았다. "역사"는 다양하고 유연한 문체로 쓰여져 그리스 산문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 역사의식과 시대 구분론 1차시

역사의식이란 역사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역사적 관심과 역사적 식견이며, 역사적 능력과 태도로서 역사적 행위의 근저가 되는 존재의식이다. 역사의식은 보통 막연하게 옛것을 느끼는 감고의식, 옛것과 지금의 것을 비교하여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고금의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변천의식,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인과의식, 인물 등을 시대와 연관

지어 파악하는 시대의식, 역사적 사상의 발전을 파악하는 발전의식까지 여러 단계가 있다.

시대(時代) 구분이란 역사 속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혼재되어 나타나는 사건과 상황들을 일반화 · 체계화하는 일로서, 일정 시간대의 공통적인 특성을 추출하고 단순화함으로써 일반적 분위기와 발전의 파악에 도움이 된다.

시대 구분은 역사가의 인식과 역사관에 따라 각각 다르며 항상 변할 수 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시대 구분이 가능하기에 무수한 시대 구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역사는 단선적이고 직선적으로 발전해온 것이 아니며, 어떤 지역이나 어떤 시기가 발전하는 데에는 정치, 사상, 사회 세력, 종교 등 다양한 변인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단순 명쾌하게 시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레오폴트 폰 랑케 1차시

근대 사학을 확립한 독일의 역사가로서, 엄밀한 사료 비판을 중시하여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린다.

랑케는 "로마 교황사", "종교 개혁 시대의 독일사" 등 많은 저작을 남겼다. 그는 독일 관념 철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념의 자기 발전 법칙을 주장하는 헤겔과 달리 "모든 시대는 신(神)에 이어진다."라고 하여, 어떤 시대라도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또 역사가의 역할은 "본래 그것이 어떻게 있었는가."를 알리는 것이라고 하여 역사 서술의 객관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역사 사실은 사료 속에 원래 있었던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역사가의 임무는 비판적인 방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료 속에 담겨진 순수한 사실을 발견해 내는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래서 그는 "있었던 그대로의 과거"를 밝혀내는 것이 역사가의 사명이라고 보았다.

에드워드 카 1차시

영국의 정치가이자 역사학자이다. 웨일스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1936~1946)를 지냈고,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정보성 외교 부장, '타임스' 논설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 "새로운 사회(The New Society, 1951)"에서는 소비에트형과는 다른, 자유와 평등을 기조로 하는 사회주의의 실현을 시사하는 한편, 아시아의 민주주의 운동을 유럽 인들도 이해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 1961), "카를 마르크스(Karl Marx, 1934)", "위기의 20년(Twenty Years' Crisis, 1939)", "서구 세계의 소비에트 충격(The Soviet Impact on the Western World, 1947)", "볼셰비키 혁명(The Bolshevik Revolution, 1958)" 등 많은 저작이 있다.

역사란 무엇인가? 1차시

"역사란 무엇인가?"는 카의 역사 이론서이다. 카는 이 책에서 역사가의 주된 임무는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있었던 일'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이며, 따라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도 역사가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역사가는 그가 속한 시대와 사회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준도 그 당대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였다. 즉 역사가의 관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보았다.

사료(史料) 1차시

과거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역사적 자료를 사료라고 한다. 사료는 수많은 종류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므로, 사료의 구분 방법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료는 유물(遺物)과 전설 두 종류로 구분하기도 하고, 문자 기록과 구비전설(口碑傳說), 실물(實物) 세 종류로 구분하기도 한다.

전자에서 유물은 어떠한 사건에 관한 기록 또는 유물이 직접 남겨져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을 말하고, 전설은 어떠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견해를 거쳐서 서술된 것을 말한다. 후자의 문자 기록에는 정부 문서, 사건 기록, 재판 문서, 회고록, 조사 보고, 금석문, 묘지명, 편지, 일기, 행장, 장부, 전단, 신문, 소설 등이 있다. 구비 전설은 구전되어 오다 문자로 서술된 사료이고, 실물은 문자로 구성되지 않은 유물과 유적을 말한다.

사료는 직접 사료와 간접 사료로 구분하기도 한다. 직접 사료는 당사자나 당대인에 의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기록인 일기, 편지, 어록, 회고록, 여행기 등이 있으며, 같은 시대의 사람이 사건을 기록한 것, 사관(史官)의 기사, 신문 기자의 보도 등도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간접 사료는 직접 사료가 아닌 것으로, 후대에 편찬된 역사책이나 구비 전설을 전재한 기록 등이다.

사료를 1차 사료와 2차 사료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 1

차 사료는 "삼국사기", "고려사" 등 원서(原書)를 뜻하며, 2차 사료는 원서를 전재한 것으로서 "동국통감", "동국문헌비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실의 진위(眞僞)를 확인하는 것을 사료의 비판 또는 사료의 고증이라 한다. 사료 비판은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으로 구분된다. 외적 비판이란 사료의 외형상의 비판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의 위작 · 착오 · 변조 · 누락 등 진위를 감별하고, 사료가 만들어진 시기 · 장소 · 작자 등 내력을 조사하며, 사료의 본원성(本源性)과 파생성(派生性), 즉 그 사료가 원본인가 모조인가 하는 것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내적 비판이란 사료의 내용상 비판을 말하는 것으로, 기록자의 신용과 능력, 기록자와 사실과의 관계 등을 규명해 기록의 진실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료를 기록한 인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사료를 기록한 사람의 지식과 소양 등도 연구해야 한다.

사료 고증에는 다른 학문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학문을 역사의 보조 과학이라 하는데, 고고학, 인류학, 언어학, 민속학, 고문서학, 연대학 · 계보학 등이 대표적이다. 금석기와 토기, 거주지, 인골 등에 대한 사료를 이해하려면 고고학이나 인류학의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언어, 풍속, 습관, 전설 등에 대한 사료를 이해하려면 민속학이나 언어학의 지식이 필요하다.

과거의 각종 공문, 증서, 증명서 등 고문서로 된 사료를 이해하려면 고문서학의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연대에 대한 고증을 하려면 연대학, 가계(家系)와 세계(世系)를 구명하려면 계보학(系譜學), 지명의 연혁을 구명하려면 지리학 등의 지식이 필요하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1차시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나치 독일이 유대 인을 학살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강제 수용소로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약 300km 떨어진 오시비엥침에 있다. 아우슈비츠는 오시비엥침의 독일식 명칭이다. 이곳에서 처형된 사람들은 유대 인, 로마 인, 소련군 포로, 정신 질환을 가진 정신 장애인, 동성애자, 기타 나치즘에 반대하는 자들이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나치가 세운 강제 수용소 중에서 최대 규모였다. 1945년 기준 약 600만 명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원래 폴란드군의 병영이었으나, 나치 독일이 포로들의 수용소로 사용하면서 전체 규모를 28동으로 늘렸다.

1945년 1월 27일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자들이 해방되었다. 현재는 박물관과 전시관으로 꾸며져 있다. 1947년에 세워진 희생자 박물관은 1979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나치에 희생된 사람들의 신발
나치는 소련군 포로와 유대 인들을 독가스실에서 대량으로 학살하였다. 학살 피해자들의 시체는 불태워졌고, 옷과 신발은 분류되었다. 이러한 나치의 만행은 현재 독일 역사 교과서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자치통감(資治通鑑) 1차시

"자치통감"은 북송(北宋)의 사마광(司馬光)이 지은 편년체 역사서이다. 1084년 11월에 전 294권으로 완성되었으며, 처음 이름은 "통지(通志)"였으나 신종(神宗)에 의해 "자치통감"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통감"이라 약칭하기도 한다. 한(韓) · 위(魏) · 조(趙)의 자립으로 전국 시대가 시작된 기원전 403년부터 북송이 건국되기 직전인 959년까지 1362년간의 역사를 수록하였다.

"자치통감"은 실제 정치에 참고할 목적으로 제작되어 "정관정요(貞觀政要)" 등과 함께 대표적인 제왕학 서적으로 여겨졌으며, 우리나라 역사 서술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동국통감(東國通鑑) 1차시

조선 전기에 서거정(徐居正) 등이 왕명을 받아 신라 초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엮은 편년체 역사서이다. "동국통감"은 중국의 "자치통감"을 모범으로 우리의 통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1458년 세조의 명으로 편찬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중단되었다가, 성종 14년(1483년) 서거정의 발의로 다시 시작되어 1485년 56권으로 간행하였다.

"동국통감"은 정치적 차원의 정통론을 도입하지 않았지만, 문화적 측면에서 기자 조선–마한–신라로 이어지는 문화의 흐름을 주류로 정립하려고 하였다. 또한 성종 자신이 적극적으로 편찬에 개입하고 신진 사림이 참여함으로써 성종과 사림의 역사의식이 크게 반영되었다. 사림의 성리학적 명분주의는 성종의 왕권 안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으며, 강상의 명분을 강조함으로써 세조와 그 훈신(勳臣)에 대한 비판의 뜻을 담았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 관찬 사서(官撰史書)로 꼽힌다.

Ⅰ.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02 한반도와 세계 여러 지역의 선사 문화

학습 목표

- 인류의 진화와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 한반도 구석기 시대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농경이 시작된 원인과 지역별 차이를 알 수 있다.
- 신석기 시대 한반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내용	수업 방법	수업 자료
2	**1. 구석기 문화 ~ 2. 신석기 문화**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문답식	
	1. 초기 인류가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2. 빙하기가 끝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전개]		
	• 인류는 도구를 제작하고 언어를 사용하면서 발전하였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17쪽 사진
	• 인류가 만든 석기의 종류와 용도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17쪽 삽화
	•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남긴 예술품을 보여 주고 이러한 예술품을 남긴 배경을 발표하게 한다.		
	• 한반도의 구석기 유적과 유물을 통하여 당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설명한다.	강의식	
	• 1만 년 전부터 생태계 변화로 인류는 식량 위기를 겪게 되었음을 설명한다.		
	• 인류는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해 갔으며, 농경은 그 중 하나의 방안이었음을 이해하게 한다.		19쪽 지도
	•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는 초기에 어로 위주로 전개되다가, 후기에 가서 농경 문화가 시작되었음을 이해하게 한다.	탐구식	21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되었으며, 한반도가 찍개 문화권이란 이론을 뒤집은 구석기 시대의 도구는?		
	2.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원시 신앙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구석기 문화

(1) **인류의 등장과 진화**

① **인류의 출현**

-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약 390만 년 전 아프리카 사바나(초원) 지대에 등장
- 인류의 특징: 직립 보행, 언어와 도구 사용, 집단생활

② **인류의 진화**

- 호모 하빌리스(약 250만 년 전):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 호모 에렉투스(약 180만 년 전): 석기 사용, 사냥 활동
-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약 40만 년 전): 시체 매장

③ **현생 인류(호모 사피엔스)**

- 출현: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출현
- 번성: 약 4만 년 전에 전 세계로 확산

(2) **뗀석기의 제작 사용**

① **뗀석기 제작**

- 발달: 단순한 형태로부터 점차 정밀한 도구 제작
- 종류: 외날찍개, 주먹도끼, 긁개, 찌르개, 작살, 창 등

② **뗀석기의 사용**

- 땅을 파고 나무뿌리를 캐내어 주거지 조성
- 동물을 사냥하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거나 뼈를 부숨.
- 결과: 자연에 대한 적응력 향상, 인구 증가

(3) **한반도의 구석기 문화**

① **기원**: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시대에 구석기인 등장

② **대표 유적**: 평양 상원 검은모루 동굴 유적,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 충남 공주 석장리 유적

③ **생계 방식**: 이동 생활, 사냥과 채집, 무리 사회

2. 신석기 문화

(1) **농경과 목축의 시작**

① **신석기 시대의 시작**

- 자연환경 변화: 빙하기 종식, 인구 증가, 큰 사냥감의 멸종 → 작은 동물 사냥
- 인류의 대응: 농경과 목축의 시작, 집단 사냥 대신 개인 사냥 확대, 어로 활동

② **각 지역의 농경과 목축의 양상**

- 서남아시아: 보리 · 밀 재배, 양 · 염소 · 소 사육
- 동아시아: 기장 · 벼 재배, 돼지 · 닭 사육
- 아메리카: 옥수수 · 호박 · 감자 재배

(2)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

① **신석기 문화**: 기원전 8000년경부터

- 유물 · 유적: 간석기와 토기(이른 민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움집(큰 강가나 바닷가에 분포)
- 대표 유적지: 강원 양양 오산리, 서울 암사동

② **신석기 시대의 변화**

- 초기: 사냥과 고기잡이, 도토리 · 조개 채취 → 돌화살촉, 돌도끼, 그물추, 작살, 낚싯바늘, 갈판 사용
- 농경 시작: 조, 피 등 재배 → 돌낫, 돌보습 사용

③ **신석기 시대의 생활**: 부족 단위의 정착 생활, 자급자족적 경제 활동, 원시 신앙(애니미즘, 토테미즘) 발생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6쪽

직립 보행은 달릴 때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 느리다는 단점이 있으나, 물건을 운반하기 편하고 시야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직립 보행을 하는 인간은 수풀이 우거진 밀림 지대보다는 사방이 탁 트인 초원(사바나)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9쪽

수렵과 채집에 의존하던 인류는 빙하기가 끝나는 약 1만 년 전에 세계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인류가 선호하던 야생 곡물이나 대형 동물들도 고갈되어 식량이 부족해졌다. 그리하여 인류는 잘 먹지 않았던 동식물을 먹거나 일부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키워 생존을 모색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21쪽

1. 곡물을 저장 · 보관하거나, 토기에 물과 도토리 열매를 담아 쓴 맛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였다.
2. • 의생활: 짐승의 가죽을 재단하거나, 가락바퀴로 식물의 섬유소를 뽑아내어 옷을 만들었다.
   • 식생활: 도토리를 갈판에 갈아 묵으로 만들어 먹거나, 물고기나 조개를 구워 먹었다. 신석기 후기에는 조나 피 등을 수확하여 밥을 지어 먹었다.
   • 주생활: 땅을 약간 파내고 기둥을 세워 갈대와 같은 것으로 덮은 움집에서 생활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21쪽

1. (1) 동굴 벽화, (2) 뗀석기, (3) 농경, (4) 토기
2. 제시된 유물들은 구석기 시대의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사냥과 채집으로 식량을 구하였다.

내용 더하기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 하빌리스 2차시

최초의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남쪽 원숭이 사람'이라는 뜻이며, 약 390만 년 전 아프리카에 등장하였다. 그들은 원숭이나 유인원과 달리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녔으나, 뇌의 크기는 침팬지와 비슷한 정도였다. 그들은 식물을 채집하거나 죽은 동물의 고기를 주워 먹으며 생활하였다. 250만 년 전에는 이보다 두개골 용적이 큰 호모 하빌리스(손쓰는 사람)가 나타났다. 이들은 최초로 석기를 제작하여 사용했다고 추정되나, 그보다 진화된 인류가 출현하면서 생존 경쟁에 뒤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함께 멸종하였다.

호모 에렉투스와 호모 사피엔스 2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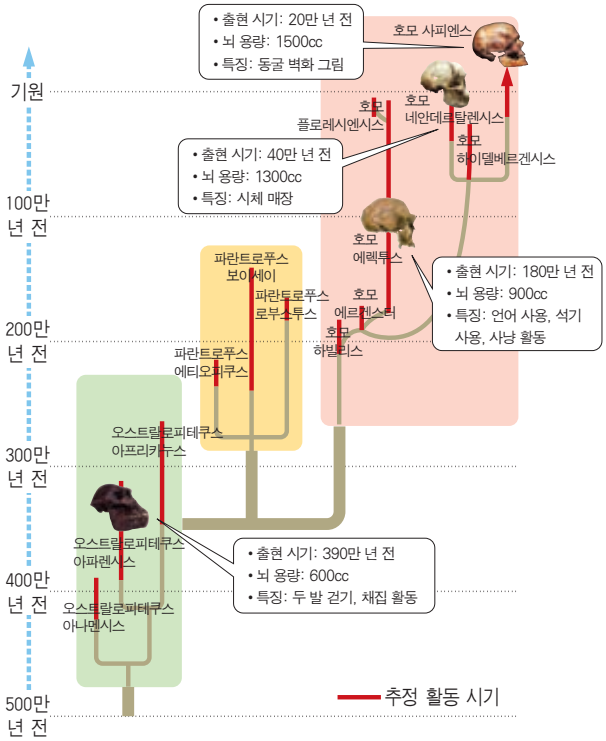
호모 에렉투스(곧선사람)는 약 180만 년 전 아프리카에 나타났다. 이들은 뇌의 크기가 증가하고 신체 크기도 커졌으며 언어도 발달하여 최초로 인류와 같은 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석기로 도구를 만들고 집단을 이루어 큰 동물들을 사냥하기 시작하였다. 호모 에렉투스는 이처럼 발달된 능력을 바탕으로 100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를 넘어 유라시아의 열대와 아열대 지방 곳곳으로 진출하였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2차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약 40만 년 전에 출현하였다. 1856년 독일의 뒤셀도르프 근교 네안데르(Neander) 계곡에서 화석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들은 유럽을 중심으로 서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북부 아프리카에 분포하였는데, 불을 이용하여 빙하기의 자연환경을 극복하면서 고위도 지방까지 거주지를 확장시켜 나갔다. 죽은 자들을 매장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내세에 관한 관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 2차시

약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났으며, 4만 년 전부터 유럽과 아시아로 급속히 번져 나갔다. 이들은 약 1500cc의 큰 두개골 용량과 납작한 얼굴, 날씬한 체형을 가졌으며, 지능이 발달하여 한층 풍부한 언어를 구사하였다. 현생 인류는 초기 인류에 비하여 앞선 언어 능력과 도구 제작 능력을 무기로 다른 인류를 대체해 나가며 번성하였다. 이들은 각자 정착한 곳의 기후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하여 1~2만 년 전에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의 원형이 되는 베이징인, 그리말디인, 크로마뇽인 등으로 분화하였다.



▲ 인류의 진화

뗀석기 제작 기법의 발달 2차시

인류는 200만 년 전부터 돌을 깨뜨려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최초의 뗀석기는 적당한 크기의 돌을 골라 서로 부딪쳐 깨서 만드는 외날찍개였다. 그들은 돌을 깰 때 생기는 날을 이용하여 나무뿌리를 캐거나 동물 뼈를 부술 때 사용하였다.

호모 에렉투스는 돌의 양쪽 면을 가공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날을 세운 주먹도끼를 발달시켰다. 이들은 유리질이 많은 원석을 선별하여 돌망치로 직접 타격하거나 뿔, 뼈, 나무망치 등으로 다듬어서 규격화된 도구를 제작하여 기능적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주먹도끼는 하나의 도구에 찍는 날과 자르는 날이 함께 있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

두뇌가 커짐에 따라 인류의 석기 제작 기술은 점차 발전하여 25만 년 전에는 각종 크기의 돌을 깨뜨릴 때 나오는 격지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석기를 만드는 기법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인류는 주먹도끼, 가로날도끼, 긁개, 찌르개 등 수십 종의 뗀석기를 만들어 냈다.

약 4만 년 전부터는 돌을 눌러 떼는 석기 제작 기법이 나타나 뗀석기가 점차 소형화되었고 매우 정교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이들은 석기로 나무, 뿔, 뼈를 가공하여 작살이나 창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도구 제작 기법이 발전하면서 자연에 대한 인류의 적응 능력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인류의 인구 규모가 점차 증가하여 세계 각지로 널리 퍼져 나갔다.

연천 전곡리 유적 2차시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는 주먹도끼가 발견되어 주목을 끌었다. 이른 시기의 석기로는 주먹도끼, 가로날도끼, 주먹찌르개(뾰족끝찍개), 찍개, 몸돌, 다면 석기 등이 있다. 주먹도끼는 전곡리에서 알려진 이후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동아시아가 유럽과 달리 찍개만 있는 문화권이라는 가설을 반박하는 근거가 되었다. 한반도 구석기 시대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치는 최고 4만 5천 년 전을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나, 석기 제작 방식이나 사멸한 동물의 비율 등으로 보아 이 수치는 앞으로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의 후기 구석기 유적 2차시



▲ 석장리 유적지

우리나라의 후기 구석기 시대 유적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이 시기 유적지에서는 돌날이나 슴베찌르개 등의 유물이 나왔으며, 말기에는 잔돌날, 밀개, 새기개, 뚜르개 등의 잔석기가 확인된다. 당시 인류는 창끝에 슴베찌르개를 꽂아 사냥 도구로 사용하였고, 뼈나 나무에 홈을 파서 잔돌날을 끼워 톱이나 칼 등으로 사용하였다.

충남 공주 석장리 유적에서는 맨바닥에 나무를 간단하게 세우고 나무줄기를 가로로 묶어 지은 막집 터가 확인되었고, 함북 종성 동관진 유적에서는 흑요석제 석기, 뼈연장과 함께 추운 지역에서 살던 털코끼리와 같이 지금은 멸종된 동물이 33%나 나오기도 하였다.

농경 문화의 발생 과정 2차시

1만 년 전부터 빙하가 물러가면서 지구 생태계가 크게 변화하여 인류는 큰 혼란을 겪었다. 인류는 자연환경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생계 활동을 지속하고 인구를 늘려왔으나, 생태계의 변화로 몸집이 큰 동물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식량 부족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다. 몸집이 작은 동물들이 번성하자 집단 사냥보다 개인 사냥의 비중을 늘려 나갔으며, 활과 화살을 발명하고 개를 가축으로 키웠다. 또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낚시와 그물 및 통나무배를 사용하는 등 본격적인 어로를 시도하였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한층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농경과 목축이다. 식량이 가장 절박한 부류들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동물과 식물을 단순히 채집하고 수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재배하여 생산량을 늘리는 데 주력하였다. 이처럼 농경은 기후 변동과 인구압에 대항하여 이미 집단을 이룬 인간들 사이의 복잡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공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다. 농경 문화는 인간이 필요한 동식물로부터 자신들에게 유용한 요소들을 크게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순화(馴化)는 우연한 창조물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장기간에 걸쳐 이룬 성과였다. 농경 문화는 주변 동식물의 종류 및 상황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냈다.

서남아시아 유형의 농경 문화 2차시

서남아시아의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시리아의 해안 지대 및 이라크 동부 지역에서는 빙하가 물러나기 전까지 가젤(gazelle)을 집중적으로 사냥하는 생활을 유지하였다. 그 후 1만 2000년 전부터 가젤이 거의 멸종 단계에 이르자 가젤 사냥 대신에 야생 곡물을 다량 채취하여 식용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야생 곡물도 줄어드는 기원전 8000년경부터는 보리와 밀을 단순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기원전 5000년경에는 보리와 밀을 본격적인 식용 작물로 재배하고 양, 염소, 소를 순화시켜 양육하는 농경 문화를 성립하였다.

농경 문화는 이집트와 그리스를 필두로 하여 서서히 주변 지역으로 퍼져 나가 기원전 3000년경까지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 및 인더스 강 유역까지 전파되었다. 이들

지역에서는 곡물 수확을 위한 돌낫, 곡물을 갈아 먹기 위한 갈돌, 갈판, 돌절구, 공이돌 등의 간석기를 제작하였으며, 자신들의 농업 공동체를 외부 침략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돌로 만든 성벽과 같은 방어 시설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동아시아 유형의 농경 문화 2차시

동아시아에서는 자신의 주변 동식물을 순화시키는 독자적 농경 문화가 나타났다. 기원전 6500년경 중국 화베이[華北] 지방의 황허 강 유역에서는 기장 · 조 · 수수를 재배하고, 개 · 돼지 · 닭을 사육하는 농경 문화가 시작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돌도끼로 초목을 베고 건조기에 불을 질러 농경지를 개간하였으며, 물고기를 다량 포획하여 식용으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각종 돌도끼, 돌낫, 갈판, 낚싯바늘, 어망추 등의 간석기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화베이 지방의 농경 문화는 기원전 3000년경까지 중국의 서쪽과 동북부 및 한반도 북부 일대로 전파되었다.

기원전 5000년경 중국 창장 강(양쯔 강) 유역에서는 벼를 재배하고, 물소 · 돼지 · 개를 사육하는 유형의 문화가 나타났다. 당시 벼의 종류에는 차지고 생육 기간이 긴 단립형 벼와 부슬부슬하고 생육 기간이 짧은 장립형 벼가 있었는데, 장립형은 아열대 기후 지역인 베트남 및 인도 갠지스 강 유역으로 전파되었고, 단립형은 기원전 500년경까지 온대 기후 지역인 한반도 남부 및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아메리카 유형의 농경 문화 2차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유라시아와 전혀 다른 동식물들이 길들여졌다. 중앙아메리카 멕시코에서는 기원전 3500년경에 옥수수와 호박 등이 처음으로 재배되었고, 기원전 2000년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재배되었다.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 일대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에 감자가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쟁기질을 할 수 있는 큰 동물을 양육하여 길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에 한계가 있었다.

한반도 신석기 문화의 특징 2차시

신석기 시대는 주로 후빙기 이후 원시 농경으로 식량을 생산한 시기를 가리킨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농경이 실시되지 않고도 토기나 간석기와 같은 신석기 문화의 특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범주에 속하여, 신석기 시대 초기에는 주로 어로와 수렵 · 채집에 의존하여 생활하다가 신석기 중기부터 원시 농경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신석기 문화는 강가나 해안에 땅을 얕게 파고 원형으로 움집을 만들어 정착한 사람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들은 바다낚시로 도미, 참다랑어 등을 잡거나 그물을 이용한 집단 어로로 각종 민물고기를 잡는 것을 주업으로 삼았다. 그에 더하여 도토리를 다량 채집하여 갈아 먹었으며, 바다사자 · 사슴 등을 사냥하고 조개를 주워 먹었다.

제주 고산리 유적 2차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문화 유적은 기원전 8000년경의 제주 고산리 유적으로, 이곳에서는 갈색 민무늬 토기와 삼각형 모양의 소형 돌화살촉 등이 발견되었다. 이곳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하면서 잔돌날을 사용하여 만든 화살, 작살, 낚싯바늘 등으로 개인 사냥과 어로 등을 행하였다.

강원도 고성 문암리, 양양 오산리 유적 2차시

기원전 6000년경의 강원도 고성 문암리와 양양 오산리 유적에서는 흑요석을 갈아 만든 둥근 기둥에 뼈바늘을 묶어 만든 낚싯바늘, 날 부분만 갈아서 만든 간돌도끼, 돌화살촉, 바닥이 납작한 민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 원형 움집 등이 출토되었다. 이런 유형의 유적들은 함경북도부터 부산 동삼동까지 동해안을 따라 분포한다.

서울 암사동 유적 2차시

기원전 4000년경의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는 돌을 간단하게 가공하여 만든 다량의 그물추, 격지 돌날, 뗀돌도끼, 갈돌, 도토리 껍질, 바닥이 뾰족한 빗살무늬 토기, 원형 움집 등이 출토되었다. 이런 유형의 유적들은 서해안을 따라 대동강 유역, 한강 유역 및 서해 도서 각지에서 나타난다.

황해도 봉산 지탑리 유적 2차시

신석기 중기에 속하는 기원전 3000년경의 황해도 봉산 지탑리 유적에서는 빗살무늬 토기와 함께 조, 피와 같은 곡물류와 간돌도끼, 돌낫, 돌보습 등이 발견되었다. 이는 중국 화베이 지역의 농경 문화가 전파되어 한반도에서도 원시 농경이 시작되었음을 보여 준다.

Ⅰ.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03 고대 문명의 형성과 발전

학습 목표

- 문명이 발생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주의 봉건제를 혈연관계와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다.
- 카스트제와 브라만교의 특징을 서로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다.
-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할 수 있다.
- 페니키아와 헤브라이가 세계사에 끼친 영향을 말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내용	수업 방법	수업 자료
3	**1. 문명의 형성 ~ 2. 중국의 고대 문명**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고대 문명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였을까?	문답식	
	[전개]		
	• 관개 농업과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문명이 발생하였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PPT
	• 상이 신정 정치를 실시하고 갑골문을 사용하였음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23쪽 자료
	• 주의 봉건제의 구조와 봉건제가 쇠퇴하면서 나타난 정치적 변화를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24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중국의 상 왕조 시기에 사용된 문자는?	문답식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4	**3. 인도의 고대 문명 ~ 4.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1)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아리아 인이 인더스 강으로 진출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문답식	
	[전개]		
	• 인더스 문명의 발생 지역을 지도에서 파악하고, 아리아 인의 이동을 설명한다.	강의식	25쪽 지도
	•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지형적 특징에 따른 문명의 변화를 설명한다.		PPT
	• 함무라비 법전과 오늘날 법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26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최초로 철제 무기를 사용하였으며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민족은?	문답식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5	**4.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2)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이집트의 폐쇄적인 지형은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문답식	

5	[전개] • 이집트 문명의 내용을 이해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의 차이점을 탐구하게 한다. • 이집트의 강력한 왕권과 사후 세계 믿음을 나타내는 유물, 유적을 찾아보게 한다. • 페니키아의 표음 문자와 헤브라이의 유일신 신앙이 후대에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 아메리카에서는 일찍부터 올메카 문명과 마야 문명이 발전하였음을 설명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헤브라이 왕국에서 성립하였으며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믿는 종교는?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탐구식 강의식 문답식	PPT 28쪽 자료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문명의 형성

(1) **도시 문명의 출현**

① **도시의 형성**: 온화한 기후의 큰 강 유역에서 관개 농업 발달, 촌락의 도시화

② **도시의 발달**: 청동기 사용, 지배층과 피지배층 형성 → 국가 형성

(2) **고대 문명의 발생**

① **문자의 사용**

- 목적: 복잡한 도시 생활 통제 → 역사 시대 전개
- 다양한 문자: 쐐기 문자, 상형 문자, 갑골 문자 등

② **문명 발생**: 도시 국가 바탕, 청동기 · 문자 사용 → 세계 여러 지역의 문명 형성

2. 중국의 고대 문명

(1) **상의 발전**

① **중국의 신석기 문화**

- 지역: 황허 강, 창장 강 유역 등 여러 지역
- 문명 발전: 촌락 형성, 청동기 사용 → 도시 국가 발전

② **상의 발전**

- 성장: 기원전 1600년경
- 영역: 황허 강 중류와 하류 일대를 중심으로 한 주변
- 정치: 제정일치의 신정 정치, 점복으로 국가 중대사 결정
- 은허 발굴: 순장, 청동 제사 용품과 무기, 옥 도구, 갑골문(한자의 기원) 등 출토

(2) **주의 발전**

① **주의 정치적 변천**

- 건국과 발전: 기원전 11세기경 천명을 내세워 상 멸망, 호경에 도읍 → 영역 확대, 봉건제 실시
- 쇠퇴: 이민족 공격으로 낙읍 천도 → 춘추 시대 시작(기원전 770)

② **주의 봉건제**: 왕실과 제후의 혈연관계 바탕 → 수도와 주변 지역은 왕이 다스리고 지방은 제후가 통치

- 지배층: 왕족과 제후, 청동제 무기와 제기 사용
- 피지배층: 농민과 노예, 석제나 목제 농기구로 지배층의 토지 경작

3. 인도의 고대 문명

(1) **인더스 문명**

① **인더스 문명의 발생**

- 배경: 인더스 강 유역의 농경 발달, 청동기 사용
- 도시 문명: 하라파, 모헨조다로 중심(기원전 2500년경), 성곽과 도로망 정비, 벽돌 건물과 주택 배치

② **상업 발달**: 메소포타미아 지역 등에 보석 수출

③ **쇠퇴**: 자연재해와 아리아 인의 침입으로 멸망

(2) **인도 문명의 토대 형성**

① **아리아 인의 이동**: 기원전 1500년경 편자브 진출, 인더스 문명 정복 → 기원전 1000년경 갠지스 강 유역 정복

② **카스트제와 브라만교**: 아리아 인의 정복 전쟁 과정에서 성립, 고대 인도 문명의 토대

- 카스트제: 브라만 계급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신분제
- 브라만교: 자연신 숭배, 경전인 베다와 제사 중시

③ **사회적 변화**: 브라만의 특권화와 제사의 형식화 비판

4.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1) **메소포타미아 문명**

① **수메르 문명**

- 도시 국가: 기원전 3500년경 우르, 라가시 등 번영
- 정치: 신정 정치, 지구라트 건설 → 이민족 침입으로 쇠퇴

② **바빌로니아 왕국**: 아무르 인 건설

• 함무라비 왕: 메소포타미아 통일, 법전 편찬
• 쇠퇴: 기원전 1500년경 철제 무기를 사용한 히타이트에 멸망

③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 개방적 지형으로 여러 왕조 변천, 쐐기 문자 사용, 태음력 · 점성술 발달, 60진법 사용, 현세적 세계관

(2) **이집트 문명**

① **성립**: 나일 강의 범람을 이용한 농업 발달, 도시 국가 성립 → 기원전 3000년경 통일 왕국 형성

② **정치**: 왕인 파라오 중심의 신정 정치, 태양신 등 숭배, 피라미드 건설

③ **이집트 문명의 특징**: 폐쇄적 지형으로 통일 왕국 유지, 상형 문자 사용, 태양력 · 측량술 · 기하학 발달, 내세적 세계관(미라, 사자의 서)

(3) **페니키아와 헤브라이의 활약**

① **페니키아**: 해상 무역, 표음 문자 사용(알파벳의 기원)

② **헤브라이**: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 성립 →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 영향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22쪽

해마다 정기적으로 범람하여 비옥한 흙을 실어 날라 농경이 발달하면서 문명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3쪽

강력한 왕권이 확립되어 있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24쪽

1. 왕이 제후에게 봉토를 지급하는 대신, 제후는 왕에게 군역과 공납의 의무를 졌다.
2. 왕 아래 제후, 그 아래 경 · 대부 · 사가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5쪽

태어난 가문(집안)의 지위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6쪽

우르 인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지구라트에서 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협이나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기원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29쪽

1. 정치 변천: 정치적 안정, 문자: 쐐기 문자, 과학 기술: 태양력, 측량술, 기하학
2. 예시 답안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도시의 평안을 기원하는 현세 중심적(현세 기복적) 종교관이, 이집트에서는 사후의 부활을 기원하는 내세적 종교관이 유행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29쪽

1. (1) 봉건제, (2) 브라만교, (3) 함무라비
2. (1) ㉢, (2) ㉡, (3) ㉠
3. (1) ○, (2) ○, (3) ×, (4) ×
4. 피라미드, 미라, 사자의 서 등

내용 더하기

문명 3차시

문명(文明)은 고도로 발달한 문화와 사회를 의미한다. 문명(civilization)이라는 용어는 라틴 어의 키비스(civis, 시민)나 키빌리타스(civilitas, 도시)에서 유래하였다. 이 용어가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유럽의 국가 형성 시기인 18세기경으로, 비유럽의 '야만'을 차별하는 뜻을 내포하였다.

문명은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 사회적 발전이라고 정의되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독일 철학이나 사회학에서는 문명과 문화를 서로 대치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인류의 정신적 · 가치적인 소산을 문화라 하였고, 물질적 · 기술적 소산을 문명이라고 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문화 인류학이 보급되면서 문명을 문화의 한 부분으로 보는 태도가 일반화되었다. 이는 문화라는 커다란 범위 속에 물질적 요소인 문명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역사가 토인비는 문명의 단위를 국가보다는 크고 세계보다는 작은 중간 범위에서 구하였다.

청동기 시대 3차시

청동기 시대는 덴마크의 톰센이 제창한 선사 시대의 역사 구분법 중의 하나로, 구리와 주석을 합금한 청동으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던 시대이다. 청동기 시대는 석기 시대에 이어 등장하였고 철기 시대로 연결된다. 청동 제작의 전제 조건은 구리, 주석 등 광물 자원 확보와 야금술의 발달이다. 청동기가 사용되면서 무기가 발달하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이 촉진되었으며, 직업이 분화되고 문화 수준이 향상되었다.

톰센이 제시한 석기-청동기-철기의 선사 시대 구분은

유럽, 중동, 인도, 중국 등의 역사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는 이 시대 구분이 들어맞지 않는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대부분 지역은 신석기 시대에서 곧바로 철기 시대로 이동한다. 한반도의 경우도 이 시대 구분을 적용하기에 애매한 점이 많아 청동기 시대를 토기를 중심으로 하여 민무늬 토기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일본처럼 석기 시대에 청동기와 철기가 함께 전해져 청동기 시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철기 시대로 이행하는 경우도 있다.

은허 3차시

은허(殷墟)는 중국 허난 성[河南省] 안양 현[安陽縣] 북서 일대에 있는 상나라 시대의 유적이며, 상 후기의 수도로 알려져 있다. 갑골문을 비롯한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1899년 은허에서 갑골문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1928년부터 1937년까지 15회에 걸친 발굴 조사가 진행되어, 다량의 갑골, 10여 개의 큰 무덤, 1,000여 개에 이르는 작은 무덤, 상의 궁전과 주거지가 발견됨으로써 이곳이 은 후기의 수도였음이 확인되었다.

중앙에 토단을 쌓아 올린 궁전 초석과 토단 주위에 일반 백성의 것으로 보이는 수혈식 주거 유적이 확인되었고, 외곽에서는 도기 · 골기 등을 만드는 장인의 공장과 주거지가 많이 발견되었다. 큰 묘는 네모꼴이거나 아형(亞形)이며, 껴묻거리로는 청동 용기, 무기, 악기, 옥으로 만든 장신구 등이 출토되었다.

1976년에는 상의 임금 무정(武丁)의 비(妃)인 부호(婦好) 묘가 발굴되어 수준 높은 청동기 유물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 무덤에서 나온 유물은 1,928점인데 청동기 468점, 옥기 755점, 골기 564점이며 석기들도 발굴되었다. 또한 순장된 16명의 사람과 6마리의 개 유골이 출토되었고, 무덤의 위에 지은 제사용 건물인 향당의 흔적이 발굴되었다.

갑골문 3차시

갑골문은 중국 은허에서 대량으로 발굴된 고대 문자로, 거북의 배 껍질[甲]과 짐승의 뼈[骨]에 새겨진 문자였다는 데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갑골문은 상형 문자이며, 한자의 초기 형태에 해당된다. 발굴된 뼈는 대부분 기원전 1200년에서 기원전 1050년에 걸친 시기의 것으로 상 말기에 해당한다.

갑골문은 현재 알려진 한자의 가장 오래된 형태로 회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갑골에 기록한 내용은 제사, 풍우, 전렵(田獵), 농경, 군사, 사명(使命), 질병, 복점 등이다. 갑골문의 연구를 통해 전설로만 전해졌던 상이 실존 왕조임이 밝혀졌다.

인더스 문명 유적 4차시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약 2500년경부터 기원전 1500년경까지 인더스 강과 가가르-하크라 강 사이의 계곡 지대에서 발달한 고대 문명이며,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등이 중심 도시이다. 인장을 비롯한 인더스 문명의 유물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발견됨으로써 두 지역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진 사실을 뒷받침한다.

인더스 문명의 주인공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후에 침입한 아리아 인과는 별개의 종족이었다. 이들은 정연한 도시 계획에 따라서 견고한 주택과 목욕탕, 직선으로 뻗은 대로를 건설하였는데, 건축 소재로는 주로 구운 벽돌을 이용하였다. 주택은 우물, 변소, 욕실과 같은 위생 시설을 완비하였고, 현대 도시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하수 시설을 갖추었다.

인더스 문명의 도시에서 거대한 신전이나 우상은 찾아볼 수 없으나 대형 목욕장이 발견되었는데, 이곳에서 종교 의례가 행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지역에서는 도량형, 벽돌의 모양이나 크기를 정하였으며, 도시의 규모도 대체로 일정하게 정하였다.

아리아 인의 이동과 베다 시대 4차시

인더스 문명의 멸망 이후에는 이주해 온 아리아 인들에 의해 베다 시대가 열렸다. 아리아 인은 카스피 해와 러시아 남부의 늪지대에 살던 유목민이었으나, 기원전 1,500년경 인도 북부의 펀자브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드라비다족과 같은 선주민과 충돌하게 되었다.

철기 문화를 가진 아리아 인이 인도의 북서부를 차지하면서 베다 시대가 시작되고 청동기 문화를 가진 선주민들은 인도 남부로 밀려났다. 기원전 1500년경부터 기원전 600년경까지 이어지는 베다 시대는 인더스 강 유역과 펀자브 지역에서 델리까지 확장해 가는 기원전 1000년경까지의 전기 베다 시대와, 동진을 계속하여 선주민의 문화와 융합이 일어나는 후기 베다 시대로 구분된다. "베다"는 종교 문헌으로 신에 대한 찬가와 기도문을 비롯하여 철학, 문학, 사회생활에 이르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 베다 시대에는 카스트제가 등장하였다. 가부장적

사회를 이루었던 아리아 인들은 정복민과 피정복민을 구분하였으며, 종교 의식을 관장하는 사제 집단인 브라만, 국가를 운영하는 지배층과 군인 집단인 크샤트리아, 생산을 담당하는 바이샤 등으로 계급이 분화되어 카스트제 초기의 모습이 나타났다.

후기 베다 시대는 인도의 철학적 관심, 종교적 열망 등과 관련된 사상적 기저가 제시되어 있는 "우파니샤드"로 대표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윤회, 업(Karma), 법(Dharma), 브라만(우주의 본체), 아트만(인간의 영혼)과 같은 인도 종교 철학에서의 주요 개념들이 형성되며 오늘날과 같은 모습의 카스트제가 확립되었다. 특히 "우파니샤드"는 종교적 제의보다 인간이 자아 성찰에 의해 해탈할 수 있다는 인간 중심의 종교 철학을 제시함으로써 불교 출현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카스트제 4차시

인도의 카스트제는 현재까지 인도 사회 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인도에서는 카스트를 산스크리트 어로 색이라는 뜻의 바르나(Varna)라고 부른다. 인도의 카스트 계급에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의 주요 4개의 계층이 있다.

카스트제의 원래 목적은 사람을 계급 순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분업을 통해 각자의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던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목적이 변질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인도에는 4개의 주요 카스트 아래에 파리아라는 불가촉천민이 존재한다. 이들은 힘들고 부정한 일에 종사하며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하기도 한다.

브라만교 4차시

브라만교는 베다 시대에 인도에서 전개된 종교로서 브라만이라고 불리는 사제 계급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브라만교는 베다의 종교적 가르침을 토대로 하여, 우주의 근본 원리인 브라만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전개된 종교로 훗날 굽타 왕조 시대에 민간 신앙과 불교 등이 결합되어 힌두교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브라만교가 그 포괄 범위를 명확히 그을 수 있는 종교 체계는 아니어서, 흔히 브라만교라고 할 때에는 인도의 민족 생활과 사회 구조에 기반을 둔 전통적 철학과 사상, 신학, 제사 의례 등의 종교 현상 전반을 총칭하는 경우가 많다.

지구라트 4차시

메소포타미아의 각지에서 발견되는 고대의 건조물로서, 하늘에 있는 신(神)들과 지상을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수메르 문명 초기에 신전의 기단에서 발달하였는데, 점점 작아지는 사각형의 테라스를 겹쳐 기단으로 삼고 그 최상부에 신전을 안치한 형식으로 건축되었다.

각 도시마다 있었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지구라트는 무너져 원형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지구라트는 우르에 있는 것이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바벨탑'이 지구라트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

함무라비 법전 4차시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발췌)

-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나무를 베었다면 그에 대해 변상해 주어야 한다.
- 어떤 사람이 자신의 논에 물을 대려고 하다가 부주의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논에 물이 차게 만들었다면 그는 자신이 망가뜨린 곡식에 대해 변상해 주어야 한다.
- 도둑이 소나 양, 당나귀, 돼지, 염소 중 하나라도 훔쳤더라도 그 값의 열 배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도둑이 보상해 줄 돈이 없다면 사형당할 것이다.
-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알을 뺄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게 되었다면 의사의 손은 잘릴 것이다.
- 건축가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무너져 주인이 죽음을 당하면 건축가는 사형에 처한다. 만약 집주인의 일가족이 죽었을 경우에는 목수의 가족 중 해당되는 이가 죽어야 한다.
- 강도가 어떤 집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그 구멍 앞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 만약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할 만하다고 하여 고소하고도 이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고소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 어느 노예라도 그가 주인에게 "이 자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주인은 자기 소유의 노예임을 입증하고 그 귀를 자를 권리를 가진다.

함무라비 법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제정하였다. 고대 법전으로서는 드물게 사법(私法) 영역에서 종교를 떠나 법기술적(法技術的)인 규정을 발달시켰으며, 특히 진보된 채권법 규정을 갖

추었다. 형법 부문에서는 '눈에는 눈으로'라는 탈리오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피라미드 5차시

피라미드는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고대 이집트의 유적으로 기자의 3대 피라미드가 가장 유명하다. 현재 80여 기가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카이로 서쪽 나일 강 서안 사막 연변에 점재해 있다. 피라미드는 마스타바라는 벽돌식 단층 무덤에서 발전하였다. 그 후 마스타바를 더 높고 웅장한 형태로 변형하여 다층 마스타바나 계단식 피라미드가 건설되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 형식이 나타난 시기는 이집트 제4 왕조의 파라오 스네프루(재위 기원전 2613~기원전 2589) 때이다. 스네프루에 이어 파라오가 된 쿠푸(재위 기원전 2589~기원전 2566)는 피라미드의 규모를 극대화하여 대규모 피라미드를 건설하였다. 이후 거대한 피라미드가 정점을 이루고, 평민들까지 피라미드를 세울 수 있게 되면서 사람 크기 정도의 작은 피라미드도 만들어졌다.

투탕카멘 5차시

투탕카멘은 이집트 제18 왕조의 파라오이다. 1922년에 그의 무덤이 발견되기 전까지 투탕카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았다.

룩소르 서쪽 사막에 있는 '왕들의 골짜기'는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들이 매장된 장소였다. 많은 무덤들이 도굴꾼들에 의해 약탈당했으나, 1922년 영국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온전한 상태의 무덤을 발굴하였는데, 이 무덤에서는 이집트의 예술과 숙련된 공예 기술을 보여 주는 온갖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무덤이 발견됨으로써 9살에 파라오가 되어 짧은 재위 기간 동안 중요한 역사적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었던 투탕카멘은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파라오가 되었다.

투탕카멘의 보물 중에는 황금으로 된 관과 황금 가면, 조각이 새겨진 왕좌, 모형 배들, 장신구, 램프, 단지, 전차, 부메랑, 활과 화살 등이 있었다. 무덤의 벽에는 화사하게 채색된 그림이 그려져 있었으며, 그의 유해에는 시들어 버린 꽃다발들이 남아 있었다. 투탕카멘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오랫동안 제기되면서 살해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2005년 그의 미라를 정밀하게 재검사해 본 결과 투탕카멘은 치명적인 감염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자의 서 5차시

사자의 서(死者의 書, Book of the Dead)는 고대 이집트 시대 관 속의 미라와 함께 매장한 사후 세계에 관한 안내서로서, 파피루스나 피혁에 교훈이나 주문 등을 상형 문자로 기록한 것이다.

고대 이집트 인들은 주문에 의지하여 내세의 행복을 추구하였으나, 현세에서 선행을 쌓지 않으면 내세에 갈 수 없다고 여겼다. 이에 죽은 이에게 이 사실을 가르칠 문구를 파피루스에 기록하여 관에 넣은 것이 '사자의 서'이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 인의 내세관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죽은 자의 영혼이 사후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최후의 재판인 심장 무게 달기 의식을 통과해야 한다. 죽은 자의 심장을 큰 저울에 올려 정의와 지혜의 여신인 마트의 깃털로 무게를 재는데, 심장이 마트의 깃털보다 무거울 경우 이승에서 많은 죄를 지었다 하여 괴물 암무트가 심장을 먹어 버린다. 이집트 인들은 죽은 자가 심장을 잃으면 그 영혼이 사후 세계로 가지 못하고 영원히 이승을 떠돈다고 믿었다. 반면에 심장과 깃털의 무게가 일치하면 죽은 자는 부활한다고 믿었다.

유대교 5차시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서"는 세계의 시작을 신학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종말 사상의 궁극적 도래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종말 사상은 바빌론 유수 이전의 예언자들에 의하여 싹텄으며, 이는 크리스트교로 계승되었다. 유대교는 선민사상에 바탕을 둔 종교로서 하느님의 아들인 메시아의 도래를 갈망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인 여호와가 그들의 조상을 선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았고, 그 자손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어 그들을 지키고 축복한다는 것이 선민사상의 개념이다. 이에 따라 유대 인들은 오직 여호와에게만 정성을 다하고, 그 외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 이것은 여호와와 유대 인 사이에 맺어진 계약 관계이며, 계약이 구체화된 것이 율법이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신의 분노를 초래한다.

유대교의 경전은 뒤에 크리스트교의 경전(구약 성서)이 되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교에서는 그 이후의 구전(口傳) 율법과 고대 말기에 그 해석을 집대성한 "탈무드"를 경전에 추가하였다. 그 뒤에도 시대에 따른 율법 해석이나 전승(傳承) 형성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Ⅰ.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04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학습 목표

- 한반도 지역의 청동기 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
- 고조선의 통치 이념과 영역을 설명할 수 있다.
- 한반도의 철기 문화와 농기구의 발전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 위만 조선의 흥망 과정과 사회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내용	수업 방법	수업 자료
6	1. 고조선의 성립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청동기가 사용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문답식	
	[전개]		
	• 한반도 지역의 청동기는 중국이나 중앙아시아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30쪽 사진
	• 청동기 시대에 한반도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여러 유적을 통해 살펴보게 한다.	탐구식	31쪽 자료
	• 고조선은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했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32쪽 자료
	• 고조선의 등장이 우리 역사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은?	문답식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7	2. 고조선의 발전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위만 조선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한반도의 초기 철기 문화는 세형 동검이 제작된 시기에 성립하였고, 농기구를 위주로 발달하였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33쪽 사진
	• 고조선은 후기에 청동기와 함께 철기를 사용하였고, 한반도 북부의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음을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PPT
	• 위만 조선은 중국 한과 한반도 남부 및 일본 열도 사이에서 중계 무역으로 발전하였으나, 중국 한 무제의 공격으로 멸망하였음을 이해하게 한다.	강의식	34쪽 지도
	• 고조선은 어느 정도 중앙 통치 체제를 갖춘 국가로서, 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신분제 사회였음을 파악하게 한다.	탐구식	35쪽 자료

7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한반도의 철기 문화 전래 시기에 만들어진 동검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고조선의 성립

(1) 청동기 문화의 발전

① **독자적 청동기 문화 성립**: 기원전 1000년경, 만주와 요동, 한반도 북부 지역(비파형 동검 등)

② **청동기의 용도**: 지배층의 무기, 장신구, 제사 용품 등

③ **각종 유물**

- 생활 도구, 농기구: 석기 중심(반달 돌칼, 돌도끼, 홈자귀 등)
- 토기: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다양한 형태), 붉은 간 토기 등

(2) 농업의 발달과 지배층의 출현

① **농업의 발전**: 농경지 확대, 농작물 종류 증가

- 밭농사: 조, 기장, 수수, 보리, 콩, 팥 등 재배
- 벼농사: 남한 지역에서 관개 시설을 이용한 집약 농업 출현(충남 부여 송국리 등)

② **주거와 마을의 변화**

- 주거: 원형에서 직사각형 움집으로 변화
- 마을: 구릉 지대에 형성, 방어를 위하여 마을 주위를 도랑이나 울타리로 둘러쌈(울산 검단리 유적 등).

③ **계급 사회로의 이행**

- 계급 분화: 생산성 향상, 사회 규모 확대 → 사유 재산과 빈부 격차 발생 → 지배자의 등장, 세력 확대
- 고인돌, 돌널무덤: 지배층의 대형 무덤, 껴묻거리 매장

(3) 고조선의 성립

① **고조선의 성장**

- 성립: 기원전 10세기경 중국 요령과 한반도 서북 지역에 나타난 농경 문화와 청동기 문화 세력 통합
- 성장: 기원전 4세기경 중국의 연과 대립할 만큼 성장

② **단군의 건국 이야기**: "삼국유사"에 기록, 청동기 시대의 세계관과 사회 질서, 통치 이념 등 반영

- 환인, 환웅: 하늘의 자손임을 내세우는 지배 부족
- 웅녀: 토템 신앙을 가진 원주민 집단 포용
- 홍익인간: 사회 통합의 실현 추구
- 단군왕검: 제정일치 사회의 지배자

2. 고조선의 발전

(1) 철기 문화의 성립

① **기원전 3세기경**: 요동 및 한반도 북부 지역부터 초기 철기 시대 시작

- 청동기: 세형 동검, 청동 거울
- 철기: 철제 도끼, 호미, 괭이, 보습, 낫
- 후기 민무늬 토기: 덧띠 토기, 검은 간 토기 등

② **초기 철기 시대의 변화**

- 농업 발달: 농경 지역의 확대, 농업 생산성의 향상
- 기원전 1세기경: 한반도 전 지역의 철기 시대 진입, 철제 무기는 주조(鑄造) 위주의 초보적 수준

(2) 위만 조선의 성립

① **기원전 3세기경**: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고조선 발전

② **위만 조선**

- 진 · 한 교체기(기원전 2세기 초): 위만을 비롯한 옛 고조선 지역의 유민 다수 유입
- 위만 왕조 성립: 위만이 준왕을 쫓아내고 왕위 찬탈(기원전 194)

(3) 위만 조선의 발전

① **정복 활동**: 한의 철기 문화 본격적 수용, 군사력 강화 → 진번과 임둔 지역 정복

② **경제 발전**: 중국의 한과 남한 및 일본 열도 지역 사이에서 중계 무역으로 번영

(4) 위만 조선의 멸망

① **고조선과 한의 대립**: 고조선 우거왕이 한과 진국의 직접 교섭 방해 → 한 무제의 고조선 침략

② **고조선의 멸망**: 고조선의 한 격파, 1년 이상 왕검성 방어 → 내부 분열로 멸망(기원전 108)

③ **한사군 설치**: 한의 고조선 영역 직접 지배 시도 → 고조선 유민의 저항으로 한 군현 쇠퇴

(5) 법으로 사회 질서 유지

① **고조선의 국가 체제**: 어느 정도 중앙 통치 체재를 갖춘 국가, 수도 왕검성을 중심으로 넓은 지역 통치, 왕을 중심으로 관료와 군사 유지

② **8조법**: 3개 조항 전래 → 고조선의 사회 모습 반영(생명과 노동력 중시, 사유 재산제 인정, 신분제 사회 등)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30쪽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 정상에 있는 참성단은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이 쌓아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려 후기 몽고의 침략으로 강화도로 천도한 시기에 고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초로 인식하게 되어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고조선의 계승을 표방한 조선 왕조도 참성단 보존에 노력하였다. 오늘날에는 전국 체전 때 이곳에서 봉화를 채화하는 의식이 열리고, 개천절에는 제천 행사가 열리고 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31쪽

1. 고인돌은 죽은 자를 위한 무덤으로서 거대한 돌을 운반하여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다. 이는 당시 사회에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나타났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2. 예시 답안 영국의 스톤헨지와 프랑스 카르나크 거석문화, 동남아시아의 거석문화 등이 있다.



▲ 스톤헨지



▲ 카르나크 거석

생각 열기 ▶▶▶ 교과서 33쪽

"사기" '조선전'에는 위만 조선의 성립 과정과 멸망 과정이 적혀 있으며, 특히 멸망 과정이 상세하다.

한 무제는 기원전 109년에 좌장군 순체(요동병 6만)와 누선 장군 양복(수군 7천)에게 고조선 공격을 명령하였으나, 수군은 열구에서 고조선 수군에게 패배하고, 육군은 패수 방면에서 고조선군에게 격파당하였다. 이에 무제는 사신 위산을 보내 평화 교섭을 추진하였으나, 고조선 태자 장의 강경 자세로 결렬되었다.

교섭이 결렬되자 한의 군대는 패수 상류를 건너 공격하여 왕검성을 포위하였다. 우거왕은 한에 맞서 전쟁을 계속하고자 하였으나, 조선상 노인과 상 한음이 미리 한군에 투항하고, 니계상 참은 우거왕을 죽이고 투항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신 성기와 장군 왕협은 왕검성을 고수하며 1년간 버티다가 내분으로 몰락하였다. 이에 한 무제는 고조선 땅에 낙랑군, 진번군, 임둔군 등을 설치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35쪽

1. (1) ㉠, (2) ㉡, (3) ㉢
2. (1) 제정일치, (2) 철기, (3) 8조법
3. 홍익인간으로, 이 시기에 등장한 지배층이 부족 단위인 폐쇄적인 사회 질서를 타파하고 큰 사회로 통합하여 모든 사람을 더욱 이롭게 하겠다는 통치 이념이다.

내용 더하기

한국의 청동기 문화 6차시

기원전 1000년경부터 요동 및 한반도 지역에서는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곳에서는 중국 계통의 청동기와는 다른 비파형 동검을 비롯하여 부채꼴 청동 도끼, 청동 단추 등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돌을 정교하게 갈아 만든 반달 돌칼, 여러 가지 모양의 돌도끼, 홈자귀 등의 생산 도구가 사용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간돌검과 간 돌 화살촉과 같이 지배자의 위신을 과시하기 위한 의기도 제작되었다. 또한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 토기 등 신석기 시대의 것과 다른 새로운 형식의 토기가 만들어졌다.

청동기 시대의 농경 6차시

기원전 10세기경부터 기원전 4세기경까지 전개된 청동기 시대에는 조, 벼와 같은 곡물이 본격적으로 재배되었다. 특히 도랑을 내어 물을 댄 논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경 방식이 충남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관개 농경은 점차 한반도 남부 전역으로 파급되어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는 낮은 구릉 위에 조성된 장방형 움집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중에는 울산 검단리 유적과 같이 마을 전체를 환호(環濠)로 둘러싼 방어형 취락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청동기 시대에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회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 계급도 분화하였다. 그리하여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무덤 등과 같이 일부 지배층의 사후 세계를 위한 고분군이 조성되고, 여기에 청동기와 같이 귀중한 물건들이 부장되었다. 시대가 내려갈수록 고분군의 규모가 커지고 부장 유물이 많아지는데, 이는 계급 발전이 점차 심화되어 갔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단군의 고조선 건국 6차시

"삼국유사"의 단군 기사에 따르면, 옛날에 하늘에서 내려온 환인의 아들 환웅이 곰에서 변한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고,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그에 앞서 환웅은 하늘 위에서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천부인 세 개를 받아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의 신단수 아래 내려와 신의 도시를 열었다고 한다.

이는 청동기 시대 초기 계급 사회의 세계관을 보여 준다. 즉 하늘의 자손이라 자처하는 우세 부족의 지배자가 나타나 동물 토템 신앙을 가진 원주민들을 포용하여 새로운 지배 체제가 성립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홍익인간은 신석기 시대의 고립적 사회 질서를 타파하고 더 큰 사회로 통합해 냄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문명의 이익을 누리게 하겠다는 통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초기 계급 사회를 건설한 지배자들은 이러한 신정 일치의 논리를 통하여 피지배 부족들의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 냄으로써 자신들의 불완전한 지배 체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고조선, 연나라와의 대립 6차시

중국 기록 "관자"에 의하면 고조선이 중국 춘추 5패의 하나인 제나라와 교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략"에 의하면 고조선이 기원전 4세기에 전국 7웅의 하나인 연나라와 싸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조선이 중국 연나라의 동방 경략에 대하여 무력으로 대항했다는 것은 당시 고조선의 국가 수준이 연나라에 맞먹는 초기 고대 국가 단계에 이르렀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고조선은 기원전 3세기 초 연나라 장수 진개의 공격을 받아 서쪽 땅 2000여 리를 빼앗기고 약해졌다.

연나라 장수 진개의 고조선 공격 6차시

"위략"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옛날에 기자의 후손인 조선후가 주나라가 쇠하고 연나라가 자기 스스로 높여 왕이라 칭하고 동쪽으로 땅을 빼앗으려 함을 보자, 그도 또한 왕이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쳐서 주나라 왕실을 높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나라 대부 예가 간언하므로 그만두었다. 그리고 예를 서쪽으로 파견하여 연나라를 설득하게 하니 연나라도 전쟁을 중지하고 침공하지 않았다. 그 뒤 자손들이 점점 교만하고 포학해지자 연나라는 장군 진개를 보내 조선의 서쪽을 쳐서 2,000여 리의 땅을 빼앗고 만반한에 이르러 국경을 삼았으니, 마침내 조선은 쇠약해졌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왕검성의 위치 6차시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 토기의 분포가 겹치는 지역으로, 대략 중국의 랴오허 강 동쪽으로부터 한반도의 대동강 유역까지 해당된다. 그러나 고조선 수도 왕검성의 위치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항상 요동에 있었다는 설, 항상 평양에 있었다는 설, 기원전 4세기 이전에는 요동에 있다가 기원전 3세기 초에 평양으로 이동하였다는 설 등이 있다. 이동설이 현재 학계의 다수설로서, 그 근거는 "위략"에 보이는 연나라 장수 진개의 고조선 공격 기사와 비파형 동검 및 세형 동검의 분포에 있다. 즉, 기원전 4세기 이전에는 비파형 동검의 중심지가 요령성 지역에 있었는데, 기원전 3세기 이후로는 그보다 발달된 세형 동검의 중심지가 대동강 유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철기 문화 7차시

기원전 3세기 이후로 요동 및 한반도 지역에서 철기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북쪽에서부터 쇠도끼, 호미와 괭이를 비롯한 각종 철제 농기구와 연나라 화폐인 명도전 등이 나타났고, 그와 함께 세형 동검, 청동 투겁창(동모), 청동 가지창(동과)과 같은 좀 더 개량된 청동기가 한반도 전역에 퍼졌다.

세형 동검은 대부분 한반도 내부에서만 나타나므로 이를 한국식 동검이라고도 한다. 토기로는 갈색 덧띠 토기, 검은 간 토기와 함께 회색 계열의 토기가 새로이 출토되었다. 한국 철기 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중국 요령성 푸순[撫順] 연화보(蓮花堡) 유적, 평북 영변 세죽리 유적, 평북 위원 용연동 유적, 평남 강서 태성리 유적, 충남 부여 합송리 유적, 충남 당진 소소리 유적, 전북 장수 남양리 유적, 경남 사천 늑도 유적,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 등이 있다.

초기 철기 시대의 농기구와 무기 7차시

기원전 3세기경부터 기원 전후까지 전개된 초기 철기 시대에는 농경과 관련한 쇠괭이, 쇠보습, 쇠낫과 같은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 여건이 비교적 좋지 않은 곳에도 논을 조성하여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기원전 1세기가 되면 한반도의 남쪽 지역에서도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여 한반도 전역이 철기 시대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각 지역의 정치 세력들은 아직까지 칼과 검이나 창과 같은 철제 무기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수 없어서, 중국의 진이나 한에 비하면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복 전쟁 능력이 미흡한 상태였다.

위만 조선의 성립 7차시

세형 동검 관련 유물의 분포 상태로 보아 기원전 3세기 이후 고조선의 중심지는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 기원전 3세기 말 진이 중국을 통일하고 요동 지방에서 고조선과 경계를 접하게 되자 고조선의 부왕은 진과 왕래하지 않고 거리를 두었다. 부왕의 아들 준왕은 진이 멸망하고 한이 들어서는 혼란기를 맞이하여 국경을 전진시켜 패수를 국경선으로 삼았다.

한의 연왕 노관이 북쪽으로 국경을 접한 흉노의 침략을 받아 항복하자 한의 20만 군이 이를 토벌하였다. 이에 고조선 유민인 위만이 무리를 이끌고 패수를 건너 고조선 국경 안의 변경에 거주하면서 중국 방면에서 들어오는 여러 유민들을 통제하였다. 준왕은 그에게 100리의 땅을 봉해 주고 고조선 서쪽을 지키게 하였으나, 나중에 세력이 커진 위만은 기원전 194년에 준왕을 쳐서 왕검성을 빼앗았다.

위만 조선의 주변 정복과 대외 교역 7차시

중국의 한은 제후국 연을 토벌하여 군을 설치하고 요동 태수를 임명하였다. 위만왕은 요동 태수와 약속하여 한의 국경을 안정시키고 주변의 군장 세력들이 한과 교역하고자 하면 막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의 외신이 되었다. 이에 따라 위만왕은 한으로부터 우수한 무기와 재물을 손에 넣고 주변 소국인 진번과 임둔을 정복하여 한반도 북부 지역을 거의 다스리게 되었다.

고조선은 그 후 한반도 남부 및 일본 열도의 여러 지역들과 중국의 한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하며 발전하였다. 기원전 2세기경에 한반도 서남부의 충남, 전북, 전남 지역에서 세형 동검 계통 청동기 문화가 성행하고 남해안의 경남 사천 늑도 유적과 일본 이키 섬 하라노쓰지 유적을 거쳐 북규슈 지역까지 세형 동검 계통 청동기와 단면 원형 덧띠 토기와 같은 후기 민무늬 토기가 발견되는 것은 이를 반영한다.

위만 조선의 팽창 7차시

조선 임금 만(滿)이란 자는 옛날 연나라 사람이다. 연나라가 전성할 때로부터 일찍이 진번과 조선을 침략하여 자기 나라에 붙이고 관리를 두고 장새를 쌓았다.
진(秦)이 연을 멸하자 요동 밖 변방을 자기 땅에 붙였다. 그러나 한이 일어나자 지방이 멀어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요동의 옛날 요새를 수리하여 패수에 이르러 경계를 삼아 연에 붙였다. 연왕 노관이 반란을 일으켜 흉노로 들어가자 만은 도망해서 무리 1,000여 명을 모아 가지고 북상투를 하고 오랑캐의 옷을 입은 채 동쪽으로 달아나 국경을 지나서 패수를 건넜다. 이리하여 진나라의 옛날 빈터인 상하장에서 살았다. 여기에서 그는 차츰 진번과 조선, 그리고 오랑캐 및 옛날 연과 제에서 도망한 자들을 자기에게 붙여 왕 노릇하고 왕검에 도읍을 정하였다.
이때는 마침 효혜 · 고후 때로서 천하가 처음으로 안정되었을 무렵이다. 요동 태수가 만을 외신으로 삼아서 국경 밖 오랑캐들을 막아서 변방에서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모든 오랑캐의 군장들이 천자께 들어가 뵙고자 하는 자는 이를 금지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 일을 조정에 보고하니 천자도 이를 허락하였다. 이 때문에 만은 군사의 위엄과 재물을 얻게 되자 그 곁에 있는 조그만 고을을 침략하여 항복시키니 진번과 임둔이 모두 와서 항복하여 땅이 수천 리나 되었다.

- "사기" '조선전'

위만 조선의 멸망 7차시

위만왕의 손자 우거왕 때에 이르러, 고조선은 진번 옆에 있는 진국이 한과 통교하려는 것을 막아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한 무제는 수군과 육군을 보내 고조선을 공격하였으나 고조선은 열구에서 한의 수군을 격파하고 패수 방면에서 한의 육군을 격파하였다. 한은 화평 교섭을 추진하다가 결렬되자 패수 상군을 치고 왕검성을 포위하였다.

우거왕과 관료들은 왕검성을 잘 지키며 저항하였으나, 내분이 일어나서 1년 만에 함락되었다(기원전 108년). 한 무제는 고조선의 옛 땅에 낙랑군, 진번군, 임둔군, 현도군의 한사군을 설치하고 직접 지배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고조선은 멸망하였으나 그 유민들은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가 한국 고대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고조선의 사회 성격 7차시

고조선은 한국사 최초의 고대 국가였다. 왕 밑에 조선상, 니계상과 같은 반독립적인 귀족들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아 내부적으로 귀족 연합체적인 성격은 있었으나, 수도 왕검성을 중심으로 한반도 북부에 걸치는 넓은 영역을 다스렸다. 왕 밑에는 대신과 장군과 같은 행정 관료 집단도 있었고 상당수의 상비군을 갖추었다. 사회 신분은 왕을 비롯한 귀족, 평민, 노비 등의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고조선의 8조법에는 '도둑질한 자를 노비로 삼는다.' 는 등의 구절이 있다. 이를 통해 고조선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 존재하였고, 고조선이 사유 재산과 신분이 존재하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Ⅰ.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05 고조선 이후 여러 나라의 발전

학습 목표

-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국가의 위치와 정치 조직을 파악할 수 있다.
- 고조선 이후에 성립된 여러 나라의 생활 양식을 설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내용	수업 방법	수업 자료
8	**1. 여러 나라의 성립**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철기 시대에는 어떤 형태의 무덤이 나타났을까?	문답식	
	[전개]		
	• 고조선 멸망 이후 만주와 한반도 각지에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여러 정치 세력이 성립하였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PPT
	• 여러 정치 세력들이 성장하면서 무기, 방어 체계, 무덤, 주거지 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이해하게 한다.	탐구식	37쪽 지도
	• 고조선 이후 성립한 여러 정치 세력들의 발달 단계가 서로 어떻게 달랐는지 설명한다.	강의식	
	• 한반도에 성립한 여러 정치 세력들이 통합되어 훗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의 고대 국가로 이어졌음을 이해하게 한다.	탐구식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가축 이름이 붙은 대가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는?	문답식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9	**2. 여러 나라의 생활과 풍속**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고조선을 이어 성립된 여러 나라에서는 왜 하늘에 제사를 지냈을까?	문답식	
	[전개]		
	• 부여와 고구려에서는 목축이 발달하고 법률이 엄격하였으며, 취수혼과 서옥제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PPT
	• 옥저와 동예는 농업과 어업이 발달했으나 사회 발전이 늦었으며, 민며느리제나 책화와 같은 풍습이 있었음을 설명한다.		
	• 삼한에서는 벼농사가 발달하고 비단을 생산하였으며, 제정 분리가 진행되어 제사장인 천군이 머무는 '소도'라는 구역이 있었음을 이해하게 한다.		39쪽 사진
	• 여러 나라들은 제천 행사를 열었으며, 그 행사의 시기와 형식으로 보아 이는 농경과 관련이 있었음을 이해하게 한다.	탐구식	40쪽 자료

9	• 여러 나라들이 발전하던 시기에 옛 고조선 지역에는 중국이 설치한 낙랑군이 있었으며, 그것은 한국 고대사와 깊은 연관이 있었음을 설명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10월에 무천을 열어 하늘에 제사를 지낸 나라는? 2. 정치적 지배자의 세력이 미치지 못한 신성 지역으로 삼한에 있었던 것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강의식 문답식	41쪽 자료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여러 나라의 성립

(1)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세력의 등장

① 철기 문화의 전파
- 고조선의 멸망 후 중국 동북 지역과 한반도 서북 지역의 철기 문화 세력이 각지로 이주 → 각 지역 토착민과 결합하여 정치 세력화, 중국 · 낙랑 등과 교류
- 철제 무기: 단검, 창, 화살촉, 고리자루 큰칼(지배자의 권위 상징) → 전쟁 활발, 침입에 대비한 방어 시설 발달

② 철기 시대의 문화
- 무덤 양식: 널무덤, 독무덤 등(철제 무기나 구슬, 회색 계열 토기 등 부장)
- 주거지: 직사각형의 지상 가옥 성행, 직사각형 평면의 움집 존재

(2) 여러 나라들의 성립

① **성립:**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여러 정치 세력 등장

② **부여와 고구려**
- 왕이 관료를 거느리는 체제
- 지배층: 대가들이 각 지방을 독립적으로 통치

③ **옥저와 동예**
- 지배층: 왕이 없고 읍락마다 읍군이나 삼로라 불리는 군장이 통치
- 변천: 초기에는 한 군현의 간섭을 받다가 고구려에 복속

④ **삼한**
- 구성: 78개의 소국이 마한, 진한, 변한으로 구분
- 지배층: 각 소국에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존재
- 변천: 마한, 진한, 변한 → 백제, 신라, 가야로 발전

2. 여러 나라의 생활과 풍속

(1) 부여

① **경제:** 밭농사와 목축 발전, 말 · 모피 등의 특산물 → 가축 이름 붙은 벼슬(마가, 우가, 저가, 구가)

② **문화와 풍습**
- 농경제: 영고(12월)
- 장례: 지배층의 장례에 순장 실시
- 법률: 살인과 투기는 사형, 도둑질은 12배 보상
- 풍습: 소 발굽 점, 흰옷 선호, 취수혼(娶嫂婚)

(2) 고구려

① **경제:** 농사보다는 목축 발전, 부경 설치

② **문화와 풍습**
- 농경제: 동맹(10월)
- 무예 숭상: 사냥이나 씨름 대회 개최, 활쏘기 · 말타기 등 수련
- 혼인 풍습: 서옥제(婿屋制, 데릴사위제의 일종)

(3) 옥저

① **경제:** 농경과 어로 발전, 고구려에 소금 · 어물 등 공물

② **풍습:**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 무덤

(4) 동예

① **경제:** 농경과 어로 발전, 바다표범 가죽 등의 특산물

② **문화와 풍습**
- 농경제: 무천(10월)
- 별점: 별을 보고 한 해의 풍흉을 점침.
- 부족 사회 유풍: 호랑이 신성시, 책화, 족외혼

(5) 삼한

① **경제**
- 농경과 양잠: 벼농사 발달, 저수지 축조
- 철 생산: 진한과 변한 중심, 변한의 덩이쇠 수출

② **문화와 풍습**
- 농경제: 5월제, 10월제
- 제정 분리: 천군과 소도 존재, 신성 지역에 솟대 설치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36쪽

충남 및 호남 지역에는 기원전 3세기 이래 세형 동검 계열의 순수 청동기 문화를 영위하는 세력들이 존재하였으나, 기원전 2세기 이후에 세형 동검과 함께 쇠도끼와 끌과 같은 철기를 보유한 유적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유물 변화는 준왕의 남하와 연관이 있어 보이며, 이들은 훗날 진국(辰國) 또는 마한(馬韓)으로 불리는 소국 연합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37쪽

1. 자료 1: 고구려, 자료 2: 동예, 자료 3: 삼한
2. • 부여, 고구려: 초기 고대 국가
   • 옥저, 동예: 군장 사회
   • 마한, 진한, 변한: 소국 연맹체

생각 열기 ▶▶▶ 교과서 38쪽

오리 모양 토기는 지금까지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김해, 부산, 울산, 경주, 포항, 대구 등지에서 40여 점이 발견되었다. 토기의 외형은 오리 모양이 주류를 이루고, 등과 꼬리 부분에는 액체를 담거나 따를 수 있는 구멍이 있다.

3~4세기의 덧널무덤에서 출토되는 것은 토기 질이 약간 무르고 회백색을 띠며, 5~7세기의 돌덧널무덤에서 출토되는 것은 좀 더 단단하고 회청색을 띤다. 오리 모양 토기가 나온 묘곽에서는 미늘쇠, 덩이쇠, 쇠 투겁창, 큰칼 등의 철제 위세품들이 함께 출토되고 있어서, 오리 모양 토기가 당시 높은 신분 사이에서 의식용으로 제작되어 매장된 유물임을 알려 준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장례용 새 깃털에 관한 내용으로 보아, 오리 모양 토기는 당시 사람들이 현생의 세계와 사후의 세계를 연결하는 기능, 즉 죽은 사람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명기(明器)로 부장한 것으로 보인다.

새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거나 곡령신을 불러다 주는 매개체로서 신성시되었다. 삼한의 고분이나 주거지에서는 오리 모양 토기와 새 모양 목기, 새무늬 청동기 등 다양한 형태의 유물이 출토되어 새와 관련된 의례나 제의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40쪽

1. ㉠ 고구려, ㉡ 옥저, ㉢ 동예, ㉣ 진한, ㉤ 변한
2. 널무덤, 독무덤
3. (1) ㉣, (2) ㉠, (3) ㉡, (4) ㉢

내용 더하기

기원 전후 ~ 3세기의 철기 문화 8차시

기원전 1세기 이후 한반도 철기 문화의 보급과 발전은 기존 세력의 자생적 성장이라기보다는 중국 동북부나 한반도 서북부의 선진 지역에서 발생한 유이민이 각지로 퍼지면서 나타났다. 이들은 각지의 기존 토착민들과 결합하여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였고, 또 그 세력을 바탕으로 중국 및 낙랑군 등과 교류하며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초기에는 널무덤, 독무덤이나 돌무지무덤이 나타나고 철기가 보급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2~3세기경에는 덧널무덤이나 둘레에 도랑을 두른 무덤 등으로 커지고 철기도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무기는 초기에 세형 동검이나 청동 투겁창과 같이 청동기로 만든 것이 많았으나, 늦어도 2세기 이후로는 거의 철제품으로 바뀐다. 그리하여 철제 단검, 투겁창, 꺽창, 화살촉 등과 함께 수장의 권위를 세우는 데 필요한 철제 고리자루 큰칼도 나오기 시작하였다.

기원 전후 ~ 3세기의 여러 나라 유적 8차시

부여는 중국 지린 성 일대의 쑹화 강 유역에 존재하였고, 초기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 및 훈장 강 유역에 자리 잡았다. 부여의 유적으로는 중국 지린 성 지린 시 동단산 유적, 유수현 노하심 무덤 등이 있고, 초기 고구려의 유적으로는 중국 지린 성 환런 시와 지안 현의 기단 없는 돌무지무덤들이 있다.

한편 옥저는 연해주와 함경도 일대에 존재하였고, 동예는 한반도 동북부와 강원도 일대에 존재하였다.

한반도 남부에는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3세기 무렵까지 삼한 소국들이 등장하여 마한, 진한, 변한으로 구분되었다. 마한은 경기, 충청, 전라 지역의 54개 소국으로 이루어졌고, 진한은 경상도 지역의 낙동강 동쪽을 중심으로 한 12개 소국, 변한은 낙동강 서쪽을 중심으로 한 12개 소국으로 이루어졌다. 삼한의 유적으로는 마한의 경기 김포 운양동 유적, 충남 천안 청당동 유적, 전남 해남 군곡리 유적, 변한의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 김해 양동리 유적, 진한의 울산 하대 유적, 경북 경주 조양동 유적 등이 있다.

여러 나라의 정치 조직 8차시

부여와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은 1~3세기 무렵에 한반도와 만주에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존재했던 지역 세력들로서, 정치적인 성장 수준에서 각각 차이가 났다. 고구려와 부여는 아직 중앙 집권 체제가 완성되지 못했으나 왕이 존재하는 초기 고대 국가에 해당하였고, 삼한은 수십 개의 작은 소국들이 연합되어 있는 연맹체를 구성하였으며, 옥

저와 동예는 여러 부족들이 뭉쳐 개별적인 군장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부여는 8만 호의 인구에 국왕이 있었고 관료, 궁실, 창고, 감옥이 있었다. 중앙에 왕이 존재하였으나, 그 외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제가가 권력을 분담하고 회의를 거쳐 통치하는 연방제 정부와 같은 성격이 강하였다. 제가는 사출도를 별도로 주관하며 독자적인 지역과 주민, 군대를 소유한 크고 작은 지방 제후와 같은 존재였다(부여는 285년 랴오허 강 상류에서 일어난 선비족 모용외의 침략을 받아 수도가 함락된 후 크게 약화되어, 4~5세기에 고구려의 간접 통치를 받다가 498년에 완전이 복속되었다.).

고구려는 3만 호의 인구에 국왕과 관료, 궁실이 있었으며, 5부의 상가가 권력을 분담하고 있었다. 옥저와 동예는 각각 5천 호와 2만 호의 인구에 큰 군장이 없었다. 옥저와 동예는 기원전 1세기에 한사군에 복속되었으나, 3세기에는 고구려에 복속 상태에 있다가 결국 독립성을 상실하였다.

삼한은 모두 15만 호이나 마한, 진한, 변한으로 나뉘어 있었고, 그 안에 78개의 소국이 존재하였다. 각 소국의 규모는 각각 달라서 큰 것은 인구가 5만을 넘고 작은 것은 3천에 불과한 것도 있었으나, 소국당 평균 인구는 1만 명 정도였다. 각 소국의 우두머리는 세력 서열에 따라 칭호가 달라서 신지, 험측, 번예, 살해, 읍차 등으로 불렸다.

3세기 무렵에 이르러 마한 소국 중 하나인 백제국이 마한 북부 지역을 병합하여 고대 국가를 이루었으며, 진한에서는 사로국이, 변한에서는 구야국이 각각의 소국 연맹장으로 대두하여 점차 세력을 키워 나가 4세기 무렵에는 좀 더 통합된 신라와 가야로 성장해 갔다.

여러 나라의 취락과 주거지 8차시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가 일반화되자 각 소국 사이에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약간 높은 지형에 마을을 만들거나 토성을 쌓아 방어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서울 몽촌 토성, 대구 달성, 경북 경주 월성, 전북 부안 토성과 같이 토성을 쌓은 것과 경남 김해 봉황대, 경남 창원 성산 패총, 경남 고성 패총과 웅천 패총처럼 해변 구릉에 환호를 두르고 그 안에 마을을 조성한 것들이 대표적이다.

주거지로는 장방형 평면의 지상 가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중에는 기둥 밑에 주춧돌을 깔고 지붕에 서까래를 이은 집도 있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땅을 파고 지은 움집이나 나무를 옆으로 쌓아 만든 귀틀집도 존재하였다.

여러 나라의 생업 경제 9차시

(1) 농경

부여와 고구려는 밭농사로 오곡을 재배하였고,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삼한은 오곡뿐만 아니라 논에서 벼를 재배하고 누에를 쳐서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었다. 당시 사람들은 쇠를 생산하여 그것으로 농기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철제 농기구로는 각종 쇠도끼, 쇠낫, 보습, 쇠따비, 살포 등이 있어서 농작물 생산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후기에는 쇠스랑, 가래, 쇠삽 등을 사용하여 논을 갈거나 수로를 내는 데 편리하게 사용하였다.

(2) 목축

부여에서는 목축이 발달하여 벼슬 이름에 말, 소, 돼지, 개 등의 가축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고, 또 명마를 잘 길렀다. 고구려의 말은 몹시 작으나 산에 잘 올라갔으며, 고구려 사람들은 말타기를 잘하였다. 한강 이남에서 청동기나 철기로 만든 수레 도구나 말 재갈과 같은 것이 발굴되는 것으로 보아, 삼한에서는 소나 말을 직접 타지는 않았어도 소나 말이 끄는 수레는 타고 다닌 듯하다.

(3) 제철 산업

진한과 변한에서는 철을 생산하여 주변 지역과 교역하였다. 특히 변한에서는 덩이쇠를 만들어 마한, 예, 왜, 중국 군현 등에 공급하였다. 이 시기에 철을 생산하던 야철지는 경기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경기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경기 화성시 기안동,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경북 경주시 황성동, 경남 창원시 성산 패총 등지이다.

여러 나라의 결혼 풍속 9차시

부여에서는 여자가 음란한 짓을 하거나 질투하면 죽여서 그 시체를 산 위에 갖다 버려 친정에서 소나 말을 주고 그 시체를 가져가게 하였다. 또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았는데, 이는 취수혼(娶嫂婚, levirate)이라고 하여, 형이 죽어도 그 가문의 남자 형제가 다른 남자 형제의 아내와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공동체 의식의 표현이다.

고구려에서는 혼인을 할 때 신부의 집 뒤에 조그만 서옥을 짓고 일정 기간 동안 사위를 살게 하였으며, 나중에 아이를 낳아 크게 자라면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돌아갔다(이는 조선 전기까지도 우리나라 전역에 성행하던 풍습이다.).

옥저 사람들은 혼인 초기에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다 민며느리로 삼았는데, 성인이 되면 여자 집으로 돌아갔다가 사위에게 돈을 받고서야 도로 남편 집으로 보냈다.

여러 나라의 매장 풍속 9차시

부여에서는 사람이 여름에 죽으면 모두 얼음을 채워 두고 또 사람을 죽여 순장하였는데, 때로는 100여 명을 순장하기도 하였다. "위략"에 보면 이 지방 풍속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다섯 달 동안 집에 두는데 오래 둘수록 좋은 것으로 여긴다.

고구려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하면 죽어서 장사 지낼 때 입을 옷을 미리 장만한다. 장사 지낼 때는 금과 은, 돈, 폐백 같은 것을 후하게 쓴다. 그리고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봉분 앞에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많이 심는다.

옥저는 장례 때 큰 나무로 열 길이나 되는 긴 덧널을 만들어 놓고, 시체를 가매장해 놓았다가 살이 다 썩으면 뼈만 추려 그 덧널 속에 넣어, 온 집안사람들의 뼈가 이 덧널 하나에 모두 들어갔다. 여기에 나무로 산 사람의 모양을 새겨 꽂아서 이 나무의 수효로 죽은 사람의 수를 알게 하였다.

마한에서는 장사를 지낼 때 관은 쓰지만 곽은 쓰지 않는다. 소나 말을 타고 다닐 줄 모르고 소나 말은 모두 사람이 죽어 장사 지내는 데 쓴다.

진한과 변한에서 장사 지낼 때는 큰 새의 날개를 다는데, 이것은 죽은 사람이 날아오르도록 하려는 뜻이다.

여러 나라의 특이한 풍속 9차시

부여에서는 흰옷을 즐겨 입었으며,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짐승을 잘 기르고 집집마다 갑옷과 무기가 있으며, 전쟁이 나면 소를 잡아 그 발굽이 갈라진 모양을 보고 길흉을 점쳤다.

고구려에는 집집마다 조그만 창고가 있었는데, 이것을 부경이라고 하였다.

동예 사람들은 별을 보고 그 해의 풍흉을 점쳤고,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를 드렸다. 부락끼리 서로 침범하면 소나 말로 배상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책화'라고 한다.

삼한의 각 고을에는 천신에게 제사 지내는 천군이 있어 소도에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신을 섬겼는데, 도망자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 이들을 잡을 수 없었다.

여러 나라의 농경제(제천 행사) 9차시

이 당시의 사람들은 농경을 매우 중시하여 대개 추수할 때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 부여 사람들은 음력 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영고'라는 행사를 하였다. 나라 안 사람들이 모두 모여 날마다 먹고 마시며 춤을 추었고, 이때에는 형옥을 중지하고 죄수를 풀어 주었다.

고구려에서도 10월이 되면 하늘에 제사를 올렸는데, 이때가 되면 나라 안 사람들이 수놓은 비단옷에 금은으로 장식을 하고 모였다. 이것을 '동맹'이라고 한다.

동예는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올리며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었는데,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삼한에도 농경 관련 제사가 발달하여, 음력 5월에 씨를 뿌리고 난 후와 10월에 추수를 한 후 모든 사람들이 한데 모여 제사를 올리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술을 마시고 놀았다.

한사군의 성립과 변천 9차시

한 무제는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반도 북부에 낙랑, 진번, 임둔, 현도의 네 군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한사군은 재지 주민의 저항을 받아 유지하기가 어려워져 기원전 82년에 진번군과 임둔군을 폐지하고 각각 절반 정도의 지역만 낙랑군에 합쳤다. 또한 현도군은 고구려 계통 주민의 반발로 기원전 75년에 3개 현만 거느리고 중국 지안의 신빈[新賓] 방면으로 이주하였고, 기원후 14년에는 랴오닝 성 푸순[撫順] 방면으로 이주하여 요동 방면의 6개 현만 유지하였다. 그리하여 한반도에는 한사군 중에 낙랑군만 남게 되었다. 이를 '대낙랑군 시대'라고 한다.

낙랑군의 성격 9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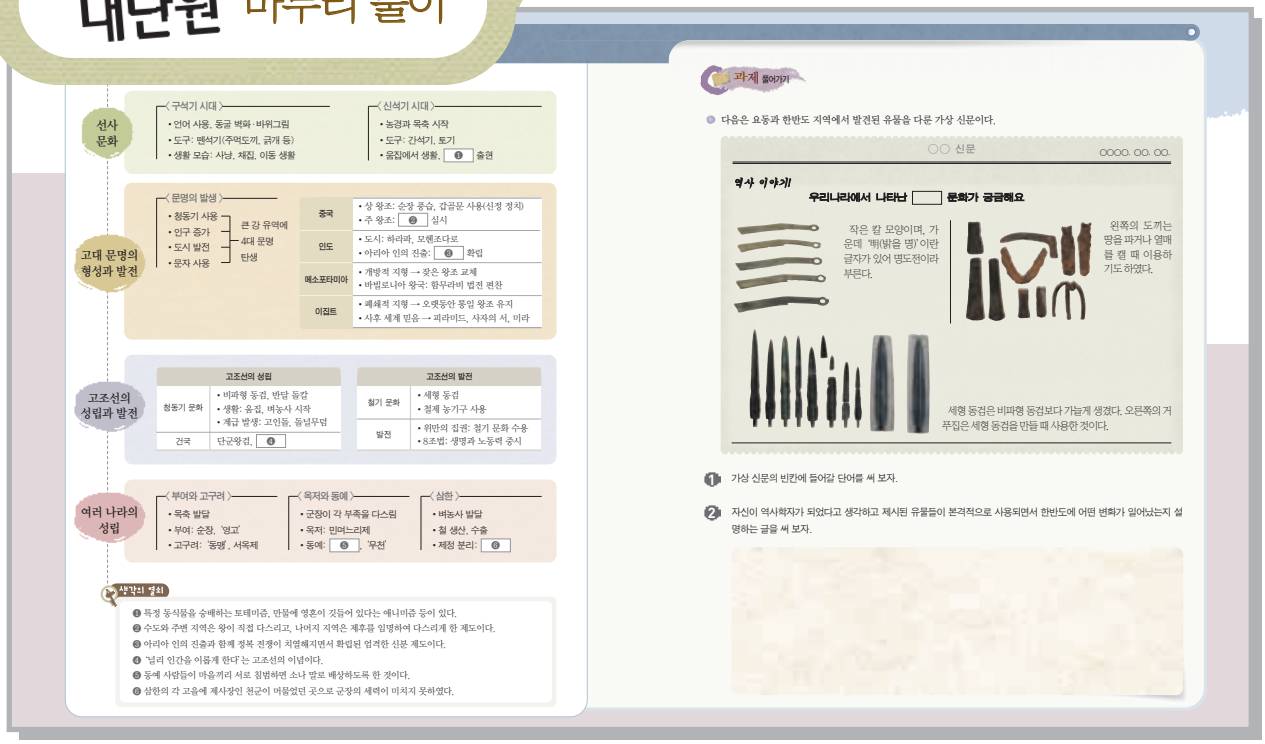
낙랑군은 중국의 외군(外郡)으로, 옛 고조선 지역의 자치를 인정하고 중계 교역 기능과 이민족의 동향 감시 · 통제를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다. 낙랑 태수와 일부 중앙 관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리와 군인은 현지인으로 이루어졌다.

평양, 황해의 봉산과 은율, 함남 영흥 등에는 이른바 '낙랑 토성'이 새로이 축조되고 중심 지역에는 중국계 문물을 다량 부장한 귀틀무덤이 나타났고, 지방 각지에는 세형 동검 문화 계통의 덧널무덤도 지속적으로 조영되었다.

1세기 후반에는 중국에서 이주해 온 소수의 한인(漢人)과 고조선계 재지인들이 융합되어 낙랑인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2세기 후반 이후 벽돌로 만든 굴식 무덤을 축조하면서 번성하다가, 3세기 후반 이후에는 거의 토착화하여 재지 세력으로 변하였다.

대단원 마무리 풀이

교과서 | 42~43쪽



내용 확인하기

❶ 원시 신앙

✚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날씨와 계절의 변화 등 자연현상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❷ 봉건제

✚ '왕이 제후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어 제후국을 세운다.'라는 뜻이다.

❸ 카스트제

✚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로 구성되어 있다.

❹ 홍익인간

✚ 단군의 건국 이야기에서 알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누리게 하겠다는 통치 이념이다.

❺ 책화

✚ 동예 사람들은 산천에 경계를 정해 놓고 함부로 침입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❻ 소도

✚ 솟대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신성한 지역임을 표시하였다.

과제 풀어가기

1. 철기

| 지도 요령 |

2.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철기가 사용되면서 일어난 농업의 변화,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위만 조선이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 예시 답안 |

중국 연나라의 화폐인 명도전은 이 시기에 고조선과 연나라 사이에 교역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농사를 지을 때 석기나 목기가 아닌 철제 도끼와 보습, 쇠스랑 등의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농사 지역이 넓어지고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세형 동검은 비파형 동검보다 실용적으로 만들어져 정복 전쟁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되었는데, 위만 조선이 임둔이나 진번과 같은 주변 지역을 정복해 나갈 때 이처럼 앞선 무기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대단원 짚고 가기

01 다음과 같은 유물이 만들어진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① 돌을 깨뜨려 만든 뗀석기를 사용하였다.
② 대표적인 유적지로 연천 전곡리가 있다.
③ 경험이 많은 사람이 권력자로 등장하였다.
④ 동굴에 살면서 근처에 있는 식물의 열매를 따먹었다.
⑤ 동굴 벽에 그림을 그리고 사냥감이 많이 잡히기를 기원하였다.

02 다음 사진과 관련된 시기의 생활 모습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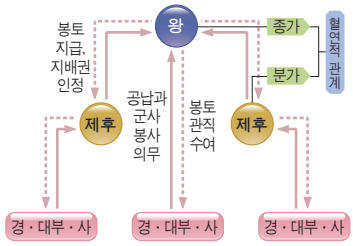


① 가락바퀴로 실을 뽑아 옷감을 만들었다.
② 돌 그물추를 매단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다.
③ 주먹도끼로 땅을 파고 짐승의 가죽을 벗겼다.
④ 돌이나 동물의 뼈를 갈아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⑤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조, 피, 수수 등을 익혀 먹었다.

03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법전을 쓰시오.

- 누가 눈을 멀게 하면 그의 눈을 멀게 한다.
- 노예가 자유인의 뺨을 때리면 그의 귀를 자른다.
- 자식이 아버지를 때렸을 때에는 그의 손을 자른다.
- 귀족이 평민의 눈이나 뼈를 상하게 하면 1미나를 지불한다.

04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주나라 왕은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도읍 지역은 직접 통치하고, 나머지는 왕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삼아 다스리게 하였다.

① 봉건제 ② 과거제 ③ 군현제
④ 기인제 ⑤ 사심관제

05 다음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비교하는 표이다. 그 내용이 옳지 <u>않은</u>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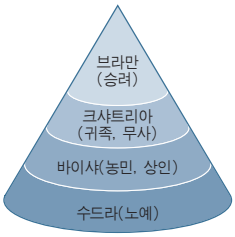
	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①	종교	현세 중시	내세 중시
②	문자	쐐기 문자	그림 문자
③	지형	개방적인 지형	폐쇄적인 지형
④	정치	통일 왕국 유지	잦은 국가 교체
⑤	과학 기술	태음력, 60진법	태양력, 측량술, 기하학

06 다음 농기구가 널리 사용되었던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① 벼농사가 이루어졌다.
② 고인돌이 만들어졌다.
③ 빈부의 격차가 나타났다.
④ 사유 재산의 개념이 생겼다.
⑤ 청동기를 이용하여 많은 농기구를 만들었다.

07 다음에서 설명하는 밑줄 친 '신분 제도'를 쓰시오.



중앙아시아의 아리아인들은 기원전 1000년경 동쪽의 갠지스 강 유역으로 이동하여 도시 국가를 건설하였다. 이 과정에서 엄격한 신분 제도가 만들어졌다.

08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원전 3세기 말 진에서 한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고조선에 들어와 살았는데, 위만도 이들 중 한 명이었다. 위만은 고조선의 변방을 지키다 점차 세력을 키워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위만 집권 이후 고조선은 세력이 크게 강성해졌다.

①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② 청동기 문화가 더욱 발달하였다.
③ 진의 멸망으로 변방의 위협이 사라졌다.
④ 엄격한 법 시행으로 사회를 통제하였다.
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농업이 발달하고 군사력이 강해졌다.

09 다음은 고조선의 성장과 변천에 대한 사실들이다. 이를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위만이 집권하였다.
(나) 한 군현이 설치되었다.
(다) 중계 무역으로 이익을 독점하였다.
(라) 한의 침략으로 기원전 108년에 멸망하였다.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가) – (다) – (라) – (나)
④ (나) – (가) – (다) – (라)
⑤ (나) – (라) – (가) – (다)

[10~11]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0 다음과 같은 풍속이 있던 나라를 위 지도에서 찾으면?

별을 보고 그 해의 풍흉을 점쳤고,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를 드렸다. 만약 마을끼리 산천을 침범하면 노비, 소, 말 등으로 갚게 하였는데, 이를 '책화'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1 위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 ㉡은 연맹 왕국 단계로 발전하였다.
② ㉡은 적극적으로 정복 활동을 전개하였다.
③ ㉢과 ㉣은 만주에 위치한 ㉠의 간섭을 받았다.
④ ㉣은 같은 씨족끼리 혼인하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
⑤ ㉤은 '소도'가 존재하는 제정 분리 사회였다.

12 다음 빈칸 ㉠, ㉡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시오.

철기 시대 사람들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였다. 이러한 제천 행사는 지배자의 권위를 높여 주고, 구성원들의 일체감을 높여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도 하였다. 그 예로 부여의 [㉠], 고구려의 [㉡]이/가 있다.

정답

01 ③ 02 ③ 03 함무라비 법전 04 ① 05 ④ 06 ⑤ 07 카스트제 08 ⑤ 09 ③ 10 ④ 11 ③ 12 ㉠ 영고, ㉡ 동맹

Ⅱ 삼국의 성립과 발전

1 단원의 개관

이 단원에서는 한반도의 고대 삼국과 가야의 성립, 발전 및 문화 교류를 다룬다. 한반도 북부에서는 고구려가 일찍이 고대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한반도 남부에서는 백제, 신라, 가야가 소국들을 통합하여 국가 체제를 정비해 갔다. 이 과정에서 이 국가들이 한반도 주변의 여러 세력들과 경쟁하고 교류하면서 문화를 발전시켰음을 파악한다.



▲ 훈장 강 입구

01.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에서는 고구려가 압록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군현 세력에 대항하면서 일어났음을 설명한다. 또한 고구려가 북방 민족, 중국의 여러 왕조, 신라, 백제, 가야, 왜 등과 대립 · 교류하면서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정복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02. 백제의 건국과 발전에서는 백제가 한강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건국되어 주변의 마한 세력을 병합하면서 성장하였음을 설명하고, 중국의 여러 왕조 및 왜와 교류하면서 체제를 정비하고 문화를 발전시켰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03. 신라의 건국과 발전에서는 신라가 경주의 평야 지역을 중심으로 건국되어 주변의 진한 세력을 복속하면서 성장하였음을 설명한다. 또한 신라가 체제 정비와 영토 확장 과정을 통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였고,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훗날 삼국 통일의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04. 가야 연맹의 성립과 발전에서는 삼국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점을 추출하고 가야 연맹의 성립과 변화 과정을 파악한다. 또한 가야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신라에 통합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05. 삼국과 가야의 문화 및 대외 교류에서는 삼국과 가야가 이웃 나라와 교류한 양상을 파악하고, 그 문화적 특성을 불교 예술과 고분 등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고구려, 백제, 신라 및 가야는 각각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이웃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단원의 목표

지식 · 이해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삼국과 가야의 문화 및 대외 교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기능	• 한반도 고대 각국의 중심지를 지도에 표시할 수 있다. • 고대 국가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최대 영토를 차지하는지 추론할 수 있다. • 한반도 고대 각국 문화의 차이를 통해 현재 지역 문화의 기원을 파악할 수 있다.
가치 · 태도	• 한반도 각 지역의 고대 문화가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졌음을 인정한다. • 지역별 고대 문화의 발달 순서를 우열 관계로 비교하지 않도록 한다. • 한국 고대 문화는 중국 및 일본과 상호 교류를 통해서 발전하였음을 인정한다.

3 단원의 구조와 지도 계획

차시	중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
10	01.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	1. 고구려의 성장	국내성, 환도성, 오녀산성, 주몽, 태조왕, 5부, 서안평, 소수림왕, 태학, 율령
11		2. 고구려의 발전	광개토 대왕, 장수왕, 남하 정책, 광개토 대왕릉비, 중원 고구려비, 제가 회의, 대대로
12	02. 백제의 건국과 발전	1. 백제의 건국	한강 유역, 한성 시대 계단식 돌무지무덤, 마한, 온조, 고이왕, 남당, 근초고왕, 침류왕
13		2. 백제의 중흥 노력	웅진 천도, 무령왕, 22담로, 사비 천도, 성왕, 관산성 싸움, 16관등, 정사암 회의
14	03. 신라의 건국과 발전	1. 신라의 건국	진한, 사로국, 박혁거세, 내물왕, 김씨 왕위 세습, 마립간, 황남동 고분군, 호우명 그릇
15		2. 신라의 발전	지증왕, 법흥왕, 상대등, 진흥왕 순수비, 화랑도, 골품제, 화백, 17관등
16	04. 가야 연맹의 성립과 발전	1. 가야 연맹의 성립	낙동강 하구 일대, 변한, 수로왕, 금관가야, 전기 가야 연맹
17		2. 가야 연맹의 발전	후기 가야 연맹, 대가야, 아라가야, 고대 국가
18	05. 삼국과 가야의 문화 및 대외 교류	1. 삼국과 가야의 문화	왕즉불 사상, 금동 대향로, 불상, 석탑, 굴식 돌방무덤, 돌무지덧널무덤, 고분 벽화, 사택지적비, 임신서기석, 역사서 편찬
19		2. 삼국과 가야의 대외 교류	불교, 무령왕릉, 청동 용기, 덩이쇠, 스에키, 오경박사,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4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 고구려 전성기인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의 영토 확장에 유의한다.
- 중국 사서에 "백제가 요서 지방을 차지하고 군을 설치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해석에 논란이 적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며 설명하도록 한다.
- 변한의 12국이 계기적으로 발전하여 가야 연맹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6가야 연맹설은 학계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한다.
- 삼국의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일본의 고대 국가 성립과 발전에 이바지하였음에 유의한다.

5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 노중국, "백제 정치사 연구", 일조각, 1988.
- 이기동, "신라 골품제 사회와 화랑도", 일조각, 1984.
-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3권, 푸른역사, 2002.
- 국사 편찬 위원회 편, "한국사" 4~11권, 국사 편찬 위원회, 1995~1998.
- 한국 고대 사회 연구소 편, "강좌 한국 고대사" 1~10권, 가락국 사적 개발 연구원, 2003.
- 한국 고대사 학회,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동향", 서경문화사, 2007.

| 교과서 | 46~50쪽

Ⅱ. 삼국의 성립과 발전

01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

학습 목표

- 고구려의 건국과 성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고구려의 영토 확장 과정과 외교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고구려 정치 제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내용	수업 방법	수업 자료
10	1. 고구려의 성장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고구려의 초기 도읍지가 험준한 산에 위치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개] • 고구려는 기원전 1세기경 압록강과 훈장 강 유역에 들어온 부여계 유민과 토착 세력의 연합으로 세워졌음을 파악하게 한다. • 1세기 후반에 태조왕이 5부를 통합하여 고대 국가를 건설하였음을 설명한다. • 4세기 초에 고구려는 낙랑군과 대방군을 몰아냈으나, 전연과 백제의 공격을 받아 체제 정비가 늦어졌음을 이해하게 한다. • 4세기 후반에 소수림왕이 추진한 중앙 집권 체제 정비 내용과 결과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고국천왕 때의 재상 을파소가 빈민을 구제하고자 시행한 제도는? 2. 태학을 세우고 율령을 반포하는 등 국가 체제를 재정비한 고구려의 왕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강의식 발표식 문답식	CD 46쪽 지도, 사진 47쪽 지도 학습지
11	2. 고구려의 발전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태왕릉 명문전이 출토된 고분에 묻힌 왕은 누구일까? [전개] • 광개토 대왕이 소수림왕의 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영토를 크게 팽창시켰음을 설명한다. •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후 남하 정책을 추진하여 최대의 영토를 차지하였음을 파악하게 한다. • 고구려가 5부 연합으로 지배 체제를 형성하였다가 점차 이를 해소하여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음을 이해하게 한다.	문답식 강의식 탐구식 강의식	CD 48쪽 지도 49쪽 자료

11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고구려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추진하여 한강 유역을 점령했음을 알려주는 유물은? 2. 고구려 각 부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 회의는?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고구려의 성장

(1) 고구려의 건국

① **배경**: 기원전 3세기 이후 압록강과 훈장 강 유역의 철기 문화

② **건국**

- 기원전 1세기경 부여계 유민의 졸본 이주, 요령성 환런에 건국(오녀산성 축조)
- 시조: 주몽("삼국사기" 의 기록)

③ **세력 확장**: 기원후 1세기 초 지린 성 지안으로 천도, 국내성과 환도산성 축조

(2) 고대 국가 건설

① **태조왕(1세기 후반)**

- 고대 국가 건설: 계루부 고씨의 왕위 세습 확립, 5부 통합
- 대외 정복 활동: 옥저와 동예 정벌, 살수(청천강) 유역 차지

② **고국천왕(2세기 후반)**

- 왕권 강화: 부족적 전통이 강했던 지방 5부의 약화, 행정적 성격의 5부 성립 시작
- 진대법 시행: 국가 차원의 빈민 구제

(3) 고대 국가 완성

① **동천왕(3세기 전반)**: 중국 삼국의 분열을 틈타 서안평 공격 → 위나라 관구검의 공격을 받아 수도 함락

② **미천왕(4세기 초)**: 서안평 점령 후, 낙랑군과 대방군 병합(옛 고조선 중심지를 탈환한 민족사의 개가)

③ **고국원왕(4세기 중엽)**: 선비족 모용씨와 백제의 침입 → 평양성에서 전사

④ **소수림왕(4세기 후반)**: 중국 전진에서 불교 수용(372), 유교 교육 기관인 태학 설립(372), 율령 반포(373) → 중앙 집권 국가 체제 완성

2. 고구려의 발전

(1) 광개토 대왕의 영토 확장

① **배경**: 소수림왕의 통치 체제 정비

② **대외 정복 활동**

- 북쪽 방면의 정벌: 중국의 후연과 거란 격파(랴오허 강 유역 확보), 동부여 정벌(북간도 지역 확보), 북부여와 말갈 정벌(쑹화 강 유역 확보)
- 남쪽 방면의 정벌: 백제 공격(황해도 지역, 강원 및 충북 일부 점령), 신라에 침입한 왜군 격퇴, 가야 공략

④ **고구려의 위상**: 동북아시아의 패권 차지, '영락' 연호와 '태왕' 칭호 사용

(2) 장수왕의 남하 정책

① **평양 천도(427)**: 왕권 강화, 국내성의 귀족 세력 약화, 중국 북위와의 대결 회피 등을 목적으로 옛 고조선의 경제 · 문화 중심지인 평양으로 이동

② **남하 정책 추진**: 북위와의 친교 → 백제와 신라 압박

- 백제 공격: 위례성 함락(475), 한강 하류와 금강 이북 지역 확보
- 신라 공격: 남한강 상류 일대를 차지, 미질부성(경북 흥해) 공격(481)

③ **고구려의 전성기**: 동아시아의 최강국, 천하의 중심이라는 인식 확립 → 광개토 대왕릉비, 중원 고구려비 건립

(3) 한강 유역 상실

① **국내 정세**: 6세기 중엽 왕위 계승을 둘러싼 귀족 내분 → 귀족 연립 체제 형성

② **대외 정세**: 북방의 돌궐의 공세 강화로 남쪽 방비 소홀 → 백제와 신라 동맹군의 협공으로 한강 유역 상실(551)

(4) 정치 제도의 확립

① **초기**

- 왕권 미약: 5부가 연합하여 지배 체제 형성(태조왕 때)
- 제가 회의: 계루부의 대가(왕)와 각 부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중요한 의사 결정

② **4세기 후반 이후**

- 중앙 집권 체제 강화(소수림왕 때): 제가들의 중앙 귀족화 → 대대로 이하 10여 개의 일원적인 관등제 확립
- 지방 통제: 욕살, 처려근지(도사) 등의 지방관 파견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46쪽

고구려가 세워진 기원전 1세기는 한(漢)이 요동 및 한반도 북부에 현도군과 낙랑군을 설치한 시기였다. 또한 북쪽에는 부여가 위치하였고, 예맥족 내부에도 송양왕(소노부) 중심의 연맹체 세력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고구려는 이러한 주변 세력들과의 갈등이나 전쟁에 대비하고자 험준한 산 위에 국가를 세우게 되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48쪽

중국 지린 성 지안의 대형 돌무지무덤 중에는 "千秋萬歲永固"라는 명문이 출토된 천추총, "願太王陵 安如山 固如岳"이라는 명문이 출토된 태왕릉 그리고 장군총 등이 있다. 묘제 형태로 보아 그 축조 시기는 천추총이 가장 앞서고, 그 다음이 태왕릉, 그 다음이 장군총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학자들은 그 중에 규모가 가장 크고 '太王'이라는 호칭이 나온 태왕릉을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 즉 광개토 대왕의 무덤으로 생각하고 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49쪽

1. 대왕의 은혜로운 혜택이 하늘에 미쳤고, 위엄은 온 사방에 떨쳤다.
2. 고구려 왕은 '대왕'이라 부르고 신라 왕은 '매금'으로 낮추어 불렀으며, 신라를 동이, 즉 동쪽 오랑캐라고 칭하고 있다. 이는 고구려가 자신을 천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변 사방의 제국을 모두 오랑캐라고 부르는 중국식 천하관을 모방하였음을 보여 준다. 고구려 왕이 신라 왕에게 옷을 내려 준 것은 고구려가 신라를 일종의 신하로 책봉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당시 고구려는 신라를 자신의 위성 국가와 같은 존재로 여겼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50쪽

1. (1) ㉠, (2) ㉡, (3) ㉣, (4) ㉢
2. (1) 장, (2) 광, (3) 광, (4) 장
3. ㉠ – ㉢ – ㉣ – ㉡

내용 더하기

고구려 건국의 고고학적 배경 10차시

기원전 3세기 이후 압록강 유역에는 돌무지무덤 문화가 발달하였다. 돌무지무덤 문화를 발전 시킨 사람들은 비파형 동검 문화의 한 갈래이면서 명도전과 쇠도끼, 쇠 낫, 쇠창, 고리자루 큰칼(環頭大刀) 등을 소유하였다. 돌무지무덤의 분포로 보아, 이들은 기원 전후한 시기에는 압록강 중류 일대를 중심으로 그 지류인 훈장 강〔渾江〕 유역과 독로강 유역에 걸쳐 일정한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고구려 건국 신화의 의미 10차시

고구려 건국 신화는 하느님의 자손임을 내세우는 이주민이 지모신 계열의 토착민을 포섭하여 나라를 다스린다는 예맥족 사회의 공통된 통치 이념을 나타낸다.

송양왕 이야기는 압록강 유역에 있던 맥족의 소국 연맹체 왕권이 비류국(소노부)에서 졸본 부여(계루부)로 교체되었음을 알려 준다. 고구려는 해마다 한 번씩 하늘에 제사 지내는 동맹을 개최하여 건국 신화의 내용을 알리고 국가 의식을 고취하였다.

고구려의 고대 국가 성립 10차시

1세기 전반에 대무신왕은 개마국을 정벌하고 구다국을 병합하였으며, 왕자 호동을 시켜 옥저 지방에 있던 낙랑 계열 소국을 정벌하였다. 1세기 후반에 태조왕은 고씨 왕권의 세습을 확립하고 주변의 나부(那部)들을 병탄하여 기존의 소국 연맹체보다 한층 강화된 지배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고구려는 5부의 강한 연합에 바탕을 둔 고대 국가를 건설하였다.

강화된 국력을 바탕으로 고구려는 현도군과의 교역 창구를 일원화하고 적극적인 대외 정복 활동에 나섰다. 그리하여 동옥저와 동예뿐만 아니라 중국 지린 성 동부의 옌볜 지역을 정복하고, 남쪽으로는 살수(청천강) 유역까지 차지하였으며, 요동군과 낙랑군의 통로인 서안평현을 공략하기도 하였다.

고국천왕의 왕권 강화 10차시

2세기 후반에 고국천왕은 왕비족인 연나부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이때 이후로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반독립적 5부가 약화되고 수도에 기반을 둔 행정 구획 단위로서의 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별다른 지역 기반이 없는 을파소를 국상으로 임명하고 진대법을 시행하여 빈민 구제에 노력하였다.

3세기 전반 고구려의 시련 10차시

3세기에 들어 고구려는 요동의 공손씨와 대립하면서 지안의 국내성 북쪽에 환도산성을 지어 도읍을 옮겼다. 동천왕은 중국이 위, 촉, 오의 삼국으로 분열한 상황에서 위와 연계하여 요동의 공손씨를 칠 때 협력하였다. 이어 공손씨의 멸망을 계기로 낙랑군을 병합하고자 낙랑군과 중국 본토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인 서안평현(중국 단둥 시 동

북쪽)을 공격하였다. 이에 낙랑군이 고구려의 수중에 떨어질 것을 우려한 위는 관구검을 시켜 고구려를 침략하였고, 한때 고구려의 환도성을 함락하였다.

낙랑군 병합 10차시

위의 침입으로 한동안 위축되었던 고구려는 3세기 후반 서천왕 때에 지방에 기반을 둔 고유명 부(固有名部)가 해소되고 수도에 재편성된 행정적 성격의 방위명 부(方位名部)만 남게 되어 중앙 집권 및 5부 통합에 큰 진전을 보았다. 이에 힘입어 미천왕은 4세기 초에 다시 요동군의 서안평현을 차지한 다음, 낙랑군과 대방군 및 현도군을 모두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한반도에 들어와 있던 중국의 군현 세력이 모두 멸망하였는데, 이는 고구려의 내부 성장에 따른 민족사의 개가였다.

고국원왕의 전사 10차시

고국원왕은 미천왕 대의 발전을 이어받아 대동강 유역의 옛 낙랑군 지역에 평양성을 증축하고(334) 랴오닝 성 푸순의 옛 현도군 지역에 신성을 축조하고 수도인 환도성을 수리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선비족이 세운 연나라의 모용황의 침입을 받아 환도성이 다시 함락되고(342), 남쪽에서 고대 국가 체제를 정비한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아 평양성에서 전사하였다(371).

고구려의 고대 국가 완성 10차시

고구려는 왕권이 크게 강화되어 무력이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제 정비가 부족하여 밖으로부터의 공략에 쉽사리 무너지는 약점을 노출하였다. 그리하여 4세기 후반에 소수림왕은 중국의 전진과 교류하여 불교를 받아들이고(372), 유교 교육 기관인 태학을 세워(372) 정신문화를 진작하였으며, 국가를 다스리는 율령을 반포하여(373) 지배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고구려는 중앙 집권 국가를 제도적으로 완성하였다.

태학 10차시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에 설치된 국립 교육 기관으로, 기록에 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이다. 고구려는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어 일찍부터 대륙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 때문에 건국 초기부터 한자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학교 설립에 관한 기록은 건국 후 400여 년이 지난 뒤에야 나타나고 있다.

고구려가 일찍부터 문자를 사용하였다면, 학교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설립되었으리라고 여겨지지만, 기록상으로는 소수림왕 2년에 태학을 설립하여 자제를 교육하였다고 되어 있다. 소수림왕은 그동안 중국과 계속된 전쟁과 적대 관계를 중단하고 전진(前秦)과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 대륙의 문물을 수용하여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국력 배양에 힘썼다. 그 결과 이 시기에 불교의 수용과 태학의 설립이 이루어졌다. 태학에서는 유교의 경전과 문학, 무예 등을 교육하였는데, 당시 지방에 설치되었던 경당이 사립 교육 기관인 것에 비하여 태학은 귀족 자제를 가르치고자 서울에 설치한 국립 교육 기관이었다.

고구려의 돌무지무덤 10차시

고구려의 돌무지무덤은 3세기 후반 이후 계단식으로 정비되다가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중엽 사이에 계단식 돌무지무덤의 정상부에 석실을 조성하는 형태로 완성되었다. 전성기의 돌무지무덤으로는 지안 일대의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 등이 있다. 특히 태왕릉에서는 "願太王陵 安如山 固如岳"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벽돌이 나와, 학계에서는 이 무덤을 광개토 대왕릉으로 보고 있다.

광개토 대왕의 영토 팽창 11차시

소수림왕 때 통치 체제를 확고하게 다진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391~412) 때에 이르러 북쪽의 여러 새외 민족 및 남쪽의 백제와 대결하면서 영토를 확대해 나갔다. 광개토 대왕은 서쪽으로는 후연을 쳐서 랴오허 강 유역을 확보하고 거란족의 상당수를 귀속시켰다. 북쪽으로는 북부여를 간접 통치하고 말갈족을 대부분 복속시켰으며, 동쪽으로는 북간도 지역의 동부여를 병탄하였다.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하여 황해도 지역과 강원도 일부 지역을 차지하고, 신라의 구원 요청에 따라 군대를 파견하여 왜군을 쫓아내고 경남 해안의 임나가라를 공략하였다.

장수왕은 부친인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선양하고 그의 무덤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수묘인(守墓人)들을 확실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6m가 넘는 거대한 비석을 세우고 그 내용을 비문으로 새겨 넣었다(414).

장수왕의 영토 팽창 11차시

장수왕(412~491)은 북위와 우호 관계를 맺어 중국과의

외교를 안정시키는 한편, 평양으로 천도하여(427) 남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475년에 백제 수도인 위례성(서울 송파)을 함락하고 481년에는 신라의 미질부성(경북 포항 흥해읍)까지 공략하였다. 이 시기에 고구려는 한강 하류와 남한강 상류 일대를 차지하면서 최대의 영토를 마련하였다.

현재 충북 충주 지방에 있는 충주 고구려비는 이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나, 문자명왕 때 세워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문자명왕은 중국 지린 성 눙안[農安], 창춘[長春] 방면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부여 왕의 항복을 받아 이를 병합하고(494), 중국 남북조의 북위, 양 등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번성하였다.

광개토 대왕릉비문의 내용 11차시

17세손에 이르러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 18세에 왕위에 올라 칭호를 영락 대왕(永樂大王)이라 하였다. 은혜로운 혜택이 하늘에 미쳤고, 위엄은 온 사방에 떨쳤다.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니, 백성이 각기 생업에 힘써 편안히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해지고, 백성은 풍족해졌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도다. (그런데) 하늘이 (이 백성을) 어여삐 여기지 아니하여 39세에 세상을 버리고 떠나시니, 갑인년 9월 29일 을유에 산릉으로 모시었다. 이에 비를 세워 그 공훈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한다. - '서문'

선조 왕들 이래로 능묘에 석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묘인(守墓人) 연호(烟戶)들이 섞갈리게 되었다. 오직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께서 선조 왕들을 위해 무덤 위에 비를 세우고 그 연호를 새겨 기록하여 착오가 없게 하라고 명하였다. 또한 왕께서 규정을 제정하시어, "수묘인을 이제부터 다시 서로 팔아넘기지 못하며, 비록 부유한 자가 있을지라도 또한 함부로 사들이지 못할 것이니, 만약 이 법령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판 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고, 산 자는 자신이 수묘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 '수묘인 연호'

한강 유역 상실 11차시

중국에서 전개되던 5호 16국의 혼란이 일단 수습된 5세기 중엽 이후에는 동북아시아의 고구려, 중앙아시아의 유연(연연), 중국의 북위와 남조 등 4강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각각 독자적 세력권을 형성하고 상호 견제와 승인을 통해 세력 균형을 유지하였다. 그리하여 6세기 전반에 고구려는 북조의 북위 또는 동위, 남조의 양 등과 조공 관계를 통한 평화적 교류를 지속하였고, 국경선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6세기 중엽에 나이 어린 양원왕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귀족 사이의 내분이 격화되었다. 그러나 이 내분에서 어느 한 세력이 승리하여 정권을 장악하지 못함에 따라, 이후 사병 집단을 거느린 귀족들이 실권자의 직책인 대대로를 선임하는 잠정적인 귀족 연립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 무렵 혜량 법사가 신라로 망명한 것도 귀족 사회 분열의 여파였다.

이러한 시기에 북방의 돌궐이 공세를 강화하자, 고구려는 남쪽을 방어하기가 어려워졌다. 결국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 동맹군의 협공을 받아 한강 하류 및 상류 유역을 모두 상실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고구려는 현재의 평양 시내에 장안성을 크게 축조하여 귀족 사회의 영화를 지속하였다.

고구려의 중앙 정치 제도 11차시

고구려의 중앙 집권 체제는 예맥족 내부의 여러 나부(那部)들이 연합 정권을 구성하고 그 중에서 중심 나부의 장을 왕으로 삼는 지배 체제에서 비롯되었다. 초기에는 계루부의 대가가 왕이 되고 기타 4개의 나부가 결속하여 각 나부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제가 회의에서 의사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왕권이 강화되어 감에 따라 독자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제가들은 점차 중앙 귀족으로 전환되어 왕권 아래 누층적으로 편제되었다. 그리하여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에는 왕권 아래 일원적 관등제가 성립하였다. 이에 따라 관등의 숫자도 늘어나서 3세기에는 상가, 대로부터 선인까지 9개의 관등이 있었으나, 6~7세기에는 대대로, 태대형부터 선인까지 12개 또는 14개 관등이 되었다.

고구려의 지방 행정 제도 11차시

고대 국가들은 피정복 지역의 주요 거점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성이나 촌 단위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치를 확대해 나갔다. 고구려도 3세기 후반 이후로 정복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재(宰)와 태수(太守) 같은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하였고, 5세기에는 수사(守事)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6세기 후반 이후에는 지방 제도가 정비되어 큰 성에 파견된 지방관을 욕살(褥薩), 보통의 성에 파견된 지방관을 처려근지(處閭近支) 혹은 도사(道使)라고 하였고, 작은 성 단위에 파견된 지방관을 가라달(可邏達) 또는 누초(婁肖)라고 하였다.

Ⅱ. 삼국의 성립과 발전

02 백제의 건국과 발전

학습 목표

- 백제의 건국과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백제의 발전과 외교 관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백제 정치 제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내용	수업 방법	수업 자료
12	1. 백제의 건국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백제가 한강 유역에 세워진 까닭은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백제가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 기반 위에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이 결합되어 건국되었음을 당시의 무덤과 토성 형식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강의식	51쪽 자료
	• 백제의 고대 국가 확립 과정과 최대 영토 범위에 대하여 이해하게 한다.		52쪽 지도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하던 정치 기관으로 고이왕 때 설치된 것은?	문답식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13	2. 백제의 중흥 노력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백제 무령왕릉에서 오수전이 발견된 까닭은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백제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에게 밀려 약화되다가 남쪽으로 천도하였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 백제는 웅진에서 동성왕과 무령왕의 노력으로 재기를 꾀하였음을 이해하게 한다.		53쪽 사진
	• 백제 성왕은 사비로 천도하여 중흥을 이루고 한때 한강 하류를 회복하였음을 설명한다.		
	• 백제의 수도 변천 과정을 정리하고, 수도를 옮긴 이유를 파악하게 한다.	탐구식	54쪽 자료
	• 백제의 정치 체제와 정사암 회의에 대해 살펴본다.		55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무령왕 때 설치되었으며, 지방에 왕족을 파견하여 다스린 것은?	문답식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백제의 건국

(1) **백제의 성립**

① **건국**

- 주도 세력: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과 한강 유역 토착 세력 연합
- 건국 신화: 고구려 주몽의 아들인 온조가 위례성에서 건국(기원전 17)

② **한강 유역**: 농업과 철기 문화 발달, 중국 선진 문화 수용 용이 → 국가적 성장 촉진

(2) **고대 국가 성장**

① **고대 국가 성립**: 3세기 후반 고이왕 때 왕권 강화, 중앙 집권 국가의 토대 마련

② 고이왕의 업적

- 영토 확장: 마한 중심 세력인 목지국 병합 → 한강 유역 일대와 경기도 확보
- 국가 조직 정비: 남당 설치, 관등제의 기초 마련

(3) **고대 국가 완성**

① **3세기 후반 이후**: 낙랑과 대결하면서 성장

② **근초고왕(4세기 후반)**: 중앙 집권 국가 완성

- 영토 확장: 고구려 평양성 공격(황해도 지역 차지), 마한의 남은 세력 정복(전라도 일대 차지)
- 외교 활동: 중국 남조, 가야, 왜와 교류하여 신라 견제

③ **침류왕**: 동진을 통해 불교 수용(384) → 국왕의 권위와 중앙 집권 체제 뒷받침

2. 백제의 중흥 노력

(1) **백제의 천도**

① **4세기 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공격으로 한강 이북 지역 일부 상실

② **5세기**: 중국 남조, 신라, 가야, 왜 등과 외교 관계 강화 → 고구려에 대항

③ **한강 유역 상실**: 개로왕 때 고구려 장수왕의 침입으로 한성(위례성) 함락 → 웅진(충남 공주)으로 천도(475)

(2) **웅진 시대**

① **동성왕**: 신라와 혼인 동맹 체결, 웅진 주변의 토착 세력(사씨, 연씨, 백씨 등)을 중앙 귀족으로 흡수

② **무령왕**: 중흥의 기반 마련

- 왕권 안정: 신진 귀족 세력 견제, 22담로에 왕족 파견(지방 통제)
- 대외 관계: 고구려 공격, 대가야 공략(섬진강 유역 개척), 중국 남조의 양과 교류하여 문물 수입

(3) **사비 시대**

① **성왕의 중흥 노력**

- 체제 정비: 사비(부여)로 천도, 국호를 남부여로 개칭(538), 중앙 관청과 지방 행정 제도 정비, 불교 장려
- 대외 정책: 중국 남조 및 왜와 교류 강화, 가야 연맹에 대한 영향력 강화 →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하류 지역 일시 회복(551)

② **성왕의 중흥 노력 좌절**: 신라의 공격으로 한강 하류 지역 상실, 성왕의 전사(관산성 싸움) → 왕권 약화, 귀족 중심의 정치 운영

(4) **정치 제도의 발전**

① **초기의 정치**: 여러 지역 세력들의 연합적 성격

② **중앙 집권 체제(4세기 후반 근초고왕)**: 16관등제 확립, 내신좌평(귀족 회의 의장, 정사암에서 선출)

③ **지방 행정 제도**: 22담로(웅진 시대), 5방 설치(사비 시대) → 방령, 군장 등의 지방관 파견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51쪽

한강 유역은 청동기 시대에는 발전이 더디었으나, 본격적인 철기 시대로 진입한 2세기 이후에는 크게 발전하였다. 청동기 시대에는 생활 도구가 석기나 목기로 되어 있어서 관개 수로 개척이 어려운 큰 강 유역에는 사람이 많이 살 수 없었으나, 철기 시대에는 철제 도구를 이용하여 대규모 농경지 개발이 가능하였다.

백제 건국 신화에는 위례성 도읍의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① 북쪽으로는 한수(漢水)를 띠로 두르고 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에 의거하여 천혜의 험준함을 갖추어 방어에 유리하다. ② 남쪽으로는 비옥한 벌판을 바라보고 있어서 농경에 적합하다. ③ 서쪽으로는 큰 바다를 사이에 두어 중국이나 왜 등 주변 세력과의 문화 교류에 유리하다.

한편 이를 무시한 비류는 미추홀(인천)에 도읍하였다가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안히 살 수 없었다고 한다. 이로 보아 백제가 한강 하류 지역에 자리 잡은 가장 큰 배경은 농경 문제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53쪽

무령왕릉에서는 무령왕의 지석(誌石)과 왕비의 지석이 출토되었는데, 왕비의 지석 뒷면에는 무령왕을 안장한 을사년(525)에 왕이 돈 1만 문으로 토왕(土王), 토백(土伯) 등의 여러 관리들에게

문의하여 토지를 매입해서 이 능묘를 만들었다는 구절이 나온다. 따라서 이곳의 오수전은 무령왕이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귀신들에게 그 땅을 매입하였다는 증표로 묻은 것이다. 오수전은 한 대부터 여러 차례 주조된 중국의 화폐이다. 무령왕릉에서 오수전이 출토된 것은 당시 백제가 중국, 특히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반영한다.

탐구 활동 ▶▶▶ 교과서 54쪽

1.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긴 이유
① 고구려에게 한성이 함락되었기 때문이다.
② 웅진이 방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조선 시대에도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인조가 공산성으로 피한 적이 있다.).
2. 웅진에서 사비로 옮긴 이유
① 5부 5방제를 실시하기에 웅진이 비좁았기 때문이다.
② 백제의 발전을 위한 계획적인 천도이다.
③ 사비 이남 지역의 넓은 평야에서 생산되는 물산을 바탕으로 경제력을 확충하고 국력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55쪽

1. (1) ㉢, (2) ㉠, (3) ㉡, (4) ㉣
2. (1) 고구려, 한강, (2) 남부여, (3) 정사암
3. 한성(위례성), 웅진, 사비

내용 더하기

백제 건국의 고고학적 배경 12차시

백제가 자리잡은 한반도 중서부와 서남부 지역에는 기원전 2세기 이후에 널무덤과 덧띠 토기, 주조 철기 등이 등장하고, 기원후 2~3세기에는 둘레에 도랑을 두른 널무덤[周溝墓]이 각지에 나타나 성행하는데, 이는 한족 계통의 문화 유적이다.

같은 시기에 임진강 중상류 및 한강 중상류 지역에는 여(呂)자형 및 철(凸)자형 주거지에 살면서 경질 민무늬토기를 사용하고 무덤 위에 돌들을 한 겹 덮는 식의 돌무지무덤을 쓰는 주민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예족 계통의 유적이다. 백제의 건국은 이런 두 가지 계통의 문화가 복합하여 형성된 결과이다.

백제 건국 신화의 내용과 성격 12차시

백제 건국 신화에 따르면 고구려 주몽(추모)의 둘째 아들 온조가 백제를 세웠다고 한다. 일찍이 북부여에서 태어난 주몽의 아들이 졸본 부여에 와서 왕위에 오르자, 온조는 형인 비류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왔다. 비류는 미추홀에 도읍하고 온조는 위례성에 도읍하여 십제(十濟)라 하였는데(기원전 18년), 후에 미추홀의 백성들도 모두 위례에 귀부하므로 국호를 백제(百濟)로 바꾸었다고 한다.

이 신화는 고구려의 동명왕 신화를 계승하고 있어서, 백제 왕실이 고구려와 같은 맥족 계통의 이주민임을 나타내고 있다. 형제 설화는 한강 유역 소국들 사이에 형성되었던 연맹체의 장이 교체되었음을 반영한 것이지만, 실제로 온조 계통이 연맹장으로 대두한 시기는 좀 더 후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백제의 고대 국가 성립 12차시

3세기 중엽 고이왕 때에 들어 백제의 왕권은 크게 성장하였다. 247년에 마한이 낙랑에 대하여 무리한 대립 정책을 쓰다가 패배하여 맹주인 목지국이 크게 약화되자, 백제가 이를 병합하고 마한 북부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강화하였다. 이때 백제는 남당을 설치하고 관등제의 기본 골격을 제정하였으며, 대체로 경기도 및 한강 유역 일대를 포괄하는 영역을 확보하였다.

3세기 중 · 후반에 서울 풍납 토성과 몽촌 토성이 축조된 것은 고대 국가 백제의 탄생을 반영한다. 한성 시대 백제 왕실의 고분군인 석촌동 고분군에서는 3세기의 널무덤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3세기 중 · 후반에 여러 개의 매장 주체부를 하나의 봉토로 덮는 묘가 만들어졌으며, 4세기 후반에는 고구려의 기단식 돌무지무덤과 동일한 형태의 무덤이 나타난다.

백제의 고대 국가 완성 12차시

백제는 3세기 후반에 낙랑과 대립하여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국제적 위치를 드높였으나 낙랑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서 오히려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4세기 중엽 왕위에 오른 근초고왕은 고구려에게 멸망한 낙랑과 대방의 유민을 받아들여 중앙 집권 체제와 지방 통치 조직을 정비하였다.

그 결과 백제는 고구려와 군사적으로 대결하여 황해도 지역을 대부분 확보하고, 중국 남조의 동진에 사신을 보내 '진동 장군 낙랑 태수'로 책봉되었다. 또한 백제는 신라를 견제하기 위하여 가야 및 왜와 우호적으로 교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라도 지역의 마한 잔여 세력을 병탄하였다.

근구수왕은 영역을 확장하고자 다시 한 번 평양성을 공격하였으며, 침류왕은 동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백제는 4세기 후반에 중앙 집권 국가를 완성하고 백제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

백제 요서 경략설의 허실 12차시

중국의 "송서", "양서", "양직공도" 등에는 백제가 요서 지방을 경략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즉 진 말(晉末), 송(宋), 양(梁) 대(4세기 후반~5세기)에 백제가 요서군과 진평군을 경영하였다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대체로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유원재 교수의 "중국 정사 백제전 연구"(학연문화사, 1993) 이후에 이러한 분위기가 바뀌었다. 즉 백제가 실제로 요서 지역을 점령하였다면 위에 열거한 중국 남조 계통의 사서가 아니라, 당시에 요서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북조 계통의 사서인 "위서" 등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직공도" '백제국사전'에는 "진 말기에 낙랑이 요서 · 진평현을 차지하였다."라고 기록하여 요서 경략 주체의 지칭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진 말기는 이미 낙랑군이 멸망한 313년 이후 시기이다. 그렇다면 이는 낙랑군이 고구려에게 멸망할 당시에 낙랑 및 대방군의 일부 주민들이 요서 지방으로 이동하여 '낙랑 교군(樂浪僑郡)'을 설립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낙랑과 대방 지역 유민 일부가 요서 지방으로 피란한 것을 백제가 경략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낙랑과 대방이 멸망한 이후에 많은 유민들이 인접한 백제로 들어가 백제인이 되었는데, 이 때문에 요서 지방의 낙랑 교군도 자신들이 백제와 관련이 있다고 자칭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를 백제의 요서 경략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어렵다.

한편 "남제서" '백제전'에는 "488년에 위로(魏虜, 위나라 오랑캐)가 군사 수십만 명을 내어 백제를 공격하여 그 국경에 들어오니 모대(牟大, 동성왕)가 장수 사법명 등을 보내 크게 격파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그 후의 상표문에서 백제는 '위로'를 '험윤(玁狁)'이라고 표현하며 그 격퇴를 자랑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북위가 바다 건너 해군으로 백제를 쳤을 리는 없으니, 이는 백제의 요서군을 공격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백제가 나쁜 용어를 써서 가리킨 적군은 북위의 군대가 아니라 북위와 친한 고구려의 군대라고 보아야 한다. 백제는 남제의 지원을 얻고자 고구려를 남제와 적대시하고 있던 북위의 앞잡이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록을 통해서도 백제가 요서 지방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칠지도 왜국 사여설의 허실 12차시

칠지도는 일본 나라 현[奈良縣] 덴리 시[天理市]에 있는 이소노카미 신궁[石上神宮]에서 1874년에 발견되었다. 거기에는 총 62자의 글자가 금 상감으로 새겨져 있다.

지금까지의 칠지도 명문과 관련된 연구 상황으로 보아, 백제의 왕이나 세자가 칠지도를 왜왕에게 준 것은 틀림없다. 일부에서는 이를 백제가 왜국에 '하사'한 것인가, 단순히 '증여'한 것인가, 아니면 공손하게 '헌납'한 것인가를 놓고 논쟁하기도 하나, 이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백제의 칠지도 사여 이유와 시기가 "일본서기"나 "고사기"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가 다른가가 문제의 본질이다. 만약 칠지도가 실제로 4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이 입증된다면, "일본서기" 신공 황후 관련 기사의 사료적 가치를 상당히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 문제이다. 즉 '임나일본부설'에서와 같이 왜왕이 군대를 보내 가야 7국을 치고 전라도 방면을 공략하여 백제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백제가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왜왕에게 칠지도를 보냈다는 것이 된다.

"일본서기" 신공 섭정 46년 조부터 52년 조까지 이어지는 기사군은 '임나일본부설'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조작의 기미가 농후하다. 그 기사들은 "일본서기" 편찬자가 왜곡하기도 하였으나, 원전은 "백제기(百濟記)"이고, 이는 백제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후대의 백제, 또는 백제 관련 유민들이 이 사서를 만든 것은, 이를 근초고왕 때에 비롯된 유서 깊은 사실로 인정하고 싶은 사정이 있었던 듯하다. 물론 여기에는 후대에 "일본서기" 편찬자들이 표현을 고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백제사 연구자들이나 일본사 연구자들 중에 일부는 근초고왕의 영광, 또는 신공 황후의 영광을 기리고자 칠지도의 사여 연대를 "일본서기"에 근거하여 서기 369년으로 보려고 한다. 그러나 칠지도를 그해에 보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도검에 금 상감 명문을 새긴 것은 기원전 5세기부터 보이지만 4세기 말까지는 대개 칼의 이름이나 소유자의 이름만을 적은 것이 보통이어서 2자 내지 4자를 넘는 명문이 없다. 그 후 408년에 만든 용작도(龍雀刀)에는 32자의 긴 명문이 새겨졌고, 426년에 만든 원가도(元嘉刀)에는 27자의 명문이 새겨졌다.

그렇다면 원가도와 문장 구조가 같은 칠지도는 적어도 426년 이후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게다가 백제는 남조의

송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칠지도가 송의 원가도를 본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송의 원가도가 백제의 칠지도 문구를 모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서기"의 기록에는 백제의 사신이 칠지도와 함께 칠자경(七子鏡)을 가지고 간 것으로 되어 있다. 칠자경은 원형으로 생긴 거울의 언저리에 7개의 작은 원이 새겨져 있는 청동 거울로서, 근래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바 있다. 무령왕은 523년에 붕어하였고, 3년상을 거쳐 526년에 매장되었으니, 이 거울은 6세기 전반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백제에서 왜국으로 칠자경을 보냈다면 이는 무령왕릉의 것과 유사하였을 것이다.

대개 가야사 연구자들은 백제가 칠지도를 왜국에 369년에 보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만일 그 연대가 5세기 후반이나 6세기 전반이라면, 그 명문에 대한 연구는 차원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백제 왕권의 약화와 복구 13차시

4세기 말에 백제는 고구려 군대의 연이은 공격에 밀려 한강 이북 지역을 일부 상실하였다. 그 후 백제는 왜와 연결하여 고구려에 대한 반격을 꾀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왕실의 권위가 추락하여 귀족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5세기 전반에 비유왕은 중국 남조의 송에 조공하여 '사지절도독 백제제군사 진동장군 백제왕'의 작호를 받고 신라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여 화답을 받았다. 백제는 대가야와 전남 지역 및 왜와도 교류하여 북쪽의 고구려에 대항하는 남방 외교망을 주도하였다.

백제 왕실의 남천 13차시

5세기 후반에 개로왕은 국제적 외교 성과를 토대로 왕권 강화를 추진하고 대대적인 토목 공사를 벌여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력이 피폐해지고 민심이 이반하여 고구려가 공격해 오자 이를 막아 내지 못하였다. 결국 475년에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도 전사하자, 백제 왕실은 고구려의 군세에 밀려 남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무령왕의 왕권 회복 13차시

6세기에 왕위에 오른 무령왕은 대내적으로 귀족들을 견제하여 왕권을 안정시키고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을 직접 지배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경기 남부 지역까지 국경선을 회복하고 대가야와 패권을 다투어 섬진강 유역을 개척함으로써 왜와의 직접 연결을 도모하였다. 또한 중국 남조의 양에 조공하여 강국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수준 높은 중국 문화를 수입하는 데 치중하였다.

성왕의 사비 천도와 중흥 13차시

성왕은 사비로 천도하여 국호를 남부여라고 칭하며 중흥을 꾀하였다(538). 그는 수도와 행정 부서 및 지방 제도를 정비하고 불교를 장려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남조 및 왜와 교류를 강화하고 가야 연맹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성왕은 이런 성과를 토대로 551년에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에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자 백제는 보복에 나섰으나, 성왕이 관산성 밖에서 전사하면서 크게 패하였다(554).

백제의 중앙 정치 제도 13차시

백제도 초기에는 여러 지역 세력이 연합하여 정치를 운영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성격은 분명하지 않다. 그 후 왕권이 강화되면서 점차 중앙 집권 체제가 발전하여, 6세기 이후에는 왕 밑의 관료들이 좌평부터 극우까지 16관등으로 분화되었다. 좌평은 처음에 1명이었다가, 후에 상좌평이 나타나고 5좌평이 형성되면서 중앙 업무를 6개로 나누어 담당하는 6좌평 제도로 정착되었다. 최고 귀족 회의 의장인 내신좌평은 귀족들이 정사암에서 모여 선출하였다. 중앙 행정 관서는 22부로 나뉘었는데 그 중 12부는 왕실 업무를 관장하고, 10부는 일반 정무를 담당하였다.

백제의 지방 행정 제도 13차시

백제는 초기에 지방의 요지에 22담로를 두고 왕족을 파견하여 다스렸다가, 사비 천도 이후에 행정 구역을 정비하여 수도는 5부로 나누고 지방은 5방으로 나누어 다스렸다. 5방 밑에는 다수의 군과 성을 두고 중앙의 관리를 보내 행정과 군사의 일을 보게 하였다. 큰 지방 행정 구역인 방에 파견된 지방관을 방령(方領), 중간 규모의 지방 행정 구역인 군에 파견된 지방관을 군장(郡將) 또는 군령(郡令), 작은 지방 행정 구역인 성에 파견된 지방관을 성주(城主)라고 하였다.

Ⅱ. 삼국의 성립과 발전

03 신라의 건국과 발전

학습 목표

- 신라의 건국과 성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신라의 발전 과정과 외교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신라 정치 제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내용	수업 방법	수업 자료
14	1. 신라의 건국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경주 계림의 궤짝에서 나온 아이는 누구일까?	문답식	
	[전개]		
	• 신라는 낙동강 동쪽 지역 진한 12국 중의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하였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 신라는 한반도 동남쪽에 위치하고 왕권의 확립도 늦어져 국가 발전에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이해하게 한다.		
	• 신라는 4세기 후반 내물왕 때 고대 국가로 성장하였음을 파악하게 한다.	탐구식	57쪽 자료
	• 신라는 고구려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였기 때문에 한동안 고구려의 간섭에 시달렸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57쪽 사진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신라 시대의 왕을 부르는 칭호로 '대군장'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은?	문답식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15	2. 신라의 발전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이사부가 정벌한 우산국은 지금의 어디인가?	문답식	
	[전개]		
	• 신라는 5세기 후반에 고구려의 남침에 대비하면서 발전을 이룩하였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58쪽 사진
	• 6세기 전반에 법흥왕은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하고 대외 팽창을 시작하였음을 이해하게 한다.		
	• 진흥왕은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가야 연맹을 모두 병합하였음을 설명한다.		59쪽 지도
	• 진흥왕 순수비의 위치를 통하여 전성기 신라 영토의 범위를 확인하게 한다.	발표식	
	• 신라의 골품제가 개인의 정치 활동과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 전반을 규제하였음을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60쪽 자료

때문에, 그 세계관 자체에 제사장 및 최고 귀족인 브라만 계층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불교 사상에서는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인과응보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전륜성왕(轉輪聖王)과 같은 왕으로 태어나려면 전생에 수많은 선행을 베풀어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불교적 세계관에서는 왕이 천재지변에 책임질 이유가 없었다.

법흥왕은 전륜성왕 사상에 의거하여 신라 최초의 사찰을 '흥륜사(興輪寺)'라고 하였고, 진흥왕은 자신의 두 아들의 이름을 '금륜(金輪)'과 '동륜(銅輪)'이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불교를 수용할 당시 신라 왕실의 주요 관심은 불교의 전륜성왕 사상을 빨리 수용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왕실은 천신적 세계관에서 탈피하고 불교적 세계관을 이어받아 왕위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다. 반면에 귀족들은 천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면 왕을 견제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반대했던 것이다.

탐구 활동 ▶▶▶ 교과서 68쪽

1. 돌무지덧널무덤은 목곽을 만든 후 시체를 담은 관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묻고 그 위에 나무 뚜껑을 덮는 방식이기 때문에, 목곽 안의 공간이 방이나 집과 같다고 인식하지 않았고 목곽 내부를 다시 열어 보는 일도 없었다. 그러므로 목곽 내부에 벽화를 그리지 않았다고 보인다. 돌무지덧널무덤은 사후의 혼령이 밖으로 새어 나오지 못하도록 목곽 위를 엄청난 분량의 돌무더기로 덮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덮는 방식이었다.
2. (1) 제1기(3세기 후반~5세기 초): 여러 방에 걸쳐서 묘 주인이나 그의 생전 생활 모습과 풍속, 행렬 등을 그렸다. 황해도의 안악 3호분, 평양 유주 자사 진의 무덤 등이 대표적이다.
   (2) 제2기(5세기 중엽~6세기 초): 방이 두 개나 한 개로 줄어들고, 그 방에 생활 풍속, 사신도, 여러 가지 장식 무늬 등을 그렸다. 사신도와 장식무늬는 생활 풍속도의 주변에 부수적인 주제로 위치하였다. 중국 지린 성 지안의 무용총, 평양의 쌍영총 등이 대표적이다.
   (3) 제3기(6~7세기): 방이 모두 한 개로 되어 있고, 내부에는 사면의 벽에 동서남북으로 각 방위의 수호신인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도만을 그렸다. 평양의 강서 대묘와 강서 중묘가 대표적이다.

생각 열기 ▶▶▶ 교과서 71쪽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경주 단석산 마애 불상군의 반가 사유상과 같은 양식에 속하고, 하반신 부분의 옷 주름 처리 방식은 경북 봉화에서 발견된 석조 여래 좌상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비슷한 불상이 일본에 있고 고대 일본은 백제와 친하였기 때문에,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을 제작한 나라를 백제로 보는 견해와 신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일본 교토의 고류 사[廣隆寺]에는 일본 국보인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있는데, 그 모습이 한국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과 거의 비슷하다. "일본서기"에는 623년에 신라 사신이 가져간 불상을 가츠노하타데라[葛野秦寺]에 모셨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절이 지금의 고류 사이다.

일본은 6세기 말까지 소가씨(蘇我氏) 주도로 친백제 외교 노선을 취하였으나, 수와 당이 출현하는 7세기 전반에는 신라 및 당과도 관계를 맺는 다면 외교(多面外交)를 추진하였고, 정권 내부에 친신라적 경향도 강하였다. 당시 백제의 침입을 받아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던 신라는 후방에 있는 왜를 안정시키고자 왜국의 문화 전수 요청을 비교적 잘 들어주었다.

고류 사는 교토 서쪽 교외의 가츠노[葛野]에 살던 하타노가와카츠[秦河勝]가 603년에 세운 호코 사[蜂岡寺, 太秦寺]와 같은 절이라고 전해진다. 하타히토[秦氏]는 중국 시황제의 후손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실제로는 신라에서 건너간 이주민의 자손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게다가 그 불상 재료가 일본에는 별로 없고 한반도에서 많이 나는 적송(赤松)임이 밝혀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73쪽

1. (1) ㉠, ㉤, ㉥, (2) ㉡, ㉢, ㉣
2. (1) 태학, (2) 돌무지덧널
3. 일본

내용 더하기

고구려 문화의 특징 18차시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동북아시아 교역의 중심으로 웅비하였다. 고구려는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목민의 문화를 종합하여 웅장하고 활기찬 성격의 문화를 이룩하였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서는, 고구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때 한쪽 다리를 뻗고, 걸음걸이가 모두 달리는 것처럼 빠르다고 하였으며, 사람들은 기력이 있어서 전투를 잘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고구려 사람들의 호쾌한 기풍을 지적한 것이다. 고구려 문화의 특징은 배가 부르고 입이 넓은 네 귀 달린 토기나 고분 벽화의 화려한 색채 및 역동적인 몸 움직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제 문화의 특징 18차시

백제는 2~3세기에 낙랑과 인접한 마한에 소속되어 낙랑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그 강도는 멀리 떨어진 진한이나 변한에 비길 정도가 아니어서 초기의 백제 문화는 거

생각 열기 ▶▶▶ 교과서 58쪽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의하면, 지증왕 6년(505)에 실직주(삼척)를 두고 처음으로 이사부를 군주로 파견하였으며, 지증왕 13년(512)에는 이사부가 하슬라주(강릉) 군주가 되어 우산국을 정벌하였다고 한다.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이다.

탐구 활동 ▶▶▶ 교과서 60쪽

1. 진골: 제1등 이벌찬, 6두품: 제6등 아찬, 5두품: 제10등 대나마, 4두품: 제12등 대사
2. 골품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친 사례
- 바지 옷감: 진골은 바지에 계수금라(罽繡錦羅)를 금지하고 나머지 비단이나 모직 종류는 모두 가능, 6두품은 시(絁), 견(絹), 면주(綿紬), 포(布)만 가능, 5두품은 면주, 포(布)만 가능, 4두품은 포만 가능
- 건축 주거: 진골의 집 한 채는 길이 · 너비가 24자 이내, 6두품은 21자 이내, 5두품은 18자 이내, 4두품 및 평민은 15자 이내로 제한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60쪽

1. (1) ○, (2) ×, (3) ○
2. (1) ㉡, (2) ㉠, (3) ㉢

내용 더하기

신라 건국의 고고학적 배경 14차시

기원전 1세기부터 경주평야와 그 주변 일대에서는 널무덤과 세형 동검이 나타나고, 초기 철기 문화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한반도 중서부에서 번성하던 위만 조선의 멸망을 전후하여 그 계통의 문화가 영남 지역에 출현한 것이다. 3~4세기 무렵에는 덧널무덤이 나타나고, 고리자루 큰칼과 갑옷을 포함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철기 문화가 발전하였다.

5~6세기경에 조성된 경주 황남동의 거대한 돌무지덧널무덤에서는 금관을 비롯한 장신구와 풍부한 껴묻거리가 출토되었다. 경주 지역의 고고학적 출토 상황으로 볼 때, 신라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에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박 · 석 · 김 3성 교대의 의미 14차시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와 달리 박혁거세 신화 외에 석씨 계통의 석탈해 신화와 김씨 계통의 김알지 신화가 있다. 처음에는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위에 오르다가 최종적으로는 김씨가 왕권을 독점하였다. 석탈해가 김알지를 계림에서 데려다 길렀다는 설화는 석씨 왕권이 닭 토템을 가진 김씨 부족과 연합하였던 정황을 보여 준다. 신라의 초기 왕권은 경주평야 주변의 여러 세력 사이에서 우월성을 인정받는 존재였으나, 때로는 내부에서 연합 전선을 구축한 다른 부족에게 왕의 지위를 빼앗기기도 하였던 것이다.

진한에서 사로국의 위치 14차시

서기 2~3세기에 신라는 사로국이라는 이름으로 진한 12국 안에 있었다. 진한 소국 연맹은 주로 낙동강 동쪽의 경상북도 지역과 경상남도 동부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동남 해안 지대가 문화의 중심지였다. 3세기에는 경주의 사로국이 연맹장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주변의 포항이나 울산 등지에도 비슷한 수준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사서에 기록된 진한 14차시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다. 그 노인들이 대대로 전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옛 유망인들이 진(秦)의 부역을 피하여 한국(韓國)으로 오자, 마한이 그 동쪽 경계의 땅을 갈라 주었다."라고 하였다. 성책(城柵)이 있다. 그 언어는 마한과 같지 않았다. 나라를 '방(邦)'이라고 부르고, 활을 '호(弧)', 도적을 '구(寇)', 술잔 돌리는 것을 '행상(行觴)'이라고 불렀으며, 서로 부르기를 모두 '도(徒)'라고 하였으니, 이는 연(燕)이나 제(齊)나라 사물의 호칭뿐만 아니라 특히 진(秦)나라 사람들의 그것과도 비슷하였다. 낙랑 사람들을 '아잔(阿殘)'이라고 하였는데, 동방의 사람들은 나를 '아(阿)'라고 불렀으니, 낙랑 사람이 본래 자기 무리의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뜻한다. 지금도 그를 가리켜서 '진한(秦韓)'이라고 부르는 자가 있다. 처음 6국이었다가 차츰 나뉘어져서 12국이 되었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신라의 고대 국가 성립 14차시

4세기 후반에 내물왕은 김씨 왕실의 왕위 세습을 확립하고 고구려와 우호 관계를 맺어 중국의 전진과도 교류하며 이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주체로 국제 사회에 등장하였다. 이 무렵부터 신라 왕실의 무덤인 경주 황남동 고분군이 조성되기 시작하고 그 분구의 규모와 부장품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해지는 것으로 보아, 신라는 이때부터 소국 연맹장을 넘어 고대 국가에 걸맞은 강한 왕권을 수립한 것을 알 수 있다.

5세기 신라의 성장 15차시

신라는 5세기에 들어와 낙동강 동쪽의 가야 세력을 복속시키면서 크게 성장하고, 고구려를 매개로 한 교역을 통해 활발한 문화 변혁을 이루어 갔다. 그리하여 영남 지역의 패권 경쟁에서 가야보다 크게 앞서게 되었고, 고구려에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물질과 제도의 양면에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 대가로 신라는 한동안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에 시달렸으나, 눌지왕 때 백제의 화친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고구려의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5세기 후반에 고구려가 남하 정책을 추진하여 신라를 침공해 오자, 신라는 국경과 수도 곳곳에 성을 쌓아 대비하였다. 또한 신라는 나 · 제 동맹에 따라 고구려의 침공을 받은 백제에 원군을 파견하기도 하고(475), 백제와 가야의 원군을 받아 고구려의 공격을 저지하였다(481). 안으로는 수도에 방리 이름을 정하고(469) 신궁을 짓고(487) 시장을 설치하였으며(490), 관도를 넓히고 우편과 역마 제도를 실시하여(487) 월성을 비롯한 수도에 전국의 물자와 사람들이 집중될 수 있는 각종 기반을 닦았다.

신라의 고대 국가 완성 15차시

6세기에 들어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위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으며(503), 국내의 주군제를 제정하고(505) 우산국을 정벌하는(512) 등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지증왕을 이어 즉위한 법흥왕은 병부 설치(517), 율령 반포(520), 공복 제정(520) 등의 제도를 정비하여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를 완비하고, 더 나아가 불교 공인(528), 상대등 설치(531), 연호 시행(536) 등을 통하여 왕권의 초월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또한 대외적으로 중국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521), 대가야와 결혼 동맹(522)을 맺은 후 532년에 금관가야를 병합함으로써 정복 전쟁의 길을 열었다.

신라의 영토 확장과 제도 정비 15차시

진흥왕은 촌락 단위의 청년 조직들을 중앙에 일괄 흡수하여 화랑도를 창설하고, 국가 사찰인 흥륜사와 황룡사를 완공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영토 확장에 나섰다. 그리하여 북쪽으로는 고구려가 영유하고 있던 한강 상류 지역을 쳐서 차지한 후(551), 얼마 뒤에는 백제가 점령한 한강 하류 지역을 탈취하고 함흥평야 일대까지 진출하였으며(553), 서쪽으로는 고령의 대가야를 정벌하여(562) 가야 전역을 병합하였다. 진흥왕은 자신의 정복 활동을 후세에 널리 알리고자 단양 신라 적성비와 창녕, 북한산, 황초령, 마운령 등에 순수비를 세웠다.

진흥왕은 확장된 영토를 관리하기 위하여 각지에 주(州)를 추가하고 군주를 파견하여 다스렸다. 또한 충주의 국원성을 소경으로 만들어 부유한 사람들을 이주시켰다(557).

그 후 진평왕은 중앙 행정 수요의 급증에 따라 관리의 인사, 조세, 육상 및 해상 운송, 외교 행정 및 접대 등을 담당하는 관부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신라는 늘어난 영토와 인구를 한층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을 비롯한 외국과도 자신 있는 외교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신라의 중앙 정치 제도 15차시

소국 연맹체에서 출발한 신라는 6부가 강하게 연합하여 지배 집단을 이루었다. 각 부는 왕에게 종속적인 자세를 취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독립적인 지배 구역과 관료 및 군대를 유지하였다. 그 후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정비되면서 6부 귀족과 하부 관료 조직은 점차 왕권 아래 편제되어 갔다. 6세기 전반 법흥왕 때에는 17관등제가 완성되었는데, 이는 신라의 독특한 신분 제도인 골품제와 연결되어 운영되었다. 신라의 중앙 관제는 법흥왕 때 병부가 설치되고 진평왕 때 위화부, 조부, 예부 등이 설치됨으로써 대강의 기틀이 잡혔다.

신라의 지방 행정 제도 15차시

신라 초기에는 진한 소국의 후예인 지방 세력을 인정하고 자발적 복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방을 통치하였다. 5세기 무렵에 신라는 지방의 촌주에게 왕실의 것보다 격이 떨어지는 금동관과 귀걸이 등을 하사하여 우대하였다. 대구, 부산, 창녕, 양산, 성주, 삼척 등에서는 신라 양식의 금동관이 출토되었는데, 이를 소유한 지방 세력은 중앙 조정과의 관계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6세기에 들어 신라는 왕권을 강화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지방 행정 구역은 그 크기에 따라 각기 다른 등급의 지방관이 파견되었는데, 주에 군주(軍主), 군에 파견된 지방관은 나두(邏頭), 촌에 도사(道使)로 불렀다. 이들은 나중에 행정적 성격이 강한 도독(都督), 태수(太守), 현령(縣令)으로 대체되었다.

Ⅱ. 삼국의 성립과 발전

04 가야 연맹의 성립과 발전

학습 목표

- 가야 소국의 성립과 연맹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후기 가야 연맹의 성장과 외교 관계에 대하여 알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내용	수업 방법	수업 자료
16	**1. 가야 연맹의 성립**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가야 사람들은 어떤 활동으로 부를 쌓았을까?	문답식	
	[전개]		
	• 가야는 낙동강 유역의 변한 12국 중의 하나로 출발하였음을 파악하게 한다.	강의식	
	• 전기 가야 연맹은 철 생산과 해로를 통한 교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음을 설명한다.		61쪽 사진
	• 금관가야의 중심지인 김해에서 출토된 외래 유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교역 대상이 어디였는지를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62쪽 지도, 자료
	• 전기 가야 연맹은 신라보다 우세하였으나 4세기 말에 신라를 지원한 고구려 군대의 공격을 받아 해체되었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전기 가야 연맹의 맹주 역할을 한 나라는?		
	2. 전기 가야 연맹이 해체된 까닭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17	**2. 가야 연맹의 발전**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미늘쇠는 어디에 쓰이던 물건일까?	문답식	
	[전개]		
	• 5세기 중엽에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가야 연맹이 복구되었음을 설명하고, 후기 가야 연맹은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 사이에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63쪽 지도, 사진
	• 후기 가야 연맹은 6세기 중엽에 분열되어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압력을 받다가 신라에게 멸망하였음을 파악하게 한다.		
	• 가야 연맹은 어느 한 세력에 복속되지 않고 수백 년에 걸쳐 독자성을 유지한 고대 정치 세력이었음을 이해하게 한다.		64쪽 사진
	• 삼국과 가야 발전 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65쪽 자료

17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가야산의 철광 개발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후기 가야 연맹의 중심이 된 나라는? 2. 가야 연맹이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룩하지 못한 까닭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가야 연맹의 성립

(1) 가야 소국의 성립

① **배경**: 기원전 1세기경 경남 남해안과 낙동강 유역에 고조선계 유민 유입 → 철기 문화 전파(널무덤, 세형 동검)

② **건국 신화**: 김해 지역의 토착 세력들이 수로를 왕으로 추대

③ **소국 출현**: 2세기 후반 낙동강 하구 일대를 중심으로 김해 가야국 등 성립

(2) 전기 가야 연맹의 형성

① **전기 가야 연맹**: 2세기~3세기경 변한 12개 소국이 연맹 형성(금관가야 중심)

② **전기 가야 연맹의 성장**: 우수한 철기 생산 능력과 양호한 해운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성장

- 철기 생산 능력: 제철을 바탕으로 한 철기 생산
- 해운 입지 조건: 서해안, 남해안 및 일본 열도와 연결
- 대외 교역: 한반도 서북부(낙랑, 대방)와 왜 사이에서 철을 매개로 중계 무역, 국제 교류 활발(김해 지역에서 중국의 청동 거울, 북방 계통의 청동 솥, 일본 계통의 방패 꾸미개 등 출토)

(3) 전기 가야 연맹의 해체

① **대외 교류 위축**: 4세기 전반 낙랑, 대방의 멸망으로 가야의 선진 문물 교역로 쇠퇴

② **중계 무역 체제 회복**: 4세기 중엽 백제 근초고왕이 교역로 개척 → 가야 연맹이 백제와 왜 사이에서 다시 중계 무역 체제 구축

③ **전기 가야 연맹 해체**: 4세기 말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은 고구려 군대의 공격으로 금관가야 쇠퇴

2. 가야 연맹의 발전

(1) 가야 연맹의 복구

① 5세기 전반의 형세

- 가야의 침체: 낙동강 동쪽 지역에 대한 신라의 영향력 강화 → 가야의 영역 축소
- 가야의 부흥: 고령, 합천 등 경상 내륙 산간 지방 중심, 김해 지역의 제철 기술 유입으로 발전

② 가야 연맹 복구

- 대가야(고령): 가야산의 철광 개발을 토대로 발전
- 후기 가야 연맹: 5세기 중엽 대가야 중심의 연맹 성립

(2) 후기 가야 연맹의 성장

① **대가야의 발전**: 남조의 제와 교류, 백제와 함께 신라에 구원군을 보내 고구려 격퇴

② **전성기**: 5세기 후반~6세기 초, 서쪽으로 섬진강 유역까지 진출, 동쪽으로 낙동강을 경계로 신라와 대립

③ **쇠퇴(6세기 초)**

- 백제의 압박: 왜와 직접 교역하려는 목적
- 영토 축소: 호남 동부 지역 상실, 경남 일부 지역으로 영역 축소

(3) 후기 가야 연맹의 멸망

① 가야의 쇠퇴

-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 동맹(522): 백제 대항 목적 → 신라의 책략으로 가야 연맹 분열
- 백제와 신라의 압박: 금관가야의 신라 투항, 백제의 군사적 압박

② **가야의 분열**: 6세기 중엽 대가야와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분열, 백제와 신라의 압박을 벗어나고자 단결 → 성왕의 외교적 공세에 굴복, 백제의 보호를 받음.

③ **가야의 멸망**: 관산성 전투(554) 패배 이후 신라로 기움. → 신라의 공격으로 대가야 멸망(562)

(4) 가야의 독자성 유지

① **초기**: 여러 소국이 연합한 지배 체제, 가장 강한 소국의 지배자가 왕으로 행세(금관가야 → 대가야)

② **후기(5세기 후반)**: 고대 국가의 지배 체제 확립

③ **말기(6세기 중엽)**: 백제와 신라의 간섭으로 소국 연맹체로 재분열, 중앙 집권 체제 미확립

④ **가야 연맹의 의의**: 수백 년 동안 독자성 유지, 신라의 문화 발전과 통일에 이바지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61쪽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기록에 의하면, 3세기 당시에는 낙랑에서 출발한 배가 서해와 남해 연안을 따라 항해하여 구야한국(狗邪韓國, 김해)에 들른 뒤 해협을 건너 일본 열도로 향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 김해를 비롯한 경남 해안 지대에 자리 잡은 가야 제국의 해운 입지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조선 시대 후기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택리지"에서는 동해는 바람이 높고 물결이 험해서 서남해의 선박이 잘 닿지 않는데 비해, 서해와 남해는 물결이 완만하여 전라, 경상에서부터 한양, 개성, 황해, 평안까지 장삿배가 이어지며 낙동강 하구에서는 강줄기를 따라 상주, 진주까지 배가 닿는데 경상도에서는 그러한 '남북의 해상과 육상 운송의 이익'을 김해가 모두 관장한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김해 지방이 지닌 해운 입지의 장점은 선박 항해 기술이 미흡한 고대 시기에는 매우 중요하였다.

게다가 서북한 지역에는 선진 문물의 공급처인 낙랑군이 있고, 바다 건너에는 선진 문물의 대형 수요처인 일본 열도가 있었으므로, 그 사이에 위치한 가야국은 중계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가야는 단순한 중계 무역에 그치지 않고, 자기 지역에서 산출되는 '철'이라는 분명한 재화를 매개로 무역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러므로 가야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해상 교통로를 통한 원거리 교역은 매우 중요한 부의 축적 수단이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63쪽

미늘쇠〔有刺利器〕는 긴 나무 자루에 끼워 행진 등을 할 때 사용한 의례용 철기로서, 철을 생산할 줄 아는 세력이나 국가가 존재했음을 나타낸다. 미늘의 형태는 고사리무늬, 알파벳 C자 모양, 새 모양 등이 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65쪽

1. (1) ○, (2) ×
2. (1) 중계 무역, (2) 고구려
3. ㉢ – ㉠ – ㉡ – ㉣
4. 예시 답안 가야 지역에는 거의 모든 군이나 면의 야산마다 고분군들이 분포하고 있다. 가야 지역의 고분군들은 대개 5~6세기의 것으로서, 이 중에 큰 것은 신라 경주의 고분군에 못지않고, 여기에서 출토된 토기나 철기를 포함한 유물의 총량도 신라 지역의 것을 능가한다. 이 때문에 가야 문화의 힘을 높게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지역의 고분군들이 골짜기마다 산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가야의 정치 세력들 간에는 상호 견제와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그리하여 가야에서는 기존의 맹주국이 주변 소국들을 일원적으로 영도해 나가는 중앙 집권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늦어졌다.

   신라와 가야는 2세기 후반 내지 3세기 전반까지는 각기 진한과 변한의 의례적 연맹장이었다가 3세기 후반에는 좀 더 실질적인 연맹장 권한을 갖추는 등 4세기 후반까지는 거의 대등하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가야는 400년에 고구려와 신라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 패배함으로써, 신라에 비하여 발전 속도가 뒤처지게 되었다. 5세기 중엽에 가야 연맹이 복구되고 5세기 후반에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초기 고대 국가 형태가 마련되었지만, 백제 및 신라와 그동안 벌어진 간격을 만회하기가 어려웠다.

   한편 6세기경에는 함안의 아라가야가 세력을 떨쳐 대가야 중심의 정치적 통합을 어렵게 하였다. 또한 가야는 6세기 전반부터 이미 고대 국가 체제를 완성한 백제와 신라의 간섭을 받았으며, 그 결과 6세기 중엽에 다시 남북으로 나뉘어 소국 연맹체의 상태로 분열되었다. 이 때문에 가야 연맹은 백제나 신라에 맞서 힘을 모으지 못함으로써, 결국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내용 더하기

가야 소국의 성립 과정 16차시

한반도 남해안 사천 앞바다의 늑도는 기원전 2세기 초부터 중국의 한, 위만 조선 그리고 일본 열도의 왜를 잇는 국제 교역항으로 대두되었다. 기원전 1세기 초부터 경남 김해와 창원 일대에는 고조선 유민들에 의해 한반도 서북부의 앞선 철기와 회색 토기 문화가 전파되었다. 그 후 이 지역 사람들은 차츰 늑도를 대신하여 낙랑군 및 바다 건너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해상 교역을 장악해 나갔다.

경상남도 창원 다호리 고분군과 김해 양동리 고분군의 널무덤들은 기원전 1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기원후 2세기 중엽 이후에는 덧널무덤으로 변모되어 그 내부에서 많은 철기와 토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하여 기원후 2세기 후반에는 그 중에서 성장 속도가 빠른 낙동강 하구 일대를 중심으로 사회 통합이 진전되어 김해 가야국 등의 소국들이 출현하였다.

금관가야 건국 신화의 의미 16차시

가야의 수로왕 신화는 김해 지방 소국의 성립을 표방하는 정치 이념이었다. 건국 신화에 따르면 김해 지방에 있었던 아홉 명의 추장이 하늘에서 구지봉에 내려온 황금알을 받아 이를 깨고 나온 수로를 왕으로 추대하여 가야국을 세웠다고 한다. 가야 신화는 이주민 계통의 수로왕이 토착민 계열의 9간과 함께 중시되고 있어서, 가야 문화가 남한 농경 문화와 서북한 철기 문화의 결합에 의하여 탄생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전기 가야 연맹의 형성 16차시

낙동강 유역의 소국들은 2~3세기에 걸쳐 김해의 가야국을 중심으로 12개 소국들이 합친 변한 소국 연맹, 즉 전기 가야 연맹체를 이루었다. 전기 가야 연맹은 발전된 철기 생산 능력과 양호한 해운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주변 지역과 교역하며 발전해 나갔다. 그 중에서도 김해 구야국(狗邪國, 加耶國, 金官加耶)과 함안 안야국(安邪國, 아라가야)이 우월하였는데, 특히 해운 입지 조건이 좋은 김해의 가야국은 낙랑과 왜 사이의 원거리 교역 중계 기지로서 큰 번영을 누렸다.

대성동 고분군으로 대표되는 김해 지역의 3세기 후반 대형 덧널무덤에서는 청동 솥, 쇠로 만든 갑옷과 투구, 마구 등의 북방 계통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김해 지역에서 북방 유물이 출토된 것은 이곳이 국제 교류의 거점으로서 동북아시아의 기류 변화를 빨리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김해의 가야국은 철제 무기와 방어구의 생산을 독점하고 무력으로 변한 소국들을 통합하여, 완만했던 가야 연맹체를 정치 세력화하고 연맹장의 권한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중국 사서에 기록된 진한과 변한 16차시

나라에서 철이 생산되는데, 한, 예, 왜에서 모두 와서 가져갔다. 사고팔 때에는 모두 철을 사용하였으니, 마치 중국에서 돈(錢)을 사용하는 것과 같았다. 또한 그것을 (낙랑과 대방의) 두 군에 공급하였다. …… 변진(변한)은 진한과 더불어 뒤섞여 있었다. 역시 성곽이 있었다. 의복과 거처는 진한과 같았고, 언어와 법속이 서로 비슷하였다. 귀신을 제사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으니, 부엌이 모두 입구의 서쪽에 있었다. 독로국은 왜와 경계를 접하였다. 12국 역시 왕이 있었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전기 가야 연맹의 시련 16차시

4세기 전반에 고구려가 낙랑과 대방군을 병합하자, 가야 연맹은 선진 문물 교역 대상을 상실하였으며, 금관가야의 영도력도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이에 서부 경남 해안 지대의 소국들, 즉 포상 8국(浦上八國)이 연합하여 금관가야를 공격함으로써, 가야 소국들은 동서로 분열되었다. 그러나 4세기 중반 이후에 백제의 근초고왕이 중국의 남조와 교류하여 얻은 선진 문물을 토대로 교역로를 개척해 오자, 가야 연맹은 다시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백제와 왜 사이의 중계 무역 기지로서 안정적인 교역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가야는 백제와 교역하는 대가로 왜의 일부 세력과 함께 동원되어 고구려의 동조 세력인 신라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가야의 중계 무역 능력은 부(富)와 기술, 무력을 모두 갖춘 데서 나온 것이지, 단순히 백제와 왜 사이의 교역을 위한 지리적 편의성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었다. 김해 가야국의 힘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출토한 다량의 덩이쇠와 종장판 정결 판갑옷〔鐵製縱長板釘結板甲〕, 철제 재갈 등의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 가야 연맹의 해체 16차시

4세기 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즉위한 이후 한반도 중부 지역의 패권 다툼은 백제의 패배로 결말이 났고, 그 여파로 신라의 요청을 받은 고구려 군대가 낙동강 하류까지 내려와 임나가라(任那加羅)를 급습하였다. 임나가라는 4세기 후반 당시 가야 연맹의 핵심으로서, 김해의 가야국을 중심으로 하여 남부 지역의 몇몇 소국들이 좀 더 긴밀하게 통합된 정치체를 가리킨다. 고구려의 침공으로 김해의 가야국이 큰 타격을 입어 전기 가야 연맹은 해체되었고, 이후 신라는 가야보다 결정적으로 앞설 수 있게 되었다.

광개토 대왕의 가야 침공 16차시

(영락) 10년 경자에 왕명으로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남거성(男居城)부터 신라성(新羅城)까지 왜가 그 사이에 가득 차 있었다. 관군이 바야흐로 이르자 왜적이 물러가므로 뒤를 타고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任那加羅)의 종발성(從拔城)에 이르렀다. 성이 곧 귀순하여 복종하므로 순라병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신라의 ㅁ농성을 공략하니 왜구는 위축되어 궤멸되었다. 성 안 남자의 열에 아홉은 모두 죽이거나 강제로 옮기고 순라병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군대는 …… ㅁㅁ성을 ㅁ하고 순라병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 광개토 대왕릉비문 영락 10년(400)조

5세기 전반 가야 소국들의 재편 17차시

5세기 전반에 가야 제국은 한동안 침체에 빠져 있었다. 낙동강 동쪽 연안 창녕, 밀양, 양산, 부산 지방과 낙동강 상류 서쪽 연안 성주, 개령 지방 등의 세력은 거의 신라 세력에 동조하여 가야의 영역은 크게 축소되었다. 맹주국의 약화에 따라 서부 경남 지역에 있던 함안의 아라가야나 고성의 소가야가 일시적으로 주변 지역과의 교역을 늘리며 활

성화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인 재부(財富)가 부족하여 가야 연맹을 영도할 능력은 갖추지 못하였다.

가야 문화 부흥의 진원지는 경상 내륙 산간 지방이었다. 고령, 합천, 진주, 산청 등은 천혜의 안정된 농업 지역이었으나, 4세기 이전에는 해운 입지 조건이 불리하여 문화가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5세기 초부터 경남 해안 지역의 이주민들에 의해 철기와 토기 제작 기술이 유입되면서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5세기 중엽 가야 연맹의 복구 17차시

경상 내륙 산간 지역의 가야 소국들 중에서 가장 앞선 것은 고령의 반파국(伴跛國)이었다. 이 지역은 본래의 안정적 농업 기반에 더하여 가야산의 야로 철광을 개발함으로써 다른 지역보다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5세기 중엽에 이르러 반파국은 호남 동부 지역을 포섭하여 백제와 왜를 연결하는 교역 중심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리하여 고령 세력은 '대가야국(大加耶國)'으로 이름을 고치고 여러 소국을 포괄하는 후기 가야 연맹을 형성하였다. 이 시기에 대가야는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천신 이비가지에 감응하여 시조 이진아시왕을 낳았다는 건국 신화를 표방하였다.

5세기 후반 후기 가야 연맹의 성장 17차시

대가야는 5세기 후반에 독자적인 움직임을 한층 강화하여, 가라국왕(加羅國王) 하지(荷知)라는 이름으로 중국 남제와 교역하여 '보국 장군 본국왕'이라는 작호를 받았다. 또한 481년에는 백제와 함께 신라에 구원군을 보내 고구려의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가야 연맹은 외형적으로 고대 국가 초기 단계와 같은 면모를 보였다.

5세기 후반 및 6세기 초에 후기 가야 연맹이 가장 번성하였을 때 그 영역은 거창과 함양을 거쳐 서쪽으로 소백산맥을 넘어 섬진강 유역을 포괄하였고, 동쪽으로는 낙동강을 경계로 삼아 신라와 대립하였다. 즉 전성기의 후기 가야 연맹은 호남 지역 7개 소국과 영남 지역 15개 소국을 합하여 모두 22개 소국을 아우르고 있었다.

6세기 초 호남 동부 지역의 상실 17차시

6세기 초에 백제의 무령왕은 섬진강 하류를 통하여 왜와 직접 교역하고자 가야 연맹을 외교적으로 압력하였다. 대가야는 이에 반발하였으나 결국은 호남 동부 지역을 상실하고, 경남 지역의 곳곳에 성을 쌓아 지배 체제를 강화하였다.

6세기 전반 가야 남부 제국의 약화 17차시

백제와 대립하게 된 대가야 이뇌왕(異腦王)은 522년에 신라에게 청혼하여 이찬 비조부(比助夫)의 누이동생과 혼인함으로써 가야와 신라의 결혼 동맹이 맺어졌다. 그러나 이를 이용한 신라의 책략으로 가야 연맹에 분열의 조짐이 나타났다. 이에 신라는 무력시위를 통하여 금관가야 등 가야 남부 소국들의 투항을 받아냈다. 그러자 백제도 군대를 투입하여 함안의 아라가야 주변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가야에 압력을 넣었다.

6세기 중엽 후기 가야 연맹의 멸망 17차시

6세기 중엽에 가야 연맹은 대가야와 아라가야 중심의 남북 이원 체제로 분열된 채 백제와 신라 양국의 위협에 시달렸다. 이에 가야 연맹은 독립적 존재로 남기 위해 단결하였으나, 성왕의 외교적 공세에 굴복하여 550년경 백제의 보호 아래 들어갔다.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와 가야 연합군이 신라에게 패배하면서, 백제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가야 소국들은 하나씩 신라로 기울어 갔다. 그 후 562년에 고령의 대가야가 신라 화랑 사다함의 기습 공격과 장군 이사부가 이끄는 대군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면서 가야 연맹은 완전히 몰락하였다.

가야 연맹의 정치 제도 17차시

3세기 이전 전기 가야 연맹체의 소국들은 상호 간 서열에 따라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김해의 구야국(금관가야)과 함안의 안야국(아라가야)의 서열이 가장 높았다. 완만한 서열적 연맹 체제를 유지하던 가야는 3세기 후반에 김해 금관가야가 무력을 바탕으로 소국들을 한층 강하게 결속시킴으로써 일원적 정치 세력으로 전환되었다.

후기 가야 연맹은 5세기 후반에 중국 남제에 조공을 하고 백제나 신라와 동맹을 맺기도 하여 외형적으로는 고대 국가처럼 기능하고 있었다. 510년대에 변경 지역 여러 곳에서 축성이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 대가야가 중앙 집권적 기능을 수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가야 왕권의 통솔력은 530년대 이후 다른 소국들로부터 도전을 받아 약화됨으로써, 각 소국들의 독립성을 타파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하는 단계로 들어가지는 못하였다.

Ⅱ. 삼국의 성립과 발전

05 삼국과 가야의 문화 및 대외 교류

학습 목표

- 삼국과 가야의 불교 예술과 고분 문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삼국 문화의 특징을 추론할 수 있다.
- 삼국과 가야의 상호 교류 및 대외 교역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삼국과 가야 문화의 일본 전파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내용	수업 방법	수업 자료
18	**1. 삼국과 가야의 문화**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고자 하였던 까닭은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삼국에서 각기 개성 있는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을 정리하게 한다.	강의식	
	• 삼국의 탑, 불상 등 불교와 관련한 문화재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한다.		67쪽 사진
	• 삼국에서 유행했던 고분 양식을 정리하게 하고, 돌무지덧널무덤과 굴식 돌방무덤의 구조상의 차이를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68쪽 자료
	• 삼국과 가야의 예술, 유학 교육, 역사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강의식	69쪽 자료, 70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구조상 벽화가 많이 남아 있는 삼국 시대 무덤 형식은?	문답식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19	**2. 삼국과 가야의 대외 교류**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신라와 일본의 불상 모습이 비슷한 이유는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삼국이 주변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문화를 발전시켰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71, 72쪽 사진
	• 가야가 낙랑과 백제, 왜 등의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하였음을 이해하게 한다.		
	• 삼국과 가야의 문화가 일본 열도에 전파되어 일본 고대 문화 성립에 이바지하였음을 파악하게 한다.	탐구식	72쪽 사진, 73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백제 기술자들이 일본에 세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탑은?	문답식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삼국과 가야의 문화

(1) **각국 문화의 특징**
- ① **고구려**: 웅장하고 활기찬 문화
- ② **백제**: 우아하고 세련된 문화
- ③ **신라**: 투박하면서도 실용적인 문화
- ④ **가야**: 단정하고 보수적인 문화

(2) **불교와 사상**
- ① **불교 수용**: 중앙 집권 체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용, 왕즉불(王卽佛) 사상, 문화 발전에 기여
- ② **도교 수용**: 산천 숭배나 신선 사상과 결합(백제의 금동대향로, 고구려의 사신도 벽화)

(3) **불교 예술의 발달**
- ① **사찰 및 석탑**: 신라의 황룡사 9층 목탑 · 분황사 석탑,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 · 정림사지 5층 석탑
- ② **불상**: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고구려), 서산 마애 여래 삼존상(백제), 경주 배동 석조 여래 삼존 입상(신라)

(4) **고분**
- ① **고구려**: 돌무지무덤, 굴식 돌방무덤
- ② **백제**: 돌무지무덤, 벽돌무덤, 굴식 돌방무덤
- ③ **신라**: 돌무지덧널무덤, 굴식 돌방무덤
- ④ **가야**: 널무덤, 덧널무덤, 돌덧널무덤,

(5) **그림과 음악**
- ① **그림**: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 천마도
- ② **음악**: 신라 방아 타령, 고구려 거문고, 가야 가야금

(6) **한자와 유교의 보급**
- ① **고구려**: 태학, 광개토 대왕릉비의 예서체 한자
- ② **백제**: 오경박사, 사택지적비
- ③ **신라**: 임신서기석, 세속 5계

(7) **역사와 천문**
- ① **역사서**: 고구려의 "유기"와 "신집", 백제의 "서기", 신라의 "국사", 가야의 "개황록"
- ② **천문 연구**: 농사에 활용, 왕권 강화

2. 삼국과 가야의 대외 교류

(1) **고구려의 대외 교류**
- ① **남북조와 교류**: 선진 문물 수용(불교, 유학, 율령 등)
- ② **중앙아시아와 교류**: 서역 문화 수용(각저총 벽화,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 유적)

(2) **백제의 대외 교류**
- ① **남조와 교류**: 불교, 도자기, 학문, 기술 도입 → 국가 제도 정비
- ② **무령왕릉 출토 유물**: 백제와 남조의 교류 뒷받침(청동 자루솥, 오수전, 청동 거울 등)

(3) **신라의 교류 확대**
- ① **초기**: 고구려를 통해 선진 문물 수용
  - 중국 문물: 청동 용기, 도자기, 금 세공술
  - 중앙아시아 문물: 유리 제품, 칠보 장식 보검
  - 고구려 문물: 청동 호우, 은합
- ② **6세기 이후**: 중국과 직접 교류 → 토산물 수출, 불경 등 수입

(4) **가야의 중계 교역**
- ① **초기**: 낙랑과 왜 사이의 중계 교역(낙랑의 선진 문물 수입, 왜에 선진 문물과 철 수출)
- ② **후기**: 백제와 왜 사이의 중계 교역 → 왜에 선진 기술, 장신구 등 수출

(5) **삼국과 가야 문화의 일본 전파**
- ① **문화 전파의 주체**: 국가, 지방 세력,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
- ② **문화 전파의 사례**
  - 가야: 납작 도끼, 덩이쇠, 마구, 철제 갑옷, 토기
  - 백제: 오경박사, 승려를 통한 유교, 불교, 건축 기술
  - 고구려: 종이와 먹 제조 방법, 불교
  - 신라: 불상(고류 사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66쪽

불교 수용을 둘러싼 가부(可否) 논쟁에 대하여, 흔히 왕실은 보편적 원리인 불교를 통하여 새로운 국가 이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하고, 귀족들은 급격한 정치 개혁을 원하지 않는 보수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불교 수용에 반발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추상적인 표현보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소국이나 초기 고대 국가 단계에서 왕은 천신의 자손을 자처하기 때문에, 나라에 천재지변이나 흉년과 같은 일이 생기면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지" '위서 동이전' 부여 조에서와 같이, "비 오고 가무는 것이 순조롭지 않아 오곡이 익지 않으면 번번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혹자는 왕을 바꾸어야 한다고 하고 혹자는 왕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다."라는 내용과 같은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불교는 크샤트리아 계층에 속하는 석가모니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 세계관 자체에 제사장 및 최고 귀족인 브라만 계층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불교 사상에서는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인과응보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전륜성왕(轉輪聖王)과 같은 왕으로 태어나려면 전생에 수많은 선행을 베풀어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불교적 세계관에서는 왕이 천재지변에 책임질 이유가 없었다.

법흥왕은 전륜성왕 사상에 의거하여 신라 최초의 사찰을 '흥륜사(興輪寺)'라고 하였고, 진흥왕은 자신의 두 아들의 이름을 '금륜(金輪)'과 '동륜(銅輪)'이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불교를 수용할 당시 신라 왕실의 주요 관심은 불교의 전륜성왕 사상을 빨리 수용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왕실은 천신적 세계관에서 탈피하고 불교적 세계관을 이어받아 왕위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다. 반면에 귀족들은 천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면 왕을 견제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반대했던 것이다.

탐구 활동 ▶▶▶ 교과서 68쪽

1. 돌무지덧널무덤은 목곽을 만든 후 시체를 담은 관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묻고 그 위에 나무 뚜껑을 덮는 방식이기 때문에, 목곽 안의 공간이 방이나 집과 같다고 인식하지 않았고 목곽 내부를 다시 열어 보는 일도 없었다. 그러므로 목곽 내부에 벽화를 그리지 않았다고 보인다. 돌무지덧널무덤은 사후의 혼령이 밖으로 새어 나오지 못하도록 목곽 위를 엄청난 분량의 돌무더기로 덮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덮는 방식이었다.
2. (1) 제1기(3세기 후반~5세기 초): 여러 방에 걸쳐서 묘 주인이나 그의 생전 생활 모습과 풍속, 행렬 등을 그렸다. 황해도의 안악 3호분, 평양 유주 자사 진의 무덤 등이 대표적이다.
   (2) 제2기(5세기 중엽~6세기 초): 방이 두 개나 한 개로 줄어들고, 그 방에 생활 풍속, 사신도, 여러 가지 장식무늬 등을 그렸다. 사신도와 장식무늬는 생활 풍속도의 주변에 부수적인 주제로 위치하였다. 중국 지린 성 지안의 무용총, 평양의 쌍영총 등이 대표적이다.
   (3) 제3기(6~7세기): 방이 모두 한 개로 되어 있고, 내부에는 사면의 벽에 동서남북으로 각 방위의 수호신인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도만을 그렸다. 평양의 강서 대묘와 강서 중묘가 대표적이다.

생각 열기 ▶▶▶ 교과서 71쪽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경주 단석산 마애 불상군의 반가 사유상과 같은 양식에 속하고, 하반신 부분의 옷 주름 처리 방식은 경북 봉화에서 발견된 석조 여래 좌상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비슷한 불상이 일본에 있고 고대 일본은 백제와 친하였기 때문에,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을 제작한 나라를 백제로 보는 견해와 신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일본 교토의 고류 사[廣隆寺]에는 일본 국보인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있는데, 그 모습이 한국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과 거의 비슷하다. "일본서기"에는 623년에 신라 사신이 가져간 불상을 가츠노하타데라[葛野秦寺]에 모셨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절이 지금의 고류 사이다.

일본은 6세기 말까지 소가씨(蘇我氏) 주도로 친백제 외교 노선을 취하였으나, 수와 당이 출현하는 7세기 전반에는 신라 및 당과도 관계를 맺는 다면 외교(多面外交)를 추진하였고, 정권 내부에 친신라적 경향도 강하였다. 당시 백제의 침입을 받아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던 신라는 후방에 있는 왜를 안정시키고자 왜국의 문화 전수 요청을 비교적 잘 들어주었다.

고류 사는 교토 서쪽 교외의 가츠노[葛野]에 살던 하타노가와카츠[秦河勝]가 603년에 세운 호코 사[蜂岡寺, 太秦寺]와 같은 절이라고 전해진다. 하타히토[秦氏]는 중국 시황제의 후손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실제로는 신라에서 건너간 이주민의 자손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게다가 그 불상 재료가 일본에는 별로 없고 한반도에서 많이 나는 적송(赤松)임이 밝혀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73쪽

1. (1) ㉠, ㉤, ㉥, (2) ㉡, ㉢, ㉣
2. (1) 태학, (2) 돌무지덧널
3. 일본

내용 더하기

고구려 문화의 특징 18차시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동북아시아 교역의 중심으로 웅비하였다. 고구려는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목민의 문화를 종합하여 웅장하고 활기찬 성격의 문화를 이룩하였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서는, 고구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때 한쪽 다리를 뻗고, 걸음걸이가 모두 달리는 것처럼 빠르다고 하였으며, 사람들은 기력이 있어서 전투를 잘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고구려 사람들의 호쾌한 기풍을 지적한 것이다. 고구려 문화의 특징은 배가 부르고 입이 넓은 네 귀 달린 토기나 고분 벽화의 화려한 색채 및 역동적인 몸 움직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제 문화의 특징 18차시

백제는 2~3세기에 낙랑과 인접한 마한에 소속되어 낙랑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그 강도는 멀리 떨어진 진한이나 변한에 비길 정도가 아니어서 초기의 백제 문화는 거

의 낙랑 문화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국 신화를 통해 볼 때 백제는 원래 고구려와 같은 부여족이었고, 낙랑의 정치적 견제에 대항하여 투쟁하면서 고대 국가로 성장하였다.

그리하여 백제는 낙랑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도 고구려 계통의 돌무지무덤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또한 4세기 이후에는 동진(東晉), 5세기 이후에는 송(宋), 제(齊), 양(梁) 등 중국 남조의 귀족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아하고 세련된 문화 성격을 나타내게 되었다. 백제의 전형적인 세발 토기[三足器]와 이중 입술 항아리〔二重口緣壺〕 등을 통해 그 문화적 성격을 알 수 있다.

가야 문화의 특징 18차시

2~3세기 경상도 지역의 묘제와 토기 문화는 거의 같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흔히 이를 '진 · 변한 공통 문화 기반'이라고 언급한다. 이는 2~3세기 경상도 지역의 문화가 기본적으로 남한의 민무늬토기 문화와 서북한의 세형 동검 문화의 결합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랑과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보면 진한과 변한은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상대적인 차이가 난다. 변한의 맹주국인 김해의 구야국(狗邪國), 즉 가야국(加耶國)은 서해안과 남해안으로 이어지는 물결이 잔잔한 연안 항로의 끝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해로를 통해 낙랑과 직접 교류할 수 있었던 반면에, 진한의 맹주국인 경주의 사로국(斯盧國), 즉 신라국(新羅國)은 물결이 거친 동해안에 위치하여 해로의 직접적인 목적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진한은 변한의 낙동강 유역을 통해서 2차적으로 낙랑의 문물을 접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해 진 · 변한 공통 문화 기반이 유지되었을 것이다. 그 문화는 상당히 합리적인 성격을 띠는 중국 후한 대(後漢代) 문화의 영향을 받아 단정한 형태를 나타낸다.

진 · 변한 공통 문화 기반은 낙랑군과 대방군이 고구려에 의하여 소멸되는 4세기 초 이후에 분리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4세기 전반의 영남 지역은 그때까지 축적한 문화를 토대로 상호 간에 항쟁하면서 각 지역별로 문화가 분리되는 모습을 띤다. 4세기 후반에 한강 유역의 백제가 크게 대두하여 옛 대방군이 있었던 황해도 지역을 차지하고 해상 교역로를 개척해 오자, 가야 연맹은 다시 하나로 통합되어 그들과 교역하였다. 그 문화는 당시의 시류를 반영하여 기마 및 전쟁 관련 문화가 대폭 혼합되었으나, 기본 성격은 예전의 낙랑, 대방 문화의 연장선 위에 있었다.

그 결과 가야 문화는 2~3세기 이래 낙랑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진 · 변한 공통 문화 기반이 큰 수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단정하고 보수적인 문화 성격을 띠게 되었다. 가야는 5세기 이후 중심지가 경상 내륙의 고령 지방으로 옮겨지는 큰 정치적 변혁을 겪지만, 이러한 문화 성격은 가야가 멸망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가야 토기 양식의 굽다리 접시[高杯]와 목 항아리[長頸壺] 및 그릇 받침[器臺] 등의 토기 모습이 처음부터 끝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원래의 단아한 모습을 유지하였다.

신라 문화의 특징 18차시

신라 문화는 가야와 같이 진 · 변한 공통 문화 기반을 출발점으로 하였지만, 4세기 후반에는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아 사회 전반에 큰 변혁이 이루어졌다. 382년에 신라 사신 위두(衛頭)가 고구려의 인도를 받아 전진(前秦)에 갔을 때 전진 왕 부견(苻堅)이 "경이 말하는 해동의 일이 옛날과 다르니 어찌된 것이오?"라고 질문했던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그리하여 5세기 이후로 신라의 문화는 옛 진 · 변한 공통 문화 기반을 토대로 하면서 크게 변화하여 투박하고 실용적인 문화 성격이 가미되었다. 이에 따라 옛 형식에서 크게 변화한 신라 토기 양식의 굽다리 접시와 굽다리 목 항아리[臺附長頸壺]가 나타났고, 시대 분위기가 변화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형(器形)이 변화하였다.

왜 문화의 특징 18차시

왜는 6세기 전반까지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야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나, 어떤 문물을 수용하더라도 곧 그 실용성은 무시하고 외형만을 모방하며 대형화하는 면모를 보였다. 이는 고대 일본 열도가 농경이 발달하여 인구는 많았지만, 사회 통합 정도나 문화 수준이 한반도 남부보다 낮아서 기본적으로 의례(儀禮)를 중시하고 대부분의 문화적 도구들을 피지배층에 대한 과시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왜의 문화는 가야 문화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변형되어 형식적이고 위압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변한의 작고 실용적인 청동 종방울[銅鐸]과 청동 투겁창[銅鉾]이 2~3세기 일본의 야요이 문화에서는 50cm 이상으로 커지고 폭이 크게 넓어지는 것은 이를 반영한다. 일본의 스에키[須惠器]도 처음에는 가야 도질

토기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지만, 곧 형식적이고 위압적인 형태로 변화된다. 스에키 중에서 접시 부분은 납작한 형태이면서도 다리 부분이 과도하게 길어진 굽다리 접시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다.

왜의 문화는 6세기 중엽 이후 백제의 유교와 불교 미술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 차례 더 변화하나, 역시 백제 문화의 외형만을 받아들일 뿐, 일본 문화의 형식적이고 위압적인 성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삼국과 가야의 불교 예술 문화 18차시

고대 국가들은 불교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사후 세계를 위하여 고분을 크게 축조하기보다는 불교 사찰을 건설하고 그에 걸맞은 정신세계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 과정은 당시의 최고 지식인인 승려들을 통해 이루어져 수준 높은 건축 기술, 탑, 공예, 회화, 음악 등이 나타났다.

사원 건축으로는 신라의 황룡사와 분황사, 백제의 미륵사와 정림사 등이 유명하다. 황룡사에는 거대한 9층 목탑이 세워지고 금당에는 황금을 칠한 장육존상이 있어서 신라의 자랑거리였으나 지금은 모두 전하지 않는다. 분황사에는 벽돌 모양으로 다듬은 돌로 쌓은 석탑이 3층까지만 남아 있으나, 그것만으로도 신라 조형 예술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

미륵사의 부지에는 높은 목탑과 그 양쪽에 두 기의 석탑이 있었으나, 현재는 목탑을 모방하여 만든 서쪽 석탑 일부만 남아 있다.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 말기의 대표적인 석탑으로 안정되고 경쾌한 모습을 띠고 있다. 고구려는 주로 목탑을 건설하여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불상으로는 고구려의 연가 7년명 금동 여래 입상, 백제의 서산 용현리 마애 여래 삼존상, 신라의 경주 배동 석조 여래 삼존 입상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인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어 푸근한 인상을 준다. 가야에도 인접한 백제나 신라를 통해 불교가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왕권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멸망하여 인상적인 불교 예술을 남기지 못하였다.

미륵사지 출토 사리호와 사리 봉영기 18차시

미륵사지 서탑 1층 해체 조사가 진행되던 2009년에 석탑 중앙에서 사리공이 발견되었다. 서기 639년에 백제 무왕의 왕후가 봉안한 그대로였다. 그 안에서 사리, 유리구슬, 사리호, 금제 사리 봉영기, 은제 관식, 청동 합 등 다양한 공양품이 출토되었다. 특히 사리 외호는 표면에 연꽃덩굴무늬와 연꽃잎무늬를 가득 음각하여 화려한 백제 공예 기술의 정수를 보여 주었다.

미륵사는 백제 무왕 때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 공주가 발원하여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륵사지 서탑 사리 봉영기에는 서탑이 백제 무왕의 왕후인 좌평 사택덕적의 딸이 발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3탑 3금당 식의 미륵사에서 가장 큰 중원은 선화 공주가 발원하고, 양쪽의 동원과 서원은 각기 다른 왕후들이 발원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의 고분 문화 18차시

고구려 초기부터 성행하였던 돌무지무덤은 후기에 굴식 돌방무덤에 밀려 퇴조하였다. 고구려의 수도가 있었던 환런[桓仁], 지안[集安], 평양(平壤) 일대에는 돌방 내부에 벽화를 그린 벽화 고분이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처음에는 고분 내부에 생활 풍속을 주로 그렸으나, 점차 연꽃무늬를 비롯한 장식 무늬와 청룡 · 백호 · 주작 · 현무의 사신도 위주로 변해 갔다.

백제의 고분 문화 18차시

한성 시대의 백제 고분은 둘레에 도랑을 두른 널무덤과 즙석식 돌무지무덤의 두 가지 양식이 유행하였다. 그 후 웅진 시대에는 중국 남조 계통의 벽돌무덤을 도입하였고, 사비 시대에는 굴식 돌방무덤을 조성하였으며 그 내부에는 사신도를 그린 것도 있었다.

신라의 고분 문화 18차시

신라의 고분은 원래 널무덤과 덧널무덤 계통이었으나, 4세기 후반에 거대한 돌무지 덧널무덤을 축조하면서 문화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 후 6세기 중엽 이후에는 고구려나 백제와 같이 굴식 돌방무덤으로 전환되었다.

가야의 고분 문화 18차시

전기 가야 시대의 고분은 주로 널무덤과 덧널무덤이었으나, 후기 가야 시대에는 재료를 돌로 바꾸고 규모를 키워 돌덧널무덤에 거대한 봉토를 씌우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6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백제의 영향을 받아 굴식 돌방무덤을 조성하였으며, 그 중에는 천정에 연꽃무늬를 그린 것도 있었다.

고구려의 음악과 무용 18차시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의 재상 왕산악이 중국 진의 칠현금을 보고 거문고를 만들어 100여 곡을 지어 연주하였더니 검은 학이 날아와 춤을 추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구려에서는 거문고 외에도 서역계 악기로 추정되는 오현 비파(五絃琵琶)와 피리, 요고(腰鼓, 장구) 등이 사용되었다.

2009년에는 경기도 연천 호로고루의 고구려 성에서 군대 행진이나 전투 신호에 쓰이는 큰북인 상고(相鼓)의 토제 실물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이로 보아 고구려는 중국계 및 서역계 악기들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여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백제의 음악과 무용 18차시

광주광역시 신창동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원전 1세기경의 현악기가 출토되었는데, 그 길이는 77cm이고 줄의 숫자는 10줄 내지 12줄이었다. 6세기경의 대전 월평동 유적에서는 여덟 줄을 사용하는 현악기의 머리 부분[羊耳頭]이 발견되었다. 백제 금동 대향로의 뚜껑 부위에는 현악기인 완함과 거문고, 관악기인 젓대와 배소, 타악기인 북의 다섯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이 부조되어 있어서 백제의 음악 생활을 보여 준다.

백제 궁중에서는 중국 남조 음악의 대표적 악기인 공후, 쟁, 우(竽), 지(篪), 적(笛) 등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남조와 음악적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7세기 초에는 백제 사람인 미마지(味摩之)가 중국 남조에서 배운 탈춤의 일종인 기악(伎樂)을 일본에 전하였는데, 이것이 일본 가면극의 기원이 되었다.

신라의 음악과 무용 18차시

신라 자비왕 때 백결 선생은 아내를 위하여 고유의 현악기로 방아 찧는 소리를 모방한 곡을 연주하였다고 한다. 5~6세기경의 토기들에는 가야금, 완함, 피리 등을 연주하는 토우들이 장식되기도 하였다.

가야의 음악과 무용 18차시

가야의 가실왕은 중국의 쟁을 개조하여 12줄을 쓰는 가야금을 만들었고, 대가야 악사인 우륵은 이를 가지고 12곡을 만들어 연주하였다. 그 중에 10곡은 가야 지방 향악임에 비하여, 2곡은 무용 반주곡인 기악이다. '보기(寶伎)'는 금색의 공을 가지고 노는 곡예에 쓰인 음악이고, '사자기(師子伎)'는 사자 가면을 쓰고 추는 춤에 쓰이는 음악으로서, 둘 다 중국 남조에서 들어와 정착한 것이다. 우륵은 대가야가 멸망하기 이전인 550년경에 가야금과 12곡을 신라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진흥왕은 이를 신라의 공식 음악으로 지정하였다.

기원전 1세기 한반도의 문자 생활 18차시

평양의 한 고분에서 발견된 기원전 1세기 중엽의 "논어" 목간과 낙랑군 호구 조사 목간으로 보아 한반도의 일부에서는 이미 유학을 배우고 한자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남 창원의 기원전 1세기 후반 널무덤에서 붓이 두 자루 출토되어 가야 지역 사람들이 문자를 사용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고구려의 유학과 역사서 18차시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인 372년에 태학을 건립하여 유학을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 광개토 대왕릉비(414)에는 1,775자의 한자가 예서체로 새겨져 있어 고구려 문자 생활을 잘 보여 준다. 고구려는 역사서도 편찬하였는데 국초에는 "유기" 100권이 있었고, 영양왕 때인 서기 600년에는 태학박사 이문진이 "신집" 5권을 편찬하였다.

백제의 유학과 역사서 18차시

백제는 4세기 후반 근초고왕 때 박사 고흥이 역사서인 "서기"를 편찬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일찍이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 한성 시대의 도성이었던 서울 풍납 토성에서는 흙으로 만든 벼루가 출토되고, 인천 계양산성에서는 "논어" 공야장 일부의 목간이 발견되어, 5세기 이전에 백제 사람들이 문자를 사용하고 유교를 학습하였음을 보여 준다. 6세기 무령왕과 성왕 때에는 오경박사들이 유학 교육을 담당하였다. 백제 말기의 대좌평이 쓴 사택지적비에는 늙어가는 것을 탄식하여 불교 사찰과 탑을 세운다는 내용을 세련된 문체로 적고 있다.

신라의 문자 생활과 역사서 18차시

1988년에 발견된 울진 봉평비(524), 1989년에 발견된 영일 냉수리비(503), 2009년에 발견된 포항 중성리비(502) 등으로 보아 신라에서는 6세기 초부터 한자가 일반 행정에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진흥왕 때 거칠부는 신라의 역사서인 "국사"를 편찬하였고, 당시의 경남 함안

성산산성에서는 누가 어디서 어떤 짐을 얼마만큼 보낸다는 내용이 적힌 짐 꼬리표 목간이 다량 출토되었다.

7세기 초 진평왕 때 승려인 원광 법사가 화랑들에게 유교 윤리가 포함된 세속 5계를 가르치고 중국의 수에 보내는 걸사표를 지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유학 교육이나 외교 문서 작성은 승려가 담당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임신서기석에서는 신라의 청년 두 사람이 3년 안에 "시경", "상서", "예기", "춘추"를 습득하기를 맹세하는 내용이 보인다.

가야의 역사서 18차시

신라에서 활약하던 금관가야의 후예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가야 왕들의 계보를 기록한 "개황록"을 편찬하였다. "삼국유사" 가락국기 조의 말미에는 거등왕부터 구형왕까지 계보가 소개되어 있고 "개황록"이 인용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거등왕이 "나라의 세조(世祖)가 금란(金卵)에서 나왔다고 하여 김을 성(金姓)으로 칭하였다."라는 기록과 구형왕이 "양 중대통 4년(532) 임자에 신라에게 항복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개황(開皇)"은 수 문제(文帝)의 연호이고 김유신이 개황 15년(595) 을묘에 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개황록"은 김유신과 관련하여 문무왕 대 전후에 편찬되었고, 그 내용에는 수로 신화를 비롯한 가락국 왕력이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개황록"의 편찬 시기를 수 개황 연간(581~600)인 신라 진평왕 때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고대 초기의 대외 교류 19차시

한국, 중국, 일본을 둘러싼 국가 차원의 교역은 위만 조선 때부터 시작되었으나, 위만 조선 멸망 이후 3세기 무렵까지 동북아시아의 교역은 중국이 한반도 북부에 설치한 군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북방의 부여와 고구려는 현도군을 통해, 남방의 삼한과 예는 낙랑군 및 대방군을 통해 중국과 교역하였다.

고구려는 현도군에 대한 공세를 펴면서도 조공 관계를 형성하여 한반도 북부와 중국 사이의 교역을 중계하였다. 한편 함경도 및 강원도 북부의 옥저와 동예는 고구려에게 정복되어 공납을 바치는 방식으로 교역 체계 속에 편입되었다.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삼한 소국의 수장들은 군현을 통해 중국과 조공 무역을 하거나, 김해의 가야국과 같이 유리한 해운 여건을 이용하여 외래 상인들과 시장 교역을 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의 청동 거울, 용기, 철제 고리자루 큰 칼, 낙랑의 비단과 칠기, 유리나 수정으로 만든 장신구, 진한과 변한의 철, 왜의 청동제 의기 등이 교역되었다.

중국 군현들은 선진 문물의 배분을 통해 한반도 내부의 통합을 견제하였으나, 차츰 이들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지닌 고구려와 백제가 교역 주체로 등장하였다. 특히 3세기 후반에 신라가 내륙 교통로를 개척하여 새로운 교역 주체로 등장하자, 원래의 교역 거점을 차지하였던 가야도 신라와 영역을 다투며 권력 통합을 추구하였다. 그리하여 중국 군현이 소멸되는 4세기에 동아시아의 교역은 다원적인 체제로 재편되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4개 지역 중심이 나타났다.

고구려의 대외 교류 19차시

4세기 이후 중국 군현의 방해가 사라지자 고구려는 요동 및 한반도 서북 지역의 중국계 이주민을 흡수하고 중국의 남북조와 직접 교역하여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고구려는 중국 북부의 전연, 전진 및 남조의 동진, 송 등에서 금속 장식 허리띠, 마구, 자루솥, 청자 등의 선진 문물과 불상, 불경, 태학, 율령과 같은 고급 정신문화를 도입하였다. 고구려는 중앙아시아와도 교류하여 횡적(橫笛)과 요고(腰鼓) 등 서역 계통의 관악기와 타악기를 받아들였다. 지안의 각저총 벽화나 우즈베키스탄의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에서도 고구려가 중앙아시아와 교류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고구려는 중앙아시아와 동북 만주 일대의 주변 민족에게 철제 생활 도구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담비를 비롯한 모피나 천연 보석류를 받아 중국에 중계 교역하거나 자신들이 생산한 은이나 말을 중국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5~6세기에 동아시아 북부의 중추적 중계 교역자 겸 생산자로서 중국의 남북조 및 주변 민족들을 조율해 나갔다.

백제의 대외 교류 19차시

백제는 중국 군현의 방해가 사라지자 한반도 서북 지역의 낙랑 및 대방계 이주민을 흡수하고 중국의 남조와 직접 교역하여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백제는 4~5세기에 주로 중국 남조와 교역하여 서진, 동진, 송에서 귀족들의 수요품인 고급 도자기 등을 수입하였고, 5~6세기에는 송, 양에서 각종 서적, 박사, 기술자 등을 받아들이는 등 국가 제도 정비를 위한 고급 정신문화 수입에 주력하였다. 백제는 교역의 대가로 중국에 주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백제는 남중국에서 수입한 문물을 바탕으로 신라, 가야 및 왜에 대한 국제 교역망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특히 백제는 6세기 중엽 이후 왜의 요청에 따라 오경박사, 불상, 경론, 화공, 건축가를 비롯한 각종 기술자 등을 일본에 보냄으로써 나라 지방의 아스카 문화 성립에 이바지하였다.

신라의 대외 교류 19차시

4세기 무렵의 신라는 아직 제도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 통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과 직접 교역하기보다는 고구려를 통한 제한적인 교역에 머무르고 있었다. 4~5세기경 신라는 고구려를 통하여 중국의 자루솥과 고급 도자기, 각종 청동 용기, 금 세공술, 중앙아시아의 자작나무 껍질 관모, 페르시아 유리 용기, 칠보 장식 보검, 옥 상감 금팔찌 등을 수입하고, 고구려의 청동 호우, 은합 등도 들여왔다.

6세기 이후에 신라는 중국과의 직접 교섭에 나서 양, 북제, 진, 수 등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여 토산물을 보내고 불경과 같은 고급 정신문화의 수입을 도모하였다.

가야의 대외 교류 19차시

4세기 무렵의 가야는 아직 제도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 통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과 직접 교역하기보다는 백제와 제한적인 교역을 하였고, 왜는 가야와 2차적인 교역을 하였다. 가야는 3세기 무렵까지 한반도 남부에서 가장 활발한 중계 교역자였으나, 낙랑군이 약화된 이후에는 서북한 지역과의 교역이 감소하고 일본 열도와의 교류가 빈번해졌다. 가야는 왜에 철과 선진 문물을 공급하였으며, 왜는 그 대가로 노동력이나 군사력을 가야에 제공하였다.

5세기부터 6세기 전반까지 후기 가야는 백제와 왜 사이에서 중계 교역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야의 선진 기술과 장신구 등이 일본 열도로 건너갔다. 그리하여 5~6세기 일본 열도 각 지역의 대형 고분들에서는 대가야 계통의 금동관, 금 귀걸이, 말 재갈, 말 띠 드리개, 말머리 가리개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경북 고령에서는 오키나와산 야광패로 만든 국자와 왜계 청동 거울 등이 출토되었다.

삼국과 가야 문화의 일본 전파 19차시

삼국과 가야의 문화는 일본 열도에 전파되어 일본 고대 문화의 성립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반도 문화의 일본 전파는 국가나 지방 세력 사이의 교역과 원조를 통해 이루지기도 하였지만, 피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이주한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가야는 해로 교통이 편리한 지형적 요인에 힘입어 왜와 밀접하게 교류하였다. 왜는 5세기 후반까지 철을 자체 생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야에서 납작 도끼나 덩이쇠와 같은 철 소재를 수입하여 철기를 생산하였다. 또한 왜는 도질토기인 스에키, 마구, 철제 갑옷과 그 제작 기술 등도 가야에서 전수받아 일본 고대 문명을 성립시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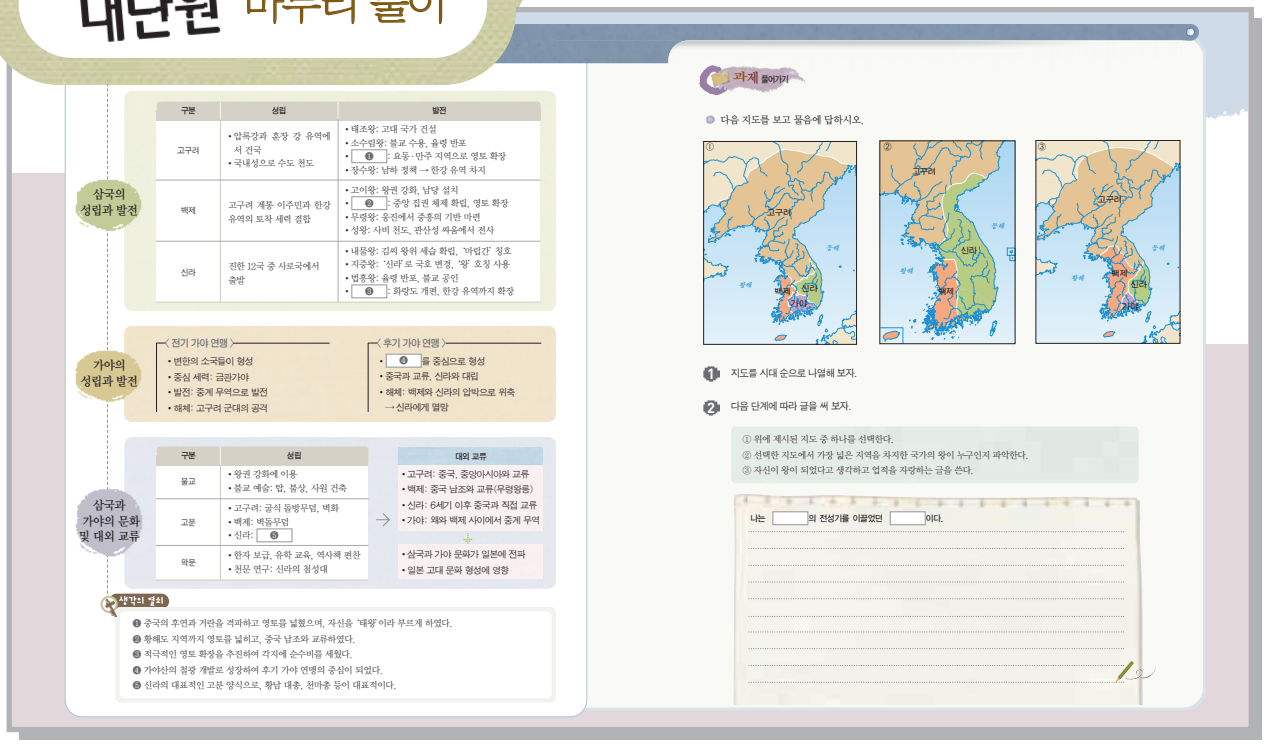
일본 고대 문화의 물질적 측면이 가야와의 교류 및 가야의 기술자 원조로 형성되었다면, 고급 정신문화는 백제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주로 6세기 이후 백제는 오경박사, 승려 등을 일본에 파견함으로써, 국가 제도 정비에 필요한 한자, 유학, 불교, 역법 등을 전하였으며, 건축, 공예, 미술 분야의 기술자도 파견하였다.

고구려도 7세기에 종이와 먹의 제조 방법, 백제와 다른 계통의 불교 등을 전파하여 일본 고대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

신라와 일본의 문화 교류가 적었지만, 일본의 국보인 고류 사의 목제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신라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과 외형이 거의 같아서 신라가 보내 준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삼국과 가야의 문화는 일본 고대 문화 형성에 물질적, 정신적 측면에서 장기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대단원 마무리 풀이



내용 확인하기

❶ 광개토 대왕

✚ 신라에 군대를 파견하여 왜군을 몰아냈다.

❷ 근초고왕

✚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❸ 진흥왕

✚ 흥륜사와 황룡사를 완공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하였다.

❹ 대가야

✚ 중국 남조의 제와 교류하였고, 신라에 구원군을 보냈다.

❺ 돌무지덧널무덤

✚ 지하에 구덩이를 파거나 지상에 목곽을 짜 놓고 돌무더기를 덮은 후 그 위를 흙으로 입혀 다진 무덤이다.

과제 풀어가기

1. ③ – ① – ②

| 지도 요령 |

2. ① 5세기 고구려 전성기의 지도로 광개토 대왕, 장수왕 무렵에 해당함을 파악하고, 고구려 대외 정복 과정과 두 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지도한다.
② 신라의 전성기를 이룩한 6세기 진흥왕 때의 지도이다. 진흥왕의 국내 체제 정비 과정과 영토 확장을 서술하도록 지도한다.
③ 백제가 역사상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한 4세기 무렵의 지도이다. 근초고왕의 중압 집권 체제 확립과 영토 확장을 서술하도록 지도한다.

| 예시 답안 | ② 진흥왕 때의 지도로 글 작성

나는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이다. 나는 왕위에 있으면서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하도록 하였고, 국가 차원의 사찰인 흥륜사를 완공하였으며, 삼국 통일의 원동력이 되는 화랑도를 정비하였다.

나는 고구려의 변경을 침략하여, 충주와 단양 등 남한강 변에 있는 10개 군을 차지하였고, 관산성 전투에서 승리하여 한반도 중부를 점령하였다. 555년에는 가야 연맹에 속해 있던 경상남도 창녕을 차지하고, 이듬해에는 함경남도까지 영역을 넓혔다. 이어 고령의 대가야를 멸망시켜 가야의 영토를 완전히 우리 신라에 편입시켰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신라는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였다.

대단원 짚고 가기

01 다음은 고구려의 발전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가) 옥저와 동예를 복속하였다.
> (나) 태학을 세우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 (다) 부자 상속의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다.
> (라) 계루부를 중심으로 5부를 연합하였다.
> (마) 서안평을 점령하고, 낙랑군을 몰아냈다.

① (가) – (나) – (다) – (라) – (마)
② (나) – (가) – (다) – (마) – (라)
③ (나) – (가) – (마) – (라) – (다)
④ (라) – (나) – (마) – (가) – (다)
⑤ (라) – (가) – (다) – (마) – (나)

02 다음 비석과 관련된 왕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①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겼다.
② 왕위 부자 세습을 확립하였다.
③ 신라를 도와 왜를 격퇴하였다.
④ 백제의 웅진을 공격하여 차지하였다
⑤ 영토가 아산만에서 소백산맥에 이르렀다.

03 다음 두 고분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백제와 고구려는 지배층이 동일하다.
② 백제와 고구려는 서로 관련성이 없다.
③ 백제에서 고구려로 문물이 전달되었다.
④ 백제는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이 건국하였다.
⑤ 고구려와 백제는 신라의 고분 양식을 계승하였다.

04 다음은 백제의 전성기를 나타낸 지도이다. 이 시기 백제의 왕은?



① 무령왕
② 고이왕
③ 온조왕
④ 침류왕
⑤ 근초고왕

05 다음 지도에서 ㉠에서 ㉡으로 천도한 백제 왕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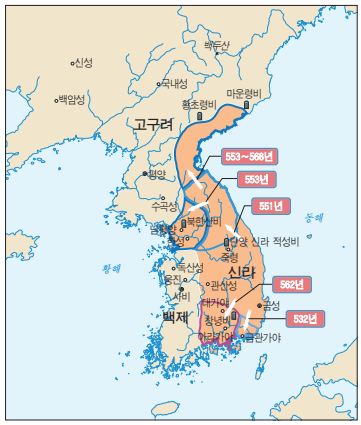


① 신라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②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③ 부여 계승을 표방하여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④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를 물리치고 중흥의 꿈을 이루었다.
⑤ 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06 다음 기록과 관련 있는 신라의 왕을 쓰시오.

> 이사부가 우산국(지금의 울릉도)을 정복하러 갔는데,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사람들도 사나웠다. 그래서 그는 꾀를 내어 나무로 만든 사자를 앞세워 "만약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 모두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우산국 사람들이 두려워 항복하였다.

07 신라가 다음 지도와 같이 팽창했던 시기에 발생한 일은?



① 율령 반포
② 우산국 정복
③ 화랑도 개편
④ 금관가야 정복
⑤ 김씨 왕위 세습

08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삼국의 예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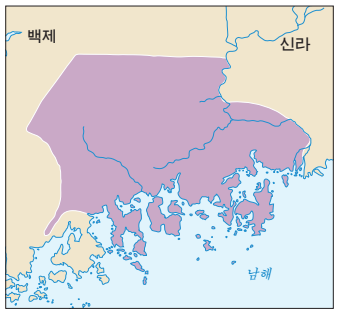
> 삼국은 초기에 5부 또는 6부의 대표가 모여 나라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였다. 이것은 삼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한 후 귀족들이 모여 나라 일을 의논하는 회의 기구가 되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
①	제가 회의	정사암 회의	화백 회의
②	제가 회의	화백 회의	정사암 회의
③	화백 회의	정사암 회의	제가 회의
④	정사암 회의	화백 회의	제가 회의
⑤	정사암 회의	제가 회의	화백 회의

09 다음 건국 이야기와 관련된 국가를 쓰시오.

> 42년, 김해 구지봉에서 아홉 마을의 촌장과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었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윽고 하늘에서 자주색 줄이 땅에 드리워져 닿았고 붉은 보자기 안의 금 상자에 황금알 여섯 개가 있었다.

10 다음 지도에 나타난 영역을 차지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러 소국이 연합한 연맹 왕국이었다.
② 6세기 신라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다.
③ 철의 생산과 교역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④ 중국 남조의 제와 교류하고, 신라에 구원군을 보냈다.
⑤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은 고구려 군대의 공격을 받았다.

11 다음은 삼국 시대에 수용한 어떤 종교에 대해 정리한 표이다. 이 종교와 관련 없는 문화유산은?

전래	• 고구려: 소수림왕 때 전진으로부터 • 백제: 침류왕 때 동진으로부터 • 신라: 법흥왕 때 이차돈의 순교로 공인
수용 목적	• 왕권 강화 • 백성의 사상 통일

① 백제 금동 대향로
② 익산 미륵사지 석탑
③ 황룡사 9층 목탑
④ 서산 마애 여래 삼존상
⑤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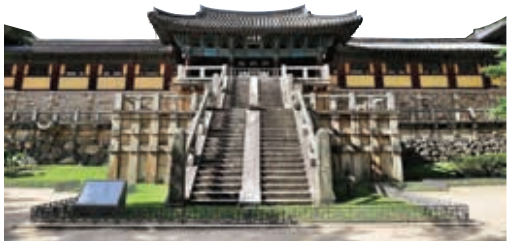
정답

01 ⑤ 02 ③ 03 ④ 04 ⑤ 05 ③ 06 지증왕 07 ③ 08 ① 09 가야 10 ⑤ 11 ①

Ⅲ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1 단원의 개관

이 단원에서는 고구려가 외부의 침략을 막아 내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사실을 다룬다. 통일 후 신라에서는 새로운 통치 체제가 정비되고 민족 문화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고구려의 옛 땅에는 발해가 건국되어 영토 확장을 이루며 성장하였다. 9세기 후반에 이르러 통일 신라의 정치 질서가 흔들리고 농민이 봉기하는 가운데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건국되어 후삼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 경주 불국사(경북 경주)

01. 고구려의 대외 전쟁에서는 고구려가 중국을 통일한 수와 당의 침략을 물리치고 한반도를 수호한 사실을 파악한다. 제국을 건설한 수와 당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고구려를 침략하였으나, 고구려가 이를 물리쳤음을 이해하면서 당시 활약하였던 주요 인물을 살펴본다.

02. 신라의 삼국 통일에서는 신라가 당과 연합하여 삼국을 통일한 과정을 파악하고,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이 일으킨 부흥 운동을 살펴본다. 신라가 이룩한 삼국 통일의 의의와 한계를 파악하고 가치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한다.

03. 통일 신라의 발전에서는 통일 이후 왕권이 확립되고 중앙 정치 기구와 각종 제도가 새롭게 정비되었음을 알아본다. 그리고 통일 이후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바탕으로 대외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었음을 파악한다.

04. 통일 신라의 문화에서는 국가의 유교 진흥 정책에 따른 유학의 발달 및 불교 사상의 발달과 대중화 경향을 파악한다. 특히 당시를 대표하는 승려에 대해 탐구하고,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건축물과 공예품 등 각종 문화재를 살펴본다.

05. 발해의 성립과 발전에서는 여러 사료와 유물을 통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파악한다. 또한 발해가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대외 교류 내용을 살펴본다.

06. 신라 말의 사회 혼란과 후삼국의 성립에서는 신라 말에 정치 기강이 무너지고 중앙 정계가 혼란해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일어난 반란을 살펴본다. 신라 말 사회 변동을 주도한 새로운 세력과 사상을 파악하고 후삼국 시대의 성립 과정을 이해한다.

2 단원의 목표

지식 · 이해	• 고구려와 신라가 외부 세력을 물리친 전쟁의 전개와 그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 통일 신라와 발해의 통치 체제와 발전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 통일 신라와 발해가 주변 국가와 활발히 교류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기능	• 삼국이 통일되는 과정을 역사적 사건의 흐름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 • 유물과 유적을 보고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추론할 수 있다. • 신라 말에 등장한 새로운 세력과 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가치 · 태도	• 신라의 삼국 통일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판단하는 태도를 기른다. •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건국의 역사적 의의를 깨닫는다. • 고대 사람들이 남긴 유적을 이해하고 보존하는 정신을 갖도록 한다.

3 단원의 구조와 지도 계획

차시	중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
20	01. 고구려의 대외 전쟁	1. 고구려와 수의 전쟁	수의 등장, 수 양제, 을지문덕, 살수 대첩
		2. 고구려와 당의 전쟁	당 태종, 천리 장성, 연개소문, 안시성 전투
21	02. 신라의 삼국 통일	1.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나 · 당 동맹, 계백, 황산벌 전투,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2. 부흥 운동과 나 · 당 전쟁	복신 · 도침, 부여풍, 흑치상지, 백강구 전투, 안승, 고연무,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22	03. 통일 신라의 발전	1. 통일 국가의 체제 정비	태종 무열왕, 신문왕, 김흠돌의 반란, 만파식적, 집사부, 9주 5소경, 9서당 10정, 녹읍, 정전
23		2. 통일 신라의 활발한 대외 교류	신라방, 신라관, 신라원, 신라소, 울산항, 혜초, 왕오천축국전, 장보고
24	04. 통일 신라의 문화	1. 사상의 발달	강수, 설총, 국학, 독서삼품과, 원효, 의상, 불교의 대중화
25		2. 예술의 발달	불국사, 석굴암 석굴, 성덕 대왕 신종, 무구정광대다라니경, 향가
26	05. 발해의 성립과 발전	1. 발해의 성립과 영토 확장	대조영, 무왕, 문왕, 선왕, 해동성국, 발해의 3성 6부
27		2. 발해의 문화와 대외 관계	발해의 고구려 계승 의식, 정혜 공주 무덤, 모줄임천장, 발해 5도, 발해관
28	06. 신라 말의 사회 혼란과 후삼국의 성립	1. 신라 말의 사회 혼란	신라 말 왕위 쟁탈전, 김헌창의 난, 원종과 애노, 최치원
29		2. 새로운 세력의 등장과 후삼국의 성립	호족 세력, 6두품, 선종, 풍수지리설, 견훤, 후백제, 궁예, 후고구려

4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 삼국과 수 · 당의 관계를 이해하여 외교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통일을 이룬 신라가 옛 삼국을 융합하려고 시도하였음을 정책을 통해 파악하게 한다.
- 고구려가 멸망한 후 고구려 유민들의 동향을 다루고,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스스로 탐구하도록 지도한다.
- 다양한 시청각 자료나 체험을 통해 고대 문화 유적을 살펴보게 한다.

5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001.
- "살아있는 한국사 1", 휴머니스트, 2003.
- 고구려연구재단, "다시 보는 고구려사", 2004.
- 고구려연구재단, "새롭게 본 발해사", 2005.
- 변태섭, "한국사통론", 삼영사, 2007.
- 이현희, "이야기 한국사", 청아출판사, 2006.
- "한국 생활사 박물관", 사계절, 2003.
- 국사 편찬 위원회 http://db.history.go.kr/
- 한국 금석문 종합 영상 정보 시스템 http://gsm.nricp.go.kr/

Ⅲ.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01 고구려의 대외 전쟁

학습 목표

- 수의 등장으로 나타난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 고구려가 수를 물리친 과정과 관련 인물을 설명할 수 있다.
- 당의 등장 이후 동아시아 정세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 고구려의 대외 전쟁 배경과 역사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20	**1. 고구려와 수의 전쟁 ~ 2. 고구려와 당의 전쟁**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수의 왕박이 지은 시가 의미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수가 중국을 통일한 이후 동아시아에서 신라와 수의 동서 세력과 고구려, 백제, 왜가 연결된 남북 세력이 대립하는 국제 정세가 형성되었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78쪽 지도
	•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략한 배경과 과정을 지도를 통하여 파악하게 한다.		79쪽 지도
	• 살수 대첩의 내용과 이를 승리로 이끈 을지문덕과 건무의 활약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 당이 중국을 재통일하고 고구려가 이에 대응하여 천리 장성을 축조하였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 당 태종의 침입과 고구려가 안시성 전투에서 당을 물리친 과정을 파악하게 한다.		80쪽 지도
	• 고구려가 수와 당의 침입을 물리칠 수 있었던 요인을 정리하고, 이 전쟁의 의의와 영향을 분석하게 한다.	탐구식	81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친 고구려의 장수는?		
	2. 당의 공격을 끝까지 버티고 막아 낸 고구려의 성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고구려와 수의 전쟁

(1) 동아시아에 형성된 새로운 진영

① 6세기 말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

- 중국: 수의 통일과 세력 확대 → 고구려 압박

• 한반도: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으로 신라 고립

② **동아시아의 긴장과 대립**: 동서 세력(신라–수 연합)과 남북 세력(고구려–백제–왜 연합) 대립

(2) **수의 공격과 살수 대첩**

① **수 문제의 침략**: 고구려의 요서 지방 공격 → 수의 고구려 침략 실패

② **수양제의 침략**

• 수의 요동성 공격, 별동대와 수군의 평양성 공격

• 살수 대첩: 을지문덕과 건무의 수 침입 격퇴(612)

2. 고구려와 당의 전쟁

(1) **당 건국과 고구려의 대응**

① **중국의 정세 변화**: 수 멸망, 당의 중국 재통일 → 당 태종이 주변 국가 공격

② **고구려의 대응**: 천리 장성 축조, 연개소문의 강경책

(2) **당의 침략과 안시성**

① **당 태종의 침입**: 연개소문의 정변을 구실로 고구려 침입 → 요동성, 백암성 등 함락

② **안시성 전투**: 약 90일간 당의 침입 저지, 고구려 승리(645)

(3) **고구려 승리의 의미**

① **의의**

•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 바꾸어 놓는 계기 마련

•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민족 보호

② **승리의 원동력**: 뛰어난 제철 기술, 견고한 방어 체제, 백성들의 저항 의식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78쪽

제시된 시는 '무향요동랑사가(無向遼東浪死歌)'로 사마광의 "자치통감"에 실려 있다. 수양제의 잦은 대외 침략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수의 백성 사이에서는 고구려 침략을 한탄하는 왕박의 시가 널리 퍼졌다.

생각 열기 ▶▶▶ 교과서 80쪽

고구려는 강력한 무기와 철갑을 생산하여 우수한 장비를 갖출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를 양성하여 국방력을 강화하였으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81쪽

1. (1) 을지문덕, (2) 연개소문
2. (1) 천리 장성, (2) 안시성

깊이 있는 역사 ▶▶▶ 교과서 82쪽

1. 고구려는 성문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옹성(甕城)을 설치하였다. 옹성은 성에 접근하는 적을 퇴치하기 위해 성벽을 이중으로 쌓는 것을 말한다. 옹성은 성문 밖을 ⊂형이나 반원형으로 감싸거나, 성안으로 네모나게 오므라지게 하는 등 현지 지형에 맞게 여러 특징과 모양으로 설치하였다.

내용 더하기

돌궐 20차시

수·당 시대에 세력을 떨친 북방 유목 민족이다. 522년 중국 북쪽을 지배하던 유연을 멸망시키고 중앙아시아에서 만주 지역에 이르는 대제국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돌궐은 583년 동서로 분열하였는데, 이때 수는 서돌궐이 동돌궐을 공격하도록 부추겨 동돌궐을 굴복시켰다.

수가 멸망하고 당이 건국될 무렵 다시 세력을 회복하였으나, 내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에 당은 내분을 부추겨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하여 돌궐을 지배하였다.

수의 고구려 침략과 살수 대첩 20차시

수가 남북조로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통일하고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과정에서 고구려와 충돌이 일어났다. 598년 고구려의 영양왕은 수의 침입을 미리 막고 전략상 유리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요서 지방을 선제공격하였다. 그러자 그해 수 문제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입하였다. 고구려는 이를 잘 막아 냈고, 수의 군사는 풍랑, 전염병, 식량 문제 등으로 퇴각하였다.

612년에는 수양제가 113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그러나 요동성에서 고구려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이곳을 점령하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이에 양제는 우중문과 우문술에게 따로 별동대를 주어 평양성을 직접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때 을지문덕이 수의 별동대에 거짓 항복을 하였다가 풀려났는데, 이는 수군의 상황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을지문덕은 수의 군사들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수의 군사들을 더욱 지치게 만들고자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이들을 고구려 영토 깊숙이 유인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수의 군대가 하루에 일곱 번 싸워 모두 이기자 승리감에 도취되어 계속 진격하였다." 라고 한다.

우중문은 평양성만 점령하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여기고 계속 전진하여 살수를 건너 평양성 부근 30리쯤 되는 곳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러나 이미 고구려가 청야 수성 전술을 전개하여 평양 인근에서 전혀 식량을 구할 수 없었다. 이때 을지문덕이 사절을 파견하여 오언시 한 편을 보냈다.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꿰뚫었고	神策究天文
기묘한 계책은 땅의 이치를 통달하였도다.	妙算窮地理
싸움에 이겨 이미 공이 높으니	戰勝功旣高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知足願云止

우중문은 이를 통해 을지문덕의 계략을 파악하였고, 병사들도 이미 지치고 굶주려 성을 공격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결국 수의 군대는 퇴각하였고 이들이 살수를 건널 때 고구려군은 총공격을 감행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최종적으로 요동성 주변에 위치한 본대로 돌아간 수나라 별동대는 겨우 2,700명에 불과하였다. 막대한 손실을 입은 수는 결국 요동성 공격을 중단하고 모두 퇴각하였다.

이후에도 수양제는 고구려를 다시 침입하였지만 병사들의 사기는 크게 꺾이었고, 고구려는 거듭된 수의 공격을 잘 막아 냈다.

수의 멸망 20차시

수양제는 수 문제의 사회 안정 정책에 따른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토목 사업과 대외 원정을 전개하였다. 양제는 강남의 경제력을 화북 지역으로 수송하여 경제적인 중앙 집권을 이룩하고 대운하를 건설하였다. 또한 북쪽 변방을 위협하는 돌궐과 고구려에 대응하고자 대외 원정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고구려 원정이 모두 실패하면서 수의 권위는 크게 실추되었고, 전쟁 비용에 따른 경제적 파탄이 초래되어 민심이 극도로 피폐해졌다. 더불어 대운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농민을 동원하여 백성의 불만도 매우 높았다. 결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수는 건국한 지 38년 만에 멸망하였다.

청야 수성(淸野守城) 전술 20차시

청야 수성 전술은 고구려의 전통적인 방어 전술로서, 주요 성들을 굳게 지키고 적군의 진격을 저지하면서 적군이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작전이다. 침략군이 공격해 오면 고구려 주민들은 식량을 성안으로 모두 옮기고 남은 곡식을 불사른 뒤 우물도 메워 적군이 식량과 물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돌로 튼튼하게 쌓은 산성으로 대피하여 적군에 대항하였다. 따라서 고구려를 공격하는 외적은 모든 보급품을 스스로 확보해야만 했다. 수와 당은 성을 중심으로 방어전을 전개하는 고구려의 작전에 맞서 다양한 공성 무기를 동원하기도 하였다.

천리 장성 축조 20차시

> 왕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장성을 쌓았는데, 동북은 부여성에서 동남은 바다에 이르기까지 천여 리였다. 무릇 16년 만에 공사를 마쳤다. - "삼국사기"

당이 세계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심을 보이자 고구려는 서북 지방의 방어를 위해 천리 장성을 축조하였다.

영류왕 14년(631)에 당은 사신을 보내 고구려가 수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요서 지역에 세운 경관(京觀: 전사자의 유해를 한곳에 모아 장사 지내고 세운 합동 무덤 형식의 전승 기념탑)을 헐어 버리도록 하였다. 이 사건은 고구려를 자극하여 당에 대한 깊은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고구려는 당의 팽창 정책에 대비하여 부여성에서 요동 반도 남단 비사성에 이르는 천리 장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천리 장성은 변경 지역의 성곽들을 연결시켜 놓은 토성의 형태로 건설되어, 주요 방어 거점인 성곽을 연결하는 보조 시설의 역할을 하였다.

당시 천리 장성의 건설을 감독한 연개소문은 공사를 감독하면서 요동 지방의 군사력을 장악하며 세력을 키웠다. 이에 영류왕과 여러 대신들이 연개소문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연개소문은 군사를 이끌고 평양으로 들

어가 영류왕을 비롯한 자신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보장왕을 왕으로 세웠다(642). 그는 스스로 대막리지가 되어 권력을 장악하고 천리 장성을 완성하였으며(647), 당에 대한 강경책을 고수하였다.

안시성 전투 20차시



▲ 안시성 전투(민족 기록화)

안시성은 그 위치에 관해 의견이 분분하나 중국 랴오닝성 하이청 시[海城市] 동남쪽에 있는 영성자산성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가장 유력하다. 안시성은 랴오허 강 유역에 설치한 고구려의 방어성들 가운데 요동성에 버금가는 전략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신성과 건안성의 중간에 위치하여 개모성, 요동성, 백암성, 비사성 등이 일시에 함락된다면 안시성의 방어는 요동 지방의 여러 성들의 방어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삼국사기"에는 안시성 전투에 관한 기록이 있다. 645년 당 태종이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해 와서 개모성, 요동성, 백암성 등 주요 성들을 함락하였다. 이때 당의 진영에서는 건안성 공격을 앞두고 많은 의견이 오고갔는데, 총사령관 이세적의 주장에 따라 건안성보다 안시성을 먼저 점령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안시성 사람들은 당의 침입에 적극적으로 맞서며 성을 지켰다. 안시성 군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당군은 성의 동남쪽에 높은 토산을 쌓아 이를 발판으로 안시성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다. 당은 연인원 50만 명을 동원하여 60일 동안 밤낮으로 토산을 쌓았다. 토산이 완성되자, 이 토산의 꼭대기가 성보다 높게 되어 밖에서는 성안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당은 일부 군사들을 산꼭대기에 주둔시켜 토산을 지키게 하였다. 그러던 중에 산이 폭우로 허물어지면서 성을 덮치는 바람에 성의 일부가 무너졌다. 토산이 무너지자 안시성의 군사 수백 명이 성이 허물어진 곳으로 나가 싸워서 마침내 토산을 탈취하여 그곳에 참호를 파고 수비하였다. 이에 당 태종은 여러 장수에게 공격을 명하였으나 3일이 지나도 이기지 못하였다. 당 태종은 요동이 일찍 추워져 풀이 마르고 물이 얼어 군사와 말이 오래 머무를 수 없으며 군량 또한 떨어질 것이라 판단하고 결국 군대를 철수하였다.

태종이 퇴각할 때 안시성의 성주가 성에 올라 하직 인사를 하자, 태종은 그가 굳게 성을 지킨 것을 칭찬하고 비단 1백 필을 주면서 임금 섬기는 일을 격려하였다.

개마 무사 20차시

개마 무사(鎧馬武士)는 고구려, 가야 등의 고대 한반도 국가에 존재했던 중장 기병이다. 이들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말까지 모두 강철 갑옷으로 무장하였다. 개마 무사는 5미터가 넘는 창을 어깨와 겨드랑이에 밀착하고 주로 적진을 돌파하는 돌격대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말과 기사의 갑옷에 말이 달리는 탄력까지 더해져 적들에게 공포와 위협의 상징이 되었다.

말과 사람을 위한 갑옷을 강철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고구려가 개마 무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고도로 발달한 제철 기술과 풍부한 철광석 산지인 요동 지역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고구려 개마 무사(삼실총, 중국 지린 성 지안)

Ⅲ.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02 신라의 삼국 통일

학습 목표

- 신라가 당과 연합하게 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신라가 한반도에서 당을 몰아낸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신라의 삼국 통일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21	**1.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 2. 부흥 운동과 나 · 당 전쟁**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이 계속되자 당으로 건너가 동맹을 추진한 사람은 누구일까?	문답식	
	[전개]		
	• 백제와 고구려의 압박으로 위기에 처한 신라가 당과 동맹을 맺은 과정을 파악하게 한다.	강의식	
	• 백제의 멸망 배경과 그 과정 및 황산벌 전투의 내용을 설명한다.		84쪽 자료
	• 고구려의 멸망 원인이 계속된 전쟁에 따른 국력 약화와 내부 분열이었음을 파악하고, 고구려 멸망 과정을 설명한다.		
	• 백제 부흥 운동의 전개 과정과 백강구 전투의 의의를 국제 정세와 관련하여 정리하게 한다.		85쪽 자료
	• 고구려가 멸망한 후 그 유민들이 전개한 부흥 운동의 내용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85쪽 지도
	• 나 · 당 전쟁의 전개 과정과 결과를 설명한다.	강의식	86쪽 지도
	• 신라가 주도한 삼국 통일의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하게 한다.	토론식	87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황산벌에서 신라 김유신의 군대와 맞서 항전을 벌인 백제의 장군은?		
	2. 삼국 통일 과정에서 일어난 나 · 당 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표적인 두 전투는?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1) **나 · 당 동맹**

① **신라의 위기**: 백제 의자왕의 신라 공격 → 대야성 등 40여 성 함락

② 김춘추의 외교 활동
- 대고구려 외교: 군사적 도움 요청 → 신라 죽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며 요청 거부
- 대당 외교: 동맹 추진, 당 태종이 대동강 이북의 영토를 얻는 조건으로 신라의 요구 수락 → 나 · 당 동맹 결성

(2) 백제의 멸망
① 배경: 내부의 정치적 분열, 군사력 분산
② 과정: 나 · 당 연합군의 백제 공격 → 계백의 황산벌 항전 → 사비성 함락, 멸망(660)

(3) 고구려의 멸망
① 배경: 잦은 전쟁으로 국력 소모, 연개소문이 죽은 후 지배층의 분열로 체제 약화
② 과정: 당이 요동의 성 함락 → 나 · 당 연합군의 평양성 함락 → 고구려 멸망(668)

2. 부흥 운동과 나 · 당 전쟁

(1) 백제 부흥 운동
① 전개: 복신 · 도침, 부여풍(주류성), 흑치상지(임존성) → 큰 규모로 확대
② 결과: 지도층 분열, 백강구 전투에서 백제와 왜 연합군 패배로 실패

(2) 고구려 부흥 운동
① 전개: 검모잠(한성), 안승(금마저), 고연무(오골성)
② 결과: 지도층 분열로 실패 → 유민들이 신라에 흡수되거나 발해의 주민이 됨.

(3) 나 · 당 전쟁
① 배경: 당의 한반도 지배 야욕 → 백제, 고구려, 신라의 옛 땅에 도독부, 도호부 설치
② 전개: 매소성(675) · 기벌포 전투(676) → 통일 완성

(4) 삼국 통일의 의의와 한계
① 의의: 자주 의식 표출, 삼국을 한 민족으로 통합하는 계기 마련, 민족 문화 형성의 발판 마련, 오랜 전쟁의 종식
② 한계: 외세인 당을 끌어들임, 영토가 대동강 이남에 그침.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83쪽

"삼국유사"에 따르면 백제가 멸망하게 되자 여러 궁녀들이 서로를 이끌고 부여성 북쪽 모퉁이에 있는 큰 바위에 와서 강으로 뛰어내려 죽었으므로 이 바위를 '떨어져 죽은 바위'란 뜻의 타사암(墮死巖)이라 하였다고 한다.

생각 열기 ▶▶▶ 교과서 85쪽

나 · 당 동맹이 결성될 당시 당 태종은 대동강 이북의 땅을 얻는 조건으로 신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웅진 도독부, 계림 도독부, 안동 도호부 등을 설치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이에 신라는 당에 맞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87쪽

예시 답안

- 김부식의 입장: 신라의 삼국 통일은 전쟁으로 시달리는 백성들의 고통을 없애고 평화를 가져온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당을 물리쳐 외세의 개입을 배제하였으며, 고구려의 옛 땅에는 이후 발해가 건국되어 삼국 통일의 불완전함이 보완되었다.
- 신채호의 입장: 신라는 다른 민족의 도움을 받아 같은 민족을 멸망시킨 것이며 당의 한반도 지배 야욕에 빌미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옛 땅을 잃어버리고 백제를 정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정한 통일이라고 볼 수 없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87쪽

1. (1) ㉡, (2) ㉠, (3) ㉣, (4) ㉢
2. (1) 고구려, (2) 매소성, 기벌포
3. ㉡ – ㉠ – ㉢ – ㉣

내용 더하기

❀ 김춘추 21차시

김춘추는 진지왕의 손자이자 이찬 김용춘의 아들로, 진지왕이 즉위 4년 만에 쫓겨나 그의 아들 김용춘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다.



▲ 김춘추(604~661)

642년 백제의 의자왕은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는데, 이때 김춘추는 딸과 사위를 잃어 백제에 대한 원한이 깊어졌다. 백제의 계속된 공격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김춘추는 고구려에 가서 백제를 함께 공격하자고 제안하며 군사를 청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는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김춘추를 잡아 가두었고 김춘추는 가까스로 탈출하여 돌아왔다.

김춘추는 비담의 난을 진압하면서 진덕 여왕을 왕위에 오르게 하고 정계의 실세로 부상하였다. 이후 648년에는 당으로 건너가 나 · 당 동맹을 맺었다.

654년에 진덕 여왕이 죽자 김춘추는 김유신 등의 추대를 받아 진골 신분의 불리함을 딛고 신라 제29대 왕으로 즉위하였으며, 660년에는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661년 그가 세상을 떠나자 시호를 무열, 묘호를 '태종(太宗)'이라 하였다.

낙화암(落花巖) 21차시

낙화암은 부여 부소산의 백마강변에 있는 바위 절벽이다. 낙화암의 원래 명칭은 왕포암(王浦巖)이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부여성 북쪽 모퉁이에 큰 바위가 있어 아래로는 강물에 임하는데, 궁녀들이 굴욕을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남의 손에 죽지 않겠다."라고 하며, 서로를 이끌고 이곳에 와서 강에 빠져 죽었으므로 이 바위를 타사암(墮死巖)이라 하였다고 한다. 뒷날에 와서 궁녀들을 꽃에 비유하고 이를 미화하여 낙화암이라고 고쳐 부른 것이다.

조선 시대 김흔은 '낙화암'이란 시에서 "삼천의 가무 모래에 몸을 맡겨 꽃 지고 옥 부서지듯 물 따라 가버렸네."라고 읊어 삼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후 민제인의 '백마강부'에도 "구름처럼 많은 삼천"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부여의 부소산 고란사 옆 건물에 이 시가 걸려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백마강부가 '삼천 궁녀'라는 그릇된 상식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표현은 의자왕이 삼천 명의 궁녀를 거느리며 사치와 향락에 빠졌던 왕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한 후대인들의 표현이다. 당시 백제의 인구나 생산 능력, 사비성의 규모를 고려할 때 실제로 삼천 명의 궁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낙화암 꼭대기에는 백화정이란 정자가 있는데, 궁녀들의 원혼을 추모하기 위해서 1929년에 세운 것이다.

황산벌 전투 21차시

660년에 백제군과 신라군이 황산벌(충남 논산시 연산면)에서 벌인 전투이다. 660년 신라는 동맹을 맺은 당과 함께 백제를 공격하였다. 소정방(蘇定方)이 이끄는 당의 13만 군대는 산둥 반도를 출발해 서해를 건너 백마강 북안에 상륙하였고, 신라는 육로로 백제를 공격하였다. 양국 군대는 백제 사비성에서 합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때 백제에서는 당군과 먼저 싸우자는 의견과 신라군을 먼저 꺾은 뒤 당군을 막자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백제의 흥수는 평야에서 접전하면 불리하므로 백강(금강) 입구를 지켜 당군이 상륙하지 못하게 하고 탄현을 막아 신라군이 넘지 못하게 한 후 공격하자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대신들은 당군이 백강에 들어오고 신라군이 탄현을 오른 뒤에 공격하는 것이 이롭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백제 조정의 의견이 분분하여 혼란한 가운데 김유신이 이끄는 5만 명의 신라군은 탄현을 넘어 황산벌(충남 논산시 연산면)로 밀려왔다. 의자왕은 계백에게 5천 명의 결사대를 조직하여 신라군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 계백 장군(충남 부여)

황산벌에 진을 치고 신라군과 대적한 계백의 군대는 수적으로 불리하였지만 네 번 싸워 모두 승리하였다. 신라군은 기력이 다하고 사기가 떨어졌다. 이때 신라 장군 흠춘이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아들 반굴을 적진에 뛰어들게 하였다. 계백이 반굴을 죽이자, 이어 화랑 관창도 백제군 진영에 홀로 뛰어 들어갔다. 어린 관창의 용기를 높이 산 계백은 여러 번 살려 보냈으나, 관창이 계속 공격해 오자 할 수 없이 관창의 목을 베어 말안장에 매달아 신라 진영으로 돌려보냈다. 두 화랑의 용기 있는 죽음을 보고 분노한 신라군은 다시 사기가 올라 백제에 총공격을 가하였다.

결국 황산벌 전투는 신라군의 승리로 끝나고 계백을 포함한 백제 군사는 모두 전사하였다. 이후 신라군은 당군과 합세하여 사비성을 포위 공격하였고 웅진으로 도망갔던 의

자왕은 결국 항복하였다. 의자왕은 당에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고구려 지배층의 분열 21차시

연개소문이 죽자, 장남 남생이 막리지가 되어 국정을 맡았다. 그러나 연개소문의 독재에 반발하던 지방 세력의 다수가 연씨 정권에 등을 돌렸다. 이들의 협조 없이는 나라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남생은 아우인 남건과 남산에게 중앙 정무를 맡기고 직접 지방을 순회하며 지방 세력가의 협조를 구하였다.

세 형제는 우애가 깊었으나, 남생에게 아우들이 자신을 배반하려 한다고 하는 한편, 남건과 남산에게 형이 지방 세력을 모아 자기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형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고, 남생은 국내성으로 가 당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지배층의 내분으로 고구려가 약화된 틈을 타 당은 요동을 공격하였다.

백제 부흥 운동 21차시

백제가 멸망한 뒤 661년 그 유민들이 백제를 일으키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흑치상지는 임존성(충남 예산)을 거점으로 병력을 규합하여 당군을 격퇴하면서 2백여 개의 성을 회복하였다. 한편 옛 장수 복신과 승려 도침은 주류성에 웅거하였다. 그리고 일본에 있던 의자왕의 아들 풍을 맞이하여 왕으로 세웠다. 그러자 백제의 20여 성이 복신의 부흥군에 호응하였다. 이들은 나·당 연합군을 공격하였고, 이에 신라의 무열왕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출정하기도 하였다. 이때 신라의 군대가 이례성을 공격하여 탈환하자, 백제 부흥군에 호응하였던 20여 성이 신라군에게 함락되었다. 이에 복신은 임존성으로 퇴각하였는데, 여기에 흑치상지가 합류하여 백제 부흥군의 기세가 다시 거세어졌다.

백제 부흥군은 사비성 공격을 다시 계획하였으며,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 정벌에 나섰을 때 웅산성을 비롯한 사정성 등 대부분의 성들을 회복하였다. 이로써 웅진성과 사비성에 있는 나·당 연합군의 보급로를 끊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 후 복신과 도침이 서로 대립하여 내분이 일어났다. 복신은 도침을 살해하고 왕자 풍도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풍에게 살해당하였다. 이때 당군이 주류성을 공격해 오자, 풍은 고구려로 달아나고 주류성은 함락되었다. 주류성이 함락되면서 대부분의 성읍들이 항복하였으므로 임존성은 고립되었다. 당군은 항복한 백제군을 동원하여 임존성을 공격하게 하여 함락시켰다. 이로써 4년에 걸친 백제 부흥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고구려 부흥 운동 21차시

고구려가 멸망한 후 669년 검모잠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유민들이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그는 보장왕의 아들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한성을 근거지로 삼아 당군을 공격하였다. 이때 고구려 부흥군이 신라에 구원을 요청하자, 신라는 당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해 이들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부흥군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일어나 안승이 검모잠을 죽이는 분열이 생겨 부흥군의 사기가 떨어지면서 결국 당군에게 패배하였다. 안승을 비롯한 고구려 부흥군은 신라에 투항하였다.

매소성 전투 21차시

신라가 당의 군대를 맞아 매소성에서 싸워 승리를 거둔 전투이다. 매소성의 위치는 현재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경기도 연천의 대전리산성으로 추정된다.

신라가 당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고구려 부흥군을 지원하고 백제의 옛 땅도 점령하였다. 이에 당은 설인귀와 이근행을 파견하여 신라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설인귀는 서해안으로 침입하여 한강 하류 일대를 장악하였다. 문훈 등이 이끄는 신라군은 이를 상대하여 대승을 거두고 많은 병선과 말, 무기 등을 빼앗았다. 설인귀의 함대가 패한 후 매소성에 주둔하고 있던 이근행 부대도 신라에게 패하여 퇴각하였다.

기벌포 전투 21차시

676년 11월에 기벌포에서 당의 군대를 물리친 전투이다. 기벌포의 위치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금강의 하구로 알려져 있다. 신라가 매소성 전투에서 당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자 당의 설인귀가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공격해 들어왔다. 이에 사찬 시득이 함선을 이끌고 기벌포에서 설인귀 군대와 싸웠으나 처음에는 패배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군사를 점점 증원하고 함대를 기벌포에 지원하여 22번에 걸친 크고 작은 전투를 벌인 끝에 당의 수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7년에 걸친 나·당 전쟁은 신라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Ⅲ.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03 통일 신라의 발전

학습 목표

- 통일 후 신라의 통치 질서 변화와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통일 국가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된 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통일 신라가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쳤음을 이해할 수 있다.
- 당과 교류하며 활동한 신라의 인물을 알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내용	수업 방법	수업 자료
22	**1. 통일 국가의 체제 정비**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통일 전쟁을 수행하고 동해의 대왕암에 잠든 왕은 누구일까? [전개] •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왕권이 강화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음을 설명한다. • 통일된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 새롭게 정비한 여러 제도를 설명한다. • 옛 백제와 고구려 유민을 통합한 신라의 정책 내용을 파악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통일 후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친 점을 보완하고자 설치한 것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강의식 탐구식 문답식 	 CD 88쪽 자료 PPT 89쪽 자료 학습지
23	**2. 통일 신라의 활발한 대외 교류**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당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산둥 반도와 창장 강 유역에 생긴 신라인의 거주지는 무엇일까? [전개] • 통일 신라가 당, 일본 등과 활발히 교류하였음을 설명하고, 이때 발달한 국제 무역항과 서역 상인의 왕래 사실을 파악하게 한다. • 당에서 활동한 신라인들을 찾아서 이들이 활약한 분야와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인도를 비롯한 서역 지역까지 순례하여 "왕오천축국전"을 쓴 승려는?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강의식 발표식 문답식 	 CD 90쪽 지도 인터넷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통일 국가의 체제 정비

(1) **통치 질서 수립**

① **무열왕:** 최초의 진골 출신 왕, 통일 전쟁 전개

② **문무왕:** 삼국 통일 완성

③ **신문왕:** 귀족 반란 진압, 왕권 강화, 제도 정비

(2) **제도 정비**

① **중앙 정치:** 집사부 권한 강화, 화백 회의 기능 축소

② **지방 행정:** 9주 5소경 설치

- 9주: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고 그 아래 군과 현 설치
- 5소경: 수도의 편재를 보완하고 지방 세력의 성장을 감시하고자 설치

③ **군사:** 9서당(중앙군, 고구려와 백제 유민 포함), 10정(지방군)

④ **토지 제도:** 관료전 지급, 녹읍 폐지, 정전 지급

2. 통일 신라의 활발한 대외 교류

(1) **통일 신라의 대외 교류**

① **교류 확대의 배경:**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안정, 통일 신라의 경제력 향상과 항해술 발달

② **당과의 교류:** 당항성 중심, 금은 세공품과 인삼 등 수출, 비단 · 서적 · 문구류 등 수입 → 당에 신라방(신라인 거주지), 신라관(숙박 시설), 신라원(절), 신라소(감독 관청) 등 설치

③ **일본과의 교류:** 금속 제품 · 생활 용품, 불교 등 전파

④ **서역과의 교류:** 울산항을 중심으로 상인 왕래, 보석 · 향료 등 전래, 서역에 신라가 알려짐.

(2) **당에 진출한 신라인**

① **학자:** 당에 유학, 관리 생활, 최치원 · 김운경 · 최승우 등

② **승려:** 의상(화엄종 연구), 혜초("왕오천축국전" 저술)

③ **장보고:** 당의 군인으로 활약 → 귀국 후 청해진을 거점으로 해상 무역 장악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88쪽

제시된 유언은 "삼국사기"에 실린 내용으로 문무왕이 남긴 조서의 일부이다. 문무왕은 아버지 무열왕의 뒤를 이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였다. 문무왕 21년(681) 가을 7월 1일 그가 죽자 시호를 문무라 하고, 신하들은 유언에 따라 동해 앞 바다의 큰 돌에서 왕의 장례를 치렀다. 왕이 용으로 변하였다고 하여 그 바위를 대왕석이라고도 한다.

탐구 활동 ▶▶▶ 교과서 88쪽

예시 답안

신문왕이 거센 물결을 잠재우는 피리를 지녔다는 내용은 왕권에 저항하는 세력을 잠재워 왕권이 강화되고, 통일 후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의 생활을 평안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탐구 활동 ▶▶▶ 교과서 89쪽

예시 답안

무열왕과 문무왕은 옛 고구려와 백제 사람들에게 신라 관직을 부여하여 정치에 참여시키고, 신문왕은 중앙 군사 조직인 9서당을 정비하면서 옛 백제인과 고구려인을 포함시켜 민족을 융합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90쪽

신라의 수도 경주(금성)는 문물이 번창했던 국제도시였다. 경주에서 발굴되는 서역인의 모습을 한 토용이나 석상 등은 신라가 중국과 일본뿐 아니라 멀리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와 활발한 국제 교류를 펼쳤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91쪽

1. (1) ㉢, (2) ㉡, (3) ㉣, (4) ㉠

2. (1) 9서당, (2) 9주, 5소경

내용 더하기

❀ 진골의 왕위 세습 22차시

원래 신라 상대에는 왕족인 성골과 진골 중에서 성골만 왕이 될 수 있었으나 진덕 여왕을 끝으로 성골이 끊겼다. 이에 섭정을 청하였으나 알천은 노령을 이유로 진지왕의 손자인 김춘추에게 왕위를 양보하였다. 김춘추는 세 번을 사양하다가 왕위를 받아들여 진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왕이 되었다. 이때부터 중대의 마지막 왕인 혜공왕까지 신라의 왕위는 무열왕 김춘추의 직계 후손들이 차지하였다.

김흠돌의 난 22차시

신문왕의 장인이었던 상대등 김흠돌이 일으킨 대표적인 귀족 반란이다. 김흠돌은 김유신의 조카로 문무왕 때 두 차례에 걸쳐 고구려 원정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다. 그는 신문왕이 태자일 때 딸을 태자비로 들여 신문왕의 장인이 되었으나 신문왕이 즉위한 해에 반란을 일으켰다(681).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무열왕과 문무왕 대에 통일 전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전보다 왕권이 한층 강화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귀족들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문무왕이 죽자마자 왕실의 혼란을 틈타 파진찬 흥원, 대아찬 진공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반란이 실패하여 김흠돌은 죽고 그의 딸도 궁에서 쫓겨났다. 김흠돌의 난에는 많은 귀족들이 가담하였는데, 신문왕은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까지 모조리 숙청하였다. 신문왕은 이를 계기로 왕권에 저항하는 귀족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

만파식적 설화 22차시

신문왕은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 동해변에 감은사를 지었는데, 죽어서 바다의 용이 된 문무왕과 천신이 된 김유신이 합심하여 용을 시켜 동해의 한 섬에 대나무를 보냈다. 신문왕은 이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었고, 이 피리를 불면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니 국보로 삼았다고 한다. 만파식적 설화는 통일 후 왕권을 강화하여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의 생활을 평안하게 하려는 호국 사상이 담겨 있다.



▲ 경주 감은사지 3층 석탑(경북 경주)
현재 감은사는 터만 남아 있으며, 법당 자리 앞에 동서로 3층 석탑이 서 있다. 우리나라의 석탑 중에서는 제법 큰 규모이며, 두 탑의 만듦새와 구조가 동일하다.

집사부 22차시

집사부는 통일 신라 시대의 최고 행정 기관으로서 왕이 직접 관리하였다. 진덕 여왕 때 정권을 장악한 김춘추 세력은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화백 회의를 견제하고자 집사부를 설치하였다. 집사부는 국가의 기밀 사무를 맡아 왕의 명령을 직접 받들었다. 왕권의 지배를 받는 집사부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상대적으로 귀족 세력의 대표 기구인 화백 회의의 기능은 약화되었다.

집사부의 장관은 진골 출신의 중시였다. 초대 중시는 김춘추가 맡았다. 중시는 왕과 가까운 왕족이 임명되었고 왕권을 옹호하는 대변인이자 정치적 책임자의 역할을 하였다. 중시는 경덕왕 6년에 시중으로 격상되었고 점차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형성하였다.

관등 부여를 통한 민족 융합 정책 22차시

- 무열왕 7년에 백제인들도 다 그 재능에 따라 임용하였으니, 좌평인 충상 · 상영과 달솔인 자간에게는 일길찬의 관위를 주어 총관의 직에 임명하고, 은솔 무수에게는 대나마의 관위를 주어 대감의 직에 임명하고, 은솔 인수에게는 대나마의 관위를 주어 제감의 직에 임명하였다.
- 문무왕 13년에 백제에서 온 사람에게 내외의 관직을 주었는데, 그 관등의 순위는 본국(本國)에서의 관직을 보아서 하였다.
- 신문왕 6년에 고구려인에게 그 본국의 관품을 헤아려서 경관을 주었다. 일길찬은 본국의 주부에게, 사찬은 본국의 대상에게, 급찬은 본국의 위두대형과 종대상에게, 나마는 본국의 소상과 적상에게, 대사는 본국의 소형에게, 사지는 본국의 제형에게, 길차는 본국의 선인에게, 오지는 본국의 조위에게 주었다.

- "삼국사기"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신라는 백제, 고구려의 유민을 포섭하고 회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지배층에게 신라 관등을 배정하여 일부 지배층을 신라 사회에 편입시켰고, 고구려 부흥 운동을 지원하면서 고구려 귀족들을 신라 사회로 흡수하고자 하였다.

9주 5소경 22차시

신라는 6세기 전반에 전국을 상(上) · 하주(下州)로 나누어 통치하던 것을 한강을 차지하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점차 행정 구역을 늘려 통일 후 신문왕 5년에 이르러서는 전국을 9주로 정비하였다. 신라는 옛 신라, 고구려, 백제의 영토에 각각 3주씩 편성하였는데, 신라 지역에는 양주, 상주, 강주를 두었고 백제 지역에는 웅주, 전주, 무주를, 고구려 지역에는 한산주, 삭주, 명주를 설치하였다. 주에는 처

음에 군주를 파견하였다가 통일 이후에 도독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주 밑에는 군과 현을 두었고 중앙에서 군에는 태수, 현에는 현령을 파견하여 다스렸다.

통일 이후 신라는 수도 금성(경주)이 전체 영토의 동남쪽에 치우친 것을 보완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경을 설치하였다. 통일 이전에 설치했던 국원 소경(충주)을 중원 소경으로 개칭하고 북원 소경(원주), 서원 소경(청주), 남원 소경(남원), 금관 소경(김해)을 더 설치하여 5소경 체제를 갖추었다. 5소경은 옛 고구려, 백제, 가야의 세력가들을 한곳에 모아 이들의 성장을 감시하는 목적도 있었다. 진흥왕 대에 설치한 국원 소경은 대가야를 통합하면서 그 왕족과 귀족들을 집단 이주시킨 곳이었다. 남원 소경은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보덕국을 혁파하고 그 주민들을 이주시켜 설치한 곳이다. 서원 소경과 금관 소경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나 백제의 지배층을 옮긴 곳으로 본다.

9서당 22차시

신라의 중앙군인 서당은 국가적 단결과 민족적 융합을 꾀하기 위하여 옛 백제와 고구려인, 여기에 말갈족까지 포함하여 조직한 수도 방위군이다. 서당은 통일 전까지 2개가 있었으나 통일 후 9개로 늘어났는데, 그 대부분이 신문왕 때 설치된 것이다. 9서당은 신라인 3개 부대(녹금서당, 자금서당, 비금서당), 고구려인 1개 부대(황금서당), 백제인 2개 부대(백금서당, 청금서당), 보덕국인 2개 부대(벽금서당, 적금서당), 말갈인 1개 부대(흑금서당)로 편성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보덕국인은 고구려 유민이므로 고구려인으로 구성된 부대는 3개인 셈이다. 각 부대마다 옷깃 색깔을 달리하도록 하여 그 명칭을 부여하였다.

신라의 토지 제도 22차시

- 신문왕 7년(687) 5월에 문무 관료에게 전지(田地)를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 신문왕 9년(689) 봄 정월에 내외(內外) 관료의 녹읍(祿邑)을 폐지하고, 1년 단위로 조(租)를 차등 있게 하사하라는 교서를 내렸다
- 성덕왕 21년(722) 가을 8월에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정전(丁田)을 나누어 주었다.
- 경덕왕 16년(757) 3월에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리들에게 매달 주던 녹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祿邑)을 주었다.

- "삼국사기"

신문왕은 녹읍을 폐지하기 전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뒤이어 녹읍을 폐지하면서 조(租)인 곡물을 주었다. 관료전은 관직을 바탕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관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에 반납하였다.

녹읍은 귀족 관료에게 복무 대가로 지급한 토지를 말한다. 귀족 관료는 이 토지에서 수조권뿐 아니라 그 토지를 소작하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부리고 공물을 수취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애초에 녹읍은 국가의 통제를 받아 제한된 수취만이 허용되고 세습적 보유는 금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점차 해당 지역에 대한 총체적 지배로 발전하여 귀족의 사적 기반이 되어 갔다. 그런 까닭에 신문왕 때에 귀족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정책으로 녹읍을 폐지하게 되었다.

한편 경덕왕 때 녹읍이 부활된 것을 두고 왕권의 약화와 귀족 세력의 반발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시기에 왕권이 약화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당시 행정상의 어려움을 줄이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녹읍을 부활시켰다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이때 부활한 녹읍은 이전의 녹읍과는 성격을 달리 해석하여 수조권만 부여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정전은 통일 신라 시대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토지이다. 그러나 그 성격이나 운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일반적인 견해를 종합할 때 정전은 토지가 없는 장정에게 지급한 토지인데, 이미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소유를 법제적으로 인정해 준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 정전을 지급한 것은 전국의 토지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실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취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신라에 들어온 서역인 23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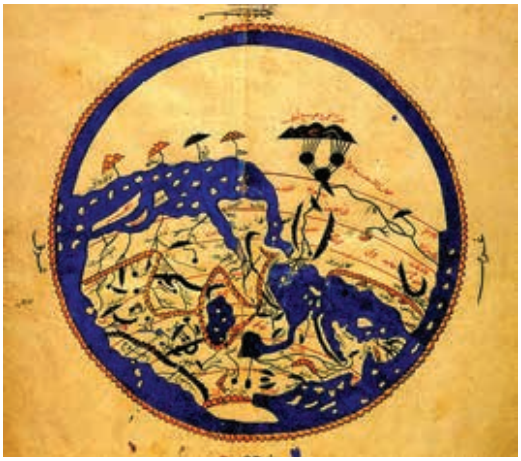
경주 일대에서는 신라와 서역이 국제적인 교역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에는 8세기 원성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괘릉이 있는데, 능 입구에 세워진 돌로 된 무인상으로 유명하다. 강한 인상을 주는 무인상은 눈과 코, 표정, 수염 등 얼굴 생김이나 무늬를 새긴 천으로 곱슬머리를 동여맨 점, 헐렁한 상의에 치마 같은 하의를 걸친 점, 아랍식의 둥근 터번을 쓰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서역인을 모델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서는 동양인에 비해 풍채가 크고 무시무시한 서역인을 모델로 한 석상을 제작하여 왕의 무

덤을 지키게 하였다.

한편 경주 용강동 석실분에서 출토된 토용은 서역인이 홀(笏)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다. 홀은 옛 관리들이 왕을 만날 때 손에 쥐는 물건이다. 따라서 홀을 들고 있다는 것은 페르시아 인들이 경주(금성)에 들어와 신라의 관료로 일했을 가능성도 말해 준다.

향가 '처용가'의 주인공인 처용도 빼놓을 수 없다. 헌강왕을 따라 경주에 와서 벼슬을 하던 처용은 어느 날 밤 역신이 자신의 아내를 범하려는 것을 보고 노래를 지어 불렀더니 그 역신이 물러갔다고 한다. 용의 아들이라는 처용에 관한 기록에는 그의 얼굴이 매우 이국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처용이 신라 왕실에서 일하던 서역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많은 서역인들이 경주(금성)에 들어와 활동하였다는 추측을 뒷받침한다. 아랍의 지리학자 이븐 쿠르다지바의 "왕국과 도로 총람"에는 "중국의 맨 끝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은 금이 많이 나고 기후와 환경이 좋다. 그래서 많은 이슬람교도가 신라에 정착하면 돌아오려 하지 않는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통일 신라 시대에는 국제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 아랍 인 알 이드리시가 그린 세계 지도
12세기에 그린 지도로 왼쪽 윗부분에 신라를 그려 놓았다. 서역인이 처음 우리나라를 표기한 지도라고 본다.

당의 신라인 거주지 23차시

신라와 당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상인, 선원, 조선 기술자 등 운송업과 무역업에 종사하는 많은 신라인이 당의 해안 지대에 모여 살게 되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당은 물론 아라비아 상인과도 교역하였고, 신라와 일본 사이의 무역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당으로 가는 바닷길은 당항성에서 산둥 반도로 가는 길과 울산만에서 출발하여 남해안을 지나 흑산도 부근에서 산둥 반도나 중국 남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 따라서 신라인들은 주로 당의 산둥 반도 해안 일대에서 창장 강 하류, 강남 지역의 해안을 따라 거주하였다. 당은 신라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신라방(新羅坊)을 설치하고 이들을 관장하는 자치적 행정 기관인 신라소(新羅所)를 두었다. 한편 당에 거주하는 승려들이 늘어나면서 신라인을 위한 불교 사찰도 건립되었다. 이것을 신라원(新羅院)이라고 하는데, 적산촌의 법화원이 대표적이다. 덩저우에는 신라의 사신이나 유학생, 승려들이 묵을 수 있는 신라관(新羅館)이 설치되었다.

대표적인 신라원, 법화원 23차시



▲ 법화원의 장보고 동상

장보고는 산둥 반도 적산촌에 신라인을 위한 불교 사찰인 법화원을 세웠다. 이곳은 장보고 세력의 거점으로서 신라와 연락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포교를 담당하였다. 법화원은 신라인들의 항해 안전을 기원하던 곳이었으며, 타국에서 생활하던 신라인들의 마음의 의지처이자 신앙의 안식처이기도 하였다. 법화원에는 신라에서 당으로 간 승려는 물론 일본의 승려들도 머물렀다. 일본의 엔닌은 자신의 여행기인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법화원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기도 하였다.

도당 유학생 23차시

당에 유학하여 머물면서 유학과 선진 문물을 익힌 지식인들을 숙위 학생이라고 한다. 주로 신라의 골품제에 얽매여 있던 6두품 출신들이 숙위 학생이 되어 당에서 자유롭게 수학하면서 선진 문물을 습득하였다. 당은 외국 유학생들이 국자감에 입학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외국인을 위해 빈공과라는 과거를 별도로 시행하였다. 신라 유학생은 김

운경이 처음 빈공과에 합격한 이후 당 말까지 58명이 합격하였다. 이들 중에서 대표적 인물이 최치원이다. 그는 18세에 빈공과에 급제하고 당에서 관리 생활을 하며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았다.



▲ 최치원 기념관 개관식(중국 양저우, 2007)

왕오천축국전 23차시

통일 신라의 승려 혜초가 지은 인도 여행기이다. 1908년 프랑스 탐험가 펠리오가 중국 둔황 지역의 천불동 사원에서 발견하였는데, 1909년 중국학자 나진옥에 의하여 "왕오천축국전" 임이 확인되었고, 1915년 일본의 다카쿠스에 의하여 저자가 신라 출신 승려라는 것이 밝혀졌다.

혜초는 어린 나이에 당으로 가서 인도의 밀교 승려인 금강지에게서 불교를 배웠다. 그리고 약 4년 동안 인도를 여행하고 "왕오천축국전"을 썼다. 당시 천축국은 인도를 가리킨다. 혜초는 5개의 천축국, 즉 동천축, 서천축, 남천축, 북천축, 중천축이라 불린 인도의 불교 유적지 및 주변의 중앙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고 자신이 직접 보고 겪은 그곳의 자연환경, 특산물과 제도 등을 저술하였다. 현재는 일부분만 남아 전해지고 있으나, 8세기 무렵 인도의 정세와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장보고와 청해진 23차시

장보고(張保皐)는 전라남도 완도 태생으로서 20대 후반에 중국으로 건너갔다. 장보고는 신라 사회에서 높은 계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넓은 세상에서 경험을 쌓고 출세를 하고자 당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 군인이 된 장보고는 그곳에서 신라 사람들이 해적에게 잡혀 와 노예로 비참하게 사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신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해적들이 신라인들을 잡아서 팔아넘기는 것을 없애고자 828년 흥덕왕의 허락을 얻어 1만의 군사를 데리고 해상의 요충지에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완도군 장군섬(장도)에 위치한 청해진은 해군 기지이자 무역 기지로서, 장보고는 이곳을 기반으로 세력을 키워 해적 무리를 소탕하였다. 그리고 당과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 교통권과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839년 장보고는 민애왕을 죽이고 신무왕이 왕위에 오르는 데 공을 세워 세력이 더욱 커졌다. 신무왕이 죽고 문성왕이 즉위한 후 장보고는 자신의 딸을 왕비로 보내려 하였으나, 중앙 귀족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뒤 청해진과 신라 정부의 대립과 반목이 심해지자, 정부에서는 장보고의 옛 부하였던 염장을 보내 그를 암살하였다. 장보고가 죽은 후 신라 정부는 청해진의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청해진을 폐쇄하였다.



▲ 청해진의 목책 흔적
장도에는 섬 전체에 계단식 성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방어용 목책을 박았다.

쇼소인 23차시

일본 나라 현 도다이 사에 있는 왕실의 유물 창고이다. 미술 · 공예 · 기록 · 생활 등 각 방면에 걸쳐 가치 있는 물품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신라 민정 문서를 포함하여 신라금과 금동 가위, 신라 먹, 신라 종 등이 소장되어 있다. 또 가위 · 유리잔 · 칼 등 외형이나 새겨진 무늬로 보아 통일 신라 시대의 작품임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다.

1950년대 일본 쇼소인 소장의 유물을 정리하다가 화엄경론의 질(帙) 속에서 발견된 민정 문서는 신라 농촌 사회의 구조와 토지 제도 등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Ⅲ.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04 통일 신라의 문화

학습 목표

- 통일 이후 신라에서 유학과 불교가 발달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 불교를 바탕으로 신라 예술이 크게 발전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24	1. 사상의 발달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신라인들에게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기도문을 보급한 승려는 누구일까? [전개] • 왕의 권위와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통일 신라의 유학이 발달하였음을 파악하게 한다. • 통일 신라 시대에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불교가 대중화된 사실을 대표 인물을 사례로 들어 설명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신문왕이 정비한 유학 교육 기관은? 2. 신라의 화엄종을 창시하였으며 관음 신앙을 전파한 승려는?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탐구식 강의식 문답식	CD 92쪽 자료 PPT 학습지
25	2. 예술의 발달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부처의 나라'라는 뜻을 지녔으며 부처가 사는 세계를 이상적으로 표현한 사원은 무엇일까? [전개] • 경주 불국사와 경주 석굴암 석굴 등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건축물과 예술을 소개한다. •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의 여러 유적 문화권을 조사하고 발표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경주 토함산에 인공으로 조성된 석굴 사원은? 2.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을 수리하던 중 내부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강의식 발표식 문답식	CD PPT 96, 97쪽 사진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사상의 발달

(1) **유학 교육의 확대**

① **목적**: 왕의 권위와 사회 기강의 확립

② **유교 진흥 정책**

- 국학: 신문왕이 정비한 유학 교육 기관
- 독서삼품과 실시: 유학 교양에 따른 관리 임용 제도

③ **대표적 유학자**: 최치원, 강수, 설총 등

(2) **불교 사상의 발달**

① 발달 배경

- 당에서 불교를 공부한 승려 증가, 여러 불교 경전 도입 → 불교 철학에 대한 이해 심화
- 정신적 치유책, 민족 통합 신앙 요구 → 불교의 대중화

② **원효**: 한 종파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추구, 불교의 대중화에 이바지(아미타 신앙 보급)

③ **의상**: 신라의 화엄종 창시, 관음 신앙 전파, 부석사 등 여러 사찰 창건

2. 예술의 발달

(1) **통일 신라 문화의 특징**: 삼국의 문화 융합, 불교 관련 예술의 발달

(2) **건축**

① **경주 불국사**: 불교적 이상 세계 표현, 청운교 · 백운교

② **경주 석굴암 석굴**: 인공 석굴 사원, 본존 불상과 각종 불상 배치

- 석탑: 경주 불국사 삼층 석탑, 경주 다보탑, 경주 감은사지 삼층 석탑,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 석탑 등

(3) **금속 기술**

① **상원사 동종**: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종

② **성덕 대왕 신종**: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종

(4) **목판 인쇄술**: 무구정광대다라니경(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

(5) **향가**: 초기 불교 중심 → 내용의 다양화, 대중화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92쪽

원효는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불교 노래를 지어 대중을 교화하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누구든지 '나무아미타불'을 외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쳐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

생각 열기 ▶▶▶ 교과서 94쪽

김대성은 가난한 마을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다 죽어 부잣집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어느 날 김대성이 토함산에 올라 곰을 잡았는데 꿈에 곰이 귀신으로 변해 원망하며 "네가 나를 어찌 죽였더냐." 하며 원망하였다. 두려움에 그가 용서를 빌자 곰은 자신을 위해 절을 하나 지어 달라고 하였다. 잠에서 깬 김대성은 크게 반성하고 곰을 잡았던 자리에 장수사를 지었다. 이 일로 인해 크게 깨달은 그는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세우고, 전생의 옛 어머니를 위해 석불사, 곧 석굴암을 세웠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95쪽

1. (1) ㉢, (2) ㉠, (3) ㉡
2. (1) 국학, 유교, (2) 불교
3. (1) 불국사, (2) 석굴암 석굴, (3) 성덕 대왕 신종, (4)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내용 더하기

국학 24차시

신라의 유교 정치 이념은 진평왕의 왕권 강화 과정에서 고조되었고 당과의 외교에서 더욱 촉진되었다. 국학은 신문왕 때 설치된 것으로 보지만, 진덕 여왕 시기에 이미 국학의 실무직이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진덕 여왕 시기에 국학이 설치되고, 신문왕 2년에 이르러 국학의 교육 제도가 완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학에서는 주역 · 예기 · 상서 · 모시 · 춘추좌씨전 · 논어 · 효경 · 문선 등 유교 경전을 교육하였다. 이는 유교적 충효 관념을 지닌 인재들을 육성하여 왕의 지지 기반을 확립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국학을 졸업하는 자에게는 성적에 따라 17관등 중에 10~12등급에 해당하는 대나마, 나마, 대사의 벼슬을 주었다.

독서삼품과 24차시

여러 학생의 독서에는 3품 출신이 있다. 춘추좌씨전이나 예기 및 문선을 읽어 그 뜻이 잘 통하고 논어와 효경에 밝은 자

를 상품(上品)으로 한다. 곡례 · 논어 · 효경을 읽은 자를 중품(中品)으로 하고, 곡례 · 효경을 읽은 자를 하품(下品)으로 한다. 다만 5경 · 3사와 제자백가의 책을 겸통하는 자가 있으면 초탁해서 등용한다. - "삼국사기"

독서삼품과는 원성왕 4년(788)에 새롭게 실시한 관리 선발 시험으로서, 당시 유명무실해진 국학을 재건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측면이 있었다. 국학에서 배운 과목을 중심으로 3품으로 선발하되, 특히 우수한 자는 특채를 주었다. 이는 엄격한 골품 사회 안에서도 유학 실력에 따라 인물이 발탁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독서삼품과를 통해 관리층을 형성한 계층은 주로 6두품이었다.

그러나 신라 하대에 들어와 진골의 수가 늘어나고 진골 귀족 간의 권력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능력보다 신분을 중시하는 사회적 폐쇄성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도당 유학생 중에서 빈공과에 급제한 후 귀국하여 관리가 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면서 독서삼품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독서삼품과는 기존의 신분 중심의 불합리한 관리 선발 방식을 지양하고 유학을 보급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강수 24차시

강수(强首)는 본래 가야 사람인데 가야가 망한 뒤 신라의 신분 제도에서 6두품에 편입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중원 소경(지금의 청주)으로 이주하였다. 처음에 그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숨은 학자였으나, 태종 무열왕이 당에서 온 외교 문서를 읽을 사람이 없어 근심하고 있던 중 왕에게 소개되었다. 강수는 국서를 한 번 읽어 보고 막히는 곳 없이 정확히 해석하였고, 뛰어난 문장으로 당에 보내는 국서를 지어 무열왕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를 계기로 그는 관료로 활동하게 되었다.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던 강수는 신라의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는 당에 억류되어 있던 무열왕의 아들 김인문을 보내줄 것을 청하는 글인 '청방인문표(請放仁問表)'를 지어 보내 당 고종을 크게 감동시켰고, 설인귀에게 보내는 문무왕의 글을 짓기도 하였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 사찬 벼슬을 받고 녹봉도 올려 받았다. 그러나 6두품이라는 신분의 한계 때문에 외교 분야에서 세운 공에 걸맞은 관직과 보상을 받지는 못하였다.

원효 24차시

원효(元曉)는 진평왕 때 6두품인 설씨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10대 중반에 출가하였다. 원효는 스승을 정해 놓고 배우거나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교학을 섭렵하였다. 그는 당시의 교학을 거의 망라하는 80여 부의 경전에 주석을 붙일 정도로 폭넓은 교학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8살 어린 후배인 의상과 친분을 유지하며 교학 탐구에 정진하여 보덕에게 강의를 듣고 고구려 불교의 성과를 수용하기도 하였고, 당으로 가는 유학길에도 함께 올랐다. 그러나 도중에 무덤에서 밤을 보내고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으니 진리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얻어 유학을 포기하였다.

이후 왕실과 관계를 맺어 활동하던 중 요석 공주와 인연을 맺어 설총을 낳았다. 이 일로 파계승이 된 원효는 교단을 벗어나 세속의 복장을 한 채 무애가(無碍歌)를 부르고 돌아다니며 대중을 교화하였다. 무애는 '일체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한길로 삶과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는 화엄경의 구절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마음이 거리낌이 없어지면 희로애락과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뜻이다. 그리고 아미타불에 의지하여 정토 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정토 사상을 대중에게 전파하여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

원효는 90종에 가까운 200여 권의 불교 관련 서적을 저술하였는데, 대표 저작은 "대승기신론소"와 "금강삼매경론"이며, 특히 "십문화쟁론"에서는 여러 경론의 차이점을 화해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상 24차시

의상은 진평왕 시기에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출가한 후 661년 당에 건너가 화엄 사상을 정립시키고 있던 지엄을 찾아갔다. 의상은 그 아래에서 중국 화엄종을 완성하는 일을 연마하고 화엄 사상의 핵심 내용을 담아 "일승법계도"를 저술하였다.

10년에 가까운 유학 시절을 보내고 귀국한 의상은 화엄종 교학을 강의하며 여러 제자를 양성하였다. 그는 국가의 지원을 얻어 부석사를 창건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제자들과 화엄 사상을 연구해 나갔다. 그리고 자신이 체득해 온 화엄 사상을 전법할 방법을 물색하면서 낙산의 굴에 관음 진신이 산다는 말을 듣고 두 차례의 7일 정진 끝에 관음 진신을 친견한 후 낙산사를 지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그는 신라인들을 구제하고자 현실구제적인 관음 신앙을 전개하였다.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경북 영주)

신라 문무왕 16년(676)에 의상대사가 왕명을 받들어 화엄의 큰 가르침을 펴던 곳이다. 중심 건물인 무량수전은 신라 문무왕 때 짓고 고려 현종 때 고쳐지었으나, 공민왕 7년(1358)에 불에 타 버렸다. 지금 있는 건물은 고려 우왕 2년(1376)에 다시 짓고 광해군 때 새로 단청한 것으로, 1916년에 해체 · 수리 공사를 하였다.

경주 불국사 25차시

토함산 기슭에 있는 절로 사적 제502호이다. 신라 경덕왕 10년(751)에 짓기 시작하여 혜공왕 10년(774)에 완성되었다. 1969년부터 1973년에 걸쳐 발굴 조사와 복원이 이루어져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95년에는 경주 석굴암 석굴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불국은 부처가 있는 극락정토를 의미하며, 불국사는 신라인이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부처님의 나라, 즉 불국토의 세계를 지상에 옮겨 놓은 것이다.

불국사 입구에는 청운교와 백운교가 있는데, 이것은 부처에 이르지 못한 일반 중생의 세계와 그 위의 부처 세계를 연결해 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이 다리들은 33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33개의 하늘을 가리킨다. 중생들은 이 다리를 건너 자하문을 지나면 부처님이 계시는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불국사 내부에는 다보탑,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이 있으며, 이 밖에 연화교와 칠보교, 금동 아미타여래 좌상, 금동 비로자나불 좌상 등의 문화재가 있다.

석굴암 석굴 25차시

경덕왕 때 김대성이 만들기 시작하여 그가 죽은 뒤 국가가 맡아 완성하였다. 건립 당시에는 석불사라고 불렀다. 원래 석굴 사원은 천연의 암벽을 파서 동굴을 내고 그 내부를 다듬어서 만든 것인데, 석굴암 석굴은 토함산 중턱의 화강암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동굴을 만들고 흙을 덮어 동굴의 형식을 한 사원이다.

석굴암 석굴의 기본적인 평면 구조는 전방 후원(前方後圓)의 형태를 취하면서 네모진 공간의 전실과 그 뒤에 원형의 주실로 나누어져 있다. 전실은 지상 세계를, 주실은 부처가 존재하는 하늘 세계를 뜻한다. 주실 가운데 자리한 본존불상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형상화한 것이며, 주위 벽면에는 보살과 제자상 등이 조각되어 있다. 우주를 상징하는 주실의 천장은 네모난 돌들을 맞춰 원형의 돔 형태로 만들었다. 또한 지금은 일제에 의해 막혀 있으나 내부 바닥 밑으로 샘을 흐르게 하여 습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였다. 석굴암 석굴은 당시 신라의 수학적, 과학적 지식과 건축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였음을 잘 보여 준다.

신라인의 뛰어난 공예품, 만불산 25차시

신라인들의 뛰어난 공예 기술을 알 수 있는 작품 가운데 만불산(萬佛山)이 있다. 만불산은 경덕왕이 당 대종(代宗)에게 선물한 공예품으로, 향나무로 만든 높이 3m 정도의 산에 바위와 동굴 등으로 구역을 나누어 구슬과 옥으로 장식하고 여러 나라 산천의 형상을 만들었다. 이 가산에 만 명의 부처를 조각하여 그 이름을 만불산이라고 하였고 1,000명 이상의 승려도 조각하였다. 바람이 불면 벌 · 나비 · 새 등이 춤을 추고, 종을 만들어 바람에 종이 울리면 돌아다니던 승려들이 모두 엎드려 절하고 염불 소리가 들렸다. 이 선물을 받은 당 대종은 "신라인의 기교는 하늘의 조화이지 사람의 기교가 아니다." 라고 경탄하였다고 한다. 현재 이 공예품은 전하지 않지만 당시 신라의 뛰어난 공예 기술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경주 남산 25차시

완만한 동남산과 골이 깊고 가파른 서남산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40여 개의 계곡이 있고, 동, 서, 북쪽에 산이 솟아 있으며 토함산 줄기가 동해를 막는 성벽 구실을 하여 경주를 지키는 요새의 역할을 하였다.

불교가 신라에 전파되면서 숭산 신앙(崇山 信仰) · 암석 신앙(巖石 信仰)과 연관된 불교문화는 남산에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다. 현재 절터 112곳(암자터 포함), 석불 80체, 석탑 61기, 석등 22기 등의 유물 · 유적이 발굴되었다. 또한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탄생 설화가 있는 경주 나정, 신라 최초의 궁궐터인 창림사 유적, 서쪽 기슭의 포석정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 개국 이래 줄곧 신성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Ⅲ.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05 발해의 성립과 발전

학습 목표

- 발해의 건국 과정과 통치 체제를 설명할 수 있다.
- 다양한 유물을 통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알 수 있다.
- 발해가 동아시아 여러 나라와 교역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내용	수업 방법	수업 자료
26	**1. 발해의 성립과 영토 확장**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을 이끌고 동모산에 자리를 잡아 발해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일까?	문답식	
	[전개]		
	• 고구려 유민을 중심으로 고구려 옛 땅에 발해가 건국되었음을 파악한다.	강의식	
	• 무왕, 문왕, 선왕 등 각 시기별로 발해가 발전해 간 모습을 정리하게 한다.	탐구식	PPT
	• 3성 6부를 중심으로 한 발해의 중앙 통치 제도와 지방 행정 조직을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100쪽 도표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으로, 선왕 시기에 중국이 발해를 가리켰던 말은?		
	2. 발해의 중앙 통치 기구인 3성 중 최고 합의 기구로서 관료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던 곳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27	**2. 발해의 문화와 대외 관계**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일본에서는 발해에 보낸 사신을 왜 고려에 보낸 사신으로 표현했을까?	탐구식	
	[전개]		
	• 발해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한 사실을 여러 유물과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역사 부도
	• 발해가 당, 일본, 신라와 교류한 양상을 지도와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강의식	PPT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발해가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려 주는 유물, 유적은?		
	2. 당의 산둥 반도에 설치된 발해인의 숙소는?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발해의 성립과 영토 확장

(1) **발해의 건국**

① **건국의 주체**: 대조영 등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

② **도읍**: 만주의 동모산 부근

③ **의의**: 고구려를 계승하여 남북국 시대 성립

(2) **발해의 발전과 멸망**

① 발전

- 무왕: 영토 확장, 당의 산둥 지방 공격, 일본과 외교를 맺고 당과 신라 견제
- 문왕: 당과 친선 관계(당의 문물 수용), 신라와 교류, 상경으로 천도, 제도 정비를 통한 국가 기틀 마련
- 선왕: 9세기 초 최대 영토 확보(전성기) →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으로 불림.

② 쇠퇴와 멸망

- 쇠퇴: 지배층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국력 약화 →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926)
- 부흥 노력: 발해 유민들의 후발해국, 정안국 등 수립 → 실패 후 대부분 고려로 편입

(3) **발해의 통치 체제**

① **중앙 통치 기구**: 3성(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6부

- 3성: 귀족 관료들이 정당성 중심으로 국정 운영
- 6부: 실무 행정 담당, 이원적으로 나누어 운영 · 유교적 명칭 사용(발해의 독자성 반영)

② **지방 행정**: 5경 15부 62주(지방관 파견), 촌락의 자치 인정

③ **군사 제도**: 10위(중앙의 왕궁과 수도 경비)

2. 발해의 문화와 대외 관계

(1) **고구려 계승 의식**

① **고구려 계승 의식 표현**: '고려'(고구려) 국호 사용, 발해 왕을 고려 국왕으로 표현

② **발해 주민**: 고구려인과 말갈인으로 구성, 지배층에 주로 고구려계 성씨 분포

(2) **발해의 문화**

① **특징**: 고구려와 당 문화를 바탕으로 독자적 문화 발달

- 고구려 문화 요소: 온돌, 굴식 돌방무덤 양식과 모줄임천장 구조, 막새, 치미 등
- 당 문화 요소: 상경의 구조, 벽돌로 쌓은 무덤 양식, 영광탑 등
- 말갈 문화 요소: 흙구덩이무덤(토광묘)

② **불교문화 발달**: 불상, 석등, 연꽃무늬 막새 등

(3) **발해의 대외 관계**

① **발해 5도**: 상경을 중심으로 신라, 당, 일본, 거란으로 통하는 대외 교통로

② **당과 교류**

- 무역 교류: 담비 가죽 · 말 · 약재 등 수출, 비단 · 서적 · 공예품 등 수입
- 인적 교류: 사신과 상인 및 유학생 왕래, 등주에 발해관 설치

③ **신라와 교류**: 초기에는 적대적 관계 → 신라도를 통해 사신과 물자 교류 확대

④ **일본와 교류**: 당과 신라에 대한 견제 목적 → 경제적인 교류 활발, 담비 가죽 등 수출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98쪽

사진의 청동 부절은 러시아 연해주의 니콜라옙스크 성터에서 발굴된 것이다. 길이 5.6cm의 이 부절은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어 서로 합하면 옆면에 '합동(合同)'이라는 글자가 완성된다. 상경에서 파견된 발해의 사신은 부절을 맞춰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00쪽

예시 답안

황상이라는 명칭은 신하가 황제를 부를 때 사용하는 것이며, 황후는 황제 국가의 왕비를 말한다. 이처럼 발해가 황제의 나라였다는 점과 발해 문왕이 일본에 자신을 하늘의 자손이라 표현한 것은 당시 발해의 국력이 크게 신장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01쪽

발해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고쳐 부른 적이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발해에 사신을 보낼 때 고려에 보낸 사신('견고려사')으로 표현하고, 국서에도 '고려 국왕'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이다. '고려'는 곧 고구려를 의미한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01쪽

예시 답안

1. ㉠ 백제, ㉡고구려, ㉢ 신라, ㉣ 대조영
2. 유득공은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이고,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유득공은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여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를 모두 우리 역사로 인정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03쪽

1. (1) – ㉣, (2) – ㉡, (3) – ㉢, (4) – ㉠
2. (1) 정당성, 6부 (2) 모줄임천장

내용 더하기

발해의 건국 26차시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만주 지역은 당의 관할 아래 놓였으나, 고구려인들은 당에 함락되거나 투항하지 않은 성을 중심으로 자치적인 형태로 생활하고 있었다. 당은 향후 고구려인의 저항을 예방하고자 자신들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에 살던 고구려와 말갈 유민들을 당의 여러 곳으로 분산하여 이주시켰다. 그 중 영주 지역으로 끌려와 살던 거란족의 이진충과 손만영이 여러 부족을 규합하여 봉기를 일으켜 영주 도독을 죽이고 그곳을 점거하였다. 영주 일대가 혼란에 빠지자 이 틈을 타 대조영 집단과 말갈족의 걸사비우 집단이 영주 지역을 이탈하였다. 당시 당의 황제였던 측천무후는 이해고를 시켜 이들을 추격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걸사비우가 전사하고 대조영의 아버지 걸걸중상도 병사하였다.

대조영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고구려 유민들을 거느리고 걸사비우의 남은 말갈 무리까지 병합하였다. 그리고 천문령에서 이해고의 군대를 상대로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두었다. 대조영은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진(震), 연호를 천통이라 하였다. 대조영이 정착한 동모산은 현재 중국 지린 성의 성산자산성으로 추정된다.

무왕의 당 공격 26차시

무왕은 대조영의 뒤를 이어 즉위한 맏아들로 이름은 대무예이다. 그는 연호를 인안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말갈족을 정복하여 영토를 넓혔다.

726년 당이 발해 북쪽에 있던 흑수 말갈을 포섭하여 그 지역에 흑수부를 설치하고 다스리려 하였다. 발해의 배후에 있던 흑수 말갈은 당시 외교 관계를 맺을 때 발해의 사전 양해를 받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이때 흑수 말갈이 기존 관례를 파기하고 당과 연결하여 발해에 맞서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무왕은 동생 대문예에게 군사를 주어 흑수 말갈을 정벌하도록 하였으나, 대문예는 당과 같은 강대국에 맞서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무왕은 진노하였고 대문예를 대신하여 사촌형인 대일하가 흑수 말갈을 토벌하였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대문예는 귀국 중에 당으로 달아났다. 무왕은 당에 대문예의 송환 및 처형을 요구하였으나 당은 대문예를 유배를 보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가 발각되었다. 그리고 흑수 말갈은 2년 만에 다시 당과 결탁하였다.

결국 732년 무왕은 장군 장문휴에게 당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장문휴가 이끄는 수군은 산둥 반도의 등주를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갑작스런 습격에 놀란 당은 다음 해 대문예를 보내 발해를 공격하였고, 신라에게도 발해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추운 겨울 날씨와 험한 도로 사정으로 군사를 많이 잃은 당과 신라는 공격을 포기하고 군사를 퇴각시켰다. 이후로도 당은 발해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발해의 통치 체제 26차시

발해의 중앙 통치 기구는 3성 6부제를 근간으로 하였다. 즉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의 3성과 정당성 아래 행정 실무를 관장했던 충 · 인 · 의 · 지 · 예 · 신의 6부를 두었다. 6부를 지도하는 최고 행정 기관으로서 당의 상서성에 해당하는 정당성은 장관인 대내상을 최고 정점으로 그 아래에 좌사정과 우사정이 각각 충 · 인 · 의부와 지 · 예 · 신부를 관장하였다. 당의 중서성에 해당하는 중대성은 왕의 명령을 하달하는 기관이었고, 당의 문하성에 해당하는 선조성은 신하들의 의견을 왕에게 알리는 일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6부의 충부는 관리들의 인사 행정을, 인부는 토지 · 호구 · 조세 등의 재무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의부는 의례 · 제사 · 과거 · 학교 · 대외 관계 등을 관리하고 지부는 무관의 임면 · 군대 · 왕궁의 경비 등 군사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예부는 법률이나 재판 등의 사법 업무를, 신부는 도로 · 건축 · 산림 · 관청 수공업 등을 관리하였다.

발해의 중앙 기구는 당의 3성 6부제의 영향을 받아 설치한 것이었지만, 그 명칭과 실제 운영에서는 발해의 독자적

성격이 강하였다. 당에서는 상서성이 중서성과 문하성의 지배를 받았지만, 발해에서는 거꾸로 정당성이 선조성과 중대성을 지배하였다. 그리고 당의 상서성이 6부를 전부 관할하는 것과 달리 발해는 6부를 이원적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그리고 6부의 명칭에 관료적 성격을 반영한 당과 달리 발해는 유교 덕목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27차시

- "옛 고려의 영토를 회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이어받아 ……" 고려 국왕 대무예가 말하다.

  -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

- 고구려의 남은 자손들이 무리를 끌어 모아 북으로 태백산 아래에 발을 붙이고 국호를 발해라 하였다.

  - 최치원의 "상태사시중장"

- 발해는 고려의 옛 지역에 세워졌다. 고려왕 고씨가 당에게 멸망하고, 그 후 대조영이 비로소 발해국을 세웠다.

  - 일본의 "유취 국사"

발해 문왕은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국호를 '고려'로 바꾸어 사용한 적이 있었다. '고려'는 고구려의 국호로, 장수왕 시기에 구려 혹은 고구려에서 바꿔 사용한 명칭이다. 이후 김부식은 이를 고구려로 고쳐 기록하였다. 발해 문왕이 '고려' 국호를 약 20년 정도 사용한 것은 일본과의 사신 왕래에서 알 수 있다. 일본 헤이조쿄 궁터에서 두 점의 목간이 발견되었는데, 시대가 앞선 목간에는 발해사(渤海使)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런데 758년에 만든 목간에는 견고려사(遣高麗使)라고 씌어 있다. 발해는 사신단을 일본에 보내면서 국서에 고려 국왕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일본에서도 문왕을 고려 왕이라고 표현하고 국서를 보내왔다. 일본 나라 현 쇼소인에 소장된 문서에는 762년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다음에 돌아온 발해인 일행을 고려 객인이라고 표현하였다. 또 일본은 778년에 사신을 보낼 때에도 송(送)고려 객사라고 하였다.

황제의 나라 발해 27차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던 문왕은 나라 이름뿐만 아니라 고구려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을 천손(天孫)이라고 하였다. 771년 문왕은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자신을 천손으로 표시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장인과 사위라고 하였다. 발해가 일본을 낮추어 문서를 보낸 것은 발해의 국력이 강해졌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문왕의 넷째 딸인 정효 공주 무덤에서도 "황상께서 조회를 열지 않고 크게 슬퍼하시면서 ……"라고 문왕을 '황상(皇上)'이라고 표현한 묘지명이 나왔다. 또한 2005년에 출토된 9대 간왕의 부인인 순목 황후 묘지의 비문에는 "발해국 순목 황후는 간왕의 황후 태씨이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발해가 황제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정혜 공주와 정효 공주 무덤 27차시

발해의 무덤 양식으로는 고구려 후기 양식을 계승한 굴식 돌방무덤, 말갈 양식인 흙무덤, 당나라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 등이 있는데, 정혜 공주의 무덤 같은 굴식 돌방무덤이 발해 전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문왕의 둘째 딸 정혜 공주 무덤에서는 힘차고 생동감 넘치는 돌사자상 두 마리와 일곱 조각으로 깨진 상태의 묘지석이 출토되었다. 묘지석은 화강암 재질로서 위가 뾰족하고 아래는 네모진 형태를 띠었으며, 그 크기는 높이 90cm, 너비 49cm, 두께 29cm이다.

문왕의 넷째 딸인 정효 공주 무덤은 벽돌로 벽을 쌓았으며, 돌로 공간을 줄여 나가면서 천장을 만들었다. 정효 공주 묘지석은 발굴할 때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었다. 두 공주의 묘지석 문장은 똑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었는데, 유교 고전을 이용한 변려문으로 이들의 생애를 기록하고 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정효 공주 무덤(중국 지린 성)
발해인으로 보이는 12명의 인물 벽화가 그려져 있다.

| 교과서 | 105 ~ 109쪽

Ⅲ.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06 신라 말의 사회 혼란과 후삼국의 성립

학습 목표

- 중앙 정계의 왕위 다툼이 신라 사회에 끼친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난 배경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신라 말에 성장한 세력과 새로운 사상의 유행을 파악할 수 있다.
-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성립 과정과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28	**1. 신라 말의 사회 혼란**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신라 말 농민들은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	문답식	
	[전개]		
	• 왕위 교체 양상을 통해 신라 말의 혼란한 정치 상황을 파악하게 한다.	탐구식	105쪽 도표
	• 김헌창의 난과 같은 반란이 일어난 배경과 내용을 설명한다.	강의식	
	• 신라 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킨 배경과 대표적인 반란을 정리하게 한다.	자기 주도식	PPT
	• 최치원이 혼란을 수습하고자 개혁안을 건의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신라 말 사벌주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농민 봉기는?		
	2. 6두품 출신으로 진성 여왕에게 개혁안을 건의한 사람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29	**2. 새로운 세력의 등장과 후삼국의 성립**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신라 말 지방에서는 어떤 세력이 새로 성장하였을까?	문답식	
	[전개]		
	• 신라 말에 성장한 대표적인 호족 세력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107쪽 지도
	• 사회 개혁에 앞장선 6두품의 동향을 설명한다.	강의식	
	• 신라 말에 유행한 선종과 풍수지리설을 설명하고 이들의 역할을 파악하게 한다.		PPT
	•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건국 과정과 중심인물을 설명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신라 말에 크게 유행하였으며 호족 세력의 지지를 받은 불교 종파는?		
	2. 호족의 도움을 받아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신라 말의 사회 혼란

(1) **신라 말 왕위 쟁탈전**

① **중앙 정계의 동요**

- 정치의 혼란: 중앙 진골 귀족의 증가로 귀족 간의 권력 다툼 빈번
- 왕위 쟁탈전 격화: 혜공왕 이후 잦은 왕위 교체 → 정치 혼란, 왕권 약화

② **지방 세력의 반란**: 웅천주 도독 김헌창의 난(822)

(2) **지방 반란**

① **원인**: 왕실과 귀족의 사치와 향락으로 국가 재정 고갈, 중앙의 지방 통제 약화, 관리들의 부패, 자연재해

② **반란**: 원종과 애노(사벌주), 양길(북원), 기훤(죽주), 견훤(완산주)

③ **결과**: 각지에서 독자적 세력 성장, 신라 지배 체제 동요

2. 새로운 세력의 등장과 후삼국의 성립

(1) **호족과 6두품**

① **호족의 성장**

- 호족: 몰락하여 낙향한 귀족, 촌주 출신, 해상 세력 등
- 지방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여 행정권, 군사권, 경제권 장악

② **6두품**: 골품제를 비판하고 사회 개혁 추구, 호족 세력과 연합하여 반신라 세력으로 대두

(2) **새로운 사상의 유행**

① **선종**

- 특징: 정신 수양과 깨달음 강조, 전통적 권위 부정
- 성장: 백성과 호족의 환영, 호족의 후원으로 전국에 사찰 건립(9산)
- 승탑과 탑비의 유행: 양양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보령 성주사지 낭혜 화상 탑비

② **풍수지리설**

- 의미: 땅의 기운이 사람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상
- 유행: 금성(경주) 중심 사상에 반대하고 지방 곳곳에 중요 지역이 있다고 주장 → 지방 호족 세력의 호응으로 성장

(3) **후삼국의 성립**

① **후백제**

- 견훤: 서남해의 해상 세력을 규합하여 세력 확대
- 후백제 건국(900): 완산주(전주)에 도읍, 전라도 전역과 충청도 일부 장악

② **후고구려**

- 궁예: 신라 왕족 출신, 양길 밑에서 세력을 길러 자립
- 후고구려 건국(901): 송악(개성)에 도읍 → 철원으로 천도, 국호 변경(마진, 태봉), 경기도 · 강원도 · 황해도 일대 차지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05쪽

신라 말 왕실과 귀족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백성을 돌보지 않았다. 관리들은 농민들을 수탈하였으며, 특히 진성 여왕 시기에는 재정 악화로 농민에 대한 수탈이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때 흉년이 들고 전염병까지 돌아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곤궁해졌다. 이에 농민들은 불만을 표출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06쪽

1. (가) 흉년, (나) 원종, (다) 애노
2. 토지를 잃은 농민은 다른 집의 노비가 되거나 산으로 들어가 도적이 되었다. 또 관리들의 수탈과 어려운 생활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07쪽

대부분 6두품인 유학생들은 신라 사회에서 신분적 한계로 활동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귀국을 거부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09쪽

1. (1) ○, (2) ×, (3) ×
2. (1) 6두품, (2) 호족, (3) 풍수지리설

내용 더하기

신라 하대의 시작 28차시

경덕왕 재위 기간 동안 왕실의 권위가 약화되고 국정 운영이 문란해지자 귀족들의 반란이 자주 일어나 정치가 매우 혼란해졌다. 765년 경덕왕이 사망하고 혜공왕이 8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그의 모후가 수렴첨정을 하였다. 768년에 일길찬 대공은 아우 대렴과 무리를 모아 반란을 일으켜 왕궁을 33일이나 포위하였으나 진압되었다. 대공의 난을 계

기로 여러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 전국 각지에서 96각간이 서로 싸워 사회가 크게 어지러웠다. 각간은 본래 신라의 최고 관등인 이벌찬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96각간은 각간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시 반란을 일으킨 귀족과 진압한 귀족 전체를 포함한 것이다.

이 대란은 진압되었지만 조정은 안정을 찾지 못한 채 계속하여 동요하였다. 그러던 중 김양상이 상대등이 되면서 왕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정치적 실권이 넘어갔다. 780년 김양상 일파와 대립하던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키자, 김양상은 김경신 등과 협력하여 이를 평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혜공왕이 시해당하였고, 내물왕계의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즉위하였다. 이로써 무열왕 직계의 왕위 계승이 끊어졌는데, "삼국사기"에서는 이를 신라 중대가 끝나고 하대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다.

김헌창의 난 28차시

선덕왕이 재위 6년 만에 병으로 죽자 상대등이었던 김경신이 즉위하여 원성왕이 되었다. 이때 무열왕의 6세손인 김주원은 김경신보다 서열이 높았으나 왕위 계승에서 밀려났다. 이에 불만을 품은 김주원의 아들 김헌창은 웅천주 도독으로 있을 때 이곳을 근거지로 하여 헌덕왕 14년에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822).

김헌창은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이라고 하였으며, 그의 반란군은 신라 영토를 절반 가까이 장악하였다. 왕실은 장웅 등에게 김헌창을 격퇴하게 하여 정부의 주력 부대가 반란군을 진압해 나가자 웅진성에 포위된 김헌창이 자살하면서 반란은 끝이 났다. 그 뒤 김헌창의 아들 김범문도 825년에 반란을 일으켰으나 곧바로 진압되었다. 이들의 반란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으나 호족 세력의 지방 할거 경향을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신라 말의 혼란을 비판한 농민들 28차시

"삼국유사"에는 진성 여왕 시기 신라 사회의 혼란상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백성 사이에서는 진성 여왕과 관료들이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는 뜻이 담긴 노래가 유행하였다. 진성 여왕이 실정을 거듭하고, 유모인 부호 부인과 그의 남편 등 3~4명의 관료들이 권력을 농단하여 정사를 어지럽히자 도둑들이 벌 떼처럼 일어나고 세상이 어지러웠다.

이에 백성들이 근심하여 누군가 다라니(陀羅尼)라고 하는 비밀스러운 은어를 시로 지어 궁궐 밖 거리에 내붙였다. 그 내용은 "나무망국 찰리나제 판니판니소판니 우우삼아간 부이사바하(南無亡國 刹尼那帝 判尼判尼蘇判尼, 于于三阿干 鳧伊娑婆詞)"라는 구절로 불교의 주문처럼 지어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진성 여왕은 신하들에게 그 뜻을 풀어 보게 하니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찰리나제'는 여자 군주로서 진성 여왕을 뜻하고, '판니판니'는 두소판, 즉 관작을 지닌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우삼아간'은 총애를 받는 3~4명의 총신을 가리키고, '부이'는 진성 여왕의 유모인 부호 부인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진성 여왕은 누가 이 글을 썼는지 찾아보게 하였지만 알 수가 없었고, 신하들은 문인으로서 뜻을 이루지 못한 왕거인의 작품일 것이라고 거짓으로 고하였다. 이에 왕거인은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혔고,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시를 써서 감옥 벽에 걸어두자 갑자기 구름을 동반한 천둥과 우박이 내리치므로 왕이 놀라서 왕거인을 풀어 주었다고 한다.

농민 봉기와 원종 · 애노의 난 28차시

농민 봉기는 헌덕왕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때 흉년이 들어 기근이 일어나자 지방의 주군에서 조세를 바치지 않아 국가 재정이 궁핍하였다. 이에 신라 정부는 관리를 파견하여 조세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이는 도리어 지방 사회의 동요를 초래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조세 납부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농민 봉기가 발생하였는데, 원종 · 애노의 난이 가장 처음에 일어난 것이다. 반란이 일어나자 중앙에서는 관리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것은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 능력 상실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원종 · 애노의 난을 계기로 집권층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이 확대되었고, 지방에서는 독자적인 세력을 쌓은 세력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효녀 지은 설화 28차시

"삼국사기"에 기록된 신라의 민간 설화이다. 주인공인 지은이 연권의 딸이었기 때문에 '연권녀 이야기'라고도 한다. 이 설화는 후에 '심청전'의 근원이 되었는데, 주제 의식이 효(孝)이고 이야기 구조도 거의 동일하다. 근원 설화가 판소리로 발전하고, 이것이 다시 고대 소설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비추어 보아 효녀 지은 설화는 심청전의 판소리나 고대 소설의 대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치원과 시무책 10조 28차시

최치원은 868년 12세의 나이로 당에 유학하여 874년에 빈공과에 합격한 후 당에서 관리 활동을 하다가 885년에 귀국하였다. 당시 신라는 농민들이 사방에서 봉기하고 전국적인 내란이 일어나는 등 큰 혼란을 겪던 시기였다. 최치원은 사찰을 지키다가 전몰한 승병들을 위해 만든 해인사 공양탑에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최치원은 귀국한 뒤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관리 생활을 하였으나 진골 귀족 중심의 폐쇄적 신분 체제와 문란한 국정 운영에 부딪혀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였다. 이에 그는 중앙 관직을 사양하고 외직(外職)으로 활동하였다. 894년 문란한 정치를 바로잡고자 시무책(時務策) 10여 조를 진성여왕에게 올렸다. 이것은 왕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한 것으로서 현재 전해지지는 않는다. 다만 그의 여러 저술을 통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군왕은 덕화 정치를 이루어야 하며, 백성 교화에 힘쓰고, 출신 배경이 아닌 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할 것 등을 건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진성 여왕은 최치원의 시무책을 받아들였으나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개혁이 실천에 옮겨지지는 못하였다.

최치원은 때를 잘못 만나 자신의 뜻과 실력을 펴지 못함을 한탄하여 산림과 강변을 소요하며 생활하다가 해인사에 들어가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다.

호족의 성장 29차시

호족은 신라 말에서 고려 초까지 활동하던 지방 세력이다. 신라 말기에 중앙 진골 귀족 사이에 세력 다툼이 격화되어 지방 장악력이 크게 떨어졌는데, 이는 각 지방에서 호족들이 대두하는 원인이 되었다.

호족으로 성장한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중앙 귀족 출신이 지방으로 내려간 경우이다. 이들은 김주원의 경우와 같이 왕위 쟁탈전에서 밀려나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지방관으로 파견되었다가 중앙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자 그 지역을 장악하여 독립적인 세력이 되었다. 고려의 왕건에게 귀순해 왕씨 성을 하사받은 왕순식의 본명은 김순식이었다. 그가 김주원의 직계 후손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세력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호족이 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둘째, 지방의 토착 세력인 촌주가 성장한 경우가 있다. 진보 성주를 자칭한 홍술이나 재암성 장군을 자칭한 선필 등은 이런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지방 군진이나 해상 세력을 기반으로 호족이 된 경우이다. 신라 말에는 해상 방어를 위해 해안 여러 요지에 군진을 설치하였는데, 이곳에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배경으로 군진 세력이나 해상 세력을 형성한 이들이 호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완도의 청해진을 바탕으로 성장한 장보고, 예성강 유역의 패강진 세력을 기반으로 한 왕건, 강화도의 혈구진을 기반으로 성장한 유천궁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호족들은 지방에서 농장과 사병으로 자신의 지배 권역을 형성하고 신라 말 사회 변동을 주도하였다.

6두품의 활약과 한계 29차시

> 나라에 5품이 있으니 성이(聖而), 진골(眞骨), 득난(得難)이라. 이중 득난은 귀한 성을 얻기 어려움을 이야기한 것이다. "문부(文賦)"에서 "혹 구하기는 쉽지만 얻기는 어렵다."라고 말한 것을 따서, 6두품을 말하는 것이다.
>
> - 최치원, "보령 성주사지 낭혜 화상 탑비"

> 신라에서는 사람을 쓰는 데 먼저 골품을 따지므로 정말 그 족속이 아니면 비록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더라도 한계를 넘지 못한다. 나(설계두)는 멀리 중화국에 가서 불출의 지략을 발휘하고 비상한 공을 세워 스스로 영광스러운 관직에 올라 의관을 차려입고 칼을 차고서 천자의 측근에 출입하면 원이 없겠다.
>
> - "삼국사기"

신라에는 당에 건너가 재능과 능력을 발휘한 인물들이 많았다. 특히 9세기에 들어 도당 유학은 최고조에 이르러 희강왕 2년(837) 당의 국학에서 수학 중이던 신라 유학생은 모두 216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문성왕 2년(840)에는 수학 연한 10년이 지난 숙위 학생 105명이 당의 명령으로 집단 귀국하기도 하였다.

도당 유학생 중에는 6두품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정치 운영 방식을 개혁하여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야심적인 군주들에게 매우 필요한 존재였지만 결코 신분의 승격을 바랄 수는 없었다. 신라 사회에서 6두품의 승진 상한선은 6관등인 아찬까지였다. 이에 6두품 출신 학자들은 신분을 초월하여 오로지 학문 실력에 기준을 두고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를 갈망하였으며, 진골 위주로 운영되는 골품제 자체를 타파하려는 움직임도 싹트게 되었다.

이들 가운데는 아예 벼슬을 포기하고 승려가 되거나 학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지방의 호족 세력과 결탁하여 반신라 세력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당에 유학하여 '신라 3최'로 이름을 날렸던 최치원, 최승우, 최언위가 있다. 이들

은 빈공과에 급제하여 당에서 벼슬을 하고 돌아와 이미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신라를 개혁하고자 하였으나, 이들이 원하는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최치원은 정치 무대를 떠나 은둔하였고, 최승우는 견훤을 따라 반신라 세력이 되었으며, 최언위는 왕건을 도와 고려를 건국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교종과 선종 29차시

교종은 경전을 중시하여 불교의 진리를 터득하는 학문적 성향을 가진 불교의 교파이다. 따라서 학문을 수행할 수 있는 귀족이 주도하였으며 권위와 전통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통일 신라 때 확립된 교종은 보덕의 열반종, 자장의 계율종, 원효의 법성종, 의상의 화엄종, 진표의 법상종 등 5교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통일 신라 시대에는 학파의 대립은 있었으나 종파는 성립되지 않았으며, 고려 초에 종파가 확립된 것이라고 본다.

선종은 삼국 시대 말에 들어왔지만 교종 세력이 강하여 당시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선종은 복잡한 경전 교리를 떠나, 참선으로 자신의 본성을 구명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교파이다. 선종은 스스로 체득한 깨달음의 진리는 문자로 표현되지 않으므로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의 불립문자(不立文字)를 내세워 대중의 호응을 얻었다. 신라 하대에 이르러 교종이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흐르자, 새롭게 성장한 호족 세력들은 자신의 세력을 정당화하고 그 기반이 될 이념으로 선종을 지원하였다. 선종은 도의(道義)가 가지산문(迦智山門)을 개창한 이후 9산 선문이 성립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선종이 크게 유행하면서 교종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선종은 교종의 논리를 초월하려는 것이지 그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신라 하대에는 화엄종 승려들이 계속 활동하는 가운데 선종이 성장하였다. 선종이 유행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승려들이 화엄 사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교종 승려가 여전히 국사에 봉해지고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당시에도 교종 세력은 강인하게 온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견훤과 궁예 29차시

"내(견훤)가 삼국의 시초를 찾아보니, 마한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혁거세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진한과 변한은 그를 뒤따라 일어났던 것이다. 이에 백제는 금마산에서 개국하여 6백여 년이 되었는데, …… 지금 내가 감히 완산에 도읍하여 의자왕의 오래된 울분을 씻지 않겠는가?" - "삼국사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무리가 많아졌으므로 나라를 세워 임금을 칭할 수 있다고 하고 ……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지난날 신라가 당 나라에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깨뜨렸다. 그런 까닭에 평양 옛 도읍은 무성한 잡초로 꽉 차 있다. 내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였다. 아마도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것을 원망하였으므로 이런 말을 한 듯하다. 일찍이 남쪽으로 순행하여 흥주 부석사에 이르러 벽에 그려진 신라 왕의 초상을 보고 칼을 뽑아 그것을 쳤다. 그 칼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다. - "삼국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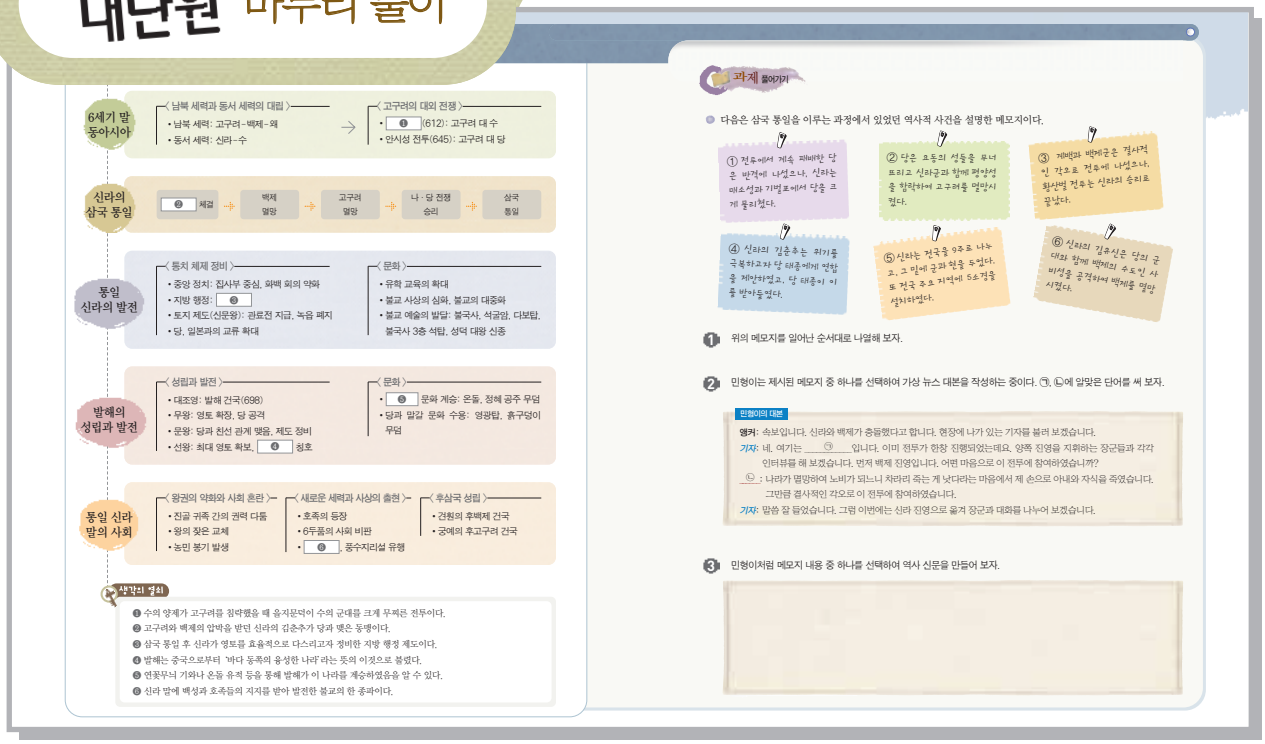
견훤과 궁예는 신라 말에 성장한 호족 세력으로 후삼국 시대를 열었다. 견훤은 신라 군대에 들어가 활약하면서 세력을 모은 뒤 무진주(광주)를 차지하고 영토를 확장해 갔으며 완산주(전주)를 도읍으로 삼고 후백제를 세웠다(900). 견훤은 후고구려와 세력을 다투었으며, 신라의 경주를 습격하여 경애왕을 살해하기도 하였다. 경북 상주에는 견훤이 쌓았다고 전해지는 산성과 옛 성들이 있는데, 견훤과 그 아버지 아자개가 상주 출신이라는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935년에는 왕위 계승 문제로 맏아들 신검이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했으나 탈출하였다. 그리고 고려 왕건에게 투항하여 상부(尙父) 칭호와 양주(楊州)를 식읍(食邑)으로 받았다. 936년 견훤은 왕건에게 신검의 토벌을 요청하여 후백제를 멸망시켰다. 그러나 견훤은 후백제가 멸망한 후 근심하고 번민하다가 등창으로 삶을 마감하였다.

한편 신라 헌안왕의 서자 출신이었던(경문왕의 아들이라고도 함) 궁예는 선종 계열의 승려로 활동하다가 기훤의 부하로 들어갔고, 후에 북원(원주)에서 활약하던 양길의 휘하에 들어갔다. 그는 정치력을 확보한 뒤 자립하여 송악(개성)에서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901). 강원도 철원 지역에는 후고구려의 도성 터가 있다.

대단원 마무리 풀이

교과서 | 110 ~ 111쪽



내용 확인하기

❶ 살수 대첩

✚ 우중문이 이끄는 별동대가 철수하기 시작하자 을지문덕이 이들을 뒤쫓아 총공격을 가하였다.

❷ 나 · 당 동맹

✚ 당 태종은 대동강 이북의 땅을 얻는 조건으로 이 동맹을 체결하였다.

❸ 9주 5소경

✚ 전국을 9개로 나누고 주요 지역에 특별 행정 구역을 설치하였다.

❹ 해동성국

✚ 선왕 시기에 전성기를 맞이한 발해는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발전하였다.

❺ 고구려

✚ 발해는 '고려'를 국호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정혜 공주의 무덤은 모줄임천장 구조를 이루고 있다.

❻ 선종

✚ 수양을 통해 스스로 도를 깨우치는 것을 강조하였고, 전통적인 권위를 부정하였다.

과제 풀어가기

| 지도 요령 |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알고, 그 순서를 익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④ – ③ – ⑥ – ② – ① – ⑤
2. ㉠ 황산벌, ㉡ 계백
3. **| 예시 답안 |**

선택 주제: ⑤ 〈마침내 지방 통치 체제 완성!〉
전국을 9주로 나누고, 5소경 설치

○○○ 기자

삼국 통일 후 전국 지방 행정 체제가 정비되었다. 옛 신라, 고구려, 백제의 영토에 각각 3주씩 편성하여 9주를 두고 그 밑에 군과 현을 설치하여 지방관을 파견한다고 정부는 발표하였다. 주목할 점은 곳곳에 5소경을 설치하였다는 점인데, 이는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옛 고구려, 백제, 가야 세력의 성장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설치하였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대단원 짚고 가기

01 다음 빈칸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을지문덕의 고구려 군대는 수의 30만 별동대를 (가)에서 물리쳤고, 이후 당 태종의 침략에도 (나)에서 끝까지 항전하여 물리쳤다.

	(가)	(나)
①	백강	안시성
②	살수	안시성
③	살수	요동성
④	안시성	살수
⑤	요동성	안시성

02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을 쓰시오.

> 신라의 5만 군사들이 백제를 향해 진격하자 5천의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에서 전투를 벌였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 나라의 위기를 느끼고 아내와 자식을 죽인 후 결사적으로 싸웠으나 결국 패배하고 전사하였다.

03 다음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 • 매소성 전투 • 기벌포 전투

① 백제의 멸망을 가져왔다.
② 나 · 당 동맹이 체결되었다.
③ 백제 부흥 운동이 전개되었다.
④ 신라가 나 · 당 전쟁에서 승리하여 당을 몰아냈다.
⑤ 고구려 부흥군과 나 · 당 연합군 간에 대립이 일어났다.

04 다음 통일 시기의 신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문왕 – 녹읍 폐지
② 신문왕 – 정전 지급
③ 무열왕 – 삼국 통일 완성
④ 문무왕 – 김흠돌의 난 진압
⑤ 문무왕 – 나 · 당 동맹 체결

05 다음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국을 9주로 나누었다.
② 말단 행정 구역인 촌은 촌주가 다스렸다.
③ 북쪽으로 대동강과 원산만을 국경으로 하였다.
④ 5경을 설치하여 필요에 따라 수도를 이전하였다.
⑤ 군과 현을 두어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리도록 하였다.

06 다음 정책들을 실시한 공통적인 목적은?

> • 문무왕은 옛 백제의 지배층들에게 신라의 관등을 부여하였다.
> • 신라의 군대에 백제 사람으로 백금서당, 청금서당을 만들고 고구려 사람으로 황금서당을 편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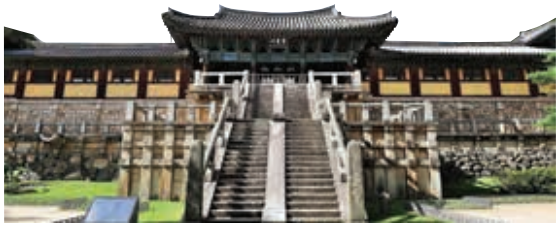
① 민족의 통합
② 농민 생활의 안정
③ 귀족의 기반 약화
④ 골품 제도의 재정비
⑤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 운동 지원

0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은?

> 다양한 불교 경전을 익히며 여러 불교 종파의 조화를 추구하였고, 누구든지 "나무아미타불"을 외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여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① 도선 ② 설총 ③ 의상
④ 원효 ⑤ 혜초

08 다음 유적을 보고 바르게 해석한 학생은?



① 유리: 인공으로 조성한 석굴 사원이지.
② 태연: 발해 상경성에 있는 대표적인 유적이야.
③ 효연: 부처의 나라를 표현해서 건립한 사원이야.
④ 서현: 유학을 중시한 국가의 이념이 반영되었어.
⑤ 윤아: 이곳의 둥근 천장을 만든 조상들의 건축 기술이 놀라워.

09 다음 두 유물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결론과 관련한 사실이 아닌 것은?



▲ 고구려 치미(복원)(좌)와 발해 치미(우)

① 발해 유적의 온돌 터
② 발해의 '고려' 국호 사용
③ 고구려계 대조영의 발해 건국
④ 정효 공주 무덤의 벽돌 축조 양식
⑤ 발해 왕을 고려 국왕으로 표현한 문서

10 다음 〈보기〉에서 선종에 대한 설명을 모두 고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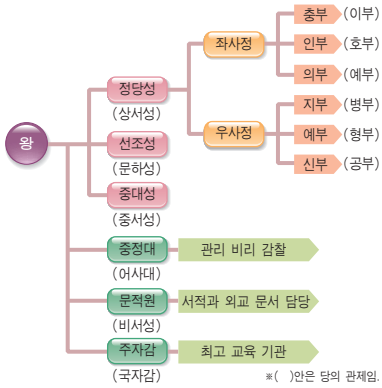
보기
㉠ 개인의 정신 수양을 강조하였다.
㉡ 왕실과 귀족들의 호응을 받았다.
㉢ 경전과 교리의 이해를 중시하였다.
㉣ 호족과 백성들 사이에서 환영을 받았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1 통일 신라의 대외 교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은 세공품과 인삼 등을 당에 수출하였다.
② 장보고, 혜초 등이 당에 건너가 활약하였다.
③ 신라의 불교가 일본에 전해져 큰 영향을 미쳤다.
④ 주요 교통로인 5도를 통해 당, 거란, 일본과 교류하였다.
⑤ 당의 산둥 반도와 창장 강 유역에 신라방, 신라소, 신라관 등이 설치되었다.

12 다음 발해의 통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당의 3성 6부를 그대로 모방하여 운영하였다.
② 국가의 중요한 일은 화백 회의에서 결정하였다.
③ 6부는 유교적 명칭을 사용하여 독자성을 띠었다.
④ 최고 합의 기구인 선조성을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⑤ 정당성의 관할 아래 6부를 일원적으로 운영하였다.

정답

01 ② 02 계백 03 ④ 04 ① 05 ④ 06 ① 07 ④ 08 ③ 09 ④ 10 ② 11 ④ 12 ③

Ⅳ 고려의 성립과 변천

1 단원의 개관


▲ 화순 운주사 석탑(전남 화순)

이 단원에서는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의 제도 정비와 대외 관계, 그리고 무신 정변 이후 고려 후기 사회의 변천을 다룬다. 먼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발해 유민을 수용한 과정과 그 의의를 살펴보고, 귀족 중심의 정치 체제를 정비한 내용과 대외 관계를 전쟁과 교류를 통해 파악한다. 이어 무신 정변 이후 고려 후기 지배 세력의 변화와 몽골과의 항쟁 과정을 살펴보고, 불교와 귀족 중심으로 전개된 고려 문화의 특징과 그 변화를 이해한다.

01.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그 의의에서는 고려가 건국되고 후삼국을 통일한 과정과 후삼국 통일이 갖는 의의를 파악한다. 그리고 고려 태조 왕건이 민심을 수습하고 호족을 포섭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 내용을 파악하고 북진 정책을 추진한 배경과 그 결과를 살펴본다.

02. 통치 체제의 정비와 대외 관계에서는 고려 전기에 왕권을 안정시키고 정치 제도를 정비해 간 과정을 파악하고 귀족 중심의 사회가 성립되었음을 이해한다. 또 거란과 여진 등 북방 민족과의 대외 관계를 전쟁과 교류로 나누어 파악한다.

03. 무신 정권과 농민, 천민의 봉기에서는 고려 전기의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 무신 정권의 성립 및 최씨 무신 정권의 확립 과정 등을 파악한다. 또한 무신 정권 시기에 발생한 농민과 천민의 봉기로 고려의 지배 체제가 동요하였음을 이해한다.

04. 대몽 항쟁과 반원 자주화 노력에서는 대몽 항쟁과 원의 내정 간섭 과정에서 권문세족이 성장하였음을 이해한다. 반원 자주화의 노력을 살펴보고 개혁과 외세 극복 과정에서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였음을 파악한다.

05. 불교문화와 귀족 문화에서는 고려 시대 문화의 특징을 불교와 귀족 문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고려 시대에는 불교, 유교를 비롯한 사상이 발전하면서 많은 불교 문화재가 만들어졌고 다양한 역사 서술이 이루어졌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청자, 인쇄술과 화약, 목화 재배를 중심으로 고려 문화의 발달 내용을 파악한다.

2 단원의 목표

지식 · 이해	•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시행한 정책을 알고 그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 공민왕이 시행한 반원 자주화 정책의 내용과 그 성과를 알 수 있다. • 고려 시대에 이룩한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알고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기능	• 무신 정권 시기에 농민과 천민의 반발이 있었던 지역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려가 북방 민족이나 이민족의 침입에 대항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지켜 온 과정을 연표로 정리할 수 있다. • 고려 지배 세력의 변천 과정과 각 시기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정리할 수 있다.
가치 · 태도	•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우리 역사상 실질적 통일 왕조였음을 이해하고, 민족의 분열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 고려의 지배 세력이 각 시기의 모순을 극복하는 내용을 통해 시대의 모순을 개혁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과 과학 기술의 내용을 알고 이를 계승 · 발전시키는 태도를 갖는다.

3 단원의 구조와 지도 계획

차시	중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
30	01.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그 의의	1. 고려의 후삼국 통일	왕건, 고려 건국, 후삼국 통일, 지방 호족 세력, 6두품
31		2. 태조의 정책	민심 수습 정책, 호족 포섭 정책, 사심관, 기인, 훈요 10조, 북진 정책
32	02. 통치 체제 정비와 대외 관계	1. 통치 체제의 정비	노비안검법, 과거제, 최승로의 개혁안, 2성 6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경기와 5도 양계, 공음전, 음서, 문벌 귀족
33		2. 북방 민족과의 관계 ~ 3. 고려의 대외 교류	서희, 강동 6주, 귀주 대첩, 천리 장성, 별무반, 동북 9성, 개방적 대외 정책, 벽란도, 아라비아 상인
34	03. 무신 정권과 농민, 천민의 봉기	1. 무신 정권의 성립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무신 정변과 최씨 무신 정권, 교정도감, 정방, 도방, 삼별초
35		2. 농민과 천민의 봉기	무신 정권의 횡포, 조위총의 난, 망이 · 망소이의 난, 김사미 · 효심의 난, 만적의 신분 해방 운동
36	04. 대몽 항쟁과 반원 자주화 노력	1. 몽골의 침략과 고려의 항쟁 ~ 2. 공민왕의 반원 자주화 노력(1)	강화도 천도, 처인성 전투, 개경 환도, 삼별초의 항쟁, 정동행성, 고려와 몽골의 문물 교류, 권문세족
37		2. 공민왕의 반원 자주화 노력(2) ~ 3.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	쌍성총관부 회복, 신돈, 전민변정도감, 정도전, 정몽주, 홍건적, 왜구, 최영, 이성계, 위화도 회군
38	05. 불교문화와 귀족 문화	1. 불교와 다양한 사상의 발달	의천과 지눌, 천태종, 조계종, 불교 문화재, 안향, 성리학, 삼국사기, 삼국유사
39		2. 예술과 과학의 발달	귀족 문화, 고려청자, 팔만대장경, 금속 활자, 최무선의 화약 발명, 문익점의 목화 수용

4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 고려가 후삼국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과 통일 이후 시행한 정책의 역사적 의의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도한다.
-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 내는 과정을 통해 국난 극복의 바람직한 자세를 갖추도록 지도한다.
-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활동과 함께 다수의 사회 계층이 전개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 불교문화와 귀족 문화에 국한하지 않고, 당시에 발전한 다양한 예술과 과학 기술에도 주목하여 지도한다.

5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 변태섭, "고려사의 제 문제", 삼영사, 1986.
- 전국 역사 교사 모임, "사료로 보는 우리 역사", 돌베개, 1997.
- 한국 역사 연구회, "고려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청년사, 1997.
- 국사 편찬 위원회, "7차 중학교 국사 교사용 지도서", 2009.
- 김덕진, "연표로 보는 한국 역사", 도서 출판 선인, 2002.
- 박종기, "새로 쓴 5백년 고려사", 푸른역사, 2008.
-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이야기(고려)", 솔, 2006.
-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 1991.

| 교과서 |
114 ~ 117쪽

Ⅳ. 고려의 성립과 변천

01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그 의의

학습 목표

-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과 그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 태조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한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 태조가 추진한 북진 정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30	**1. 고려의 후삼국 통일**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도선의 예언대로 송악(개성)에서 태어난 인물이 이룬 업적은 무엇일까? [전개] •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는 과정을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과 발해 유민의 수용을 연표를 통해 확인하고, 후삼국 통일의 의의를 설명한다. • 태조 왕건이 궁예, 견훤, 경순왕 등 당시의 다른 지배자와 달랐던 점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지도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글짓기를 하고 발표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후백제의 건국자로서 고려에 귀순한 인물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강의식 발표식 문답식	CD PPT 115쪽 지도 학습지
31	**2. 태조의 정책**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고려가 거란의 사신이 친교를 맺고자 가져온 선물(낙타)을 굶겨 죽인 이유는 무엇일까? [전개] • 태조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을 민심 수습과 호족 포섭 정책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 태조의 정책 내용을 교과서의 '훈요 10조'에서 확인하고, 그가 실시한 호족 관련 정책과 북진 정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시킨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태조가 호족의 자제들을 중앙에 불러 지역 사정에 대한 자문을 구한 제도는? 2. 태조가 추진한 정책으로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내세우고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자 한 것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강의식 발표식 문답식	CD PPT 116, 117쪽 자료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고려의 후삼국 통일

(1) 고려의 성립

① 궁예의 실정

- 개혁 추진: 미륵불 자칭, 이상 사회 추구, 왕권 강화 시도(연호 사용)
- 폭압 정치: 부하와 측근 숙청, 민심 상실

② 왕건의 등장: 송악 출신의 호족, 금성(나주)을 점령하는 등 공을 세워 시중의 지위에 오름.

③ 고려의 건국(918)

- 궁예 축출: 신하들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 추대
- 건국: 국호 '고려', 연호 '천수', 철원에서 송악(개성)으로 천도
- 정책: 정치 안정과 민심 수습 노력 → 지배 체제 안정, 후삼국 통일 전쟁 추진

(2) 고려의 후삼국 통일

① 고려와 후백제의 대결

- 후백제: 초기에 삼국 중 우위 차지, 신라 공격
- 고려: 신라를 도와 신라의 민심 획득, 후백제에 열세 → 고창(안동) 전투 승리로 전세 역전

② 후삼국 통일: 왕위 계승을 둘러싼 후백제의 내분 → 견훤의 고려 귀순 → 신라 경순왕의 귀부(935) → 후백제 멸망(936), 후삼국 통일

③ 후삼국 통일의 의의

- 자주적 통일: 우리 민족 스스로 통일 이룩
- 민족 재통합: 신라, 후백제, 발해 유민까지 흡수 → 실질적인 민족 재통합, 민족 문화 발전 토대 구축
- 사회적 변화: 지방 호족 세력과 6두품 출신의 지배층 편입 → 골품제의 폐쇄성 극복, 개방화 경향

2. 태조의 정책

(1) 민심 수습과 호족 포섭

① 민심 수습 정책: 군대의 규율을 엄격히 하여 백성 보호, 세금 부담 경감에 노력

② 호족에 대한 정책

- 호족 포섭 정책: 공을 세운 호족에게 토지와 관직 하사, 유력한 호족의 딸과 혼인, 왕씨 성 하사
- 사심관 제도: 고위 관리에게 출신 지역의 통치 위임
- 기인 제도: 지방 호족의 자제를 중앙에 머물게 함.

③ 통치 규범 제시

- 정계, 계백료서: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 제시
- 훈요 10조: 후대의 왕들에게 정책 방향 제시

(2) 북진 정책

① 고구려 계승 의지: 고구려의 옛 땅 회복 추진

② 거란 정책

- 발해 유민 수용: 거란의 침입으로 발해 멸망 → 발해 유민을 받아들여 서북 지방에 거주하게 함.
- 거란 배척: 거란의 친선 외교 제의 거부 → 사신을 유배하고 낙타를 굶어 죽임, 후대의 왕들에게 거란을 경계하도록 함.

③ 북진 정책 추진

- 서경 중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 성을 쌓고 서경이라 부르며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음.
- 영토 확대: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확보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14쪽

도선은 고려 태조 왕건이 개성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다고 한다. 왕건은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하였으며, 민심을 수습하고 호족을 포섭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그리고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16쪽

태조는 건국 초부터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내세우며 북방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 무렵 고려의 북쪽에 있던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고려와 친선 관계를 맺고자 사신과 선물(낙타)을 보내오자, 고려는 이를 거부하는 의미에서 낙타를 굶겨 죽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16쪽

1. 사심관
2. 예시 답안 태조는 중앙의 고위 관리를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지방 통치의 책임을 부여하고, 지방 호족의 자제를 기인으로 삼아 개경에 머물게 하였다. 이것은 태조가 지방 호족을 포섭하는 동시에 이들을 통제하려는 정책이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17쪽

1. (1) 송악(개성), (2) 평양(서경)
2. ㉠ – ㉢ – ㉡ – ㉣
3. (1) ㉡, (2) ㉠
4. 공을 세운 호족에게 관직과 토지를 주고, 유력한 호족 세력과 혼인 관계를 맺었으며, 왕씨 성을 하사하였다.

내용 더하기

왕건의 호족 세력 기반 30차시

왕건의 선대는 예성강 일대에서 세력을 크게 떨친 해상 세력을 바탕으로 호족이 된 집안이다. 왕건의 집안이 이미 선대인 강충 때 군을 옮기고 그곳의 상사찬(신라 17관등 중 제8 등급, 촌주의 위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는 것이나, 할아버지 작제건 때에 개주(개성), 정주(예성강 하류), 염주(연안), 백주(백천), 강화, 교동, 하음 등의 백성을 동원하여 성을 쌓고 궁실을 지은 것으로 보아 개성을 중심으로 황해도 일부와 강화도 및 한강 하류 일대에 큰 세력을 형성한 호족 세력임을 알 수 있다.

후백제 왕실의 내분 30차시

견훤의 맏아들 신검은 견훤을 김제 금산사에 유폐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고려사"에서는 견훤이 넷째 아들인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맏아들 신검이 아우 양검, 용검과 모의하여 난을 일으켰다고 하였다. 신검에 의해 금산사에 유폐되었던 견훤은 3개월 후에 금산사를 탈출하여 고려의 영역인 금성(나주)으로 들어가 왕건에게 귀부하였다. 왕건은 견훤을 맞이하여, 상보(尙父)라 칭하고 백관보다 높은 지위를 주었다. 또한 양주를 식읍으로 주었으며, 금과 비단, 노비 40인과 말 10필을 하사하였다. 이 같은 태조의 견훤 우대는 민심을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935. 3.	견훤, 왕위 계승 문제로 장남 신검과 다툼 → 신검, 양검 · 용검 · 능환과 모의하여 견훤을 금산사에 가둠, 막내 금강을 죽이고 왕위에 오름
935. 6.	견훤, 금산사를 탈출하여 금성을 거쳐 고려에 항복 → 고려는 견훤에게 상부 칭호와 식읍 하사
936. 2.	박영규(견훤의 사위)가 고려에 투항
936. 6.	견훤의 요청으로 후백제 정벌 추진
936. 9.	후백제 멸망 → 고려는 신검에게 관직 하사 → 견훤이 분을 못 이겨 앓다가 사망

고창 전투 30차시

왕건은 신라에 대해 친선 정책을 써서 920년 10월 견훤이 신라를 침범하자 신라에 구원병을 보냈다. 이에 따라 후백제와 고려는 서로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후백제가 고려와 신라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 안동 일대를 군사적으로 압력하면서 이 지역에서 양국 간에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초기에 고려는 후백제와의 군사적 대결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930년 왕건이 고창(안동) 전투에서 견훤의 주력 부대를 대파함으로써 비로소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태조의 민생 안정 정책 31차시

"짐은 덕이 적은 사람으로 왕업을 창건한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비록 하늘이 도와주는 위업에 힘입었으나 역시 백성의 추대하는 힘에 의지하였으니,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히 살고 집집마다 모두 착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한다. 그러나 쇠락한 때에 조세를 면제해 주고 농업을 권장하지 않으면 어찌 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만족하게 할 수 있겠는가? 백성들에게 3년간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 주고,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는 자는 전리로 돌아가게 하며, 곧 대사(크게 사면)하여 함께 휴식하도록 하라."

- "고려사절요" 권 1, 태조 원년 8월

왕건은 즉위 초부터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 취민유도(取民有度)를 표방하면서 궁예 치하의 가혹한 조세를 경감하는 제도적 조치를 취하였다.

사심관과 기인 제도 31차시

사심관을 둔 것은 원래 민인을 주관하고 관품을 구별하며 부역을 공평하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공전을 널리 차지하고 민호를 많이 숨긴다. 부역이 약간 있으면 으레 녹전(綠轉)을 거두는데 이렇게 되면 서울로 올라온 향리가 사사로이 집에서 장형(杖刑)을 결정하고 동(銅)을 징수하며 녹전을 도로 받는 등 위복(危福)을 마음대로 누린다. 향촌에 해를 주고 국가에 도움이 없어 이미 다 없앴으니, 그들이 숨긴 토지와 민호를 찾아내 종전대로 하라. ……

- "고려사" 권 84, 충숙왕 5년 5월

기인은 1,000정(丁) 이상의 고을이면 족정(足丁)이라 하여 나이 40세 이하 30세 이상의 사람을 뽑아 올려 보내게 한다. 1,000정 이하의 고을이면 반족정이라 하여 병(兵) · 창정(倉正) 이하 부병(副兵) · 창정(倉正) 이상을 막론하고 부강정직한 사람을 뽑아 올려 보내게 하되 족정은 15년을 기한으로 하고 반정은 10년으로 한정하여 입역하게 한다. 반정이 7년에 이르고 족정이 10년이 되면 동정직(同正職)을 허락해 주고 입역한 기한이 끝나면 관직을 더 준다.

- "고려사" 권 75, 문종 31년

사심관 제도는 신라의 경순왕을 경주의 사심으로 삼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사심관은 중앙의 고위 관료나 공신에게 출신 지역의 부호장 이하의 향직 임명권을 주어 향리를 규찰하고 치안 유지의 책임을 맡게 한 것이다.

한편 기인 제도는 지방 호족의 자제를 개경에 머무르게 하여 딴마음을 못 먹게 한 것이다. 기인은 처음에는 상당한 대우를 받았으나 고려의 통치 체제가 안정되면서 그 지위가 낮아졌다. 사심관과 기인 제도는 지방 호족 세력에 대한 견제와 통합을 위해 실시된 제도이다.

태조 왕건의 혼인 정책 31차시

태조 왕건은 호족 세력과 적극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다양한 지방 세력을 포용, 흡수하여 분열된 후삼국 사회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그는 29명의 부인을 두어 왕자 25명과 왕녀 9명을 얻었다. 부인들의 출신지를 분석해 보면 옛 고구려 지역 16명, 후백제 지역 4명, 신라 지역 6명 등 전국의 지방 세력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는 유력한 지방 세력의 딸과 혼인하여 호족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자손을 많이 두어 왕가의 기반을 다짐으로써 왕실의 번영을 추구하였다.

훈요 10조 속의 북진 정책 31차시

훈요 10조는 태조 왕건이 죽기 1개월 전인 943년 4월에 박술희를 불러 후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의 유훈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북진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4조 우리는 예로부터 중국의 풍속을 본받아 문물과 예악이 모두 그 제도를 준수해 왔으나, 나라와 풍토가 다르고 사람의 성품이 다르니 반드시 같게 할 필요가 없다. 거란은 금수와 같은 나라로 풍속이 같지 않고 언어도 다르니 의관 제도를 본받지 마라.
>
> 제5조 짐은 산천의 보살핌과 도움을 받아 대업을 이루었거니와, 서경은 수덕이 고르고 순하여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 되는 곳이니 대업 만대의 땅이다. 마땅히 춘하추동 중간 달에 국왕은 거기에 가서 100일 이상 체류하여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게 할 것이다.

경순왕릉(경기도 연천, 사적 244호) 31차시

신라 56대 마지막 왕인 경순왕(재위 927~935)의 무덤이다. 경순왕은 927년 경애왕이 포석정에서 놀다 견훤의 습격을 받아 시해된 후 견훤에 의해 왕위에 올랐다. 그는 전쟁으로 백성이 많은 피해를 입자 군신의 반대를 무릅쓰고, 935년 신라를 고려에 평화적으로 넘겨주고 왕위에서 물러났다.

경순왕릉은 높이 약 3m, 지름 7m로 흙을 둥글게 쌓아 올린 봉토분이며, 판석을 이용해 둘레돌을 돌렸다. 고려 시대 왕릉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담장인 곡장이 둘려 있어 고려 왕실에서 왕의 예로서 무덤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왕릉 중 유일하게 경주 지역을 벗어나 경기도에 있다.

태조 왕건의 서경(평양) 경영 31차시

태조는 발해의 유민을 포섭하는 한편 서경을 중시하여 이곳을 옛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 삼았다. 평양이 언제 서경으로 승격되었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기록에 '서경'이라는 명칭이 처음 보이는 시기는 921년(태조 4) 10월이다.

태조 원년 9월에 군신들에게 "평양은 고도인데 황폐한 지 이미 오래이다. 가시덤불이 무성하고 오랑캐들이 그 사이에서 유렵하며 침략까지 하니, 마땅히 사민하여 그곳을 충실하게 하여 번병을 굳게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황주, 봉주(봉산), 백주(연백), 염주 등의 민호를 나누어 평양에 살게 하고, 대도호부로 삼았으며, 당제 왕식렴(王式廉)을 보내어 이를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태조 2년 10월에는 평양에 성을 쌓았으며, 4년부터는 평양 대신 서경이라고 불렀다. 그 명칭이 평양(대도호부)에서 서경으로 전환된 것은 이곳이 군사적 목적보다 정치적 목적에서 더 중시되었음을 의미한다.

서경에 대한 태조 왕건의 관심에 대해 종래에는 북방 민족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상의 의의를 강조하거나, 풍수지리 사상과 연결시키거나, 이 지역의 우세한 군사력을 원활하게 동원하기 위한 것 등으로 해석하였다. 최근에는 이와 함께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지의 확보라는 정치적 목적도 컸다는 견해가 있다. 즉 고려 초기에 강대한 호족 세력을 억제하고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 기반이 필요하였는데, 국경 지대에서 방치되던 평양은 기존의 호족 세력이 없어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다는 것이다.

Ⅳ. 고려의 성립과 변천

02 통치 체제의 정비와 대외 관계

학습 목표

- 광종과 성종 시기의 왕권 강화 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
- 고려 전기에 귀족 중심의 사회가 형성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막아 낸 과정과 그 결과를 알고, 여진과의 관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 고려 시대에 개방적인 대외 교류가 전개되었음을 이해하고 벽란도를 중심으로 전개된 국제 교역을 파악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32	**1. 통치 체제의 정비**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광종이 스스로 '짐'이라 하고 백성에게는 '폐하'라 부르게 한 배경은 무엇일까?	문답식	CD
	[전개] • 광종과 성종이 추진한 정책의 목적과 결과를 비교 ·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PPT
	• 고려의 중앙 정치 기구와 지방 행정 조직을 도표와 지도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게 한다.	강의식	119쪽 지도
	• 과거제와 음서제, 전시과와 공음전을 비교하여 고려 전기에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되었음을 추론하게 한다.	탐구식	120쪽 도표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고려 문벌 귀족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 된 제도는?	문답식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33	**2. 북방 민족과의 관계 ~ 3. 고려의 대외 교류**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거란이 침입하였을 때 서희가 외교 담판에 나서서 소손녕에게 주장한 내용은 무엇일까?	문답식	CD
	[전개] • 서희와 강감찬, 윤관 등 북방 민족과의 대결을 승리로 이끈 인물의 활동 내용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122쪽 자료
	• 고려가 송, 거란, 여진 등 주변 국가와 전개한 교류 내용을 소개하여 고려의 대외 정책의 성격을 설명한다.	강의식	124쪽 지도
	• 고려와 아라비아 상인과의 교류 사실을 설명하고, 고려가 서방 세계에 알려진 과정을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33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개척한 땅에 설치한 것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통치 체제의 정비

(1) **왕권의 확립**

① **왕권의 불안정**

- 혜종: 호족 출신 외척과 다른 왕자들의 왕권 위협
- 정종: 서경 천도 추진, 왕권 강화 시도 → 실패

②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

- 노비안검법: 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노비 해방
- 과거제 시행: 학문적 능력을 갖춘 인재 등용
- 공복 제정: 관리의 위계질서 확립

③ **성종의 중앙 집권 체제 정비**

- 유교 장려: 최승로의 시무 28조 수용, 유교의 국가 통치 이념화, 유학 진흥(국자감 설치)
- 중앙 집권 추진: 지방관 파견, 향리 제도 정비

(2) **중앙 정치 제도**

① **중앙 관제 정비**

- 2성 6부 체제: 중서문하성의 문하시중이 국정 총괄, 상서성이 6부를 거느리고 정책 집행
- 중추원(군사 기밀), 어사대(관리 비리), 삼사(회계)

② **회의 기구**: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관들이 국가의 중대사 논의)

(3) **지방 행정 조직**

① **지방 조직 정비**: 성종 때 12목 설치, 지방관 파견

② **지방 행정 체제**: 경기와 5도 양계로 구분

- 경기: 수도 개경과 그 주변의 군 · 현, 3경 제도 운영
- 5도: 일반 행정 구역, 군 · 현과 목 설치
- 양계: 군사 행정 구역, 동계와 북계, 주 · 진 설치
- 특수 행정 구역: 향, 부곡, 소
- 특징: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이 주변의 속현까지 관할

(4) **귀족 중심 사회의 성립**

① **관리의 등용**: 과거와 음서 → 녹봉과 전시과 지급

② **문벌 귀족**: 음서와 공음전을 이용하여 문벌 귀족화 → 왕실 등과 혼인하여 권력 독점

③ **향리**: 과거를 통해 중앙 관리 진출 가능(고려 사회의 개방적 성격 반영)

2. 북방 민족과의 관계

(1) **거란과의 관계**

① **10세기의 동아시아 정세**: 고려의 후삼국 통일(한반도), 거란의 세력 확대(만주), 송의 5대 10국 통일(중국)

② **거란의 침입과 격퇴**

- 배경: 고려의 북진 정책, 고려와 송의 친선 유지
- 거란의 침입: 1차 침입(993) → 서희의 외교 담판(강동 6주 획득) → 2차 침입 → 양규 등의 격퇴

③ **귀주 대첩**: 거란이 강동 6주 반환을 주장하며 재차 침입 →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이 귀주에서 승리(1019)

④ **결과**: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 고려의 천리 장성과 나성 축조(북방 민족의 침입 경계)

(2) **여진과의 관계**

① **여진족의 성장**: 부족을 통일하고 고려 국경 침입

② **윤관의 여진 정벌**

- 별무반 편성: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
- 여진 정벌: 동북 지역에 9성 축성, 1년 만에 반환

③ **고려와 여진의 관계 변화**

- 여진이 강성해져 금 건국(1115) → 요 멸망
- 고려에 사대 요구 → 집권 세력의 수용

3. 고려의 대외 교류

(1) **개방적 대외 정책**

① **교류 확대**: 외국인 출입 허용, 무역 장려

② **송과의 교류**: 고려 무역의 가장 큰 비중 차지

- 수입: 비단, 서적, 약재 등 왕실과 귀족의 수요품
- 수출: 종이, 인삼 등 토산물
- 문물 수입: 사신, 학자, 승려를 송에 보내 선진 문물 수용(초조대장경 간행과 청자 발전에 기여)

③ 해상 교류의 발전
- 해상 교역로: 송, 고려, 일본으로 가는 항로 발전
- 송과의 교역로: 산둥 반도와 중국 남부의 밍저우로 가는 항로 발전

④ 북방 민족과의 교류
- 교역 물품: 말 · 모피 수입, 식량 · 농기구 수출
- 중계 무역: 강동 6주를 통해 송, 거란, 여진을 중계

(2) 벽란도의 번영
① 벽란도: 개경과 가까운 예성강 입구 → 국제 무역 활발
② 일본과의 교류: 금주(김해)와 규슈 사이의 민간 교류
③ 아라비아 상인의 왕래: 계절풍을 이용하여 벽란도를 통해 개경에 와서 상업 활동 전개
- 교역 물품: 수은, 향료를 팔고 식량, 인삼을 사 감.
- 영향: 고려가 서방 세계에 '코리아'로 알려짐.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18쪽

광종은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를 실시하여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이에 반대하는 공신과 호족을 숙청하는 방법으로 왕권을 강화하였다. 광종은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스스로 황제의 격식을 채용하였고, 중국과 대등한 자주국임을 표방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21쪽

서희는 거란이 고려를 침입해 오자 소손녕과 외교 담판을 벌였다. 소손녕이 고려가 거란과 교류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묻자, 서희는 여진이 압록강 동쪽을 차지하고 있어 거란과 교류할 수 없으므로 이곳을 돌려준다면 거란과 교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서희의 외교에 힘입어 고려는 거란의 침입을 피하고,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 지역을 회복할 수 있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22쪽

1. 별무반
2. 예시 답안 백성들을 새로 개척한 지역에 옮겨 살게 하는 것을 사민 정책이라고 한다. 북방의 영토를 개척한 고려는 그곳을 우리의 영토로 계속해서 확보할 목적으로 사민 정책을 시행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23쪽

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항구는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가까운 벽란도이다. 고려 시대 벽란도는 여러 나라 상인들이 드나들던 국제 무역항으로 크게 번성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24쪽

1. (1) 광종, (2) 음서
2. (1) ㉡, (2) ㉢, (3) ㉠, (4) ㉣
3. (1) 도병마사, 식목도감, (2) 성종, 5도
4. 벽란도

내용 더하기

왕규의 난 32차시

혜종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광주(廣州)의 대호족 왕규가 일으킨 난이다. 왕규는 자신의 두 딸을 태조의 15비와 16비로 들인 인물이다. 태조의 뒤를 이어 혜종이 즉위하자 왕규는 태조의 16비가 낳은 광주 원군을 왕으로 세우려 하였다. 그는 혜종의 두 아우 왕요와 왕소 형제를 역모로 무고하였고, 밤중에 왕의 침전에 자객을 보내 왕을 시해하려 하였으며, 스스로 칼을 품고 왕의 침전에 침입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결국 혜종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왕규가 이 틈을 타서 난을 일으키려 하자, 왕요는 서경의 왕식렴을 불러들여 왕규를 귀양 보낸 뒤, 사람을 시켜 그 무리 3백여 명과 함께 주살하였다. 이것은 호족의 세력 확대로 왕권이 안정되지 못하였던 고려 초기의 상황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노비안검법 실시 32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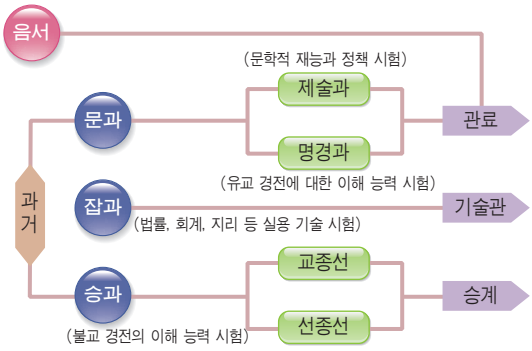
956년 광종은 호족 세력을 억압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원래 양인이었으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거나 빚을 갚지 못해 노비가 된 자를 판별하여 원래의 신분으로 되돌린 것을 말한다. 당시 호족이나 공신들은 많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어서 유사시에 자신의 사병으로 거느릴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광종이 호족의 경제,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고자 노비안검법을 실시한 것이다. 노비안검법의 실시에 따라 왕권이 크게 강화되고 양인의 수가 확보되었으며 호족 출신의 공신들에게는 큰 타격을 주었다.

이처럼 광종은 태조 이래 왕권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를 해결하였는데, 당시 공신들은 이에 대해 원망하면서도 감히 불만을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이는 광종 대의 왕권이 호족이나 공신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되었음을 의미한다.

과거제 시행 32차시

고려의 과거제 시행에 크게 기여한 인물은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이다. 쌍기는 광종 7년(956) 후주의 봉책사 설문우를 따라 고려에 왔다가 병이 나 일행과 함께 귀국하지 못하고 머물게 되었는데, 광종이 그의 재주를 아껴 원보 한림학사에 임명하였다.

쌍기는 광종에게 과거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고, 고려에서는 958년에 처음으로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과거제는 문예나 유학적 소양을 시험하여 그 성적에 따라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로서, 고려 초기부터 정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무훈 공신 세력을 약화시키는 대신, 국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관리를 등용함으로써 왕권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었다.



▲ 고려의 관리 선발 제도

최승로의 시무 28조 32차시

시무 28조는 982년 신라 6두품 출신 유학자 최승로가 새 국왕인 성종에게 고려의 당면 과제에 대해 밝힌 의견서로서, 현재는 22개조만이 전한다. 최승로는 이 상소문에서 유교와 불교는 각각 그 기능이 분리되며, 현실 정치는 유교 사상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승로는 군주가 인과 예를 갖추고 유교적 덕치주의에 입각한 정치를 해야 할 것과 민생 안정, 자주적 대외 정책, 지방관 파견, 불교와 토착 행사의 축소 등을 주장하였다. 성종은 이 같은 최승로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유교 통치 이념에 따른 국가 체제를 정립하였다.

고려의 향리 제도 32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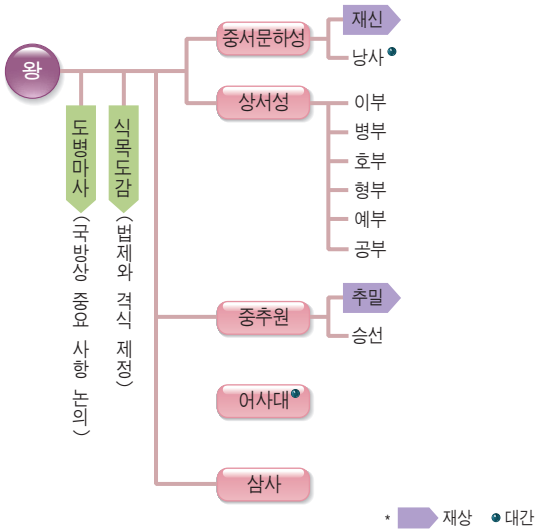
고려의 지방 세력인 향리는 신라 말 호족에서 비롯되었다. 고려는 지방 세력인 호족을 통합하여 성립한 국가였다. 고려가 건국되면서 지방 호족 세력의 일부는 중앙의 관리로 진출하였지만, 대부분은 각 지방에 남아서 지방 행정을 담당하였다.

성종 때에는 지방 관청에 공해전을 지급하면서 토착 세력을 회유하는 한편 이들을 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성종이 지방에 관리를 파견하면서 향리 제도가 체계화하여 당대등, 대등을 호장, 부호장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차별을 명확히 하려는 정책으로 지방 세력의 독자성을 약화시키고 중앙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였다. 한편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과 속현에서는 향리가 사실상 지방 행정을 담당하였다. 향리의 수는 군현의 장정 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장정이 1000명이 넘는 큰 군현의 경우 80명 이상이 되었다.

고려 중앙 정치 기구의 구성 32차시

고려는 중국의 제도와 독자적 정치 기구를 절충하여 중앙 정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고려는 당의 3성 6부제를 수용하고 이것을 다시 고려의 실정에 맞게 2성 6부제로 운영하였다. 즉 3성 가운데 중서성(中書省)과 문하성(門下省)을 합한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을 최고 통치 기구로 하고, 그 아래에 상서성(尙書省)을 둔 2성 체제를 운영하였다. 또한 송의 제도 중에서 중추원(中樞院)과 삼사(三司)를 수용하였다. 중추원은 왕명의 출납과 군사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관장하였고, 삼사는 회계 업무를 관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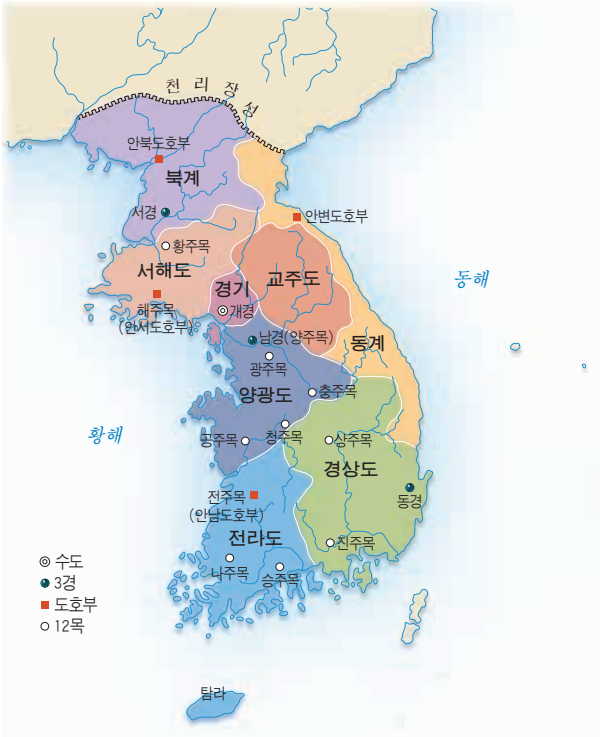
고려의 독자적 기구로는 대외적인 국방 · 군사 문제를 다룬 도병마사와 대내적인 법제 격식을 다룬 식목도감이 있었다. 고려의 재상은 2품 이상으로서, 모두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중서문하성에 소속된 재상을 재신(宰臣), 중서문하성을 재부(宰府)라 하였고, 중추원에 소속된 재상을 추신(樞臣), 중추원을 추부(樞府)라 하였다. 고려의 재상은 재신과 추신을 총칭한 것으로서, 원래는 중서문하성에 5명, 중추원에 7명 등 모두 12명이었다. 이 재부와 추부의 재신과 추신이 같이 모여 구성한 기구로서 외교, 군사, 국방 문제를 논의한 것이 도병마사이고, 국내의 법제 격식을 제정하거나 의논한 것이 식목도감이다.



▲ 고려의 중앙 정치 기구

속현 제도 32차시

"고려사" 지리지에 의하면, 고려 전기의 주현은 130곳이고 속현은 374곳으로 주현보다 속현이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속현 수는 지역별로 경상도가 114곳으로 가장 많고, 양광도 97, 전라도 87, 교주도 25, 서해도 17, 경기 13곳 순으로 분포하였다. 속현의 광범위한 존재는 고려의 지방 제도가 아직 미성숙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

전시과와 공음전 32차시

전시과 제도는 고려 토지 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문무백관에서 군인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관직이나 직역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전답과 땔나무를 채취할 산림을 나누어 준 제도이다. 전시과는 경종 때 처음 제정되었는데 문무 전 · 현직 관료에게 관품과 인품을 참작하여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하였다(시정 전시과). 전시과는 목종 때에 개정되었다가(개정 전시과), 문종 때에 다시 개정되어 인품을 배제하고 오로지 관품에 따라 전지를 지급하는 제도로 완비되었다(경정 전시과). 제1과인 중서령, 상서령, 문하시중에게는 전지 100결과 시지 50결을 지급하였고 제18과인 한인, 잡류에게는 전지 17결을 지급하는 등 관품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전시과는 세습되지 않고 본인이 죽으면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반해 공신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된 공음전은 세습과 매매가 가능하였다. 전시과나 공음전은 모두 소유권이 아니라 조를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지급한 토지였다.

• 고려의 토지 제도 변천

태조 23년(940) – 역분전
경종 원년(976) – 시정 전시과
목종 원년(998) – 개정 전시과
문종 30년(1076) – 경정 전시과
공양왕 3년(1391) – 과전법

문벌 귀족 사회의 토대, 음서제 32차시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 일찍이 과거에 뜻을 두었으나 논리 정연하게 글 쓰는 능력이 없고 문서를 다루는 데도 익숙하지 않아 우연히 문음(음서)으로 인연하여 관리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유학으로 말미암지 않고 입신한다면 무슨 면목으로 벼슬살이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조상들은 모두 이 길을 따라 빛난 자취를 남겼는데 자손으로서 다른 길로 출세할 수 있겠습니까? -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고려 초기의 호족들은 새로운 관료 체제가 정비되면서 문벌을 형성하고 각종 특권을 누리는 귀족 신분층이 되었다. 문벌 귀족을 뒷받침한 대표적인 것이 음서제와 공음전이다.

음서제는 5품 이상의 관직을 지낸 귀족의 자제를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는 제도이다. 과거제가 향리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관직 진출 통로였던 데 비해, 음서제는 고위 관료층에게 관직을 보장해 준 제도였다.

음서의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10세 미만인 경우도 많았고 대략 15세를 전후하여 관직에 나아갔다. 음서 출신 관직자들은 대개 5품 이상의 관리에 진급하고 다시 자손에게 음직을 전수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이 누대에 걸쳐 일어나면서 고려의 문벌 귀족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음서로 진출한 인물들도 다시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일이 많았다. 이는 당시 관료층이 과거 급제를 선호하였고 과거 급제가 관료로 생활하는 데 유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0세기 동아시아의 정세의 변화 33차시

10세기 초 동아시아에서는 분열의 시대가 전개되었다. 중국에서는 당(618~907)이 멸망하고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등 평균 50년, 길어야 70년 정도를 유지한 5왕조와 그 아래에 10국이 존재한 이른바 5대 10국 시대가 전개되었다. 한편 만주 일대에서는 거란족이 중국의 분열을 틈타 907년에 거란을 세웠다. 거란은 요로 이름을 바꾸고 1125년까지 약 200년간 지속되었다. 한반도에서는 900년에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고, 901년에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함으로써 후삼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후 중국은 송에 의해 통일되고, 한반도에서는 궁예를 축출하고 고려 왕조를 건국한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이에 따라 10세기 중반에는 송, 거란, 고려 등 각 지역의 강력한 통일 왕조들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는 다원적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귀주 대첩 33차시

1018년 12월 거란의 3차 침입에 맞서 고려는 강감찬을 상원수로, 강민첨을 부원수로 삼아 20만 8천의 대군으로 소배압이 이끄는 10만의 거란군과 싸웠다. 거란군은 강동 6주의 하나인 흥화진에서 가장 고전하였다. 이 싸움에서 크게 패하고 남진하던 거란군은 자주(자산)에서 추격해 온 강민첨 군대의 공격을 받아 큰 손실을 입었고, 또 서경의 동북 마탄에서 대동강을 건너다 사고를 당하여 거의 전의를 상실하였다.

이에 개경 근처까지 진군하였던 소배압은 황해도 신은현에서 회군하여 연주(평남 개천)와 위주(평북 영변) 사이에서 청천강을 건너려 하였다. 강감찬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하였고, 또다시 귀주를 지나갈 때 총공격하여 거란군은 겨우 수천 명만이 살아 돌아갔다. 이를 귀주 대첩이라 한다(1019).

윤관의 여진 정벌과 동북 9성의 위치 33차시

12세기 초 여진족 완안부가 계속 남하하여 평안도 정주의 천리 장성 부근까지 이르렀다. 이에 고려는 동북면 병마사로 하여금 여진을 토벌하게 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고, 이어 윤관을 보냈으나 그 역시 실패하였다. 윤관은 이때 보병만으로는 여진을 상대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신기군(기병), 신보군(보병), 항마군(승병)으로 구성된 특별 부대를 편성하여 여진 정벌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다. 예종 2년(1107)에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고려 동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여진족을 정벌하고 그 지역에 9개의 성을 쌓았다.

동북 9성은 보통 함주, 영주, 웅주, 길주, 복주, 공험진, 진양진, 통태진, 숭녕진 등을 가리킨다. 기록에 따라 숭녕진과 진양진 대신 의주와 평융진을 넣기도 한다. 그러나 이직까지 9성의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고려사"에는 윤관이 개척한 지역은 그 지방이 3백리였고, 개척한 지경인 선춘령의 공험진에는 경계비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후대 학자들은 9성의 위치와 지역 범위에 대하여 두만강 이북설, 길주 이남설, 함흥 평야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벽란도 33차시

벽란도는 예성강 하류에 있었던 하항(河港)이다. 예성강은 황해도에서 남쪽으로 흐르다가 경기도와 황해도의 경계를 따라 흘러 황해로 들어가는데, 이 일대는 산지 지형에 가까워 강의 흐름이 비교적 빠르고 바다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조수가 밀려드는 불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비교적 물이 깊어 선박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었으며 고려의 수도 개성과 가까이 위치하였기 때문에 고려 시대 제일의 하항이자 국제 무역항으로 발전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중국의 송나라 상인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하여 멀리 남양 지방(南洋地方)과 서역 지방(西域地方)의 해상들까지 벽란도를 자주 드나들며 교역을 하였다. 따라서 벽란도는 국제 교역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가거나 국내로 들어올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역할도 하였다. 벽란도는 또한 수도인 개성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나루터였으며, 육로로는 중국에서 오는 도로와도 연결되어 통행인이 많았던 교통의 요지였다. 벽란도 부근 언덕에는 송나라의 사신 일행이 묵었던 벽란정(碧瀾亭)이라는 관사(館舍)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벽란도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Ⅳ. 고려의 성립과 변천

03 무신 정권과 농민, 천민의 봉기

학습 목표

-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무신 정권의 전개 과정과 권력 기구의 변화를 알 수 있다.
- 무신 정권 하에서 농민과 천민들이 봉기를 일으킨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34	**1. 무신 정권의 성립**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이자겸이 국왕에 버금가는 막강한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왕실과 경원 이씨의 결혼 가계도 및 이자겸의 권력을 보여 주는 사료를 통해 문벌 귀족의 권력을 설명한다.	강의식	125쪽 도표
	•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발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서경파가 주장한 내용을 정리하게 한다.	탐구식	PPT
	• 무신 정권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무신 정권 초기의 정치적 혼란상을 설명한다.	강의식	126쪽 자료
	• 무신 집권 이후 설치된 정치 기구의 성격을 통해 무신 정권의 특징을 파악하게 한다.		127쪽 도표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묘청과 정지상 등 서경 세력이 서경 천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운 사상은?		
	2. 이의민을 제거하고 4대 60년간 이어지는 무신 정권을 수립한 인물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35	**2. 농민과 천민의 봉기**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무신 정권 시기에 노비와 같은 천민 출신으로서 최고 집권자가 된 인물은 누구일까?	문답식	
	[전개]		
	• 무신 집권기에 농민의 생활이 어려웠던 이유를 탐구하게 하고, 이를 무신 정권의 성격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탐구식	128쪽 자료
	• 무신 정권 시기에 농민과 천민이 대대적으로 봉기한 지역을 지도에서 확인하고, 이들이 대대적으로 봉기한 이유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129쪽 지도

35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특수 행정 구역인 명학소에 거주하였으며, 봉기를 지휘하여 한때 충청도 일대를 장악한 인물은? 2. 최충헌의 사노비로 노비들의 신분 해방을 추진했던 인물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무신 정권의 성립

(1)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

① **이자겸의 난(1126)**
- 배경: 왕실과 경원 이씨가 왕실과 거듭된 혼인 관계를 맺고 권력 장악 → 인종과 그 측근 세력의 이자겸 제거 시도
- 과정: 이자겸과 척준경의 반란 → 개경의 궁궐 소실, 왕의 권위 추락 →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

②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1135)**
- 배경: 이자겸의 난과 금의 사대 압력으로 민심 동요
- 서경파의 득세: 묘청과 정지상 등이 인종에게 서경 천도 주장, 고려를 황제국으로 부르고 독자적인 연호 사용과 금 정벌을 건의
- 서경파의 반란: 개경 세력의 반대로 서경 천도 실패 → 묘청 등이 나라 이름을 대위, 연호를 천개라 하며 서경 천도 운동 전개 →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이 1년 만에 진압

(2) 무신 정권의 성립

① **무신 정변의 배경**
-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 문벌 귀족 중심의 사회 질서, 과거에서 무과 불실시, 문관의 군 최고 지휘권 독점, 하급 군인에 대한 토지 미지급
- 의종의 실정: 왕권 회복 추진 실패 후 향락 탐닉

② **무신 정변(1170)**: 이의방, 정중부 등이 정변으로 명종을 세우고 권력 장악(100년간 이어지는 무신 정권의 시작) → 반대 세력의 반란과 무신 상호 간의 권력 다툼으로 정치적 혼란 지속

(3) 최씨 무신 정권의 확립

① **최충헌의 집권**: 이의민 제거, 하층민의 봉기 진압, 봉사 10조의 개혁안 건의(실천 의지 부족)

② **무신 집권 기구**: 교정도감, 정방(인사 담당), 서방(문신 등용), 도방(사병 조직), 삼별초 등

2. 농민과 천민의 봉기

(1) 무신 집권기의 사회 동요

① **12세기 전반기의 농민 생활**: 귀족의 토지 수탈과 고리대로 고통, 여진 정벌 등으로 무거운 세금 부담 → 고향을 떠나는 농민 속출

② **무신 집권의 영향**
- 정치 문란: 무신 상호 간의 권력 다툼 →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력 약화
- 농민 수탈: 무신 집권자의 농장 확대, 지방관의 백성 수탈 심화 → 농민 불만 고조
- 하극상 풍조 만연: 신분 질서 해이

③ **하층민의 반란**: 조위총의 난에 서북 지방 농민 대규모 가담 → 전국에서 농민과 천민의 봉기 발생

(2) 농민과 천민의 봉기

① **특수 행정 구역 주민의 불만**
- 부곡, 소: 일반 군현의 주민보다 과중한 국역 부담
- 공주 명학소의 난: 망이 · 망소이의 지휘 아래 봉기

② **농민의 봉기**
- 김사미와 효심: 경상도 전역에 세력 확대
- 삼국 부흥 운동: 평양, 경주, 담양 지역에서 봉기

③ **천민의 신분 해방 운동**
- 배경: 무신 정권 시기의 신분제 동요, 천민 출신의 최고 집권자 등장 →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 고조
- 만적의 난: 최충헌의 사노비 만적이 개경에서 신분 해방을 주장하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처형
- 노비의 봉기: 전주 등에서 공 · 사노비가 신분 해방 주장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25쪽

왕실의 외척인 이자겸은 자신의 딸과 예종 사이에서 태어난 인종에게 또 두 명의 딸을 결혼시켜 왕실과 거듭된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권력을 독점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28쪽

천민 출신으로 무신 최고 집권자가 된 인물은 이의민이다. 그는 아버지가 소금 장수이고, 어머니는 절의 노비로 알려져 있다. 이의민은 키가 크고 무예가 뛰어나 정중부에게 발탁되었으며, 경대승이 죽은 뒤 최고 집권자가 되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28쪽

1. 무신 세력
2. 예시 답안 무신들은 문신을 제거하고 집권한 후 상호 간에 권력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병을 양성하고 백성을 가혹하게 수탈하였다. 그리하여 농민들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29쪽

1. (1) 이자겸, (2) 금 정벌
2. (1) ㉡, (2) ㉣, (3) ㉠, (4) ㉢
3. (1) 명학소, (2) 김사미, 효심, (3) 만적
4. 예시 답안 무신 정권이 성립된 이후 무신 권력자들은 불법으로 농장을 확대하며 이전보다 더욱 가혹하게 농민을 수탈하였다. 또한 무신 정변 이후 하극상의 풍조가 만연하는 등 신분 질서가 해이해지면서 하층민의 봉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다.

내용 더하기

이자겸의 생활 34차시

이자겸의 권세와 총애는 나날이 성하였으며, 자기에게 아부하지 않는 자는 백방으로 중상하여 왕의 동생인 대방공 보를 경산부로 추방하였고, 평장사 한안인을 섬으로 귀양 보냈다가 죽였다. 또, 최홍재, 문공미, 이영, 정극영 등 50여 명을 귀양 보냈다. 이자겸은 그 족속을 요직에 앉히고, 관작을 팔았으며, 자기의 일당을 많이 배치하였다. 스스로 국공이 되어 자기에 대한 예우를 왕태자와 대등하게 하고,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이라 불렀으며, 전국에서 하례하는 축하문을 전이라 칭하게 하였다.

여러 자식들이 경쟁적으로 큰 집을 신축하였으므로 온 거리에 그들의 집이 줄지어 들어섰다. 그의 세력이 더욱 강성해지고 뇌물이 공공연히 오갔으며, 사방에서 바치는 물건이 넘쳐나 썩는 고기가 언제나 수만 근이었다. 남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으며, 종들을 시켜 마차를 약탈하여 자기의 물건을 실어 들이니, 가난한 백성들은 모두 수레를 부수어 버리고 우마를 팔아 길거리가 떠들썩하였다.

– "고려사" 열전 40, 이자겸전

고려 문벌 귀족 사회의 전성기는 11대 문종에서 17대 인종에 이르는 약 80여 년간이다. 이 기간 동안 경원(인주) 이씨는 5명의 왕에게 9명의 왕비를 들여 외척으로서 세력을 떨쳤다. 특히 이자겸 대에 이르러 그 횡포가 극심해지자 인종과 그의 측근인 김찬, 안보린, 최탁, 오탁 등은 이자겸과 척준경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자겸과 척준경이 함께 난을 일으켜 궁궐을 불태우고 반대파를 제거한 후 왕(인종)마저 독살하려 하였다. 그 후 이자겸과 사이가 벌어진 척준경이 인종의 회유를 받아 이자겸을 제거하였으며, 이어 정지상이 척준경을 탄핵하여 제거함으로써 난이 수습되었다.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34차시

묘청 등이 글을 올려 주장하기를, "신 등이 서경의 임원역의 땅 기운을 보니 이는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뛰어난 명당)입니다. 만약 이곳에 궁궐을 세워 옮기시면 천하를 합병할 수 있을 것이요, 금나라가 스스로 와서 항복할 것이며, 36국이 다 신하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인종)이 드디어 서경으로 행차하고 김안에게 명하여 궁궐을 짓게 하니 때는 바야흐로 차고 얼어서 백성들이 심히 원망하였다.

– "고려사"

이자겸의 난으로 어수선한 상태에서 금의 압력을 받는 가운데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발생하였다. 서경 출신의 신진 관료인 정지상과 승려 묘청, 일관 백수한 등 서경파는 서경 천도를 통해 개경의 문벌 귀족을 누르고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서경파는 개경의 지덕이 쇠하였다는 풍수 도참설과 칭제 건원, 금국 정벌을 내세웠다. 결국 인종도 마음을 움직여 1128년 서경에 대화궁을 짓고 자주 행차하게 하였다. 하지만 개경파의 반발이 심해지자 서경파는 1135년 나라 이름을 대위(大爲), 연호를 천개, 군대를 천견충의군이라 하고 난을 일으켰다.

고려 조정은 김부식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진압군을 편성하였다. 김부식은 먼저 개경에서 서경파인 정지상, 백수한을 죽이고 평양으로 진격하였다. 이때 서경파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하여 조광이 묘청을 죽이고 이후 약 1년 동안 버텼으나, 결국 진압군의 공격으로 평정되었다.

무신 정변 34차시

무신 정변은 크게 두 번에 걸쳐 일어났다. 첫 번째는 1170년의 정변으로, 이해가 경인년(庚寅年)이므로 경인(庚寅)의 난(亂)이라 하였다. 두 번째는 1173년(명종 3)에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金甫當)이 일으킨 것으로, 계사년(癸巳年)에 일어났으므로 계사(癸巳)의 난(亂)이라 하였다. 김보당은 1170년에 정변을 일으킨 주모자를 토벌하고 전왕(前王)인 의종(毅宗)을 옹립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계사의 난을 계기로 무신들이 다시 문신들을 대량으로 살육하였으며, 정부의 요직을 독점하고 정권을 잡아 무신 정권의 확립을 보게 되었다. '무신 정변'으로 불리는 사건은 크게 위의 두 사건을 포함하여 가리키며, 당시에는 위의 두 사건을 합하여 경계(庚癸)의 난이라 하였다.

도방과 삼별초 34차시

"처음에 최우가 나라 안에 도적이 많은 것을 근심하여 용사를 모아 매일 밤 순행하며 폭행을 막게 하고 야별초라고 불렀다. 도적이 여러 도에서 일어나자 별초를 나누어 보내 잡게 하였는데, 그 군사가 매우 많아지자 마침내 좌 · 우별초로 나누었다. 또, 고려인으로서 몽골군에서 도망하여 온 자를 일부로 삼아 신의군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삼별초이다."

- "고려사" 병지

도방은 무신 정권 시기에 등장한 무신 집권자의 사병 조직이다. 경대승이 정중부 일당을 제거한 후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목적으로 처음 100여 명을 무장시켜 결사대를 조직하고 사저에 머무르게 하였는데 이를 도방이라 하였다. 도방은 경대승이 죽은 후 일시적으로 해체되었다가 최충헌이 다시 신변 보호를 위해 1200년에 부활시켰다. 최충헌은 약 3,000명의 사병을 조직하였고, 최항 때에는 이를 더욱 확대 강화하였다. 도방은 원종 때 왕정이 복고 되면서 해체되었다.

삼별초는 최씨 집권기에 조직된 부대로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을 말한다. 삼별초는 무신 정권의 무력 기반으로 사용된 사병이었으나 몽골과의 항전에서 주력 부대로 활동하였고, 왜구의 격퇴 과정에서도 관군의 역할을 하였다.

교정도감과 정방 34차시

교정도감은 무신 집권기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 일명 교정소라고도 하였다. 교정도감은 희종 5년(1209) 4월에 최충헌 부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한 반대파를 적발, 처벌하기 위해 설치했던 임시 기구였다. 그러나 그 후 최충헌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기구로서 뿐만 아니라, 서무를 관장하고 국정을 총괄하는 중심 기관이 되었다. 나중에 교정도감은 비위에 대한 규찰, 공물과 특별세 등 인사 행정과 세무 행정도 담당하였다. 교정도감의 교정별감은 형식상으로는 국왕이 임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최고 무신 집정자가 자동적으로 계승하였다. 최씨 무신 집권기의 교정도감은 1인 지배 체제로서 무신 집권기 정치 지배 기구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방은 최우가 사저에 설치하여 문무백관의 인사권을 장악한 기관이다. 최우는 문사들을 발탁하여 정방에 속하게 한 뒤 이들을 정색승선(政色承宣)이라 하였는데 이들의 권세는 재상을 능가할 정도였다. 정방은 최씨 정권이 무너진 뒤에도 유지되어 권문세족의 지배 기구로 존속하다가 창왕 때 폐지되었다.

무신 정권 시기 농민의 고통 35차시

• 수령의 백성 수탈

"백성은 나라의 근본으로,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해진다. 근래에 수령이 백성을 수탈하면서도 두려워하고 꺼려함이 없으니, 고통을 견디지 못해 유리하는 백성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내가 매우 슬프게 생각한다. 오직 너희 관리들은 탐학한 이속들을 엄히 징계하여 뒷사람들이 경계하도록 하라. 만약 백성들을 가렴주구하고 뇌물을 받는 자가 있으면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중벌에 처하도록 하라."

- "고려사절요", 명종 16년

• 권세가의 토지 수탈

"각지의 부강한 양반들이 빈약한 백성들이 빚을 갚지 않는다고 예부터 내려오는 백성들의 정전을 마음대로 빼앗고 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실업하여 더욱 빈곤해지니, 부호들이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아 겸병하는 것을 금지하고 빼앗은 토지는 모두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 "고려사" 식화지, 명종 18년

Ⅳ. 고려의 성립과 변천

04 대몽 항쟁과 반원 자주화 노력

학습 목표

- 몽골과의 항쟁 과정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원 간섭기에 성장한 권문세족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공민왕이 전개한 반원 자주화 정책과 왕권 강화 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
-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 배경을 알고 위화도 회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36	**1. 몽골의 침략과 고려의 항쟁 ~ 2. 공민왕의 반원 자주화 노력**(1)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몽골의 침입에 맞서 당시의 집권자 최우가 강화도를 임시 수도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문답식	CD
	[전개] • 지도를 보고 고려와 몽골의 갈등, 전쟁 과정을 순서대로 파악하게 한다. • 몽골의 침입으로 발생한 피해를 설명하고 삼별초가 전개한 대몽 항쟁의 의의를 파악하게 한다.	강의식	130쪽 지도 PPT
	• 몽골풍의 내용을 사진 등의 자료를 통해 이해하고, 원 간섭기 권문세족의 횡포를 파악하게 한다.	탐구식	132, 133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원이 일본 원정 시기에 고려에 설치한 내정 간섭 기관은?	문답식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37	**2. 공민왕의 반원 자주화 노력**(2) ~ **3.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신흥 무인 세력인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인 정도전 등이 추진한 개혁 방안은 무엇일까?	문답식	CD
	[전개] • 공민왕이 반원 자주화 정책과 신돈을 등용하여 시행한 왕권 강화 정책을 정리하게 한다.	탐구식	134쪽 자료
	• 신진 사대부와 권문세족이 대립한 배경을 설명하고, 온건파와 급진파 신진 사대부의 개혁 방안을 비교하여 정리한다.	강의식	PPT
	•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한 배경과 침입 과정을 살펴보고, 이들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음을 확인시킨다.		136쪽 지도
	• 요동 정벌이 추진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며 제시한 명분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토론하게 한다.	토론식	137쪽 지도

37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로서 공민왕의 개혁에 앞장선 인물은? 2. 신진 사대부가 추진한 사회 개혁의 바탕이 된 사상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몽골의 침략과 고려의 항쟁

(1) 몽골의 고려 침입

① **몽골과의 접촉**: 13세기 칭기즈 칸 몽골 제국 수립 → 금에 복속되어 있던 거란 격퇴 → 강동성 전투에서 고려와 몽골의 접촉

② **몽골과의 갈등**
- 배경: 원이 고려를 복속국으로 보고 지나친 공물 요구
- 고려와 몽골의 대립: 고려에 온 몽골 사신이 귀국 도중 피살 → 고려와 몽골의 국교 단절

③ **고려와 몽골의 전쟁(1231~1259)**
- 몽골의 침입: 귀주 등 서북 지역의 항전 → 개경 포위, 고려와 몽골 강화
- 강화도 천도: 최씨 무신 정권의 장기 항전 준비, 백성들에게 섬이나 산성에서 몽골과 저항할 것을 지시

(2) 고려의 항쟁

① **몽골의 2차 침입**
- 배경: 고려의 강화 천도를 구실로 다시 침입
- 대항: 승려 김윤후가 처인 부곡민과 함께 몽골군 사령관(살리타) 사살

② **몽골 침입의 피해**
- 인적 · 물적 피해: 수많은 백성 희생, 국토의 황폐화
- 문화재 피해: 초조대장경 판목, 황룡사 9층탑 소실

③ **고려의 대응**
- 대몽 전쟁 지속: 전국을 휩쓰는 몽골의 침입에 맞서 고려군과 백성이 끈질기게 저항
- 팔만대장경 조판: 강화도에서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고자 조판

④ **몽골과의 강화**
- 배경: 최씨 정권의 붕괴 이후 몽골과 강화 추진, 고려의 독립을 약속받고 몽골과 강화
- 고려 정부의 환도: 무신 세력의 환도 반대 → 무신 집권자 피살 후 개경으로 환도
- 삼별초의 저항: 개경 환도 거부, 배중손의 지휘로 봉기 → 진도, 제주도를 옮겨가며 치열한 항쟁 전개

2. 공민왕의 반원 자주화 노력

(1) 원의 내정 간섭

① **원의 간섭**: 국가 체제와 풍속 유지, 원의 내정 간섭으로 고려의 자주성 손상
- 정동행성: 두 차례에 걸친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 → 일본 원정 실패 이후에도 계속 남아 고려의 정치 간섭
- 영토의 상실: 쌍성총관부(동북부), 동녕부(서북부), 탐라총관부(제주도) 설치
- 왕실의 지위 하락: 고려의 왕자가 원에서 성장한 후 원의 공주와 결혼 → 원의 부마국이 됨.
- 관제 격하: 고려 왕실과 중앙 관청의 격이 낮아짐.

② **원의 공물의 요구**
- 물적 수탈: 해마다 금, 은, 인삼, 매 등 특산물을 원에 공물로 바침.
- 인적 수탈: 원에 환관과 공녀 등을 보냄. → 공녀 중 기 황후 등장 → 기씨 일가의 권세

(2) 권문세족의 성장

① **권문세족의 등장**: 원을 배경으로 출세한 세력
- 출신: 몽골 어 통역관, 환관, 응방 관리, 왕세자 수행원 등
- 권력 독점: 비슷한 가문끼리 혼인, 음서를 통해 권력 세습, 농장 확대 → 국가의 재정 감소, 농민의 노비화

② **충선왕, 충목왕의 개혁 시도**: 권문세족의 반발로 실패, 신진 관료 성장

(3) 공민왕의 반원 자주화 개혁

① **배경**: 14세기 중엽 원 · 명 교체기

② **반원 자주화 개혁**
- 친원파 제거, 변발 등 몽골풍 금지, 왕실과 관제 회복
- 정동행성 폐지, 쌍성총관부 탈환

③ **내정 개혁**
- 성균관 개편: 유학 교육 강화, 신진 사대부 등용
- 왕권 강화 시도: 정방 폐지, 전민변정도감 설치(신돈 등용) → 공민왕 시해로 개혁 중단

3.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

(1) **신진 사대부의 성장**

① **신진 사대부**: 유교적 지식을 갖춘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공민왕의 개혁 시기에 본격적으로 정계 진출

- 출신: 지방의 향리나 하급 관리의 자제, 지방의 중소 지주층 → 과거를 통해 중앙에 진출
- 성리학 수용: 도덕과 명분 중시, 고려 사회 개혁 시도

② **신진 사대부의 개혁**

- 배경: 권문세족의 횡포 → 신진 사대부의 토지 침탈
- 추진: 자신의 생활 기반 확대와 농민 생활 안정 추진 → 개혁 방안을 두고 온건파와 급진파로 분열

(2)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① **홍건적**

- 등장: 원 말기에 일어난 한족 반란군
- 침입: 공민왕 개혁 시기에 고려에 두 차례 침입 → 개경 함락 → 이방실, 정세운, 이성계 등이 격퇴

② **왜구**

- 왜구 침입: 쓰시마 섬과 규슈에 근거지를 둔 해적으로 고려의 해안 지방을 자주 침략
- 고려의 피해: 해안 지역의 피해 극심, 세금 수송 곤란 → 내륙 지역까지 피해 확대

(3) **신흥 무인 세력**

① **왜구의 토벌**

- 신흥 무인 세력의 활약: 최영의 홍산 대첩, 이성계의 황산 대첩
- 최무선: 화포를 사용하여 진포에서 크게 승리
- 박위: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 섬 토벌

②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

-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면서 이성계 등이 성장
- 신진 사대부와 함께 고려 사회 개혁 시도

(4) **위화도 회군**

① **친명파와 친원파의 대립**: 14세기 후반 명 건국 이후 명과 친선 관계 유지, 원과도 외교 관계 유지 → 우왕 때 신진 사대부(친명)와 권문세족(친원)의 대립

② **요동 정벌 추진과 위화도 회군**

- 배경: 명이 철령위 설치를 통해 철령 이북 지역 요구
- 요동 정벌 추진: 우왕과 최영의 주도 → 이성계 반대
- 위화도 회군(1388): 이성계가 압록강 입구에서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향함.
- 이성계의 권력 장악: 우왕과 최영 제거 → 정치, 군사적 실권 장악 → 정도전, 조준 등 급진파 신진 사대부와 함께 본격적으로 개혁 추진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30쪽

최우가 몽골과의 장기 항전에 대비하여 수도로 옮긴 곳은 강화도이다. 강화도는 바다 건너에 있어 수전에 약한 몽골의 침입을 경계할 수 있었고, 개경과도 가까워 조세 운송이 용이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32쪽

고려 후기는 몽골(원)의 정치 간섭기로서 고려와 원 사이에 문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고려의 상류 사회에서는 몽골 인의 복장과 음식, 언어 등이 널리 유행하였는데, 이를 몽골풍이라 한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34쪽

1. 신돈의 개혁은 당시 권력을 독점하고 횡포를 부리던 권문세족에게 타격을 주었다.
2. 예시 답안 신돈은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던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양인으로 해방하여 권문세족의 횡포를 줄이고 국가의 재정 수입을 늘리고자 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35쪽

신흥 무인 세력인 이성계는 고려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꾀하는 급진파 신진 사대부와 손을 잡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 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37쪽

1. (1) 권문세족, (2) 신돈
2. (1) ㉠, (2) ㉢, (3) ㉡
3. (1) 신진 사대부, (2) 쌍성총관부, (3) 신흥 무인
4. 팔만대장경

내용 더하기

강동성 전투(1219년, 고종 6년) 36차시

몽골의 테무친(칭기즈 칸)이 금을 정벌하자 중국 대륙에서 큰 동요가 일어났다. 만주에서는 금의 지배를 받던 거란족이 반기를 들었으나 몽골의 공격이 거세지자 압록강을 건너 고려의 영토로 밀려 내려왔다. 이에 고려는 평양의 동

쪽 강동성으로 거란의 주력 부대를 몰아넣었다. 고려가 강동성에서 거란군을 공격할 무렵 만주에서는 금의 장군 포선만노가 동진국을 세우고 활약하고 있었다. 몽골은 동진국과 연합하여 고려의 동북면으로 남하해 들어와 고려에게 거란 섬멸을 위한 공동 작전을 펴자고 제의하였다. 결국 고려, 몽골, 동진국이 연합하여 강동성에 있던 거란족을 섬멸하였다(1219). 이 사건을 계기로 고려와 몽골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해 9월 고려에서는 무신 집권자인 최충헌이 죽고 아들 최우가 집권하였다.

몽골의 무리한 요구 36차시

칭기즈 칸은 이민족을 정복해 가면서 이른바 '6사(六事)', 즉 여섯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고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상대국을 무자비하게 파괴, 살육하였다. 그 조건은 ① 이민족의 왕족이나 자제를 몽골에 인질로 잡아들이는 입질(入質), ② 해당 국가의 재정원을 파악하는 호구 조사, ③ 몽골군에게 식량과 조부(租賦)를 바치는 일, ④ 정복 활동에 군사를 제공하는 조군(助軍), ⑤ 몽골군의 관리인 다루가치(達魯花赤)의 주둔, ⑥ 몽골군의 물자 보급과 연락을 위한 역참(驛站)의 설치 등이었다. 1219년에 강동성 전투를 계기로 고려는 몽골과 형제 맹약을 맺은 이후 계속되는 몽골의 과도한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225년 고려에 온 몽골 사신(저고여)이 귀국길에 피살되면서 양국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강화도 천도와 최씨 정권의 실상 36차시

강화도 시절, 최씨 무신 정권의 생활상
가지런한 수많은 집은 멀리서도 알겠네.
옥루 높은 곳에 비단 장막 올려졌네.
분명 잔치 벌여 붉은 비단 찬란할 걸
바라보기를 멈추니 오직 들리는 건 바람결의 느슨한 풍악 소리
생각건대 기녀들이 소매 걷어 팔 내놓고
애교 띤 얼굴로 술잔 받쳐 들고 가는 눈길 흘리리니
햇발 기울어도 사람들 흩어지지 않을 걸세.

– "동국이상국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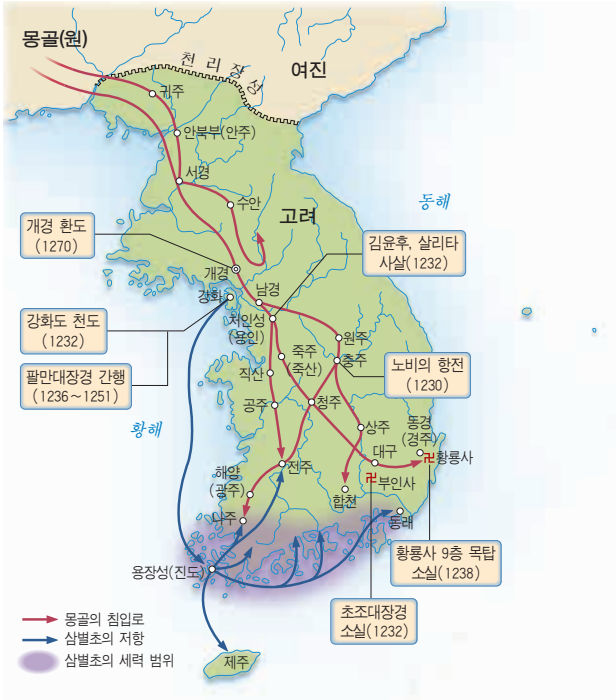
강화 천도(1232)는 몽골과의 굴욕적인 외교 관계를 청산하고 장기적으로 몽골에 대항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그러나 귀족 지배층들은 백성의 고통과 희생을 외면하고 강화도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렸다.

몽골에 맞선 하층민의 투쟁, 충주성 전투 36차시

충주 부사 우종주가 매번 문서를 처리할 때 판관 유홍익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몽골군이 곧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성을 지킬 것을 의논하는데 의견이 같지 않았다. 우종주는 양반 별초를 거느리고 홍익은 노군 · 잡류 별초를 거느리고 서로 시기하다가, 몽골군이 들이닥치자 우종주, 유홍익과 양반들은 모두 성을 버리고 달아났는데 오직 노군과 잡류만이 협력하여 몽골군을 물리쳤다. 몽골군이 물러간 뒤 돌아온 관리들은 몽골군이 약탈해 간 것에 대한 책임을 노비군에게 물어 죽이려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났다.

– "고려사절요" 고종 19년(1232)

위 사료는 몽골의 침입에 대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대응 자세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보여 준다. 최우 등 당시 집권자들은 강화도로 천도하고 항전을 촉구하였으나 하층민에 대한 대책은 거의 세우지 않았다. 결국 하층민 스스로 몽골과 대항하여 싸워야 했다.



▲ 고려의 대몽 항쟁

삼별초의 항쟁 36차시

원종 11년(1270)에 옛 수도(개경)로 환도할 기일을 정하여 방을 붙였는데, 삼별초는 딴마음이 있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왕이 장군 김지저를 강화에 보내어 삼별초를 해산시키

고 그 명부를 거두어 오게 하니, 삼별초는 명부가 몽골에 전해질까 두려워하여 반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배중손과 야별초 지유 노영희 등은 난을 일으켜, 사람들에게 "몽골군이 대거 쳐들어 와서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있으니, 무릇 나라를 지키려는 자는 모두 격구장에 모이라."라고 외쳤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한편으로는 분주히 사방으로 흩어져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고 서로 다투다가 빠져 죽은 자가 많았다. 삼별초는 사람들의 이동을 막으면서 강을 따라 큰 소리로 외쳤다. "만일 배를 타고 개경으로 떠나려는 자는 모두 죽여 버리겠다. 특히, 문무 양반들이 섬을 탈출하는 것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적의 작은 배를 향하여 발사를 하였다. …… 그리고는 병기를 군졸에 나누어 주고 배중손, 노영희가 이들 삼별초를 영솔하고 승화후 온을 왕으로 삼아 관부를 설치하고 관원을 임명하였다.

- "고려사" 배중손 열전

1270년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할 것을 결정하자 삼별초는 이에 불복하고 배중손의 지휘 아래 1000여 척의 배에 사람과 재물을 싣고 진도로 이동하여 그곳을 대몽 항쟁의 근거지로 삼았다. 그 이듬해 여 · 원 연합군의 공격으로 배중손이 전사하자 삼별초는 김통정의 지휘 아래 제주도로 옮겨 가 항쟁을 계속하였다. 삼별초의 항쟁은 무신 정권의 사병 집단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외세의 침략에 끝까지 대항한 고려인의 자주정신을 보여 준 측면도 있다.

1270. 5.	개경 환도, 삼별초의 환도 반대, 정부의 삼별초 해산 명령 → 삼별초의 항쟁 시작(배중손, 왕온을 왕으로 추대) 삼별초의 진도 이동(용장성 구축), 서남 연해 일대와 제주 지역 장악
1271. 5.	진도 함락 → 김통정의 지휘 아래 제주도로 삼별초 이동, 전라도와 경상도 남해안 일대 장악
1273. 4.	여 · 원 연합군(병선 160척, 군사 1만 동원)의 삼별초 항쟁 진압

정동행성과 여 · 몽 연합군의 일본 정벌 36차시

정동행성은 13세기 말 원이 일본 원정을 위해 고려에 설치한 사령부이다. 정식 명칭은 '정동행중서성'인데, '정동'은 일본을 원정한다는 뜻이고, '행중서성'은 중앙 정부 조직인 중서성의 파견 기구라는 뜻이다. 정동행성은 독립된 기관으로 그 장관은 고려 왕이 겸임하게 하였다. 정동행성의 부속 기관으로 정동행성이문소를 두었는데 이곳에서는 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를 다스리는 업무를 맡게 하였다.

원이 정동행성을 설치한 의도는 첫째, 고려 왕을 행성의 승상으로 삼아 고려를 형식상 원의 일개 행성으로 규정하려 하였고, 둘째, 원과 고려의 교섭 통로를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정동행성은 또한 원에 아부하는 세력을 뒷받침하는 기구로도 운영되었다.

세계 제국을 꿈꾸던 원은 일본에게 조공을 재촉하다가 일본이 이를 거절하자 일본 정벌에 나섰다. 원은 1274년 약 3만의 병력으로 합포(마산)을 출발하여 규슈의 하카타를 공격하였으나 태풍으로 실패하였다. 이때 고려는 900척의 전함과 5천여 명의 군대를 동원하였다. 원은 송을 멸망시킨 후 다시 강남군 약 10만과 군선 3500척으로 일본 원정에 나섰다. 고려와 원의 연합군인 동로군은 약 4만 명의 병력과 900척의 전선으로 편성되었다. 고려는 2차 원정에도 전선 900척, 군량미 11만 석, 군사 1만 명을 부담하였다. 이때 원은 일본에 상륙하여 60여 일 동안 전쟁을 벌였으나 일본의 치열한 방어와 태풍 때문에 다시 한 번 실패하였다.

신돈의 등용과 전민변정도감 설치 37차시

왕이 재위한 지 오래 되었으나 재상들이 뜻에 맞지 않았으므로 왕은 "세신 대족은 친당이 뿌리를 이어서 서로 엄폐하고, 초야의 신진은 마음을 속이고 행동을 꾸며서 명예를 탐하다가 귀현이 되면 문지가 한미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대족과 혼인하여 모두 그 처음의 뜻을 버린다. 유생은 유약하여 강직함이 적고, 또 문생이다 좌주다 동년이다 칭하여 서로 당을 이루고 사사로운 정을 따른다. 이 셋은 모두 쓰기에 부족하므로 세상을 떠나 독립한 사람을 얻어 크게 써서 전부터 내려오는 폐단을 고쳐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신돈을 보니 도를 얻어 욕심이 적고 또 미천하여 친당이 없으므로 대사를 맡기면 반드시 뜻한 바대로 하여 자신의 몸을 아끼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선발하여 국정을 맡겼다.

- "고려사"

전민변정도감은 고려 말 국가의 사회 경제 기반을 이루는 토지와 노비를 정비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 관청이다. 원종, 충렬왕, 공민왕, 우왕 때에 설치된 적이 있으나 공민왕 때를 제외하고는 성과가 없었다. 무신 집권기와 몽골 간섭기를 거치면서 권문세족들은 토지를 대대적으로 겸병하고 양인들을 노비로 삼아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하였다. 이에 공민왕은 승려인 신돈을 등용하고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

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신돈을 판사로 삼아 토지와 노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권문세족의 반발로 끝내 개혁은 성공하지 못하였고 신돈은 축출되었다.

쌍성총관부 회복 37차시

함경도의 화주(영흥) 지방은 고려 정부의 통치력이 강하게 미치지 못하여 유이민과 여진인이 섞여 살던 곳이다. 그런데 몽골과의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이던 고종 45년(1258) 조휘와 탁청이 반란을 일으켜 동북면 병마사 신집평 등을 살해하고 몽골에 항복하였다. 이에 원은 화주에 쌍성총관부를 설치하고 철령을 경계로 등주 이북, 정주 이남 지역을 그 관할에 두었다. 그리고 조휘를 총관으로, 탁청을 천호로 임명하는 한편, 따로 다루가치를 파견하여 이 지역을 직접 지배하였다. 이 때문에 고려는 영토가 축소되었고, 원의 압력과 분할 통치에 시달렸다.

원의 세력이 약해지던 공민왕 5년(1356)에 이르러 동북면 병마사 유인우가 무력으로 쌍성총관부를 탈환함으로써 99년 만에 고려의 영토로 회복되었다. 이때에 쌍성총관부 지역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이자춘, 이성계 부자가 유인우를 도와 큰 공로를 세웠다. 후에 이자춘은 동북면 병마사에 임명되어 이 지역에서 더욱 세력을 확대함으로써, 그의 아들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개창할 세력 기반을 형성하였다.



▲ 공민왕의 영토 회복

왜구의 침략과 격퇴 37차시

> 운봉을 넘어온 이성계가 적장 가운데 나이가 어리고 용맹한 아지발도를 사살하는 등 선두에 서서 전투를 독려하여 아군보다 10배가 많은 적군을 섬멸하였다. 이 싸움에서 1600필의 군마와 여러 병기를 노획하였고 살아서 도망간 왜구는 70여 명밖에 없었다. - "고려사"

왜구는 고려 고종 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공민왕과 우왕 때에는 그 침입이 극심해졌다. 왜구의 침입이 심해진 것은 첫째, 일본 국내의 정세가 혼란해지면서 중앙 통제력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통상 교역권이 없었던 서부 연해 지역 주민들이 생활필수품인 미곡을 얻고자 집단적으로 해적으로 돌변하여 약탈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고, 둘째, 여 · 원 연합군의 일본 원정 실패로 일본인의 자만심이 커진데다가, 왜구의 침입을 철저하게 방비할 수 없었던 고려 내부의 모순 때문이었다.

왜구는 세곡을 운반하는 조운선과 세곡을 저장하는 조창을 주로 약탈하였으나 민가도 약탈하여 해안 지방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들을 격퇴한 최영과 이성계는 국민의 신망을 받는 신흥 무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위화도 회군(1388) 37차시

우왕 14년 명의 요동을 공략하기 위해 출정했던 이성계 등이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 우왕을 폐위시키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다.

원을 몰아내고 중국을 차지한 명은 고려에 무리한 공물을 요구하여 양국 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었는데, 1388년에 명이 철령 이북에 철령위를 설치해 요동 도사(遼東都司)의 관할 아래 두겠다고 고려에 통고하였다. 이에 고려가 크게 반발하여 요동 정벌로 이어졌다.

당시 이성계는 '4불가론'을 내세우며 요동 정벌에 반대하였으나, 우왕과 문하시중 최영의 뜻에 따라 요동 정벌이 실행되었다. 고려는 8도의 군사를 징집하고 최영을 팔도 도통사, 조민수를 좌군 도통사, 이성계를 우군 도통사로 임명하였다. 1388년 우왕과 최영은 평양에 머물면서 독전하고, 이성계와 조민수가 이끄는 좌 · 우군은 10만 대군을 자칭하면서 평양을 출발해 의주의 압록강 하류에 있는 섬인 위화도에 진을 쳤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도망치는 군사가 속출했고, 마침 큰비를 만나 압록강을 건너기가 어렵게 되자, 이성계는 이러한 실정을 보고하면서 요동 정벌을 포기할 것을 우왕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우왕과 최영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요동 정벌을 독촉하자, 결국 이성계는 조민수와 상의한 뒤 회군을 단행하였다.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 등은 최영의 군대와 일전을 벌인 끝에 최영을 유배하고 우왕을 폐위하였다.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 등은 전제 개혁을 단행하여 조선 건국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Ⅳ. 고려의 성립과 변천

05 불교문화와 귀족 문화

학습 목표

- 고려 시대 불교 사상의 변화와 불교문화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고려에 성리학이 도입된 과정과 역사서의 서술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 고려 시대 귀족 문화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고려 시대 인쇄술과 과학 기술의 발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38	**1. 불교와 다양한 사상의 발달**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고려 초기에 파주 용미리 마애 이불 입상과 같은 거대한 불상을 조성한 까닭은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고려 불교 사상의 변화를 의천과 지눌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도교나 풍수지리설이 당시에 유행한 배경을 파악하게 한다.	강의식	PPT
	• 불상과 석탑 사진을 바탕으로 고려의 불교 문화재의 특징을 발표하게 하고, 배흘림기둥과 주심포 양식의 특징을 설명한다.	발표식	139쪽 사진
	• 고려 말의 성리학 도입 과정을 설명한다.	강의식	
	• 고려 전기 역사 서술과 원 간섭기의 역사 서술을 비교하여 정리하게 한다.	자기 주도식	140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충렬왕 때 안향이 원에서 들여온 유학의 명칭은?	문답식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39	**2. 예술과 과학의 발달**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중국에서도 명품으로 인정되던 고려청자는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을까?	문답식	
	[전개]		
	• 사진을 통해 고려청자에 대한 감상을 발표하고, 이러한 청자를 일상용품으로 사용했던 계층을 추론하게 한다.	발표식	PPT
	• 팔만대장경의 조판 배경과 우수성을 설명하고, 금속 활자가 목판 인쇄에 비해 유리한 점을 찾아보게 한다.	탐구식	142쪽 사진
	• 고려 후기에 화약의 제조가 왜구 격퇴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목화의 장점을 이해하게 한다.	강의식	143쪽 자료

39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고려의 목판 인쇄술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합천 해인사에 있는 것은? 2. 왜구를 물리치고자 화약 제조법을 익혀 화약과 화포를 만든 인물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불교와 다양한 사상의 발달

(1) 불교 사상의 발전

① **불교 사상의 변화**
- 고려 전기: 의천, 천태종 창시 → 교종 중심으로 선종 통합 시도
- 무신 정변 이후: 교종 쇠퇴, 선종 발달 → 지눌, 선종 중심으로 교종 포용, 조계종 발전(송광사 중심)

② **다양한 사상의 발달**
- 도교: 초제 거행 → 나라와 왕실의 번영 기원
- 풍수지리설: 수도나 집터를 정하는 데 영향
- 민간 신앙: 서낭당 신앙, 무속 신앙 확산

(2) 불교문화의 발전

① **발전의 배경:** 국가 차원에서 불교 숭상 → 왕실과 귀족의 후원으로 불교문화 융성, 연등회 등 불교 행사 개최

② **불상과 불화:** 고려 초기, 호족의 후원으로 웅장한 분위기의 거대한 석불이나 철불 제작 → 고려 후기, 불화 유행

③ **석탑:** 신라 양식 계승, 송 · 원의 영향 → 다각 다층탑
-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초기),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후기)
- 승탑: 고승의 묘탑, 선종의 유행 반영

④ **건축:**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등 현존 → 배흘림기둥, 주심포 양식

(3) 유교의 발전

① **고려 전기 유교의 발달**
- 광종: 과거제 실시 → 유교적 교양인 등용
- 성종: 유교의 국가 통치 이념화, 개경의 국자감 정비, 지방의 향교 설립

② **성리학의 도입**
- 안향: 충렬왕 때 원에서 처음으로 소개
- 학문적 연구: 충선왕이 원의 수도에 설립한 만권당 중심, 이제현 등이 원의 학자와 교류하며 성리학 연구

③ **성리학의 전파:** 이색이 성균관에서 정몽주, 정도전 등 신진 사대부에게 전파

(4) 역사서 편찬

① **고려 초기**
- 실록: 건국 초기부터 실록 편찬, 현존하지 않음.
- "삼국사기" : 인종 때 김부식이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편찬,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② **고려 후기**
- 민족적 자주 의식 반영: 무신 집권기와 몽골 침입을 겪으면서 주체적인 역사서 편찬
- 사서: "동명왕편" (이규보, 주몽의 일대기 서술), "삼국유사"(일연, 단군 기사 수록), "제왕운기"(이승휴, 단군 조선을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기록) 등

2. 예술과 과학의 발달

(1) 귀족 문화의 발달

① **공예 발달**
- 배경: 화려한 귀족 생활과 관련된 공예품 발달
- 대표 유물: 나전 칠기, 청자

② **고려청자**
- 발달 분야: 일상 용품, 불교 의식 도구, 문방구 등
- 변천: 순청자(11세기) → 상감 청자(12세기) → 분청사기(고려 말)
- 상감 청자: 그릇 표면을 긁어내고 다른 색의 흙으로 채워 색과 무늬를 나타내는 기법

③ **불교 예술:** 금은으로 불경 사경, 화려한 불화 유행(귀족들이 꿈꾸던 이상 세계 표현)

(2) 인쇄술 발달

① **발달 배경:** 불교와 유교의 발달, 유교 교육 진흥 → 많은 서적 발간
- 목판 인쇄술: 국가적 사업으로 대장경 간행 → 팔만대장경(최고 수준의 고려 목판 인쇄물)
- 금속 활자: 여러 종류의 책을 인쇄하기에 편리 → "상정고금예문" (세계 최초, 전하지 않음), "직지심체요절" (현존 최고의 금속 활자본, 1377)

② **종이와 먹:** 우수한 품질로 중국에 수출

(3) **화약 제조와 목화 재배**

① **화약 제조**: 최무선의 화통도감 설치 건의, 화약과 화포 제조 → 진포에서 왜구 격퇴

② 목화의 전파

- 도입: 문익점이 공민왕 시기에 원에서 목화씨 도입, 재배
- 영향: 모시나 삼베 대체, 의복 생활의 큰 변화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38쪽

고려 초기에는 지방 호족들이 주도하는 지방 문화가 발달하였다. 지방 호족들은 자신의 힘을 보여 주는 웅장한 규모의 석불 조성이나 철불 주조를 후원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40쪽

1. 예시 답안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를 내세우는 역사가로서 역사 서술에서 설화나 신화는 믿을 수 없는 내용으로 보고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2. 예시 답안 "삼국유사"가 편찬된 시기는 몽골과의 오랜 항전 끝에 강화를 맺고 원의 내정 간섭을 받던 시기로서, 민족적 정체성이 크게 손상되었다. 이에 민족적 자주 의식이 반영된 역사서들이 편찬되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41쪽

고려 청자는 고려의 지배 계층인 귀족의 일상 도구였던 그릇, 술병, 화병, 문방구 등으로 이용되었으며, 불교 의식에서 사용되는 향로로도 많이 만들어졌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43쪽

1. (1) 삼국사기, (2) 직지심체요절
2. (1) ㉡, (2) ㉣, (3) ㉠, (4) ㉢
3. (1) 경천사지 10층, (2) 상감, (3) 만권당
4. 성리학

내용 더하기

의천의 천태종 38차시

천태종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삼국 시대이다. 고려 시대에 들어와 제관이나 의통 등 우리나라 천태종 승려가 중국에 건너가 중국 천태종을 중흥시켰다. 의천은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였고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위해 고려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사상적 바탕으로 이론과 함께 실천을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창하였다. 하지만 의천 사후 교단은 분열되고 말았다.

1055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탄생
1065	출가하여 화엄종 공부
1085	송에 건너가 불교 공부
1086	귀국 후 흥왕사 주지
1094	교장도감 설치
1097	천태종 개창
1101	사망

▲ 의천의 생애

지눌의 조계종 38차시

지눌은 세속의 이익을 추구하던 무신 정권 시기의 불교계를 비판하면서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힘쓰자는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송광사에 중심을 둔 수선사 결사 운동은 개혁적인 승려와 지방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무신 정권 시기에는 문신들의 비호를 받던 교종 불교가 쇠퇴하고 선종이 새롭게 일어나 보조국사 지눌에 이르러 조계종으로 성립되었다. 지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다.

1158	황해도에서 출생
1165	출가(선종 사굴산파)
1182	선과 급제
1190	정혜사 결성
1200	송광산 길상사(송광사)에서 수선사 결성, 정혜쌍수 · 돈오점수 주장, 조계종 성립
1210	사망

▲ 지눌의 생애

구분	천태종	조계종
시기	고려 전기	고려 후기
중심인물	의천(대각국사)	지눌(보조국사)
교리	교관겸수	돈오점수, 정혜쌍수
특징	교종 중심으로 선종 통합	선종 중심으로 교종 통합
후원	왕실과 문벌 귀족	무신 세력

▲ 천태종과 조계종

고려의 불교 정책, 연등회와 팔관회 38차시

여섯 째, 나의 지극한 관심은 연등과 팔관에 있다.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고, 팔관은 하늘의 신령과 5악, 명산, 대천, 용의 신을 섬기는 것이다. 함부로 증감하려는 후세 간신들의 건의를 절대로 금지할 것이다. - "고려사", 훈요 10조 중에서

연등회는 1월 15일 또는 2월 15일에 열렸는데 이때에는 궁중과 민간에서 등을 밝혀 부처에게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기원하고 군신과 함께 가무와 음식을 즐겼다. 이는 태조가 훈요 10조에서 역대 왕들에게 당부할 만큼 중요한 국가적 행사였다. 연등회는 유교 정치를 강조하던 성종 대에 잠시 폐지되었다가 현종 대에 다시 부활되었다.

팔관회는 성종 대를 제외하고는 고려 시대 내내 성대하게 치러진 국가적 행사였다. 음력 11월에 천신과 산천의 신에게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으며, 행사가 시작되면 술과 다과를 곁들인 유희가 있었고 지방관의 축하 선물 봉헌이 잇따랐다. 송 상인을 비롯한 여진, 탐라인들이 방물을 바쳤고 고려 조정에서는 이들에게 하사품을 내렸다.

주심포(柱心包) 38차시

목조 건축 양식인 공포(栱包)의 일종으로, 공포가 기둥머리 바로 위에 받쳐진 형식을 말하며, 목조 건축 양식인 다포계(多包系), 익공계(翼工系)보다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 시대의 주심포 양식 건물로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강릉 객사문 등이 있다. 이 건물들은 배흘림기둥 양식이 뚜렷하며, 공포는 기둥 위에서만 짜이고 공간포를 짜지 않은 형식을 하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고려의 건축을 계승하여 주심포 양식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한편으로 고려 때 발전되어 온 다포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주심포 양식 건물은 그 규모가 더욱 작아지고, 주가 되는 건물은 대부분 다포 양식을 사용하였다. 조선 시대 주심포 양식 건물로는 영주 부석사 조사당, 강진 무위사 극락전, 영암 도갑사 해탈문(道岬寺解脫門), 순천 송광사 국사전 등을 들 수 있다.

안향과 성리학의 수용 38차시

안향이 학교가 날로 쇠퇴함을 근심하여 양부에 의논하기를 "재상의 직무는 인재를 교육하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양현고가 바닥나 선비를 기를 수 없으니, 6품 이상은 은 1근을 내고 7품 이하는 포를 차등 있게 내어 이를 양현고의 본전으로 삼고 그 이식을 취하여 섬학전으로 합시다."라고 하였다. 양부가 이를 좇아 왕에게 아뢰니 왕이 내고의 전곡을 내어 도와주었다. 밀직 고세는 스스로 무인이라 하면서 돈을 내지 않으니, 안향이 제상(諸相)에게 말하기를 "공자의 도는 그 가르침이 만세에 끼쳤으니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우가 형에게 공손함은 누구의 가르침인가. 만약에 '나는 무인인데 어찌 구태여 돈을 내어 너의 생도를 기를 것이냐.'라고 말한다면 이는 곧 공자를 무시하는 것이니 될 말이냐."라고 하였다. 고세가 이 말을 듣고 매우 부끄러워하면서 곧 돈을 냈다. 안향이 남는 돈을 박사 김문정 등에게 주어 중국에 보내 공자와 70제자의 초상과 아울러 제기, 악기, 6경, 제자, 사서 등을 구해 오게 하였다. 또, 밀직부사로 치사(致仕)한 이산과 전법판서 이진을 천거하여 경사교수도감사를 삼으니 이에 금내 학관, 내시, 3도감, 5고의 선비 및 7관 · 12도의 생도로서 경을 끼고 수업하는 자가 수백을 헤아리게 되었다.

- "고려사" 열전 18, 안향전

성균관을 다시 짓고 이색을 판개성 부사 겸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 이색이 다시 학칙을 정하고 매일 명륜당에 앉아 경을 나누어 수업을 하고 강의를 마치면 서로 더불어 논란하여 권태를 잊게 하였다. 이에 학자들이 많이 모여 함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가운데 정주 성리학이 비로소 흥기하게 되었다. - "고려사", 공민왕

안향(1243~1306)은 여러 차례 원을 오가며 그곳의 학풍을 견학하고, 또 직접 성리학 서적을 베껴 오고, 성리학의 국내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다. 안향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학이 크게 일어났으므로, 그를 우리나라 최초의 성리학자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그는 주자가 저술을 통해 불교를 배척한 공이 높으며 공자의 학문을 배우려면 주자의 학문을 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항상 주자를 경모하여 주자의 화상을 벽에 걸어두었으며, 자신의 호도 주자의 호인 회암(晦菴)의 '회' 자를 따서 회헌이라 하였다.

안향이 도입한 성리학은 한국 유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 고려의 불교 세력에 대항하고 나아가 그것을 압도하면서 조선 시대의 건국 이념으로 성장하였다. 안향은 16세기 조선 명종 때에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에 배향되었다.

김부식과 삼국사기 38차시

고려 중기 김부식은 유교 정치 이념을 강조하기 위해 고려 이전의 역사를 사마천의 "사기"와 같은 정사체(기전체)로 정리하여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삼국사기"는 본기, 열전, 세가, 지, 연표 등으로 나누어 편찬하였는데, 군신의 선악과 충사를 통하여 후대인을 경계하는 목적으로 편찬하였기 때문에 유교적 덕목이나 인식에 배치되는 내용은 대부분 제외되었다.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서이며 삼국 시대를 살필 수 있는 대표적인 기록으로서, 우리나라 역사를 독자적으로 체계화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고대 문화의 전통을 부인하는 유교적 사대의식을 바탕으로 고대사의 범위를 축소시켰으며, 신라를 역사의 정통으로 삼아 자료를 취사선택하고, 고조선 역사 서술을 기피함으로써 후대 역사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38차시

"삼국유사"는 승려 일연(1206~1289)이 인각사에서 저술하였다. 삼국의 역사를 연표, 기이, 흥법, 의해, 신주, 감통, 피은, 효선의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삼국유사"는 단군 신화를 비롯해 기자 조선, 위만 조선, 삼한, 낙랑, 대방, 말갈, 발해, 부여 등의 사적을 실었으며, "삼국사기"에서는 빠진 고조선 관련 기사나 설화, 민속, 전설, 사화, 고어휘(古語彙), 성씨록(姓氏錄), 신앙 등이 수록되어 있어 상고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일연이 활동하던 원 간섭기에는 민족적 자주 의식과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시되었다.

"삼국유사"와 인식을 같이하는 역사서로는 이승휴(1224~1300)가 지은 "제왕운기"를 들 수 있다. "제왕운기"는 상하 두 권으로 편찬되었는데 상권은 중국 역사를 7언 고시 264구로 구성하였고, 하권은 우리나라 역사를 단군 조선에서 고려의 통일까지의 7언 고시 263구와 고려 태조의 세계 설화에서 당대인 충렬왕 때까지의 5언시로 구성하였다. 이승휴는 "제왕운기"에서 우리나라 역사의 유구성을 과시하고 발해를 고구려 계승 국가로 인정하는 등 우리 역사를 중국 역사와 대등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저술의 동기는 무신 정권과 몽골과의 항쟁으로 약화되고 있던 민족의 자주성을 되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직지심체요절 39차시

"직지심체요절"은 여러 문헌에서 선(禪)의 깨달음에 관한 내용만을 뽑아 만든 책으로 "직지심경"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이 책은 고려 선종 역사상 귀중한 문헌이지만,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본으로 더 유명하다.

"직지심체요절"은 1372년(공민왕 21)에 저술되었으며, 1377년 청주의 흥덕사(興德寺)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다. 1895년 한국에 와 있던 프랑스 대리 공사가 "직지심체요절"을 수집하여 본국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현재 이 책의 하권이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972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 도서의 해 기념 전시회에 출품되어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받았다. 지방의 사찰 나름의 재래 방법으로 활자를 만들어 인쇄한 것으로, 목활자가 섞이고 크기와 모양이 고르지는 않으나 그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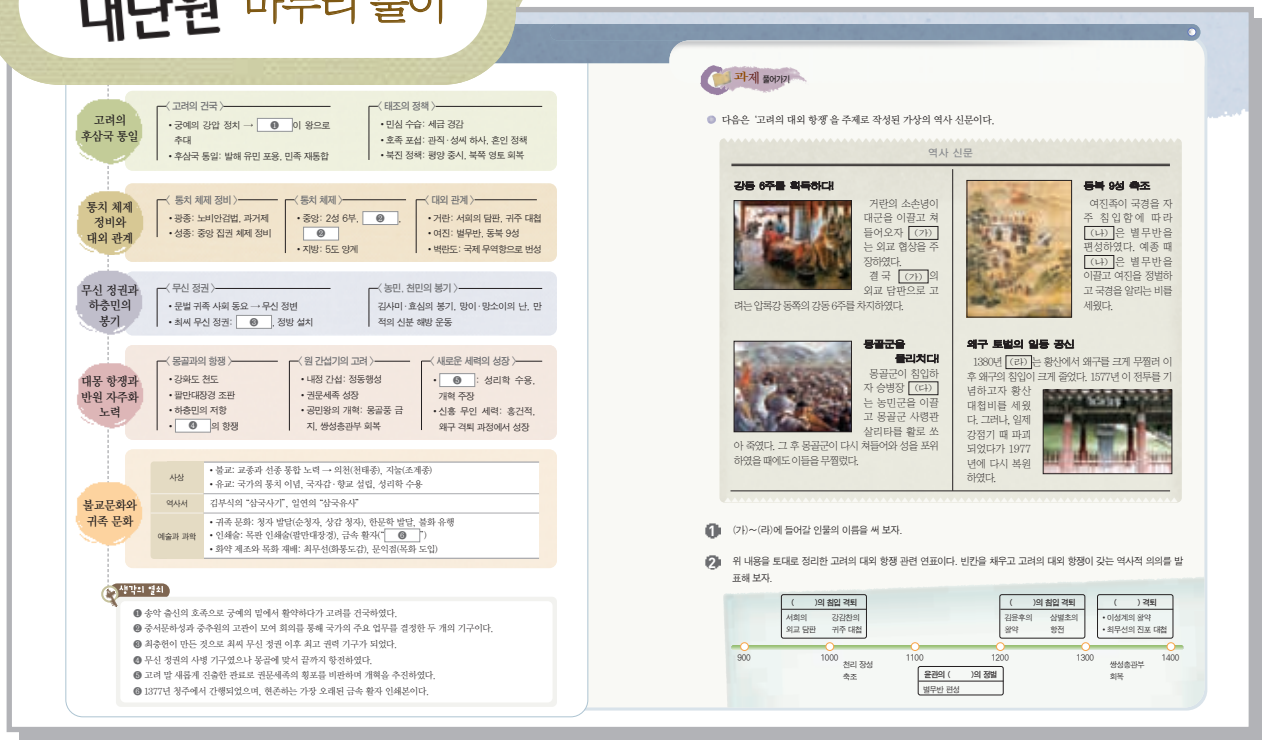
팔만대장경의 조판 39차시

1087년 완성된 초조대장경이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다가 몽골군에 의해 불타 없어지자, 무신 집권자 최우는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새로운 대장경 제작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236년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이 설치되어 16년 만에 팔만대장경이 완성되었다.

경판의 크기는 가로 24cm, 세로 69cm이고 무게는 2.4kg~3.75kg이며, 모두 81,340매가 있어 팔만대장경이라 불린다. 또 몽골의 침입으로 다시 새긴 대장경이기에 '재조대장경', 현재 경남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고 있기에 '해인사 대장경'으로도 불린다. 팔만대장경은 현존하는 세계의 대장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체재와 내용도 가장 완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목판의 재료를 바다에 3년 동안 담갔다가 다시 3년 동안 그늘에서 말렸기 때문에 오랜 세월에도 뒤틀림이 없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팔만대장경은 글씨가 아름답고 오탈자가 없어 동양에 남아 있는 약 3000여 종의 대장경 중에서 가장 완벽한 대장경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1995년 12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대단원 마무리 풀이

교과서 | 144 ~ 145쪽



내용 확인하기

❶ 왕건

✚ 고려의 제1대 왕으로 궁예 밑에 있다가 백성의 신망을 얻어 고려를 세웠다.

❷ 도병마사, 식목도감

✚ 국방상 중요한 사항이나 법제와 격식의 제정을 의논하였다.

❸ 교정도감

✚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권력 기구이며, 책임자는 교정별감이다.

❹ 삼별초

✚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병이면서도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였다.

❺ 신진 사대부

✚ 중소 지주층으로 주로 과거를 거쳐 중앙 정계에 진출하였으며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❻ 직지심체요절

✚ 현재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과제 풀어가기

| 지도 요령 |

고려 초기부터 말기까지 전개된 외세와의 항쟁 과정과 그 주역들을 파악함으로써, 고려 시대가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고 자주성을 지켜낸 시기임을 확인하게 한다. 고려의 대외 항쟁이 우리 민족사의 흐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토론하고 정리하게 한다.

1. (가) 서희, (나) 윤관, (다) 김윤후, (라) 이성계
2. 빈칸 채우기: 거란, 여진, 몽골, 왜구

| 예시 답안 |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고, 거란의 침입을 받았으나 이를 물리쳤다. 또한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을 정벌하기도 하였다. 무신 정권이 수립된 뒤에는 몽골과 30년 가까운 항쟁을 전개하였고 고려 말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였다. 고려가 외세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항쟁한 결과 우리 민족은 자주성을 지킬 수 있었다.

대단원 짚고 가기

01 고려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한 공통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향리의 자제를 기인으로 뽑아 개경에 머물게 하면서 그 출신 고을의 사정에 대해 자문하게 하였다.
> • 과거제를 시행하여 유교적 학식이 있는 인물을 관리로 선발하였다.

① 왕권의 강화 ② 북진 정책 추진
③ 지방 세력의 등용 ④ 국가 재정의 확보
⑤ 유교적 통치 제도의 확립

02 고려의 중앙 행정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서성 – 6부를 거느리고 정책을 집행하였다.
② 중추원 – 왕명 전달과 군사 기밀을 담당하였다.
③ 중서문하성 – 장관인 문하시중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④ 삼사 – 정치의 잘잘못을 따지고 관리의 비리를 조사하였다.
⑤ 식목도감 –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관들이 참여하였다.

03 다음 지도에 표시된 A 지역을 우리나라의 영토로 회복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은?



① 서희의 외교 담판
② 강감찬의 귀주 대첩
③ 윤관의 별무반 설치
④ 양규의 거란군 격파
⑤ 김윤후의 살리타 사살

04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려의 국제 무역항을 쓰시오.

> 이곳은 예성강 하구에 위치하여 수도인 개경과 가까웠으며, 수심이 깊어 지방의 조세를 운송하는 조운선과 국내외 상선이 드나들기에 편리하였다. 당시 이곳에는 아라비아 상인도 왕래하였다.

05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한 인물의 주장이 아닌 것을 두 개 고르면?

> 서경은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기운이 흐르는 곳으로 이곳에 궁궐을 짓고 수도를 옮기면 주변의 국가들이 스스로 항복할 것입니다.

① 금 정벌 ② 황제 칭호 사용
③ 독자적 연호 사용 ④ 노비 신분의 해방
⑤ 무신 차별의 철폐

06 다음 (가), (나)에 해당하는 정치 기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무신의 고관들의 회의 기구였으며, 무신 정권 초기에 통치 기구의 핵심이 되었다.
> (나) 최씨 무신 정권 때 조직된 사병 조직이면서도 공적인 임무를 수행한 특수 부대이다.

① (가) – 중방, (나) – 정방
② (가) – 도방, (나) – 정방
③ (가) – 정방, (나) – 삼별초
④ (가) – 중방, (나) – 삼별초
⑤ (가) – 정방, (나) – 교정도감

07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신분 해방 운동을 전개한 인물은?

> 무신이 정권을 잡은 이래 하찮은 노비 출신으로 공경대부가 된 사람이 많다. 왕후장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겠는가? 누구나 때가 오면 할 수 있다. 어찌 우리만 채찍을 맞으며 힘들게 일해야 하는가?

① 만적 ② 정중부
③ 조위총 ④ 이규보
⑤ 망이, 망소이

08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치 기구는?

> • 원래 원이 일본 정벌을 위해 고려에 설치한 기관이었다.
> • 두 차례의 일본 원정이 실패한 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남아 고려의 내정 간섭 기구로 변질되었다.

① 다루가치 ② 정동행성
③ 도병마사 ④ 쌍성총관부
⑤ 도평의사사

09 다음 권문세족과 신진 사대부를 비교한 도표의 내용이 잘못된 것은?

	구분	권문세족	신진 대사부
①	성장 시기	원 간섭기	공민왕 시기
②	정치적 기반	음서	과거
③	사상적 경향	선종 불교	성리학
④	경제적 기반	대농장 소유	중소 지주
⑤	외교 노선	친명적	친원적

10 다음 지도와 같은 영토 회복이 이루어진 시기에 있었던 개혁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과거제 시행 ② 시무 28조 시행
③ 정동행성 설치 ④ 노비안검법 시행
⑤ 전민변정도감 설치

11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역사서는?

> 원 간섭기에 승려 일연이 저술한 역사서로 고조선부터 삼국까지 신화와 전설,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다. 특히 단군 건국 이야기를 서술하고 가야와 발해의 역사도 다루었다.

① "발해고" ② "삼국사기" ③ "삼국유사"
④ "제왕운기" ⑤ "동명왕편"

12 다음 문화재와 관련하여 알 수 있는 고려 초기의 문화적 특징은?



① 지방 문화 발달
② 귀족 중심의 문화
③ 서민 중심의 문화
④ 중국 문화의 영향
⑤ 고구려 문화의 계승

정답

01 ① 02 ④ 03 ① 04 벽란도 05 ④, ⑤ 06 ④ 07 ① 08 ②
09 ⑤ 10 ⑤ 11 ③ 12 ①

V 조선의 성립과 발전

1 단원의 개관

이 단원에서는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성립한 조선이 통치 체제를 정비하여 중앙 집권화를 이룩하는 과정과 조선 초기에 발달한 민족 문화의 내용을 다룬다. 또 사림이 중앙 정치에 진출한 이후 발생한 사화와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고, 왜란과 호란을 전후하여 나타난 조선의 외교 정책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 경복궁 근정전(서울 종로)

01. 조선의 건국과 체제 정비에서는 조선을 건국한 신진 사대부들의 정치 이념과 그들이 국가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여러 정책을 알아본다.

02. 민족 문화의 발달에서는 훈민정음 창제와 그 의의를 알아보고, 인쇄술의 발달에 따라 서적 편찬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살펴본다. 그리고 조선 초기 과학 기술의 발달과 양반 문화의 내용을 파악한다.

03. 사림의 성장과 성리학 질서의 강화에서는 사림의 중앙 정계 진출, 사림과 훈구 세력의 대립으로 일어난 사화의 전개, 사림의 정권 장악 과정 등을 다룬다. 또한 사림의 세력 기반인 향약과 서원의 보급 · 확산, 붕당의 형성과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을 알아본다.

04. 국제 관계의 변화와 외세의 침략 극복에서는 조선 초기의 국제 관계를 살펴본 후, 임진왜란이 일어난 국내외 배경, 의병과 수군의 활약상, 임진왜란의 영향 등을 파악한다. 그리고 조선의 외교 정책 변화와 이에 따라 발생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 대해 알아본다. 아울러 병자호란 이후 추진된 북벌 운동과 북학 운동을 비교하여 파악한다.

2 단원의 목표

지식 · 이해	• 조선을 건국한 주체 세력이 내세운 통치 이념을 알 수 있다. • 조선 초기 민족 문화가 꽃필 수 있었던 원동력을 파악할 수 있다. • 사림 세력이 16세기 이후 정치와 사회를 주도할 수 있었던 기반을 이해할 수 있다.
기능	• 조선의 중앙 정치 제도와 지방 행정 조직을 도표와 지도로 표현하고, 조선이 통치 체제를 정비한 목적을 발표할 수 있다. •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이 대립한 이유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 임진왜란 이후의 동아시아 정세를 지도에 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
가치 · 태도	• 정치와 사회의 안정이 문화 발달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 국론의 분열이 국력의 약화를 야기하여 외세의 침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긴다. • 주변 나라의 정세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3 단원의 구조와 지도 계획

차시	중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
40	01. 조선의 건국과 체제 정비	1. 조선의 건국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의 연합, 과전법 시행, 한양 천도, 국가 기틀의 마련, 유교 정치의 실시, "경국대전"
41		2. 통치 체제의 정비	의정부, 8도, 관찰사, 유향소, 봉수제, 교육과 과거 제도, 군역 제도와 군사 조직
42	02. 민족 문화의 발달	1. 훈민정음의 창제 ~ 2. 기록 문화의 발달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 훈민정음의 보급, 인쇄술의 발달, 역사서 편찬, "조선왕조실록", 지리서 · 농서 · 의서의 간행
43		3. 과학 기술과 예술의 발달	자격루, "칠정산", 양반 문화의 발달, 백자
44	03. 사림의 성장과 성리학 질서의 강화	1. 사림의 등장과 사화의 발생	훈구 세력의 형성, 사림 세력의 정계 진출, 사화의 발생, 유교적 이상 정치의 실현 노력, 조광조
45		2. 성리학적 질서의 강화	서원의 설립, 향약의 보급
46		3. 붕당 정치의 시작	사림 세력의 집권, 붕당의 형성, 이조 전랑, 붕당 정치의 전개, 서원과 향교의 역할
47	04. 국제 관계의 변화와 외세의 침략 극복	1. 조선 초기의 국제 관계	명과의 사대 관계, 여진 · 왜와의 관계, 4군 6진 개척, 3포 개항, 이종무의 쓰시마 섬 토벌
48		2. 임진왜란의 극복	동아시아의 정세, 3포 왜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의병과 수군의 활약, 정유재란, 임진왜란의 영향, 통신사, 만주족의 성장
49		3. 병자호란과 북벌 운동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 인조반정, 친명 배금 정책, 정묘호란, 병자호란, 북벌 운동, 북학 운동

4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 급진파 사대부들이 추구했던 정치적 이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통해 조선 사회의 성격을 이해하게 한다.
- 조선의 통치 체제가 중앙 집권의 완성, 권력 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완비되었음을 파악하게 한다.
- 조선 초기에 우리 조상들이 민족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원동력을 이해시키고, 구체적인 발달 내용을 정리하게 한다.
- 사림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면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정리하고, 사림 집권 후 나타난 정치적 변화를 파악하게 한다.
- 왜란과 호란의 극복 과정을 학습하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게 한다.

5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 이성무, "조선 초기 양반 연구", 일조각, 1980.
- 이태진, "한국 군제사", 육군 본부, 1969.
- 한영우, "조선 전기의 사회 경제 연구", 을유문화사, 1983.
- 국사 편찬 위원회 편, "한국사 22, 23, 26, 28, 30, 31", 1998.
- 윤국일, "경국대전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 이존희, "조선 시대 지방 행정 제도 연구", 일지사, 1994.
- 한우근, 이태진, "사료로 본 한국 문화사", 일지사, 1984.
- 정만조, "조선 시대 서원 연구", 집문당, 1997.
- 이장희 "임진왜란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9.
- 조선시대사학회 http://www.chosonhistory.or.kr/
-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 교과서 |
148 ~ 154쪽

Ⅴ. 조선의 성립과 발전

01 조선의 건국과 체제 정비

학습 목표

- 신진 사대부에 의해 조선이 건국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 유교에 따라 조선의 통치 체제가 정비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의정부와 6조를 중심으로 중앙 정치 제도가 정비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조선의 지방 행정 제도를 고려와 비교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40	**1. 조선의 건국**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조선 왕조를 개창한 신진 사대부들이 새로 도읍을 정한 곳은 어디일까?	문답식	
	[전개]		
	• 위화도 회군으로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와 급진파 사대부가 과전법을 실시하여 신진 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마련했음을 이해하게 한다.	강의식	PPT
	• '조선'이라는 새 왕조가 개창되는 과정을 정리하게 한다.	탐구식	
	• 한양이 도읍지로서 유리했던 점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역사 부도
	• 15세기 역대 국왕들이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표를 작성해 보도록 한다.	탐구식	149쪽 자료
	• "경국대전"의 완성과 반포가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태조가 국호를 '조선'으로 정한 이유는?		
	2. 세종이 설치한 기구로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한 것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41	**2. 통치 체제의 정비**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조선 시대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인 의정부의 3정승은 어느 직책을 가리킬까?	문답식	
	[전개]		
	• 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표를 그려 보고, 각 기관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게 한다.	탐구식	150쪽 도표
	• 조선 시대 지방 행정 제도를 알아보고, 고려 시대 지방 행정 제도와의 차이점을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PPT

41	• 조선 시대 교육은 어떻게 실시되었는지를 과거제와 연관하여 정리, 발표하게 한다. • 조선 초기의 군역 제도와 군사 조직을 파악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언론 기능을 담당한 3사를 이루고 있는 기구는? 2. 조선 시대 유학 교육을 담당한 고등 교육 기관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탐구식 강의식 문답식	152쪽 자료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조선의 건국

(1) 조선의 건국 과정

① **건국 주체:** 급진파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성계)
② **위화도 회군:** 고려의 정치적 실권 장악
③ **과전법 실시:** 권문세족의 경제력 약화, 신진 사대부의 경제 기반 마련
④ **조선 개창:** 온건파 사대부 제거 →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1392)
⑤ **국호 제정과 한양 천도:** 고조선 계승 표방, 교통과 국방의 요지인 한양에 경복궁, 종묘와 사직단, 관아, 시전 등 건설
⑥ **유교 정치의 이상 실현 노력:** 덕치주의 강조, 유교적 생활 규범 권장

(2) 국가의 기틀 마련

① **태종:**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 강화
- 사병 혁파: 군사 지휘권 장악
- 호패법 실시, 토지 측량 → 조세 징수의 자료 확보

② **세종:** 유교적 이상 정치 추구
- 재상 중심 정치: 국왕은 인사와 군사만 처리
- 집현전 설치: 학문 연구 장려 →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

③ **세조:** 단종 축출, 왕권 강화 추진
- 집현전 폐지, 경연 중단, 의정부의 권한 축소
- 국가 재정 확보, 국방 강화

④ **성종:** 통치 체제의 정비 마무리
- "경국대전" 반포: 통치 체제 정비
- 유교 정치 실시: 홍문관 설치, 경연 재개

2. 통치 체제의 정비

(1) 중앙 정치 기구

① **의정부:** 3정승이 합의하여 국정 총괄
② **6조:** 국가 정책을 실제로 집행
③ **3사:**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 언론 기능 담당
④ **승정원:** 왕명 발표, 상소문 전달
⑤ **의금부:** 국가의 죄인 심문
⑥ **춘추관:** 역사서 편찬, 보관
⑦ **성균관:** 유학 교육 담당
⑧ **한성부:** 서울의 행정과 치안 담당

(2) 지방 행정 제도

① **8도 설치:** 그 아래 부, 목, 군, 현 설치
② **관찰사 파견(도):** 군현의 수령들을 지휘 · 감독
③ **수령 파견(모든 군현):** 지방의 행정 · 사법 · 군사권 행사, 조세와 공물 징수
④ **6방 조직:** 향리들이 수령 보좌
⑤ **유향소:** 여론 형성, 백성 교화, 수령 자문, 향리 감찰

(3) 교육과 과거 제도

① 교육 기관

구분		기능
초등	서당	• 양인의 자제 교육 • "천자문", "동몽선습", "명심보감" 등 학습
중등	4학(서울)	양반과 서민의 자제 입학 → "소학" 등 유교 경전 학습
	향교(군현)	성현의 제사, 유생의 교육, 지방민 교화 담당
고등	성균관	• 입학 자격: 생원, 진사, 일부 양반의 자제 • 4서 5경, 심화된 유학서 · 역사서 학습

② 과거 제도
- 종류: 문과, 무과, 잡과
- 실시: 정기 시험(3년마다 시행), 특별 시험(수시 시행)
- 응시 자격: 법제상 천민을 제외하고 누구나 응시 가능 → 일반 백성이 과거에 합격하여 등용되기는 어려움.

(4) **군사 제도**

① **군역의 의무**: 16~60세의 양인 남자
- 정군: 직접 전투에 참여
- 보인: 정군의 경제적 비용 부담

② 군사 조직
- 중앙군: 5위 → 서울과 궁궐 수비
- 지방군: 육군(병영)과 수군(수영)으로 편성

③ **방어 체제의 변화**: 진관 체제 → 제승방략 체제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48쪽

지금 서울의 한강 이북인 한양(한양은 한강의 북쪽이라는 의미도 있음)

탐구 활동 ▶▶▶ 교과서 149쪽

1. 양전 사업을 통해 토지 대장을 정리하여 조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2. 군역, 요역 등에 동원할 사람들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50쪽

사헌부는 감찰 업무를 담당하고, 의정부는 국정을 총괄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52쪽

1. 자료 1 교육의 진흥

> 학교는 풍속과 교화의 근원이기 때문에 서울에는 성균관과 5부 학당(후에 4부 학당으로 개편)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하여 교육에 힘쓰도록 하였다. 그러나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자가 오히려 정원에 차지 않으니, 교육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6조에서는 교육을 진흥할 방법을 연구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또한 지방의 수령 중에는 향교의 생도들에게 글 쓰는 일을 시키고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 동원하여 생도들이 공부할 수 없게 하는데, 지금부터는 일절 이를 금지한다. - "세종실록"

2. 양반의 특권과 지위를 독점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53쪽

1. (1) ㉠, (2) ㉢, (3) ㉡, (4) ㉣
2. (1) ○, (2) ×, (3) ×
3. (1) 성균관, (2) 관찰사, (3) 유향소, (4) 정군, 보인

내용 더하기

정도전 (1342~1398) 40차시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하고 나라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다. 이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관리가 되어서는 친명 정책을 주장하여 친원파 권문세족과 대립하였다. 1383년 함경도 함주에 있는 동북면 도지휘사 이성계를 찾아가 그의 막료가 되었다. 정몽주를 따라 명에 사신으로 다녀온 후 성균관 제주, 남양 부사를 거쳐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다. 이성계의 우익으로서 조준과 함께 전제 개혁론을 주장하였고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하는 데 적극 가담하였다.

1390년 조민수 등 구세력을 몰아내고 전제 개혁을 단행하여 과전법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조선 개국의 정치·경제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1391년 이성계가 군사권을 장악하여 삼군도총제부를 설치하자 우군총제사가 되었고 이어 정당문학으로 재직하던 중 구세력의 탄핵을 받아 관직을 박탈당하고 봉화로 유배되었다. 1392년 한때 풀렸으나 정몽주의 탄핵으로 투옥되었다가 정몽주가 살해된 뒤 풀려나왔다. 조준, 남은 등과 함께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조선 건국의 주역이 되었다.

과전법의 실시 40차시

> 겉으로는 서로 좋은 것 같으나, 마음으로는 서로 시기하여 중상함에까지 이르니, 이것은 사전(私田)으로 함정을 만든 탓이다. 근년에 이르러 겸병이 더욱 심하여 간흉한 무리가 주(州)에 걸치고 군(郡)을 포함하여 산천으로 경계를 삼아 모두 이를 가리켜 조업전(祖業田)이라 하며 서로 밀치고 서로 빼앗으니, 1무(畝)의 주인이 5, 6명을 넘으며 1년의 조(租)를 8, 9차례나 거두어 간다. - "고려사" '식화지'

고려 말기에는 수조권을 둘러싼 신구 관료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수조(收租)와 납조(納租)를 둘러싼 권문세족과 일반 농민층 사이의 대립이 치열해졌다. 이에 사전(私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자 1391년에 과전법을 실시하여 새로운 전제(田制)의 기준으로 삼았다.

한양 천도 40차시

왕위에 오른 이성계는 곧 새 도읍지를 찾아 나섰는데, 새 도읍지로 공주 계룡산과 무악(오늘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과 연희동 일대)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공주 계룡산은 남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교통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동북쪽과도 막혀 있어 풍수지리상으로도 좋지 않아 도읍지로 마땅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하륜은 한강변에 위치한 무악이 풍수지리설로 볼 때 명당에 부합하는 점이 많아 새 도읍지로 적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천도 문

제를 두고 국론이 여러 갈래로 나뉘자, 이성계는 무학 대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마침내 한양으로 천도하기로 하였다.

한양은 산과 강의 형세가 빼어나고, 전국 8도의 중심에 자리하여 육로와 수로 교통의 요지였다. 또한 주변에 높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자연적인 요새를 이루고 있었다. 이성계는 1395년부터 백악산 아래에 경복궁을 지었고, 궁궐 좌우에 종묘와 사직을 세웠으며 관아와 시장, 학교 등을 차례로 건설하였다.

호패 40차시

조선 시대에 16세 이상의 남자는 양반부터 노비까지 누구나 호패를 소지하고 다녔다. 그 목적은 호구를 정확히 하여 민정의 수를 파악하고, 직업, 계급을 분명히 하여 신분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역, 요역의 기준을 밝혀 백성의 유동과 호적 편성상의 누락 · 허위를 방지하는 데 있었다. 호패의 재료와 기재 내용은 신분에 따라 달랐는데, 양반은 얼굴빛, 수염의 유무까지, 노비는 주인, 연령, 거주지, 얼굴빛, 신장, 수염의 유무를 기록하였다.

6조 직계제 40차시

6조 직계제는 의정부의 모든 업무를 나누어 6조에 귀속시키고 6조에서 왕에게 직접 사안을 올려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때 의정부가 관장한 일은 사대문서와 중죄수 재심(再審)뿐이었다. 태종은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우려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면서 6조 직계제를 채택하였다. 단종을 폐하고 왕위에 오른 세조 역시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의정부 서사제 40차시

> 6조 직계제를 시행한 이후, 일에 대소경중(大小輕重)이 없고, 모두 6조에 붙좇아 의정부와 관련을 맺지 않고, 의정부 관여 사항은 오직 사형수를 논결하는 일뿐이므로 옛날부터 재상을 임명한 뜻에 어긋난다. …… 6조는 저마다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여쭈고,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린 뒤에 계문(啓聞)하고 전지를 받아 6조에 내려 보내 시행한다. 다만 이조 · 병조의 제수(除授), 병조의 용군(用軍), 형조의 사형수를 뺀 형결(刑決) 등은 전처럼 각 조에서 직계하고 시행하여 곧바로 의정부에 보고한다. 만약 타당하지 않으면 의정부가 맡아 심의 논박하고 다시 계문하여 시행토록 한다.
>
> - "세종실록"

1436년(세종 18년), 6조가 의정부에 일반 정무를 보고하면 이를 의정부의 대신이 합의하여 결정한 후 왕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의정부 서사제가 시행되었다. 이는 왕의 주도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정부 대신의 권한이 회복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초기의 법전과 경국대전의 편찬 40차시

조선 초기 법전으로는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조준 등이 편찬한 "경제육전", 여러 교지와 수교, 조례 등을 모아 만든 "속육전" 등이 있었다. 하지만 "속육전"의 편찬 방식은 조문이 중복되거나 모순된 내용들이 많아 자주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모든 법령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전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세조 때 양성지가 건의하여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하였고, 6전(六典) 체제로 증보를 계속한 끝에 1485년(성종 15년)에 반포하였다.

"경국대전"이 완성됨으로써 조선은 법을 바탕으로 한 양반 관료 체제의 정비가 일단락되었으며,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가 갖추어졌다. 특히 "경국대전"은 여말 선초의 고유법을 성문화하였으며, 기준으로 삼던 중국의 "대명률"보다 먼저 시행할 수 있는 특별법인 형전을 갖추었다.

"경국대전"은 이전 · 호전 · 예전 · 병전 · 형전 · 공전 순서로 되어 있다. 이전은 중앙과 지방의 관제, 관리의 종별, 관리의 임면과 서임의 제한, 사령 등에 관한 항목을 규정하였다. 호전에는 호적 제도, 토지 제도, 조세 제도, 창고와 환곡, 조운, 토지 · 가옥 · 노비의 매매와 관련된 입안 등 재정 경제에 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예전은 과거 제도, 외교, 제례, 상장(喪葬)과 묘지, 각종 공문서 서식, 친족 범위, 제사 상속, 혼인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병전은 군제와 군사에 관련된 항목을 수록하였다. 형전은 "대명률"에 대한 특별 형법으로서 형벌 · 재판 · 공사노비에 관한 규정, 판례법으로 형성된 노비 상속 분쟁 등의 항목을 규정하였다. 공전에는 도로 · 교량 등의 교통, 도량형, 식산 등의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6조의 행정 사무 분장 41차시

이조	문관의 인사, 공신 책봉, 고과 평정에 관한 행정
호조	호구 조사 및 관리, 조세의 부과와 토지 관리, 재정과 회계, 산업에 관한 행정
예조	예악, 국가의 제사와 연회, 외교, 교육, 과거제에 관한 행정

병조	무관의 인사, 군사 행정, 의장과 호위, 역마와 봉수, 무기와 기치, 성문의 개폐에 관한 행정
형조	법률, 사면, 재판, 노비에 관한 행정
공조	산림과 수자원, 공장(수공업), 건축 · 토목, 광산과 야금에 관한 행정

관찰사 41차시

관찰사는 각 도에 파견된 지방 장관으로, 감사, 도백, 방백이라고도 하며 임기는 1년이다. 관찰사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외관의 규찰이라는 관찰사 고유의 기능이다. 즉 국가의 특명을 받은 사신으로서 끊임없이 도내를 순력하면서 1년에 두 차례 수령을 비롯한 모든 외관에 대한 성적을 평가 · 보고하는 일을 하였다. 이것은 외관의 시비, 선악의 평정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으며, 풍문만으로도 외관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둘째는 지방 장관으로서의 기능으로, 관찰사는 도내 모든 외관의 상급 기관이었다. 도내의 모든 군사와 민사를 지휘 · 통제하였고,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상당한 정도의 직단권(直斷權)이 주어졌다. 관찰사는 각 도의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겸임하였는데, 전임의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찰사의 우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수령 41차시

수령은 조선 시대 부(府), 목(牧), 군(郡), 현(縣)의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의 통칭이다. 군수와 현령을 줄여 부르는 말로, '원님'이라고도 하였다. 부, 목, 군, 현의 읍격(邑格)과 수령의 품계는 호구 수와 전결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행정상으로는 모두 관찰사의 관할하에 있었다. 임기는 5년이고, 주요 임무는 권농, 호구 증식, 군정, 교육 장려, 조세 징수와 역의 징발, 소송 처리, 풍속 교정이었다. 수령의 하위 행정 체계로는 향리와 면 · 리 · 통이 있고, 유향소가 수령을 보좌하고 자문하였다.

6방 41차시

조선에서 지방 관아의 행정 조직은 이 · 호 · 예 · 병 · 형 · 공의 6방으로 나뉘었으며, 사무는 6방 향리들이 분담하였다. 6방 향리가 하는 여러 직무 가운데 중요한 것은 호적을 정리하고, 공부(貢賦)와 군역 · 요역을 감독하고 격려하는 일이었다. 6방 향리 가운데 이방 · 호방 · 형방은 특별히 '삼공형'이라고하여 우대하였으며, 향리의 우두머리인 호장(戶長)은 수령이 없을 때 직무를 대리하는 수석 향리였다.

유향소 41차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지방민의 자치를 위하여 설치한 조직으로, 훗날 향청이라고도 불렸다. 덕망 있는 지방의 인사들이 모여 좌수 혹은 별감을 선출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운영하였는데, 오늘날의 지방 의회와 비슷한 기능을 가졌다. 서울에는 경재소(京在所)를 두어 지방의 유력자가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는 유향소와 중앙 정부 사이의 연락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중앙에서 유향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봉수 제도 41차시

봉수 제도는 높은 산봉우리에 봉수대를 설치하고 밤에는 횃불, 낮에는 연기로 변경의 정세를 중앙에 급히 전달하는 군사 · 통신 조직이다.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에 봉화, 봉산성 등의 기록이 보여 삼국 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지만, 확실한 것은 고려 의종 이후부터이고 조선 세종 때에 이르러 봉수 제도가 크게 정비되었다. 세종은 봉수의 거수, 봉화군의 정원 등 여러 규정을 정비하고, 연변 봉수의 연대 축조, 봉수망의 확정 등 체제를 정비하였다.

평상시에는 1거(擧), 외적이 해상이나 국경에 나타나면 2거, 해안에 가까이 오거나 변경에 가까이 오면 3거, 병선에 접근하거나 국경을 침범하면 4거, 외적이 상륙하거나 국경에 침범한 적과 접전하면 5거씩 올리도록 하였다.

과거 제도 41차시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본다. 전년 가을에 초시를 보고 그해 초봄에 복시와 전시를 본다. 문과는 통훈대부 이하, 생원 · 진사시는 통덕랑 이하만이 응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죄를 범하여 영구히 임용할 수 없게 된 자, 장리의 아들, 재가하거나 실행(失行)한 부녀의 아들과 손자, 서얼 자손은 문과 · 생원 · 진사시에 응시하지 못한다. 그 도에 살지 않는 자나 조사(朝士)로서 현직에 있는 자는 향시에 응시하지 못한다.
시장(試場)은 2~3개소를 둔다. 응시자가 시관과 상피(相避)의 입장에 해당되는 자는 다른 시장에서 응시하여야 하고, 아버지가 복시에 응시하면 아들은 피한다. 음양과의 천문학은 천문학 생도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다. 문관은 10년에 한 번씩 중시(重試)를 보인다. -"경국대전"

조선 시대에는 상민도 법제상으로는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있었으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과거에 응시할 때 호적과 보단자(신원 보증)를 제출하게 하고 여기에 4조(祖)를 적어 가문을 분명히 하였는데, 이는 상민과 양반을 구분하려는 것이었다. 반면 무과와 잡과의 경우는 신분적 제한이 문과에 비해 약하였다. 특히 무과는 후에 제도가 해이해지면서 천민도 응시하였다.

성균관 41차시

문과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조선의 고등 교육 기관이었다. 성균관은 고려 말 이후 성리학 이념을 보급하는 근거지로서의 기능과 국가의 관료를 양성하는 관료 양성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은 유교를 지배 이념으로 삼고 1399년(태조 7년)에 '명인륜 성인재(明人倫成人才)'의 뜻을 담아 성균관에 여러 시설을 갖추었다. 성균관은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공간(대성전, 동무, 서무), 유생들의 교육 및 거주와 관련된 공간(명륜당, 동재, 서재, 존경각), 제사와 유생 교육에 필요한 음식 마련, 서적 출판 등에 사용할 건물로 이루어졌다.

조선 초에 성균관 유생의 정원은 200명으로 정해졌다. 이들은 생원 · 진사인 상재생과 상재생이 모자랄 때 유학(幼學)으로 보충하는 기재생으로 구분되었으며, 재학 연한은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

4부 학당 41차시

> 이조에서 아뢰기를 "5부 학당은 직책이 몽매한 자를 깨우쳐 줌에 있으니, 권학하는 방법을 더욱 엄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취학한 생도 중에서 사서(四書) 이하를 읽는 자는 교관에게 나누어 맡겨 잘 지도하여 성취시키게 하고 …… 예조에서는 매달 학당에 나아가 그 문서를 거듭 조사하고 연말에 추려 뽑아 기록하여 아뢰고, 식년마다 교관의 근만을 조사하여 그에게 맡겨진 생도로서 성취한 바가 가장 많은 자를 뽑아 쓰게 하소서."하니 왕이 따랐다. - "세종실록"

고려 말에 5부 학당이 설치되었으나 조선에서는 서울에 4부 학당만을 운영하였다. 양인 이상의 신분이면 누구나 8세에 입학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서 생원 · 진사시(소과)를 준비하는 교육을 받았다.

향교 41차시

향교에는 양인 이상의 신분으로 8세 이상의 남자가 입학할 수 있었다. 향교의 유생과 생도를 교생(校生)이라 하였고, 공자와 선현을 모신 곳에서 유교 예절과 유교 경전 등을 익혔다. 향교는 공자를 모시는 대성전, 선현을 봉안하는 문묘,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명륜당, 동 · 서재로 구성된 학사, 제사를 관장하는 전사청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생의 정원은 각 군현의 인구 비례로 배정하였고, 전국 교생의 정원은 15,000여 명에 달하였다. 교생은 농한기에 학사에 머물면서 "소학"과 4서 5경 등 유학 경전을 배우고, 농번기에는 농사를 거들었다.

군역 41차시

군역은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에게 부과되었는데, 군역 의무자 모두가 군인으로 징발된 것은 아니었다. 토지와 인정을 고려하여 자연호를 가르거나 합쳐서 일정한 군호를 편성한 뒤 1군호에 정군(호수) 1명씩을 내게 하고, 군호 내에 정군을 뺀 나머지 인정(봉족 또는 보인)들은 정군이 군역을 부담할 수 있도록 식량, 의복 등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조선 전기의 군역 담당자로는 국가가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시험을 쳐서 들어와 군역을 수행하는 갑사 같은 군사와 국가의 징발에 따라 의무적으로 군역을 수행하는 정병 · 수군이 있었다. 이러한 군역제는 병농 일치제로 운영되었다.

진관 체제와 제승방략 체제 41차시

진관 체제에서는 각 도마다 1~2개의 병영을 두어 병마절도사가 정해진 구역의 지휘권을 장악하였다. 병영 밑에는 몇 개의 거진(巨鎭)을 두어 거진의 수령이 주변 군현의 군대 통수권을 장악하였다. 거진을 중심으로 주변의 여러 진을 여기에 속하게 하여 하나의 진관으로 편성한 것이다. 이는 독립적인 군사 거점의 성격을 띠어 전국이 지역 단위의 방어 체제를 형성하였다. 외적이 침입하는 등 변란이 발생하여 진관 하나가 무너지더라도 다음 진관이 군사를 정돈하여 지킴으로써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를 방지한 것이다.

그러나 진관 체제는 15세기 이후 대립제, 방군수포제 등으로 군역제가 문란해지면서 와해되었다. 1555년 을묘왜변 이후에는 이를 대신하여 제승방략 체제가 편성되었다. 제승방략 체제는 유사시에 각 읍의 수령들이 군사를 이끌고 지정된 방위 지역으로 가서 중앙에서 보낸 장수나 그 도의 병사(또는 수사)의 지휘를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후방에 군사가 없어서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그 뒤를 방어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제승방략 체제의 한계는 임진왜란 초기 연이은 패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Ⅴ. 조선의 성립과 발전

02 민족 문화의 발달

학습 목표

- 훈민정음 창제의 의미를 되새기고, 훈민정음이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문자임을 이해할 수 있다.
- 조선 초기 인쇄 기술의 발달에 따라 활발한 편찬 사업으로 여러 분야의 서적 간행이 이루어졌음을 정리할 수 있다.
- 조선 초기 과학 기술의 발달과 양반 문화의 발달을 정부의 시책과 관련하여 파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내용	수업 방법	수업 자료
42	**1. 훈민정음의 창제 ~ 2. 기록 문화의 발달**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에는 어떤 문자를 사용하였을까?	문답식	
	[전개]		
	•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 과정을 설명한다.	강의식	PPT
	• 훈민정음 반포 후 백성들에게 문자를 보급하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156쪽 자료
	• 조선 초기 인쇄술과 제지술의 발달이 서적 편찬 사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이해하게 한다.	강의식	158, 159쪽 자료
	• 조선이 역사서와 각종 기술 서적을 편찬한 이유를 조선 왕조 개창과 관련하여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백성을 유교적으로 교화하기 위하여 충신, 효자, 열녀의 사례를 수집하여 편찬한 책은?		
	2. 조선의 국가적 사업으로 편찬된 기전체 역사서는?		
	3. 동아시아에 남아 있는 것 중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는?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43	**3. 과학 기술과 예술의 발달**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조선 시대 이전에 시각을 알려주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	문답식	
	[전개]		
	• 조선 초기 국가의 지원으로 과학 기술이 크게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한다.	강의식	
	• 천체 관측 기구, 시계, 측우기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화보를 정리하고, 그 용도를 파악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인터넷
	• 조선 시대 백자와 고려 시대 청자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강의식	161쪽 사진

43	• 조선 초기 시집과 그림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세종 때의 역법서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측정하여 제작된 것은? 2. 화원 출신인 안견의 그림으로, 환상적인 이상 세계를 표현한 것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발표식 문답식	역사 부도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훈민정음의 창제

(1)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

① **문자 생활의 어려움**: 한자 사용 → 양반 사대부의 문자

② **우리글 창제의 필요성**

- 서민층: 경제생활의 개선으로 문자 사용 욕구 증대
- 지배층: 유교적 이상 정치의 실현을 위해 서민 교육 필요

③ **훈민정음 창제**: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의 노력 → 28자의 표음 문자 창제, 반포(1446)

(2) 훈민정음의 보급

① **훈민정음의 뜻**: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② **서민의 문자 생활**: 배우고 쓰기 쉬운 글자

③ **국문학 발달**: 한문을 훈민정음으로 번역

④ **보급 노력**: 서리와 향리의 학습, 훈민정음으로 교서 작성 → 일부 유학자들 반대, '언문'으로 천시

⑤ **서적 간행**: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소학", "삼강행실도" 등 간행

2. 기록 문화의 발달

(1) 인쇄술 발달

① **활발한 서적 편찬**: 활자 인쇄술과 제지술의 발달 촉진

② **활자 인쇄술 발달**

- 태종: 주자소 설치, 계미자 주조 → 글자 흔들림.
- 세종: 갑인자 주조 → 글자 고정, 아름다운 글씨체

③ **제지술 발달**: 조지소 설치 → 우수한 재질의 종이 생산

(2) 역사서 편찬

① **역사서 편찬 노력**: 조선 왕조 개창의 정당성 확보

② **"고려국사"** : 고려사 정리, 조선 건국의 정당성 천명

③ **"고려사", "고려사절요"** : 자주적 관점에서 고려의 역사 재정리

④ **"동국통감"** : 단군 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역사 서술

⑤ **"조선왕조실록"** : 한 왕대의 기록 → 후대의 모범

(3) 각종 서적의 간행

① **지도 제작**: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팔도도, 동국지도, 조선방역지도

② **지리서 편찬**: "신찬팔도지리지", "동국여지승람"

③ **농서 편찬**: "농사직설" → 독자적 농법 정리

④ **의서 편찬**: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3. 과학 기술과 예술의 발달

(1) 과학 기술의 발달

① **발달 배경**: 정부의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 정책

② **천문학 발달**: 전통 과학 + 서역과 중국 과학

- 천상열차분야지도: 고구려의 천문도 바탕
- 혼천의, 간의: 천체 관측

③ **시간 측정**: 자격루(물시계), 앙부일구(해시계)

④ **역법서 편찬**: "칠정산" →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측정

⑤ **농업 관련 기구 제작**: 측우기, 인지의, 규형 등

⑥ **국방력 강화**: 화차, 거북선 발명

(2) 양반 중심의 문예 활동

① **한문학 발달**: "동문선"(서거정, 삼국 시대 이래의 시문 정리), "금오신화"(김시습, 소설)

② **도자기 공예 발달**

- 분청사기: 소박하고 천진스러운 무늬
- 백자: 깨끗하고 담백한 멋 → 선비의 취향
- 옹기: 투박한 멋 → 서민들이 애용

③ **그림 발달**

- 몽유도원도(안견): 이상 세계 표현
- 고사관수도(강희안): 시적 정서 표현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55쪽

쉬운 문자를 보급하여 백성들에게 유교 통치 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해서이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57쪽

역사서, 윤리서, 농서, 지리서 등 다양한 종류의 서적이 편찬, 간행되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59쪽

1. 농사직설
2.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농법을 정리, 보급하기 위해서이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60쪽

해시계인 앙부일구뿐만 아니라 물시계인 자격루가 있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61쪽

1. (1) ○, (2) ×
2. (1) ㉢, (2) ㉡, (3) ㉠
3. (1) 훈민정음, (2) 조선왕조실록, (3) 천상열차분야지도

내용 더하기

훈민정음 창제의 동기 42차시

훈민정음 서문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나날이 쓰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라고 간명하게 표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옥사에서의 백성의 편의라는 문제로 거론된다(옥사와 관련하여 백성들이 관련 문서를 제대로 읽을 수 없어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형옥은 일반 백성의 생활과 통치자의 정치가 가장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사항이다. 따라서 백성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의식이 관념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 요구에 맞게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는 교화의 수단을 마련한다는 측면도 지적된다. 최만리 등의 반대 의견에 대한 세종의 논박에서는 당시 백성의 유교적 교화를 목적으로 편찬한 "삼강행실도"의 언해 문제가 중요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끝으로, 당시의 정치의식의 변모를 주목해야 한다. 고려 말기 중소 지주층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부상하면서 정치의식은 크게 달라지고 있었다. 중소 지주층은 생활 기반을 지방 사회에 두고 있어, 이전의 대지주적 지배층(부재지주)과 달리 일반 피지배층에 대한 이해가 훨씬 높았다. 피지배층도 구지배 체제의 가혹성에 대한 저항의 경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고려 말의 외침에 대항하여 싸운 공로도 컸다. 따라서 새 왕조의 지배 체제에서 이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세종은 이러한 정치의식이 누구보다도 투철하였다.

용비어천가 42차시

용비어천가는 세종이 왕실, 왕조의 위광을 드러낼 목적에서 6대조의 업적을 주제로 하여 짓게 한 노래이다. 이 노래는 당시 창제 중이던 훈민정음으로 지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정제된 정형시의 형태를 갖춘 이 노래는 당시의 일급 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지은 관료 문학의 대표작이다. 총 125장 중 109장까지 조상의 위업을 노래하였는데, 그 중 2/3가 태조에 관한 것이며, 110장 이후는 후대 왕들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삼강행실도의 반포 42차시

천하에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가 다섯인데 삼강이 맨 앞을 차지하고 있으니, 진실로 국가를 경영하는 큰 법이고 온갖 교화의 근본이다. …… 세종 6년 여름에 주상 전하께서 신하에게 명하기를, "삼대의 정치는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이었는데, 후세에는 교화가 침체되어 백성들이 친목하지 않아서 군신, 부자, 부부의 큰 인륜이 모두 타고난 본성이라는 것을 몰라 항상 경박한 데로 흐른다. 그러나 때로는 탁월한 행실과 높은 절개를 지켜 세속에 휩쓸리지 아니하여 사람의 이목을 주목하게 하는 자가 또한 많다. 나는 그 특이한 자를 뽑아서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붙여 서울과 지방에 반포하고자 하니, 이렇게 되면 어리석은 부부가 모두 보고 느끼게 될 것인즉, 이것도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이루는 한 가지 방법이다."하시고, 바로 집현전 부제학 설순에게 명하여 편찬하는 일을 맡게 하였다. - "동문선"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42차시

"고려사"는 문종 때 김종서, 정인지 등이 편찬한 139권의 기전체 역사서로서, 35권의 편년체 사서인 "고려사절요"와 함께 고려 시대 역사 연구의 기본 자료이다.

이 두 사서는 고려 전기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무신 정변 이후의 고려 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조선 왕조 건국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고려 말기를 부정적으로 본 이유에는 안으로는 도덕 질서의 붕괴와 경

제적 불평등, 권신의 발호에 의한 왕권의 추락과 군주의 사치 · 방탕 등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연이은 외적의 침입에 따른 국력 약화로 국위가 손상된 것 등이 있다.

불과 5개월의 차이를 두고 편찬된 이 두 권의 사서는 권력 구조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려사"가 군주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고려 역사를 정리한 것이라면, "고려사절요"는 대신의 역할과 관료 제도의 정비를 역사 발전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 42차시



▲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에서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한 책으로, 1893권 888책이다. 대체로 조선 시대에는 왕이 승하하면 다음 왕 때 임시로 실록청을 설치하고 전왕 대의 실록을 편찬하는 것을 상례로 하였다. 실록 편찬 때 이용되는 자료는 전왕 재위 시에 사관들이 각각 작성해 둔 사초를 비롯하여 "춘추관시정기", "승정원일기", "의정부등록" 등이었다.

실록이 편찬되면 몇 벌을 등사한 후 각지의 사고에 소장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왜란 때 4대 사고 중 춘추관, 충주, 성주의 사고가 소실되어, 선조 39년에 전주 사고본을 토대로 다시 인출하여 춘추관, 오대산, 태백산, 마니산, 적상산 사고에 보존하였다. 현재는 태백산, 마니산 사고본이 서울 대학교와 국가 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다. 이 실록은 권질의 방대함과 조선 시대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어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귀중한 역사 기록물이다.

농사직설 42차시

"농사직설"은 조선 세종 때 정초, 변계문 등이 왕명에 의해 편찬한 농서이다. 세종 11년(1429)에 관찬으로 간행하여 이듬해 각 도의 감사와 부 · 목 · 군 · 현 및 2품 이상의 중앙관에게 널리 나누어 주었다. 이 책은 조선 후기에도 "농가집성", "산림경제", "임원경제지" 등 여러 농서에 인용되었다.

"농사직설"의 내용은 대부분 중요 곡식류에 국한되고 기술이 간단하나,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법으로 편찬되어 지방 권농관의 지침서로 활용되었다. 정초가 쓴 서문을 보면, "풍토가 다르면 농사법도 다르게 마련이라, 이미 간행된 중국의 농서들이 우리 풍토에 맞지 않으므로 각 도 감사에게 명하여 각지의 익숙한 농군들에게 물어 땅에 따라 이미 경험한 바를 자세히 듣고 수집하여 편찬, 보급하게 된 것이다." 라고 적혀 있다. 이와 같이 "농사직설"은 우리 풍토에 적절한 농법을 수록하여 중국의 농사법에서 탈피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

측우기 43차시

세종 23년(1441)에 제작된 측우기는 이 시기의 천문 연구가 실용성과 연결되었음을 가장 잘 보여 준다. 조선 초기의 농업은 집약 농업 기술의 실현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봄 가뭄이 심한 기후 조건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특히 하천의 물을 벼농사에 필요한 관개용수로 사용하고자 수차의 보급을 시도하였지만 끝내 실패하였다.

측우기의 제작은 이러한 악조건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강우량의 측정은 세종 초기부터 각 도의 감사가 도내 군현에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든 척수를 기록한 것을 집계하여 호조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방식이 매우 불완전한 것이므로 빗물을 받는 철기를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 쓰는 새로운 방식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

측우기의 사용은 세계 최초일 뿐 아니라, 자연 현상을 수량적으로 측정하여 기록하고 통계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을 취한 점에서 과학사에서 높이 평가된다. 측우기는 세종 23년에 처음 고안되어 이듬해에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인쇄술의 발달 43차시

> 태종이 일찍이 주자소를 설치하고 계미자를 만들었는데 모양이 썩 좋지는 못하였다. 경자년에 세종이 이천에게 명하여 중국의 좋은 글자 모양으로 고쳤는데 이전 것에 비해서 더욱 정교하였으며 이를 경자자라 한다. 갑인년에 세종이 명하여 좋은 음양자의 모양으로 다시 주조하였는데 극히 정교하였으며 이를 갑인자라 한다. - "필원잡기"

Ⅴ. 조선의 성립과 발전

03 사림의 성장과 성리학 질서의 강화

학습 목표

- 사림 세력이 중앙 정계로 진출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사림 세력과 훈구 세력의 갈등으로 일어난 사화의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여 정리할 수 있다.
- 서원과 향약이 성리학을 확산시키고,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음을 설명할 수 있다.
- 붕당 정치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내용	수업 방법	수업 자료
44	**1. 사림의 등장과 사화의 발생**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조선 시대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	문답식	
	[전개]		
	• 훈구 세력이 정치를 주도하게 된 기반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한다.	강의식	PPT
	• 사림의 계보를 파악하고, 사림 세력이 중앙 정계로 진출하는 과정을 파악하게 한다.		163쪽 도표
	• 4대 사화의 발생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 조광조가 추구했던 유교적 이상 정치의 내용을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164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조선 초기에 권력과 토지를 차지하고 세력을 확대해 간 공신 세력은?		
	2. 성종 때 본격적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주로 언관직을 차지한 세력은?		
	3. 많은 선비가 죽음을 당한 원인이 된 '조의제문'을 지은 인물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45	**2. 성리학적 질서의 강화**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향약에서 삼강오륜과 같은 유교 윤리를 강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서원의 두 가지 기능을 설명한다.	강의식	PPT
	• 서원이 전국적으로 세워지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함께 파악하게 한다.		165쪽 자료
	• 사림이 향약을 조직하여 보급한 이유를 설명한다.		
	• 향약에서 내세운 4대 덕목을 조사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진 사례를 찾아보게 한다.	탐구식	166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중종 때 주세붕이 세운 최초의 서원은?		

45	2. 조선 사회의 풍속 교화에 많은 역할을 한 향약의 4대 덕목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46	**3. 붕당 정치의 시작**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붕당이 오늘날의 정당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전개] • 이조전랑 임명 문제가 동인과 서인의 분당으로 이어진 과정을 설명한다. • 동인과 서인의 학문 성향과 정치 이념을 비교하는 표를 작성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사림이 정치적 이념과 학문적 경향에 따라 분열하여 형성한 것은? 2.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서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은? 3. 재야에서 공론을 주도하는 사림의 지도자를 일컫는 말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강의식 탐구식 문답식	CD 167쪽 자료 168쪽 자료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사림의 등장과 사화의 발생

(1) 훈구 세력

① 계유정난
- 단종의 즉위: 집현전 출신 관료들의 집권
- 수양 대군의 정변: 김종서 등 제거 → 정권 장악

② **훈구 세력의 형성**: 세조를 도와 공신이 된 관료들 → 사육신 제거, 세력 기반 확장

③ **훈구 세력의 확장**
- 정치적 기반: 왕실과 혼인 관계 → 높은 관직 독차지
- 경제적 기반: 많은 토지와 노비 소유

(2) 사림 세력

① **사림의 기반**
- 사림의 계보: 온건파 사대부(길재 학풍) 계승 → 지방에서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
- 경제적 기반: 지방의 중소 지주
- 학문 경향: 향촌 자치 및 도덕과 의리에 바탕을 둔 왕도 정치 강조
- 향촌 사회 지배: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 확립

② **사림의 중앙 정계 진출**
- 김종직의 정계 진출 이후 성종 때 제자들 대거 등용
- 사림의 활동: 주로 3사 등 언관직 차지 → 훈구 세력의 비리 비판

(3) 사화의 발생

① **연산군의 실정**: 유교 정치 이념 위반, 국가 재정 낭비, 사림 세력 탄압

② **무오사화**: '조의제문' 문제 → 많은 사림 숙청

③ **갑자사화**: 폐비 윤씨 사건 → 관련 인물 처벌

④ **중종반정**: 훈구 세력의 정변 → 연산군 축출, 중종 즉위

(4) 유교적 이상 정치 추구

① **사림의 재등용**: 조광조 등 → 유교적 이상 정치 실현 노력

② **조광조의 개혁 정치**: 현량과 설치, 소격서 폐지, "소학" 보급, 훈구 세력의 공훈 삭제

③ **기묘사화**: 급진적 개혁에 대한 훈구 세력의 반발 → 사림 세력 축출

(5) 사림의 향촌 질서 장악

① **을사사화**: 외척들 간의 충돌 → 사림의 희생

② **사림 세력의 기반**
- 향촌 사회의 재편: "주자가례", "소학" 보급
- 서원, 향약을 기반으로 중앙 정계에 다시 진출하여 훈구 세력 압도

2. 성리학적 질서의 강화

(1) 서원 설립

① **서원의 기능**: 성현 제사, 양반 자제 교육 → 사림의 학통 계승, 향촌 사회의 기반 확장

② **서원의 설립**
- 백운동 서원: 중종 때 주세붕 설립 → 안향 제사
- 소수 서원: 명종 때 이황 건의 → 국가의 지원

③ **서원 건축**: 자연 경관과 조화 → 옥산 서원, 도산 서원

(2) **향약 보급**

① **조직:** 조광조가 처음 시도 → 이황과 이이의 보급

② **성격:** 향촌의 자치 규약

③ **목적:** 향촌 사회의 사림 중심 운영

④ **역할**

- 풍속의 교화: 향촌 사회의 질서 유지, 치안 담당
- 사림의 지위 강화: 향촌 사회 지배

⑤ **4대 덕목:**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3. 붕당 정치의 시작

(1) **사림의 정치 주도**

① **사림 정권의 성립**

- 사림의 학문적 기반: 서원 중심으로 확산
- 훈구 세력의 소멸: 선조 즉위 후 사림의 대거 진출

② **붕당의 형성**

- 사림의 분열: 선배 사림과 새로 진출한 후배 사림의 분열
- 동인과 서인의 분당: 이조 전랑 임명 문제

(2) **붕당의 형성**

① **동인의 형성:** 신진 사림 중심 → 이황, 조식, 서경덕의 학문 계승

② **서인의 형성:** 기성 사림 중심 → 이이, 성혼의 문인 포함

③ **동인의 분열:** 정여립 모반 사건 → 남인(온건)과 북인(급진)으로 분당

④ **북인의 집권:**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 때

⑤ **붕당 정치의 전개:** 3사와 이조 전랑의 정치적 비중 증가, 산림의 출현, 서원과 향교에서 여론 형성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62쪽

유교적 이상 정치를 함께 실현할 사림 세력을 천거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64쪽

1.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 3사
2. 성리학적 실천 윤리를 바탕으로 한 정치를 추구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65쪽

성리학을 바탕으로 향촌 사회를 교화하고자 했던 사림 세력이 향약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66쪽

1. 향촌 사회의 풍속 교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2. 예시 답안 나눔 문화의 실천,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한 비도덕적 행위의 제재 등이 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67쪽

붕당이 국가의 이익보다는 붕당의 이익을 더 우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68쪽

1. (1) ×, (2) ○
2. (1) ㉡, (2) ㉠, (3) ㉣, (4) ㉢
3. (1) 3사, (2) 자치, 왕도 정치, (3) 이조 전랑

❁ 훈구 세력의 뿌리 44차시

훈구 세력은 이성계 등의 신흥 무인 세력과 연계하여 왕조 개창에 성공하고 새 왕조의 문물 제도를 정비하는 주축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대에 걸쳐 특권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특히 세조의 왕위 찬탈 이후 고위 관직 독점과 경제적 비리 경향은 더욱 심해졌고, 통상적으로 훈구 세력의 뿌리는 직접적으로 이들과 연계된다.

이들은 훈신이나 척신 등의 확고부동한 위치를 기반으로 정치적으로는 고위 관직을 독차지하였고, 경제적으로는 방대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였다. 16세기 사회, 경제적 변동과 더불어 훈구 세력의 특권적 경제 비리 행위는 대토지 겸병, 방납의 폐해 등을 낳았다.

❁ 계유정난 44차시

1453년(단종 1) 수양 대군이 황보인, 김종서 등 단종 보좌 세력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사건이다. 1452년 문종이 죽자 단종이 12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당시 나이 어린 단종에게는 수렴청정을 할 대비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정치 권력은 문종의 유명을 받은 황보인, 김종서 등에게 집중되었고 왕권은 미약해졌다.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 대군은 원로대신들이 주도하는 정치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정변을 계획하였다. 한편 재상 중심 체제를 주장하던 정인지 · 최항 · 신숙주 · 성삼

문 · 하위지 등 집현전 출신의 관료들도 황보인과 김종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에는 비판적이었다. 뒷날 수양 대군이 김종서 등을 제거할 때, 많은 집현전 출신 관료가 수양 대군에 동조하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이었다.

수양 대군은 권람 · 홍윤성 · 한명회 등을 심복으로 끌어들이고, 신숙주의 지지를 얻는 한편, 홍달손 · 양정 등의 심복 무사를 양성하면서 거사를 준비하였다. 1493년 수양 대군은 유숙 · 양정 · 어을운 등을 데리고 김종서를 찾아가 그를 쓰러뜨리고, 황보인 · 조극관 등 여러 대신을 궁궐에 불러들여 주살했으며, 자신의 동생인 안평 대군을 강화도로 유배하였다가 사사하였다.

한편 함길도 절도사로 있던 이징옥도 김종서의 일당이라고 하여 파면하자, 이징옥이 분개하여 휘하 군사를 이끌고 종성을 근거지로 하여 저항하였다. 그는 대금 황제라 칭하면서 기세를 올리기도 했으나 종성 부사 정종의 계략에 걸려 죽임을 당하였다.

수양 대군은 정적을 숙청한 후 거사에 직간접으로 공을 세운 정인지, 권람, 한명회, 양정 등 43명을 정난공신으로 책봉하고, 정권과 병권을 독차지하였다. 이로써 수양 대군은 2년 뒤에 선위 형식으로 단종을 밀어내고 세조로 즉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사림파 44차시

15세기 말 성종은 지나친 탄압 정치와 국방 강화 정책으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훈구 세력을 견제하려면 온건하고 합리적인 유교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당시 신망이 높던 영남 출신의 김종직과 그의 문인들을 대거 등용하여 주로 정책을 비판하는 3사의 자리에 앉혔다. 이때 등용된 사림들은 훈구 대신의 권력 독점과 축재 등을 비판하였다. 나아가 향촌의 사림이 농민을 자율적으로 지배하도록 유향소를 자치 기구로 운영할 것과 주자가 시도한 사창제를 도입하여 빈민을 구제하고, 향사례, 향음주례 등을 실시하여 계급 질서를 안정시키는 도덕규범을 세울 것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사림의 정치 이상은 중앙 집권 국가의 건설이 요구되던 여말 선초에는 큰 호소력을 가지지 못하였으나, 15세기 말에는 점차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사림의 학풍 44차시

사림은 왕조 개창에 소극적이었던 정몽주 중심의 온건파 신진 사대부 세력에 뿌리를 두었다. 일찍이 왕위를 찬탈하여 성리학적 명분이 취약했던 세조는 지나친 탄압 정치, 국방 강화책 등 공리주의적 통치 방식을 채택하였고, 자신의 즉위를 도운 훈구 대신들에게 각종 특혜를 부여하였다. 이에 성종은 민심을 수습하고 기성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여 합리적 유교 정치를 회복하고자 학문 진흥을 추진하면서 김종직을 필두로 김굉필, 정여창, 김일손 등 사림 세력을 등용하였다. 사림은 정몽주, 길재, 김숙자로 이어지는 영남 출신 유학자들의 학통을 계승하였고, 이후 도통론 위주의 성리학이 발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사림의 훈구 공격 44차시

대사간 최한정 등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한명회는 훈구 대신으로 권세가 가장 강성하여,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뜻대로 하였는데, 이번에 또 변장(邊將) · 수령을 강제하여 남의 재물을 빼앗게 하였고, 절도사 이종생, 홍주 목사 최호, 판관 이의석은 뜻에 아부하고 순종하여 불법을 감행하여 조관을 가두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한명회가 있는 줄만 알고 국법이 있는 줄 모르는 것이니, 죄악으로 말하면 무엇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사유(赦宥) 이전의 일이라 하여 놓아주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권세 있는 신하가 무엇을 꺼리겠으며, 세력에 아부하는 무리가 무엇에 징계되겠습니까? 신 등은 한명회가 임금을 속이고 사리를 행한 죄와 이종생이 권세 있는 신하에게 아부한 죄를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어떠할까 합니다." 하였다.

- "성종실록"

사림과 훈구의 대립 44차시

무릇 창업한 군주는 성공에 뜻을 두고 보잘 것 없는 재주와 기술이 있더라도 모두 수용하나, 수성의 군주는 이와 달라 재덕의 겸비를 따져 본 연후에 등용합니다. 세조 때는 보잘것없는 재주와 기술이 있는 자라도 장단점을 헤아려 임용한 인연으로 공을 얻어 훈신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훈구라고 모두 채용하니, 채용된 자가 모두 현명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현명하지 못한 자가 죄를 범한다면, 벌을 주면 은혜를 상실하게 되고, 벌을 주지 않으면 법이 폐하게 됩니다. …… 훈신을 서용하지 않으면 공신을 보전하게 되고 은혜를 상하지 않고, 법도 폐하지 않을 것입니다.

- "성종실록" 권 91

4대 사화 44차시

연산군 때부터 명종 때까지 조선 중기의 신진 사류(사림)

들이 훈구 세력들에게 받은 정치적인 탄압을 말한다. 약 50년간 네 차례의 큰 사화가 있었다.

• 무오사화

행정 실무를 장악한 훈구파와 3사의 언론 기관을 장악한 사림파는 각기 권위 의식과 명분 의식을 기반으로 대립하였다. 1498년(연산군 4)에 이 대립이 표면화되어 무오사화가 일어났다. 김일손이 춘추관 사관으로 있으면서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삽입한 것이 문제가 되어 사림파가 축출되었다.

• 갑자사화

1504년에 임사홍 등 궁중 세력이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 문제를 놓고 연산군을 충동하여 정적을 숙청한 사화이다. 이때, 부중 세력인 훈구파 외에 무오사화 때 살아남았던 사림파들도 함께 숙청되었다.

• 기묘사화

중종반정(1506)으로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즉위한 이후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림파가 정계를 주도하였다. 이들은 성리학에 바탕을 둔 도학 정치를 구현하고자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조광조 등 사림파는 왕도 정치의 구현을 목적으로 현량과를 실시하여 사림을 등용하였으며, 불교 · 도교와 관련되는 종교 행사를 폐지하고 유교 의례를 장려하였다. 그리고 "소학" 교육을 통한 유교적 가치관의 생활화와 향촌 자치를 위한 향약의 전국적 시행을 추진하였고, 공납제의 폐단을 시정하려 하였다. 사림파의 개혁 중 특히 훈구 세력의 반발을 크게 산 것은 위훈 삭제였다.

중종은 처음에 사림을 신임하였으나 그들이 지나치게 군주를 압박하는 것에 싫증을 느꼈다. 이를 이용하여 중종 14년(1519)에 남곤, 심정 등의 훈구파가 조광조 일파에게 반역죄의 누명을 씌워 죽이거나 귀양을 보냈다. 이 때문에 사림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사림의 개혁 정치는 4년 만에 막을 내리고 그들이 추진했던 정책도 중단되었다.

• 을사사화

명종 즉위년(1545)에 외척 윤씨 간의 대립으로 생겨난 사화이다. 처음에는 인종이 즉위하면서 윤임을 중심으로 한 대윤파가 우세하였으나, 인종이 재위 8개월 만에 승하하여 명종이 즉위하자 윤원형을 중심으로 한 소윤파가 세력을 잡고 대윤파를 숙청하였다.

조의제문 44차시

김종직은 초야의 미천한 선비로 세조 대 과거에 급제하였다. 성종조에 발탁되어 경연에 두어 오랫동안 시종의 자리에 있었다. 형조 판서에 이르러서는 은총이 온 조정을 기울게 하였다. 병으로 물러나게 되자 성종은 소재지 관리로 하여금 특별히 미곡을 내려 주도록 하여 그 연한을 마치게 하였다. 지금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찬수한 사초에 부도한 말로써 선왕조의 일을 거짓으로 기록하고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실었도다.

- "연산군일기"

중종반정 44차시

1506년 성희안 · 박원종 등 훈구 세력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진성 대군 역(懌)을 왕으로 추대한 사건이다.

1495년 왕위에 오른 연산군은 재위 기간 두 차례의 사화를 일으키고 민생을 돌보지 않는 등 실정을 거듭하였다. 경연을 폐지하고 성균관을 연회 장소로 만들었으며, 전국에서 기녀들을 뽑아 궁중에 기거하게 하였다. 또한 도성 밖 30리의 민가를 철거해 사냥터로 만들었다. 이러한 학정을 비방하는 한글 투서가 나오자 한글 사용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1506년 성희안과 박원종 등이 연산군의 폐위를 밀약하고 당시 인망이 높던 이조 판서 유순정, 군자감 부정 신윤무 등의 호응을 얻어 거사를 일으켰다. 이들은 훈련원에 무사들을 모으고, 연산군의 측근인 신수근 · 신수영 형제와 임사홍 등을 불러내어 격살하였다. 정변이 성공하자 훈구 세력은 연산군을 폐하여 강화 교동에 안치하고, 진성 대군을 왕위에 추대하였다. 이가 곧 중종이며, 이 정변을 중종반정이라 한다.

조광조(1482~1519) 44차시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효직(孝直), 호는 정암(靜菴)이다. 김굉필에게 수학하였고, 성리학 연구에 힘써 김종직의 학통을 이은 사림파의 영수가 되었다.

1510년(중종 5) 사마시에 장원으로 합격하고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였으며, 1515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고 전적 · 감찰 · 예조 좌랑을 역임하게 하면서 중종의 신임을 얻었고, 언관으로도 활약하였다.

그는 유교로써 정치와 교화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지치주의(至治主義)에 입각한 왕도 정치의 실현을 역설하였다. 향촌의 상호 부조를 위해 '여씨향약'을 전국에 실시하였으며, 도학 정치를 주장하였고, 미신 타파를 내세워 소격서를 혁파하였다. 그는 현량과(賢良科)를 실시하여 김식, 안처겸 등 신진 사림들을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시켰다. 그리고 신진 사림과 함께 훈구 세력을 타도하고 낡은 제도

를 개혁하여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조광조와 신진 사림이 추진한 개혁 중에서 훈구 세력을 직접 겨냥한 것은 위훈 삭제(僞勳削除)였다. 조광조 등은 중종반정 때 공을 세우지 않고도 공신이 된 인물을 가려내어 이들의 훈작을 삭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침내 2 · 3등 공신의 일부, 4등 공신 전원, 즉 전 공신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76인의 훈작이 삭탈당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은 훈구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중종에게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훈구파 중 홍경주 · 남곤 · 심정은 경빈 박씨 등 후궁을 움직여 왕에게 신진 사림을 무고하도록 하였으며, 대궐 나뭇잎에 과일즙으로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는 글자를 써 벌레가 파먹게 한 다음 이를 따서 왕에게 바쳐 조광조에 대한 의심을 조장하였다. 또한 조광조가 당파를 조직하여 조정을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탄핵하였다. 급진적 도학 정치에 염증을 느끼던 중종은 훈구 대신들의 탄핵을 받아들여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 사림들을 유배하거나 사사하였다(기묘사화, 1506).

선조 대에 조광조는 신원(伸寃)되어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묘에 배향되었다. 그 뒤 그의 학문과 인격을 흠모하는 후학들에 의해 사당이 세워지고, 서원도 설립되었다.

조광조의 도학 정치 44차시

도학 정치는 '천명을 성(性)이라 하고 성에 따르는 것을 도(道)라고 한다.'는 "중용"의 논리 구조에서 비롯하였는데, 도를 따르는 것이 곧 천명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군주나 백성 모두가 천명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는 지선의 정치가 행해지는 '지치'를 이상 사회로 규정하고, 요순 3대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인식은 사림뿐 아니라 모든 유학자와 성리학자들의 공통 이상이었다. 당시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이 지치주의를 재현할 수 있는 도학 정치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적극 실천하였던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이의 공론 44차시

"공론(公論)이란 나라의 원기입니다. 공론이 조정에 있으면 그 나라가 다스려지고 공론이 여항에 있으면 그 나라가 어지러워지며, 만약 위아래 모두 공론이 없으면 그 나라가 망합니다. …… 오늘 조정에 공론이 신장되지 않으므로 민가에서 과연 시비를 의논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비로 자처하는 데 잘못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고서 그 정치를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윗사람으로 자신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싫어하여 금하여 잘라 버린다면 주 · 진의 멸망을 재촉한 유법과 같습니다. 나라에 공론이 없으면 망하는데 어찌 금할 수 있습니까." - 이이, "율곡전서"

소학 44차시

"소학"은 아동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수신서이다. 송의 주자가 엮은 것으로 쓰여 있으나, 실은 그의 제자 유자징이 주자의 지시에 따라 편찬한 것이다. 내용은 일상생활의 예의범절, 수양을 위한 격언, 충신과 효자의 사적 등을 모아 놓았다.

"소학"은 유교 사회의 도덕규범 중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을 초록한 것으로서 유학 교육의 입문서 구실을 하였다. 주자에 의하면, "소학"은 집을 지을 때 터를 닦고 재목을 준비하는 것이며, "대학"은 그 터에 재목으로 집을 짓는 것이라고 비유하여 "소학"이 인간 교육의 바탕이 됨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소학"이 중시된 것은 조선 초기부터이다. 권근은 "소학"을 공부한 다음에 다른 공부를 할 것이며, 성균관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학"의 능통 여부를 알아본 다음에 시험에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소학"은 서당, 향교, 서원 등의 모든 유학 교육 기관에서 필수적인 교과목으로 다루었다.

서원 45차시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학문을 연구하고 선현을 제사하기 위해 사림들이 세웠던 사설 교육 기관인 동시에 향촌 자치 운영 기구이다. 서원의 설립 배경은 조선 초부터 계속되어 온 사림의 향촌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사림은 향촌 사회에서 세력 기반을 다지고자 일찍부터 사창제, 향음주례 등을 개별적으로 시행해 왔다. 특히 중앙 정계 진출이 가능해진 성종 이후에는 이를 공식화하여 국가 정책으로 뒷받침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그 구심체로서 유향소의 복립 운동을 전개하다가 훈구 세력의 반대로 실패하였고, 사림의 향촌 장악 노력도 사화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과 교화를 내세워 향촌 활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구심체로서 서원이 성립,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1541년에 풍기 군수 주세붕이 안향의 제사와 유생 교육을 겸비한 백운동 서원을 최초로 건립하였다. 또, 경상 감사의 물질적 지원과 지방 유지의 도움으로 서적과 학전을 구입하고 노비를 확충하는 등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후 풍기 군수로 부임한 이황이 서원을 공인화하고, 그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백운동 서원에 대한 사액과 국가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국왕이 서원의 명칭을 부여한 현판과 그에 따른 서적, 노비 등을 내린 경우를 사액 서원이라 하는데, 이는 국가가 서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초기의 서원은 인재를 키우고, 선현 · 향현을 제사 지내며, 유교적 향촌 질서를 유지하고, 시정을 비판하는 사림의 공론을 형성하는 등 긍정적 기능을 발휘하였다.

사림의 집권과 함께 나타난 붕당은 그 정쟁의 방식이 학문에 바탕을 둔 명분론과 의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므로, 붕당의 형성에 학연의 작용이 거의 절대적이었다. 각 붕당은 지방별로 서원을 세워 그 지역 사림과 연결을 맺어 당세를 확장하였고, 향촌의 사림은 서원을 통해 중앙 관료와 연결됨으로써 의사 전달과 입신출세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기에 양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다. 그 후 서원에는 향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이나 해결책을 논의하는 향촌 운영 기구로서의 기능이 더해졌다. 그리하여 왜란과 호란 때 서원이 향촌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의병 활동의 거점 구실을 하였다.

백운동 서원 45차시

하늘이 사람을 낳으매 사람이 되게 하는 바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되 가르침이 없다면 아비는 아비답지 못하고, 자식은 자식답지 못하며, 지아비는 지아비답지 못하고, 지어미는 지어미답지 못하며, 어른은 어른답지 못하고, 어린이는 어린이답지 못해서 삼강이 무너지고 구법이 썩게 되어 사람의 무리는 멸망한 지 오래되었을 것이다. 무릇 가르침은 반드시 존현에서 비롯되므로 이에 사묘를 세워 덕을 높이고 서원을 두어 배움을 두텁게 하는 것이니 진실로 가르침이란 어지러움을 수습하고 굶주림을 구하는 것보다 급하다. …… 이제 죽계 땅 문성공이 살던 동네에 가르침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문성공부터 비롯해야 할 것이다. 나는 변변치 못한 위인으로 태평한 세상을 만나 이곳의 군수가 되었으니 한 고을을 맡은 임무를 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감히 사묘를 세우고 서원을 설치한다.

- 주세붕, "무릉잡고"

서원의 폐단 45차시

묘우(廟宇)를 건립하는 것이 해마다 늘어나서 고을마다 연이어졌고 서원의 폐단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공론에 적합하지 않아 관직이 높다든가, 족벌이 커서 향사하였고 다투어 제사를 지내며 서로 자랑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사사로이 명예를 세우기도 하였고, 선비들은 옛것을 본받지 아니하였으며, 세도는 날로 무너지고 현인을 존경하고 덕을 숭상하는 의리를 도리어 사당(私黨)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 서원의 세움은 처음에는 학문을 바르게 닦는 선비를 대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이제부터 서원 신설은 예조에 보고하고 조정의 논의를 거친 뒤 공론이 허락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인조실록"

향약 45차시

향약은 조선 시대에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마련하였던 향촌의 자치 규약으로, 그 기원은 중국 북송 말기에 여대균 형제가 일가친척뿐 아니라 향리 전체를 교화, 선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여씨향약을 만든 데 있다. 여씨향약은 그 뒤 주자가 수정하고 증보한 것이 "주자대전"에 실려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약은 중종 때에 대사헌 조광조 등 신진 사림의 주장에 따라 전국 각지에 반포함으로써 다소 강제성을 띠고 시행되었다. 중종 12년(1517)에 시행된 여씨향약의 기본 내용은 "좋은 일은 서로 권장한다. 잘못을 서로 살펴 고쳐 준다. 서로 사귐에 있어 예의를 지킨다. 환난을 당하면 서로 구제한다."라고 되어 있어 당시 지방 유학자들의 이념과도 일치하여 자발적으로 향리에 보급시키고자 하였다. 그 뒤 우리의 풍습과 실정에 알맞은 향약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명종 11년(1556)에는 이황이 여씨향약을 본떠서 예안향약을 만들었고, 선조 4년(1571)에 이이는 여씨향약과 예안향약을 근거로 서원향약을 만들고, 이를 다시 수정, 증보하여 해주향약 및 해주일향약속을 만들었다. 이들 향약은 조선 후기에 가장 널리 보급된 우리나라 향약으로서 가장 완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씨향약 45차시

11세기 초 중국 북송 때 향촌 사회를 교화 선도하기 위해 만들었던 자치적인 규약이다. 산시 성[陝西省] 란톈 현[藍田縣]에서 도학(道學)으로 이름 높던 여대충(大忠) · 여대방(大防) 등 여씨 문중의 4형제가 문중과 향리를 위해 만들었

다. 뒤에 주자(朱子)에 의해 약간의 수정이 가해져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이 되었다.

조선에서는 1517년(중종 12) 정부의 명령으로 각 지방 장관이 여씨향약을 보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이황의 '예안향약(禮安鄕約)', 이이의 '서원향약(西原鄕約)'이 만들어졌다.

동서 분당 46차시

심충겸이 장원 급제를 하자 전랑(이조 전랑)으로 천거하려고 하였다. 김효원이 외척은 쓸 수 없다며 막으니, 심의겸이 외척이 원흉(을사사화 때 소윤의 우두머리였던 윤원형)의 문객보다는 낫지 않으냐고 하였다. 이때 김효원 편을 드는 사람들은 "효원의 말은 공론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의겸은 사사로운 혐의로 좋은 선비를 배척하니 매우 옳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심의겸 편을 드는 사람들은 "의겸은 지어낸 말이 아닌 그 실상을 말한 것이다. 효원이 원한을 품고 겉으로는 외척이므로 전랑을 반대한다 하고 실제로는 중상하려는 계책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양편 친지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서로 배척하여 동인, 서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비롯하였다. 효원의 집은 동쪽 건천동에 있고, 의겸의 집은 정릉동에 있기 때문이었다. 동인들 가운데는 나이가 젊고 총명, 민첩한 학생이 있고, 명예와 절개로 스스로를 다듬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서인들 가운데는 어진 사대부도 있었지만 이익을 탐내는 무리가 섞여 있었다. …… 동인들의 생각은 멀지 않은 전날에 있었던 일로 보아서 결코 외척을 등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서인 쪽에서는 심의겸이 공로가 많은 데다가 선비인데 어찌 길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 이긍익, "연려실기술"

이조 전랑 46차시

이조 전랑은 조선 시대에 이조의 정랑(정 5품)과 좌랑(정 6품)을 일컫던 말이다. 내외 관원을 천거, 전형하는 데 가장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조 전랑이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다. 조선의 관제에는 3공(영의정 · 좌의정 · 우의정), 6경이 있지만, 관원의 등용은 3공에 있지 않고 모두 이조에 속하였다. 또, 이조의 권력이 너무 커질 것을 우려하여 당시 가장 중시되던 3사(홍문관 · 사헌부 · 사간원)의 관원 임명 등은 이조 판서의 아래에 있는 정랑 · 좌랑이 좌우하였으며 판서에게도 별 권한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전랑이 생기게 되어 큰 실권을 잡았다. 따라서 이 전랑에는 3사 가운데서 명망이 높은 관원이 특별히 뽑혀 임명되었다. 전랑의 임면은 이조 판서라도 간여하지 못하였고, 전랑이 스스로 그 후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을 전랑천대법 또는 전랑법이라고 하였다. 전랑직을 거치면 큰 과실이 없는 한 순조롭게 재상까지 오를 수 있었다. 1575년(선조 8)의 동서 분당을 초래한 심의겸과 김효원의 반목과 대립도 이 전랑직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이황의 이기론 46차시

"하늘이 사람에게 명을 내려 줄 때 기(氣)가 아니면 이(理)를 붙이지 못하고, 마음이 아니면 이와 기를 붙이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마음은 비기도(虛) 하고 신비하기도(靈)하여 이기의 집이 되었다. 4단이 또한 선하지 않은 것이 없고, 기질이란 것은 본연의 성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바의 정은 사악함에 흐르기가 쉽다. 그러면 성정의 이름은 비록 같으나, 그 쓰이는 것은 다른 것이다. 성이니 정이니 하는 것이 쓰임을 모두 갖추게 된 것이 모두 마음의 묘한 작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주재가 되어 항상 그 성정을 통솔한다. 이것이 사람 마음의 대개이다." 라고 하였다.

- 이황, "퇴계집"

이이의 이기론 46차시

"하늘의 이치가 사람에게 부여한 것을 성(性)이라 부르고, 성과 기를 합해 한 몸에 주재된 것을 마음이라 부르며, 마음이 사물에 응하여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정리라 부릅니다. 성은 마음의 몸체이고 정은 마음의 쓰임이며, 마음이란 드러내지 않았거나 드러낸 바의 전체적인 이름이므로, 마음은 성, 정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이와 기가 섞이게 되어 원래 서로 떠나지 않는 것이니, 마음이 움직이면 정이 되고, 드러나는 것은 기이며, 나타나게 만드는 원인은 이입니다. 기가 아니면 드러나지 못한 것이요 이가 아니면 드러나게 하는 원인이 없을 것이니 어찌 이발(理發), 기발(氣發)의 다름이 있을 것입니까?"

- 이이, "율곡집"

Ⅴ. 조선의 성립과 발전

04 국제 관계의 변화와 외세의 침략 극복

학습 목표

- 조선이 명과 사대 관계를 유지하고, 일본 · 여진과 교린 관계를 추구한 이유를 각각 말할 수 있다.
- 조선이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설명하고, 임진왜란이 동아시아 3국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병자호란의 전개 과정과 그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내용	수업 방법	수업 자료
47	**1. 조선 초기의 국제 관계**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조선이 건국되기 전 중국 대륙에 새로 들어선 나라는?	문답식	
	[전개]		
	• 조선이 명과 사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리 외교를 펼친 이유를 파악하게 한다.	강의식	169쪽 지도
	• 세종이 4군과 6진을 개척하여 국경선을 확장한 사실을 지도를 통해 확인하게 한다.	탐구식	170쪽 지도
	• 조선 초기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과의 교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게 한다.	강의식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요동 정벌 문제로 형성된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명과 친선 관계를 확립한 조선의 왕은?		
	2. 세종 때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개척한 영토는?		
	3. 세종 때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 섬을 토벌한 조선의 장군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48	**2. 임진왜란의 극복**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100여 년 간에 걸친 일본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한 사람은 누구일까?	문답식	
	[전개]		
	• 1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 변화를 이해하게 한다.	강의식	PPT
	• 의병의 활약과 수군의 승리가 임진왜란의 전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하게 한다.	탐구식	172쪽 자료
	• 임진왜란이 동아시아 각국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조선이 제해권을 장악하고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게 된 전투는?		
	2.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서 권력을 장악하여 에도 막부를 설치한 인물은?		
	3.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외교 · 문화 사절단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49	3. 병자호란과 북벌 운동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임진왜란 이후 여진을 통일하여 후금을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 [전개] • 임진왜란 이후 조선 정부의 전후 복구 노력을 설명한다. • 명이 쇠퇴하고 후금이 강성해지는 상황에서 광해군이 추진한 중립 외교 정책을 평가하게 한다. • 남한산성에서 벌어진 주화론자와 척화론자의 주장을 각각 나누어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하게 한다. • 병자호란 이후 추진된 북벌 운동과 북학 운동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을 정리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허준이 편찬한 의학서로서, 임진왜란 이후에 간행된 것은? 2. 후금을 치기 위해 출전하였으나, 광해군의 중립 외교 노선에 따라 후금에 항복한 인물은? 3.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몰아낸 후 친명 배금 정책을 추진한 정치 세력은? 4. 송시열, 이완 등을 등용하여 북벌을 추진한 조선의 왕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강의식 탐구식 토론식 강의식 문답식 	CD 174쪽 자료 175쪽 자료 PPT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조선 초기의 국제 관계

(1) **친명 외교**

① **명과의 관계**

- 친선 관계의 유지: 정권과 국가의 안정 보장 목적
- 사대 관계: 활발한 문화 교류 수단

② **사절단 교환**: 사신, 유학생, 상인 왕래

- 조공품: 말, 인삼, 화문석 등
- 답례품: 비단, 서적, 도자기 등

(2) **4군 6진의 개척**

① **여진에 대한 정책**

- 강경책: 4군과 6진 개척
- 회유책: 무역소 설치, 귀순자에게 관직과 토지 하사

② **사민 정책**: 여진족 침입 방지와 국경 지역 안정 목적 → 삼남 지방의 주민 이주

(3) **왜구 격퇴**

① **일본에 대한 정책**

- 강경책: 세종 때 이종무의 쓰시마 섬 정벌
- 회유책: 3포 개항 → 무역 허용(구리 · 황 · 향료 수입, 쌀 · 옷감 · 문방구 수출)

② **동남아시아와의 교역**

- 조공 형식의 무역: 류큐, 시암, 자와 등(각종 토산물과 조선의 물품 교환)
- 류큐: 조선의 불경 · 유교 경전 · 범종 수입 → 문화 발전에 기여

2. 임진왜란의 극복

(1)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

① **조선**: 양반 사회의 분열 → 농민 몰락, 국방력 약화

② **명**: 국력 쇠약 → 환관의 횡포, 북로남왜

③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 시대 혼란 수습

(2) **임진왜란의 승리**

① **임진왜란의 전개**: 왜군의 침략(1592) → 서울 함락 → 평안도와 함경도까지 진출

② **의병의 활약**: 승려와 농민들의 항전

③ **수군의 승리**: 제해권 장악

④ **전쟁의 종결**: 휴전 협상 결렬 → 정유재란 → 노량해전 → 전쟁의 승리

(3) **왜란의 영향**

① **조선의 피해**: 국토 황폐화, 인명 피해, 문화재 소실과 약탈, 국가 재정의 궁핍

② **일본의 변화**: 에도 막부 수립, 약탈해 간 조선의 문물을 바탕으로 문화 발전

③ **중국의 변화**: 명의 쇠약, 여진족의 성장

3. 병자호란과 북벌 운동

(1) **조선의 중립 외교**

① **전후 복구 노력**: 토지 대장과 호적 정리, 성곽 수리, 군사 훈련, "동의보감" 편찬

② **대륙의 정세**: 여진족 누르하치의 후금 건국

③ **광해군의 외교 정책**

- 명의 원군 요청: 강홍립 파견 → 후금에 항복
- 중립 외교 정책: 명과 후금 사이의 우호 유지

(2) **후금의 침입**

① **인조반정의 발생**

- 광해군 폐위: 북인 정권 몰락, 서인 정권 수립
- 서인의 외교 정책: 친명 배금 정책 표방 → 후금 자극

② **정묘호란(1627)**

- 후금의 침입: 형제 관계 요구
- 의병의 활약: 정봉수, 이립 등 → 강화 성립

(3) **병자호란**

① **후금의 성장**

- 영토 확장: 요서, 내몽골 장악 → 국호를 청으로 고침
- 조선에 군신 관계 요구

② **병자호란(1636)**

- 경과: 조선의 전쟁 선포 → 청 태종의 침입 → 남한산성 피란 → 주화론과 척화론의 대립 → 조선의 항복
- 결과: 굴욕적인 군신 관계 수립 → 인질과 공녀

(4) **북벌 운동**

① **북벌 추진**

- 조선의 충격: 여진과 군신 관계 수립
- 북벌론의 제기: 청에 대한 반감, 문화적 우월감
- 효종의 북벌 정책: 척화파인 송시열 · 이완 등용, 군대 양성, 성곽 수리

② **북학 운동**: 청의 문물 적극 수용 주장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69쪽

왜구나 여진족의 노략질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71쪽

호남 지역을 지켜 냈으며,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74쪽

조선이 청에게 패배하였고, 청이 조선의 인질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76쪽

1. (1) 회유책, (2) 효종
2. (1) ㉡, (2) ㉠, (3) ㉢
3. (1) 의병, (2) 중립 외교, (3) 척화론, 주화론

깊이 있는 역사 ▶▶▶ 교과서 177쪽

예시 답안 임진왜란과 관련 있는 인물로는 권율, 이항복, 이덕형, 논개, 사명 대사, 서산 대사, 조헌 등이 있다.

내용 더하기

명과의 관계 47차시

사대는 중국, 교린은 일본 및 여진에 대한 외교 정책으로, 세력이 강하고 큰 나라를 받들어 섬기고(事大), 이웃 나라와 대등한 입장에서 사귀어(交隣) 국가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조선 개국 이래의 외교 방침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사대는 "경국대전"에 올려 이를 뒷받침하였다.

조선은 개국 초부터 명나라에 하정사(정월 초하루) · 성절사(황제의 탄신일) · 동지사(동짓날) 등의 사신을 해마다 정기적으로 보내어 사대의 예를 하였고, 이 밖에 사은사 · 주청사 · 진하사 · 진위사 또는 진향사 등을 수시로 보내어 외교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사행에는 중국 황실에 보내는 방물이 뒤따랐다. 명나라는 조공과 그 답례로 주는 회사의 형식 이외에는 외국 무역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은 명나라의 문물을 얻기 위해서라도 사대의 예로써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쳐야 하였다.

일본과의 관계 47차시

조선의 일본에 대한 교린은 왜구 방지를 위한 평화적 회유책이었다. 조선은 개국 초부터 일본과 교섭하여 고려 말기 이후 조선의 연안뿐만 아니라, 내륙까지 노략질해 온 왜구의 억제를 요구하였고, 일본도 조선 정부의 요구에 응하는 한편, 조선과의 통교를 요구하여 사신을 파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 역대 막부의 쇼군은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사신을 파견하였고, 조선에서는 통신사 · 회례사를 보냈다. 또한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 섬의 도주 소씨에게도 왜구 근절의 책임을 지우는 한편, 조선에 대한 무역 통제 특

권을 주었다.

여진과의 관계 47차시

조선은 여진과 교린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여진족이 국경 지대에서 벌여 온 노략질을 못하도록 달래는 회유 정책이었다.

여진의 추장이나 세력가들은 조선의 명예 관직을 얻고, 일정한 규정에 따라 1년 또는 수년에 한 번씩 서울에 와서 조선 국왕에게 숙배하여 형식적인 종속 관계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여진이 조선과 교섭한 실질적인 목적은 가지고 온 물건의 진상과 그에 대한 회사로 이루어지는 공무역에 있었으며, 조선도 이들의 교역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대가로 국경 지대의 안전을 꾀하려 하였다.

4군 47차시

조선 세종 때 서북 방면의 여진족을 막기 위해 압록강 상류에 설치한 국방상의 요충지인 여연(閭延)·자성(慈城)·무창(茂昌)·우예(虞芮)의 네 군을 말한다.

압록강 방면의 개척은 고려 말에 상당히 진척되어 강 하류인 서북 방면은 거의 다 고려의 영역으로 편입되었으나, 상류 남쪽 지역에서는 여진족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조선에서도 국초부터 압록강 유역에 대한 개척을 꾸준히 이어갔는데, 세종 때에 이르러 이 지역에 대한 여진족의 침입이 빈번해졌다.

1433년 세종은 최윤덕을 평안도 도절제사로, 김효성을 도진무로 임명하여 황해·평안도의 병사 1만 5000여 명을 동원하여 압록강 유역을 정벌하였다. 이후 1443년까지 이 지역을 세 차례 더 정벌하고 4군을 설치하였다.

6진 47차시

조선 세종 때 동북 방면의 여진족에 대비하여 두만강 하류 남안에 설치한 국방상의 요충지인 종성(鐘城)·온성(穩城)·회령(會寧)·경원(慶源)·경흥(慶興)·부령(富寧)의 여섯 진을 말한다. 6진은 대륙의 원·명 교체기를 이용한 고려 공민왕의 북진 정책을 이어받은 태조 이성계와 세종의 정책에 의해 설치되었다.

1356년 공민왕은 쌍성총관부를 회복하고, 이어 두만강 방면에 대한 경략을 시작하였다. 이성계도 이 지역의 개척에 힘써 개국 초에 조선의 영역은 대체로 두만강 하류에까지 이르렀다. 태조와 태종은 여진족을 회유하면서 이 지역을 안정시키고자 하였으나, 여진족의 내습으로 국경 방어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 뒤를 이은 세종 때에도 여진족은 국경 지역을 자주 침입하였다.

1433년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던 여진족 사회에 내분이 일어나자, 세종은 기회를 이용하여 김종서를 함길도 도절제사에 임명하고, 1434년부터 6진 개척을 추진하였다. 1435년 종성을 개척한 이후 10여 년 이상 이 지역을 경략하여 1449년에 부령을 설치함으로써 6진 개척을 완성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북쪽 경계가 완전히 두만강과 압록강 연안에까지 뻗치게 되었다.

사민 정책 47차시

> 병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경원 영북에 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벽성을 쌓고 토관을 설치하되 본도민을 추쇄하여 1,100호는 영북진으로, 1,100호는 경원부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농사짓고 외적의 방어에 임하게 하며, 요역과 부세를 가볍게 하여 생활을 풍족하게 만들어 남도 부방군의 동원에 따른 오랜 폐단을 없애십시오. 만약 본도에서 옮길 수 있는 민호가 2,200호가 되지 않으면 충청·강원·경상·전라도 등지에서 자원하여 들어가 살 사람을 모집하여 양민은 토관직에 제수하고 향리, 역리는 영구히 그 역을 면제하며, 천인은 양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또 양진에 노비 100호를 지급하되 도내의 공노비로 충원하며 만약 공노비가 부족하면 사노비로 충당하고 그 주인에게는 하도의 공노비를 지급하도록 하십시오." …… 국왕이 이를 따랐다.
>
> - "세종실록"

이종무의 쓰시마 섬 정벌 47차시

1418년 쓰시마 섬에 큰 흉년이 들어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자 왜구가 조선의 해안 지역을 약탈하였다. 이에 조선은 왜구의 본거지인 쓰시마 섬 정벌을 논의하였다. 당시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고 상왕이 된 태종은 아직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1419년 태종은 이종무를 삼군 도체찰사로 삼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3도에 있는 병선 227척과 병사 1만7천 명을 모아 쓰시마 섬으로 출병하게 하였다.

조선군은 1419년(세종 1) 음력 6월 19일 거제도를 출발하여 20일에 쓰시마 섬에 도착하였다. 이종무는 쓰시마 도주에게 항복을 권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왜구를 수색하여 1백여 명을 참수하고 2천여 호의 가옥을 불태웠다. 29일에

는 가옥 70여 호를 태우고 명나라 사람 15명과 조선인 8명을 구출하였다. 이종무는 쓰시마 섬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좌군과 우군에게 두지포에 포진하라 명령하고 자신은 음력 7월 3일에 주력 함대를 이끌고 거제도로 철수하였다. 정벌군 지휘부를 일단 빼낸 태종은 쓰시마 도주에게 항복 권고문을 보내도록 하였다. 쓰시마 섬은 예로부터 조선 땅이었으니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항복하라는 내용이었다. 위기를 느낀 쓰시마 도주가 신서(信書)를 보내어 항복하기를 빌고 인신(印信)을 내려 줄 것을 청원하자, 태종은 항복을 받아들이고 정벌군을 전면 철수시켰다. 이후 쓰시마 섬은 조선의 정치 질서 속에 편입되어 조선 국왕이 내려 주는 관직을 받게 되었다.

쓰시마 섬 정벌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왜구의 침입이 억제되었으며, 조선은 쓰시마 도주에게 통상을 허락하여 평화적으로 무역과 내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해약조 47차시

1419년(세종 1) 대마도 토벌 이후 조선은 일본과의 통교를 중단하였다. 그 결과 식량과 생활필수품이 부족해진 대마도주는 여러 차례 왜구의 금압을 서약하면서 조선에 통교를 간청하였다. 이에 조선은 1426년(세종 8) 3포를 개항하고 무역을 허락하는 한편, 3포와 서울에 왜관을 설치하고 그곳에 한해서만 왜인들의 숙박과 무역을 허용하였다. 그 뒤 조금씩 교류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 나가다가, 1443년(세종 25) 일본에 통신사로 파견된 첨지중추부사 변효문이 귀환길에 대마도주 소사다모리와 구체적인 조약을 체결하였다.

을묘왜변 48차시

조선 정부의 통제에 불만을 품은 왜구는 1555년(명종 10)에 70여 척의 배를 몰고 전라남도 연안 지방을 습격하였다. 이들은 먼저 영암의 달량성 · 어란포, 진도의 금갑 · 남도 등의 보루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고, 장흥 · 강진에도 침입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이준경을 도순찰사, 김경석 · 남치훈을 방어사로 삼아 영암에서 왜구를 크게 무찔렀다. 왜구가 물러간 후 대마도주는 을묘왜변에 가담한 왜구들의 목을 베어 보내 사죄하고 세견선의 부활을 거듭 요청하였으므로 정부에서는 세견선 5척을 허락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심 48차시

"66주를 정복하고 류큐(오키나와)와 루송(필리핀의 루손 섬), 센루오(시암), 포랑지(명대의 서양인, 특히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등 여러 나라를 위협하여 공물을 바치게 하였다. 그리고 연호를 분로쿠(文祿)로 고침과 동시에, 중국을 침략하고 조선을 멸망시켜 점유하려 하였다. 예전에 왕즈(왜구를 끌어들여 중국 연해를 침범한 해적)의 잔당을 불러 묻고서, 당인(중국인)이 왜인을 호랑이 보듯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의 기세가 더욱 교만해졌다. 병기를 더 많이 준비하고 군함을 수선하면서, 그 부하들과 모의하기를, 중국의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선인을 향도로 삼고, 저와 민의 연해 군현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인을 향도로 삼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류큐가 누설할 것을 염려하여 류큐에는 공물을 들이지 않게 하였다." - "명사" 외국전

승병 48차시

선조가 이르기를 "국난이 이러하니 네가 구제할 길이 없겠는가?"하였다. 대사가 눈물을 흘리고 절하면서 "국내의 승도로 늙고 병들어 소임을 맡을 수 없는 자는 자기 있는 곳에서 분향 수도로 신의 도움을 기도하도록 하였고, 나머지들은 다 모집해 와서 전장에 나가고자 합니다. 신들이 비록 속세를 떠났으나 국내에서 태어나 성상의 은육을 입었으니, 어찌 한 번 죽는 것을 아끼겠습니까? 원컨대 충성과 적심을 바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선조가 크게 기뻐하며 '일국도대선사 8도 선교 도총섭' 칭호를 하사하도록 명하였다. 이제 휴정은 문도를 이끌고 순안 법흥사에 주둔하고 8도 사찰에 격문을 전하니, 건장하고 용감한 승려들이 다 모여들었다. 휴정의 제자 처영은 지리산에서 일어나 권율의 막하에 들어갔고, 유정은 금강산에서 일어났다. - "대동야승"

의병 48차시

여러 도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경상 · 전라 · 충청 3도의 병사들은 모두 인심을 잃어서 일어난 뒤에 군인과 양곡을 독촉하자 백성들은 다 이들을 미워하여 왜적을 만나면 흩어져 도망가 버렸다. 마침내 도내의 거족으로 명망 있는 사람과 유생 등이 조정의 명을 받들어 의를 부르짖고 일어나니 소문을 들은 자들은 격동하여 원근에서 이에 응모하였다. 비록 크게 이긴 싸움은 없었지만 민심을 얻어서 국가의 명맥은 이에 힘입어 유지할 수 있었다. 호남의 고경명 · 김천일, 영남의 곽

재우 · 정인홍, 호서의 조헌이 가장 먼저 일어났다. 이에 관군과 의병이 서로 간섭하고 견제하여 병사의 상당수가 의병장과 사이가 벌어졌다. - "선조수정실록"

의병 모집 격문 48차시

요즈음 우리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황금 허리띠만 있을 뿐이며 교지만 중하게 여길 뿐이다. …… 나는 원하노니 우리 동지 의사들은 이 얻기 어려운 기회를 아끼라. 우리들이 활시위를 저들에게 당기면 저들은 스스로 놀라 이산할 것이고 백성들은 다시 고향에 돌아와 밭을 갈고 집을 수리하게 될 것이다. …… 우리가 일전에 힘을 다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안업을 남기기 위함이다. 이 격문이 가거든 마땅히 충분히 상의하여 오직 나라를 위하여 왜적 토벌에 함께 마음과 힘을 다하라. 식견과 사려가 있는 사람은 원대한 꾀를 내고, 대담하고 용맹이 있는 사람은 힘을 다할 것이며, 재산이 있는 사람은 군량을 보조하고, 튼튼한 노비가 있는 사람은 군병을 보조하면 …… 이것이 조헌의 혈성을 다하여 고하는 것이니 기회를 잃지 말고 반드시 저 왜적을 토벌하기 바라노라. - "조헌전서"



▲ 칠백의총(충청남도 금산)
임진왜란 때 왜적과 싸우다 순절한 고경명, 조헌, 영규 대사 등 700 의사(義士)의 유해를 합장한 곳이다.

한산도 대첩 48차시

전라 수군 절도사 이순신이 경상 우수사 원균, 전라 우수사 이억기 등과 함께 적병을 거제도 바다 가운데에서 크게 격파하였다. …… 이보다 먼저 적장 고니시 유키나가는 평양에 이르러 글을 보내 말하기를 "일본의 수군 10만여 명이 서해에서 올 것입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대왕의 행차는 이로부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였는데, 대체로 적은 수군과 육군이 합세하여 서쪽으로 내려오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싸움에 힘입어 한 팔이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가는 평양성을 빼앗았다고 하더라도 형세가 외로워서 다시는 전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나라에서는 전라도와 충청도를 확보할 수 있었고 황해도와 평안도 연안 일대도 보전할 수 있었으며, 군량을 조달하고 호령을 전달할 수가 있어서 나라의 중흥을 이룩할 수 있었다. - 유성룡, "징비록"

임진왜란 때 한산도 앞바다에서 경상 우수사 원균, 전라 우수사 이억기, 전라 좌수사 이순신이 거느린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크게 무찌른 전투이다. 수륙 병진 계획으로 조선에 침입해 온 일본의 수군이 옥포, 당포, 당항포 등지에서 당한 패전을 만회하기 위하여 병력을 증강하고 거제도 등지로 침입해 왔다. 55척의 함선으로 편성된 조선 수군은 73척으로 구성된 일본 함대를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여 격멸할 계획을 세웠다. 이순신은 일본 함대를 한산도 앞으로 유인하고, 학익진으로 적을 공격하여 46척을 격침시키고 12척을 나포하였으며, 일본 함선은 14척만이 패주하였다. 한산도 대첩은 일본 수군의 주력을 거의 격파하여 그들의 수륙 병진 작전 계획을 좌절시켰으며, 육지에서의 패배로 사기가 떨어진 조선군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아가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육지의 일본군에게도 위협을 주어 그때까지 불리했던 전세를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산도 대첩을 가리켜 헐버트는 "이 해전은 조선의 살라미스 해전이라 할 수 있으며, 이 해전이야말로 도요토미의 조선 침략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 라고 감탄하였다.

명량 대첩 48차시

명량 대첩은 1597년 9월 16일에 이순신이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선을 명량(울돌목)에서 대파한 해전이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원균이 거느린 조선 수군이 크게 패하여 이순신이 3도 수군 통제사로 복귀하였을 때 남은 함선은 12척에 불과하였다. 이때 이순신은 일본 수군이 황해로 진출하는 길목인 명량을 지키기 위해 진도의 벽파진으로 이동하였다. 일본 함대가 명량에 들어서자 이순신은 일자진을 형성하여 일본 수군과 일대 혼전을 전개하였는데, 이 무렵에 조류가 급격히 바뀌게 되었다. 급히 흐르는 조류에서는 조선의 소수 함대에 비해 일본의 다수 함대가 활동하기에 불리하였다. 특히, 좁은 수로와 불규칙한 조류의 흐름으로 일본 수군은 대오가 무너져 31척의 전함이 격침되는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였다. 이 해전의 승리로 조선은 일본군의 황해 진출을 차단하고 정유재란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 49차시

강홍립이 오랑캐에게 있으면서 고하기를, "사방으로 방비하였으나, 사졸들이 좌 · 우영이 무너진 것을 목격하고는 당황하여 겁내지 않는 자가 없어,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또한 원병도 없어 신이 부득이 화해를 청하여 오랑캐 장수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와 귀국이 조금도 혐의나 원한이 없고, 금번 군사 출동도 원래 우리나라의 의사가 아니다. 서로 싸우기로 한다면 우리 군사는 죽음을 각오하였으니, 귀국에 무슨 이득될 것이 있겠는가? 강화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더니, 오랑캐 장수가 승낙하였습니다." …… 11월 비밀 비망기에 "어제 홍립의 글을 보니 저 적(후금)이 우리를 침범할 계획을 훤히 알아볼 수 있었다. …… 여진족은 욕심이 많아 뇌물이 아니고서는 꾀를 쓰기 어려우니, 홍립의 집에서 준비하여 보내게 하는 것이 무방하리라. 홍립 등의 죄가 중하지만 만일 군사를 멈추게 하여 화를 면할 수 있다면 불쌍히 여길 만하다. ……"하였다. - "대동야승"

최명길의 주화론 49차시

"화친을 맺어 국가를 보존하는 것보다 차라리 의를 지켜 망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신하가 절개를 지키는 데 쓰는 말입니다. …… 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경망하게 큰소리를 쳐서 오랑캐들의 노여움을 도발하여, 마침내는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종묘와 사직에 제사 지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 허물이 이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 늘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국력은 현재 바닥나 있고, 오랑캐의 병력은 강성합니다. 정묘년(1627)의 맹약을 아직 지켜서 몇 년이라도 화를 늦추시고, 그 동안을 이용하여 인정을 베풀어서 민심을 수습하고 성을 쌓으며, 군량을 저축하여 방어를 더욱 튼튼하게 하되, 군사를 집합시켜 일사 분란하게 하여 적의 허점을 노리는 것이 최상의 계책일 것입니다."

- 최명길, "지천집"

윤집의 척화론 49차시

"화의로 백성과 나라를 망치기가 …… 오늘날과 같이 심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곧 부모요, 오랑캐(청)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곧 부모의 원수입니다. 신하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가 되어서 부모를 저버리겠습니까? 하물며 임진왜란의 일은 터럭만한 것도 황제의 힘이어서 우리나라가 살아 숨 쉬는 한 은혜를 잊기 어렵습니다. …… 차라리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의리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 어찌 이런 시기에 다시 화의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 "인조실록"

삼전도의 치욕 49차시

삼전도에 나아갔다 멀리 바라보니 한(청 태종)이 황옥을 펼치고 앉아 있고 갑옷과 투구 차림에 활과 칼을 가진 자가 방진을 치고 좌우에 서 있었다. 악기를 진열하여 연주했는데, 대략 중국 제도를 본뜬 것이었다. 왕이 걸어서 진 앞에 이르렀다. 용골대가 들어가 보고하고 나와서 한의 말을 전하였다. "지난날의 일을 말하려면 길다. 이제 용단을 내려 왔으니 매우 다행스럽고 기쁘다." 왕(인조)이 대답하였다. "천은이 망극합니다." 용골대 등이 데리고 들어가 단 아래에 북쪽을 향해 자리를 마련하고 왕에게 나가기를 청하였다. 사람을 시켜 크게 소리치게 하였다. 왕이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였다. - "인조실록"

북벌론 49차시

북벌론은 청을 정벌하여 문화가 높은 우리나라가 문화가 낮은 오랑캐에게 당한 수치를 씻고, 나아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 준 명에 대하여 의리를 지키자는 주장이었다. 북벌론의 사상적 기반은 '춘추'의 존왕양이론에 입각한 정통론과 성리학의 명분론이다.

이 계획은 병자호란 때 청에 인질로 잡혀가 온갖 고초를 겪은 후 귀국하여 왕위에 오른 봉림 대군, 즉 효종에 의해서 적극 추진되었다. 효종은 송시열, 송준길 등을 등용하여 국방 정책을 수립하고, 이완을 어영대장에 임명하여 군사 훈련을 강화하였다. 또, 표류해 온 네덜란드 인 하멜 등을 훈련도감에 소속시켜 조총과 화약 생산에 노력하였다. 이러한 군사력 강화 노력은 나선 정벌에서 효과가 입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국가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효종이 서거하면서 실현되지 못하였다. 현종, 숙종 때에도 거듭 북벌론이 제기되어 만주족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대단원 마무리 풀이

교과서 | 178~179쪽



내용 확인하기

❶ 세종

✚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4군 6진을 개척하였다.

❷ 수령(지방관)

✚ 모든 군현에 파견되었으며, 관찰사의 지휘를 받았다.

❸ 훈민정음

✚ 연산군 이후에 일부 유학자들은 속된 글이라는 뜻의 '언문'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❹ 서원

✚ 주세붕이 고려의 유학자 안향의 제사를 지내고자 설립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이다.

❺ 의병

✚ 향토 지리에 익숙한 점을 이용하여 일본군에 큰 타격을 입혔다.

❻ 중립 외교

✚ 광해군은 명의 원군 요청에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그 지휘관인 강홍립에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라고 하였다.

과제 풀어가기

| 지도 요령 |

이 과제는 임진왜란 이후의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특히 〈과제 2〉는 당시 광해군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행한 중립 외교 정책을 평가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당시의 국제 정세를 바르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

1. ㉠ 명, ㉡ 일본, ㉢ 후금(청)

2. **| 예시 답안 |**

- 사례 1: 명이 임진왜란 때 위기에 처한 조선을 도왔기 때문에 조선도 명이 위기에 빠졌을 때 도와야 한다.
- 사례 2: 비록 명이 조선을 도왔지만, 그것은 자기 나라의 안위를 우선했던 것이다. 지금 후금의 세력이 강하고 조선은 오랜 전란으로 매우 허약해졌다. 지금 후금의 침입을 받으면 극복하기 어렵다.

대단원 짚고 가기

01 조선의 건국 과정에서 일어난 〈보기〉의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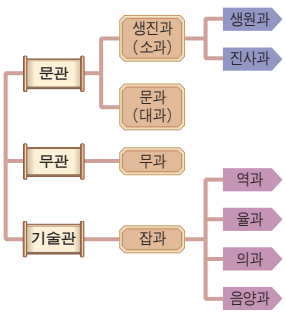
(가) 한양 천도　　(나) 조선 건국
(다) 과전법 공포　　(라) 위화도 회군

① (가) – (나) – (다) – (라)　② (나) – (라) – (다) – (가)
③ (다) – (라) – (가) – (나)　④ (라) – (다) – (가) – (나)
⑤ (라) – (다) – (나) – (가)

0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선 시대의 관청 세 곳을 쓰시오.

> 이들 관청은 언론 기능을 담당하여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였다. 이곳의 관리는 행정 관청을 견제하고,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언관'이라고도 불렸다. 이들은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 서로 연합하여 국왕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올렸고, 국왕도 함부로 이를 물리치지 못하였다.

03 다음은 조선 시대의 과거제를 나타낸 도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① 3년마다 정기 시험을 치렀다.
② 문과보다 무과가 우대되었다.
③ 양인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④ 잡과는 주로 중인들이 응시하였다.
⑤ 생원과 진사는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었다.

04 다음은 훈민정음 서문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 우리나라의 말과 소리가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

① 서민들의 문자 생활이 가능해졌다.
② 모든 교서가 훈민정음으로 작성되었다.
③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가 만들어졌다.
④ 국문학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⑤ 국가 정책을 백성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되었다.

05 조선 초기에 다음과 같은 의도에서 편찬된 서적이 <u>아닌</u> 것은?

> 고려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운 조선의 지배층은 새 왕조 개창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을 시급히 추진하였다. 또한 성리학적 통치 규범을 정착시키고자 국가 차원에서 역사서 편찬에 관심을 기울였다.

① "고려사"　② "고려국사"
③ "동국통감"　④ "조선왕조실록"
⑤ "동국여지승람"

06 조선 초기에 다음과 같은 기구와 책이 만들어진 공통적인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농업의 발달　② 시간의 측정
③ 천체의 관측　④ 달력의 제작
⑤ 국방력의 강화

07 다음 사건들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무오사화(1498년, 연산군 4년)
- 갑자사화(1504년, 연산군 10년)
- 기묘사화(1519년, 중종 14년)
- 을사사화(1545년, 명종 1년)

①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의 대립
② 신진 사림과 기존 사림의 대립
③ 권문세족과 신진 사대부의 대립
④ 급진파 사대부와 온건파 사대부의 대립
⑤ 예송 논쟁을 둘러싼 서인과 남인의 대립

08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 덕업상권(德業相勸): 착한 일을 서로 권한다.
- 과실상규(過失相規): 잘못된 것을 서로 규제한다.
- 예속상교(禮俗相交): 예의 바른 풍속으로 서로 교제한다.
- 환난상휼(患難相恤): 어려운 일을 서로 돕는다.

① 서원 ② 향약 ③ 서당
④ 향교 ⑤ 유향소

09 다음 연표의 빗금 친 시기에 일어난 정치·사회적인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림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② 향약이 조직되어 점차 확산되었다.
③ 사림이 전국에 서원을 설립하였다.
④ 사림이 분열하여 붕당을 형성하였다.
⑤ 서인과 남인 사이에 예송 논쟁이 벌어졌다.

10 다음 지도와 같이 오늘날의 국경선이 확정된 시기는?



① 성종 ② 세조
③ 세종 ④ 태조
⑤ 태종

11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광해군이 취한 외교 정책은?

> 임진왜란을 겪는 동안 조선과 명이 약해진 틈을 타 여진의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였다. 강성해진 후금은 명에 전쟁을 포고하였다. 이에 명이 후금을 공격하고자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광해군은 명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원군을 파견하였다.

① 사대교린 정책 ② 중립 외교 정책
③ 친금 배명 정책 ④ 친명 배금 정책
⑤ 후금 토벌 정책

12 다음은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이다. 이 논란의 결과를 간단히 서술하시오.

> 신하 1: 명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부모와 같은 은혜를 베푼 나라입니다. 명을 저버리고 오랑캐 밑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 신하 2: 우리의 국력은 고갈되었고 오랑캐의 병력은 강성합니다. 일단 몇 년이라도 화를 늦추어 민심을 수습하고 군사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답

01 ⑤ **02**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03** ② **04** ② **05** ⑤ **06** ① **07** ① **08** ② **09** ⑤ **10** ③ **11** ② **12** 청과 굴욕적인 군신 관계를 맺었다.

Ⅵ 조선 사회의 변동



▲ 정조 대왕 능행 반차도(복원도)

① 단원의 개관

이 단원에서는 양난 이후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을 다룬다. 정치적으로 통치 구조의 변화와 탕평책의 실시를 살피고, 사회 변화에 따른 실학의 등장을 이해한다. 아울러 과학 기술의 발달과 국학의 연구, 서민 문화의 발달 등 문화면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향을 파악한다. 그리고 19세기 세도 정치의 폐단과 새로운 종교의 등장, 농민 봉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본다.

01. 조선 후기의 정치 변화에서는 비변사의 강화와 5군영의 성립 등 통치 구조의 변화를 파악한다. 또 상호 비판의 바탕 위에서 공존을 모색하던 붕당 정치가 예송 논쟁 이후 환국 등으로 변질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탕평책이 실시되었음을 파악하고, 영조 · 정조가 실시한 개혁 정치의 내용도 살펴본다.

02. 사회 변화와 실학의 등장에서는 실학이 주장될 당시의 사회 · 경제적 변화와 사상의 동향을 파악하고, 조선 후기 사회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했던 중농학파와 중상학파 실학자들의 주장을 조사하여 비교한다.

03. 조선 후기 문화의 새로운 변화에서는 조선 후기에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국학 연구가 활기를 띤 국내외적인 배경을 알아본다. 또한 한글 소설, 판소리, 민화 등이 발달하여 서민 문화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예술 분야에서도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음을 파악한다.

04. 세도 정치와 농민 봉기에서는 세도 정치의 폐해로 삼정이 문란해지고,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천주교와 동학이 확산되었음을 이해한다. 또한 부정부패로 고통받던 백성의 불만이 폭발하여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로 이어졌음을 파악한다.

② 단원의 목표

지식 · 이해	• 붕당 정치의 순기능과 폐단을 파악할 수 있다. • 붕당 정치의 변질 과정을 파악하고, 탕평책이 실시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 조선 후기 문화의 각 분야에서 나타난 새로운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다.
기능	• 붕당의 전개 과정을 도식화하여 그 계보를 작성할 수 있다. • 영조와 정조가 실시한 탕평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비교할 수 있다. • 중농학파와 중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조사하여 그들이 내세운 주장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 수 있다.
가치 · 태도	• 예송 논쟁을 비롯한 붕당의 논쟁과 대립을 통해, 상호 비판과 상호 공존을 함께 모색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깨닫는다. • 조선 후기 실학의 연구, 서민 문화의 발달, 농민의 저항 등을 통해 시대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태도를 기른다. • 19세기 세도 정치의 전개, 매관매직의 성행, 삼정의 문란, 전국적 농민 봉기가 일련의 연관성을 가졌음을 인식하여 역사의 인과 관계를 이해하는 태도를 갖는다.

3 단원의 구조와 지도 계획

차시	중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
50	01. 조선 후기의 정치 변화	1. 통치 구조의 변화	비변사의 강화, 의정부와 6조의 기능 축소, 5군영 설치, 훈련도감과 삼수병, 속오군 편성
51		2. 붕당 정치의 전개와 탕평책	붕당 정치, 북인, 서인, 남인, 산림, 예송 논쟁, 환국, 탕평책, 균역법, 규장각, 장용영, 영조와 정조
52	02. 사회 변화와 실학의 등장	1. 실학의 발생 배경	모내기법, 신분제의 동요, 농민층의 분화, 민영 수공업 발달, 보부상, 상평통보, 양명학
53		2. 실학의 등장	고증학, 실학의 특징, 유형원, 이익, 정약용, 유수원, 박지원, 박제가, "북학의", 수원 화성
54	03. 조선 후기 문화의 새로운 변화	1. 과학 기술의 발전과 국학 연구	곤여만국전도, 지전설, 시헌력, "동의보감", "색경", "발해고", "택리지", 대동여지도, 추사체
55		2. 서민 문화 발달과 예술의 새 경향	한글 소설, 판소리, 탈놀이, 민화, 시사 조직, 정선, 진경 산수화, 김홍도, 신윤복, 풍속도, 청화 백자
56	04. 세도 정치와 농민 봉기	1. 사회 모순의 심화와 새로운 종교의 등장	세도 정치, 삼정의 문란, 예언 사상, 비기와 도참, "정감록", 미륵불, 천주교, 동학, 최제우, 인내천
57		2.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	벽서, 향회, 홍경래의 난, 임술 농민 봉기, 삼정이정청, 암행어사

4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권력 기구와 군사 조직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파악하도록 한다.
- 영조와 정조가 실시한 탕평책의 본질을 이해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한 개혁 내용을 정리하게 한다.
- 실학이 발생한 배경을 알게 하고,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를 비교하는 표를 만들게 한다.
- 실학자들이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국학을 연구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
-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발달과 관련된 자료를 분야별로 모아 분류하게 한다.
- 세도 정치로 사회 모순이 깊어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종교를 조사하여 그들의 주장을 비교해 본다.
- 조선 후기 농민 봉기 시기의 자료를 제시하여 당시 농민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도록 한다.

5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 국사 편찬 위원회편, "한국사 30, 31, 35", 1998.
- 이태진, "조선 후기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
- 이희환, "조선 후기 당쟁 연구", 국학자료원, 1995.
- 송찬식, "조선 후기 사회 경제사의 연구", 일조각, 1997.
- 오영교, "조선 후기 사회사 연구", 혜안, 2005.
- 한우근 · 이성무, "사료로 본 한국 문화사", 일지사, 1986.
- 신용하, "조선 후기 실학파의 사회 사상", 지식산업사, 1997.
- 강만길, "조선 시대 상공업사 연구", 한길사, 1984.
- 조광, "조선 후기 천주교사 연구", 민족문화연구소, 1988.
- 최동희, "동학의 사상과 운동",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0.
- 김준형, "1862년 진주 농민 항쟁", 지식산업사, 2001.
- 국사 편찬 위원회 http://www.history.go.kr/

Ⅵ. 조선 사회의 변동

01 조선 후기의 정치 변화

학습 목표

-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나타난 조선 후기 통치 구조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 임진왜란을 계기로 재편된 중앙군과 지방 방어 체제를 각각 정리할 수 있다.
- 예송 논쟁과 환국을 거치면서 붕당 정치가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 이해할 수 있다.
-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내용	수업 방법	수업 자료
50	**1. 통치 구조의 변화**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조선 초기 국가 최고 권력 기관은 무엇이었을까?	문답식	CD
	[전개] • 비변사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면서 의정부와 6조의 기능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설명한다.	강의식	
	• 조선 후기 중앙군인 5군영이 어떤 과정을 통해 편성되었는지 파악하게 한다. • 조선의 지역 방어 체제가 시대에 따라 변화한 과정을 정리하게 한다.	탐구식	183쪽 자료 PPT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훈련도감 소속의 직업 군인으로서 포수, 살수, 사수를 이르는 말은? 2. 임진왜란을 계기로 편성되었으며, 양반, 양인, 천인을 모두 포함한 군대는?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학습지
51	**2. 붕당 정치의 전개와 탕평책**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처음 붕당이 나누어진 계기는 무엇일까?	문답식	CD
	[전개] • 붕당 정치의 긍정적인 요소를 설명한다.	강의식	
	• 숙종 대 이후 붕당 정치의 변질 과정을 환국과 노론 · 소론의 분당 과정을 탐구하여 이해하게 한다.	탐구식	185쪽 자료
	• 영조와 정조가 실시한 탕평책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추진된 개혁 정치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186쪽 자료

51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서인과 남인의 정치 대립으로 집권 세력이 급격히 교체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은? 2. 정조가 설치하여 학문적으로 왕의 정책을 뒷받침하게 한 기관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통치 구조의 변화

(1) **비변사**

① **비변사의 설치**

- 여진족과 왜구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한 임시 기구
- 16세기 중엽 왜구의 잦은 침입 → 상설 기구로 변모

② **비변사의 기능 강화**

-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기능 강화 → 최고 회의 기구
- 결과: 의정부의 기능 약화, 6조의 기능 축소

(2) **5군영**

① **훈련도감의 설치**

- 배경: 임진왜란 중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 절감
- 편성: 삼수병(포수, 살수, 사수) → 직업 군인의 성격

② **5군영의 성립**

- 군영의 추가 설치: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
- 특정 붕당의 군사적 기반 역할을 하기도 함.

(3) **속오군**

① **지방 방어 체제 변화**: 임진왜란 중 속오법 체제로 변화

② **속오군의 편성**

- 편제: 양반을 비롯한 양인과 천민 포함
- 운영: 농한기에 군사 훈련 → 평상시 생업 종사, 유사시 전투 참여
- 변화: 양반과 평민의 이탈 → 천민군으로 전락

2. 붕당 정치의 전개와 탕평책

(1) **붕당 정치의 전개**

① **북인의 정권 장악**: 의병 활동에 적극 참여, 광해군 때 왕권 강화 주력, 상공업 진흥 노력

② **서인의 집권**: 인조반정 이후

- 서인과 남인의 공존: 상호 비판과 상호 공존
- 여론의 형성: 서원 중심, 산림이 주도
- 예송 논쟁: 서인과 남인의 정치적 견해 차이 부각

(2) **붕당 정치의 변질**

① **붕당 정치의 변질**: 숙종 이후

- 환국의 발생: 붕당 간의 견제와 균형 와해
- 노론과 소론의 분당 → 특정 붕당(노론)의 정권 독점

② **붕당 정치의 결과**

- 3사와 이조 전랑의 비중 약화
- 비변사의 기능 강화: 고위 관료에게 정치권력 집중

③ **숙종의 탕평책**: 붕당 간의 대립 조정, 왕권 강화 목적 → 정국의 혼란 초래

(3) **영조의 정치**

① **영조의 탕평책**: 붕당의 대립 완화와 왕권 강화를 위해 탕평파 등용 → 서원 정리, 산림의 존재 부정

② **영조의 개혁 정치**: 균역법 시행, 형벌 제도 개혁, 신문고 부활, "속대전" 편찬

(4) **정조의 정치**

① **정조의 탕평책**

- 적극적 탕평책: 소론과 남인의 정권 참여
- 규장각 설치: 왕권과 정책 뒷받침, 학문 연구

② **정조의 개혁 정치**

- 장용영 설치: 왕권의 군사적 기반 마련
- 화성 건설: 정조의 이상을 실현하는 도시로 육성
- 사회 · 경제 개혁: 서얼과 노비 차별 완화, 상업 활동의 자유 허용
- 향촌 지배 강화: 수령이 향약을 직접 주관

③ **탕평책 실시의 결과**: 정치의 안정, 왕권 견제 세력의 소멸 → 세도 정치 등장의 배경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82쪽

군사와 관련된 사무, 수령의 임명, 조세의 운반, 군영의 설치, 공물의 진상, 충신과 효부의 표창 등

생각 열기 ▶▶▶ 교과서 184쪽

탕평책이 시행되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85쪽

1. 자료 1 노론 처벌 상소

삼강 중 군위신강이 으뜸이 되며 오륜의 첫머리는 군신유의인데 이들의 무너짐이 오늘날과 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조정의 신하 된 자라면 마땅히 임금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몇몇 노론 신하들이 이를 어겼습니다. 노론 대신들을 모두 처단하십시오.

- "경종실록"

2. 합리적인 여론이 무시되고 자기 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정국이 혼란해졌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87쪽

1. (1) 훈련도감, (2) 신문고, (3) 장용영, 화성
2. (1) ㉠, (2) ㉢, (3) ㉡
3. (1) 변방의 수비를 담당하는 기구로, 임진왜란 이후 국가 최고 회의 기구가 되었다.
   (2) 왕실의 장례 절차 중 상복 입는 기간을 둘러싸고 벌어진 서인과 남인의 정치적 논쟁이다.

내용 더하기

비변사 50차시

"그런데 오늘에 와서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정부는 한갓 헛이름만 지니고 6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하였습니다.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備邊)'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하(判下)나 비빈을 간택하는 등의 일까지도 모두 여기를 경유하여 나옵니다. 명분이 바르지 못하고 말이 순하지 않음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비변사를 혁파하여 정당(政堂)으로 개칭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6조의 판서와 참판으로 하여금 각기 해당 사항을 대신에게 품의 결정하게 해서 조종조(祖宗朝)의 옛 법을 회복한 뒤에야 체통이 바르게 되고 각자의 직무에 충실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치도를 논할 때 먼저 그 명분을 바로잡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비변사를 혁파한 후에 군국의 중요한 기밀을 어디에 맡길 것인가"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병조 판서의 직무입니다. 6군(六軍)을 장악하고 국가를 태평하게 하는 자의 권위와 명망이 비국의 일개 유사(有司)만 못하겠습니까."

- "효종실록"

훈련도감 50차시

1592년(선조 25)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조선은 20여 일 만에 서울이 무너지는 등 참패를 면하지 못하였다. 당시 왜군은 병력이나 전술, 무기 등이 조선보다 우세하였기 때문에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군사 제도를 개편해야 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593년 10월 훈련도감을 설립하였다.

훈련도감은 조총을 다루는 포수를 중심으로 창검을 사용하는 살수, 활을 쏘는 사수로 구성된 삼수병으로 이루어졌다. 훈련도감은 군인들이 가족을 거느리고 서울에 살면서 군무를 수행하는 상비병 체제로 운영되었다.

5군영의 완성 50차시

훈련도감을 설립한 뒤 정부는 계속되는 정치적 · 군사적 위기 속에서 중앙 군영들을 잇달아 마련하였다. 1624년(인조 2)에는 이괄의 난을 계기로 서울과 경기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융청을 설치하고, 경기 내 군인을 여기에 속하게 하여 남양 · 수원 · 장단 등 경기 지역의 여러 진을 통솔하였다. 2년 뒤에는 남한산성에 수어청을 두고 광주와 그 부근의 여러 진을 정비하였다.

1652년(효종 3)에는 북벌 계획에 따라 각 도의 정군이 교대로 번상하여 근무하는 어영청을 설치하였고, 1682년(숙종 8)에는 도성 수비를 목적으로 정병과 훈련도감 군사의 일부를 주축으로 금위영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한 5군영 체제가 완성되었다.

속오군의 변질 50차시

지금 속오군이라는 것은 사노(私奴) 등 천인들로 구차하게 숫자만을 채웠으며, 어린아이와 늙은이들을 섞어 대오를 편성하였다. 전립(戰笠)은 깨지고 전복(戰服)은 다 찢어졌으며, 100년 묵은 칼은 녹슬어 자루만 있고 날은 없으며, 3대를 내려오도록 정비하지 않은 총은 화약을 넣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대오도 오래 비었으므로 장부에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이름이 서로 섞여 기록되어 있어 훈련 시에는 임시로 사람을 사서 하루의 병역에 응하도록 하니 설립한 시초부터 어그러진 것이 이와 같았다.

- "목민심서"

붕당 51차시

본래 성리학에서는 붕당을 정치 세력으로 인정하였다. 그 전형적 견해는 구양수의 '붕당론'과 주자의 '인군위당설'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구양수는 붕당을 공도 실현을 추구하는 군자의 당인 진붕(眞朋)과 사리를 도모하는 소인의 당인 위붕(僞朋)으로 구분하고, 군주가 군자의 당인 진붕을 등용할 때 정치는 저절로 바르게 이끌어진다고 하였다. 주자는 여기서 나아가 붕당이 있는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그

붕당이 군자의 당이라면 군주를 오히려 그 당에 들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는 대체로 중국 송대 이후에 나타난다. 이전의 한 · 당대에는 정치는 군주 1인의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군주 앞에서 신료들 간의 붕당은 죄악시되었다. 물론 이러한 이해만으로 조선 시대 붕당의 본질을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선 시대 나름의 독특한 붕당적 질서도 그와 같은 양면적 붕당론을 토대로 전개되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산림의 등장 51차시

산림(山林)은 당시 산곡임하(山谷林下)에 살던 학덕을 갖춘 유학자로 사림을 대표하는 존재였다. 16세기 이래 잦은 사화, 과거 급제자의 대량 배출, 재지 사족의 성장 등과 관련하여 처사로서 일생을 보내려는 유생들이 늘어났다. 그러다 학덕이 뛰어나고 많은 문도를 거느린 학자가 산림으로 불리면서 정계나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중종 대 현량과 급제자, 명종 대 성수침, 조식, 선조와 광해군 대 정인홍, 성혼 등이 산림으로 주목받았다.

복상 문제를 둘러싼 예송 논쟁 51차시

유교에서는 인간의 출생부터 죽은 뒤까지의 일생과 관련하여 관혼상제의 예법을 엄격하게 지켰다. 조선 후기 남인과 서인 간에 이 예법을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이 전개되었는데, 이를 '예송(禮訟)'이라고 한다. 예송은 왕실의 장례 절차(상례)와 관련된 것이었다.

현종 때, 효종과 효종 비의 장례 절차를 놓고 효종의 계모인 자의 대비가 몇 년간 상복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두 차례 있었다. 이는 단순한 의례에 그치지 않고 왕위의 정통성 시비와 연관된 정권 다툼이었다. 즉 효종이 죽자 계모였던 자의 대비가 몇 년 간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를 놓고 서로 대립하였다. "주자가례"에 따르면, 부모가 죽으면 자식은 3년상이고, 장남이 죽으면 어머니가 3년상을 따르고 둘째 아들부터는 1년상이다. 그런데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다. 송시열을 영수로 하는 서인은 "왕실도 사대부 집안과 같은 예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1년상을 주장하였다. 한편 허목을 영수로 하는 남인은 "왕실의 예는 일반 사대부 집안과 다르다."라는 논리를 내세워 자의 대비가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기해예송).

몇 년 후 효종 비가 죽었을 때 자의 대비의 상복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주자가례"에 따르면 효종 비를 맏며느리로 보면 1년 동안, 둘째 며느리로 보면 9개월 동안 자의 대비가 상복을 입어야 했다. 서인은 1차 예송 때와 같은 논리로 효종 비를 둘째 며느리로 보았으나, 남인은 큰며느리라고 주장하면서 2차 예송이 벌어졌다(갑인예송).

이를 왕권과 신권의 긴장 관계라는 점에서 파악하면 서인은 신권을 강화하려는 태도였고, 남인은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국 51차시

붕당 정치가 극단적인 권력 다툼으로 변질되어 가는 상황에서 한 붕당에서 다른 붕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을 가리킨다. 주로 숙종 때 남인과 서인의 대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숙종은 붕당 간의 대립을 조장 · 활용하면서 왕권을 지탱해 나갔다.

경신환국(1680) 51차시

숙종 때 남인 정권이 무너지고 서인이 중용된 사건으로 경신대출척이라고도 한다. 남인은 현종 때 갑인예송(甲寅禮訟)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잡았으나, 숙종은 즉위 초부터 남인을 견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1680년 3월 남인의 영수인 허적이 자신의 조부 허잠이 시호(諡號)를 받게 되자 이를 기념하는 잔치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른바 유악(油幄, 왕실에서 사용하는 기름칠한 천막) 사건이 일어났다. 마침 이날 비가 내려 숙종은 유악을 허적의 집에 보내려 하였다. 그러나 이미 가져간 것을 알고 크게 노하여 군권(軍權)의 책임자들을 불러 서인에게 군권을 넘기는 전격적인 인사 조처를 단행하였다. 이어 허적의 서자 허견이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 3형제와 함께 역모(逆謀)를 꾀한다는 고변에 휘말리게 되어 허적을 비롯한 많은 남인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다.

경신환국 이후로 붕당 정치는 일당 전제의 경향을 띠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던 체제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로써 한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고 상대 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붕당 정치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기사환국(1689) 51차시

희빈 장씨와 인현 왕후 민씨가 관련된 사건으로 정권을 잡았던 서인이 다시 남인에게 권력을 내준 환국이다. 후궁 장씨가 숙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왕자를 낳자, 숙종은 소의

장씨가 낳은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려고 하였다. 당시 권력을 상실한 남인은 장 희빈을 이용하여 서인 세력을 몰아내고자 하였다. 이에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이 장씨 소생의 왕자를 원자로 삼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러자 숙종은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서인 세력을 몰아내고 남인을 등용하였다. 이때 인현 왕후는 폐출되고 장씨가 왕비가 되었다. 숙종은 탕평을 내세웠지만 서인과 남인의 대립을 이용하여 왕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전략을 썼던 것이다.

갑술환국(1694)

51차시

기사환국으로 집권한 남인이 물러나고, 소론과 노론이 다시 정국을 장악한 사건이다. 1694년(숙종 20) 노론이 폐비된 인현 왕후 민씨의 복위 운동을 전개하자, 당시 정국을 장악한 남인이 민씨 복위 운동의 주동자들을 심문하고 이를 숙종에게 보고하려 하였다. 그러나 폐비 사건을 차츰 후회하던 숙종은 오히려 기사환국을 주도했던 남인을 몰아내고, 소론을 대거 기용하여 정국을 주도하게 하였다. 노론 측도 송시열, 민정중, 김익훈 등이 복관되어 기사환국 이전의 상태가 되었다. 반면 남인은 정권을 상실하고 많은 사림들이 유배되었다. 갑술환국 이후 남인은 다시 세력을 만회하지 못하였다. 이때 인현 왕후는 왕비로 복귀하였고, 장씨는 사사되었다.

이중환이 본 붕당

51차시

서울에는 네 붕당이 모여 서로 대립하고 있고, 지방에는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를 제외하고 네 붕당이 골고루 흩어져 살고 있다. 그런데 오직 경상도는 이황의 학문을 계승하고, 그의 제자인 유성룡을 받들고 있다. 유성룡이 남인이어서 온 도내의 사대부들이 모두 남인이 되어 의견이 통일되었다. 조정에서 노론, 소론, 남인의 세 붕당이 날이 갈수록 사이가 나빠져 서로 역적이라는 이름으로 모함하니, 그 영향이 시골에까지 미쳐 큰 싸움터가 되었다. 그래서 서로 혼인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붕당은 서로 용납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

- "택리지"

이익의 붕당론

51차시

붕당은 싸움에서 생기고 싸움은 이해관계에서 생긴다. 이해관계가 절실하면 붕당이 깊어지고, 이해관계가 오래될수록 붕당이 견고해지는 것은 당연한 형세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열 사람이 함께 굶주리는데, 한 그릇의 밥을 같이 먹게 되면, 그 밥을 다 먹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 조정의 붕당도 어찌 이와 다르겠는가? …… 대개 과거 제도가 번잡하여 인재를 너무 많이 뽑으며, 애증이 치우쳐서 진퇴가 일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이 밖에도 벼슬길이 분분하게 많으니, 이것이 이른바 관직은 적은데 과거에 응시한 사람은 많아서 모두 조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 하물며 당파가 생긴 뒤로는 구름과 비가 뒤집히듯 하여 아무리 총명하여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 중립을 지켜 시비를 가리는 자를 용렬하다 하고, 붕당을 위해 죽어도 굽히지 않는 자를 절개가 뛰어나다고 한다. 또 영욕이 갑자기 뒤바뀌니 사람들이 어찌 붕당을 만들어 싸우지 않겠는가.

- "성호집"

서인의 분당

51차시

인조반정을 계기로 정권을 잡은 서인은 현종 때까지 남인과 대립하면서 공존하였다. 그러다 서인은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두고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결집한 노론은 대의명분을 존중하고, 민생 안정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었다. 반면 윤증을 중심으로 뭉친 소론은 실리를 중시하고, 적극적인 북방 개척을 주장하였다.

소론은 세자 시절 경종을 두둔하고 노론은 연잉군(훗날 영조)을 지지하여, 경종이 즉위하자 소론이 집권하였고 영조가 왕위에 오르자 노론이 정권을 잡았다. 그 후 정국은 사도 세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는 시파와 그것을 당연시하는 벽파로 다시 나뉘었다.

영조의 탕평 정치

51차시

"붕당의 폐해가 요즈음보다 심각한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예절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한쪽이 다른 쪽을 역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재도 그리 많은 것이 아닌데, 근래에 들어 인재를 등용할 때 같은 붕당의 인사들만 등용하고자 한다. 조정의 대신들이 서로 상대 당을 공격하면서 반역인가 아닌가로 문제를 집중하니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제 유배된 사람들의 잘잘못을 다시 살피도록 하고, 관리의 임용을 담당하는 관리들은 탕평의 정신을 잘 받들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라."

- '영조의 탕평교서'

탕평비의 내용

51차시

"신의가 있고 아첨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마음이요, 아

첨하고 신의가 없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탕평비는 영조가 성균관에 세운 비석이다. 현재는 성균관 대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바로 왼편에 있다. 위의 글은 영조가 손수 내린 내용이다. 탕평비는 노론과 소론의 격렬한 싸움의 틈새에서 왕권을 지키려는 영조의 노력이 표출된 것이다.

◀ 성균관 입구에 세워진 탕평비

균역법 51차시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셨다. 왕이 말하였다. "구전은 한 집안에서 거둘 때 주인과 노비의 명분이 문란해지고, 결포는 이미 정해진 세율이 있어 더 부과하기가 어렵다. …… 호포나 결포는 모두 문제되는 바가 있다. 이제는 한 필로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그 대책을 강구하라." - "영조실록"

금난전권의 폐해 51차시

채제공이 말하길, "…… 민폐 중에서 도고가 가장 큰 문제로 백성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선 도고를 혁파하는 것이 급합니다. 조정의 금난전법은 육의전으로 하여금 국역에 응하게 하고 전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근래 무뢰배들이 스스로 전호를 만들어 일용 물종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크게는 말이 실어 오거나 배가 실어온 상품을, 작게는 머리에 이거나 손에 들고 온 물건을 주요 길목에서 싸게 억지로 매매합니다. 그리고 물건 주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난전이라 하며 결박하여 형조와 한성부에 잡아가 벗기니 소지자가 밑질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팔고 가지 않을 수 없으며 여기서 각기 시전들이 가격을 배로 취하며 평민들은 사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비변사등록"

규장각 설치 51차시

규장각은 궁궐 안에 만들어진 일종의 도서관으로서, 군주의 글을 보관하는 것을 일차적인 임무로 하였다. 1776년 정조 즉위년에 2층 건물로 지어 1층은 정조 자신이 친히 지은 글을 보관하였고, 수시로 규장각의 관리들과 정책을 협의하는 일종의 집무실 기능을 하였다. 또 규장각 건물 옆에는 책을 모아 두는 서고를 별도로 지어 나라 안팎에서 발행된 서적을 정리 · 보관하였다. 총 3만여 권에 달하는 현재의 규장각 도서는 이 시기에 수집된 책들이다. 규장각은 세조 때 잠시 설치되었다가 폐지된 바 있었는데, 정조의 규장각 설치는 그 자체로 왕실의 위상을 드높이는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 규장각

화성 성역 51차시

1789년(정조 13)에 정조가 아버지인 장헌 세자(일명 사도 세자)의 무덤을 수원의 화산으로 옮기고 난 후, 수원부를 화성으로 고치고 성역에 착수하여 공사 시작 2년 만에 완성하였다.

성곽은 예로부터 이어 오던 전통적인 성곽 축조 경험을 바탕으로 유형원과 정약용의 과학 지식을 활용하여 지어졌다. 여기에 당시의 무기 수준과 중국 성곽의 장점을 고루 적용하여 축조되었다. 종래의 성곽은 평시에 거주하는 읍성과 전시에 피난처로 삼는 산성을 기능상으로 분리하였는데, 화성은 피난처로서의 산성을 설치하지 않고 평상시에 거주하는 읍성의 방어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처럼 대규모의 축성이 이루어진 것은 이곳이 정조의 생부인 장헌 세자의 원(園)이 있는 곳이면서 수원이 전략적 · 지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이었다.



▲ 수원 화성

Ⅵ. 조선 사회의 변동

02 사회 변화와 실학의 등장

학습 목표

- 조선 후기 경제 · 사회적 변화가 실학 발생의 배경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개혁론이 주장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실학자들이 이루고자 하였던 사회 모습을 말할 수 있다.
- 실학의 의미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내용	수업 방법	수업 자료
52	**1. 실학의 발생 배경**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임진왜란 이후 상민과 천민은 어떻게 갓을 쓰고 도포를 입게 되었을까? [전개] • 조선 후기 모내기법의 보급과 상품 작물의 재배로 나타난 사회 · 경제적 변화를 추론하게 한다. • 조선 후기 수공업과 상업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를 설명한다. • 조선 후기 성리학의 한계를 비판하고, 새롭게 등장한 학문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널리 유통되었던 화폐는? 2. 조선의 지배 이념이었으나, 조선 후기에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비판받았던 학문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탐구식 강의식 발표식 문답식	 CD 188쪽 자료 PPT 189쪽 자료 학습지
53	**2. 실학의 등장**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내가 조선 후기에 살았다면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전개] • 실학의 다양한 의미를 설명한다. • 중농주의 실학자들의 토지 개혁안을 조사하여 비교하는 표를 작성하게 한다. • 중상주의 실학자들을 조사하여 이들의 주장 중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낸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경향을 지닌 유학의 학풍은? 2. 박제가의 기행문으로, 청의 문물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 책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강의식 자기 주도식 탐구식 문답식	 CD 191쪽 자료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실학의 발생 배경

(1) **농촌 사회의 변화**

① **농촌 경제의 향상**

- 모내기법의 보급: 노동력 절감, 수확 증대
- 상품 작물 재배: 인삼, 담배, 채소, 약재, 목화 등
- 농민의 분화: 일부는 재산 축적, 대다수는 날품팔이 전락, 도시에서 상공업 종사, 임노동자

② **신분제의 동요**

- 양반 수의 증가: 공명첩, 족보 위조
- 몰락 양반의 발생: 소작농이나 임노동자로 전락

(2) **상공업의 발달**

① **수공업 발달**

- 관영 수공업 쇠퇴, 민영 수공업 발달
- 전문적인 생산과 판매: 유기, 도자기, 나전 칠기, 농기구 등

② **상업 발달**

- 장시의 번성: 전국 1천여 곳, 보부상의 활약
- 상평통보 유통: 상품 매매, 품삯 지불, 세금 · 소작료 납부

(3) **성리학 비판과 사회 개혁론**

① **사회 질서의 변화**: 상품 화폐 경제 발달, 신분제 동요

② **성리학의 한계**

- 일부 지배층은 사회적 변화를 무시하고 신분제의 강화 주장
- 한계: 현실 문제의 해결 방안 제시 못함 → 이론과 형식에만 치우쳤다는 비판 제기

③ **새로운 학문의 수용**

- 양명학: 이론보다 실천 강조
- 천주교와 서학: 중국 중심의 세계관 탈피

④ **사회 개혁론의 등장**: 사회 문제 분석 → 해결책 제시 노력

2. 실학의 등장

(1) **실학**

① **실학의 학문 경향**

- 실용적 학문: 현실 생활과 직결된 문제 탐구
- 국학 연구: 우리 역사, 지리, 언어, 경제 등 연구
- 백성의 생활을 돕기 위한 구체적 방법 연구

② **실학의 발달**

- 고증학 전래 → 실학의 연구 심화
- 실학의 목표: 민생 안정, 부국강병

(2) **토지 제도 개혁론**

① **주장**: 민생 안정, 제도 개혁 → 자영농 육성

② **유형원**: 균전제(신분별 토지 지급), 노비 세습 제도 비판

③ **이익**: 한전제(생계 유지를 위한 토지 확보), 노비 매매 금지 주장

④ **정약용**: 여전제(토지의 공동 소유, 공동 경작, 수확물의 공동 분배), 권력은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라 주장

(3) **상공업 진흥론**

① **주장**: 상공업 진흥, 기술 도입

② **유수원**: 상공업 진흥 →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 주장

③ **홍대용**: 기술 혁신, 신분제 철폐, 성리학 극복 주장

④ **박지원**: 청의 문물 소개, 수레와 선박 이용 및 화폐 사용 등 주장, 양반 사회의 폐단 비판

⑤ **박제가**: 청과 통상 강화, 생산력 확대, 상공업 진흥 주장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88쪽

상민들이 재산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반 신분을 획득하였기 때문이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88쪽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농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임노동자가 되거나 광부가 되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90쪽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여 유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91쪽

1. (1) 모내기법, (2) 보부상, (3) 양명학
2. (위부터 순서대로) 정약용, 유수원, 박제가

내용 더하기

모내기법(이앙법) 52차시

"이앙을 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이다. 김매기 노력을 더는 것이 첫째요, 두 땅의 힘으로 모 하나를 서로 기르는 것이 둘째며, 좋지 않은 것은 솎아내고 싱싱하고 튼튼한 것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셋째다. 어떤 사람은 큰 가뭄을 만나면 모든 노력이 헛되니 이를 위험하다고 하나 그렇지 않다. 벼를 심는 논은 반드시 하천이 있어야 물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하천이 없다면 논이 아니다. 논이 아니라도 가뭄을 우려하는데 어찌 이앙만 그렇다고 하는가?" - "임원경제지"



◀ 모내기

광작의 유행 52차시

"지금 남쪽에서는 모두 모내기를 하여 농사를 짓는다. 모내기법은 직접 논에 벼를 심는 직파법보다 노동력이 5분의 4나 절약이 된다. 따라서 집안에 아이들을 비롯하여 부릴 수 있는 노동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경작을 거의 무한으로 할 수 있다." - "성호사설"

경영형 부농 52차시

지주형 부농이 집중 집적한 토지를 소작인에게 빌려 주고 지대를 받아 부를 축적해 간 것과는 달리, 경영형 부농은 새로운 경제 변동을 적극 이용하여 성장한 농촌의 새로운 부농층이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임노동을 고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한 농업 경영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한 점이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농학에도 밝아서 논농사의 이앙법과 밭농사의 견종법 등 농업 기술의 변화를 이용하여 농업 생산력 발달을 도모하였다. 또한 농민층의 분화가 촉진되고 봉건 지배층의 토지 겸병이 성행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 소유의 토지 외에도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경작함으로써 경영 규모를 늘려 나갔다. 경영 규모가 클 경우에는 자신은 관리와 감독의 임무를 맡고, 임노동 · 고공 · 고지 등 임노동자를 고용하여 미곡 · 면포 · 연초 · 채소 · 약재 · 염료 등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큰 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하였다. 이 시기의 토지 대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영형 부농은 전체 부농층의 최대 3분의 1을 차지하고, 농가당 경지 규모는 3~4정보에 이르렀다.

상품 작물의 재배 52차시

농민이 밭에 심는 것은 곡물만이 아니다. 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등의 농사도 잘 지으면 그 이익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도회지 주변에는 파밭, 마늘밭, 배추밭, 오이밭 등이 많다. 특히 서도 지방의 담배밭, 북도 지방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밭, 황주의 지황밭에서의 수확은 모두 상상 등전(上上等田)의 논에서 나는 수확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이른다. - "경세유표"

민영 수공업의 발달 52차시

17세기 이후 관영 수공업장에서 이탈한 장인들은 단지 장인세만을 납부하면서 독자적인 수공업 경영자가 되거나 민간 수공업장의 기술 노동자로 포섭되어 갔다. 이들 민간 수공업자, 곧 사장(私匠)들의 제품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 관장들의 것보다 훨씬 우수하여, 결국 정부도 몇몇 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장을 임용하는 고용제를 채택해야 했다. 이 현상은 대동법 실시 이후 두드러졌으며,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은 그 경제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관영 수공업의 쇠퇴 52차시

"관청에서 필요하면 기술이 있다는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는 관청 일이라 하여 값을 주지 않는다. 관청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권세 있는 양반들도 이를 본떠서 함부로 일을 시키고 값을 주지 않는다. 형편이 이러하므로 수공업자들은 자기 기술이 남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한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수공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제품이 조잡해졌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나의 관습이 되었다." - "반계수록"

장시의 발생 52차시

조선 시대에 장시가 형성될 수 있었던 기반은 토지에 대한 농민의 소유권이 안정, 강화된 데 있었다. 물론 국가는 상업을 적극 통제하고 독점하기 위해 장시를 없애려고 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의 잉여 물자가 늘고 유통이 활발해지는 한편, 일부 농민들은 몰락하여 장시로 몰려나왔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무조건 금지하거나 조종할 수 없었다. 그래서 16세기 후반에는 5일장이 많아졌고, 18세기에는 장시 사이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점차 전국 단위의 시장을 이루었다.

장시는 대부분 정기 시장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대도시나 그 주변의 경제 요충지와 지방 행정 · 상업 중심지에서는 점차 상설 시장화해 갔다.



▲ 장터 길(김홍도)

이황의 장시 금지령 철폐 상소 52차시

"각 지방 장시가 발달하여 상업에 종사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도둑이 날뛰어 정부에서 이를 금지시켰습니다. 흉년이 심한 때는 민간 교역이 모두 장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장시를 금지하고 탄압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전에도 흉년이 든 해는 장시를 금지하지 않고 백성들이 그곳을 토대로 생활하게 함으로써 위급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흉년을 당하여 장시를 모두 금지시키면 백성들이 입는 피해가 클 것이니 금지령을 철폐하는 것이 옳습니다."

- "명종실록"

보부상의 활동 52차시

이른바 부상 무리는 여러 곳을 부평초같이 떠돌아다니면서 그 삶을 도모하는 자들이다. 도로에 오랫동안 돌아다니며, 의식을 팔방에서 얻는다. 두목을 선택하여 뽑고, 공원과 집사를 뽑아 술주정을 하거나 잡기에 물드는 폐를 막는다. 또 부상 가운데 도중에 질병을 얻거나 상을 당하는 이가 있으면 서로 구호하기를 형제같이 한다. 그 의리와 예의가 심히 가상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대로 좇아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 "임홍청금록"

보부상(褓負商)은 세공품이나 값이 비싼 사치품 등의 잡화를 주로 취급한 보상(봇짐장수)과 일용품 등 가내 수공업품을 주로 취급한 부상(등짐장수)을 총칭하는 명칭이다. 이들은 시장을 중심으로 행상을 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교환 경제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자 역할을 했던 전문 상인이다. 이들은 각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장시를 돌면서 물화(物貨)를 유통시켰는데, 수운(水運)과 우마차를 이용하여 다량의 상품을 한꺼번에 운반 · 판매하는 대규모 부상이나 보상들도 존재하였다.

보부상은 동료 간의 결속을 다지고 무뢰한이나 아전들의 횡포에 맞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었다. 부상과 보상은 각각 별개의 조직을 운영하였으나, 1883년에 혜상공국이 설치되면서 조직이 통합되었다.

보부상은 국가의 일정한 보호를 받는 대신 수시로 국가에 동원되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부상들은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 전투가 벌어지자 식량과 무기를 운반 · 보급하거나 직접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병자호란 때에는 남한산성에 식량을 운반하고 성을 방어하였다. 수원 화성을 축조할 때에도 부상들이 석재와 목재를 운반하여 다듬고 철기를 제련하였으며, 1866년 병인양요 때에는 전국의 보부상이 동원되어 문수산성 전투와 정족산성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상평통보의 유통 결과 52차시

숙종 4년(1678) 정부가 동전 유통을 결정하였다. 그 후 상평통보가 일반적으로 유통되면서 현물 화폐는 급속히 사라졌다. 그리하여 종래 현물 화폐로 통용되어 오던 면포도 이제는 교환 수단이 아니라 품질과 길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매매 대상이 되어 갔다.

국가의 재정 운영도 동전을 기반으로 하였다. 그 결과 교환 경제에서 필요한 통화량이 증가하였지만 주전(鑄錢)은 수요량만큼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 왕조의 화폐 정책이 동전과 함께 현물 화폐인 면포를 병용하는 방침을 고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환 경제가 점점 발전하는 가운데 동전 수요량이 공급량을 넘어서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동전의 구매력은 더욱 상승하였다.

전황의 발생 52차시

호조 판서 이성원이 아뢰었다. "종전에 허다하게 주전(鑄錢)한 전화(錢貨)는 결코 그 해에 한꺼번에 쓸 리가 없으며, 경외 각 아문의 예비 재정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최근 전황(錢荒)이 더욱 심하니, 신의 생각에 이것은 부상대고가 때를 타서 화폐를 숨겨 반드시 이익을 노리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비변사등록"

윤휴의 반주자학적 유학 52차시

"나의 저술 의도는 주자의 해석과 다른 이설을 제기하려는

것보다 의문점 몇 가지를 기록했을 뿐이다. 만약 내가 주자 당시에 태어나 제자의 예를 갖추었더라도 감히 구차하게 뇌동하여 전혀 의문점을 해소하기를 구하지 못하고 한탄만 하고 앉아 있지는 못했으리라. 반드시 반복하여 질문하고, 생각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만약 전혀 의심하지 않고 애매한 점을 놓아둔 채 뇌동한다면 존신(尊信)하는 점은 허위에 귀착될 뿐이니, 주자가 어찌 이와 같았겠는가? 나는 단지 붕우들과 더불어 강론하여 뒷날의 이해가 점차 나아지기를 기다렸을 뿐이다.

그런데 근래에 송영보가 이단이라고 배척하였다. 송영보의 학문은 전혀 의심을 내지 않고, 주자의 가르침이라면 덮어놓고 의론을 용납지 않으니, 비록 존신한다 하더라도 이 어찌 실제로 체득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 "도학원류속"

유형원의 균전론 53차시

지금 대부분의 땅이 개인 소유가 되어 사람들이 각기 대대로 이어받은 물건으로 보고 있으므로, 일시에 개혁하는 것은 실시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대로 사전제로 두어 매매를 금하지 않고, 다만 소유량을 공경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한정을 두어 토지가 많은 자는 팔게 하고, 적은 자는 사게 하여 보충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이것 역시 먼저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고 장정이 있는 가호 수를 명백히 한 후 토지를 장정들에게 분배한 뒤에라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경계를 바로잡고 정호를 명백히 하는 일도 공전법(公田法)을 실시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이며, 경계가 바로잡히고 정호가 명백히 된 후에도 사유를 허가하면서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일은 실시되기 어려울 것이다. - "반계수록"

이익의 한전론 53차시

국가는 마땅히 일가의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하여 한전(限田)의 농토 몇 부(負)를 한 가구의 영업전(永業田)으로 만들어 주어, 농토가 많은 사람도 빼앗지 않고, 모자라는 사람도 더 주지 아니하며, 돈이 있어 사려고 하는 사람은 비록 100결, 1,000결이라도 모두 허락하고, 농토가 많아서 팔려고 하는 사람은 영업전 몇 부를 제외하고는 역시 허락한다.

- "곽우록"

정약용의 여전론 53차시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토지를 갖게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하려면 여전제(閭田制)를 실시해야 한다. …… 산곡과 하천을 기준으로 구역을 확정하여 경계를 삼고, 그 경계선 안에 포괄되어 있는 지역을 1여(閭)로 한다. …… 1여에는 여장을 두며 1여의 토지에는 1여의 백성이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하고, 내 땅 네 땅의 구별이 없이 하며 오직 여장의 명령에만 따른다. 여민들이 농경하는 경우에 여장은 매일 개개인의 노동량을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가을이 되면 오곡의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집에 가져온 다음 분배한다. 이때 국가에 바치는 세를 먼저 제하고, 다음에는 여장의 봉급을 제하며,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장부에 의거하여 노동량에 따라 여민에게 분배한다.

- "여유당전서" 전론

유형원과 이익의 노비 제도 비판 53차시

유형원은 노비 제도에 대해 깊이 고찰하고 "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며, 나라도 우리나라이고 백성도 우리 백성이니, 어찌 그 사이에 따로 노비를 만들어서 우리 백성을 해롭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노비 제도를 비판하였다. 그는 본래 죄를 범한 자를 노비로 만든 것이 노비 제도의 기원인데, 죄를 지어 노비가 된 자라도 그의 후사에까지 형벌을 주어 노비로 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여 노비 세습 제도의 가혹함을 비판하였다.

이익은 "우리나라의 노비법은 일찍이 천하에 없던 것으로서, 한번 노비가 되면 대대로 그 괴로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노비 제도를 비판하였다. 그는 노비 제도를 현실적으로 폐지하지 못한다면 매매하는 일만이라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익은 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의 악폐로 노비 제도, 과거 제도, 양반 문벌 제도, 기교(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을 지적하였다.

홍대용의 신분제 철폐 주장 53차시

북학파의 홍대용은 문벌제도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홍대용은 양반들이 가난해도 다른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놀고먹는 무리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는 사민평등의 원칙을 바탕에 깔고 사람을 평가할 때에는 신분이 아니라 재능과 학식의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귀천의 신분이 고착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균등하게 부여되는 것을 원하였다. 그러나 홍대용은 사민평등의 원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주장을 펴지 못하였다.

북학파 53차시

북학파는 18세기 후반의 실학 사상가 중 국내 상공업의 발달과 청 문화의 영향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 등에 관심을 기울인 일군의 학자들을 지칭한다. 그들이 청의 문물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으므로 북학파(北學派)라고 한다. 또 이용후생을 통한 부국강병을 추진하여 상공업 진흥을 주장했기 때문에 중상학파, 또는 이용후생 학파라고도 한다.

유수원을 선구로 하여 홍대용과 박지원을 거치면서 완숙의 경지에 이르렀고, 박제가에 이르러 집대성되었다.

유수원의 상업 중시 53차시

"지금 양반이 명분상으로 상공업에 종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그들의 비루한 행동은 상공업자보다 심한 자가 많다. 학문이 없어도 세력만 있으면 부정하게 과거에 합격하고, 그렇지 않으면 음직을 바라거나 공물 방납과 고리대를 하거나 노비를 빼앗기 위한 소송을 벌여 생활한다. ……상공업을 두고 천한 직업이라 하지만 본래 부정하거나 비루한 일은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재간이 없고 덕망이 없음을 안 사람이 관직에 나가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물품 교역에 종사하면서 남에게 얻지 않고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다. 어찌 천하거나 더러운 일이겠는가." - "우서"

박지원의 청 문물 도입 주장 53차시

"이적(夷狄)이 중국을 혼란시켰다 하여 중화의 존경할 만한 알맹이까지도 배척하였다 함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이 진실로 양이(洋夷)하려면 중화의 유법을 모두 배워서 우리나라 풍습의 우둔함을 먼저 고치는 것만 같지 못하다. 경잠 도야(耕蠶陶冶)부터 통공 혜상까지 어느 것이고 배워서 타인이 10가지를 하면 우리는 100가지를 하여, 먼저 우리 인민을 이롭게 하고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무기를 만들어서 넉넉히 저들의 견고한 갑옷과 날카로운 병기를 격파할 수 있게 한 다음에야 중국에는 볼 만한 것이 없다 하여도 좋을 것이다." - "열하일기"

박지원은 정조 때 청에 사신으로 다녀온 후 "열하일기"를 저술하여 청의 번창한 문물을 받아들여 낙후한 조선의 현실을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명(明)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고 청(淸)을 배격하는 풍조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현실 정치에 반영되기 어려웠지만, 집권층이나 지식인들에게 강한 자극을 불러일으켰다.

북학의 53차시

"재화란 우물과 같습니다. 퍼낼수록 가득차지만 뚜껑을 덮어 놓으면 말라 버립니다. 그러므로 수놓은 비단을 입지 않으면 나라에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고 베짜는 여자의 솜씨도 쇠할 것입니다. 농사가 황폐하면 농사짓는 법을 잃게 되고 상업이 쇠퇴하면 그 업을 잃게 됩니다. 이러면 사민이 모두 곤궁하여 서로 돕지 못합니다. 나라 안의 보배가 나라 안에서도 쓰임을 받지 못하니 다른 나라로부터 들여와야 합니다. 다른 나라는 날마다 부유해지는데 우리는 날마다 곤궁해질 뿐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형세입니다." - "북학의"

박제가는 정조 때 청의 풍속과 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와서 "북학의(北學議)"를 저술하였다. "북학의"의 '북학'이란 청을 선진 문명국으로 인정하고 배운다는 뜻을 담고 있다. 박제가는 조선이 가난한 것은 무역이 부진한 탓이라 여겼고, 그 원인은 우물물을 긷지 못한 것처럼 부의 원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당시 누구나 중시했던 검소와 절약 관념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박제가는 "북학의"에서 수레를 널리 이용하여 국내 상업을 발전시키고, 견고한 선박을 만들어 국외 여러 나라와 적극적으로 통상할 것을 주장하였다. 생산력과 상품 유통의 발전, 통상 교역의 확대는 박제가가 가진 경제관의 골자였다. 박제가의 북학론에 담긴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정신은 박지원, 홍대용 등의 생각과도 공통된 것이었다. 박지원은 "이용을 이룬 다음에 후생할 수 있고, 후생을 이룬 다음에 정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여 민생을 해결하지 않고 법도와 예의만 찾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박제가는 "북학의"로 북학파의 사상을 집대성하였는데, 이는 그의 스승 박지원이 쓴 "북학의" 서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책은 나의 "열하일기"와 그 뜻이 어긋남이 없으니 마치 한 작가가 쓴 것 같다. 나는 몹시 기뻐 사흘 동안이나 읽었으나 조금도 싫증이 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두 사람이 눈으로 직접 본 뒤에야 알게 된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연구하고 밤이 새도록 맞장구를 치며 이야기했던 것이다."

Ⅵ. 조선 사회의 변동

03 조선 후기 문화의 새로운 변화

학습 목표

- 국학 연구와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과 성과를 설명할 수 있다.
- 조선 후기에 발달한 서민 문화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우리 고유의 자연과 정서에 맞는 예술 작품이 등장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내용	수업 방법	수업 자료
54	**1. 과학 기술의 발전과 국학 연구**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조선 초기의 사람들은 지구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였을까?	문답식	
	[전개]		
	• 세계 지도의 전래, 지전설의 주장 등이 당시의 세계관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192쪽 자료
	• 조선 후기에 정리된 대표적인 의서들이 각기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이해하게 한다.	강의식	PPT
	•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편찬된 역사서를 조사한 후 그 특징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인터넷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세계 지도로서, 우리나라에 전해져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변화시킨 것은?		
	2. 이제마가 쓴 책으로 사람의 체질에 따른 치료법을 정리한 것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55	**2. 서민 문화 발달과 예술의 새 경향**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조선 후기에 널리 읽힌 한글 소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	문답식	
	[전개]		
	• 서민들의 문예 활동과 관계있는 한글 소설, 판소리, 민화 등을 각 분야별로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 박지원이 한문 소설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바를 설명한다.	강의식	195쪽 그림
	• 정선의 그림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실제 경치를 화폭에 담은 진경산수화를 설명한다.		
	•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고, 그 특징을 비교하게 한다.	자기 주도식	인터넷

55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조선 후기에 서민 사이에 유행한 그림으로 이름 없는 화가들이 그린 것은? 2.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로 도회지 양반의 풍류 생활과 부녀자의 풍습, 남녀 사이의 애정을 주로 그린 인물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과학 기술의 발전과 국학 연구

(1) 과학 기술의 발달

① **서양 과학 기술의 전래**
- 소개: 과학 서적, 자명종, 화포, 천리경 등
- 영향: 새로운 기술과 지식에 대한 관심 고조

② **세계관의 확대**
- 계기: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 전래
- 영향: 중국 중심의 세계관 변화

③ **과학 기술의 연구**
- 홍대용: 지전설 주장 → 성리학적 세계관 변화
- 김육: 시헌력 채용 → 서양의 달력 채택

(2) 의학과 농학의 발전

① **의학의 발달**
- 허준: "동의보감" 편찬 → 전통 한의학 정리
-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저술 → 체질에 따른 치료법 제시

② **농서의 편찬**
- 신속: "농가집성" 편찬 → 모내기법 소개
- 박세당: "색경" 편찬 → 채소, 과수, 양잠 등 기록

(3) 국학의 발전

① **역사**
- 이익: 중국 중심의 역사관 비판, 역사의 주체성 강조
- 안정복: "동사강목" → 고조선에서 고려까지 역사 정리
- 이종휘: "동사" → 고구려 역사 정리
- 유득공: "발해고" →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식
- 한치윤: "해동역사" → 중국과 일본 기록 활용

② **지리**
- 이중환: "택리지" → 지방의 자연환경과 풍속 정리
- 정상기: '동국지도' → 백리척 이용
- 김정호: '대동여지도' → 정밀한 전국 지도 제작

③ **한글**: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 유희의 "언문지"

2. 서민 문화 발달과 예술의 새 경향

(1) 서민 문화의 성장

① **서민의 문예 활동**
- 배경: 서민층의 의식 향상
- 내용: 서민의 감정 표현, 사회 부조리와 비리 고발

② **한글 소설**
- 내용: 양반의 위선 비판, 사회 풍자
- 작품: "홍길동전", "춘향전", "사씨남정기", "구운몽", "콩쥐팥쥐전" 등

③ **판소리**
- 이야기를 가창과 사설로 엮은 예술
-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적벽가 등 인기

④ **탈놀이**: 양반 사회 풍자

⑤ **민화**: 서민의 일상과 의식 반영

(2) 다양한 예술 분야의 발전

① **활발한 문학 활동**
- 한문학 발달: 박지원의 "양반전", "허생전", "호질" 등 → 양반의 위선과 무능 비판
- 중인들의 문학 활동: 시사를 조직하여 시집 간행

② **진경산수화 등장**
- 정선: 우리나라의 실제 경치 묘사
- 대표 작품: 금강전도, 인왕제색도 등

③ **풍속화 유행**
- 김홍도: 서민의 생활 묘사
- 신윤복: 양반의 풍류와 부녀자의 풍습 묘사

④ **도자기 공예**: 청화 백자 유행

⑤ **건축 분야**: 김제 금산사 미륵전, 보은 법주사 팔상전, 수원 화성 등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92쪽

청을 통해 중국과 서양의 문물을 접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92쪽

1.



2.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94쪽

판소리는 서민 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95쪽

1. (1) ㉢, (2) ㉣, (3) ㉠, (4) ㉡
2. (1) 동사강목, (2) 택리지, (3) 홍길동전

깊이 있는 역사 ▶▶▶ 교과서 196쪽

1. 조선 후기에는 서민 계층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서민의 일상이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그리고 사회를 향한 의식을 드러내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민화가 나타났다.
2. 민화를 그린 사람들은 주로 서민이었다.

내용 더하기

홍대용의 지전설 54차시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회전하는데, 지구 둘레는 9만 리이고 하루는 12시간이요, 9만 리 거리를 12시간 이내에 달린다면 그 속도는 벼락보다 빠르고 총탄보다 빠르오. 즉 이렇게 빨리 회전함으로써 공기는 위에서 밀봉되어 아래로 모이고 상하의 형세가 만들어지는 것이오. 이것이 지면이며 땅에서 벗어나면 이러한 형세는 없어지게 되오. 또 자석이 철을 흡수하고 호박이 나무의 진을 끌어당기는데, 자기와 같은 부류가 서로 감응하는 것은 물체의 고유한 이치요. …… 지금 사람들이 지면의 상하를 보고 제멋대로 우주 공간에도 상하의 형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주 공간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소."

- "의산문답"

시헌력의 도입 54차시

청 초기에 베이징에서 활동한 예수회 선교사 아담 샬은 서양식 역법인 시헌력을 만들었는데, 당시 청은 이를 시행하였다. 아담 샬은 청에 억류되었던 소현 세자와 가깝게 지냈으며, 소현 세자가 귀국할 때 서양 과학 기구와 서학 서적들을 가지고 왔다. 이에 조선의 지식층 사이에서는 시헌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인조 때 김육은 시헌력을 도입하자고 주장하였으며, 효종 때 시헌력 시행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시헌력의 도입은 순탄치 못하여 관상감의 천문학자들인 김상범, 허원 등의 연구와 노력으로 오랜 시일이 지난 후 겨우 시행되었다. 이 시기에 조선 정부는 여러 차례 천문관을 청에 파견하여 시헌력과 천문학에 대한 서적과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시헌력의 도입으로 서양식 각도 표시법과 시간 측정법이 새로이 자리 잡게 되었다.

동의보감 54차시

허준은 왕명에 따라 14년 동안 의서 편찬에 노력하여 광해군 2년(1610)에 "동의보감"을 완성하였다. "동의보감"은 종래 의학의 공상적 이론을 배격하고, 실용성을 중시하여 당시 의학계의 과학적 지식을 정리하였으며, 향약(鄕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640여 개의 향약을 한글로 표기하여 쉽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또 80여 종의 국내외 의서를 참고하여 그 내용이 매우 풍부할 뿐만 아니라 임상의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의보감"은 병증에 따라 병에 대한 해설과 약 처방을 모두 수록하고 출전과 민간 처방 및 본인의 경험까지 기록하여 그 가치가 높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여러 차례 간행되어 널리 이용되었다.

사상 의학 54차시

함경도 함흥에서 태어난 이제마(1838~1900)는 고향에서 의업에 종사하다가 서울에 올라와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하여 사상 의학을 제창하였다. 그는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의 4가지로 나누고 각 체질에 맞는 치료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상 의학설은 오늘날 우리나라 한의학의 한 유파로 계승되고 있으며, "동의수세보원"은 민족 의학의 정통성 확립에 기여하였다.

이제마는 모든 질병을 인간 중심으로 파악하고 사람의 체질을 그 사람의 체격, 얼굴 생김새, 성격, 행동과 습관,

정서 등을 종합하여 4가지 체질로 구분하였으며, 각 체질에 따라 병이 생기는 원인이 다르고 약물의 반응도 다르기 때문에 그 체질에 맞게 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색경 54차시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박세당이 지은 상 · 하권의 농서이다. 농사에 대한 경서라는 뜻으로 "색경(穡經)"이라 이름 붙였다. 자신의 농사 경험을 바탕으로 "농상집요" 등 중국의 고농서를 참고하여 우리 농업 환경에 맞게 편찬하였다. 상권에는 곡식, 과일과 채소, 나무, 꽃과 약재, 가축 등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하권에는 잠업과 1년의 농사 월력을 실었다. "농가집성"이 모내기법을 비롯한 남부 지방의 수전 농업을 소개한데 반해, "색경"은 중국의 한전 농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익의 역사관 54차시

이익은 체계적인 역사서를 저술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역사의 독자성을 인식하면서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비판하고, 화이사상에 입각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부정하였다. 그의 제자인 안정복이 "동사강목"을 저술할 때 이익은 다음과 같이 충고하였다.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우리나라의 사실을 전혀 각성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동국통감이 있으나 누가 읽겠는가.'라고 말하니 어긋남이 이와 같다. 우리나라는 스스로 우리나라인 것이니 그 서술 체제가 저절로 중국사와 달라야 한다. 그 사대교린의 관계는 옛것을 징험하고 오늘의 것을 비교하여 진실로 불가불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캄캄하게 모르고 있다. 이런 것은 설정하며 나누어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백순(안정복)의 생각이 이런 데까지 미쳤는지 모르겠다."

또한 이익은 "성호사설"에 실린 '삼한 정통론'에서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견주면서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을 단군–기자–삼한–삼국(무통 시대)–통일 신라–고려로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이익의 삼한 정통론은 안정복의 "동사강목"으로 이어졌다.

유득공의 발해 인식 54차시

> "부여씨(백제)가 망하고 고씨(고구려)가 망한 다음, 김씨(신라)가 남방을 차지하고 대씨(발해)가 북방을 차지하고는 발해라 하였으니, 이것을 남북국이라 한다. 남북국에는 남북국의 사서가 있었을 텐데, 고려가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저 대씨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어떤 땅인가? 바로 고구려 땅이다."
>
> – "발해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54차시

두 차례의 호란을 겪은 조선은 청이 다시 전면적으로 침입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북방 지역에 대한 자세한 지도를 제작하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에 따라 17세기 이후 조선의 지도 제작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모든 지역을 같은 비율로 표현하는 중국의 방격법을 수용하여 이전보다 윤곽이 정확하게 묘사된 지역 지도를 제작하였다. 18세기 초 정상기가 제작한 '동국지도'는 백리척을 사용하여 지역 간의 상대적 거리를 더욱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방격법과 백리척은 전통 지도 제작의 기본 기술로 자리 잡았다.

김정호는 이러한 지도 제작 기술을 집대성하면서 더욱 정확한 지도를 제작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그가 백두산을 일곱 번 오르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였다는 것은 과장된 전설이지만, 그는 당시의 고관이었던 신헌이 제공해 준 관찬 지도들을 대조하고, 광범한 현지답사를 통해 이를 보충, 수정하였다.

김정호는 1834년 '청구도'를 제작하였고, 이의 자매편으로 각종 지리지와 군 · 현 · 읍지를 참고하여 각 지역의 연혁을 정리한 "대동지지"를 제작하였다. 유명한 '대동여지도'는 16만분의 1의 축척을 적용하여 작성되었는데, 울릉도와 북부 지방 일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윤곽을 정확하게 표현하였고, '청구도'에 비해 산세와 하계망(河系網)을 더욱 자세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표시하였다.

판소리 55차시

판소리는 이야기를 창(노래)과 아니리로 부르는 전통적 민족 연예 양식이다. 판소리의 대본을 사설이라 하고, 노래하는 사람을 판소리 광대 또는 소리꾼이라 한다. 이야기를 노래로 부른다 하여 구비 서사시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소리꾼이 노래할 때 '너름새', '발림'이라고 하는 몸짓을 하기 때문에 연극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또 이야기 말이 대화와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설의 요소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판소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적벽가', '수궁가'

등이 있는데, 이외에도 '배비장 타령', '변강쇠 타령', '옹고집 타령', '장끼 타령' 등은 소설로만 전하고 있다. 판소리는 주로 서민의 현실 생활을 소재로 하고, 서민들을 작중 인물로 등장시키고 있으며, 충성, 효도, 의리와 같은 봉건적인 이념보다는 서민의 일상과 감정, 현실적 갈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민화 55차시


▲ 까치와 호랑이

민화는 생활 공간의 장식이나 민속적 관습에 따른 실용을 목적으로 그려진 대중적 그림을 말한다. '민속적 회화'라는 뜻으로 쓰이기 시작하여 '속화'라고도 불린다. 산수, 화조 등의 정통 회화를 모방하여 소박하고, 파격적이며 익살과 풍자를 담고 있다. 민화는 그 내용에 따라 무속, 도교, 불교, 유교 계통과 장식용 민화로 분류할 수 있다. 민화는 서민의 생활 철학과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그 속에 담긴 서민 대중의 기원과 위안을 잘 보여 준다. 우리는 민화를 통하여 서민의 창의성과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고, 그들의 생활 감정과 미의식을 느낄 수 있다.

중인들의 문학 활동 55차시

조선 시대 중인, 서얼, 서리 등의 중서(中庶) 신분층을 위항(委巷)이라 불러 이들의 문학 활동을 위항 문학이라 한다. 조선 후기에는 사회 변동의 움직임과 더불어 이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의식의 확대와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중서층의 유래를 밝히고 자신들의 사적을 기록하면서 문학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 나갔다. 특히 정조가 규장각이나 승문원에 이들을 중용하면서 그 재능을 발휘하였고, 영 · 정조 시기 문화 진흥 정책이 위항 문학 활동을 촉진하기도 하였다. 또한 외국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역관들의 문학 활동도 돋보였다.

대표적 위항 문학 작품으로는 홍태세의 "해동유주", "소대풍요"가 유명하다. 이들 위항인들은 동호인 모임을 가지기도 하였으니, 천수경, 조수삼 등이 결성한 송석원 시사(詩社)가 유명하다.

진경산수화 55차시


▲ 정선의 금강전도

명이 망하고 청이 일어나자 조선에서는 병자호란에서 여진족에게 당한 치욕을 조선이 곧 중화라는 의식으로 극복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하였다. 이런 조선 중화주의는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문학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으로 표출되었다. 우리 산수를 소재로 하여 실제의 경치 그대로 그린 산수화를 진경산수화라고 한다.

진경산수화를 선도한 인물은 겸재 정선이었다. 정선은 우리의 산천을 두루 답사하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에 알맞은 그림 기법을 창안하여 거침없이 사생하였다. 그는 중국 북방화의 특징적 기법인 선묘로 바위산을 표현하고 남방화의 특징적 기법인 묵묘로 토산을 표현하였다. 정선의 화풍은 조영석을 거쳐 단원 김홍도로 이어져 꽃을 피웠다.

조선 백자의 발전 55차시


▲ 백자 청화매죽문 항아리

조선은 초기부터 백자의 생산과 관리에 힘을 기울여 독특한 조선 백자를 발전시켰다. 왕실에서 백자를 널리 사용하면서 광주 분원을 비롯하여 서울 근교에서 백자를 많이 생산하였다.

전기의 백자는 약간 푸르름을 머금었고, 태토는 순백이어서 마치 소복이 쌓인 함박눈 같았다.

중기의 백자는 태토는 순백이며 유약에 미량의 철분이 들어 있어 전기보다 더 담담한 푸르름이 깃들여 있고, 유약은 망상의 빙렬(氷裂)이 있는 경우가 많다.

후기에는 관영이 밀려나고 민영화되면서 실용적인 백자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 시기에 생산된 백자는 태토가 순백이고, 대부분 기벽과 유약이 두꺼우며, 유약에 철분의 함량이 많아 푸른빛이 더욱 강해져서 청백자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이면서 다양한 형태를 지닌 백자가 만들어졌다.

Ⅵ. 조선 사회의 변동

04 세도 정치와 농민 봉기

학습 목표

- 조선 후기 농민 의식이 성장하게 된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 동학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난 배경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내용	수업 방법	수업 자료
56	**1. 사회 모순의 심화와 새로운 종교의 등장**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사상은 어느 종교의 가르침일까?	문답식	
	[전개]		
	• 조선 후기 세금 행정인 삼정의 문란상을 조사하여 표로 정리하게 한다.	자기 주도식	198쪽 삽화
	• 세도 정치 시기에 여러 가지 예언 사상이 유행한 이유를 설명한다.	강의식	199쪽 자료
	• 정부가 천주교와 동학을 탄압한 이유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조선 후기의 세금 행정으로 전세, 군포, 환곡을 이르는 말은?		
	2. 정씨 왕조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이 담긴 책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57	**2.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당시의 정치 형태는 어떠했을까?	문답식	
	[전개]		
	• 조선 후기 늘어나는 세금 부담에 저항하여 일으킨 농민의 대응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200쪽 자료
	•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의 원인을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201쪽 자료
	• 농민 봉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이 대책이 가진 한계를 파악하게 한다.	강의식	PPT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철종 때 진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농민 봉기는?		
	2. 지방관의 부정을 조사하고자 정부에서 파견한 관리는?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사회 모순의 심화와 새로운 종교의 등장

(1) **세도 정치의 폐단**

① 세도 정치의 전개
- 세도 정치: 안동 김씨 등 외척 세력이 권력 독점
- 결과: 매관매직의 성행 → 백성 수탈

② 세금 행정(삼정)의 문란
- 지세: 농토에 부과 → 세금 액수 증액
- 군포: 군역 대신 포 납부 → 어린아이나 죽은 자에게 부과
- 환곡: 춘궁기 곡식 대여 → 높은 이자 징수

③ **결과**: 농민 몰락 → 화전민, 품팔이 생활

(2) **예언 사상의 유행**

① **시대 상황**: 탐관오리 성행, 삼정의 문란, 자연재해와 전염병 유행 → 각지에 도적 출몰, 민심 혼란

② **비기 · 도참 유행**: "정감록"(정씨 왕조의 등장 예언), 미륵 신앙(미래 부처의 백성 구원 신앙)

(3) **천주교와 동학의 전파**

① 천주교 전파
- 전래: 중국을 왕래하는 사신이 전래
- 서학 연구: 천주교를 학문으로 연구
- 신앙화: 천주교 신자 발생 → 여러 계층으로 전파

② **천주교 박해**: 신 앞의 평등 주장, 제사 의식 거부 → 유교를 거부하는 사악한 종교로 박해

③ 동학의 확산
- 창시: 최제우, 인내천 사상(인간 존중, 평등 의식)
- 탄압: 혹세무민의 죄로 최제우 처형
- 유포: 최시형의 노력 → 교리 정리, 교단 정비

2.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

(1) **농민의 저항과 홍경래의 난**

① 농민의 조세 저항
- 소극적 저항: 공평한 징수 요구, 소청과 벽서 운동
- 적극적 저항: 소작료 납부와 납세 거부 → 농민 봉기

② 홍경래의 난(1811)
- 원인: 서북 지방에 대한 차별 대우, 세도 정권의 부패
- 참가 계층: 몰락 양반, 농민, 중소 상인, 광산 노동자
- 진압: 청천강 이북 장악 → 관군에게 진압

(2) **전국적인 농민 봉기의 전개**

① **배경**: 삼정의 문란 지속

② 임술 농민 봉기(1862)
- 무거운 세금에 불만을 가진 농민들이 봉기 전개
- 진주에서 시작 → 전국으로 확산

③ 정부의 대책
- 삼정이정청 설치: 삼정의 문란 시정 노력
- 암행어사 파견: 지방관의 부정 조사
-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98쪽

동학의 가르침이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00쪽

홍경래가 서북 지방에 대한 차별과 세도 정권의 부패를 비판하면서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다.

탐구 활동 ▶▶▶ 교과서 201쪽

예시 답안 조선 후기에는 탐관오리의 횡포로 삼정이 매우 문란해져 지방관들 중에는 전세, 군역, 환곡 등의 세금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거두어들이는 사람이 많았다. 이에 불만이 커진 농민들은 민란을 일으켜 저항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201쪽

1. (1) ×, (2) ○, (3) ×
2. (1) 세도 정치, (2) 정감록

내용 더하기

삼정의 문란상

56차시

• 전정



농토에서 나오는 수확량에 부과한 세금이다. 세도 정치 시기에 농민들은 토지에 대한 기본세뿐 아니라 각종 부가세로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었다. 지방관들은 관리 식사비, 서원 제사비, 감사

생활비, 가마 수리비, 신관 수령의 부임 여비 등 규정 외의 항목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 그 밖에도 지방 관아의 잡다한 행사 비용은 물론, 기생을 끼고 음풍농월하는 유흥비까지 부가 세목에 추가하였다. 그리하여 전세의 수탈은 1결당 기본세의 수십 배가 되는 2백 말에 이르렀다. 당시 1결에서 나는 수확은 평균 6백 말 정도였으므로, 전세와 관련한 농민 부담만 하더라도 수확의 약 3분의 1에 육박하였다.

• 군정



군역에 직접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징수한 군포이다. 조선 후기에는 군액이 늘어나면서 장정 한 명이 부담하는 군포의 양도 점차 불어났다. 18세기 이후에는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물리는 백골징포, 어린아이도 군적에 올려 군포를 거두는 황구첨정, 군역을 피하여 도망간 사람의 이웃에게 군포를 떠맡겨 수탈하는 인징, 일가친척에게 넘겨 빼앗는 족징 등이 백성을 괴롭혔다.

• 환곡



춘궁기에 굶주리는 백성, 재난을 당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관아의 곡식을 대출하였다가 추수할 때 거두어들이는 제도이다. 환곡은 점차 고리대가 되어 관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원래 환자곡은 창고에 그 절반을 두고 그 절반만 내게 되어 있었으나, 탐관오리들은 환자곡을 모두 고리대로 돌리거나, 아예 원곡은 돌리지도 않고 이자만 착복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환곡은 전정과 군정에 비해 더욱 장삿속이 드러나는 축재 수단이 되었다. 환곡에서 가장 수탈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은 소농과 빈농이었고, 이들은 전세와 군포의 부담까지 짊어져 3중의 고통에 시달렸다.

애절양 56차시

갈밭 마을 젊은 아낙의 곡소리 기나긴데
현문 향해 곡하고, 푸른 하늘 울부짖누나.
남편이 출정 나가 돌아오지 않음은 오히려 있을 법 하건마는
예부터 사내가 생식기 잘랐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오.
시아버지 돌아가셔 이미 상복을 입은데다,
아이는 아직 배냇물도 씻지 않았는데,
세 사람의 이름이 군보에 올랐다나요.
처음으로 호랑이 같은 문지기에게 가서 하소연해 보려 함에
이정이 포효하며, 마구간에서 소를 끌고 나갔지요.
칼을 갈아 방에 드니, 피가 자리에 흥건한데
아이 낳아 곤궁을 만났다고 스스로 한탄하던걸요.
더운 방에서 궁형을 행하는 것이 어찌 허물이 있지 않으리오.
민나라 사람들이 자식을 거세했던 일도 진실로 또한 슬픈 일이라오.
산 것이 살고자 하는 이치는 하늘이 부여해 준 것이라서
하늘의 도는 사내를 만들고 땅은 계집을 만들거늘
소와 돼지 거세함도 오히려 슬프다고 말할진대
하물며 백성들이 자손 이을 것을 생각함에서랴.
세도 있는 집에서는 일년 내내 풍악을 울리지만
쌀 한 톨, 비단 한 조각 축나는 일 없다네.
우리 백성들 똑같아야 하거늘 어찌해서 가난하고 부유한가?
나그네는 창가에서 거듭 시구편을 읊조린다오.

- "목민심서"

정감록과 정 도령 56차시

"금강산으로 옮겨 온 산천의 기운이 태백산, 소백산에 이르러 뭉쳐져서 계룡산으로 들어가니, 정씨가 8백 년 동안 도읍할 땅이로다. 백두대간의 맥이 계속 이어져 가야산에 들어가니 조씨가 천년 도읍할 땅이다. 전주는 범씨가 6백 년 도읍할 땅이고, 송악은 다시 왕씨가 일어날 땅이다."

"정감록"은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대표적인 예언서이다. 조선 중기 이후 비슷한 내용의 여러 예언서들이 "정감록"이라는 이름으로 전해 내려오는데, 확인된 것만 해도 수십 종이다. 대부분 작자 미상이다. 그 내용은 정감이라는 사람이 이심이라는 사람과 팔도의 산수를 보면서 국운을 예언한 것이다. 특히 이씨 조선 왕조가 망한 다음에 계룡산에서 정씨 성의 진인, 이른바 정 도령이 나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남한에 있는 열 군데 땅은 전쟁이 나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이른바 십승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병도는 권력의 변천과 난세의 피난처에 집중하고 있는 "정감록"은 그 내용과 문장의 특징 등으로 보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참화가 끝난 직후인 조선 중기 때 권력 싸움에서 밀려난 양반층의 식자가 이러한 도참서를 유포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감록"과 같은 예언서들은 세

상이 어지러울수록 더욱 널리 확산되었다.

미륵 사상 56차시

미륵이란 산스크리트 어 Maitreya, 팔리 어 Metteya의 음역이다. 미륵은 원래 석가모니의 제자로 이름은 아일다이며, 인도 바라나시의 브라만 가문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석가모니 생전에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서 '미래 세에 부처를 이루리라.'는 수기를 받고, 그로부터 12년 후에 입멸하여 도솔천에 머물며 천인들을 교화하였다. 다음 세상에 부처를 이룰 분이라는 뜻에서 미륵보살, 또는 미륵불이라 불리었다.

미륵보살은 미래를 주관하는 존재이다. 현실 생활이 지옥과 다를 바 없었던 당시 백성들은 현실 세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을 미륵불에 의탁하였다.



◀ 미륵불

천주교의 신앙화 56차시

청을 왕래하던 조선 사신들은 중국에서 활동하던 예수회 선교사들과 부분적으로 교류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천주교라는 새로운 종교와 서양의 학문이 조선에 전해지게 되었다. 천주교는 당시 우리나라에 전해진 한역 서학서 가운데 하나로 소개되었다. 선조에서 광해군 때의 인물인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천주실의"를 소개하였으며, 소현세자도 천주교 신부와 만나 서학과 천주교에 대한 소개를 받은 바 있었다.

서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이들은 이익과 그 제자들이었다. 이익은 천주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유교의 기본 정신을 보충한다는 제한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려 하였으나, 그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천주교에 대한 극단적인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즉 한편에서는 사학으로 배척하는가 하면(안정복 등), 다른 한편에서는 천주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신앙 운동을 전개하였다.

1770년경에는 천주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초기 신앙 운동의 중심인물은 이벽이었다. 그는 정약전, 권철신 등과 함께 천진암 등지에서 강학회를 주관하였고, 이승훈이 중국에서 영세를 받고 돌아오자 교회를 창설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790년대에 이르러서는 신도의 수가 4천여 명에 달하였고, 중국인 신부 주문모가 귀국한 1794년 이후 신도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제사에 대한 천주교 신자의 태도 56차시

"천주를 큰 부모로 여기는 이상 천주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코 공경하고 높이는 뜻이 못됩니다. 그런데 사대부 집안의 신주는 천주교에서 금하는 것이니, 차라리 사대부에게 죄를 얻을지언정 천주에게 죄를 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안에 땅을 파고 신주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죽은 사람 앞에 술잔을 올리고 음식을 올리는 것도 천주교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 "정조실록"

정부의 천주교 탄압 56차시

"오늘날 이른바 사악한 종교인 천주교는 어버이와 임금을 무시하고 인륜을 무너뜨리고 교화에 따르지 아니하여 저절로 오랑캐와 짐승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저 어리석은 백성들은 천주교에 점점 현혹되어 마치 어린 아기가 우물에 빠져들어 가는 것처럼 위태롭다. …… 엄격하게 금지하였는데도 여전히 천주교를 믿는 자가 있으면, 역률로 다스릴 것이다."

- "순조실록"

동학 사상 56차시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 그러므로 평등하며 차별이 없나니, 사람이 마음대로 귀천을 나눔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 도인은 차별을 없애고 선사의 뜻을 받들어 생활하기를 바라노라." - 최시형의 최초 설법

내수도문

"부모님께 효를 극진히 하고 남편을 극진히 공경하고 내 자식과 며느리를 극진히 사랑하며 하인을 내 자식과 같이 하옵소서. 짐승이라도 다 아끼며 나무라도 어린 가지를 꺾지 말며, 부모님이 화를 내시거든 성품을 거슬리지 말고 웃고, 어린 자식을 때리지 말고 울리지 마옵소서. 어린아이도 한울님을 모셨으니 아이를 치는 것이 곧 한울님을 치는 것이오니 하늘의 이치를 모르는 까닭이라. …… 이같이 한울님을 공경하고 효성하면 한울님이 조화하여 복을 주시나니 부디 하늘을 극진히 공경하옵소서." - 최시형의 '내수도문'

동경대전 56차시

수덕문

인의예지는 옛 성인이 가르친 바요, 수심정기(守心正氣)는 내가 다시 정한 것이니라. 한번 입도식을 지내는 것은 한울님을 길이 모시겠다는 중한 맹세요, 모든 의심을 깨쳐 버리는 것은 정성을 지키는 까닭이니라. 의관을 바로 갖추는 것은 군자의 행실이요, 길에서 먹으며 뒷짐 지는 것은 천한 사람의 버릇이니라. 도가에서 먹지 아니할 것은 한 가지 네발 짐승의 나쁜 고기요, 몸에 해로운 것은 또한 찬물에 갑자기 앉는 것이니라. 유부녀를 막는 것은 나라 법으로도 금하는 것이요, 누워서 큰 소리로 주문을 외우는 것은 나의 정성된 도에 태만함이리라. 이렇듯이 펴니 이것이 수칙이 되느니라.

포덕문

서양인은 싸워서 이기고 쳐서 빼앗아 뜻대로 이루지 못한 일이 없다. 그리하여 온 동양이 다 망해 버린다면 우리나라도 같은 운명에 빠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를 돕고 민중을 편하게 할 계책이 장차 어디서 나올 것인가.

용담유사 검결(칼 노래) 56차시

때가 왔네 때가 왔네. 다시 못 올 때가 왔네.
뛰어난 장부에게 오만 년 만에 때가 왔네.
용천검 드는 칼을 아니 쓰고 무엇하리.
무수장삼 떨쳐입고 이 칼 저 칼 넌즛 들어
호호망망 넓은 천지 한 몸으로 비켜서서
칼 노래 한 곡조를 때다 때다 불러내니,
용천검 날랜 칼은 해와 달을 놀리고.
게으른 무수장삼 우주에 덮여 있네.
만고 명장 어디 있나? 장부 앞에 장사 없네.
좋을시고 좋을시고. 이내 신명 좋을시고.

홍경래의 격문 57차시

평서 대원수는 급히 격문을 띄우노니 관서의 부로와 자제와 공 · 사 천민들은 모두 이 격문을 들으라. 무릇 관서는 성인 기자의 옛 터요 단군 시조의 옛 근거지로서의 의관(유교 문화를 생활화라는 사람)이 뚜렷하고 문물이 아울러 발달한 곳이다. …… 지금 임금이 나이가 어려 권세 있는 간신배가 그 세를 날로 떨치고, 김조순 · 박종경의 무리가 국가 권력을 오로지 갖고 노니, 어진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 …… 이제 격문을 띄워 먼저 여러 고을의 군후에게 알리노니,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성문을 활짝 열어 우리 군대를 맞으라. 만약 어리석게 항거하는 자가 있으면 철기 5,000으로 남김없이 밟아 무찌르리니, 마땅히 속히 명을 받들어 거행함이 가하리라.

홍경래 난의 진압 57차시

시체는 들을 덮었고 창검은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남은 군막이 하나도 없는데 불길은 꺼지지 않는다. 죽은 사람, 산 사람이 한데 섞여 누워 있어 시체를 구별할 수 없으니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 - "서정일기"



◀ **정주성 싸움**
청천강 이북 여러 지역을 장악하며 기세를 올리던 홍경래의 난은 정주성 싸움에서 관군에 패하면서 진압되었다.

임술 농민 봉기 57차시



▲ 19세기의 농민 봉기

임술년(1862) 2월 19일, 진주민 수만 명이 흰 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나무 몽둥이를 들고 무리를 지어 진주 읍내에 모여 서리들의 가옥 수십 호를 불사르고 부수어, 그 움직임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 병사가 해산시키고자 장시에 나가니 흰 수건을 두른 백성들이 땅 위에서 그를 빙 둘러싸고는 백성의 재물을 횡령한 조목, 아전들이 세금을 포탈하고 강제로 징수한 일들을 면전에서 여러 번 문책하였는데, 그 능멸하고 핍박함이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그리고 그 분(憤)을 풀고자 병영으로 병사

를 잡아 들어가서는 이방 김준범과 포리 김희순을 곤장으로 수십 대 힘껏 때리니 여러 백성들이 두 아전을 그대로 불 속에 던져 넣어 태워 버렸다. 이방의 아들 만두가 그 아비를 구하고자 하였으니 역시 난민에게 밟혀 죽었다. 병사를 꼼짝 못하게 포위하고 한밤중까지 핍박하여 관아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본 고을의 이방 김정구는 기회를 틈타 도피하였으나, 이튿날 수색 끝에 붙잡혀 두드려 맞고 불에 타서 죽었다. 백성들은 이어 무리를 나누어 촌으로 나가 마동의 영장 정남성, 성부인, 청강 최 진사의 세 집을 모두 불태워 부수었다. 듣건대 이 세 사람은 경영이 긴요치 않은 원우에 백성을 절제 없이 부렸다고 한다. - "임술록"

임술 농민 봉기는 1862년(철종 13)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민란을 총칭하는 말이다. 1862년 2월 4일 경상도 단성을 시작으로 그 해 말까지 37차례에 걸쳐 민란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해에 민란이 일어난 지역은 적어도 70여 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몰락 양반이나 전직 관리가 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농민들의 주도로 민란이 일어났다. 농민들은 관아를 습격하여 장부를 불태우고 옥에 갇힌 죄수를 풀어 주었으며 창고를 열어 곡식을 빈민에게 나눠주었다.

진주 농민 봉기의 원인 파악 57차시

철종 13년(1862) 4월 병진,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가 관리를 조사하고 옥사를 다스린 뒤 장계를 올렸다. "금번 진주 난민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전 우병사 백낙신이 탐욕을 부려 수탈하였기 때문입니다. 병영에서 포탈한 환곡과 전세 6만 냥 모두를 시기를 골라 집집마다 배정하여 억지로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고을 인심이 들끓고 여러 사람의 노여움이 한꺼번에 폭발해서 전에 듣지 못하던 변란이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난민들의 난폭한 습성은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만, 진실로 그 이유를 따져 보면 실을 스스로 얻은 것입니다. 그들이 직분을 더럽혀 변란을 일으키게 한 죄를 그냥 봐 넘길 수 없습니다. 조정에서 논의하여 처리 방안을 올리게 하소서." - "철종실록"

공주부 농민의 요구 사항 57차시

1. 세미는 항상 7량 5전으로 정하여 거둘 것.
2. 각종 군포를 소민들에게만 편중되게 부담시키지 말고, 각 호마다 균등하게 부담시킬 것.
3. 환곡의 폐단을 없앨 것.
4. 군역의 부족분을 보충한다거나 환곡의 부족분을 명목으로 결렴하는 제도를 폐지할 것.
5. 아전과 장교의 작폐를 금지할 것.
6. 전정의 세미(전세, 대동미, 삼수미 등)를 거둘 때 기한에 앞서 거두지 말 것.
7. 토지가 천포로 변하여 세금을 낼 수 없는 토지와 가뭄 등의 이유로 재결이 된 토지, 새로 재결이 된 토지에 대한 면세 조치는 균등하게 분배할 것.
9. 사대부가에서 넓은 지역에 표시를 하여 독점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 - "용호한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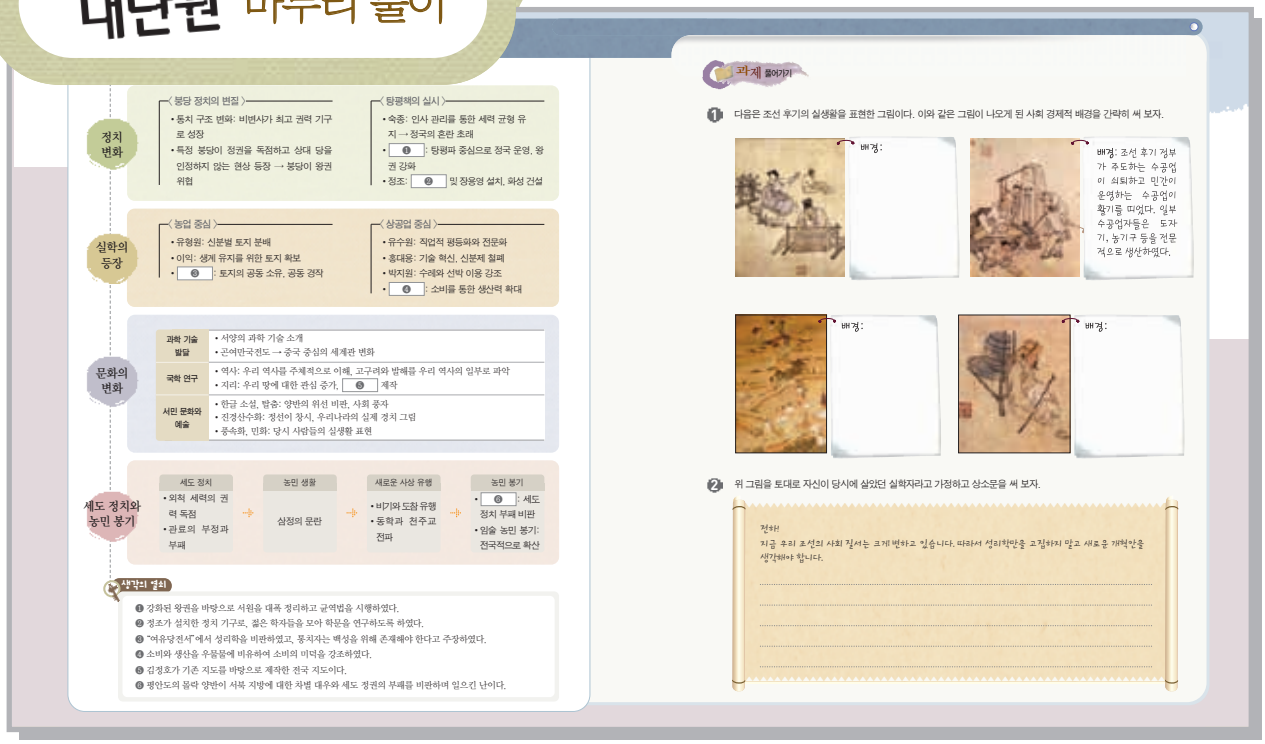
삼정이정청의 설치 57차시

임금이 교지를 내려 이르기를, "삼정의 폐를 구제하는 일은 담당 관청을 설치해서 강구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비변사 회의에 참석하는 여러 대신들은 이제 바야흐로 상세히 살펴 바로잡되, 이 일은 나라의 대경장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불가불 널리 묻고 조사하여 지극히 합당한 데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 "철종실록"

정부는 임술 농민 봉기의 원인이 삼정의 폐단에 있다고 파악한 박규수의 건의를 받아들여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고 삼정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주 · 양반층의 이해와 맞물려 실시가 유보되다 봉기가 소강상태에 들어가자 바로 철회되었다.

대단원 마무리 풀이

교과서 | 202~203쪽



내용 확인하기

❶ 영조

✚ 형벌 제도를 고쳐 지나친 형벌은 금지하고 삼심제를 적용하였다.

❷ 규장각

✚ 정조가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치 기구로 육성하였다.

❸ 정약용

✚ 토지의 공동 소유와 공동 경작 및 생산물의 공동 분배를 주장하였다.

❹ 박제가

✚ "북학의"를 써서 청과의 통상 강화, 상공업 진흥 등을 주장하였다.

❺ 대동여지도

✚ 16만분의 1의 축적을 적용하여 제작되었고, 우리나라의 윤곽을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내었다.

❻ 홍경래의 난

✚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하며 기세를 올렸으나, 5개월 만에 진압되었다.

과제 풀어가기

1. (첫째 배경) 양반 중에 일부는 경제력을 상실하고 몰락하여 농사를 짓거나 가내 수공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둘째 배경) 조선 후기에는 수리 시설이 확충되면서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셋째 배경) 상업이 발달하면서 지방의 장시를 무대로 보부상이 활발히 활동하였다.

2. **| 예시 답안 |**

양반들이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들이 갖추었던 지식으로 우리 경제를 발달시켜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주도했던 수공업도 민간에 허용하고 그들이 물건 만드는 일을 정부가 적극 도와야 합니다. 비록 가뭄의 위험이 있지만 모내기법은 농민들의 수입을 올려 주는 농법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저수지를 쌓고 수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특권 상인에게만 주었던 특권을 없애고 모든 상인들이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단원 짚고 가기

01 다음 설명이 가리키는 기구로 옳은 것은?

> 중종 때 여진족과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한 임시 기구였으나, 왜구의 침입이 잦아지면서 상설 기구로 변모하였다. 그러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가 최고 회의 기구가 되었다.

① 의정부 ② 비변사 ③ 3사
④ 6조 ⑤ 5군영

02 다음 〈보기〉의 조선 시대 지방 방어 체제를 시대순으로 나열한 것은?

보기

(가) 진관 체제 (나) 속오군 체제
(다) 제승방략 체제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⑤ (다) – (나) – (가)

03 다음은 영조가 성균관에 세운 비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영조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두루 사귀고 치우치지 않는 것은 군자의 공평무사한 마음이요, 치우쳐서 두루 사귀지 못하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①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② 국왕과 신하 사이의 의리를 세우려 하였다.
③ 장용영을 설치하여 군사적 기반으로 삼았다.
④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여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⑤ 서원을 정리하고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0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실이 아닌 것은?

> 조선 후기에는 경제 발전이 지속되어 농업이 발달하고, 상공업이 활기를 띠었다. 이러한 경제의 발전은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

① 정부 주도의 관영 수공업이 활기를 띠었다.
② 신분제가 동요하여 양반의 수가 급증하였다.
③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상평통보가 유통되었다.
④ 모내기법이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늘어났다.
⑤ 장시를 무대로 보부상들의 상업 활동이 활발해졌다.

05 다음은 토지 제도의 개혁을 주장한 실학자들을 정리한 표이다. ㉠, ㉡에 해당하는 학자를 쓰시오.

학자	토지 제도	주장
(㉠)	균전제	신분별로 토지 분배
이익	한전제	생계 유지 토지 확보
(㉡)	여전제	토지의 공동 소유 · 분배

06 다음 주장과 관련된 실학의 학파와 관계가 먼 인물은?

> • 상공업을 진흥하여 나라 살림을 튼튼히 해야 한다.
> • 청과 통상하여 앞선 문물을 도입해야 한다.
> • 기술을 혁신하여 생산력을 확대해야 한다.

① 유형원 ② 유수원 ③ 홍대용
④ 박지원 ⑤ 박제가

07 다음은 '곤여만국전도'이다. 이러한 세계 지도가 전래되어 나타난 조선 후기 세계관의 변화를 간단히 서술하시오.



0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은?

> • 이익의 실증주의적이며 비판적인 역사관을 발전시켰다.
> • "동사강목"을 지어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하였다.
> • 중국 중심 사관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성과 독자성을 내세웠다.

① 안정복 ② 이동휘 ③ 유득공
④ 한치윤 ⑤ 김정호

09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조선 후기 농업 생산력이 급증하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서민들의 경제력도 점차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서민층의 의식이 높아져 서민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작품들이 많이 나타났다. 서민들은 문예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회의 부조리와 비리를 비판하였다.

① 민화 ② 판소리
③ 탈놀이 ④ 한글 소설
⑤ 진경산수화

10 서민들의 생활을 소박하게 묘사한 아래의 그림을 남긴 조선 후기의 화가는?



① 정선 ② 안견 ③ 신윤복
④ 김홍도 ⑤ 강희안

11 다음의 가르침과 관계있는 종교는?

> • 사람을 한울처럼 섬겨라.
> •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 • 널리 민중을 구제하라.

① 동학 ② 천주교 ③ 정감록
④ 미륵 신앙 ⑤ 무속 신앙

12 다음 지도의 A 지역에서 조선 후기에 일어난 농민 봉기는?



① 홍경래의 난
② 진주 농민 봉기
③ 개령 농민 봉기
④ 임술 농민 봉기
⑤ 동학 농민 봉기

정답

01 ② 02 ② 03 ③ 04 ① 05 ㉠ 유형원, ㉡ 정약용 06 ① 07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08 ① 09 ⑤ 10 ④ 11 ① 12 ①

VII 통일 제국의 등장

1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세계 각 지역에서 형성된 통일 제국의 성립과 발전 과정, 특징을 다루고 있다. 지역별로 제국의 성립과 발전, 문화적 특징, 세계 종교의 성립과 발전을 다룸으로써 통일 제국의 전반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세계 종교의 의미를 제국의 변천 과정과 연관시켜 파악할 수 있다.



▲ 이란의 페르세폴리스 유적

01. 중국 통일 제국의 형성과 유교의 성립에서는 춘추 · 전국 시대에 사회 · 경제적으로 큰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파악한다. 또 제자백가의 다양한 주장과 정치 · 문화에 끼친 영향을 이해한다. 한편 진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였으며, 한이 중앙 집권 체제를 계승하여 제국을 안정시켰음을 살펴본다. 그리고 유교 사상과 문화의 발전 양상을 이해한다.

02. 인도 통일 왕조의 등장과 불교의 발전에서는 마우리아 왕조가 최초로 북인도를 통일하고 불교를 발전시켰음을 다룬다. 쿠샨 왕조 시대에는 불교가 각지로 전파되고 간다라 미술이 성립하였음을 이해한다. 마우리아 왕조와 쿠샨 왕조 시대에 흥성했던 불교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고, 불교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한다.

03. 서아시아 통일 제국의 등장과 페르시아 문화에서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을 알아본다. 페르시아 제국의 발전 과정을 중앙 집권적인 제도의 정비, 그리스 세계와의 관계, 국제적 문화의 발전, 조로아스터교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04. 고대 지중해 세계와 크리스트교의 성립에서는 그리스에서 폴리스가 형성되어 발전하는 과정을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 아테네 민주 정치의 특징과 스파르타의 정치 · 사회 모습을 파악한다. 그리스 문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성립과 헬레니즘 시대의 특징을 파악하여 정리한다. 로마의 발전 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이해하고, 로마 문화의 특징을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 크리스트교의 교세 확장 과정을 로마 제국과 관련지어 살펴본다.

2 단원의 목표

지식 · 이해	• 세계 여러 지역에서 통일 제국이 형성되는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 각 지역에서 성립한 통일 제국의 독자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세계 종교의 등장과 확산을 통일 제국의 형성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기능	• 각 통일 제국의 영역을 지도에 표시할 수 있다. • 유물과 유적을 보고 통일 제국의 문화적 특징을 추론할 수 있다.
가치 · 태도	• 통일 제국의 문화적 특징을 우열을 기준으로 가리지 않도록 한다. • 각 종교의 특징을 알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태도를 갖는다.

3 단원의 구조와 지도 계획

차시	중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
58	01. 중국 통일 제국의 형성과 유교의 성립	1. 춘추 · 전국 시대의 사회 변화	철기의 사용, 우경, 제자백가
59		2. 진 · 한 통일 제국의 성립	시황제, 군현제, 법가 사상, 만리장성, 중앙 집권 체제, 한 무제, 전매 제도, 장건, 비단길, 호족
60		3. 유교 사상과 문화의 발전	유교, 훈고학,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 종이의 개량, 서역과의 교류
61	02. 인도 통일 왕조의 등장과 불교의 발전	1. 마우리아 왕조와 불교의 확산	불교의 성립 배경, 마우리아 왕조의 북인도 통일, 아소카 왕, 상좌부 불교
62		2. 쿠샨 왕조와 대승 불교의 발전	쿠샨 왕조의 성립, 카니슈카 왕, 대승 불교, 간다라 미술, 불교의 전파
63	03. 서아시아 통일 제국의 등장과 페르시아 문화	1. 페르시아 제국의 발전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 이민족 포용 정책, 사산 왕조 페르시아
64		2.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	조로아스터교, 국제적 문화의 발달, 페르세폴리스, 마니교
65	04. 고대 지중해 세계와 크리스트교의 성립	1. 고대 그리스의 사회와 문화	에게 문명, 폴리스, 아테네, 민주 정치의 발달, 스파르타, 펠로폰네소스 전쟁, 인간 중심적 문화, 철학의 발달
66		2.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	알렉산드로스 대왕, 자연 과학의 발달,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과 영향
		3. 로마의 발전과 크리스트교의 성립 (1)	공화정, 평민회 창설과 호민관 선출, 포에니 전쟁, 라티푼디움,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67		3. 로마의 발전과 크리스트교의 성립 (2)	아우구스투스, 콘스탄티누스 황제, 로마 제국의 멸망, 로마법, 실용적 문화, 크리스트교 성립, 밀라노 칙령

4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 춘추 · 전국 시대를 혼란의 시대로 규정하기보다는 변혁의 시대라는 점에서 파악하도록 유의한다.
- 불교의 성립과 전파 과정을 인도 사회의 발전과 관련지어 이해시킨다.
- 서아시아 세계의 정치적 변천을 다룰 때, 왕조별 특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나열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크리스트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됨으로써 세계 종교로 성장했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5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 신채식, "동양사개론", 삼영사, 2002.
- 존 킹 페어뱅크, 김형종 역, "신중국사", 까치글방, 2005.
- 신용철, "동양의 역사와 문화", 탐구당, 2005.
- 김형준, "이야기 인도사", 청아출판사, 2006.
- 에드워드 맥널 번즈, 박상익 역, "서양 문명의 역사", 소나무, 2007.
- 차하순, "새로 쓴 서양사 총론", 탐구당, 2005.
- 민석홍, "서양문화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http://www.metmuseum.org/

| 교과서 | 206~213쪽

Ⅶ. 통일 제국의 등장

01 중국 통일 제국의 형성과 유교의 성립

학습 목표

- 춘추 · 전국 시대의 사회 · 경제적 발전상을 이해하고, 제자백가의 등장 배경과 대표적인 사상을 설명할 수 있다.
- 진 · 한이 통일 제국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알 수 있다.
- 진 · 한 제국에서 나타난 정치 · 사회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 한에서 이루어진 문화적 발전과 특징을 파악하고, 진 · 한 제국이 후대 중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58	**1. 춘추 · 전국 시대의 사회 변화**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철기가 사용됨으로써 농업과 전쟁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을까?	문답식	
	[전개]		
	• 춘추 · 전국 시대에 정치 혼란이 심각했음을 지도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강의식	206쪽 지도, CD
	• 이 시기 제후국들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설명한다.		
	• 춘추 · 전국 시대에 사회 · 경제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정리한다.	문답식	
	• 전쟁에 철제 무기가 이용되면서 전투력이 향상되고, 제후들이 전쟁을 통하여 영토를 확장해 갔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 제자백가의 다양한 사상이 등장한 배경을 설명하고, 각 사상가의 주장 중 특징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탐구식	208쪽 탐구 활동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춘추 · 전국 시대에 우경과 깊이갈이, 무기의 발달과 전투력 향상 등을 가져온 계기는?	문답식	
	2. 춘추 · 전국 시대의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다양한 방법을 주장하는 사상가들을 가리키는 말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59	**2. 진 · 한 통일 제국의 성립**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중국의 영어식 표기인 'china'는 어디에서 유래하였을까?	문답식	
	[전개]		
	• 진이 중국 최초로 통일 제국을 건설하였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 시황제의 통일 정책을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하고, 진의 통일 과정과 법가 사상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한다.		209쪽 사진, CD

59	• 진의 강압적인 통치 정책과 무리한 대규모 공사가 멸망을 초래하였음을 정리한다. • 한의 건국 과정을 설명하고 군국제와 군현제의 차이를 이해시킨다. • 한 무제가 실시한 여러 정책을 정리하고, 비단길 개척 배경을 설명한다. • 호족의 성격과 사회적 역할을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유학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고, 소금과 철에 대한 전매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비단길을 개척하게 한 인물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강의식 탐구식 문답식	210쪽 지도, 보충 자료 211쪽 탐구 활동 학습지
60	**3. 유교 사상과 문화의 발전**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도덕적 수양에 기초한 정치를 내세우며 한의 국가 통치 이념으로서 자리 잡은 사상은? [전개] • 한대에 유가 사상이 국가 통치의 기본 사상으로 받아들여져 유교로 발전하였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각지에 유교가 확산되어 갔음을 안내한다. • 한대의 문화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정리하고 발표하게 한다. • 한대에 비단길을 통해 서역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한다. • 진 · 한 제국이 후대 중국에 끼친 영향을 정치적 · 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한대에 관리 선출의 기준은 물론 일상생활의 근본으로 중시된 사상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강의식 발표식 강의식 탐구식 문답식	CD 213쪽 탐구 활동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춘추 · 전국 시대의 사회 변화

(1) 춘추 · 전국 시대의 정치 혼란

① **배경**: 주 왕실의 약화, 봉건 질서의 붕괴, 지방 제후들의 세력 강화와 경쟁, 서방 이민족의 침입

② **춘추 · 전국 시대의 전개**

- 춘추 시대(기원전 770~403): 유력한 제후들이 주 왕실의 권위를 대신함, 춘추 5패 등장
- 전국 시대(기원전 403~221): 주 왕실의 권위 무시, 제후들의 치열한 경쟁과 영토 확장, 전국 7웅 등장

(2) 철기의 보급과 사회 · 경제적 변화

① **철제 농기구의 사용**: 소를 이용한 농사, 밭의 깊이갈이 가능 → 농업 생산량 증대

②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 시장과 도시 등장, 금속 화폐 사용

③ **철제 무기의 사용**: 전투력 향상 → 전쟁 규모 확대, 정복 전쟁 활발

(3) 제자백가의 출현

① **배경**: 각국이 부국강병책 실시, 인재 등용

② **공통점**: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상 주장,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

③ **다양한 학파와 주장**

유가	• 대표 사상가: 공자, 맹자 등 • 특징: 인(仁)과 예(禮) 강조, 도덕 정치 실현 주장
법가	• 대표 사상가: 상앙, 한비자 등 • 특징: 엄격한 법에 의한 통치 강조
도가	• 대표 사상가: 노자, 장자 등 • 특징: 자연을 본받는 생활 주장 → 도교로 발전
묵가	• 대표 사상가: 묵가 등 • 특징: 차별 없는 사랑의 실천 주장

2. 진 · 한 통일 제국의 성립

(1) **진의 중국 통일**

① **시황제**: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한 부국강병 정책 실시 → 최초로 중국 통일

② **시황제의 정책**

- 목적: 강력한 중앙 집권 정치 도모
- 군현제 실시: 전국에 지방관 파견
- 사상의 통일: 법가 사상 채택
- 만리장성 축조: 흉노의 침입에 대비
- 문자, 화폐, 도량형 등 통일

③ **진의 멸망**: 무리한 대규모 토목 공사 추진, 강압적인 통치 → 백성의 불만 고조 → 농민 반란으로 멸망

(2) **한의 중국 통일**

① **한의 성립**: 유방(고조)의 중국 재통일

② **정치**

- 고조: 군국제 실시 → 중앙에 군현제, 지방에 봉건제 적용
- 무제: 군현제의 전국적 실시,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채택, 소금과 철의 전매 제도, 비단길 개척

③ **멸망**

- 왕망의 신 건국 → 신 멸망 후 한 제국의 재건(후한)
- 후한의 멸망: 황건적의 난 등 농민 반란 → 위에 멸망

(3) **호족의 성장**

① **호족의 대두**: 향촌에서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호족 등장

② **역할**: 향촌의 질서 유지, 교육 담당

3. 유교 사상과 문화의 발전

(1) **국가 통치 이념으로서의 유교**

① **한 무제의 유학 중시**: 효와 충 사상이 황제의 지배를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여김.

② **유학의 통치 이념화**: 학문의 중심, 관리 선발의 기준, 일상생활의 근본 → 유교로 발전

③ **영향**: 한의 세력 확장 → 동아시아 각지의 통치 체제 성립에 영향

(2) **중국 전통문화의 기틀 마련**

① **훈고학 발달**: 경전의 해석 강조

② **역사서 편찬**: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 등

③ **제지법 개량**: 지식의 보급과 확산에 이바지 → 학문과 사상의 발전

④ **과학 기술의 발달**: 해시계, 지진계 등 발명

(3) **서역과의 교류**

① **서역 문화의 전래**: 비단길을 통하여 비파, 공후, 포도, 호두, 불교 등 전래

② **비단의 수출**: 한은 질 좋은 비단을 서역에 수출 → 베틀의 발명, 염색 기술, 자수법 발달 등에 힘입어 비단의 가치 상승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206쪽

농사에 철제 농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소를 이용한 밭갈이(우경)가 가능하게 되어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208쪽

1.

사상가	주장
유가	인(仁)을 강조하며, 도덕적인 수양을 전제로 한 도덕 정치를 중시하였다.
법가	엄격한 법의 제정과 무거운 형벌을 통한 통치를 주장하였다.
도가	인위적인 것을 배격하였으며, 자연을 본받는 통치를 주장하였다.
묵가	차별 없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2. **지도 요령** 이 과제는 유가, 법가, 도가, 묵가의 주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 어느 가(家)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들 때,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가(家)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도 함께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제자백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확인할 수 있다.

예시 답안 법가 사상을 선택한 제후

내가 만약 제후라면 법가 사상을 채택할 것이다. 춘추 · 전국 시대와 같이 혼란한 시대에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 순화된다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연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나는 엄격한 형벌을 적용해야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고 본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09쪽

시황제는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황제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 정치를 펼쳤다.

탐구 활동 ▶▶▶ 교과서 211쪽

1. 향촌에서 여러 대에 걸쳐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2. 호족이 향촌에서 지나치게 많은 토지를 소유하면서 세력을 키워 나가자 대다수의 일반 백성은 경작할 토지를 잃고 가난한 생활을 해야 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12쪽

유학을 모든 학문의 중심이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교를 통치의 기본 원리로 삼아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213쪽

1. 진 제국에서는 황제 지배 체제가 성립하였고 군현제를 토대로 한 중앙 집권 체제가 마련되었다. 한 제국에서는 유교가 국가의 지배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2. 채륜이 제지법을 개량하였으며, "사기", "한서"와 같은 역사서가 편찬되어 후대 역사 서술의 모범이 되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213쪽

1. (1) 제자백가, (2) 무제
2. (1) ㉡, (2) ㉢, (3) ㉣, (4) ㉠

내용 더하기

춘추 5패와 전국 7웅 58차시

주(周) 초기에는 주 왕이 제후로 임명한 1,800여 개의 도시 국가가 있었다. 그런데 북방 유목 민족의 침입을 받아 주가 낙읍으로 천도한 후, 도시 국가는 춘추 시대 중엽에 140개국으로 줄고 춘추 시대 말에는 10여 개국만 남게 되었다. 춘추 시대에 진(晉), 제(齊), 초(楚), 오(吳), 월(越)이 가장 강성하였는데, 이 나라들을 춘추 5패라고 부른다.

기원전 403년, 진(晉)의 신하들이 진을 멸망시키고 한(韓), 위(魏), 조(趙)를 세웠다. 이때부터 진(秦)이 중국을 통일하는 기원전 221년까지를 전국 시대라고 한다. 전국 시대에는 형식적으로나마 주 왕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정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한(韓), 위(魏), 조(趙), 제(齊), 연(燕), 초(楚), 진(秦)의 7개국이 서로 패권을 다투게 되었다. 이를 전국 7웅이라고 한다.

상앙의 변법 58차시

전국 7웅은 농민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고 부국강병을 추진하였다. 이를 이른바 변법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진(秦)에서 상앙이 주도한 변법이 가장 성공적이었으며 역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다. 상앙은 기원전 359년부터 진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개혁을 주도하였다. 1차 변법 때는 연좌제를 실시하였다. 상앙은 새로운 호적법을 만들어 백성 상호간 모든 상벌 행위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가족 제도를 개혁하여 한 집에 성년 남자가 2명 이상이 있으면 분가시켰다. 이는 분가를 촉진하여 새로운 토지로 이주시키고 농경지를 개간하여 생산력을 높이려는 의도였다. 한편 상앙은 군공(軍功)과 농업을 장려하였다. 당시 진은 신흥 국가로서 토지는 넓었지만 인구가 적었다. 그리하여 전공(戰功)에 따라 토지를 부여하여 개발하게 하였고, 농업 생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요역과 부세를 면제하였다. 그러나 상업에 종사하거나 농사를 게을리 한 자는 관청의 노비로 삼았다.

이후 국력이 크게 향상된 진은 도읍을 위수 근처의 셴양(咸陽)으로 옮기고 10년이 지난 후 2차 변법을 실시하였다. 진은 전국의 성읍과 촌락을 합쳐 31개의 현을 설치하였다. 각 현에는 현령을 파견하였으며, 아직 개간되지 않은 토지는 백성에게 지급하여 개간하고 경작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을 늘렸으며, 전세(田稅)를 국가가 직접 징수하고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변법을 시행한 이후 진의 국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전국 7웅 가운데 가장 강성해졌다. 상앙의 변법은 진이 다른 제후국을 병합하고 중국을 통일한 밑바탕이 되었다.

춘추·전국 시대 철기의 사용과 농업 발달 58차시

중국에서 철기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기원전 8~7세기 무렵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철기의 사용이 확산되어 전국 시대 후기에 들어오면 철제 기구가 중국 전역에 보급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다.

농업 생산 도구로서 철기의 사용은 농토를 갈고 땅을 정비하는 일뿐만 아니라 제초와 수확 등 생산 과정을 이전보다 크게 효율화시켰다. 또한 관개 수로를 개착하고 제방을 수축하며 우물을 파는 등 국가 주도의 대규모 수리 사업에 이용되면서 농업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

철제 농기구의 전국적인 보급과 더불어 우경이 도입됨으로써 농업은 한층 더 발달하게 되었다. 사람 대신 소의 힘을 이용하여 농지를 개간함에 따라 개척되지 않은 황토지대의 광활한 평원을 농경지로 만들어 농업 생산력을 높

일 수 있었다. 중국 화북 지역의 황토 지대는 지표에 염분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토양을 알칼리화하고 수분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철제 농기구를 활용한 심경(深耕)이 도입되면서부터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농작물에 인위적으로 비료 성분을 공급하는 시비(施肥)법이나 화북 지역에 적절한 한지 농법(旱地農法) 등 농법도 발달하였다.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농업 생산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농경지가 확대되면서 토지의 사유화가 촉진되었으며, 토지의 사유화로 씨족이 해체되고 토지의 소유와 경작은 소가족을 단위로 진행되었다. 종래 부락이나 촌락을 단위로 이루어지던 집단 농업 대신에 5인 1호의 표준 농가를 기준으로 하는 소농 경작이 발달하였고, 이를 계기로 가부장적인 소가족 제도가 정착되었다.

춘추 · 전국 시대의 화폐 58차시

춘추 · 전국 시대에는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상업 도시와 화폐 경제가 발전하여 각국에서 화폐가 주조되어 널리 유통되었다. 춘추 · 전국 시대의 화폐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청동으로 만들어졌다. 도전(刀錢)은 칼 모양의 화폐로, 큰 것은 제, 작은 것은 연과 조에서 주로 유통되었다. 포전(布錢)은 쟁기 모양의 화폐인데, 춘추 시대에는 진(晉)에서, 전국 시대에는 한 · 위 · 조에서 유통되었다. 동전 모양인 원전(圓錢)은 진(秦)과 주(周)를 중심으로 한 중원과 조 · 위 등 황허 강을 따라 위치한 지역에서 유통되었다. 의비전(蟻鼻錢)은 동전에 새겨진 문자가 개미 머리와 비슷한 것으로, 주로 초에서 유통되었다.

제자백가의 출현 배경과 공통적 성격 58차시

고대 중국에서 제자백가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사상가라고 할 만한 인물은 거의 없었으며 개인 저서도 별로 없었다. 그런데 정치가 혼란하고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였던 춘추 · 전국 시대에 새로운 사상을 창조하고 동양 사상의 기반을 마련한 제자백가가 출현하였다.

제자백가가 출현한 배경으로는 먼저 사상의 자유와 지식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주대의 봉건제 아래에서는 신분 질서가 고정되어 있었고, 사상과 학문을 국가가 관장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로운 사상 활동이나 지식의 보급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다 주대의 봉건제가 무너지면서 학문과 지식이 일반 서민에까지 확대되어 갔다. 일반 서민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이용하여 신분을 상승시키려는 강한 욕구가 문화 창조의 의지로 나타난 것이다.

다른 요인으로는 학자의 우대를 들 수 있다. 전국 시대에는 영토 국가가 출현하고 각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앞다투어 부국강병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능력 있는 학자를 우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여러 학자들이 각국의 제후에게 발탁되었다.

마지막으로 여러 제후국이 분립한 것이 사상의 다양화에 이바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춘추 · 전국 시대에는 각 학파의 학설이 용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를 하나로 통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정치적 혼란이 오히려 사상의 자유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와 함께 영역 국가가 출현하여 각 제후국이 정치적 독립을 이루고 변방 국가들이 중앙 문화와 활발하게 접촉함으로써 사상과 문화의 전파가 촉진되었다.

제자백가는 학파별로 매우 다양한 성격과 사상적 특징을 가졌지만 공통적인 성격도 많았다. 우선 제자백가의 사상과 학문은 학문적인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춘추 · 전국 시대에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이 가문과 전통보다는 능력에 따라 좌우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훌륭한 스승을 찾아 모여들었다. 이에 사적인 여러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이 학문적인 집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종이가 발명되지 않아 책이 보급되지 못하였으며 문자가 통일되지 못하여 독서에 의한 지식 습득이 어려웠던 점도 학문적 집단을 이룬 원인이 되었다. 스승의 말씀과 제자의 질문을 통한 강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학단(學團)을 이루게 한 것이다.

제자백가는 어지러운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원리를 찾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제자백가나 그 문하생들은 자신의 사상과 주장을 가지고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다만 방법과 강조점에서 서로 다를 뿐이었다. 또한 제자백가의 사상은 인간 중심주의와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제정일치의 은이나 천명사상을 바탕으로 했던 주와 달리 춘추 · 전국 시대에는 인간과 사회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시대부터 중국인의 사상적 관심은 주로 인간의 윤리 문제, 정치 문제 등 현실 문제가 중심이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사상의 틀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성격은 신과 내세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사상이

발전하였던 다른 문화권과 다른 점이다. 그런데 제자백가 사상은 개인보다는 사회나 국가를 더 강조하여, 고대 서양의 사상가들이 추구한 인간 중심주의 사상이나 인간의 행복 추구라는 성격과도 달랐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가의 중심 사상 58차시

유가는 공자(孔子)를 시조로 하는 학파이다. 공자 이후 맹자, 순자로 이어진 것이 그 정통적 학파이며, 전국 시대에는 사회의 각층에서 여러 학파의 학단에 많은 학도가 모였다. 유가 사상의 시초였던 공자는 인(仁)을 중시하였으며, 인의 가장 순수한 상태인 효(孝)와 제(悌)를 인간 행위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보았다. 공자의 이상은 군자를 키우는 것이었다. 군자는 교양을 갖춘 고귀한 인격자를 가리키며, 군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정직, 정의, 군주에 대한 충성, 어진 마음을 강조하였다. 공자는 군자 교육으로 예(禮)와 악(樂)을 강조하였는데, 한대에 유교가 관학화되면서 의식과 예법이 더욱 중시되었다.

유가 사상은 진대에 쇠퇴하였다가, 한 무제 때 관학이 되었다. 이후 유가는 유교로 발전하여 6조 시대의 불교나 도교와 대립하기도 하였고, 송대에는 불교의 철학을 채용하여 이기학(理氣學)이 되기도 하였다. 명대에는 실천주의적 성격의 양명학이 나타났으며, 청대에 이르러서는 고증학이 발달하여 경전의 과학적 연구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도가 사상 58차시

도가는 유가와 함께 중국 사상의 2대 주류를 이루는 사상이다. 도가를 창시하였다는 노자는 춘추 시대의 어지러운 세태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여, 무위자연을 내세우며 현실을 외면한 은둔과 도피의 철학을 주장하였다. 도가 사상은 유교의 인위적 도덕 윤리를 비판하고 전제 군주의 절대권에 대한 일반 백성의 저항을 인정하였다. 노자의 사상은 전국 시대에 장자에 의하여 발전하였다. 장자는 세상의 모든 사물을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며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였다.

도가 사상은 다른 제자백가의 사상과 달리 현실성을 부정하고 자연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도가 사상은 인간의 생활을 자연에 순응시키려는 자연관과 만물의 생성에 대한 숭배, 자연과 인간의 중개자로서의 군주 등에 관한 중국인의 관심을 철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묵가 사상 58차시

묵자는 일찍부터 유가 사상을 배웠지만, 유가의 형식주의와 불평등성에 반대하여 묵가 사상을 제시하였다. 전국 시대 초기에는 묵가 사상의 세력이 강성해져 유가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되기도 하였다.

묵자는 생산 활동과 절약을 강조였다. 즉 국가 부강, 인구의 증가, 정치의 공정함을 강조하고 이와는 반대로 백성의 굶주림, 추위에 입을 것이 없는 것, 일하는 자의 휴식처가 없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가 사상을 철저하게 비판하였다. 공자는 어리석은 군주라도 신하가 잘 보필하면 정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였지만, 묵자는 왕위 세습을 반대하고 훌륭한 인물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가에서 중시하는 예의와 음악을 낭비라고 배척하였으며, 유가의 가족 제도와 인간 상호간의 특수한 관계를 중시한 차별적인 사랑〔仁〕에 반대하였다. 묵자는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兼愛〕해야 사회에 평화가 온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쟁을 배격하고 평화론, 비전론을 주장하였는데, 무저항주의가 아니라 방어전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황제 칭호의 사용과 황제 지배 체제 59차시

중국의 황제 제도는 기원전 221년 진의 시황제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을 때 새로이 '황제'라는 칭호를 제정한 것에서 시작하여 1912년 청의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가 퇴위할 때까지 2천여 년에 걸쳐 유지되었다. 황제라는 칭호가 사용되기 이전에는 군주를 왕 또는 천자라고 하였다. 그러다 진의 왕(시황제)이 중국을 통일하고 처음으로 황제의 칭호를 제정하였다. 아울러 제(制), 짐(朕) 등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어를 만들었다. 황제(皇帝)의 '황(皇)'은 지상에 태양이 빛나는 형상을 나타내는 문자로, '빛이 난다', '위대하다'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제(帝)'는 천계에 살면서 우주 만물을 주재하는 최고의 절대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즉 황제에는 우주 만물을 주재하는 초월적인 절대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시황제에 의하여 완성된 황제 지배 체제는 이후 중국의 기본 통치 체제로 발전하였다. 황제 지배 체제는 중앙 집권적 관료제와 군현제의 전국적인 실시, 전 국민에 대한 인신적 지배를 토대로 하고 있다. 황제 지배 체제의 사상적 근거는 법가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법가 사상은 군주권의 절대화를 주장하고, 이를 위해 법(法)과 술(術)을 분리하였

다. 법(法)은 황제의 명에 따라 백관과 인민의 행위를 규제하고, 그에 의거하여 인민이나 관료에 대한 상벌을 규정한 것이다. 술(術)은 황제의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적임자를 뽑아 관리로 임명하는 관료 제도이다. 이러한 법과 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야 하며〔勢〕, 황제권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를 제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진대에는 유가 사상과 황제 지배 체제가 서로 반목하는 형상이었다. 그러나 한대에 유학이 관학으로 채택되면서 황제 지배 체제에 유가의 가부장적 군주관이 차용되었다.

분서갱유 59차시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후에도 전국 시대의 여러 학파가 자기의 학설을 주장하는 것은 여전하였다. 그러던 중 기원전 213년에 개최된 연회 석상에서 제(齊)의 순우월이 주(周)의 봉건제를 찬양하고 시황제의 정치를 비난하였다. 시황제는 사상을 통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사(李斯)로 하여금 전국의 서적을 불살랐다. 이를 분서(焚書)라 한다. 시황제는 이사의 건의에 따라 "진(秦)의 기록과 박사관 소장의 서(書), 의약, 농업 서적 이외의 민간 서적은 모두 소각한다. 위반자는 극형에 처한다."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기원전 212년에는 두 명의 유생이 시황제의 권세욕을 비판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시황제는 진노하여 자신을 비방하는 선비를 모두 잡아 가두었고, 그 중 460명이나 되는 선비를 모두 산 채로 구덩이에 파묻어 죽였다. 이를 갱유(坑儒)라 한다.

군현제 59차시

군현제란 지배 지역에 군이라고 하는 지방 행정 구획을 설정하고, 군 아래에 현이라는 행정 구획을 두어 군과 현에 각각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통치하는 중앙 집권적 지방 행정 제도이다. 기원전 221년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봉건제를 폐지하고 전국에 군현제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진대에 군현제가 처음 출현한 것은 아니다. 주의 봉건제와 종법 질서가 해체됨에 따라 춘추 시대 말기에서 전국 시대 초기에 이미 군현제와 유사한 제도가 각국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시황제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완성한 것이며, 지방관의 임명권을 장악하였다.

군국제 59차시

진(秦)이 멸망한 이후 중앙 집권 체제가 무너지고 각지에 제후국들이 난립하였다. 그 가운데 한(漢)의 유방〔高祖〕은 기원전 202년 항우를 물리치고 여러 왕들의 추대를 받아 황제에 즉위하였다. 그러나 한의 전국 통일은 각지의 여러 독립 왕국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고조는 전국을 통일하는 데 공을 세운 공신들을 왕과 열후(列侯)로 봉하여 각지의 제후 왕국들을 승인하고 봉토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왕국과 후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군현제를 채택하였다. 주로 수도 장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에는 봉건제를 취하고, 수도 근처 지역에는 군현제를 유지하였다. 이처럼 한 초기에 봉건제와 군현제를 절충하여 실시한 지방 행정 제도를 군국제라 한다.

한의 중앙 정부가 중앙 집권화 정책을 실시한 데 비하여, 지방의 제후왕은 지방 분권화를 추구하여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의 제후왕은 관리를 직접 임명하고, 여러 군에 이르는 광대한 봉지(封地)를 통치하였다. 이러한 제후국은 한의 중앙 정부에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러다 한 경제(기원전 188~기원전 141) 때 지방 제후의 영지를 삭감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오를 비롯한 지방의 제후왕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를 오 · 초 7국의 난이라고 한다(기원전 154). 경제는 오 · 초 7국의 난을 겨우 평정하고 적극적으로 중앙 집권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먼저 지방의 제후왕을 정치에서 배제하고 지방 정치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에게 맡겼다. 이로써 한 초 이래 제국의 중앙 집권화에 큰 장애가 되었던 제후 세력이 제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무제는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다.

한 무제의 경제 정책 59차시

한 무제는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계속하여 대외 원정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경제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원전 123년에 흉노 정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바닥나기에 이르러 시급하게 재원을 확보해야 했다.

그리하여 한 무제는 기원전 119년에 소금과 철의 국가 전매를 실시하였으며, 곧 술의 전매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기원전 110년에 평준법과 균수법을 실시하였다. 한 무제는 이와 같은 상업 통제 정책을 실시하여 국가의 수입을 보충하고자 하였다.

평준법은 시기에 따라서 과잉 공급에 의한 물가 상승과 하락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고, 균수법은 지역 간의 물가 조절을 위한 것으로서 물자의 원활한 수송을 정부에서 맡아

한 것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대상인의 상업 활동이 위축되는 대신에 국가의 수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상업 통제 정책은 상업 활동을 위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생활필수품인 소금과 철, 술의 전매 제도는 상품의 암거래를 조장하여 도리어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 무제의 대외 정책과 장건 59차시

한 무제는 한 초 이래 발전한 경제력과 국가 권력을 바탕으로 북으로는 흉노를 정벌하고, 서쪽으로는 비단길을 개척하였다. 또한 남으로는 월남, 동으로는 고조선을 복속하여 진의 시황제보다 더 넓은 영토를 확보하였다. 한 무제가 추진한 최대의 대외 원정은 흉노 정벌이었는데, 기원전 129년에서 기원전 119년에 집중되었다. 흉노 정벌에 앞서 무제는 흉노에 적대적인 서역 국가와 동맹을 맺으려고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하였다. 장건은 대월지에 도착하기 전에 흉노에 붙잡혀 포로 생활을 하다가 탈출하여 대원을 거쳐 대월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대월지는 장건의 군사 동맹 제의를 거절하였다. 중국으로 돌아온 장건은 기원전 115년에 다시 중앙아시아 지역의 오손과 동맹을 맺기 위하여 파견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장건의 서역 파견은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였으나 비단길 개척의 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서역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증대시켜 중국인의 세계관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비단길 59차시

한 무제의 대대적인 서방 원정을 계기로 비단길이 개척되었다. 비단길은 아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대상들이 주로 이용하였다. 비단길이라는 말은 중국의 특산물인 비단이 이 길을 지나 서방 세계에 전해진 데에서 비롯되었다. 비단길은 7~8세기경까지 동서 무역의 중심으로 번영하였다. 중국의 한 기록에 따르면 파르티아 사절이 한의 사신을 따라 중국에 와서 타조 알과 알렉산드리아의 마술사를 바치자 무제가 무척 기뻐하였다고 한다. 비단길을 통하여 사절단이 오가면서 서역의 진기한 물품들이 많이 전래되었으며, 불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와 같은 다양한 종교는 물론 간다라 미술,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공예품 등이 중국에 전해졌다.

후한의 성립과 쇠퇴 59차시

한 무제가 죽은 이후 중국의 정치는 환관과 외척에 의해 좌우되었다. 환관이 관료층을 좌지우지하자 관료들은 환관의 정치 개입을 반대하여 이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당쟁이 계속되었다. 이처럼 집권층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척인 왕망이 왕위를 찬탈하고 신을 세워 한이 멸망하였다. 왕망은 집권 후 유교를 신봉하고 토지 국유화를 추진하였다. 이미 사유화가 진행되던 토지에 제한을 가하고 상업 이익을 국가가 독점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호족과 백성들의 반발에 부딪쳐 신은 곧 멸망하였고, 호족의 후원을 받은 광무제가 다시 한을 부흥시켰다.

이로써 고조(유방)가 세운 한은 전한, 광무제가 세운 한은 후한으로 구분한다. 후한의 광무제는 왕망이 실시한 모든 제도를 폐지하고 전한의 제도로 복귀하였다. 광무제는 호족을 회유하고 백성을 교화하고자 숭유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였으며, 중앙아시아 교통로의 통제권을 회복함으로써 동서 문화 교류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하지만 후한은 호족 세력이 대두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호족의 대토지 사유로 인한 빈부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가 불안정해졌고, 호족이 외척 · 환관과 결탁하면서 후한의 정치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이후 정치 기강이 해이해지고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곳곳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유교의 관학화 60차시

한 무제는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를 국교로 삼았다. 이로써 유교가 관학화되어 중국 문화의 유교적 전통이 확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가의 가족 윤리에 기초한 예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았으며, 유가 사상은 도가, 묵가, 법가 등 여러 사상을 수용하여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교리를 발전시켰다.

무제는 오경박사를 두어 유교 교리를 체계화하고, 관리의 채용에 유교적 교양을 갖춘 사람을 요구하였다. 무제는 현실적으로 법가적 황제 지배 체제에다 유교적 통치 이념을 접목시켜 중국의 황제 지배 체제를 정치와 사상 면에서 완성하였다. 이후 역대 왕조에서도 이러한 방침이 채택되면서 유교가 국가 통치의 기본 이념으로 발전되어 갔다.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어 학자가 곧 관료라는 중국 특유의 제도가 성립되었다. 그 결과 유능한 인재를 뽑을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정치가 학문을 통제한다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02 인도 통일 왕조의 등장과 불교의 발전

학습 목표

- 불교의 성립 배경을 알 수 있다.
- 마우리아 왕조의 통일과 불교의 발전을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 쿠샨 왕조 시기의 불교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 간다라 미술의 특징을 말하고 그 전파 경로를 지도에 표시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61	**1. 마우리아 왕조와 불교의 확산**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브라만교와 카스트제를 비판하며 석가모니가 창시한 종교는?	문답식	
	[전개]		
	• 인도에서 불교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카스트제, 브라만교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강의식	215쪽 지도,
	• 불교의 특징을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파악하게 하고, 불교가 확산될 수 있었던 요인을 정리한다.	문답식	자료
	• 마우리아 왕조가 인도를 통일하는 과정을 아소카 왕의 정복 전쟁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강의식	
	• 아소카 왕의 불교 보호 정책과 전파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예시를 활용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만인 평등과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 주는 자비를 강조한 인도의 종교는?		
	2.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었으며,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통치할 것을 선언하고 불교를 널리 전파하는 데 앞장선 왕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62	**2. 쿠샨 왕조와 대승 불교의 발전**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그리스 문화와 인도 불교문화가 만나 성립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석굴암 본존불 제작에도 영향을 미친 미술 양식은?	문답식	
	[전개]		
	• 쿠샨 왕조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설명한다.	강의식	
	• 상좌부 불교와 대승 불교의 차이점을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하게 한다.	문답식	216쪽 자료

62	• 간다라 미술의 특징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론하게 하고, 불교의 종파별 특징과 전파 경로를 탐구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쿠샨 왕조에서 성립하였으며, 간다라 미술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에 영향을 준 불교 종파는?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탐구식 문답식	217쪽 자료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마우리아 왕조와 불교의 확산

(1) **불교의 성립**

① **배경**: 카스트제의 신분 차별에 반발, 브라만교의 형식화와 타락 비판

② **특징**

- 자비와 평등 강조
- 크샤트리아, 바이샤 계급의 지지 → 불교의 확산에 이바지

(2) **마우리아 왕조의 성립**

① **인도의 분열과 사회 혼란**: 인도는 여러 나라로 분열, 기원전 4세기 후반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으로 사회 혼란 가중

② **마우리아 왕조의 성립**: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마우리아 왕조 건국 → 인도 북부 지역 통일, 사회 혼란 수습

③ **아소카 왕의 활동**

- 남부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인도의 대부분 통일
-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 강화: 각 지역에 도로 건설, 관리 파견 등
- 농민 생활의 개선 노력: 관개 시설 축조, 농토 개간

④ **마우리아 왕조의 멸망**: 아소카 왕 사후 급격히 쇠퇴 → 기원전 2세기 전반에 멸망

(3) **상좌부 불교의 발전**

① **배경**: 아소카 왕이 무력 대신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인도를 다스릴 것 선언

② **아소카 왕의 지원**: 불경 정리, 불탑 건설 등을 통하여 백성에게 불교의 가르침 전파, 외국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불교 전파 노력

③ **상좌부 불교의 유행**

- 성격: 개인의 해탈 강조
- 전파: 인도 전역, 실론(스리랑카)과 동남아시아 등지로 전파

2. 쿠샨 왕조와 대승 불교의 발전

(1) **쿠샨 왕조의 성립**

① **과정**: 마우리아 왕조 이후 인도에서 여러 왕국이 분립 → 중앙아시아에서 온 쿠샨족이 북인도 장악, 쿠샨 왕조 건국

② **카니슈카 왕의 활동**

- 동서 교역로의 중심지 차지 → 쿠샨 왕조의 전성기
- 불교 경전 정리, 사원 건립 등 대승 불교 지원 → 대승 불교 확산에 이바지

(2) **대승 불교의 발전**

① **성격**: 상좌부 불교에 반발, 대중의 구제 강조

② **전파 지역**: 중국, 우리나라, 일본 등으로 확산

(3) **간다라 미술의 성립과 전파**

① **성격**: 그리스 문화와 인도 불교문화의 융합

② **특징**: 부처를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여 불상 제작

③ **전파**: 대승 불교와 함께 비단길을 따라 동아시아로 전파 → 동아시아 문화에 영향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214쪽

아소카 왕은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통치할 것을 새긴 돌기둥을 전국 각지에 세웠으며, 불경을 정리하고 곳곳에 불탑을 세워 백성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알렸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16쪽

카니슈카 왕이 불교 경전을 정리하고 사원을 건립하는 등 대승 불교의 확산에 이바지하였기 때문이다.

탐구 활동 ▶▶▶ 교과서 217쪽

1. (가) 상좌부, (나) 대승

2.

구분	(가)	(나)
발달 시기(왕조)	마우리아 왕조	쿠샨 왕조
주요 전파 지역	실론, 동남 아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우리나라, 일본
특징	개인의 해탈 강조	대중의 구제 강조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217쪽

1. (1) ○, (2) ○, (3) ×
2. 아소카 왕
3. ① 그리스, ② 간다라

내용 더하기

우파니샤드 철학과 자이나교 61차시

기원전 9세기 말부터 브라만교는 엄격한 카스트제와 승려의 권위주의적 성향 때문에 점차 대중의 지지를 잃어 갔다. 이에 브라만교에 반대하는 새로운 사상 · 종교 운동이 일어났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우파니샤드 철학이다. 우파니샤드 철학은 브라만교에 그 기초를 두고 있지만, 우주의 본체인 브라만〔梵〕과 인간 생명의 근원인 아트만〔我〕이 동일하다고 보고, 범아일여(梵我一如)를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윤회의 속박에서 해탈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또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의 수양이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본 것도 브라만교와 다른 점이었다.

기원전 6세기 무렵에는 브라만교는 물론 우파니샤드 철학까지 부정하는 새로운 종교 운동이 일어났다. 불교와 자이나교는 브라만의 카스트제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우파니샤드 철학의 아트만을 부정하였다. 두 종교는 모두 윤회와 업으로부터의 해탈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이나교는 브라만의 계급적 차별을 부정하고, 계급의 높낮이 때문에 해탈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자이나교는 불교와 비슷한 종교관을 가졌으나,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절대 불살생을 주장한 것이 다르다. 금욕주의와 살생 금지의 계율은 해충을 없애야 하는 농부나 불을 이용하는 수공업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리하여 자이나교의 교세 확장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다만 상인들이 자이나교를 많이 수용하였으며, 철저한 금욕주의는 자이나교도가 인도의 상인과 기업인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마우리아 왕조 성립 이전의 인도 61차시

기원전 6세기 무렵에 갠지스 강 유역에서는 철기가 사용됨으로써 개간이 이루어지고 농업이 발달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갠지스 강 중류 유역에서 당시까지의 부족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체제의 국가가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왕이 전체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건설하였으며, 자신의 군대와 관리를 이용하여 영토를 지배하였다. 이러한 나라들은 서로 경쟁하며 성장하였는데, 오늘날의 비하르 주 남부에 있었던 마가다 왕국이 인근의 부족 체제 국가들을 병합하였다.

마가다 왕국은 서방의 강력한 국가였던 코살라 왕국을 격파하여 갠지스 강 유역의 패권을 장악한 후, 북인도의 여러 지역을 지배하였다. 마가다 지역은 불교 등 새로운 종교와 사상이 출현한 지역으로, 농산물이 풍부하고 구릉 지대에서 광물 자원이 많이 산출되는 곳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마가다 왕국이 북인도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4세기에 들어서면 마가다의 난다 왕조가 서부의 크샤트리아라고 자랑하던 여러 부족을 격파하여, 기원전 327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서북쪽 변경을 침입했을 때는 수십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갠지스 강 유역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왕조로부터 정권을 빼앗아 북인도를 통일한 것이 마우리아 왕조이다. 기원전 317년 무렵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는 난다 왕조를 무너뜨리고 북인도를 평정한 후, 서북쪽으로 진격하여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로부터 아프가니스탄 남부를 할양받았다.

아소카 왕과 상좌부 불교 61차시

> 나는 칼링가를 무력으로 정복하였다. 이 전쟁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이를 보면서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제 나는 진리에 맞는 법(도덕적 규범)만을 실행하고 가르칠 것이다.
> 진리의 법에 의한 승리만이 최상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
> 모든 백성은 나의 자식이다.
> - 아소카 왕이 세운 석주에 각 지방의 토속어로 새긴 글

정복 전쟁 과정에서 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아소카 왕은 전쟁 후에 불교에 귀의하였다. 그리고 불교를 국가 종교로 장려하여 자비와 평화의 정치를 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의지를 수많은 돌기둥(석주)과 바위에 새겨 넣었다.

석주의 머리 부분에는 사자나 황소 등 여러 동물이 조각되어 있다. 이 가운데 사자 네 마리가 네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가장 유명한데, 오늘날 인도의 화폐와 국기에 이 돌기둥의 머리 부분이 응용되고 있다.

마우리아 왕조의 통치 체제 61차시

마우리아 왕조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의 궁정에 사절로 방문했던 그리스 인 메가스테네스의 기록에 남아 있다. 군대는 보병과 기병, 거병(車兵)과 가병(家兵)의 4군으로 구성되었으며, 병사는 독자적인 신분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한다. 다수의 관료 중에 메가스테네스가 주목했던 것은 도시와 지방의 관리로, 지방 관리는 행정 · 징세 · 사법과 함께 관개 시설, 도로의 관리 및 농업 기술의 감독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였다.

마우리아 왕조는 이러한 관리를 통하여 농민에 대한 강력한 지배권을 수립하고, 주로 농민으로부터 징수한 지세(地稅)를 바탕으로 제국의 막대한 재정을 조달하였다. 한편 마우리아 왕조 자체가 직접 농장을 경영하고 미개척 지방에 사람들을 이주시켜 개발에 나서게 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기원전 6세기부터 발달한 도시의 상공업에 대해서도 가격의 통제나 품질, 무게 등을 감시하여 강력하게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쿠샨 왕조의 인도 지배 62차시

마우리아 왕조가 붕괴한 이후 갠지스 강 중류 지역은 여전히 인도의 정치 · 문화 · 경제의 중심이었으나, 여러 부족국가가 난립하고 있었다. 이때 박트리아에 있던 그리스 인 세력이 간다라 지방에서 갠지스 강 유역까지 진출하였고, 이어서 파르티아, 샤카족도 같은 경로를 거쳐 침입하였다. 이로써 인도의 서북 지역은 이민족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은 당시 동서 무역의 요충이었던 박트리아에서 인도 서북 지역에 이르는 지대를 장악하고자 서로 치열하게 항쟁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다 쿠샨 족이 박트리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인도의 서북 지역으로 침입해 와 쿠샨 왕조를 세웠다.

쿠샨 왕조는 동서 무역의 요충에 자리 잡고 있어서 상업이 매우 번창하였다. 이는 쿠샨 왕조의 화폐가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입증되고 있다. 화폐의 표면에는 지배하에 있는 여러 민족의 제왕 칭호를 열거하여 쿠샨 왕조의 권위를 과시하였고, 뒷면에는 동부 이란의 신들에서부터 부처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신상(神像)을 새겨 놓았다. 쿠샨 왕조가 이민족을 정복함으로써 그리스 문화와 이란 문화가 인도에 들어오게 되었다.

간다라 미술 62차시

간다라는 지금의 파키스탄 북부 페샤와르 주변의 옛 지명으로, 이곳에서 시작되어 번영한 고대 미술 양식을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다. 이 지역의 불교 미술은 기원전 3세기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시대에 불교가 전해지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간다라 지역에 그리스 인, 파르티아족, 쿠샨족 등이 들어와, 이 지역에서는 헬레니즘과 로마계, 이란계, 인도계 문화가 서로 융합되었다. 특히 쿠샨 왕조는 동서 교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면서 이를 바탕으로 불교 미술이 크게 발달하였다.

대승 불교가 발달하여 부처가 초월적 존재로서 기도의 대상이 되면서 부처의 모습이 조각이나 그림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간다라 지방에 살던 그리스 인들의 예술 활동을 지켜 본 불교도는 그리스 인들에게 신상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 부처의 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처럼 인도의 불교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결합하여 탄생한 양식을 간다라 양식이라 한다.

상좌부 불교와 대승 불교 62차시

석가모니가 입멸하자 불교 교단은 교리의 해석을 둘러싸고 크게 보수적인 상좌부계와 자유주의적인 대승 불교계로 분열하였다. 상좌부 불교는 오늘날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믿는 불교로, 부처의 가르침을 충실히 전수하는 권위 있는 선사들의 전통 혹은 교리에 충실한 불교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좌부 불교는 출가자에게 엄격한 계율을 요구한다.

반면 대승 불교는 주로 동아시아에 전파된 불교로 부처를 신으로 숭배한다. 부처는 여러 번 다시 태어나는데,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믿음과 연관이 있다. 부처와 같이 남을 돕는 이타적인 인간상을 '보살'이라 하는데, 보살은 대승 불교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 중 하나이다. 대승 불교는 불교의 교리가 전파되는 지역의 환경이나 시대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 · 발전해야 한다는 유연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 민중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다.

Ⅶ. 통일 제국의 등장

03 서아시아 통일 제국의 등장과 페르시아 문화

학습 목표

-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 조로아스터교가 페르시아의 정치와 후대 종교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63	**1. 페르시아 제국의 발전**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였던 서아시아 지역을 두 번째로 통일한 나라는 어디일까?	문답식	
	[전개]		
	• 아시리아가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를 철기의 사용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강의식	역사 부도
	• 아시리아의 통치 방식을 설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정리한다.	문답식	
	•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통치 방식을 조사하여 아시리아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 다리우스 1세의 업적과 통치 방식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정리한다.	강의식	219쪽 자료
	•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발전 과정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기원전 7세기에 서아시아 지역을 처음으로 통일한 나라는?		
	2. 아케메네스 왕조의 왕으로서 서아시아에서 이집트, 인더스 강 유역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사람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64	**2.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불을 숭배하여 중국에서 배화교(拜火敎)라고 불린 종교는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조로아스터교의 특징을 설명하고, 조로아스터교가 후대 종교에 미친 영향을 정리한다.	강의식	
	• 조로아스터교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220쪽 자료
	• 페르시아 문화의 특징을 구체적인 유물을 통하여 파악하게 한다.		

64	• 사산 왕조 페르시아 시기에 동서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통치에 활용하였으며, 훗날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미친 종교는? 2. 사산 왕조 페르시아 때 조로아스터교에 불교와 크리스트교의 요소가 더해져 성립한 종교는?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강의식 문답식	222쪽 자료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페르시아 제국의 발전

(1) **아시리아**

① **최초로 서아시아 지역 통일**: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지역 통일

② **통치 방식**: 정복지 주민을 무거운 세금과 가혹한 형벌로 통치 → 각지에서 반란 발생, 아시리아 멸망

(2)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① **서아시아 재통일**: 아시리아 멸망 후 분열되었던 서아시아 지역을 재통일

② **다리우스 1세**: 서아시아, 이집트, 인더스 강 유역에 이르는 대제국 건설

③ **통치 방식**

- 중앙 집권 체제 실시: 총독 임명, 감찰관 파견, 왕의 길 건설, 역참 정비, 왕실 사수대 유지, 도량형 통일 등
- 이민족에 대한 포용 정책

④ **멸망**

- 쇠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지방 총독들이 반란을 일으킴.
- 기원전 4세기 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침략을 받아 멸망

(3) **파르티아와 사산 왕조 페르시아**

① **파르티아**

- 성립: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한 이후 이란계 민족이 서아시아 지역에 건국
- 번영: 비단길을 이용한 중계 무역으로 번성
- 멸망: 3세기 초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멸망

② **사산 왕조 페르시아**

-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 강 유역에 이르는 대제국 건설
- 여러 차례 로마 제국의 침입 격퇴
- 쇠퇴: 비잔티움 제국과의 계속된 전쟁으로 국력 쇠약
- 멸망: 7세기 중엽에 이슬람 세력의 침입을 받아 멸망

2.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

(1) **조로아스터교의 확산**

① **창시**: 예언자 조로아스터에 의해 창시

② **기본 주장**

- 광명의 신과 암흑의 신의 대립 → 최후에는 광명의 신 아후라 마즈다가 승리
- 교리: 선과 악의 대결, 구세주의 등장, 천국과 지옥, 최후의 심판 등 주장

③ **영향**: 훗날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등에 영향

④ **페르시아 제국 통치의 정당화**: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자신의 권력을 조로아스터교의 아후라 마즈다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며 통치에 활용

(2) **국제적 문화의 발달**

① **배경**: 페르시아 제국의 이민족에 대한 포용 정책

② **페르세폴리스**: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로서 유적, 유물 등에 국제적 성격이 잘 드러남.

(3)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문화**

① **성격**: 여러 지역과 교류 →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여 페르시아의 전통과 융합

② **국교**: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음.

③ **마니교**: 조로아스터교에 불교, 크리스트교 요소가 가미되어 성립

④ **동서 문화 교류**: 비단길을 거쳐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까지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문화 전래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218쪽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전국에 감찰관을 파견하고, 도로를 건설하였다. 또한 군대를 육성하였으며,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하였고, 이민족에 대하여 관용 정책을 실시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20쪽

조로아스터교

탐구 활동 ▶▶▶ 교과서 220쪽

아후라 마즈다의 권위를 이용하여 국왕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222쪽

1. (1) ○, (2) ×, (3) ○
2. 아시리아는 이민족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통치하였으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이민족에게 관용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3. 조로아스터교
4.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내용 더하기

아시리아의 통치 방식 63차시

> 수사, 훌륭하고 성스러운 도시, …… 나는 정복하였다. 나는 이 궁궐에 들어갔고, 나는 금은보화를 넣어 둔 그들의 보물 창고를 열었다. …… 나는 수사의 지구라트를 부수어 버렸다. …… 나는 엘람의 사원을 파멸로 몰아넣었다. 나는 그들의 신들과 여신들을 바람에 날려 버렸다. 그들의 조상과 옛 왕의 무덤을 나는 짓밟았고, 나는 (무덤에) 햇빛이 들게 하였으며, 나는 그들의 뼈를 꺼내어 아슈르의 영토로 옮겨 갔다.
> -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이 엘람 왕국을 정복하고 새긴 문자판

티그리스 강 중류의 작은 도시 국가에서 출발한 아시리아는 유목 민족으로부터 배운 기마 전술과 철제 무기, 전차로 무장한 기병을 앞세워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이집트를 병합하고 오리엔트 세계를 최초로 통일하였다. 아시리아의 군대는 기동력과 파괴적인 공격력을 갖추었다.

아시리아는 반란을 잔인하게 진압하여 피정복자에게 공포심을 자아내는 정책을 취하여 제국을 유지하였다. 아시리아의 이민족 통치와 관련하여 "반란에 가담한 사관들의 손발을 잘라버렸다. 수많은 포로를 태워 죽이거나 노예로 만들었다. 목을 주변의 나무 기둥에 매달고, 젊은이와 계집아이들을 불 속으로 집어넣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잔혹성은 정복 지역의 사람들이 아시리아에 대하여 공포심을 갖게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시리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였다.

조로아스터교 63차시

조로아스터교는 불과 빛, 태양을 신성시하여 배화교(拜火敎)라고도 한다. 오늘날 인도의 뭄바이 부근에서 배화교가 행해지고 있으며, 당 대에는 중국에 전해져 현교라고 불렸다.

조로아스터교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하나의 참신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아후라 마즈다로서 광명의 신이자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다. 그리고 이 세계는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싸우는 투쟁의 장소라고 보았다. 인간은 두 세력 가운데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야 하며,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사람이 죽으면 태양의 신 미트라가 인간의 지난 행위를 저울에 올려놓고 심판을 하는데, 악한 쪽으로 기울면 지옥으로, 선한 쪽으로 기울면 낙원으로 간다고 한다. 낙원과 지옥으로 간 영혼은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다. 아후라 마즈다가 악한 세력과 격렬한 싸움 끝에 승리하면 세상을 완전히 쓸어서 처음 창조했을 때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해 놓는다. 이때 영혼들이 부활하고 악한 영혼은 순화되어 선한 영혼과 합류한다고 한다. 이러한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는 유대교와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었다. 조로아스터교는 이전의 종교들보다 인간의 자유 의지와 도덕성을 중시하였다.

왕의 길 63차시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왕의 길을 두고 "세상에서 페르시아의 전령보다 빨리 이동하는 것은 없다."라고 할 정도였다. 왕의 길이 건설되면서 석 달이 걸리던 거리를 빨리 달리면 일주일, 말을 타고 가면 사흘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왕의 명령이 지방까지 빠르게 전달되었다. 왕의 길은 평상시에 상업 도로로 쓰이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군수품과 군사 수송로로 사용되었다. 페르시아 제국이 장거리 교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의 길이 이바지한 바가 크다. 게다가 왕의 길을 축조한 방법은 견고하기로도 유명하여, 고대 로마에서도 이 도로의 건설 방법을 사용할 정도였다.

페르세폴리스 63차시

페르시아 인들은 황제의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페르세폴리스에 정복지의 건축적 특징을 살린 거대한 궁전을 건설하였다. 인간의 머리에 날개가 달린 아시리아의 황소 부조, 바빌론의 벽돌 장식, 이오니아의 도시 국가에서 사용되었던 홈이 파인 기둥 등이 그러한 예이다.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하면서 아시아식 궁전 디자인을 잘 다듬는 한편, 공물을 가지고 오는 사신들을 조각한 수많은 계단을 이용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다리우스 1세는 수사의 왕궁 비석 건축에 사용된 값비싼 재료와 노동자의 출신 국가를 목록으로 만들어 적었다. 석수는 이오니아 인이고, 벽돌공은 바빌로니아 인이며, 이집트 산 은과 동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모두 페르시아 제국의 번영을 증명하고 있다고 여겼다. 이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졌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파르티아의 흥망 63차시

파르티아는 카스피 해 주변에 거주하던 스키타이계 페르시아 인인데, 말 발굽에 박는 편자를 발명한 것으로 알려진 기마 민족이다. 파르티아는 박트리아의 독립에 자극을 받아 셀레우코스 왕조에 반기를 들고 독립 왕국을 건설하였다. 기원전 1세기에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인더스 강, 아무다리야 강에서 페르시아 만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으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확보하고자 수도를 크테시폰으로 옮겼다. 그러나 쿠샨 왕조와 대립하게 되었고, 아르메니아와 메소포타미아의 지배권을 두고 셀레우코스 왕조, 로마와 대립하게 되어 점차 쇠퇴하였다. 또한 토착 농경민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제후의 반란과 왕실 내부의 갈등도 끊이지 않았다. 파르티아는 기원후 226년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멸망하였다. 파르티아는 농경민의 입장에서 보면 침략 세력이었기 때문에 서아시아에서는 정식 왕조로 취급받지 못하여 '파르티아'라는 민족 이름으로 불렸다. 중국에서는 파르티아를 안식국(安息國)으로 기록하고 있다.

파르티아의 지배층은 대지주와 귀족, 기사를 포함한 소지주 귀족, 신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중국과 유럽을 잇는 동서 교역로의 여러 오아시스 국가를 결합하여 경제적 기반으로 삼고, 중무장 기병과 궁수 기병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유지하면서 기마 유목 국가를 형성하였다. 파르티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제도와 관습을 계승하였으며, 20여 개의 속주와 10여 개의 위성 왕국을 지배하는 등 지방 분권적인 정치를 시행하였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 63차시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파르티아를 정복한 후 크테시폰을 수도로 정하였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쿠샨 왕조를 격파하는 한편 시리아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를 포로로 사로잡는 등 기반을 닦았으며, 인도의 굽타 왕조와 국경을 접하고 시리아 · 예멘을 장악하여 최대 판도를 이루기도 하였다. 하지만 에프탈과 돌궐 등 유목 민족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시리아와 아르메니아의 귀속 문제를 놓고 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과 갈등을 되풀이하였다. 결국 651년에 아랍계 이슬람 세력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처음에 파르티아의 제도를 답습하였다가 후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후계자를 자처하였다. 중무장 기병을 주축으로 하는 군대와 발달한 병기와 전술을 사용하여 제후국을 폐지하고 속주화함으로써 파르티아보다 강력한 중앙 집권 정치를 실시하였다. 종교로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으며, 마니교, 유대교,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 불교 등도 공존하였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문화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문화를 바탕으로 헬레니즘 등의 영향을 받아 독특하고 새로운 이란 미술을 형성하였다.

마니교 64차시

마니교는 페르시아의 마니가 계시를 받아 창시한 종교이다. 마니는 자신이 아담, 아브라함, 석가모니, 예수, 조로아스터로 이어져 내려온 마지막 예언자라고 주장하였다. 마니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 세상을 선함과 악함의 이원적인 구조로 파악하였다. 마니는 '선은 광명이고 악은 암흑'으로 둘은 원래 분리되어 있었으나, 악이 선을 공격하여 세상에 혼란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인간의 어두운 측면을 없애려면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육식과 음주를 금하였다.

마니교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살생을 금지하였는데, 불교가 동물의 살상을 금지한 것과는 달리 빛을 받고 자라는 식물을 죽이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마니는 선교를 하던 초창기부터 교리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자 자신의 저서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그리하여 심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세를 크게 확장하였다.

Ⅶ. 통일 제국의 등장

04 고대 지중해 세계와 크리스트교의 성립

학습 목표

-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그리스 문화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헬레니즘 세계의 성립 과정을 파악하고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 로마 공화정과 제정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 크리스트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65	**1. 고대 그리스의 사회와 문화**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중 가장 대표적인 폴리스 두 곳을 꼽으면?	문답식	
	[전개]		
	• 청동기를 바탕으로 한 에게 문명과 미케네 문명의 특징을 설명한다.	강의식	
	• 지형적 특징으로 인하여 폴리스가 형성되었음을 정리한다.	문답식	역사 부도
	• 아테네의 변천을 설명하고, 아테네 민주 정치의 발달 과정을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225쪽 자료
	• 스파르타의 특징을 사회 구조와 관련지어 파악하고 이를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 그리스의 문화적 특징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파악하게 한다.	강의식	CD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기원전 8세기경 그리스에 성립된 독립된 도시 국가를 가리키는 말은?		
	2. 아테네 민주 정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은?		
	3. 그리스 문화의 특징과 역사적 의의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66	**2.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 ~ 3. 로마의 발전과 크리스트교의 성립**(1)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간다라 미술은 인도의 불교문화와 어느 문화가 융합되어 나타난 것인가?	문답식	
	[전개]		
	•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 경로를 파악하고, 동서 융합 정책에 대하여 설명한다.	강의식	227쪽 지도
	•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을 추론하게 하고, 역사적 의의를 정리한다.	문답식	
	• 로마에서 평민의 지위가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를 법률의 변화를 토대로 탐구하게 하고, 이를 통해 로마 공화정의 변천을 설명한다.	탐구식	229쪽 자료

66	• 포에니 전쟁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이것이 로마 공화정에 미친 영향을 정리한다. •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내용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로마 공화정의 쇠퇴 과정과 양상을 설명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알렉산드로스가 동방을 원정한 이후 약 300년간의 시기를 일컫는 말은? 2.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벌어진 전쟁으로, 로마가 지중해 전역으로 세력을 확대한 계기가 된 것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강의식 발표식 문답식	230쪽 지도 230쪽 자료 학습지
67	**3. 로마의 발전과 크리스트교의 성립(2)**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하고 정권을 잡은 세력은 누구인가? [전개] • 아우구스투스가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로마의 제정이 전개되었음을 설명한다. • '로마의 평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 로마 제국이 쇠퇴하는 과정과 로마 제국을 부흥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한다. 또한 로마가 멸망한 이후의 상황을 정리한다. • 로마 문화의 특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탐구하게 한다. • 크리스트교가 성립되고 확산되는 과정을 로마 제국의 발전 과정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로마의 군대 지휘권과 중요 관직을 독점하여 사실상 제정 시대를 연 인물은? 2. 성립 초반에 로마에서 탄압을 받았다가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을 받게 된 종교는?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강의식 발표식 강의식 탐구식 강의식 문답식	 CD PPT 231쪽 지도 232쪽 자료, 역사 부도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고대 그리스의 사회와 문화

(1) 에게 문명의 발생

① **에게 문명**: 청동기 바탕, 크레타 섬과 그리스 본토, 소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발생

② **크레타 문명(미노스 문명)과 미케네 문명**

- 크레타 문명(미노스 문명): 기원전 2000년경 크노소스 중심
- 마케네 문명: 기원전 1400년경 미케네, 프로이 등을 중심으로 발달

③ **쇠퇴**: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도리아 인에게 미케네 문명 파괴

(2) 폴리스의 성립

① **폴리스의 형성**

- 기원전 8세기경 독립된 도시 국가 형성
- 지형적 특징: 산지가 많고 굴곡이 심한 해안선 발달 → 여러 폴리스로 분열, 정치적 통일 어려움.

② **폴리스의 발달**

- 동족 의식의 형성: 같은 언어 사용, 같은 신 숭배, 4년마다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하여 결속력 강화
- 발전: 지중해를 무대로 빠르게 성장

(3) **아테네와 스파르타**

① **아테네**

- 정치: 왕정 → 민주정으로 변화
- 무역과 상공업 발달, 대외 전쟁에 무장하여 참여하면서 평민의 역할 증대
- 솔론의 개혁: 재산에 따라 참정권 부여 → 평민과 귀족 모두가 반발
- 민주 정치의 기틀 마련: 도편 추방제 제정 등
- 페리클레스 시대: 민주 정치의 전성기

② **스파르타**

- 사회: 소수의 도리아 인이 원주민 정복
- 강력한 군대 양성, 엄격한 스파르타식 교육

③ **펠로폰네소스 전쟁**: 스파르타와 아테네 세력의 충돌 → 스파르타가 승리하여 그리스 세계의 주도권 장악

④ **그리스 세계의 쇠퇴**: 내분으로 점차 쇠퇴하다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에 정복

(4) **그리스의 문화**

① **특징**: 인간 중심적

② **분야**

구분	내용
철학	• 소피스트: 철학의 관심을 자연에서 인간과 사회로 확대, 실용적 지식 강조 • 소크라테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와 지식이 있음을 주장 →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로 계승
문학	•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 헤로도토스의 "역사"
건축, 조각	• 조화와 균형의 미 강조 • 파르테논 신전, 아테나 여신상 등

③ **역사적 의의**: 오늘날 서양 문화의 밑바탕

2.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

(1)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성립**

①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 페르시아 제국 멸망, 인도의 인더스 강 유역까지 정복 →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 건설

② **통치 방식**: 동방의 전제 군주제 수용

③ **동서 융합 노력**

- 정복한 지역에 알렉산드리아 도시 건설 → 그리스 인 이주
- 그리스 인과 페르시아 인의 혼인 장려

④ **제국의 분열**: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후 이집트, 시리아, 마케도니아 등으로 분열 → 모두 로마에 정복

(2) **헬레니즘 문화**

①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 원정 이후 약 300년간을 지칭

② **헬레니즘 문화의 성립**

- 정복 지역에 그리스 인을 이주시켜 그리스 문화 전파
- '그리스 문화와 같은 문화'라는 의미

③ **특징**: 세계 시민주의, 개인주의

- 자연 과학 발달: 아르키메데스, 유클리드 등
- 철학: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 조각: 인간의 고뇌하는 모습이나 인체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 → 간다라 미술 성립에 영향

3. 로마의 발전과 크리스트교의 성립

(1) **로마 공화정의 발전**

① **공화정 초기**: 관직과 부를 독점한 귀족이 다수의 평민을 지배

② **평민의 성장**

- 중장 보병으로 정복 전쟁에 참여하면서 세력 확대
- 평민회 창설, 호민관 선출 등 → 점차 평민도 법적으로 귀족과 동등한 권리 획득

(2) **공화정의 혼란**

① **대외 팽창**: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 → 서지중해 장악 → 지중해 전역으로 세력 확대

② **사회 변화**

- 자영 농민층 몰락, 귀족들은 대농장(라티푼디움) 경영
- 빈부 격차 확대, 군사력 약화

③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토지 분배 등 공화정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

④ **군인 정치가의 성장**: 카이사르,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등 대두

(3) **로마 제국의 번영**

① **제정의 시작**: 옥타비아누스가 정권 장악 → 아우구스투스 칭호, 군대 지휘권과 중요 관직 독점

② **로마의 평화**: 5현제 등 훌륭한 황제 등장, 영토를 최대로 확장, 상공업 발달, 도시 번영

(4) **로마 제국의 동요**

① **사회 변화**: 군인이 황제의 자리를 두고 권력 다툼, 이민족의 위협 증가, 농촌 피폐, 도시와 상공업 쇠퇴

②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부흥 노력**: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리스로 천도, 크리스트교 공인

③ **멸망**: 로마 제국의 동서 분열 →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에 멸망, 동로마 제국(비잔티움 제국)은 1000년 이상 지속

(5) **로마 문화의 특징**

① **성격**: 그리스 문화 수용, 실용적 문화 발전

② **법률**: 시민법(로마 시민에게 적용) → 만민법(제국 내의 모든 민족에게 적용)으로 확대

③ **토목과 건축**: 도로, 교량, 수도 등

(6)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발전**

① **성립**: 팔레스타인의 예수에 의하여 성립

② **교리**: 민족과 신분을 초월한 영혼의 구원, 평등 강조

③ **확산**: 예수의 제자들에 의하여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

④ **탄압**: 로마의 여러 신과 황제 숭배 거부

⑤ **공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 → 로마의 국교로 인정,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223쪽

다른 폴리스에 대하여 아테네의 우월함을 과시하고자 함이다.

탐구 활동 ▶▶▶ 교과서 225쪽

1. 아테네에서는 군대에 나갈 자격이 있는 모든 남자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직접 민주 정치), 여자 · 노예 ·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었다.
2. 스파르타는 소수의 시민인 도리아 인이 다수의 원주민인 노예를 다스리기 위하여 엄격한 스파르타식 교육을 실시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27쪽

알렉산드로스 제국 당시 동서 융합을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29쪽

로마는 주로 군사적인 목적에서 도로를 건설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229쪽

1. 로마는 신분제를 기반으로 한 가부장제 사회였으며, 화폐가 유통되었다. 12표법은 로마 최초의 성문법으로 평민권을 인정하였다.
2. 평민이 법적으로 귀족과 동등한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늘어나게 되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233쪽

1. (1) ○, (2) ×, (3) ×
2. (1) 간다라, (2) 그라쿠스, (3) 실용

내용 더하기

크레타 문명 65차시

에게 문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발달한 문명으로, 미노스 왕의 이름을 따라 미노스 또는 미노아 문명이라고도 한다. 소아시아 지방에서 크레타 섬으로 이주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크레타 인들은 그리스 본토보다는 오리엔트 지역과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크레타 문명은 오리엔트 문화와 비슷한 점이 많으면서도 독자적인 특징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크레타 문명의 미노스 왕은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강력한 지배자로 군림하였으나 군사적인 정복자는 아니었다. 오히려 국왕은 국내 최대의 자본가이자 사업가로서, 그의 권력은 공업 생산과 교육을 통해서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크노소스 궁전은 국왕의 경제력과 높은 생활 수준을 잘 보여준다. 크레타 문명에서도 노예 제도가 있었지만, 사회 계층 간의 차별이 심하지는 않았으며 여자도 남자와 거의 평등했던 것으로 보인다. 크레타 인들은 정교한 공예품을 만들었으며, 활달한 기풍과 섬세한 감각을 벽화에 남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크레타 섬의 여러 도시는 기원전 18세기 말 이후로 지진이나 해일, 외부의 침입 등을 겪으면서 점차 쇠퇴하였다. 특히 기원전 15세기에는 그리스 본토에서 온 미케네 인들의 침입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미케네 문명 65차시

에게 문명 후기에 번영했던 문명이다. 그리스 인의 조상인 아카이아 인이 형성하였는데, 이들은 발칸 반도를 남하해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미케네와 필로스, 중부 그리스의 오르코메노스 등지에 여러 왕국을 세웠다. 그 가운데서 가장 부강하여 여러 왕국의 맹주 역할을 했던 나라가 미케네였다. 미케네 인들은 해안에서 약간 떨어진 언덕에 견고하고 웅장한 성채를 짓고 살았다. 성채는 거석으로 쌓아 올린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돌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전설상의 거인이 지은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미케네

의 지배자들이 이렇게 거대한 성곽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들의 경제력이나 권력이 강력했음을 보여준다. 국왕은 대토지와 많은 가축, 노예를 소유하였다. 또한 관리와 서기를 거느리고 여러 촌락 공동체로부터 각종 공납을 거두어들였다.

미케네의 또 다른 부의 원천은 교역 활동이었다. 미케네인들은 크레타의 여러 도시를 파괴한 이후 동부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소아시아 서부 해안으로 진출하는 등 에게해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다. 그러나 기원전 1100년 무렵에 그리스 인의 일파인 도리아 인이 남하하면서 미케네의 여러 왕국들이 이들에게 점령당하였다. 이후 그리스 세계는 약 300년 동안 이른바 암흑 시대를 거치게 되었다.

그리스의 자연환경 65차시

그리스는 산이 많고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오니아 해에 접한 서쪽은 동쪽에 비하여 지형이 험준하고 고립된 산간 분지가 많은 편이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폴리스는 분산된 산간 분지와 좁은 평야 지대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 인들은 포도주, 올리브유와 같은 물건을 수출하고, 부족한 식량과 물자를 국외에서 수입하였다. 이 때문에 일찍부터 해상 무역이 발달하였다.

폴리스의 성립 65차시

기원전 800년 무렵에 이르러 에게 해 주변 각지에 여러 소국이 분립하였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산이나 바다와 같은 자연적인 방벽에 의하여 서로 떨어져 있었으며, 그 주민들은 언덕 위에 세워진 성채를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었다. 이들은 도리아 인의 침입 때 분열된 지방 공동체로 보이는데, 이러한 작은 국가들이 폴리스였다. 폴리스란 본래 외적이 쳐들어 왔을 때 주민들이 의거하여 싸우던 성채를 뜻하였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도시 국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점차 국가 전체를 뜻하게 되었다.

폴리스가 가장 먼저 성립된 곳은 도리아 인에게 밀려난 그리스 인이 이주해 간 소아시아 서부 해안, 즉 이오니아와 에올리아 부근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스 이주민들은 소아시아 원주민의 공격을 막아 내기 쉬운 반도나 다른 적당한 곳에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였다. 이민족에게 둘러싸인 새로운 거주지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고자 서로 협력하여야 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폴리스이다. 그리스 본토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도리아 인이나 다른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려고 인접한 곳에 살고 있는 몇몇 부족들이 하나의 요새나 시장을 중심으로 뭉쳐 살아야만 하였다.

이렇듯 폴리스는 대체로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군사적 목적에서 결속한 하나의 전사 공동체로 시작되었다. 폴리스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독립적인 토지 소유자였으며, 포도나 올리브를 재배하며 살았다. 이 가운데 유력한 자들이 귀족이었는데, 이들은 청동제 투구와 갑옷, 방패와 철제 창검, 군마까지 스스로 갖출 수 있었던 중장 보병으로서 폴리스를 형성하고 방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폴리스는 성립 초기에 대부분 왕정이었으나, 실제로는 귀족정과 다르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폴리스의 왕은 전쟁에서 전사들을 지휘하고 종교 의식을 주재하는 등 중요한 사항을 관장하였지만, 전사 귀족들과 협의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다.

솔론의 개혁 65차시

아테네에서 경제적 · 군사적으로 평민층의 세력이 강해지자 그들의 정치적 발언권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귀족과 평민 사이의 대립이 점차 심화되었다. 이에 솔론은 귀족과 평민 사이의 조정자로 나서서 먼저 모든 부채를 말소하고 신체를 저당으로 하는 대금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토지와 재산에 따라 시민을 4등급으로 구분하여 참정권의 범위와 군사 의무를 규정하려 하였다. 이러한 방안에 따르면 상위 2등급은 고급 관리와 기사로서, 제3등급은 하급 관리와 중간병으로서 복무하도록 하는 한편, 제4등급의 가난한 시민들도 민회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솔론은 상공업을 장려하여 경제적 번영을 가져옴으로써 가난한 시민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부채 말소와 정치 개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귀족과 토지 분배를 기대했던 평민의 불만을 샀다. 이로 인하여 솔론이 물러나자 아테네에서는 시민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 틈을 타서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참주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부족제의 개편 65차시

기원전 6세기 말에 평민 측의 클레이스테네스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아테네의 민주화 개혁이 크게 진전되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부족제의 개편을 가장 중시하였다. 그는

귀족적인 씨족에 바탕을 둔 기존 4개의 혈연 부족 대신에 데모스(demos, 행정 구역)를 근간으로 하는 10개의 지역적 부족을 만들어냈다. 이는 귀족정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민주정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부족제를 개편하면서 종래의 400인회 대신 각 부족에서 파견되는 50명씩의 평의원으로 구성된 500인회를 신설하여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아테네의 민주 정치란 이러한 데모스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였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노예에게는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여성도 정치에서 제외되었다.

페르시아 전쟁 65차시

아테네에서 귀족정이 참주정을 거쳐 민주정으로 발전하고 있을 무렵,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 성장하고 있었다. 기원전 6세기 무렵 페르시아 제국은 소아시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을 병합하고 이집트를 정복하여, 에게 해에서 인도의 인더스 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소아시아 서부 이오니아의 여러 도시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페르시아 전쟁이 발발하였다.

기원전 5세기 초 이오니아의 그리스 인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 본토의 아테네가 군사를 보내 이들을 도운 것을 구실로 삼아 그리스 정복을 위한 원정군을 세 차례에 걸쳐서 파견하였다. 기원전 490년 마라톤에 상륙한 페르시아 제국의 군사들은 아테네에 의해 격퇴되었고, 기원전 480년 바닷길로 침입한 페르시아 제국의 원정군 역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구성된 그리스 동맹군에 패배하였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 인들, 특히 아테네 인들은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고, 아테네는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아테네의 민주 정치 65차시

페르시아 전쟁 이후 페르시아 제국의 침입에 대비하여 아테네가 주도하여 델로스 동맹을 결성하였다. 델로스 동맹은 사실상 아테네 제국과 다름없었다. 델로스 동맹의 금고는 아테네로 옮겨져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를 꾸미고 공공건물을 건축하는 등 아테네를 위해 사용되었다. 한편 전쟁 때 큰 공을 세운 아테네 해군의 수병들, 여기에 동원된 노동자 계층에도 참정권이 부여되었고, 장군직을 제외한 모든 공직은 추첨으로 뽑혔다. 또한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었다. 이처럼 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급진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를 이른바 페리클레스 시대라 한다.

아테네 민주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직접 민주 정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치적 권리가 시민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으며, 외국인은 아테네에 몇 대에 걸쳐 살았어도 시민권을 얻을 수 없었다. 특히 민주 정치가 완성된 페리클레스 시대에는 양친이 아테네 시민인 사람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폐쇄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스파르타의 사회 구성 65차시

스파르타는 도리아 인들이 그리스 원주민을 정복하고 세운 폴리스였다. 스파르타의 시민들은 선주민의 대부분을 헤일로타이라는 노예로 삼아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게 하고 그 수확물을 공납으로 바치게 하였다. 스파르타에는 헤일로타이 이외에 페리오이코이라 불리는 또 다른 종속민이 있었다. 페리오이코이는 변두리 주민이라는 뜻으로, 이들은 주로 상공업에 종사하였으며 자유민으로서 군역의 의무가 있었지만 참정권은 없었다. 스파르타 시민은 전 인구의 5~10%에 불과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종속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스파르타의 정치 체제와 독특한 생활 방식이 형성되었다.

스파르타에는 두 사람의 왕이 있었지만 실권은 1년 임기로 선출된 5명의 행정관에게 있었다. 시민들의 회의로는 민회와 원로원이 있었는데, 원로원은 입법의 실권을 장악하였고 민회는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졌다. 이처럼 스파르타는 귀족정과 민주정이 혼합된 정치 체제를 유지하였다.

한편 스파르타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집단생활을 시켰고, 스파르타식 교육을 실시하였다. 스파르타의 시민들은 20세부터 60세까지 모두 군복무의 의무가 있었고, 공동 식사를 해야 했다. 이는 모든 시민을 훌륭한 전사단으로 조직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그들의 공동체를 지키고 종속민을 효율적으로 지배하려고 하였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65차시

페르시아 제국의 침입에 대비한다는 구실로 아테네가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델로스 동맹의 수입을 이용하여 전성기를 누리자 이에 불만을 품은 폴리스들이 나타났다. 특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독주를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은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두 세력으로 나뉘어 서

로 대립하게 되었다. 약 30년 동안 계속된 이 전쟁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 한다.

전쟁은 그리스 본토는 물론 에게 해에서 지중해 서부까지 확산되어 그리스 세계를 양분하며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해상권을 장악한 아테네가 우세하였으나, 스파르타가 페르시아 제국과 손잡고 아테네를 격파하였다. 하지만 스파르타의 패권 역시 오래 가지 못한 채 그리스 세계는 내분과 전쟁 상태로 빠져들었다.

소피스트 65차시

그리스 철학은 원래 만물의 근원인 아르케(arche)를 탐구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주장한 이후로, 만물의 근원은 공기 또는 불이라는 등 여러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자연 철학은 데모크리토스에 이르러 정점에 달하게 된다. 그는 모든 물질의 근원은 그 이상 분할할 수 없는 극한적인 것, 즉 아토몬(Atomon, 원자)이며 만물은 무한히 많은 아토몬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스 철학자의 관심을 자연에서 인간으로 돌린 것은 소피스트들이었는데, 대표적인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야말로 만물의 척도"라고 주장하였다. 소피스트는 '현자'라는 뜻으로, 완숙한 민주 정치하의 정치가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변론이나 논법과 같은 실용적인 지식을 가르쳤다. 이들은 변론학과 수사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의 회의주의와 상대주의, 그들의 지나친 자만을 나무라면서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를 믿고 이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스 문화의 성격 65차시

그리스 고전 문화의 특징은 인간적이고 합리적이며 이상주의적이다. 그리스 문화는 인간의 능력, 특히 인간의 이성을 중시한 문화였다. 그리스 인들 역시 신을 존중하고 두려워하였으나,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신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스 사람들이 숭배한 신은 인간과 외형이나 속성상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다만 신은 불사(不死)의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과 다를 뿐이었다. 그리스 인이 묘사한 신은 인간처럼 난폭하고 교활하며 방탕하기도 하였다. 그리스의 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12신은 전 그리스에서 숭배되었다.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 66차시

고대 그리스 인들은 생활의 중심이었던 폴리스가 무너지고 동방의 전제 군주제가 실시되자 개개인으로 흩어져 폴리스를 초월한 세계 시민이 되었다. 폴리스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애국심이나 공공의 선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구원에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개인의 행복과 구원을 추구하는 데에는 민족적 구별이 있을 필요가 없었다. 여기서부터 헬레니즘 문화의 두 가지 특징인 개인주의와 세계 시민주의가 태동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의 행복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 에피쿠로스학파나 스토아학파의 철학에 관심을 갖고, 아예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려는 회의주의 학파나 신부주의자들의 철학이 유행하였다. 또한 미트라교와 같은 신비적 종교에서 구원의 방법을 찾기도 하였다.

로마의 건국과 성장 66차시

로마는 기원전 8세기 무렵 이탈리아 인의 일파인 라틴인이 테베레 강 하류 지역에 정착하여 살며 세운 나라이다. 당시 이탈리아 반도의 북쪽에는 에트루리아 인들이 살고 있었으며, 남쪽에는 그리스 인이 건설한 여러 식민 도시들이 있었다. 이 가운데 에트루리아 인은 소아시아에서 건너온 외래 침입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에트루리아 인들은 기원전 7세기에 이탈리아 반도로 남하하였으며, 기원전 6세기 초에는 로마도 이들에게 정복당하여 한때 에트루리아 왕의 지배를 받았다. 로마의 라틴 인들은 에트루리아 인의 지배에 저항하며 다른 라틴 인과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기원전 6세기 말에는 에트루리아 왕을 내몰고 독립된 공화국을 세웠다.

이후 로마는 지중해 세계를 통일해 가며 성장하였다. 로마가 광대한 지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요인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로마에서는 16~65세의 모든 시민에게 군복무의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그들은 각기 재산의 차이에 따라 종류가 다른 백인대에 편성되어 시민군을 형성하였다. 로마 인들은 에트루리아 인뿐만 아니라 북쪽에 침입한 켈트 인, 남쪽 라티움 여러 도시나 삼니움 인, 그리스의 식민 도시와 끊임없이 싸워 세력을 확대해 갔다. 이처럼 로마의 팽창은 시민군을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 로마 공화정의 운영 66차시

초기 로마에서 군대의 중심을 이룬 것은 기마를 갖출 수 있었던 귀족들이었다. 따라서 로마의 정치적 실권은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왕정이 폐지되고 실시된 공화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되었다.

① **집정관**: 왕 대신 임기 1년의 집정관 2명이 선출되어 공동으로 국정을 담당하였다. 이들의 권한은 동등하였으며 상호 간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국가 비상시에는 1명의 독재관에게 국정을 맡겼는데, 이때 임기는 6개월 이내로 제한되었다. 집정관은 전체 시민들의 모임에서 선출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귀족만이 선출될 수 있었다.

② **원로원**: 최고의 의결 기관으로 귀족들로 구성되었다. 원로원은 원래 씨족장으로 구성되었으며 후에는 전직 고위 관직자들이 그 의원으로 지명되어 공화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 집정관이나 다른 관직자들이 법적으로는 원로원의 의견에 구속을 받지는 않았지만, 로마의 정치적 경험과 지혜의 원천이라고 여겨졌던 원로원의 의견을 거역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역사가 폴리비오스는 원로원을 가리켜 '왕들의 모임'과도 같다고 하였다.

③ **호민관**: 평민의 이익을 옹호하던 관직으로 평민회에서 선출되었으며, 정무관의 행정, 선거, 입법 및 원로원의 의결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간섭을 하였다. 평민회를 소집하여 의결하였으며, 기원전 287년에는 그 의결 내용이 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④ 민회

구분	내용
쿠리아 회	• 가장 오래된 민회 • 씨족으로 구성된 30개의 쿠리아로 이루어져 있음. • 각 쿠리아는 하나의 표결권 행사
병원회 (兵員會)	• 전 로마 시민을 재산의 차이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 등급에 따라 일정수의 백인대 조직, 병역의 의무 부과 • 백인대별로 의결권 부여 → 부유한 평민의 발언권이 높아짐
평민회	• 호민관 선출, 의장은 호민관이 담당 • 기원전 287년 호르텐시우스법 → 민회의 의결이 즉시 국법으로 효력 발휘됨

❀ 평민의 신분 투쟁 66차시

기원전 6세기 무렵부터 평민 가운데 상공업을 통하여 귀족을 능가할 정도의 경제적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공화국 성립 초부터 귀족들과 더불어 군대의 주력을 이루었다. 평민으로 구성된 중장 보병이 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평민의 발언권이 신장되었다. 그리하여 기원전 5세기 초부터 평민들은 귀족의 정권 독점을 반대하며 참정권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평민들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로마 공화정은 더욱 견고해져,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로 팽창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 **기원전 494년 성산 철수**
  - 내용: 평민의 군대가 성산(聖山)에 집결하여 그들의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로마에서 분리하여 따로 자신들의 폴리스를 세울 것이라고 주장
  - 결과: 평민회의 조직과 호민관 선출 인정
- **기원전 451, 449년 12표법 제정**
  - 이제까지 귀족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오던 법률의 성문화 실현
  - 평민권을 법률로 인정
- **기원전 445년**
  - 귀족과 평민 간의 통혼 인정
- **기원전 367년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 법**
  - 집정관 가운데 한 사람은 평민 중에서 선출
  - 개인(귀족)의 국유지 점유 면적 제한
- **기원전 300년**
  - 평민에게 신관직 · 공직 취임권 개방
- **기원전 287년 호르텐시우스 법**
  - 평민회의 의결을 원로원의 동의 없이 법률로서 인정
  - 법률상 귀족과 평민은 동등한 권리를 가짐 → 기원전 3세기까지 모든 관직이 평민에게 개방, 원로원에도 평민이 참여 가능

❀ 12표법 66차시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다. 초기 로마 사회는 귀족과 평민 사이에 신분 구별을 엄격히 하여, 원로원과 임기 1년의 통령 이하의 모든 관직이 귀족에게 독점되어 평민에게는 참정권이 거의 없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평민이 성산에 집결하여 평민만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자, 귀족들이 한발 물러섰다. 귀족들은 그리스 인의 법률을 참고하여

종래의 관습법을 12장의 표로 정리하였다. 12표법에는 민사 소송법, 사법, 형법, 제사법, 가족법, 상속법 등을 포괄적으로 새겨서 공시하였다.

호르텐시우스 법 66차시

호민관 호르텐시우스가 제안하여 통과시킨 고대 로마의 법률이다. 평민의 신분 투쟁 과정에서 12표법,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 법 등이 제정되어 평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법률 제정권은 여전히 원로원에 있었다. 또한 평민회의 의결 사항은 귀족에게는 구속력이 없었으며, 그 후 귀족을 구속할 수 있게 되었어도 원로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기원전 287년에 호르텐시우스 법이 제정됨으로써 평민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원로원의 동의 없이 로마의 법률로 인정되었다. 이로써 평민은 법률 제정에 있어서도 귀족과 대등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로마의 이탈리아 통일 정책 66차시

로마는 이탈리아 정복지의 주민들을 자신의 지배하에 예속시키기보다는 동맹자로서 받아들이는 법을 택하였다. 로마는 어떤 지역에는 로마 시민들을 이주시켜 그들의 식민시를 세우기도 하였으나, 그리스의 식민시에 대해서는 그들의 자치를 허용하였다. 어떤 도시에서는 상층민들에게 완전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가 하면, 참정권이 없는 반(半)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내의 모든 도시를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폴리스 연합체로 편성해 나갔다. 이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동족 의식이 싹트게 되고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서로 결속하게 되었다.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외부 세력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상호 배타적이며 폐쇄적으로 유지했던 것과는 달리, 로마는 주변 이탈리아 인들에 대하여 로마 시민권 확대나 동맹 정책을 실시하여 이탈리아 전체를 결합시켜 이를 바탕으로 지중해 세계를 로마의 체제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

로마는 정복지를 식민시와 자치시, 동맹시로 구분하여 통치하였다. 식민시는 정복지에 요새를 건설하여 군대를 주둔시켜 수비하게 한 도시이고, 자치시는 자치권을 인정하지만 군대 및 사법권은 로마가 장악한 도시이다. 동맹시는 군사적 협력의 의무만 있고 완전한 자치를 인정한 도시이다.

포에니 전쟁(기원전 264~146) 66차시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해 나가면서 페니키아 인이 세운 카르타고와 충돌하였다. 카르타고는 본래 페니키아의 식민시로 시작하였으나, 페니키아가 망한 이후에도 존속하여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시칠리아의 일부와 코르시카, 사르데냐 등을 영유하는 해상 상업 국가로서 번영하였다. 처음에 로마와 카르타고는 사이가 좋았으나, 로마가 남부 이탈리아의 그리스 식민시를 지배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시칠리아에서 그리스 인들과 맞서 온 카르타고 인들과 대립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포에니 전쟁은 약 100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1차 전쟁(기원전 264~241)은 시칠리아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시칠리아 섬의 시라쿠사 내란을 진압하고자 로마와 카르타고가 서로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충돌한 것이 원인이었다. 로마는 해전에서 카르타고를 격파하고 시칠리아 섬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시칠리아는 로마 최초의 속주가 되어 로마 총독의 통치를 받았고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했다. 로마는 사르데냐와 코르시카까지 확보하여 로마 제국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차 전쟁(기원전 218~201) 때에는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에스파냐에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로 침공하여 각지에서 로마군을 격파하였다. 특히 로마는 칸나에 전투에서 대패하여 이후 카르타고와의 정면 대결은 피하게 되었다.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는 군사를 이끌고 카르타고 본토를 급습하였고, 이 소식을 듣고 본국으로 급히 귀국한 한니발과 북아프리카의 자마에서 싸워 격파하였다. 이로 인하여 카르타고는 에스파냐령을 로마에 양도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였으며, 군비를 축소해야만 했다.

3차 전쟁(기원전 149~146)은 패전한 카르타고가 급속하게 부흥하는 것을 염려한 로마가 침략 구실을 조작하여 억지로 일으킨 것이었다. 카르타고는 필사적으로 방어하였으나, 결국 성이 함락되고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으며 주민은 학살되거나 노예로 팔렸다. 이후 카르타고의 영토는 로마에 귀속되어 아프리카 속주로 불리게 되었다.

공화정 말기 로마 사회의 변동 66차시

거대한 영토를 확보한 로마는 국외 식민지에서 들어온 많은 공납으로 부유해졌다. 특히 속주를 지배한 총독, 속주의 공납 업무를 담당한 징세 청부업자, 군납업자, 정복지를 사점한 유력자 등 로마 시민 중 부유층이 큰 이익을 얻었

다. 이러한 현상은 로마의 사회적 변동을 야기하였다. 우선 신흥 지배층이 등장하였다. 정계에 진출한 부유한 시민 계급은 종래의 전통적인 귀족과 함께 벌족 귀족(nobiles)을 형성하였고, 속주의 공납 업무를 담당하였던 징세 청부업자나 군납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상공업자들은 기사 계급(equites)이 되어 재무관, 검찰관, 속주 지사 등의 관직을 차지하였다.

반면 중소 농민층은 몰락해 갔다. 자영 농민이었던 병사들은 국외에서 오랫동안 군복무를 하여 농지를 경영할 수 없게 되자 토지를 팔고 무산자가 되었다. 또한 농토가 황폐해지고 농민의 채무가 증가하였으며, 속주로부터 값싼 곡물이 유입되어 결국 중소 농민이 몰락한 것이다. 몰락한 농민들은 도시로 몰려들었고 이 때문에 사회 불안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유력자들은 토지를 매입하고 공유지를 선취하기도 하여 대토지를 사유화해 나갔다. 여기에 전쟁의 결과 얻은 많은 노예를 투입하여 노예제에 입각한 대농장, 즉 라티푼디움을 경영하였다.

이처럼 소수 유력자들의 경제적 부는 증대한 반면, 많은 자영 농민은 몰락하여 빈부 격차가 확대되었다. 토지를 소유한 농민층이 군대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로마 사회에서 농민층의 몰락은 곧 군사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전쟁에서 잡혀 포로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에서 일자리를 얻은 노예에 비하여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들이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 그 결과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가장 규모가 컸다. 사회 불안이 심해짐과 더불어 퇴폐적인 사회 풍조가 만연하여 물질적인 영화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나 물질주의가 로마 사회를 장악하였다.

❁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과 군인 정치가의 등장 66차시

2차 포에니 전쟁 이후 공유지가 증대하고 중소 농민이 몰락해 갔다. 상층 계급이 공유지와 몰락 농민의 토지를 겸병하여 라티푼디움을 경영하자, 국가의 기반인 중소 농민의 몰락이 가속화되었다. 이에 호민관인 그라쿠스 형제는 대토지 소유자의 공유지 점유 면적을 제한하고 과다한 점유지를 회수하여 무산 농민에게 배분함으로써 자영 농민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개혁은 원로원을 비롯한 귀족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그라쿠스 형제가 죽은 후 로마는 약 100년에 걸친 내란을 겪게 되었다. 그 시작은 마리우스의 병제 개혁이 계기였다. 기원전 113년 로마군은 게르만족과의 싸움에서 거듭 패배하였다. 이는 중장 보병인 농민이 몰락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였다. 이에 마리우스는 빈민 중에서 지원병을 모집하여 군단을 편성하고 게르만족을 겨우 물리쳤다. 그런데 지원병(직업 군인)으로 군대를 구성하는 방법은 병사와 이들을 무장시킨 장군이 개인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즉 군대는 점차 장군의 사병(私兵)이 되어 간 것이다. 이렇게 사병화한 군대를 바탕으로 군인 정치가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정권을 장악하고자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 삼두 정치 66차시

삼두 정치는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나타났던 정치 형태이다. 사병을 거느린 유력한 군인 정치가들이 결탁하여 군벌 정치를 행한 것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성립되었다.

① **제1차 삼두 정치(기원전 60~50)**: 제1차 삼두 정치는 카이사르, 크라수스, 폼페이우스가 비밀리에 맺은 정치적 제휴 관계를 말한다. 카이사르는 기원전 59년에 갈리아 총독으로 지명되어 8년간 갈리아 정복 사업을 펼치고 라인 강 서쪽 지역을 확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를 질투한 폼페이우스가 원로원과 결탁하여 그의 세력을 누르고자 대립하게 되었다. 카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군하여 폼페이우스를 격파하고 독재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카이사르는 빈민 문제의 처리, 속주 통치의 개선, 세제 개혁 등 여러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는 원로원의 권한을 무시하는 등 전제 군주제를 꾀한다고 하여 브루투스 등 공화정을 수호하는 사람들에게 암살되었다.

② **제2차 삼두 정치(기원전 43)**: 카이사르가 죽고 그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등과 제2차 삼두 정치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로마의 영토를 셋으로 나누어 다스렸다. 옥타비아누스는 이탈리아 서쪽 지역, 안토니우스는 소아시아 및 이집트, 레피두스는 아프리카를 각각 통치하였는데, 레피두스가 먼저 정치권에서 물러나고 본격적으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대립하게 되었다.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31년에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결탁한 안토니우스를 악티움 해전에서 격파하였다. 이로써 로마의 패권은 옥타비아누스가 차지하게 되었다.

옥타비아누스의 통치 67차시

정권을 장악한 옥타비아누스는 공화정의 회복을 내세우며, 기원전 27년에 전시에 지녔던 모든 권한을 원로원에 반환하였다. 그러자 원로원은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붙여주었다. 옥타비아누스는 스스로를 로마 제일의 시민(princeps, 원수)으로 자처하였는데, 그의 통치 체제를 원수정이라 부르게 된 것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옥타비아누스는 공화정의 외형은 그대로 살려두려고 했으나, 군사권과 재정권 등 통치 실권은 본인이 장악하였다.

한편 옥타비아누스는 징세 청부제를 없애고 관리를 파견하여 세금을 거두게 하였으며, 빈민에게 곡물을 무상으로 분배하는 등 국정을 개혁하였다. 또한 지방 출신 지원병으로 편성된 상비군과 친위대를 구성하여 국내 질서를 유지하고 대외 원정에 투입하였다. 이러한 그의 통치는 사실상 군사력에 입각한 독재적 군주정이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부터 로마의 제정 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재위 284~305) 67차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강력한 관료적 지배와 군사적 통치를 강화하고자 원로원을 개혁하여 로마의 시정을 다스리는 이외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군에 대한 통수권을 회복하였다. 또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으며, 지방 행정 제도를 개편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제국을 4분하여 두 명의 정제(正帝)와 두 명의 부제(副帝)가 나누어 통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수도를 소아시아의 니코메디아로 옮기고 소아시아 · 이집트 · 시리아 · 트라키아를 통치하고, 그의 부황제는 시르미움에서 그리스를 포함한 발칸 지방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다른 공동 황제인 막시미아누스는 밀라노에 남아서 이탈리아 · 오스트리아 · 북아프리카 등을 지배하고, 그의 부황제는 트리에르에서 갈리아 · 히스파니아 · 브리타니아를 통치하였다. 또한 인두세를 부과하여 농민의 이주를 방지하고 동방적 전제 군주제를 수립하고 로마 제국의 재건을 도모하였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재위 306~337) 67차시

전국을 4개의 대관구, 14개의 관구, 117개의 주로 나누어 통치하는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관료제를 공고히 하고, 군단을 175개로 나누어 장악하였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름을 고쳤고, 세수를 늘리고자 사람들의 직업과 신분을 고정시켰다. 한편 313년에는 밀라노 칙령으로 크리스트교를 공인하였다. 이는 이미 커다란 사회 세력으로 성장해 있던 크리스트교를 통하여 제국의 통일을 견고히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로마의 법률 67차시

로마 인이 남긴 최대의 문화유산으로 법률을 꼽을 수 있다. 로마는 초기에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부족법과 관습법에 의존하였다. 하지만 영토가 확대되고 다른 부족과 널리 접촉하면서 보다 복잡하고 체계적인 법 규범을 마련할 필요를 느꼈다. 로마의 법률은 12표법을 기점으로 성문화되었다. 이후 시민의 관습과 권리를 법으로 제정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시민법이 정비되었으며, 제정 시대에 여러 민족에게 적용되는 만민법으로 체계화되었다. 로마법의 법전화 과정을 뒷받침한 기반은 자연법이었다. 로마의 방대한 법률은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집대성하여 로마법 대전으로 편찬되었다. 이는 후세의 법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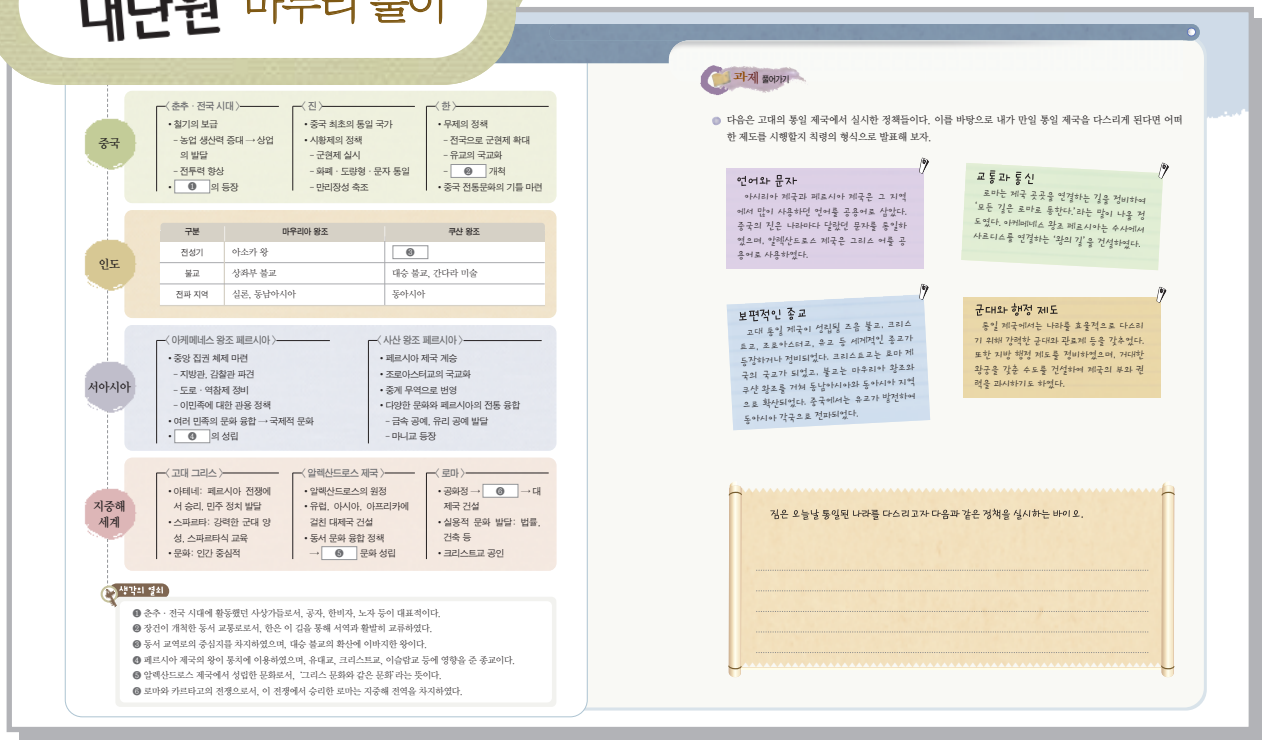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확산 67차시

로마의 속주 예루살렘에서는 예수가 나타나 유대교의 배타적인 선민사상과 형식화된 율법 사상, 편협한 종족주의를 배격하고 민족과 계급을 초월한 신의 보편적인 사랑과 믿음 · 소망의 교리를 주장하였다. 예수가 죽은 후에는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이 전파되었다. 크리스트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카타콤에서의 비밀 집회가 의혹을 사면서 박해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트교 세력은 하층민이나 노예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어 갔고, 점차 귀족층에서도 신자가 나타났다. 신도가 증가함에 따라 교회와 성직자의 서열 제도가 마련되었고, 그리스도의 언행을 기록한 복음서, 사도의 행적을 서술한 사도행전, 사도의 서한들이 수집되어 신약 성경으로 편찬되었다.

크리스트교의 세력이 빠르게 확산되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크리스트교를 공인하였다. 이어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설을 크리스트교의 정통 교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강조하는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4세기 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에는 마침내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삼고 다른 종교를 금지하였다.

대단원 마무리 풀이

교과서 | 234~235쪽



내용 확인하기

❶ **제자백가**

✚ 여러 사상가와 여러 학파를 가리키는 말로, 인간을 그들 사상의 중심에 두었다.

❷ **비단길**

✚ 중국에 불교가 전래될 때 이 길을 통하여 들어왔다.

❸ **카니슈카 왕**

✚ 쿠샨 왕조에서 만들었던 동전의 한쪽 면에는 부처가 새겨져 있고, 다른 면에는 이 왕이 새겨져 있다.

❹ **조로아스터교**

✚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이 종교를 국교로 삼았다.

❺ **헬레니즘**

✚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 원정 이후 약 300년간의 시기를 가리켜 이 시대라고 한다.

❻ **포에니 전쟁**

✚ 로마의 스키피오가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를 격파하였다.

과제 풀어가기

| 지도 요령 |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바탕으로 통일 제국에서 시행되었던 제도 등을 선별하여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때 통일 제국에서 시행한 정책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드러내도록 한다.

| 예시 답안 |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민족과 다양한 나라들이 한데 모여 이루어져 있소. 그런데 제각각 다른 말과 글을 사용하니 서로 의견을 나누기가 무척 어렵다고 하오. 그리하여 짐은 이제부터 여러 지역의 언어와 문자를 통일하려고 하오. 앞으로 짐이 내리는 명령은 물론이거니와, 공문서와 각종 책은 ○○ 어로 써서 보급하시오. 또한 말을 할 때도 ○○ 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릴 것이니 유념하시오. 당분간은 혼란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언어와 문자가 통일되면 행정이 간소화되고, 백성들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니 반드시 내 뜻에 따라주시오.

대단원 짚고 가기

01 다음 연표에서 빗금 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속 화폐가 사용되었다.
②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었다.
③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④ 정치가 안정되고 왕권이 강화되었다.
⑤ 부국강병 정책으로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였다.

02 다음 중 춘추 · 전국 시대에 제자백가가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① 농업 기술의 발달
② 백성들의 사상 통일
③ 흉노의 침입과 방어
④ 주 왕실의 세력 강화
⑤ 부국강병을 위한 인재 등용

03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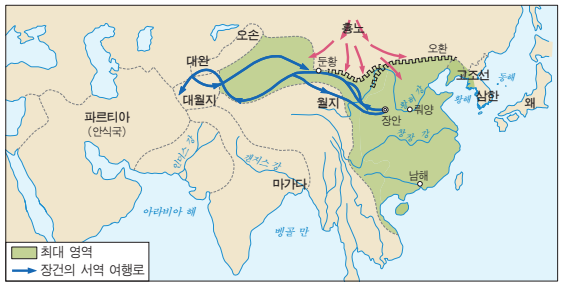


① 훈고학이 발달하였다.
② 채륜이 종이 만드는 법을 개량하였다.
③ 비단길이 개척되어 불교가 전래되었다.
④ 법가 사상을 통치의 기본 사상으로 삼았다.
⑤ 호족이 성장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직에 진출하였다.

04 다음 글의 (가), (나)에 해당하는 정치 제도를 쓰시오.

> 진의 시황제는 (가)를 실시하여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였다. 한을 건국한 고조는 중앙은 (가)로, 지방은 봉건제로 통치하였는데, 이를 (나)라고 한다.

05 다음 지도에 표시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족과 유목 민족 간의 조화를 이루었다.
② 비단길을 통해 인도에서 불교를 받아들였다.
③ 봉건제를 실시하여 중앙 집권을 강화하였다.
④ 제자백가들이 학문과 사상의 발전에 힘썼다.
⑤ 흉노의 침입에 대비하여 만리장성을 쌓았다.

06 다음 사진과 관계 깊은 불교 종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파니샤드 철학을 강화하였다.
② 굽타 왕조 때 처음으로 성립하였다.
③ 개인의 수행을 통한 해탈을 중시하였다.
④ 카니슈카 왕 때 경전을 정리하여 전파에 힘썼다.
⑤ 간다라 미술과 함께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등지로 전파되었다.

07 다음 사진과 관련된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굽타 왕조 때 처음 성립하였다.
② 크리스트교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③ 오늘날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가 되었다.
④ 우리나라의 불교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
⑤ 이슬람 문화와 힌두 문화가 융합하여 형성되었다.

08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나라를 쓰시오.

- 건국: 3세기 초 이란 계 민족
- 국교: 조로아스터교
- 경제: 동서 무역으로 번영

09 다음 유적과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불교를 국교로 삼았다.
② 조로아스터교가 유행하였다.
③ 아라베스크 무늬가 발달하였다.
④ 건축과 법률 등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하였다.
⑤ 소크라테스가 등장하여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10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식이 열리던 날, 불화의 여신 에리스는 자신이 초대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에리스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적힌 황금사과 하나를 연회장에 던졌다. 그러자 황금사과를 둘러싸고 헤라, 아프로디테, 아테나가 서로 다투었다.

① 인간 중심적 문화
② 동서 문화의 융합
③ 조화와 균형미 강조
④ 귀족적, 국제적 문화
⑤ 실용적, 보수적 문화

11 다음 내용들을 보고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 중장 보병 • 호민관 선출 • 평민회 창설

① 자연 철학이 발달하였다.
② 크리스트교가 공인되었다.
③ 간다라 미술이 발달하였다.
④ 평민의 권리가 신장되었다.
⑤ 헬레니즘 문화가 유행하였다.

12 다음 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은?

> 이 전쟁은 기원전 264년부터 기원전 146년까지 약 100년에 걸쳐 세 차례 벌어진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의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서지중해를 장악하였다.

① 평민권이 신장하였다.
② 제정 시대가 시작되었다.
③ 라티푼디움이 성행하였다.
④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었다.
⑤ 알렉산드리아가 건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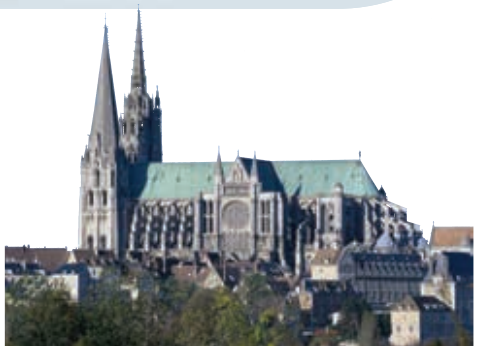
정답

01 ④ **02** ⑤ **03** ④ **04** (가) 군현제, (나) 군국제 **05** ② **06** ③
07 ④ **08** 사산 왕조 페르시아 **09** ② **10** ① **11** ④ **12** ③

Ⅷ 지역 세계의 형성과 발전

① 단원의 개관

이 단원은 다양한 지역 세계의 성립과 발전 과정 및 특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아시아 세계, 인도와 동남아시아 세계, 이슬람 세계, 유럽 세계로 구분하여 각 지역 세계가 형성되는 과정과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고, 각 지역 세계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 프랑스의 샤르트르 대성당

01. 중국의 재통일과 당 제국의 문화에서는 위 · 진 · 남북조 시대를 거쳐 수 · 당의 통일 제국이 건설되는 과정을 파악한다. 또한 당 문화의 귀족적 · 국제적 성격을 다양한 유물과 유적을 통하여 이해한다.

02.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과 발전에서는 유교, 불교, 한자, 율령 체제가 동아시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본다. 일본의 고대 국가 발전 과정에서 한반도와 중국이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파악하고, 헤이안 시대 이후 국풍 문화가 발달하였음을 이해한다.

03. 인도와 동남아시아 세계의 전개에서는 굽타 왕조 시기에 형성된 힌두교가 인도 사회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후 인도에 이슬람 문화가 확산되는 과정을 파악한다. 또한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독자적인 문화가 발전하였음을 알아본다.

04. 이슬람 세계의 형성에서는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하였음을 알고, 이슬람 제국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서 이슬람 문화가 확산되었음을 파악한다. 이슬람교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슬람 문화권의 특징을 이해한다.

05. 중세 유럽의 형성과 발전에서는 중세 유럽 사회의 특징을 봉건제와 장원제를 중심으로 이해한다. 로마 가톨릭이 서유럽에 끼친 영향을 파악하고,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과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으로 시작되는 중세 유럽 사회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본다.

② 단원의 목표

지식 · 이해	• 각 지역에서 여러 문화권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이슬람교의 성립과 이슬람 제국의 발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유럽 세계의 형성과 변화 계기를 설명할 수 있다.
기능	• 각 지역별 문화권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할 수 있다. • 동남아시아 국가의 형성 과정을 연표를 활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 십자군 전쟁 이후 유럽에 나타난 변화 양상을 정리하여 도표로 표현할 수 있다.
가치 · 태도	• 세계 각지에서 형성된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다. • 지역 세계별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고 우열을 가려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지역 세계별 특징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다른 역사에 대하여 포용적인 안목과 태도를 기른다.

③ 단원의 구조와 지도 계획

차시	중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
68	01. 중국의 재통일과 당 제국의 문화	1. 중국이 분열된 남북조 시대	위 · 진 · 남북조 시대, 귀족 사회, 노장사상과 청담 사상의 유행, 도교, 북조의 불교 후원
69		2. 수 · 당 제국의 중국 재통일 ~ 3. 당 제국 문화의 특징	과거제, 대운하, 당의 영토 확장, 율령 체제, 안 · 사의 난, 귀족적 · 국제적 문화, "오경정의", 당삼채
70	02.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과 발전	1.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유교, 불교, 한자, 율령 제도
71		2. 일본 고대 국가의 발전	야마토 조정, 다이카 개신, 나라 시대, 국풍 문화
72	03. 인도와 동남아시아 세계의 전개	1. 굽타 왕조와 인도 고전 문화의 확립 ~ 2. 이슬람교의 인도 전파	굽타 왕조, 힌두교, 산스크리트 문학, 굽타 양식, '0'의 개념, 이슬람 왕조의 성립, 힌두 · 이슬람 문화
73		3. 동남아시아 각국의 성립과 발전	대월국, 쩐 왕조, 쯔놈 문자, 앙코르 왕조, 스리위자야 왕조, 보로부두르 불탑
74	04. 이슬람 세계의 형성	1. 이슬람교의 성립과 발전	무함마드, 이슬람교, 헤지라,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75		2. 이슬람의 사회와 문화	쿠란, 자연 과학 발달, 모스크, 아라베스크 무늬
76	05. 중세 유럽의 형성과 발전	1. 서유럽 봉건 사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	게르만족의 이동, 프랑크 왕국, 카롤루스 대제, 노르만족, 봉건제, 교회 개혁 운동, 카노사의 굴욕
77		2. 비잔티움 제국 ~ 3. 크리스트교 문화의 발달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로마법 대전, 콘스탄티노폴리스, 스콜라 철학, 대학의 발전, 그리스 정교
78		4. 중세 유럽 사회의 변화	십자군 전쟁, 자치 도시, 길드, 흑사병, 대헌장, 백년 전쟁,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중앙 집권화

④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 위 · 진 · 남북조 시대 중국에서 불교가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에 북방 민족 통치자들의 정치적 · 종교적 성향이 작용하였음을 유의하여 지도한다.
- 동남아시아 각국의 역사 변천을 설명할 때 단순한 왕조의 나열이 되지 않게 유의하고, 각 국가별 특징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이슬람 세계의 특징을 이슬람교의 교리와 관련하여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⑤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 신채식, "동양사개론", 삼영사, 2002.
- 박한제 외 공저,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07.
- 김형준, "이야기 인도사", 청아출판사, 2006.
- 정수일, "이슬람 문명", 창비, 2002.
- 민석홍, "서양문화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 크리스토퍼 도슨, 김석희 역, "유럽의 형성", 한길사, 2011.
- 앙리 피렌, 강일휴 역, "중세 유럽의 도시", 신서원, 1997.
- 한국 서양중세사 학회 http://medsociety.or.kr/

Ⅷ. 지역 세계의 형성과 발전

01 중국의 재통일과 당 제국의 문화

학습 목표

- 위 · 진 · 남북조 시대의 정치 변화를 알 수 있다.
- 남북조 시대 귀족 문화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수 · 당이 중국을 재통일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수 · 당에서 실시되었던 여러 제도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당 제국 문화의 귀족적 · 국제적 성격을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이해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68	**1. 중국이 분열된 남북조 시대**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유비, 관우, 장비가 주인공인 소설 "삼국지연의"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일까?	문답식	CD
	[전개] • 위 · 진 · 남북조 시대의 뜻과 그에 해당하는 중국 왕조들을 도표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 북위가 한족의 언어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음을 정리한다. • 남북조 시대에 유력한 가문이 귀족으로 성장하였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238쪽 도표
	• 위 · 진 · 남북조 시대에 다양한 종교가 유행하였음을 파악하게 하고, 당시에 유행하였던 종교와 그 특징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인터넷
	• 둔황석굴, 윈강석굴 등을 토대로 북위의 왕들이 불교를 후원한 이유를 정리하게 한다.	자기 주도식	239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후한이 멸망한 이후부터 남조와 북조가 대립하던 시기까지를 일컫는 말은? 2. 유력한 가문이 대대로 관직을 독점하며 성장한 남북조 시대의 지배층은? 3. 남북조 시대에 노장사상과 민간 신앙이 융합되어 성립한 종교는?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학습지
69	**2. 수 · 당 제국의 중국 재통일 ~ 3. 당 제국 문화의 특징**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1. 고구려 침략에 실패하고 건국한지 30여 년 만에 멸망한 중국의 왕조는 어디일까? 2. 통일 신라의 금성이나 발해의 상경성은 어떤 곳을 모방하여 세워졌을까?	문답식	CD

69	[전개] • 중국을 다시 통일한 수가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자 실시한 제도들을 정리한다. • 수의 멸망 원인을 대내적 · 대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하게 한다. • 당의 영토 확장 과정을 지도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 당의 통치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파악하고, 이것이 동아시아 세계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게 한다. • 당의 건국부터 멸망까지의 과정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 당에서 귀족 중심의 문화가 발전하였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 당삼채, 장안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당 문화의 특징을 추론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수 양제가 대운하를 건설한 목적은? 2. 당대에 중앙 정치, 토지, 조세, 군사 등의 통치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규정한 기본 법령은? 3. 당 제국 문화의 특징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강의식 자기 주도식 강의식 탐구식 발표식 강의식 자기 주도식 문답식	240쪽 지도 241쪽 자료 인터넷 243쪽 자료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중국이 분열된 남북조 시대

(1) 분열된 중국

① **배경:** 후한 멸망, 호족들이 자립하여 경쟁

② **삼국 시대:** 후한 멸망 후 위, 촉, 오의 삼국으로 분열 → 진(晉)이 통일

③ 5호 16국과 동진의 성립

화북 지방	북방 유목 민족의 침입 → 5호 16국 성립
강남 지방	진(晉)이 강남 지방으로 이동하여 동진 건국

④ 남북조의 성립

- 북조: 화북 지방에 세워진 유목 민족의 왕조를 북위가 통일 → 동위, 서위, 북제, 북주 등 성립
- 남조: 강남 지방에 한족이 여러 왕조를 세움.

(2) 귀족 사회의 형성

① **귀족의 성장:** 호족들이 관리로 추천되어 중앙 관직 차지 → 유력한 가문이 관직을 대대로 독점, 귀족으로 성장

② **귀족의 활동:** 여러 특권과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정치 · 문화 주도

(3) 다양한 사상과 종교의 유행

노장사상, 청담 사상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자 자연에서의 평온한 삶을 이상으로 추구
도교	노장사상과 민간 신앙 결합 → 현세의 행복과 불로장생 기원
불교	북조에서 보호를 받으며 융성 → 윈강 · 룽먼 · 둔황석굴 사원 조성

2. 수 · 당 제국의 중국 재통일

(1) 수의 중국 재통일

① **중국 통일:** 삼국 시대 이후 분열되었던 중국을 다시 통일

② **수 문제의 통치:** 과거제 실시, 토지 · 군사 제도 정비

③ 수 양제의 통치

- 대운하 건설: 화북 지방과 강남 지방 연결 → 물자의 원활한 유통을 통한 사회적 통일, 중앙 집권 강화 목적
- 대규모 토목 공사, 고구려 침략 → 백성의 불만 고조, 각지에서 반란 발생, 양제 피살 → 멸망

(2) 당의 대제국 건설

① **건국:** 이연(고조)이 장안을 수도로 정하고 건국

② **태종:** 법률과 제도 정비, 영토 확장

③ **고종:** 최대 영역 차지 → 비단길 확보, 신라 · 발해 ·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

④ **제도의 정비:** 3성 6부(중앙 정치), 균전제(토지 제도), 조 · 용 · 조(조세 제도), 부병제(군사 제도) 정비 → 율령

체제 완성

⑤ **경제의 발전**

- 강남 지방에서 벼농사 발달, 면화 재배 시작
- 수공업, 상업의 발달: 비단 · 도자기 대량 생산, 비전 사용
- 국제 교류 활발: 비단길을 통하여 이슬람 세계와 교류

(3) **당 중기 이후의 변화**

① **사회 혼란의 가중**: 일부 사람들이 토지 독차지 →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잃고 유망

② **안 · 사의 난**: 당의 국력 쇠약 → 지방 절도사의 난립

③ **멸망**: 황소의 난 이후 점차 쇠망

3. 당 제국 문화의 특징

(1) **귀족 중심의 문화**

① **과거 출신의 귀족 등장**: 당 후기까지 사회 지배

② **귀족적 문화의 발달**

- 시, 그림, 글씨 발달
- 차 마시는 풍습의 유행
- 불교: 현장 등이 인도에서 직접 불교 경전을 구하여 번역
- 도교: 왕실의 보호, 각지에 도교 사원 건립
- 훈고학 발전: "오경정의" 편찬 → 과거의 기준으로 활용

(2) **국제적 문화**

① **개방 정책**: 동아시아 주변국과 서역의 나라와 문물 교류

② **국제 도시 장안**: 조로아스터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등이 유입

③ **국제적 성격**: 유라시아 문화 교류의 산물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238쪽

화북 지역에서 밀려난 한족은 남쪽으로 쫓겨 가 창장 강 유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40쪽

당대 전기에는 율령에 근거하여 3성 6부(중앙 정치), 균전제(토지 제도), 조 · 용 · 조(조세 제도), 부병제(군사 제도) 등 여러 통치 제도를 정비하여, 황제를 정점으로 한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를 확립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241쪽

1. ① 부병제, ② 균전제
2. 발해와 고려는 당의 중앙 관제인 3성 6부를 본떠 중앙 관제를 편제하였다. 이는 당의 통치 제도가 주변국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의미한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42쪽

당은 대내외적으로 개방적인 정책을 펼쳐서 동아시아 주변 나라들은 물론, 서역의 여러 나라와도 활발하게 문물을 교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당의 귀족들 사이에서는 서역 지방의 음악, 음식, 풍습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에서 들어온 문물이 크게 유행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243쪽

1. (1) 대운하, (2) 국제
2. (1) ㉢, (2) ㉡, (3) ㉠

내용 더하기

삼국의 성립과 역사적 의의 68차시

황건적의 난으로 후한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황건적의 난은 조조 등에 의해 겨우 평정되었지만, 환관과 호족이 스스로 무장하여 대립하고 관료들은 당파를 나누어 당쟁을 계속하였다. 이 틈을 타 군벌들이 치열하게 정권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은 마침내 조조의 위(魏), 손권의 오(吳), 유비의 (蜀)으로 분열하였다.

조조는 호족 세력의 지원을 받아 화북 지방에서 세력을 굳히고 가장 유리한 입장에서 오 · 촉과 싸웠다. 이에 촉은 청두〔成都〕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나 한을 계승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오는 전국 시대 이래 새로 개발된 강남 지방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촉과 연합하여 위에 대항하였다. 삼국의 대립이 계속되던 3세기 무렵 위에서는 사마씨가 정권을 잡았다. 사마염은 위의 황제에게 선양을 받는 형식으로 진(晉)을 세우고 촉과 오를 차례로 병합하여 삼국을 통일하였다(280).

삼국 시대에는 오랜 전란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많은 유민이 발생하였다. 유민들은 호족의 장원에 들어가 소작인이 되거나 사병 집단을 형성하며 살았다. 이에 따라 자작농의 몰락이 가속화되었으며, 호족의 세력은 더욱 커졌다. 한편 삼국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영토를 크게 개척하였고, 대외적으로 한족의 위세를 크게 떨쳤다. 위는 동북 방면으로 진출하여 요동과 한반도에까지 영향력을 미쳤고, 오는 후난 · 장시 · 푸젠 지방을 개척하였으며 타이완, 난하이, 베

트남 등에 사신을 보냈다. 촉은 윈난 · 쓰촨 · 산시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5호 16국과 6조 68차시

5호(五胡)란 다섯 이민족이라는 뜻으로, 북방 유목 민족인 흉노, 선비, 저, 갈, 강을 가리킨다. 이들은 한족 문화의 영향을 받아 점차 세력을 키워 한대 이래 중국에 자주 침입하였다. 위, 촉이 서북쪽으로 영토를 확대하면서 한족과 여러 이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게 되면서 이민족이 점차 중국화되었다. 흉노의 유연이 자신을 한왕(漢王)이라 칭하며 진을 멸망시킨 것을 계기로, 5호가 계속적으로 북중국에 진출하여 16국을 세우고 한인을 압박하면서 대립하였다. 이들 가운데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16국을 통일하였다(439).

한편 진이 흉노에 멸망하자, 진의 문벌 귀족과 토착 호족 세력은 강남 지방으로 가서 사마예를 중심으로 동진(東晉)을 세웠다. 강남으로 밀려난 한족은 동진에 이어 송, 남제, 양, 진(陳) 등을 잇달아 세웠는데, 삼국 시대의 오(吳)를 포함하여 이들 나라를 6조(六朝)라 한다. 이로써 북쪽의 이민족 왕조와 남쪽의 한족 왕조가 대립하는 남북조 시대가 전개되었다.

남북조의 대립은 민족과 문화의 갈등 양상을 띠었지만, 북조는 중국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하였다. 한족 역시 이민족 문화에 자극을 받아, 중국 문화 전반에 참신한 기풍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9품 중정제 68차시

위 · 진 · 남북조 시대에 귀족 사회가 형성된 데에는 9품 중정제의 실시가 큰 영향을 끼쳤다. 위(魏)에서 시작되어 남북조에 계승된 9품 중정제는 추천에 의한 관리 등용 제도이다. 위에서는 주 · 군 · 현에 중정관을 두고 그들이 향론(鄕論)을 기반으로 그 지역의 인재를 조사하여 9등급으로 분류해 정부에 보고하면, 중앙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추천된 사람들을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정관이 부패하고 호족이 중정관을 독점하게 되어, 인물 선발과 추천의 기준이 문벌에 의하여 결정되고 호족이 추천 과정을 좌우하였다. 이에 따라 호족이 관직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귀족 사회로 변모하였다.

도교 68차시

신선 사상, 노장사상, 음양오행 사상, 주역 사상, 참위설과 주술, 점복 등의 요소를 포함한 중국의 종교이다. 후한 말 장각이 만든 종교 결사인 태평도와 장릉이 만든 종교 결사인 오두미도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불교 사상에 자극을 받아 교리가 체계화되고 교단이 형성되었다. 북위의 구겸지는 천사도를 개혁하고 신선술과 불교의 의례를 받아들여 종교로서 도교를 확립하였다. 북위의 태무제는 구겸지의 건의를 받아들여 도교를 국교로 삼고 불교를 탄압하였다.

불교의 확산 68차시

불교는 원래 한대에 전래되었는데, 당시에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다 불교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여겨 5호의 왕실에서 신봉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불도징, 구마라습 등 서역의 승려들이 중국에 들어와 왕실의 존경을 받으며 불교를 널리 알렸다. 동진 초에는 지배층에 보급되어 점차 노장사상을 압도하였다. 불교의 영혼 불멸설, 인과응보설, 윤회설 등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세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하여 정신적 해탈을 추구하게 하였다. 북조에서는 왕실의 지원과 보호 속에서 불교가 융성하였다. 이는 불교의 보편적인 윤리가 유교의 배타적인 윤리와는 달리 가족에 기반을 둔 한족과 부족 중심의 유목민에 공통적인 이해와 화합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교가 널리 확산되면서 불교 교리를 연구하는 많은 고승이 등장하였으며 여러 종파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불교의 지나친 발달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북위의 태무제, 북주의 무제, 양의 무제는 도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탄압하였다.

둔황석굴 68차시



▲ 둔황석굴 전경

둔황의 막고굴은 세계 최대의 석굴 사원이다. 산비탈에

1,000여 개의 굴이 뚫려 있기 때문에 천불동이라 불리기도 한다. 여기에는 각종 채색 불상이 2,100여 개 정도 있는데, 이들 석굴의 부조상과 벽화는 인도 · 서역의 예술과 중국의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 준다.

룽먼석굴 68차시

북위의 제2 도읍지였던 허난 성 뤄양 남쪽 가까운 곳에 있는 석굴 사원이다. 이 석굴에 새겨져 있는 석불은 북위의 후반기뿐만 아니라, 수 · 당 시대의 작품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윈강석굴에 있는 불상에 비하여 그 얼굴이 중국인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윈강석굴 68차시

산시 성 부근의 자연 석굴에 크고 작은 불상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조각되어 있다. 이곳은 북위 최초의 도읍지인 평성이 있던 곳이며, 이 석굴은 북위 초기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불상의 얼굴이 중국인을 닮지 않고 간다라 불상에 가까워서, 중국의 불상 조각과 다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북위의 통치 체제와 한화 정책 68차시

439년에 화북 지역을 통일한 북위는 5호의 다른 정권과는 달리 유목 민족의 부족 체제에서 과감히 탈피하였다. 선비족은 북방의 유목 사회에서 남방의 농경 체제로 전환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북위 효문제의 한화 정책이다.

효문제는 유목 민족이 한족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중국의 천자(天子)가 되고 중국의 통치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우선 효문제는 도읍을 평성에서 뤄양(낙읍)으로 옮기고 유목민과 한족의 결혼을 적극 장려하였다. 그리고 유목민의 성(姓)을 한족의 성으로 바꾸고, 한족의 언어를 강요하였다. 효문제의 한화 정책으로 선비족의 상위층은 점차 한인 호족과 혼인하면서 귀족화하여, 토지를 겸병하고 한인 농민을 소작인으로 부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효문제의 한화 정책은 선비족 사회 내부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였으며, 왕실이 약해지는 원인이 되었다. 이 때문에 북위는 선비족으로부터 고립되었고, 한화되지 않은 선비족의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 결국 동서로 분열되었다.

수의 남북조 통일 69차시

북주를 계승한 수는 분열되었던 남북조를 통일하였다. 수는 관중 지방에서 성립되었는데, 관중 지방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였다. 북주가 세워졌던 지역은 선비족의 한화가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졌던 곳으로, 선비족 고유의 군사력을 잘 보존하고 있었다. 한편 북주와 수는 관롱 집단이라고 불리는 세력에 의하여 성립하였다. 관롱 집단은 강남의 한인 귀족이나 북위가 뤄양으로 천도한 이후의 선비족과는 전혀 다른 세력이었다. 선비족이 화북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한화되어 북방 민족의 강건한 군사 집단이 유약해진 데 비하여, 관롱 집단은 정치 · 군사적인 측면에서 참신한 기풍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위에서 실시된 부병제와 균전제가 북조로 계승되면서 부국강병의 원동력이 되어, 이를 수가 계승하여 남북조를 통일할 수 있었다. 끝으로 남조의 상황도 수의 통일을 뒷받침하였다. 남조는 강남 지역이 개발되면서 경제적 · 문화적으로 북조를 앞섰다. 하지만 귀족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왕권이 위축되고, 군사력이 약하여 항상 북조의 공세에 시달렸다. 이러한 상황은 수가 남북조를 통일하는 데 간접적으로 이바지하였다.

과거제 69차시

중국의 관리 선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추천에 의하여 선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험에 따라 뽑는 방법이다. 시험을 치러 관리를 선발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과거제이다. 과거제는 수에서 처음 시작되어 당에서도 계속되었다가, 송대부터 특히 중요시되었다. 송대부터는 지방과 중앙에서 시험을 본 후, 황제의 앞에서 시험을 보는 전시가 실시되었다. 전시에서는 황제가 스스로 시험관이 되어 문제를 냈으므로, 합격생은 황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따라서 전시의 시행은 황제권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였다. 과거 시험 과목은 유교와 관련된 것이었다. 응시생은 지방과 중앙에서 몇 단계의 시험을 본 후 최종 시험을 치렀고,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과거 시험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어릴 때부터 공부하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려웠으므로 대개는 부유한 지주나 지배층의 자제가 과거를 준비할 수 있었다. 청 말까지 이어진 과거제는 중국에 유교 사상과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당 태종 69차시

고조(이연)의 아들 이세민은 당 태종으로 즉위하였다. 수의 고구려 침략 전쟁이 실패로 끝난 후 중국 각지에서 반란

이 일어나자, 이세민은 아버지 이연을 도와 618년에 당을 세웠다. 하지만 적장자가 아니어서 제위에 오를 수 없게 되자, 형제들을 죽이고 이연에게 왕위를 물려받아 당의 제2대 황제로 즉위하였다.

태종은 여러 가지 개혁으로 국력을 크게 신장시켜 당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이에 당의 태평성대를 당시 태종의 연호를 따서 '정관(貞觀)의 치'라고도 한다. 특히 태종은 신하들의 의견을 기탄없이 수용한 것으로 유명하다. 어느 날 태종은 신하들에게 나라를 세우는 것과 지키는 일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를 물었다. 방현령은 국가의 창업은 생사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대답하였고, 위징은 수의 멸망을 들며 창업도 어렵지만 나라를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태종은 위징의 의견이 옳다고 여기고 통치에 참조하였다고 한다. 훗날 오긍이라는 사람은 "정관정요"를 편찬하여 태종과 신하들이 국정 운영에 대하여 논의했던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이후 황제들은 이를 즐겨 읽었다.

3성 6부 69차시

당의 중앙 정치 기구로,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을 설치하여 황제가 전국의 정무를 관장하는 데 협조하도록 하였다. 중서성은 황제의 명령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기안하는 임무를 하였고, 문하성은 중서성이 만든 조칙을 심의하고 이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면 반대 의견을 내서 철회시키는 권리를 가졌다. 상서성은 중서성, 문하성의 결정을 실행하는 최고 집행 기관으로 그 산하에 6부(이, 호, 예, 병, 형, 공부)를 두었다.

균전제 69차시

북위의 효문제가 처음 실시한 토지 제도로, 수를 거쳐 당대에 완성되었다. 균전제는 천하의 토지는 모두 황제의 토지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전국의 토지를 국가가 수합하여 국민에게 분배, 경작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쟁 때문에 생겨난 황무지를 분배하여 농민을 정착시키고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당대에는 토지를 국유로 하여 일반 백성에게는 100무, 관리에게는 12경에서 최하 60무의 토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영업전(永業田)으로서 자손이 상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병제 69차시

병농 일치의 군사 제도로 균전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당은 수도에 12위를 두고 전국의 주와 현에 절충부를 두어 균전을 받은 농민 가운데 건강한 사람을 부병(府兵)으로 삼았다. 부병은 평상시에는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농한기에 군사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조 · 용 · 조(租庸調)를 모두 면제받는 대신 1개월 내지 2개월씩 교대로 수도의 경비를 맡아야 했다. 이들은 갑옷이나 무기, 식량 등을 스스로 마련해야 했고, 전쟁이 일어나면 출정해야 했다.

안 · 사의 난 69차시

당 현종 말년에 안녹산과 사사명 등이 일으킨 반란이다. 현종 말년에는 황제가 정치에 싫증을 느끼고, 재상 이임보와 양 귀비의 일족인 양국충 등이 횡포를 부려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다.

안녹산은 원래 국적이 분명하지 않은 이민족 출신으로서 평로, 범양, 하동의 3진(鎭)을 다스리는 절도사가 되었다. 그는 자신과 대립하던 양국충이 정권을 장악하자 755년에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이 거세어지자 현종은 도망을 갔고, 안녹산은 장안을 점령하여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포악하고 잔인하여 인심을 얻지 못하였으며,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아들과 대립한 끝에 아들 안경서에게 살해되었다. 한편 돌궐 출신인 사사명은 정세가 불리해지자 당에 항복하였다가 다시 반란을 일으켜, 안경서를 죽이고 황제를 칭하였다. 그러나 사사명 역시 부자간의 권력 다툼 때문에 아들 사조의에게 살해되었고, 이후 반란군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8년 동안 계속된 안 · 사의 난으로 당의 율령 체제가 붕괴하였다. 균전제는 장원제로 바뀌었고, 부병제는 모병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절도사의 등장으로 귀족 사회가 점차 와해되었다.

절도사 69차시

절도사란 8세기 초 부병제가 해체되면서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국경 지대의 요새에 배치한 군단의 사령관을 말한다. 710년 하서 절도사가 설치된 것이 시초이며, 현종 때까지 10개의 절도사가 설치되었다. 절도사는 민정 · 군사 · 재정을 장악하고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안 · 사의 난을 계기로 중국 내륙 요지에도 절도사를 두어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서로 항쟁하여 당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02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과 발전

학습 목표

- 동아시아 지역 세계에 나타난 공통적인 문화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 당대에 동아시아 여러 나라 사이에 광범한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 일본 고대 국가의 형성 과정과 고대 문화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70	1.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동아시아는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일까?	문답식	
	[전개]		
	• 당대에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중국의 문화가 큰 영향을 끼쳤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역사 부도
	• 통일 신라, 발해, 일본, 베트남에서 나타난 중국 문화의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 동아시아 여러 나라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공통적인 문화 요소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245쪽 자료
	• 동아시아에 공통적인 문화 요소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문화도 형성되었음을 정리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요소 네 가지는?	문답식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71	2. 일본 고대 국가의 발전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삼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일본 고대 문화는 무엇인가?	문답식	
	[전개]		
	• 일본 성립 초기 여러 나라가 분열되어 있다가 야마토 조정을 중심으로 통일 국가가 성립되었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역사 부도
	• 6~7세기에 중국과 한반도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아스카를 중심으로 일본 고대 문화가 발전하였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파악하게 한다.	탐구식	246쪽 자료, CD
	• 다이카 개신의 내용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인터넷
	•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의 특징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강의식	
	• 일본 국풍 문화가 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자료를 통하여 국풍 문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한다.	자기 주도식	247쪽 자료

71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일본에서 7세기 중엽 당의 제도를 본떠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고자 실시한 개혁은? 2. 중국, 한반도와 교류가 단절된 가운데 일본에서 성장한 독자적인 문화를 가리키는 말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1)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문화 요소**

① **등장 배경**: 당의 개방적인 대외 정책 → 주변 나라와의 활발한 교류

② **동아시아 문화권**: 당의 문화가 통일 신라, 발해, 일본, 베트남 등 주변 국가에 영향

③ **공통적인 문화 요소**: 유교, 불교, 한자, 율령 제도 등 → 동아시아 지역 세계의 형성

④ **독자적인 문화의 마련**: 각 나라는 지역마다 독자적인 문화를 마련하여 다양한 문화적 발전 이룩

(2)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교류**

① **계기**: 중국과 이웃 나라 사이의 정기적인 교류

② **문화의 확산**: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문화 요소는 대체로 중국에서 성립하여 동아시아 각국으로 전파

③ **동아시아 각국의 발전**: 필요에 따라 선진 문물을 선택적으로 수용,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 발전

2. 일본 고대 국가의 발전

(1) **고대 국가의 성립**

① **초기 상황**: 일본 열도 곳곳에서 작은 나라들이 경쟁 → 야마토 지역의 나라가 주변 나라와 연합하여 성장

② **야마토 정권**
- 통일 국가 건설
- 중국과 한반도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 → 아스카 문화 발전
- 쇼토쿠 태자의 정치: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정책 실시, 불교 장려

③ **다이카 개신**
-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고자 함.
- 당의 율령 수용 → 율령제를 바탕으로 한 국가 체제 수립

④ **나라 시대**
- 도읍을 헤이조쿄(나라)에 정함.
- '일본' 국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

(2) **일본 고유문화의 발전**

① **헤이안 시대**
- 배경: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실과 귀족 세력의 대립 심화
- 헤이안쿄(교토)로 천도 → 귀족과 외척의 정치 개입 심화 → 왕권 약화
- 호족과 사원이 장원 확대
- 율령에 의한 정치가 유지되기 어려워짐.

② **국풍 문화의 성장**

배경	중국, 한반도와의 교류가 사실상 단절 → 독자적인 문화가 성장하기 시작
내용	• 가나 문자 사용 • 다다미, 정원 등의 주택 양식 • 일본의 독특한 의복 등
의의	오늘날 일본 문화의 중요한 부분 형성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244쪽

당대에 유교, 불교, 한자, 율령 제도 등의 공통적인 문화 요소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탐구 활동 ▶▶▶ 교과서 245쪽

1. 통일 신라의 장보고

2. 예시 답안 동아시아에 나타난 공통적인 문화 요소로는 유교, 불교, 한자, 율령 제도를 들 수 있다. 또한 〈자료 3〉을 통해 당시 당의 수도 장안의 도시 구조가 신라의 금성, 발해의

상경 용천부, 일본의 헤이조쿄 등 주변 나라의 도성 구조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당의 문화는 동아시아 주변 지역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는 당이 개방적인 대외 정책을 실시하여 당 문화가 국제적 성격을 띠었고, 주변 나라와 광범위하게 교류를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46쪽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과 그들이 가져간 문화는 일본 고대 문화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247쪽

1. (1) ○, (2) ×, (3) ×
2. (1) 다이카 개신, (2) 가나
3. 유교, 불교, 한자, 율령 제도

내용 더하기

동아시아 문화권의 성립 70차시

수 · 당대에는 광대한 영토를 확보하여 세력권을 형성함으로써 주변의 여러 민족과 직접 접촉하게 되었다. 특히 당은 대외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데, 외국인이라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관리로 등용하기도 하였다. 당은 주요 도시에서 외국인이 여행하고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당 문화의 국제성을 입증하였다.

당의 제도와 문화는 주변 나라,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일본은 수에 견수사를 보낸 이후로 당과도 계속 교류하여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통일 신라, 발해, 베트남 등도 유학생을 교류하고 무역 활동을 활발히 하여 당과 빈번하게 접촉하였다. 이에 당의 율령 체제를 받아들여 정치 제도를 비롯한 국가의 통치 구조를 형성하는 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한편 거란, 여진, 몽골족은 당 문화의 영향을 받아 민족적 자각이 싹터 10세기 이후 통일 국가를 형성하였다.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 70차시

① 한자: 한자는 원래 중국의 문자로 일찍부터 주변 여러 나라에 전파되어 사용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어휘 체계가 달랐지만 뜻글이 가지는 장점 때문에 한자를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한자는 언어가 다른 동아시아에서 문화를 전파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한편 한자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문화의 매개체로 활용하면서 신라의 이두, 일본의 가나 문자 등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② 유교: 유교는 한대에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오경정의"가 편찬됨으로써 유교의 통일된 해석이 가능해졌다. 유교는 동아시아 각국으로 확산되어 각국의 정치이념이자 사회 규범의 기본으로 채택되었다.

③ 율령: 율령 체제는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관료 체제뿐만 아니라 토지, 군사, 조세 등 여러 제도의 전범이 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당대에 이르러 국가의 통치 체제를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다.

④ 불교: 불교는 중국에서 시작된 종교는 아니었지만, 당대에 의식과 교리가 중국화하였다. 이러한 불교는 다시 주변 여러 나라에 전파되어 교리나 의식 측면에서 중국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일본의 국가 성립 71차시

일본은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 많이 발굴되었다고 하였으나, 이를 체계화시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들이 결국엔 위조된 것임이 밝혀졌다. 일본의 신석기 문화는 약 기원전 5000~300년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토착 문화인 조몬 문화가 대륙에서 건너간 야요이 문화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야요이 시대에 금속기를 사용하고 가족 생활이 시작되었으며, 농사를 처음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고대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6세기 말 무렵 야마토 정권 때부터이다. 일본이 국가를 형성하는 데에는 백제와 신라, 수 · 당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 특히 백제의 왕인은 일본으로 건너가 한자를 교육하여 일본인이 처음으로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백제의 오경박사는 유교는 물론 의학, 달력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였다.

야마토 정권 71차시

야마토는 지금의 나라 현 부근 지역으로, 4~7세기 야마토를 중심으로 여러 호족을 통일한 일본 고대 정권을 가리켜 야마토 정권(조정)이라고 한다. 일본은 4~6세기부터 중국, 백제와 긴밀한 접촉을 하면서 사회 ·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마토 지방의 유력한 호족은 호족들 간의 연합을 통하여 직할지를 갖고 백성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력을 기르기 시작하였다. 6세기에 야마토 정권의 대왕은 왕권의 세습을 확립한 후 중앙 집권을 강

화해 나갔다. 한편 야마토 정권에 통합된 지방 세력의 우두머리는 지방의 장으로서 중앙의 통제를 받는 중앙 집권하의 관료적 성격으로 변화하였다. 6세기 후반에는 쇼토쿠 태자가 집권하여 수와 신라로부터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7세기 말에는 대왕의 칭호를 천황으로 바꾸었다.

4세기 중엽 이후 7세기 초까지 일본 열도에는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이라는 거대한 무덤이 등장하였다. 특히 지금의 나라 현과 인접한 오사카 지역에 가장 큰 규모의 전방후원분이 조성되었는데, 이를 통해 야마토 중심의 전국적인 정치 연합이 형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야마토 정권을 '왜(倭)'라 부르기도 하였다.

다이카 개신 71차시

쇼토쿠 태자가 죽은 후 유학생과 유학승의 지원을 받은 친(親) 중국 세력이 정변을 일으켜 다이카 개신을 단행하였다. 집권 세력은 다이카 개신을 통하여 국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확립하고자 다양한 개혁을 시도하였다.

우선 국가가 직접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반전수수법(班田收授法)을 실시하였고, 당의 조·용·조제를 모방하여 조세 제도를 개혁하였다. 그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제를 실현하고자 중앙에는 신지(神祇)·태정(太政)의 2관(二官)과 8성(八省)·백관(百官)을 두었고, 지방은 국(國)·군(郡)·이(里)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당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일본인들은 다이카 개신을 율령 국가의 시작이라고 본다.

아스카 문화 71차시



▲ 호류 사(일본 나라 현)

아스카 문화는 일본이 율령 국가의 터전을 닦고 불교문화를 토착화하기 시작한 이후 오늘날 나라 현 아스카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문화로, 특히 불교문화가 크게 발달하였다. 특히 쇼토쿠 태자는 불교를 장려하여 대륙의 선진 문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였다. 이 당시 불교는 호국 불교의 성격을 띠고 있어 정치적 지원을 받아 널리 확산되어 갔다. 중앙에는 도다이 사와 같은 절이 지어져 불교 전파에 힘썼다. 그 결과 호류 사와 같은 대규모 사찰 건축과 불상, 조각, 회화 등 여러 불교미술의 걸작품을 남겼다. 이로써 일본 불교문화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헤이조쿄(平城京) 71차시

8세기에 들어와 일본은 천황 지위의 계승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전국적으로 기근과 역병이 퍼져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당시 겐메이 천황은 710년에 나라 분지의 북쪽 경계에 위치한 헤이조쿄(平城京)로 천도하였다. 이때부터 나라 시대가 시작되었다.

헤이조쿄는 당의 장안을 모방하여 건설된 도시이다. 성안은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구획되었다. 헤이조쿄의 북쪽에는 담으로 둘러친 헤이조큐(平城宮)를 건설하고 천황의 거처와 관리들의 사무실을 들여 정치의 중심으로 삼았다. 또 관영 시장을 설치하였으며, 여러 불교 사원을 함께 세웠다.

헤이안 시대 71차시

8세기 후반 일본에서는 황족과 외척 간의 권력 다툼이 계속되어 나라 시대의 번영이 점차 쇠퇴하고 있었다. 이에 천황은 율령 체제를 회복하고자 794년 헤이안쿄〔平安京, 오늘날의 교토〕로 수도를 옮겼다. 하지만 9세기 중엽 불교의 승려들과 귀족들이 세력을 키워 천황의 권한이 약화되고, 후지와라 일족이 정권을 장악하여 천황을 마음대로 하였다. 각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일어나 장원을 소유하고 무사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신변과 재산을 보호하였다. 이처럼 헤이안 시대 말기부터 일본 특유의 봉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가나 문자 71차시

가나는 한자를 바탕으로 일본어를 표기하고자 만들어진 문자이다. 일본에 한자가 처음 도입될 때 지명이나 인명을 표기하기 위해 한자의 의미는 무시하고 음만 빌려서 쓰는 방법에서 고안되었다. 한자 초서체를 사용한 표기법에서 유래되었으며, 점차 획수를 간략히 하거나 일부만을 빌려 쓰는 형식으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만들었다.

Ⅷ. 지역 세계의 형성과 발전

03 인도와 동남아시아 세계의 전개

학습 목표

- 굽타 왕조 때 인도의 고전 문화가 확립되었음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인도에서 이슬람 문화가 확산되었음을 사례를 들어 파악할 수 있다.
- 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각국의 성립 역사와 관련지어 말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72	**1. 굽타 왕조와 인도 고전 문화의 확립 ~ 2. 이슬람교의 인도 전파**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문답식	
	1. 오늘날 인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무엇일까?		
	2. 델리 술탄 왕조와 관련된 종교 세력은 무엇인가?		
	[전개]		
	• 4세기 초 굽타 왕조가 인도 북부 지역을 차지하며 전성기를 누렸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248쪽 지도
	• 굽타 왕조 시대에 힌두교가 성장하였음을 정리한다.		
	• 굽타 왕조 시기에 인도 고전 문화가 완성되었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하게 하고, 굽타 양식의 특징을 설명한다.		249쪽 자료, 역사 부도
	• 힌두교의 특징을 브라만교, 불교, 민간 신앙의 요소와 관련지어 탐구하게 한다. 또한 굽타 왕조가 힌두교를 후원한 까닭을 발표하게 한다.	탐구식	249쪽 자료
	• 굽타 왕조가 멸망한 이후 인도에 이슬람 왕조가 성립하였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 인도에 이슬람교가 전파되는 과정을 이슬람교의 교리와 관련지어 파악하게 한다.	자기 주도식	250쪽 지도
	•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브라만교에 민간 신앙과 불교 등이 결합되어 성립한 종교는?		
	2. 굽타 왕조가 멸망한 이후 인도 서북 지역을 침입하여 여러 왕조를 세운 종교 세력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73	**3. 동남아시아 각국의 성립과 발전**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문답식	
	1. 동남아시아에 속한 나라들을 다섯 개 이상 말하시오.		
	2. 인도네시아 자와 섬에 있는 보로부두르는 어떤 종교와 관련된 유적인가?		

73	[전개] • 동남아시아의 위치와 지리적 · 기후적 · 민족적 특징에 대하여 설명한다. • 베트남 북부에 중국 문화가 전파되었음을 정리한다. •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은 나라에 대하여 살펴본다. • 미얀마와 타이가 성립하게 된 연원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 동남아시아의 섬 지역에서 등장한 국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들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정리한다. • 동남아시아에 남아 있는 역사 유적의 특징과 관련 국가를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베트남의 민족사를 정리하고 쯔놈 문자를 제정한 나라는? 2. 파간 왕조와 수코타이 왕조가 받아들인 종교는? 3. 대승 불교가 발전하여 보로부두르 불탑과 같은 건축물을 세운 왕조는?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강의식 발표식 강의식 문답식 	251쪽 사진 인터넷 252, 253쪽 자료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굽타 왕조와 인도 고전 문화의 확립

(1) 굽타 왕조의 발전

① **굽타 왕조의 성장**: 4세기 초 인도의 북부 지역을 대부분 통일

② **경제적 번영**

- 농업과 수공업 발달
- 활발한 동서 교역: 사산 왕조 페르시아, 로마 제국, 동남아시아, 중국 등과 교역

③ **문화 교류**: 비단길을 통해 인도를 드나든 승려들이 지역 간 문화 교류에 이바지

④ **쇠퇴**: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 북방 유목 민족의 침입 등으로 점차 약화

(2) 힌두교의 성립

① **성격**: 브라만교에 민간 신앙, 불교 등이 결합

② **굽타 왕조의 후원**: 왕권을 강화하고 사회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목적

③ **발전**: 인도를 대표하는 종교로 발전 → 브라만 중심의 카스트제 강화

(3) 인도 고전 문화의 확립

① **산스크리트 문학의 유행**

- 산스크리트 어: 당시 지배층의 언어
- 구전되어 오던 신화, 설화들이 산스크리트 어로 기록
-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샤쿤탈라' 등

② **자연 과학의 발달**

- '0(영)'의 개념 발견, 10진법 사용
- 영향: 이슬람 세계에 전해져 아라비아 숫자의 기원이 됨.

③ **굽타 양식의 유행**

- 인물의 얼굴이나 옷맵시에서 인도 고유의 특징을 표현 (아잔타 석굴 사원)
- 중앙아시아,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까지 영향

2. 이슬람교의 인도 전파

(1) 이슬람 왕조의 등장

① **배경**: 굽타 왕조 멸망 이후 여러 왕국으로 분열 → 이슬람 세력이 인도 서북 지방을 침입, 세력 확대

② **이슬람 왕조의 성립**: 13세기 초 델리를 중심으로 최초의 이슬람 왕조 성립 → 이후 300여 년 동안 다섯 이슬람 왕조가 북부 인도 통치

(2) 이슬람 문화의 확산

① **다른 종교에 대한 대응**: 사원과 신상 파괴, 힌두교와 불교 탄압 → 점차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들의 신앙 허용

② **이슬람교의 확산**: 신 앞에 평등하다는 이슬람의 교리 → 카스트제의 신분 차별,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던 많은 인도인이 이슬람교로 개종

③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융합**

-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의 결혼식 · 장례식 절차가 비슷해짐.
- 이슬람의 모스크를 인도의 전통적인 연꽃무늬로 장식

3. 동남아시아 각국의 성립과 발전

(1) **인도와 중국 문화의 수용**

①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특성**

-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
-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요충지

② **민족 구성**: 크메르족, 참족, 비엣족, 말레이족 등 다양한 민족이 거주

③ **고유한 문화의 형성**

- 고유문화: 벼농사 바탕 → 독특한 의식주와 생활 양식
- 다양한 문화의 발전: 인도, 중국 등 여러 지역의 문화 수용

(2) **베트남 북부**

① **남월의 멸망**: 중국의 한에 의하여 멸망 → 중국이 베트남 북부 지역을 오랫동안 지배 → 10세기 무렵 독립

② **대월국**

- 정치적으로 중국과 대립
- 한자, 유교, 대승 불교, 과거제 등 중국의 문물을 수용하여 통치 체제 정비

③ **쩐 왕조**: 베트남 민족사 정리, 쯔놈 문자 제정

(3) **캄보디아와 베트남 중남부**: 인도 문화의 영향

부남 왕조	진랍국에 멸망
참파 왕조	베트남 북부의 왕조들과 오랫동안 대립
앙코르 왕조	진랍국 계승, 앙코르 와트 건립

(4) **미얀마와 타이 지역**

파간 왕조	• 미얀마족이 건국 → 미얀마의 기원 • 13세기 후반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
수코타이 왕조	• 타이족이 건국 → 타이의 기원 • 14세기 중반 수코타이 왕조 이후 아유타야 왕조가 등장하여 발전

(5) **동남아시아 섬 지역**

① **해상 무역 발달**: 인도와 중국을 잇는 지리적 이점 이용

② **스리위자야 왕조**: 수마트라 섬을 중심으로 성장 → 믈라카 해협을 장악하여 동서 무역으로 번영

③ **샤일렌드라 왕조**: 자와 섬에서 발전 → 대승 불교 발전, 보로부두르 불탑 건축

④ **마자파힛 왕조**: 힌두교 세력에 기반, 인도네시아 지배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248쪽

굽타 왕조

탐구 활동 ▶▶▶ 교과서 249쪽

예시 답안 왕권을 강화하고, 카스트제를 바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50쪽

이슬람 세력이 인도로 진출하기 시작한 8세기 무렵부터 인도에 이슬람 문화가 확산되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51쪽

인도, 중국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253쪽

1. (1) ○, (2) ×, (3) ○
2. (1) 캄보디아, (2) 인도네시아(자와 섬), (3) 인도
3. 베트남의 민족사를 정리하였고, 쯔놈 문자를 제정하였다.

내용 더하기

힌두교 72차시

힌두와 인도라는 말은 인더스 강 지역을 일컫던 '신두'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일반적인 종교와 달리 창시자가 따로 없고, 특별한 계율이나 가르침, 일정한 예배 형식이 없다. 원시적인 물신 숭배부터 애니미즘, 주술, 제례, 다신교, 일신교, 고행주의, 신비주의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종교를 포괄하고 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러 대상을 선택하여 각자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간다.

산스크리트 문학 72차시

산스크리트 문학은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로 대표된다. '마하바라타'는 기원전 10세기 무렵 북인도에서 일어난 것으로 설정되는 2대 부족의 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서사시로 읊은 것이다. 4세기 무렵에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이루었다고 추정되며, 산스크리트 운문으로 쓰였다.

'라마야나'는 기원전 2세기 무렵 현재의 형태를 이루었

다. 코살라 왕국의 라마 왕자가 경험한 극적인 일생을 서사시의 형태로 엮은 것이다.

굽타 양식과 아잔타 석굴 사원 72차시

굽타 시대에는 인도 고유의 불교 미술 양식이 발달하였다. 굽타 양식의 불상은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투명한 법의를 걸치고, 순수한 인도인의 얼굴을 하고 있다. 아잔타 석굴 사원의 불상들은 이러한 특징을 잘 나타낸다.

아잔타 석굴 사원은 인도 중서부 마하라슈트라 주에 위치한 석굴 사원군으로, 29개의 사원 안에는 굽타 양식의 불상과 벽화가 가득하다. 사원이 조성되기 시작한 기원전 2세기에는 상좌부 불교가 유행하여 불상을 만들지 않았으나, 5세기 이후 대승 불교도가 불상을 조각하기 시작하였다. 1983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아잔타 석굴 사원 전경

이슬람 세력의 인도 진출 72차시

이슬람 세력은 8세기부터 인도에 침입하였다. 10세기 말에는 튀르크 계통의 가즈니 왕조가 10여 차례 북인도에 침입하였고, 12세기 후반에는 고르 왕조가 인도의 북서쪽을 지배하였다. 13세기 초에는 아이바크가 델리를 수도로 인도 최초의 이슬람 왕조를 세웠는데, 이를 노예 왕조라고 한다. 이때부터 델리를 수도로 할지, 투글루크, 사이이드, 로디 왕조가 차례로 들어섰는데, 이를 델리 술탄 왕조라 한다.

베트남과 중국 73차시

베트남은 기원전 2세기에 한의 침입을 받아 중국에 복속되었다. 이후 베트남 인들은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면서도, 과거를 통하여 중국의 관료로 진출하기도 하여 중국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한자, 유교, 중국식 관료제 등을 수용하여 동아시아 문화권의 일원이 되었다. 10세기에 당이 멸망하고 5대 10국의 혼란기가 계속되자 이 틈을 타서 독립을 이루었으며, 송, 원, 명, 청의 거듭되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유지하였다.

대월사기 73차시

"대월사기"는 베트남 쩐 왕조에서 베트남의 고대사를 한문으로 펴낸 편년체 역사서이다. 기원전 207년경 즉위한 베트남의 초대 군주부터 베트남 리 왕조의 소황제까지 다루고 있다. "대월사기"는 현존하지는 않으나, 다른 베트남 역사서에 인용되거나 많은 영향을 끼쳤다.

쯔놈 문자 73차시

베트남 쩐 왕조 때 한자를 바탕으로 자국어를 나타내기 위해 만든 글자로, '남방의 문자'라는 뜻이다. 쩐 왕조 시대는 몽골의 침입을 격퇴하고 민족의식이 고조되었던 때로 이러한 특수 문자가 만들어졌으나, 한문보다 많이 사용되지는 못하였다. 17세기 유럽의 선교사들이 들어온 이후로는 로마자로 베트남 어를 표기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어 쯔놈 문자는 급속히 쇠퇴하였다.

보로부두르 73차시

인도네시아 자와 섬 중부에 있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불교 건축물로, 오랫동안 매몰되어 있던 것을 1814년 영국인이 발굴하여 재건하였다. 보로부두르는 그 형태와 구성이 특이한 것으로 유명하다. 상부의 원단에는 72개의 불상이 있고, 하부 다섯 개 층에는 2,000여 개의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부조로 조각된 하부 다섯 개 층의 불상은 불전(佛典)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설화를 이야기 형태로 묘사한 데다, 불상 하나하나의 구도가 다양하여 극찬을 받고 있다.



▲ 보로부두르의 불상과 부조

04 이슬람 세계의 형성

학습 목표

- 이슬람교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이슬람 제국의 발전 과정을 말할 수 있다.
- 이슬람 세계에서 상업이 발달한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 이슬람 문화가 세계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74	**1. 이슬람교의 성립과 발전**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문답식	
	1. 탈라스 전투는 당과 어느 나라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인가?		
	2. 이슬람교의 경전은 무엇인가?		
	[전개]		
	• 메카와 메디나가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한 이유를 지도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강의식	254쪽 지도
	• 이슬람교의 정립 과정을 무함마드의 일생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이슬람교의 전파 과정을 이슬람 제국의 성립과 관련지어 정리하게 한다.	자기 주도식	역사 부도
	• 우마이야 왕조와 아바스 왕조의 성립과 변천을 파악하고, 두 나라의 통치 방식을 비교하여 정리하게 한다.		
	• 이슬람교의 시아파와 수니파에 대하여 설명한다.	강의식	255쪽 자료
	• 이슬람교의 특징을 쿠란과 교리를 바탕으로 탐구하게 한다. 그리고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게 한다.	탐구식	256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알라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종교는?		
	2. 세금 납부와 관리 등용 등에서 아랍 인과 비아랍 인의 차별을 폐지한 이슬람 제국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75	**2. 이슬람의 사회와 문화**		CD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문답식	
	1. 이슬람교는 오늘날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믿을까?		
	2.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장식하는 추상적인 무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		

75	[전개] • 이슬람교가 확산되었던 배경과 이유를 설명한다. • 이슬람 문화의 발전 모습을 분야별로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 이슬람 문화의 특징을 여러 시각 자료를 토대로 파악하게 한다. • 우리나라와 이슬람 세력이 어떠한 역사적인 관계를 맺어 왔는지 탐구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이슬람 세계에서 종교와 사회생활의 기본 규범이 된 경전은? 2. 이슬람 세계에서 모스크를 아라베스크 무늬로 장식한 이유는?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강의식 발표식 강의식 탐구식 문답식	257쪽 지도 258쪽 자료 259쪽 자료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이슬람교의 성립과 발전

(1) 이슬람교의 정립

① 배경
-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는 새로운 교역로 대두 → 메카, 메디나 등이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
- 소수 귀족들이 무역의 이익 독점
- 교역로를 둘러싼 부족 간의 갈등 심화

② 이슬람교 정립
- 메카의 상인 무함마드가 유일신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교 정립
- 다신교 반대, 우상 숭배 배격, 알라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가르침.

③ 발전
- 귀족들의 탄압을 피하여 메디나로 피신(헤지라, 622) → 이슬람력의 원년
- 메디나에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이슬람 공동체 건설
- 메카 정복 →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 통일

(2) 이슬람 제국의 성립

① 정통 칼리프 시대
- 무함마드 사후, 네 명의 칼리프가 차례로 선출되어 이슬람 공동체 지도
- 합의에 의한 칼리프 선출 방식
-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사산 왕조 페르시아, 이집트 등 정복

② 우마이야 왕조

건국	4대 칼리프 알리의 암살 →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 세습
영토 확장	• 수도: 다마스쿠스 • 정복 전쟁으로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 차지, 인도 · 당과 국경을 맞댐.
통치	이슬람교도 중 비아랍 인에게 세금 부과, 관료 등용에서 차별 → 이슬람교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만

(3) 여러 이슬람 왕조의 등장

① 아바스 왕조
- 바그다드: 세계적인 교역과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
- 민족 차별 정책 폐지
- 탈라스 전투에서 당에 승리 → 동서 교역의 주도권 장악, 경제적 번영

② **후우마이야 왕조**: 몰락한 우마이야 왕조의 일파가 이베리아 반도에서 건국

(4) 이슬람교의 특징

① **쿠란**: 이슬람교 최고의 경전, 이슬람 세계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원리

② **아랍 어**: 이슬람 세계의 공용어

③ **이슬람교도의 의무**: 신앙 고백, 예배, 희사, 금식, 순례

2. 이슬람의 사회와 문화

(1) 이슬람 문화의 확산

① 확산: 쿠란과 아랍 어를 바탕으로 확산

② 종교 정책

- 정복한 지역의 주민에게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음.
- 이슬람교로 개종한 사람은 세금 면제

③ 이슬람 상인의 활약

- 이슬람 상인이 각 지역으로 진출하여 동서 무역 주도 → 이슬람 문화 전파, 각 지역의 우수한 문화 전래
- 상인들의 교역로를 따라 도시 발달 →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성장

(2) 학문과 예술의 발달

자연 과학	•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의 영향을 받음. • 천문학, 의학, 화학, 수학 등 발달 • 유럽의 근대 과학 발달에 영향
지리학	이슬람 상인의 교역 활동, 이슬람교도의 순례 계기
문학	"아라비안나이트"가 유명
건축	• 모스크: 높고 뾰족한 탑, 돔형 지붕 • 아라베스크 무늬: 우상 숭배 금지 → 추상적인 무늬 발달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254쪽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슬람 문화 지역에서 주로 판매된다.

탐구 활동 ▶▶▶ 교과서 256쪽

1. 이슬람 세계에서는 아랍 어로 쓰인 쿠란이 다른 언어로 완전하게 옮겨질 수 없다고 여겼다. 이 때문에 아랍 어가 이슬람 세계의 공용어가 되어 문화적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었다.

2.

공통점		• 우상 숭배 거부 • 유일신의 존재, 천지 창조, 최후의 심판 등을 믿음. • 예수의 탄생과 그가 행한 각종 기적을 인정
차이점	크리스트교	•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 믿음. • 신부나 목사와 같은 성직자가 존재
	이슬람교	• 예수는 위대한 예언자일 뿐 신의 아들은 아니라고 봄. • 성직자가 따로 없음.

생각 열기 ▶▶▶ 교과서 257쪽

아랍 어가 이슬람 세계의 공용어로 사용되었고, 이슬람 세력이 피정복민에 대하여 관용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이슬람교도가 계속 증가하였으며, 이슬람 상인이 동서 교역을 주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슬람교가 세계 각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259쪽

1. (1) ×, (2) ○, (3) ○, (4) ×
2. 칼리프
3. ㉠-㉢-㉣-㉡

내용 더하기

❀ 아라비아 반도의 정세와 이슬람교의 성립 74차시

아라비아 반도에는 베두인족이 유목 생활을 하거나 오아시스 농업에 종사하며 살고 있었다. 아라비아 반도의 북쪽 팔레스타인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접경지대, 서쪽의 홍해 연안의 여러 대상(隊商) 도시에는 이들보다 높은 문명을 누리는 아랍 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 사이의 오랜 전쟁으로 페르시아에서 시리아에 이르는 교통로가 막히게 되자, 홍해 연안의 대상로를 이용한 동서 교역이 활발해져 대상 도시가 더욱 번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에는 부유한 지배 계층이 등장하게 되었고, 빈부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어 갔다. 이러한 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곳이 메카와 메디나였다.

이슬람교를 정립한 무함마드는 메카의 어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청년이 되자 대상(隊商) 활동을 하며 각지를 돌아다녔다. 그 과정에서 무함마드는 팔레스타인이나 시리아 등에서 크리스트교도나 유대교도를 만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이 그의 종교관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무함마드는 그리스도를 과거의 예언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로 인정하였으며, 그의 가르침을 자신의 가르침 다음에 놓았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는 물론 자신의 신성(神性)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무함마드는 철저하게 일신교를 주장하였고, 유일신 알라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신과 예언자의 가르침대로 행하면 누구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슬람교의 기본 실천 강

령으로는 6신과 5행이 있다. 6신은 신(알라), 천사, 성전, 예언, 미래, 천명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고, 5행은 신앙 고백, 예배, 단식, 희사, 성지 순례를 말한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쿠란을 독송하면 직접 신과 접촉할 수 있다고 하여 특별히 성직자를 따로 두지 않았다.

헤지라 74차시

이슬람교는 메카를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 무함마드가 이교적인 다신교 신앙을 배척하고 공격하자, 다신교를 믿던 메카의 귀족들은 이슬람교도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무함마드는 622년에 메카의 북쪽에 있던 메디나로 피신하였다. 그 무렵 메디나는 내부적으로 파쟁에 휘말려 있었는데, 메디나에서 그들의 조정자로서 무함마드를 초청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무함마드는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이며 입법자가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이슬람교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칼리프 74차시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가리키는 말로, 종교 지도자이자 이슬람 공동체를 통치하던 최고 권력자이다.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으나, 우마이야 왕조 이후 전제 군주화되었다.

칼리프의 지도 아래 이슬람교로 단합한 아랍 인들은 종교적인 열정과 영토 확대에 의한 포교를 목적으로 정복 전쟁을 추진하였다. 여기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슬람교도의 생활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랍 인들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를 정복하였으며, 분열 상태에 있던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중앙아시아로 진출하였다. 또 이집트를 정복하여 북아프리카로 세력을 확대하였다.

수니파와 시아파 74차시

이슬람교도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었다. 수니파는 쿠란에 구전(口傳)의 전승을 부가하는 것과 무함마드 혈통이 아닌 자의 칼리프 선출을 인정하였고, 시아파는 원래 쿠란의 순수성을 유지할 것과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칼리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니파는 쿠란과 함께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과 관행을 의미하는 '수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수니파는 4대 정통 칼리프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역대 칼리프를 모두 무함마드의 후계자로 보았다. 이에 비하여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4대 칼리프 알리만을 정통 칼리프로 인정하고, 알리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계자들은 이맘(종교 지도자)으로 보았다.

탈라스 전투 74차시

751년 탈라스에서 아바스 왕조와 중국의 당이 충돌한 사건이다. 탈라스는 오늘날 키르기스스탄 서북부에 있는 도시로, 당시 동서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중요한 무역 시장이었다. 당에서는 고구려인인 고선지 장군이 활약하였으나, 이슬람 세력에 대패하였다. 이 전투를 계기로 이슬람 제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제패하였고, 당의 서역 경영은 후퇴하였다. 한편 탈라스 전투 당시 당의 포로 가운데 제지 기술자가 포함되어 있어 중국의 제지법이 이슬람 세계에 전파되고 그 후 유럽에까지 건너갔다.

아라베스크 무늬 75차시



▲ 메디나 아자하라의 아라베스크 무늬(에스파냐 코르도바)

이슬람교 사원을 장식할 때 사용한 무늬로, 식물의 줄기와 잎을 도안화하여 기하학 무늬로 배합한 것이다. 이슬람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하였기 때문에 그림이나 조각은 크게 발달하지 못하였다. 대신 건물의 벽과 서책, 공예품 등에 아라비아 문자를 도안화하여 장식했으며, 거기에 식물무늬를 배치하여 이슬람의 독특한 장식 미술을 만들었다. 아라베스크 무늬는 르네상스 이후에 유럽에서도 유행하였다.

카바 신전 75차시

헤지라 이후 메디나를 중심으로 새로운 이슬람 세계를 건설한 무함마드는 630년 메카에 무혈 입성하였다. 무함마드는 카바 신전을 가득 메우고 있는 우상을 파괴하였다. 그리고 카바 신전에서 다신교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고, 오래 전부터 신성시되던 흑석을 새롭게 안치하였다. 이로써 메카의 카바 신전은 이슬람교의 정신적 중심지가 되었다.

Ⅷ. 지역 세계의 형성과 발전

05 중세 유럽의 형성과 발전

학습 목표

- 게르만족의 이동과 유럽 세계의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서유럽 봉건 사회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비잔티움 제국과 중세 서유럽의 정치 · 경제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 크리스트교가 중세 유럽 사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십자군 전쟁 이후 나타난 중세 유럽 사회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76	**1. 서유럽 봉건 사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문답식	
	1. 프랑크 왕국의 왕으로 서로마 황제의 칭호를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2. 중세 유럽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지배한 종교는 무엇인가?		
	[전개]		
	• 지도를 활용하여 게르만족의 이동 배경과 결과를 설명한다.	강의식	260쪽 지도
	• 프랑크 왕국의 발전 과정을 시기별로 파악하게 한다.		
	• 지도를 보면서 노르만족의 이동 경로와 그 결과를 스스로 정리하게 한다.	자기 주도식	역사 부도
	• 중세 봉건 사회의 특징을 도표와 사료를 바탕으로 파악하게 한다.		261쪽 자료
	• 장원에서의 생활 모습을 설명하고, 중세 농노의 삶이 어떠했는지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262쪽 자료
	•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서유럽 사회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고, 교황권과 국왕권의 갈등 양상을 설명한다.	강의식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지배층이 토지를 매개로 주종 관계를 맺고, 봉신이 장원의 영주로서 농민을 지배하는 중세 유럽의 사회 질서를 가리키는 말은?		
	2. '카노사의 굴욕'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교황과 국왕의 관계를 간단히 설명하면?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77	**2. 비잔티움 제국 ~ 3. 크리스트교 문화의 발달**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1. 비잔티움 제국(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오늘날의 어디일까? 2. 12세기 이후 중세의 교육과 학문의 중심지로 성장한 교육 기관은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비잔티움 제국이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배경을 지리적 위치와 관련지어 설명한다.	강의식	역사 부도
	•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업적을 정리한다.		
	•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 과정을 이슬람 세력의 성장과 연결하여 파악하게 한다.		
	•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을 서유럽 세계와 비교하여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265쪽 자료
	• 크리스트교가 중세 유럽 문화에 끼친 영향을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한다.	강의식	
	• 비잔티움 양식의 특징을 시각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하게 하고, 비잔티움 제국이 동유럽 문화에 끼친 영향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역사 부도
	•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강의식	267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로마법을 집대성하고 영토를 크게 확장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2. 크리스트교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중세 철학은? 3. 비잔티움 양식의 건축물로 유명한 것을 하나만 들면?	문답식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78	**4. 중세 유럽 사회의 변화**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1. 셀주크 튀르크가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면서 발생한 전쟁을 무엇이라고 하나? 2. 백년 전쟁 이후 영국과 프랑스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변화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문답식	
	[전개]		
	• 십자군 전쟁의 발생 배경을 설명한다.	강의식	역사 부도
	• 지도와 자료를 활용하여 십자군 전쟁의 전개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게 한다.	자기 주도식	
	• 십자군 전쟁 이후 유럽 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교황과 국왕의 세력 관계, 도시와 장원의 변화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강의식	CD
	• 영국과 프랑스에서 백년 전쟁을 계기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리하게 한다.	자기 주도식	
	• 이베리아 반도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신항로 개척에 나서면서 국외에 많은 식민지를 만들며 번영하였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 영국에서 반포된 대헌장의 역사적 의의를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271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십자군 전쟁 이후 교황권은 어떻게 되었나? 2. 수공업자와 상인들이 모여 만든 조합으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통제하는 등 독점적인 경제 활동을 하였던 조직은? 3. 백년 전쟁을 계기로 왕권을 강화해 나간 두 나라는?	문답식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서유럽 봉건 사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

(1) 게르만족의 이동

① 배경

- 원래 발트 해 연안에서 생활 → 인구 증가 → 로마 제국의 영토로 이주
- 훈족의 압박 → 게르만족의 대이동 시작

② **여러 왕국의 성립**: 로마 제국의 영토 곳곳에 여러 왕국 수립

③ **프랑크 왕국**

- 카롤루스 대제: 이베리아 반도 및 브리튼을 제외한 서유럽의 대부분 차지, 크리스트교 보급 노력 → 서로마 황제의 칭호를 받음.
-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반 마련: 로마 문화+크리스트교+게르만족의 전통
- 분열: 카롤루스 대제 사후 영토 분쟁 발생 → 두 차례의 조정 → 오늘날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기원 형성

④ **노르만족의 활동**

- 9세기부터 유럽 각지 침략 → 노르만 왕조, 노르망디 공국, 시칠리아 왕국 성립
- 러시아의 슬라브족 지배 → 오늘날 러시아의 기원 형성

(2) 봉건 사회의 성립

① **배경**: 프랑크 왕국의 분열, 노르만족 등 이민족의 침입 → 사회 혼란 심화

② **주종 관계의 성립**

- 무력을 갖춘 기사들은 치안 유지, 외적 방어, 개별적으로 농민 지배
- 봉토를 매개로 주군과 봉신 사이에 쌍무적 계약 관계 성립 → 봉신은 독자적으로 재판하거나 세금 징수

(3) 장원의 발달

① **구성**: 한 촌락과 그 주변의 토지로 구성, 자급자족적 성격

② **농노**

- 영주의 보호를 받으며 농사를 지음.
- 거주 이전의 자유 없음.
- 영주에게 노동력 제공, 각종 세금 납부
- 재산 소유 가능,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수 있음.

③ **봉건제**: 지배층이 토지를 매개로 주종 관계 형성, 봉신은 장원의 영주로서 농민 지배

(4) 로마 가톨릭과 서유럽 사회

① **로마 교회의 영향력**

- 프랑크 왕국과 연합하여 크리스트교 전파 → 봉건 사회가 발달하자 권위가 더욱 강화
- 유럽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지배
- 대토지 소유: 왕이나 영주에게서 토지를 기증받거나 개간 → 농민 지배

② **수도원의 개혁 운동**

- 배경: 성직 매매를 비롯한 성직자의 부패와 타락 심화 →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려는 움직임 대두
- 클뤼니 수도원: 교회 개혁 운동 주도, 성직 매매의 금지 등 요구
- 개혁 운동의 성공으로 교회와 교황의 지위 강화

③ **교황과 세속 군주의 대립**

- 성직 임명권을 둘러싸고 대립
- 카노사의 굴욕: 교황이 황제의 성직 임명권을 빼앗으려고 함. → 황제의 반발, 교황이 황제 파문 → 황제 굴복, 교황권 강화
-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 때 교황권 절정

2. 비잔티움 제국

(1) 비잔티움 제국의 번영

① **배경**: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발전

-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요새로 게르만족의 침입을 피함.
-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곳에 위치 → 무역과 상업 활동 활발

②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 국가와 교회의 우두머리 자처
- 영토 확장
-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 로마법 집대성
- 강력한 전제 정치 실시

(2)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

① **쇠퇴**

-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사후 이탈리아 대부분 상실
- 이슬람 세력과 슬라브족 등의 거듭된 침입, 11세기에 셀주크 튀르크에 많은 영토 빼앗김.
- 13세기 십자군에게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당함.

② **멸망**: 오스만 제국에 멸망(1453)

3. 크리스트교 문화의 발달

(1)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 주로 서유럽 지역에 해당

신학	• 최고의 학문으로 중시 • 스콜라 철학 발달: 크리스트교의 교리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려 함.
대학	• 배경: 도시와 상공업 발달 • 교육과 학문의 중심지로 성장
건축	교회를 중심으로 발전 → 고딕 양식 발달
문학	기사들의 활약, 크리스트교의 가르침 표현

(2) **비잔티움 문화**: 동유럽 문화의 바탕이 됨.

① **형성**: 그리스 정교 바탕에 그리스 문화 수용

② **영향**: 그리스 어를 공용어로 사용, 그리스의 고전을 보존 · 연구 →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영향

③ **비잔티움 양식**: 정사각형의 건물 위에 원형의 돔 배치, 내부는 모자이크로 장식 → 성 소피아 대성당

④ **동유럽 문화의 형성**: 비잔티움 제국에서 그리스 정교, 그리스 어 등을 받아들임(러시아의 키예프 공국).

(3) **동서 교회의 분열**

① **발단**: 레오 황제의 성상 숭배 금지령 → 교황의 반대

② **결과**: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분열

4. 중세 유럽 사회의 변화

(1) **십자군 전쟁**

① **원인**

- 셀주크 튀르크가 크리스트교도의 예루살렘 순례 통제, 지중해 무역권을 두고 비잔티움 제국과 경쟁
- 비잔티움 제국이 로마 교황에게 도움 요청

② **전개**: 성지 탈환 호소 → 많은 영주와 농민 호응 → 약 200년 동안 여러 차례 진행

③ **결과**: 예루살렘 탈환 실패 → 교회와 교황의 권위 하락, 유럽 사회의 변화

(2) **도시와 상업의 발달**

시장의 형성	경작지 확대, 농사 기술 개선 → 잉여 농산물 발생 → 교환을 위한 시장 형성
도시의 발전	시장이 도시로 발전
화폐의 유통	십자군 전쟁으로 교통로 확대 → 동방과의 무역 활성화 → 도시와 시장의 발달, 화폐 유통
자치 도시의 등장	• 무력으로 대항하거나 돈으로 자치권 획득 • 각국의 왕은 왕권을 강화하고자 도시 지원
길드	• 수공업자와 상인의 동업 조합 • 영업 이익 독점, 생산과 판매 활동 통제

(3) **장원의 붕괴**

① **배경**: 도시와 상공업 발달, 화폐 유통

② **진행**

- 영주는 농민에게 소작료를 현물이나 화폐로 받음. → 농민은 부역의 의무에서 해방
- 흑사병의 유행 → 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 → 농민에 대한 대우 개선, 농민의 지위 향상

③ **농민 반란**: 일부 영주들이 농민에 대한 지배 강화 → 와트 타일러의 난, 자크리의 난 등 발생

(4) **왕권의 강화**

① **배경**: 십자군 전쟁 이후 교황권 쇠퇴

② **왕권의 강화**

- 관료와 군대를 두어 국가의 토대를 다지고자 함.
- 도시 시민들의 지지: 도시의 시민들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받고자 국왕을 재정적으로 지원

③ **영국과 프랑스**

영국	• 대헌장 선포: 귀족의 권리 보장 • 귀족, 성직자, 시민의 대표가 모여 국정 논의(영국 의회의 시작) → 14세기 양원제 의회의 기틀 마련
프랑스	• 성직자, 귀족, 시민으로 구성된 삼부회 창설 • 필리프 4세: 삼부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교황을 굴복시킴.

④ **백년 전쟁과 그 이후의 상황**

- 백년 전쟁: 영국과 프랑스에서 왕권이 강화되는 계기
- 영국: 왕위 계승권을 두고 장미 전쟁 발생 → 귀족 몰락, 중앙 집권 강화
- 프랑스: 귀족 몰락, 왕권 강화

⑤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왕국**

- 이슬람 세력 축출 후 중앙 집권적 통일 국가 이룩
- 신항로 개척에 적극적 → 국외 식민지 획득으로 번영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260쪽

성직자, 기사, 농노

탐구 활동 ▶▶▶ 교과서 262쪽

1. 부역과 공납의 의무, 대장간 · 방앗간 등 시설 사용료 납부 등의 의무가 있었다.
2. 예시 답안 농노들은 봄에 밭에서 쟁기질을 하고 씨앗을 뿌렸다. 여름에는 양털을 깎거나 농장의 건초를 베었으며, 가을에는 포도를 따서 술과 주스를 만들었다. 겨울에는 땔감을 마련하고 돼지를 살찌웠으며, 봄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 인분을 준비하거나 잠시 쉬기도 하였다. 이처럼 농노들은 장원에서 쉴 새 없이 일하였다.
3. 예시 답안 중세 농노는 고대 노예처럼 자유롭지 못한 신분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고대 노예는 물건처럼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으며, 가정을 꾸리거나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다. 반면 중세의 농노는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였으며,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64쪽

비잔티움 제국에서 황제는 정치 · 군사 · 종교적으로 최고의 지배자였기 때문이다.

탐구 활동 ▶▶▶ 교과서 265쪽

구분	정치	경제	종교
중세 서유럽	봉건제	장원 발달	로마 가톨릭
비잔티움 제국	전제 정치	상공업 발달	그리스 정교

생각 열기 ▶▶▶ 교과서 266쪽

크리스트교

생각 열기 ▶▶▶ 교과서 268쪽

십자군

탐구 활동 ▶▶▶ 교과서 271쪽

1. 제12조, 제39조
2. 귀족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271쪽

1. (1) ×, (2) ○, (3) ○
2. (1) 카롤루스 대제, (2) 길드, (3) 십자군

내용 더하기

훈족 76차시

중앙아시아에 살던 유목 민족이다. 한때 중국에 침입하였으나 후한에 쫓겨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370년경 동고트족을 굴복시키고, 서고트족을 압박하면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었다. 훈족은 아틸라 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여 서로는 라인 강, 남으로는 다뉴브 강, 북으로는 스칸디나비아 남부, 동으로는 이란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아틸라 왕이 죽은 후 급속히 해체되기 시작하여 다뉴브 강 하류로 후퇴하면서 멸망하였다.

게르만족 76차시

게르만족은 원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남부와 발트 해 연안의 북부 독일 지방에 살고 있었다. 그러다 라인 강과 다뉴브 강 주변까지 진출하여 로마 제국과 접촉하게 되었다. 게르만족은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촌락 생활을 하며 살았으며, 주로 수렵과 목축, 농경에 종사하였다. 부족마다 왕과 귀족, 자유민, 노예가 있었으며, 중요한 사항들은 부족 전사들인 자유민의 모임에서 토론한 후에 결정되었다. 게르만족 사이에는 종사제(從士制)라는 전사 조직이 있었다. 이는 한 무리의 전사들이 유력한 우두머리를 따르며 그에게 충성을 바치고, 우두머리는 그들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제도였다. 게르만족은 로마 제국의 정치가 혼란해지고 국경 방비가 소홀해진 틈을 타 로마의 영역 안으로 진출하였다. 이들은 로마의 하급 관리나 용병이 되었으며, 농사를 짓기도 하였다. 게르만족은 훈족이 서쪽으로 이동을 시작하면서 대대적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편 게르만족은 다신교 사회였는데, 이동 직전에 아리우스파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였다.

프랑크 왕국의 발전 배경 76차시

게르만족의 일파인 프랑크족은 그들의 원주지인 라인 강 하류 지역을 버리지 않고, 그곳을 근거지로 삼아 세력을 서남쪽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일찍부터 로마 가톨릭교의 정통파를 받아들임으로써 로마의 주민들과 융합될 수 있었다. 프랑크 왕국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제휴하여 서로마 제국을 부흥시킴으로써 서유럽 사회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고, 게르만족의 전통과 로마 문화를 크리스트교로 결합시킴으로써 새로운 중세 유럽 문화를 이룩할 바탕을 마련하였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카롤루스 대제 76차시

프랑크 왕국의 국왕으로, 이베리아 반도와 브리튼을 제외한 서유럽의 대부분을 정복하여 크리스트교를 널리 전파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게르만족을 프랑크 왕국과 크리스트교로 통합하였다. 카롤루스 대제는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칭호를 받아 비잔티움 제국 황제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그는 성직자의 임명과 감독은 물론 크리스트교의 교리 문제에까지 간여하였다. 이후 로마 교회가 비잔타움 황제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동서 교회로 분열하게 되었다.

카롤루스 대제는 전국을 여러 주로 나누어 그 장관으로서 백(伯)을 두고 치안 · 사법 · 군사를 장악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독립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고자 귀족과 고위 성직자 2명으로 구성된 감찰관을 파견하여 감독하게 하였다. 변경이나 전략적인 요지에는 군대의 지휘관을 변경백이나 공(公)으로 임명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중앙 집권적 관료는 아니었다.

한편 카롤루스 대제는 게르만족의 여러 법률을 편찬 · 정비하였으며, 북유럽의 학자를 초빙하고 각지에 학교를 세웠다. 또 학문 연구를 후원하여 라틴 문화 부흥에 힘썼다. 이러한 문화의 번영을 가리켜 '카롤링거 르네상스'라 부르기도 한다.

프랑크 왕국의 분열 76차시

카롤루스 대제가 죽은 후 프랑크 왕국은 분열되었다. 이는 프랑크족 고유의 분할 상속제에 따라 카롤루스 대제의 손자들이 제국의 영토를 분할하여 상속받았기 때문이다. 또 카롤루스 대제가 실시한 통치 체제가 제국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제국의 전 영역을 통치할 만한 강력한 집권 체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카롤루스 대제의 아들인 루트비히 1세가 죽은 후에 일어난 내란은 베르됭 조약으로 매듭이 지어졌으나 프랑크 왕국은 3분되었다. 이후 다시 메르센 조약에 의하여 프랑크 왕국은 동프랑크 왕국, 서프랑크 왕국, 중프랑크 왕국으로 분열되어 지금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었다. 한편 프랑크 왕국의 쇠퇴와 내란은 노르만족의 침입을 격화시켜 정치 · 경제 · 사회의 봉건화를 촉진하였다.

노르만족 76차시

노르만은 스칸디나비아와 덴마크를 원주지로 하는 게르만족의 일파이다. 노르웨이족, 루스족, 데인족 등이 이에 속한다. 조선술과 항해술이 뛰어나고 호전적이었던 노르만족은 유럽의 거의 모든 해안 지방을 침범하였다. 특히 야밤에 허술한 곳을 골라 침입하였다가 새벽녘에 달아나는 전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들은 게르만족의 이동 당시 원주지에 머물며 어업, 농경, 목축, 해상 약탈 등에 종사하였는데, 8세기 무렵 본국에 통일 왕권이 형성됨에 따라 종래의 독립적 지위를 잃은 족장들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주민을 이끌고 약탈적 이동을 개시하였던 것이다.

9~10세기에 일어난 노르만족의 이동은 '제2의 민족 이동'이라 불리며 주로 해상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노르웨이족은 아이슬란드에 진출하여 북아메리카 대륙에 정주하였고, 루스족은 슬라브족을 지배하여 키예프 공국을 세웠다. 데인족은 한때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을 연결하는 대제국을 세우기도 하였다. 바이킹족은 카롤루스 대제 때 프랑크 왕국에 침입하여 10세기 초 서프랑크의 일부를 양도받아 노르망디 공국을 세웠으며, 1066년에는 영국을 정복하고 시칠리아와 남이탈리아에도 왕국을 건설하였다. 노르만족 이외에도 마자르족, 이슬람 세력이 자주 침입해 왔는데, 이에 따라 농촌은 황폐해지고 군사적 거점이 파괴되었으며,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쌍무적 계약 관계 76차시

봉건제에서 주군과 봉신의 주종 관계는 일정한 의무를 수반한다. 주군은 봉신과 그의 봉토를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봉신의 청원을 들어주며 봉신의 가족을 돌보아야 했다. 봉신은 주군에게 일정 기간 동안 군사적 의무를 다하고, 공납을 부담하는 등의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봉신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던가, 주군이 봉신을 보호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주종 관계는 무효가 되었다. 이를 쌍무적 계약 관계라 한다. 이것이 혈연관계에 바탕을 둔 중국 주대의 봉건제와 다른 점이다.

농노 76차시

장원에 속한 농노는 영주 직영지에서 부역 노동을 하였고, 사유지를 보유할 수 있었다. 농노는 고대 노예와 근대 자유민의 중간적 존재로, 부역은 물론 인두세, 사망세, 결혼세를 생산물 또는 화폐로 납부하였으며 교회에는 십일조를 바쳐야 했다. 또 영주에게 신분적으로 예속되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고, 영주의 시설물을 억지로라도 이용하

고 사용료를 부담해야 했으며, 영주의 재판권에 예속되었다. 영주는 자기 영내의 농노에 대해 실질적인 주군으로서 모든 특권을 행사하였다.

수도원의 교회 개혁 운동 76차시

로마 제국 말기에 크리스트교가 세속화되자 금욕주의에 입각하여 순수한 신앙을 되찾으려는 운동이 일어났다. 529년 베네딕트는 로마 근교의 몬테카시노에 수도원을 짓고 엄격한 계율을 정하여 복종, 청빈, 순결을 강조하였다. 또 기도, 면학, 근로에 힘쓰도록 하고 평생을 수도원에서 보낼 것을 서약하도록 하였다.

중세에 교회 세력은 이교도를 개종시킴으로써 정신적 · 종교적 측면에서 권위를 높여 갔다. 그리고 각지의 유력한 교회는 국왕이나 제후,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들로부터 많은 토지를 기증받아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세 시대의 교회는 제후와 마찬가지로 토지와 주민을 지배하였다. 하지만 교회 세력이 크게 확대되고 세속에 대한 지배 권력이 증대될수록 타락의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0세기 무렵 교회의 부패와 폐단은 극에 달하였는데, 그 가운데 가장 심한 것이 성직 매매였다.

이처럼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자, 성직자 중에서 교회의 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수도원의 개혁 운동을 시작하였다. 910년 일부 성직자들은 프랑스 어느 지역에 클뤼니 수도원을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개혁 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들은 교회 세속화의 근본 원인이 성직 서임권이 국왕이나 제후 등 세속의 지배자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봉토로서의 토지를 갖지 않았고, 수도사 스스로 수도원장을 선출하였다. 또 베네딕트 계율을 따를 것을 강조하였으며, 국왕이나 제후의 통제에서 벗어나 수도원을 로마 교황에게 직속시켰다. 이러한 교회 개혁 운동이 성공을 거두어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결국 클뤼니 수도원도 세속화되고 말았다.

카노사의 굴욕 76차시

11세기 후반 클뤼니 수도원 출신의 수도사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에 등위하였다. 그는 교회 개혁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직자의 결혼과 성직 매매를 금지하고 성직 서임권을 세속 군주로부터 빼앗아 교황이 장악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독일 내 많은 교회에 대해 실제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황제 하인리히 4세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성직 서임권을 둘러싸고 서임권 투쟁을 시작하였다.

하인리히 4세가 교황의 뜻에 반발하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황제를 파문하였다. 중세 사회에서 파문은 교황이 교인에게 내리는 최대의 형벌로, 황제의 파문은 바로 황제의 퇴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반(反)황제파 제후들이 하인리히 4세의 폐위를 결의함으로써 사태가 불리하게 전개되자, 하인리히 4세는 이탈리아의 카노사로 가 교황이 머물던 곳의 성문 앞에서 맨발로 3일간 사죄함으로써 사태를 진정시켰다. 그러나 그는 곧 독일로 돌아가 반대파 제후를 누르고, 다시 로마로 진격하여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추방하였다.

인노켄티우스 3세 76차시

교황권의 절정을 이룬 교황으로, 그는 교황권과 황제권을 태양과 달의 관계로 비유하였다. 인노켄티우스 3세는 1201년 프랑스 필리프 2세의 이혼 문제로 프랑스 왕을 파문하였고, 캔터베리 대주교 임명 문제를 두고 영국의 존 왕도 파문하였다가 사죄하자 그를 대신으로 삼았다. 불가리아, 포르투갈 왕에게도 봉신의 예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비잔티움 제국에 힘을 뻗쳐 제4차 십자군 결성을 주창하였고 이단에 대해서도 십자군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비잔티움 제국의 군사 조직 77차시

비잔티움 제국의 통치 체제는 7세기부터 한층 더 효율적으로 정비되어 갔다. 특히 군사 제도로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는 군관구의 사령관에게 군정과 민정을 맡기고, 병사에 대한 보수로 토지를 지급하여 병사와 농민의 의무를 겸하게 하는 제도였다. 이를 통하여 군정과 민정에 대한 황제의 통솔권을 강화하고, 자영 농민층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스콜라 철학 77차시

'스콜라'는 교회와 수도원의 부속 학원을 가리키는 말로, 스콜라 철학은 여기에서 일어난 학문을 말한다. 후에는 중세의 여러 대학에서 일어난 철학과 신학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중세 초기에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스콜라 철학자

들은 신앙과 이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겼다. 어떤 사람은 이성보다 신앙이 앞선다고 주장하였고, 어떤 사람은 이성을 중시하여 맹목적인 신앙을 배격하였다. 이것은 이른바 '보편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보편 논쟁은 보편적 관념의 실재 여부에 대한 주장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인 것으로, 실재론과 유명론으로 나뉜다. 실재론자들은 플라톤의 주장에 따라 보편적인 관념은 우리의 감각 세계를 초월하여 실재하는 것이며, 우리의 감각에 나타나는 개체적인 사물은 이러한 원형적인 관념의 불완전한 예시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유명론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계승하였으며, 보편적 관념은 사람들이 만들어 낸 단순한 명칭에 불과하며 실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대립과 논쟁은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여 종합되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 들여 "신학대전"에서 신과 인간, 우주의 문제를 다 같이 설명하는 이론적 체계를 밝혔다.

로마네스크 양식 77차시

로마의 영향을 받은 건축 양식으로, 고딕 양식이 등장하기 이전에 유행하였던 건축 양식이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온전히 돌로 건축한 양식이다. 무거운 지붕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벽면을 두껍게 하고 창을 거의 낼 수 없었다. 따라서 두꺼운 벽, 어두컴컴한 공간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느낌은 당시 크리스트교 포교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였다.



▲ 이탈리아 피사 대성당의 내부

성 소피아 대성당 77차시

비잔티움 예술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위용을 드높이고자 건립한 것으로, 10만 명의 인원을 동원하였으며 황제가 직접 감독하였다. 성 소피아 대성당은 내부는 바실리카 형식을 갖추고, 위에는 직경 31m의 돔을 세웠다. 내벽의 하부는 대리석으로 덮여 있으며, 상부는 유리 모자이크로 천사 등을 묘사하고 있다. 이곳에서 역대 비잔티움 황제의 대관식이 행해졌다. 1453년에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되었으나, 기본적 형식은 유지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키예프 공국 77차시

키예프를 수도로 한 러시아의 봉건 공국(公國)이다. 공국은 큰 나라로부터 '공(公)'의 칭호를 받은 군주가 다스리던 작은 나라를 말한다. 키예프의 군주는 모피, 벌꿀 등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비단, 술, 과일 등과 교환하였으며, 10세기 말에 비잔티움 제국에서 그리스 정교를 들여와 국교로 삼았다. 키예프 공국은 슬라브족의 정치 · 문화의 원천이 되었다.

성상 숭배 금지령 77차시

예수나 순교자 등의 성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크리스트교는 원래 우상 숭배를 금지하였으나, 로마 교회는 게르만족에게 포교하는 수단으로서 성상 숭배의 풍습을 중요시하였다. 그런데 726년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렸다. 여기에는 종교적인 뜻 이외에 수도원 세력을 억압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황제의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황제가 교회의 우두머리를 겸한다는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교황주의'는 로마 교황과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그리하여 11세기 중엽에는 마침내 동서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십자군 전쟁 78차시

서유럽 세계가 안정을 찾고 점차 성장할 무렵,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셀주크 튀르크가 일어나 아바스 왕조의 영토 대부분을 장악하였다. 또 비잔티움 제국으로부터 소아시아를 빼앗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직접 위협하였으며,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다. 셀주크 튀르크의 압박을 받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교황에게 구원을 요청하였고,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이에 호응하여 클레르몽 공의회를 열어 십자군 결성을 결의하였다.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출발하였던 1차 십자군은 어렵게 성지에 도착하여 이슬람교도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고, 거기에 예루살렘 왕국을 세웠다. 하지만

이는 이슬람교도의 분열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후 이슬람교도가 세력을 모아 크리스트교도를 공격하자 예루살렘은 다시 이슬람 세력의 수중에 들어갔다.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십자군이 파견되어 예루살렘을 되찾으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한편 4차 십자군은 베네치아 상인의 요청으로 예루살렘이 아닌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침략하였다. 이는 십자군의 목적이 세속적 이익 추구로 크게 변질된 것이었다.

중세 유럽의 농민 반란 78차시

14, 15세기 유럽에서는 경제적 지위가 향상된 농민이 농노의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자주 반란을 일으켰다. 1358년 백년 전쟁 중이던 프랑스에서는 과중한 세금에 시달린 농민(자크리)들 10만여 명이 모여 대규모로 봉기하였다. 이를 자크리의 난이라고 한다. 영국에서는 1381년에 와트 타일러의 난이 일어났다. 와트 타일러는 런던으로 진격하여 국왕과 회견하고 농노제의 폐지, 교회령의 몰수와 농민 분배 등을 교섭하다가 살해당하고 반란은 실패하였다. 와트 타일러의 난은 흑사병이 유행한 이후 점차 궁핍하게 된 영주가 봉건적 반동을 강화함으로써 일어났는데, 영국 농촌이 근대화되는 계기였다.

도시와 상업의 발달 78차시

십자군 전쟁 이후 원거리 무역이 발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인 계층이 생겨났다. 또 상인들의 상업 활동 근거지나 중심지로서 중세 도시가 널리 발달하였다.

상인들은 봉건 제후의 성곽 밖, 성당 또는 수도원이 있는 고대 도시 주변, 교통의 중심지 등에 자리를 잡고 일상생활과 상업 활동의 근거지로 삼았다. 이어 장원 안에 속해 있던 수공업자들도 모여들었다. 그리하여 본래의 성곽이나 주교 도시, 수도원 도시 주변에 이들이 거주하는 새로운 지구가 형성되었고, 이를 둘러싸는 새로운 성벽이 구축되었다.

도시와 상업의 발달은 결과적으로 왕권을 강화시켰고, 크리스트교의 권위는 상대적으로 약화시켰다. 이는 중세 사회의 바탕인 봉건제와 크리스트교 중심의 질서가 와해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흑사병의 영향 78차시

흑사병은 들쥐에서 옮긴 벼룩이 원인이 되어 생긴 질병이다. 14세기 중엽부터 유행한 흑사병으로 유럽 인 세 명 중 한 명이 사망하였는데,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은 사망률이 더 높았다. 이 때문에 유럽의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여러 변화가 나타났다. 노동력이 부족해져 임금이 상승하였고, 일부 지주들이 임금을 낮추려 하자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흑사병 유행 이전에 지주들은 이미 잉여 식량을 팔아 이윤을 내고 있었으며, 이윤을 위한 농사는 중세의 전형적인 토지 구획을 바꾸었다. 또한 화폐 경제의 발달로 봉건제는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대헌장 78차시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의 강제에 밀려 승인한 특허장이다. 존 왕이 프랑스 내의 영토를 상실하고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에게 굴복하여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자, 제후들이 반기를 들고 62개조의 대헌장을 존 왕으로부터 승인받았다. 대헌장은 영국 헌법의 시초가 되었다. 주요 내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교회의 자유, 도시의 특권, 국왕의 자의적인 과세 금지, 재판의 존중 등을 규정하였다. 대헌장은 제후의 권리를 보장한 봉건적인 성격의 문서였으나, 나중에 모든 국민의 권익을 옹호한 것으로 확대 해석되어 영국 입헌 정치의 기초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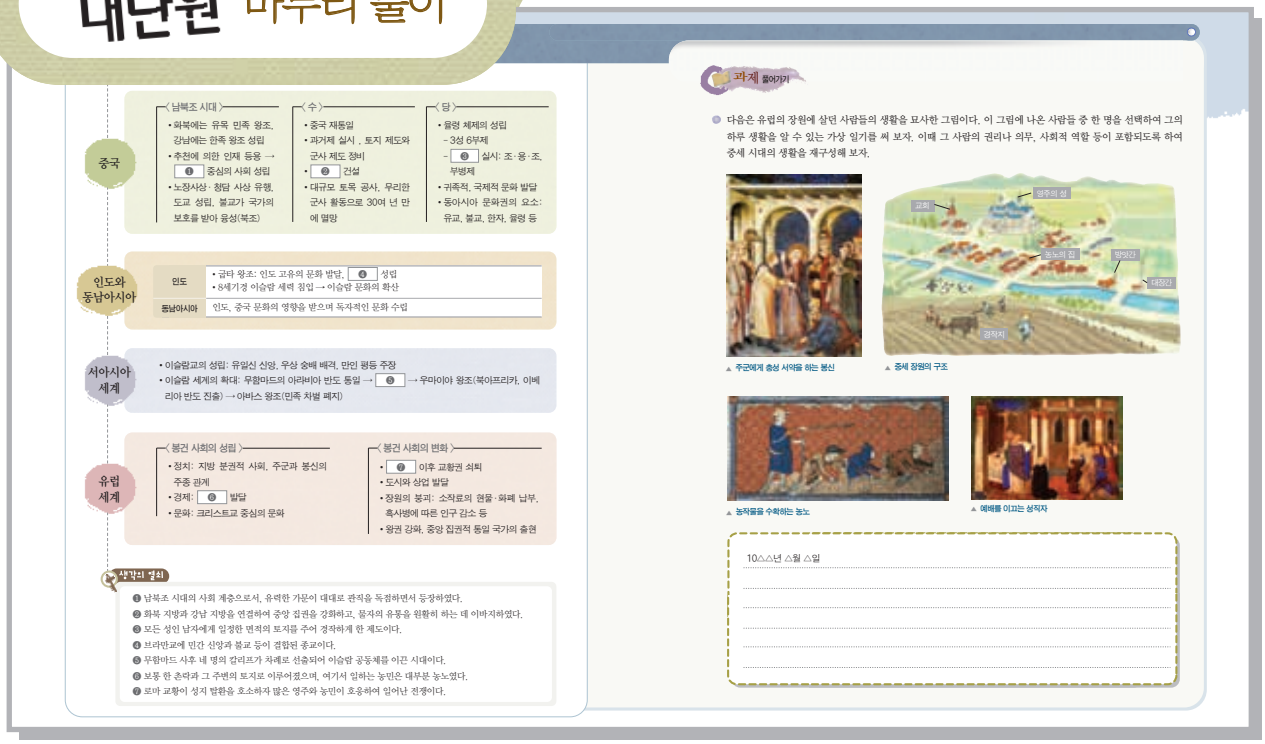
삼부회 78차시

성직자, 귀족, 평민 세 신분으로 구성된 프랑스의 신분제 의회로서, 국왕의 명령을 경청하고 실천에 옮기는 국왕의 자문 기관이었다. 필리프 4세는 삼부회의 지지를 받아 교황으로부터 과세권과 재판권을 쟁취하였으며, 1305년 로마로 군대를 보내어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를 아비뇽에 유폐하였다. 이로써 필리프 4세는 교황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프랑스 국민을 결속하여 프랑스 국민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프랑스의 삼부회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왕 스스로가 국민과 도시의 대표자를 소집하여 그들의 지지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영국의 의회는 제후들이 단결하여 왕권에 대항한 것이다.

장미 전쟁(1455~1485) 78차시

백년 전쟁 직후 영국에서 일어난 내란이다. 랭커스터가 문(붉은 장미 문장)의 헨리 6세와 요크가(흰 장미 문장)의 리처드가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1485년 랭커스터가의 튜더가 헨리 7세로 즉위하여 요크가의 엘리자베스와 결혼함으로써 끝나게 되었다. 전쟁 결과 오랜 전란으로 귀족 세력이 쇠퇴하여 왕권이 강화되어 갔다.

대단원 마무리 풀이



내용 확인하기

❶ 귀족

✚ 남북조 시대에 여러 특권을 누리면서 정치와 문화를 주도한 계층이다.

❷ 대운하

✚ 수 양제가 건설한 것으로, 이와 같은 대규모 토목 공사는 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❸ 균전제

✚ 이 제도에 따라 토지를 받은 성인 남자는 매년 곡물을 내고,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며 가정별로 직물을 내야 했다.

❹ 힌두교

✚ 굽타 왕조는 왕권을 강화하고자 이 종교를 후원하였다.

❺ 정통 칼리프 시대

✚ 이 시기에 이슬람 세력은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사산 왕조 페르시아, 이집트 등을 정복하였다.

❻ 장원

✚ 주군이 봉신에게 주는 봉토는 이 형태를 띤다. 봉신은 이것의 영주로서 농민을 지배하였다.

❼ 십자군 전쟁

✚ 셀주크 튀르크가 크리스트교도의 예루살렘 순례를 통제한 것이 발발 계기였다.

과제 풀어가기

| 예시 답안 |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영주님의 직영지에서 일해야 하는 날이다. 일주일에 3일은 반드시 영주님의 직영지에서 일을 해야 하니, 정작 우리 집 농사일은 잔뜩 밀려 있다. 영주님이 방앗간 사용료를 너무 올려서 부담이 된다. 이래저래 참 힘들다.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고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다. 그나저나 옆집에 살던 남자가 오후에 영주님께 재판을 받는다고 하던데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다.

대단원 짚고 가기

01 중국이 다음 지도와 같은 형세였을 때의 사실로 옳은 것은?



① 제자백가 사상이 유행하였다.
② 호족이 사회의 중심 세력을 이루었다.
③ 부국강병을 위해 법가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④ 호족이 관직을 독점하면서 사대부 사회가 형성되었다.
⑤ 북방 유목 민족의 왕조와 한족의 왕조가 서로 대립하였다.

02 당대의 경제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① 상업의 발달로 비전이 사용되었다.
② 시와 함께 당삼채 도자기가 유행하였다.
③ 도교가 유행하면서 불교가 크게 쇠퇴하였다.
④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⑤ 비단길을 이용한 국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0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일본의 국가 발전 단계는?

-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실과 귀족 세력 간의 대립이 심해지자 오늘날의 교토로 도읍을 옮겼다.
- 귀족과 외척의 정치 개입이 심해져 왕권이 더욱 약화되었다.
- 오늘날 일본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국풍 문화가 발달하였다.

① 나라 시대 ② 전국 시대
③ 헤이안 시대 ④ 야마토 정권
⑤ 가마쿠라 막부

04 다음과 같은 불상이 만들어졌던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① 힌두교 성립
② 대승 불교 발전
③ 인도 고유의 문화 성립
④ 산스크리트 어 문학 발달
⑤ 아잔타 석굴 사원의 불상과 벽화 조성

05 다음 설명과 관련이 있는 나라를 쓰시오.

- 베트남의 민족사 정리
- 쯔놈 문자 제정

06 다음은 어떤 종교의 실천 의무를 표현한 그림이다. 이 종교를 기반으로 성립한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① 최고의 경전은 쿠란이다.
②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었다.
③ 대표적인 문학 작품으로 "아라비안나이트"가 있다.
④ 아라비아 숫자를 완성하였고 연금술 등 자연 과학이 발달하였다.
⑤ 모스크의 벽면을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인 아라베스크 무늬로 장식하였다.

07 다음과 같은 상황이 유럽 사회에 끼친 영향은?

- 프랑크 왕국의 분열
- 노르만족의 이동과 침략

① 게르만족의 멸망
② 중세 유럽의 시작
③ 도시와 상공업의 발달
④ 비잔티움 제국의 성립
⑤ 중세 봉건 사회의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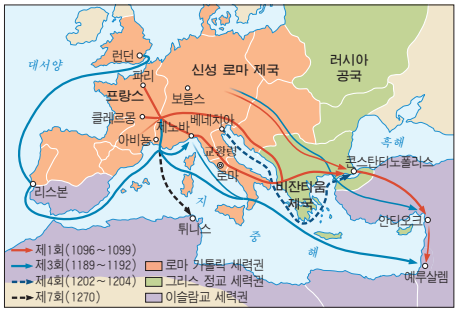
08 중세 장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주와 농노는 혈연관계이다.
② 자급자족의 농촌 공동체이다.
③ 농노는 영주의 시설물을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한다.
④ 영주는 주군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장원을 지배한다.
⑤ 농노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으나 재산을 가질 수는 있다.

09 다음은 비잔티움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이 건축물의 이름을 쓰시오.



10 다음 지도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후 동방 무역이 쇠퇴하고 장원제가 강화되었다.
② 이 사건의 결과 교황권이 쇠퇴하고 왕권이 강화되었다.
③ 로마 교황이 비잔티움 황제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④ 200여 년간 7차례에 걸쳐 실시되어 마침내 성지를 회복하였다.
⑤ 오스만 제국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크리스트교도의 순례를 방해한 것이 원인이었다.

11 중세 말 유럽 여러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 도시의 상공 시민층은 국왕을 지원하였다.
㉡ 영국에서는 국왕의 권위를 보장하는 대헌장이 선포되었다.
㉢ 프랑스에서는 삼부회가 창설되어 국왕이 교황을 굴복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 에스파냐 왕국에서는 왕위 계승권을 두고 귀족들 사이에 장미 전쟁이 일어났다.
㉤ 포르투갈 왕국은 적극적으로 신항로 개척에 나서 국외에 많은 식민지를 만들었다.

정답

01 ⑤ 02 ③ 03 ③ 04 ② 05 쩐 왕조 06 ⑤ 07 ⑤ 08 ①
09 성 소피아 대성당 10 ② 11 ㉠, ㉡, ㉤

Ⅸ 전통 사회의 발전과 변모


▲ 카라코룸에 남아 있는 몽골 제국 유적

① 단원의 개관

이 단원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특징이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 교류가 확대되면서 전통 사회의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파악한다.

01. 중국 전통 사회의 발전과 동서 교류에서는 송에서부터 청에 이르는 중국의 정치적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몽골 제국이 동서 교류의 확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특히 명 · 청 시대를 거치면서 전통 문화가 완숙기에 들어섰음을 살펴본다.

02. 일본 무사 정권과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모에서는 일본 무사 정권의 출현 이후 전개된 정치 변화를 살펴본다. 임진왜란의 발발과 조선의 대응 등을 국제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전후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본다.

03. 이슬람 국가의 발전과 서아시아 세계에서는 서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 국가들이 성립하고 발전한 과정을 파악하고, 이 지역에서 여러 민족과 종교의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이 실시되었음을 살펴본다. 또 오스만 제국이 오랫동안 대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와 동서 문화 교류에 기여했던 점을 알아본다.

04. 이슬람 세계의 확대와 인도 · 동남아시아의 변화에서는 무굴 제국의 성립과 발전을 이해하고, 무굴 제국 시대에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하였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파악한다. 또한 상인들의 활발한 해상 무역 활동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 이슬람교가 전파되고 이슬람 국가가 형성되었음을 살펴본다.

05. 유럽 사회의 변모와 절대 왕정의 등장에서는 르네상스에 따른 유럽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종교 개혁의 진행 과정과 그 영향을 살펴본다. 신항로 개척과 대서양 무역의 확대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미친 변화를 파악한다. 또 서유럽과 동유럽에서 나타난 절대 왕정의 차이점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유럽이 근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던 요인을 탐색한다.

② 단원의 목표

지식 · 이해	•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각 지역의 전통 사회의 모습과 정치적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 세계 여러 지역 간에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전통 사회의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기능	• 각 문화권에서 발전한 전통문화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 전통 사회의 다양한 발전상을 비교 · 분석하여 발표할 수 있다. • 세계 여러 지역 간에 이루어진 문화 교류의 확대 과정을 지도에 표시할 수 있다.
가치 · 태도	• 각 지역의 전통 사회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발전하였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진다. • 각 지역 간의 교류가 상호 필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간과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전통 사회와 문화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가 형성되었음을 깨닫고 바람직한 전통문화를 계승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3 단원의 구조와 지도 계획

차시	중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
79	01. 중국 전통 사회의 발전과 동서 교류	1. 송의 경제 발전과 서민 문화의 발달	문치주의 정책, 왕안석, 사대부 중심 사회, 성리학, 강남 개발, 서민층 성장
80		2. 몽골 제국과 동서 교류의 확대	북방 유목 민족의 통치 정책, 칭기즈 칸, 몽골 인 제일주의, 역참, 티베트 불교
81		3. 명 · 청 제국의 발전 ~4. 명 · 청 시대 전통 사회의 성장	유교적 통치 질서, 정화의 항해, 변발 강요, 신사(향신), 양명학, 고증학, 일조편법, 지정은제, 마테오 리치
82	02. 일본 무사 정권과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모	1. 일본 무사 정권의 출현	무사 계급의 성장, 무로마치 막부,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
83		2. 에도 막부와 일본의 발전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막부, 다이묘 통제, 통신사, 조닌 문화, 난학
84	03. 이슬람 국가의 발전과 서아시아 세계	1. 서아시아의 새로운 이슬람 국가	셀주크 튀르크, 술탄, 일한국, 티무르 제국, 사파비 왕조, 이란 · 이슬람 문화
85		2. 오스만 제국의 성립과 발전	콘스탄티노플 점령, 관용 정책, 예니체리
86	04. 이슬람 세계의 확대와 인도 · 동남아시아의 변화	1. 무굴 제국의 발전	아크바르, 아우랑제브, 힌두 · 이슬람 문화, 타지마할, 시크교
87		2. 동남아시아 세계의 발전	믈라카 왕국, 아유타야 왕조, 짜끄리 왕조, 응우옌 왕조
88	05. 유럽 사회의 변모와 절대 왕정의 등장	1.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인문주의, 지동설,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종교 개혁, 30년 전쟁, 베스트팔렌 조약
89		2. 신항로 개척과 대서양 무역의 확대	신항로 개척, 콜럼버스, 마젤란 함대, 삼각 무역, 아스테카 · 잉카 문명
90		3. 유럽의 절대 왕정	왕권신수설, 중상주의 정책, 계몽사상

4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 세계 제국으로서의 몽골 제국과 원나라의 차이에 유의하여 설명한다.
- 임진왜란을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모라는 맥락 속에서 설명한다.
- 무굴 제국에서 발달한 힌두 · 이슬람 문화의 특징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 신항로 개척의 결과와 영향을 서구 중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지양한다.
- 절대 왕정 시기가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대 시민 사회로 이행하는 역사적 과도기임을 설명한다.

5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 김호동, "몽골 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2010.
- 오금성, "명 · 청 시대 사회 경제사", 이산, 2007.
- 정두희 · 이경순,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 전쟁", 2007.
- 도널드 쿼터트, 이은정 역, "오스만 제국사", 사계절, 2008.
- 타밈 안사리, "이슬람의 눈으로 본 세계사", 뿌리와이파리, 2011.
- 제라르 르그랑, 정숙현 역, "르네상스", 생각의나무, 2006.
- 주경철, "대항해 시대",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김장수, "유럽의 절대 왕정 시대", 푸른사상, 2011.
- 이스탄불 문화원 http://www.turkey.or.kr/

| 교과서 | 276 ~ 287쪽

Ⅸ. 전통 사회의 발전과 변모

01 중국 전통 사회의 발전과 동서 교류

학습 목표

- 송대 문치주의 정책이 가져온 영향을 알 수 있다.
- 송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서민 문화가 발달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 요 · 서하 · 금 · 원 등 북방 민족이 중국을 통치한 방식을 비교할 수 있다.
- 명 · 청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명 · 청 시대의 경제 · 사회 모습과 문화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79	**1. 송의 경제 발전과 서민 문화의 발달**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중국 5대 10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성립한 나라는 어디일까?	문답식	
	[전개]		
	• 송대에 실시한 문치주의 정책의 배경과 결과를 설명한다.	강의식	PPT
	• 사대부 중심 사회의 특징을 이전의 귀족 중심 사회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CD
	• 성리학의 특징을 조사하고, 이전 시대의 훈고학과 비교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 송대의 경제적 발전이 서민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한다.	강의식	역사 부도
	• 송대 과학 기술의 발달이 해상 교역의 확대에 끼친 영향을 파악하게 한다.	탐구식	277쪽 사진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태조가 절도사들의 세력을 누르고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실시한 정책은?		
	2.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여 인간 행동의 기준을 찾으려 한 새로운 유학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80	**2. 몽골 제국과 동서 교류의 확대**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몽골족을 통일하고 중앙아시아와 서하를 정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문답식	
	[전개]		
	• 유목 왕조가 자신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면서 이중 정책을 실시하였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PPT
	• 남송 주변에 있던 여러 왕조를 확인하고, 당시의 국제 정세를 파악하게 한다.		278쪽 지도
	• 칭기즈 칸의 일대기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몽골 제국의 성립 과정을 이해하게 한다.	발표식	인터넷
	• 지도를 활용하여 몽골 제국의 최대 영역과 4한국의 위치를 파악하게 한다.	강의식	279쪽 지도

80	• 원의 민족 차별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이 중국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280쪽 자료
	• 몽골 제국이 동서 교류에 끼친 영향을 토론하게 한다.	토론식	281, 282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몽골 제국이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교통 · 통신과 물자 유통을 원활히 하고자 설치한 시설은?	문답식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81	**3. 명 · 청 제국의 발전 ~ 4. 명 · 청 시대 전통 사회의 성장**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청이 한족 남성에게 강요한 만주족의 풍속은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주원장이 명을 건국하고 유교적 통치 질서를 강화하였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PPT
	• 정화의 해상 활동이 갖는 의미를 지도를 활용하여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283쪽 지도
	• 명의 멸망 과정과 청의 중국 정복 과정을 설명한다.	강의식	CD
	• 청의 중국 지배 방식을 회유책과 강압책으로 나누어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 청의 전성기와 영토 확장 과정을 지도를 통해 확인한다.	강의식	284쪽 지도
	• 명 · 청대 신사(향신)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설명한다.		
	• 명 · 청대 유학의 특징을 파악하고, 중국 각 왕조에서 발달했던 유학의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인터넷
	• 명 · 청대 상품 경제의 발전을 설명하고, 세계 은의 유입이 끼친 영향을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286쪽 자료
	• 명 · 청대 서민 문화의 발달과 중국에 전래된 서양 문화의 내용을 설명한다.	강의식	역사 부도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명 · 청대의 중심 세력으로 특권을 누리면서 국가가 향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준 계층은?		
	2. 명 말에 천주교를 소개하였으며, 곤여만국전도를 만든 사람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송의 경제 발전과 서민 문화의 발달

(1) 송의 문치주의 정책

① **조광윤(태조)**: 지방 절도사 세력 약화,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문신 중심의 정치 실시 → 군사력 약화 → 북방 민족의 침입

② **왕안석의 개혁**

- 내용: 부유한 지주와 대상인의 이익 억제 → 가난한 농민과 소상인 보호
- 결과: 보수적인 관료들의 반대 → 실패

(2) 사대부 중심 사회

① **사대부**: 대토지(장원) 소유, 과거를 통해 관료로 진출

② **성리학(주자학)**: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 연구, 군신 사이의 의리와 대의명분 강조

(3) 경제 발전과 서민 문화의 발달

① **강남 지방 개발**: 화북 지방의 경제력 추월

② **상공업 발달**: 도시 성장, 동업 조합 성행, 화폐 유통 활발

③ 서민층의 성장과 서민 문학의 발전

(4) 과학 기술

① **활판 인쇄술**: 서적 보급, 문화 발전에 이바지

② **화약과 나침반 발명**: 무기 제조 방법과 항해술 발전 → 이슬람 세계와 유럽에 전파

2. 몽골 제국과 동서 교류의 확대

(1) 북방 유목 민족의 성장

① **요**: 10세기 초 건국, 이중 정책, 거란 문자

② **서하**: 11세 탕구트족 건국, 중계 무역, 서하 문자

③ **금**: 12세기 초 건국, 이중 정책, 여진 문자

(2) 몽골 제국의 성립

① **테무친**: 몽골 부족 통일 → 칭기즈 칸으로 추대

② **몽골 제국 건설**: 칭기즈 칸의 후손들이 아시아에서 동부 유럽까지 정복 → 대제국 건설

③ **원과 4한국 성립**: 왕위 계승 분쟁과 점령지 분배 관습에 따라 분열

(3) 원의 중국 지배와 쇠퇴

① **건국**: 쿠빌라이(세조)가 대도(베이징)로 천도, 국호를 '원' 이라 함, 남송 멸망 → 중국 전역 지배

② **몽골 인 제일주의**: 민족 차별 정책 → 몽골 인의 고유 전통 유지, 민족 간 갈등 심화

③ **원의 쇠퇴**: 왕위 계승 분쟁, 경제적 혼란 → 한족의 반란으로 점차 쇠퇴

(4) 원대의 동서 문화 교류

① **역참 제도의 정비**

- 목적: 광대한 영토의 효율적인 통치, 원활한 교통 · 통신과 물자 운반
- 운영: 일정 간격마다 역참 설치 → 통행자에게 숙식과 말 제공
- 결과: 활발한 동서 교류 → 유럽 인, 이슬람 상인들의 중국 방문

② **해상 교역 번성**: 항구 발달, 외국인 거류지 형성

(5) 원대의 문화 발전

① **다양한 문화 유입**: 이슬람의 자연 과학, 건축, 미술 등 전래

② **외래 종교**: 크리스트교, 티베트 불교(라마교) 등 유입

③ **서민적인 구어체 문학 발달**: "서유기", "비파기" 등

3. 명 · 청 제국의 발전

(1) 유교적 통치 질서 강화

① **명 건국**: 주원장(홍무제)이 금릉(난징)을 수도로 건국

② **홍무제의 정책**

- 한족의 전통문화 회복: 과거제 부활, 법령 정비
- 유교적 통치 질서 강화: 육유(六諭) 반포

(2) 명의 발전과 쇠퇴

① **영락제**: 베이징으로 천도, 정화의 항해

② **쇠퇴와 멸망**

- 왜구와 몽골족의 침략
- 임진왜란 때 출병 → 국력 약화
- 각지에서 농민 반란 발생 → 이자성의 농민군에게 멸망

(3) 청의 중국 지배

① **청의 건국**

- 후금 건국: 누르하치(태조)가 만주족 통일
- 홍타이지(태종): 국호를 '청' 이라 고침.
- 순치제(세조): 베이징 점령 후 도읍으로 삼음 → 중국 지배

② **청의 중국 지배**

- 회유책: 과거제 실시, 한족을 관리로 등용, 조세 경감
- 강압책: 변발 강요, 만주족 비난 엄금

(4) 청의 영토 확장

① **전성기**: 강희 · 옹정 · 건륭제의 3대

② **네르친스크 조약**: 러시아의 남하 정책 저지, 국경선 확정

③ **영토 확장**: 칭하이, 신장, 티베트 등 차지

4. 명 · 청 시대 전통 사회의 성장

(1) 신사(향신)의 등장

① **등장 배경**: 전국에 학교 설립, 과거 시험의 확대

② **활동**: 관료 진출, 향촌 사회 지도, 면세 특권

(2) 유학의 변화

① **양명학**: 명 말에 등장, 지식과 실천의 일치 주장

② **고증학**: 실증적이고 과학적 방법의 학문 탐구

(3) 상품 경제의 발전

① **농업 발달**: 상품 작물, 외래 작물 재배 확산

② **수공업 발달**: 면화의 활발한 재배 → 면직업 발달

③ **무역**

- 민간의 대외 교역 통제 → 16세기 이후 민간 교역 활발
- 비단, 도자기, 차 수출 활발
- 포르투갈 · 에스파냐와 교역 → 멕시코의 은 유입

④ **조세 제도의 변화**: 일조편법(명), 지정은제(청)

(4) 서민 문화의 발달과 유럽 문화의 전래

① **서민 문화의 발달**

- 배경: 상공업과 도시의 발달, 서민 계층의 성장
- 문학: "수호전", "홍루몽" 등 구어체 소설 유행

② **서양 문화의 전래**

- 크리스트교 선교사: 유럽의 새로운 학문과 기술 소개
- 마테오 리치: 천주교 소개, 곤여만국전도 제작

③ **유럽 문화의 영향**

- 중국인의 과학 지식 발전, 실용적 학문 발달
- 유교의 전통 예절과 마찰 → 크리스트교 금지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276쪽

사대부, 이들은 유교 지식을 갖추고 대토지(장원)를 소유하였으며, 과거 시험을 거쳐 관료가 되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78쪽

중국에 들어온 유목민들은 한족에 대해서는 농경민에게 적용되던 군현제를 실시한 반면, 유목민에게는 고유의 부족제를 유지하게 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문자를 만들거나 고유한 풍습을 지키면서 중국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한편 몽골족이나 만주족은 한족을 차별하는 정책을 실시하거나 한족에게 유목민의 풍습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280쪽

1. 몽골이 대외 정복을 하는 과정에서 전쟁에 협력한 정도에 따라 각 민족을 차별 대우하였다.
2. 색목인은 상업과 언어에 재질이 있어 주로 재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83쪽

명 · 청대에는 유교적 통치 질서를 중심으로 중앙 집권을 강화하였으며, 대외 팽창 정책을 통해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85쪽

명 중기 이후 상품 작물이 재배되고 면직물 등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강남 지역이 경제적으로 번성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286쪽

1. 에스파냐, 포르투갈 등은 중국의 비단, 도자기, 차 등을 구입하고 대금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채굴한 은을 지불하였다. 이에 대량의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2. 명대에는 세금을 은으로 내게 하는 일조편법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청대에 부역과 토지세를 합쳐 토지에 부과하여 은으로 내게 하는 지정은제로 발전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287쪽

1. (1) 성리학, (2) 신사
2. (1) ㉡, (2) ㉣, (3) ㉠, (4) ㉢

내용 더하기

5대 10국 79차시

당이 멸망한 후, 각지의 절도사들이 각각 독립된 국가를 세우면서 중국은 다시 분열하였다. 황허 강 유역의 중원 지방에는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의 다섯 왕조[五代]가 잇달아 성립하였고, 강남 등 기타 지역에는 오, 남당, 오월, 민, 초, 형남, 전촉, 후촉, 남한, 북한 등 10국이 병존하였다. 당 말기에 절도사들이 건국한 이 나라들은 대부분 국가 체제를 갖추지 못하여 무력 집단적 성격이 강하였다. 일반적으로 5대 10국 가운데 5대를 정통으로 보는데, 형식적이나마 5대 정권이 당을 이어 송으로 계승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왕안석의 개혁 79차시

송 건국 초반부터 실시된 문치주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관료가 급증하면서 경비 지출이 증대되었고 국방력이 약해졌다. 게다가 국방력이 약화된 틈을 타 북방 유목 민족이 침입하여 이들 국가에게 지급하는 세폐의 양도 막대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6대 황제 신종(神宗)은 왕안석을 중용하여 개혁을 단행하였다.

왕안석의 개혁은 국정 전반에 걸쳐 실시되었으나, 개혁의 목적은 대지주와 대상인을 억제하고, 자작농 · 소지주 · 소상인을 보호하여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이민족(거란과 서하)의 침입을 막아 낼 수 있는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왕안석은 균수법, 청묘법, 시역법, 보갑법, 보마법, 모역법 등 수많은 법을 실시하였다. 약 10년 동안 진행된 개혁 정치는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이전의 '구법'을 옹호하는 세력과의 충돌을 가져왔다. 이후 신법당과 구법당의 당쟁이 격화되어 정치는 더욱 혼란에 빠졌다.

개혁	특징
청묘법	춘궁기에 정부가 농민에게 돈이나 곡식을 빌려 주고, 추수 후 낮은 이자로 돌려받음.
시역법	중소 상인들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줌.
균수법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 이외의 제품들은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여 판매하고, 부족한 물자는 운송비가 적게 들고 가격이 싼 곳에서 직접 구매하여 조달하도록 함.
모역법	부역을 면제시켜 주는 대신 돈을 받아 그것으로 국가의 노동력을 충당함.
보갑법	병농 일치의 민병 제도
보마법	농사를 짓고자 하는 집마다 말을 빌려 주는 대신 군마로 키우게 함.

성리학(주자학) 79차시

송대의 성리학은 훈고학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성리학은 자구의 해석에 치중하던 훈고학에서 탈피하여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규명하고자 한 사상으로, 북송의 주돈이에서 비롯하여 정호 · 정이 형제를 거쳐 남송의 주희가 집대성하였다.


▲ 주희

주희(주자)는 우주의 근본 원리인 이(理)에 기초를 두고 움직이는 기(氣)가 일체가 되어 만물이 성장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인간 도덕에 있어서도 기(氣)를 억제하고 본성으로 돌아가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성리학은 군신(君臣) 간의 의리와 대의명분을 중시하여 군주 독재 체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의 정통성을 확립하려 하였다. 또한 인간의 불평등을 인정하고 관혼상제의 규범을 엄격히 하였으며, 남녀를 차별하였다.

청명상하도 79차시

청명상하도는 장택단이 북송의 수도인 변경(카이펑)의 청명절(4월 5일경) 모습을 그린 두루마리 그림이다. 이 그림은 세로 24.8cm, 가로 528.7cm의 얇은 비단에 변경을 흐르는 강가 주변의 시끌벅적한 풍경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변경(카이펑)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이 사는 상업 도시로서 각종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부유한 상인들은 대개 상업에 종사하거나 무역 중개인으로 활동하였다. 그림에는 600여 명의 사람, 100여 채의 집, 34개의 점포, 48개의 마차 · 배 · 가마, 84마리의 가축, 20여 개의 교량, 20여 척의 선박 등이 등장한다. 또 사(士), 농(農), 상(商), 의(醫), 승(僧), 도인(道人)이나 여성, 뱃사공 등의 인물과 나귀, 말, 소, 낙타 등의 가축이 등장한다. 이처럼 청명상하도는 당시의 풍경을 풍부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북송의 사회 · 경제사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송대 과학 기술의 발달 79차시

송대에 발명된 화약, 나침반, 인쇄술을 가리켜 송대의 3대 발명품이라 한다. 여기에 후한대 채륜의 제지법을 더하면 중국의 4대 발명이라 불린다.

특히 인쇄술의 등장은 서적을 널리 보급하는 계기가 되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목판 인쇄술과 함께 목활자 인쇄가 보급되면서 불경과 유학서 등이 간행되었다. 송대의 인쇄술에서 유명한 것은 인쇄공 필승이 점토와 아교를 혼합하여 만든 교니 활자인데, 이는 곧 목재 활자로 바뀌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발전시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

요와 금의 이중 통치 정책 80차시

중국에 들어온 유목 민족들은 한족에 대해서는 농경민에게 적용되던 군현제를 실시한 반면, 유목민에게는 고유의 부족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요(거란)는 북면관과 남면관을 파견하여 그 지역의 특징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게 하였다. 이것은 유목 생활을 하는 거란족과 농경 생활을 하던 한족을 상황에 맞게 다스리도록 한 것이었다. 금(여진) 역시 맹안 모극제라는 이중 통치 정책을 실시하였다. 맹안 모극제는 원래 군사적 단위였던 1모극(300호)을 최소 단위로 하여 10모극을 1맹안으로 편성한 제도로, 1모극에서 약 100명의 군사를 징집하여 군대를 편성하였다. 1모극은 행정 단위이자 군사 단위로 운영되었다.

원과 4한국 80차시

칭기즈 칸이 죽은 후 관습에 따라 몽골 제국은 자손들에게 나누어져 원과 4한국으로 성립하게 되었다.

쿠빌라이는 즉위 후 베이징으로 천도하고 국호를 원(元)으로 정하여 원의 초대 황제가 되었다. 이후 중국 관제를 채용하는 한편, 몽골 인 제일주의 정책을 견지하였다.

우구데이는 에밀에 수도를 두고 우구데이한국을 세웠으나, 4대 하이두가 여러 칸과 동맹을 맺어 원에 반항하다가 1306년에 차가타이한국에 병합되었다. 차카타이한국의 수도인 알말리크는 동서 교통의 요충지로 번영하였다. 차가타이한국은 14세기 초 중앙아시아에서 패권을 굳혔으나 곧 분열했으며, 이후 서(西)차가타이한국에서 티무르가 출현하였다.

킵차크한국은 바투가 남러시아에 세운 한국으로 수도는 사라이였다. 14세기 전반에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차츰 이슬람 문화와 튀르크 인에게 동화되었다. 후일 티무르의 압박을 받았고, 1380년 모스크바 대공국과의 싸움에서 패하며 쇠퇴하였다.

훌라구는 형 몽케의 명령에 따라 이란 원정길에 올라 1258년 바그다드를 공략하여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정권을 멸망시키고, 1259년 일한국을 건설하였다.

쿠빌라이 80차시

쿠빌라이는 칭기즈 칸의 손자이자 몽골 제국의 제5대 황제(세조)이다. 1251년에 형 몽케가 황제가 되자 쿠빌라이는 중국 정복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였다. 그러나 몽케가 남송 정복 전쟁 중에 급사하자, 쿠빌라이는 개평(내몽골의 도론놀)에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쿠빌라이는 수도를 대도(베이징)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원(元)으로 정하였다. '원' 이라는 국호를 채용한 것은 중국적인 왕권 관념을 나타낸 것이고, 수도를 대도로 정하고 운하를 정비한 것은 이동적인 유목 국가에서 탈피한 것을 상징한다.

이 시기에 이슬람 상인들은 물론 마르코 폴로를 비롯한 유럽 인들도 빈번하게 원을 왕래하였다. 그 결과 원에는 언어와 풍습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이에 쿠빌라이는 몽골 인 · 색목인 · 한인 · 남인이라는 4단계의 신분 규정 원칙을 세웠는데, 특히 한인과 남인보다 색목인(서역인)을 상위에 두었다. 이는 색목인의 협력을 토대로 중국 통치를 수행하려 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실시한 몽골 관습법의 유지, 파스파 문자의 제정과 사용, 라마교의 신봉, 몽골 어의 공식 사용 등은 몽골족의 한화(漢化)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역참제 80차시

몽골 제국에 이르러 여러 대도로망은 '초원의 길' 을 매개로 연결되어 유라시아 전 지역을 잇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출현하였다. 간선 도로에는 약 40km마다 역이 설치되어 역마 · 식량 · 숙소를 제공하였다. 교통로를 왕래하는 관리나 사절에게는 특별한 통행증(패자)이 발급되었는데, 칸이 급파한 관리들은 말을 바꿔 타면서 하루 밤낮에 450km를 주파하였다고 전해진다.

몽골 제국이 관리하던 중앙아시아의 도로는 "황금판을 머리에 이고 걸어도 안전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안정된 상태였다. 그리하여 유라시아 각지의 상인이 빈번하게 왕래하였다. 거대한 유라시아 네트워크의 동쪽 중심은 '칸발릭(칸의 도시)' 이라고 불리던 대도(베이징)였고, 서쪽 중심은 일한국의 수도 타브리즈였다.

동방견문록 80차시

마르코 폴로(1254~1324)는 이탈리아의 상업 도시 베네치아에서 무역상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15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 니콜로 폴로를 따라 동방 여행을 떠났다. 마르코 폴로는 그 후 원에서 17년간 관리로 일하면서 중국 각 지역을 여행하였다.

1290년 마르코 폴로는 일한국 국왕에게 시집가는 원의 왕녀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고, 1292년 취안저우를 출발하여 인도차이나, 자와, 실론, 페르시아를 거쳐 1295년에 고향인 베네치아로 돌아왔다. 이후 제노바와의 전쟁에 참가했다가 포로가 되어 감옥에 갇혔다. 이때 작가 루스티켈로는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기록하여 책으로 엮었는데, 이것이 바로 "동방견문록" 이다. "동방견문록" 의 원제는 "세계의 서술(Divisament dou Monde)" 이었다. 이는 유럽 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담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비파기 80차시

원 말 중국의 남방계 희곡을 뜻하는 '남희(南戲)' 라는 희극 형식의 대표작으로, 고명이 지었다. "비파기" 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진류 지방에 살던 채백개는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분부를 받들어 서울에 가 과거에 응시하여 단번에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당시 조정의 승상이었던 우씨는 그런 그를 사위로 삼으려 하였다. 채백개는 처음에 강경하게 거절하였으나, 황제와 우씨의 적극적인 권유로 결국 우씨의 사위가 되었다. 한편 채백개의 고향에는 대기근이 밀어닥쳤다. 채백개의 처 조오랑은 자신은 술지게미나 들풀을 먹으면서도 시부모에게는 정성을 다하여 봉양하였으나 시부모는 모두 굶어 죽고 말았다. 서울로 남편을 찾아 나선 그녀는 여정 내내 비파를 타며 구걸을 하였다. 거리를 헤매던 조오랑은 우연히 우 승상의 집에 들어가 비파를 타다가 우씨 부인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우씨 부인은 채백개와 조오랑을 재회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이후 채백개는 관직을 버리고 조오랑과 우씨 부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의 묘소 곁을 지켰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황제는 채씨 가문을 표창하였다.

주원장 81차시

주원장은 명(明)의 초대 황제(재위 1368~98)로, 묘호는 태조(太祖)이고 재위 연호를 따라 홍무제라고도 한다. 빈농 출신인 그는 17세에 고아가 되어 탁발승으로 지내다가 홍건적의 부장 곽자흥의 부하가 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훗

날 각지의 군웅들을 굴복시키고 명을 세웠으며, 북벌군을 일으켜 원을 몽골로 몰아내고 중국을 지배하였다. 한족 왕조를 회복하였으며, 모든 국정에 일일이 간섭하면서 강력한 황제 독재 체제를 이루었다.

정화의 항해 81차시

정화는 이슬람교를 믿는 환관으로, 본명은 마화(馬和)이다. 1402년에 영락제가 건문제를 몰아낼 때(정난의 변) 영락제를 도와 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이때 정(鄭)씨 성을 하사받았다.

1405년 정화는 317척(대형 62척, 중·소형 255척)의 크고 작은 배에 2만 8천여 명의 선원을 태우고 항해를 시작하였다. 그는 25년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항해함으로써 동남아시아, 인도양, 아라비아, 나아가 아프리카 동북 해안에까지 명의 존재를 알렸다.



▲ 케냐의 말린디에서 명에 조공품으로 바친 기린

정화의 항해 이후 중국은 30여 개 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으며, 동남아시아의 국가들도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 무역이 활발해졌다. 또한 원정대에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 국외의 사정이 알려지면서 동남아시아로 이주하는 중국인들이 늘어 화교 진출의 계기가 되었다.

이자성의 난 81차시

산시 성 연안의 빈농 집안에서 태어난 이자성은 기근으로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자 반란군에 가담하였다. 처음에는 반란군의 일원으로 활약하다가 점차 두각을 나타내면서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는 명의 주력군이 만주 지역에 배치된 상황을 이용하여 큰 저항 없이 창장 강 이남 지역을 차지하였다.

이자성은 1644년에 시안에서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나라 이름을 대순(大順)이라 정한 후 베이징으로 진격하였다. 3월 1일 수도 베이징이 함락되고 명의 숭정제(의종)가 자금성 북쪽 만세산에서 자결하면서 명은 멸망하였다. 이자성은 관제를 개혁하는 한편, 산하이관에 있던 명의 장군 오삼계를 토벌하러 나섰으나, 청의 원조를 받은 오삼계에 대패하여 베이징을 버리고 퇴각하였다. 이후 이자성의 반란군은 청군의 공격을 받아 토벌되었다.

변발의 강요 81차시

한족은 본래 남자도 두발을 길러 머리 뒤쪽에서 묶는 관습이 있었다. 반면 만주족은 머리 가운데 부분만 남기고 주위의 머리를 깎은 다음, 남은 머리를 뒤로 길게 땋아 늘어뜨리고 다녔다. 이를 변발이라 하는데, 만주족뿐만 아니라 북방의 대다수 민족에게 보이는 풍속이었다.

청은 1644년 변발을 강제하는 법령을 내렸지만 반발이 거세게 일자 잠깐 중지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두발을 남기는 자는 머리를 남기지 않는다."라고 위협하며 재차 변발을 강요하였다. 청조의 지배 아래 변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머리를 완전히 깎고 승려가 되는 길밖에 없었다. 지식인들 가운데는 실제로 이 길을 택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강희제 81차시

청의 제4대 황제 강희제(재위 1661~1722)는 1661년에 8세의 나이로 황제에 즉위하여 15세에 친정(親政)을 시작하였다.

그는 61년 동안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 삼번의 난을 평정하고 타이완, 외몽골, 칭하이, 티베트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한편, 명대의 1년치 궁정 운영비로 1년치 세출을 꾸려 나갔다고 할 정도로 왕실과 정부의 지출을 간소화하였다. 황제 재위 50주년을 기념하여 그해의 모든 정남 수(2,460만 명)를 인두세의 정액으로 정하고, 그 후의 인구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체 과세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채택할 정도로 재정을 충실히 하여 청 왕조 번영의 기초를 쌓았다.

네르친스크 조약 81차시

17세기 중엽 러시아는 헤이룽 강까지 진출하여 네르친스크, 알바진 등지에 성을 구축하였다. 당시 청은 중국 본토로 진출한 초반이었기 때문에 국내 정비에 여념이 없어 러시아 세력의 진출을 견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681년 삼번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하기 시작하였고, 1685년에는 헤이룽 강 북안의 알바진 성을 함락하였다. 일단 네르친스크로 후퇴하였던 러시아가 다시 알바진 성으로 진출하자, 청이 이에 맞서 공격하던 중 휴전이 성립되었다. 그 결과 청의 전권대신과 러시아 전권대신 사이에 네르친스크 조약이 조인되었다(1689). 이 조약으로 청은 그동안 세력을 미치지 못하였던 헤이룽 강 북안을 19세기 중엽까지 확보하였고, 러시아는 베이징에서 무역을 지속할 수 있었다.

명 · 청대 신사층 81차시

명 · 청대에는 사회의 지배 계급으로서 신사층의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신(紳)' 이란 관리를 뜻하고 '사(士)' 란 학위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명대에는 관리 임용의 등용문이 과거 합격자 외에 학교 출신자에게도 열려 있어 이들 모두가 국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신사층은 조세와 부역을 면제받았고 면책권도 있었다. 송대에는 과거에 합격하여 관료가 된 사람만을 사대부라 칭하였기 때문에 수적으로 많지 않았으나, 명 · 청대에는 관료와 함께 학교 출신의 학위 신분까지 합쳐 신사라 하였기 때문에 그 수가 급증하였다.

신사층은 관직으로 출세하는 길이 어렵게 되자 향촌에 머물면서 정부와 백성 사이에서 특수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들은 백성 교화에 힘쓰고 국가를 위해 조세를 거두어 들였으며, 수리 시설 등 지방 이권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이용하여 자신들을 위한 영리 사업을 벌였고 백성을 착취하였으며, 반란 세력과 결합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양명학과 고증학 81차시

양명학은 명 중기에 왕양명이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주장한 학설로, 마음에 기반을 둔 '심즉리(心卽理)' , 즉 주관적 실천을 중시한 사상이다. 참다운 진리는 실천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지행합일(知行合一)' 을 주장하였고, 명 후기에는 성리학을 대신하여 사상계의 주류를 이루었다.

고증학은 청대에 등장한 학풍으로, 문헌을 통한 실증적 방법으로 중국의 고전을 비판하고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민족 왕조인 청의 사상 통제 때문에 학문의 사상적 비판보다는 문헌 고증적 연구 방법에 치중한 탓이다. 고증학은 고염무, 황종희 등에서 시작하여 전대흔 때 완성되었는데, 실사구시(實事求是, 사실을 근거로 진리를 구한다.), 무징불신(無徵不信,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는다.)의 원칙하에 실증주의적 방법으로 고전을 연구하였다.

사고전서(四庫全書) 81차시

청의 제6대 황제 건륭제 때 이루어진 대규모 편찬 사업으로 완성되었다. 이 작업은 전국에서 서적을 모아 교정한 후 좋은 판본을 가려 집성한 것으로, 8만 권에 가까운 방대한 총서 편찬이었다. 이 총서는 경전 · 역사서 · 제자백가서 · 문집의 4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四庫)' 라는 이름이 붙었다.

처음에는 방대한 분량 때문에 출판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만들어 궁중 및 각지의 이궁(離宮)에 비치하였다. 그 후 강남 지방의 3개소에 더 비치하여 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편찬 사업은 학문 발전에 이바지하였지만, 청 왕조에 불리한 서적을 금지하기 위한 검열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

일조편법과 지정은제 81차시

16세기 후반에 이르면 명대에 각 지방별로 추진되었던 부세 제도의 개혁이 하나로 집약되는데, 이것이 바로 일조편법이다. 내각 대학사 장거정이 고안한 이 제도는 기존의 복잡한 부세 징수 방법을 개혁하여 납세호의 부담을 평균화하고자 만들어졌다. 즉 토지세와 요역, 인두세 등 부세의 여러 항목을 항목별로 단일화하고, 대부분 은으로 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납세호가 지닌 토지 결수와 성인 남자의 수에 맞추어 계산하여 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지역에 따라 시행 시기는 다르지만 대체로 17세기 초(명말)에 일반화되었다.

훗날 청에서는 이것을 더욱 간소화하여 지정은제를 실시하였다. 지정은제는 정세(丁稅)를 토지세에 포함시켜 은으로 징수하는 제도이다. 이로써 정세는 그 모습을 감추게 되었으며, 정세의 소멸은 통계상 급격한 인구 증가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마테오 리치와 곤여만국전도 81차시

마테오 리치(1522~1610)는 이탈리아의 예수회 선교사로, 중국 이름은 이마두(利瑪頭)이다. 1581년에 중국에 온 후 고관의 신임을 얻어 서광계, 이지조 등과 교류하였으며, 크리스트교 전파에 힘써 17세기 초에는 신종을 알현하고 포교 활동을 허락받았다.

마테오 리치는 "천주실의" 를 한문으로 번역하였고 유클리드의 "기하원본" 을 번역하여 소개하였으며, 중국 최초의 세계 지도인 곤여만국전도를 제작하여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곤여만국전도는 마테오 리치와 명의 학자 이지조가 함께 만들어 목판으로 찍어 펴낸 세계 지도이다. 지도에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남극이 나타나 있고, 각지의 민족과 산물에 대해 지리지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조선에 대해서는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하고 역사적인 설명을 첨가하였다.

Ⅸ. 전통 사회의 발전과 변모

02 일본 무사 정권과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모

학습 목표

- 일본에서 무사 정권이 출현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임진왜란으로 인한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 에도 시대 일본의 사회와 경제를 이해할 수 있다.
- 에도 시대 국제 교역의 형태를 설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82	**1. 일본 무사 정권의 출현**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문답식	
	1. 10세기 무렵부터 일본에서 지방 영주의 세력이 커지면서 출현한 계급은 무엇일까?		
	2.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조선을 침략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개]		
	• 일본에서 무사 계급이 출현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강의식	CD
	• 12세기 말 최초의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에 대하여 설명한다.		PPT
	• 일본 봉건제의 특징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 여 · 원 연합군의 일본 원정을 고려 말의 상황과 관련지어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역사 부도
	• 무로마치 막부의 성립과 발전, 쇠퇴 과정을 설명한다.	강의식	
	• 임진왜란의 발생 배경과 전개 양상을 설명하고, 임진왜란이 동아시아 삼국에 가져온 변화를 정리하게 한다.	탐구식	290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미나모토 요리토모 집안이 귀족 정치를 무너뜨리고 세운 막부는?		
	2.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하시오.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83	**2. 에도 막부와 일본의 발전**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문답식	
	1.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 정권을 장악한 사람은 누구일까?		
	2. 에도 막부가 네덜란드에만 나가사키에 한하여 교역하도록 허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83	[전개]		
	•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수립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강의식	PPT
	• 에도 막부에서 지방의 다이묘들을 어떻게 통제하였는지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291쪽 자료
	• 에도 시대 후기에 조닌 계층이 성장한 배경을 당시 경제적 발전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강의식	
	• 가부키, 우키요에 등 조닌 문화에 대하여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역사 부도
	• 통신사의 파견과 활동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다.	강의식	292쪽 자료
	• 에도 시대의 대외 교역 양상을 정리하게 한다.	자기 주도식	
	• 에도 시대의 국학과 난학의 발달 배경과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293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에도 시대 후기 상공업과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 계층은?		
	2. 에도 시대에 네덜란드를 통해 들어온 서양의 학문을 가리키는 말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일본 무사 정권의 출현

(1) 무사 정권의 성립

① **무사 계급의 출현**
- 배경: 귀족들의 내분 → 지방에 대한 통제력 약화, 지방 영주의 성장
- 무사 집단의 성장 → 일본의 봉건 사회 시작

② **가마쿠라 막부**: 미나모토 요리토모 집안이 수립
- 막부 체제: 쇼군(장군)이 무사에게 토지 지급, 무사는 쇼군에 대한 충성과 봉사의 의무
- 일본 특유의 봉건제: 쇼군이 실질적인 통치권 행사, 지방의 다이묘(영주)와 무사 계급이 지배층 형성

(2) 무로마치 막부

① **무로마치 막부의 성립**
- 가마쿠라 막부의 쇠퇴: 여 · 원 연합군의 원정 → 무사들의 몰락
- 영주들 사이의 대립과 혼란 수습 → 무로마치 막부 수립
- 천황은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 군사력으로 전국 통치

② **무사 중심의 사회**: 유학 쇠퇴, 선종 불교 발달

③ **전국 시대**: 15세기 중엽 이후 지방 통제력 약화 → 각 지방 무사들의 세력 다툼

(3)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국제 질서

① **발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 시대 통일 → 조선 침략

② **전개**: 명의 참전 → 동아시아 국제 전쟁으로 확대

③ **결과**
- 조선: 토지의 황폐화, 인구 감소, 친명 분위기 고조
- 일본: 사회 · 문화적 발전, 에도 막부 수립
- 명: 막대한 재정 소모 → 세금 부담 가중, 백성의 원망 고조, 만주족 성장

2. 에도 막부와 일본의 발전

(1) 에도 막부의 발전

① **수립**: 도쿠가와 이에야스(1603)

② **다이묘 통제**: 다이묘들은 1년 교대로 지방과 에도에 머물고, 그의 처자식을 에도에 인질로 잡아둠, 영지 배분 · 몰수

(2) 에도 시대 후기의 발전

① **상공업과 화폐 경제 발달**: 농업 생산량 증대, 상품 작물 재배

② **조닌의 성장**: 상공업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 → 조닌 문화 발전

③ **무사 중심의 사회 동요**: 농민 간 빈부 격차 심화 → 잦은 반란

(3) 에도 시대의 사회 변화

① **대외 관계**
- 조선과 국교 회복 → 통신사
- 유럽과 교역 제한 → 네덜란드와의 교역만 나가사키에 한하여 허용

② **문화의 발달**
- 일본의 고전 연구 중심으로 국학 발달
- 고유의 민족 종교인 신도 유행
- 난학 발달 → 일본의 근대화에 이바지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288쪽

당시 일본 사회는 쇼군이 무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여 영지를 보호하게 하고, 무사들은 쇼군에게 충성과 봉사의 의무를 지는 관계를 기반으로 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290쪽

1. 광해군 때에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취하였으나, 인조반정 이후로는 친명 배금 정책을 표방하여 후금을 자극하였다.
2. 예시 답안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 기술자에 의하여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과 도자기 양식이 일본에 전파되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91쪽

조닌이라 불리는 상공업자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이들을 위한 문화가 발전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293쪽

1. (1) 쇼군, (2) 조닌
2. (1) ㉢, (2) ㉡, (3) ㉠

내용 더하기

무사(武士, 사무라이) 82차시

12세기 일본에서는 무력을 기반으로 한 무사 계급이 점점 세력화되었다. 이들을 보통 '사무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가까이에서 모신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즉 '중앙 귀족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자'라는 의미의 '사부라우모노(さぶらうもの)'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들은 지방 호족으로서 중앙 귀족 세력들을 보호하는 무사 집단을 이루었으나, 점차 세력을 키워 귀족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막부의 변천 82차시

명칭	연대	집권 세력
가마쿠라 막부	1192~1333	미나모토 가문
무로마치 막부	1336~1573	아시카가 가문
아즈치 · 모모야마 시대	1573~1603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에도 막부	1603~1867	도쿠가와 가문

12세기 말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다이라 씨를 멸망시키고 가마쿠라에 막부를 수립하였다.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죽자 가마쿠라 막부의 실권은 요리토모의 외척인 호죠 씨에게로 넘어갔으나, 몽골의 침입을 계기로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가마쿠라 막부를 타도하고 교토에 무로마치 막부를 세웠다.

무로마치 막부는 무가 사회의 분열을 수습하고 봉건 사회를 더욱 발전시켰다. 쇼군직을 맡은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지방관에 자신의 일가를 임명하여 자신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 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지방관인 슈고[守護]의 권한을 확대하여 슈고 스스로 가신과 영지를 소유하는 봉건 영주의 성격을 갖도록 하였는데, 이들을 슈고 다이묘[守護大名]라고 한다. 슈고 다이묘의 지위는 세습되었고 스스로 힘을 길러 다른 다이묘와 대립하다가 이후 막부와 대립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1467년에 일어난 오닌의 난이다. 오닌의 난을 계기로 무로마치 막부가 크게 약화되고, 이른바 하극상의 시대인 전국 시대가 전개되었다.

오다 노부나가는 명맥만 남아 있던 무로마치 막부를 멸망시키고 전국 통일의 기반을 닦았고, 그의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였다. 정권을 잡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하였다가 실패하였다. 일본은 전쟁으로 큰 인적 · 물적 손실을 보았지만, 조선의 학자와 도공을 포로로 끌고 와 성리학과 도예 등 일본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교토 부근의 세키가하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히데요시 세력을 물리쳤다. 이에야스는 곧바로 쇼군의 자리에 올라 에도에 막부를 세웠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광대한 직할지를 소유하고 직속 군사력을 강화하였으며, 광산 채굴권 및 화폐 주조권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다이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고,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 군신 간의 위계질서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였다.

700여 년에 걸친 막부 정치는 일본 특유의 봉건제와 문화를 발전시켰다. 무사는 농민을 직접 지배하였고, 그들의 상급자에게 충성을 강조하는 가부장적 주종 관계에 기반을 둔 봉건 윤리를 성립시켰다. 또한 무사들의 무예와 용기를 갖춘 무사도(武士道)가 강조되었다.

금각사(긴카쿠지) 82차시

원래 명칭은 로쿠온지[鹿苑寺]이지만, 금박을 입힌 3층

누각의 사리전이 '금각' 이라는 명칭으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되어 흔히 금각사(金閣寺)라 불리게 되었다.

본래는 무로마치 막부 시대의 장군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1397년에 지은 별장이었으나, 그가 죽은 뒤 유언에 따라 선종 사찰로 바뀌게 되었다. 금박을 입한 누각은 무로마치 시대 전기의 문화를 상징하는 3층 건물로, 각층마다 건축 양식이 다르다. 1층은 후지와라 양식, 2층은 가마쿠라 양식, 3층은 중국 당 양식으로 지어져 각 시대의 양식을 독창적으로 절충하였다. 1층은 침전과 거실로 쓰이고, 2층에는 관세음보살을 모셔 두었으며, 3층은 선종 불전이다. 이 가운데 2층과 3층은 옻칠을 한 위에 금박을 입혔다.

명(明)과의 감합 무역 82차시

무로마치 막부는 한때 중국의 명과 국교를 맺고 교류하면서 명으로부터 일본 국왕의 칭호를 받기도 하였다. 무로마치 막부는 명과 감합부(勘合符)를 사용하여 무역을 하는 감합 무역을 실시하였다. 감합부는 명이 일본에서 온 견명선이 정식 선박임을 확인하기 위해 준 입항 허가 증명서이다. 견명선이 감합부를 가지고 오면 명 측이 보관하고 있던 대장과 대조해 보고 교역을 허락하였다. 무로마치 막부는 명에서 주로 동전 · 생사 · 서적 · 약재 등을 수입하였고, 유황 · 검 · 구리 등을 수출하였다.

임진왜란의 명칭 82차시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입하여 발생한 전쟁이다. 조선에 쳐들어온 일본군을 조선의 관군과 의병이 막아 내다 명이 참전하면서 전면적인 국제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1차 침입이 1592년에 일어났으므로 '임진왜란' 이라 부르며, 2차 침입이 정유년에 있었으므로 '정유재란' 이라 한다.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정유재란까지 포함하여 말한다.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을 당시 일본 국왕의 이름을 따서 '분로쿠 · 케이초의 역[文祿 · 慶長の 役]' 이라고 부른다. '역(役)' 은 전쟁, 정벌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중국에서는 '만력(萬曆)의 역(役)' 또는 '일본에 맞서 조선을 도운 전쟁' 이라는 뜻에서 '항왜원조(抗倭援朝)' 전쟁이라고도 한다.

임진왜란의 영향 82차시

임진왜란으로 가장 큰 손실을 입은 것은 조선이었다. 조선은 전국 8도가 전장으로 변해 수많은 인명이 죽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었다. 토지 대장과 호적이 대부분 없어져 국가 운영이 마비 상태에 빠졌고, 전쟁 전에 170만 결에 달했던 토지도 54만 여 결로 줄었다. 조선의 국력은 임진왜란 후 1세기가 지나서야 겨우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불국사, 경복궁 등 여러 문화재가 불에 타 사라졌으며, 그 밖에 많은 서적과 미술품이 약탈되거나 소실되었다.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왕조실록" 도 전주 사고본만 남고 모두 불에 타 버렸다. 한편 명의 원조는 존명(尊明) 의식이 고취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인조반정(1623)의 명분과 호란의 원인이 되었으며, 명 멸망 후에도 북벌을 추진한 배경이 되었다.



▲ 이총(일본 교토)
1597년 임진왜란에 참여한 무사들이 자신의 공을 증명하고자 조선인 약 5만 명의 귀와 코를 잘라 보내 왔다. 이를 묻고 만든 무덤이어서 '귀 무덤'이라고 불렀다.

일본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추종하는 세력이 붕괴하고 에도 막부가 등장하였다. 에도 막부는 조선과의 교류 회복을 서둘러 일본에 잡혀 온 조선인들의 귀환 문제 등에서 적극적인 유화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1604년 승려 유정이 일본으로 가 교섭을 하여 3,000여 명을 귀환시켰으며, 1609년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무역을 재개하였다. 일본은 전쟁 중 조선에서 약탈해 간 그림 · 서적 및 포로로 데려간 우수한 활자 인쇄공을 통해 성리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과 인쇄 문화를 발전시켰다. 또한 조선에서 데려간 도자기 기술자가 도자기 만드는 방법을 전수하여 일본 도자기 문화가 크게 발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명에서는 전쟁으로 국력이 많이 소모되어 재정 압박이 가속되었고, 각종 징세 부담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봉기와 지방 군벌들의 반란이 잇달아 일어났다. 만주에서는 명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 누르하치가 여러 여진족을 통일한 뒤, 1616년 후금(後金)을 세워 명 · 청 교체의 기틀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임진왜란을 계기로 지금까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후진국으로 인식되어 왔던 일본과 여진족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중화 문화의 정통을 자부해 온 명과 조선이 상대적으로 쇠약해져 17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새롭게 변화되었다.

에도 시대의 정치 83차시

에도 시대에는 쇼군이 절대 지배자로서 막부를 장악하고, 그 아래 여러 다이묘가 번(藩)의 자치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영지는 쇼군이 임의로 바꾸거나 몰수·축소할 수 있었다. 다이묘들은 막부가 정한 무가제법도(武家諸法道)를 엄격히 지켜야 했다. 여기에는 성(城)의 신축이나 증축 금지, 막부의 허가 없는 다이묘 간 혼인 및 결당 금지, 선박 제조 금지, 크리스트교 금지 등의 통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다이묘들은 군역과 무기를 막부에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에도에 와서 머무르는 '산킨고타이제'를 따라야 했다. 더욱이 처자를 에도에 거주시켜야 했으며, 에도의 수비를 책임지는 등의 임무도 맡았다. 그리하여 에도 막부는 봉건 체제라는 외형과는 달리 중앙 집권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막부의 사회 계층 83차시

막부 체제의 사회 계층은 중국처럼 사농공상(士農工商)이 기본이 되었다. 제1 계급에는 무사가 속하였다. 이들은 상위 계급으로서 정치와 문화를 담당하였고 세습적으로 특권을 누렸다. 제2 계급은 농민이 해당하는데, 조세와 부역의 의무를 졌다. 제3 계급은 조닌〔町人〕으로, 상공업에 종사하는 계층이다. 조닌은 전국 시대 이후 상업의 발달을 기반으로 상업 자본을 축적하였고, 이들 고유의 생활을 영위하였다. 많은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동업 조합을 만들고 영업을 독점하여 대상업 자본가로 세력을 키우기도 하였다. 에도 시대 후기에는 조닌이 무사와 대등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또한 상당한 자본과 나름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 일본 근대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제4 계급으로는 특수 지역에서 거주하는 천민인 에타[穢多]와 히닌[非人]이 있었다.

통신사 83차시

조선과 일본의 국교는 임진왜란 후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재개되었다. 이후 조선은 주로 막부의 쇼군이 새로 즉위할 때 300~500명에 달하는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통신사는 해로와 육로를 이용하여 에도까지 가서 국빈 대접을 받으며 6개월~1년 정도의 여정을 보냈다. 이들은 학문, 기술, 기예 등 다방면에 재능이 뛰어난 인물들로 편성되었으며, 단순한 외교 사절 이상의 문화 사절단 역할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지나가거나 머무는 곳에는 새로운 문화를 배우려는 일본 지식인들이 모여들었다.

에도 막부의 대외 정책 83차시

에도 막부는 처음에는 무역을 보호하고 장려하고자 크리스트교를 묵인하였으나, 크리스트교 세력이 확산되자 17세기 초 전국에 금지령을 내리고 크리스트교도를 박해하였다. 또한 외국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무역을 제한하였다.

에도 막부가 크리스트교를 금지한 이유는 인간 평등을 강조하는 교리가 확산되고, 신도가 증가하여 이들이 서로 단결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또한 규슈 지방의 다이묘들이 무역을 통해 강성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점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1633년에는 특별 허가를 받은 일본 선박 이외에는 국외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였고, 이어 일본인의 국외 이주와 재외 일본인의 귀국을 금지하였다. 또한 포르투갈 선박의 내항을 금지하고, 네덜란드가 나가사키 항에서만 교역하도록 함으로써 일본인과의 자유로운 교류를 금지하였다. 이후 약 200년 동안 일본은 네덜란드, 중국, 조선 이외의 나라들과 교섭하지 않는 쇄국 정책을 고수하였다.

조닌(町人) 문화 83차시

조닌(町人)은 도시에 사는 상공업자들로서, 에도 시대에 크게 성장하였다. 대도시에서 성장한 조닌들은 그들의 생활 양식과 의식을 반영한 가부키[歌舞伎], 우키요에[浮世繪]와 같은 조닌 문화를 발전시켰다.

가부키는 원래 여성이나 미소년이 등장하는 노래와 춤이 곁들여진 무대 예술이었으나, 풍기문란이라는 이유로 성인 남성들이 출연하는 연극적 요소가 강한 무대 예술로 변화하였다.

우키요에는 가부키 배우와 도시 여성, 서민들의 풍속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판화로 표현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18세기 중엽에는 다색 인쇄 기법이 완성되면서 서점에서 대량 판매되었다.

신도 83차시

씨족신이나 마을의 수호신에게 풍년을 기원하거나 추수 감사제를 위한 공동 제사를 올린 신사 신앙의 전통에 불교 이론이 결합되어 성립하였다. 에도 시대 후기의 국학 연구와 연결되어 국수적 존왕 사상의 기반이 되었으며,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국교로 삼아 천황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하였다.

Ⅸ. 전통 사회의 발전과 변모

03 이슬람 국가의 발전과 서아시아 세계

학습 목표

- 아바스 왕조 이후 서아시아에 등장한 이슬람 국가들을 말할 수 있다.
- 오스만 제국 통치 방식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84	**1. 서아시아의 새로운 이슬람 국가**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에게서 술탄의 칭호를 받아 이슬람 세계의 새로운 주도 세력이 된 나라는 어디일까?	문답식	
	[전개]		
	• 지도를 활용하여 셀주크 튀르크의 세력 확장 과정을 설명한다.	강의식	CD
	• 셀주크 튀르크의 예루살렘 점령과 십자군 전쟁에 대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 훌라구가 이끄는 몽골군에 의해 일한국이 건국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강의식	역사 부도
	• 티무르의 일생을 발표하게 하고, 티무르 제국의 건국 과정과 번영을 설명한다.	발표식	인터넷
	• 사파비 왕조의 수립과 이란 · 이슬람 문화에 대하여 설명한다.	강의식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셀주크 튀르크의 예루살렘 점령을 계기로 일어난 전쟁은?		
	2. 페르시아 문화를 바탕으로 이란 · 이슬람 문화를 발전시킨 왕조는?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85	**2. 오스만 제국의 성립과 발전**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스탄불을 수도로 삼은 나라는 어디일까?	문답식	
	[전개]		
	• 오스만 제국의 발전 과정을 지도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강의식	296쪽 지도
	• 이스탄불의 역사적 변천과 의의를 자료를 활용하여 소개한다.		299쪽 자료
	•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는 과정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296쪽 자료
	• 오스만 제국의 통치 정책의 특징을 정리하게 한다.	탐구식	298쪽 자료
	•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 도자기, 실용 학문 등 오스만 제국에서 발달했던 문화들을 살펴보고, 오스만 제국 문화의 특징을 파악하게 한다.	강의식	

85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오스만 제국이 이민족에게 실시한 정책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2. 오스만 제국의 수도이자 동서 문화의 교차로 역할을 했던 지역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서아시아의 새로운 이슬람 국가

(1) **셀주크 튀르크**
- ① **튀르크족**: 10세기경 이슬람교 수용, 남서쪽으로 세력 확장
- ② **성장**: 바그다드 점령 →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에게 술탄 칭호를 받음 → 소아시아 지역과 예루살렘 점령
- ③ **쇠퇴**: 십자군 전쟁, 권력 다툼 →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

(2) **일한국**
- ① **건국**: 훌라구가 이끄는 몽골군이 바그다드 함락 → 아바스 왕조 멸망, 일한국 건국
- ② **발전과 쇠퇴**: 이슬람 문화 발전 → 14세기경 귀족들 간의 세력 다툼으로 분열

(3) **티무르 제국**
- ① **건국**: 칭기즈 칸의 후예를 자처한 티무르가 건국
- ② **사마르칸트**: 티무르 제국의 수도, 유럽과 중국을 잇는 교역의 중심지로 번영
- ③ **문화**: 몽골과 튀르크의 전통 + 이슬람 문화 + 페르시아 문화 → 오늘날 중앙아시아 문화의 기초 마련
- ④ **쇠퇴**: 15세기 후반 내분으로 약화 → 사파비 왕조 독립

(4) **사파비 왕조**
- ① **건국**: 이란 지역의 페르시아 인들이 건국
- ② **발전**: 중앙 집권 체제 확립, 중계 무역으로 번영, 이란 · 이슬람 문화 발전

2. 오스만 제국의 성립과 발전

(1) **성장**: 셀주크 튀르크의 지배에서 벗어나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세력 확장

(2) **비잔티움 제국 멸망**: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 → 이스탄불로 개칭

(3) **전성기**: 아시아 ~ 아프리카 ~ 유럽에 걸친 대제국 수립
- ① 유럽의 연합 함대 격파 → 지중해의 해상권 장악
- ② **술탄 · 칼리프 제도**: 이슬람 세계의 최고 지배권 확립

(4) **관용 정책**
- ① 세금(인두세)만 납부하면 전통 신앙 인정
- ② 상업의 자유 허용
- ③ 민족, 종교에 차별 없이 관리로 등용

(5) **오스만 제국의 문화**
- ① **동서 문화 융합**: 이슬람 문화+비잔티움 문화+페르시아 문화+튀르크 문화
- ② **건축**: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
- ③ **공예**: 도자기(페르시아풍+중국풍), 양탄자
- ④ **문학**: 궁정 문학 발달
- ⑤ **실용 학문**: 이슬람 세계의 자연 과학 계승 → 수학, 천문학, 지리학 등 발달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294쪽

셀주크 튀르크

생각 열기 ▶▶▶ 교과서 296쪽

모자이크화를 훼손하지 않고 성 소피아 대성당을 모스크로 개조하기 위해서이다.

탐구 활동 ▶▶▶ 교과서 298쪽

1. 예시 답안 오스만 제국은 상업의 자유를 허용하고, 세금만 납부하면 고유 신앙을 인정하였다. 또한 관료 등용에 있어서도 민족 간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이처럼 오스만 제국은 여러 민족과 종교에 대하여 관용 정책을 실시하였다.
2. 예시 답안 오스만 제국은 이민족과 다양한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을 바탕으로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려 오랫동안 대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298쪽

1. (1) ㉠, (2) ㉡, (3) ㉢, (4) ㉣
2. (1) 사마르칸트, (2) 사파비, (3) 예니체리

내용 더하기

술탄 84차시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가 죽자, 아부 바크르가 그의 정치적 · 행정적 역할을 이어받아 '칼리프 라술 알라(신이 보낸 사람의 후계자)'가 되었다. 2대 칼리프인 우마르부터 칼리프라는 말이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공동체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술탄은 쿠란에 따르면 '도덕적 또는 정신적 권위'를 의미하였으나, 시간에 지나면서 칼리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특정한 지역을 지배하는 이슬람 통치자를 가리키는 칭호로 사용되었다.

술탄으로 불린 최초의 이슬람 통치자는 가즈니 왕조의 마흐무드(재위 998~1030)였다. 그 후 셀주크 튀르크, 오스만 제국, 아이유브 왕조, 맘루크 왕조 등에서도 사용되었다. 이때 술탄은 종교적 권위를 의미하는 칼리프와 구별하여 군사적 · 정치적 권력을 의미하게 되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 셀림 1세(재위 1517~1520) 때부터 칼리프의 지위와 술탄의 지위를 동시에 수행하는 술탄 · 칼리프제가 확립되었다.

일한국 84차시

튀르크계 몽골 제국으로, 시조인 훌라구는 칭기즈 칸의 손자이다. 1253년 훌라구는 형 몽케의 명령에 따라 이란 원정길에 올라 1258년 바그다드를 공략하여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정권을 무너뜨리고 일한국을 건설하였다. 일한이란 튀르크 어로 '나라의 왕'이라는 뜻이다.

제7대 칸 가잔(재위 1295~1304)은 일한국의 중흥을 이끌었다. 그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았고 중앙 집권 정치를 확립하였으며,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이슬람 사원을 세웠다. 일한국은 제9대 칸 아부 사이드 때부터 쇠퇴하였으며, 잘라이르 왕조, 추판 왕조 등 여러 왕조로 분열되었다.

티무르 제국 84차시

14세기 후반 서(西)차가타이한국 출신의 티무르는 스스로를 칭기즈 칸의 자손이라 칭하고 몽골 제국의 재건을 시도하였다. 그는 사마르칸트에 수도를 두고 동 · 서차가타이한국과 일한국을 병합하였으며, 킵차크한국과 북인도에 침입하였다. 이어 소아시아 방면에서 일어난 오스만 제국을 앙카라에서 격파하여 옛 몽골 제국의 서반부를 차지하는 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는 중국 명을 정벌하려고 떠났다가 도중에 오트라르에서 병사하였다.

티무르의 사후 티무르 제국에서는 왕실의 상속 싸움이 계속되었는데, 샤 로흐 시대에 일시적으로 번영을 되찾기도 하였다. 그런데 울루그베그가 암살된 뒤에는 제국의 분열이 표면화되어 사마르칸트와 헤라트에 각기 다른 정권이 성립하여 대립하였다. 그러다 킵차크한국에서 나온 북방의 우즈베크족이 침입하여 1500년에는 사마르칸트가 함락되고, 2년 뒤 헤라트도 함락되었다.

사파비 왕조의 수도, 이스파한 84차시

사파비 왕조(1501~1736)의 전성기는 제5대 아바스 1세(재위 1588~1629) 때였다. 아바스 1세는 이스파한으로 천도하여 관료 기구를 정비하고 군제를 개혁하는 등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오스만 제국과 싸워 위세를 떨쳤다.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이맘 호메이니 광장과 많은 모스크를 만들었으며, 페르시아 문화에 바탕을 둔 이란의 전통 문화를 발전시켜 이란 · 이슬람 문화를 발전시켰다. 당시 이스파한은 '세계의 절반'으로 칭송되었는데, "이스파한이 없었다면 세계의 창조주는 이 세계를 가지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아바스 1세가 죽은 뒤 사파비 왕조도 쇠퇴하여 새로 일어난 아프간족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였다.



◀ 이란 이스파한의 이맘 모스크

사마르칸트 84차시

중앙아시아의 사막 한가운데 있으며 동서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기원전 4세기에는 알렉산드로스와 북방 유목민, 7세기경에는 아랍, 13세기에는 칭기즈 칸 등 이민족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다.

칭기즈 칸의 침입으로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었던 사마르칸트는 14세기 티무르가 제국의 수도로 삼은 이후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티무르가 세운 구르 아미르, 리게스탄 광장에 있는 이슬람의 만드라사(최고 학부), 울루그베그의 천문대 등이 유명하다.

이스탄불 85차시

이스탄불은 원래 비잔티움이라 불렸는데, 로마 제국 말기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스탄불과 맞닿은 보스포루스 해협은 외부의 침략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여 이곳을 천연의 요새로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하였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그리스 정교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다가, 1453년 오스만 제국에 함락된 후 이스탄불로 개칭되어 오스만 제국의 수도가 되었다.

16세기에 인구 45만 명이 거주하던 국제도시 이스탄불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경제와 문화의 교차로였다. 이곳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이 직접 접촉함으로써 동서양의 문화와 문명이 빠른 속도로 교류되었다.

술레이만 1세 85차시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군주 솔로몬의 이름을 딴 술레이만 1세(재위 1520~1566)는 아버지 셀림 1세에 이어 1520년에 오스만 제국의 제10대 술탄이 되었다. 그는 재위 46년 동안 13차례의 원정을 통해 헝가리를 정복하고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였으며, 아시아 · 유럽 · 북아프리카에 걸치는 대제국을 이루었다.

술레이만 1세가 편찬한 "술레이만 법전"은 토지, 전쟁, 군사 제도, 지방 치안과 형법 등 각 방면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였다. 그는 완벽한 법률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계층과 광활한 영토의 대제국을 질서 정연하게 통치하였다.

한편 술레이만 1세는 중요한 예술 후원자이기도 하였다. 건축과 그림, 서예, 타일과 직물, 목제품, 금속 제품, 문학 등이 그의 통치 기간 중에 꽃을 피웠다. 또한 그는 출정 중에도 매일 일기를 써 훗날 "전쟁일록"이라는 책으로 펴냈고, 건축가 시난에게 명령하여 술레이마니예 모스크 등 많은 모스크를 건축하였다.

밀레트 제도 85차시

밀레트 제도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여러 민족에게 허락된 종교와 민족에 따른 자치제를 말한다. 밀레트 내에서는 독자적인 관습법과 제도가 통용되고, 술탄에게만 책임을 지는 최고 종교 지도자가 존재하였다. 각 밀레트의 수장들은 전체 구성원에 대한 책임과 국가에 대한 조세 · 병역의 의무가 있었다. 대신에 무슬림과 관련된 재판 외에는 중앙 정부의 간섭 없이 결혼, 이혼, 출생, 사망, 교육, 언어, 전통 등에서 완전한 사회적 · 문화적 자유를 누렸다.

예니체리 85차시

예니체리는 술탄의 친위 부대로 무라트 1세 때 만들어졌다. 오스만 제국의 요직은 주로 궁성 학교 출신자들이 차지하였는데, 예니체리는 그중 중위급 내의 크리스트교 집안의 소년을 선발하여 양성하였다. 예니체리는 200여 년에 걸쳐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보였으며, 술탄의 즉위에도 관여할 만큼 강력한 권력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예니체리는 특권적 지위를 보장받고 좋은 대우를 받는 반면, 군율이 엄격하여 웬만한 부정행위는 사형으로 다스렸으며, 술탄 셀림 2세 때까지 결혼조차 엄격히 금지되었다. 16세기 말, 무라트 3세는 예니체리의 힘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엄격한 군율을 느슨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예니체리의 전투력만 약화시켰을 뿐, 폐단은 더욱 심해져 오스만 제국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돌마바흐체 궁전 85차시

1856년 술탄 압둘 마지드 1세는 톱카프 궁전을 버리고 돌마바흐체 궁전을 지었다. 이 궁전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본따 만들어졌지만 훨씬 더 화려하다. 280개가 넘는 방과 43개의 홀이 있었으며, 궁전의 내부 장식을 위해 금 14톤, 은 40톤이 사용되었고, 건축 경비는 현대 가치로 약 50억 달러가 들었다고 한다. 돌마바흐체 궁전은 오스만 제국의 화려함을 보여 주는 건축물이지만, 오스만 제국은 이 궁전을 지으면서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여 제국의 몰락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스만 제국의 성격 85차시

오스만 제국의 지배 계층은 민족 · 종교에 관계없이 다양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오스만 제국을 단순히 터키 민족의 국가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오스만 제국 내 사람들은 멸망할 때까지 자국을 '오스만 가의 숭고한 국가', '오스만 국가' 등으로 불렀으며, 오스만 제국을 튀르크 민족의 국가로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Ⅸ. 전통 사회의 발전과 변모

04 이슬람 세계의 확대와 인도 · 동남아시아의 변화

학습 목표

- 무굴 제국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무굴 제국에서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슬람교가 전파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정치 변화와 전통문화 발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86	**1. 무굴 제국의 발전**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티무르의 후손 바부르가 인도 북부에 세운 나라는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무굴 제국의 성립 과정을 티무르 제국의 멸망과 연관지어 설명한다.	강의식	PPT
	• 지도를 이용하여 무굴 제국의 영토 확장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300쪽 지도
	• 아크바르와 아우랑제브의 통치 방식을 비교하여 파악하게 한다.	탐구식	301쪽 자료
	• 무굴 제국에서 힌두 · 이슬람 문화가 발달한 예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의 화합에 노력한 무굴 제국의 왕은?		
	2. 펀자브 지방에서 등장하였으며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융합된 종교는?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87	**2. 동남아시아 세계의 발전**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동남아시아에는 언제부터 이슬람교가 전파되었을까?	문답식	
	[전개]		
	• 지도를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지역에 이슬람교가 전파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강의식	302쪽 지도
	• 15세기 초 말레이 반도에 수립된 믈라카 왕국에 대하여 설명한다.		역사 부도
	• 타이와 미얀마 지역의 정치적 변천을 설명한다.		
	• 분열과 통일을 거듭하면서 오늘날 베트남의 토대가 형성되었음을 정리하게 한다.	자기 주도식	
	•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쇠퇴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강의식	

87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14세기 이후 타이 지역에서 등장한 왕조는? 2. 앙코르 왕조 때 융성하였으나, 14세기 이후 쇠퇴하여 잦은 침탈을 받은 나라는?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무굴 제국의 발전

(1) **건국**: 티무르의 후손 바부르가 인도 북부에 이슬람 왕조인 무굴 제국 수립

(2) **아크바르의 통치**

① **영토 확장**: 북인도 전체와 아프가니스탄에 걸친 대제국 건설 → 중앙 집권 체제 강화

② **화합 정책**: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를 관리와 군인으로 등용, 비이슬람교도의 인두세 폐지

(3) **아우랑제브의 통치**

① **최대 영역 확보**: 데칸 고원 남부 지역까지 정복

② **이슬람 제일주의**: 비이슬람교도에 인두세 부과, 힌두교도와 시크교도 차별

(4) **무굴 제국의 쇠퇴**

① 힌두교도와 시크교도의 반란 → 무굴 제국 분열

② 18세기 이후 유럽 열강의 잇단 침략으로 급속히 약화

(5) **힌두 · 이슬람 문화의 발전**

① **우르두 어**: 힌디 어와 페르시아 어, 아랍 어 등 혼합

② **시크교**: 힌두교와 이슬람교 융합

③ **무굴 회화**: 페르시아의 세밀화와 힌두 양식의 조화

④ **건축**: 타지마할, 아그라 성

2. 동남아시아 세계의 발전

(1) **이슬람교 전파**: 이슬람 상인들의 진출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지역에 전파

(2) **믈라카 왕국**: 15세기 초 말레이 반도에 수립된 이슬람 왕조

①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

② 포르투갈의 침입으로 몰락 → 네덜란드가 향료 무역 주도

(3) **인도네시아 지역**: 이슬람 세력의 확산 → 마자파힛 왕조 붕괴,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에 이슬람교 전파

(4) **미얀마와 타이의 대립**

① 미얀마의 발전

- 퉁구 왕조: 전국 통일, 포르투갈 침입 격퇴
- 알라웅파야 왕조: 타이의 아유타야 왕조 멸망

② 타이의 발전

- 아유타야 왕조: 중국의 명 및 유럽 국가들과 교류, 상좌부 불교 발달 → 알라웅파야 왕조에 멸망
- 짜끄리 왕조: 미얀마 격퇴, 오늘날의 타이 왕조

(5) **베트남의 발전**

① **대월국의 레 왕조**: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정치 제도 정비, 참파 정복 → 인도차이나 반도의 강국으로 성장

② **응우옌 왕조**: 전국 통일, 국호를 베트남으로 정함.

(6) **캄보디아와 라오스**: 캄보디아는 14세기 이후 쇠퇴, 라오스 분열 → 타이와 베트남의 잦은 침탈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300쪽

힌두교와 이슬람교

탐구 활동 ▶▶▶ 교과서 301쪽

1.

공통점	영토를 확장하였다.
차이점	아크바르는 종교에 차별을 두지 않았으나, 아우랑제브는 이슬람 제일주의를 내세워 힌두교도와 시크교도를 탄압하였다.

2. 예시 답안 관용적인 종교 정책으로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의 화합을 이끌어 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302쪽

14세기 이후 이 지역에 이슬람교가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303쪽

1. (1) ㉡, (2) ㉢, (3) ㉠, (4) ㉣
2. 타지마할, 시크교
3. 믈라카 왕국

내용 더하기

바부르 86차시



▲ 바부르

칭기즈 칸과 티무르의 후예인 바부르는 당시 쇠약해진 델리의 로디 왕조를 물리치고 이슬람 왕조인 무굴 제국을 세웠다. 그는 탁월한 군사적 재능과 우수한 화포를 이용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로디 왕조의 대군을 격파하여 수도 델리를 점령하였으며, 라지푸트족 연합군을 무찌르고 벵골 왕에게 대승을 거두어 갠지스 강 유역을 제압하였다. 북인도를 정복한 바부르는 정복지의 대부분을 부하들에게 영지로 분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징세 · 징병 및 기타 모든 행정상의 책임을 지는 대신 필요에 따라 군대를 차출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바부르는 유능한 군인이자 정치가였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재능을 가진 튀르크 시인이기도 하였다. 그의 산문 회고록 "바부르나메"에는 교양 · 재치, 진취적인 기상이 드러나 있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으로 가득 찬 바부르의 모습이 잘 담겨 있다.

아크바르 86차시

아크바르(재위 1556~1605)는 무굴 제국의 제3대 황제로, 무굴 제국을 크게 발전시켰다.

아크바르는 힌두교도인 라지푸트족을 평정하고 혼인 관계를 기반으로 군사 동맹을 체결하여 화평을 유지하였으며, 힌두 소제후국들을 무력으로 압도하여 공납을 바치도록 하였다. 그는 영토 확장 전쟁을 계속하여 데칸 고원을 제외한 인도 전역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한편 아크바르는 다수의 비이슬람교도를 융합하고자 이교도에 부과하던 인두세(지즈야)를 폐지하는 등 세제를 개혁하였다. 또한 관료제와 지방 행정 구역을 정비하고, 안정된 군사력을 확보하는 등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타지마할 86차시

무굴 제국의 제5대 황제 샤자한(재위 1628~1657)은 페르시아계의 뭄타즈 마할과 결혼하였다. 황제와 함께 전쟁터를 누비던 그녀는 17년의 결혼 기간 동안 13명의 아이를 낳았고, 14번째 아이를 출산하다가 죽고 말았다. 샤자한은 세상을 떠난 뭄타즈 마할을 추모하며 타지마할을 세웠다.

샤자한은 아그라의 야무나 강가를 선택하여 2만 명의 기술자와 노동자를 동원하여 22년에 걸쳐 타지마할을 완성하였다. 대문을 들어서면 정원과 흰색 대리석 돔이 조화를 이루고, 태양 광선이 그물 모양으로 투조한 돔을 통과하여 내부에 이르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곳에 황제 부부의 관이 안치되어 있다.

호수에 비친 타지마할은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며 '대리석의 환상'이라고 불린다. 분수 정원, 돔 지붕, 아치 입구, 첨탑 등에서 이슬람 양식의 특징을 찾을 수 있고, 묘당 내부의 연꽃 문양은 힌두 양식을 따랐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손꼽히는 타지마할은 사방 57m, 높이 58m에 달하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시크교 86차시

15세기 말 인도 서북부 펀자브 지방을 중심으로 나나크가 힌두교의 바크티 신앙과 이슬람교의 신비 사상을 융합하여 창시하였다. 시크교도는 교조 나나크를 포함하여 그의 후계자인 9명의 구루(guru)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회 · 경제 및 종교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경전 "구루 그란트 사힙(Guru Granth Sahib)"에 따라 행동한다.

시크교에서 신은 형체가 없고 영원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나나크는 신이 인간 세계의 위에 있으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고, 영적 교감이 뛰어난 자는 신을 직접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내면 수양을 강조하였다.

시크교도는 다섯 개의 K, 즉 kesh(깎지 않은 머리카락), kada(쇠 팔찌), kirpan(단검), kangha(빗), kaccha(무릎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느슨한 속옷) 등을 항상 몸에 지닐 것을 장려한다.

동남아시아의 이슬람화 87차시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이슬람화된 지역은 수마트라 북부의 여러 나라였다. 마르코 폴로가 이 지역을 여행할 때인 1292년경에는 여러 이슬람 왕국이 있었고, 1420년경에는 이슬람 왕국인 믈라카 왕국이 번성하였다. 이후 이슬람교가 자와 섬 지역에 전파되었고,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서도 이슬람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1520년경 힌두교 계통의 마자파힛 왕조를 무너뜨리면서 이슬람교

는 이 지역의 지배적인 종교가 되었다. 이 지방에 전파된 이슬람교는 기존 종교와 타협하여 원래의 계율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믈라카 왕국 87차시

15세기 초 스리위자야의 작은 힌두교 왕국 '수마트라 팔렘방' 왕족이 당시 작은 어촌이었던 믈라카에 새 왕가를 세웠다. 믈라카는 '몬순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이라 불리는 믈라카 해협에 위치하여 상업항으로 급속히 대두하였다. 특히 믈라카 왕국은 이슬람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시기 동남아시아의 최대 이슬람 국가로 성장하였다.

믈라카 해협을 장악한 믈라카 왕국은 15세기 무역의 최대 중심지가 되었다. 믈라카 해협은 동서의 항로가 교차하는 무역의 요지였으며, 계절풍을 이용해 인도양과 중국해를 횡단하는 범선들의 주요 항로가 모이는 천연적인 교차점이었다. 따라서 믈라카 왕국은 동남아시아, 중국, 인도를 연결하는 삼각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16세기 초 믈라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게 번영하는 항구'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탐낸 서구 열강들은 믈라카 왕국을 공략하였다. 포르투갈은 1511년부터 130년간 믈라카를 지배하였으며, 이후 영국이 말레이 반도 전체를 장악할 때까지 300년 가까이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다.

아유타야 왕조 87차시

14세기 중엽 짜오프라야 강 하류의 평야 지역(메남 지역)을 중심으로 아유타야 왕조가 들어섰다. 아유타야 왕조는 수코타이 왕조(1257~1350)를 병합하여 타이족 통일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로 세력을 확장하여 인도차이나 반도의 최강국이 되었다.

아유타야 왕조는 중국의 정치 사상을 받아들여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마련하였다. 왕은 전제 군주로서 관리와 각 주의 지사들을 임명하였으며, 중앙의 행정부는 6개의 부서로 나뉘었다. 농민들은 현물로 조세를 납부하였고, 노역과 군역의 의무가 있었다. 아유타야 왕조는 1767년 미얀마에 의해 멸망하였다.

짜끄리 왕조 87차시

아유타야 왕조의 뒤를 이어 중국계 타이 인인 프라야 딱신이 톤부리 왕조(1767~1782)를 세웠다. 그러나 폭정으로 처형되자, 1782년에 군사령관 출신의 짜오프라야 짜끄리가 즉위하여 라마 1세(재위 1782~1809)라 칭하고 방콕을 수도로 짜끄리 왕조를 창시하였다.

짜끄리 왕조는 지금까지 9대 200여 년에 이르고 있다. 그중 라마 5세(재위 1868~1901)는 근대화의 선구자였다. 그는 계몽적 전제 군주로서 노예제를 폐지하고 유럽의 행정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 · 행정을 개혁하였으며, 우편 · 전신 · 철도를 설치하고 많은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짜끄리 왕조는 1932년에 혁명이 일어나 입헌 군주제 국가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월국 87차시

베트남 지역에서는 오랫 동안 북쪽의 비엣족이 세운 대월과 남쪽의 참족이 세운 참파가 대립하고 있었다. 대월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참파는 인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베트남 북부 지역은 한 · 당 시기에 중국의 지배를 받았으나, 당 · 송 교체기를 틈타 독립하였고, 여러 왕조가 교체되는 동안 남하를 계속하였다.

1428년에 레 러이는 명군을 쫓아내고, 국호를 '대월(大越)'이라 하고 하노이를 수도로 삼았다. 레 왕조는 성종(재위 1460~1497) 때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는 참파를 완전히 복속시킨 후, 중국식 행정 제도와 과거제를 실시하였으며, 법전을 편찬하여 베트남 통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6세기 초 레 왕조 말기에 민중 봉기로 사회가 혼란해지자 중국의 힘을 업고 막 왕조가 레 왕조에 도전하였다. 막 왕조를 몰아내고 다시 레 왕조가 일어났으나, 실권은 북부의 쩐 가문과 남부의 응우옌 가문이 쥐고 있었다. 이들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베트남은 다시 남북으로 분열되었다. 이 무렵 떠이선 형제에 의한 농민 봉기가 일어나 남북의 왕조가 모두 무너졌으나, 곧 남쪽의 응우옌 가문이 혼란을 수습하고 남북을 통일하여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 이때 국호를 '베트남'이라 하였다(1801).

Ⅸ. 전통 사회의 발전과 변모

05 유럽 사회의 변모와 절대 왕정의 등장

학습 목표

- 르네상스가 유럽 사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종교 개혁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 신항로의 개척으로 대서양 무역이 확대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절대 왕정의 특징을 파악하고, 서유럽과 동유럽의 절대 왕정을 비교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88	**1.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이유는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르네상스의 개념과 근본정신인 인문주의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먼저 시작된 이유를 설명한다.	강의식	PPT
	•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을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역사 부도
	• 에라스뮈스와 토머스 모어의 작품을 통하여 알프스 이북 지역 르네상스의 특징을 파악하게 한다.	탐구식	305쪽 자료
	• 르네상스 시대의 근대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설명한다.	강의식	306쪽 자료
	•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통하여 루터의 종교 개혁을 설명한다.		
	• 칼뱅의 예정설이 상공 시민 계층의 환영을 받은 이유를 설명한다.		
	• 지도를 활용하여 신교의 확산을 확인하고, 영국의 종교 개혁을 설명한다.		
	• 대표적인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인터넷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가 주장하여 중세의 우주관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2. 예정설에 따라 근면, 정직, 절약하는 생활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신의 의지에 부합하는 행동이라 주장한 사람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89	**2. 신항로 개척과 대서양 무역의 확대**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아 서쪽으로 항해하다 오늘날 서인도 제도에 도착한 사람은 누구일까?	문답식	

89	[전개] • 신항로 개척의 배경을 설명한다. • 바스쿠 다 가마, 콜럼버스, 마젤란 등 신항로를 개척한 탐험가들의 생애와 탐험 과정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 지도를 활용하여 신항로 개척 이후 유럽의 국제 무역에 대하여 설명한다. • 신항로 개척으로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타난 변화를 설명한다. • 아스테카 문명, 잉카 문명의 발달을 정리하고, 신항로 개척 이후 아메리카 문명이 파괴되는 과정을 발표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유럽 상인들이 노예 무역에 뛰어들면서 이루어진 국제 무역 형태는? 2. 페루와 칠레에 걸쳐 있는 안데스 고원 지대에서 발달한 아메리카 문명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강의식 발표식 강의식 발표식 문답식	PPT 역사 부도 308쪽 지도 309쪽 자료 인터넷 학습지
90	**3. 유럽의 절대 왕정**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절대 왕정을 뒷받침한 정치 사상은 무엇일까? [전개] • 절대 왕정의 구조도를 이용하여 절대 왕정 시대의 국왕, 봉건 세력, 시민 세력의 관계를 설명한다. • 절대 왕정 시기의 경제 정책인 중상주의 정책에 대하여 탐구하게 한다. • 모둠별로 서유럽, 동유럽을 대표하는 절대 군주의 생애와 업적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 서유럽 절대 왕정과 동유럽 절대 왕정의 특징을 찾아 각각 정리하게 한다. • 근대 과학의 발달 모습을 살펴보고, 계몽사상의 특징을 정리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물리치고 적극적인 국외 진출을 꾀한 영국의 왕은? 2. 18세기 프랑스에서 발달하였으며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한 사상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강의식 탐구식 발표식 탐구식 강의식 문답식	 CD 310쪽 도표 310쪽 자료 인터넷 312~313쪽 자료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1) **르네상스**: 그리스 · 로마의 고전 문화 부흥 운동

① **근본정신**: 인문주의(인간의 개성과 능력 존중)

②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 배경: 고전 문화의 전통 간직,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도시와 상업 발달,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
- 문학: 페트라르카(서정시), 보카치오("데카메론")
- 미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 건축: 성 베드로 대성당

③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 특징: 교회의 부패 풍자, 현실 사회의 문제점 비판 → 에라스뮈스의 "우신예찬",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 문학: 자국 언어로 쓰인 작품 등장 → "돈키호테", 셰익스피어의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등

④ **근대 과학과 기술의 발달**

- 지동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주장 → 중세의 우주관에 큰 변화
- 활판 인쇄술: 구텐베르크가 발명 → 지식 전파에 이바지

(2) **종교 개혁**

① **루터의 종교 개혁**

- 발단: 교황청의 면벌부 판매 →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발표

- 경과: 루터파와 황제파의 싸움
- 결과: 아우크스부르크 화의(1555)에서 루터파 승인

② **칼뱅의 종교 개혁**
- 주장: 예정설에 따라 근면, 정직, 절약하는 생활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신의 의지에 부합되는 행동
- 확산: 상공 시민 계층의 환영 → 유럽 각국으로 전파

③ **가톨릭교회의 개혁**
- 부패한 성직자 파면, 교리 강화
- 예수회 설립 →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적극적인 포교 활동

④ **종교 전쟁**
- 전개: 종교 개혁 확산 →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세력 대립 → 종교 전쟁 발발
- 결과: 독일의 30년 전쟁 → 베스트팔렌 조약(1648)으로 칼뱅파 인정

2. 신항로 개척과 대서양 무역의 확대

(1) 신항로 개척

① **배경**: 동방 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이탈리아 상인과 이슬람 상인들이 무역 독점 → 지구 구형설, 나침반 이용으로 항해 쉬워짐.

② **전개**: 대서양 연안의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선도
- 바스쿠 다 가마: 희망봉을 돌아 인도 항로 발견
- 콜럼버스: 오늘날의 서인도 제도 도착(1492)
- 마젤란 함대: 세계 일주(1522) → 지구 구형설 입증

(2) 대서양 무역의 확대

① **무역의 중심지 이동**: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 → 대서양 연안 국가들 번영

②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역에 식민지 건설 활발

(3) 유럽 경제의 발전과 국제 무역

① 금은 등 귀금속의 유입으로 물가 폭등

② **유럽 경제의 발전**: 상공 시민 계층 성장, 주식회사 등장 → 근대 자본주의 바탕 마련

③ **국제 무역의 확대**
- 유럽에 아시아의 차 · 면직물, 아메리카의 감자 · 담배 · 옥수수, 토마토 등 유입
- 노예 무역: 아메리카의 사탕수수, 담배, 커피 농장에 아프리카 흑인 노예 공급 → 삼각 무역 구성

(4)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

① 아메리카 문명

구분	아스테카 문명	잉카 문명
지역	멕시코 고원 지대	안데스 고원 지대
발전	금은 세공품, 역법	건축술, 금속 세공
파괴	에스파냐의 코르테스	에스파냐의 피사로

② 아메리카 사회의 변화
- 광산 개발로 막대한 금은 유출, 사탕수수와 담배, 커피 재배
- 원주민은 가혹한 노동에 시달림, 새로운 질병에 감염 → 원주민의 수 급감

3. 유럽의 절대 왕정

(1) 절대 왕정의 성립(16~18세기)

① **배경**: 봉건제 붕괴, 신항로 개척

② **왕권 강화**: 관료제 정비, 상비군 설치, 왕권신수설

③ **중상주의 정책**: 국내 산업 보호 · 육성, 식민지 개척

(2) 서유럽의 절대 왕정

① **에스파냐**: 펠리페 2세
- 세계 해상권 장악 → 무적함대의 패배로 심각한 타격
- 가톨릭 중심의 종교 정책 실시 → 네덜란드 독립

② **영국**: 엘리자베스 1세
- 에스파냐의 무적함대 격파
- 북아메리카 식민지 건설, 동인도 회사 설립
- 적극적인 중상주의 정책 추진, 모직물 공업 육성

③ **프랑스**: 루이 14세
- 강력한 중상주의 정책 추진 → 국내 산업 육성, 화려한 궁정 문화
- 위그노 탄압으로 국내 산업 침체, 무리한 대외 전쟁

(3) 동유럽의 절대 왕정

① **프로이센**: 프리드리히 2세
- 영토 확장: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승리, 폴란드 분할
- 계몽 전제 군주 자처, 제도 정비와 산업 장려

② **러시아**: 표트르 대제
- 서유럽의 문화와 제도를 수용하여 근대화 추진
- 시베리아 경영, 발트 해 진출

(4) 근대 과학의 발달과 계몽사상의 등장

① **근대 과학의 발달**: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제너의 종두법 발견, 린네의 식물 분류 토대 마련

② **계몽사상의 등장**: 18세기 프랑스에서 발달
- 특징: 인간의 이성 중시, 미신 타파, 불합리한 제도와 전통 수정 주장
- 절대 왕정을 비판하는 이론적 배경 →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영향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304쪽

인간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305쪽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주로 인간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교회의 부패를 날카롭게 풍자하였으며 현실을 비판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307쪽

서인도 제도

생각 열기 ▶▶▶ 교과서 310쪽

왕권신수설

탐구 활동 ▶▶▶ 교과서 313쪽

1. 예시 답안 (윗줄 왼쪽부터 순서대로)
   - 엘리자베스 1세, 루이 14세, 프리드리히 2세
   - 무적함대를 앞세워 해상권 장악, 국내 산업 육성, 서유럽의 문화와 제도 수용
2. 예시 답안 시민 계급의 성장이 느렸으며, 봉건 사회의 기반 위에서 국왕의 주도로 절대 왕정이 성립하였다.
3. 절대 왕정은 관료제와 상비군을 운영하였고 중상주의 경제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왕권신수설을 바탕으로 왕권을 강화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313쪽

1. (1) 신항로 개척, (2) 왕권신수설
2. (1) ㉢, (2) ㉣, (3) ㉠, (4) ㉡

내용 더하기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88차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인문주의'라는 사상적 특징과 이탈리아 중북부가 자치 도시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과 관계가 깊다. 당시 피렌체는 지중해 무역으로 번영한 토스카나 지방의 중심지였고, 14세기경부터 교회, 이슬람 세계, 비잔티움 제국 등의 고전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탈리아에는 고대 유물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인문주의자들은 고대 로마 문화에 대해 연구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만개한 곳은 피렌체, 밀라노, 로마, 베네치아 등이었고,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밀라노의 스포르차 가문 등이 학술과 예술가들을 후원하였다. 이 시기의 인문주의자들은 교의적 공리보다는 실제 행동을 통하여 인간을 관찰하였고, 이성적 측면보다는 의지적이고 감성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데카메론 88차시

이탈리아의 작가 보카치오가 1350년경에 집필한 작품이다.

14세기경에 소아시아에서부터 공포의 페스트가 유행하기 시작하여 1348년에는 피렌체에서도 사망자가 나타났다.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매일같이 교회에만 몰려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내의 산타 마리아 노벨라 교회에 모이게 된 일곱 명의 귀부인과 세 명의 신사는 페스트가 사라질 때까지 피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지체 없이 교외로 나가 별장에서 열흘 동안을 지내기로 하였다. 그들은 권태감을 없애기 위하여 각 사람이 매일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지어진 것이 도합 1백 개의 이야기인 "데카메론(10일간의 이야기)"이다.

총 열흘 가운데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자유로운 과제가 주어졌지만, 나머지 8일간은 의장이 내준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었다. 주제는 여러 가지였으나 인간과 운명의 투쟁이라든가, 인간의 지혜 등이 가장 유명한 주제이다.

"데카메론"은 오락적 · 문학적 인기를 넘어서, 르네상스 시기의 문화적 경향을 보여 주는 중요한 역사적 문서이기도 하다. 단테의 "신곡(神曲)"에 견주어, 이 작품을 "인곡(人曲)"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데카메론"에 수록된 삽화(1467)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88차시

1501년 8월 미켈란젤로는 피렌체 대성당의 지도자들로부터 다비드상을 조각해 달라는 의뢰를 받는다. 당시 26세였던 미켈란젤로는 3년 만에 5.49m의 거대한 '다비드상'을 완성하였다.

다비드(다윗)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소년 영웅으로 적군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돌팔매로 쓰러뜨렸다. 이전에 제작된 다비드상들은 보통 골리앗의 머리를 발밑에 두고 손에 칼을 쥔 승리한 젊은이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가 완성한 다비드상은 막 돌을 던지려고 하는 나체의 청년상이다. 몸 전체의 근육이 단단하게 긴장되어 있고, 노기띤 얼굴은 왼쪽을 향하고 있다. 몸 오른편은 손과 발이 모두 수직으로 지면에 고정되어 있지만, 왼손은 돌팔매를 잡기 위해 올리고 있고 왼발도 약간 움직여 다음 행동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피렌체 시청 입구에 놓여 있다가, 현재는 보존상의 이유로 시청 앞 피렌체 아카데미 건물 내부로 옮겨져 있다.

우신예찬 88차시

에라스뮈스(1467~1536)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서 성직자의 사생아로 태어났다. 30세가 될 때까지 수도원에서 생활하기도 하였으며, 이후에는 파리 대학에서 신학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였다. 그는 초기 크리스트교의 단순함과 소박함을 회복할 것을 주장하며, 교회와 종교 의식, 성직자들의 행동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글을 여러 편 남겼다.

"우신예찬"은 에라스뮈스가 세 번째 영국 여행을 하던 중 "유토피아"의 저자 토머스 모어에게 편지와 함께 보낸 풍자문이다. 스스로를 '모리아(어리석음의 여신)'로 내세우며 자유롭게 떠들 수 있다는 바보의 신성한 권리를 이용하여, 세상의 부조리와 온갖 부류의 무리들을 웃음으로 조롱하였다.

"우신예찬"은 대담하고 예술적인 창작품이며 일종의 고발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출간 즉시 학자와 성직자들의 분노를 샀고, 그의 사후에는 금서 목록에 오르기도 하였다.

면벌부 88차시

가톨릭교회가 신자에게 고해 성사 이후에도 남아 있는 벌의 일부 혹은 전체를 사면해 주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가톨릭에서는 고해 성사에서 죄를 참회하면 사제의 기도를 통해 그 죄를 용서받는다고 가르치면서도, 죄에 대한 벌은 남게 되므로 기도나 선업으로써 갚을 것을 권하였다. 중세 말기 가톨릭교회는 성당 건설과 포교를 위하여 많은 돈이 필요해지자 헌금을 권하면서 면벌부 발행을 남용하여 많은 폐해를 가져왔다.

메디치 가문 출신의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 증축비를 마련하고자 푸거 가문에 면벌부 판매를 위임하였다. 푸거 가문은 판매금의 1/3을 소유하기로 하여 일반 신도들에게 면벌부 구매가 천당에 이르는 길인 것처럼 선전하였다. 이때 루터가 면벌부 판매에 반대하여 그 폐단을 지적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공개 토론을 주장함으로써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88차시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 1517년 가톨릭교회의 면벌부와 성물 판매, 성직자들의 타락 등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정문에 게시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종교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루터는 반박문에서 "헌금 궤에 돈이 떨어지면서 쩔렁 소리를 내자마자 연옥에서 영혼들이 올라온다고 하는 사람들의 설교는 거짓말"이라며, "어떤 신도든 자기의 죄에 대해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면벌부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히 면죄받는다."라고 호소하였다.

루터는 신앙의 근거는 성서뿐임을 강조하며 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였다. 1520년 교황이 루터에게 파문 경고장을 보내자, 루터는 이것을 대중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 버렸다. 이후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루터를 보름스 회의에 불러 태도를 바꾸도록 압력을 넣었으나 루터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루터는 작센 후 프리드리히의 보호 아래 발트부르크 성에 은신하게 되었다.

루터파는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가톨릭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교파로 인정받았으며, 제후나 자유 도시는 자유롭게 루터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예정설 88차시

칼뱅 교리의 핵심으로, 신은 누가 구제되고 구제되지 않을 것인지 이미 결정했으며, 이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신의 섭리라는 주장이다.

칼뱅이 주장한 예정설은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신의 은총에 의지하는 것임을 밝힌 것으로,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 성직자의 매개적 역할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칼뱅은 신의 선택 표시는 세속적 성공에 있으므로, 모든 신자는 자기가 선택되었다는 확신을 가

지고 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며, 생활 속의 수도사가 되어 검소하고 근면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문에 칼뱅의 예정설은 새로 성장하는 상공업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고, 이들의 신앙심을 더욱 철저하게 만들 수 있었다.

종교 전쟁 88차시

• 네덜란드 독립 전쟁(1568~1648)

네덜란드 저지대 지방의 네덜란드 17주가 에스파냐에 대항하여 벌인 독립 전쟁이다. 전쟁 시작과 함께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공화국을 수립하여 에스파냐로부터 사실상 독립하였으며, 1648년 법적으로 독립이 승인되었다.

• 위그노 전쟁(1562~1598)

1562년 가톨릭을 신봉하던 기즈 공작이 예배를 올리던 위그노들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가톨릭과 위그노 간의 격렬한 싸움은 1572년 성 바로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로 1만 명의 신교도가 죽음을 당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이때 위그노인 나바르 공(公) 앙리는 프랑스 왕의 딸과 결혼하고자 파리에 갔다가 감금되었다. 그러나 그는 1598년 프랑스 국왕(앙리 4세)이 되었으며, 즉위 후에 종교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낭트 칙령을 발표하였다. 낭트 칙령으로 제한적이나마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은 위그노들은 상공업에서 성공을 거두어 프랑스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 30년 전쟁(1618~1648)

신성 로마 제국이 있던 독일을 중심으로 구교와 신교 사이에서 벌어진 종교 전쟁이다. 시작은 종교 전쟁이었으나, 스웨덴이 참전한 1630년 이후에는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상호 동맹이 이루어져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30년 전쟁의 주요 무대인 독일 지역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많은 군인이 급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약탈을 일삼아 도시와 마을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열강들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고 전쟁을 종식시켰다. 그리하여 에스파냐는 네덜란드를 잃었고 프랑스는 강국으로 부상했으며, 스웨덴은 발트 해의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독일은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황제권이 약화되었으며, 각 영방 국가의 주권이 인정되어 분열이 더욱 심해졌다.

희망봉 89차시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서해안을 탐험하며 인도 항로를 개척하는 데 앞장섰다. 항해왕 엔히크 이후 잠시 수그러졌던 탐험의 열기는 주앙 2세가 즉위하자 다시 활발해졌다. 1473년에 적도를 넘어서고, 1483년에는 콩고 강을 발견하였으며, 1488년에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아프리카 최남단에 도달하였다. 그는 그 근방에서 심한 폭풍에 시달려, 이곳을 '폭풍의 곶(Cape of Storms)'이라고 불렀다.

그 후 1498년 바스쿠 다 가마가 이 곶을 통과하여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한 데서 연유하여, '희망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바스쿠 다 가마가 이끈 4척의 함대는 희망봉을 통과한 후, 이슬람 항해 전문가 이븐 마지드의 도움으로 인도양을 건너 1498년에 인도 캘리컷에 도착하였다. 이 항로는 100년 이상 포르투갈의 국가 기밀이었다.

콜럼버스 89차시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1451~1506)는 아프리카 남단을 돌지 않고도, 서쪽으로 계속 항해하면 더 빨리 인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에스파냐의 여왕 이사벨라와 산타페 협약을 맺으면서 후원을 얻어 내는 데 성공하였다.

1492년 8월 3일 콜럼버스는 산타 마리아호, 핀타호, 니냐호 등 배 3척에 120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팔로스 항구를 출발하여 10월 12일에 바하마 제도의 한 섬에 도착하였다. 콜럼버스는 자신이 인도의 한 부분에 도착한 것이라 확신하고, 신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자 이 섬을 '산살바도르(성스러운 구세주)'라고 불렀다.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황금과 향료가 나는 땅에 대한 정보를 듣고 히스파니올라 섬(지금의 아이티)까지 항해하였다.

두 번째 항해 때 콜럼버스는 황금과 향료 대신 원주민들을 붙잡아 본국에 노예로 보냈다. 1500년 8월 콜럼버스는 식민지 개척자로서의 능력을 의심받아 사찰관 보바딜리야에 의해 족쇄가 채워진 채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콜럼버스는 1506년 5월 21일 자신이 발견한 섬들이 아시아의 일부라고 확신한 채 바야돌리드에서 죽었다.

콜럼버스가 발견한 대륙이 인도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낸 사람은 아메리고 베스푸치이다. 이후 신대륙은 그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불리게 되었다.

가격 혁명 89차시

에스파냐는 신대륙에서 대규모의 금과 은을 채굴하여 막대한 양의 귀금속을 유럽으로 가져왔다. 1520~1608년에 에스파냐에 수입된 은은 1만 8,000톤이나 되었으며, 금

도 200톤이 넘었다. 당시 유럽의 화폐는 금화나 은화였기 때문에 귀금속의 대량 유입은 곧바로 화폐 가치의 하락과 물가 상승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유럽의 물가는 16세기 100년 동안 평균 2~3배나 상승하였다. 이러한 엄청난 물가 상승을 '가격 혁명'이라 한다.

물가 상승은 고정된 수입으로 생활하던 임금 노동자나 지주에게는 불리하였으나, 상인이나 수공업자는 이를 기회로 쉽게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노예 무역 89차시

유럽 인들은 16세기부터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데려와 노예로 삼았다. 이러한 노예 무역은 주로 영국, 에스파냐, 포르투갈 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무역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국가적 이익이 컸기 때문에 노예 상인들은 대부분 국왕의 보호를 받았다. 아프리카에서 잡히거나 팔린 흑인들은 노예선을 타고 이동하였는데, 아프리카에서 신대륙까지는 보통 5주가 걸렸다. 이들은 불결한 배 밑 칸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한두 달을 견뎌야만 했다. 이 때문에 항해 도중 절반은 죽을 정도였다고 한다.

노예 무역이 절정을 이룬 18세기에는 매년 7만 5천~9만 명의 흑인들이 대서양을 건너 팔려갔으며, 18세기에만 600만 명의 노예가 거래되었다. 흑인 노예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로 팔려가 면화 농장, 사탕수수 농장, 담배 농장, 광산 등지에서 혹사당하였다. 유럽 인에 의하여 노예 무역이 시작된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에 팔려 간 아프리카 인은 약 1,200만 명에 이르렀다.

에스파냐의 아메리카 침략 과정 89차시

에스파냐의 코르테스는 1519년 아스테카 제국에 적대적인 부족들과 동맹을 맺고 553명의 병사와 16마리의 말, 14문의 대포를 가지고 아스테카 제국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오늘날의 멕시코시티)에 도착하였다. 그곳 원주민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말과 요란한 소리를 내는 총을 가진 백인들을 그들이 기다리던 '창조의 신'이라고 착각하였고, 황제는 코르테스와 그 일행을 극진하게 환대하였다. 그러나 코르테스는 황제를 인질로 삼아 권력을 장악해 버렸다.

에스파냐의 피사로는 1531년에 불과 180명의 병사와 37마리의 말을 가지고 잉카 정복에 나섰다. 당시 잉카 제국은 수년간 계속된 형제간의 싸움으로 세력이 약해져 있었다. 피사로는 음모를 꾸며 황제를 사로잡고 몸값으로 막대한 황금을 받은 후 황제를 처형해 버렸다.

왕권신수설 90차시

절대주의의 근거로 제시된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은 신이 왕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왕이 지상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라는 주장이다. 영국의 제임스 1세는 "왕은 지상에서의 신의 대리자요, 신의 자리에 앉아 있을 뿐 아니라 신 자신에 의해서조차 신이라 불리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왕권신수설은 국왕 권력의 정당성을 직접 신에게서 구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로마 교황 및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내적으로는 봉건 제후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프랑스 루이 14세가 왕세자였던 시절에 그의 가정 교사였던 보쉬에(1627~1704)는 "신은 국왕을 당신의 사절로 세우시고 국왕을 다스리신다. 우리는 모든 권력이 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안다."라고 설명하여 왕권신수설을 옹호하였다.

중상주의 90차시

좁은 의미로는 절대 왕정 시대에 유럽 각국이 취한 경제 정책을 가리키고, 넓은 의미로는 국가 통일과 국가 권력의 증대를 위한 새로운 국가 건설을 포괄하는 이론이다.

처음에는 금은 등 귀금속의 소유가 국부의 원천이라 하는 중금주의가 등장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중금주의 경제 정책의 불충분함이 드러났다. 중상주의는 무역 차액설을 토대로 보호 관세 등을 적용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가시켜 국부를 축적하려 하였다. 나아가 국내 공업 발전의 필요성을 깨달아 국내 공업의 보호 육성에 힘을 기울였고, 증대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국외 식민지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러한 정책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시한 사람이 프랑스의 콜베르이다.

계몽사상 90차시

계몽사상은 17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하여 18세기 프랑스나 미국 등지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진보적 사상이다. 계몽이란 '깜깜함에 빛을 비추는 것(Enlightenment)'을 의미한다. 즉 이성이 억압당한 어둡고 무지몽매한 상태를 깨우친다는 뜻이다. 계몽사상은 근대 사상의 소산이었으며,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철학, 자연 과학의 발달, 로크의 정치사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계몽사상의 핵심은 이성 중심이며, 이성의 힘에 의해 인

간은 우주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지식 · 자유 · 행복이 합리적 인간의 목표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성적이지 못한 전통적 관습, 의례, 도덕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절대 왕정과 구제도를 비판하고, 자연권 사상과 사회 계약설에 의거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의 건설을 지향하였다.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로는 몽테스키외, 볼테르, 루소 등이 있다.

사회 계약설 90차시

로크는 '통치론'에서 인간의 자연 상태는 자연법이 지배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이며, 인간은 재산, 생명, 자유라는 자연권을 누린다고 주장하였다. 로크는 "인간은 자연권의 보호를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사회)를 형성하였다. 그런데 계약 시 지배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지배자가 위탁받은 권한과 한계를 넘어서면 시민은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였다.

루소는 문명 사회의 허식과 거짓을 비판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라."라고 외치며, 그의 저서 "사회 계약론"에서 주권 재민설을 주장하였다. 루소는 "사회(국가)는 국민 전체의 사회 계약으로써 성립하며 개별적인 의지의 집약인 동시에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가 법질서 성립의 기반이 된다." 라고 하였다. 주권은 바로 국민 전체의 일반 의지의 행사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정부는 이를 집행할 따름이라고 주장하였다.

루이 14세 90차시

> 짐이 곧 국가다. …… 우리가 신민으로부터 받는 복종과 존경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정의와 보호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존경해야만 하듯이,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 주어야만 한다.

'태양왕'이라고 불린 루이 14세는 부르봉 절대 왕정의 전성기를 대표한다. 재상제를 폐지하고 자신이 직접 고문관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대신들에게 명하여 자기의 결정 사항을 집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임시적인 특사의 성격을 띤 앵탕당(지사)의 직무를 확대하여 각지에 상주시킴으로써 관료 조직망을 전국에 걸쳐 확대하였다.

루이 14세는 콜베르를 재무 총감으로 기용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한 후 자신을 지상에서의 신의 대행자라 하여 왕권신수설을 주장하였고, '하나의 국가에 하나의 종교'를 표방하며 1685년에는 낭트 칙령을 폐지하고 신교도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이 때문에 상공업에 종사하던 신교도가 국외로 이주하면서 프랑스 산업은 타격을 받았다. 또 여러 차례의 대외 전쟁과 화려한 궁정 생활로 재정이 악화되고 절대 왕정의 모순이 심해지기도 하였다.

베르사유 궁전(Chateau de Versailles) 90차시

베르사유 궁전은 파리 근교의 작은 시골 마을이던 베르사유에 루이 14세(재위 1643~1715)가 당대 최고의 건축가, 화가, 조경사 등을 동원하여 세운 왕궁이다. 프랑스 절대 왕정 시기 권력의 중심지답게 호화로운 건축물과 예술품, 광대하게 조성된 정원을 자랑한다.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226개의 방에는 늘 1,000여 명의 귀족과 4,000여 명의 시종들이 북적거렸으며, 5,000여 명의 신하들이 별채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거울의 방에서는 거의 매일 무도회와 축제가 열렸고, 400명의 정원사들이 수많은 꽃들을 관리하였으며, 왕은 초대한 손님들과 정원 산책을 즐겼다.

베르사유 궁전이 실제 궁전으로 사용된 기간은 매우 짧았다. 1715년 루이 14세가 죽은 후, 루이 15세는 곧바로 파리로 다시 궁전을 옮겼다. 이후 베르사유 궁전은 1783년 미국 혁명 후의 조약 체결, 1871년 독일 제국의 선언, 1919년 제1차 세계 대전 후의 평화 조약 체결 등이 국제적 행사를 치르는 무대가 되었다.

프리드리히 2세 90차시

> 국민이 군주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군주가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 군주 정치의 진정한 목적은 백성에게 그들이 타고난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선에 이르도록 그들을 올바로 이끄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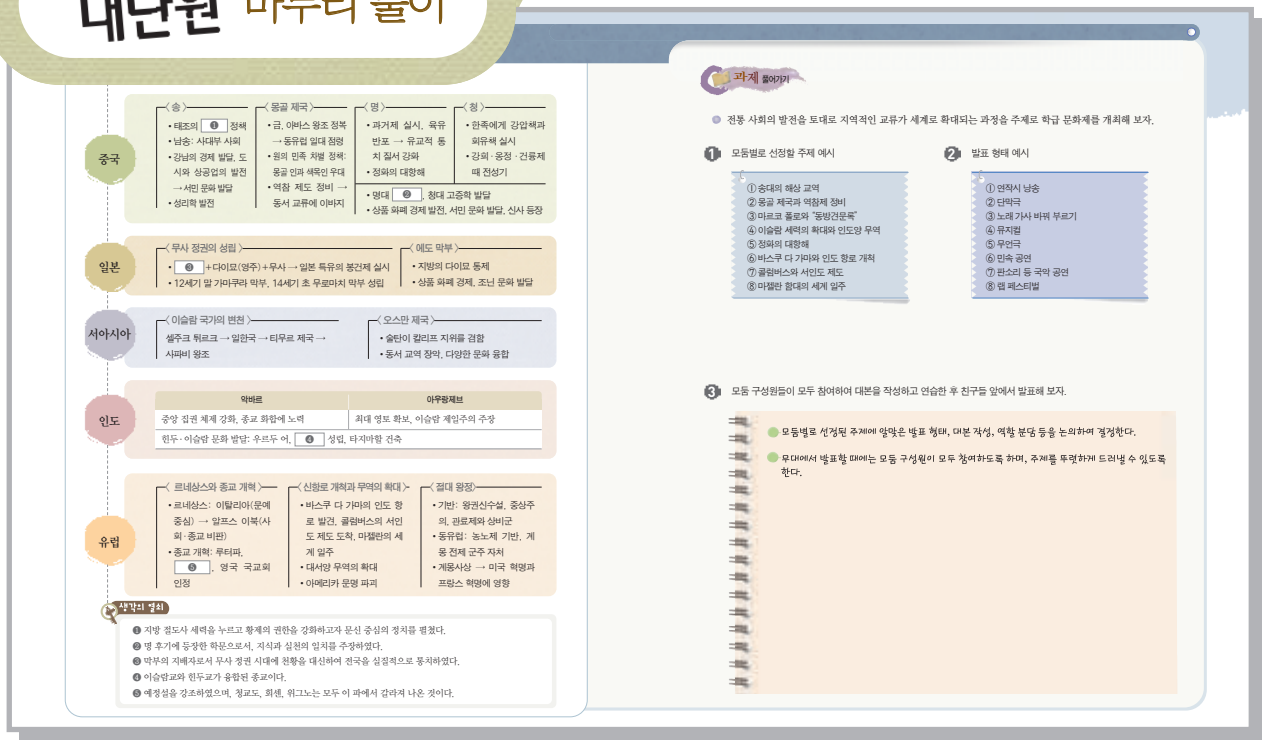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소년 시절에 프랑스 인 가정교사의 교육을 받아 프랑스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국왕으로 즉위한 후에는 풍부한 국고와 방대한 군대를 활용하여 강력한 대외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오스트리아와 슐레지엔 전쟁을 벌여 슐레지엔을 병합하고 대대적으로 개발하였다.

'군주는 국가 제1의 공복(公僕)'이라는 신조 아래 서유럽 국가들을 모방하여 관료제와 상비군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대단원 마무리 풀이

교과서 | 314~315쪽



내용 확인하기

❶ 문치주의

✚ 이 정책으로 송은 군사력이 크게 약해져 북방 민족의 침입에 시달리게 되었다.

❷ 양명학

✚ 성리학이 차츰 이론과 형식에 치우치면서 현실과 동떨어지자 명 후기에 등장한 새로운 유학이다.

❸ 쇼군

✚ 막부 체제는 이 사람이 무사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무사는 충성과 봉사의 의무를 지는 관계를 기반으로 성립하였다.

❹ 시크교

✚ 무굴 제국 시대에 펀자브 지방에서 등장한 종교이다.

❺ 칼뱅파

✚ 근면, 정직, 절약하는 생활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신의 의지에 부합하는 행동이라 주장하여 상공 시민 계층의 환영을 받았다.

과제 풀어가기

| 예시 답안 |

주제: ⑤ 정화의 대항해
형태: ④ 뮤지컬
#1. 항구. 여러 사람이 배에 오르고 있고, 배를 배경으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 있다.
정화: 잘 다녀오겠습니다.
영락제: 조심해서 잘 다녀오게나.

#2. 배에 오른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른다. 노를 저어 나아가자~ 더 멀리 더 멀리~♬

#3. '말레이시아'라고 쓰인 표지판을 들고 지나간다.
정화: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비단과 도자기입니다. 이 지역의 특산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말레이시아 인: 명에서 오신 손님이로군요. 반갑습니다.

대단원 짚고 가기

01 다음 〈보기〉에서 송이 문치주의를 실시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를 모두 고르면?

보기

㉠ 군사력 강화　　㉡ 사대부 등장
㉢ 귀족 문화 발달　　㉣ 북방 민족 침입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02 다음 지도에 표시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① 칭기즈 칸이 몽골족을 통합하고 제국을 세웠다.
② 칭기즈 칸이 죽은 후 4한국과 원으로 분열되었다.
③ 몽골 인 제일주의를 내세워 민족 차별 정책을 실시하였다.
④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 이자성의 농민군에 멸망하였다.
⑤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고자 역참 제도를 정비하였다.

03 다음 (가), (나)에 해당하는 유학을 각각 쓰시오.

(가) 명대에 이론과 형식에 치우친 성리학을 비판하며 등장한 학문으로, 지식과 실천의 일치를 주장하였다.
(나) 청대에 등장한 학문으로, 문헌에 근거하여 실증적이고 과학적으로 학문을 연구하였다.

04 일본 역사에서 다음 내용들과 관련 있는 시대는?

• 산킨고타이 제도 실시
• 가부키, 우키요에 등 조닌 문화 발달
• 난학(蘭學)을 통한 근대적의 학문 발달

① 나라 시대　② 헤이안 시대
③ 에도 막부 시대　④ 무로마치 막부 시대
⑤ 가마쿠라 막부 시대

05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나라는?

11세기 후반에 (　　)이/가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소아시아(지금의 터키 지역)와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과 지배층의 권력 다툼 등으로 세력이 약화되다가 몽골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였다.

① 일한국　② 무굴 제국
③ 오스만 제국　④ 티무르 제국
⑤ 셀주크 튀르크

06 다음 글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도시 이름은?

15세기 중엽 오스만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　　)(이)라 고쳐 수도로 삼았다. (　　)은/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동서 교역의 요지로 번영을 누렸다.

① 이스파한　② 이스탄불
③ 바그다드　④ 다마스쿠스
⑤ 사마르칸트

07 다음은 지연이가 역사 수업 시간에 정리한 내용이다. 정리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제목: 무굴 제국 통치자 비교

아크바르	아우랑제브
① 중앙 집권 체제 강화 ② 타지마할 건축 ③ 비이슬람교도에게 인두세 폐지	④ 데칸 고원 남부까지 영토 확대 ⑤ 이슬람 제일주의 정책 실시 → 이교도의 반발

08 믈라카 왕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5세기 초 말레이 반도에 등장하였다.
② 16세기 초 포르투갈의 침입으로 몰락하였다.
③ 타이의 아유타야 왕조를 멸망시키며 세력을 떨쳤다.
④ 동아시아와 인도를 연결하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하였다.
⑤ 이슬람 상인과 손잡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이슬람교 확산에 이바지하였다.

09 다음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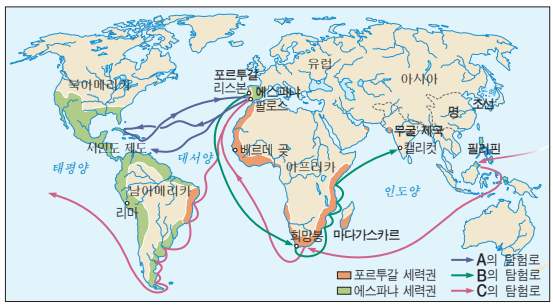
> "현재 교황은 베드로와 바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을 맡기고 호화로운 의식과 즐거운 일만 찾는다. 교황처럼 즐거운 생활을 하며 근심 없는 사람도 없다."
> – 에라스뮈스, "우신예찬"
> "그렇게 온순하고 조금씩만 먹던 양들이 요즘에는 지나치게 많이 먹고 또 사나워져 과장하면 사람들까지 다 먹어치우고 있다."
> – 토머스 모어, "유토피아"

① 인간 중심적이고 현세적이었다.
② 라틴 어로 쓴 문학 작품들이 나왔다.
③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④ 그리스 · 로마의 고전 연구에 치중하였다.
⑤ 부패한 교회와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하였다.

10 종교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칼뱅파가 종교의 자유를 얻었다.
② 칼뱅의 교리는 주로 제후와 농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③ 가톨릭과 신교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여 종교 전쟁이 일어났다.
④ 루터가 면벌부 판매에 반대하여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였다.
⑤ 칼뱅은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예정설을 주장하였다.

11 다음 지도의 A~C 항로를 개척한 인물을 각각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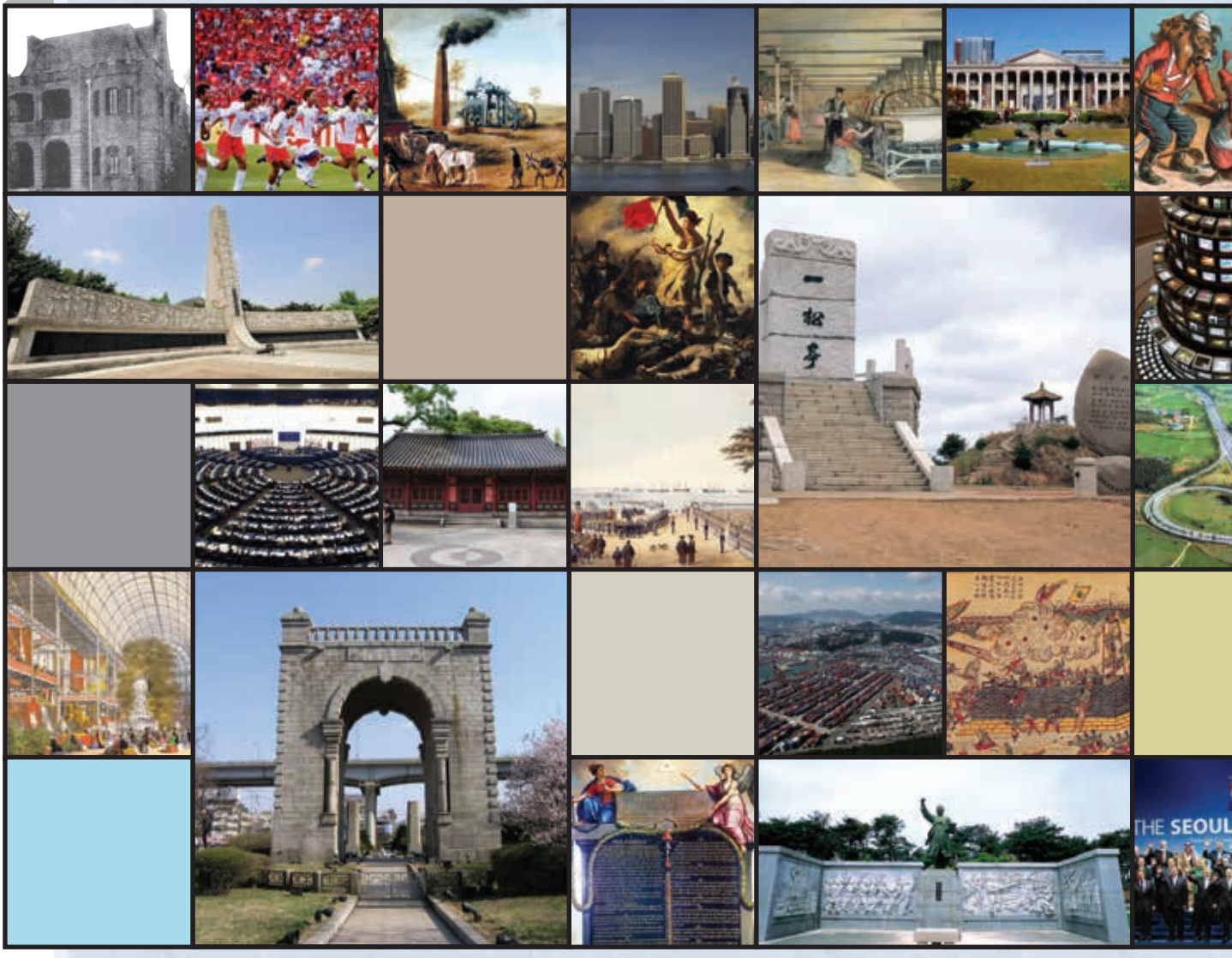
12 절대 왕정 시기 각 군주의 업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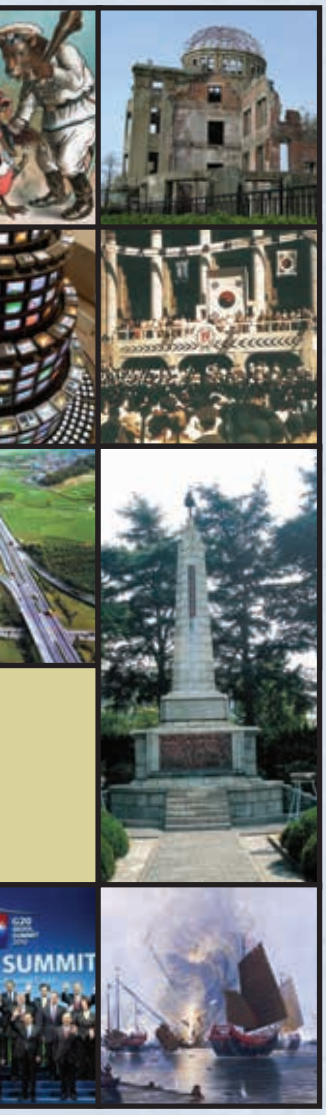
① 엘리자베스 1세 – 계몽 전제 군주 자처
② 펠리페 2세 – 시베리아 경영, 발트 해 진출
③ 프리드리히 2세 – 북아메리카에 식민지 건설
④ 루이 14세 – 베르사유 궁전, 화려한 궁정 문화
⑤ 표트르 대제 – 무적함대 격파, 동인도 회사 설립

정답

01 ④ 02 ④ 03 (가) 양명학, (나) 고증학 04 ③ 05 ⑤ 06 ② 07 ② 08 ③ 09 ⑤ 10 ② 11 A. 콜럼버스 B. 바스쿠 다 가마 C. 마젤란 12 ④

각론





역사 ②

I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국권 수호 운동	324
II	민족 운동의 전개	358
III	대한민국의 발전	390
IV	산업 사회와 국민 국가의 형성	420
V	아시아 · 아프리카 세계의 변화와 민족 운동	452
VI	현대 세계의 전개	480

I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국권 수호 운동

1 단원의 개관

이 단원에서는 19세기 중엽 흥선 대원군의 집권 시기부터 일제에 의해 대한 제국의 국권이 침탈되기까지를 다룬다.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과 개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을 파악하고, 일제의 침탈 과정과 이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이해한다.



▲ 황토현 전적지(전북 정읍)

01. 개항과 개화 정책의 추진에서는 흥선 대원군 집권기의 개혁 정책, 강화도 조약 체결의 대내외적 배경, 개항 이후 추진된 개화 정책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살펴본다.

02.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동학 농민 운동에서는 갑신정변, 동학 농민 운동, 갑오개혁에서 지향했던 새로운 사회를 각각의 구체적 개혁안을 통해서 살펴본다.

03. 독립 협회와 대한 제국에서는 아관 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결성된 독립 협회의 활동과 고종의 환궁 이후 새롭게 출범한 대한 제국이 근대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실시한 개혁을 다룬다.

04.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 변화에서는 개항 이후 신문물이 수용되는 배경과 과정을 이해하며, 수용의 양상을 교육 · 언론 · 문예 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05. 국권 수호 운동에서는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의 흐름을 설명하고, 특히 일제에 의해 독도가 불법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파악한다.

2 단원의 목표

지식 · 이해	• 19세기 후반에 자주적 근대화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열강의 침략에 대항하여 위정척사 운동, 동학 농민 운동, 항일 의병 전쟁 등 민족 운동이 전개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외세의 침략과 위협 속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기능	•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의 시기별 전개 양상과 특징을 비교 · 분석할 수 있다. •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의 변화를 지도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근대 문화 활동이 민족의 자주 독립 수호를 위한 노력과 연결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가치 · 태도	• 항일 의병 전쟁, 의거 활동 등을 파악하며 순국선열의 애국 · 애족의 정신을 본받으려는 자세를 갖는다. •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국권 수호 운동에서 나타난 주체적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 • 민족의식의 고취와 자주권 수호를 위한 노력을 파악하며,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는 자세를 배운다.

3 단원의 구조와 지도 계획

차시	중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
1	01. 개항과 개화 정책의 추진	1. 흥선 대원군의 개혁과 통상 수교 거부 정책 ~ 2. 강화도 조약과 여러 나라와의 수교	삼정의 문란, 호포법, 서원 정리, 당백전, 병인양요, 신미양요, 척화비, 운요호 사건, 강화도 조약, "조선책략", 불평등 조약
2		3. 개화 정책의 추진과 갈등	통리기무아문, 별기군, 조사 시찰단, 위정척사 운동, 임오군란, 조 · 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3	02.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동학 농민 운동	1. 갑신정변	급진 개화파, 개혁 정강, 톈진 조약, 거문도 사건
4		2. 동학 농민 운동	방곡령, 교조 신원 운동, 고부 봉기, 집강소, 전봉준
5		3. 갑오개혁	군국기무처, 홍범 14조, 삼국 간섭, 을미사변, 을미개혁, 단발령
6	03. 독립 협회와 대한 제국	1. 독립 협회	아관 파천, 독립신문, 독립문, 만민 공동회, 헌의 6조
7		2. 대한 제국과 광무개혁	대한국 국제, 황제권 강화, 광무개혁, 구본신참의 원칙, 지계
8	04.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 변화	1. 근대 문물의 수용	경인선, 광혜원, 서양 건축 양식, 생활 양식과 가치관 변화
9		2. 근대 문화의 형성	원산 학사, 육영 공원, 사립 학교, 한성순보, 대한매일신보, 주시경, 신채호, 박은식, 신소설과 신체시
10	05. 국권 수호 운동	1. 일제의 국권 침탈	러 · 일 전쟁, 제1차 한 · 일 협약, 독도, 간도 협약, 제2차 한 · 일 협약(을사조약), 통감부, 헤이그 특사, 한 · 일 신협약
11		2. 의병 항쟁 ~ 3. 애국 계몽 운동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서울 진공 작전, 안중근, 헌정 연구회, 대한 자강회, 신민회, 국채 보상 운동

4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 19세기 후반 나라 안팎의 위기 상황, 개항 이후 개화와 보수의 갈등, 외세의 침략과 그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진 민족사의 전개 과정을 이해시킨다.
- 19세기 이후 민족사적 과제는 근대화의 추진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수호하려는 과정이었음을 탐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사료, 사진, 도표와 지도, 역사 부도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학생들이 주요 역사적 사건의 흐름을 흥미롭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5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 서의식,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솔, 2003.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탐구당, 2003.
- 김육훈,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휴머니스트, 2006.
- 한국사연구회,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하)", 지식산업사, 2008.
- 이승원, "세계로 떠난 조선의 지식인들", 휴머니스트, 2009.
- 하영선, "네트워크 지식 국가", 을유문화사, 2006.
- 전국 역사 교사 모임 http://akht.eduhope.net/

Ⅰ.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국권 수호 운동

01 개항과 개화 정책의 추진

학습 목표

- 흥선 대원군이 추진한 개혁의 내용과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 강화도 조약 체결의 대내외적 배경과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 개항 이후 추진된 개화 정책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설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1	**1. 흥선 대원군의 개혁과 통상 수교 거부 정책 ~ 2. 강화도 조약과 여러 나라와의 수교**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흥선 대원군이 집권하기 이전 순조~철종 시기에 행해진 정치 형태를 무엇이라고 할까?	문답식	
	[전개]		
	• 자료를 활용하여 대원군의 정책을 국내 · 국외로 구분하여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13쪽 자료
	• 병인양요, 신미양요에 대해 발표하게 한 후 원인, 전개 과정, 결과를 정리하게 한다.	발표식	14쪽 자료
	•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 배경과 내용을 살펴본다.	강의식	CD
	• 조약의 불평등성을 모둠별로 탐구하게 하고, 이후 맺어진 각국과의 수교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15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흥선 대원군이 경복궁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화폐는?		
	2. 수신사로 일본에 간 김홍집이 가져와 미국과 수교를 맺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책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2	**3. 개화 정책의 추진과 갈등**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개항 이후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정부가 설치한 기구는 무엇인가?	문답식	
	[전개]		
	• 개화의 의미와 개화사상의 형성 과정, 개화 정책의 내용을 설명한다.	강의식	PPT
	• 개화 정책에 반발하여 일어난 위정척사 운동을 사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시기별로 특징을 구분하게 한다.		CD
	• 최익현이 강화도 조약 체결을 반대한 이유를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18쪽 자료
	•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임오군란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결과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동영상

2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영선사 파견을 계기로 설치된 근대 무기 공장은? 2. 청 상인이 조선의 내륙에서 장사할 수 있는 특권을 보장받은 조약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흥선 대원군의 개혁과 통상 수교 거부 정책

(1) 나라 안팎의 정세

① **국내 상황**
- 세도 정치 전개 → 왕권 약화, 삼정의 문란
- 사회의 동요 → 농민 봉기, 동학과 천주교의 확산

② **국외 상황**: 이양선의 출몰, 중국과 일본의 개항, 러시아의 접근

(2) 흥선 대원군의 내정 개혁

① **목표**: 왕권 강화와 재정 확보, 정치 질서 회복

② **주요 개혁 내용**
- 세도 정치 타파: 안동 김씨 축출, 인재 고루 등용
- 비변사 폐지 → 의정부 기능 회복
- 삼정의 개혁: 호포법 및 사창제 실시
- 서원 정리, 양전 사업 실시 → 국가 재정 확충
- 경복궁 중건: 원납전 징수, 당백전 발행, 토목 공사 동원

③ **결과**
- 왕권 강화, 백성 생활 안정에 기여
- 일부 양반의 반발과 경복궁 중건으로 백성의 불만 고조

(3) 흥선 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

① **병인박해**: 프랑스 선교사를 비롯한 천주교 신도 처형

② **병인양요**
- 발단: 병인박해를 구실로 프랑스가 강화도 침입
- 경과: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삼랑성)에서 격퇴

③ **신미양요**
- 발단: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미국이 강화도 침입
- 경과: 어재연 부대가 광성보에서 저항

④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의 의의**
- 문제점: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
- 의의: 외세 침략에 맞선 자주적 성격

2. 강화도 조약과 여러 나라와의 수교

(1) 강화도 조약

① **배경**: 일본의 통상 조약 강요(운요호 사건), 일부 관리들의 개항 주장

② **내용**: 조선이 자주국임을 명시, 세 항구 개항, 개항장에 일본인 거주 허용, 조선 해안 측량권 및 치외 법권 허용 등

③ **성격**: 불평등 조약

④ **의의**: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2) 서양 여러 나라와의 수교

① **미국**: 서양 국가 중 최초로 조약 체결 → 최혜국 대우

② 영국, 독일, 러시아 등과 수호 통상 조약 체결

③ **평가**: 불평등 조약, 세계사의 흐름에 합류

3. 개화 정책의 추진과 갈등

(1) 정부의 개화 정책

① 수신사 · 조사 시찰단 파견(일본), 영선사 파견(청), 보빙사절단 파견(미국)

② **통리기무아문설치**: 개화 정책 주관

③ **별기군 조직**: 신식 군대, 일본 교관 초빙

(2) 위정척사 운동

① **목표**: 일본과 서양을 배척하고 고유의 유교 질서 수호

② **경과**: 개항, 개화정책 반대 → 의병 항쟁으로 계승

(3) 임오군란

① **배경**: 개화론과 척사론의 대립, 민씨 세력과 대원군의 갈등, 일본에 대한 군중의 반발

② **경과**: 구식 군인들이 봉기 → 정부 고관과 일본 군사 교관 살해 → 대원군 재집권, 개화 정책 중단 → 청의 대원군 납치 → 민씨 세력 재집권

③ **영향**
- 청: 내정 간섭 강화, 조 · 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
- 일본: 일본군의 서울 주둔(제물포 조약)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2쪽

강화도에 설치되어 있던 외규장각에는 1천 7종, 5천 67책이 소장되어 있었으나, 1866년 병인양요 당시 강화도에 상륙한 프랑스 극동 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이 불태워 전각이 소실되었다. 그 결과로 5천여 권 이상의 책이 불에 타 사라졌으며, 의궤를 비롯한 340여 책이 약탈되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3쪽

1. 호포법
2. 흥선 대원군이 전국의 서원 중 47개만을 남겨 놓고 철폐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4쪽

병인박해로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처형된 것에 대해 프랑스가 조선을 응징하겠다며 1866년 9월 세 척의 군함을 이끌고 양화진을 거쳐 서울 근교까지 침입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프랑스 선교사가 포교를 하면서 우리의 풍속을 어지럽혔기 때문에 국법에 의해 그들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프랑스 함대의 퇴거를 요구하는 격문을 프랑스군에게 보냈다. 이에 프랑스 함대는 선교사 처형과 관련된 책임자 처벌과 프랑스와의 조약 체결을 요구하며 일단 퇴거하였다가, 10월에 다시 일곱 척의 군함을 보내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5쪽

부산을 포함한 세 곳의 항구 개항, 조선과 일본의 통상 허용 등과 일본 항해자의 조선 해안 측량 허가, 일본인에 대한 치외 법권 인정 등 불평등한 내용이 담겨 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5쪽

제7항 일본 항해자의 조선 해안 측량권 허용, 제10항 일본인에 대한 치외 법권(영사 재판권) 인정은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에 해당한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7쪽

"……곳곳마다 화륜선, 화륜차를 만들고 또 사람을 시켜 먼 곳에서 상업을 경영케 했으니, 요는 온 힘을 다해 재화를 모으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김기수가 작성한 수신사 보고서의 일부이다. 수신사 일행은 증기선과 기차, 전보, 신문, 대포 등 근대 문물을 시찰하고 이를 보고서에 작성하여 고종에게 올렸다.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은 고종과 조정 대신들의 근대화와 국제 정세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8쪽

예시 답안 실은 양적(洋賊, 서양 도적)입니다.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 서적과 천주의 초상화가 교역하는 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선교사와 신자의 전수를 거쳐 사학이 온 나라 안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포도청에서 살피고 검문하여 잡아다 베려고 하면, 저들의 사나운 노기가 또한 더욱 커지게 될 것이고 강화로 맺은 맹세가 허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죄를 묻지 않는다면 얼마 안 가 집집마다 사학을 받들고 사람마다 사학에 물들게 될 것입니다. 아들이 아비를 아비로 여기지 않고 신하가 임금을 임금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 예의는 시궁창에 빠지고 인간은 금수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9쪽

1. (1) 호포제, (2) 별기군, (3) 제물포 조약
2. (1) 경복궁, (2) 조사 시찰단, 영선사
3. ㉠-㉡-㉢-㉣

내용 더하기

대원군의 인재 등용 1차시

대원군이 집권한 후 어느 공회 석상에서 음성을 높여 말하기를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겠으며, 태산을 깎아 내려 평지를 만들고, 또한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하는데 제공들은 어떻게 생각하오?"라고 물었다. …… 대개 천리지척이라는 말은 종친을 높인다는 뜻이요, 남대문 3층이란 말은 남인을 천거하겠다는 뜻이요, 태산을 평지로 만들겠다는 말은 노론을 억압하겠다는 의사이다. - 황현, "매천야록"

세도 정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실권을 장악한 흥선 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 질서를 바로잡으려 하였다. 대원군은 외척의 세도로 권세를 누리던 안동 김씨 세력을 정계에서 몰아내고 당파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였다.

호포제(戶布制) 1차시

양반, 상민을 막론하고 모든 호(戶)에 공평하게 군역(軍役)과 관련된 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원래 양반은 관직에 나아가 국가에 봉사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군역을 면제받고 있었는데, 이는 상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재정을 좀먹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양반에게 군역을 지우자는 호포제 개혁론이 제기되었지만,

양반 기득권층의 반발로 2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논의만 있었을 뿐 실현을 기대할 수 없었다. 흥선 대원군의 호포제 실시로 상민의 세 부담은 다소 가벼워졌고, 양반 · 상민 모두 군역세를 내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평등 의식도 확산되었다.

병인박해 1차시

이때 나라 안을 샅샅이 뒤지니 포승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어느 길에서나 볼 수 있었다. 포도청 감옥은 넘쳐나 제때 재판을 받을 수 없었다. …… 교수형을 할 때마다 배교할 것인가를 물었다. 하지만 작은 어린아이도 부모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기를 바랐다. 대원군이 듣고 어린아이를 빼고 모두 죽여라 하였다. 시체를 수구문 밖에 버리니 산과 같았다.

- 이능화, "조선 기독교 및 외교사"

대원군은 초반에 천주교에 관대하였으며,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프랑스 선교사의 알선으로 프랑스와 교섭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는 성사되지 못하였고, 청에서 천주교 탄압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생들이 천주교 금지를 주장함에 따라 프랑스 신부 9명과 신도 수천 명을 처형하였다.

병인양요 당시 대원군이 쓴 글 1차시

1.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화친을 허락한다면 이는 나라를 파는 것이다.
2. 해가 있음을 모르고 그들과 교역을 허락한다면 이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3. 적이 서울로 쳐들어올 때 서울을 버리고 간다면 이는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4. 만약 귀신을 부르는 재주가 있어 적을 물리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후의 폐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 "용호한록(龍湖閒錄)"

프랑스는 병인박해를 구실로 극동 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이 이끄는 군함 7척을 강화도로 보냈다. 이에 대원군은 강한 항전 의지를 보였고, 문수산성에서 한성근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양헌수 부대가 활약하여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조 · 일 수호 조규 부록(1876) 1차시

제7관 일본 인민은 일본의 여러 화폐로 조선 인민의 소유물과 교환할 수 있고, 조선 인민은 교환한 일본의 여러 화폐로 일본에서 나는 여러 화물을 살 수 있으니, 이로써 조선이 지정한 여러 항구에서 일본 화폐를 인민 상호간에 통용할 수 있다.

조 · 일 수호 조규 부록은 '조 · 일 수호 조규' 제11조에 통상 장정을 체결할 것과 '조 · 일 수호 조규' 각 조항의 세목을 보완 · 첨가하기로 한 취지에 따라 마련되었다. 이 부록은 일본이 한반도에 정치적 · 경제적 침투 기반을 확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제7관에서 일본 화폐의 통용권을 부여하여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합법화시켜 주었고, 실질적 가치가 형식적 가치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엽전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길을 열어 놓았다.

조 · 일 통상 장정(1883) 1차시

제6관 조선의 여러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할 수 있다.

제7관 일본 정부에 소속된 선박들은 항세(港稅)를 납부하지 않으며, 수출입 상품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직후 통상 관계에 대하여 조 · 일 무역 규칙이 맺어졌다. 이 조약은 조선의 양곡을 일본으로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고, 일본 수출입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후 조선 정부는 관세 자주권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여 새로운 통상 장정 체결을 모색하였으나 일본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1882년 조 · 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 관세 5%, 수출세 5%와 각 세율에 대하여 3개월 전에 통고하면 조선 정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되자, 조 · 일 통상 회담을 통해 새로운 통상 장정이 체결되었다.

새롭게 체결된 통상 장정에서는 방곡령(防穀令) 선포와 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책략 1차시

조선 땅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열강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할 것이다.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국도 위급해진다. 러시아가 영토를 넓히려고 한다면 반드시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이 세워야 할 책략으로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親中國), 일본과 맺고(結日本), 미국과 이어짐(聯美國)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뿐이다. …… 조선은 마땅히 미국에 사절을 보내어 수교해야 할 것이다. 하물며 그들이 사신을 잇달아 보내어 조선과 연결을 하려는 뜻이 있음에랴. 미국을 끌어들여 우방으로 삼으면 도움을 얻고 화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미국과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조선책략"은 청의 주일 공사관 관리 황준헌의 저서이다.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항하고자 조선과 청 사이의 외교 정책을 논한 것으로, 1880년에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가져와서 고종에게 바쳤다. "조선책략"이 유포되면서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자, 유생들은 집단 상소를 올리며 책의 유포를 반대하였다.

조 · 미 수호 통상 조약 1차시

조선 정부는 미국과의 수교에 앞서 강화도 조약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조약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대신 청과 미국이 준비한 초안을 바탕으로 조약 내용이 결정되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대표인 슈펠트의 직접 협상 대상은 이홍장을 비롯한 청 관리였는데, 이는 청이 조선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조 · 미 수호 통상 조약은 전문 14개조로 되어 있다. 거중 조정과 관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치외 법권 등이 담긴 불평등 조약이었으며, 강화도 조약에 없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개화사상의 변화 2차시

무릇 개화란 인간의 온갖 만물이 가장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일컫는데, 개화에는 인륜 개화, 학술 개화, 정치 개화, 법률 개화, 기계 개화, 물품 개화가 있다. 인륜 개화는 천하만국을 통하여 그 동일한 규모가 천만 년이 지나도 장구함이 변하지 않거니와, 정치 이하의 여러 개화는 시대에 따라서 변개(變改)하기도 하고 지방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그런고로 옛날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맞지 않으며, 저쪽에는 좋지만 이쪽에는 좋지 않은 것도 있어, 곧 고금의 형세를 살피고 피차 사정을 비교하여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것이 개화의 대도(大道)이다. - 유길준, "서유견문"

개화(開化)는 원래 "역경(易經)"의 '개물성무(開物成務)'와 "예기(禮記)"의 '화민성속(化民成俗)'의 머리글자를 따온 것으로, 유교로써 교화한다는 뜻이다. 우리 전통을 유지 · 보전하면서 서양의 기술 문명을 받아들이자는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개화 운동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적인 민족 국가를 확립하려고 했던 움직임이다. 그 바탕이 된 개화사상은 안으로는 북학파의 사상을 계승한 통상 개화론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으며, 밖으로는 청의 양무운동과 일본의 문명 개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1860~1870년대에 형성된 개화사상에 영향을 준 것은 양무운동이다. 양무운동은 중체서용(中體西用)의 원칙에 입각해 중국의 봉건적 통치 체제와 성리학적 신분 질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려 하였다.

1880년대에 들어오면서 개화는 주로 서양의 'civilization'을 가리키는 문명 개화(文明開化)라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갔다. 문명화 곧 서구화를 이루려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전통 질서를 깨뜨리고 서양의 법과 제도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였다. 훗날 김옥균, 박영효 등 갑신정변의 주역들은 이러한 이념을 받아들였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인 문명 개화론자인 후쿠자와 유키치의 영향을 받은 급진 개화파에게는 개화가 급격한 서구화의 추진이라는 논리로 정착되었다.

통리기무아문 2차시

강화도 조약 이후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외국과의 교섭 및 통상 등 정세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청의 총리기무아문을 모방하여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통리기무아문은 각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12사를 두었다.

구분	기능
사대사	중국과의 외교
교린사	일본 및 각국과의 외교
군무사	중앙과 지방의 군사 통솔
변정사	국경 사무, 인근 국가의 동정 탐색
통상사	외국과의 통상
군물사	병기 제도
기계사	각종 기계 제조
함선사	각종 선박 제조
기연사	연안 포구를 왕래하는 선박 검사
어학사	각국 언어와 문학의 번역
전선사	관리 선발과 관용품 조달
이용사	재정 사무

위정척사 운동 2차시

위정척사(衛正斥邪)는 성리학과 이에 기반을 둔 전통 질서를 지키고 이외의 종교와 사상은 배격하자는 주장이다. 이항로, 기정진, 최익현, 유인석 등 보수적인 유생층이 중심이 되었으며, 1890년대 이후에는 항일 운동으로 계승되어 반외세 · 반침략의 자주적 민족 운동으로 발전했다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통치 체제, 양반 중심의 신분 제도, 성리학적 질서를 옹호하고 구체적인 근대화의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측면도 지닌다.

시기	주요 인물	전개
1860년대	이항로, 기정진	통상 반대 운동
	척화주전론, 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지지	
1870년대	최익현, 유인석	개항 반대 운동
	왜양일체론에 입각하여 개항 반대	
1880년대	이만손, 홍재학	개항 반대 운동
	개화 정책 추진과 "조선책략" 유포에 반발, 영남 만인소 사건	
1890년대	유인석, 이소응	항일 의병 운동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에 반발	

▲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

별기군과 구식 군인 2차시

별기군은 1880년 2차 수신사가 일본에 다녀온 후 1881년 설치된 신식 군대이다. 일본군 호리모토 중위를 초빙하여 교관으로 삼고, 소총으로 무장하여 신식 훈련을 받았다.

한편 구식 군인은 대부분 급료를 받아 생활하는 직업 군인으로, 주로 왕십리나 숭례문 밖에 살고 있던 도시의 빈민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정부는 이들에게 거의 월급을 주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악화된 재정 형편과 별기군 창설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상공업이나 채소 재배 등을 통해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정부가 별기군을 바탕으로 군대 편제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정리 해고에 대한 강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 결국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과 구식 군인의 불만이 폭발하여 임오군란이 일어나 호리모토 중위는 타살되었고, 별기군도 폐지되었다.

제물포 조약 2차시

제1조 범인 체포는 20일로 한정하고 기한 내에 체포하지 못할 경우 일본 측에서 맡아서 처리한다.
제2조 일본 관리로서 조난을 당한 자를 후하게 장사지낸다.
제3조 일본인 조난자 및 그 유족에게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 일본군의 출동비 및 손해에 대한 보상비로 50만원을 조선 측이 지불한다.
제5조 일본 공사관에 군대를 상주시키고 병영의 설치 · 수선 비용을 조선 측이 부담한다.
제6조 조선에서 대관(大官)을 특파하여 일본에 사과한다.

청군의 개입으로 임오군란이 수습되자,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의 사과와 배상 요구 및 거류민 보호를 위한 군대 출동 등을 결의하고 조선에 압력을 가하였다. 결국 1882년 7월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 군대가 서울에 상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조선 침략의 발판을 놓았다. 한편 일본에 사죄 사절을 파견한다는 조항에 따라 박영효를 정사로 하는 수신사를 일본에 파견하였는데, 이때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처음으로 태극기를 사용하였다.

임오군란의 결과 2차시

위안스카이는 차츰 차츰 조선 왕실과 정부에 손을 뻗치기 시작하더니 끝내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마침내 위안스카이의 간섭이 동전(銅錢)의 국호(國號)까지 이르렀다. "청나라는 큰 나라이고 조선은 작은 나라이다. 대조선(大朝鮮)이라는 칭호는 작은 나라로서 격에 맞지 않는다."하여 대(大)자를 쓰지 못하게 하였다. …… 이리하여 1892년에 만든 5냥 은화, 5푼 동화에 새겨져 있는 대조선자는 위안스카이가 시비하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대조선이라고 되어 있고, 1893년부터 만든 돈은 모두 대자를 빼고 조선 개국으로 만들게 되었다. - 유자후, "조선 화폐고"

청은 임오군란을 진압한 이후 조선 내정에 적극 간섭하였다. 곧 위안스카이 등이 지휘하는 군대를 상주시켜 조선 군대를 훈련시키고, 마젠창과 묄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하여 조선 내정과 외교 문제에 관여하였다. 1882년 8월 조선과 청은 조 · 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장정의 핵심은 조선이 청의 속국이며, 청 상인이 내륙까지 진출하여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청의 간섭은 1894년 청 · 일 전쟁에서 청이 패할 때까지 계속되어 조선의 자주권을 크게 손상시켰다.

Ⅰ.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국권 수호 운동

02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동학 농민 운동

학습 목표

- 갑신정변의 배경과 전개 과정 및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파악할 수 있다.
- 개항 이후 일제의 경제 침탈이 농촌 사회에 끼친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 갑오개혁의 추진 과정과 성과 및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 갑신정변, 동학 농민 운동, 갑오개혁에서 지향했던 새로운 사회를 개혁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3	**1. 갑신정변**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 개화파가 모범으로 삼은 동아시아의 근대 운동은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중국과 일본의 근대화 운동을 비교하고,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의 차이를 설명한다.	강의식	PPT
	•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을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본다.		동영상
	• 갑신정변 때의 개혁 정강을 분석한 후, 갑신정변으로 수립된 정부의 개혁 정책과 지향했던 정치 형태를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21쪽 자료
	• 갑신정변이 실패한 원인과 의의를 설명한다.	강의식	CD
	• 갑신정변의 결과로 맺어진 조약을 정리하고, 갑신정변 이후의 정세를 거문도 사건을 중심으로 파악하게 한다.	탐구식	21쪽 지도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갑신정변 이후 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은?		
	2.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한다는 구실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나라는?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4	**2. 동학 농민 운동**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최제우가 창시하였으며 인내천을 기본 사상으로 하는 종교는?	문답식	
	[전개]		
	• 조 · 일 통상 장정 사료와 당시 곡물 유출 실태를 보여 주는 그래프를 활용하여 일본의 경제 침투 실상을 파악하게 한다.	탐구식	역사 부도
	• 곡물 유출이 농촌 경제와 농민의 생활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이에 대항하여 취해진 조	발표식	22쪽 지도

4	치를 발표하게 한다. • 동학 농민 운동의 배경과 1차 농민 봉기의 전개 과정을 설명한다. • 동학 농민군의 개혁안에 나타난 사회의 모습을 반봉건적인 측면과 반외세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추론하게 한다. • 동학 농민 운동 2차 봉기의 배경 및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 동학 농민 운동의 의의와 한계점을 발표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당시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곡물 유출의 금지를 선포한 명령은? 2. 동학 농민군이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은 후 전라도 각지에 설치하였던 지방 자치 민정 기관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강의식 탐구식 강의식 발표식 문답식	23쪽 지도 23쪽 자료 학습지
5	**3. 갑오개혁**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우리나라에서 신분 제도가 철폐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전개] • 갑신정변, 동학 농민 운동에서 제시된 개혁 내용을 상기하며 교정청과 군국기무처를 설명한다. • 모둠별로 갑오개혁의 주된 개혁 내용을 탐구하며 갑오개혁의 긍정적 · 부정적 의미를 각각 발표하게 한다. • 청 · 일 전쟁부터 삼국 간섭, 을미사변, 을미개혁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게 한다. • 갑오개혁의 성과와 의의를 설명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교육을 통한 부국강병을 강조하며 1895년 고종이 발표한 조칙은? 2.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에게 랴오둥 반도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한 나라는?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강의식 발표식 탐구식 강의식 문답식	CD PPT 24쪽 삽화 CD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갑신정변

(1) 갑신정변의 발발

① **배경**: 청의 내정 간섭 심화, 소극적인 개화 정책

② **개화파의 분화**

구분	온건 개화파	급진 개화파
중심인물	김홍집, 김윤식 등	김옥균, 박영효 등
개혁 방안	점진적 개혁 추구	급진적 개혁 추구
개혁 모델	청의 양무운동	일본의 메이지 유신

③ **중심인물**: 급진 개화파(개화당, 독립당) 인사

④ **경과**: 우정총국 개국 축하 연회를 이용하여 정변(1884) → 새 정부 구성, 개혁 정강 공포 → 청의 개입 → 개화당 정권 붕괴 → 김옥균, 박영효 등 일본 망명

(2) 개혁 정책의 실시

① **내용**: 청에 대한 자주권 선언, 신분 제도 · 조세 제도 개혁, 입헌 군주제 도입 등

② **성격**: 근대적 개혁을 통한 근대 국가 수립 도모

③ **실패 원인**

- 국민들의 개화사상에 대한 이해 부족
- 일본군의 힘에 의존, 청군의 개입

(3) 갑신정변의 결과

① 청의 내정 간섭 심화

② **톈진 조약**: 청 · 일 양국군 철수, 조선 파병 때 상호 고지 약속

(4) **갑신정변 이후 나라 안팎의 정세**

① **거문도 사건(1885)**

- 배경: 갑신정변 이후 조선을 둘러싼 청 · 일본 · 러시아 · 영국 등 열강 사이의 경쟁 심화
- 경과: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이 거문도 점령 → 영국, 2년 만에 철수

② **중립화론**: 유길준, 독일 부영사 부들러 등이 조선 중립화론 제기

2. 동학 농민 운동

(1) **방곡령**

① **배경**: 일본으로 곡식 유출 심화, 흉년 → 곡물값 폭등

② **경과**: 함경도 · 황해도 방곡령 발표 → 일본 정부 반발 → 일본에 막대한 배상금 지불

③ **영향**: 반일 감정, 정부에 대한 불신 고조

(2) **동학 농민 운동**

① **교조 신원 운동**

- 교조 최제우의 누명을 벗겨 줄 것과 동학 탄압 중지 요구
- 보은 집회: 교조 신원, 외세 배척, 탐관오리 숙청 요구 → 사회 개혁 운동으로 발전

② **고부 농민 봉기**

- 배경: 고부 군수의 부정과 탐학
- 경과: 전봉준의 주도, 농민들이 관아 공격(1894) → 황토현 전투 등에서 관군 격파 → 전주성 점령

③ **전주 화약**: 정부가 청에 지원 요청 → 톈진 조약을 구실로 청 · 일의 개입 → 정부와 화약 체결 → 집강소 설치 → 개혁 추진

④ **동학 농민군의 재봉기**

- 원인: 일본의 경복궁 점령, 청 · 일 전쟁 발발
- 전개: 일본군 타도를 내세우며 다시 봉기
- 결과: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에게 패배 → 전봉준 체포, 처형 → 동학 농민 운동 좌절

(3) **동학 농민 운동의 의의**

① 반봉건, 반외세의 농민 운동

② 동학 농민군의 요구는 갑오개혁에 일부 반영

3. 갑오개혁

(1) **갑오개혁**

① **배경**

- 동학 농민 운동을 계기로 정부는 교정청 설치
- 일본의 강요로 새로운 정부 구성

② **경과**: 군국기무처 설치 → 개혁 추진(1894) → 일본의 내정 적극 간섭 → 김홍집 · 박영효 내각의 군국기무처 폐지, 개혁 추진 → 고종의 '홍범 14조' 선포, '교육입국 조서' 발표

③ **내용**: 정치 · 경제 · 사회 제도의 근대적 개혁

- 정치 개혁: 과거제 폐지, 재판소 설치(사법권 독립)
- 사회 개혁: 신분제 폐지, 노비 해방, 과부 재가 허용
- 홍범 14조: 자주 독립, 문벌 타파 등

(2) **을미개혁**

① **을미사변(1895)**

- 배경: 삼국 간섭, 조선의 배일 정책 추진
- 전개: 위기를 느낀 일본이 명성 황후 시해

② **을미개혁**: 태양력 채택, '건양' 연호 사용, 단발령 실시

③ **을미의병**: 을미사변과 단발령 실시에 분노한 양반 유생과 농민들이 의병 운동 전개

(3) **갑오개혁의 한계와 성과**

① **한계**: 일본의 간섭과 침략적 의도로 성급하게 진행, 군사 제도 개혁 소홀, 토지 제도 개혁 외면

② **성과**: 개항 이후 정부가 추진한 개화 정책, 갑신정변과 동학 농민 운동의 개혁 요구 반영, 근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20쪽

청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주독립을 실현하고, 봉건적 신분 제도 등을 폐지하며 입헌 군주제에 바탕을 둔 근대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21쪽

1. 인민 평등권

2. 대신들이 국정을 논의 · 결정하고 왕권이 헌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2쪽

동학 농민 운동

탐구 활동 ▶▶▶ 교과서 23쪽

예시 답안 탐관오리의 횡포, 전세의 과다 징수, 어염세 등 각종 세금, 과중한 노역, 환곡의 폐단 등으로 농민의 고통이 심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4쪽

개국 기원 사용, 문벌과 계급 타파, 능력에 따른 인재 선발, 연좌제 폐지, 조혼 금지, 과거제 폐지 등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25쪽

1. (1) ×, (2) ○, (3) ○, (4) ×
2. (1) 거문도, (2) 집강소
3. ㉠ – ㉢ – ㉡ – ㉣

내용 더하기

온건 개화파 3차시

> 저들(서양)의 종교는 사악하다. 마땅히 음탕한 소리나 치장한 여자를 멀리하듯이 해야 한다. 하지만 저들의 기술은 이롭다. 잘 이용하여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다면 농업, 양잠, 의약, 병기, 배, 수레에 대한 기술을 꺼릴 이유가 없다. 종교는 배척하되 기술을 본받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다. 결코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
> - "고종실록", '김윤식이 기초한 고종 조서'

온건 개화파는 청의 양무운동을 본보기로 삼아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전통적인 사상과 정치는 유지하는 동도서기론에 바탕을 두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급진 개화파 3차시

> 그(김옥균)는 구미 문명이 하루저녁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열국이 서로 경쟁을 벌여 점진적으로 이룩해낸 것으로, 수세기나 필요했으나 일본은 일대 만에 속성하였다고 이해하였다. 그리하여 스스로 일본을 본보기 삼고자 백방분주하였다.
>
> - 서재필, '회고 갑신정변'

급진 개화파는 서양의 기술, 기계뿐만 아니라 정치, 제도, 종교까지 받아들이려 하였다. 이들은 일본을 가장 훌륭한 본보기이자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원군으로 인식하였다.

갑신정변 직전의 상황 3차시

개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재정난이 심해지자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는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끌어들이려 하였다. 그러나 차관 교섭이 실패하면서 급진 개화파의 정치적 입지는 매우 좁아졌다.

급진 개화파는 이러한 난관을 무력으로 단번에 돌파하려 하였다. 이 무렵 1884년 베트남을 두고 청 · 프 전쟁이 일어나자 청은 조선에 주둔한 자국 군대의 절반을 철수하였다. 이에 급진 개화파는 일본을 등에 업고 민씨 정권을 무너뜨리려 하였다. 일본도 급진 개화파를 도와 청의 세력과 민씨 정권을 내몰고 조선에서 우위를 차지할 속셈으로 군대 동원과 차관을 약속하였다.

우정총국 3차시

보빙 사절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한 홍영식이 건의하여 설치한 관청으로, 근대적 우편 업무를 담당하였다. 1884년 10월부터 우편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12월 4일에 일어난 갑신정변으로 12월 9일 폐쇄되었다.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 3차시

갑신정변은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외세에 의존하여 개혁을 추진하려 하였다. 또한 청군이 예상 외로 신속하게 군사 개입을 하였으며, 지원을 약속한 일본군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철수하였다.

갑신정변을 주도한 개화파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지향하였음에도,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은 정치 변혁을 담당할 주체(시민 계층)가 아직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혁신 정강에 토지 제도의 개혁이 제외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중의 이해와 관심을 끌어들이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도 실패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대다수의 민중은 갑신정변의 주역들을 매국노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홍영식 등은 청군에게 살해되고, 김옥균 · 박영효 · 서재필 등 9명은 일본으로 망명하여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하였다.

톈진 조약(1885) 3차시

> 제1조 청국은 조선에 주둔한 군대를 철수한다. 일본국은 공사관 호위를 위해 조선에 주재한 병력을 철수한다.
>
> 제3조 앞으로 만약 조선에 변란이나 중대 사건이 일어나 청 · 일 두 나라나 어떤 한 국가가 파병을 하려고 할 때에는 마땅히 그에 앞서 쌍방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그 사건이 진정된 뒤에는 즉시 병력을 전부 철수시키며 잔류시키지 못한다.

갑신정변 이후 상황이 불리해진 일본은 조선에 주둔한 청 · 일 양국 군대의 공동 철수안을 제안하였다. 제안에 소극적이었던 청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일본의

교섭을 받아들였다.

톈진 조약은 조선에 관한 청 · 일 양국의 권리에 대한 첫 약정으로서, 양국 군대의 동시 철수, 제3국 교관의 파견, 동등한 출병권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는 일본이 조선에서의 권리를 청과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0년 뒤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조약에 의거하여 양국 군대가 조선에 출병하였고, 결국 청 · 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거문도 사건 3차시

대한 해협과 쓰시마 해협 입구에 있는 거문도는 열강들 사이에 '동양의 지브롤터'로 불렸는데, 특히 러시아는 이 섬을 기지로 삼아 태평양 진출을 꾀하고 있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러시아와 대립하던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1885).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며 내건 구실은 러시아의 선점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었으나, 실은 러시아의 극동 함대 모항인 블라디보스토크를 공격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었다.

영국은 조선의 영토를 무단 점령하고, 그 사실을 1개월이 지난 뒤에야 조선 정부에 정식으로 통보하였다.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러시아와의 긴장이 어느 정도 해소되자, 영국은 조선의 어느 곳도 점유하지 않는다는 러시아의 약속을 받아낸 이듬해에 거문도에서 철수하였다.

유길준의 중립화론 3차시

> 불가리아가 중립 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의 여러 대국들이 러시아를 막으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고, 벨기에가 중립 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의 여러 대국들이 자국을 보전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대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고, 또한 아시아의 여러 대국들이 서로 보전하는 정략이 될 것이다. ……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도 될 것이고, 여러 나라가 서로 보전하는 계책도 될 것이니 무엇이 괴로워서 하지 않겠는가. - "유길준 전서"

조선 중립화론은 조선 주재 독일 부영사 부들러와 유길준에 의해 1885년경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부들러는 조선을 스위스와 같은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자고 건의하였고, 유길준은 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강대국이 보장하는 중립론을 구상하였다.

일본으로의 곡물 유출 증가 4차시

구분	1885년	1896년
쌀	27.2(5.83)	2,852.0(56.37)
콩	53.5(11.46)	1,534.10(30.32)
합계	124.6(26.69)	4,585.1(90.63)

(단위: 천 엔, %)

▲ 일본으로 수출되는 음식료품의 구성비 변화

> 무자(1888년) 8월 21일. 올해 흉작은 일찍이 없었던 바이다. 도내 모든 군현이 흉작이어서 한 톨도 수확하지 못하고 있다. 길가에 쓰러져서 모두 거지가 되고 여염집 사람들 걱정이 태산 같으며 장차 열 집에 아홉 집은 텅 비게 되고 장시의 쌀값은 하늘 높은 줄 몰라 1석에 거의 1만 전이다. 지금 사정도 이처럼 심각한데 앞으로의 걱정은 한이 없다. 가만히 알아보니 도내에 쌀, 콩, 묵은 곡물 약간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조금 있다. 만일 이것을 일본 상인이 이전처럼 사서 가져가면 전 도가 굶을 형편이다. 가련한 우리 굶주린 백성은 더욱 의지할 데가 없다.
>
> - "통리아문일기", '경상도 감사 이호준의 보고'

방곡령 선포 4차시

> 만일 조선국이 자연재해나 변란 등으로 말미암아 국내의 양곡이 부족해질 염려가 있어서, 조선 정부가 잠정적으로 양곡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는, 그 시기보다 1개월 앞서 지방관으로부터 일본 영사관에 알리고, 또 일본 영사관은 그 시기보다 앞서 각 개항장의 일본 상인에게 알려 일률적으로 준수케 한다. - 조 · 일 통상 장정 제37관

1876년에 맺어진 조 · 일 무역 규칙에서는 일본 상인의 곡물 유출이 무제한 허용되었으나, 1883년 개정된 조 · 일 통상 장정에서는 조선에서 식량이 부족할 경우 지방 장관의 방곡령으로 곡물 수출을 금지할 수 있었다.

1880년대 일본 상인들의 횡포로 미곡이 대량 유출되어 쌀값이 폭등하는 등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자 곳곳에서 방곡령이 시행되었다. 방곡령은 양곡 행정의 자주권 행사이기에 우리나라의 고유한 권한이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절차상의 사소한 문제에서 꼬투리를 잡아, 지방관 처벌을 요구하고 방곡령 취소를 강요하였다. 결국 조선은 이에 굴복하여 방곡령을 철회하고 이자까지 계산하여 110,000원을 배상하였다. 방곡령은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시행되다가 1894년 1월에 전면 해제되었다.

교조 신원 운동 4차시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름은 그 본의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자 함이다.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强敵)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양반과 호강의 앞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과 방백(方伯)과 수령의 밑에서 굴욕을 받는 소리(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이다.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해도 미치지 못하리라. - "동학사(東學史)"

1892년 동학의 교세가 확장되는 가운데 제2대 교주 최시형은 억울하게 처형당한 교조 최제우의 원한을 풀고 동학 신앙의 자유를 인정받기 위해 교조 신원 운동을 전개하였다.

동학교도는 12월에 삼례 집회를 열어 교조 신원,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 금지 등을 요구하였으나, 교조 신원은 관찰사의 권한 밖이라 하여 거절당하고 교도 탄압 금지만을 약속받았다. 또한 박광호 등 40여 명의 신도가 서울로 올라가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복합 상소를 올렸으나 실패로 끝났다. 최시형은 전국에 통문을 보내 1893년 보은 집회를 열었다. 2만여 명이 모인 이 집회에서는 단순한 교조 신원 운동 차원을 넘어 외세 배격 등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집강소 4차시

집강소는 동학 농민 운동 당시 설치되었던 농민들의 개혁 기관이자 자치 기구이다. 본래 전통적으로 향촌에는 집강이 있어 수령을 보좌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일을 했는데, 동학 농민 운동 당시에는 농민 출신의 집강이 수령이 하던 행정을 대신 맡아 농민들의 요구를 실현시켜 나갔다.

집강소는 양반 신분제를 타파하는 데 앞장서 신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서로를 모두 접장이라고 불렀다. 또한 경제적 수탈과 불평등 관계를 시정하기 위해 노비 문서와 토지 문서를 불태우고 고리대도 모두 탕감했다. 신분적 · 경제적 평등을 지향한 집강소의 활동은 조선의 봉건적 질서를 해체시키는 것이었으며, 갑오개혁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파랑새 민요 4차시

새야 새야 파랑새야 /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 꽃이 떨어지면 / 청포 장수 울고 간다.

동학 농민 운동 당시와 그 이후에 동학 농민 운동과 전봉준에 대한 많은 일화와 민요가 유행하였다. 위의 파랑새 민요에는 동학 농민 운동의 실패를 안타까워하고 당시의 정세를 은유적으로 비난하는 정서가 담겨 있다. 시에서 '파랑새'는 진압하러 온 청군, '녹두'는 키가 작았던 전봉준, '청포 장수'는 민중을 의미한다.

우금치 전투 4차시

충청남도 공주는 당시 일본군과 관군의 거점으로, 서울로 통하는 길목이기도 했다. 농민군은 공주를 공략하여 서울로 진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주력 부대를 집결하여 공주를 포위하고 농민군의 운명을 건 일대 결전에 돌입하였다.

농민군은 추운 겨울 날씨에 변변한 무기는커녕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짚신을 신은 채 찬밥 덩어리를 먹고 찬바람에 동상을 입는 악조건 속에서 싸웠다. 결국 농민군은 일본군과 관군에게 크게 패하였다.

교정청 4차시

고종 31년(1894년) 6월 24일, 우리 정부는 왕명을 받들어 교정청(校正廳)을 설치하였다. 당상관 15명을 두고 먼저 폐정 몇 가지를 개혁하니, 모두 동학당이 주장한 것이다. 우리 힘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일본인들이 끼어듦을 막고자 하였다.
- 김윤식, "속음청사"

동학 농민 운동을 계기로 정부는 농민군의 요구를 수용하여 일본의 내정 개혁 요구를 거부하고 스스로 개혁을 추진하고자 교정청을 설치하였다. 곧이어 개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여기에는 농민군의 요구 사항과 매우 밀접한 세금 제도 개혁과 신분제 폐기 등이 포함되었다.

청 · 일 전쟁 4차시

조선 정부와 동학 농민군의 타협 노력에 불안을 느낀 일본이 경복궁에 난입해 신정권을 세우고, 풍도 앞바다의 청 함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청 · 일 전쟁이 일어났다. 청은 양무운동으로 훈련시킨 회군과 북양함대를 동원하였으나 평양 전투에서 패하고 해군도 괴멸되었다. 결국 청 · 일 전쟁은 청의 패배로 끝이 났고, 청과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인하여 청은 조선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하여 조선에서의 일본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였고, 막대한 배상금을 일본에 지불하였으며, 랴오둥반도 · 타이완을 할양하였다.

군국기무처 5차시

갑오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정 최고 기구로, 총재관인 김홍집과 박정양, 김윤식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다수결로 의결하여 흥선 대원군에게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국왕의 재가를 받아 국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 시기에 일본은 청 · 일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 간섭이 쉽지 않았고, 김홍집 · 박영효 내각이 출범하기 전까지 군국기무처에서 주도권을 잡고 개혁을 추진하였다. 1894년 7월에 설치되어 12월에 폐지될 때까지 208건에 이르는 개혁안을 의결하였다.

제1차 갑오개혁의 개혁 법령 5차시

1. 지금부터 국내외 공사 문서에 개국 기원을 사용할 것
2. 문벌과 계급을 타파하여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뽑아 쓸 것
4. 죄인 자신 이외 일체의 연좌율을 폐지할 것
6. 남녀의 조혼을 엄금하여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라야 비로소 결혼을 허락할 것
7. 과부의 재혼은 자유에 맡길 것
8.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고 인신 판매를 금할 것
9. 평민도 국가에 이익이 되고 백성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군국기무처에 올려 토의에 부치게 할 것
19. 과거제로 실력 있는 인재를 뽑아 쓰기 어려우니 임금의 재가를 얻어 변통하되 따로 선용 조례를 제정할 것
20. 각 도의 부세 · 군보 등으로 상납하는 쌀 · 콩 · 면포는 금납제로 대치하도록 마련할 것

군국기무처가 주도권을 잡고 개혁을 추진할 때 의결된 안건은 무려 208건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주로 농민군이 요구한 사항과 1880년대 이래 정부가 추진한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조세 제도 및 재정 제도의 개혁과 신분제 폐기, 관리 선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홍범 14조 5차시

1.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고히 세울 것
2. 왕실 전범(典範)을 제정하여 대통의 계승과 종실, 외척의 구별을 밝힐 것
3. 대군주가 정전에서 일을 보되,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재결하며 왕후와 비빈, 종실, 외척이 관여함을 용납하지 않을 것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모름지기 나누어 서로 혼합하지 아니할 것
5.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의 제정을 밝혀 행할 것
6. 인민이 부세를 냄을 다 법령으로 정하고 망령되게 명목을 더해 함부로 거두지 아니할 것
7. 조세 과징과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이 관할할 것
8. 왕실 비용을 솔선 절감하여 각 아문 및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할 것
9. 왕실 비용 및 관부 비용은 1년 회계를 예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세울 것
10. 지방 관제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 관리를 직권을 제한할 것
11. 나라 안의 총명한 자제를 널리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과 기예를 견습할 것
12. 장관을 교육하고 징병하는 법을 사용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정할 것
13. 민법과 형법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제정하고 함부로 사람을 가두거나 징벌하지 말게 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할 것
14. 사람을 쓰는 데 문벌을 구애받지 아니하고 선비를 구함에 두루 조야에 미쳐 인재의 등용을 넓힐 것

- "관보"(1894. 12.)

1894년 12월 12일 고종은 세자와 대원군 · 종친 및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독립의 서고문을 고하고 이를 선포하였다. 다음 날에는 이를 전국민에게 반포하였는데, 이 서고문이 홍범 14조이다.

홍범 14조에는 자주독립의 확립, 종실과 외척의 정치 관여 금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광범위한 인재 등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삼국 간섭 5차시

청 · 일 전쟁 기간 중, 러시아는 "만약 러시아가 청을 돕는다면 영국은 일본을 도울 것이다."라는 영국의 경고를 받고 청을 돕지 못하였다. 그러나 청 · 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랴오둥 반도를 얻게 되자, 랴오둥 반도 남쪽 끝에 위치한 다롄과 뤼순 항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를 끌어들여 일본에 다음과 같이 압력을 가하였다.

"랴오둥 반도를 일본이 소유하면 청국 수도를 위태롭게 한다. 뿐만 아니라 조선국 독립까지도 유명무실하게 만들

고 영구적인 평화를 가로막을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에게 랴오둥 반도를 차지하는 것을 포기하기를 권고한다(1895. 4. 23.)."

삼국에 맞설 힘이 없었던 일본은 랴오둥 반도를 청에게 돌려준다고 세 나라에 통보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은 러시아와 미국의 힘을 빌려 일본 세력을 몰아내려 하였다.

을미사변 5차시

삼국 간섭 이후 반일 성향의 명성 황후가 재등장하였고, 친러 세력이 형성되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일본은 무인 출신인 미우라 공사를 새로 조선에 파견하였다. 그는 친러 세력의 배후로 지목된 명성 황후를 제거하는 계획을 세우고 1895년 10월 경복궁을 습격하여 명성 황후를 시해하였다.

당시 시해 현장에는 미국인, 러시아 인, 그 외 많은 조선인이 있어 진상을 낱낱이 목격하여 국제적으로도 자세히 알려졌다. 국제 여론이 나빠지자 일본은 미우라 등 관계자 48명을 구속하고 문초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전원 석방하였다.

을미개혁 5차시

명성 황후 시해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고종이 아관 파천을 한 1896년 2월 초순까지 김홍집 내각이 추진한 근대적 개혁의 시도이다.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 초까지 약 19개월 동안 3차에 걸쳐 추진된 일련의 개혁을 넓은 의미의 갑오개혁이라고 한다. 여기서 제3차 갑오개혁을 을미개혁이라고도 한다. 이 개혁이 추진된 기간은 1895년 8월 하순부터 1896년 2월 초순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 명성 황후가 시해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전후로 김홍집 내각이 성립되었다.

삼국 간섭으로 랴오둥 반도를 반환하게 된 데 이어 조선에서도 실세할 위기에 처한 일본은 조선 정부가 러시아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비상수단을 취하였는데, 명성 황후 시해라는 극단적인 조치였다. 시해 사건 직후 일본 공사는 김홍집 내각을 등장시켜 조선을 조종하였다. 김홍집 내각은 내외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동안 중지되었던 개혁을 재개하였다.

을미개혁은 민중의 반일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시기에 강행된 것이어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명성 황후의 시해에 이어 강제적으로 시행된 단발령(斷髮令)은 전국의 유림을 중심으로 전개된 반일 · 반개화 의병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단발령 5차시

> 1895년 11월 15일, 고종은 비로소 머리를 깎고 내외 신민에게 모두 머리를 깎도록 하였다. 삭발한다는 말이 점차 일어나더니 10월 중에 일본 공사가 왕을 위협하여 빨리 머리를 깎게 하였다. 왕은 인산을 치룬 뒤로 미루었다. 마침내 그 때가 되자 유길준과 조희연 등이 일본군을 인도하여 궁성을 포위하고 대포를 설치한 후 머리를 깎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고 선언하였다. 고종은 긴 한숨을 들이쉬며 정병하에게 말하였다. "경이 짐의 머리를 깎는 것이 좋겠소." 이에 정병하가 가위를 가지고 왕의 머리를 깎고 유길준은 왕태자의 머리를 깎았다. …… 서울에 손님으로 왔다가 상투를 잘리니 모두 상투를 집어서 주머니 속에 감추고 통곡을 하며 성을 나갔다.
>
> - 황현, "매천야록"

을미사변 이후 조직된 김홍집 내각은 태양력 사용, 새 연호 사용, 군제 개편, 종두법 시행 등 이전에 추진되었던 개혁을 시행하였다. 특히 단발령은 전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을미사변과 더불어 유생과 농민의 반일 감정을 폭발시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난 계기였다.

김홍집의 최후 5차시

김홍집은 단발령을 강행하며 임금과 태자의 머리를 강제로 깎은 자로 여겨져 원성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아관파천 직후 친일파로 몰려 체포령이 내려졌고 광화문 앞에서 군중에 의하여 타살되었다.

갑오개혁의 한계 5차시

갑오개혁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개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력 간섭과 반일 · 반침략을 내세운 민중의 반발에 부딪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 당시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부국강병을 위한 군사 제도 개혁과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토지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Ⅰ.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국권 수호 운동

03 독립 협회와 대한 제국

학습 목표

- 독립 협회와 대한 제국의 설립 배경과 과정을 당시 국제 정세와 더불어 이해할 수 있다.
- 독립 협회의 주요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
- 대한 제국의 선포 의의와 광무개혁의 성과 및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6	**1. 독립 협회**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을미사변 이후 고종이 일본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처소를 옮긴 곳은 어느 나라의 공사관인가?	문답식	
	[전개]		
	• 당시의 국제 정세에서 아관 파천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바탕으로 아관 파천 이후 전개된 열강의 이권 침탈 상황을 지도와 도표를 통해 확인한다.	강의식	역사 부도
	• 독립신문 창간사를 활용하여 당시 지식인들이 가졌던 생각과 독립 협회의 활동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27쪽 자료
	• 만민 공동회에서 나온 헌의 6조의 내용을 읽고 당시 민중과 독립 협회가 추구했던 사회 모습을 정리하게 한다.	탐구식	
	• 독립 협회가 정부에 의해 해산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강의식	CD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미국에서 귀국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을 발간한 사람은?		
	2. 정부가 독립 협회를 강제로 해산할 때 동원한 조직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7	**2. 대한 제국과 광무개혁**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러시아 공사관에서 머물던 고종은 1년 만에 어느 궁으로 돌아왔을까?	문답식	
	[전개]		
	• 열강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되는 분위기 속에 고종이 환궁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강의식	PPT
	• 고종이 대한 제국을 선포하여 황제권을 강화하려 한 이유와 당시 국제 정세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 대한 제국이라는 국호, 연호의 사용, 환구단과 황제 즉위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하게 한다.	문답식	28쪽 자료

7	• 광무개혁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 개혁이 지닌 한계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환궁한 고종의 황제 즉위식이 거행된 장소는? 2. 광무개혁 과정에서 발행된 근대적인 토지 소유 증명서의 명칭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토론식 문답식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독립 협회

(1) **아관 파천**

① **내용**: 을미사변 이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긴 사건(1896)

② **결과**: 열강의 이권 침탈 심화

(2) **독립 협회**

① **중심인물**: 서재필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 지식인들

② **사상**: 자주독립, 민권 신장, 개화 혁신

③ **활동**

- 독립문 · 독립관 건립, 독립신문 간행, 토론회 · 강연회 개최, 의회 설립 운동
- 관료와 학생, 일반 시민의 적극 참여

④ **만민 공동회**

- 서울 종로에서 시민들이 정치 · 사회 등에 대해 토론
- 러시아의 내정 간섭 규탄, 열강의 이권 침탈 반대

⑤ **관민 공동회**

- 독립 협회 중심으로 정부 대신이 참여
- 황제에게 올리는 '헌의 6조' 채택 → 자주 국권 수호, 국가 재정의 국민 감시, 황제권 제한, 민권 보장 등

⑥ **해산**

- 보수적 정치인들의 독립 협회 탄압
- 독립 협회의 간부 체포
- 황국 협회 소속의 보부상과 군대를 앞세워 강제 해산

(3) **독립 협회의 한계와 성과**

① **한계**

- 보통 선거에 의한 의회 구성과 의병 활동에 부정적
- 러시아를 제외한 열강에 대해 우호적 태도

② **성과**: 자유 민권 사상 보급, 자주독립 · 자강 개혁 추구

2. 대한 제국과 광무개혁

(1) **대한 제국의 성립**

① **대한 제국(1897)**: 국호를 대한 제국, 연호를 광무라 정함.

② **대한국 국제 반포(1899)**: 자주독립과 황제의 전제권 강조

③ **정책**: 궁내부와 황실 재정 확대, 황제 호위 부대 증강, 원수부 설치, 무관 학교 설립

(2) **광무개혁**: 구본신참의 원칙 → 점진적 개혁 추구

① **상공업 진흥책**

- 근대적 공장과 회사 설립
- 실업 · 기술 교육 기관 설립, 유학생 파견

② 양전 사업 실시, 지계 발급

③ 전화 가설, 우편 · 전보망 확충, 전차와 기차 개통

(3) **평가**

① 자주독립과 부국강병 실현 추구

② 상공업 진흥 및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 확립 등 근대 국가 지향

③ 전제 군주제 강화, 민권 운동 탄압, 열강의 간섭으로 성과 미흡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26쪽

예시 답안

- 부녀를 교육하는 것이 의리상, 도리상 마땅하다.
- 한문보다 국문을 더 쓰는 것이 인민 교육을 성하게 한다.
- 인민의 견문을 넓히려면 국내의 신문 반포가 중요하다.
- 나라를 부유하게 하려면 금, 동, 철 등 광산을 확장해야 한다.
- 우리 국토를 남에게 빌려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 백성의 권리가 높아질수록 임금의 지위가 높아지고 나라가 발전한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8쪽

고종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29쪽

1. (1) ㉢, (2) ㉠, (3) ㉡
2. (1) 만민 공동회, (2) 아관 파천
3. ㉠ – ㉡ – ㉢ – ㉣

내용 더하기

아관 파천 6차시

> 지난해 9월부터 반역 도배들이 나를 압박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단발령으로 일어난 전국적 시위의 혼란을 틈타 나와 내 아들을 살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 러시아 공사관에서 보호받기를 바란다. 나를 구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없다. 나는 두 공사가 나에게 피신처를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
> – "러시아와 한국", '러시아 공사관 이동을 요청하는 고종 친서'

을미의병의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서울 주둔의 주력 부대가 지방으로 출동하자 서울의 경비는 매우 소홀하게 되었다. 을미사변 이래 친일 내각에 포위되어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고종은 이를 좋은 기회로 보고 계획을 세웠다.

드디어 서울 주둔 부대가 지방으로 출동하자, 공사관 경비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인천에 정박 중인 군함으로부터 미국 해병대와 러시아 해병대가 입성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 공사관의 수비병 수가 160명에 달하게 되자, 1896년 2월 11일 새벽, 예정대로 고종과 태자는 극비리에 경복궁을 빠져 나가 정동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아관 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 6차시



국왕이 궁성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했다는 것은 떳떳한 일이 못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조선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계속 러시아의 간섭과 압력을 받게 되었다.

국왕 주변에는 역관, 내시, 그리고 협잡배들이 들끓고 있어서 열강은 이들을 통해 각종 이권을 얻어 냈다. 러시아는 군사 교관과 재정 고문을 파견하고 경원 · 종성 광산 채굴권, 압록강 · 울릉도의 삼림 채벌권, 미국은 운산 금광 채굴권, 영국은 은산 금광 채굴권, 일본은 직산 금광 채굴권을 독점하는 등 조선에 대한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가 아관 파천 이후였다.

독립문의 건립 6차시

> …… 천운이 돌아 이제 대조선국이 독립국이 되어 세계만방으로 어깨를 겨누니 이는 우리 군주 폐하의 위덕(威德)이 떨침이요, 우리 대조선국의 유사 이래의 광명이요, 우리 동포 형제 2천만 인구의 행복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념할 실적이 없으므로 이에 공공의 의견으로 독립 협회를 발기하여 전 영은문 유지에 독립문을 새로이 세우고 전 모화관을 새로 고쳐 독립관이라 하여 옛날의 치욕을 씻고 후인의 표준을 만들고자 함이요, 그 부근의 땅에 독립 공원을 이루어 그 문과 관을 보관코자 하니 성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지라.
>
> – "대한 조선 독립 협회 회보" 1호

독립 협회는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영은문 자리에 독립문 건립을 추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둔 성금으로 1897년에 준공하였다.

독립 협회의 발전 과정 6차시

① 제1기(1896.7.~1897.8.)

진보적 지식인과 정부 관료들이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해 모였으나 친목 단체의 성격이 강하였다. 독립문, 독립 공원, 독립관을 건립하였으며, 고급 관료의 사교 모임 성격도 띠었다.

② 제2기(1897.8.~1898.2.)

독립 협회가 정부의 외세 의존적 정책을 비판하면서 보수파 관료층이 점차 이탈하였다. 개혁파 관료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이 주도하여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하고 일반 민중을 적극 계몽하였다.

③ 제3기(1898.2.~1898.9.)

진보적 지식인들이 주류를 형성하였다.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외세의 이권 침탈과 내정 간섭을 비판하고 민권의 신장과 의회 설립을 추구하였다.

④ 제4기(1898.9.~1898.12.)

윤치호, 이상재 등 소장층 지식인들이 주도권을 장악하여 민중을 대변하는 압력 단체의 역할을 하였다. 박정양의 진보 내각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언론 집회 자유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관민 공동회를 열어 헌의 6조를 수락하게 하는 등 민권 투쟁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독립 협회의 국민 참정권 주장 6차시

육대주와 동등하여 만국과 나란히 하는 것은 폐하의 권리이고, 폐하의 백성이 되어 폐하의 강토를 지키고, 그 정치를 거슬리고 법률을 어지러이 하는 신하가 있어서 종사를 해롭게 하면 탄핵하여 성토하는 것은 저희들의 권리입니다. 어떤 자가 말하기를 민권이 성하면 군권(君權)이 반드시 줄 것이라 하니 그 무식함이 이보다 심함이 있겠습니까? 만일 오늘날 국민의 의논이 없으면 정치, 법률이 따라서 무너져 어떠한 화가 일어날지 모르니 …… - 윤치호 등의 상소문(1898)

독립 협회의 사회 진화론적 세계관 6차시

독립 협회는 적자생존과 우승열패를 절대시하는 사회 진화론적 시각으로 세계 질서를 파악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침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국력을 기르는 것일 뿐, 즉각적인 저항은 생각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에 대한 저항은 개화에 거스르는 것이라고 여겼으며, 민중을 계몽하고 사회를 서구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지주와 자산가 계층을 주체로 설정하여 이들의 정치 참여를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민중을 교화 대상으로 여겨 그들의 정치 참여를 봉쇄하거나 심지어 의병을 비도(匪徒)로 보았다. 그래서 독립 협회가 말하는 '민권'은 지주와 자산가의 개화를 의미하였던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독립 협회의 이권 수호 운동 6차시

국내에서 금 · 은 · 석탄광 등이 있으면, 마땅히 스스로 채굴하여 그 이익을 얻을지니, 하필 외국에 양여하여 몰래 넘보게 하고 흘러나가게 하여, 점점 자기 나라는 날로 빈천(貧賤)케 하고 다른 나라로 하여금 부강케 하리요. 그러므로 국내의 철도 · 전선과 금 · 은 · 석탄광 등을 타국인에게 빌려주고 양여함은 곧 전국을 타국인에게 방매함이요. ……

- 대조선 독립 협회 회보 제7호 논설

독립 협회는 국가의 자주독립은 자원과 산업의 자주적 개발을 통한 자립 경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믿고, 이권의 양도를 반대하였다. 또 이미 빼앗긴 이권도 조속히 돌려받아야 하고, 회수가 불가능하면 매입해서라도 국가 이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독립 협회와 국민의 요구로 러시아는 절영도 조차 요구를 철회하였고, 일본도 절영도 석탄고 기지를 반환하였다.

중추원 관제 6차시

독립 협회는 박정양 내각과 협상하여 새로운 중추원 관제를 반포하게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의회 설립안이었다. 중추원은 정부에서 추천하는 의관 25명과 독립 협회가 추천하는 민선 의관 25명으로 구성되었다.

독립 협회에 대한 비판 6차시

진사 이범철이 글을 올렸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이른바 민회라는 것은 독립 협회와 같은 조항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겉으로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표방하고 속으로는 사실 변란을 일으켜서 망명한 큰 역적을 벼슬에 임명하려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심보와 꾸며낸 계책을 규명해 보면 저들과 같은 패거리 의관들로 하여금 제 마음대로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여 정부를 움직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 "고종실록"

황국 협회 6차시

황국 협회는 1898년 7월 7일에 발족한 보부상 단체였다. 독립 협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자, 이에 수구파 세력은 보부상을 중심으로 황국 협회를 조직하고 이에 대항하였다. 1898년 11월에는 만민 공동회를 습격하였으며, 이 때문에 치안이 어려워지자 1899년 12월에 정부는 독립 협회와 함께 황국 협회도 해산하였다.

독립 협회의 한계(민중관과 외세관) 6차시

• 민중관

– 하의원은 급하지 않다.

근일에 국사를 근심하는 사람들이 혹 말하되 국세를 부강하게 하려 하면 하의원을 설치하여야 하겠다 하니 조금 덜 생각한 일이라. 하의원이라 하는 것은 백성에게 정권을 주는 것이다. 정권을 가지는 사람은 한 사람이든지 몇 만 명이든지 지식과 학문이 있어서 다만 내 권리만 알 뿐 아니라 남의 권리를 손상치 아니하며 사사(私事)를 잊어버리고 공무를 먼저 하

며 작은 혐의를 보지 않고 큰 의리를 숭상하여야 민족에 유익한 정치를 시행할지니, 무식하면 한 사람이 다스리나 여러 사람이 다스리나 국정이 그르기는 마찬가지요 무식한 세계에는 군주국이 도리어 민주국보다 견고함은 고금 사기와 구미 각국 정형을 보아도 알지라. - 독립신문(1898. 7. 27.)

독립 협회는 일반 시민의 정치적 역량을 과소평가하여 보통 선거에 의한 의회 구성이나 의병 활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외세관

– 미국의 철도 부설 지지
정부에서 미국 사람과 서울~인천 사이에 철도를 약조하며 미국 돈 이백 만 원 가량이 나라에 들어올 터인즉, 이 일에 인연하여 벌어먹고 살 사람이 조선 안에 여러 천 명 될 터이요, 철도가 된 후에는 농민과 상민들이 철도로 인연하여 직업들이 흥왕할 터이요. - 독립신문(1896. 7. 2.)

독립 협회는 자주독립을 추구하였으나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고종의 환궁 7차시

최근 3년간 내 조국은 무섭고 비참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와 내 아들은 궁궐을 떠나 귀국의 보호 아래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곳 공관에서 영광스러운 러시아 해군의 경호를 받으며 평안을 누렸습니다. 베베르 공사도 자기 나라 황제를 대하듯이 모든 예를 갖추어 본인을 받들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러시아 교관들이 훈련시킨 조선 경비원이 지키는 새 궁전으로 옮깁니다.
- "러시아와 한국"

러시아의 견제로 일본의 간섭이 주춤해지자, 관료와 유생들 사이에 고종의 위상을 황제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고종은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 아관 파천 1년 만인 1897년에 경운궁(덕수궁)으로 돌아왔다. 경복궁이나 창덕궁 대신 이곳을 고른 이유는 미국, 러시아 등 서양의 여러 나라 공사관이 가까이 있어 일본을 견제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대한 제국의 수립 7차시

고종 34년(1897) 10월 13일. 오직 내가 덕이 없다 보니 어려운 시기를 만났으나, 하늘이 도와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되었으며, 독립의 터전을 세우고 자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다. …… 나라 이름을 대한(大韓)이라고 정한다. 이 해를 광무 원년으로 삼고, 종묘와 사직의 신위판(神位版)을 고쳐 쓰며, 왕후 민씨를 황후로 책봉하고, 왕태자를 황태자로 책봉한다. 이제 밝은 운명을 크게 가다듬어 의식을 성대하게 진행하려고 한다. - "고종실록"

경운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연호를 '광무'로 고치고, 10월에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를 대한 제국으로 바꾸어 이를 선포하였다. 이는 한국이 자주독립국임을 대내외에 과시하면서 더 이상 외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민족적 열망을 표현한 것이다.

대한 제국을 선포한 직후 정부는 서울 주재 각 대표에게 이를 알려 본국 정부의 승인 여부를 회답하도록 촉구하였다. 이에 각국은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대한 제국의 성립을 직·간접적으로 승인하였다.

환구단 7차시

원구단이라고도 불린다. 환구단은 천자(天子)가 하늘에 제를 드리는 둥근 단으로 된 제천단이다. 예로부터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 하여 하늘에 제를 지내는 단은 둥글게, 땅에 제사 지내는 단은 모나게 쌓았다.

1897년 지금의 서울 소공동에 제단을 쌓게 하여 환구단에서 천지에 제를 드리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1913년 일제에 의하여 환구단이 헐리고 그 터에 조선 호텔이 지어졌다. 지금은 화강암 기단 위에 세워진 3층 팔각정의 황궁우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다.

대한국 국제 7차시

제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에 공인되어 온 바 자주독립한 제국이니라.
제2조 대한 제국의 정치는 이전에는 500년이 내려왔고 이후에는 만세불변할 전제 정치이니라.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무한하온 군권을 지니나니 공법에 이른바 자립 정체이니라.
제6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법률을 제정하며 그 반포와 집행을 명령하고 만국공법을 효방하사 국내 법률도 개정하옵시고 대사·특사·감형·복권을 명하나니 공법에 이른바 자정율례이니라.
제7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행정 각 부부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행정상 필요한 각항 칙령을 발하나니 공법에 이른바 자행치리이니라.

대한국 국제는 대한 제국의 국가 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헌법이다. 광무 정권의 주권의 소재와 집행 형식을 명백히 규정하였으며, 그 근거를 만국공법에서 구하였다.

광무개혁 7차시

대한 제국이 가지는 시대적 사명은 기본적으로 외세의 내정 개입과 열강의 이권 침탈을 저지하고, 나아가 열강 간의 세력 균형이 깨질 때에 열강의 침략을 광범위한 국민 대중의 힘으로 방어할 수 있는 민족 자위 역량을 배양하도록 체제를 개혁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광무개혁은 갑오개혁에 비판적인 유생층의 보수 여론과 독립 협회를 중심으로 한 개혁 여론을 절충하여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원칙을 바탕으로 시행되었다.

정치	• 중앙: 의정부 제도 부활 • 지방: 13도제로 개편 • 과거제 대신 추천식 인재 등용 방식 채택 • 의회제를 채택하여 중추원 설립
사회	• 근대적 호적 제도를 채택 • 근대적인 학교 설립 추진 • 신문 발행 인가, 관보 발행
경제	• 정부와 왕실 재정 분리 → 재정 일원화 • 중앙 집권적 조세 제도 수립 • 금본위제 채택, 중앙은행 설립 계획 • 철도 건설 투자나 회사, 공장 등 설립 장려 • 양전, 지계 사업 실시

▲ 광무개혁의 내용

광무개혁은 기술적, 경제적, 교육 제도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갑오개혁을 이어갔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국민 주권 체제와는 거리가 먼 왕권의 절대화를 지향하여 갑오개혁에서 후퇴했다고 할 수 있다.

양전 사업 청의서 7차시

> 전국의 지방을 나누어 구역을 정하고 구역에 지질을 측량하여 조리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나라의 큰 정치이다. 우리나라는 구역이 크지 않은 바가 없고 토지가 아름답지 아니한 바가 없다. 그러나 경계의 구분만 있고 토지의 측량이 상세하지 아니하다. …… 지금 정치를 유신할 때에 어찌 일대의 결함이 아니리오. 지금 토지 측량은 하루 빨리 해야 할 일이므로 이를 회의에 부쳐야 한다.
>
> - '양전 사업 청의서'

대한 제국은 1898년부터 1904년에 걸쳐 양전 사업(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목적은 각종 국가사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근대법적 소유권을 추인하며, 토지 거래상 발생하는 문제, 특히 일본인의 한국 내륙 토지 침탈을 저지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1904년 러·일 전쟁의 발발과 일본의 압력으로 전국 331개 군 중 218개 군에 실시된 채 중단되었다.

양전·지계 사업의 의의 7차시

광무 연간 대한 제국 정부가 추진한 양전·지계 사업은 근대적인 토지 조사 사업이었다. 양전 사업을 통해 개별 토지와 토지 소유자를 확인하는 단계, 토지 소유자의 변동 유무를 서류 증빙을 통해 사정하는 단계, 나아가 토지 소유권자를 국가가 확정짓고 토지 소유 증명서인 지계(地契) 또는 관계(官契)를 발급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토지 소유권을 근대적인 법과 형식으로 공인하는 과정을 밟았다. 이에 한국의 농업 기반을 아래부터 장악하려는 일본에게 양전·지계 사업은 방해가 될 수밖에 없었다.

대한 제국의 양전·지계 사업은 한말의 토지 제도와 농촌 경제가 내포하는 모순과 폐단을 해소·조정하면서 농민 경제와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려는 방안이었다. 또한 지주 자본을 근간으로 근대 국가 건설을 지향했던 광무 정권의 자주적인 근대 국가 건설 방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개혁 조처였다.

광무개혁에 대한 평가 7차시

• 긍정적 평가

광무개혁은 완전한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했으며, 비교적 자주적으로 추진된 근대적 개혁이다. 특히 상공업 분야의 개혁 정책과 각종 근대 시설의 확충 및 회사와 교육 기관의 설립 등은 근대적 개혁의 큰 성과였으며, 양전·지계 사업은 '농업 개혁' 또는 '토지 개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부정적 평가

'구본신참'은 전제 군주권의 확립을 위한 것으로 개혁의 후퇴를 의미한다. 실제로 대한 제국은 자유 민권 운동과 의회 설립 운동을 방해하고 탄압하였다. 대한 제국이 추진한 각종 근대 시설 확충 역시 열강에 빼앗긴 이권이었고, 양전·지계 사업도 조세 증가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 근대적 회사와 교육 기관의 설립을 주도한 것은 광무 정권이 아니라 독립 협회와 만민 공동회의 주도자들이었다.

Ⅰ.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국권 수호 운동

04 근대 문물의 수용과 사회 변화

학습 목표

- 개항 이후 근대 문물 도입의 배경, 과정, 이로 인한 사회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 근대 교육의 형성 과정과 언론 활동, 국학 운동을 파악할 수 있다.
- 문학과 예술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8	**1. 근대 문물의 수용**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우리나라에 기차, 전등, 전화 등이 처음 설치된 시기는 언제인가?	문답식	
	[전개]		
	•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개항 이후 도입된 근대 시설을 소개하고, 의식주의 변화를 설명한다.	강의식	PPT
	• 철도 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사료와 부정적인 사료를 탐구하며 근대 문물의 수용은 자주적인 면도 있지만 외세가 침략을 위하여 강요한 측면도 있었음을 이해하게 한다.	탐구식	30쪽 자료
	• 서울에 남아 있는 근대 건축물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32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1899년 서울과 인천 사이에 처음 개통된 철도는?		
	2. 1885년 정부가 설립한 최초의 서양 병원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9	**2. 근대 문화의 형성**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개항 후 최초로 간행된 신문은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개항 이후 설립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근대적 교육 기관에 대해 그 역사를 조사하고, 당시 설립자들의 정신을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33쪽 자료
	•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등의 기사 내용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신문의 성격을 모둠별로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인터넷
	• 대한 제국 시기 국어와 역사 등 국학 연구가 활발했음을 이해하고, 특히 이는 애국 계몽 운동과 관련됨을 설명한다.	강의식	CD, PPT
	• 문학의 신체시와 신소설, 음악의 창가, 영화, 미술 등 당시 새롭게 등장한 예술 분야를 파악하게 한다.		

9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독사신론"에서 왕조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 벗어나 민족을 주체로 하는 역사를 서술한 사람은? 2. 최남선이 발표하여 근대시의 새로운 형식을 개척한 신체시의 이름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근대 문물의 수용

(1) 근대 시설의 도입

① **교통**
- 철도: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부설
- 한성 전기 회사 설립, 전차 운행 시작(1899)

② **전기**: 경복궁(1887), 발전소 건설(1890년대)

③ **전화**: 서울 궁궐~인천(1896), 공중용 시외 전화 가설(1902) → 봉수나 역참, 파발 등 폐지

④ **의료**: 광혜원(1885), 대한 의원 설립

(2) 의식주의 변화

① **의복의 변화**: 관복 간소화, 서양식 복제 도입

② **음식**: 왕실과 고위 관리를 중심으로 커피, 홍차, 케이크, 양과자 등 유행

③ **건축**: 서양 건축 양식 도입(독립문, 명동 성당, 덕수궁 석조전 등)

(3) 근대 문물 수용의 영향

① 편리해진 생활양식

② 전통적 생활 양식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갈등

2. 근대 문화의 형성

(1) 근대 교육의 성립

① **근대 교육의 시작(1880년대)**
- 원산학사(1883):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학교
- 동문학(1883): 정부가 통역관 양성 목적으로 설립
- 육영 공원(1886): 정부가 상류층 자제 대상으로 설립

② **근대적 교육 제도 마련**: 각지에 소학교 설립

③ **사립 학교 설립**: 애국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설립, 서양 선교사가 사립 학교 설립

(2) 신문 발행

① **한성순보(1883)**: 최초의 신문, 정부의 개화 정책 소개

② **독립신문(1896)**: 최초의 민간 신문, 순한글로 간행

③ **황성신문(1898)**: 유림층 대상, 항일 의식 고취

④ **제국신문(1898)**: 서민층 · 부녀자 대상, 자주 정신 고취

⑤ **대한매일신보(1904)**: 영국인 베델이 발행, 강렬한 항일 논조로 많은 독자층 확보

(3) 국학 연구

① **국어**
- 국 · 한문 혼용체 보급, 한글로 된 신문 · 서적 · 교과서 등 간행
- 주시경의 국어 연구, 정부의 국문 연구소 설치

② **국사**
- 신채호, 박은식 등이 위인전 집필, 외국의 흥망사 소개
- "독사신론" : 민족을 주체로 역사 서술

(4) 문학의 새 경향

① **신소설**: "혈의 누", "금수회의록" 등

②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

③ **외국 문학 번역**: "이솝 이야기", "로빈슨 표류기"

(5) 예술의 변화

① **음악**: 찬송가를 통해 서양 음악 소개, 창가 유행

② **신극**: 원각사, 변사를 대동한 활동사진(영화) 인기

③ **미술**: 서양식 화풍 소개, 서양식 유화 등장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30쪽

전화는 시간과 거리의 벽을 무너뜨리며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전통적인 통신 수단이었던 봉수나 역참, 파발 등은 사라졌다.

탐구 활동 ▶▶▶ 교과서 30쪽

예시 답안

(가)는 철도의 빠름을 경탄하는 내용이다. 근대 문물의 도입은 우리 사회를 매우 편리하게 만들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는 전차의 건설로 농민이 논밭을 빼앗기고 가난해졌다는 내용이다. 근대 문물의 도입은 열강의 침략적 의도 아

래 이루어졌다. 특히 철도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수단이기도 하였다. 열강이 철도 건설 과정에서 토지와 노동력을 수탈하고 철도를 침략의 도구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민중은 철도를 파괴하기도 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33쪽

1886년 5월 이화 학당은 약 1년의 기다림 끝에 1명의 입학 신청을 받을 수 있었다. 그것도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료와 같은 신분 보장 서약서를 써 주고서야 가능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35쪽

1. (1) ㉡, (2) ㉠, (3) ㉢
2. (1) 신채호, (2) 주시경
3. (1) ㉠, (2) ㉡, (3) ㉢

내용 더하기

근대 시설의 대륙 침략적 성격 8차시

• 교통 기관을 장악할 것
중요한 교통 및 통신 기관을 장악하는 것은 정치, 군사, 경제 여러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교통 기관인 철도 사업은 한국을 경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통신 기관을 장악할 것
통신 기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신선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편 사업도 우리 이익이 커짐에 앞으로 더욱 확장하지 않을 수 없다.
- "일본 외교 문서" 제37권, '일제의 대한 시설 강령'

교통과 통신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침략을 하기 위한 기간 산업망이었다. 열강들은 정치적 · 경제적 · 군사적 이익을 안전하게 확보하고자 교통 · 통신 수단을 장악하려 했고, 교통 · 통신 수단은 그 자체가 커다란 이권이 되기도 했다.

특히 철도 부설은 도로 정비, 항만 수축, 전신 · 전화 가설 등과 더불어 교통 · 운수망을 정비하고 통신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추는 근대화의 필수 요소였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철도를 부설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으나, 자본 조달의 어려움과 일제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경인선 8차시

1896년 미국인 모스가 부설권을 얻어 1897년 기공하였으나 자금난, 시멘트와 폭약 부족, 기술적인 난제 등으로 건설을 중단하였다. 이에 일본이 미국에게서 부설권을 인수받아 건설하였다. 1899년 9월 제물포~노량진 간의 철도가 완공되어 개통되었고, 1900년 7월에는 한강 철교를 준공하면서 서울역까지 3km를 더 연장하여 경인선 전 구간에서 운행되었다.

전화 예절 8차시

당시 전화 예절은 엄격하였다. 전화를 할 때는 상투를 단정히 세우고 전화기 앞에서 두 손을 맞잡아 머리 위에 쳐드는 읍(揖)을 하고서 전화를 돌렸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자신의 직함 · 품계 · 본관 · 성명을 말하고 상대 부서의 판서 · 참판 · 참의의 안부를 물은 다음 전화를 받는 당사자의 부모 안부까지 묻고난 후 용건을 말하였다.

광혜원(제중원) 8차시

1884년 미국 공사관 부속 의사로 한국에 온 알렌은 갑신정변 때 상처를 입은 민영익을 수술로 살렸다. 이에 알렌은 정부에서 많은 사례금을 받고 국왕과 왕비의 주치의가 되었다.

나아가 그의 건의로 1885년 4월 최초의 서양식 왕립 병원인 광혜원(얼마 후 제중원으로 개칭)이 설립되고 알렌이 운영을 맡았다. 개원 첫해 입원 환자 265명, 외과 수술 환자 150명, 간단한 외과 치료 환자 395명, 부녀자 800명을 진료하였으며 병원 안에 의과 교실을 열어 소수의 한국인에게 서양식 의술도 가르쳤다.

커피와 고종 8차시

커피는 1882년(고종 19)부터 유럽 · 미국, 일본 등과 수교를 하면서 들어왔다. 고종은 아관 파천으로 러시아 공관에 머물 때부터 커피를 즐기게 되었다. 이때 커피는 설탕 속에 커피 가루가 들어 있는 것이었다.

고종은 러시아 공관에 있을 때에 식사 시중을 들던 손탁 여사에게 호텔을 지어 주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다방이 생겨 커피를 팔게 되었다. 커피는 영어 발음을 따서 '가배차' 또는 '가비차'라고 불렸으며, 서민 사이에서는 '양탕국'이라 불렸다.

한성순보 창간호 9차시

오늘날 풍기는 점차 열리고 인간의 지혜는 날로 발전하여 화륜선이 대양을 달리고 전선이 사방에 연결되고 있다. …… 그리고 이상한 모습을 한 외국인과 만나게 되었다. 사물의

변화와 문물제도의 발전에 대해 시무에 관심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조정에서는 박문국을 설치하고 직원을 두었다. …… 외국 소식을 번역하고 국내 소식을 실어 국내외에 반포하는 것이다. …… 독자는 근시안적이 되어 새 지식에 어둡고 낡은 것에만 얽매이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되고 말 것이다. 시세를 잘 살피고 취사선택을 잘 하며 공정함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는 통리아문 박문국에서 월 3회 발행한 순보로, 매월 1일자로 간행되었다. 1882년 수신사의 자격으로 일본에 다녀온 박영효는 고종에게 신문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1883년 2월 28일 고종으로부터 신문을 간행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그해 4월 박영효가 갑자기 좌천되면서 신문 발간 작업은 일단 중지되었다.

이후 온건 개화파들의 추진으로 박문국이 설치되고 한성순보가 간행되었다. 이 신문은 발행 직후 각 관아에 배포되어 관리들이 주로 읽었으며, 일반인도 구독이 가능하였다. 현재 창간호부터 제36호(1884년 10월 9일자)까지만 서울대학교 도서관과 국립 중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대한매일신보와 베델 9차시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 7월 18일에 아일랜드계 영국인인 베델이 양기탁과 함께 이전에 발간되던 매일신보를 인수하여 창간하였다. 당시 일제 통감부는 매우 까다롭게 신문을 검열하였으나, 신문의 발행인이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일제의 탄압에도 항일 사상을 고취하는 내용을 실을 수 있었다.

특히 신채호, 박은식 등은 논설을 통하여 일본의 침략 행위와 이완용, 일진회 등의 매국 행위를 날카롭게 공격하였다. 의병의 활동 상황도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자신은 을사늑약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한 고종 황제의 친서를 싣기도 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신문이 큰 호응을 얻어 판매 부수가 늘어나자 통감부는 크게 당황하였다. 일제는 대한매일신보가 외교 고문 스티븐스 암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을 들어, '보호 정치'의 전복을 선동하였다며 신문을 압수하고 영국 정부에 베델의 추방을 요구하였다. 베델은 영국 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상해에서 3주일 동안 연금 당하였다. 이후 서울로 돌아온 베델은 신문 경영을 영국인 비서 만함에게 인계하고, 1909년 5월 1일 별세하였다.

신채호의 역사 연구 9차시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소장성쇠의 상태를 서술할지라.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을지며 역사를 빼어 버리면 민족의 그 국가에 대한 관념이 크지 않을지니 오호라, 역사가의 책임이 그 역시 무거울진저. …… 오호라, 과연 이와 같은진대 우리 몇 만 평방리의 토지가 모두 남만북적의 수라장이며 우리 사천 년의 산업이 모두 열국의 경매물이라 할지 과연 그러한가. 어찌 그러하리요. - "독사신론"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론"을 발표하여 민족을 역사 서술의 주체로 설정하며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시경의 국어 연구 9차시

지금부터 이후로는 우리 국어와 국문을 업수이 여기지 말고 힘써 그 문법과 이치를 탐구하며 사전과 문법과 독본들을 잘 만들어 더 좋고 더 편리한 말과 글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온 나라 사람이 다 국어와 국문을 우리나라 근본의 주장 글로 숭상하고 사랑하여 쓰기를 바라노라. - "서우"(1907. 1.)

주시경은 독립 협회 조직에 참가하고 독립신문 교정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문 동식회를 만들어 한글 기사체의 통일과 연구에 힘썼다. 전 생애를 한글의 문법과 맞춤법 연구에 힘써 많은 후진을 양성하였다.

이인직의 "혈의 누" 9차시

…… 당초에 옥련이가 피난 갈 때에 모란봉 아래서 부모 간 곳 모르고 어머니를 부르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난데없는 총알을 맞아 왼편 다리에 박혀 넘어졌다. …… 군의관의 말에 따르면 청군의 총알을 맞았으면 온몸에 독이 퍼져 하룻밤만에 죽었을 것이나 일본군의 총알에 맞았으니 다행히도 치료하기 무척 쉽다고 한다.

"혈의 누"는 이인직이 1906년 처음으로 언문일치 문장으로 쓴 신소설이다. 신소설답게 봉건 질서를 타파하여 남녀평등과 자주독립을 이루자는 계몽적인 주장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 열강이 가지는 침략적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본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일제를 문명 개화의 구원자로 부각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기도 한다.

Ⅰ.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국권 수호 운동

05 국권 수호 운동

학습 목표

- 러 · 일 전쟁 이후 일제가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일제가 우리나라의 독도를 불법 편입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일제의 침략에 맞서 전개된 항일 의병 운동과 의거 활동을 정리할 수 있다.
- 애국 계몽 운동 단체의 활동과 국채 보상 운동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10	1. 일제의 국권 침탈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아관 파천 이후 조선에서 세력 다툼을 벌인 국가는 어디인가?	문답식	
	[전개]		
	• 러 · 일 전쟁 중 우리나라에 강요한 조약을 설명한다.	강의식	PPT
	• 간도와 독도의 위치를 확인하고, 두 지역에 대한 쟁점을 자료를 통해 분석 · 탐구하여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탐구식	37쪽 자료
	• 일본이 열강의 동의를 얻어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강의식	CD
	• 헤이그 특사 파견에 따른 고종의 강제 퇴위부터 한 · 일 병합 조약까지의 과정을 정리하게 한다.	탐구식	
	• 민영환의 유서, 장지연의 논설, 안중근 관련 동영상, 헤이그 특사 사진 등을 소개하며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한 글쓰기를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일제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은 조약의 이름은?		
	2. 고종이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헤이그에 파견한 세 사람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11	2. 의병 항쟁 ~ 3. 애국 계몽 운동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만약 내가 을사조약이 맺어진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무력'과 '실력 양성' 중 어떤 방법으로 일본에 대응하였을까?	문답식	
	[전개]		
	• 을사조약 이후 민족 운동의 흐름으로 직접적 항일 투쟁(의병 항쟁)과 간접적 항일 투쟁(애국 계몽 운동)이 있었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PPT

11	• 을미 · 을사 · 정미 의병의 흐름을 의병장 신분의 변화, 발생 계기, 성격 등을 모둠별로 정리하게 한다. • 애국 계몽 운동 단체의 설립 취지문 등을 사료로 제시하고, 애국 계몽 운동의 주요 단체, 성격, 주요 주장 내용 등을 파악하게 한다. • 신민회와 다른 애국 계몽 단체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신민회의 활동에 대해 발표하게 한다. • 국채 보상 운동 취지서를 함께 읽고, 국채 보상 운동의 성격과 전개 과정, 결과 등을 정리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을사의병 때 태백산맥에서 활약한 의병장은? 2. 1907년에 안창호, 양기탁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비밀 단체는?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탐구식 강의식 발표식 탐구식 문답식	39쪽 자료, 40쪽 지도 관련 사료 CD 42쪽 자료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일제의 국권 침탈

(1) **러 · 일 전쟁(1904)**

① **배경**: 삼국 간섭 이후 러시아의 세력 확장 → 한반도를 둘러싼 러 · 일의 대립 격화 → 러 · 일 전쟁 발발(1904)

② **일본의 침략**

- 한 · 일 의정서: 군사 요지 사용, 경부선 · 경의선 부설
- 제1차 한 · 일 협약: 일본 추천 고문 파견, 내정 간섭
- 열강의 지원: 미국과 영국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 인정

③ **결과**: 일본의 승리 → 포츠머스 조약 체결 → 일본, 한반도에서 세력 확대

④ **을사조약(1905.11.)**: 통감부 설치, 외교권 박탈

(2) **독도 · 간도**

① 독도

-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으로부터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 받음.
- 대한 제국: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 독도 관할
- 러 · 일 전쟁 중: 일본이 시마네 현에 일방적으로 편입

② **간도 협약(1909)**: 일본이 남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

(3)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

① **제2차 한 · 일 협약(을사조약, 1905)**: 통감부 설치, 외교권 강탈, 내정 간섭 → 민영환 · 조병세 자결, 을사의병, 5적 암살단 조직, 항일 언론 활동 등으로 적극 항거

② **헤이그 특사 파견(1907)**: 을사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고자 고종이 특사 파견 →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이 사건을 구실로 고종 강제 퇴위

③ **한 · 일 신협약(1907)**: 일본인 차관 등용, 군대 해산

④ **한 · 일 병합(1910)**: 국권 피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

2. 의병 항쟁

(1) **을미의병(1895)**

① **계기**: 을미사변과 단발령

② **주도 세력**: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들

③ **활동**: 친일 관리와 일본인 공격

④ **해산**: 고종의 단발령 철회와 해산 권고로 자진 해산

(2) **을사의병(1905)**

① **계기**: 을사조약 체결

② **주도 세력**: 유생, 전직 관리 등 다양한 계층

③ **요구 사항**: 조약 파기, 친일 내각 타도

④ **중심인물**: 민종식, 최익현, 신돌석 등

(3) **정미의병(1907)**

① **계기**: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② **특징**: 해산 군인 가담 → 전투력 강화, 조직화

③ **서울 진공 작전**: 13도 연합 의병 결성, 작전 실패

④ 일제의 대규모 군사 작전 → 간도, 연해주로 이동

(4) **의열 활동**

① **나인영(나철), 오기호**: 5적 암살단 조직

② **전명운, 장인환**: 스티븐스 사살

③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처단

3. 애국 계몽 운동

(1) **애국 계몽 운동**

① **성격:** 민족의 실력을 길러 국권을 회복하자는 운동

② **형태:** 교육 구국 운동, 언론 계몽 운동, 민족 산업 진흥 운동 등

(2) **경제적 구국 운동**

① **일본의 경제 침탈:** 화폐 정리 사업, 일본의 차관 제공 → 막대한 국채 발생

② **국채 보상 운동(1907)**

- 성격: 국민의 성금으로 나랏빚을 갚자는 운동
- 전개: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 확산 → 통감부의 탄압

(3) **애국 계몽 운동 단체**

① **헌정 연구회:** 의회 설립을 통한 입헌 운동 추구

② **대한 자강회:** 월보 간행 → 대중적 기반 확대

③ **신민회:** 비밀 단체

목표	국권 회복, 공화정에 바탕을 둔 국민 국가 수립
활동	• 민족 교육: 대성 학교, 오산 학교 설립 • 민족 산업 육성: 자기 회사, 태극 서관 운영 • 독립운동 기지 건설: 한인촌 조성, 신흥 강습소 설립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36쪽

을사조약에 항거하기 위해서이다.

탐구 활동 ▶▶▶ 교과서 37쪽

예시 답안

일본의 주장	우리나라의 반박
•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 한국은 현재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 일본이 근거로 내세우는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는 개인이 만든 지도로, 1779년 초판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표시되어 있다. • 한국은 독도가 1905년 시마네 현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로서 국제 사법 재판소 회부는 불필요하다.

▲ 참고 자료: 동북아 역사 재단 산하 독도 연구소 홈페이지,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

생각 열기 ▶▶▶ 교과서 39쪽

양반 유생, 전직 관료, 해산 군인, 농민, 노동자, 소상인, 지식인, 승려, 화적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39쪽

예시 답안 '국모의 원수', '임금께서 머리를 깎으시는 지경'이라는 내용을 통해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항거하여 의병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41쪽

신문과 잡지 발행, 강연회 개최, 민족 교육 기관 설립 등

탐구 활동 ▶▶▶ 교과서 42쪽

예시 답안

- 성과: 국채 보상 운동은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내는 물론 일본 유학생까지 참여하는 범국민적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 한계: 국채 보상 운동은 주로 일반민들이 호응하였을 뿐, 상층민, 명문가, 부호 등의 참여가 거의 없어 그 열기가 오래 가지 못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42쪽

1. (1) ㉢, (2) ㉡, (3) ㉠
2. (1) 서울 진공 작전, (2) 신민회

내용 더하기

러 · 일 전쟁(1904. 2. ~ 1905. 9.) 10차시

청 · 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한반도를 장악하려 했던 일본은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에 밀리자 영국과 동맹(제1차 영 · 일 동맹)을 맺어 러시아에 대항하였다.

영 · 일 동맹으로 강력한 후원자를 얻은 일본은 경부선과 경의선을 부설하는 한편,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 한국에 대한 독점적 우월권을 확보하려 하였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이권과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이권을 상호 승인하자는 일본의 제안이 러시아에 의해 결렬되면서 일본은 러시아와의 외교를 단절하고 러시아의 함대를 기습 공격한 후 선전

포고를 하였다.

일본이 연승을 거두는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피의 일요일' 사건으로 인한 대내적 혼란으로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어 러 · 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 한 · 일 의정서(1904. 2.) 10차시

제1조 한일 양 제국은 영구불변의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 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를 확신하여 제도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일 것

제3조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 제국의 독립과 영토 안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제4조 제3국의 침해 또는 내란으로 대한 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 제국 정부는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한 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이 용이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 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일본은 대한 제국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한 · 일 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였다. 러 · 일 전쟁에서 한국을 확실한 우군으로 끌어들이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을 침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제1차 한 · 일 협약(1904. 8.) 10차시

제1조 대한 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가 초청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에 초빙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그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것

제2조 대한 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외부에서 초빙하여 외교에 관한 중요한 업무는 모두 그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것

제3조 대한 제국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기타의 중요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 일의 처리에 관하여는 미리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 미국과 영국의 일본 지원 10차시

가쓰라 · 태프트 밀약(1905. 7.)

첫째, 필리핀은 미국과 같은 친일적인 나라가 통치하는 것이 일본에 유리하며,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어떤 침략적 의도도 갖지 않는다.

셋째, 태프트 장관은 "…… 일본군은 일본의 동의 없이는 한국이 어떠한 국가와 조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종주권을 확립하는 것은 이번 전쟁의 논리적 결과이며, 동양의 항구적 평화에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 "미국 역사의 기본 사료"

제 2차 영 · 일 동맹(1905. 8.)

제3조 일본국은 한국에서 정치상 · 군사상 및 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옹호 증진하기 위하여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감리 및 보호 조치를 한국에서 집행할 권리를 갖는다.

제4조 대영 제국은 인도 국경의 안전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특수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국은 위의 국경 부근에서 대영 제국이 인도 영지를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승인한다.

- "일본 외교 연표와 주요 문헌"

가쓰라 · 태프트 밀약은 러 · 일 전쟁 직후 일본의 총리대신 가쓰라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특사 태프트 육군장관이 맺은 비밀 협약이다. 이 밀약은 일본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고, 미국은 일본의 침략 정책을 묵인 · 방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차 영 · 일 동맹은 1902년 영국과 일본이 러시아를 저지하고자 체결한 군사 동맹에 이어(제1차 영 · 일 동맹) 1911년 독일에 대항하고자 다시 동맹을 강화한 것이다. 이 동맹에서 영국은 사실상 일본의 조선 침략을 인정하였다. 영 · 일 동맹은 아시아에 진출하려는 미국의 압력으로 1921년에 폐기되었다.

❀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편입과 우리의 대응 10차시

일본의 독도 편입

……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한 형적이 없다. …… 메이지 36년 이래 나카이 요자부로란 자가 해도에 이주하고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 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며,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본방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 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함이 무리없는 것이라 사고하여 청의대로 각의 결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

-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

1905년 1월 일본은 비밀리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시마네 현에 편입시킬 것을 결정한 뒤, 이것을 대한 제국 정부에 통고하지 않고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로 기록하

였다. 대한 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한편, 독도가 대한 제국의 영토임을 재차 분명히 하였다.

을사조약 10차시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동경에 있는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에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함이 가하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함이 가함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 폐하 밑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함을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 폐하에게 내알(內謁)하는 권리를 가짐

1905년 11월 9일 일본 특명 전권 대사 이토 히로부미는 외교권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안 체결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본 헌병 수십 명의 옹위 아래 각각의 대신에게 가부의 결정을 강요했다.

이때 한규설만 무조건 불가하다고 하였고, 이른바 이완용, 박제순 등 을사 5적은 책임을 고종에게 전가하면서 찬성을 표시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강제 통과된 협약안에 대한 고종의 재가를 강요했으나 고종은 끝내 재가하지 않았다. 이에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가 체결·조인하고, 11월 18일에 이를 발표하였다.

을사조약의 부당성 11차시

을사조약은 흔히 '을사 보호 조약'으로 부르지만, 대한 제국의 공식적인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조약의 첫머리에 명칭조차 쓰지 못하고 공란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을사조약 문서는 고종이 비준하지 않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1906년 프랑스 파리 법과 대학의 프란시스 레이 교수도 협상 대표에 대한 고종의 위임장, 조약 체결에 대한 비준서 등 국제 조약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조약의 명칭조차 없이 비어 있는 점을 문제로 들며 국제 조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민영환의 자결 11차시

당시 황제를 호위하는 시종 무관으로 있던 민영환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을사 5적 처형과 조약의 파기를 요구하는 상소를 여러 차례 올렸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구속되었다가 풀려났다.

이에 민영환은 죽음으로 항거하여 국민을 각성하게 할 것을 결심하고 자결하였다. 그는 3통의 유서를 썼는데, 1통은 국민에게 각성을 요망하는 내용이었고, 다른 1통은 재경 외국 사절들에게 일본의 침략을 바로 보고 한국을 구해줄 것을 바라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1통은 황제에게 올리는 글이었다.

신민회 11차시

1907년 4월 조직된 신민회는 전국적으로 회원이 800여 명에 달하였다. 신민회의 목적과 이념은 국권을 회복하여 자주독립국을 세우고, 정치 체제는 공화정으로 하며, 실력 배양과 기회를 중시하였다.

신민회는 실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신문·잡지·서적의 간행, 강연회 개최, 학교 설립을 통한 인재 양성, 민족 산업 자본의 진흥, 국외 무관 학교 설립, 국외 독립군 기지와 독립군 창건 등을 전개하였다.

국채 보상 운동 취지서 11차시

지금 우리들은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의를 떨칠 때이니, 국채 1천 3백만 원은 우리 대한의 존망에 직결된 것이다. …… 2천만 인민이 3개월 동안 흡연을 금지하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에게 매달 20전씩 거둔다면 1천 3백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 액수가 다 차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 원, 십 원, 백 원, 천 원을 특별 출연하는 사람이 있어 채울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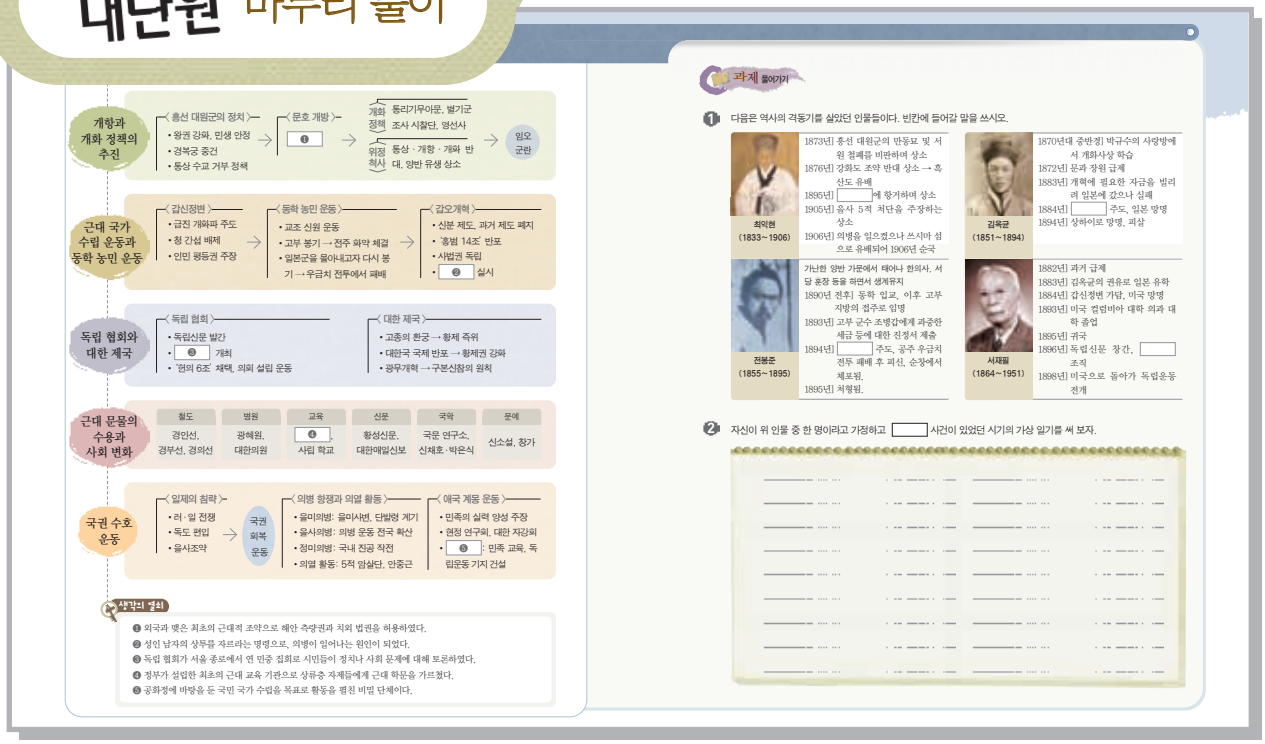
- 대한매일신보(1907. 2. 21.)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한 평가 11차시

애국 계몽 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경우, 문명 개화론을 토대로 한 개화 자강 운동이 민족과 국민의 존재를 새롭게 부각시켰고 국권 회복 운동의 중심을 이루었다고 본다. 신민회가 독립 전쟁 노선을 택하고 독립군 기지 창설 운동으로까지 발전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한다.

반면 애국 계몽 운동의 한계에 주목하는 경우, 대부분의 애국 계몽 운동가들이 당시 운동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정치 투쟁이나 무장 투쟁을 포기했으며, 특히 의병 전쟁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취했던 데에 주목한다. 아울러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도움과 지도로 문명화할 수 있다는 등의 타협적 태도를 보였던 것도 애국 계몽 운동의 큰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대단원 마무리 풀이



내용 확인하기

❶ 강화도 조약(조 · 일 수호 조규)

✚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던 이 조약으로 인천, 부산, 원산을 개항하였다.

❷ 단발령

✚ 상투를 자르는 것은 조선의 전통을 무시하고 조선인의 혼을 없애려는 일본의 의도가 드러나는 일이었다. 이 명령은 전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을미사변과 함께 유생과 농민의 반일 감정을 폭발시켰다.

❸ 만민 공동회

✚ 이 회의에서 시민들은 러시아의 내정 간섭을 규탄하고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하였다.

❹ 육영 공원

✚ 1886년에 세워졌으며 미국인 교사들을 초빙하였다.

❺ 신민회

✚ 대성 학교와 오산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에 힘쓰고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과제 풀어가기

| 지도 요령 |

개항을 전후한 시기부터 일제에 의해 대한 제국의 국권이 침탈되기까지의 주요 사건을 역사적 인물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선택한 인물에 해당하는 시기의 역사적 사실과 쟁점들의 요소가 들어간 가상 일기를 쓰도록 지도한다.

1. 최익현 – 단발령, 김옥균 – 갑신정변, 전봉준 – 동학 농민 운동, 서재필 – 독립 협회

2. **| 예시 답안 |** 김옥균, 갑신정변

> 1884년 12월 4일
> 드디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이 열리는 날이자, 우리가 꿈꾸던 이상 사회를 건설할 날이 밝았다. 우리는 청으로부터 자주적인 정부를 꾸릴 것이며, 왕권이 제한되고 대신들이 국정을 논의 · 결정하는 입헌 군주제를 수립할 것이다. 또한 신분제를 폐지하고, 토지를 개혁할 것이다. 우리의 계획이 무사히 성공하기를 기원해 본다.

대단원 짚고 가기

01 다음은 흥선 대원군이 전국 각지에 세운 비석의 내용이다. 이 내용과 관련된 흥선 대원군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① 비변사 폐지
② 호포법 시행
③ 경복궁 중건
④ 통상 수교 거부
⑤ "대전회통" 편찬

02 다음은 강화도 조약의 내용 중 일부이다. 제시된 조항을 토대로 강화도 조약을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7조 조선 연해의 섬과 암초는 매우 위험하므로 일본 항해자가 조선의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 10조 일본 국민이 조선 항구에서 죄를 범한 것이 조선 국민에게 관계된 사건일 때에는 모두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① 자주적 성격을 지닌 조약이다.
② 통상 수교 거부를 분명히 밝혔다.
③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이다.
④ 일본에 의존해 성급하게 개혁을 추진하였다.
⑤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03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운동의 명칭을 쓰시오.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양반 유생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양반 유생들은 1860년대부터 조선의 전통 질서를 수호하고 서양의 문물을 배척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04 다음 사건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별기군이 창설되면서 차별을 받던 구식 군인들은 개화 정책을 추진한 고위 관료의 집을 공격하고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였다.

①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다.
② 일본군의 서울 주둔이 허용되었다.
③ 일본은 군대를 보내 군란을 진압했다.
④ 청은 군란의 책임을 물어 고종을 끌고 갔다.
⑤ 일본은 조선에 한성 조약의 체결을 강요했다.

05 다음 〈보기〉의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기

㉠ 갑신정변 ㉡ 임오군란
㉢ 거문도 사건 ㉣ 제물포 조약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

06 다음 지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① 청 · 일 전쟁을 유발하였다.
② 교조 신원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③ 정부가 추진한 갑오개혁에 영향을 미쳤다.
④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 외세를 몰아내려 했다.
⑤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 민족의 실력 양성에 힘썼다.

07 다음 〈보기〉에서 갑오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보기

㉠ 헌의 6조	㉡ 홍범 14조
㉢ 군국기무처	㉣ 태양력 채택
㉤ 도량형 통일	㉥ 통리기무아문
㉦ 신분제 폐지	㉧ 과거제 폐지
㉨ '건양' 연호 사용	㉩ 과부 재가 허용

08 다음 사진들과 관계 깊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회 설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토론회와 강연회를 자주 열었다.
③ 서울 종로에서 만민 공동회를 열었다.
④ 정부 대신들이 참여한 관민 공동회를 열었다.
⑤ 신분제를 폐지하여 봉건 사회를 해체하려 하였다.

09 다음 내용의 밑줄 친 '개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대한 제국은 황제권을 강화하는 한편, 자주독립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① 군사적 개혁을 등한시하였다.
② 교육입국 조서가 발표되었다.
③ 근대적인 공장과 회사를 설립하였다.
④ 열강의 이권 침탈을 철저히 차단하였다.
⑤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전면적 개혁을 추구했다.

10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 옳은 것은?

> 유생들은 격렬한 규탄 상소를 올렸고, 민영환과 조병세 등은 자결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 항쟁이 일어나고 5적 암살단이 조직되었다. 언론도 적극 대항하였다.

① 군대 해산
② 을사조약 강요
③ 간도 협약 체결
④ 고종의 강제 퇴위
⑤ 한 · 일 병합 조약 체결

11 다음 〈보기〉는 항일 의병 항쟁에 대한 설명이다. 발생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해산 군인이 가담하였다.
㉡ 의병장 신돌석이 활약하였다.
㉢ 유인석, 이소응 등 유생들이 주도하였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12 다음 〈보기〉의 밑줄 친 '비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 통감부의 탄압으로 공개적인 활동이 어려워지자, 안창호, 양기탁 등이 중심이 되어 비밀 단체를 조직하였다(1907).

① 헤이그 특사 파견을 주도하였다.
②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③ 일본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④ 의회 설립을 통한 입헌 운동을 추구하였다.
⑤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정답

01 ④ 02 ③ 03 위정척사 운동 04 ② 05 ③ 06 ⑤ 07 ㉡, ㉢, ㉤, ㉦, ㉧, ㉩ 08 ⑤ 09 ③ 10 ② 11 ⑤ 12 ②

Ⅱ 민족 운동의 전개

1 단원의 개관

이 단원에서는 일제가 우리의 국권을 강탈한 이후 전개한 식민 통치와 이에 저항하여 우리 민족이 줄기차게 전개한 독립운동을 다룬다. 시대별로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 경제적 수탈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시기에 우리 민족이 국내외에서 전개한 다양한 민족 운동과 사회 운동,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을 알아본다.



▲ 용정의 일송정과 선구자 시비(중국 지린 성)

01. 3 · 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에서는 일제의 무단 통치와 토지 조사 사업에 맞서 국내외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단체들의 활동 내용을 알아본다. 그리고 3 · 1 운동이 일어난 배경과 확산 과정, 의의를 살펴보고 그 결과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을 파악한다.

02. 1920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의 전개에서는 일제의 기만적 문화 통치와 산미 증식 계획에 맞서 다양한 방향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을 파악한다.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실력 양성 운동의 내용을 알아보고, 노동자 · 농민 · 학생 등 사회의 여러 계층이 활발하게 민족 운동을 정리한다. 특히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함께 한 신간회의 활동을 파악하고, 청산리 대첩, 의열단의 활동 등 국외에서 이루어진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03. 전시 수탈의 강화와 광복을 향한 노력에서는 일제가 침략 전쟁을 수행하고자 자행한 인적 · 물적 수탈에 저항하여 더욱 격렬하게 전개된 민족 운동의 내용을 알아본다. 1930년대 만주에서 전개된 독립군의 활동,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조선 의용대의 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충칭에 정착한 이후 전개한 독립운동의 내용도 살펴본다.

04.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의 전개에서는 황국 신민화 정책, 한국어 사용 금지 등과 같은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저항하여 우리말과 글, 그리고 역사를 지키기 위해 전개된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의 내용을 파악한다. 또한 문학과 예술, 종교계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의 내용을 알아본다.

2 단원의 목표

지식 · 이해	• 시대별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의 내용과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 3 · 1 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 국내외에서 전개된 다양한 민족 운동의 사례를 정리하여 말할 수 있다.
기능	•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이 우리 민족의 삶에 미친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 •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시대별 · 지역별로 정리하여 도표로 정리할 수 있다. • 외교론, 무장 투쟁론, 실력 양성론 등 독립운동 방법론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할 수 있다.
가치 · 태도	•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 일제의 식민 통치 상황 속에서 독립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자들의 삶의 태도와 노력을 배운다. • 일제의 식민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이바지하였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할 수 있다.

3 단원의 구조와 지도 계획

차시	중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
12	01.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	1.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	무단 통치, 조선 총독부, 토지 조사 사업, 동양 척식 주식회사, 회사령, 대한 광복회, 신흥 무관 학교
13		2. 3·1 운동의 전개	민족 자결주의, 2·8 독립 선언서, 3·1운동, 제암리 사건
14		3.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과 활동	민주 공화제, 연통제, 교통국, 애국 공채, 국민 대표 회의, 창조파와 개조파
15	02. 1920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의 전개	1. 문화 통치와 식민지 수탈 정책의 전개 ~ 3. 사회 각 계층의 민족 운동	보통 경찰 제도, 산미 증식 계획, 물산 장려 운동, 민립 대학 설립 운동. 농촌 계몽 운동, 농민·노동 운동, 6·10 만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16		4. 민족 협동 전선 운동 ~ 5. 국외 독립운동의 전개	자치 운동, 신간회, 근우회,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3부 성립, 의열단
17	03. 전시 수탈의 강화와 광복을 향한 노력	1. 병참 기지화 정책	국가 총동원법, 징용령, 태평양 전쟁, 근로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18		2. 더욱 격렬해진 무장 투쟁 운동	조선 혁명군, 한국 독립군, 동북 항일 연군, 민족 혁명당, 조선 의용대, 조선 의용군
19		3. 광복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한인 애국단, 윤봉길, 대한민국 건국 강령, 한국광복군, 국내 진공 작전, 조선 건국 동맹
20	04.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의 전개	1.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한 저항	황국 신민화 정책, 신사 참배, 일본식 씨명 강요, 조선어 학회, 민족주의 사학, 사회 경제 사학
21		2. 문학과 예술 활동	저항 문학, 코리아 환상곡, 아리랑, 신사 참배 거부 운동, 천도교, 원불교, 중광단

4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제1, 2차 세계 대전, 러시아 혁명 등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식민지 근대화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공업 개발의 경제적 성과가 한국인의 고통과 희생을 바탕으로 일본 자본과 일본인에게 집중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여 온몸을 희생한 독립운동가가 있었는가 하면, 그에 적극 협력하여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인물이나 단체, 사건을 나열하기보다는 역사적 사건의 시대별·지역별 상호 연관성을 살펴 지도한다.

5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 강만길, "고쳐 쓴 한국 현대사", 창비, 1994.
- 친일문제연구회, "일제침략사 65장면", 가람기획, 1996.
- 김정동, "일본 속의 한국 근대사 현장", 하늘재, 2003.
- 류승렬,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솔, 2003.
- 한중일삼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신문사, 2006.
- 강준만, "한국 근대사 산책, 인물과 사상사", 2008.
- 이충렬, "그림으로 읽는 한국 근대의 풍경", 김영사, 2011.
-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http://www.womenandwar.net/

Ⅱ. 민족 운동의 전개

01 3 · 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

학습 목표

- 일제 무단 통치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 세력의 활약상을 알 수 있다.
- 3 · 1 운동의 배경과 확산 과정,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12	**1.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일제가 우리의 주권을 빼앗은 후 설치한 최고 식민 통치 기구는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헌병 경찰 제도와 조선 태형령을 통해 무단 통치의 실상을 파악하게 한다.	탐구식	PPT
	•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인터넷
	• 토지 조사령과 회사령을 통해 일제가 각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목적을 파악하게 한다.	탐구식	49쪽 자료
	• 일제의 통치에 저항하여 일어난 비밀 결사들의 활동 내용을 국내외로 나누어 설명한다.	강의식	CD, PPT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빼앗은 땅을 관리하고자 만든 회사는?		
	2. 공화주의를 표방하고 군대식으로 조직을 운영한 비밀 결사는?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13	**2. 3 · 1 운동의 전개**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국제 정세는 어떻게 변하였을까?	문답식	
	[전개]		
	• 파리 강화 회의에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였음을 파악하게 한다.	탐구식	
	• 무오 독립 선언과 2 · 8 독립 선언 등을 중심으로 3 · 1 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설명한다.	강의식	PPT
	• 3 · 1 운동의 준비 및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전국에서 일어난 거족적인 민족 운동이었음을 파악하게 한다.	탐구식	52쪽 자료, 역사 부도
	• 3 · 1 운동이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과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국외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인터넷

13	• 3 · 1 운동의 성과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설명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모든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으로 윌슨 대통령이 제창한 것은? 2. 3 · 1 운동의 소식이 알려지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 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 시위를 펼친 단체는?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강의식 문답식	 학습지
14	**3.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과 활동**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3 · 1 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서 구성된 정부는 무엇일까? [전개] • 연해주의 대한 국민 의회와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내의 한성 정부가 통합되어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이용하여 임시 정부의 정부 형태와 의미 등을 파악하게 한다. • 임시 정부의 활동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보여 주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 임시 정부 내의 독립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갈등을 국민 대표 회의의 전개 과정과 대표적 인물(이승만과 이동휘)의 삶을 통해 알아본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1919년 3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결성된 정부는? 2.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고자 발행한 것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강의식 탐구식 발표식 강의식 문답식	 CD PPT 53쪽 자료 동영상 55쪽 자료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

(1) 1910년대 무단 통치

① **조선 총독부 설치**: 조선 총독은 입법 · 행정 · 사법 및 군대 통수권 등 막강한 권력 행사

② **헌병 경찰 제도**: 군대식 통제, 일상생활 감시

③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박탈

④ **조선 교육령 공포**: 민족 교육 원천 봉쇄

(2) 토지 조사 사업(1910~1918)

① **목적**: 지세 수입 증대, 토지 약탈

② **방법**: 기한부 신고제 실시 → 지정된 기간 안에 토지 소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유지로 전환

③ **결과**: 조선 총독부가 미신고 토지 및 왕실과 관청 소유의 토지 국유화 → 동양 척식 주식회사나 일본인 지주에게 헐값에 판매

④ **회사령(1910)**: 조선 총독의 허가 없이 회사 설립 금지

⑤ **삼림령(1911)**: 삼림 지대의 국유화 · 일본인에게 양도

(3) 1910년대 민족 운동

① **국내**: 비밀 결사 조직

- 배경: '105인 사건' 등 일제의 독립운동 세력 탄압
- 독립 의군부: 유림 조직, 복고주의
- 대한 광복회: 공화주의 표방, 군대식 운영

② **국외**: 독립군 기지 건설

- 삼원보: 신흥 강습소(신흥 무관 학교), 경학사 설립
- 용정: 민족 교육 기관 설립, 독립군 양성
- 그 외: 블라디보스토크(대한 광복군 정부), 상하이(신한청년당), 미국(대한인 국민회)

2. 3 · 1 운동의 전개

(1) **배경**

① **민족 자결주의:** 파리 강화 회의에서 윌슨이 제창

② **신한청년당:** 김규식을 파리에 파견

③ **독립 선언:** 무오 독립 선언(만주), 2 · 8 독립 선언(일본)

(2) **3 · 1 운동의 과정**

① **준비:** 학생과 종교계 인사들이 독립 선언서 작성

② **시작:** 민족 대표와 학생 대표들이 태화관과 탑골 공원에서 독립 선언서를 낭독 → 만세 시위 전개

③ **시위의 확산:** 주요 도시 → 중소 도시 → 농촌 지역

④ **국외 확산:** 용정, 블라디보스토크, 미국 등

⑤ **일제의 대응:** 무자비한 탄압(유관순의 순국, 제암리 사건 등) → 무력 저항 발생

(3) **3 · 1 운동의 의의**

① 우리 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 운동

② 문화 통치로 식민 통치 방식 변화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계기

④ 국외 민족 운동에 영향

3.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과 활동

(1) **수립**

① **배경:** 3 · 1 운동 → 단일 지도 조직의 필요성 제기

② **각지에 수립된 정부:** 대한 국민 의회(연해주), 대한민국 임시 정부(상하이), 한성 정부(국내)

③ **통합 정부 출범:** 외교 활동에 유리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1919. 9.)

④ **정부 체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

(2) **활동**

① **연통제:** 국내 정보 수집

② **교통국:** 통신 담당

③ **애국 공채 발행:** 독립운동 자금 모집

④ **외교 활동**

- 김규식을 전권 대사로 임명하여 파리 강화 회의 파견 →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 미국에 구미 위원부 설치

(3) **국민 대표 회의(1923)**

① **배경:** 독립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갈등

②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

- 창조파: 임시 정부 해체, 새로운 정부 구성
- 개조파: 임시 정부 조직을 부분적으로 개혁

③ **결과:** 결렬 → 임시 정부의 활동 침체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48쪽

1910년대 조선 총독은 무단 통치를 실시하여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헌병 경찰을 배치하여 국내의 항일 움직임을 철저히 탄압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50쪽

1. 신흥 무관 학교
2. 일제는 국내 비밀 결사 운동을 탄압하고, 한국인의 항일 의지를 꺾고자 105인 사건을 꾸몄다.

생각 열기 ▶▶▶ 교과서 51쪽

3 · 1 운동

생각 열기 ▶▶▶ 교과서 53쪽

광복 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정체(政體)를 이어받아 공화제를 채택하였으며 전 국민의 의사에 바탕을 둔 정부를 구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53쪽

1. 공화정
2. 모든 국민이 주권의식을 지닐 때 나라를 찾겠다는 의지를 모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항일 운동을 펼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55쪽

1. (1) ×, (2) ×
2. (1) 조선 총독부, (2) 애국 공채, (3) 동양 척식
3. ㉣–㉡–㉢–㉠–㉤

내용 더하기

헌병 경찰의 임무 12차시

1. 의병 토벌, 첩보 수집
2. 신문지 및 출판물 단속, 집회 · 결사의 단속, 종교 단속, 기부금 단속
3. 범죄자 즉결 처분, 민사 쟁송 조정, 검사 업무 대리
4. 학교 및 서당 사찰, 일어 보급

5. 납세 독촉, 국경 세관 업무, 농사 · 산림 · 광업 단속
6. 종두 보급, 전염병 예방, 도축 단속

일제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자 군인인 헌병이 경찰 업무를 맡아보도록 하였다. 헌병 경찰은 독립운동가 색출 이외에 한국인의 일상생활 감시, 세금 징수 등을 맡았다.



▲ 함경북도 경무부와 헌병대 본부
함경북도 경무부(경찰서)와 경성 헌병대 본부의 현판이 나란히 붙어 있어 헌병이 경찰 업무까지 맡아본 것을 보여 준다.

조선 태형령(1912) 12차시

제2조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1. 조선 내에 일정한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2. 무자산이라고 인정될 때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 "조선 총독부 관보", 1912.3.18.

제1차 조선 교육령(1911) 12차시

제1조 조선에 있어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제2조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충량한 국민을 기르는 본의로 한다.
제8조 보통학교는 국민 교육의 기초가 되는 보통 교육을 시키는 곳으로서 신체의 발달에 유의하고 국어(일본어)를 가르치며 덕육을 베풀어 국민된 성격을 양성하고 그 생활에 필요한 보통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
제28조 공립 또는 사립의 보통학교, 고등 보통학교, 여자 고등 보통학교, 실업 학교 및 전문학교의 설치 또는 폐지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보통학교, 고등 보통학교, 여자 고등 보통학교, 실업 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과목 및 그 과정, 직원 교과서, 수업료에 관한 규정은 조선 총독이 정한다.
제30조 본 장에 열거한 이외의 학교에 관하여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제의 식민지 교육 정책의 목표는 일본의 신민다운 자질과 품성을 지니며, 일제에 충성하는 인력을 육성하는 데 있었다. 이 법령은 우리 민족을 일제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도록 하고, 낮은 수준의 실업 교육만을 받도록 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근로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대학 교육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토지 조사 사업(1910~1918) 12차시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 씨명 ·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 "조선 총독부 관보", 1912.8.13

일제는 대한 제국 때 시행된 토지 조사의 결과를 그들의 요구와 목적에 맞게 재편하였다. 그리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농민의 토지에 대한 여러 권리를 완전히 부정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총독이 정한 일정 기간 내에 토지 소유자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상당수의 한국인이 토지 소유권 혹은 점유권을 상실하였다. 또한 토지 조사 과정 중에 소유권 확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 중 2만여 건은 토지 경작을 보장받던 농민들의 패소로 끝났다.

회사령(1910) 12차시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조선 밖에서 설립한 회사가 조선에 본점이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조선 총독부, "조선 법령 집람 제17집"

일제는 민족 자본의 성장을 차단하고, 경제 활동의 자유를 막고자 회사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회사령은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에게 차별 적용되었다. 그 결과 한국인의 회사 설립과 경영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일본은 빠르게 공업화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자국 독점 자본의 한국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자 1920년 회사령을 폐지하였다.

대한 광복회 강령 12차시

1. 부호의 의연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2. 만주에 사관 학교를 설치하여 독립 전사를 양성한다.
3. 중국 · 러시아 등에 의뢰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4. 무력이 준비되는 대로 일본인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을 달성한다.

1915년 7월 대구에서 결성된 대한 광복회는 국권 회복과 공화제 실현을 목적으로 군자금을 모으고, 독립군 양성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18년 초 전국의 조직망이 발각되어 주요 인물이 검거, 사형되면서 조직이 파괴되었다. 조직원 가운데 일부는 1920년대 만주에서 조직된 암살단 · 의열단에 가담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신흥 무관 학교 12차시

1909년 신민회는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이동녕, 이회영, 장유순 등을 만주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 강습소를 설치하였다.

이후 신흥 강습소는 통화현으로 자리를 옮기고 신흥 중학교로 개칭하였고, 1919년 유하현으로 옮긴 뒤 신흥 무관 학교로 개칭하였다. 폐교될 때까지 2,100여 명의 독립군을 배출하였는데 이들이 청산리 전투의 주력으로 활동하였다.



▲ 신민회가 건설한 독립운동 기지

민족 자결주의 13차시

제1차 세계 대전 직후인 1918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였다. 민족 자결주의는 민족의식을 지닌 집단은 모두 그들이 바라는 독자적인 국가를 형성하고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는 것으로, 이 원칙에 따라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 및 러시아의 영토였던 발트 해 연안의 국가들이 독립하였다.

민족 자결주의는 국내 민족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3 · 1 운동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약소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발표된 것이 아니었으며 패전국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식민지에만 적용되었다. 이에 승전국이 보유한 식민지에는 이 원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무오 독립 선언(1918) 13차시

우리 대한 동족 남매와 온 세계 동포여! 우리 대한은 완전한 자주 독립과 우리들의 평화 복리를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하여 여기 이민족 전체의 학대와 압박을 벗어나서 대한 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 …… 궐기하라, 독립군! 천지를 바르게 하라, 독립군! 한번 죽음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바이니 개, 돼지와도 같은 삶을 누가 구차히 바라겠는가? …… 육탄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하라.

1919년 2월 중국 길림에서 만주와 러시아 지역의 독립운동가 39명이 제1차 세계 대전 종전에 맞춰 발표한 독립선언서이다. 음력으로 1918년 무오년에 선포되었다 하여 '무오 독립 선언서'라고 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 선언서이기도 하다.

대종교계 인사들이 다수 참가하였으며 외교론이 반영된 다른 선언과 달리 독립 전쟁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노선을 천명하였다.

2 · 8 독립 선언(1919. 2. 8.) 13차시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달성하기를 선언하노라. 4천 3백 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 비록 다년간 전제 정치의 해독과 그로 인한 불행이 우리 민족의 현재를 있게 하였다 할지라도 신 국가를 건설한 후에는 우리 민족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에 공헌함이 있을 것으로 믿노라. 이에 우리 민족은 일본이나 혹은 세계 각국이 우리 민족에게 자결의 기회를 부여하기를 요구하며 만일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은 생존을 위하여 자유의 행동을 취하여 독립을 얻기를 선언하노라.

제1차 세계 대전의 종결 후 파리 강화 회의에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고, 1918년 12월 15일자 'The Japan Advertiser'에서 재미 한국인들이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보도 기사가 실리고, 12월 18일자에 파리 강화 회의 및 국제 연맹에서 한국을 비롯한 약소민족 대표들의 발언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소식을 접한 동경 조선 유학생 학우회는 1919년 1월 동경 기독교 청년 회관에서 웅변 대회를 열어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결의하고, 실행 위원을 선출하였다. 실행 위원들은 조선 청년 독립단을 결성하고 '민족 대회 소집 청원서'와 '독립 선언서'를 작성한 후 송계백을 국내로, 이광수를 상하이로 파견하였다.

조선 청년 독립단은 1919년 2월 8일 선언서와 청원서를 각국 대사관, 공사관 및 일본 정부, 일본 국회 등에 발송한 다음 기독교 청년 회관에서 유학생 대회를 열어 독립 선언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실행 위원을 포함한 27명의 유학생이 경찰에 검거되고 강제로 해산되었다. 2월 12일 유학생 100여 명이 히비야 공원에 다시 모여 독립 선언서를 재차 발표하려 하였으나 이 역시 해산되었다. 그러나 이 선언은 3 · 1 운동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3 · 1 운동, 3월 3일에서 3월 1일로 바뀐 이유

13차시

거사일이 3월 1일로 결정된 데에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우선 3월 3일이 고종 황제의 장례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백성이 '고종 황제 독살설'로 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국장 당일에 폭동이 일어나면 독립운동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므로 그 이전에 거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다른 주장으로는 국장일의 거사는 불경(不敬)이라 피하되, 국장 배례 차 상경한 지방민을 참여시키기 위해 3일과 가까운 1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

한편 3월 3일 안이 3월 1일로 바뀐 데에는 '비밀 누설'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1919년 2월 하순의 어느 날 악명 높은 종로 경찰서 고등계 형사인 신철이 천도교에 소속된 인쇄소인 보성사를 급습해 인쇄 중인 '독립 선언서' 한 장을 챙겨 들고 말없이 인쇄소를 나갔다. 보성사 사장 이종일은 즉시 천도교 유력자인 최린에게 이 사태를 보고했고, 최린은 신철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 민족을 위해 며칠 동안만 입을 다물어 줄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 신철은 비밀을 지키기로 했지만 지도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3일로 예정된 거사를 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는 것이다.

- 강준만, "한국 근대사 산책"

기미 독립 선언(1919. 3. 1.)

13차시

오등(吾等)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표명함이며,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적 양심으로 발로에 기인한 세계 개조의 대기운에 순응병진하기 위하여 이를 제기함이니, 이는 천의 명명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전인류 공존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라. 천하 하물이든지 이를 저지 억제하지 못할지라.

1918년 말부터 독립운동의 3대 원칙, 즉 대중화 · 일원화 · 비폭력 등을 주장해 온 손병희, 최린 등 천도교 측 중진들은 독립운동의 실천 방법으로 독립 선언서와 독립 청원서 · 국권 반환 요구서 등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거족적인 운동으로 확대하고자 기독교 · 불교 · 유림 등 각 종교 단체를 망라하는 동시에 저명인사들을 민족 대표로 내세우기로 합의하였다.

고종의 승하로 배일 감정이 절정에 다다르자 이들은 다시 종교 단체와 교섭을 벌여 기독교 측과 불교 측의 합류 승낙을 얻어냈다.

독립 선언서는 독립운동가로서 널리 알려지고 문장력이 뛰어난 최남선이 작성하였다. 독립 선언서는 천도교 측 15인, 기독교 측 16인, 불교 측 2인 등 33인이 민족 대표로 서명하였다. 독립 선언서의 원고는 오세창을 통해 천도교에서 경영하는 보성사 인쇄소 사장 이종일에게 전달되었다. 이종일은 공장 감독 김홍규와 2만 1,000매를 인쇄하여 자기 집으로 운반하였다.

독립 선언서는 조국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 자결에 의한 자주 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시하였다.

3 · 1 운동의 확산

13차시

탑골 공원에서 시작된 3 · 1 운동은 대도시에서 중소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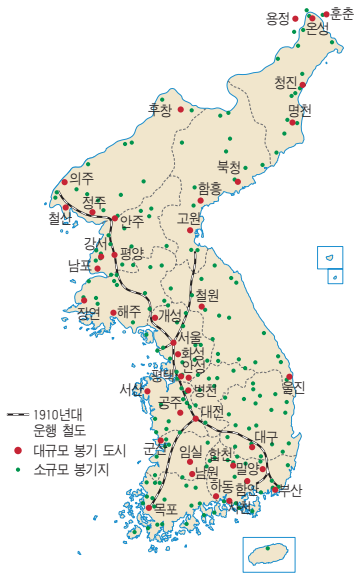
시로, 농촌으로, 국외로 번져 나갔다. 민중들은 그들의 의사를 스스로 밝히는 운동 격문을 제작하거나, 각종 운동가를 만들어 부르며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3 · 1 운동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 선언서를 발표한 단계이며, 2단계는 학생과 도시의 노동자 및 상인의 주도로 전국 주요 도시로 운동이 확산된 단계이다. 3단계는 주요 도시에서 농촌 지방을 포함한 전국 방방곡곡과 국외 각지로 운동이 확산된 단계이다.

새로운 지식을 수용한 학생과 젊은 지식인들이 운동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여기에 일제의 수탈로 피해를 입은 도시 노동자층과 상인층이 호응하였다. 그리고 토지 조사 사업으로 토지를 빼앗기고 소작농, 화전민으로 내몰리던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3 · 1 운동은 여러 달 동안 이어지면서 만주, 연해주, 중국, 일본, 하와이, 미국 등 세계 각지에 걸쳐 전개되었다.

일제는 헌병과 경찰, 군인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시위를 탄압하였다. 그리하여 운동 과정에서 7,509명이 사망하였고, 15,84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6,306명이 감옥에 갇혔다.

일제의 탄압으로 3 · 1 운동은 독립을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전 민족이 참여한 최대의 항일 운동이었다. 그리고 만주에서 준비되던 무장 독립 전쟁을 본격화하였으며, 아시아의 다른 식민지 및 반식민지 상태에 있던 민족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 3 · 1운동 때의 만세 시위 지역
전국 232개 부 · 군 가운데 229개 지역에서, 1491회에 걸쳐 만세 시위가 일어났으며 200여 만 명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 제암리 학살 사건 13차시

"사령관 자신이 모르는 사이 서울 남쪽에서 일본군 병사가 조선인 30여 명을 교회 안에 가두고 학살 ·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실을 사실대로 처분하면 가장 간단하지만 학살 · 방화를 인정하면 일본 제국의 입장이 불리해진다.", "(1919) 4월 18일 간부들과의 협의에서 저항했기 때문에 살육했다며 학살 · 방화를 시인하지 않기로 결론 짓고 회의를 마쳤다."

윗글은 2007년 2월 28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보도된 우쓰노미야 당시 조선군 사령관의 일기 중 일부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1919년 4월 현재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에서 일본 헌병들이 주민을 집단 학살하였고, 일본은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겼음을 알 수 있다.

제암리는 주민의 대부분이 천도교와 기독교 신자였다. 당시 제암리의 천도교나 기독교 지도자들은 단순한 포교 활동뿐만 아니라 국권 회복을 위한 비밀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3 · 1 운동을 계기로 더욱 촉발 ·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4월 15일 아리타 중위가 이끄는 일단의 일본 헌병이 제암리에 도착하여 15살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교회로 모이라며 위협했다. 주민들이 모이자 일본 헌병들은 이들을 교회에 가둔 후 불을 붙이고 교회 안을 향해 일제 사격을 시작하였다. 뒤이어 일본 헌병들은 온 마을에 불을 질러 제암리 33채의 집 가운데 외딴 집 2채만 남고 모두 불태웠다. 생지옥 같은 참화 속에서 천도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 등 모두 30여 명이 희생되었다.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1919.9.) 14차시

3 · 1 운동 이후 정부 수립 운동은 세 지역에서 추진되었다. 먼저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교포 사회를 바탕으로 이미 성립되어 있던 한족 중앙 총회가 대한 국민 의회로 개편되어 정부 형태를 갖추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3 · 1 운동 이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 임시 사무소'를 설치하고 1천여 명이 모여 임시 의정원을 구성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선포하고 선거를 거쳐 국무원을 구성하였다. 서울에서도 한성 정부가 수립되어 '13도 대표자'의 이름으로 국민 대회 취지서와 6개조의 양법이 명시된 선포문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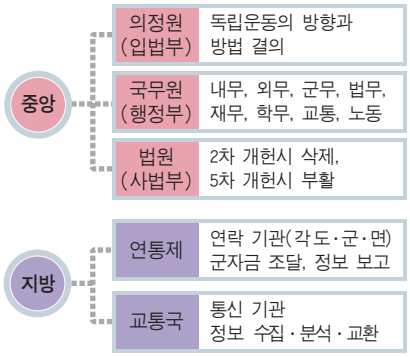
임시 정부가 세 곳에 세워지자 자연스럽게 통합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한 국민 의회는 외교부와 교통부만 상하이에 두고 정부와 의정원은 간도나 연해주 지방으로 옮겨 통일 정부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반해 상하이 정부는 임시 정부의 위치는 상하이에 두되 정부의 의사나 거류민의 여론에 따라 자유로이 위치 변경을 할 수 있게 하며, '상하이 임시 의정원'과 '연해주 국민 의회'를 합해 의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 한성 정부 집정관 총재 이승만이 한성 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한성 정부를 포함한 세 정부의 통일 교섭이 추진되었다.

교섭 과정에서 상하이와 연해주에 설립한 정부를 일체 해소하고 국내에서 13도 대표가 창설한 한성 정부를 계승할 것, 정부의 위치는 당분간 상하이에 둘 것, 상하이에 설립한 정부가 실시한 행정은 유효임을 인정할 것, 정부 명칭을 '대한민국 임시 정부'로 할 것 등이 제시되었고, 그것이 합의되어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헌장 14차시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 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집회, 토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조직도(1919. 9.)

1919년 4월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임시 헌장 10개조를 발표하고 임시 정부를 조직·선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민주 공화정을 채택하였으며 인민의 자유 평등권을 보장하고 참정권을 부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임시 의정원(입법부), 국무원(행정부), 법원(사법부)의 삼권 분립 체제로 1919년 9월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연통제 14차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국내외를 비밀리에 연결하고 통할하는 행정 단위 체제로서 연통제를 두었다. 연통제는 국내외 국민들의 독립 의지를 상호 보완·교류하고, 구국 사업의 완성을 기하며 민족적 역량을 수렴·교환하는 비밀 지하 조직이었다. 연통제의 주요 업무로는 법령과 공문의 전달과 공포, 독립 투쟁의 지속적인 지휘 감독, 군수품의 징발 수송, 군자금 모집원의 격려 고무, 공채 발행 등이었다.

국민 대표 회의의 소집과 결과 14차시

임시 정부는 일제의 집요한 감시와 탄압으로 연통제와 교통국이 붕괴되고, 국내에서의 지원이 줄어들어 자금난과 인력난을 겪게 되었다. 게다가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외교론과 무장 투쟁론, 실력 양성론 등 독립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면서 1923년 상하이에서 국민 대표 회의가 소집되었다. 특히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1919)'가 밝혀지면서 소집의 필요성이 더욱 촉발되었다.

> 미국 대통령 각하, 대한인 국민회 위원회는 본 청원서에 서명한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공식 청원서를 각하에게 제출합니다. 열강이 먼저 한국을 일본의 학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증하고, 당분간은 한국을 국제 연맹의 통치 밑에 두게 할 것을 빌며, 이렇게 될 경우 대한 반도는 만국의 통상지가 될 것입니다.
>
> - 이승만, '위임 통치 청원서'

120여 개의 단체 및 지역에서 140여 명이 모인 회의에서 신숙, 문창범, 윤해 등 창조파 인사들은 무장 투쟁 노선을 주장한 반면, 여운형, 안창호, 김동삼 등 개조파 인사들은 운동 노선보다 '정부'라는 명분을 중시하였다. 결국 회의는 결렬되었고,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바꾸고 임시 정부를 고수하자는 이동녕, 이시영, 김구, 조완구 등의 고수파들만 남아 임시 정부를 지키게 되었다.

02 1920년대 국내외 민족 운동의 전개

학습 목표

- 192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의 변화 내용과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 실력 양성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 사회 각 계층에서 전개한 민족 운동을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신간회의 설립 배경과 활동 내용을 알 수 있다.
- 1920년대 국외에서 이루어진 독립군의 활동과 애국지사의 의거 활동을 정리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15	**1. 문화 통치와 식민지 수탈 정책의 전개 ~ 3. 사회 각 계층의 민족 운동**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3 · 1 운동 이후 우리 민족을 회유하고자 일제가 실시하겠다고 선전한 통치 방식은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문화 통치의 실시 배경과 내용, 그 실상을 파악하게 한다.	탐구식	
	• 일제가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한 이유와 산미 증식 계획으로 우리나라 농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탐구하게 한다.		57쪽 자료
	• 물산 장려 운동의 전개 과정과 더불어 성과 및 한계를 설명한다.	강의식	PPT
	• 민립 대학 설립 운동, 농촌 계몽 운동의 전개 과정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59쪽 자료
	• 농민 · 노동 운동의 대표적 사례를 통해 그들의 주장과 성과를 알아본다.	강의식	60쪽 자료
	• 학생들의 주도로 일어난 6 · 10 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의미를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동영상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내 살림은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만 살자'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국산품 애용을 주장한 운동은?		
	2. 3 · 1 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 운동으로 발전한 대규모 시위는?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16	**4. 민족 협동 전선 운동 ~ 5. 국외 독립운동의 전개**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결성한 단체가 전개한 활동은 무엇일까?	문답식	

16	[전개] • 신간회의 설립 배경을 사료를 통해 알아보게 한다. • 신간회의 활동 방향과 내용을 탐구하고, 여성계의 민족 협동 전선 운동의 결과인 근우회에 대해 설명한다. • 신간회가 해체된 이유를 파악하게 한다. •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에서의 승리와 일제의 보복, 러시아령 자유시에서의 무장해제를 정리하여 설명한다. • 자유시 참변 이후 설립된 3부와 3부 통합 운동을 정리하여 설명한다. • 의열단의 항일 의거 활동 사례를 찾아 발표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여성 교육의 확대 등을 위해 노력했던 여성 단체는? 2. 북로 군정서와 대한 독립군 등의 연합 부대가 일본군에게 큰 승리를 거둔 전투는?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탐구식 강의식 탐구식 강의식 발표식 문답식	62쪽 자료 PPT CD 64쪽 지도 65쪽 지도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문화 통치와 식민지 수탈 정책의 전개

(1) 문화 통치

① **계기:** 3 · 1 운동

② **내용**

- 문관도 총독 임명 가능 → 한 번도 임명된 적 없음.
- 보통 경찰 제도 실시 → 경찰의 수는 이전보다 증가
- 한국인의 신문 발간 허용 → 사전 검열 실시
- 치안 유지법 제정(1925) → 민족 운동 탄압
- 친일파 양성 → 자치 운동론자 등장

(2) 산미 증식 계획

① **배경:** 일본의 산업 발전 → 식량 부족

② **방법:** 수리 시설 확충, 농사법 개량 → 쌀 생산량 증가

③ **결과:** 증산된 쌀보다 더 많은 쌀이 일본으로 유출 → 국내 식량 사정 악화, 만주에서 잡곡 수입, 농민의 산미 증식 관련 경비 부담, 지주의 고율 소작료 책정 → 농민 생활 악화, 농민의 국외 이주 증가

(3) 회사령 철폐: 제1차 세계 대전 전후로 일본의 산업 발전 → 일본 자본의 한국 진출 증가

2. 실력 양성 운동의 전개

(1) 물산 장려 운동

① **전개:** 조선 물산 장려회 조직 → 국산품 애용 운동 전개, 민족 자본 육성 움직임 → 전국으로 확산(근검 절약 · 금주 운동을 통한 저축 장려)

② **결과:** 일제의 탄압, 자본가와 상인의 이익만을 우선시한다는 비판 → 점차 약화

(2) 민립 대학 설립 운동

① **전개:** 민립 대학 설립 기성회 조직 → 고등 교육 기관 설립을 위한 전국적인 모금 운동

② **결과:** 일제의 탄압, 가뭄과 수해로 실패

(3) 농촌 계몽 운동

① 문자 보급 운동(조선일보), 브나로드 운동(동아일보)

②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1935)

3. 사회 각 계층의 민족 운동

(1) 농민 · 노동 운동

구분	농민 운동	노동 운동
배경	사회주의 사상 전파	
	• 농민의 부담 가중 • 소작료 인상	• 노동자 수 증가 • 열악한 노동 환경
전개	• 소작 쟁의 • 농민 조합 조직	• 노동 쟁의 • 노동 조합 조직
대표 사례	암태도 소작 쟁의	원산 총파업

(2) 학생 운동

① **6 · 10 만세 운동(1926):** 국내 항일 운동 활성화

② **광주 학생 항일 운동(1929):** 3 · 1 운동 이후 최대 규모

4. 민족 협동 전선 운동

(1) **배경**: 자치 운동 세력의 등장 → 일제와의 타협 주장

(2) **신간회**

① **창립(1927)**: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연합

② **활동**: 대중 계몽 운동 전개, 사회 운동 지원,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때 민중 대회 개최 시도

③ **해체(1931)**: 일제의 탄압, 사회주의자들의 해체 주장

(3) **근우회**: 신간회의 자매 단체

① **결성**: 민족 협동 전선 운동의 결과

② **활동**: 여성 교육 확대,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 차별 철폐 주장

③ **해체**: 신간회가 해체를 전후로 해산

5. 국외 독립운동의 전개

(1) **독립군의 활동**

① **봉오동 전투**: 대한 독립군이 여러 무장 투쟁 단체와 연합하여 일본군 대파

② **청산리 대첩**: 북로 군정서군과 대한 독립군을 주축으로 한 연합 부대의 큰 승리

③ **간도 참변**: 일본군이 한국인 마을 습격, 학살

④ **자유시 참변**: 독립군 부대들이 러시아 적군에게 무장해제를 당하는 과정에서 큰 피해를 봄.

(2) **3부의 성립**

① 참의부 · 정의부(남만주), 신민부(북만주)

② 민정 기구임과 동시에 군정 기구의 역할 수행

③ 1920년대 후반 통합 모색 → 국민부(남만주), 혁신 의회(북만주) 성립

(3) **의열단의 항일 의거 활동**

① **조직**: 1919년 김원봉이 조직

② **활동 지침**: 신채호의 조선 혁명 선언(1923)

③ **활동**: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리 처단, 관공서 파괴

④ **활동 인물**: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김지섭 등

⑤ **활동 방향의 변경**: 조직적 무장 투쟁 전개 노력

- 황푸 군관 학교 입학 → 군사 훈련
- 조선 혁명 간부 학교 설립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56쪽

한국인들의 저항을 무마하고 민족 운동 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해서이다.

탐구 활동 ▶▶▶ 교과서 57쪽

1. 일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 쌀의 증산량보다 일본으로 반출되는 양이 더 많아 국내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었다. 농민들은 증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지주들이 소작료를 높게 책정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렸다.

생각 열기 ▶▶▶ 교과서 58쪽

물산 장려 운동

생각 열기 ▶▶▶ 교과서 60쪽

산미 증식 계획 실시 이후 벼 품종과 화학 비료 등을 비싼 값에 사게 되고, 소작료도 계속 올랐기 때문이다.

생각 열기 ▶▶▶ 교과서 62쪽

신간회

탐구 활동 ▶▶▶ 교과서 63쪽

1. 자치
2. 일제는 언론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일본인 위주의 교육 · 산업 정책을 실시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64쪽

적극적인 무장 투쟁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65쪽

1. (1) ×, (2) ×, (3) ○, (4) ×
2. (1) 브나로드, (2) 광주 학생 항일 운동, (3) 자치 운동, (4) 신간회

내용 더하기

치안 유지법 15차시

천황제 질서를 축으로 하는 일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법이다. 원래 일본 국내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조선에도 실시되어 항일 독립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악명을 떨쳤다.

산미 증식 계획의 목적 15차시

당시 내지(일본)는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매년 300만 석 내지 500만 석의 외국미를 수입하였다. 1919년 외미 수입고가 464만 석, 금액으로 1억 6천2백만 원에 달하였다. 또한 1918년에는 도야마 현에서 쌀 소동이 발생하였다. 미곡의 수요는 인구 증가에 상응하여 장차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식량 문제의 해결은 당시 우리 국민의 사활이 걸린 중요 안건이었다. - 조선 총독부, "시정 25년사"

일본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쌀 생산량이 줄어들고 인구가 증가하여 식량이 부족해졌다. 이에 일제는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첫째, 일본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계획을 강행하여 한국 쌀을 한층 조직적으로 약탈함으로써 일본의 식량 위기와 그 밖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둘째, 한국 농촌에 막대한 국가 자본을 투입하여 국가는 물론 독점 자본과 지주들의 막대한 이윤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셋째, 일본 농민을 대량으로 한국으로 이주시켜 한국에 대한 지배 체제를 더욱 강화하려고 하였다.

회사령 폐지 15차시

1920년 일제는 조선인 지주 자본가의 기업 설립을 허용하여 반일 세력이 되는 것을 막고, 일본 기업의 조선 진출을 촉진하고자 회사령을 폐지하였다. 이에 지주들은 회사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미쓰이, 미쓰비시 같은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중소기업이 한국에 진출하였다.

이 무렵 일제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관세를 폐지하여 일본 상품이 다른 나라 상품보다 더 싼값에 팔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은 일본 기업의 투자처이자 일본 공산품의 소비 시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물산 장려 운동 15차시

조선 물산 장려회는 국산품 장려, 자급자족, 근검절약, 금주, 금연 등의 강령을 채택하고 설이었던 2월 16일을 물산 장려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동아일보가 대중의 관심을 고취하고자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등의 표어 현상 모집을 전개하는 조선 청년 연합회의 계몽 활동을 비롯한 조선 물산 장려회의 활동을 적극 보도함으로써 사실상 물산 장려 운동의 주체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물산 장려 운동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물산 장려 운동에 앞장섰던 신문이 일본 상품 광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 운동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시사하였다. 게다가 중간 상인이 폭리를 취하여 시장 질서가 왜곡되면서 물산 장려 운동의 열기를 식게 만들었다. 물산 장려 운동 주도 세력은 민족적 명분을 민중에게 강요하고 '우리 것'을 '사라'고 외쳤으나 민중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였다. 이에 사회주의자들은 물산 장려 운동이 '중산 계급의 이기적인 운동'이라며 비판하기도 하였다.

민립 대학 기성회 15차시

1923년 3월 전국 각지에서 360여 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민립 대학 설립을 위한 발기 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 이상재 등 44명이 중앙부를 조직하는 한편, 각지에 지방부를 조직하여 선전과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금 운동에 참여하자 일제는 경성 제국 대학령을 발표하고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방해하였다. 더불어 1923년 도쿄 대지진과 다음해 발생한 가뭄으로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암태도 소작 쟁의 15차시

1923년 9월부터 1924년 9월까지 약 1년 동안 전라남도 무안군(현재의 신안군)의 암태도에서 소작인들과 지주 사이에 벌어진 소작 쟁의이다.

암태도의 농민들은 섬사람을 먹이고도 남을 농사를 짓고도 7할에서 8할에 이르는 고율의 소작료 때문에 항상 굶주려야 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소작인들은 소작회를 조직하고 그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들은 1923년 지주 문재철을 상대로 소작료 인하 및 소작권 보호를 위한 쟁의를 시작하였다. 문재철은 일본 제국주의의 비호를 받던 대지주였으므로, 암태도 주민들의 투쟁은 자연스럽게 일제에 대항하는 항일 민중 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1923년 9월 소작회는 소작료를 4할로 내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지주 문재철이 이를 묵살하자 전국 노농 대회에 대표를 파견하여 중앙 농민 조직과 연계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일본 경찰의 방해로 실패하자 문씨 문중의 송덕비를 무너뜨리는 등 문씨 측 사람들과 충돌하였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남녀 농민 6백여 명은 목포 경찰서와 재판소 앞에서

집단 농성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소작료 4할 인하, 지주의 소작인회 2천원 기부, 미납 소작료의 3년 무이자 상환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암태도 소작 쟁의는 섬에서 일어났지만 투쟁 기간이 1여 년에 이르는 큰 규모의 쟁의였으며, 부분적이나마 소작인들의 승리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농민 운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그 결과 1924년 조선 노농 총동맹이 결성되었다.

원산 총파업 15차시

원산 총파업은 식민지 시기 한국 노동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의 분수령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원산항에서 하물의 하역 · 운반에 종사하는 부두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원산 노동 연합회가 주도한 원산 총파업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극심한 탄압에도 90여 일이나 지속되어 일제 강점기의 대표적인 민족 해방 운동으로 기록되었다.

파업은 일본인 감독 고타마가 조선인 노동자들을 모욕하고 구타한 데서 비롯되었다. 노동자들은 고타마의 해임을 포함한 최저 임금제 확립, 8시간 노동제 실시, 대우 개선, 단체 계약권의 확립 등 5개항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에 원산의 일본인 기업주들은 밖에서 새로 노동자를 모집하는 수법으로 대응하였고, 파업이 지속되면서 파업 노동자 가족 1만여 명의 생계가 어려워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수많은 격려 편지와 전보, 성금, 물자가 몰려들었고, 파업은 항일 투쟁의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일제는 어용 노조를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분리시키고 이간질하였고, 파업 지도부가 공산당과 연관되어 있다는 혐의를 뒤집어씌워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다. 결국 총파업은 4월 6일 노동자들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원산 총파업은 1920년대 가장 큰 규모의 총파업이었으며, 대중적인 지지와 관심을 받으면서 민족 운동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항일 운동이었다.

6 · 10 만세 운동 15차시

대한 독립 만세!
조선은 조선인의 것이다!
일체의 납세를 거부하자!
일본 물화를 배척하자!
일본인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지 말자!
일본인 교원에게는 배우지 말자!
일본인 상인과 관계를 단절하자!
언론 · 집회 · 출판의 자유를!
조선인 교육은 조선인 본위로!
보통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동양 척식 회사를 철폐하라!

- 6 · 10 만세 운동 당시의 구호(일부)

학생 단체와 사회주의 세력은 순종의 장례일인 6월 10일을 기하여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전에 경찰에 발각되어 관련된 수많은 사람이 검거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에도 학생들은 예정대로 서울에서 대대적인 반일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다.

6 · 10 만세 운동 당시 지도자들은 타도할 대상이 일본 제국주의임을 분명히 밝히고, 각 계급과 계층의 처지에 맞는 투쟁 구호를 내걸었다. 6 · 10 만세 운동은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족 해방의 의지를 뚜렷이 나타냈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통합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여 신간회가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당시 격문 중의 일부 15차시

검거자를 즉시 우리의 손으로 탈환하자.
교내에 경찰의 침입을 절대 반대한다.
교우회 자치권을 획득하자.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 · 시위의 자유를 획득하자.
조선인 본위의 교육 제도를 확립하라.
식민지적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라.
전국 학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라.

1929년 10월 30일, 나주에서 광주로 통학하던 일본인 중학생 몇 명이 같은 기차 통학생이던 한국인 여고생을 희롱하였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한국인 학생이 분격하여 일본인 학생들에게 따졌고, 결국 난투극으로 발전하였다. 학생들끼리의 단순한 싸움은 일제 경찰의 일방적인 탄압 등을 계기로 항일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운동 당시 거리 시위에서 뿌려진 격문에는 그들의 요구 사항이 잘 나타나 있다.

신간회 16차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으로 창립된 신간회는 전국에 141개 지회와 39, 410명의 회원을 확보하였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대중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광주에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일

제 경찰에 의해 민중 대회 개최가 실패하고, 집행부가 다수 구속되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등장한 집행부가 일제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대개 사회주의자들 위주로 이루어진 지방 지회들이 반발하였다. 결국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신간회의 활동은 사실상 정지되었고 해소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청산리 대첩 16차시

> 전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굶주림, 그러나 이를 의식할 시간도, 먹을 시간도 없었다. 마을 아낙네들이 치마폭에 밥을 싸 가지고 빗발치는 총알 사이로 산에 올라와 한 덩이 두 덩이 동지들의 입에 넣어 주었다.
>
> - 이범석, "우등불"

1920년 10월 21일부터 시작된 전투에서 독립군은 26일 새벽까지 10여 차례 전투를 벌인 끝에 적의 연대장을 포함한 1,200여 명을 사살하였고, 독립군 측은 100여 명이 전사하였다.

전투에 참가한 주력 부대 중 하나인 북로 군정서군의 병력은 그해 사관 연성소를 졸업한 298명을 포함해 약 1,600명이었고, 소총 1,300정, 권총 150정, 기관총 7문의 무기를 갖추고 있었다. 또 다른 주력 부대인 홍범도 부대는 대한 독립군 · 국민회군 · 의군부 · 한민회 · 광복단 · 의민단 · 신민단 등이 홍범도의 지휘 아래 연합한 부대였으며, 그 병력은 약 1,400명이었다.

청산리 대첩은 일본군의 간도 출병 후 독립군이 그들과 대결한 전투 중 가장 큰 규모였으며, 독립군이 최대의 전과를 거둔 가장 빛나는 승리였다.

간도 참변 16차시

일제는 청산리 대첩에 대한 보복 행위로 독립군의 근본적인 뿌리를 뽑고자 독립군의 모체인 간도 지역의 한인 사회와 항일 단체, 학교, 교회 등에 대한 초토화 작전을 실시하였다.

일제의 만행으로 19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동안 간도 지역의 훈춘, 왕청, 화룡, 연길, 유하 등 8개 현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해자 수는 사망자 3,693명, 체포된 인원 171명, 부녀 강간이 71명이었고, 재산 피해 건수는 가옥 소실 3,288채, 학교 소실 41개교, 교회 소실 16곳이었다.

의열 투쟁과 테러의 차이 16차시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김익상의 조선 총독부 폭탄 투척, 윤봉길의 상하이 홍커우 공원 폭탄 투척 등 의열 투쟁은 의사와 열사들이 전개한 독립 투쟁으로 한국인의 주요한 독립운동 방법 중 하나였다. 하지만 개인이 폭탄, 총, 칼 등을 무기로 사용하여 일제의 요인을 살상하고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자살 폭탄 테러에 비유되기도 한다. 하지만 양자는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점을 가진다.

의열 투쟁은 그 대상을 일제의 군인이나 식민 통치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 데 반해 현재의 테러리즘은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 · 11 테러와 같이 일반 민간인과 민간 시설까지도 테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독립운동가들의 의열 투쟁이 민족의 독립과 국제 평화의 실현을 위한다는 보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안중근이나 윤봉길 등 의열 투쟁을 전개했던 독립운동가들은 거사 이후 자결하거나 자폭하지 않고 감옥 생활과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자신들의 의열 투쟁이 한국의 독립과 국제 평화라는 대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자 했던 것이다.

의열단원 김지섭의 일본 왕궁 폭탄 투척 사건 16차시

의열단 단원 김지섭(1885~1928)은 제국 의회가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폭탄 투척의 장소를 왕궁으로 바꾸었다. 제국 의회 건물보다 상징성이 더 큰 일본 왕궁에 폭탄을 던지는 것이 일제의 침략상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독립 의지를 만방에 알리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1924년 1월 5일 오후 7시경 김지섭은 궁성 정문을 향해 폭탄을 던졌으나 터지지 않았다. 습기 많은 화물선을 타고 도쿄로 오는 동안 폭탄의 화약이 모두 젖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갖은 고문을 받고 도쿄 이치가야 형무소로 이송되었다. 이후 무기 징역형을 받고 4년을 복역하던 중 1927년 20년 징역형으로 감형되었다. 그 후 치바 형무소로 이감되었다가 1928년 2월 20일 44세의 나이로 옥사하였다.

Ⅱ. 민족 운동의 전개

03 전시 수탈의 강화와 광복을 향한 노력

학습 목표

- 일제가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해 인적 · 물적 수탈을 강화하였음을 설명할 수 있다.
- 1930년대 국외 여러 지역에서 전개된 무장 항일 투쟁 운동을 정리하여 말할 수 있다.
- 한인 애국단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
-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17	**1. 병참 기지화 정책**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전쟁에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빼앗아 가고자 실시한 법은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만주 침략과 중 · 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한국을 병참 기지로 만들었음을 파악하게 한다.	탐구식	66쪽 사진
	• 일제가 우리나라에 국가 총동원법을 적용하여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수탈하였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PPT
	• 일제가 지원병, 징병으로 한국의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음을 설명한다.		역사 부도
	• 일제가 수많은 한국인의 노동력을 착취했음을 동영상을 활용하여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동영상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 문제를 다룬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후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신문 기사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대공황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던 일본이 1931년에 침략한 지역은?		
	2. 일제가 한국인들을 군수 공장이나 광산으로 끌고 가려고 공포한 법령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18	**2. 더욱 격렬해진 무장 투쟁 운동**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독립운동가들이 힘을 합쳐 결성한 민족 혁명당에서 조직한 부대는 무엇일까?	문답식	CD
	[전개]		
	• 1930년대 만주에서 전개된 한중 연합 작전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설명한다.	강의식	68쪽 지도
	• 1930년대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 유격대의 활동을 설명한다.		
	• 민족 혁명당이 조직한 조선 의용대의 활동을 설명과 변화를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PPT

18	• 국외 여러 지역의 독립운동 내용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양세봉의 지휘 아래 만주 영릉가에서 일본군에게 승리를 거둔 부대는? 2. 화북으로 이동하지 않은 조선 의용대원들이 합류한 부대는?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발표식 문답식	69쪽 자료 학습지
19	**3. 광복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한인 애국단 소속으로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사람은 누구일까? [전개] • 한인 애국단 소속 이봉창과 윤봉길의 항일 의거 활동을 조사하고, 이 활동이 미친 영향을 발표하게 한다. • 충칭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김구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를 수립하고 한국 독립당을 결성했음을 설명한다. •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읽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구상했던 광복 후 국가의 모습을 탐구하게 한다. • 한국광복군의 활동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을 보여 주고 내용을 정리하게 한다. • 국내에서 전개된 여운형의 건국 준비 활동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충칭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창설한 부대는? 2. 광복 이후 국가 건설에 대비하고자 국내에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는?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발표식 강의식 탐구식 발표식 문답식	 CD PPT, 인터넷 70쪽 자료 인터넷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병참 기지화 정책

(1) **배경**: 대공황 → 일본의 침략 전쟁 확대

(2) **목적**: 군수 물자와 인력 공급을 위한 병참 기지화

(3) **내용**

① 군수 공장 설립 → 금속, 기계 등 생산

② 철과 석탄의 생산 증가, 면화와 양 재배 강요

(4) **인적 · 물적 자원의 수탈**

① **국가 총동원법(1938)**: 전쟁에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수탈

② **지원병 제도, 징병제**: 수많은 청년을 전쟁터로 동원

③ **징용령**: 노동력 강제 동원

④ **근로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여성 강제 동원

2. 더욱 격렬해진 무장 투쟁 운동

(1) **조선 혁명군과 한국 독립군**

① **특징**: 중국인 항일 무장 세력과 연합

② **조선 혁명군**: 영릉가, 흥경성 전투 등에서 승리

③ **한국 독립군**: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승리 → 한국광복군에 합류

(2) **항일 유격대**: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여 동북 항일 연군으로 재편 → 국내 진공 작전 시도

(3) **민족 혁명당과 조선 의용대**

① **민족 혁명당**: 중국 관내 독립운동가들이 힘을 합쳐 창당

② **조선 의용대**

- 창설: 민족 혁명당이 중국 측의 지원을 받아 조직
- 활동: 중국군과 연합하여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리, 일본군 포로 심문, 기밀문서 번역
- 분열: 일부 병력이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여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 남은 세력은 한국광복군에 합류

3. 광복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1) **한인 애국단**

① **조직**: 임시 정부의 난국을 해결하고 항일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김구가 조직

② **활동**

- 이봉창: 일본 도쿄에서 일왕의 행차를 향해 폭탄 투척
- 윤봉길: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 기념식장에 폭탄 투척 → 중국 정부가 임시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기

(2) **충칭 시기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

① **조직 정비**: 김구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 수립

② **한국 독립당 결성**: 임시 정부 뒷받침

③ **대한민국 건국 강령 제정**: 우리 민족 해방의 염원과 건국의 기본 방침 → 해방 후 민주 공화국 건설

④ **한국광복군 창설**

-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에 선전 포고
- 인도 ·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공동 작전 수행
- 미국 전략 정보국과 협력하여 국내 진공 작전 준비 → 일본의 항복으로 실현 좌절

(3) **조선 건국 동맹**

① **결성**: 국내에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결성

② **활동**: 광복 이후의 국가 건설 준비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66쪽

일제의 강제 징용과 가혹한 노동 환경

생각 열기 ▶▶▶ 교과서 68쪽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에 기초를 둔 민주 공화국

생각 열기 ▶▶▶ 교과서 70쪽

한국광복군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71쪽

1. (1) ○, (2) ×
2. (1) ㉢, (2) ㉡, (3) ㉠
3. (1) 국가 총동원법, (2) 건국 강령
   (3) 한인 애국단, (4) 한국광복군

내용 더하기

중 · 일 전쟁(1937) 17차시

1937년 7월 7일, 베이징 교외의 루거우차오 부근에서 연습 중이던 '지나 주둔군'의 한 중대가 총격을 받은 루거우차오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일본군은 피해가 없었음에도 이튿날 중국군을 공격하였다. 당시 일본 내각은 전쟁 불확대를 요구하였지만, 육군 강경파는 내각의 요구를 무시하고 전선을 확대하였다.

중국은 1937년 9월 제2차 국 · 공 합작을 성립하여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였다. 그러나 전쟁은 일본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12월 국민 정부의 수도 난징이 함락되고, 난징 대학살이 발생하였다.

국가 총동원법(1938) 17차시

제1조 국가 총동원이란 전시(전시에 준할 경우도 포함)에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이다.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 · 수리 · 배급 · 양도 및 기타의 처분, 사용 소비 · 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조선 총독부, "조선 법령 집람 제13집"

중 · 일 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인적 ·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동원하고 통제할 목적으로 국가 총동원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한국에도 적용되어 강제 징용, 징병, 공출 등이 이루어졌다. 패전 후 1946년에 폐지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17차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70년대였지만,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화제가 된 것은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에 분노한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증언한 데서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50년간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살아왔던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하고 통제하였다는 자료도 발견되자 일본 정부도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제기구의 결의를 무시하고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법적

배상이 아닌 위로금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맞서 아시아 여성 단체와 시민 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필리핀, 미국 등지에 냈다. 또 ILO와 UN 인권 위원회 등 국제 기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법적으로 배상할 것을 권고하였고,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 법정'에서도 일왕 히로히토의 유죄를 확인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미국 하원의 만장일치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2008년에는 유엔 인권 이사회도 "위안부 동원에 대해 일본이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일본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사죄 및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하여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수요 시위 17차시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되어 최근 1,000차 수요 시위(2011.12.14.)가 열리기도 하였다. 수요 시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이행 등의 문제 해결 그리고 이를 통한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요구해 왔으며, 피해자와 시민들이 연대하는 장소, 살아 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 여성 인권과 평화를 외치는 장, 국경과 이념 그리고 세대와 성별을 초월한 연대의 장으로 자리 잡아 왔다.



▲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수요 집회 기념 평화비에 시민들이 털모자, 목도리, 무릎 담요를 덮어놓은 모습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 집회 1,000회를 맞이하여 2011년 12월 14일에 세워진 '평화비'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제에 끌려갈 당시의 나이인 10대 소녀가 한복을 입고 맨발로 일본 대사관을 쳐다보며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조선 혁명군 18차시

1929년 3월 만주 지린 성 국민부 사무소에서 항일 투쟁의 지도자들은 남만주 일대의 유일 혁명군 정부인 국민부를 지지하고자 조선 혁명군을 조직하였다. 조선 혁명군의 사령관에는 이웅, 제1중대장에는 양세봉이 임명되었으며, 총 8개 중대로 편성되었다.

조선 혁명군은 1932년 3월에서 7월에 걸쳐 벌어진 영릉가 전투에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 전선을 펼쳐 일본과 만주 연합군을 크게 물리쳤다. 그러나 1934년 9월 일본군과 격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양세봉이 죽고 일본군의 본격적인 공격이 전개되면서 세력이 점차 약해졌다.

민족 혁명당 18차시

1932년 상하이에서 김규식 등을 중심으로 한국 대일 전선 통일 동맹이 결성되었다. 한국 대일 전선 통일 동맹은 효과적인 항일 투쟁을 위하여 1935년 7월 5일 의열단, 한국 독립당, 신한 독립당, 조선 혁명당, 미주 대한인 독립단 등 5당 대표가 난징에서 민족 혁명당을 결성하면서 하나의 큰 정당이 되었다. 민족 혁명당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유지를 옹호하던 한국 독립당계 일부 인사가 불참하였으나, 당시 국외에서 활동하던 거의 모든 독립운동 정당 및 단체들을 포함하여 민족 연합 전선으로서 의미가 충분하였다. 민족 혁명당은 조선 민족 해방자 동맹 및 조선 혁명자 연맹 등 사회주의 계열 정당을 규합하여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결성하였으며, 1938년에는 그 산하 군사 조직으로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지청천 등은 김원봉의 독주와 민족 혁명당의 좌경화에 불만을 품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 편으로 돌아섰으며,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민족 혁명당의 정체성에 불만을 품고 당을 떠나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였다.

조선 의용대 18차시

중 · 일 전쟁에서 일본군에게 거듭 패한 중국의 국민당 정부는 김원봉에게 조선 의용대 창설을 제안하였다. 이에 김원봉은 1938년 10월 10일 최창익, 김성숙, 유자명 등과 함께 조선 의용대를 결성하였다. 국민당 정부 군사 위원회 정치부 소속으로 편제된 조선 의용대는 한인 무장 부대로 중국 항일 전쟁을 지원하는 국제 부대였다.

중국은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조선인 부대가 일본에 대항하여 함께 싸운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조선인들이 한 · 중 · 일 3국 언어에 능통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주로 선전전과 포로 심문에 활용하고자 했다. 실제로 조선 의용대의 선전 공작으로 강제 징집된 학병들이 탈주해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 의용대 내의 급진적인 청년들은 좀 더 적극적인 항일 투쟁을 위해 중국 공산당이 우세한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조선 의용대가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자 민족 혁명당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 **조선 의용대의 이동**
화북으로 이동하지 않은 세력은 충칭에서 창설된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

❀ 대조선 국민 군단 18차시

대조선 국민 군단은 1914년 6월 10일 하와이 오아후(Oahu) 섬에서 만들어진 군사 교육 단체이다. 국민 군단은 박용만이 1909년 6월에 시작한 한인 소년병 학교를 계승한 것으로 미주 한인 사회에 항일 독립 전쟁론을 구현하고자 만든 단체였다.

국민 군단의 군사 교육 활동은 실제 무기가 아닌 목총으로 실시되었고 조를 편성하여 농장에 나가 노동을 하면서 훈련과 학습을 받았다.

군단과 사관 학교의 병력은 120~300여 명에 달하였고 군영 낙성식은 1914년 8월 29일에 이루어졌다. 국민 군단과 사관 학교는 1916년을 고비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여 1917년경에는 해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 군단의 정신은 박용만에 의해 대조선 독립단으로 계속 이어져 갔다.

❀ 이봉창의 의거 19차시

이봉창 의사는 1931년 12월 13일 안중근 의사의 막내 동생인 안공근의 집에서 태극기를 배경으로 '선서문'을 가슴에 매단 채 양손에 수류탄을 들고 김구 앞에서 선서식을 마쳤다. 그리고 상하이 병공창 병기 주임으로 있던 김홍일과 하남성의 김현이 만들어 준 수류탄 2개와 김구가 준비한 거사 자금 300원을 가지고 12월 17일 일본으로 떠났다.

1932년 1월 8일 11시 이봉창 의사는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히로히토에게 힘차게 수류탄을 던졌다. 그러나 궁내 대신이 탄 마차 옆에서 폭발해 일장기를 든 기수와 근위병이 탄 말 두 필이 쓰러지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이봉창은 태극기를 꺼내 들고 독립 만세를 외친 후 조용히 체포되어 한인 애국단원의 한 사람으로 일본 천황을 폭살하려 했음을 설명하였다.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비록 실패하였지만 정치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총리 대신 이누가이 이하 전 각료가 사퇴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상하이 사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의 신문은 이봉창 의사의 의거 소식을 전하며 "한국인 이봉창이 일황을 저격했으나 불행하게도 명중하지 못했다."라고 보도하여 모든 중국인의 간절한 의사를 대변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트집 잡아 일본 군대와 경찰이 국민일보사를 습격 · 파괴함과 동시에 중국 정부에 엄중 항의하는 등 중 · 일 관계가 매우 악화되었다. 게다가 일본은 중국인 자객을 사서 일본 일련종 승려 한 명을 암살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제1차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 **이봉창**
이봉창이 들고 선서문에는 "나는 참된 정성으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의 우두머리를 죽이기로 맹세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 윤봉길의 의거 19차시

>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
> - 의거 이틀 전 윤봉길이 두 아들에게 남긴 유서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는 이른바 천황의 탄생일인 천장절과 상하이 사변 전승 축하를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한인 애국단원이었던 윤봉길은 이 행사장에 폭탄을 던졌고, 일제의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대장,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중장, 제9사단장 우에다 중장, 주중공사 시게미쓰가 단 아래로 쓰러졌다. 이들 외에도 상해 거류 일본인 단장이 폭사하고, 상해 총영사, 주중공사, 거류민단 서기장, 취재 중인 일본 기자 여러 명이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윤봉길은 "만세"를 외치다 달려온 일본 헌병들에게 체포되었다.

윤봉길은 그해 5월 25일 상해 파견군 군법 회의에서 즉결 판결을 받고 일본으로 호송되어 11월 20일 오사카 육군 위수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19일 새벽 가네자와 육군 형무소로 이감되어, 그 이튿날 교외에 있는 삼소정 공병 작업장으로 옮겨져 11시 40분 26발의 탄환을 맞고 순국하였다. 당시 윤봉길의 나이는 25세였으며, 순국 직전 "남아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으니 만족하게 여길 따름이다. 아무런 미련도 없다."고 담담한 표정으로 유언을 남기기도 하였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 장개석은 "중국의 백만 군대가 하지 못한 것을 한국의 한 의사가 능히 했으니 장하도다."라고 감탄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후 중국 정부가 한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때부터 임시 정부는 중국 정부에게서 본격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또한 국내에서도 침체되었던 항일의 열기가 다시 솟아나고, 전 세계에 한국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광복군의 창설 19차시

일제 침략 이후 우리 독립군은 여러 형태의 무장 투쟁을 만주 일원과 연해주 일대를 근거지로 전개한 바 있으나, 이들은 통일된 임시 정부의 단일 군대 조직체가 아니었다. 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는 정부 출범 당시부터 정부 조직법에 의한 창군을 염원해 왔었다. 이러한 염원의 결실은 한국광복군의 창설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에서 한국광복군 창군식을 가졌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무원을 비롯한 약 200여 명이 참석한 당시의 상황을 조소앙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대한민국 22년 9월 17일 상오 여섯 시에 충칭 가능빈관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를 열다. 식장 문전에는 큰 국기를 교차하였고 식장에 들어가 대중앙에 우리 국기를 달고 …… 근 여섯 시가 되는 가급 내빈과 우리 총사령부 장관 직원과 임시 정부 국무 위원들이 모두 참석하여 근 200명에 달하다. 여섯 시 정각이 되는 사회가 개최를 선포하다.
>
> - 조소앙 문서

한국광복군 행동 준승 9개 19차시

한국광복군은 창군되었지만, 응모자가 많지 않아 부대 편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재정도 충분하지 않았다. 결국 한국광복군은 중국 정부에게서 군사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원조는 '원조한국광복군판법'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 안에는 '한국광복군 행동 준승 9개항'이 들어가 있었다.

> 1. 한국광복군은 아군(중국)의 항일 작전 기간에 있어 본회에 직속하여 참모 총장이 장악 운영함.
> 2. 한국광복군은 본회에서 통할 지휘하되 아국이 계속 항전하는 기간과 …… 아국 최고 통수부의 유일한 군령을 접수할 뿐이요, 임시 정부와의 관계는 아국의 군령을 수하는 지간에 있어서는 오직 공한 명의 관계를 보류함.
> 8. 중 · 일 전쟁이 결속되지 못한 이전에 있어서 한국 임시 정부가 만일 한국 경내에 진입했을 때에는 광복군과 임시 정부의 관계는 따로 논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규정함.

준승에 따르면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명목상으로 한국광복군의 통수권을 갖게 되며, 한국광복군이 압록강을 건너 조국에 진격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협정이 있기까지 계속 중국군의 군령을 받아 행동해야 했다. 하지만 이런 제약 속에서 받은 원조액은 불과 중국 화폐로 6만원 정도에 그쳤다. 결국 이 문제는 1945년 4월에 가서야 개정되었고, 그 때서야 독립 국가의 군사 조직 활동이 위상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강령과 삼균주의 19차시

대한민국 건국 강령

임시 정부는 13년(1931) 4월에 대외 선언을 발표하고 삼균제도의 건국 원칙을 천명했으니, 이른바 '보통 선거 제도를 실시하여 정권을 균등히 하고, 국유 제도를 채용하여 이권을 균등히 하고, 공비 교육으로써 학권을 균등히 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 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불평등을 과감히 제거할지니, …… 정치와 경제와 교육 권리를 고르게 하여 높낮이를 없게 하고 동족과 이족에 대하여 또한 이러하게 한다.'하였다.

삼균주의는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에 균등 생활을 실시하려는 주의'이다. 1920년대 말 기본적 구상이 정립되고, 한국 독립당의 정강에 채택되었으며,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건국의 기본 이념으로 공포하였다.

삼균주의의 대전제는 '완전 균등'으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완전 균등을 표방하였다. 개인과 개인 간의 균등은 정치 · 경제 · 교육의 균등을 통해 이룩될 수 있다고 전제하였고, 보통 선거제 · 국유제 · 국비

의무학제를 실행하여 각각 정치 · 경제 · 교육의 균등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민족과 민족 간의 균등은 민족 자결을 통해 이룩된다고 전제하면서, 이를 모든 민족에 적용하여 소수 민족과 약소 민족이 피압박 · 피통치의 위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은 식민 정책과 자본 제국주의를 부정하고 침략 전쟁 행위를 금지하여 모든 국가들이 서로 간섭, 침탈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룩된다고 보았다.

태평양 전쟁 시기 한국광복군의 활동 19차시

한국광복군은 1942년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 의용대의 일부를 흡수 · 통합하여 군사력의 증강을 꾀할 수 있었다. 한국광복군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다음과 같은 대일 선전 포고를 하였다.

> 본 정부는 3천만 한인을 대표하여 중 · 영 · 미 · 소 · 가(캐나다) · 호(오스트레일리아) 및 기타 제국의 대일 선전을 삼가 축하하는 바이다. 일본을 격패함이 동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인 까닭에 이에 특히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 1. 한국 인민은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여 일개 전투 단위가 되어 공동 항일할 것을 원한다.
> 2. 1910년 한일 합병 조약 및 기타 일체 불평등 조약의 무효와 반침략 국가인 한국에 있어서의 합리적 기득권익을 거듭 선포한다.
> 3. 왜구를 중국과 한국 및 태평양 지역에서 완전히 구축하기 위하여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한다.
> 4. 일본의 보호 아래 조성된 동북 및 남경 괴뢰 정권을 승인치 않을 것을 서약한다.
> 5. 루스벨트, 처칠 선언의 각 항이 한국 독립 실현에 적용되기를 견결히 주장한다.



▲ 한국광복군 대원들과 OSS 훈련 요원들
한국광복군은 OSS 지원 아래 시안과 푸양에서 특수 훈련을 실시하였다. 1945년 8월 29일 국내 진공 작전을 시행하려 했으나, 일본의 패망이 임박하자 8월 20일으로 날짜를 앞당겼다. 그러나 8월 15일 일제의 무조건 항복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한국광복군은 중국군과 연합하여 일본에 대항하였고, 인도 · 미얀마 전선에서는 영국군과 공동 작전을 펼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 전략 정보국(OSS)과 연계하여 국내에 침투할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고, 특수 공작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작전은 일본이 먼저 항복함으로써 실행되지는 못했다.

조선 건국 동맹 19차시

> 1. 각인 각파는 대동단결하여 거국일치로 일본 제국주의 제 세력을 구축하고, 조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것
> 2. 반추축 제국(연합국)과 협력하여 대일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저해하는 일체 반동 세력을 박멸할 것
> 3. 건설 부면에 있어서 일체의 시정을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고, 특히 노농 대중의 해방에 치중할 것

1944년 8월 서울 운니동에서 여운형과 조동호 등 독립운동가들은 '해방 이후 조선 민족의 자력에 의해 세워질 조직'을 구상하여 건국 동맹이라는 지하 조직을 만들었다. 당시 임원 한 명이라도 체포되었을 시 조직이 모두 밝혀질 가능성을 대비하여 이름을 정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건국 동맹이라 붙였다. 조직의 원칙은 3불(三不)이었는데, 즉 '말하지 않는다(不言)', '문서로 남기지 않는다(不文)',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不名).'였다.

건국 동맹은 비밀리에 활동하였으며, 최종적인 목표는 조선의 완전 독립, 민주 국가 건설을 강령으로 삼았다. 건국 동맹은 일제의 패망에 대비하여 한반도의 광복이 갑작스럽게 왔을 때를 준비하기 위해 결성된 지하 비밀 독립운동 단체였다. 또한 민족주의자에서 공산주의자들까지 좌우익 세력을 망라한 독립운동 세력이 뭉친 비밀 조직으로, 국외 각지에 흩어진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과 긴밀히 연락하고 연대를 추진하였다.

1945년 3월에는 건국 동맹의 산하에 군사 위원회를 조직하고 일본군의 후방 교란과 노농군 편성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건국 동맹은 1945년 8월 해방 직후 기구를 확대 개편하여 건국 준비 위원회로 발전하였다.

Ⅱ. 민족 운동의 전개

04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의 전개

학습 목표

- 일제가 우리글과 우리 역사를 말살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민족 말살 정책에 저항하여 전개된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을 정리할 수 있다.
-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민족 저항 활동이 활발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 종교계의 민족 운동이 전개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20	**1.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한 저항**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일제가 한국인의 민족정신을 말살하고자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였을까?	문답식	
	[전개]		
	• 일제가 추진한 민족 말살 정책의 사례를 찾아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인터넷
	• 황국 신민의 서사를 읽고,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한 이유를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72쪽 자료
	•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 학회의 활동을 통해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73쪽 자료
	• 일제의 한국사 왜곡(식민 사관)에 대항하여 우리 역사를 연구했던 역사학자들의 노력을 설명한다.		PPT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한 단체는?		
	2.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지었으며, '혼'을 강조한 사람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21	**2. 문학과 예술 활동**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일제의 탄압에 저항하여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는 어떠한 활동이 나타났을까?	문답식	
	[전개]		
	•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저항했던 작가들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찾아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참고 도서
	•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인터넷
	• 여러 종교 단체에서 주도한 민족 운동의 내용을 설명한다.	강의식	PPT

21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소를 소재로 민중의 힘을 표현한 화가는? 2. 중광단을 결성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종교는?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한 저항

(1) 민족 말살 정책

① **목적**: 한국인의 민족의식 말살 → 침략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

② **내용**

- 국민 정신 총동원 연맹 결성 → 일상생활 통제, 자금 모집
- '황국 신민의 서사' 암기, 신사 참배 강요
- 한국어 사용 금지, 일본어 사용 강요
-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한글 신문 폐간
- 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바꿈.
- 일본식 씨명 강요

(2)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

① **조선어 연구회(1921)**: '한글' 간행, '가갸날' 제정

② **조선어 학회(1931)**: 한글 맞춤법 통일안 · 표준어 제정,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 → 조선어 학회 사건

(3) 우리 역사에 대한 연구 노력

① **식민 사관**: 한국사 왜곡, 일선동조론 주장 → 한국인의 저항 의식 말살 목적

② **민족주의 사학**

- 박은식: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저술, 민족정신을 '혼'으로 파악
- 신채호: "조선상고사" 저술, 민족의 고유한 문화 전통과 정신 강조 →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 마련

③ **조선학 운동**: 민족 문화의 고유성 강조

④ **백남운**: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 발전하였음을 부각

2. 문학과 예술 활동

(1) 문학 활동을 통한 저항

1910년대	• 최남선: 근대 시 발전에 공헌 • 이광수: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 "무정" 발표
1920년대	• 순수 문학: '백조', '창조' 잡지 중심 • 저항 문학: 이상화, 한용운, 김소월
중 · 일 전쟁 이후	친일 문학 강요 → 윤동주, 이육사 등이 이에 끝까지 저항

(2) 예술 분야에서의 민족 운동

① **음악**: 홍난파('봉선화', '고향의 봄'), 안익태('코리아 환상곡')

② **미술**: 이중섭('소' 그림), 나혜석(유화)

③ **연극**: 근대 연극 시도 움직임, 토월회 등장

④ **영화**: 나운규의 '아리랑' 제작(1926)

(3) 여러 종교 단체의 민족 운동

① **개신교**: 교육 운동, 신사 참배 거부 운동

② **천도교**: 3 · 1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 잡지 발간

③ **불교**: 민족 불교 수호 운동 전개

④ **천주교**: 사회사업 추진, 사회 계몽 활동 전개

⑤ **원불교**: 개간과 저축 강조, 허례허식 폐지, 남녀평등 주장

⑥ **대종교**: 단군 숭배, 중광단을 결성하여 항일 무장 투쟁 전개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72쪽

일본식 씨명 강요

탐구 활동 ▶▶▶ 교과서 72쪽

한국인들의 저항 의지를 꺾고,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이다.

생각 열기 ▶▶▶ 교과서 74쪽

일제에게 강탈당한 나라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76쪽

1. (1) ㉡, (2) ㉢, (3) ㉠
2. (1) 황국 신민화, (2) 한글, 가갸날, (3) 이상화

3.

개신교	신사 참배 거부 운동
천도교	3·1 운동 참여, 잡지 발행
천주교	사회사업 전개, 잡지 발행
불교	민족 불교 수호 운동
원불교	개간과 저축 강조, 혁례허식 폐지, 남녀평등 주장
대종교	중광단 결성, 항일 무장 투쟁 전개

내용 더하기

황국 신민의 서사 20차시

황국 신민의 서사 – 아동용
1. 우리들은 대일본제국의 신민(臣民)입니다.
2.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3. 우리들은 인고단련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내선 일체, 황국 신민화를 위해 1937년 10월 제정된 황국 신민의 서사를 외울 것을 강요하였다. 황국 신민의 서사는 아동용과 중등학교 이상 학생 및 일반인용 두 종류가 있다. 이 서사는 학교를 비롯하여 관공서, 은행, 회사, 공장, 상점 등 모든 직장에서 조회, 기타 회합 등에서 제창되었다.

신사 참배 20차시



▲ 신사 참배를 하는 학생들

일제는 1919년 7월 그들의 최고시인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 메이지 일왕의 제사를 지내는 조선 신사를 남산에 설립한 뒤, '조선 신궁'이라 개칭하고 한국인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다. 1933년부터는 신사 중심의 황국 신민화를 위한 정신 운동이 강화되면서 신사의 설립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특히 1936년 총독부령으로 '신사 규칙'을 공포하여 산간벽지의 면에 이르기까지 신사를 세우고 참배를 강요하였다. 1938년경 '신사 약 2,300개 조선 신궁 참배자 260만 명'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제가 신사 참배에 얼마나 광분했는지 알 수 있다.

식민 사관 20차시

일제는 우리 역사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 열등감을 조장하고, 식민 통치에 대한 저항 의식을 약화시키고자 한국사를 왜곡하였다. 일제는 식민 사관을 날조하여 한국사의 자율적, 주체적인 발전을 부정하고, 자신의 침략을 정당화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체성론	• 한국의 역사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는 정체되었다. • 한국 역사에는 중세 봉건 사회가 결여되어 있다. 이는 곧 스스로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타율성론	• 한국은 스스로 발전할 수 없다. • 반도 국가인 한국은 항상 외세의 간섭에 이끌려 왔으며 대륙 세력이나 해양 세력의 도움이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
당파성론	조선 시대 정치사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충돌한 '당쟁의 역사'이다.

이와 같은 식민 사관은 '한국사 자체는 민족적 독자성도, 자체적 사회 발전성도 없으며, 한국 사회의 일본 지향은 필연적인 것이므로 한·일 병합은 한국의 역사를 발전시킨 사건'이라는 일제의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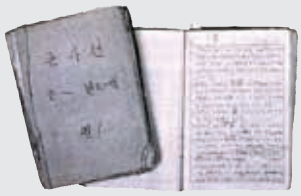


◀ 일제의 식민 사관을 유포했던 "조선사"
조선 총독부는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하여 "조선사", "사료총서", "사료복본"을 편찬하였다.

민족 문화 수호 운동 20차시

일제는 우리의 말과 글, 역사와 전통문화를 말살하고 왜곡하여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고 조선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자 하였다. 이에 독립운동가들은 우리의 말과 글, 역사 등을 지키는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는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독립운동의 정신적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운동이었다.

조선어 학회 20차시



말은 사람의 특징이요, 겨레의 보람이요, 문학의 표상이다. 조선말은 우리 겨레가 반만년 역사적 생활에서 문화 활동의 말미암던 길이요, 연장이요, 또 결과이다. 그 낱낱의 말은 다 우리의 무수한 조상들이 잇고 이어 보태고 다듬어서 우리에게 물려준 거룩한 보배이다. 그러므로 우리말은 곧 우리 겨레가 가진 정신적 · 물질적 재산의 총목록이라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말을 떠나서는 하루 한 때라도 살 수 없는 것이다.

- "우리말 큰사전" 머리말

1921년 12월 3일 주시경 등 10여 명이 휘문 의숙에서 한국 최초의 민간 학술 단체인 '조선어 연구회'를 창립하였다. 그리고 1931년 1월 10일 총회에서 학회의 이름을 '조선어 학회'로 고쳤고, 광복 후인 1949년 9월 5일 정기 총회에서 '한글 학회'로 개칭하여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선어 학회는 한글 연구에 힘을 기울여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고, 표준말을 심사하여 표준말 모음을 만들었다. 1933년 확정 발표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오늘날까지 국어 표기의 준거가 되고 있다.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편찬이 중단된 "우리말 큰 사전"은 한글 학회가 이어받아 1957년 완간하였다.

한국통사 20차시

옛 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이는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체는 없어져 버렸지만, 정신은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역사를 쓰는 까닭이다. 정신이 살아서 없어지지 않으면 형체도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 박은식, "한국통사" 서문

"한국통사"는 19세기 중엽부터 한 · 일 병합 직후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우리 민족에 대한 침략 과정을 서술한 책이다. 박은식은 이 책에서 "국가는 멸할 수 있어도 역사는 멸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혼을 강조하였다.

박은식은 "한국통사"에서 ① 대외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잔학성과 간교성을 폭로, 규탄하고, ② 대내적으로 국민들에게 '통(痛)'을 가르쳐 주어 민족적 통분의 격발에 기초한 독립운동의 정신적 원동력을 공급하며, ③ '국혼'과 '국백(國魄)'을 나누어 일제에게 빼앗긴 것은 '국백'뿐이고 '국혼'은 남아 있으니 '국혼'을 잘 유지, 강화하여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도록 교육하고, ④ 자손만대에 일제에게 침략당한 아픈 역사의 교훈을 새기고 반성을 촉구하려고 하였다.

"한국통사"는 간행 직후 중국 · 만주 · 미주의 한국인 동포들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비밀리에 대량 보급되어 민족적 자부심을 높여주고 독립 투쟁 정신을 크게 고취하였다.

조선 상고사 20차시

단군 시대부터 백제의 멸망과 부흥 운동까지 서술하고 있다. 1931년에 조선일보 학예란에 연재되었고, 이후 1948년 종로서원에서 단행본으로 발행되었다. 원래 신채호의 "조선사" 서술의 일부분이었으나, 그 연재가 상고사 부분에서 끝나 "조선 상고사"로 불리게 되었다.

총론에는 신채호의 역사 이론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파악하여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사물의 모순 · 상극 관계라 생각하였다. 그리고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려면 사료의 선택 · 수집 · 비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실증주의를 강조한 역사학 연구의 방법론도 제시하였다.

신채호는 이러한 역사 이념과 방법을 제시하면서 과거의 사대주의적 이념에 입각하여 한국사를 서술한 유학자들과 당시 근대적인 역사학을 한다고 주장하는 식민주의 사학자들을 비판하였다.

조선학 운동 20차시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조선학 운동은 다산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맞은 1934년에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민족과 민중을 함께 중요시하면서 우리의 민족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찾으려는 노력이었다.

정인보는 조선의 '얼'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문일평은 조선심(朝鮮心)에 기초한 조선어, 조선글로 구성된 조선사 · 조선 문학을 조선학의 정수로 내세웠다.

조선학 운동은 조선의 신구 문화에 대한 연구, 고유의 전설 탐구, 조선 문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일제에 소극적이고 타협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백남운의 사회 경제 사학 20차시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선,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의 외형적 특징 등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외관적인, 소위 특수성은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며, 세계사적인 일원론적 역사 법칙에 따라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 온 것이다. - "조선 사회 경제사"

사회 경제 사학의 대표적 인물인 백남운은 우리의 역사가 인류 역사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 발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식민 사관의 정체성론을 극복한 것이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21차시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 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 나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 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어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1926년 잡지 "개벽"에 발표된 이상화의 작품이다. 김재홍은 "이 시에서 들(땅)이란 농민에게는 농토, 즉 생존권을 뜻하며 국민에게는 영토, 즉 주권을 의미한다."며 "아울러 땅은 민족이 수천 년 살아온 역사의 표상이자 민족혼의 상징이 된다. 바로 이 점에서 주권을 빼앗기고 생존권마저도 빼앗겨 가는 상황, 마침내는 봄으로 상징되는 자연까지도 완전히 박탈당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날카롭고 섬세하게 형상화하여 민중시 또는 저항시의 한 정점을 일구어 내었다."라고 평가했다. 일제는 이 시가 불온하다는 이유로 이 시가 실린 "개벽"을 압수하고 판매를 금지시켰다.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21차시

남아면 군복에 총을 메고
나라 위해 전장에 나감이 소원이리니
이 영광의 날
나도 사나이였드면 나도 사나이였드면
귀한 부르심 입는 것을
갑옷 떨쳐입고 머리에 투구 쓰고
창검을 휘두르며 싸움터로 나감이
남아의 장쾌한 기상이어든
이제 아세아의 큰 운명을 걸고
우리의 숙원을 뿜으며
저 영미를 치는 마당에랴
영문(營門)으로 들라는 우렁찬 나팔소리
오랜만에 이 강산 골짜구니와 마을 구석구석을
흥분 속에 흔드네

노천명은 태평양 전쟁 중 '군신송' 등 전쟁을 찬양하고, 전사자들을 칭송하는 선동적이고 정치적인 시들을 발표하였다. 특히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는 '남아면 군복에 총을 메고 나라 위해 전장에 나감이 소원이리니 이 영광의 날 나도 사나이였다면 귀한 부르심을 입었을 것을'이라며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일제의 인적 수탈(강제 징병)을 찬양하였다.



◀ 김기창의 삽화
노천명의 시와 함께 실린 삽화이다.

이육사의 '광야' 21차시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 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시적 구성은 과거(1~3연) · 현재(4연) · 미래(5연)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먼저 과거는 1~3연까지 차례로 광야의 형성 과정을 태초로부터 발전 단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흰 눈으로 덮인 암담한 현실적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내었고, 먼 뒷날 반드시 이 광야에 초인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노래하였다.

이 시는 일제하의 절망적인 현실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광명의 세계를 염원하는 의지를 표현하였으며, 기교의 극치를 보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코리아 환상곡' 21차시

연주 시간 약 30분 정도로 편성된 웅장한 규모의 코리아 환상곡은 합창단, 관현악과 관악기를 위한 대 환상곡이다. 특히 후반부 합창 부분은 <애국가>의 가락이 중심을 이루며 '만세 만세'의 가사로 격앙과 고조를 이루면서 끝난다.

이 작품은 교향시적인 문학적 서술을 바탕으로 작곡되었다고 작곡자는 해설하였다. 태고의 민족 탄생과 유구한 역사, 그리고 외적 침략에 항거하며 광복을 이룬다는 줄거리로 일제 강점기에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고무적인 분위기가 담겨 있다.

나운규의 '아리랑' 21차시

'아리랑'의 영웅 영진은 정신 이상자로 설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검열 때문에 일제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영화에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변사의 역할도 저항의 표현에 '신축성'을 제공했다. 변사는 관객의 기대와 반응, 극장의 상황에 따라 설명을 즉흥적으로 바꿀 수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의적으로 영화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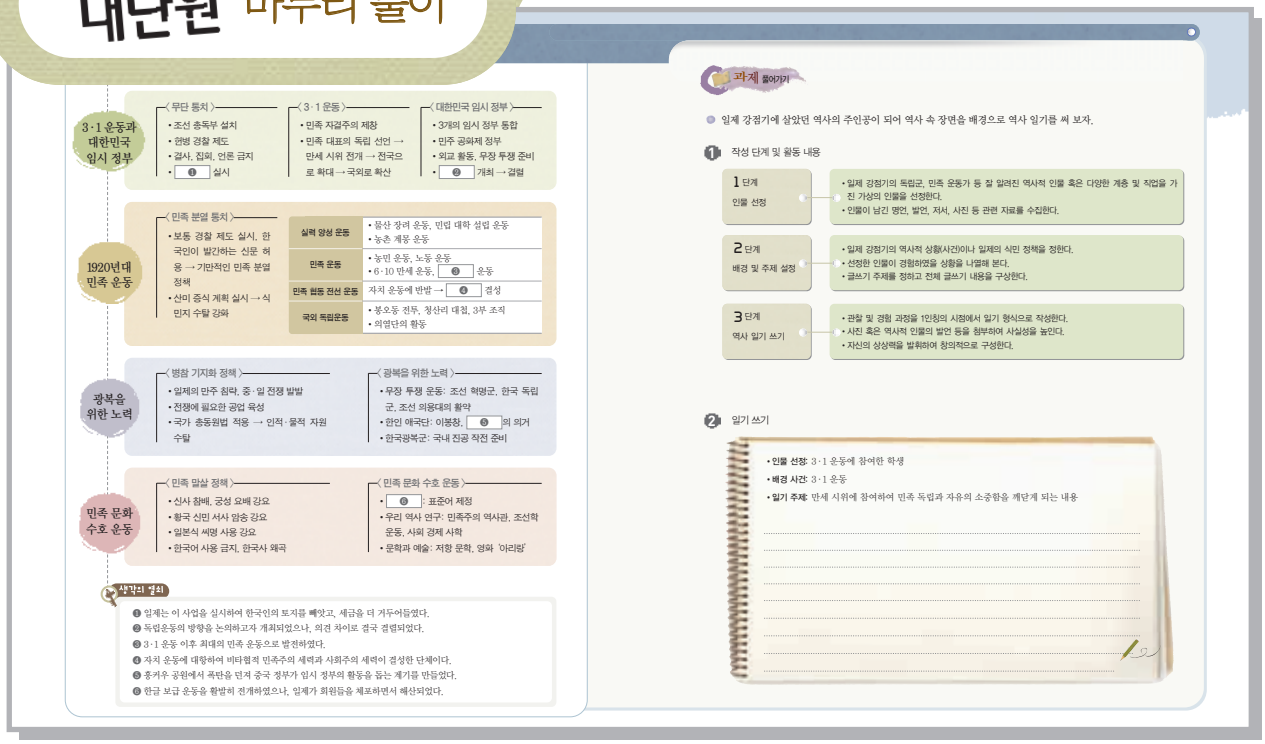
예를 들어 단성사에서 '아리랑'을 해설한 적이 있는 변사 성동호는 임검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고려해 두 가지 버전으로 '아리랑'을 해설했다고 한다. 경찰이 있을 땐 "재학 중 철학을 연구하다가 미친 김영진"이라고 하지만, 경찰이 없을 땐 "3 · 1 운동의 고문으로 미치광이가 된 김영진"으로 해설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제작자가 일본인인 데다가 감독까지 나운규 대신 일본 사람 스모리 히데카쯔 명의로 내세운 것도 '아리랑'이 상영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었다.

개벽 21차시

잡지 "개벽"은 1920년 6월 25일 천도교의 재정 지원으로 창간되었으며, 1926년 8월 발행이 금지될 때까지 7년간 통권 72호까지 발간되었다. "개벽"은 폐간 시까지 발매 금지 40회 이상, 정간 1회, 벌금 1회 등의 탄압을 받았는데, 약 148개의 기사가 완전 삭제 또는 부분 삭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 통권 72호를 간행하는 동안 독립 정신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대단원 마무리 풀이

교과서 | 78~79쪽



내용 확인하기

❶ 토지 조사 사업

✚ 일제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❷ 국민 대표 회의

✚ 1923년 개최된 이 회의에서는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하였다.

❸ 광주 학생 항일 운동

✚ 일본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의 충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일본인 학생들을 두둔하자 이에 흥분한 학생들이 벌인 대규모 시위이다.

❹ 신간회

✚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규모 민중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다.

❺ 윤봉길

✚ 한인 애국단 소속으로 일본군 상하이 점령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져 수많은 일본군 장성과 고위 관료를 살상하였다.

❻ 조선어 학회

✚ 조선어 연구회가 확대, 개편된 것으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였으며,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고자 노력하였다.

과제 풀어가기

| 예시 답안 |

지금 내 가슴은 분노와 절망과 희망으로 흥분이 가시지 않는다.

3월 1일 탑골 공원에서 목청껏 학우들과 함께 외친 대한 독립 만세의 함성은 아직도 가슴을 울린다. 지난 시위 때 일본 헌병 경찰이 총칼로 무섭게 진압했다는 말에 겁이 나기도 하였으나, 오늘도 학우들과 손을 맞잡고 학교 교문을 나섰다. 드디어 완전한 독립을 외치는 함성이 다시 울렸다. 일본 헌병들은 총을 쏘아 우리를 해산하려 했다. 시민과 학우가 여러 명이 쓰러졌다. 우리 민족의 자유를 빼앗고 노예처럼 다루더니 이제는 목숨도 함부로 빼앗았다.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사실이 오늘처럼 서러운 적이 없었다. 시위를 마치고 교정에서 다시 만난 학우와 맹세를 하였다. 어서 힘을 길러 저 일제 통치자들을 이 땅에서 하루빨리 몰아내자고.

대단원 짚고 가기

01 다음과 같은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일제가 행한 식민 통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해 적용한다.

① '황국 신민의 서사' 암송을 강요하였다.
② 일본식 씨명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였다.
③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신문 발간을 허용하였다.
④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여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⑤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를 수행하며 일상생활을 통제하였다.

02 다음 상황에서 일제가 추진한 경제 수탈 정책의 결과로 옳은 것은?

> 일본의 쌀 소비는 연간 6,500만 석인데, 생산량은 5,800만 석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일본의 인구는 매년 70만 명씩 늘어나고 있고, 생활이 향상되면서 매년 쌀 소비량도 늘어날 것이다.

①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두 배 늘어났다.
② 쌀 생산이 늘어나 자작농이 증가하였다.
③ 회사 설립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
④ 농민들은 만주에서 들여온 잡곡으로 연명하였다.
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땅을 국유지로 만들었다.

03 다음 사진과 관계 깊은 민족 운동은?



① 3 · 1 운동
② 6 · 10 만세 운동
③ 물산 장려 운동
④ 실력 양성 운동
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04 다음 포스터와 관계 깊은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령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②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③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는 표어를 내세웠다.
④ 일부 지식인들은 이 운동이 소수의 자본가만을 위한 운동이라고 비판하였다.
⑤ 우리 손으로 고등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05 다음은 1920년대 국외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들이다.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북로 군정서와 대한 독립군 등 연합 부대는 10여 차례 전투 끝에 일본군을 물리쳤다.
> (나) 남만주에서는 참의부와 정의부, 북만주에서는 신민부가 조직되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 (다) 자유시로 이동한 독립군 부대들이 러시아 적군에게 무장해제를 당하는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나) – (가) – (다)
④ (나) – (다) – (가)
⑤ (다) – (나) – (가)

06 다음과 같은 강령을 제시한 독립운동 단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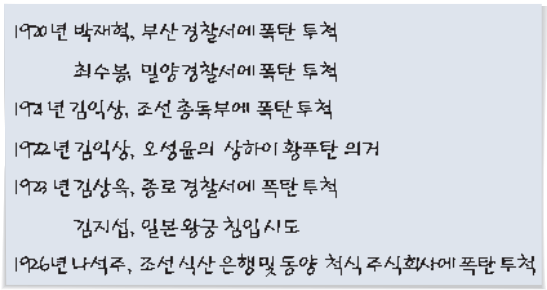
> 1. 우리는 정치 ·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 2.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 3.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배격한다.

07 다음 ㉠에 들어갈 독립운동 단체의 활동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① 애국 공채 발행
② 연통제, 교통국 운영
③ 국민 대표 회의 개최
④ 구미 위원부 설치를 통한 외교 활동
⑤ 신흥 무관 학교 설립을 통한 독립군 양성

08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친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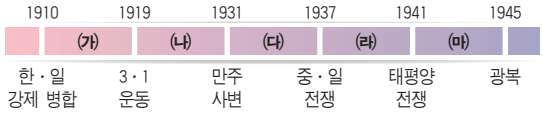


①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김구가 조직하였다.
③ 독립운동 세력 간의 통합을 목적으로 민족 혁명당을 결성하였다.
④ 조선 총독부 고위 관리 처단과 식민 통치 기관 파괴를 목적으로 하였다.
⑤ 신채호가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하여 투쟁 노선과 행동 강령을 제시하였다.

09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인물을 쓰시오.

> • 민족의 고유한 문화 전통과 정신을 강조하였다.
> • 고대사 연구에 힘썼으며,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였다.

10 (가)~(마)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① (가) – 문관이 조선 총독에 임명되었다.
② (나) – 우리글과 역사 교육을 금지하였다.
③ (다) – 만주에서 한국 독립군이 크게 활약하였다.
④ (라) – 일제가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해 토지를 약탈하였다.
⑤ (마) – 순종의 인산일에 6·10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11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최현배는 한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많은 공을 쌓은 대표적인 한글 학자이다. 그는 1910년부터 3년간 주시경의 조선어 강습원에서 한글과 문법을 배웠으며, 일본 유학 후 1926년 연희 전문 교수로 부임하였다.
> 1931년에는 이 단체의 창립에 참여하였으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1942년 체포되어 광복이 될 때까지 3년간 복역하였으며, 광복 이후에도 한글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보기

㉠ '한글'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였다.
㉡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하였다.
㉢ 한글 기념일인 '가갸날'을 정하였다.
㉣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01 ⑤ 02 ④ 03 ① 04 ④ 05 ② 06 신간회 07 ⑤ 08 ② 09 신채호 10 ③ 11 ④

Ⅲ 대한민국의 발전

1 단원의 개관

이 단원에서는 광복 이후 냉전 체제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6 · 25 전쟁과 독재 정권의 억압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온 역사를 다룬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과 같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분단의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알아본다.



▲ 부산 항만

01.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서는 광복의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고,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과 미 · 소의 냉전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파악한다. 한편, 정부 수립 이후 전개된 친일파 청산 노력을 알아보고, 6 · 25 전쟁이 일어난 원인과 전개 과정, 그리고 남북한에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02.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에서는 4 · 19 혁명과 5 · 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등 독재 권력의 횡포와 억압 속에서도 끊임없이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온 역사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6월 민주 항쟁 이후의 정치 변화를 파악한다.

03. 경제의 성장과 문화의 발전에서는 광복 직후 극심한 식량난과 실업난, 6 · 25 전쟁으로 대부분의 생산 기반 시설이 파괴된 상황 속에서도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과 과정을 알아본다. 또한 정치, 경제의 성장과 함께 대중문화가 발전하였으며, 국제 교류와 협력이 증진됨에 따라 한국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음을 파악한다.

04. 통일을 위한 노력에서는 북한 사회의 변화와 오늘날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알아본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남북 간에 진행된 대화와 통일 정책을 파악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함을 이해한다.

05. 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에서는 중국의 동북 공정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같은 역사를 둘러싼 왜곡 문제와 갈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고 동북아시아 3국이 바람직한 국제 관계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이해한다.

2 단원의 목표

지식 · 이해	• 미 · 소 냉전과 좌 · 우 대립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 독재 권력의 횡포와 억압 속에서도 끊임없이 저항하고 발전해 온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다.
기능	• 각 정부별 독재 정치에 저항하여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내용을 파악하여 도표로 정리할 수 있다. • 다른 나라의 통일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통일 방안을 생각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발표할 수 있다.
가치 · 태도	•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고, 통일은 반드시 이룩해야만 하는 민족의 과제임을 인식한다. •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물질적 풍요만 중요시하지 말고, 경제 민주화 등 다양한 가치를 존중한다. •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국제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태도를 갖는다.

3 단원의 구조와 지도 계획

차시	중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
22	01.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1. 광복과 신탁 통치 문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신탁 통치
23		2.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미 · 소 공동 위원회, 5 · 10 총선거, 남북 협상, 제주 4 · 3 사건, 반민족 행위 처벌법,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24		3. 6 · 25 전쟁	북한의 남침, 유엔군의 참전, 인천 상륙 작전, 중국군의 개입, 휴전 협정 체결
25	02.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1. 자유 민주주의의 성장	3 · 15 부정 선거, 4 · 19 혁명, 장면 내각 수립, 5 · 16 군사 정변, 유신 체제, 부 · 마 민주 항쟁
26		2.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12 · 12 사태, 5 · 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6 · 29 민주화 선언, 평화적인 정권 교체, 제 1 · 2차 남북 정상 회담
27	03. 경제의 성장과 문화의 발전	1. 경제의 성장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 운동, 3저 호황, 외환 위기, G20 정상 회의 개최, 전태일, 시민운동 단체
28		2. 문화 발전과 국제 교류	대중 매체 보급, 한류, 스포츠 대회 개최, 국제화 시대
29	04. 통일을 위한 노력	1. 북한 사회의 변화	주체사상, 3대에 걸친 세습, 천리마 운동, 합영법, 탈북자 문제, 우리식 사회주의
30		2. 남북 관계와 통일 정책	7 · 4 남북 공동 성명, 남북한 국제 연합 공동 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6 · 15 남북 공동 선언
31	05. 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	1. 중국과의 역사 논란	동북 공정, 고구려 · 발해의 역사, 동북아 역사 재단
32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교과서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다케시마의 날,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4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 광복이 전적으로 연합국의 승리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개한 독립운동의 소중한 성과였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미 · 소 냉전 체제의 변화가 한반도에 끼친 영향 등 현대의 역사를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독재 정권의 시련 속에서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음을 지도한다.
- 통일은 꼭 이룩해야만 하는 우리 민족의 과제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5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 박현채 엮음,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 소나무, 1992.
-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 1, 2", 들녘, 1998.
- 류승렬,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7", 솔, 2003.
-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인물과 사상사, 2004.
- 박태균, "한국 전쟁", 책과함께, 2005.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북한 이해", 2012.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통일 문제 이해", 2012.
-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사료로 보는 민주화 운동 http://contents.kdemocracy.or.kr/
- 독도 연구소 http://www.dokdohistory.com/

Ⅲ. 대한민국의 발전

01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학습 목표

- 우리 민족이 일제와 끊임없이 투쟁한 끝에 광복을 맞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과가 한반도에 끼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 6 · 25 전쟁의 원인, 과정, 영향을 종합하여 전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22	**1. 광복과 신탁 통치 문제**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광복 직후 국내에서 여운형 등이 조직한 단체는 무엇인가?	문답식	
	[전개]		
	•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에 따른 결과만이 아니라 국내외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끊임없이 항일 투쟁을 전개한 성과임을 이해하게 한다.	강의식	동영상
	•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직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의 활동을 설명한다.		CD
	• 다양한 정치 세력의 등장과 활동을 인물을 중심으로 파악하게 한다.	탐구식	PPT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토론하게 한다.	토론식	83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두 나라는?		
	2.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좌익과 우익 사이에 격렬한 대립을 불러일으킨 것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23	**2.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따라 서울에서 열렸으나 참여국의 의견 차이로 성과 없이 끝난 회의는?	문답식	
	[전개]		
	• 미 · 소 공동 위원회의 결렬 이후 한반도 문제가 국제 연합에 상정되었고, 그 결과 총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안이 결정되었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CD
	• 좌우 합작 운동, 남북 협상 등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인터넷
	• 5 · 10 총선거 실시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정리하여 설명한다.	강의식	PPT

23	• 친일파 청산을 위해 제정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내용과 친일파 청산을 위한 노력, 결과 등을 탐구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제헌 국회를 구성하고자 남한에서 실시된 선거는? 2.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탐구식 문답식	85쪽 자료 학습지
24	**3. 6 · 25 전쟁**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낙동강 이남까지 후퇴했던 국군과 유엔군이 전세를 역전시킨 작전은? [전개] • 6 · 25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국제 정세의 변화, 남북한의 상황 변화와 연관 지어 설명한다. • 6 · 25 전쟁의 주요 전개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보여 준다. • 군사 경계선 설정 문제, 포로 교환 문제 등을 중심으로 휴전 협정의 진행 과정을 파악하게 한다. • 6 · 25 전쟁이 향후 남북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토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국제 연합 총회의 군사 개입 결의로 편성되어 6 · 25 전쟁에 참여한 군대는? 2. 유엔군, 북한, 중국 대표가 휴전 협정에 서명한 해는?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강의식 탐구식 발표식 문답식	 CD PPT 동영상 CD 인터넷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광복과 신탁 통치 문제

(1) 광복과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① 8 · 15 광복: 연합국의 승리에 따른 결과,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의 결실

②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 조직: 여운형, 안재홍 등 좌 · 우익 세력 참여
- 활동: 각 지역의 치안과 행정 담당, 생활필수품 확보 노력
- 해체: 우익 세력이 좌익 세력의 주도에 반발하여 탈퇴

(2) 다양한 정치 세력의 등장

① 38도선 분할: 남북한에 각각 미군과 소련군 주둔

② 국외 독립운동가의 귀국: 이승만, 김구, 김일성

(3)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과와 영향

① 내용: 미 · 영 · 중 · 소가 최고 5년간 신탁 통치 결정

② 결과

- 우익: 김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탁 운동 전개
- 좌익: 반탁 운동 지지 → 결정에 찬성하는 쪽으로 변경

2.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1) 미 · 소 공동 위원회 개최와 좌 · 우 합작 운동

① 미 · 소 공동 위원회 개최

- 소련: 임시 정부 수립에서 반탁 세력 배제 주장
- 미국: 모든 정당 · 사회단체 포함 주장
- 결과: 양측의 입장 차이로 결렬

② 좌 · 우 합작 운동

- 주도 인물: 여운형, 김규식 → 통일 정부 수립 주장
- 결과: 별다른 성과 거두지 못함.

(2) 남북 협상

① 내용: 김구가 북한에 통일 정부 수립 회의 제안

② 결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3) **북한 정권의 수립**

①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토지 개혁 실시

②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1948. 9. 9.)

(4)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① **과정**: 미 · 소 공동 위원회 결렬 → 미국, 한반도 문제를 국제 연합(유엔)에 상정 → 국제 연합이 총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과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파견 결정 → 북한, 위원단 입북과 총선거 실시 거부 → 유엔 소총회,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 실시 결정 → 5 · 10 총선거 실시 → 제헌 국회 구성 →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 8. 15.)

② **제주 4 · 3 사건**: 총선거 실시에 반대하는 무장봉기 발생 →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 학살

③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 제정**

- 목적: 친일파 처단
- 활동: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 구성
- 결과: 친일 세력 방해, 이승만 정부 비협조로 성과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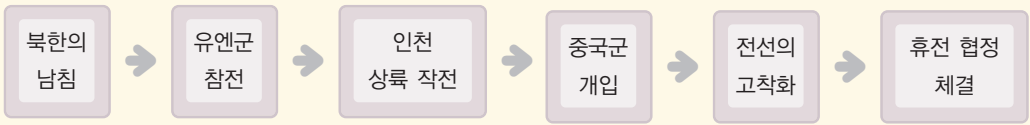
3. 6 · 25 전쟁

(1) **배경**

① **국제 정세의 변화**: 중국의 공산화, 미 · 소 양군의 철수

② **북한의 전쟁 준비**: 조선 의용군 부대 흡수, 소련과 중국의 군사적 지원

(2) **전개 과정**



(3) **영향**

① 인명 피해, 산업 시설 파괴, 국민의 생활 궁핍화

② 남북 사이의 원한과 불신의 벽 높아짐.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82쪽

'이날'은 우리 민족이 광복한 날을 뜻한다.

탐구 활동 ▶▶▶ 교과서 83쪽

예시 답안

- 찬성: 민주적인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일단 신탁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 반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약속했던 국제 회담의 결정 내용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생각 열기 ▶▶▶ 교과서 84쪽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

탐구 활동 ▶▶▶ 교과서 85쪽

1. 좌 · 우의 대립,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친일 세력의 방해
2. 예시 답안

제헌 국회는 1948년 제헌 헌법에 따라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어 친일파 청산 작업에 나섰다. 2005년 12월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친일파의 재산 일부가 국가로 귀속되기도 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86쪽

6 · 25 전쟁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87쪽

1. (1) 신탁 통치, (2) 반민특위
2. ㉣ – ㉡ – ㉢ – ㉠

내용 더하기

광복에 대한 견해 22차시

8월 15일은 광복절, 즉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날이다. 하지만 이날의 광복과 해방이 한국인의 노력이 아닌 연합국의 승리에 따른 것이고, 독립운동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고 낮춰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연합국에게 정식 교전 단체로 인정받지 못

하고, 그 결과 전후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석하지 못한 결과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견해이다.

먼저 연합국은 전후 처리 문제에 있어 한국을 일제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장차 독립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에 대한 최초의 약속이 바로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카이로 선언이다. 비록 즉각적인 독립 약속은 아니지만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것이다.

이는 연합국이 비록 한국을 정식 교전 단체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식민 지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연합국에 속해 있던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은 각자의 필요에 의해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의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강력한 저항 의식과 독립 의지를 확인했고, 이러한 차원에서 카이로 선언과 같은 한국 독립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의 광복과 해방은 한국인의 끊임없는 독립운동 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좌익과 우익의 유래와 쓰임새 22차시

좌익과 우익이라는 용어는 프랑스 혁명 직후 구성된 프랑스 제1공화국의 의회에서 유래하였다. 혁명을 주도한 공화파는 루이 16세를 몰아내고 공화국을 세웠는데 과거 지배 세력의 청산과 공화정 수립을 주장하는 급진파인 자코뱅파와 과거 지배 세력의 수용과 입헌 군주제를 선호하는 보수파인 프이앙파로 나뉘어졌다.

국회가 열리자 급진파인 자코뱅파는 자연스럽게 의장석을 중심으로 국회의 왼쪽에 자리 잡았으며, 보수파인 프이앙파는 오른쪽에 앉았다. 이때부터 급진파는 좌파, 보수파는 우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좌파 또는 좌익이 노동자와 농민 계급을 정치 세력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사회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이라면, 우파는 지주와 자본가 계급이 정치 세력의 중심이 되는 정치 사회의 건설과 기존 체제의 유지를 주장하는 세력을 말한다.

그러나 좌익은 공산주의 혁명을 거치면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명칭으로 일반화되었으며, 특히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배해 왔던 우리 사회에서의 좌익은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민주화의 요구가 분출됐던 198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 세력을 '급진 좌경 세력'으로 몰아 탄압하기도 했다.

좌익과 우익을 아주 단순하게 구별하자면 서로 대립하는 두 세력의 성향을 보아 점진적인 변화를 주장하거나 보수적 뜻을 피력하면 우익, 급진적인 변화나 개혁을 주장하면 좌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위 38도선 22차시

1945년 2월에 열린 얄타 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의 전력을 과대평가하여 미국의 피해를 줄이고자 소련의 참전을 원하였다. 8월 6일 결국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고, 8일에는 소련이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와 함께 만주 일대에서 강력한 남진을 개시하고, 9일에는 나가사키에도 원폭이 투하되면서 10일 일본은 천황제 유지를 조건으로 항복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연합국에 통보하였다.

오키나와에 있던 미국은 소련의 한반도 점령이 향후 군사적으로 일본과 동아시아 전체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깨달았다. 8월 10일경 일본이 항복 의사를 밝히자 미국은 즉시 항복 준비 작업에 들어가 한반도의 38도선을 경계로 이북은 소련군에, 이남은 미국에 항복한다는 지침을 결정하였다. 이 안을 제시한 것은 찰스 본스틸 대령과 딘 러스크 대령이었다. 이 안은 8월 15일 '일반 명령 1호'로 필리핀에 있던 맥아더 사령부로 전달되었고, 영국과 소련에게도 통고되었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22차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의 선언 · 강령〉

새 정권이 수립되기까지의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본 위원회는 조선의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의 완전한 독립 국가 조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 정권을 수립하는 임무를 다하려는 의도에서 아래와 같은 강령을 내세운다.

1. 우리는 완전한 독립 국가의 건설을 기함.
2.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정권의 수립을 기함.
3.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 생활의 확보를 기함.

광복을 맞이하자 여운형 등은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건국 준비 위원회는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지역 · 직장별로 건국 치안대를 조직하고, 식량 대책 위원회를 만들었다.

건국 준비 위원회에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제외한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언론인, 지식인, 지방 유지, 지주 등이 참여하여 민족 연합 전선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9월 6일 미군 진주가 가까워오자 건국 준비 위원회는 인민 대표자 대회를 열어 조선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조선 인민 공화국은 주석에 이승만, 부주석에 여운형을 선출하였는데 좌익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 요인과 민족주의 세력도 소수 참여하였다. 그러나 미 군정이 조선 인민 공화국의 실체를 부인함으로써 제 기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소멸되었다. 이로써 미군의 직접 통치를 받지 않고 자주적인 통일 정부를 세우려던 노력은 일부 우익 세력의 반대와 미국의 부인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22차시

1945년 12월 16일, 모스크바에서 미 · 영 · 소 3국 외상 회의가 열렸다. 이때 미국은 소련에 한반도 문제의 처리와 관련한 비망록을 사전에 전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 · 통신 · 체신 · 교역 · 산업 등 일체의 현안을 취급할 남북한 통일 행정부의 조속한 수립, 한국에 대한 4개국 신탁 통치 등 두 가지였다.

신탁 통치안의 주요 내용은 "4개국이 행정 · 입법 · 사법 기능을 수행하여 한국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 그것은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신탁 통치하에서 행정을 담당할 국제 민간 행정 기구로 1명의 고등 판무관과 4개국을 대표하는 4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집행 위원회를 구성한다." 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소련은 통일 행정부의 설치를 거부하고, '선 정부 수립, 후 신탁 통치'를 대안으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한국의 독립에 대한 양국의 접근 방법 차이와 광복 이후 한반도 내부에 조성된 정치 상황이 반영된 결과였다. 결국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타결된 한국에 대한 결정은 소련 측 제안을 원안으로 하고, 여기에 사소한 내용 등을 수정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신탁 통치와 좌 · 우익의 대립 22차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서에는 먼저 조선 임시 민주 정부를 수립하고, 신탁 통치 방안은 미 · 소 공동 위원회가 조선 임시 민주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즉 조선 임시 민주 정부가 강력히 반대했다면 신탁 통치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서가 공식 발표되기 전인 12월 27일에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도선 분할 점령"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반탁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좌익과 우익 세력은 공동으로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28일 신탁 통치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좌익은 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이후 남한 내에서는 반탁과 찬탁을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이 일어나는 가운데 결국 반탁 세력은 김구와 이승만을 중심으로 우파 세력을 결집하였고, 찬탁 세력은 조선 공산당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민족 전선을 결성하였다.

미 · 소 공동 위원회 23차시

제1차 미 · 소 공동 위원회는 1946년 3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한국 내 협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로 결렬되었다.

이후 장기간의 교섭 끝에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 · 소 공동 위원회가 재개되었다. 하지만 협의 대상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안을 포기하고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시켰다. 이에 소련은 "한국 문제의 유엔 상정은 미 · 소 간 협정을 위반하는 것" 이라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제안이 국제 연합 총회 운영 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국의 임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2년간에 걸쳐 개최되었던 미 · 소 공동 위원회는 아무런 결실 없이 막을 내렸다.

좌우 합작 운동 23차시

1946년 제1차 미 · 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이후 중도 우파의 김규식과 중도 좌파의 여운형은 미 군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하였다.

좌우 양 진영 모두 일단 합작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1946년 7월 좌우 합작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하지만 양측은 신탁 통치 문제, 토지 개혁 문제, 반민족 행위자(친일파) 처리 문제 등을 두고 큰 의견 차이를 보였다. 김규식과 여운형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으나 양측은 모두 불만을 표시하였다.

1947년 중반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이 심화되자 강경 정책으로 전환하고 이 운동 지원 방침을 철회하였다. 그리고 여운형이 암살당하면서 좌우 합작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23차시

제2차 유엔 총회에서는 한국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설치하였다. 미국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포기하고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였다. 그리고 유엔에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만들어 그 감시 아래 1948년 3월 말까지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국회 및 정부를 수립한 후 미군과 소련군은 철수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이것이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위반된다며 적극 반대하였다.

당시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던 유엔은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설치, 신탁 통치를 거치지 않은 독립,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를 가결하였다. 유엔의 결의에 따라 조직된 위원단은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소련 측은 38도선 이북 지역 입국을 거부하였다. 이에 유엔은 소총회를 열어 '가능한 지역에서만의 총선거'를 가결하였고, 이에 따라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남북 협상 23차시

남한만의 선거가 결의되고 분단이 거의 굳어지자, 김구 · 김규식 등은 북한 지도부와의 협상으로 통일된 민족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김구는 1948년 3월 8일 남북 협상을 제의하였고, 곧이어 남한만의 총선거를 반대 · 불참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같은 움직임에 북한 측은 남북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제안하였다. 김구 일행은 38도선을 넘어 평양에 도착하였다.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50여 개의 정당과 사회단체 700여 명이 참여한 연석 회의에서는 단독 선거 실시와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미군과 소련군의 동시 철수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는 단독 정부 수립 세력의 방해와 정권 수립 움직임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제주 4 · 3 사건 23차시

총선거 당시 제주도에서는 생필품 부족 및 극심한 흉년이 겹친 데다 일본군이 철수하고 미 군정하의 관리들의 부정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1947년 3 · 1절 기념 집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일반 주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은 경찰 발포에 항의하며 일어났고, 미 군정은 경찰과 우익 단체인 서북 청년단을 동원하여 남로당의 주민 선동을 진압하려 하였다.

경찰과 서북 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의 단독 선거 · 단독 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를 하였고,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강경한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하였다. 그 결과 제주도에서의 5 · 10 총선거는 3개 선거구 중 두 곳이 무효화되었고, 3만 명에 이르는 희생자가 발생하였으며 중산간 마을의 95% 이상이 불에 타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주 4 · 3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제주도 의회에 '4 · 3 특별 위원회'가 설치 · 운영되는 등 제주 4 · 3 사건의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2000년 '제주 4 · 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제주 4 · 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2003년 진상규명위는 정부 차원의 '진상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4 · 3 사건에 대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반대와 연계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있었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하게 주민들이 희생됐다."라고 발표하고 정부 차원의 사과와 희생자 지원을 건의하였다.

제헌 헌법 전문 23차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 · 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 "대한민국관보" 제1호, 1948. 9. 1.

유엔 총회,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다 23차시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총선거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던 남한 지역에서 효과적인 통제력 및 사법권을 보유한 합법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 이 정부는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한다. …… 한국 임시 위원단은 한국 국민의 자유로 표현된 의사에 기초하여 앞으로 대의 정부 발전에 유용한 감시와 협의를 수행할 것이며 …… 한국 전역에서 여행, 협의 및 감시의 권한이 부여될 것이다.

- 제3차 유엔 총회 결의문, 1948. 12.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과 그 결과 23차시

제1장 죄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 · 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헌 헌법 101조의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1948년 9월 22일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이 제정되었다. 이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었고, 1949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법에 의해 처벌된 친일파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반민특위 출발 당시에는 반민족 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해 놓고 있었지만 조사 건수는 총 682건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이 가운데 체포 305건, 미체포 173건, 자수 61건, 영장 취소 30건, 검찰 송치가 559건이었다. 이중 특별 검찰부가 기소한 것은 221건이었고, 특별 재판부가 재판을 종결한 것은 불과 38건에 지나지 않았다. 불기소된 사람들은 대부분 무죄로 풀려났으며 기소된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 처벌된 사람은 체형 14건, 공민권 정지 18건, 형 면제 2건, 면제 6건에 불과했다. 이 조차도 1950년 6 · 25 전쟁이 일어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반민특위의 와해와 친일파 청산 노력의 좌절 23차시

1949년 5월 20일 반민특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소장파 의원인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 등이 체포되었다. 이들이 남로당과 연결되어 국회에서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였다.

이어 경찰과 정부 내 친일 세력들은 6월 6일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해 특별 경찰 대원을 비롯해 반민특위 요원 35명을 체포하였다. 이들은 무기는 물론이고 피의자를 심문한 내용이 담긴 서류 등을 모두 압수하였다.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은 지방에서도 이어졌다.

반민특위의 와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국회 프락치 사건이었다. 6월 20일부터 노일환, 김옥주, 강욱중, 박윤원, 황윤호, 김약수 등의 국회 의원들이 체포되었는데 이들 역시 남로당과 연결되어 국회에서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결국 이승만 정부와 친일 세력은 1950년 6월 20일로 규정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공소 시효를 1949년 8월 31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 노력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23차시

1946년 2월에 발족한 북한 최초의 중앙 권력 기구로, 위원장에 김일성, 부위원장에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강령으로는 완전한 독립 국가의 건설, 전 민족의 기본 요구를 실현할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여 대중 생활을 확보할 것 등을 내걸었다.

당면 과제로 지방 정권 기관의 강화, 무상 분배의 토지 개혁 실시 준비, 생산 기업소 발전 도모, 친일파 및 민족 반역자 처단 등 11개조를 제시하였고, 3월 23일 20개 정강을 발표하였다. 20개 정강은 친일 잔재 숙청, 언론 · 출판 · 집회 · 신앙의 자유 보장, 일반적 · 직접적 · 평등적 비밀 투표에 의한 인민 위원회 결성, 대기업소 · 운수 기관 · 은행 · 광산 · 산림의 국유화, 지주의 토지 몰수와 소작제 철폐, 생활필수품에 대한 시장 가격 제정, 노동자와 사무원의 8시간 노동제 실시, 의무 교육제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 정강에 의거하여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는 민주 개혁을 실시하였고, 개혁이 완수되자 북조선 인민 위원회가 수립되면서 해체되었다.

왜 1950년 6월 25일이었을까? 24차시

북한 지도부가 개전 시점을 잡을 때 전투 태세를 갖추는 데 걸리는 시간과 함께 '장마'라고 하는 계절적 요인을 깊이 고려한 것 같다. 물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중국의 동의와 협력을 얻어낸 시점이 5월이라는 점이었다. 중국의 동의를 얻은 뒤 서둘러 전쟁 준비를 했지만 6월은 넘길 수밖에 없었고, 계절적 요인 때문에 7월까지 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남한이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1950년 봄이 되자 좌익 세력은 대부분 검거되고 빨치산 활동도 괴멸 직전에 이르렀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으며, 군사적으로도 1949년 여수 · 순천 10 · 19 사건 이후 숙군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점차 정비되어 가고 있었다. 또 1950년 1월 26일 한 · 미 상호 군사 원조 협정이 체결되어 미국의 군사 원조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북한 지도부는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만이 유일한 수단이며 시간을 늦출수록 북한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리라고 예상하지 않았을까? - 박태균, "한국 전쟁"

6 · 25 전쟁의 전개 과정 24차시

(1) 제1단계(1950. 6. 25.~1950. 9. 15.)

전쟁 발발 당시 국군의 병력 수는 북한군의 절반 정도였고, 대공포 · 전차 · 전투기가 전혀 없었으며 기타 장비들도 북한군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그리하여 전쟁이 시작되자 국군은 계속 퇴각해야 했다.

서울이 점령당하고, 북한군이 한강 이남으로 진격하자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긴급히 부대를 파견하여 남하를 막으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W.F. 딘 소장이 이끄는 미국 제24사단과 W.H. 워커 중장의 미국 제8군 휘하 부대가 계속 투입되어 북한군의 남진 속도를 둔화시켰고, 1950년 8월경 낙동강을 경계로 하는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2) 제2단계(1950. 9. 15.~중국군 개입 전)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국군과 유엔군은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하였다.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고 국군과 유엔군이 경인 지역을 장악하면서, 북으로 후퇴하지 못한 북한군은 국군에 투항하거나 산악 지대로 도피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10월 20일 평양을 탈환하고 10월 26일 일부 부대가 압록강변에 도달하였다.

(3) 제3단계(중국군 개입~휴전 회담 전)

중국 인민 지원군이 대규모 개입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양상을 띠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하였고, 1951년 1월 4일 서울이 다시 북한군과 중국 인민 지원군에게 점령당하였다. 유엔군은 서울 남쪽 약 50km 지점의 평택과 원주를 연결하는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4) 제4단계(휴전 회담~휴전 협정 체결)

국군과 유엔군의 진격으로 전선이 지금의 휴전선 부근에 이르렀을 때 전쟁을 종결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결국 1950년 7월 10일부터 휴전 회담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매우 달라서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양측의 경계선으로 북한은 전쟁 발발 이전인 38도선으로의 복귀를 주장한 반면 유엔 측은 현 전선의 유지를 주장하였고, 북한은 모든 포로의 무조건 송환을 주장한 반면에 유엔군 측은 희망자만 송환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휴전 회담은 포로 송환 문제로 결렬 직전까지 갔으며 8개월간 중단되기도 하였다.

1953년 1월 D.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1953년 3월 스탈린의 사망으로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회담이 재개되고 합의에 도달하였다. 양측은 현재의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각각 2km씩 비무장 지대를 설정하고, 1953년 7월 27일 휴전 조약에 서명하였다.

전쟁이 남긴 것 24차시

6 · 25 전쟁으로 5백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민간인의 피해가 유독 많았다. 또한 어느 전쟁보다도 많은 인구 이동과 재배치를 가져와 사회의 전통적 구조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전통적인 반상의 차별과 구조, 의식이 붕괴되었고, 농촌 사회의 전통적 촌락 공동체가 급속하게 와해되었다.

이 전쟁으로 남북한의 이질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전쟁 중에 깊어진 적대감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Ⅲ. 대한민국의 발전

02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학습 목표

- 4 · 19 혁명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5 · 16 군사 정변으로 성립된 박정희 정부와 유신 체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 5 · 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 항쟁의 전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민간 정부가 성립된 이후 자유 민주주의 정치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25	**1. 자유 민주주의의 성장**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4 · 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새롭게 성립된 내각은?	문답식	CD
	[전개] • 이승만 정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자행했던 여러 사례를 찾아보고, 그 과정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인터넷
	• 4 · 19 혁명에 관한 동영상 자료를 보여 주고, 혁명의 배경과 전개 과정, 결과, 역사적 의의를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동영상
	• 4 · 19 혁명의 결과 수립된 장면 내각의 활동과 한계에 대해 설명한다. • 5 · 16 군사 정변을 일으킨 군인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과정과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설명한다. • 유신 체제의 성립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과 박정희 정권의 붕괴 과정을 설명한다.	강의식	PPT CD
	• 박정희 정부의 최대 성과인 경제 발전에 대하여 그 성과와 한계를 토론하게 한다.	토론식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이 제4대 정 · 부통령 선거에서 저지른 대대적인 선거 부정을 가리키는 말은? 2. 박정희 정부가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일본과 맺은 조약은?	문답식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26	**2.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광주에서 대학생과 시민들이 계엄 해제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며 전개한 대규모 시위는?	문답식	CD

26	[전개] • 5 · 18 민주화 운동이 가지는 의미를 전두환 정부의 성립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전두환 정부 시기의 강압적인 독재 정치와 유화 정치를 정리하게 한다. • 6월 민주 항쟁의 의미와 결실을 사료를 활용하여 탐구하게 한다. •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의 대표적인 정책들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이루어진 평화적 정권 교체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신군부 세력이 병력을 동원하여 권력을 장악한 사건은? 2.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한 선언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강의식 탐구식 발표식 강의식 문답식	동영상 PPT 92쪽 자료 CD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자유 민주주의의 성장

(1)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노력

① **헌법 개정**
- 발췌 개헌(1952): 대통령 직선제 개헌 단행
- 사사오입 개헌(1954):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금지' 조항 철폐 통과

② 국가 보안법 강화, 언론 탄압

(2) 4 · 19 혁명(1960. 4.)

① **전개:** 3 · 15 부정 선거 → 선거 직후 시위 전개 → 시위의 전국적 확산 → 계엄 선포, 군대 동원 → 이승만 정부 붕괴

② **의의:** 학생과 시민을 중심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 혁명

(3) 장면 내각

① **수립:** 과도 정부 수립 → 헌법 개정 → 장면 내각 수립

② **활동:** 독재 정치 청산, 남북 관계 개선, 민주주의 발전 등을 위해 노력

③ **한계:** 민주당의 분열, 다양한 민주화 요구 수용 못함.

(4) 박정희 정부

① **5 · 16 군사 정변:** 박정희가 이끄는 군부 세력이 권력 장악 → 국회 해산,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설치 → 군정 실시

② **한 · 일 국교 정상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한 · 일 기본 조약 체결

③ **베트남 파병:** 군 장비 현대화, 외화 확보, 수많은 젊은이들 희생

④ **3선 개헌:** 대통령의 3회 연임 허용 → 3선 성공

⑤ **유신 체제**
- 배경: 냉전 완화, 주한 미군 감축 결정,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불만 → 유신 선포, 헌법 개정
- 저항: 재야인사, 종교계, 학생 등을 중심으로 유신 철폐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민주화 운동 전개
- 붕괴: 부 · 마 민주 항쟁 진압, 정부 내 권력 갈등으로 박정희 피살(10 · 26 사태)

2.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1) 5 · 18 민주화 운동(1980. 5.)

① **배경:**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12 · 12 사태) → 대규모 민주화 시위 → 계엄 확대, 정치 활동 금지

② **전개:** 광주 시민들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 →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 → 학생과 시민들의 저항 → 무력 진압

(2) 전두환 정부

① **헌법 개정:**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

② **강압 통치:** 언론 통제, 학생 운동 감시 등

③ **유화 통치:** 외국 여행 자유화, 교복 자율화 등

(3) 6월 민주 항쟁(1987. 6.)

① **배경:**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대통령 간접 선거 유지 조치 발표

② **전개:** 박종철 고문 살인 조작 · 은폐 규탄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범국민 대회 개최 → 전국으로 확산

③ **결과:** 6 · 29 민주화 선언 발표(대통령 직선제 개헌)

(4) 노태우 정부

① 제24회 서울 올림픽 성공적 개최

② 중국,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

③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9.)

(5) **김영삼 정부**
① 지방 자치제의 전면 실시, 금융 실명제
②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1996), 외환 위기(IMF 구제 금융)
(6) **김대중 정부**
① 평화적인 정권 교체
② 외환 위기 극복, 남북 정상 회담
(7) **노무현 정부**
① 권위주의 청산, 과거사 진상 규명 노력
② 제2차 남북 정상 회담 개최
(8) **이명박 정부**: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 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 대국' 등을 국정 지표로 제시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88쪽

4 · 19 혁명은 학생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부정 선거에 항의하고 민주주의 수호와 독재 정권 타도를 주장하며 전개한 민주화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생각 열기 ▶▶▶ 교과서 91쪽

12 · 12 사태와 5 · 18 민주화 운동 탄압 등 내란 및 반란죄로 구속 수감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92쪽

1. 시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자 전두환 정부가 개헌을 거부하고 기존의 대통령 간접 선거제의 헌법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2. 1987년 6월 전개된 6월 민주 항쟁으로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93쪽

1. (1) 이승만, (2) 박정희, (3) 전두환
2. (1) ○, (2) ×, (3) ×

내용 더하기

농지 개혁법 25차시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2. 다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1가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3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 및 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상환은 5년간 균분 연부로 하고 매년 정부에 납입하여야 한다.
- 농지 개혁법 중 일부

농지 개혁법의 골자는 3정보를 상한으로 하여 그 이상 지주가 소유한 농지는 국가가 유상 매입하고 이를 소작농에게 유상 분배하는 방식이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가난한 농민들이 자신의 농토를 가질 수 있었다. 또 6 · 25 전쟁 때 남한의 공산화를 저지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지주제를 철폐하고 소작인과 지주 사이의 소작 쟁의를 불식시켜 사회 경제적인 안정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몰수와 국유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논밭을 제외한 과수원, 임야 등은 개혁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 농민들의 유상 매수 부담이 매우 컸다는 점, 지주 자본을 산업 자본으로 전환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발췌 개헌 25차시

5 · 10 총선거는 좌익 세력뿐만 아니라 우익 진영의 남북 협상파도 참여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그리고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여기에는 초대 선거에 불참했던 남북 협상파와 중도파가 참여하였다. 선거 결과 무소속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선거 1개월 만에 6 · 25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 중 발생한 국민 방위군 사건과 거창 양민 학살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되었는데, 이승만 정부는 비리 관련 인사들을 1년 만에 복직시켰다. 이에 분개한 이시영 부통령은 이승만의 독재와

정국의 비민주화를 규탄하면서 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그리고 국회에서 행해진 부통령 선거에서 여당의 이갑성이 떨어지고 김성수가 선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자 이승만은 간선제로는 자신이 대통령에 재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을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신과 개헌을 지지할 정당으로 1951년 12월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그리고 1952년 7월 부산에서 열린 피난 국회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강행하였다.

3 · 15 부정 선거 지시 비밀 지령(요약) 25차시

1. 4할 사전 투표
   선거 당일의 자연 기권표와 선거인 명부에 허위 기재한 유령 유권자표, 금전으로 매수하여 기권하게 만든 기권표 등을 그 지역 유권자의 4할 정도씩 만들어 투표 시작 전에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도록 할 것.
2. 3인조, 5인조 투표
   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미리 공작한 유권자로 하여금 3인조 또는 5인조의 팀을 편성하여 그 조장이 조원의 기표 상황을 파악한 후 다시 각 조원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자유당 측 선거 위원에게 제시하고 그 투표함에 넣도록 할 것.
3. 완장 부대 활용
   자유당 측 유권자에게 '자유당'이라는 완장을 착용시켜 투표소 부근 일대의 분위기를 자유당 일색으로 만들어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유당에게 투표하게 할 것.
4. 야당 참관인 축출
   민주당 측 참관인을 매수하여 투표 참관을 포기하게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구실을 만들어 축출할 것.

4 · 19 혁명 25차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님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끝까지 부정 선거에 데모로 싸우겠습니다. 지금 저의 모든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어머님,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 4월 19일 시위 중 숨진 한성 여중 2학년 진영숙의 글

1.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궐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불의에는 언제나 항거하는 민족 정기의 표현이다.
3. 합법적이요 평화적인 데모 학생에게 총탄과 폭력을 기탄없이 남용하여 공전의 참극을 지어낸 경찰은 …… 불법과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치 집단의 사병이다.
4. 3 · 15 선거는 부정 선거이다. 공명 선거에 의하여 정 · 부통령을 재선거하라.

- 대학 교수단 시국 선언문(일부)

3 · 15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항의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행방불명되었던 김주열 학생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랐다. 이를 계기로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부정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고조되었다. 4월 19일에는 서울 주요 대학과 고등학생들이 대거 시위에 참가하였고, 4월 25일에는 대학 교수단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며 시위에 나섰다. 이에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는 성명을 발표하고 하야하였다.

한 · 일 협정 반대 운동 25차시

1. 일본에의 예속으로 직행하는 매국의 한 · 일 굴욕 회담을 전면 중지하라.
1. 농민, 노동자, 소시민의 피눈물을 밟고 서서 홀로 살쪄 가는 매판성 악덕 재벌을 처형하고 몰수하라.
1. 5 · 16 이래의 온갖 부정부패 사건을 자진 폭로하고 그 원흉을 조사 처단하라.

-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례한다(한일 굴욕 회담 반대 학생총연합회, 1964. 5. 20.)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문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문제와 일본의 사죄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박정희 정부까지 넘어왔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미국이 의도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반공산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자 한 · 일 국교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종필–오히라 각서가 비밀리에 작성되었다.

각서에는 한 · 일 회담 체결 조건으로 일본이 한국에게 제공할 돈의 액수가 적혀 있었으나, 자금 제공의 명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쌍방이 각자 그 명목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청구권'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은 그 돈을 '독립 축하금'으로 해석하였다. 청구권

또는 배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일제 강점기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 없이 단순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축하한다는 의미였다. 이에 학생과 시민들은 1964년 5월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루고, 6월 3일에는 '한 · 일 회담 반대, 독재 정권 퇴진' 운동을 벌였지만 박정희 정부는 1965년 전국 14개 대학과 서울 58개 고등학교를 조기 방학시키고, 6월 22일 한 · 일 기본 조약을 체결하였다.

99.99%의 지지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 25차시

1972년 12월 23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장충 체육관에서 박정희를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는 유신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선거에서는 전체 대의원 2,359명 가운데 2,357명(99.99%)이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였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이 선거를 '체육관 선거'라고 희화화하여 부르기도 하였다.

5 · 18 민주화 운동 26차시

>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너도나도 총을 들었던 것입니다. …… 아!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계엄 당국은 18일 오후부터 공수 부대를 대량 투입하여 시내 곳곳에서 학생, 젊은이들에게 무차별 살상까지 자행하였으니! ……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군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
> - 5 · 18 민주화 운동 총서 중에서

5 · 18 민주화 운동은 정의롭지 못한 국가 권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저항권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5 · 18 민주화 운동 진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을 혈맹국이라는 우호적 입장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반미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26차시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치안 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 폭행으로 사망하였다. 전두환 정부는 이를 은폐하고자 언론을 통제하고 진실을 왜곡하였다. 그러나 박종철이 고문으로 숨진 사실이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에 의해 알려지면서 각종 추모 집회와 규탄 대회가 개최되었다.

6월 민주 항쟁 26차시

>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 · 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
>
> - 6 · 10 국민 대회 선언문

6월 민주 항쟁이 있었던 1987년은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국민과 야당은 정부를 비판하며 강력한 개헌 요구를 했고, 이에 정부는 더 이상의 개헌 논의를 금한다는 '4 · 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였다. 거리에서는 연일 '직선제 개헌 쟁취하자.', '고문 살인 정권 물러가라.'를 외치는 시위가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한열 군이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다음날 민주 정의당은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이에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서 우리 역사상 최대의 평화적 민주화 운동인 6월 민주 항쟁이 시작되었다.

이 같은 민중들의 민주화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군부 세력은 대통령 직선제 수용, 대통령 선거법 개정, 김대중 사면 복권 및 극소수를 제외한 시국 관련 사범 석방, 국민 기본권 신장, 언론 자유 창달, 지방 자치제 실시와 대학 자율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6 · 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금융 실명제 26차시

금융 기관과 거래할 때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제 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이다.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 명령'에 의거하여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 거래에 도입되었다.

실제 명의의 확인 방법은 개인의 경우 주민 등록증 · 운전 면허증 · 공무원증 등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장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 납세 번호증 또는 사업자 증명원으로 확인받도록 하였다.

Ⅲ. 대한민국의 발전

03 경제의 성장과 문화의 발전

학습 목표

-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과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경제 성장과 함께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 국제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존의 자세를 갖도록 노력한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27	**1. 경제의 성장**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한 우리나라가 1996년에 가입한 국제기구는?	문답식	
	[전개]		
	• 광복 직후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6 · 25 전쟁 직후의 황폐화된 상황 속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과정을 시기 순으로 설명한다.	강의식	동영상 PPT
	•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세계 경제의 주요 국가가 되는 과정을 정리하게 하고, 2000년대 이후의 산업 발전을 설명한다.		
	• 경제 성장에 따라 함께 발전한 복지 정책을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인터넷
	• 전태일의 분신 자살, 비정규직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농촌의 고령화 문제 등 경제 성장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찾아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CD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박정희 정부가 시행한 경제 개발 정책은?		
	2. 197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사회 보장 제도는?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28	**2. 문화 발전과 국제 교류**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우리나라가 일본과 함께 2002년에 개최한 스포츠 대회는?	문답식	
	[전개]		
	• 대중문화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최근 세계 문화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구체적 사례를 찾아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PPT, 신문 기사
	•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국가 및 민간 차원의 교류 · 협력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CD
	• 국제화 시대에 따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존의 자세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한다.	탐구식	

28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1990년대 후반부터 드라마 · 가요 등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현상을 표현하는 용어는? 2. 우리나라가 동티모르, 이라크 등 국제적인 분쟁 지역에 파견한 군대는?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경제의 성장

(1) **광복 직후**: 극심한 식량난과 실업난, 산업 시설 미비

(2) **박정희 정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

① 1960년대: 경공업 중심, 사회 간접 자본 확충

② 1970년대: 중화학 공업 중심, 새마을 운동 전개

(3) **1980년대**: 경제 안정화 정책, 3저 호황, 산업의 다양화

(4) **1990년대**

①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1996)

② 외환 위기 발생 → 국제 통화 기금(IMF)의 구제 금융

(5) **2000년대**

① **외환 위기 극복**: 정보 통신 기술, 반도체 생산 등 새로운 산업을 중심으로 재도약

② **G20 참여**: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 이룩

(6) **복지 정책의 확대**

① 건강 보험 도입(1970년대 후반)

② 장애인 복지, 국민 연금제, 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

③ 중학교 의무 교육 시행,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 지원

(7)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문제점**

① **노동 운동**

- 배경: 저임금 노동, 열악한 노동 환경
- 전태일 분신(1970) →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노동 운동 활성화 → 노사정 위원회 설치(1998) 등 자율적 노사 관계 정립 노력
- 최근 비정규직 문제, 청년 실업 문제가 새롭게 등장

② 도 · 농 간 소득 격차,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

③ 다양한 시민운동 단체들이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

2. 문화 발전과 국제 교류

(1) **대중문화의 발달**

① **배경**: 경제 성장에 따른 대중들의 생활 수준 향상, 대중매체의 발달과 보급 확대

② **시대별 특징**

1950년대	국산 라디오 보급
1960년대	텔레비전 방송국 설립, 텔레비전 방송 시작
1970년대	통기타, 청바지 등 청년 문화 발전
1980년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 대중 음악 등장
1990년대	신세대가 대중문화 주도
2000년대	'한류' 등장

③ **스포츠 발달**

- 프로 스포츠 성장: 프로 야구, 프로 축구 등
- 국제 대회 개최: 서울 올림픽(1988), 한 · 일 월드컵(2002), 평창 동계 올림픽(2018)

(2) **국제 교류와 협력 확대**

① **근로자의 외국 파견**: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 중동 산유국에 파견된 건설 노동자 등

② 국제적인 분쟁 지역에 평화 유지군 파견

③ 국가 및 민간 차원의 국제 교류 강화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상승

④ **국제화 시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다문화 가정의 증가 →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존의 자세 필요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94쪽

199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은 자동차, 조선 등 전통적인 공업 분야뿐만 아니라 컴퓨터, 반도체, 휴대폰 등 첨단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97쪽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프로 야구, 축구 등이 인기를 끌며 발전하였다. 그 결과 선수들의 기량도 크게 높아져 국제 무

대에서 크게 활약할 수 있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99쪽

1. (1) 중화학, (2) 3저 호황,
   (3) 경제 협력 개발 기구, (4) 대중문화
2. (1) 전태일, (2) 서독
3.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고 있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공존의 자세가 필요하다.

내용 더하기

경부 고속 국도 27차시

429km의 경부 고속 국도 건설에는 총 429억 원이 들어갔다.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당초 1971년 6월 30일로 예정된 개통 시기를 1년 앞당겨 1970년 7월 7일에 개통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건설 중 77명이 사망하였으며, '선 개통 후 보완'이란 원칙 아래 서둘러 완공하여 원래 건설비의 4배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갔다.

3저 호황 27차시

1980년대 들어 제2차 석유 파동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이에 따른 세계적 불황과 선진국의 보호 무역주의, 국제 고금리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으로 국내 경제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라는 상황에 힘입어 국제 수지가 흑자로 반전되고 GNP 성장률이 연 10% 이상을 기록하는 등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27차시

1999년 9월 7일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제정하였다.

이 법의 보호 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최저 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1970년대의 노동 현실(전태일 분신 사건) 27차시

> 1개월에 첫 주일과 셋째 주일, 2일은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는 아무리 강철 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일반 공무원의 평균 근무 시간 1주 45시간에 비해, 15세의 어린 시다공들은 1주 98시간의 고된 작업에 시달립니다. 또한 평균 20세의 숙련 여공들은 대부분 6년 전후의 경력자들로서 대부분이 햇빛을 보지 못해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 전태일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중

영세한 봉제 공장이 1천여 개나 밀집되어 있는 평화 시장에는 2만 7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대개 14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여성들이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23세의 전태일은 1970년 11월 13일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부르짖으며 분신 자살하였다. 전태일의 죽음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 이후 본격적인 노동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노사정 위원회 27차시

노사정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에 관한 노동 정책 및 관련된 산업 · 경제 · 사회 정책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기구로 1998년 1월 15일에 발족하였다.

1988년 서울 올림픽 28차시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 총회장에서 1988년 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확정되었다. 1980년 모스크바, 1984년 LA 올림픽은 각각 서방 국가와 동유럽의 보이콧으로 반쪽 대회로 치러진 반면에, 서울 올림픽은 12년 만에 모든 국가가 참여한 통합 올림픽으로 치러졌다.

국제 연합(UN) 사무총장 28차시

유엔의 실질적 수장으로, 19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국제기구인 유엔을 관리하면서 국제 분쟁 예방을 위한 조정과 중재 역할을 맡는다. 업무 수행 시 어떤 정부나 국제기구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도 않는다. 16,000여 유엔 직원의 인사권 및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유엔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반기문으로, 2011년 연임에 성공하여 2017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Ⅲ. 대한민국의 발전

04 통일을 위한 노력

학습 목표

- 6 · 25 전쟁 이후 북한 사회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 오늘날 북한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다.
- 1970년대 이후 남북 간에 진행된 대화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전개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29	**1. 북한 사회의 변화**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북한의 정치와 국방의 자주화를 내세운 것으로, 김일성이 반대파 숙청 방편으로 이용한 사상은?	문답식	
	[전개]		
	• 주체사상, 사회주의 헌법, 3대 혁명 소조 운동, '선군 혁명', '강성대국'을 중심으로 북한의 독재 체제 구축과 권력 세습 과정을 설명한다.	강의식	PPT
	• 북한 경제의 어려움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외국 자본과 기술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영법을 제정하였음을 설명한다.		CD
	• 금강산 관광 사업, 개성 공단 건설 등 남한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시켜 나간 과정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인터넷, 뉴스
	• 북한의 경제적 위기와 관련하여 북한 이탈 주민의 입국 인원 현황 그래프를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101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사상, 문화, 기술의 3대 부문을 혁신하자는 운동으로 김정일이 지도한 것은?		
	2. 하루에 천 리를 달린다는 말의 기세처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운동으로, 북한이 대중 동원을 위해 활용한 것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30	**2. 남북 관계와 통일 정책**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자주 · 평화 ·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밝힌 성명은?	문답식	
	[전개]		
	• 7 · 4 남북 공동 선언의 배경과 내용, 의의를 설명한다.	강의식	

30	•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게 한다. • 6 · 15 남북 공동 선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의를 이해시키고, 그 결과 이루어진 남북 교류 · 협력의 확대 내용을 설명한다. • '분단 비용과 통일 편익', 그리고 '통일 비용'을 비교하여 통일에 대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한 국제기구는? 2. 2000년 남북 정상 회담에서 발표된 선언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탐구식 강의식 발표식 문답식	PPT CD 103쪽 자료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북한 사회의 변화

(1) **부자 세습 체제의 확립**

① **김일성 독재 체제의 확립**
- 6 · 25 전쟁 이후: 1인 독재 체제 확립
- 1960년대: 주체사상 확립
- 1970년대: 사회주의 헌법 제정

② **김정일 후계 체제의 확립**
- 1970년대: 3대 혁명 소조 운동 지도
- 1980년대: 후계 체제 공식화
- 1990년대: 1993년 국방 위원장 선출 → 1994년 김일성 사후 권력 승계 → 1인 독재 체제 형성
- 2000년대: 권력 기반 강화, 핵 개발 천명

③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으로 권력 세습

(2) **북한 경제 체제의 한계와 변화 노력**

① **6 · 25 전쟁 이후**: 소련과 중국의 원조, 천리마 운동 → 중공업 육성 성과, 경공업과 농업 부진

② **1960~1970년대**: 계획 경제, 폐쇄적인 경제 체제,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경제 침체

③ **1980년대**
- 합영법 공포: 외국의 자본과 기술 도입
- 사회주의 국가 붕괴, 연속적인 자연재해 → 식량, 에너지, 생필품 부족 → 탈북자 증가

④ **1990~2000년대**
- 남한과의 경제 교류 확대: 금강산 관광 사업, 개성 공단 건설 등
-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집하여 경제 위기 지속

2. 남북 관계와 통일 정책

(1) **1950~1960년대**: 6 · 25 전쟁 이후 대립과 갈등 심화

(2) **7 · 4 남북 공동 성명(1972)**

① **배경**: 냉전 체제 완화

② **과정**: 남북 적십자사 간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협상 → 7 · 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③ **내용**: 자주 · 평화 · 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원칙 제시

(3) **전두환 정부**: 북한의 수해 원조 물자 수용

(4) **노태우 정부**: 남북 기본 합의서 발표

① **배경**: 독일 통일과 소련 해체,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

② **북방 외교**: 러시아, 중국과 수교 및 동유럽 국가와 외교 관계 수립

③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 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발표

(5) **김영삼 정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제시, 북한 수재 때 쌀 지원,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

(6) **김대중 정부**

① 평화 정착과 남북 교류 확대 노력

② **남북 정상 회담(2000)**: 6 · 15 남북 공동 선언 발표

③ **남북 간의 교류 · 협력 확대**: 개성 공단 건설, 경의선 복구, 이산가족 방문 재개 등

(7) **노무현 정부**: 남북 정상 회담 개최(2007.10) →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발표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00쪽

김일성 우상화를 통해 김일성에 대한 주민의 충성심을 강화하고 주민을 통제하여 체제를 안정시키고자 거대 동상을 세워 참배를 유도하고 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01쪽

2000년대에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식량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자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 주민의 수가 급증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02쪽

1971년부터 남북한 적십자사 간에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상봉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85년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 공연 교환 행사로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0년 남북 정상 회담 때부터 시작된 이산가족 상봉은 2010년 11월 현재 제17차 상봉까지 이루어졌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03쪽

- 분단 비용: 남북 대치 상황으로 인한 장병들의 희생, 대륙 이동로가 차단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물류 비용과 항공 비용, 군병력 투입으로 인한 산업 인력 활용의 어려움 등
- 통일 편익: 북한 지하자원과 관광 자원의 본격적인 개발 효과, 철도 등이 북한을 통과하여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어 시간과 물류비 절약, 북한 지역 주민의 인권 · 자유 신장 · 기회 향상 등에 이바지, 민족의 동질성 확보 및 증대 등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03쪽

1. (1) 주체사상, (2) 천리마 운동, (3) 합영법
2. ㉢-㉡-㉠
3. 2000년과 2007년에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고, 개성 공단이 건설되어 경제 교류가 활발해졌다.

내용 더하기

천리마 운동 29차시

하루에 천 리를 달리는 천리마와 같은 속도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노력을 다하자는 노동 강화 운동으로 1956년 12월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갔다. 좋은 성과를 올린 사람에게는 '천리마 기수' 등의 칭호를 부여해 경쟁심을 유도하였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전반에 걸쳐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대중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점차 한계를 드러냈다.

북한의 경제 위기와 변화 29차시

> 개인 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 텃밭 경리를 비롯한 개인 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 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 소유에 속한다.
>
> - 1998년 개정된 헌법 내용 중 일부

북한은 폐쇄적인 경제 체제와 과도한 국방비 지출, 국제 수지의 악화와 외채 문제,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등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자 이를 극복하고자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를 주축으로 한 국외 동포의 북한 투자를 제외하고는 서방 국가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실패하였다.

또한 1991년 12월 함경북도 나진 · 선봉 지역을 '자유 무역 지대'로 설정하고 외자 유치를 도모했으나 이마저도 실적이 미미했다. 이에 1994년 신합영법을 제정하였으며, 1998년 헌법을 수정하여 개인의 사유를 일정 부분 인정하였고, 금강산 관광 사업(1998)을 추진하는 등 남한과의 경제 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하루 생활 29차시

북한 주민은 통상 6시를 전후하여 일어난다. 아침 식사는 계층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일반 주민은 잡곡밥이나 강냉이밥을 주식으로 먹는다. 나물국, 배추김치, 무생채가 일반적인 반찬이며 계란 프라이나 소시지를 곁들이는 주민은 생활 형편이 나은 경우에 속한다.

직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7시에서 7시 30분까지 출근하며, 평양 등 대도시에서는 지하철이나 무궤도 전차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지방에서는 30~40분씩 걸어서 출근하는 주민도 많다. 정규 작업은 8시부터 12시, 14시부터 18시까지 모두 8시간이다. 작업은 일반 노동자의 경우 50분 노동에 10분 휴식을, 농민의 경우 100분 노동에 2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12시에 오전 작업이 끝나면 점심시간이다. 점심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하지만 상당수 여자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에 가서 떡, 두부 밥, 빵, 꽈배기, 밀주 등 장마당에 내다 팔 음식을 준비하기도 한다. 13시부터 14시까지 사무직 등 정신노동자를 중심으로 오침 시간을 갖기도 한다. 농촌의 경우에는 특성상 규정된 시간에 퇴근하기보다는 하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퇴근한다.

오후 작업이 끝나면 작업 총화 시간으로 일주일에 한 번 생

활 총화를 한다. 생활 총화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아 비판'과 동료의 과오를 지적하는 '호상 비판(상호 비판)'을 의미하는데, 비판의 기준으로 김일성 '교시'나 김정일의 '말씀'을 인용해야 한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실질적인 일과가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장 가동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특별한 노동 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오전에 퇴근해 장사를 하기도 한다.

퇴근하면 개인 시간을 갖는데, 전기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가급적 일찍 저녁을 먹으려 한다. 저녁 식사는 주로 국수, 감자, 고구마 등으로 해결한다. 식사 이후에는 주로 남자의 경우 집 수선을 하거나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며, 여자의 경우 빨래와 집안 청소를 한 후 장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다. 농장원들의 경우에는 텃밭에 나가 김을 매거나 산에 가서 땔감을 마련하기도 한다.

- 통일부 통일 교육원, 2012 북한 이해 중에서

❁ 우리식 사회주의 29차시

1980년대 말에 동유럽 공산 정권이 몰락하고, 소련까지 해체되자 북한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에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우리식으로 살자.'는 구호를 대대적으로 내세우면서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형성된 '우리식 사회주의'를 제창하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역설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릴 것과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켜 나갈 것 등을 교육하고 있다.

❁ 1950~1960년대의 남북 관계 29차시

멸공 의식 함양을 위한 우리의 맹세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우리는 강철 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수자.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고 남북 통일을 완성하자.

- "민족 공동생활과 도의"

이승만 대통령은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을 내세웠다. 이 때는 북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남북 간의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한 평화 통일론을 내세운 진보당의 조봉암이 큰 지지를 받자 이승만 정부는 평화 통일론이 반공에 어긋난다는 구실로 정당 등록을 취소하고,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몰아 사형을 선고하였다.

4 · 19 혁명 이후 수립된 장면 내각은 북진 통일론을 폐기하고 유엔 감시 아래 북한 총선거론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민간을 통한 북한과의 교류와 협상 주장을 일절 거부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당시 보수 세력은 '선 건설 후 통일론'을 주장한 반면에, 혁신 세력은 중립화 통일론과 남북 협상론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통일 논의는 5 · 16 군사 정변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 7 · 4 남북 공동 성명(1972) 30차시

1.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긴장 상태 완화, 상대방 중상 비방 중지, 무장 도발 중지, 불의의 군사적 충돌 사고 방지 합의
3.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 제반 교류 실시
4. 적십자 회담 성사 적극 협조
5.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 전화 개설
6. 이후락 부장과 김여주 부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 운영
7.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엄숙히 약속

1970년대 들어서면서 국제 정세는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71년 4월 7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참석한 미국 탁구 대표팀을 마오쩌둥이 중국에 공식 초청하였고 미국 대표단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를 계기로 오랫동안 적대 관계를 유지하던 미국과 중국은 회담을 가졌고, 1972년 2월 닉슨의 베이징 방문이 실현되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8월 12일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북한에 제의하고, 8 · 15 경축사에서 평화 통일을 강조하였다. 북한도 이에 응해 8월 20일 남북한 적십자 관계자의 판문점 회담이 열렸고, 1972년 2월 17일까지 19회에 걸쳐 회동하였다. 박정희와 김일성은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남북 적십자 회담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의 접촉에 나서 '7 · 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7월 4일 오전 10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이 성명은 국민적 합의 없이 비밀 회담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정치적 대화 통로를 마련하고 통일의 원칙을 도출해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 1991) 30차시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 내부 교류자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1990년 9월 제1차 고위급 회담을 시작한 이후 15개월 만에 채택된 합의서로, 서문과 4장 25조로 이루어져 있다. 199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제6차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서 문건을 정식으로 교환하고, 9월 제8차 고위급 회담에서 3개 부속 회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다.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으로, 남북한이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군사적 침략이나 파괴 · 전복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의 공동 발전과 점진적 · 단계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1993년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탈퇴한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합의서 내용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1992) 30차시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 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 통제 공동 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남북 정상 회담 30차시

남북 정상 회담은 제5공화국 때 처음으로 제안되어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이 진행되었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2월 취임사와 1994년 취임 1주년 기자 회견에서 김일성 주석과 만날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북한은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통해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또한 남북 정상 간의 대화가 필요함을 몇 차례나 강조하였고, 특히 2000년 3월 독일 방문 중 "한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북한은 회담의 개최 의사를 밝혀왔고, 이에 따라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첫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이때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 평양에 도착하였으며, 6 · 15 남북 공동 선언문에 기초하여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6 · 15 남북 공동 선언(2000) 30차시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 · 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 문화 · 체육 · 보건 ·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역사 30차시

한국에서 이산가족이 생긴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원인은 6 · 25 전쟁이다. 6 · 25 전쟁 직전까지 북한의 공산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남하한 북한 주민은 350만 명에 달하고, 이 시기에 월북한 사람들도 많았다. 게다가 중국군의 참전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할 때 함께 남하한 북한 주민도 거의 백만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 외에도 1953년 6월 반공 포로로 석방된

27,000여 명과 우리 군이 파악하고 있는 19,000여 명의 미송환 국군 포로, 8만 4천여 명에 이르는 납북 인사 등도 전쟁이 낳은 이산가족들이다.

이러한 이산가족들이 처음으로 만난 것은 1964년 도쿄 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10월 9일 당시 북한 육상 선수로 출전한 신금단 씨가 서울에서 온 아버지와 상봉한 일이다. 비록 7분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우리나라 이산가족 상봉사의 첫 페이지를 열었다.

이산가족의 교류는 크게 두 갈래로 추진되어 왔다. 하나는 남북 정부 간 또는 적십자사 간의 접촉을 통한 공식 교류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제3국에서의 비공식 교류이다.

1971년 정치적 이유로 무산된 이산가족 상봉은 1984년 여름, 북한이 수재 물자 제공을 제의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1985년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남북한에서 각각 50명의 고향 방문단이 서울과 평양을 교환 방문했는데, 모두 75명의 이산가족이 92명의 가족 및 친척과 감격적인 만남을 나눌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산가족 교환 방문의 공식 교류가 시작된 계기는 2000년의 남북 정상 회담이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면서 17차 이산가족 상봉까지 이루어졌다.

❁ 개성 공단 조성 30차시

2000년 8월 현대 아산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공업 지구 건설에 합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2년 11월 개성 공업 지구법을 제정 · 공포하였고, 이듬해 6월 개성 공단 착공식이 열렸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4년 12월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남북 합작품 1호가 생산되었다.

2011년 12월 현재 123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들 기업은 2011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49,866명의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2011년 12월 말까지 총 15억 649만 달러의 제품 생산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2억 달러에 이르는 제품이 수출되었다.

❁ 금강산 및 개성 관광 30차시

개성 관광은 2005년에 현대 아산과 아시아 태평양 평화 위원회가 개성 시범 관광에 합의하여 세 차례에 걸친 시범 관광이 시작되었다. 2007년 11월 3일 현대 아산과 아시아 태평양 평화 위원회 간에 '남북 관광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2007년 1월 5일부터 개성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성은 서울에서 70여 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당일 관광이 가능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직접 볼 수 있어 새로운 북한 관광 수요를 창출하였다. 2008년 11월 28일까지 누적 관광객 11만여 명에 달하였지만 북한의 일방적인 중단 조치로 2008년 11월 29일 중단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통일부 통일 교육원, 2012 통일 문제 이해 중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18일 동해항에서 금강호가 북한의 장전항을 향하여 출항하면서 시작되었다. 2000년에 20여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2003년 9월 육로 관광이 시작되고, 현대 아산이 관광 상품의 다양화, 관광 코스 개발 및 프로그램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진행하여 다시 정상화되었다. 이후 2006년에는 외금강 호텔이 개장되고, 2007년에는 내금강 관광이 시행되는 등 관광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2008년 7월 11일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우리 측 금강산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7월 12일부터 금강산 관광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북한은 2010년 4월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측 자산을 몰수 · 동결하였고, 2011년 4월 현대 아산의 관광 사업 독점권을 취소하였다. 2011년 5월에는 우리 측 재산권을 침해하는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2007) 30차시

1. 남과 북은 6 · 15 공동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4. 현재의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 회담을 추진한다.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자 회담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노력해 나간다.
5.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하여 경제 협력 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 이를 위하여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를 설치하고, 경제 특구를 건설하며 한강 하구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6.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하여 역사 · 언어 · 교육 · 과학 기술 · 문화 · 예술 · 체육 등 사회 · 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간다.

Ⅲ. 대한민국의 발전

05 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

학습 목표

-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사태를 통해 역사가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임을 파악할 수 있다.
-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사례를 찾아보고, 정부와 학자, 학생 입장에서의 대처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
- 역사 왜곡을 바로 잡고, 바람직한 국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갖는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31	**1. 중국과의 역사 논란**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중국이 2002년부터 동북 3성에 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문답식	
	[전개]		
	• 동북 공정의 추진 과정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교과서의 도움글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역사 왜곡의 사례를 찾아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역사 부도, PPT
	• 국가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역사 왜곡의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식	
	• 중국의 역사 왜곡을 통해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	토론식	105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고대사 체계를 바로 세우고 역사 갈등을 학문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설립한 단체는?	문답식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32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교과서 문제**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러 · 일 전쟁 중에 일본이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한 섬은?	문답식	
	[전개]		
	• 일본이 1905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영토에 편입시켰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신문 기사
	•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사법 재판소에 넘기려는 의도를 파악하게 한다.		
	• "삼국사기" 의 기록, 안용복의 활동,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등의 내용을 찾아보게 한다.	탐구식	CD, PPT
	•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와 가수 김장훈 씨의 독도 광고 등의 활동을 동영상과 사진 자료를 통해 소개한다.		
	• 일본의 역사 왜곡을 통해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32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는?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중국과의 역사 논란

(1)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① 배경: 한족 이외에 50여 개의 소수 민족으로 구성

② 내용: 소수 민족을 통합하고자 오늘날의 중국 영토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가 중국사의 일부라는 역사관 강조

(2) 동북 공정

① 동북 3성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련된 문제 연구

②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주장

③ 고구려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

(3) 우리의 대응

① **동북아 역사 재단 설립**: 한국과 중국 간의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학문의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

② 중국에 고구려와 발해사 공동 연구와 유적에 대한 공동 조사 요구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교과서 문제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① 러 · 일 전쟁 중 일본이 독도 불법 편입

②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2005)

③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넘겨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함.

(2) 우리의 대응

① 독도에 대한 영토 수호 조치 강화

②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홍보하는 활동 전개

(3)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① 역사 교과서 왜곡

- 제국주의 일본이 저지른 침략 전쟁 정당화 등 한 · 일 관계의 고대사와 근현대사 왜곡
-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

② 역사 갈등 극복을 위한 노력

- 한 · 중 · 일 시민 단체와 학자의 역사 공동 연구, 집필
- 제4회 역사 NGO 세계 대회 개최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04쪽

중국 변방에서 전개된 중국 지방 정권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06쪽

정치 상황(일본에 대한 충성과 통합), 다른 국가와의 영토 분쟁(중국과 센카쿠 열도, 러시아와 쿠릴 열도 4개 섬), 독도의 경제적 가치(해저 광물, 어업 자원) 등 여러 가지 배경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07쪽

1. (1) 대한 제국이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로 울릉도를 울도라 부르고 관할 구역으로 울릉 전도, 죽도, 석도(독도)를 명기하고 지배하였다.

(2)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국제법상의 분쟁 대상 지역이 아니다.

2. 동북아 역사 재단 독도 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dokdohistory.com

외교 통상부 독도 홈페이지: http://dokdo.mofat.go.kr

경상북도 독도 홈페이지: http://www.dokdo.go.kr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07쪽

1. 동북 공정

2. 예시 답안 지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으며, 또 과거 돗토리 현 답변서(1695)나 태정관 지령(1877) 등에서 일본과 한국의 정부가 교섭하면서 울릉도와 그 부속 섬인 독도를 우리 영토로 확인하고 있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 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 이전까지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였다. 이에 반해 대한 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릉군 관할 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1905년 시마네 현 고시에 의한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는 한국 주권 강탈 과정의 일환으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이며 국제법상 무효이다. 무

엇보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에서 독도를 일본 통치 행정 범위에서 제외시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확인하였고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내용 더하기

동북 공정 31차시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 민족이 세운 지방 정권이라고 보아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라고 하는 견해를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동북 공정은 바로 이러한 주장을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연구 프로젝트로서,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고조선사와 발해사까지도 한국사의 영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동북 공정의 목적은 사전에 이 지역의 역사를 중국사로 공언해 둠으로써 북한의 붕괴나 남북 통일 등 향후의 상황 변화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일 한국의 만주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더 나아가 과도기 한반도에 대한 개입 여지를 확보해 두려는 사전 포석일 가능성도 있다.

태정관 지령문(1877) 32차시

일본해 내 죽도 외 1도의 지적 편찬에 관한 질품서

죽도(울릉도) 소속 관할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시마네 현으로부터 별지의 질품이 와서 조사한 바, 해당 섬의 건은 원록 5년(1692) 조선인이 입도한 이래 별지 서류에 적시한 바와 같이 ……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고 들었지만, 판도의 취사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별지 서류를 첨부하여 이에 품의하나이다.

태정관은 이를 조사하여 1877년 3월 20일자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 외 일도(一島)의 건에 대하여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일본 메이지 정권 수립 후 일본 정부는 체제 정비를 위해 전 국토의 정밀한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마네 현은 일본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 현 지도에 포함할 것인가 제외할 것인가를 결정해 달라는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일본 내부대신이 5개월 반의 조사 끝에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시키지 말 것"을 지시하고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니 이것을 관리들에게 주지시키라는 결정과 지령문을 작성하여 내려보냈다.

대한 제국 칙령 제 41호(일부, 1900) 32차시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은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등(郡等)은 5등으로 할 것.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竹島)·석도(石島)를 관할할 것.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1951) 32차시

연합국 총사령부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발효 시까지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하여 취급하였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 점령 기간 내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한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1946. 1. 29.)를 적용하였다.

일본이 알아야 할 100가지 진실 일부 32차시

일본의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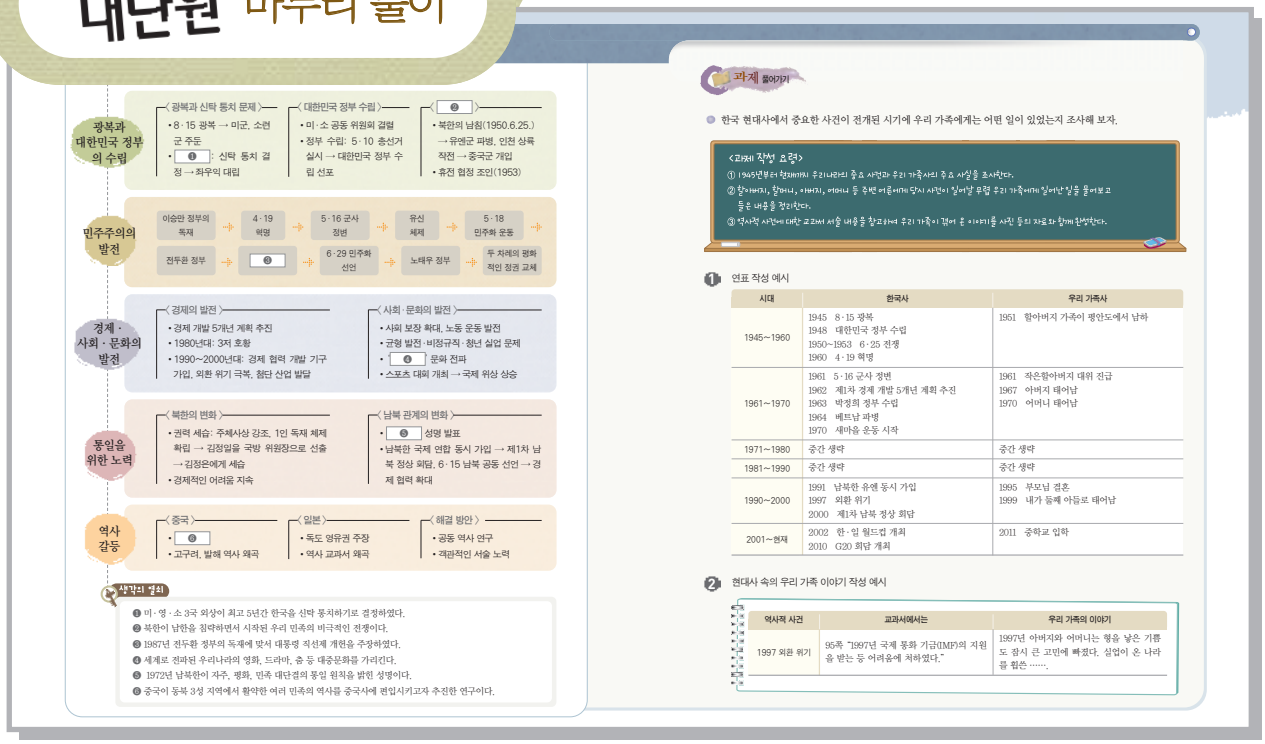
1.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2. 한국 측은 우산도가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산도는 울릉도와 같은 섬이거나 실제하지 않는 섬이다.
3. 일본은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즉 당시 주민들은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 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며 전복을 막부 등에 헌상했다.
4. 안용복의 진술 내용은 자신의 불법 도일에 대한 취조 시에 행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많고 일본의 기록에 없는 내용도 있다.

우리의 견해

1. 일본이 근거로 내세우는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는 개인이 만든 사찬 지도로, 1779년 초판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어서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2. 한국의 수많은 관찬 문서에 독도의 옛 지명인 우산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3. 도해 면허는 자국 섬으로 도해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문서이므로 이는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4. 안용복의 도일 활동에 관해서는 조선의 비변사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을 기록한 조선의 관찬서 기록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일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동북아 역사 재단

대단원 마무리 풀이



내용 확인하기

❶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 1945년 말 모스크바에서 한반도 문제를 협의하고자 열린 회의이다.

❷ 6·25 전쟁

✚ 1950년에 일어나 1953년 휴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막을 내린 전쟁이다.

❸ 6월 민주 항쟁

✚ 전두환 정부가 박종철이 고문을 받아 사망한 사건을 은폐하고, 대통령 간접 선거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일어났다.

❹ 한류

✚ '겨울 연가', '배용준' 등이 대표적 예이며,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 현상까지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❺ 7·4 남북 공동

✚ 냉전 체제의 완화가 주요 배경이었으며,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❻ 동북 공정

✚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과제 풀어가기

| 지도 요령 |

교과서를 활용하여 주요 사건을 찾아 정리하고, 해당 시기에 일어난 가족의 일을 찾아 발표하게 한다. 교과서에 나타난 사건과 연관이 있는 가족의 일을 포함시켜 보도록 한다.

| 예시 답안 |

역사적 사건	교과서에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
6·25 전쟁	86쪽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고, 7월 말에는 낙동강까지 진출하였다."	할머니께서는 전쟁이 일어나자 급하게 짐을 꾸려 가족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
6월 민주 항쟁	92쪽 "이후 전국에서 대대적인 민주화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에 참여한 큰아버지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한·일 월드컵	98쪽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	나는 친구들과 응원 도구를 들고 시청 앞 광장에서 거리 응원을 하였다.

대단원 짚고 가기

01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기
㉠ 한반도에서의 미 · 소 양군 철수
㉡ 조선 임시 민주 정부의 수립
㉢ 최고 5년 간의 신탁 통치 결정
㉣ 한국 문제의 국제 연합 상정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02 다음의 활동 내용과 관계 깊은 인물은?

-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만들어 치안과 행정 및 식량을 비롯한 생활필수품 확보에 노력하였다.
- 미 · 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자 모든 민족 구성원이 단결하여 통일 정부를 세우자며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였다.

① 김구 ② 이승만 ③ 여운형
④ 박헌영 ⑤ 김규식

03 다음은 6 · 25 전쟁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들이다. 이를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유엔군의 참전 ㉡ 중국군의 개입
㉢ 반공 포로의 석방 ㉣ 인천 상륙 작전 실시

① ㉠–㉡–㉢–㉣ ② ㉠–㉣–㉡–㉢
③ ㉡–㉠–㉢–㉣ ④ ㉡–㉢–㉣–㉠
⑤ ㉣–㉠–㉡–㉢

04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6 · 25 전쟁 직전에 치러진 국회 의원 총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대거 당선되었다. 이에 이승만은 국회 의원 간접 선거로는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　　) 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강행하였다.

05 다음 가상 신문의 내용과 관계 깊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신문

시위에 돌입한 대학생들의 총궐기

부정 선거를 규탄하며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수만 명의 시위대가 오늘 정오경 경무대 못 미쳐 중앙청 앞에서 경찰과 충돌하였다. 경찰 측에서는 공포와 최루탄을 발사하는 한편 소방차까지 동원하여 붉은 물을 데모 학생에게 뿌렸고, 학생들은 투석으로 대응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①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②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원인이 되었다.
③ 계엄군의 폭력 진압에 의해 결국 해산되었다.
④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독재 정권이 무너졌다.
⑤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06 다음 글의 밑줄 친 '헌법 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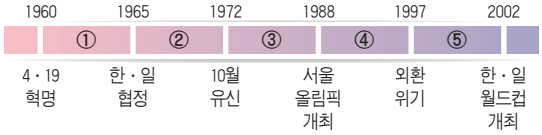
1970년대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부는 냉전 체제의 완화, 야당 세력의 성장 등 대내외적인 정세 변화에 대비하여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헌법을 개정하였다.

보기
㉠ 대통령의 연임을 제한한다.
㉡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추천한다.
㉣ 대통령을 통일 주체 국민 회의를 통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선출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07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면?

> • 시민 1: 자네, 그 소식 들었나? 대통령이 금융 실명제와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네.
> • 시민 2: 나도 뉴스에서 봤다네. 이제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가 되려는가 보네.



08 각 정부와 해당 시기의 경제 상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박정희 정부–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
② 전두환 정부–수출액 100억 달러의 달성
③ 김영삼 정부–G20 세계 정상 회의 개최
④ 김대중 정부–3저 호황에 따른 고도 성장 달성
⑤ 노무현 정부–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09 다음 글의 (가)에 들어갈 정책으로 옳은 것은?

> 북한은 계획 경제와 폐쇄적인 경제 체제, 과도한 국방비 지출 등으로 경제 침체에 빠졌다. 특히 1970년대에는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 외채 문제도 심각해졌다.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____(가)____.

① 천리마 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추진하였다.
③ 외국 자본 도입을 위해 합영법을 공포하였다.
④ 주체사상을 내세워 경제 자주화를 추진하였다.
⑤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해 주석제를 실시하였다.

10 다음과 관계 깊은 정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옳은 것은?

> •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통해 집권
> • 외환 위기 극복
> • 한 · 일 월드컵 개최

① 남북 기본 합의서 발표
② 7 · 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③ 6 · 15 남북 공동 선언 발표
④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발표
⑤ 6 · 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 발표

11 다음은 수업시간에 정리한 노트의 일부이다. ㉠~㉤의 내용 중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1. 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
> 1) 중국과의 역사 갈등
> (1) 내용: ㉠중국의 동북 공정 추진
> (2) 대응: ㉡동북아 역사 재단 설립, ㉢고구려사와 발해사의 공동 연구 제안
> 2) 일본과의 역사 갈등
>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다케시마의 날' 제정(2005)
> (2) 대응: ㉤국제 사법 재판소에 소송 제기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01 ③ 02 ③ 03 ② 04 대통령 직선제 05 ④ 06 ⑤ 07 ④ 08 ① 09 ③ 10 ③ 11 ⑤

Ⅳ 산업 사회와 국민 국가의 형성

1 단원의 개관

이 단원에서는 산업 혁명과 시민 혁명으로 일어난 서양 근대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다룬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 혁명이 자본주의의 발달과 산업 사회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파악하고,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시민 혁명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국민 국가를 성립시켰음을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의 국민 국가들이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 원인과 과정을 탐구하고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 증기 기관의 사용

01. 산업 혁명의 전개와 자본주의의 확립에서는 영국 혁명을 통해 입헌 군주정이 확립되는 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고, 산업 혁명이 공장제 기계 공업의 발달을 촉진하고 근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확립하였음을 파악한다. 또한 산업 혁명이 다른 여러 국가들로 확산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산업 혁명으로 나타난 결과를 이해한다.

02.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에서는 신분제 사회의 갈등과 불만으로 시작된 프랑스 혁명의 진행 과정 및 특징을 파악한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체제가 유럽 사회에 끼친 영향을 이해하고, 빈 체제의 수립으로 변화된 유럽의 국제 질서를 파악한다.

03.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발전에서는 세계 최초의 민주 공화국의 성립으로 귀결된 미국 혁명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한편 유럽의 지배를 받던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독립 양상과 그 변화를 살펴본다.

04. 근대 국민 국가 체제의 성립에서는 19세기 이후 유럽 각국에서 나타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전개 양상과 러시아의 근대화 운동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나타난 19세기 유럽 문화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05. 제국주의의 등장과 식민지 분할에서는 산업 혁명을 거쳐 독점 자본주의를 확립한 서구 열강이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을 확보하고, 국내에 축적된 자본을 투자하고자 세계 여러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음을 이해한다. 이 과정에서 열강이 아시아 · 아프리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대립하였음을 살펴본다.

2 단원의 목표

지식 · 이해	• 산업 혁명의 전개 과정과 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 프랑스 혁명의 정치 · 사회적 배경과 그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가 유럽의 지배에서 독립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19세기 유럽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기능	•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한 국민 국가와 이전의 절대 왕정의 차이점을 말할 수 있다. • 제국주의 국가의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침략 과정을 지도에 표시할 수 있다.
가치 · 태도	• 산업화로 인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기른다.

3 단원의 구조와 지도 계획

차시	중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
33	01. 산업 혁명의 전개와 자본주의의 확립	1. 영국 혁명	권리 청원, 청교도 혁명, 항해법, 명예혁명, 권리 장전, 내각 책임제
34		2. 산업 혁명의 전개	산업 혁명, 공장제 기계 공업, 인클로저 운동, 증기 기관
		3. 산업 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	산업 사회, 근대 자본주의, 노동 문제, 도시 문제, 사회주의 사상
35	02.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	1. 프랑스 혁명	구제도의 모순, 삼부회 소집, 프랑스 혁명, 국민 의회, 인권 선언, 국민 공회, 공포 정치, 통령 정부
36		2. 나폴레옹 시대	나폴레옹 법전, 나폴레옹 전쟁, 대륙 봉쇄령, 빈 체제, 4국 동맹
37	03.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발전	1. 미국의 독립 ~ 2.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보스턴 차 사건, 독립 선언서,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크리오요, 이달고, 먼로주의, 볼리바르, 산마르틴
38		2.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3. 남북 전쟁과 미국의 발전	서부 개척, 남부와 북부의 대립, 남북 전쟁, 노예 해방, 대륙 횡단 철도
39	04. 근대 국민 국가 체제의 성립	1. 자유주의의 발전	7월 혁명, 2월 혁명, 차티스트 운동, 자유 무역 정책
40		2. 민족주의의 발전과 19세기 문화	카보우르, 가리발디, 관세 동맹,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알렉산드르 2세, 다윈의 진화론, 낭만주의, 사실주의
41	05. 제국주의의 등장과 식민지 분할	1. 제국주의의 등장	독점 자본주의, 제국주의, 사회 진화론, 인종주의
42		2. 제국주의 열강의 세계 분할	동인도 회사, 아편 전쟁, 미국 · 에스파냐 전쟁, 리빙스턴과 스탠리, 종단 정책, 횡단 정책, 벨기에의 콩고 점령

4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 산업 혁명의 배경과 전개의 흐름을 잡아 주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했음을 유의하여 지도한다.
- 나폴레옹의 몰락 과정보다는 그 체제의 유산에 주안점을 두고 지도한다.
- 미국 독립 전쟁은 성문 헌법의 제정, 정교 분리의 실현, 노예제 폐지 등의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 라틴아메리카가 독립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서구 제국주의에 종속되었으며, 원주민과 유럽 인의 혼혈이 식민 지배 지속에 기여하였음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 19세기 후반에 출현한 제국주의는 독점 자본주의, 인종주의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있음을 유의하여 지도한다.

5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 케네스 O. 모건, "옥스퍼드 영국사", 한울, 2009.
- 에릭 홉스봄, "혁명의 시대", 한길사, 1998.
- 노명식,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 코뮌까지 1789 ~ 1871", 책과함께, 2011.
- 하워드 진, "살아 있는 미국 역사", 추수밭, 2008.
- 존 찰스 채스틴, "아메리카노: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투쟁", 길, 2012.
- 강미현, "비스마르크 평전", 에코리브르, 2010.
- 박지향, "제국주의: 신화와 현실",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루츠 판 다이크, "처음 읽는 아프리카의 역사", 웅진 지식하우스, 2005.
- 한국 서양사학회 http://www.westernhistory.or.kr/

| 교과서 |
112 ~ 117쪽

Ⅳ. 산업 사회와 국민 국가의 형성

01 산업 혁명의 전개와 자본주의의 확립

학습 목표

- 청교도 혁명의 전개 과정과 명예혁명의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 산업 혁명이 영국에서 먼저 일어난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 각국에서 전개된 산업 혁명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정리할 수 있다.
- 산업 혁명으로 근대 자본주의가 확립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산업 혁명이 가져온 사회 변화상을 정리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33	**1. 영국 혁명**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찰스 1세의 처형 이후 영국의 정치 형태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문답식	
	[전개]		
	• 17세기 초 성립한 스튜어트 왕조가 전제 정치를 강화하고 의회를 탄압했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 청교도 혁명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크롬웰의 정책 내용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 명예혁명의 과정을 설명하고 권리 장전의 내용을 통해 영국의 입헌적 전통을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113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의회군을 지휘하여 청교도 혁명을 승리로 이끈 인물은?	문답식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34	**2. 산업 혁명의 전개 ~ 3. 산업 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방적기의 개량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문답식	
	[전개]		
	• 산업 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된 배경과 그 진행 및 확산 과정을 설명한다.	강의식	115쪽 자료
	• 산업 혁명에 따른 여러 변화를 탐구하게 하고, 이를 사회주의 사상의 등장 배경과 연결하여 파악하게 한다.	탐구식	117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면방직 기계의 동력으로 사용되었으며, 공장제 기계 공업의 발달을 촉진한 것은?	문답식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영국 혁명

(1) **청교도 혁명과 공화정 수립**

① **혁명 전의 영국 사회**

- 신흥 세력 등장: 지주층과 자영 농민층, 도시 상공 시민 계층
- 청교도 세력의 확대: 의회의 다수 의석 차지

② **청교도 혁명(1649)**

- 배경: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전제 정치 → 의회의 권리 청원 제출 → 찰스 1세의 의회 해산
- 과정: 국왕파와 의회파의 군사적 충돌 → 크롬웰의 의회군 승리
- 결과: 찰스 1세 처형, 공화정 수립

③ **크롬웰의 독재 정치**: 항해법 제정, 의회 해산, 엄격한 생활 강요 → 크롬웰 사후 왕정 복고(찰스 2세 즉위)

(2) **명예혁명**

① **배경**: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 가톨릭 교회 부활 시도

② **전개**: 의회의 제임스 2세 폐위 → 왕녀 메리와 남편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1688), 권리 장전 승인

③ **결과**: 권리 장전 승인(입헌 군주정의 토대)

④ **입헌 정치의 발전**: 18세기 초, 조지 1세의 취임(하노버 왕조) → 내각 책임제 수립(의회 중심의 입헌 정치 발전)

2. 산업 혁명의 전개

(1) **영국 산업 혁명**

① **의미**: 기계의 발명과 기술 혁신으로 공장제 기계 공업이 진행되면서 일어난 산업상의 큰 변화

② **배경**

- 영국 국내: 모직물 공업 발달
- 광대한 국외 시장: 식민지 쟁탈전 승리로 세계 무역 주도 → 국외의 원료 공급지와 시장 확보, 자본 축적
- 풍부한 노동력과 지하자원: 인클로저 운동 이후 농민의 도시 이동으로 노동력 확보, 석탄 · 철 등 공업 원료 풍부
- 정치적 안정: 시민 혁명으로 정치와 사회 안정, 경제 활동의 자유 보장

(2) **산업 혁명의 확산**

① **면직물 공업**: 방적기와 방직기의 발달 → 공장제 기계 공업 발달

② 산업의 확대: 기계 · 제철 · 석탄 산업의 급속한 발전 → 교통(철도, 증기선), 통신 (유선 전신, 전화) 수단 발달

③ **산업화의 확산**

- 19세기 초반: 프랑스(섬유 공업 중심), 미국(면직물 · 제철 · 기계 공업)
- 19세기 중엽: 독일(정부 주도, 제철 · 기계 · 화학 공업)
- 19세기 후반: 일본, 러시아(정부 주도)

3. 산업 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

(1) **근대 자본주의의 확립**

① **도시화**: 새로운 도시 출현,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이동 → 도시 중심의 산업 사회로 변화

② **생활의 변화**: 대량 생산, 교통수단 발달 → 풍부하고 편리해진 인간 생활

③ **산업 구조의 변화**: 산업 자본가 성장 → 근대 자본주의 확립

(2) **여러 사회 문제의 발생**

① **노동 문제**: 빈부 격차,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여성과 미성년자의 고용 등

② **사회 문제**: 도시화에 따른 주택 부족, 위생 불량

③ **사회주의 사상의 등장**: 공상적 사회주의(공동 생산과 공동 소비에 바탕을 둔 이상 사회 건설 주장, 오언 · 생시몽 등) → 과학적 사회주의(노동자의 투쟁을 통한 공산주의 사회 건설 주장, 마르크스 · 엥겔스 등)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12쪽

크롬웰이 이끌었던 의회군은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수립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13쪽

1. '권리 청원'과 '권리 장전'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영국 혁명은 국왕 세력과 시민의 대표인 의회 세력 간의 대립 과정이었다.
2. 입법권, 과세권, 의원 선거의 자유, 의원의 면책권 등
3. '권리 장전'의 승인으로 입헌 군주정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입헌 군주정이란 전제 군주정과는 달리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해서 일정한 제약을 받는 정치 체제이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14쪽

방직기의 개량은 증기 기관의 사용과 함께 공장제 기계 공업의 발달을 가져와 산업 혁명이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16쪽

영국은 자국의 산업 발전 모습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하여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17쪽

1. 장시간 노동, 미성년자 고용, 낮은 임금 등 노동 문제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 문제, 위생 문제 등
2. • 긍정적인 면: 공장제 기계 공업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철도를 비롯한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인간 생활이 풍부해지고 편리해졌다.
   • 부정적인 면: 장시간의 노동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 계층과 자본가의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대립하였고, 여성과 미성년자 고용 등의 노동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급격한 도시화로 주택 · 위생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17쪽

1. (1) ×, (2) ○, (3) ○, (4) ×
2. (1) 입헌 군주정, (2) 자본주의
3. (1) ㉠, (2) ㉡

내용 더하기

청교도 혁명(1642~1649) 33차시

1603년에 스튜어트 왕조를 연 제임스 1세와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영국 의회의 전통을 무시하고 전제 정치를 강화하였다. 찰스 1세는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하고 모든 이에게 국교(영국 국교회)를 강요하였으며,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는 의회를 무력으로 탄압하였다. 이에 의회가 국왕에게 무력으로 저항하면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다.

왕을 지지하는 국왕파와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의회파가 충돌하였고 의회파가 승리하여 정권을 잡고 1642년 공화정을 수립하였다. '청교도 혁명'이라는 명칭은 의회파 중에 청교도가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한편 의회파가 젠트리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청교도 혁명이 부르주아 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국왕파와 의회파 모두 유산층이었으며, 상인 · 법률가 · 귀족 · 젠트리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혁명의 계급적인 성격보다는 종교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크롬웰의 독재 정치 33차시

크롬웰은 젠트리 출신의 경건한 청교도이자 의회의 의원이었다. 국왕파와 의회파의 충돌이 일어나자 크롬웰은 철기군을 지휘하여 의회군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후 그는 입헌군주정을 주장하는 장로파를 몰아내고, 찰스 1세를 처형한 다음 공화정을 수립하였다.

크롬웰은 스스로 '호국경'에 올라 풍기 단속법을 만들고, 이를 위해 각 지방에 소장(小將)을 배치함으로써 5년 동안 독재 정치를 실시하였다. 그는 청교도적 정치를 펼쳐 도박을 금지하고,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며,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 극장을 없애 버렸다. 이를 어기면 가혹한 조치가 뒤따랐다.

이러한 청교도주의에 입각한 독재 정치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진 가운데 크롬웰이 사망하자 찰스 2세가 다시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당시의 청교도 문화의 전통은 현재까지 영국과 미국 사회의 중요한 문화 요소로 남아 있다.

인클로저 운동 34차시

• 제1차 인클로저 운동(15세기 말~17세기 전반)

15세기 말 영국 모직물 공업의 발달로 양모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주들은 목양업을 위한 목장을 만들고자 농민을 추방하여 경지를 목장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소농과 빈농이 토지로부터 추방되어 임금 노동자로 전락한 반면, 농업 노동자를 고용하여 대규모 경작지를 경영하는 자본가적 차지농이 출현하고 지주층이 분화되는 등 농촌 공동체가 해체 · 재편성되었다.

• 제2차 인클로저 운동(17세기 후반~18세기)

산업 혁명으로 곡물의 가격이 오르자 지주들은 파종기와 제초기 사용 등의 기술 개량에 힘입어 개방 경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유지를 사유지화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18세기 중엽 이후에 두드러졌다. 또한 자본가가 소농민의 토지를 흡수하여 대농장을 경영함으로써 농업의 자본주 경영이 이루어졌다. 제2차 인클로저 운동의 결과, 영국 농촌 공동체에는 근대적인 사적 소유권 개념이 확립되어 갔고, 가난한 농민들은 토지에서 쫓겨나 임금을 받고 일하는 농업 노동자가 되거나 도시로 흘러 들어갔다. 이 때문에 산업 혁명에 필요한 노동력은 풍부해졌다.

증기 기관 개량 34차시

기계가 널리 사용되면서 수력을 이용한 기계들은 곧 한계에 부딪혔다. 이때 등장한 것이 증기 기관이다. 초기의 증기 기관은 광산에서 석탄을 퍼 올리거나 물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되었는데, 제임스 와트는 1769년에 이를 개량하여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그는 볼턴이라는 사업가와 동업하여 자신이 설계한 효율적인 증기 기관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와트는 자신이 발명한 모든 기관에 대해 특허를 얻었고, 볼턴과 함께 영국 전역에 로터리 증기 기관을 500대 이상 설치하였다.

증기 기관이 새로운 동력으로 등장하면서 방직 공업뿐만 아니라 제철 · 석탄 공업에도 널리 사용되어 산업 혁명을 뒷받침하였다.

기계 명칭	발명가	연대	특징
나는 북	존 케이	1733	1명의 직공이 방적공 10명분의 면사를 생산함.
제니 방적기	하그리브스	1764	1명의 직공이 8가닥의 면사를 동시에 뽑음. 실이 거침.
수력 방적기	아크라이트	1769	수력을 이용하여 면사를 대량 생산, 실이 굵음.
물 방적기	크럼프턴	1779	제니 방적기와 수력 방적기의 장점을 합침.
직조기	카트라이트	1785	증기 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함.
조면기	휘트니	1792	면화에서 씨를 분리하는 기계로, 종래 50명이 하던 일을 1명이 감당함.

증기 기관차와 증기선 34차시

1808년, 트레비식은 런던에 작은 원형 궤도를 만들고 레일 위로 달리는 증기 기관차를 대중에게 선보였다. 이 기관차는 최고 시속 16km로 달렸다. 사람들이 이 기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서로 내기를 걸었기 때문에 "나 잡아봐라(Catch me who can)"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다. 이후 스티븐슨이 발명한 증기 기관차는 1830년 리버풀과 맨체스터를 시속 약 46km로 달리는 데 성공하였다. 증기 기관차의 운행으로 많은 화물을 한꺼번에 운송할 수 있었으며, 석탄 산지와 면직물 공업 단지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1811년부터 미시시피 강을 따라 증기선이 운행되었고, 1840년에는 증기선을 이용한 대서양 정기 항로가 열렸다.

교통수단의 발달은 원료와 상품의 장거리 수송과 신속한 수송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전 세계의 시장을 연결하여 산업 및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스티븐슨이 제작한 증기 기관차, 로켓호(런던 과학 박물관)

통신 혁명 34차시

교통수단과 더불어 통신 수단 또한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1840년 영국에서는 값싸고 빠른 '페니 우편 제도'가 시행되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어서 모스의 유선 전신(1844), 벨의 전화(1876), 마르코니의 무선 전신(1896) 등이 발명되면서 통신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전화는 발명된 이후 빠르게 보급되었는데, 당시에는 교환원이 통화를 연결해 주는 방식이었다. 전신은 1851년에 도버 해협, 1866년에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해저 케이블이 최초로 부설됨으로써 전 세계의 통신 거리가 크게 단축되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린 영국 34차시

19세기 영국은 세계 최대의 해양 국가이자 가장 큰 경제적 영향력을 지닌 국가였다. 1851년 런던의 수정궁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는 영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과시한 행사였다. 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거대한 수정궁은 영국의 높은 건축 기술을 보여 주었고, 이곳에 전시된 각종 새로운 기계들은 각국의 참관인들을 놀라게 하였다.

당시 영국은 전 세계 석탄의 3분의 2, 철과 면직물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였으며, 유럽 대륙은 물론 세계 시장에

진출하여 자유롭게 무역 활동을 펴고 있었다.

산업 혁명기의 도시 생활 34차시

1800년경 약 90만 명이던 런던의 인구는 1900년에는 47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탄광 지대나 철강 생산지 같은 공업 지역의 인구도 급증하였다.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였다. 당시 런던의 노동자 거주 지역에서는 한 방에 보통 6~8명이 살았으며,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길거리에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뒤섞여 넘쳐 흘렀다. 그러나 1840년대부터 행정 당국이 공중위생법을 제정하고 배수 체계와 하수도 시설을 마련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다.

산업 혁명기의 노동 문제 34차시

산업 혁명 이후 여성과 어린이들은 가혹한 노동 착취를 당하였다. 빈곤한 여성들은 출산 2~3일 전까지 일하였으며, 아이를 낳고 나면 곧바로 공장으로 되돌아갔다. 또한 비위생적 노동 환경 때문에 폐 질환이나 신경통 등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렸다.

공장제 아래에서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인 것은 나이 어린 노동자들이었다. 어린이들은 저항이 어려웠기 때문에 채찍질 같은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며 밤새 일하도록 강요당하였다. 당시 어린이 노동자의 평균 수명이 17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은 이들에 대한 착취가 얼마나 심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어린이에 대한 노동 착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1833년에는 공장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9세 이하 어린이의 노동을 금하였으며, 9~13세 어린이는 하루 8시간, 주당 48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다. 또한 1842년에 제정된 광산법은 10세 미만의 어린이와 여성이 광산의 지하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사회주의의 등장 34차시

산업 혁명 이후부터 자본가와 노동자 간 빈부 격차가 한층 벌어졌다. 이에 따른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 심해지는 등 노동 문제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회주의가 등장하였다. 사회주의자들은 평등이나 협동 같은 집단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며 생산 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체 사회의 건설을 꿈꿨다. 그들은 모든 공장, 광산, 철도, 증기선, 은행, 보험 회사 등을 국가가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초기 사회주의 34차시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산업주의의 악폐를 해결하여 이상적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다. 프랑스의 생시몽은 평화적 방법으로 사유 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재산의 공유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 최초의 사회주의자였다.

이상적 모범 사회 건설을 직접 실천에 옮긴 사람은 기업가 오언이었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면방직 공장을 운영하면서 노동 조건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였다. 이로써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개선되면 더 많은 이윤이 창출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 로버트 오언이 꿈꾼 이상적 공동체(베이트, 1838)
오웬은 협력을 통해 지주, 자본가, 노동자들이 모두 만족하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회주의 34차시



▲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동상(독일 베를린)

카를 마르크스는 1848년 2월 혁명 직전에 엥겔스와 공동으로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소책자에서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무엇 때문에 가난한지,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소망을 지녔는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려면 혁명이 필요한데, 노동자들이 계급 투쟁을 통해 정권을 획득하고 단결함으로써 이상적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Ⅳ. 산업 사회와 국민 국가의 형성

02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

학습 목표

-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배경과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파악할 수 있다.
- 나폴레옹의 정복 활동이 유럽 사회에 끼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35	**1. 프랑스 혁명**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문답식	
	1. 제3 신분에 속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2. 인권 선언에 담긴 프랑스 혁명의 혁명 정신은 무엇인가?		
	[전개]		
	• 혁명 전 구체제의 모순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 혁명의 정치적 · 경제적 배경을 파악하게 한다.	강의식	118쪽 그림, 도표
	•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 프랑스 혁명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음을 설명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 인권 선언문이 혁명의 기본 정신인 자유, 평등, 우애를 천명하였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 혁명 전쟁을 거치면서 프랑스 혁명이 과격화하고, 공포 정치가 실시되었음을 설명한다.		
	• 국민 의회, 입법 의회, 국민 공회의 활동 내용을 파악하도록 한다.		
	• 프랑스 혁명의 발발 배경과 전개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프랑스 혁명의 의의를 파악하게 한다.	탐구식	119, 120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루이 16세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집한 신분제 의회는?		
	2. 프랑스 혁명 시기에 공포 정치를 주도한 인물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36	**2. 나폴레옹 시대**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나폴레옹은 어떤 과정을 거쳐 황제가 되었을까?	문답식	
	[전개]		
	• 나폴레옹이 실시한 내정 개혁의 내용과 "나폴레옹 법전"의 의의를 설명한다.	강의식	

36	• 유럽을 석권한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과 러시아 원정의 실패로 몰락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 나폴레옹 몰락 후 수립된 빈 체제가 유럽의 질서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리려 했음을 파악하게 한다. • 나폴레옹 전쟁의 전개와 붕괴 과정을 파악하고, 나폴레옹 전쟁이 유럽 사회에 끼친 영향을 발표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 정신을 반영하여 편찬한 법전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강의식 발표식 문답식	123쪽 자료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프랑스 혁명

(1) 혁명의 배경

① **구체제의 모순**
- 제1 신분(성직자), 제2 신분(귀족): 부유층, 면세 특권
- 제3 신분(시민 계급, 농민, 노동자): 참정권 행사 불가, 중과세 부담

② **계몽사상 확산**: 시민 계층의 자유와 권리 추구

③ **국가 재정의 위기**: 계속된 전쟁과 왕실의 사치가 원인

(2) 혁명의 전개

① **혁명 발생**: 삼부회 소집(1789) → 국민 의회 결성 → 국왕의 탄압 → 바스티유 감옥 습격 → 혁명의 전국 확산

② **국민 의회**: 인권 선언문 발표(자유, 평등, 우애 등 혁명의 기본 정신 천명), 입헌 군주제 헌법 제정

③ **입법 의회(1791)**: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의 프랑스 압박 → 혁명 전쟁 시작 → 혁명의 과격화

(3) 혁명의 과격화

① **국민 공회**: 공화정 선포, 루이 16세 처형(1793) → 반 프랑스 동맹군(영국, 오스트리아 등)의 프랑스 공격

② **공포 정치**: 로베스피에르의 혁명 정부 조직 → 물가 억제, 징병제 실시, 혁명 재판소 설치(수많은 사람들 처형)

③ **혁명의 변천**: 로베스피에르 몰락, 총재 정부 수립(1795) → 나폴레옹의 쿠데타, 통령 정부 수립(1799)

2. 나폴레옹 시대

(1)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

① **나폴레옹의 등장**
- 집권: 통령 정부 수립(독재 정치) → 국민 투표로 황제 즉위(1804)
- 내정 개혁: "나폴레옹 법전" 편찬, 프랑스 은행 설립 등

② **나폴레옹 전쟁**
- 지상전: 오스트리아 격파, 신성 로마 제국 해체, 프로이센과 러시아에 승리
- 트라팔가르 해전: 영국에 패배 → 대륙 봉쇄령 선포(영국 고립 목적)
- 몰락: 대륙 봉쇄령에 대한 유럽 각국의 반발, 러시아 원정 실패 → 유럽 국가들의 반 프랑스 동맹 결성 → 워털루 전투 패배로 나폴레옹 실각
- 의의: 유럽 각지에 프랑스 혁명의 정신 전파 →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 촉진

(2) 빈 체제의 성립

① **빈 회의의 개최**: 나폴레옹 몰락 후 전후 처리 문제 논의 →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 주도, 유럽을 프랑스 혁명 이전 상태로 되돌림.

② **빈 체제 등장**: 자유주의 · 민족주의 운동 탄압, 체제 유지를 위해 4국 동맹 체결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18쪽

고위 성직자와 귀족을 제외한 시민 계급, 농민, 노동자들이 제3 신분에 속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19쪽

1. 프랑스 혁명의 인권 선언에는 자유, 평등, 국민 주권, 천부인권의 정신이 담겨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 압제에 대한 저항, 사상과 언론의 자유, 소유권의 신성불가침 등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프랑스 국기의 파란색은 자유, 흰색은 평등, 붉은색은 우애를 의미한다.

깊이 있는 역사 ▶▶▶ 교과서 121쪽

인권 선언 채택, 공화정 선포, 공포 정치

생각 열기 ▶▶▶ 교과서 122쪽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통해 통령 정부를 수립한 후 내정 개혁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투표를 거쳐 황제에 즉위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23쪽

1. (1) ㉢, (2) ㉡, (3) ㉠
2. (1) 자유, 평등, 우애 (2) 대륙 봉쇄령
3. (1) ×, (2) ○, (3) ○
4. 4국 동맹

내용 더하기

구제도의 모순(Ancien Régime) 35차시

혁명 이전 프랑스 신분 체제는 제1 신분인 성직자, 제2 신분인 귀족, 제3 신분인 평민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구제도, 즉 앙시앵 레짐이라고 불린 혁명 이전의 프랑스 사회 구조는 전 인구의 2%에 불과한 성직자와 귀족들이 광대한 토지와 관직을 차지하고, 세금을 면제받는 등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이에 비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한 제3 신분은 부유한 금융업자에서 일용 노동자, 빈농에 이르기까지 그 구성층이 다양하였으나, 모두 정치적 권리가 없었고 특권 신분을 부양하기 위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제3 신분 중에서도 세력이 큰 시민 계급은 길드, 경제 통제, 국내 관세와 통행세 등의 철폐와 도량형의 통일 등을 희망하였다. 공증인, 변호사, 대변인, 문필가, 작가, 의사, 학자 등의 지식인 계급은 계몽사상을 열렬히 지지하여 혁명 초기에 큰 역할을 하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농민은 봉건적 부담과 국가에 대한 세금 등으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 혁명은 이러한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제3 신분 35차시

> 첫째, 제3 신분이란 무엇인가? 전부이다. 둘째, 오늘날까지 그들의 정치적 지위는 어떠하였는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제3 신분의 의회와 두 특권 신분의 의회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 앞의 것은 2,500만 명을 대표하여 국민의 이익에 관해 토의하는 데 반해, 뒤의 것 둘은 소집될 필요가 있기는 해도 기껏해야 2만 명의 권한을 갖는 데 불과하며, 자기의 특권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아! 그래서 결국 제3 신분은 국민 의회를 구성할 것이다.
>
> -시에예스, "제3 신분이란 무엇인가?"

시에예스는 삼부회 선거에서 제3 신분의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삼부회의 소집이 다가오던 1789년에 "제3 신분이란 무엇인가?"를 발표하여 제3 신분이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민 의회'의 명칭도 그의 견해에 따른 것이다.

삼부회 소집 35차시

18세기 후반 프랑스는 미국 독립 전쟁을 지원하느라 재정 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있었다. 또한 1780년대 후반의 연이은 흉작과 대규모 실업 사태로 경제적 불안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루이 16세는 정치가이자 경제학자인 튀르고를 재정 총감으로 기용하여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개혁을 시도하였다. 튀르고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려 하였으나, 귀족 세력을 대변하는 고등 법원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고등 법원은 새로운 세금의 부과는 오직 '삼부회(전국 신분회)'의 권한이라며, 삼부회의 소집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귀족들은 국가의 재정 위기를 이용하여 과거에 상실하였던 정치 권력을 회복하고, 절대 왕권을 제약하여 귀족 정치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결국 파산에 직면한 루이 16세는 1614년 이래 소집되지 않았던 삼부회를 소집하였다. 삼부회가 1789년 5월에 소집되자, 제3 신분에 속한 프랑스 국민의 절대 다수는 이를 계기로 사회 개혁을 요구하였다. 당시 삼부회는 성직자 298명, 귀족 270명, 평민 대표 59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귀족과 성직자 대표들은 신분별 표결을 주장하였으나, 제3 신분은 머릿수에 따른 표결을 요구하여 타협점을 찾을 수 없었다.

테니스 코트의 서약 35차시

삼부회는 활동 범위와 표결 방식(신분별 표결 대 머릿수 표결)을 둘러싸고 초기부터 어렵게 진행되었다. 논란이 거

듭되자 제3 신분의 대표들은 신분제 의회인 삼부회를 부정하고 독자적으로 국민 의회를 구성하였다.

1789년 6월 17일 국왕이 회의장을 폐쇄하자 국민 의회에 찬동하는 의원들은 6월 20일에 테니스 코트에 모여 "제3 신분이 곧 국민이며, 국민 의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를 재조직할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천문학자 J. S. 바이이를 초대 의장으로 선출하고, "국민 의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사회의 질서를 회복시킬 때까지 결코 해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선서를 하여 제3 신분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결국 6월 27일 국왕은 성직자, 귀족들의 국민 의회 합류를 선언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왕권에 공공연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최초의 사건이며 프랑스 혁명의 발단이 되었다.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 35차시

테니스 코트의 서약 이후에도 왕과 귀족이 국민 의회에 협조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 베르사유에 군대를 집결시킨 국왕의 조치는 무력 탄압의 전조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파리 시민들은 자치 위원회를 조직하여 시 행정을 접수하고 국민 방위군(민병대)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무기와 탄약을 찾아 바스티유로 향하였다(1789. 7. 14.). 17세기 전반부터 정치범의 감옥으로 이용되어 온 바스티유 감옥은 전제 정치의 상징이었다.

바스티유에 도착한 군중들이 사령관에게 무기를 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령관은 발포 명령을 내려 98명의 군중이 사살당하였다. 그러자 군중들은 보복 공격에 나서 바스티유를 함락시킨 뒤, 파리에 임시 혁명 정부를 수립하였다.

파리 시민들의 바스티유 공격을 계기로 혁명이 본격화되었다. 그 후 다른 지방 도시에서도 시민 계급이 중심이 되어 자치 위원회와 국민 방위군을 조직하는 등 혁명의 기운이 고조되었다. 농민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져서 귀족의 성이나 영주의 저택을 공격하고, 봉건적 권리가 적힌 문서를 불사르는 일이 빈발하였다.

여성의 행진(빵의 행진) 35차시

봉건제의 폐지와 인권 선언의 발표에도 여전히 식량은 부족하였다. 결국 파리의 여성들은 빵을 요구하며 파리로 왕을 데려오고자 베르사유로 행진하였다. 쇠스랑, 꼬챙이 등으로 무장하여 집단적으로 정치 행동을 하는 여성들의 행렬 뒤로 국민 방위대와 남성들이 뒤따랐으며 왕은 인민의 감시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여성들의 정치의식이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다.

봉건적 특권의 폐지 35차시

프랑스 농민은 농노 신분이 아니면서도 장원의 영주에게 세금을 내는 등 각종 봉건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었다. 생산물 지대, 부역, 영주가 독점하고 있는 물방앗간 · 제빵기 · 포도 압착기 등의 사용료, 토지를 상속받거나 양도할 때 내는 이전세, 교회에 내는 십일세 등이 대표적인 예였다.

바스티유 감옥 사건 이후 지방에서 농민들이 영주의 저택을 습격하여 봉건적 부담의 폐지를 요구하자, 국민 의회는 1789년 8월 4일에 봉건제 폐지를 결의하였다. 위에 열거한 농민의 부담 외에도 신분적 차별, 면세 특권, 영주의 수렵권, 길드제 등 구제도의 모순과 관련된 각종 봉건적 특권들이 폐지되었다. 생산물 지대와 같은 봉건적 공납만은 보상금을 받고 폐지하기로 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샀으나, 1793년에 이를 무상으로 폐지함으로써 농민은 모든 봉건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인권 선언) 35차시

제1조 인간은 권리에 있어 자유로우며 평등하게 태어나고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일반적인 선에 기초하여 마련된다.

제2조 모든 정치적 단결의 목적은 소멸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권리란 자유, 재산권, 안전 및 억압에 대한 저항을 뜻한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을 막론하고 국민으로부터 직접 유래하지 않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자연권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도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은 오직 법에 의해서만 정해진다.

제5조 법은 오직 사회에 해로운 행위만을 금지한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으며, 누구도 법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일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제9조 모든 사람들은 유죄 선고를 받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며, 체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며,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필수적이 아닌 한 모든 가혹한

대우는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제17조 재산권은 신성불가침한 것이므로, 누구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고,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 또한 소유자가 사전에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조건이 아니고는 빼앗기지 않는다.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 8. 26.) 중 일부

1789년 8월 26일 국민 의회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였다. 흔히 '인권 선언'이라고 약칭되는 이 선언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 국민 주권, 언론 · 출판 · 신앙의 자유와 법적 평등, 재산의 불가침 등을 선언한 것으로 새로운 시민 사회의 기본 원리를 밝힌 민주주의 역사상 귀중한 문헌 중 하나이다.

제1조에서 인간은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선언한 '인권 선언'은 언론, 출판 및 신앙의 자유와 법적 평등 및 과세의 평등을 규정하고, 국민 주권과 재산권을 확인하는 동시에 국가 성립의 목적이 이러한 자연권의 보존에 있다 하여 압제에 대한 저항권도 자연권에 포함하였다.

프랑스 의용군의 출정 35차시

프랑스 국가 –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

나가자, 조국의 아들들이여, 영광의 날이 왔도다.
폭군의 압제에 맞서 피 묻은 깃발을 올렸다. 피 묻은 깃발을 올렸다.
들판에서도 들리는가. 저 포악한 군사들의 외침이 …….
그들은 이곳까지 닥쳐와
그대들의 아내와 아들들을 죽이려 하고 있도다.
(후렴)
무장하라, 시민들이여.
무리를 지어라.
진격하라, 진격하라!
적들의 더러운 피가
우리의 밭을 적실 때까지!

프랑스 혁명이 격화되자 주변 여러 나라의 전제 군주들은 혁명의 파급을 두려워하였다. 국외로 망명한 프랑스 귀족들은 국경 지대에서 반혁명 운동을 부추기고 외국에 원조를 요청하였으며, 프랑스 국내에서도 반혁명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와 프로이센 · 오스트리아 동맹군 사이에 혁명 전쟁이 발발하였다. 동맹군 사령관은 프랑스의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왕권을 재확립할 것을 천명하고, 반역 행동을 하면 프랑스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전쟁을 준비하지 못하였던 프랑스는 패전을 거듭하였다. 이에 입법 의회가 "조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호소하자 전국 각지의 의용군이 파리로 모여들었다. 이때 의용군들이 불렀던 진군가가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였다. '라 마르세예즈'는 '마르세유 군단의 노래'라는 뜻으로, 당시 전국에서 모여든 의용군 중 마르세유에서 온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진군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이 곡은 1792년 4월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장교 루제 드 릴(Rouget de Lisle)이 만든 곡으로, 1879년에 정식으로 프랑스 국가(國歌)가 되었다.

단두대(기요틴, Guillotine) 35차시

1789년 국민 의회에서 의사 기요탱(J. I. Guillotin)의 제안으로 기요틴이 사용되었다. 프랑스 혁명이 계속되던 공포 정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처형되었으므로, 인민 재판이 지니는 공포의 상징물이 되었다. 프랑스 혁명 이전인 16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는 '메이든(Maiden)'이라 불리는 단두대가 사용되었고, 이탈리아에서도 13세기부터 단두대가 사용되었다.

루이 16세,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수많은 지롱드파 인물들은 물론 공포 정치를 단행했던 로베스피에르도 기요틴으로 처형되었다.

로베스피에르(Maximilhen Françis Marie Isidore Robespierre) 35차시

삼부회 소집이 선포되었을 때 로베스피에르(1758~1794)는 32세의 나이로 아라스의 대표로 선출되었다. 로베스피에르는 국민 공회에서 지롱드파를 제거하고 1793년 여름부터 자코뱅파를 이끌면서 민주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는 봉건적 공납을 무상으로 폐지하였으며, 능동 시민(직접세를 납부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과 수동 시민(투표권이 없는 시민)의 구분을 폐지하고 보통 선거를 규정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였다. 로베스피에르의 이상은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을 줄이고 소생산자의 수를 늘리며,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생산하고 교환할 수 있는 소생산자 사회를 이루는 것이었다.

혁명이 점차 과격해지면서 오스트리아, 영국, 프로이센

등은 반 프랑스 동맹을 결성하여 프랑스로 쳐들어왔고, 프랑스 국내에서도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다. 자코뱅파는 반 프랑스 동맹과 혁명 전쟁을 수행하면서 국내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공포 정치를 실시하였다. 혁명 정부는 공안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고 혁명 재판소를 두어 수천 명의 반대파(주로 왕당파) 세력을 약식 재판을 거쳐 처형하였다. 하지만 테르미도르의 반동(1794. 7. 27.)이 일어나 로베스피에르 자신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다.

❀ 루이 16세 36차시

루이 16세는 소박하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호평을 받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어수선한 프랑스의 새로운 희망으로 기대와 축복을 받으며 즉위하였다.

당시 절대 왕정과 경제 발전은 중세의 봉건 질서를 많은 부분 무력화했고, 새롭게 부르주아 계급을 등장시켰다. 하지만 부르주아는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으며 농민들은 개혁으로 토지를 잃고 도시의 빈민으로 내몰렸고, 루소 등의 계몽사상가들은 귀족의 특권과 왕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루이 16세는 튀르고를 앞세워 백성을 위하는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국민 의회를 해산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루이 16세는 1791년 발효된 헌법에 따라 입헌 군주국인 프랑스의 국가 원수가 되었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1791년 6월, 왕실 가족과 국경을 비밀리에 넘다가 발각되었다. 루이 16세는 탕플 탑에 유폐되었고, 12월에 재판을 받으려 끌려나올 때까지 4개월 동안 그곳에서 옥살이를 하였다. 1793년 1월 21일 오전 10시 "국민이여, 나는 죄 없이 죽는다." 고 외쳤으나 그의 목소리는 북소리에 파묻혔고 기요틴에서 목이 떨어졌다.

❀ 나폴레옹 법전 36차시

1804년 3월, 뒷날 "나폴레옹 법전"이라 불리게 되는 "민법전"이 공포되었다. 3장 2,281조로 이루어진 이 법전은 프랑스 인권 선언의 정신을 비롯하여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구상되었던 것들을 성문화하였다. 이 법전은 법 앞의 평등, 사상과 신앙의 자유, 취업의 자유, 사유 재산의 존중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문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등 혁명의 이념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으며, 노동자와 고용주, 남자와 여자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였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업적 중에서 법전의 편찬을 가장 중요시하여, "나의 영광을 영원히 기리며 없앨 수 없는 것은 바로 내가 제정한 법일 것이다." 라고 자신하였다. 그의 말처럼 나폴레옹 법전은 근대 유럽 법전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까지 큰 수정 없이 실시되었다.

❀ 대륙 봉쇄령과 러시아 원정 36차시

반 프랑스 동맹을 주도해 온 영국을 굴복시키려던 나폴레옹의 계획이 트라팔가르 해전의 패배로 좌절되자, 나폴레옹은 1806년에 베를린 칙령을 공포하여 영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였다.

이는 영국에 경제적 타격을 주는 동시에 프랑스의 국외 시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① 영국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 단행, ② 영국과의 통상 및 통신 금지, ③ 영국 선박의 대륙 출입 금지와 위반 선박의 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대륙 봉쇄령으로 영국과 그 식민지의 교역까지 봉쇄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영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던 대륙의 국가들이 더 고통을 받게 되었다. 결국 대륙 봉쇄령은 대륙 내의 반 프랑스 감정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가운데 나폴레옹은 대륙 봉쇄령을 어긴 러시아를 침략하였다. 나폴레옹 군대는 모스크바로 진격하였으나, 러시아는 계획적으로 모스크바를 불태우고 후방으로 깊숙이 퇴각하였다. 군대 보급이 끊기고 혹한이 닥쳐오자 나폴레옹 군대는 후퇴하였다. 후퇴하는 프랑스군은 러시아군과 러시아 농민의 끊임없는 게릴라전에 휘말려 원래 병력의 5분의 1 정도만이 프랑스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각지에서는 해방 전쟁이 벌어졌고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독립하였다. 1814년 봄, 반 프랑스 동맹군이 파리에 입성하고 나폴레옹은 황제 자리에서 물러났다. 결국 나폴레옹은 엘바 섬에 귀양을 가게 되고, 루이 16세의 동생인 루이 18세가 파리로 돌아와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 베토벤의 교향곡, '영웅' 36차시

나폴레옹이 전 유럽에 그의 용맹을 떨치고 있던 시기에 베토벤은 교향곡 '영웅'을 구상하였다. 당시 청각을 상실하는 비극적 운명에 놓인 베토벤은 빈 주재 프랑스 대사로부터 나폴레옹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영웅으로 여겼다.

베토벤은 나폴레옹을 불굴의 의지로 폭군을 물리치고 시민들의 권리를 찾아 주는 공화주의자라고 생각하고, 나폴레옹을 위해 교향곡을 작곡하였다.

그러나 베토벤의 제자였던 리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베토벤은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도 역시 속물이었군. 그도 결국 야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민중의 권리를 짓밟고 그 누구보다도 더 지독한 폭군이 되겠지!" 라고 부르짖으면서 나폴레옹에게 바치는 헌사 부분을 찢어 버렸다고 한다.

빈 회의 36차시

나폴레옹을 엘바 섬으로 귀양 보낸 후 유럽 각국의 황제와 저명한 정치가들이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빈 회의는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테르니히가 주도하였으며, 크고 작은 90개 왕국과 53개 공국의 군주, 정치가들이 참가하였다. 빈 회의는 역사상 가장 많은 황제와 왕들이 참가한 강화 회의였으나, 오스트리아 · 영국 · 러시아 · 프로이센 등 4대국과 프랑스로 구성된 5개국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빈 회의는 이처럼 외형적으로 화려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참가국 전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전체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4대국 사이의 이해관계 때문에 의사 진행도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회의는 춤춘다. 그러나 조금의 진전도 없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던 중 1815년 나폴레옹이 엘바 섬을 탈출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의는 급속도로 진척되어 각국 대표는 121개 조약에 서명하였다.

메테르니히 36차시

빈 회의를 주도한 메테르니히(1773~1859)는 오스트리아가 여러 약소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를 막지 않고서는 정치적 통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는 "자유는 출발점이 아니라 도착점이며, 출발점은 질서이다. 질서라는 개념 위에서 자유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여 질서를 강조하고 자유주의를 배격하는 태도를 보였다.

메테르니히는 프랑스 혁명으로 고조된 유럽 각국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억압하기 위해 정통주의와 복고주의를 내걸고,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로 유럽의 질서를 되돌릴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독일 대학생들이 전개한 학생조합(부르셴샤프트) 운동을 탄압하고, 에스파냐 · 포르투갈 · 시칠리아에서 발생한 자유주의 혁명의 진압에 앞장섰다.

빈 체제의 유럽 36차시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 개최된 빈 회의에서는 '정통성의 원칙' 에 따라 유럽 각국의 지배권과 영토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바르샤바 대공국의 대부분을 병합하여 폴란드 왕국을 재건하고 러시아 황제가 왕위를 겸하였다.

오스트리아는 네덜란드를 포기하는 대신 북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와 베네치아를 얻었으며, 프로이센은 작센 왕국의 북반부와 라인 강 중류 지방을 얻었다.

영국은 전쟁 중에 획득한 식민지의 영유를 확인받았으며, 네덜란드는 벨기에를 합병하였다.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 되었고, 독일에서는 독일 연방이 성립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혁명 이전의 여러 나라들이 부활하였고, 북부는 오스트리아의 세력 아래 놓였다. 나폴리, 프랑스, 에스파냐 등에서는 옛 왕실이 복귀하였다.

나폴레옹이 유럽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36차시

- 헤겔: 인간의 역사는 각 민족이 자유롭고 이성적인 '세계정신' 을 획득해 가는 과정이다. 나는 얼마 전 프로이센의 부패한 관료 제도를 파괴하고 있는 나폴레옹을 보고 '살아 있는 세계 정신' 이라며 감격한 바 있다. 보편적인 프랑스 혁명을 전파하는 그의 앞길에 영광이 있으라.
- 베토벤: 나는 유럽의 낡은 절대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자유를 노래한 프랑스 혁명의 수호자인 나폴레옹에게 바칠 생각으로 교향곡 '영웅' 을 작곡하였다. 그러나 그는 나의 기대를 배신하고 전제적인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나는 악보의 첫 장을 찢어 버렸다. 그는 영웅이 아니라 권력을 쫓는 소인배에 불과하다.
- 피히테: 지금 우리 독일은 나폴레옹군의 침략을 받아 나락에 빠져 있다. 나폴레옹은 그 이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른 나라 국민의 주권과 자유를 짓밟은 침략자에 불과하다.
- 고야: 나는 나폴레옹이 보낸 병사들이 에스파냐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저항하는 시민들을 처참하게 살해하는 광경을 보았다. 이것을 고발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

Ⅳ. 산업 사회와 국민 국가의 형성

03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발전

학습 목표

- 미국 혁명의 원인과 진행 과정을 파악하고 그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과정과 그 이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 미국 남북 전쟁의 원인을 탐구하고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 남북 전쟁을 전후하여 미국의 산업화가 촉진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37	**1. 미국의 독립 ~ 2. 라틴아메리카의 독립(1)**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이 보스턴 항에서 차를 바다에 던진 이유는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18세기 전반기에 북아메리카 동부 연안에 식민지가 건설된 과정과, 식민지의 운영 방식을 설명한다.	강의식	
	•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난 경제적 배경과 이 사건으로 초래된 결과를 파악하게 한다.		
	• 지도를 통해 미국의 독립 전쟁 과정을 파악하게 한다.		124쪽 지도
	• 미국 독립 선언서에 반영된 사상과 독립 후 수립된 미국 국가 체제의 특징을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125쪽 자료
	•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을 크리오요가 주도한 이유를 파악하게 한다.	강의식	126쪽 자료
	• 멕시코의 이달고 신부가 주도하여 멕시코 독립의 신호탄이 된 '돌로레스의 함성'에 대하여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영웅인 볼리바르와 산마르틴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 독립 운동을 설명한다.	강의식	127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근대 역사상 최초의 민주 공화국의 성립을 가져온 혁명은?	문답식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38	**2. 라틴아메리카의 독립(2) ~ 3. 남북 전쟁과 미국의 발전**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미국은 왜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 치열하게 싸웠을까?	문답식	
	[전개]		
	•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독립 이후 나타난 갈등을 국내적인 측면과 국제적인 측면으로 나누	강의식	

38	어 설명한다. • 미국이 독립 이후 서부로 영토를 확장해 간 과정을 지도를 통해 파악한다. • 미국의 북부와 남부가 대립하게 된 원인을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남북 전쟁의 전개 과정을 탐구하게 한다. • 남북 전쟁 이후 미국이 국가적 단합을 공고히 하고, 산업화를 이룩하여 강대국으로 성장해 갔음을 이해시킨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미국 서부 지역에서 발견되어 서부 개척을 촉진한 광물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강의식 탐구식 강의식 문답식	128쪽 지도 129쪽 자료 128쪽 도표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미국의 독립

(1) 식민지의 자치적 운영

① 아메리카 식민지 성립
- 17세기 초 영국의 청교도와 상인의 동부 연안 정착
- 18세기 전반에 13개 식민지 성립

② **식민지의 운영**: 각각 의회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운영

(2) 미국 혁명

① 혁명의 배경
-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 강화: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재정 악화 → 식민지에 각종 세금 부과
- 식민지 주민의 반발: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 보스턴 차 사건 발생

② 혁명의 전개
- 미국의 독립 선언: 식민지 대표들의 필라델피아 대륙 회의 개최 →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 독립 선언서 발표(1776)
- 독립 전쟁 전개: 프랑스 · 에스파냐 등 유럽 각국의 지원 → 요크타운 전투의 승리
- 결과: 파리 조약 → 13개 식민지의 독립 승인(1783)

③ 아메리카 합중국 성립(1789)
- 근대 역사상 최초의 민주 공화국 탄생(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 헌법 제정: 삼권 분립, 각 주의 자치권 인정 등
- 의의: 프랑스 혁명과 라틴아메리카 독립에 영향

2.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1)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운동

① 독립의 배경
- 에스파냐의 통치력 약화: 크리오요를 중심으로 독립 운동 전개
- 미국의 먼로 선언: 유럽 각국의 간섭 배제, 영국의 지지(시장 개발 목적)

② 각 지역의 독립
- 아이티: 프랑스군과 싸워 독립(1804)
- 브라질: 포르투갈 왕실 출신 황제의 독립 선언

③ **독립 운동 지도자들**: 에스파냐의 지배에 저항
- 이달고: 민중 봉기 선언 → 멕시코의 독립(1821)
- 볼리바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해방
- 산마르틴: 아르헨티나, 칠레 등 독립

(2) 라틴아메리카 독립의 한계

① **국내의 갈등**: 군벌 통치로 정세가 불안정, 크리오요와 비백인계 간의 갈등

② 열강의 경제 침투
- 국내 산업 기반 취약: 농산물 · 광물 수출, 서유럽과 미국에 경제 의존
- 미국의 영향력 강화: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 → 쿠바 보호국화, 푸에르토리코 획득

3. 남북 전쟁과 미국의 발전

(1) **남부와 북부의 갈등**

① **미국의 영토 확장**

- 영토 확대: 독립 이후 태평양 연안 진출
- 서부 개척: 캘리포니아 금광 발견(1848) 이후 개척 활발

② **남북 전쟁의 배경**: 남부와 북부의 대립

남부	구분	북부
대농장 발달	산업 구조	상공업 발달
노예제 찬성	노예 제도	노예제 반대
자유 무역 지지	무역 정책	보호 무역 지지
분권주의 지지	정치 체제	연방주의 지지

③ 남북 전쟁(1861~1865)

- 발단: 북부 출신 링컨의 대통령 당선 → 남부, 연방에서 탈퇴 → 전쟁 발발
- 결과: 링컨, 노예 해방 선언(1863) → 북부 승리

(2) **미국의 산업화**

① **국가적 단합 공고화**: 남북 전쟁 이후 대륙 횡단 철도 완성 → 서부 개척 촉진, 광대한 시장 확보

② **산업 발전**

- 배경: 노동력 확보(유럽과 아시아의 이민자 급증), 자원 풍부(철과 석탄 등)
- 산업화 이룩: 기술 발전(통신과 전기 분야) → 산업 혁명 진전으로 세계 최대 공업국으로 성장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24쪽

아메리카 식민지의 주민들이 영국 본국으로부터의 차 수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일으켰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25쪽

1. • 천부 인권: 모든 사람은 …… 권리를 부여받았다.
   • 주권 재민: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생겨난 것이다.
   • 저항권: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진정한 국민의 권리이다.
2.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의 특징은 연방주의, 삼권 분립, 각 주의 자치권 인정 등이다. 이 헌법에 따라 근대적인 민주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26쪽

볼리바르는 남아메리카 북부에서, 산마르틴은 남아메리카 남부에서 독립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 이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 지역 국가들의 화폐에 두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 넣은 것이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28쪽

남부와 북부는 정부의 역할 문제, 노예 문제, 무역 문제 등으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29쪽

1. 북부: (공장주 · 상공업자), (보호 무역), (연방주의)
   남부: (대농장 발달), (찬성)
2. 남북 전쟁은 노예 노동을 이용한 대농장이 발달한 남부와 자유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상공업이 발달한 북부 간의 대립으로 발생하였다. 북부는 연방주의와 보호 무역을 주장한 반면, 남부는 분권주의와 자유 무역을 원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29쪽

1. (1) 민주 공화국, (2) 크리오요, (3) 남북 전쟁
2. (1) ㉡, (2) ㉠, (3) ㉢

내용 더하기

아메리카 13개 식민지 건설 37차시

17세기 이후 영국의 청교도들은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전제 정치와 종교적 탄압을 피해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였다. 한편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왕으로부터 특허장을 얻어 식민지 경영에 나서는 상인들도 있었다. 이리하여 18세기 북아메리카 동부 연안에는 13개의 영국 식민지가 건설되었다.

13개 식민지는 주(州)마다 독립된 식민지 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광범위한 자유와 자치를 누렸다. 식민지 의회는 토지 소유에 따른 선거권 제한이라는 규제가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히 민주적으로 구성되었다.

7년 전쟁(1756~1763) 37차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1740~1748)에서 프로이센에게 패배하여 슐레지엔을 빼앗긴 오스트리아가 그곳을 되찾기 위해 프로이센과 벌인 전쟁이다. 이 전쟁에는 유럽의 거의 모든 열강이 참여하여 유럽뿐 아니라 그들의 식민지

였던 아메리카와 인도까지 전쟁터가 되었다. 주로 오스트리아 · 프랑스 · 작센 · 스웨덴 · 러시아의 동맹과 프로이센 · 하노버 · 영국의 연합이 맞서 싸웠는데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쟁탈전 성격이 강하였다.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은 포메라니안 전쟁이라고도 불리며, 북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전쟁은 프랑스가 인디언과 협력하여 영국과 맞섰기 때문에 프렌치 · 인디언 전쟁(French and Indian War)이라 불린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지원을 받은 프로이센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어 슐레지엔의 영유권을 확보했으며, 식민지 전쟁에서는 퀘벡 전투에서 승리한 영국이 미시시피 강 동쪽과 캐나다, 플로리다를 획득하였다. 영국은 인도에서도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어 대영 제국의 기초를 닦았다.

보스턴 차 사건 37차시

바다 건너 한 노부인이 살았지.
그녀는 어느 섬의 여왕이었어.
그 딸은 멀리 새 나라에 살았지.
큰 대양을 사이에 두고서
노부인의 주머니에는 금이 가득하였지만
그녀는 만족할 줄 몰랐어.
그래서 딸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였지.
차 1파운드 마시면 3펜스씩
그 차는 딸의 집으로 실려와 바닷가에 내려졌어.
팔팔한 딸은 차를 남김없이 부어 버렸지.
시퍼렇게 들끓는 파도 속으로
그리고 섬나라 여왕한테 소리쳤어.
"오,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차가 잘 우러나면 어머니나 실컷 드세요. 저한테서는 한 푼의 세금도 못 가져가요!"

- 당시에 널리 읊어졌던 시, '보스턴 차 사건'

7년 전쟁 이후 재정 부족에 시달리게 된 영국은 이를 해결하고자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여 아메리카 식민지에 인지세, 차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부과하였다.

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은 영국(본국) 정부의 세금 정책에 반대하여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라는 원칙을 주장하며 반발하였다. 영국은 식민지인들의 반발로 차(茶) 이외의 세금은 폐지하였다. 그런데 1773년 영국이 파산의 위기에 처한 동인도 회사에게 차 판매 독점권을 부여하고 관세를 면제해 주자, 분개한 식민지인들이 불매 운동을 시작하였다. 1773년 12월 16일 아메리카 인디언 복장을 한 식민지인들이 보스턴 항에 정박한 동인도 회사 선박 세 척을 습격하였다. 그들은 부둣가에 모인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배에 실렸던 수백 상자의 차를 바다에 던져 버렸다. 이것이 독립 전쟁의 직접적 발단이 된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 이었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인들은 홍차를 의식적으로 멀리하게 되었다.

토머스 페인의 상식 37차시

내가 말하는 것은 단지 상식에 지나지 않는다. …… "아메리카는 지금까지 영국과 결합해서 번영해 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결합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런 주장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 인류 전체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려면 이 제휴를 중지해야 한다.

1775년 4월 미국 독립 전쟁의 첫 전투가 시작되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아메리카 식민지의 지도자들은 영국과의 완전한 결별에 대해 주저하고 있었다. 영국의 막강한 호위 아래 정치적 자치를 추구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건너온 토머스 페인(Thomas Paine)은 "상식(Common Sense)" 이라는 소책자를 출간하여 식민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1776년 1월에 출간된 이 책은 미국의 독립이 지극히 상식적인 역사적 순리임을 주장하며 일반 대중으로부터 식민지 지도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독립에 대한 미국인들의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 냈다. 순식간에 "상식" 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이 책에서 토머스 페인은 확신에 찬 어조로 본국과의 화해를 거부하였으며 독립으로 얻게 될 경제적 이익과 식민지 해군의 창설을 주장하였다. 또한 식민지가 독립하여 공화국이 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일이라고 하였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늘어나면서 식민지의 여론은 독립 쪽으로 기울었다.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37차시

제1조 ① 이 헌법에 의해 부여되는 모든 입법 권한은 미국 연방 의회에 속하며, 연방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 ① 행정권은 미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

는 4년으로 한다.
제3조 ① 미국의 사법권은 1개의 연방 대법원과, 연방 의회가 수시로 만들어 설치하는 하급 법원에 속한다.

독립 전쟁이 시작되면서 각 식민지는 저마다 헌법을 가진 독립 국가가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륙 회의가 조직되었고,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연방 규약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각 주는 과세권, 통상권, 화폐 발행권 등에 독립적 권한을 갖게 되었다.

1783년 전쟁이 끝나고 연방 규약을 둘러싸고 각 주 간에 분쟁이 발생하자, 1787년 헌법 제정 의회가 꾸려졌고, 1788년에 연방 헌법이 제정되었다. 연방 헌법은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성문 헌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 주권(주권 재민)을 규정하였다. 둘째, 미국은 주를 단위로 하는 연방 국가로서, 각 주는 독립된 의회를 구성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등 넓은 범위의 자치권을 가지며, 중앙 정부(연방 정부)는 외교, 국방, 화폐 등 국가 전반에 공통되는 부문에 관한 통제 및 결정권을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셋째, 중앙 통치 기구의 한 부분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권 분립의 원칙을 채용하였다.

아이티의 독립 37차시

16세기 초 중앙아메리카 아이티의 원주민들이 에스파냐의 정복자들에게 전멸을 당한 뒤, 식민 정복자들은 이 섬에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들여왔다.

1697년 프랑스는 에스파냐를 완전히 몰아내고 아이티를 자국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18세기 말 50만 명의 흑인 노예들이 목화, 사탕수수, 커피 등의 재배에 혹사당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티는 프랑스의 식민지 중에서 가장 번성한 곳이 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 왔던 아이티 인들은 1791년 8월 22일 투생 루베르튀르, 장 자크 데살린 등의 지휘에 따라 프랑스에 반기를 들었다. 아이티 인들은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연이어 물리치고, 1801년 7월 1일 "노예제를 영원히 폐지하며,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원칙을 천명한 세계 최초의 흑인 헌법을 선포하였다. 아이티를 포기하지 못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2만 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아이티군을 진압하였으나, 아이티 인들은 격렬한 저항 끝에 독립을 이룩하여 1804년 1월 1일에 세계 최초의 흑인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돌로레스의 함성(Grito de Dolores) 37차시

'돌로레스의 함성'은 멕시코가 에스파냐를 상대로 독립 전쟁을 시작하면서 질렀던 함성으로, 1810년 9월 16일 돌로레스 교구 사제인 미겔 이달고(1753~1811) 신부가 처음으로 만들어 냈다.

이달고 신부는 에스파냐 식민 정부에 대항한 비밀 계획에 관여하고 있었는데, 이 계획이 탄로 나자 즉각 행동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사람들을 무장시킨 뒤 정부에 저항하자고 연설하며, "과달루페의 성모(인디언 신앙의 상징)여, 영원하라. 나쁜 정부와 가추피네스('말에 박차를 가하는 놈들'이라는 에스파냐 어)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쳤다.

멕시코는 독립 투쟁이 시작한 지 10여 년이 지난 1821년 9월 27일 마침내 독립을 달성하여 300여 년에 걸친 에스파냐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났다. 멕시코는 독립을 이룩한 날이 아닌 독립 투쟁을 처음으로 선언한 날을 독립 기념일로 지정하였다. 즉 이달고 신부가 돌로레스에서 독립 선언을 했던 9월 16일이 멕시코의 독립 기념일이 된 것이다.

먼로주의 37차시

> 유럽 여러 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식민지나 속령에 대하여 우리는 아직 간섭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미 독립을 선언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그럴 만하다고 판단하여 그 독립을 승인한 정부에 대해서 유럽 열강이 이를 억압하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그 운명을 지배하려고 간섭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모두 미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
> - 미국의 먼로 대통령이 연방 의회에 제출한 교서(1823)

먼로 선언(Monroe Doctrine)은 1823년 12월 미국의 제5대 대통령 먼로가 의회에 제출한 연두 교서에서 밝힌 외교 방침이다. 이것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과 라틴아메리카 신생 독립국들에 대한 유럽의 간섭에 대처하기 위하여 발표되었다.

먼로주의의 근원은 워싱턴 대통령 이래의 고립주의 외교이지만 그것을 더욱 명확하게 하여, ① 미국의 유럽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 ② 유럽의 아메리카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 ③ 유럽의 아메리카 식민지 건설 배격의 원칙 등 3개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먼로주의는 미국의 일방적인 외교 정책 선언에 지나지 않아 국제법으로서 강제력을 가지지는 못하였지만, 각종 국제적 사건에서 사실상 이를 승인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다.

시몬 볼리바르 37차시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서 태어난 시몬 볼리바르(1783~1830)는 일찍부터 루소의 자유와 정의, 기본권 사상 등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볼리바르는 16세가 되던 1799년부터 1802년까지 멕시코와 유럽을 여행하면서 아메리카 독립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되었고, 유럽의 자유주의 사상을 경험하였다. 그는 "나 자신의 명예와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내 조국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에스파냐의 권력을 무너뜨릴 때까지 나의 몸과 마음은 한시도 쉬지 않을 것이다."라며 독립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그 후 독립군을 이끈 볼리바르는 1811년 베네수엘라, 1819년 콜롬비아, 1822년 에콰도르를 에스파냐로부터 해방시키고, 세 나라를 합쳐 대(大) 콜롬비아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볼리바르는 독립 전쟁을 계속하여 1821년 페루를 해방시키고, 남부의 알토 페루 지역을 독립시켰다. 알토 페루는 시몬 볼리바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나라 이름을 '볼리비아'라고 정하였다.

미국의 영토 확장 38차시

1803년 미국은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던 루이지애나를 매입함으로써 영토 확장의 길을 열었다. 루이지애나는 주요 교통로였던 미시시피 강을 포함한 중요 지역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전쟁 자금이 필요하였던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1,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그 후 미국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를 사들였으며 텍사스, 오리건 등을 병합하였다.

미국이 북아메리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 후에도 인구의 대부분은 미시시피 강 동쪽과 대서양 연안에 몰려 있었다. 그러다가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큰 금광이 발견되어 골드러시(Gold Rush)가 시작되고 대륙 횡단 철도가 개통(1869)되면서 서부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척되었다.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 38차시

> 미국에 대한 반란 중에 있는 주, 혹은 주 안의 특정 지역에서 노예 신분에 놓여 있는 사람은 모두 1863년 1월 1일 이후로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 아칸소,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 앞에서 말한 권한과 목적에 따라 나는 위에 적힌 주 및 주 안의 특정 지역에서 노예 신분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을, 또 육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지켜 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선언한다.
>
> - 링컨, '노예 해방 선언(1863)'

1861년 노예 해방론자인 링컨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남부의 여러 주가 연방 탈퇴를 선언하고 독자적인 국가를 세웠다.

링컨은 이를 반역으로 간주하였고, 미국은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 군사적 대결을 벌이게 되었다. 1863년 1월 1일, 링컨은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어떤 주의 특정 지역에서 노예로 예속되어 있는 모든 이들은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라며 '노예 해방 선언(Emancipation Proclamation)'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으로 북부는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여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다.

게티즈버그 전투 38차시

미국 남북 전쟁 중 1863년 5월에 북군과 싸워 승리한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은 2개 군단을 3개로 재편한 뒤 게티즈버그 인근으로 진군하였다. 북군은 조지 미드 장군의 지휘 아래 7월 1일, 게티즈버그 구릉지에서 남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남군은 3일간 거세게 공격하였으나, 북군의 수비에 가로막혀 7월 4일 버지니아로 후퇴하였다. 7월 1일부터 3일 동안 벌어졌던 이 전투를 '게티즈버그 전투'라고 부른다.

게티즈버그 전투는 남북 전쟁 중에 벌어진 가장 치열했던 전투이며, 전쟁의 향방을 가른 전투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남군에 밀렸던 북군은 이 전투를 계기로 남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1863년 11월 19일, 링컨은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명연설을 남겼다.

> 우리의 조상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믿음으로 새 나라를 건국하였다. 지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전사자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 - 링컨, 게티즈버그 연설

Ⅳ. 산업 사회와 국민 국가의 형성

04 근대 국민 국가 체제의 성립

학습 목표

- 자유주의의 확산으로 나타난 각국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다.
- 유럽 각국의 국민 국가 형성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39	**1. 자유주의의 발전**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빈 체제를 이끌던 메테르니히는 왜 쫓겨났을까?	문답식	
	[전개]		
	•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그림을 통해 프랑스에서 일어난 7월 혁명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식	130쪽 그림
	• 프랑스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혁명인 7월 혁명과 2월 혁명의 성격을 비교하여 파악하게 한다.		
	• 영국에서 일어난 차티스트 운동과 선거법 개정 과정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131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영국에서 노동자, 농민들이 선거권을 요구한 운동은?	문답식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40	**2. 민족주의의 발전과 19세기 문화**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독일의 빌헬름 1세는 왜 베르사유 궁전에서 황제 즉위식을 했을까?	문답식	
	[전개]		
	• 이탈리아 통일의 주역을 알아보고, 그 통일 과정을 지도를 통해 설명한다.	강의식	132쪽 지도
	• 비스마르크가 실시한 철혈 정책의 개념과 내용을 탐구하고, 독일의 통일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게 한다.	탐구식	133쪽 자료
	• 러시아의 영토 확장 과정을 지도를 통해 알아보고,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 내용과 한계를 설명한다.	강의식	134쪽 지도
	• 19세기에 낭만주의와 사실주의가 유행한 배경을 파악하고, 그 사조에 해당하는 작품을 찾아 감상하게 한다.		135쪽 그림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프로이센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으며 독일 통일의 경제적 기반이 된 것은?	문답식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자유주의의 발전

(1) 프랑스의 자유주의 혁명

① 7월 혁명(1830)
- 원인: 부르봉 왕조의 전제 정치(의회 해산, 선거권 제한, 언론 · 출판의 자유 억압 등)
- 전개: 파리 시민의 봉기 → 샤를 10세 추방 → 루이 필리프 즉위('시민의 왕') → 7월 왕정 수립
- 영향: 네덜란드로부터 벨기에 독립, 폴란드 독립 운동(실패)

② 2월 혁명(1848)
- 배경: 산업 혁명 진행으로 산업 자본가 성장, 노동자층의 증가, 7월 왕정의 보수화(선거권 제한)
- 경과: 중소 시민, 노동자의 선거법 개정 요구 → 정부의 탄압 → 루이 필리프 축출(7월 왕정 붕괴) → 제2 공화정 수립(루이 나폴레옹의 대통령 당선)

③ **영향**: 오스트리아의 3월 혁명으로 메테르니히 추방 → 빈 체제 붕괴, 유럽 각국에서 자유주의 · 민족주의 운동 전개

(2)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

① **영국의 발전**: 19세기 이후 의회를 통한 점진적 개혁 →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번영

② **선거법 개정**
- 배경: 산업 혁명 이후 인구의 도시 집중, 산업 자본가의 성장
- 제1차 선거법 개정: 도시의 신흥 상공업자까지 선거권 확대, 부패 선거구 폐지
- 차티스트 운동(1838): 노동자들의 참정권 요구 운동, '인민 헌장'(보통 선거, 비밀 투표 등)

③ **자유 무역 정책**: 곡물법, 항해법 폐지

2. 민족주의의 발전과 19세기 문화

(1) 이탈리아의 통일

① **카보우르**: 사르데냐 왕국의 수상, 통일 운동 주도, 국내 산업 육성, 군대 개편 → 오스트리아와 통일 전쟁 → 중북부 지방 통합

② **가리발디**: 시칠리아와 나폴리 왕국 점령 → 사르데냐 왕에게 헌납 → 이탈리아 왕국 성립(1861)

③ **통일의 완성**: 베네치아 병합, 로마 교황령 통합

(2) 독일의 통일

① **프로이센의 통일 운동**: 관세 동맹의 결성(1834, 독일 통일의 경제적 기반 마련), 프랑크푸르트 국민 의회의 통일 논의(1848, 실패)

②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프로이센 · 오스트리아 전쟁 승리(북독일 연방 결성) → 프로이센 · 프랑스 전쟁 승리 → 독일 제국 수립(1871)

(3) 러시아의 발전

① **러시아의 영토 확장**: 시베리아 차지, 폴란드 분할 점령, 크림 전쟁(1853, 발칸 반도 진출 시도)

② **러시아의 근대적 개혁**
- 정부: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 해방(1861) → 황제 암살 → 전제 정치 강화, 자유주의 운동 탄압
- 러시아 지식인: 농민 계몽을 통한 사회 개혁 주장

(4) 19세기 사회 · 문화의 발전

① **자연 과학의 발달**: 생물학(다윈의 진화론, 멘델의 유전 법칙), 물리학(뢴트겐의 X선, 퀴리 부부의 라듐 발견), 기술(벨의 전화, 에디슨의 전구 발명)

② **낭만주의**: 계몽사상 비판, 인간의 감정 · 상상력 중시

③ **사실주의**: 사회 문제 비판, 인간과 사회를 있는 그대로 묘사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30쪽

프랑스의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오스트리아에서도 자유주의 혁명이 발생하여, 빈 체제를 주도하며 자유주의 운동을 탄압하던 메테르니히가 추방되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32쪽

프랑스와 독일은 이웃국이자 오랜 대립국으로 당시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며 강대해진 프랑스에 대항해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이기게 되었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즉위식을 한 것은 프랑스를 이긴 것에 대한 독일의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33쪽

1. 알자스 · 로렌 지역
2. 비스마르크는 군비를 확장하고 무력을 통한 독일 통일을 추진하였다. 철은 무기, 피는 군사력을 뜻한다.
3. 관세 동맹, 프랑크푸르트 국민 의회, 프로이센 · 프랑스 전쟁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35쪽

1. (1) 2월 혁명, (2) 차티스트, (3) 농노 해방
2. (1) ㉢, (2) ㉡, (3) ㉠
3. 진화론

내용 더하기

7월 혁명(1830) 39차시

빈 회의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왕정 복고가 이루어졌다. 프랑스에서는 루이 18세가 죽자 그의 동생이며 극우 왕당파의 지도자였던 샤를 10세가 즉위하였다. 샤를 10세는 즉위 초부터 토지를 몰수당한 귀족들의 요구에 따라 보상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채를 소유한 자본가나 중산층 시민은 수입의 5분의 1을 몰수당하는 셈이 되었다. 또한 샤를 10세는 의회를 해산하고, 출판의 자유를 금하였으며, 부유한 토지 소유층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였다. 여기에 국왕만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등 철저한 보수 반동 정책을 폈다.

자유주의자와 부르주아 계층은 샤를 10세의 정책에 반발하였다. 1830년 7월, 파리 시민들은 사흘 동안 거센 시가전을 벌인 끝에 왕정을 무너뜨렸고 샤를 10세는 영국으로 망명하였는데, 이를 7월 혁명이라 한다. 이로써 부르봉 왕조는 막을 내리고, 입헌 군주제가 수립되었다.

7월 혁명의 결과 7월 왕정이 성립되었으나 이 역시 보수적이고 억압적인 정치를 실시하여 18년 뒤에 다시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2월 혁명(1848) 39차시

7월 왕정은 산업 혁명으로 증가한 공장 노동자들의 권익을 무시하는 한편, 소극적인 외교 정책으로 국외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산업 자본가들의 불만을 사 결국 2월 혁명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혁명 후 조직된 임시 정부는 사회주의자들의 참여 속에 노동권 보장, 노동자 결사의 자유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여 제헌 의회 선거에서 온건한 공화파가 승리하였다. 노동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켰으나 곧 진압되었다. 이어서 새로운 공화제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 헌법에 따라 1848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나폴레옹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이 당선되었다. 루이 나폴레옹은 임기가 끝나 갈 무렵 쿠데타를 일으켜 공화파를 추방하고,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 39차시

산업 혁명을 이룩한 영국은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자유주의 개혁을 진행하였다. 1828년에 심사법이 폐지되어 비국교도인 신교도들의 공직 진출이 가능해졌고, 1829년에는 가톨릭교도 해방법이 제정되어 가톨릭교도에게 시민적 자유와 권리가 부여되었다.

한편 산업 혁명 이후에 형성된 산업 자본가와 노동자 계층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하였다. 이에 1832년에 선거법을 개혁하여 부패 선거구를 없애고 신흥 상공인 계층에게 선거권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노동자 계층은 여전히 선거권을 갖지 못하였는데, 이들은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여 스스로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였다.

차티스트 운동 39차시

1832년 영국의 선거법이 개정되었으나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노동자들은 보통 선거, 비밀 선거의 실시와 재산에 의한 선거권 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는 '인민 헌장(People's Charter)'을 만들고 국민 청원 서명 운동을 전개하면서 각지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이 운동은 1838년에 시작되어 약 10년 동안 계속되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1848년 전국 노동조합 대회를 끝으로 해산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몇 차례에 걸친 선거법 개정을 통해 거의 대부분 수용되었다.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차티스트(인민 헌장을 지지하는 자)'라 부른다.

이탈리아 통일의 세 주역 40차시

• 마치니(1805~1872)

7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 조직된 카르보나리당에서 활동하였던 마치니는 1831년에 자유 · 독립 · 통일을 표방하며 '청년 이탈리아당'을 결성하였다. 민주 공화정을 바탕으로 이탈리아를 통일하고자 했던 마치니의 운동은 오스트리아의 탄압으로 실패하였으나, 각국의 민족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 카보우르(1810~1861)

1852년에 사르데냐 왕국의 수상에 등용된 카보우르는 외교 수완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는 크림 전쟁에 파병되어 사르데냐 왕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고, 1859년에는 프

랑스 나폴레옹 3세의 지원을 약속받고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벌였다. 이 전쟁에서 사르데냐 왕국이 승리하였으나, 사르데냐 왕국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꺼린 프랑스는 약속을 어기고 오스트리아와 단독으로 휴전하였다. 이에 분노한 이탈리아의 애국자들은 사르데냐 왕국 편으로 모여들게 되었으며, 카보우르는 북부와 중부 이탈리아를 통합할 수 있었다.

• 가리발디(1807~1882)

가리발디는 청년 이탈리아당원이었으나, 마치니의 혁명 운동이 실패하자 국외로 망명하였다. 그 후 가리발디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독립 전쟁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1848년 이탈리아에서 통일 운동이 다시 전개되자 귀국하였다. 1860년 그는 1,000여 명의 의용군으로 조직된 '붉은 셔츠 부대'를 이끌고 시칠리아를 점령하였다. 가리발디의 부대는 토지의 재분배, 교회 재산의 국유화, 공화국 건설을 제시하여 민중의 선풍적인 지지를 얻었으며, 마침내 이탈리아 남부를 모두 점령하였다.

가리발디의 이탈리아 남부 해방은 사르데냐 왕국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것이었지만, 그 기세가 지속될 경우 북부에도 민중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다. 사르데냐 왕국의 카보우르는 이것을 염려하여 국왕 에마누엘레 2세에게 군대를 이끌고 남하하도록 권유하였다. 가리발디는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열망한 공화주의자였으나 양측 군대가 충돌할 경우 다시 외세가 개입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해방된 남부를 사르데냐 왕국에 병합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로써 로마와 베네치아를 제외한 반도 전체의 통일이 이루어졌고, 에마누엘레 2세는 공식적으로 이탈리아 왕국의 출범을 선언하였다(1861).

관세 동맹 40차시

3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었던 독일 지역은 빈 체제 이후 35개의 군주국과 4개의 자유시로 정리되었는데, 그 가운데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가장 강대하였다. 1834년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 영방 국가들 간에 관세 동맹이 체결되어 독일 통일의 서막이 열렸다.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독일 국가들이 관세 동맹에 가담함으로써 독일 내의 통상과 경제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던 각종 관세가 폐지되어 자유 통상이 가능해졌고, 화폐 · 어음 · 도량형 · 교통 제도 등도 통일되었다. 이로써 독일 통일을 위한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프랑크푸르트 국민 의회(1848) 40차시

프랑크푸르트 국민 의회는 독일의 3월 혁명 과정에서 성립된 최초의 민주적 통일 의회이다. 1848년 6월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독일 각 지역에서 소집된 830명의 대표자들이 독일의 민주적 통일을 위한 헌법 초안 심의에 들어갔는데,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을 통일하려는 소(小) 독일주의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 전체를 통일하려는 대(大) 독일주의가 대립되어 심의가 지연되었다. 그 사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반혁명 세력이 대두하여 의회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1849년 3월 28일 의회는 가까스로 연방제에 입각한 독일국 헌법을 공포하는 동시에 프로이센 국왕을 독일 황제로 선출하였으나, 프로이센 국왕은 아래에서 올라온 제위를 '돼지의 관'이라며 거부하였다. 이어 프로이센은 군대를 보내 헌법 옹호를 위해 독일 남서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였고, 온건파 의원은 의회를 떠났다. 최후까지 남은 좌익 의원들도 6월에 프로이센군의 무력으로 해산되어 프랑크푸르트 국민 의회는 사라졌다.

비스마르크 40차시

프로이센의 융커(지주 귀족) 출신인 비스마르크(1815~1898)는 자유주의 사상에 반대하고 왕정을 지지한 보수 정치인이었다. 그는 1858년 러시아 대사로 부임하였고, 국왕 빌헬름 1세가 군비 확장 문제로 의회와 대립하던 시기에 프로이센의 재상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현재의 큰 문제는 언론이나 다수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과 피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선언하며 이른바 '철혈 정책(鐵血政策)'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군비 확장을 강행하여 '철의 수상'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1866년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마인 강 북쪽 지역을 병합하였다. 이어 북독일 연방이 구성되고 연방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비스마르크가 북독일 연방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로써 프로이센은 독일 지방 영토의 3분의 2,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큰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

1870년에는 프로이센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50억 프랑의 전쟁 배상금과 더불어 산업 지역인 알자스 · 로렌 지방을 양도받았다. 1871년 1월 18일,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 성립이 선포되고 빌헬름 1세가 황

제로 추대되었다. 비스마르크는 1871년 독일 제국 총리가 되어 1890년까지 이 지위를 독점하였다.

크림 전쟁(Crimean War, 1853~1856) 40차시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재위 1825~1855)는 오스만 제국의 약화를 틈타 크림 전쟁을 일으켰다. 크림 전쟁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끼리 처음 벌인 전쟁으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야전 병원에서 활동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크림 전쟁은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 사이의 성지인 예루살렘에 대한 관리권 다툼으로 일어났다. 나폴레옹 3세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성지 관리권을 얻자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가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벌였으며, 이에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과 동맹을 체결하였다.

1854년 9월 영국 · 프랑스 · 오스만 제국의 동맹군은 약 6만의 대군을 크림 반도에 상륙시키고, 세바스토폴을 포위하였다. 러시아는 세바스토폴 요새를 지키기 위해 11개월이나 사력을 다했으나, 결국 동맹군에 패하여 북방으로 퇴각하였다. 러시아는 크림 전쟁 패전을 계기로 근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861년의 농노 해방을 비롯한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 40차시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재위 1855~1881)는 니콜라이 1세의 맏아들로 1861년 농노제를 폐지하여 '해방 황제'로 불린다. 크림 전쟁 중에 즉위한 알렉산드르 2세는 1861년 농노 해방령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약 2천만 명에 이르는 농노가 토지를 얻고 자유민이 되었지만 무거운 특별 상환세를 물어야 했다.

알렉산드르 2세는 지방 의회(젬스트보) 창설, 사법 제도 개혁, 공립 학교 설립, 국민 징병제를 바탕으로 한 군대 개혁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개혁에 착수하였다. 또한 청과 아이훈 조약(1858)과 베이징 조약(1860)을 맺어 우수리 강 동쪽의 연해주를 차지하였으며,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고 일본과 거래하여 쿠릴 열도를 사할린과 교환하였다. 1881년 나로드니키의 일파인 '인민의 의지당'의 폭탄 테러로 사망하였다.

다윈의 진화론 40차시

1831년 박물학자 찰스 다윈(1809~1882)은 라틴아메리카 측량 등을 목적으로 출항한 영국 군함 비글호에 승선하였다. 1835년 비글호가 찾아간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다윈은 26종의 육지 새를 채집하였다. 다윈은 '핀치'라는 새의 부리가 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생물의 진화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1859년 다윈은 진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종의 기원"을 간행하였다.

다윈 진화론의 핵심은 '자연 선택설'이다. 자연 선택설은 생물의 어떤 종(種)의 개체 간에 변이가 생겼을 경우에, 그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것만이 살아남고, 부적합한 것은 도태된다는 견해이다. 즉 개체 간에는 항상 경쟁이 일어나는데, 자연의 힘으로 선택이 반복되면서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나중에 다윈은 '자연 선택'이라는 용어 대신 사회학자 스펜서가 말한 '적자생존'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였다.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와 스펜서의 사회 진보에 대한 믿음이 연결된 것이다. 다윈의 생물학은 사회 진보를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로 사용되었다.



▲ 먹이에 따라 부리 모양이 다른 갈라파고스핀치

쿠르베의 '돌 깨는 사람들' 40차시

귀족적 취향의 그림과 고대 그리스 · 로마의 이상적 화풍이 주류를 이루던 19세기 중엽에 귀스타브 쿠르베(1819~1877)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살아 있는 예술을 만든다(Faire de l'art vivant)!"는 신념에 따라 회화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술적 진실을 추구하였다.

당시에는 부르주아라는 새로운 계층이 출현하면서 부르주아와 노동자인 빈민층의 경제적인 차이가 심해졌는데, 쿠르베는 그러한 사회 현실을 그림에 옮겼다. 쿠르베의 '돌 깨는 사람들(1849)' 속에 나오는 두 인물은 사회의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노동자, 구체적으로는 채석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어린 소년과 노인이다. 쿠르베는 중노동을 감당하기에 힘겨워 보이고, 낡고 헤진 셔츠와 조끼를 입은 소년과 노인을 모델로 하여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서민들의 삶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Ⅳ. 산업 사회와 국민 국가의 형성

05 제국주의의 등장과 식민지 분할

학습 목표

- 제국주의가 등장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 제국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제국주의 열강의 아시아 · 아프리카 침략 과정을 지도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41	**1. 제국주의의 등장**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교과서 136쪽 그림에 등장한 세 사람의 직업은 각각 무엇일까?	문답식	CD
	[전개] • 제국주의의 개념을 설명하고, 산업 혁명 이후 독점 자본주의를 이룩한 제국주의 열강이 원료 공급지과 상품 시장, 자본의 투자처로 삼고자 식민지를 확대해 갔음을 파악하게 한다. • 제국주의가 민족주의를 명분으로 삼았음을 설명한다. • 사회 진화론과 인종주의가 제국주의 형성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고, 제국주의의 성격을 탐구하게 한다.	강의식 탐구식	 137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다윈의 이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한 스펜서의 이론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학습지
42	**2. 제국주의 열강의 세계 분할**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교과서 138쪽 그림에서 분할 직전의 피자는 어느 나라의 영토를 상징하고 있을까?	문답식	CD
	[전개] • 영국과 프랑스 등 제국주의 열강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 각 지역을 침략하였음을 파악하게 한다. • 제국주의 열강의 아시아 침략과 태평양 분할 과정을 지도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 영국과 프랑스의 아프리카 분할 정책을 지도를 통해 이해하고, 파쇼다 사건의 배경과 결과를 발표하게 한다.	강의식 발표식	 138쪽 지도 139쪽 지도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남아프리카와 이집트를 연결하고자 한 영국의 식민 정책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제국주의의 등장

(1) **독점 자본주의의 출현**

① **제국주의의 등장 배경**

- 산업 구조의 고도화: 산업 혁명 이후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 → 19세기 후반 유럽과 미국에서 중화학 공업 발전
- 독점 자본주의의 등장: 소수의 대기업이 자본을 집중시켜 국내 시장 독점

② **제국주의의 침략**: 새로운 공업 원료와 상품 시장을 확보하고, 국내의 잉여 자본을 투자하고자 아시아 · 아프리카 지역을 식민지화

(2)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①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결합**: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 격화 → 침략적 민족주의 고조

② **제국주의 열강의 활동**: 초기, 영국과 프랑스 중심 → 독일,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이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 → 국제적 긴장 고조

(3) **사회 진화론과 제국주의**

① **사회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에 기초, 적자생존의 원칙 주장(우월한 국가의 열등한 국가 지배를 합리화)

② **인종주의**: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

2. 제국주의 열강의 세계 분할

(1) **아시아의 분할**

① **네덜란드**: 포르투갈을 밀어내고 자와 섬 중심의 향료 무역 독점, 인도네시아 지역 식민지화

② **영국**: 동인도 회사 설립, 프랑스를 물리치고 인도를 식민지화, 말레이 연방 수립, 아편 전쟁으로 중국 침략 확대

③ **프랑스**: 동인도 회사 설립, 청 · 프 전쟁에서 승리한 후 베트남과 캄보디아 차지

(2) **태평양의 분할**

①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식민지화

② **독일 · 프랑스**: 남태평양의 섬들 차지

③ **미국**: 필리핀과 괌 차지, 하와이 병합

(3) **아프리카의 분할**

① **선교사 활동**: 리빙스턴, 스탠리 등의 탐험으로 유럽에 아프리카 소개 → 유럽 열강의 침략 본격화

② **영국과 프랑스의 침략**

- 영국: 종단 정책(이집트와 케이프 식민지 연결 시도)
- 프랑스: 횡단 정책(알제리에서 동쪽 마다가스카르 섬까지 진출 시도)
- 파쇼다 사건(1898):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의 충돌 → 프랑스의 양보

③ **아프리카 분할**

- 벨기에: 콩고 소유 선언 → 유럽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 경쟁 촉진
- 20세기 초의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식민지화(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제외)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36쪽

그림에서 풍자하고 있는 세 사람의 직업은 각각 자본가, 군인, 선교사이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37쪽

1. 영국은 독점 자본주의 발달로 발생한 사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상품을 팔고 자본을 투자할 넓은 시장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침략하고 이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다.
2. 서구 제국주의를 우월하고 착한 존재로, 식민지 주민을 열등하고 악한 존재로 구분하여, 우열 관계에 따른 '사회 진화론'의 논리로써 제국주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38쪽

제국주의 열강에게 시달리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39쪽

1. ① 민족, ② 독점, ③ 사회, ④ 식민지
2. (1) ㉢, (2) ㉠, (3) ㉡
3. (1) 타이, (2)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내용 더하기

제국주의 41차시

제국주의(imperialism)는 '황제(emperor)'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정치적 의미에서는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나 민족을 정벌하려는 침략주의적 경향을 뜻한다.

서양 역사에서는 열강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국가들을 식민지로 차지하기 위해 각축을 벌였던 1870년경부터 1914년까지를 '제국주의 시대'라고 한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유례 없는 현상에 주목하였고, '제국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다. 이렇게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를 지배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식민지에서 착취하려 하였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존 홉슨의 "제국주의 연구"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다시 불황과 실업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식민지 시장 개척, 즉 제국주의라는 것이다. 존 홉슨은 제국주의의 배후에는 과잉 자본을 가진 금융가 계급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존 홉슨의 설명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사회 진화론 41차시

사회 진화론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널리 유행했던 이론으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개인, 집단, 인종에 적용시킨 이론이다. 사회 진화론자들은 인간 사회의 생활을 '생존 경쟁'이라 생각하였고, 그 투쟁은 영국의 사회학자 스펜서(H. Spencer, 1820~1903)가 제창한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의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 진화론자들은 사회도 생물계와 마찬가지로 단순하고 동질적인 것에서 복잡하고 이질적인 것으로 발전해 간다고 보았으며 사회의 진보를 낙관하였다. 사회 진화론은 인간에 의한 진보의 개념을 역사 발전에서 명백하게 하였으나, 19세기 제국주의 팽창의 이론적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과 전후의 불경기를 맞아 사회 진화론은 퇴조하였다.

원주민 전시 41차시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다. 여기에는 식민지관이 따로 있었는데, 실제 살아있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울타리 안에 가둬 놓고 한 달 동안 그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였다. 당시 학자들은 원주민을, 국가를 갖지 않고 사회 조직이 친족 중심이며 교환 경제가 발달하지 않고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미개한 야만인, 즉 인간 이하라고 평가하였다.

세실 로즈 41차시

'다이아몬드는 영원히!'라는 선전 문구로 유명한 드비어스(De Beers) 사를 창립한 세실 로즈(1853~1902)는 다이아몬드 열풍에 편승해 아프리카로 왔다. 그는 본래 일확천금을 노리고 소광구를 채굴하는 일개 광산업자에 지나지 않았지만, 곧 다이아몬드 광산업에 성공하고 독점권까지 가지게 되었다.

세실 로즈는 이에 그치지 않고, 트란스발 공화국에서 발견된 금광에도 진출하여 금 채굴 사업까지 독점하였다. 그는 케이프 주 식민지의 수상을 맡으며 트란스발 공화국을 침입할 계획을 세웠으나, 실패하였고 수상직도 사임해야 했다. 그러나 세실 로즈가 창립한 드비어스 사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말에서 세실 로즈의 제국주의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영국은 국토가 좁아 3,6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600만 명만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우리 영국의 생산품을 팔아먹을 수 있는 지구 상의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장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영국이 세계 제1의 인종이며, 우리 영국인이 지배하는 세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인류가 행복해지며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키플링, '백인의 짐' 41차시

'백인의 짐(The White Man's Burden)'은 "정글북"의 저자로도 유명한 영국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1865~1936)이 1899년 2월에 발표한 시이다. 키플링은 이 시에서 미개한 인종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 백인이 져야 할 짐, 백인의 의무라고 역설한다.

1899년 2월 미국이 에스파냐가 물러난 필리핀을 침략하자, 키플링은 이에 호응하여 '백인의 짐 · 미국과 필리핀 제도'를 발표한다. 여기서 그는 '반은 악마, 반은 어린아이'인 필리핀 인을 미국이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시는 모두 일곱 연이며, 각 연은 "백인의 짐을 져라(Take up the White Man's burden)"로 시작한다.

이 시에서 키플링은 백인이자 영국인인 자신의 인종적 편견과 우월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 야만을 개화시키는 것이 힘들고 고되며 그들에게서 보답은커녕 원망과 비난을 받을지라도, 고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인도 회사 42차시

네덜란드 무역상들이 동남아시아에 관심을 가진 것은 16세기 중반부터였다. 1600년 영국이 인도에 동인도 회사를 세우고 무역 독점권을 동인도 회사에 부여한 것을 보고 자극을 받은 네덜란드도 2년 뒤 동인도 지역에 난립해 있던 무역 회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세웠다.

영국 동인도 회사가 체면치레나마 기독교 전파나 문명화 사명 같은 최소한의 문화적 의무감을 표방했던 데 반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철저하게 이윤 중심으로 움직였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동인도의 여러 섬을 정복하고 특산품을 강제로 재배하게 한 뒤 이를 헐값에 사들이는 등 사실상 제국주의적 수탈을 자행하였다. 인도네시아 자와 섬에 근거지를 마련한 뒤 원주민들을 값싼 임금으로 착취했고 약탈에 가까운 가격으로 향료 등 제품을 독점적으로 사들였다.

1652년 영국 크롬웰 정부가 네덜란드 중개 무역상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항해 조례를 발표하면서 영국과 네덜란드의 1차 전쟁이 시작되었다. 네덜란드는 이 전쟁에서 패했고 이후 3차까지 이어진 전쟁에서도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이후 네덜란드는 아시아 무역의 주도권을 영국에 넘겨줬다. 또 본거지였던 자와 섬 주민의 저항과 회사 경영진의 부패 등으로 회사의 세력이 점차 축소되었다. 18세기 후반 주력이었던 향료 무역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1799년 해산되었다.

리빙스턴과 스탠리 42차시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리빙스턴(1813~1873)은 1840년에 의료 선교사로서 남아프리카에 파견되었으나 점차 전도 사업보다는 탐험에 열중하게 되었다. 그는 1852년에 케이프타운을 출발하여 5년 만에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는 데 성공하였다.

리빙스턴은 1866년에 나일 강의 수원을 찾기 위한 탐험에 나서 온갖 어려움 끝에 콩고 강 지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중 그를 찾아 나선 스탠리를 만나 목숨을 건졌다. 리빙스턴은 그 후에도 조사를 계속하다가 1873년에 이질로 사망하였다.

영국 출신인 스탠리(1841~1904)는 뉴욕 헤럴드 지의 기자로 근무하다, 소식이 끊긴 리빙스턴을 찾으라는 회사의 명령을 받고 1871년 아프리카로 건너가 탕가니카 호 부근에서 병에 걸린 리빙스턴을 구조하였다. 1874년에 다시 행방불명된 리빙스턴을 찾아 아프리카로 간 스탠리는 그곳에서 리빙스턴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다. 스탠리는 탐험을 계속하여 나일 강의 원천인 빅토리아 호를 발견하고, 콩고 강 유역을 답사하여 탐험기를 발간하였다. 그의 탐험기로 콩고에 대한 서구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1876년 벨기에의 국왕 레오폴드 2세가 콩고 협회를 창설하고 스탠리를 후원하여 콩고의 400여 개 부족과 주권 이양 조약을 체결하였다.

벨기에의 콩고 점령 42차시

1878년 벨기에 왕 레오폴드 2세가 본국의 78배나 되는 콩고를 사유지로 선언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반발하였다. 아프리카 진출을 둘러싸고 외교적 절충의 필요를 느낀 유럽 열강은 1884년 비스마르크가 소집한 베를린 회의에서 아프리카 문제를 논의하였다. 베를린 회의에서는 '먼저 점령하여 지배권을 획득한 나라'에 대한 선점권이 인정되었다. 벨기에의 콩고 점령을 인정한 이 결정을 계기로 유럽 열강은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분할에 나서게 되었다.

레오폴드 2세는 식민지(콩고 자유국)에서 콩고 주민을 동원하여 고무를 채취하였고, 상아를 얻기 위해 코끼리를 죽였으며, 수출용 도로를 내기 위해 토목 공사를 벌였다. 레오폴드 2세의 공포 정치는 노예 무역의 충격 이후 아프리카 최악의 인구 재앙을 가져와 총 1,000만 명에 달하는 콩고인이 살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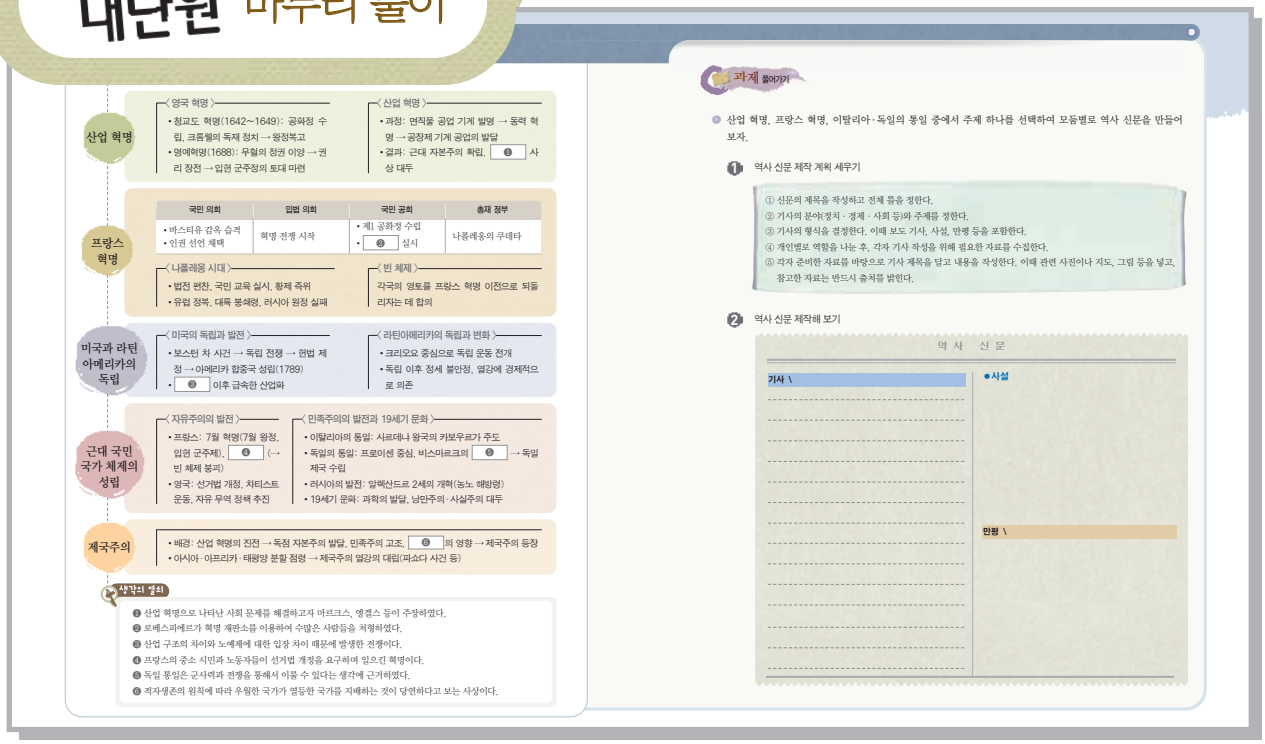
3C 정책 42차시

영국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Cape Town), 이집트의 카이로(Cairo), 인도의 캘커타(Calcutta)를 연결하려던 정책이다. 세 도시 이름의 앞글자가 모두 C여서, 3C 정책이라고 부른다. 이 정책은 세 도시를 연결하여 정치적 · 경제적 세력을 확대하려는 영국 제국주의의 기본 노선을 의미한다. 그러나 케이프타운과 카이로를 연결하는 영국의 종단 정책은 프랑스의 횡단 정책과 충돌하였고, 결국 1898년 파쇼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카이로와 캘커타를 연결하는 영국의 정책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 및 독일의 3B 정책과 대립하였다.

이러한 영국과 독일 · 프랑스 간의 대립은 제1차 세계 대전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대단원 마무리 풀이

교과서 | 140 ~ 141쪽



내용 확인하기

❶ 사회주의

✚ 오언, 생시몽 등은 협동, 계몽을 통하여 생산과 소비를 공동으로 하는 이상 사회를 건설하려 하였다.

❷ 공포 정치

✚ 이 정치는 시민들의 불만을 사 결국 막을 내리고, 다섯 명의 총재가 행정을 담당하는 총재 정부가 수립되었다.

❸ 남북 전쟁

✚ 전쟁 중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여 전세가 북부에 유리해졌다.

❹ 2월 혁명

✚ 시민과 노동자들은 루이 필리프를 쫓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하였다.

❺ 철혈 정책

✚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가 추진하였다.

❻ 사회 진화론

✚ 영국의 스펜서가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였다.

과제 풀어가기

| 지도 요령 |

당시의 정치 · 사회적 배경이 어떠한지 파악하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사의 형식을 결정하고 다양한 형식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도록 한다.

| 예시 답안 | 가리발디와의 인터뷰

기자: 오늘은 이탈리아 통일의 주역인 가리발디 장군을 만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리발디: 네, 안녕하세요.

기자: 요즘 붉은 셔츠 부대의 활약이 상당하던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리발디: 오스트리아에 의해 분열된 우리 이탈리아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이 같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붉은 셔츠 부대만의 활약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

대단원 짚고 가기

01 다음은 시민 혁명 과정에서 나온 문서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은?

> • 국왕이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 • 국민이 국왕에게 청원을 했다고 구금하거나 박해를 받는 것은 위법이다.
> • 의회 내에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은 의회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심문당하지 않는다.

①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②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승인받았다.
③ 입헌 군주정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④ 절대 왕정과 신분 제도가 무너졌다.
⑤ 국민 주권의 원리가 잘 나타나 있다.

02 영국에서 산업 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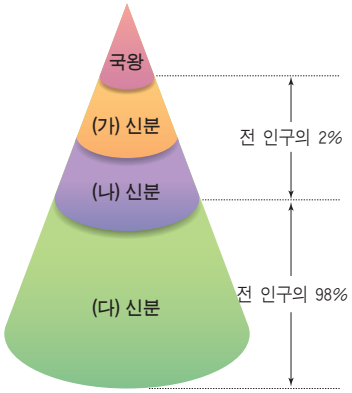
① 시민 혁명 이후 정치와 사회 안정
② 넓은 식민지 확보를 통한 자본 축적
③ 농민들의 도시 이주로 인한 노동력 확보 용이
④ 국가 주도의 보호 무역으로 자본가 계층 성장
⑤ 석탄과 철 등 공업 발전에 필요한 지하자원 풍부

03 산업 혁명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소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 공장제 기계 공업이 발달하였다.
㉢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생겼다.
㉣ 산업 사회에서 농업 사회로 전환되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4~5] 다음 도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04 위 표의 (가), (다)에 해당하는 신분을 쓰시오.

05 위 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제도의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
② (나)는 프랑스 혁명의 주체가 되었다.
③ (다)는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였다.
④ (가), (나)는 오랜 세월 특권을 누렸던 계층이다.
⑤ (가), (나), (다)의 세 신분이 모여 구성한 의회가 삼부회이다.

06 다음 사실과 관련이 깊은 인물은?

> • 혁명 정부 조직
> • 물가 억제, 징병제 실시
> • 혁명 재판소를 통해 공포 정치 실시

① 크롬웰 ② 워싱턴
③ 나폴레옹 ④ 마르크스
⑤ 로베스피에르

07 나폴레옹 집권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 투표를 거쳐 황제에 즉위하였다.
②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승리하여 유럽을 제패하였다.
③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대륙 봉쇄령을 발표하였다.
④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담은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였다.
⑤ 프랑스 은행 설립, 국민 교육 실시 등 내정 개혁을 추진하였다.

08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운동과 관련된 학생들의 대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인: 오랫동안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어.
② 현구: 아이티가 라틴아메리카에서 제일 먼저 독립했어.
③ 예주: 크리오요를 중심으로 독립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지.
④ 은혁: 멕시코에서는 산마르틴이 에스파냐에 대항하여 민중 봉기를 선언하였어.
⑤ 효민: 볼리바르는 에스파냐군과 싸워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을 해방시켰어.

09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 남부와 북부를 비교한 표이다. 옳은 것은?

	구분	남부	북부
①	산업 구조	상공업 발달	대농장 발달
②	중심 세력	산업 자본가	대농장주
③	무역 형태	보호 무역	자유 무역
④	노예제	찬성	반대
⑤	정치 형태	연방주의	분권주의

10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것은?

- 21세 이상 남자의 보통 선거권 인정
- 인구 비례에 따른 평등 선거구 설정
- 의원 출마자의 재산 자격 제한 폐지
- 비밀 투표 보장

① 노동자들이 주도한 차티스트 운동이다.
② 루이 필리프를 시민의 왕으로 선출하였다.
③ 루이 필리프를 쫓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하였다.
④ 메테르니히가 추방되면서 빈 체제가 무너졌다.
⑤ 사르데냐 왕국의 수상 카보우르가 주도하였다.

11 다음 그림과 관련된 세계의 상황을 잘못 설명한 것은?



① 19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다.
②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서 나타났다.
③ 자본을 투자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려 하였다.
④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도하였다.
⑤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스트당이, 독일에서는 나치당이 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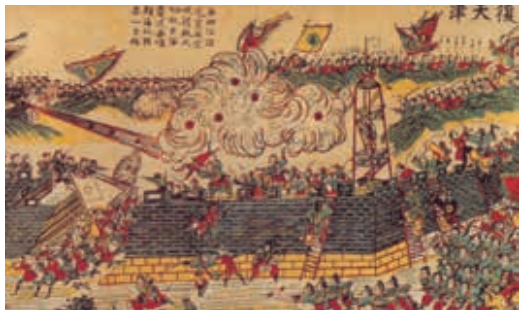
정답

01 ③ **02** ④ **03** ④ **04** (가) 성직자, (다) 평민(시민 계급, 농민, 노동자) **05** ② **06** ⑤ **07** ② **08** ④ **09** ④ **10** ① **11** ⑤

V 아시아·아프리카 세계의 변화와 민족 운동

① 단원의 개관

이 단원에서는 19세기 제국주의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아시아 · 아프리카 지역이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받는 과정을 알아본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 · 아프리카 인들이 제국주의 수탈과 억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민족의식이 성장하고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는 모습을 살펴본다. 또한 이 지역의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이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20세기 이후 민족적 발전의 토대가 되었음을 이해한다.



▲ 중국의 의화단 운동

01. 중국의 근대적 국가 체제 수립 운동에서는 아편 전쟁으로 개항한 중국에서 전개된 근대적 국가 체제 수립 운동의 내용과 주도 세력을 살펴본다. 한편 근대화 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의 주장을 비교하여 중국 근대화 과정의 특징을 알아본다.

02. 일본의 근대적 국가 체제 형성에서는 에도 막부가 미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하여 문호를 개방한 후 근대적 국가 체제를 형성하고 제국주의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화의 토대가 되었던 메이지 유신의 내용과 한계 · 의의를 파악하고, 일본과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비교해 본다.

03.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반제국주의 운동에서는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인도를 침탈해 가면서 영국령 인도 제국을 세우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 시기 영국의 지배에 저항하는 인도인들의 노력을 세포이 항쟁과 인도 국민 회의의 활동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한편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맞선 동남아시아의 민족 운동과 근대화 운동을 알아본다.

04. 서아시아의 개혁 운동과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에서는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영토가 축소되는 등 위기에 처한 오스만 제국이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과 그 내용을 알아보고, 유럽 열강에 맞서 민족의식을 키워 가는 아랍 세계의 모습을 통해 서아시아의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을 파악한다. 또한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과 수탈에 대항하는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을 살펴본다.

② 단원의 목표

지식 · 이해	• 중국과 일본의 개항 및 근대화 운동의 전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인도의 반영 민족주의 운동의 내용과 특징을 알 수 있다. •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인들이 전개한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을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능	• 일본과 중국의 근대화 과정이 지닌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운동이 실패한 원인을 추론할 수 있다. •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저항하여 일어난 동남아시아 민족 운동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가치 · 태도	• 위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이 갖는 한계를 깨닫는다. •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대항하여 전개된 아시아 · 아프리카 인들의 민족 운동이 20세기 이후 아시아 · 아프리카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이해하는 태도를 갖춘다.

3 단원의 구조와 지도 계획

차시	중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
43	01. 중국의 근대적 국가 체제 수립 운동	1. 아편 전쟁과 중국의 문호 개방	삼각 무역, 아편 전쟁, 난징 조약, 중국의 개항, 애로호 사건, 톈진 조약, 베이징 조약, 불평등 조약
44		2. 근대적 국가 체제 수립 운동(1)	태평천국 운동, 홍수전, 양무운동, 청 · 일 전쟁, 변법자강 운동, 캉유웨이
45		2. 근대적 국가 체제 수립 운동(2)	의화단 운동, 신해혁명, 쑨원, 중화민국, 위안스카이
46	02. 일본의 근대적 국가 체제 형성	1. 일본의 개항과 메이지 유신	미 · 일 화친 조약, 미 · 일 수호 통상 조약, 메이지 유신, 입헌 군주제
47		2. 일본의 제국주의화	강화도 조약, 청 · 일 전쟁, 시모노세키 조약, 삼국 간섭, 러 · 일 전쟁, 포츠머스 조약
48	03.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반제국주의 운동	1. 인도의 민족 운동	동인도 회사, 플라시 전투, 인도 면직업 몰락, 세포이의 항쟁, 영국령 인도 제국, 인도 국민 회의, 벵골 분할령
49		2. 동남아시아의 반제국주의 운동	판보이쩌우, 베트남 유신회, 이슬람 동맹, 필리핀 동맹, 호세 리살, 타이의 독립 유지, 라마 5세
50	04. 서아시아의 개혁 운동과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1. 서아시아의 근대 국가 수립 운동	탄지마트, 청년 튀르크당, 와하브 운동, 아랍 문화 부흥 운동, 이란의 담배 불매 운동과 입헌 혁명
51		2.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무함마드 알리의 개혁, 수에즈 운하, 아라비 파샤의 항쟁, 줄루 왕국, 에티오피아와 이탈리아의 전쟁

4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앞서가던 아시아가 왜 서양의 침략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도 필요함을 유의한다.
- 중국의 근대적 국가 체제 수립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개별적인 사실들의 나열과 암기에 치우치지 않고 흐름과 특성을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 아시아 · 아프리카 인들이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근대 국민 국가'의 길을 모색하는 노력이 있었음을 이해하게 한다.

5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 신성곤 외,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서해문집, 2004.
- 김성한, "교실 밖 세계사 여행", 사계절, 1999.
- 교육 과학 기술부, "사료로 보는 세계사", 2012.
- 우경윤,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동양편]", 두리미디어, 2004.
- 이희수 옮김, "중동의 역사", 까치글방, 1998.
- 세계사 신문 편찬 위원회 편, "세계사 신문 2 · 3", 사계절, 1999.
- 교수 학습 개발 센터 http://classroom.re.kr/201109/

| 교과서 |
144 ~ 149쪽

Ⅴ. 아시아 · 아프리카 세계의 변화와 민족 운동

01 중국의 근대적 국가 체제 수립 운동

학습 목표

- 중국이 아편 전쟁으로 개항하는 과정을 말할 수 있다.
- 중국이 개항 때 맺은 조약이 불평등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개항 이후 중국에서 근대 국가 체제를 수립하고자 진행한 노력을 파악할 수 있다.
- 신해혁명으로 공화정이 수립되는 과정과 그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43	**1. 아편 전쟁과 중국의 문호 개방**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중국은 어떤 과정을 거쳐 문호를 개방하였을까?	문답식	
	[전개]		
	• 중국과 영국의 무역 구조를 파악하여 아편의 중국 유입 배경을 설명한다.	강의식	144쪽 도표
	• 두 차례의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PPT
	• 아편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조약의 내용을 통해 불평등 조약에 대하여 파악하게 한다.	탐구식	145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영국이 행한 무역 형태는?		
	2. 아편 전쟁에서 패한 청이 문호를 개방한 조약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44	**2. 근대적 국가 체제 수립 운동**(1)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청 타도를 주장하고 크리스트교와 유교 사상을 융합한 이상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운동은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태평천국 운동의 배경을 살펴보고, 이 운동에서 주장한 내용의 특징을 설명한다.	강의식	146쪽 자료
	• 중국의 체제는 유지한 채 서양의 과학 기술만을 수용하여 근대화를 시도했던 양무운동의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게 한다.	탐구식	PPT
	• 청 · 일 전쟁의 패배에서 교훈을 얻은 청이 새로이 추진한 변법자강 운동의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147쪽 자료
	• 양무운동과 변법자강 운동의 차이점을 정리하게 한다.	자기 주도식	

44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양무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은? 2. 변법자강 운동에서 모범으로 삼은 일본의 개혁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학습지
45	**2. 근대적 국가 체제 수립 운동**(2)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 **진단 평가 실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자 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전개] •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맞서고자 했던 의화단 운동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 그 결과가 지닌 의미를 설명한다. • 신해혁명으로 청조가 붕괴되는 과정과 새롭게 수립된 정부가 지닌 과제를 탐구하게 한다. • 중국 근대화 운동의 각 단계에서 나타난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우창 봉기로 시작되어 청조의 멸망을 가져온 사건은?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강의식 탐구식 발표식 문답식	CD PPT 149쪽 자료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아편 전쟁과 중국의 문호 개방

(1) 청 말의 사회 혼란과 삼각 무역

① **청 말의 혼란**: 사회 · 경제적 모순, 관리 부패 → 백련교의 난, 농민 봉기 발생

② **영국의 삼각 무역**

- 배경: 영국의 중국산 차 대량 수입으로 무역 불균형 심화 → 영국이 중국에 인도산 아편 수출
- 결과: 청의 아편 중독자 증가와 은의 대량 유출 → 무역 적자 확대로 재정 위기

(2) 아편 전쟁

① 아편 전쟁(1840)

- 배경: 임칙서의 아편 몰수 및 폐기
- 결과: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 체결 → 청의 문호 개방

② **제2차 아편 전쟁**

- 배경: 애로호 사건
- 과정: 영국이 프랑스와 함께 베이징 점령
- 결과: 톈진 조약, 베이징 조약 체결 → 추가 개항, 크리스트교 포교 허용

2. 근대적 국가 체제 수립 운동

(1) 태평천국 운동

① **배경**: 청의 권위 손상, 세금 증가와 물가 폭등으로 민중 생활 궁핍

② **전개**

- 중심 세력 : 홍수전이 조직한 종교 집단
- 목표: 청조 타도, 크리스트교와 유교 사상을 융합한 이상 국가 건설
- 개혁 운동: 남녀평등, 토지 균분, 악습 철폐 → 농민의 호응, 세력 확장

③ **결과**: 한인 의용군과 외국 군대에 진압

(2) 양무운동

① **배경**: 아편 전쟁과 태평천국 운동 과정에서 서양 무기의 우수성 확인

② **전개**

- 중심인물: 증국번, 이홍장 등 한인 관료
- 목표: 서양 근대 기술 수용을 통한 산업과 군사의 개선

③ **한계**

- 기존 체제는 유지한 상태로 서양의 기술만 수용
- 일관성 없는 개혁 추진과 보수 세력의 반발로 성과 제한

(3) 변법자강 운동

① **배경**: 청 · 일 전쟁으로 양무운동의 한계 노출

② **전개**: 일본 메이지 유신 모델
- 중심인물: 캉유웨이, 량치차오 등 지식인
- 개혁 내용: 정치 제도의 개혁(변법) 주장 → 과거제 폐지, 신교육 실시, 상공업 진흥 등을 통한 부국강병 추진
- 결과: 서 태후 등 보수파의 탄압으로 실패

(4) **의화단 운동**
① **주장**: 청을 도와 서양 세력 축출
② **전개**: 크리스트교 교회 습격, 철도 시설 파괴, 외국 공사관 공격 → 제국주의 연합군의 무력 진압
③ **결과**: 청의 배상금 지불, 베이징에 외국 군대 주둔 허용

(5) **신해혁명**
① **배경**: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본격화, 개혁의 실패
② **쑨원**: 중국 동맹회 결성, 삼민주의 제창
③ **신해혁명(1911)**: 청의 민간 철도 국유화 조치 반대 운동 → 우창에서 반청 봉기 → 전국으로 확산 → 청조 멸망, 중화민국 수립(1912)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44쪽

1793년 영국의 특명 전권 대사로 중국에 간 매카트니는 건륭제를 알현하고자 하였는데, 중국에서는 그를 조공국의 사신 정도로 대우하여 세 번 무릎 꿇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궤구고두(三跪九叩頭)의 예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매카트니는 자신은 청 속국의 신하가 아니라며 이 요구를 거절하였다. 결국 건륭제(乾隆帝)의 재량에 따라 영국 국왕 알현 때와 같은 예를 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46쪽

중국의 기존 체제를 유지한 채 서양의 기술만 도입하는 양무운동은 제한된 성과만을 거두었고, 청 · 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한계가 드러났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49쪽

1. 예시 답안
① 이홍장: 중국의 자강을 위하여 외국(서양)의 기술을 도입하자는 것인데, 이 경우 중국 전통 체제에 대한 개혁은 고려되지 않았다.
② 캉유웨이: 서양의 의회 제도를 도입하여 중국의 제도를 바꾸려 하였으나 청조의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③ 쑨원: 청조를 타도하고 공화 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2. ① 이홍장: 황제 지배 체제, ② 캉유웨이: 입헌 군주제, ③ 쑨원: 공화정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49쪽

1. (1) ×, (2) ×, (3) ○, (4) ○
2. (1) ㉠, (2) ㉢, (3) ㉡
3. (1) 태평천국, (2) 신해혁명

내용 더하기

신항로 발견 이후 유럽의 대 아시아 무역 43차시

1486년 포르투갈 인 바스쿠 다 가마가 희망봉을 돌아 인도 서해안의 캘리컷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유럽 인들이 열망하던 아시아로 가는 직항로가 열렸다. 유럽 인들이 처음에 눈독을 들인 것은 후추, 정향, 육두구 등의 향료였다. 향료는 유럽 인들의 육류 소비와 관련되어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 인들은 인도의 고아에 기지를 두고 그들이 도착하기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교역망을 이용하여 믈라카 해협에서 생산되는 향료를 샀다. 1580년 포르투갈이 에스파냐 왕실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이후 향료 무역의 주도권은 네덜란드로 넘어갔다. 네덜란드 인들은 향료가 생산되는 동남아시아 섬 내부까지 진출하여 이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유럽 국가들은 향료 못지않게 중국과의 무역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미 16세기 초반 포르투갈 인들은 믈라카 해협에 진출한 광둥 상인들을 따라 중국 동남해안에 도착하여 비단과 도자기를 구입하였다. 또한 이들은 명 정부로부터 마카오를 얻어서 중국의 비단실과 일본의 은, 구리 등을 중계 무역하여 크게 이득을 보기도 하였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비단, 도자기, 차 등의 물품이 아시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향료의 비중은 점차 축소되어 갔다. 17세기 전반까지 유럽 인들의 아시아 무역에서 중요한 상품이었던 향료의 무역액은 17세기 말에 20% 정도로 하락하고, 18세기에 이르러서는 5%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아졌다. 이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중국 무역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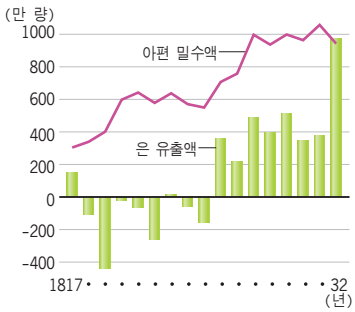
유럽 국가 중 최종적으로 아시아 무역의 패권을 장악하

고 중국에 접근한 것은 영국이었다. 특히 18세기에 들어 중국에서 수입하는 차는 영국인들의 대표적인 기호품이 되었다. 당시 런던의 노동자는 자기 수입의 5%를 차를 구입하는 데 쓰기도 하였다. 또한 산업 혁명 이후 '광대한 상품 시장' 개척이 절실히 필요해진 영국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그 필요성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약간의 환상이 가미된 것이었지만 "4억 중국인의 셔츠가 1인치씩만 늘어도 영국 공장이 30년 동안 가동된다."라는 말을 통해 중국 시장을 개방하려는 영국인들의 집요한 노력을 알 수 있다.

아편의 상품화와 중국의 상황 43차시

중국과의 무역이 급증하면서 영국에서는 무역 역조가 발생하였다. 영국은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해 동인도 회사와 상인들을 앞세워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판매하였다. 이전에도 중국인들이 아편을 피우는 습관이 있었지만, 영국이 아편을 수출하게 된 이후에 아편 흡연은 급격히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1801년 4천 상자 수준이던 영국의 아편 수출은 1823년에 1만 상자를 초과하였고, 10년 뒤에는 2만 상자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전 인구의 약 10% 정도가 아편 흡연자가 되었고, 아편 대금으로 대량의 은이 중국에서 빠져나갔다.

아편 흡연으로 국민의 건강 문제와 함께 은의 유출에 따른 경제 문제가 심각해지자 청 정부는 몇 차례에 걸쳐 아편 금지령을 내렸으나, 영국 상인들의 이익 추구 욕구와 만연한 아편 흡연 풍조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영국 정부도 아편 무역의 이익금으로 국내의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편 무역을 금지시키는 데 소극적이었다. 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게 하였다.



◀ **청의 아편 유입과 은의 유출**
아편의 밀수액이 증가할수록 은 유출액이 증가하였으며, 은의 가격도 상승하였다.

청의 아편 금지 조치 43차시

청 정부는 1839년 임칙서를 전권대신으로 임명하여 아편 문제 해결을 위한 전권을 위임하였다. 임칙서는 중국인 범법자를 체포·처벌하였으며 약 2만 상자의 아편을 몰수·파기하고, 외국 상인에 대해 아편 무역 포기 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칙서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게 편지를 써 영국이 청에 아편을 팔아 중국인이 이를 피도록 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영국은 청에 전쟁을 선포하였다.

아편 전쟁을 반대한 글래드스턴의 의회 발언(1840) 43차시

중국은 아편을 금지시킬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편의 무서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국의 외무 장관은 이 불공정한 무역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놓고 볼 때 이 전쟁보다 더 의롭지 못한 전쟁이나 이 전쟁보다 더 우리나라를 영원히 치욕스럽게 만든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아직 알지 못하고 또 읽어 본 적도 없습니다. 저 건너편의 존경스러운 신사 분께서는 광저우에서 자랑스럽게 펄럭이고 있는 영국 국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파렴치한 밀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게양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국기가 지금 중국 연해에서와 같은 식으로 휘날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기만 해도 공포감을 느끼고 전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영국 자유당 소속의 하원 의원인 글래드스턴은 의회의 전쟁 결의에 앞서 위와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중국 정부가 영국의 아편을 단속하자, 영국은 중국이 자유 무역을 가로막는다며 전쟁을 일으키려 하였다. 글래드스턴은 이를 부도덕한 전쟁이라며 비판하였다.

난징 조약 43차시

제3조 청국 황제 폐하는, 영국 여황제 폐하에게 홍콩을 넘겨주어 영국 여황제 폐하께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률로써 통치한다.

제5조 앞으로는 그런 관행(공행하고만 거래하는 것)을 폐지하고 누구와도 자유롭게 통상할 것을 허용하기로 약속한다.

1842년 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으로 청이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 열강의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광저우 등 5개의 항구를 개항하고,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였으며, 공행 제도를 폐지하고, 2,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전쟁의 원인이 된 아편 무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듬해 난징 조약의 보충 조약으로 호문 추가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영사 재판권과 최혜국 대우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때부터 영국은 중국의 주권을 제약하고,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었다. 이후 1844년 미국과 프랑스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중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중국은 열강의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다.

제2차 아편 전쟁의 배경과 결과 43차시

아편 전쟁의 결과 난징 조약이 체결되었으나 청과 영국은 모두 이 조약에 불만족하여 양국 간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청은 아편 무역의 증대, 전통 질서를 위협하는 크리스트교 포교 등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한편 영국은 생각한 것처럼 자국의 상품 수출이 증대되지 않았고, 베이징에 외교 공관을 개설하지 못한데다가 선교 활동의 자유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영국은 조약 개정의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홍콩에 등록된 중국인 소유의 애로호에 게양된 영국기가 그 빌미를 만들어 주었다. 이 배에 아편과 해적을 은닉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은 중국 관헌이 애로호를 수색하자, 영국은 자국 국기가 모욕당했다는 것을 구실로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던 프랑스와 연합하여 광저우를 공격하였다(1856).

다시 벌어진 영국 · 프랑스 연합군과 중국 간의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군은 톈진을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고 톈진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조약의 비준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다시 공격을 계속하여 베이징을 점령한 뒤 톈진 조약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여기에 몇 가지 조항을 덧붙인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였다(1860). 베이징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양 외교 사절이 베이징에 상주할 수 있게 할 것.
- 난징 조약 때의 5개항 외 양쯔 강(창장 강)과 북부 지방, 기타 등지에서 톈진을 포함한 10여 개 항구를 추가 개항할 것
- 외국인의 중국 내륙 지역 여행 권리를 인정할 것.
- 크리스트교의 선교의 자유를 인정할 것.
- 홍콩 옆의 주룽 반도를 영국에 할양할 것.
- 영국과 프랑스에게 각각 800만 냥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

베이징 조약의 결과 중국의 항구뿐만 아니라 내륙 지방에서도 외국인들이 활동하게 되면서 서양 자본주의가 내륙 깊숙이 침투하여 중국인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홍수전과 배상제회 44차시

홍수전은 과거 시험에 여러 차례 낙방하고 실망과 좌절감, 그리고 주변의 기대를 저버린 데 대한 죄책감 등으로 괴로워하면서 방황하였다. 1837년 또 다시 과거에 낙방한 홍수전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며 삶과 죽음 사이를 오락가락하였다. 그는 열병의 고통을 겪으면서 신기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어떤 노인에게서 '악마와 요괴들을 무찌르고 세상을 악으로부터 구해 내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다. 그는 꿈의 내용이 몇 년 전에 서양 선교사로부터 우연히 받았던 "권세양언"이라는 크리스트교 포교를 위한 책의 내용과 일치함을 알고 그 꿈속의 노인을 상제, 즉 여호와라 생각하고 배상제회를 조직하였다. 그 후 청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된 배상제회는 1851년 광시 성에서 가난한 농민들과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모아 봉기하였다.

태평천국 운동 44차시

태평천국은 수천 년 동안 중국을 지배해 왔던 유교에 입각한 사회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크리스트교의 하나님을 숭배한 점에서 이전에 등장했던 중국의 다른 왕조들과 구별된다. 천왕 홍수전을 비롯한 여섯 왕은 하나님(상제)의 뜻을 집행하는 지상 대리인이다. 태평천국은 원시 공산 사회를 연상시킬 정도의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였다. 난징을 점령한 이후 실시된 사회 편제를 보면 25인 단위로 사회를 조직하고, 토지를 비롯한 가옥과 재산을 처분하여 공동 재산으로 만든 뒤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할 것을 표방하였다. 또한 여성을 차별하던 대표적 악습인 전족을 금지하는 등 남녀평등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일상생활에도 종교적 금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술, 담배, 아편을 금지하고 남녀의 접촉도 규제하였다.

무력해진 청의 팔기군은 태평천국군을 진압할 능력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태평천국이 유교적 사회 질서를 부정하고 토지의 균등 분배를 내세우자, 신사층이 강하게 반발하였다. 태평천국이 "만주족을 쫓아내고 한족 국가를 건설하자."라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증국번, 이홍장 등 유명한 한인 학자들은 의용병(향용)을 조직하여 이들을 진압하였다.

한편, 크리스트교 국가를 선언한 태평천국에 대하여 정세를 관망하던 서양 세력도 태평천국의 정책이 자신들의 세력 확대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후에는 상승군을 조직하여 태평천국의 진압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홍수전이 지나치게 종교에 몰입하고 여타 지도층 사이에 분열이 생기면서 태평천국 운동은 활력을 잃고 진압되었다.

여성 차별의 대표적 악습, 전족 44차시

전족은 당 말 5대 무렵에 본격적으로 출현하였는데, 무희들이 예술적 효과를 위해 발을 묶은 것을 궁중 여인들이나 상류층 부인들이 흉내 낸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 후 원, 명, 청을 지나면서 전족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되었고, 전족을 하지 않은 큰 발은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인위적으로 발을 작게 만드는 데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랐다. 처음 전족을 하는 어린아이들은 고통을 참지 못하여 발을 만지며 울부짖었으며, 피가 나고 살갗이 벗겨지며 고름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음식을 넘기기도 어려워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전족은 여성을 남성에게 예속시키고, 집안에 묶어 두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유교적 남존여비 사상에 바탕을 둔 악습이었다.

이홍장과 양무운동 44차시

>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의 총포나 기선의 뛰어난 성능을 믿고 중국에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용되는 무기로는 도저히 그들과 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 눌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라는 외침이 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꿈에 불과합니다. 외국과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을 지키려면 그에 대한 방비가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작은 나라이지만 최근 서양과 통상을 하며 제철소를 세워 기선을 만들고 서양의 무기를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 저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국가의 모든 경비를 절약해야 하나, 병사를 기르고 총포나 군함을 제조하는 데 드는 비용만은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 - 이홍장의 상소문

이홍장은 창장 강 유역인 안후이 성의 지주 출신이다. 유학자로 널리 알려진 증국번에게서 학문을 배웠으며,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증국번과 함께 향용(의용병)을 조직하여 이를 진압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이때 조직된 군대의 힘을 바탕으로 계속되는 농민 봉기를 진압하고, 청의 조정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 직예(허베이 성) 총독과 북양 대신을 겸하면서 군수 공업을 비롯한 근대 산업의 육성을 주도하였으며, 근대적 군대를 편성하였다.

그는 청 말의 주요 외교 문제를 거의 혼자서 장악하였는데, 이이제이(以夷制夷)라는 전통적 수단으로써 열강들을 서로 견제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양보와 타협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양무운동의 결과 44차시

청은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생각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였는데, 막상 청 · 일 전쟁이 일어나자 그동안 많은 노력을 들여 육성했던 이홍장의 북양 함대가 일본 해군에게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청 · 일 전쟁은 이홍장이 추진한 양무운동이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그 이전에 좌종당이 이끈 남양 해군도 인도차이나 반도로 침투하는 프랑스에 맞서 청 · 프 전쟁을 벌였으나 패한 바 있었다.

양무운동 추진 과정에서 서양 열강은 양무파들이 운영하는 공장에 기술자를 파견하고 기계를 수출하였으며, 차관을 주어 경제적 지배권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서구의 실용적 과학 기술을 도입하여 근대화를 이룩하고자 했던 중국의 노력은 주권의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성공하지 못한 셈이었다.

양무운동과 메이지 유신의 충돌, 청 · 일 전쟁 44차시

청과 일본은 각각 영국과 미국의 무력에 굴복하여 세계 무역 체제에 편입된 이후 유럽 문화를 수용하고자 양무운동과 메이지 유신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두 나라의 역사와 전통이 다른 만큼 개혁의 방향도 달랐다.

오랜 기간 동아시아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국은 유럽 세력의 우월함을 인정할 수 없었다. 중국은 유럽 문명의 우수성이 무기를 중심으로 한 기술 문명에 국한된 것이라 여기고, 사회 체제와 사상적 전통은 여전히 중국에 뒤져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유럽 문명 수용은 무기를 비롯한 군사력을 강화하여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는 수단에 불과하였다. 반면 동아시아 세계의 주변이었던 일본은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수립한 뒤 군비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사민평등을 선언하고 국민의 보통 교육에 힘썼으며 입헌 군주정을 지향하는 등 사회 체제 전반에 걸친 개혁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개혁 노선의 차이는 1894년 청 · 일 전쟁으로 그 성패가 드러났다. 일본 해군은 청의 북양 함대를 황해에서 격파하고, 육군은 평양에서 청에게 대승을 거두었다. 일본 육군은 내친 김에 랴오둥 반도로 진격하여 중국 본토까지 위협하였다. 청 · 일 전쟁이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

요인을 여러 가지 꼽을 수 있지만, 청이 황실 행사 등에 예산을 낭비하여 군비 투자에 전념할 수 없었던 점이 직접적인 것이었다. 이는 전통적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군비 강화의 한계였다.

청 · 일 전쟁의 결과는 양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청에게서 막대한 배상금을 받은 일본은 본격적으로 산업 혁명에 돌입하며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해 간 반면, 허약한 실상을 드러낸 중국은 한층 거세어진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인들의 위기의식이 고조되었고, 각 세력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변법자강 운동 44차시

중국에서는 애로 전쟁 · 태평천국의 난 이래 증국번 · 이홍장 · 좌종당 등이 앞서서 이러한 서양 근대의 물질문화를 받아들였으나, 부강을 이루지 못했음은 프랑스와 일본에 계속 패한 것으로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째서 패하였는가? 그 가장 큰 원인은 일반 국민은 정치에 무관심하여 그저 국가를 위해 조세만 납부하며, 국가는 치안을 유지해 주면 충분하다고 여겨 왔기 때문이다. …… 이런 까닭에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제도를 배워야 한다. - 캉유웨이의 연설문

양무운동이 실패한 후 중국의 지배층 사이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한 인물이 캉유웨이, 량치차오와 같은 이른바 '변법파'였다. 캉유웨이는 공자의 사상을 새롭게 해석하여 자신의 개혁 사상을 합리화하였다. 즉 "옛것에 비추어 오늘의 제도를 고친다."라는 말을 빌어 온 것이다. 캉유웨이를 중심으로 하는 변법 개혁파들은 자본주의 체제 도입, 입헌 정치 실시, 유럽의 학술과 교육 도입, 과거제 개혁, 신문 · 잡지 발행, 우편 사업, 육 · 해군의 근대화 등을 주장하였다. 변법자강 운동은 젊은 황제 광서제의 지지를 받았으나, 서 태후가 중심이 된 수구파들과 이들과 연합한 위안스카이의 무력 탄압으로 좌절되었다.

의화단 운동, "서양 귀신을 몰아내고 청조를 지키자!" 45차시

크리스트교는 서양의 침략과 함께 중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이 크리스트교를 침략자의 종교로 인식하고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반감은 크리스트교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 운동으로 이어져 '구교 운동(仇教運動)'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유교 질서의 유지를 원하는 보수적 관료와 지방의 실력자인 향신층이 이 운동을 주도하였다.

크리스트교에 대항하는 비밀 결사도 조직되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화단이었다. 이들은 상당 기간 동안 의화권이라는 권법을 수련했으며, 무술이 깊어지면 총알도 피할 수 있고 하늘을 날 수도 있다고 믿었다. 의화단은 예수에 대항하고자 옥황상제에서 손오공에 이르기까지 중국 전통 신앙에서 여러 숭배 대상을 찾았다. 1900년 5월 의화단 세력은 톈진과 베이징에 들어가 모든 외국 세력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하면서 외국 공사관이 모여 있는 지역을 포위하였다. 당시 의화단 세력은 약 20만 정도였다고 한다. 서 태후는 의화단의 진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후에는 오히려 이들을 이용하여 열강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이에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미국, 러시아 등 8개국 연합군이 톈진과 베이징을 공격하여 진압하였다.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 45차시

우리 중국에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미친 듯이 입헌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입헌이란 즉,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인민을 사지(死地)로 내보내는 정책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어찌 말하지 않는 것일까?

철도 이권의 회수는 민간의 것이며 이래저래 전보로 협의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도 우전부(郵傳部)는 대체 어떠한 권한이 있어서 인민이 전신을 보내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새로운 내각은 전횡하며 야만스럽고 조정을 경시하고, 인민으로부터 약탈하고, 선조를 배신하고, 황제 폐하를 기만하고 있다. 단 한 사람의 방자함으로 불공평한 말을 인정하고, 전 중국을 사냥감으로 여기며, 조정을 많은 민중이 한탄하는 곳으로 만들며, 거칠면서 전혀 심사숙고하지 않고, 상민(商民)이 피나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출자한 수천만금을 빼앗아 감으로써 상민이 소리 지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새로운 내각이 야만스러우며 전횡하고 있는 것이 동서고금에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내각과 싸우지 않는다면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이며 영원히 입헌이라는 두 글자를 문제로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만일 아직도 헌법의 수십조 조문에 의거해 우리나라를 소생시키고 우리 인민을 구한다고 하면 전력을 다해 싸우는 방법 외에는 없다. ……

정부의 철도 차관 계약은 실은 인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계약이다. 600만 파운드의 후광[湖廣] 철도 차관 계약은 전부 25조인데 사실 3개의 성에 걸치는 전체 길이 3600리(약 1800km)의 철도 행정의 전권을 완전히 외국인에게 넘겨주는

내용이다. 40년 사이 쇠못 한 개를 구입하면서도, 하인 한 명을 쓰는 데도 중국인이 의견을 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은 이미 성립되었고 (우전부 대신인) 성쉬안화이[盛宣懷]가 어떤 말을 해도 변명의 여지는 없다. 자정원과 자의국 혹은 주주가 논의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외국인은 많은 은량을 은행과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40년간 인정된 것은 전적으로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죄가 있는 것일까?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이대로라면) 전면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청 정부는 1911년 5월 통일적인 철도 운영 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민영 철도를 일단 국유화한다고 하였다. 철도 국유화 방침에 후난 성, 후베이 성, 쓰촨 성, 광둥 성에서 격렬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의 중심 조직은 쓰촨 보로 동지회[四川保路同志會]였다. 철도 국유화 반대 투쟁은 청조에 대한 납세 거부나 각 기관에 대한 공격으로 격화되면서 성 당국의 탄압을 받았으나, 운동은 오히려 더욱 확대되어 신해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쑨원〔孫文, 1866~1925〕과 신해혁명 45차시

…… 소수의 만주인이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민족 혁명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것이며, 군주 한 사람이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 혁명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것이며, 소수의 부자가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혁명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

쑨원은 혁명의 이념으로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를 내세웠다. 민족주의는 청조를 타도하고 한족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고, 민권주의는 모든 국민이 정치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민생주의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개혁의 실시를 의미한다.

쑨원은 광둥 성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14세 때 하와이로 건너갔다가 18세 때 귀국하여 의사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그는 의학교 재학 당시부터 반청(反淸) 활동을 하였으며, 만주족의 청을 물리치고 사회 혁명을 이룩해야만 중국의 민족적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고 믿었다.

쑨원은 청 · 일 전쟁 직후 청을 타도하고자 군사를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일본에 망명하였다. 이후 국외에서 활동하면서, 1905년에는 혁명 세력을 통합한 중국 혁명 동맹회를 결성하고, 무장 봉기를 되풀이하였다.

1911년 10월 미국에서 군자금을 모금하던 중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곧바로 귀국하여, 임시 대총통(大總統)에 추대되어 이듬해 1월 1일 중화민국을 선포하였다. 신해혁명 이후 군인 정치가들이 정권을 독차지하자, 그는 광둥을 중심으로 국민당을 조직하여 반군벌 · 반제국주의 투쟁을 벌여 나갔다.

신해혁명 이후의 중국 45차시

신해혁명으로 민주 공화국이 수립되었지만 중국의 앞날이 밝은 것은 아니었다. 청조는 사라졌지만, 이홍장에 이어 북양군을 장악한 위안스카이를 비롯한 강력한 군벌 세력들이 각지에 할거하고 있었다. 또한 중화민국의 수립이 군사력을 장악한 위안스카이와의 타협을 거쳐 이루어졌듯이 쑨원을 중심으로 한 혁명 세력의 역량도 한계가 있었다.

당시 혁명 세력은 민중의 힘을 끌어들여 역량을 강화하여 군벌을 물리치고 통일을 이룩함과 동시에 무력과 각종 불평등 조약을 바탕으로 중국을 침략하는 서양과 일본에 맞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위안스카이의 쿠데타로 다시 망명을 떠난 쑨원은 혁명을 완수하고자 민중의 역량과 결합하고 소련의 지원을 얻기 위해 공산당과 합작하는 노선을 선택하였다.



▲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에 취임한 위안스카이(가운데)(1912)

Ⅴ. 아시아 · 아프리카 세계의 변화와 민족 운동

02 일본의 근대적 국가 체제 형성

학습 목표

- 일본이 미국과 조약을 맺어 개항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배경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다.
- 청 · 일 전쟁과 러 · 일 전쟁의 배경 및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46	**1. 일본의 개항과 메이지 유신**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쇄국 정책을 펼치던 에도 정부가 개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일본이 미국의 무력시위에 굴복하여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개항하였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150쪽 지도
	• 개항 이후 일본의 상황과 함께 막부 타도 운동으로 천황 중심의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설명한다.		
	• 메이지 유신의 내용을 살펴보고,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한 요인을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152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포함 외교로 일본을 개항시킨 미군 제독은?		
	2. 메이지 유신으로 성립된 메이지 정부가 수도로 삼은 곳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47	**2. 일본의 제국주의화**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일본과 중국의 근대화 과정은 어떻게 다를까?	문답식	
	[전개]		
	• 일본이 근대화를 이룩한 후 대외 침략으로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153쪽 자료
	• 청 · 일 전쟁과 러 · 일 전쟁으로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을 정리하게 한다.	탐구식	154, 155쪽 지도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동학 농민 운동 시기에 일어났으며, 일본이 승리한 전쟁은?		
	2. 일본이 한반도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 전쟁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일본의 개항과 메이지 유신

(1) **일본의 문호 개방**

① **배경:** 에도 막부의 쇄국 정책

② **개항:** 미 · 일 화친 조약(1854)

③ **미 · 일 수호 통상 조약(1858)**

- 내용: 개항장 증설, 관세 결정, 치외 법권 규정(불평등 조약)
- 영향: 영국 등 서양 열강과 불평등 조약 체결

(2) **메이지 정부 수립**

① **배경**

- 경제 혼란: 개항 이후 물가 상승, 외국 상품의 대량 유입 → 서민, 하급 무사 생활 곤란
- 막부 권위 추락: 미국과 굴욕적 통상 조약 체결 → 막부에 대한 비판 고조

② **과정:** 지방의 하급 무사 주도로 막부 타도 , 천황 중심의 새 정부 수립(수도 에도를 도쿄로 개칭)

(3) **메이지 유신(1868)**

① **목표:** 근대화를 통한 부국강병 수립

② **개혁 방향**

- 봉건제 폐지, 지방 제도 정비 → 중앙 집권 체제 추구
- 서양 기술 도입, 상공업 장려 → 근대 산업 육성

③ **내용:** 신분제 개혁, 징병제 실시, 근대적 군대 조직, 토지와 조세 제도 개혁, 근대적 교육 제도 실시, 미국과 유럽에 유학생 및 사절단 파견

④ **결과:** 입헌 군주제 헌법 제정(1889) → 천황제 국가 체제 수립

⑤ **한계:** 국민의 기본권 제한

2. 일본의 제국주의화

(1) **일본의 영토 확장 정책**

① **배경:** 공업 발전을 통한 근대화 정책의 부작용(소작농 · 노동자 등 소외 계층 증가, 국내 시장이 협소하여 산업 성장에 제약 → 대외 침략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

② **영토 확장 추진**

- 외교 관계 재조정: 국경을 확대하여 동아시아에서 청과 대등한 지위 확보
- 대외 침략: 조선과 강화도 조약 체결, 류큐 왕국을 병합하여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

(2) **청 · 일 전쟁**

① **전개**

- 성격: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주도권 쟁탈전
- 전개: 조선에서 동학 농민 운동 발생 → 청과 일본의 군대 파견 → 일본의 공격으로 전쟁 발발(1894), 일본의 승리

② **결과**

-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1895): 청이 일본에 배상금 지불, 일본의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 획득 → 중국 진출의 발판
- 일본의 세력 확대: 조선에 지배권 강화, 일본의 국제적 지위 격상

(3) **러 · 일 전쟁(1904)**

① **러시아의 세력 확대**

- 삼국 간섭을 주도하여 랴오둥 반도에서 이권 획득
- 의화단 운동을 공동 진압하고 만주에 군대 주둔

② **전개**

- 영 · 일 동맹으로 러시아의 남하 견제
- 일본의 러시아 군함 기습 공격, 일본의 승리

③ **결과(포츠머스 조약 체결, 1905):** 일본의 한반도 독점적 지배권 확보, 사할린 일부와 랴오둥 반도 확보 → 조선의 국권 강탈, 대륙 침략 기지화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50쪽

일본에서는 개항 이후 하급 무사들의 주도로 에도 막부가 타도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빠른 속도로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어 갔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52쪽

1. 중국은 청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근대적 기술과 정치 제도를 도입하려 하였고, 일본은 사람들의 생각과 제도에 이르는 모든 것, 즉 체제를 바꿔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2. 예시 답안 중국은 전통적인 왕조 질서를 고수하면서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거나 의회제에 기초한 정치 제도를 개혁하려 했기 때문에 개혁의 속도가 더디고 성과도 적었다. 이에 비해 일본은 개항 이후 중앙 집권적인 메이지 정부를 세우고 입헌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가 체제를 근대화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53쪽

러 · 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과 만주에서의 경제적 이권을 확립하였다. 이어 조선의 국권을 강탈하고 조선을 대륙 침략의 기지로 삼았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55쪽

1. (1) ○, (2) ○
2. (1) 천황제, (2) 삼국 간섭

내용 더하기

일본의 개항과 근대적 개혁 46차시

에도 막부는 나가사키 항 이외의 항구를 폐쇄하는 쇄국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하였으나, 미국의 페리 제독의 포함 외교에 굴복하여 미 · 일 화친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하였다(1854). 그리고 다시 미 · 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여 시장 개방을 확대하였다.

미 · 일 수호 통상 조약에 따라 일본은 가나가와 등 4개의 항구를 열고, 미국인의 개항장 거주와 치외 법권을 인정하였다. 에도와 오사카도 개방하여 미국인이 이곳에 머물면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세 자주권을 부정하는 불평등한 관세 규정이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수입세는 평균 20%, 수출세는 5%의 관세율이 정해졌다. 미국이 낮은 수출세로 값싼 생사를 비롯한 여러 물품을 많이 구입하자 일본의 물가가 폭등하고 막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

개항 이후 에도 막부의 권위가 크게 추락하고 각계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외국 상품이 유입되어 경제 혼란이 극심해지자,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켰으며 개항에 불만을 품은 하급 무사들이 막부 정권에 저항하였다. 이들은 그동안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던 천황의 권위를 높이고, 정치를 조정에 맡겨야 한다는 존왕(尊王) 사상을 내세우며 막부 타도 운동을 일으켰다.

결국 에도 막부는 막부 타도 운동에 굴복하여 천황에게 통치권을 반환하였다. 이로서 약 700년간 이어지던 막부 정치가 끝나고, 메이지 정부가 성립하여 왕정이 복고되었다(1868).



▲ 대정봉환(大政奉還)
1867년 11월 9일 도쿠가와 막부 15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메이지 천황에게 통치권을 반납하였다.

메이지 정부는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 수립을 위한 개혁에 착수하였다. 사민평등의 원칙을 세워 봉건적 특권을 폐지하고 토지 제도를 개혁하였다. 그리고 서양 열강을 모범으로 하여 신식 교육 제도와 징병제를 실시하고, 산업 진흥과 기술 도입에 힘써 급속한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메이지 유신 46차시

일본은 개항 이후 막부를 무너뜨리고 왕정복고를 이룩하는 변혁을 단행하였는데 이를 메이지 유신이라 한다. 메이지 정부는 부국강병을 목표로 서양 근대 국가를 모델로 한 국가 주도의 개혁을 전개해 나갔다. 메이지 유신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수립을 목표로 하였고, 정치적으로는 근대적 통일 국가 형성을 지향하였다. 사회 문화적으로는 국민의 평등을 규정하고 근대적 교육 제도를 확립하려 하였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천황의 절대성에 대한 관념이 강화되는 등 전체주의적인 면모를 지니게 되었고, 유럽에 대한 굴종적 태도에 비례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침략적, 제국주의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천황제 국가의 수립, 대일본 제국 헌법과 교육 칙어 46차시

일본 제국 헌법(1889년)

제1장 천황
제1조 일본 제국은 만세 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
제2조 황위는 황실 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皇男子孫)이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범할 수 없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이며 통치권을 총괄하며,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5조 천황은 제국 의회의 협조를 얻어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7조 천황은 제국 의회를 소집하고 그 개회, 폐회, 정회 및 중의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언하고, 강화하며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제14조 1. 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
2.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제16조 천황은 대사, 특사, 감형 및 복권을 명한다.

1889년 일본 정부는 프로이센의 흠정 헌법을 모방하여, 총 7장 76개조의 대일본 제국 헌법을 공포하였다. 이 헌법은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 패해 1946년 신헌법이 공포

될 때까지 일본 통치의 근간이 되었다. 이 헌법의 특징은 천황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주권은 국민이 아니라 천황에게 있었으며, 국민은 천황의 신민이 되어 천황의 통치를 돕는 존재일 뿐이었다.

교육 칙어(1890년 10월 30일)

짐이 생각하노니 우리 황실의 시조와 후대 조상들이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 오신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의 일이며, 거기에 덕(德)을 심으신 것이 깊고 두터워져 우리 신민(臣民)으로 하여금 충과 효를 능히 잘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대대로 아름다움을 이루어왔으니 이것이 우리 국체(國體)의 아주 뛰어남이며, 교육의 뿌리 또한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대 신민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는 서로 우애가 있어야 하며, 부부는 서로 화목하고, 친구는 서로 신뢰를 가져야 한다. 자기 자신은 공손하고 검소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박애를 베풀고, 배운 것을 연마하며 일을 익힘으로써 지혜와 능력을 계발하고 덕과 재능을 이루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을 넓혀 세상의 할 일을 개발해야 한다. 항상 나라의 헌법을 중히 하며 국법을 준수하고 위급할 때는 의로움과 용기로 봉사함으로써 하늘과 땅처럼 무궁한 황실의 안위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짐에게 충성을 다하는 훌륭한 신민일 뿐만 아니라 그대 선조가 남긴 기풍을 잘 받드는 것이다. 이상은 고금을 통해 그릇됨이 없으며 국내외에 시행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짐은 그대 신민과 함께 잊지 않고 마음에 두며, 전부 하나가 되어 그 덕을 행할 것을 절실히 바란다.

헌법을 공포한 다음 해인 1890년에 메이지 정부는 천황의 말씀 즉, 교육 칙어를 반포하였다. 교육 칙어는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국가관과 천황 주권을 선언하고, 천황의 신성성을 강조한 것으로 천황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임을 명기하였다. 일본은 교육 칙어를 반포하여 이를 학교에서 봉독하게 하였으며, 1930년대 이후에는 전국의 소학교에서도 이를 암송하게 하였다.

근대 일본의 조선과 아시아에 대한 인식 47차시

1. 요시다 쇼인(1830~1859), "일본을 지키기 위해선 조선을 차지해야"

지금 시급히 군사적인 장비를 정비하여 함선과 대포가 대충 갖추어지면, 마땅히 바로 에조를 개간하여 제후를 봉건하고, 또 그 사이를 틈타서 캄차카, 오호츠크를 탈취하고, 류큐를 타일러서 일본 천황에게 알현하도록 한다. 조선을 꾸짖어 옛날처럼 인질을 바치고 조공을 하도록 하고, 북으로 만주 땅을 분할하고 남쪽으로는 타이완과 필리핀 제도를 손에 넣어 점점 진취의 위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 백성을 사랑하고 무사를 기르며 조심해서 변경을 지키면 나라를 잘 보전하는 것이라 할 만하다.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은 에도 막부 말기의 하급 무사 출신으로 일찍부터 서양 사정에 정통하였다. 그는 당시를 '근년에 이르러 러시아와 미국이 맹렬하게 밀려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막부 정치를 개혁하고 대외 팽창에 나설 것을 주장하였다.

2. 사이고 다카모리(1827~1877), "조선을 쳐들어가서 일본의 내란을 예방하자."

…… (조선의) 가벼운 행동을 책망하고, 또 지금까지의 불손함을 고치도록 하고, (일본은) 조선과 친하게 지내자는 뜻을 전하는 사절단을 조선에 보냅시다. 그러면 조선에서는 반드시 우리 사절단을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죽일 것입니다. 그때 모든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왜 토벌해야 하는지 알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내야만 많은 사람이 조선을 쳐들어가는 일에 동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란을 바라는 마음을 밖으로 돌려 나라를 발전시키는 원대한 전략입니다. 일찍이 에도 막부가 조선을 침략하지 않고 안전만 꾀하다가 결국 내란으로 무너지고 만 사실을 증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이고 다카모리는 사쓰마 번의 하급 무사 아들로 태어나 메이지 유신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육군 대장이 되었다. 그는 1873년 조선을 쳐들어가자는 이른바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하였다.

3. 후쿠자와 유키치(1835~1901), "아시아 속의 유럽 국가가 되자."

우리 일본은 아시아의 동쪽 변방에 있지만 그 국민의 정신은 이미 아시아의 고루함에서 벗어나 서양의 문명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불행인 것은 가까운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지나(支那)이고 또 하나는 조선(朝鮮)이다. ……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축으로 하여 주의(主義)를 내세워야 한다. 주의로 삼기 위해서는 오직 탈아(脫亞)라는 두 글자가 있으며, 서양과 진퇴를 같이하여 중국, 조선을 접수해야 한다.

서구화의 바람이 동양을 향해 불어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모든 국가는 서구 사회와 더불어 이 운동에 동참하여 문명의 열매를 맛보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문명은 흥역과 같지만, 여러 이로운 점을 가져다 준다

는 점에서 홍역보다는 이롭다. 그러므로 국가는 문명에 거역할 수 없으며 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문명화 과정에서 보수적인 정부는 걸림돌일 뿐이며 이를 뒤집어야만 일본에서 문명화를 이룰 수 있다.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얻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탈아(脫亞)'이다. ……
서구인들은 언제나 일본, 지나(支那), 조선(朝鮮)을 같은 문화를 가진 비슷한 나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일본에게 걸림돌이 될 뿐이다. 그래서 오늘 방침을 세우는 데 우리 나라는 인접국의 개명을 기다려 함께 아시아를 흥하게 할 여유가 없다. 오히려 그 친구들을 벗어나 서양의 문명국과 진퇴를 함께하고 지나와 조선에 접하는 방법도 인접국이라서 특별하게 생각해 줄 필요가 없다. 서양인이 이들을 대하는 식을 그대로 따라서 처분해야 할 것이다. 악우(惡友)와 친하게 지내는 자는 똑같이 악우가 되어 버린다. 우리는 반드시 아시아 동방의 악우를 멀리해야 한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메이지 시대의 대표적 계몽사상가로서, '일본의 루소'라 불리기도 한다. 그는 일찍부터 난학을 연구하였고, 막부 체제 시기에 세 번에 걸쳐 유럽을 여행하였으며, 적극적인 문명개화를 주장하여 김옥균 등 한국의 개화사상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일본의 독립을 유지하고, 일본도 열강의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탈아론'에서 조선과 중국 같은 아시아의 나쁜 친구들을 멀리해야 한다며 일본의 제국주의적 대외 정책을 지지하였다. 그는 일본의 조선과 중국 침략을 '나쁜 친구들'을 문명개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논리로 합리화하였다.

❀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1895~1904)

47차시

일본이 청 · 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 조선을 침략하려 하자, 이를 저지한 것은 북방의 강국 러시아였다.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은 삼국 간섭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조선에서 아관 파천이 일어나고 친러 내각이 성립되면서 일본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에서 러시아에 밀리게 되었다. 한편, 러시아는 아관 파천으로 일본과의 대결에서 우위를 잡을 수 있었으나, 조선에 대해 소극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한반도보다 만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베리아 철도가 동청 철도와 연결될 때까지 일본과 본격적인 대결을 회피하고 있었으며,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영국과 미국의 태도도 고려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러 · 일 간에는 몇 차례의 주요한 협상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1896년 5월 러시아와 일본은 베베르-고무라 각서를 작성하여 아관 파천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일본군의 일부 철수 및 러시아 군대의 주둔을 인정하였다. 이후 6월에 맺어진 로바노프-야마카타 의정서는 조선의 독립과 보전을 약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선을 러시아와 일본 양국의 공동 세력 범위(사실상 '공동 보호령')로 인정한 비밀 협약이었다. 그러나 조선에서 러시아 세력은 여전히 일본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1897년 러시아는 조선의 재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였으며, 12월에는 랴오둥 지방으로 세력을 뻗쳤다. 그러자 열강이 이를 한만 동시 진출이라고 비난하였고, 러시아가 이듬해 3월 이후에 만주 집중책으로 전환하면서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다(로젠-니시 협정).

그 후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와 동청 철도를 연결하고, 뤼순에 군사 요새를 완성하였다. 이때부터 러시아는 태도를 바꾸어 한반도에도 군사 기지를 설치하려고 하였다. 1903년 용암포를 불법 점령하고 정식으로 조차를 요구하였으며, 부산 인근의 절영도를 조차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영국이 제물포항에 군함을 집중시키고, 일본이 대한 해협을 봉쇄하면서 전쟁의 분위기가 더욱 높아져 갔다. 러시아와 일본, 나아가 러시아-프랑스-독일 세력과 영국-미국-일본 세력 사이의 대립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 러 · 일 전쟁 풍자화
일본이 영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으며 러시아에 도전하고 있다.

Ⅴ. 아시아 · 아프리카 세계의 변화와 민족 운동

03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반제국주의 운동

학습 목표

- 인도 민족 운동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일어난 민족 운동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48	**1. 인도의 민족 운동**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영국이 인도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게 된 전투는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영국이 플라시 전투 이후 인도의 지배권을 장악해 가는 과정을 지도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강의식	156쪽 지도
	• 세포이 항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 결과와 의의를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PPT
	• 인도 국민 회의가 반영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계기를 파악하고, 반영 민족 운동의 내용을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158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인도인 병사들이 주도한 민족 운동은?		
	2. 1905년 영국이 발표한 것으로, 인도 국민 회의가 반영 운동의 중심 세력이 된 계기는?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49	**2. 동남아시아의 반제국주의 운동**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제국주의 열강의 동남아시아 침략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문답식	
	[전개]		
	• 제국주의 열강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침략하여 원료 공급지로 삼았음을 파악한다.	강의식	PPT
	• 베트남 유신회,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동맹, 필리핀 연맹 등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 단체의 활동 내용을 정리하게 한다.	자기 주도식	160쪽 지도
	• 타이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제국주의 침략 시기에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국가는?	문답식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인도의 민족 운동

(1) **영국의 인도 지배권 장악**

① **영국의 인도 침략**

- 무굴 제국의 쇠퇴: 18세기에 영역 축소 → 수도 델리와 주변 지역에서만 통치권 행사
- 플라시 전투(1757): 영국 동인도 회사의 무역 독점, 벵골 통치권 장악

② **인도의 식민지화**: 19세기 중엽 인도의 대부분 장악 → 인도를 영국의 원료 공급지 및 상품 시장화

(2) **세포이의 항쟁**

① **배경**: 영국의 인도 전통문화 파괴 → 영국의 경제적 수탈로 어려움을 겪던 인도인의 불만 고조

② **전개**: 영국 동인도 회사 고용 병사인 세포이의 반영 항쟁 → 전국적 확대 → 영국군의 무력 진압으로 실패

③ **의의**: 인도인들의 반영 민족의식을 키우는 계기 마련

(3) **영국령 인도 제국 성립(1877)**: 동인도 회사 해체, 영국 국왕의 인도 직접 통치

(4) **인도 국민 회의**

① **성립 배경**: 인도의 민족 운동을 약화시키고 민족주의자를 회유하기 위해 영국이 결성 주도

② **활동**

- 초기: 영국의 지배권 인정, 인도인의 권익 확보를 위한 타협적 활동
- 변화: 벵골 분할령 계기
- 벵골 분할령: 벵골 주를 동서로 분할 → 종교를 이용한 인도 사회 분열 의도
- 콜카타 대회 개최: 영국 상품 배척(보이콧), 국민 교육, 자치(스와라지), 국산품 애용(스와데시) 등 4대 강령 제시 → 반영 운동 전개
- 결과: 영국의 벵골 분할령 철회(1911)

2. 동남아시아의 반제국주의 운동

(1)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① **동남아시아의 식민지화**: 시암(타이)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식민지로 전락

② **경제적 침탈**: 서양 열강의 원료 공급지로 전락, 대농장을 경영하여 특정 작물 재배

③ **동남아시아의 자각**: 서양 기술 · 제도를 도입한 근대화 운동 추진, 반제국주의 운동 전개

(2) **베트남의 민족 운동**

① **판보이쩌우**: 베트남 유신회 조직(1904), 청년들의 일본 유학 권장, 중국 광둥에서 프랑스에 맞서 독립 투쟁 지도

② **교육 활동**: 문맹 퇴치 운동, 근대 사상 보급 노력

(3) **인도네시아의 근대화 운동**

① **이슬람 동맹의 활동**: 지식인과 상인 주도, 외국 자본의 유입과 크리스트교 포교 반대, 민족 사업의 육성과 자치 요구

② **카르티니**: 근대식 여학교 수립, 교육을 통한 민족적 각성과 여성 교육 보급에 노력

(4) **필리핀의 저항 운동**

① **호세 리살**: 에스파냐의 식민 통치 반대, 필리핀 연맹 조직 → 계몽 운동, 독립 운동 주도

② **무장 투쟁**: 미국과 에스파냐의 전쟁에서 독립을 약속받고 미국 지원 → 미국이 승리한 후 필리핀 식민지화 → 아기날도의 비밀 결사 조직

(5) **타이의 독립 유지**

①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 중 유일하게 독립 유지

② **독립 유지 배경**

- 지리적 이점: 영국과 프랑스 세력 사이에 놓인 완충 지대
- 타이 정부의 노력: 근대적 개혁 추진, 열강에 외교적 양보
- 라마 5세: 유럽의 문물과 제도 적극 수용, 외국과의 불평등 조약 개정 등 국권 회복에 노력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56쪽

18세기 이후 인도인들은 각지에서 반영 항쟁을 일으켰다. 특히 1857년에 일어난 세포이의 항쟁은 인도 북부에서 시작되어 각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1905년 영국이 벵골 분할령을 발표한 이후에는 인도 국민 회의가 반영 운동을 주도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58쪽

1. • 서벵골–비하르 주 중심, 동벵골–아삼 주 중심
   • 오늘날의 방글라데시
2. 영국 상품의 배격(보이콧), 자치(스와라지), 국산품 애용(스와데시), 국민 교육

생각 열기 ▶▶▶ 교과서 159쪽

당시 필리핀은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60쪽

1. ① 인도 국민 회의, ② 벵골 분할령

2. (1) ㉣, (2) ㉠, (3) ㉢, (4) ㉡

내용 더하기

세포이 항쟁의 성격 48차시

세포이 항쟁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제기되어 왔다. 세포이 항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사건의 본질을 세포이의 분란으로 파악하여 여기에 어떤 정치적 동기도 없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사건이 세포이만의 반란이 아니라 영국 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직된 광범한 인도 국민의 봉기였다는 것이다.

세포이의 항쟁 당시 영국군 지휘관이었으며 나중에 인도 총독이 된 존 로렌스는 '1857년의 폭동'은 군대가 발단이 되었고 직접적 원인은 탄약통 사건이었을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세포이의 '반란'을 불만에 차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한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미리 계획된 음모는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벵골 출신의 저명인사인 미트라도 세포이 항쟁은 본질적으로 '군사적 반란'이었을 따름이지, '폭동' 안에 대중적인 요인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였다.

대체로 19세기 후반까지 세포이 항쟁에 대한 영국인과 인도인 간의 관점은 거의 다르지 않았다. 즉 봉기는 원래 군사적이었으며, 정치적 · 사회적 불만이 팽배해진 시기에 다양한 이유로 세포이의 항쟁이 발발하였다. 불만을 품은 선동가들이 세포이 항쟁에 재빨리 가담하여 봉기를 자신들의 계획에 맞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지만, 당시 영국령 인도 지역에 선동가들이 호소할 수 있는 단일한 국민적 대의(大義)는 없었다는 것이다.

20세기 초까지는 아무도 '1857년의 사건'을 위대한 국민 항쟁이나 독립 전쟁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1909년 사바르카르가 "1857년의 인도 독립 전쟁"이란 제목의 책을 발간한 이후부터 세포이 항쟁을 국민 봉기로 보는 견해가 인도인 사이에 광범위한 동조를 얻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에도 인도의 저명한 학자들 중 1857년의 사건에 참여했던 모든 인도인들이 영국인의 축출과 민족 독립의 회복이라는 목표 아래 뭉쳤으므로, 이것이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 봉기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다른 많은 인도인 학자들은 이 사건을 먼 후일의 독립 운동과 결부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폭동은 우타르프라데시 주(州)와 그 주변 지역에만 국한되었으므로, 이 운동이 인도적 혹은 민족적 성격을 지녔다고 규정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인도인들은 하나의 정치적 · 민족적 단위로서의 인도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그들은 벵골 인, 마라타 인, 구자라트 인 등을 영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으로 생각하였다. '하나의 인도'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은 한, 국민 국가 인도의 자유라는 이념은 없었으며, 더욱이 그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도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세포이 항쟁이 실패한 원인 48차시

세포이의 항쟁은 수많은 인도인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력으로 진압되었다. 세포이의 항쟁이 실패로 끝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세포이의 항쟁은 인도 북부에 한정된 사건이었다. 또 봉기가 고립적으로 일어나서 봉기 세력 간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인도에서도 벵골, 아프가니스탄, 신드 및 라지푸타나 등은 동요하지 않았으며, 영국 측이 우려했던 펀자브와 네팔 등은 오히려 봉기를 진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둘째, 락슈미바이 왕비나 나나 사히브 등을 빼고는 어떤 토착 세력 지도자들도 세포이 항쟁군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봉기 세력에 동조하였지만, 지배층들은 영국 측에 협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세포이의 항쟁을 지도하거나 이념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는 인물이 거의 없었다. 근대 교육을 받은 서구화된 지식층은 영국 편에 섰으며, 사회적 혼란이나 구질서(무굴 제국)의 회복을 바라지 않았다. 이에 반해 영국 측에는 유능한 장군들과 관리들이 있어 봉기를 성공적으로 진압할 수 있었다.

넷째, 봉기 세력을 강하게 결집시킬 수 있는 이상이 없었다. 많은 인도인이 불만을 표출하면서 세포이의 항쟁이 확대되었으나, 이들은 뚜렷한 항쟁 목적을 가지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구질서의 회복이란 시대착오적인 구호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언어, 인종, 종교 등이 다양한 인도 사회에서 애국심이나 민족의식에 호소하는 것도 당시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다섯째, 영국군의 무자비한 진압이었다. 영국군은 총살, 교수형, 방화 등으로 반란군과 주민들을 학살하였다.



▲ 대포로 처형되는 세포이 반군
러시아의 화가 바실리 베레시차긴이 1857년에 있었던 세포이 반군 처형 사건을 묘사한 그림이다(1884년 작품).

인도 국민 회의의 성립 배경 48차시

인도 국민 회의는 서구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인도인들은 관리, 교사, 변호사, 언론인, 의사, 기사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1880년경 인도에는 영어 교육을 통하여 서구 문화에 친숙해진 사람들이 약 5만 명이나 되었다. 언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인도에서 이들은 영어를 매개로 하여 조국의 현실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은 인도인일지라도 영국 식민 체제에서 사회적 지위 상승을 이룩하기는 대단히 어려웠다. 영어 교육을 받은 인도인들은 영국 통치자에게 협조하였으나, 1870년대 이후부터 영국의 식민 통치를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편 1860~70년대부터 여러 차례 대규모 기근이 일어나 농민의 생활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여기에 무거운 지대(地代)와 고리대의 횡포 등으로 산발적인 농민 폭동이 일어났다.

대중의 경제적 빈곤과 농민 폭동 등이 지식층의 불만과 함께 폭발하면 인도가 무정부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인도 국민 회의 창설이었다.

인도 국민 회의를 창설하는 데 직접적인 공헌을 한 인물은 인도인이 아니라 영국인 알렌 옥타비안 흄이었다. 그는 영국이 인도인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인도 문제 해결의 최선책이라고 보았다. 영국 정부가 의회 정치를 위한 훈련 도장으로서 국민 대표 기관을 수립하여 인도인들에게 합법적인 정치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인도인의 불만이 폭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흄은 국민 대표 기관이 여론을 합법적으로 대변하면 영국 지배에 저항하는 불순 세력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민중 지도자들로 하여금 국민의 어려움을 정부에 호소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는 것을 미리 막자는 의도였다. 흄은 듀퍼린(Dufferin) 총독의 동의를 얻어 인도의 지식층과 함께 인도 국민을 대표하는 조직을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인도 국민 회의는 1885년 12월 28일 뭄바이의 고쿨다스 테즈팔 산스크리트 대학에서 그 첫 회합을 갖게 되었다. 결성 초기의 국민 회의는 영국 지배에 협조적이고 온건한 단체였다. 이는 국민 회의가 인도 국민의 자발적인 노력이 아니라 영국인의 계획에 의해 성립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였다. 국민 회의는 영어 교육을 받은 이른바 중간 계급의 활동 무대였다.

인도 국민 회의가 출범한 후 처음 한 세대 동안은 '온건파'가 지배하였다. 온건파는 영국의 점진적이고 합법적인 정치 전통을 찬양하고 폭력 혁명을 비난하였다. 그들은 대영 제국의 충실한 신민으로서 영국의 모범적인 대의 정치 제도를 배워 이를 인도에서 실현하려고 하였다. 초기 국민 회의 대표들이 개혁하고자 했던 대상은 영국 정부가 아닌 인도를 통치하던 관료 체제였다.

국민 회의는 연말에 열리는 연례 회의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여 총독부에 건의하는 방법을 되풀이하였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국민 회의의 활동에 환멸을 느낀 일부 대표들은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들을 '과격파'라고 부른다. 과격파는 영국인 통치자의 선심을 기대하지 말고 인도인의 요구를 결집하여 통치 세력에게 압력을 가하고자 하였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희망했던 바는 충성스런 신민으로서 대영 제국 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하여 인도의 '완전 자치'를 이룩하는 것이었다.

커즌 총독의 벵골 주 분리 조치와 인도의 민족 운동 48차시

1905년 커즌 총독의 벵골 주 분리 조치는 인도인의 대규모 저항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벵골 주는 오늘날의 비하르, 오리사, 벵골 및 동벵골(방글라데시)을 포함한 지역으로 인도 제국에서 가장 넓고 인구가 많은 곳이었다. 따라

서 지사(知事) 한 사람이 벵골 주를 다스리기에는 너무 광대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의 분리 문제가 자주 논의되어 왔다. 1903년 커즌 총독은 행정의 능률화와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벵골 주의 분리 계획안을 구체화하였다. 분리 계획안에 따라 인도는 비하르와 오리사를 포함하는 서벵골 주와 아삼을 포함하는 동벵골 주로 양분되었다.

벵골 분리 계획은 처음 알려졌을 때부터 국민 회의를 비롯한 인도인, 특히 벵골 주민의 즉각적 반발을 가져왔다. 총독의 조치는 민족 분열을 획책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는데, 이유는 종교적으로는 대립하였을지라도 벵골 인들은 같은 인종으로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항상 일체감을 느껴 왔기 때문이다.

벵골 주의 힌두교도는 이 조치에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벵골 주가 분리되기 이전에 주민의 다수를 차지한 것은 힌두교도였는데, 주가 분리되면서 서벵골에서 힌두교도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반면, 동벵골에서는 이슬람교도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동벵골의 힌두교도는 이슬람교도에 비해 소수로 전락한 데 대해 분노하였다. 따라서 인도인들은 벵골 분리의 진정한 목적이 종교적 대립을 조장하여 민족주의 감정이 가장 강렬한 벵골 주민의 단합을 저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였다.

벵골 분리 조치에 대한 국민 저항의 구체적인 표현은 '스와데시'(토산물 애용)와 보이콧(영국 상품 배척), 국민 교육 운동, '스와라지'(자치)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스와데시 운동과 보이콧 운동은 그 성격상 동시에 추진되었다. 영국 상품 배척 운동의 주요 목표는 거의 관세가 붙지 않은 채 대량으로 들어오는 맨체스터 면직물에 타격을 주려는 것이었다. 맨체스터 면직물에 대한 배척 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어 콜카타에 소재한 맨체스터 직물 점포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할 상태에 이르렀다.

벵골 주민들은 특별한 애국적 열정을 가지고 스와데시 운동에 참여하였다. 스와데시 운동은 지식 계급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과 하층 계급까지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애국 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 요리사와 하인들은 집회를 갖고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교사와 학생들은 함께 신발을 벗고 등교하기도 하였으며, 외제 옷을 입고 교실에 나타날 수 없었다. 학생들은 외국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상점을 감시하였으며 고객과 상인들에게 외국 상품을 다루지 말도록 호소하였다.

스와데시 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어 토산물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에 영국 상품의 판매량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처음에 벵골 지방에만 국한되었던 스와데시 운동은 곧 여러 지방으로 확산되어 1905년 말경에는 전 국민적인 성격을 띤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국민 교육 운동도 스와데시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학생들에게 관료적인 대학과 절연하고 시험을 거부하라고 외쳤으며, 몇몇 토후와 귀족들은 국민 교육의 대의를 위해 거액을 헌납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힘을 얻어 국민 교육 위원회가 조직되고 인도인들에 의해 국민 대학의 설립되었는데, 벵골 국민 대학이 대표적이었다.

벵골 분리 조치에 대한 저항 운동에서 국민 회의 과격파의 활동이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과격파와는 달리 온건파는 스와데시가 반영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며, 국민감정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았다. 스와라지 문제에 대해서도 온건파는 대영 제국 안에서의 자치로 해석하였고, 과격파는 제국 밖에서의 '완전 자치'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국민 회의의 온건파와 과격파는 1907년 스라트의 대회에서 온건파가 과격파를 축출하면서 분열되었다.



▲ 간디와 타고르(왼쪽)
타고르는 콜카타 근교에 샨티니케탄(평화 학당)을 창설하여 교육에 헌신하였으며 벵골 분할 반대 투쟁 때에는 벵골 스와라지 운동의 이념적 지도자로서 독립 운동에도 힘을 쏟았다.

판보이쩌우 49차시

> 현재의 열강을 보면 우리와 동문(同文), 동종(同種)이 아니라면 어떤 나라도 우리를 원조하지 않을 것이다. …… 오직 일본만이 황인종인 데다가 선진국이다. 러시아를 이긴 이후로 날로 야심을 드러내고 있으나 우리가 일본에 가서 설득한다면 당연히 우리를 원조할 것이다. 무기를 원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기와 식량을 구매하는 일은 쉬울 것이다.

판보이쩌우는 베트남 유신회를 결성하고 베트남의 식민지화 과정과 식민 통치의 고통을 담은 "월남 망국사"를 저

술하여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그리고 일본을 배우자는 운동을 벌이면서 각계각층에서 자금을 모아 젊은이들을 도쿄에 유학시키는 동유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프랑스의 탄압으로 중국에 망명한 뒤 신해혁명의 성공에 자극을 받아 베트남 광복회를 조직하여 독립 운동을 벌이면서 국내까지 조직을 확장하였다.

카르티니 49차시

자와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서민과 여성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서민과 함께 살겠다는 의지를 담은 그녀의 편지를 묶은 책 "어둠에서 빛으로"는 수많은 인도네시아 사람을 감동시켰다.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후유증으로 요절한 그녀의 꿈은 1913년 카르티니 학교 설립 운동으로 실현되었다. 그녀는 오늘날까지도 인도네시아의 국모로 추앙받고 있다.



▲ 카르티니 초상화가 담긴 인도네시아의 우표

필리핀 인들의 독립 투쟁 49차시

필리핀이라는 국명은 16세기 에스파냐의 침략 당시 왕위 계승자 펠리페(펠리페 2세)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다.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 필리핀에는 통일 국가가 없었으나, 1840년대부터 각지에서 독립 투쟁이 일어났다. 1890년대에는 민족 운동이 크게 고양되어, 의사이자 문학가인 호세 리살은 필리핀 연맹을, 보니파시오는 카티푸난(동맹)을 조직하여 에스파냐에 맞섰다. 호세 리살은 1896년 체포되어 총살되었지만 산속에 근거지를 마련하여 투쟁한 독립군은 1898년 독립을 선언하고 무장 투쟁을 계속하였다.

1898년 독립군은 미국 · 에스파냐 전쟁에서 미군과 함께 에스파냐를 물리치고 마닐라를 함락하였다. 그 후 총선거를 실시하여 소집된 혁명 의회가 국가 건설 작업을 추진하던 시기에, 미국은 필리핀을 배제한 채 에스파냐와 조약을 맺고 필리핀의 지배권을 이양받았다. 이에 필리핀 인들은 미국에 맞서 독립 투쟁을 계속하였으나 3년에 걸친 항쟁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 말로로스 의회(1898. 9. 15.)

필리핀 인들은 미국 · 에스파냐 전쟁 때 미국을 우방이라 여기고 지원하였으나, 미국은 에스파냐를 대신하여 필리핀을 지배하려 하였다. 이에 아기날도를 중심으로 한 독립 운동 지도자들은 1898년 6월 12일 필리핀 독립을 선포하고 혁명 정부를 구성하였다. 혁명 정부가 마닐라 북쪽 인근의 말로로스에 있었으므로 말로로스 공화국이라 한다. 그해 9월에 말로로스 의회가 개원하였으며, 헌법 제정에 착수하여 1899년 1월 21에 말로로스 헌법을 공포하였다.

타이의 독립 유지 49차시

동남아시아 각 지역이 유럽 열강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타이는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타이는 지리적으로 서쪽의 미얀마를 차지한 영국과 동쪽의 인도차이나 연방을 차지한 프랑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이에 위치하였다. 영국과 프랑스가 타이를 일종의 완충 지대로 여긴 것이 타이 독립 유지의 배경이었다. 또한 타이 왕과 관리들의 뛰어난 지도력도 타이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였다.

타이에서는 일찍부터 왕실을 중심으로 유럽 세력의 본질과 그 힘의 근원을 구성하고 있는 과학 기술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라마 4세(재위 1851~1868)는 외국의 지배를 피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국왕이었다. 그는 적극적으로 외국인 조언자를 통해 서양의 과학 기술을 습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외교적으로는 유럽 열강에게 타협하고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 유럽 세력이 타이를 침략할 빌미를 차단하였다.

비록 타이가 국가를 보존하는 대가로 영토의 일부를 상실하고, 외교와 무역에서도 서양 열강에게 많은 양보를 하였지만, 타이의 지도자들은 유럽이라는 외세의 침략에 대응하여 독립을 유지하고 근대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04 서아시아의 개혁 운동과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학습 목표

- 서아시아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의 사례를 말할 수 있다.
-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50	**1. 서아시아의 근대 국가 수립 운동**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1839년부터 오스만 제국이 추진한 근대화 운동은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오스만 제국이 근대적 개혁을 추진한 배경과 개혁 내용을 살펴본다.	강의식	PPT
	• 탄지마트와 청년 튀르크당의 개혁 내용을 조사 · 비교하여 그 성격을 분석하게 한다.	탐구식	161쪽 자료
	• 와하브 운동과 아랍 문화 부흥 운동이 아랍 지역에 끼친 영향을 파악하게 한다.	강의식	163쪽 지도
	• 이란의 입헌 혁명 과정을 설명한다.		163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오스만 제국에서 무력 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헌법과 의회를 부활시킨 단체는?		
	2. 유럽 세력의 침략에 맞서 이슬람 본래의 순수성을 되찾자고 주장한 운동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51	**2.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는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문답식	
	[전개]		
	• 이집트의 근대화 개혁을 살펴보고, 이집트 민족 운동의 성격을 파악한다.	강의식	PPT
	• 수에즈 운하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이집트 근대화 정책의 문제점을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165쪽 자료
	• 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난 반제국주의 운동의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역사 부도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이탈리아를 물리치고 독립을 유지한 아프리카의 국가는?	문답식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서아시아의 근대 국가 수립 운동

(1) 오스만 제국의 개혁

① **개혁 배경:** 18세기 이후 오스만 제국의 쇠퇴(영토 상실)

② **탄지마트**

- 내용: 근대식 군대 양성, 새 교육 제도 도입, 헌법 제정을 통한 입헌 정치 시도
- 결과: 보수 세력의 반대와 유럽 열강의 간섭으로 실패

(2) 청년 튀르크당의 혁명

① 19세기 후반의 오스만 제국

- 열강의 침입 → 오스만 제국 해체 시도
- 술탄 압둘 하미드 2세: 전제 정치 강화, 근대화 추진 → 철도와 통신 시설 적극 확장

② **청년 튀르크당의 입헌 혁명**

- 내용: 청년 튀르크당 조직(청년 장교와 젊은 지식인 중심) → 무력 혁명(입헌 군주제 수립) → 법률 · 제도의 서구화, 여성의 지위 향상, 교육 개혁 등 추진
- 결과와 한계: 제국주의의 침략 격화, 여러 민족의 독립 요구 → 청년 튀르크당의 독재, 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 강조 → 오스만 제국의 쇠퇴

(3) 아랍 지역의 민족 운동

① **배경:** 유럽 열강에 맞서 민족의식 자각

② **와하브 운동**

- 목적: 이슬람 본래의 순수성 회복(이븐 압둘 와하브 주도)
- 확대: 오스만 제국에 반대하는 정치 운동으로 발전 → 아랍 인의 민족의식 고양

③ **아랍 문화 부흥 운동:** 19세기 초, 시리아와 레바논 중심 → 아랍 민족주의 운동의 기반, 현대 아랍 어 확립의 계기

(4) 이란의 입헌 혁명

① **이란의 근대화 운동**

- 열강의 침략: 러시아와 영국의 침입으로 많은 영토와 이권 상실
- 카자르 왕조의 개혁: 재정 개혁, 학교 설립, 신문 창간 등 근대화 노력 → 실패

② **입헌 혁명**

- 전개: 민족 운동 발전(전제 정치 비판, 이권 침탈 저항) → 국민 의회 구성, 헌법 제정(1906)
- 결과: 영국과 러시아의 무력간섭으로 좌절, 이란 영토의 분할

2.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1) 북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① 무함마드 알리

- 근대화 추진: 근대식 군사 제도와 교육 제도 도입, 조세와 토지 제도 개혁, 각종 산업 육성
- 성과: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광범위한 자치권 확보

② **열강의 간섭:** 근대 시설(수에즈 운하, 철도, 전신 등)의 도입 과정에서 많은 채무 발생 → 영국과 프랑스의 내정 간섭 초래

③ 아라비 파샤의 항쟁

- 내용: 민족 운동 전개, 입헌 정치 실시 등 근대 국가 수립 요구
- 결과: 영국의 탄압으로 실패 → 영국의 보호령으로 전락

(2) 아프리카 인의 저항

① **내용**

- 남아프리카: 19세기 중반, 줄루 왕국이 영국에 저항
- 우간다: 19세기 말, 영국에 대항
- 탕가니카: 20세기 초, 독일의 식민 지배에 저항
- 에티오피아: 근대화 추진, 이탈리아 침략 격퇴 → 독립 쟁취

② **결과:** 대부분 실패 → 민족의식 고양, 1920년대 이후 조직적인 민족 운동 전개의 토대 마련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61쪽

정부의 주도로 1839년 탄지마트를 추진하여 근대식 군대를 양성하고, 새로운 교육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헌법을 제정하여 입헌 정치를 실시하려 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64쪽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고 서양 열강의 침략에 무력으로 저항하였으나, 대부분 유럽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65쪽

예시 답안

1.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항로가 단축되어 유럽과 인도, 중국에 이르는 무역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2. 외세에 의존하여 근대화를 추진한 결과 외세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65쪽

1. (1) 탄지마트, (2) 와하브 운동
2. (1) ㉡, (2) ㉠, (3) ㉢

내용 더하기

탄지마트 50차시

19세기에 접어들어 오스만 제국은 유럽 세력의 침략을 자주 받았고, 그리스와 이집트가 오스만 제국에서 독립하였다. 이처럼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압둘메시드 1세가 술탄으로 즉위하면서 탄지마트가 추진되었다. 탄지마트란 '개선, 재정비'란 뜻으로 네 가지 점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첫째는 프랑스를 모범으로 삼아 중앙 집권제를 강화하여 모든 통치 지역과 사회생활 분야에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행정 기구와 세금 제도를 개혁하였다.

둘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술탄의 백성은 인종, 종교 및 재능에 관계없이 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고 인격을 존중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지마트의 법률 개혁에는 여전히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구분이 존재하였다.

셋째, 군 조직을 대폭적으로 개혁하였다. 원래 술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군대의 지휘권을 각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지역군을 창설하였다. 또 이전에는 인두세를 내는 대신 군 입대가 금지되었던 비이슬람교도에게도 군 입대를 의무화하였다.

넷째, 교육 제도를 개혁하여 유럽식 학교 제도를 도입하고 내각에는 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하였다. 또한 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어 실업 학교를 많이 설립하였다.

탄지마트는 1876년에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 입헌 군주제 헌법을 채택함으로써 절정에 이르렀다. 이 헌법은 재상 미드하트 파샤의 이름을 따서 미드하트 헌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드하트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구절은 없었으며 이슬람은 여전히 공식 국교로 남아 있었다.

와하브 운동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탄생 50차시

1932년에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한 석유 대국 사우디아라비아가 탄생하였다. '사우드 가문의 아라비아'라는 뜻을 지닌 국호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수립 때부터 지금까지 헌법이나 의회가 없는 군주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 나라의 기원은 1744년, 지금 국왕의 조상인 무함마드 이븐 사우드가 이븐 압둘 와하브란 종교 개혁가와 함께 와하브 왕국을 세운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븐 압둘 와하브는 "무함마드 당시의 이슬람교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을 내걸고, 성자 숭배를 반대하고, 오스만 제국 술탄의 종교적 권위를 부정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븐 압둘 와하브의 주장은 아라비아의 최강자를 꿈꾸던 사우드 가문의 관심을 끌었고, 튀르크족의 지배를 받던 아라비아 인들의 의식을 일깨웠다. 그리하여 아라비아 인들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두 차례에 걸쳐 와하브 왕국을 탄생시켰으며, 1891년 와하브 왕국이 무너진 뒤에도 종교적 결속을 유지하여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를 탄생시켰다.

이란의 입헌 혁명 50차시

담배 불매 운동 이후 이란에서는 개혁파와 보수파의 연합이 유지되었다. 1905년 러 · 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연합 세력은 아시아의 입헌 군주국이 유럽의 절대 군주국인 러시아를 무찌를 정도로 국력이 신장된 비결이 입헌 제도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연합 세력은 제헌 의회의 선거와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1906년 이란 국왕이 의회 소집에 동의하여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이란은 입헌 군주국이 되었다.

1907년 영국과 러시아는 이란을 3등분하여, 남부는 영국, 북부는 러시아의 영향권에 들어갔고 중부는 중립권이 되었다. 그 후 국왕 무함마드 알리 샤가 헌법을 무시하고 의회를 해산하자, 이란의 혁명 세력은 혁명군을 구성하여 정부군을 공격하였다. 결국 국왕은 러시아로 망명하였고, 이란은 다시 입헌 군주국이 되었다.

이란은 의회 정치 체제를 지속하였으나, 보수파와 개혁파의 대립, 어려운 경제 사정,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의회 정치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결국 러시아와 영국의 침략 정책으로 의회가 해산되면서 이란의 입헌 혁명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무함마드 알리의 개혁 51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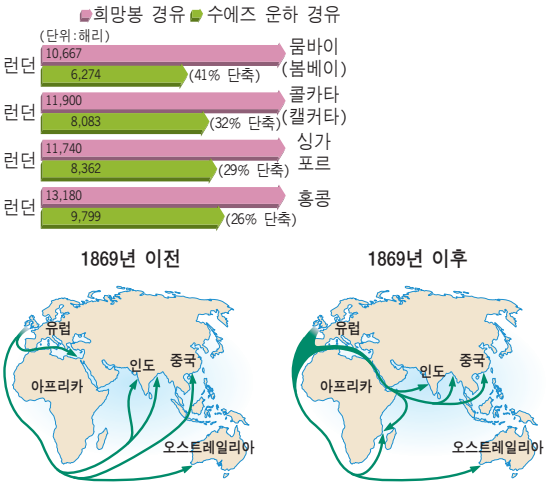
이집트의 총독 무함마드 알리는 오스만 제국이 세르비아 반란에 시달리는 틈을 타서 이집트 개혁에 착수하였다. 1811년 그는 술탄과 영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맘루크 지도자들을 카이로 성으로 초대하여 몰살시켜 버렸다. 이로써 13세기 이후 이집트 정치의 핵심 역할을 해 온 맘루크 세력이 근절되었다.

무함마드 알리는 조세와 토지 소유 제도 및 군사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전의 맘루크 군대는 오스만 튀르크 인이나 코카서스 인 등 외국인 중심이었는데 이를 개혁하여 이집트 농민을 중심으로 군대를 구성하였다. 또 행정 기구를 유럽식으로 개편하고 유럽식 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러한 개혁의 결과 이집트는 유럽의 문물이 이슬람 세계로 들어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으며 무함마드 알리는 '현대 이집트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다.

수에즈 운하 건설 51차시

수에즈 운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두 대륙의 경계를 이루는 수에즈 지협에 만들어진 세계 최대의 운하이다.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려는 계획은 기원전부터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하였다.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이집트 원정 때, 영국의 인도 무역에 타격을 주기 위해 운하를 건설하려고 계획했지만, 조사 결과 지중해와 홍해의 수위 차가 10m나 된다는 결과를 보고 단념한 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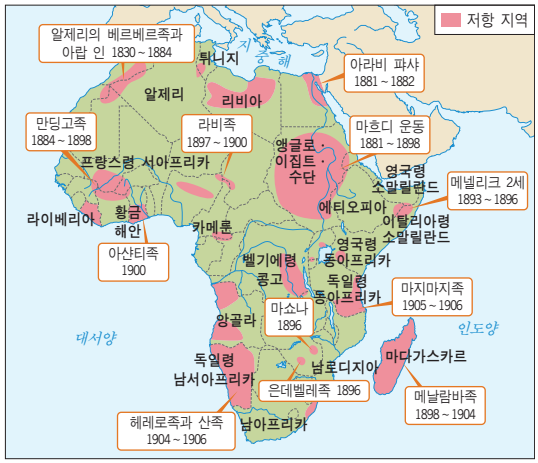
1854년 이집트의 국왕인 사이드 파샤가 프랑스에 수에즈 운하 건설권을 주었다. 영국은 프랑스가 수에즈 운하를 만들게 되면 영국의 국제 무역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해서 이를 반대하였다. 영국의 반대 때문에 수에즈 운하는 계획보다 훨씬 늦은 1869년에 개통되었다. 수에즈 운하의 개통으로 런던-싱가포르 간 항로는 케이프타운을 경유할 때 2만 4,500km인 것이 1만 5,027km로 줄어들었고, 런던-봄베이 간 항로는 2만 1,400km인 것이 1만 1,472km로 단축되었다.



▲ 수에즈 운하 개통 이후 항해로 단축

수에즈 운하의 개통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었다.

아프리카의 저항 운동 51차시



▲ 아프리카의 저항 운동

아프리카를 장악한 유럽 인들은 흑인 노예들을 사고팔았으며,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아프리카 인들은 곳곳에서 저항하였으나,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식민지가 되었다.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독립하기 시작하여 1960년에는 17개국이 독립하였다.

에티오피아의 아두와 전투(1895~1896) 51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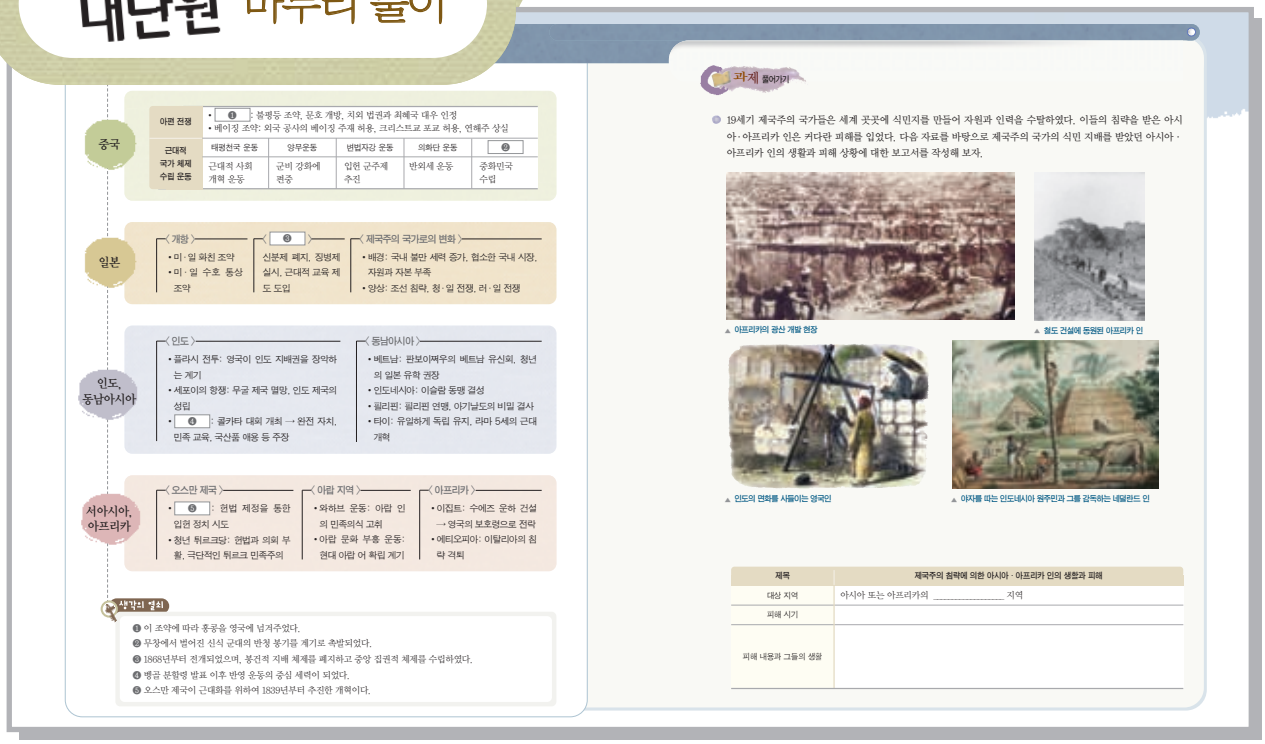
이탈리아는 1895년 1월부터 에티오피아 북부를 침략해 점령하였다. 에티오피아의 왕 메넬리크 2세는 이탈리아의 침공에 대비하여 서양 열강으로부터 라이플총과 대포를 구입하여 무력을 증강시켰으며, 에티오피아 각지에서 약 10만의 병사를 징집하여 전선인 북부로 집결시켰다. 에티오피아군에 맞선 이탈리아군은 1만 7천명에 그쳤고 모국으로부터 지원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895년 3월 1일 아두와에서 양국 군대의 무력 충돌이 일어났는데,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를 크게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독립을 유지하였다. 서구 열강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분할해 가던 상황에서 에티오피아가 실력으로 이탈리아군을 무찌른 이 사건은 서구 열강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 아두와 전투를 묘사한 에티오피아의 벽장식

대단원 마무리 풀이



내용 확인하기

❶ 난징 조약

✚ 아편 전쟁에서 패배한 청은 이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하였다.

❷ 신해혁명

✚ 쑨원은 난징을 수도로 하는 중화민국을 수립하고 임시 대총통에 취임하였다.

❸ 메이지 유신

✚ 지방의 하급 무사들의 주도로 수립된 정부가 추진하였다.

❹ 인도 국민 회의

✚ 영국이 인도의 민족 운동을 약화하고 민족주의자들을 회유하고자 결성을 주도하였다.

❺ 탄지마트

✚ 근대식 군대를 양성하고, 헌법을 제정하여 입헌 정치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보수 세력의 반발과 열강의 간섭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과제 풀어가기

| 지도 요령 |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서이므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하도록 유도한다.

| 예시 답안 |

▷ 내가 쓰는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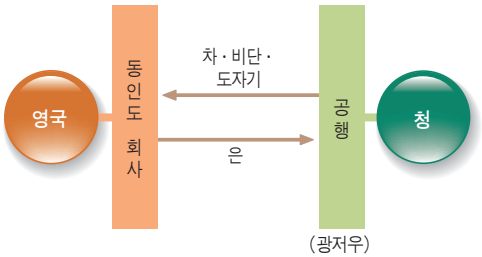
–. 대상 지역: 동남아시아 자와와 수마트라 섬

–. 피해 시기: 19세기 중엽

–. 피해 내용: 네덜란드 인들이 섬에서 재배한 설탕, 커피, 담배 등을 유럽으로 가져갔다. 우선 설탕, 커피, 담배의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 커피 원두, 담배 잎 등을 재배하기 위해 원주민들이 강제 동원되거나 값싼 임금을 받고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 또 원료로 설탕, 커피, 담배 등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공장이 들어서면서 많은 나무가 공장의 연료로 사용되어 삼림이 크게 훼손되고 대기 오염 등 자연환경의 파괴가 심각해졌다.

대단원 짚고 가기

01 다음과 같은 무역 구조에서 많은 적자를 본 영국이 실시한 방안은?



① 중국산 차 수입을 금지하였다.
② 군사적 위협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③ 중국에 인도산 아편을 밀수출하기 시작하였다.
④ 영국산 면제품을 대량으로 중국에 판매하였다.
⑤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역 적자를 해결하였다.

[2~4] 다음은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들이다.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5개 항구를 개항하고 홍콩을 할양하였다.
(나)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고 주장하였다.
(다) 서양의 새로운 문물과 군사 기술 도입을 추진하였다.
(라) 입헌 군주제 실시 등 정치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마) 청조 타도, 남녀평등, 토지의 균등 분배 등을 주장하였다.

02 위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① (가) – (나) – (라) – (다) – (마)
② (가) – (마) – (다) – (라) – (나)
③ (나) – (다) – (라) – (마) – (가)
④ (나) – (라) – (다) – (마) – (가)
⑤ (다) – (가) – (나) – (라) – (마)

03 중국이 청 · 일 전쟁에서 패배한 후 이에 대한 비판으로 추진된 개혁과 관련된 것은?

① (다) ② (라) ③ (마)
④ (다), (라) ⑤ (라), (마)

04 각 사건의 명칭과 관련 인물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가) – 태평천국 운동, 홍수전
② (나) – 난징 조약, 임칙서
③ (다) – 양무운동, 이홍장
④ (라) – 의화단 운동, 서 태후
⑤ (마) – 변법자강 운동, 캉유웨이

05 다음과 같은 근대화 방법을 제시했던 활동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u>않은</u> 내용은?

"…… 우리가 청을 타도하는 것은 만주인을 쫓아낸다는 일면만 보면 민족적인 일이지만, 군주 정치를 타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거사로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혁명의 목표는 새로운 공화 정부를 건립하는 것으로 서양의 열강 세력도 지지하는 바입니다 ……."

① 민족주의 ② 민주주의
③ 민권주의 ④ 신해혁명
⑤ 중국 동맹회

06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추구한 개혁 내용이 <u>아닌</u> 것은?

개항 이후 생활이 어려워진 하급 무사들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통상 조약을 맺은 막부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였다. 마침내 이들이 주도하여 막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로써 에도 막부는 사라지고 도쿄를 수도로 하는 새 정부가 탄생하였다.

① 헌법 제정
② 공화국 수립
③ 서양 문물 수용
④ 국민의 기본권 제한
⑤ 봉건적 지배 체제 폐지

07 다음은 영국의 인도 지배권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들이다.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할 때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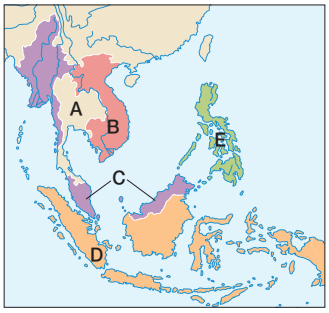
① 세포이 항쟁
② 플라시 전투
③ 인도 국민 회의 결성
④ 영국령 인도 제국 수립
⑤ 스와라지 · 스와데시 운동

08 다음 글의 빈칸 (가)에 해당하는 사실은?

> 초기에 인도 국민 회의는 영국의 지배를 인정하면서 인도인의 권익을 확보하려는 타협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가)]을/를 계기로 콜카타 대회를 개최하면서 반영 운동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① 소금 행진
② 벵골 분할령
③ 세포이 항쟁
④ 제1차 세계 대전
⑤ 스와라지 · 스와데시

[9~10]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09 위 지도의 A~E 국가를 식민 지배하였던 제국주의 열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A – 영국
② B – 프랑스
③ C – 에스파냐
④ D – 독립 유지
⑤ E – 네덜란드

10 다음과 같은 근대화 운동이 일어난 지역은?

> 20세기 초 지식인들과 상인들이 이슬람 동맹을 결성하여, 외국 자본 유입과 크리스트교 선교 활동에 반대하고, 민족 산업 육성과 자치를 요구하였다. 특히 근대식 여학교를 세워 교육을 통한 민족적 각성과 여성 교육의 보급에 힘썼다.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11 오스만 제국에서 추진한 다음 개혁의 명칭은?

- 근대식 군대 양성
- 신교육 제도 도입
- 입헌 정치 제도 도입
- 위로부터 추진한 근대화 정책

① 탄지마트
② 입헌 혁명
③ 와하브 운동
④ 메이지 유신
⑤ 아랍 문화 부흥 운동

12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나라는?

> 19세기 초 무함마드 알리는 근대식 군사 제도와 교육 제도를 도입하고 조세와 토지 제도를 개혁하였으며, 각종 산업을 육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근대 시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게 된 빚 때문에 결국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

① 이란
② 이라크
③ 이집트
④ 시리아
⑤ 에티오피아

정답

01 ③ 02 ② 03 ② 04 ③ 05 ② 06 ② 07 ③ 08 ② 09 ②
10 ④ 11 ① 12 ③

Ⅵ 현대 세계의 전개

1 단원의 개관

이 단원에서는 인류 사회의 커다란 비극이었던 제1, 2차 세계 대전의 배경과 진행 과정 및 결과, 두 차례의 전쟁이 인류 사회에 미친 영향을 학습한다. 아울러 제국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아시아 · 아프리카의 반식민지 운동과 독립 과정을 파악한다. 이후 사회주의 정권의 해체와 자본주의 세계의 확대에 따른 국제 협조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현대 세계가 지닌 당면 과제를 인지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 미국 뉴욕의 빌딩 숲

01. 제1차 세계 대전과 러시아 혁명에서는 제1차 세계 대전의 배경과 원인을 알아보고, 제1차 세계 대전의 전개 과정을 토대로 전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러시아 혁명의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성격을 이해하고, 러시아 혁명이 세계에 끼친 영향을 알아본다.

02.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에서는 베르사유 체제의 성격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평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아시아 · 아프리카에서 활발해진 민족 운동의 성향을 파악한다.

03. 제2차 세계 대전과 평화를 위한 노력에서는 대공황 발생과 극복 노력, 파시즘의 등장과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 및 전개 과정을 학습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발생한 대량 학살과 인권 유린 사례를 파악하여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 협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인류의 노력을 탐구한다.

04. 전후 새로운 세계 질서의 전개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개편된 새로운 세계 질서의 내용을 학습한다. 이 과정에서 냉전 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제3 세계의 탄생, 유럽 통합 운동의 전개 등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파악한다.

05. 현대 세계의 변화와 과제에서는 냉전 체제가 완화된 이후 사회주의 정권이 해체되고 자본주의 세계가 확대되는 과정을 학습한다. 나아가 이념을 넘어 세계화를 이룬 현대 세계의 당면 과제를 분석하고 긍정적인 해결 방향을 모색한다.

2 단원의 목표

지식 · 이해	• 제1, 2차 세계 대전의 배경과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 러시아 혁명의 원인과 과정을 알고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대공황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각국의 극복 노력을 구분할 수 있다.
기능	• 제1차 세계 대전의 전개 과정을 토대로 전쟁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파시즘의 출현 배경과 파시즘 체제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 냉전 체제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할 수 있다.
가치 · 태도	• 전쟁 중 대량 학살과 인권 유린 사례를 통하여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 현대 세계의 당면 과제를 알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지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3 단원의 구조와 지도 계획

차시	중단원	소단원	주요 내용
52	01. 제1차 세계 대전과 러시아 혁명	1.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과 전개	3국 동맹, 3국 협상, 모로코 사건, 범슬라브주의, 범게르만주의, 사라예보 사건, 무제한 잠수함 작전, 총력전
53		2. 러시아 혁명	'피의 일요일' 사건, 2월 혁명, 10월 혁명, 레닌, 볼셰비키, 신경제 정책,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코민테른
54	02.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	1. 베르사유 체제의 유럽	파리 강화 회의, 윌슨의 14개조, 국제 연맹, 군비 축소 회의, 부전 조약, 여성 참정권 운동
55		2. 아시아 ·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3 · 1 운동, 5 · 4 운동, 제1차 국 · 공 합작, 간디, 네루, 호찌민, 수카르노, 무스타파 케말, 범아프리카주의
56	03. 제2차 세계 대전과 평화를 위한 노력	1. 대공황의 발생과 파시즘의 출현	대공황, 뉴딜 정책, 블록 경제, 무솔리니, 히틀러
57		2.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과 전개 ~ 3.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국제 연합의 성립	방공 협정, 독 · 소 불가침 조약, 독일의 폴란드 침공, 제2차 국 · 공 합작, 태평양 전쟁, 노르망디 상륙 작전, 원자 폭탄 투하, 대서양 헌장, 국제 연합(UN) 창설
58	04. 전후 새로운 세계 질서의 전개	1. 냉전 체제의 형성과 전개	트루먼 독트린, 북대서양 조약 기구, 바르샤바 조약기구, 중화 인민 공화국, 6 · 25 전쟁, 베트남 전쟁
59		2. 아시아 · 아프리카의 독립 국가 탄생 ~ 3. 제3 세계의 성립과 유럽 통합 운동	대약진 운동, 문화 대혁명, 일본국 헌법, 중동 분쟁, 아프리카의 해, 쿠바 혁명, 반둥 회의, 비동맹국 회의, 유럽 경제 공동체(EEC), 마스트리흐트 조약, 유럽 연합(EU)
60	05. 현대 세계의 변화와 과제	1. 사회주의 정권의 해체와 자본주의 세계의 확대 ~ 2. 현대 세계의 당면 과제	닉슨 독트린, 소련의 개혁 · 개방 정책, 동유럽 민주화 혁명, 독일의 통일, 톈안먼 사건, 세계 무역 기구(WTO), 핵 문제, 남북문제, 국제 연합 무역 개발 회의(UNCTAD), 국제 분쟁, 환경 문제

4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 제1, 2차 세계 대전 과정을 세세하게 암기하기보다는 전쟁의 발생 원인과 전개 과정, 결과의 흐름을 통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전쟁의 참혹상을 통해 반전 의식과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한반도는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으나 분단으로 이어지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세계사를 통합하여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5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 차하순, "새로 쓴 서양사 총론", 탐구당, 2005.
- 민석홍, "서양 문화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 이강무,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서양편)", 두리미디어, 2002.
- 세계사 신문 편찬 위원회 편, "세계사 신문 2 · 3", 사계절, 1999.
- 교육과학기술부, "사료로 보는 세계사", 2012.
- 국방 연구원 '세계의 분쟁과 전쟁' http://www.kida.re.kr/woww/update/eur-conf-map.htm#top/

Ⅵ. 현대 세계의 전개

01 제1차 세계 대전과 러시아 혁명

학습 목표

- 제1차 세계 대전의 배경과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 제1차 세계 대전의 전개 과정을 바탕으로 전쟁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러시아 혁명의 원인과 과정을 알고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러시아 혁명이 세계에 끼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52	**1.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과 전개**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한 배경은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제국주의 열강의 이해관계에 따라 3국 동맹과 3국 협상이 성립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제1차 세계 대전의 배경을 파악한다.	강의식	PPT
	• 모로코 사건,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 등 제국주의 국가들의 충돌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171쪽 지도
	• 제1차 세계 대전이 장기화된 배경을 이해하고, 미국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한다.	강의식	
	• 제1차 세계 대전의 전개 과정을 바탕으로 전쟁의 성격을 분석하게 한다.	자기 주도식	173쪽 자료
	• 전쟁에 등장한 신무기와 전쟁의 참상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가 대립하여 유럽의 화약고라 불린 지역은?		
	2. 전후방 구분 없이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쟁 양상을 일컫는 용어는?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53	**2. 러시아 혁명**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노동자 · 농민의 빈곤,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 차르의 전제 정치, 대외 전쟁의 패전 등이 러시아 혁명의 배경이 되었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PPT

53	• 러시아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과 사회주의 개혁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 러시아 혁명 이후에 나타난 경제 정책의 변화 과정을 정리하여 그 특징을 비교한다. • 레닌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주변 나라를 흡수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을 결성하였음을 설명한다. • 러시아 혁명이 세계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레닌이 추진한 정책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허용하여 소련 경제를 회복시키려 한 것은? 2. 러시아 혁명 직후 모스크바에 본부를 두고 세계 여러 지역의 반제국주의 운동을 지원한 단체는? * **학습 정리 및 차시 학습 안내**	발표식 자기 주도식 강의식 탐구식 문답식	175쪽 지도 176쪽 자료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과 전개

(1) 제국주의의 국가 간의 대립

① **19세기 후반의 유럽**: 제국주의 정책 추진, 이해관계에 따른 열강 간 대립과 동맹 추진

② **3국 동맹**: 독일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결속(프랑스 고립 목적), 독일의 3B 정책 추진

③ **3국 협상**: 영국 · 프랑스 · 러시아 연결, 영국의 3C 정책 추진

(2) 동맹국과 협상국 간의 충돌

① **모로코 사건**

- 과정: 프랑스의 모로코 식민지화 → 독일의 반대로 두 차례 분쟁 발생(1905, 1911)
- 결과: 영국의 프랑스 지지로 독일 철수

② **발칸 분쟁**

- 원인: 다양한 민족과 종교 분포, 강대국 간 이해관계 대립
- 민족주의의 대립: 러시아의 범슬라브주의와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의 범게르만주의 충돌 → 발칸 반도 국가 간 영토 분쟁 발생

(3) 제1차 세계 대전의 전개

① **사라예보 사건(1914)**: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의 세력 확대 저지 → 세르비아계 청년의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제1차 세계 대전의 도화선)

② **전쟁의 전개**

- 발단: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
- 세계 대전으로 확대: 러시아의 세르비아 지원 → 독일이 러시아와 프랑스에 선전포고 →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

③ **독일의 양면 작전**: 동 · 서부 전선 형성

- 서부 전선: 독일 대 프랑스 · 영국 → 양측의 세력 균형, 참호전을 전개하며 전선 고착화
- 동부 전선: 독일 · 오스트리아 대 러시아 → 결정적 승리 없는 독일의 공세 지속

④ **전쟁의 양상**

- 총력전 · 장기전: 전쟁의 장기화 → 전후방 구별 없이 모든 인력과 자원 동원, 전쟁 참여 독려, 선전전 전개
- 신무기 등장: 비행기, 탱크, 독가스, 잠수함 등 → 대량 살상 초래

(4) 전쟁 국면의 전환과 종결

① **전쟁 국면의 전환**

-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해상 봉쇄, 중립국 선박까지 무차별 공격 → 미국이 연합국으로서 참전
- 러시아의 전선 이탈: 10월 혁명 발생 →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 체결 → 동부 전선에서 이탈

② **전쟁의 종결**

- 동맹국의 항복: 미국의 참전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동맹국들이 차례로 항복
- 독일의 항복: 혁명으로 제정 붕괴 → 임시 정부의 휴전 조약 체결로 전쟁 종결(1918)

③ **미국과 일본**: 전쟁 특수를 맞아 강대국으로 성장

2. 러시아 혁명

(1) **혁명의 배경**

① **러시아의 근대화 지연**: 황제의 전제 정치, 농민의 농노 상태 지속

② **사회의 변화**

- 국내 상황: 산업화 → 노동자 계급 성장, 사회주의 확산
- 대외 상황: 러 · 일 전쟁의 패배 → 민중의 불만 폭발

③ '**피의 일요일**' 사건(1905)

- 과정: 차르 군대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시위 군중에게 발포 → 시위 확산(입헌 정치 요구)
- 결과: 황제의 헌법 제정과 의회(두마) 설치 약속 → 전제 정치 지속, 노동자 · 농민의 생활 개선 미흡

(2) **혁명의 전개**

① 2월 혁명(1917. 2.)

- 배경: 제1차 세계 대전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고통, 정부에 대한 불만 고조
- 과정: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위('빵과 평화' 요구) → 노동자와 병사들의 소비에트 결성
- 결과: 제정 붕괴 → 임시 정부 수립

② 10월 혁명 (1917. 10.)

- 배경: 임시 정부의 개혁 지연,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계속
- 과정: 레닌 주도의 볼셰비키가 소비에트 무장봉기 주도 → 임시 정부 타도, 사회주의 정부 수립

(3)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결성**

① **혁명 이후의 상황**

- 볼셰비키의 정권 장악: 일당 독재 선언,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 체결 →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이탈
- 사회주의 개혁 추진: 토지 분배, 주요 시설 국유화
- 내전 승리: 자본가 · 지주 등 구세력 진압, 열강들의 간섭 배제 → 전시 공산주의 정책 실시

② **신경제 정책(NEP) 실시(1921)**: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여 경제 회복 도모

③ **소련 성립**: 러시아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을 흡수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결성(1922)

④ **스탈린의 통치**

- 산업 구조 개편: 5개년 경제 개발 계획 연속 추진 → 공업 생산 급증, 농업의 집단화
- 독재 체제 강화: 수많은 사람 숙청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70쪽

제1차 세계 대전이다.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를 내세운 제국주의 열강의 대립으로 발칸의 긴장이 고조되던 중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피살된 사라예보 사건은 제1차 세계 대전의 도화선이 되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73쪽

1. 전후방을 구별하지 않는 총력전으로 모든 자원이 동원되고, 참호전이 새로운 전술로 등장하였으며, 각종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되었다.
2. 예시 답안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기관총, 탱크, 비행기, 잠수함, 독가스 등 각종 신무기가 출현하여 인명을 대량 살상하였다. 또 전쟁이 총력전 양상을 띠면서 장기화하여 인적 · 물적으로 극심한 소모전이 전개되었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74쪽

경찰과 군대가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76쪽

1. 예시 답안 ① 3국 협상 – 3국 동맹
   ② 프랑스 – 독일
   ③ 범게르만주의 – 범슬라브주의
   ④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 – 세르비아
2. 예시 답안 제1차 세계 대전에서는 신무기가 등장하여 대량 살상이 이루어졌으며, 참호전이 전개되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역량이 총동원된 총력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내용 더하기

3국 협상의 체결 배경 52차시

1900년에 세계 최강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던 나라는 영국뿐이었다. 영국은 최초의 산업 국가였으며 전 세계의 1/4에 해당하는 지역을 아우르는 대제국이었다. 한편 독일은 뒤늦게 통일 국가를 이룩하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영국을 빠르게 추월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의 인구는 5,700만 명으로 3,700만 명의 영국 인구보다 훨씬 많았다. 또한 석탄, 철광석, 강철 생산량에서도 미국과 더불어 이미 영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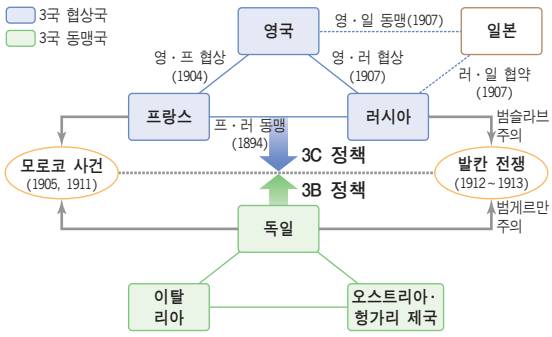
생산량을 능가하였으며, 전기, 석유, 유기 화학 산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혁명을 선도하고 있었다. 이에 대다수 독일인들은 독일이 머지않아 열강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였다.

독일의 성장은 특히 프랑스에게 깊은 우려를 안겨 주었다. 당시 프랑스 국민의 대부분은 소농민이었고, 인구도 약 3,600만 명 정도에서 정체하였으며 국론은 분열되어 있었다. 많은 인구를 보유한 독일의 급성장에 위협을 느낀 프랑스는 동맹국을 찾게 되었으며, 1900년에 이미 인구가 1억 3,300만에 이른 러시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러 · 일 전쟁에서 일본에게 패한 러시아는 근대적 군사 강국으로 발전하기에는 많이 낙후되어 있었으나, 프랑스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군대와 경제를 개혁하면서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독일은 러시아의 이와 같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독일은 영국과의 일전에 대비하여 해군력을 적극 증강시키고 있었다. 1906년에 급진적인 국내 개혁안을 내세우며 정권을 잡은 영국의 자유당은 영국이 독일과 해군 군비 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쟁 관계에 있던 프랑스나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두 나라와 협정을 맺었다.

3국 협상은 정식 군사 동맹보다는 훨씬 미약한 것이었다. 하지만 독일은 이와 같은 영국의 외교 노선을 세계열강의 위치로 올라서려는 독일의 노력을 봉쇄하려는 것이라 해석하였다. 1914년까지 독일과 영국 사이의 상호 불신과 반목은 점점 깊어져 갔다.



▲ 제국주의 열강의 대립

발칸의 위기 52차시

발칸 반도를 지배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이 와해의 조짐을 보이자 그 지역에 대한 패권을 놓고 다투던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과 러시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발칸 반도에서는 18세기 이후부터 서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받은 새로운 국가들이 성립되어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세르비아 등이 독립하였다.

1890년대 후반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은 불안정한 균형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903년부터 그 균형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그해에 빈을 추종하는 세르비아 왕조가 민족주의 정권에 의해 잔인하게 교체되었는데, 새로 들어선 민족주의 정권은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에 반대하는 노선을 취하였으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국경 근처의 슬라브 인들을 해방시키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지역이었으나, 1879년부터 오스트리아의 관할 지역이 되었다가 1908년에는 전격적으로 오스트리아에 통합되었다. 이 지역의 갑작스러운 통합은 국제적 위기를 초래하여, 결국 1912~1913년에 걸친 발칸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 전쟁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발칸 국가들은 오스만 제국의 세력을 발칸 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냈다.

발칸 전쟁의 결과 세르비아의 영토와 군사력은 두 배로 늘어났으며 그와 함께 세르비아의 야망도 커졌다.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의 세력 확장이 제국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르비아 자체를 제거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던 1914년 6월 세르비아 군부의 사주를 받은 세르비아계 청년이 보스니아에서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였다.

사라예보 사건 52차시

1914년 6월 28일 육군 대연습을 시찰하러 온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된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제1차 세계 대전 발발의 도화선이 되었다. 범인은 오스트리아 국적의 세르비아계 학생으로 세르비아 비밀 결사 '검은 손'의 일원이었다.

당시 게르만 인의 오스트리아와 마자르 인의 헝가리로 구성된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은 여기에 슬라브 인의 제3의 준독립 지역을 만들어 대제국을 유지하려 하였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슬로베니아 및 크로아티아계 슬라브 인들이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된다. 황태자 부부 암살은 이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실행된 것이다.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은 암살의 배후에 세르비아 정부가 개입되었다고 확신하고 세르비아에 11개의 요구 조건이 담긴 엄중한 최후통첩을 급송하였다.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의 요구 조건 중 1가지만 거부하고 5가지를 무조건 수락하였지만, 오스트리아는 이를 거절의 뜻으로 간주하고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하였다. 이로써 제1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었다.

슐리펜 계획 52차시

독일은 20세기 초부터 알프레트 폰 슐리펜(Alfred Graf von Schlieffen) 장군이 고안한 2개의 전선을 형성하는 전쟁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전쟁 초기에 러시아와 대치하는 동부 전선에서는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면서, 서쪽에서는 중립국인 벨기에를 통한 대대적인 포위 공격으로 프랑스를 격파한다는 것이다. 슐리펜 계획은 프랑스에 대한 도발적인 공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독일뿐 아니라 영국에 의해서도 중립성이 보장되어 온 벨기에를 공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베를린의 지배층은 이 계획을 실행하는 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슐리펜 계획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프랑스 군대는 독일의 초기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보고 후퇴하였으나 마른에서 반격을 시작하였다. 이때 독일군은 전선이 위험할 정도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후퇴하여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양쪽 모두 기선 제압에 실패함에 따라 그해 말에는 양 진영 모두 길게 참호를 쌓기 시작하였고, 그 선에서 이후 4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못하였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과 미국의 참전 52차시

제1차 세계 대전은 모든 인력과 물자가 투입되는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각국은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 특히 영국보다 해군력이 뒤쳐졌던 독일은 영국의 해상 봉쇄로 국외에서 물자 공급이 끊겨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독일은 영국의 통상 파괴 전략을 폈다. 이러한 전략은 막바지에 더욱 강화되어 상대국 선박뿐 아니라 모든 선박의 통행을 봉쇄하고 격침시키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확대되었다. 독일은 자신이 정한 봉쇄 해역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 무제한으로 포격을 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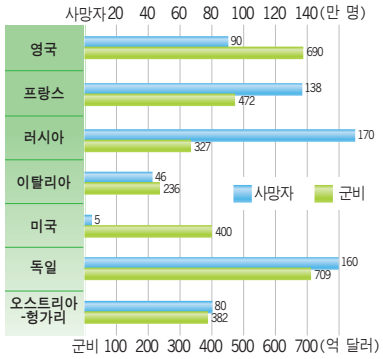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은 미국의 참전을 불러왔다. 미국은 전쟁 기간 동안 중립을 지키면서 협상국과 동맹국 모두에게 무기와 물자를 팔아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의 통상 파괴 전략과 무제한 잠수함 작전 이후 미국 배 5척이 독일에 의해 격침되자 미국의 여론은 참전 쪽으로 급속히 기울었다.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가 전쟁에서 발을 빼면서 유리한 기회를 잡은 듯 했던 독일은 미국의 참전으로 패배의 길로 들어섰다.


The New York Times. EXTRA

USITANIA SUNK BY A SUBMARINE, PROBABLY 1,260 DEAD;
TWICE TORPEDOED OFF IRISH COAST, SINKS IN 15 MINUTES;
CAPT. TURNER SAVED, FROHMAN AND VANDERBILT MISSING;
WASHINGTON BELIEVES THAT A GRAVE CRISIS IS AT HAND

▲ 1915년 독일에 의해 침몰된 영국 상선 루시타니아호 소식을 알리는 신문
루시타니아호는 민간 상선이었지만 전쟁 상대국인 영국 소속이었고 군수물자를 싣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도 변명의 여지는 있었지만, 익사한 승객 1,200명 중 119명이 미국인이었으므로 미국의 여론을 악화시켰다. 독일은 1917년부터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돌입하여 중립국 선박도 무조건 격침시켰다.

제1차 세계 대전의 특징 52차시



▲ 제1차 세계 대전의 피해

20세기의 전쟁은 전선의 병사만이 아니라 후방의 시민들까지 동원된 총력전으로 전개되었다. 교전국 정부는 포스터, 전단, 신문 광고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전쟁 지지와 봉사를 요구하는 선전을 끊임없이 하였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무, 즉 자유, 재산 그리고 생명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20세기의 전쟁은 전방과 후방의 개념도 없애 버렸다.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참여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국민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쟁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군수품을 계속 생산해야 했기 때문에 여성

은 공장 등에서 남성을 대신하여 작업을 해야만 했다. 싸움터에서만 전투가 벌어지는 제한전의 시대는 지나가고 총력전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제1차 세계 대전에는 다양한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하였다. 장거리포, 기관총, 수류탄, 전차, 독가스, 전투기와 폭격기, 잠수함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전사자와 전상자 숫자를 현저하게 증가시켰다.

피의 일요일 사건 53차시

러 · 일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일본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상황이 불리해지자 그동안 전쟁 때문에 궁핍한 생활을 참아야 했던 노동자, 빈민 등의 불만이 커져 갔다. 그렇지만 차르가 지배하는 제정 러시아에서는 민중의 불만을 표출할 대표 기관이나 의회가 없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제와 최저 임금제 등 여러 가지 경제적 · 정치적 요구를 적은 청원서를 작성하여 차르가 머무는 겨울 궁전을 향해 행진을 하기로 하였다.

1905년 1월 22일 눈 내린 이른 아침, 시내 각 지구에서 모여든 14만 명의 노동자들은 십자가와 차르의 초상을 들고 겨울 궁전을 향해 행진하였다. 황제는 마침 겨울 궁전에 없었고 그들을 맞은 것은 무자비한 경찰과 군대였다. 궁전을 지키는 수비대는 이 평화적 행진을 향하여 발포하기 시작했고, 광장에 쌓인 눈은 피로 물들었다. 사망자 500~600명, 부상자 수천 명을 낸 이 사건은 차르에 대한 노동자의 소박한 믿음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이후 러시아 혁명의 발단이 되었다.

이 사건 후 수도의 노동자들은 곧 총파업에 들어갔고, 그것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 후 니콜라이 2세는 10월 선언을 발표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시민적 자유 보장 및 선거를 통한 제헌 의회 창설을 약속하였다. 그 결과 1906년 5월 최초로 간접 선거를 거쳐 민선 의회인 두마(Duma)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런 개혁 조치는 곧 무효화되었고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인들은 다시 전쟁에 강제 동원되었다.

2월 혁명 53차시

러시아의 2월 혁명은 파업과 함께 시작되었다. 도시에서는 식량 배급이 실시되고 있었는데, 나누어 줄 식량이 바닥나면서 폭동이 일어났다. 1917년 2월 23일 '국제 여성의 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섬유 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빵을 달라고 외치자 굶주린 노동자, 농민, 소시민들이 합세하였다. 시위 군중은 붉은 깃발을 들고 "차르를 타도하라.", "전쟁을 반대한다." 등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수일간 시가지를 누볐다. 차르 체제는 폭동 진압을 명령하였다. 일부 군인들의 발포로 다수 시민이 사망하였으나, 대다수 군인들은 폭동의 진압을 거부했으며 점차 시위대에 가세하는 군인의 수가 늘어났다. 그리하여 12일에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반란군과 시위대가 완전히 장악하였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봉기 이후 여러 지역에서 노동자 · 병사 대표 소비에트가 결성되었다. '소비에트 집행 위원회'는 "차르 체제를 철저히 파괴하고 보통 · 직접 · 비밀 투표에 의한 헌법 제정 의회를 소집하기 위해 투쟁하자."고 국민에게 호소하였다. 공업 지역의 소비에트는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였으며, 경찰을 내쫓고 기업의 보안과 혁명의 수호를 위해 적위대를 창설하였다. 또한 차르 정부의 판사를 파면하고 새로운 인민 재판사를 선출하였으며 노동자에게 가혹하게 대했던 공장 관리자들을 추방하고 '노동자 관리'를 실시하였다.

노동자 · 병사 대표 소비에트가 결성되면서 부르주아 자유주의자인 르보프를 수반으로 하는 임시 정부가 조직되었다. 임시 정부는 곧 임시 위원회를 선출하고 시내의 질서 확립을 위임하였다. 한편 니콜라이 2세는 동생 미하일에게 제위를 양위하나 그가 사양하면서 "임시 정부가 두마의 주도하에 탄생하였으니 제헌 의회가 구성되어 인민의 의사를 발표할 때까지 완전한 권력이 부여된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300년간 지속되었던 로마노프 왕조는 붕괴하고 러시아 공화국 임시 정부가 형식상 정당한 계승자로 출범하였다.

임시 정부의 개혁과 한계 53차시

로마노프 왕조가 붕괴한 이후 임시 정부와 노동자 · 병사 대표 소비에트라는 이중 권력이 탄생하였다. 당시 소비에트는 1905년 혁명으로 탄압을 받아 활동이 어렵게 된 볼셰비키 지도자들 대신에 멘셰비키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르주아에게 권력을 양도하였고, 영국 · 프랑스 · 미국 등 협상국들도 러시아 혁명이 자국 노동 운동에 영향을 주고 러시아가 전쟁에 이탈하여 독일이 승리할 것을 우려하여 임시 정부를 지지하였다. 임시 정부는 정치범들을 대거 석방하고 신앙 · 집회 · 결사 ·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였으며, 사형 제도와 군사 법정을 폐지하고 민족과 계급의 차

별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임시 정부는 전쟁을 계속하고 토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전쟁을 계속하려는 임시 정부의 태도는 군인들의 지지를 약화시키고 민중의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전쟁 중지, 평화와 빵 그리고 토지"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볼셰비키의 대중적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10월 혁명 53차시

스위스에 망명 중이던 레닌은 1917년 2월 혁명 직후 귀국하였고 4월에 볼셰비키 중앙 위원회에서 '프롤레타리아의 임무에 관하여'라는 보고를 하였는데, 이것이 '4월 테제'이다. 그 내용은 "현 시기는 전쟁 포기, 평화 · 자유 · 빵 · 토지와 같은 근본 문제의 해결을 내세우면서,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직접 쟁취해야할 시기"라는 것이었다.

부르주아 임시 정부를 중심으로 자유주의적 개혁을 실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던 멘셰비키는 물론 볼셰비키 안에서도 이 주장은 격렬한 저항을 받았다. 그러나 임시 정부의 거듭된 실책으로 소비에트 내에서 레닌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4월 테제'는 볼셰비키의 공식 방침으로 확정되었다.

9월을 넘기면서 볼셰비키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크게 확대되었다. 레닌은 선거를 통해 볼셰비키가 형식적 다수를 획득할 때까지 임시 정부의 제헌 의회를 유지하는 대신 무장봉기를 통한 혁명 정권 수립을 시도하였다.

10월 6일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동자 · 병사 소비에트 산하 무장 조직이 봉기를 일으켰다. 그리고 거의 저항을 받지 않은 채 임시 정부 대다수 각료들을 체포하고 시내 중심지 대부분을 장악하였다. 다음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 소비에트 대표자 회의에서 400여 지방 소비에트 대표자들은 러시아의 소비에트 공화국 전환, 전쟁 중단, 토지 개혁 실시 등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을 이끌 노동자 · 농민 정부(인민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노농 정부는 11명의 인민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레닌이 의장을 맡았다.

10월 혁명 이후의 러시아 53차시

1917년 10월 혁명 이후부터 1918년 상반기까지 소비에트 체제는 큰 도전을 받지 않았다. 이 시기에 지주 보유지가 농민들에게 완전히 무상으로 분배되었다. 그 결과 농민은 해묵은 소망을 성취하였고, 볼셰비키는 농민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지주 귀족은 농촌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도시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혁명 초기에 볼셰비키는 기간산업 중 일부만 국유화하고, 나머지는 위로부터 '국민 경제 최고 회의'의 통제와 아래로부터 노동 계급의 압력을 통해 국가의 통제를 받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개별 사업장 내에서 기업주와 노동자들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고, 원료와 연료의 부족으로 조업이 단축되었으며, 1918년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으로 전쟁이 끝나자 전시 체제로 편성되었던 산업은 거의 마비되었다.

이러한 산업 해체 과정에서 직장을 잃거나 잃을 위험에 부딪힌 노동자들은 전 산업의 국유화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1918년 6월에는 모든 기간산업이 국유화되었다. 또한 모든 신분이 해체되었고, 교회는 국가에서 분리되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였다. 옛 군대는 해산되고, 각종 사법 기구는 혁명 법정으로 대체되었으며, 국기는 붉은 빛 바탕의 '낫과 망치'로 대체되었다.

혁명 이후 러시아의 과제 53차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된 요인은 농민 문제, 노동자 문제, 민족 문제로 요약된다. 그리고 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러시아 혁명으로 권력을 장악한 볼셰비키는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공업을 국유화하여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을 청산하고, 토지를 무상 분배하여 농민의 해묵은 소망을 풀어 주었다. 그리고 선언적으로라도 각 민족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여러 문제를 일차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볼셰비키는 무장봉기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다른 정치 세력의 진정한 동의와 협력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건설의 주역이라고 할 인민은 차르 전제 정치의 오랜 억압과 착취에 시달려 온 데다 3년 여에 걸친 전쟁으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또한 소비에트 체제의 출범을 자본주의적 세계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인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은 소비에트 체제의 건설에 협력은커녕 끊임없이 적대적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의 건설과 수호는 신생 소비에트 러시아의 양대 과제였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과 그 내용을 왜곡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러시아가 독일과 강화한 이유 53차시

러시아 혁명 초기에 볼셰비키 체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독일과의 강화였다. 애초에 볼셰비키 지도자들은 러시아 단독으로는 사회주의 건설은 물론 체제 수호조차 불가능하다고 보았지만, 10월 혁명의 성공으로 전 유럽에 노동 계급의 혁명이 파급될 것이며, 이는 러시아 혁명의 성공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빗나간 예상이었다. 유럽에서 혁명은 아예 일어나지 않거나 독일의 경우처럼 실패로 끝났다. 연합국은 러시아의 강화 제의를 무시했고, 독일은 러시아의 불안한 국내 사정을 빌미로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 내려고 하였다. 모든 면에서 극도의 혼란 상태에 있었던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한다는 것은 신생 러시아의 죽음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어떤 조건이든 독일과 강화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볼셰비키는 1918년 3월 3일에 체결된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으로 강화를 성취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산업 중심지와 곡창 지대를 독일에게 양보함으로써, 유일하게 볼셰비키 정부에 입각했던 좌파 사회혁명당의 사퇴를 초래하였고, 볼셰비키 내에서도 트로츠키와 부하린 등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였다.

신경제 정책(NEP) 53차시

1921년 3월부터 시행된 신경제 정책(NEP)은 노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 아래 점차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 부문에서는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운용되던 전시 공산주의가 시장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허용하는 혼합 경제로 전환되었다.

농업 부문에서 곡물 공출은 고정 세금으로 대체되었고, 사적 소매에 대한 제한이 철폐되어 농민은 잉여 곡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공업 부문에서는 국유화되었던 많은 중소기업이 매각 혹은 대여되었고, 대기업은 공공 소유를 유지하되 생산 · 가격 · 임금의 결정은 시장 원리에 따르도록 되었다.

신경제 정책이 시행되자 경제가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정치가 안정되고 농업 생산이 급속히 회복되었으며 1928년까지 농민들의 생활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었다. 공업 생산도 내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스탈린 체제의 성립과 사회주의 공업화 53차시

레닌이 죽은 뒤 트로츠키와 스탈린 간에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트로츠키는 신경제 정책을 부르주아와 부농층의 발달을 허용하는 것이라 하여 적극 반대하였고, 부농의 폐지와 토지 국유화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혁명이 영속적으로 추진되려면 세계적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스탈린은 신경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과 트로츠키의 '영구 혁명론'에 대응하여 '일국 사회주의'를 주장하였다. 즉 먼저 러시아 자체의 사회주의 건설에 몰두하고 이후 세계 혁명을 계획하자고 하였다.

결과는 스탈린의 승리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곧바로 트로츠키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여 급속한 공업화와 강제적 농업 집단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다. 이 계획은 자본주의 국가와 교역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에 따라 추진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개발 전략을 주장하는 볼셰비키에 대한 숙청, 국가 정책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계급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자행되었다. 스탈린은 국내의 반대자를 제거하면서 실질적 독재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굳혀 나갔다.

또한 '계급으로서의 부농의 전멸'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전국에 걸쳐 농장과 토지를 통합하여 집단 농장을 만들었다. 이 같은 강압 정책으로 1940년까지 모든 농산물의 생산과 분배를 당 중앙이 조절하였다. 그리고 전국 농촌을 99% 집단화시켜 대규모 기계화 농장으로 바꾸어 농업 생산량을 3배 증가시켰다. 싼값으로 강제 징발한 농산물을 수출하여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였고,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노동자로 만들어 공업화를 급속히 촉진시켰다. 그리하여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두 차례의 경제 개발 계획이 성공리에 완수되면서 소련은 급속히 공업 국가로 재편되었다. 공업 생산이 농업을 상회하였으며, 공업 생산량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를 앞질러 세계 2위의 공업국으로 발돋움하였다.

02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

학습 목표

- 베르사유 체제의 성립 과정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 전후의 평화 수립 운동과 민주주의의 발전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전후 아시아 · 아프리카에서 민족 운동이 활발해진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 전후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족 운동의 예를 들고 그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54	**1. 베르사유 체제의 유럽**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제1차 세계 대전 후 파리에서 회의가 열린 이유는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제1차 대전 이후 유럽에 형성된 베르사유 체제의 내용과 문제점을 설명한다.	강의식	177쪽 지도
	• 국제 사회가 세계 평화를 수립하고자 노력한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인터넷, PPT
	•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전개된 평화를 위한 노력이 지니는 한계를 토론하게 한다.	토론식	178쪽 삽화
	• 전후 유럽 민주주의의 발전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윌슨의 제창과 베르사유 조약의 규약에 따라 창설된 국제기구는?		
	2.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한 조약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55	**2. 아시아 ·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아시아 · 아프리카 지역의 상황은 어떠하였을까?	문답식	
	[전개]		
	• 전후 아시아 · 아프리카에서 민족 운동이 활발해진 배경을 설명한다.	강의식	PPT
	• 국 · 공 합작과 대립의 측면을 중심으로 중국의 정치 체제 변화의 과정을 설명한다.		180쪽 지도
	• 전후 아시아에서 전개된 각국의 민족 운동을 정리하여 그 의의를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181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인도 독립 운동 지도자로서, 완전한 독립을 요구했던 인물은?		
	2. 술탄제를 폐지하고 튀르크 인 중심의 터키 공화국을 세운 인물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베르사유 체제의 유럽

(1) 파리 강화 회의

① **윌슨의 14개조**: 강화 원칙으로 채택
- 내용: 민족 자결주의, 비밀 외교 폐지, 군비 축소, 국제 연맹 창설 등
- 결과: 동유럽 국가들의 독립, 패전국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약 체결

② **베르사유 조약**: 승전국과 독일 사이에 체결 → 베르사유 체제 수립

(2) 전후의 유럽 질서 변화

① **독일**
- 국외 식민지와 알자스 · 로렌 지방 상실
- 군비 대폭 제한, 막대한 배상금 지불
- 독일 국민의 불만 심화

② **동유럽**: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지배에서 독립(핀란드, 발트 3국,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

(3)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① **국제 연맹**
- 창설 목적: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침략 방지 및 군비 축소
- 한계: 미국 · 소련 등 강대국 불참, 침략 행위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 부재

② **워싱턴 군비 축소 회의**: 각국 군함의 보유 비율 제한 → 열강의 이해관계 충돌로 중단

③ **부전 조약**: 미국과 프랑스 체결, 국제 분쟁의 무력 해결 금지, 여러 나라 호응 → 전쟁 막을 강제력 부재

(4) 전후 유럽의 민주주의 발전

① **각국의 정치 발전**
- 독일, 오스트리아: 제정 붕괴, 공화국 수립(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선진적인 민주 헌법 제정)
- 동유럽: 신생국의 민주적 헌법 채택

② **민주주의의 발달**: 여성의 참정권 확대(미국 · 영국 등), 보통 선거 실시

2. 아시아 ·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1) 반제국주의 운동

① **3 · 1 운동(1919)**: 만세 시위 전개, 우리 민족 최대의 독립 운동으로서 전 세계에 독립 의지 선언

② **아시아 각국의 민족 운동**: 중국의 5 · 4 운동, 인도 반영 운동, 서아시아의 민족 운동

(2) 5 · 4 운동(1919)

① **배경**
- 신문화 운동의 영향으로 근대 의식 확산
- 일본의 21개조 이권에 대한 중국의 철폐 요구 좌절

② **전개**
- 과정: 베이징의 대학생 중심으로 21개조 철폐, 외세 배척, 친일 관료 처단, 군벌 타도 등을 요구하는 시위 → 전국적인 민족 운동으로 발전
- 결과: 군벌 정부의 친일 관료 파면, 베르사유 조약 조인 거부

(3)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

① **쑨원**: 국민당 정부 수립(광둥)

② **사회주의 지식인**: 중국 공산당 결성

③ **제1차 국 · 공 합작**: 군벌 정부 타도 목적, 국민 혁명군 육성

④ **장제스**
- 북벌 단행, 상하이 점령 → 공산당과 결별
- 새로운 국민당 정부 수립 → 군벌 정부 붕괴 → 공산당 압박

⑤ **마오쩌둥**: 대장정 단행 → 옌안으로 이동

(4) 인도의 비폭력 · 불복종 운동

① **인도의 민족 운동**: 제1차 세계 대전 후 반영 운동 확산
- 간디: 인도 국민 회의 중심으로 완전 자치 요구, 비폭력 · 불복종 운동 전개
- 네루: 완전한 독립 추구

② **반영 운동의 결과**: 각 주별로 자치권 획득(군사권 · 외교권 제외) → 완전 독립을 요구하는 반영 운동 지속

(5) 동남아시아의 반제국주의 운동

① **베트남**: 프랑스에 대항 → 호찌민의 주도로 인도차이나 공산당 조직

② **인도네시아**: 네덜란드에 대항 → 수카르노가 인도네시아 국민당 결성

③ **시암**: 입헌 군주국 수립(타이로 국호 개칭)

(6) 서아시아의 민족 운동

① **오스만 제국**: 무스타파 케말이 터키 공화국 수립(1923), 술탄제 폐지, 여성 참정권 인정, 로마 문자 사용

② **서아시아 지역**
-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의 독립
- 팔레스타인, 시리아: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 통치

(7) 아프리카의 반제국주의 운동

① **이집트**: 와프드당의 민족 운동 → 독립 달성(1922)

② **범아프리카주의**
- 아프리카 인의 단결과 평등 강조
- 아프리카 지식인 참여 → 자치 요구 주장 확산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77쪽

베르사유 조약

생각 열기 ▶▶▶ 교과서 179쪽

5 · 4 운동

탐구 활동 ▶▶▶ 교과서 181쪽

예시 답안

영국은 제1차 세계 대전 중 아랍 인과 유대 인의 협력을 얻어 내고자 이중적인 독립 약속을 하였으나, 프랑스와는 이 지역을 공동 관리하기로 약속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82쪽

1. (1) 베르사유, (2) 국제 연맹, (3) 바이마르 공화국
2. 5 · 4 운동
3. (1) ㉣, (2) ㉡, (3) ㉢, (4) ㉠
4. 아시아 ·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통치하던 나라들이 제국주의 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민족 운동은 반제국주의 성향을 띨 수밖에 없었다.

내용 더하기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54차시

세계 모든 민족은 모두 동반자이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다른 민족에게 정의가 시행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정의는 없을 것임은 불을 보듯 확실하다. 그러므로 세계 평화에 대한 구상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구상인 것이다.

1. 공개적으로 체결된 강화 협약 이외에는 어떠한 비밀의 국제적 양해도 있을 수 없으며, 외교는 항상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 각국의 전쟁 비용을 국내 안전에 필요한 최저선까지 축소하기 위해 적당한 보장이 제공되어야 한다.
5. 모든 식민지의 요구에 대한 자유롭고 편견 없는 절대 공평한 조정을 위해 식민지 주권과 같은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데에는 해당 식민지 주민의 이해가 그 지배권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가지는 정부의 정당한 요구와 대등한 비중을 가진다는 원칙이 엄수되어야 한다.
10. 우리는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 내의 민족들의 국제적 지위가 보전되고 보장되기를 바라며, 그들에게는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12.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자결권을 부여하고 다르다넬스 해협 통행을 자유화한다.
13. 분명히 폴란드 인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독립된 폴란드 국가를 수립해야 하며, 폴란드에게는 바다로 향하는 자유롭고 안전한 출구가 보장되어야 하고, 또 그 국가의 정치적 · 경제적 독립과 영토 보전은 국제 협정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한다.
14. 강대국과 약소국을 막론하고, 동등한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상호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한 협약에 따라 일반적인 연합 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1918년 1월 8일 연설에서 제1차 세계 대전 종식과 전후 질서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이른바 윌슨의 14개조 원칙이다. 이 원칙에는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식민지 처리와 국가 간 협력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때 제시된 민족 자결주의는 우리나라의 3 · 1 운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 의회에서 제1차 세계 참전에 관해 연설하는 윌슨(1917.3.)

파리 강화 회의와 베르사유 조약 54차시

1918년 12월 5일 유럽으로 향하는 미국 대통령 윌슨이 탄 배 '조지 워싱턴호'는 앞으로 비행기의 호위를 받고 뒤로는 전함의 엄호를 받으며 21발의 축포가 울리는 가운데 뉴욕을 출발하였다. 그 배에는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온갖 청원과 요구가 담긴 큰 서류 상자가 실려 있었다. 12월 14일 파리에 도착한 윌슨은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그 환영은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은 전쟁을 끝나게 한 강대국이었고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한 이상주의자였지만, 전쟁의 당사자였

던 영국과 프랑스는 결코 자신들의 권리와 식민지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18년 1월 윌슨 대통령은 비밀 외교의 폐지, 해양의 자유, 군비 축소, 국제 연맹의 창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14개조 평화 원칙'을 제안하여 전후 세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승전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주장했기 때문에 윌슨의 14개조는 국제 연맹의 창립을 제외하고는 거의 실현되지 못하였다.

전쟁의 뒤처리를 마무리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수립하기 위해 1919년 1월 18일 전승국 27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파리 강화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패전국은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독일은 제시된 내용에 대한 논평조차 할 수 없었다. 승전국이라 하더라도 약소국가들은 이 회의에서 제외되었다. 그리하여 실제로 강화 내용을 결정한 것은 미국, 영국, 프랑스였다. 회의 결과 연합국과 독일 사이에 베르사유 조약이 맺어졌다.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었다. 독일은 모든 식민지를 포기해야 하였고, 철광석의 90%를 생산하는 알자스 · 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반환하였으며, 석탄의 보고인 자르 지방도 국제 연맹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독일은 또한 인구의 약 10%와 영토의 13%를 잃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으며 육군 10만 명과 군함 10만 톤으로 군비도 제한되었다. 패전국에 대한 이런 철저한 보복은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독일의 배상금 문제 54차시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평화 수립과 경제 부흥에 직접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배상 문제였다. 베르사유 체제의 최종 결정에 따라 독일은 막대한 액수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는데, 패전의 혼란과 경제 침체에 허덕이는 독일의 형편으로는 전혀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게다가 프랑스는 루르 지방을 점령하였고, 독일 경제는 파탄 직전에 몰리게 되었다.

독일 경제의 파탄은 유럽 경제의 혼란을 뜻하는 것이었지만, 영국, 프랑스 등 승전국도 대부분 미국에 빚을 진 채무국이었기 때문에, 독일에게서 배상금을 받지 못하면 미국에 진 부채를 갚기 어려웠다.

1924년 미국은 '도스 안'을 제시하여 2억 달러의 차관으로 독일의 마르크화를 우선 안정시키고, 앞으로 5년간의 배상액을 잠정적으로 정하였다. 마르크화가 안정되면서 독일 경제도 부흥할 기미를 보였으나 배상금은 여전히 큰 부담이었다. 1929년 미국은 다시 '영 안'으로 독일의 배상금 총액을 4분의 1로 감소하고 지불 연한도 59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대공황이 발생하여 배상금 지불이 불가능해지자, 미국의 후버 대통령은 1년간의 상환 정지를 통고하였다. 1932년 관계국들은 로잔 회의에서 배상금을 44분의 1로 감소하고,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지불을 유예하기로 하였는데, 히틀러의 정권 장악과 더불어 배상 문제는 실질적으로 소멸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에 대한 전쟁 부채 문제도 흐지부지되었다.



▲ **독일의 5000만 마르크 지폐**
독일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극심한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1923년 발행된 이 지폐의 액면가는 5000만 마르크지만 실질 가치로 따지면 미국의 1달러 정도에 불과했는데, 만약 1914년이라면 미국의 1200만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을 것이다. 당시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폐는 발행된 지 몇 주만 지나면 아무 가치 없는 종이쪽이 되곤 하였다.

워싱턴 군비 축소 회의 54차시

1. 해군 군비 제한 조약: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의 주력 함대 보유 톤 수 비율을 5:5:3:1.75:1.75로 정함.
2. 일본의 중국 진출 저지 9개국 조약 체결 곧, 21개조 요구 폐기
3. 영 · 일 동맹 파기와 태평양의 현상 유지 보장 4개국 조약(영 · 미 · 일 · 프): 해군의 군비 제한에 대해서는 이후 1930년 4월 런던 조약으로 영국, 미국, 일본 3개국이 일정한 비율로 주력함,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을 감축하도록 결정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군비 축소를 위한 회의가 워싱턴, 제네바, 런던 등에서 열렸는데, 그중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것이 워싱턴 회의였다. 워싱턴 회의는 해군의 군비 확장

경쟁을 막기 위해 미국 대통령 하딩의 제창으로 1921년 11월부터 1922년 2월까지 워싱턴에서 열렸다. 제1차 세계 대전에서는 전차도 사용되었지만 가장 큰 비용이 든 것은 군함 건조였다. 비록 독일이 잠수함으로 해상을 위협했지만 함대를 이용하여 제해권을 장악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군비 제한의 1차 대상이 된 것은 해군이었다. 워싱턴 회의는 특히 팽창하고 있던 일본의 군비를 제한하려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일본의 제1차 세계 대전 참전은 독일에게 타격을 주려는 영국이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 틈을 노려 중국에 발판을 굳히려고 했기 때문에 전쟁 범위를 해상에 국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본은 거의 희생을 치르지 않고 승전국의 정치적 이익과 중립국의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챙겼다. 그것은 일본이 전후 협상에서 요구한 21개조에서 드러나는데, 이것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이는 또한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5 · 4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세력이 크게 확장되었고,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는 미국뿐이었다. 미국은 전쟁이 종결됨에 따라 영국이 일본을 지지할 이유가 없어졌고, 일본의 중국 진출 동맹자였던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으며, 중국에서 혁명적 분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외교적으로 일본을 압박하였다.

바이마르 헌법(1919.7.) 54차시

제1조 독일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2조 국회 의원은 비례 대표제의 원칙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녀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 선거로 선출된다.
제41조 대통령은 전 독일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제159조 노동 조건 및 경제 조건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단결의 자유는 모든 누구에게나 보장된다. 이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모든 협정과 조치는 위법이다.
제165조 노동자 및 고용인은 임금 및 노동 조건에 관한 규정과 생산력의 모든 경제적 발전에 관하여 기업가와 대등한 권리를 갖고 함께 협력할 것을 요청받는다.

1919년 독일 공화국에서 처음 열린 국회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발표하였다. 이 헌법은 주권 재민, 남녀 보통 선거, 노동권의 보장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었다.

5 · 4 운동 55차시

지금 일본은 칭다오를 삼키고 산둥에서의 모든 권리를 관리하는 데 성공 일보 직전에 와 있다. 산둥을 잃는 것은 중국이 망하는 것이다.
조선은 독립을 꾀해 "독립하지 못하면 차라리 죽겠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전국의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밖으로는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우고 안으로는 국가의 적을 제거하자. 중국이 살아남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은 오직 이번 일에 달려 있다. 중국의 영토는 정복될지언정 넘겨 줄 수 없다. 중국 국민은 죽을지언정 머리를 숙일 수 없다.

- 전체 학생 천안문 선언(1919)

파리 강화 회의에서 중국은 일본이 제출한 '대중국 21개조 요구'의 취소와 산둥 반도의 이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열강들은 이를 무시하였다. 이에 베이징 대학생들은 산둥 반도의 반환과 대중국 21개조 철폐, 군벌 타도, 반일 등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반봉건 · 반군벌 ·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 5 · 4 운동 기념 부조(중국 베이징)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55차시

쑨원이 이끄는 중국 혁명 동맹회는 삼민주의(민족 독립, 민권 신장, 민생 안정)를 내걸고 중화민국을 수립하는 데 성공하였다(1912). 그러나 각지에서 군벌 세력이 발호하고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계속되는 등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쑨원은 중화민국의 총통 자리도 제국주의 열강의 지원을 받는 군벌 위안스카이에게 곧 넘겨주어야 했다.

그 후 쑨원은 중국 혁명 동맹회를 국민당으로 발전시켜 위안스카이에 대항하였으나 1913년 선거 후 당은 해산되었고 쑨원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1919년 5 · 4 운동이 일어나자 쑨원은 국민당을 좀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발전시켜 '중국 국민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쑨원이 이끄는 중국 국민당은 군벌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삼민주의를 바탕으로

공산당과도 손을 잡는다는 방침을 세웠다(제1차 국 · 공 합작, 1924). 그러나 1925년 쑨원이 사망하자 그 뒤를 이어 국민당을 장악한 장제스는 반공 쿠데타를 일으켜 난징 정부를 세우고 우한에 자리 잡은 공산당에 대한 토벌에 나섰다(1927).

중국 공산당은 5 · 4 운동의 영향을 받아 1921년 결성되었으며, 베이징 대학 학장이었던 천두슈 등이 조직 결성을 주도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제1차 국 · 공 합작에 따라 국민당과 함께 반군벌 투쟁에 나서며 당세를 확장시켜 나갔으나, 장제스의 쿠데타와 공산당 토벌 작전으로 큰 위기를 겪었다. 몇 차례의 정규전에서 대패한 공산당은 대장정이라 불리는 퇴각 과정(1934~1936)에서 마오쩌뚱이 당권을 장악하였다. 그는 "항일을 위해 북상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추구하는 노선을 채택하였으며 농민을 중시하였다.

한편 일본이 대륙을 침략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관하면서 공산당 토벌에만 열중하는 장제스의 국민당에 대해 민중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시안[西安]에서 북동군 총사령관이었던 장쉐량이 부하들의 설득을 받아들여 장제스를 감금하는 사건이 벌어졌다(시안 사변, 1936). 그는 장제스에게 내전을 중지하고 공산당과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 사건으로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다시 한 번 항일을 위해 손을 잡는 제2차 국 · 공 합작을 이루어 냈다.

인도 민족 운동과 간디 55차시

"자신들의 양심을 갉아먹는 위선 행위를 단념하는 것이 백인들에겐 너무도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백인은 이제 모든 인간들을 자신과 동등하게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왔다. 백인들은 정녕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가 남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분의 이름을 헛되이 할 셈인가?"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영국은 인도인들이 전쟁 수행에 협력해 준다면 전쟁 후에 자치를 보장한다고 약속하였다. 인도인들은 이 약속을 믿고 영국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전쟁 후 영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전시와 같은 통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인도 민족 운동을 이끌던 간디는 사티아그라하(압박에 대한 투쟁,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였다. 간디는 인도 여러 곳을 순회하며 영국산 면제품을 쓰지 말자는 수방(手紡: charkha) 운동을 장려하였다. 수방 운동은 영국산 직물의 침투를 막고 자급자족을 통한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 전통적인 방법으로 직물을 스스로 짜서 입자는 운동이다.

1919년 인도 국민 회의에서는 간디의 주장에 따라 영국에 대한 비협력 운동 방침이 채택되어 납세 거부, 취업 거부, 상품 불매 등을 통한 비폭력 저항이 실시되었다.

이 운동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인도 각지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자 1922년 간디의 호소로 운동은 잠시 중지되었다. 그동안 간디는 투옥되었다가 풀려났으며, 1924년부터 1년간 인도 국민 회의파의 의장으로 있으면서 수방 운동을 전개하며 전국을 순례하였다.

61세가 된 간디는 1930년 3월에 사티아그라하 운동의 지지자들을 이끌고 소금세 신설 반대 운동을 벌였다. 영국은 소금을 독점하고 무거운 세금을 매겨 팔고 있었다. 간디는 이에 항의해 해변으로 가 불법으로 소금을 채취하고 '소금 행진'을 시작하였는데, 이 행진에 수백만 명의 군중이 뒤를 따랐다.



▲ 간디와 네루

간디(1869~1948)는 하급 관리 집안 출신으로 영국에 유학하여 변호사가 되었으며, 제1차 세계 대전까지 남아프리카에서 인종 차별 반대 투쟁에 힘썼다. 네루(1889~1964)는 변호사 집안 출신으로 영국에서 유학하던 중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인도의 독립 운동에 참가하여 강경한 노선을 걸었다.

터키 공화국 55차시

제1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오스만 제국은 비튀르크 인의 거주 지역을 모두 상실하고, 협상국 측의 재정 관리를 받게 되었다. 이에 무스타파 케말은 튀르크 국민당을 결성하고, 임시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후 그는 서양 열강과 맺었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고, 술탄 제도를 폐지하여 터키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 무스타파 케말

정교 분리, 여성의 지위 향상, 근대적 교육 제도 실시 등을 추진하여 터키의 근대화에 이바지하였다.

Ⅵ. 현대 세계의 전개

03 제2차 세계 대전과 평화를 위한 노력

학습 목표

- 대공황의 발생 원인과 각국의 극복 노력을 이해할 수 있다.
- 파시즘의 출현 배경과 파시즘 체제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 원인과 전개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국제 연합이 성립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전쟁 중 대량 학살과 인권 유린의 사례를 통하여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56	**1. 대공황의 발생과 파시즘의 출현**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미국에서 대공황이 시작된 이유는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대공황 시기의 상황을 관련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	강의식	CD
	• 각국의 대공황 극복 노력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PPT
	• 이탈리아, 독일, 일본에서 파시즘이 등장한 배경과 그 특징을 파악하게 한다.	탐구식	184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1929년 미국에서 전 세계로 파급되어 장기간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은?		
	2. 많은 식민지를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가 자국과 식민지를 하나로 묶은 것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57	**2.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과 전개 ~ 3.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국제 연합의 성립**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독일은 왜 게르니카를 무차별 폭격하였을까?	문답식	
	[전개]		
	•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된 배경과 전개 과정을 지도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강의식	186쪽 지도
	•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 과정을 설명하고, 전쟁의 참상과 폐해에 대해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189쪽 자료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평화를 위해 국제 사회가 노력한 점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인터넷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하고 동남아시아를 침공하면서 일어난 전쟁은?		
	2.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설된 국제 평화 기구는?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대공황의 발생과 파시즘의 출현

(1) **대공황(1929)**

① **배경**: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경기 과열

② **발생**: 미국의 주가 대폭락 → 기업과 은행 도산, 실업자 증가, 농산물 가격 폭등

③ **확산**: 세계 여러 나라에 파급 → 장기간 심각한 타격

(2) **각국의 대공황 극복 정책**

①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 정부의 경제 개입: 생산 조절,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
- 복지 정책 추진: 노동자의 권익 보호, 사회 보장 제도 실시

② **영국, 프랑스**: 본국과 식민지를 묶는 배타적인 경제 구역(블록) 형성

③ **독일, 이탈리아, 일본**: 침략 정책 확대

(3) **파시즘의 확산**

① **등장 배경**: 민주주의 발전과 노동 운동 활성화에 대한 반발

② **특징**: 국가 최우선주의, 반민주주의 · 반공주의, 일당 독재 체제, 군국주의, 대외 침략 확대

③ **파시즘 국가**: 이탈리아(무솔리니), 독일(히틀러의 나치당), 일본(군국주의)

2.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과 전개

(1) **파시즘 국가들의 결속 강화**

① **파시즘 세력의 확산**: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략, 독일의 재군비 선언 → 인민 전선 운동의 대항

② **파시즘 국가의 결속**: 에스파냐 내전(1936)으로 파시즘 체제 수립 → 독일 · 이탈리아 동맹 → 독일 · 일본 · 이탈리아의 방공 협정 체결(1937)

(2) **제2차 세계 대전**

①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

- 독일의 침략 확대: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 점령
- 전쟁 발발: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 조약 체결 → 독일의 폴란드 침공(1939)

② **제2차 세계 대전의 전개**

- 파시즘 세력의 전쟁 확대: 독일과 이탈리아의 협동 작전 전개, 독일의 유럽 대륙 장악 → 소련 침공(1941)
- 연합국의 저항: 영국의 항전,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운동 전개

(3) **전쟁의 확대**

① **일본의 침략 전쟁**: 중국 침략(중 · 일 전쟁, 1937),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점령

② **태평양 전쟁**

- 원인: 일본의 침략 확대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압력
- 전개: 일본의 미국 진주만 기습 공격(1941) → 미국이 참전하면서 전 세계로 전쟁 확대

3.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국제 연합의 성립

(1)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

① **연합국의 반격**: 미국 · 영국 연합군의 이탈리아 상륙 → 무솔리니 정권 붕괴(1943)

② **노르망디 상륙 작전**: 파리 해방, 베를린 공격 → 독일 항복(1945. 5.)

③ **전쟁 종결**: 미군의 일본 본토 폭격, 원자 폭탄 투하 → 일본 항복(1945. 8.)

(2) **전후 문제 처리**

① **연합국 주둔**: 미국 · 영국 · 프랑스 · 소련의 독일 점령, 미국의 일본 점령

② **패전국 처리**: 전범 처단(국제 재판소 설치), 파시즘 체제 해체 → 강화 회의 개최

(3) **국제 연합의 창설**

① **국제회의 개최**

- 대서양 헌장(1941): 미국의 루스벨트와 영국 처칠 회담, 전후 평화 수립 원칙 발표
- 카이로 회담 : 전후 일본 처리 문제 협의, 최초로 한국의 독립 약속
- 얄타 회담: 전후 독일 처리 문제와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표결 방법에 합의

② **국제 연합(UN)**

- 창설(1945. 12.):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 중심으로 창설, 강대국 참여
- 역할: 침략 행위에 대한 무력 제재(유엔군),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83쪽

대공황(경제 대공황, 세계 공황)

탐구 활동 ▶▶▶ 교과서 184쪽

1. '국가 최우선, 반민주 · 반공', 군국주의, 일당 독재 체제, 국가나 민족을 앞세우는 전체주의 정책, 개인의 자유 제한, 대외 침략 등

2. 예시 답안 파시즘 체제는 주로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대외 침략으로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불만과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민족을 절대시하는 상징 조작 체계를 교묘히 이용하고, 인종적 순수성이나 과거의 위대한 역사를 강조하여 비뚤어진 애국심을 고양하려고 하였다. 또한 대중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의 비판 의식을 약화시키고 국가와 지도자에 충성하는 국민 감성을 고양하려 하였다. 독일 나치당의 경우 유대 인을 비롯한 소수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인종 청소도 서슴지 않는 등 비인간적이고 극단적인 광기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85쪽

인간을 파괴하는 파시즘의 무모한 폭력을 고발하고 이를 비판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187쪽

독일과 소련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88쪽

1. (1) ○, (2) ○
2. (1) ㉡, (2) ㉠, (3) ㉢
3. ㉡ – ㉠ – ㉢ – ㉣
4.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깊이 있는 역사 ▶▶▶ 교과서 189쪽

예시 답안

1. • 독일: 유대 인 학살, 수용소의 인체 실험 등
   • 일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난징 대학살, 마닐라 대학살, 731부대의 생체 실험, 세균전 등(위키 리걸 http://ko.legalwikia.com,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의 '전쟁 범죄' 항목 참조)
2.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전쟁 범죄 사실을 밝히고, 해당 행위에 대한 사과는 물론 실질적 보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전쟁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밝혀진 사실도 인정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 범죄자로 처벌 받은 인물들까지 야스쿠니 신사에서 애국자로 존숭하고 있다.

내용 더하기

'검은 목요일' 56차시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자본주의는 크게 심각한 불황을 겪지 않고 1929년을 맞이하였다. 전쟁은 옛이야기가 되었고, 세상은 '영원한 번영'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았다. 특히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은 미국 경제는 그 번영의 정점에 올라 있었다. 사람들의 관심은 나날이 오르기만 하는 주식 가격에 모아졌다. 매주 15달러씩 저축해서 그것을 주식에 투자하면 5년 안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계산법이 시중에 떠돌았으며, 주식 투자로 벼락부자가 된 구두닦이나 간호사의 성공담이 사람들을 주식 시장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는 증권 거래소에서 종이쪽지를 사고파는 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었기에, 투기 열풍은 1929년 10월 24일 뉴욕의 월스트리트 증권 거래소에서 '검은 목요일(Black Thursday)'을 맞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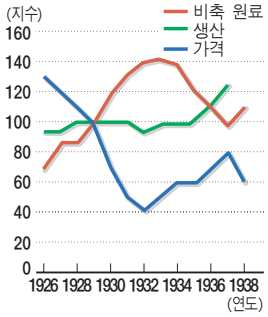
이날 월스트리트의 증권 거래소는 주식 가격이 내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사로잡힌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쏟아낸 매물로 넘쳐 났다. 주가는 즉시 수직으로 곤두박질쳤고, 투자자들은 자기의 눈을 의심할 지경이었다. 어제까지 주식을 사지 못해 안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식을 팔지 못해 아우성을 쳤다. 이날의 주가 폭락으로 파산한 투자자들 가운데 11명이 자살하였고, 투자 신탁 회사의 큰손들이 연일 대책 회의를 열어 필사적인 매입 작전을 전개하면서 사태는 약간 진정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닷새 뒤 화요일에 두 번째 폭락이 이어졌다. 단 하루 사이에 주가가 40% 넘게 떨어지면서 파동은 계속되었다. 11월의 주가는 9월의 절반을 밑돌았고 해가 바뀌자 8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갔다. 곧이어 런던, 파리, 베를린, 도쿄 등 전 세계의 증권 거래소도 주식 폭락 사태를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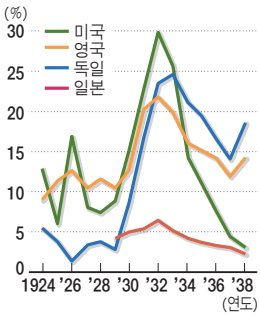
사람들은 자기의 귀중한 재산이 증권 거래소 게시판 위에서 솜사탕처럼 녹아 없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하지만 주가 폭락은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니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이 맨 먼저 파산하였다. 가진 주식을 다 팔아도 은행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은 집과 땅을 빼앗겼다. 그러나 은행도 안전하지 않았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은행들이 부도를 내기 시작하자 예금주들은 은행 앞에서 장사진을 쳤다. 은행마다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밀려들었으나, 이 돈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된 상태였으므로 은행의 현금 잔고는 금방 바닥이 났다. 미국에서만 5천 개의 은행이 연쇄적으로 파산하였다.

재산과 예금 구좌를 날려 버린 사람들은 소비를 줄였다. 기업들은 물건을 팔 수 없게 되자 생산을 감축하고 종업원

을 해고하였다. 실업자가 증가하고 빈곤이 확산되면서 상품 판매는 더욱 어려워졌고, 기업은 생산을 또다시 감축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자금난에 빠진 수만 개의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대공황은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 1926~38년의 상품 생산



▲ 주요 국가의 실업률

1930년대 전반에 비축 원료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생산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 과잉은 대공황을 불러왔고,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은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뉴딜 정책 56차시

농업 조정법 (AAA)	• 농업 생산을 제한하여 생산과 소비의 균형 유지 •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불하여 가격 회복 추구
산업 부흥법 (NIRA)	• 기업 간의 불공정한 경쟁 금지 • 국민의 구매력을 증가시켜 경제 회복 추구
와그너 법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 인정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뉴딜 정책을 실시하였다. 뉴딜 정책은 '정치는 경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자유방임주의 원칙을 수정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여 금융과 산업 및 물가 등 시장 경제의 전면에 걸쳐 통제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루스벨트는 뉴딜 정책으로 생산을 증대하고, 테네시 강 계곡 개발 공사 등으로 고용 증대를 꾀하였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해 선린 외교 정책을 펴 교역을 촉진하였다.



▲ 테네시 강 개발 공사 현장

테네시 강에 26개의 대형 댐을 건설하여 홍수 방지 · 전력 개발 · 공업 유치 · 관개 · 휴양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탈리아의 파시즘 56차시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 대전 때 협상국에 가담하여 승전국이 되었다. 그러나 전후에 아드리아 해 영토를 획득하지 못해 베르사유 체제에 큰 불만을 가졌다. 또한 제1차 세계 대전 중 불어난 외채와 전후 실업자 문제로 사회와 경제가 극도로 혼란해졌다. 특히 노동 운동이 활발해지고 공산주의 세력이 급격히 성장하자 위기감을 느낀 자본가와 지주, 군인들은 무솔리니가 주도하는 파시스트당에 집결하였다.

무솔리니는 1919년 제대 군인, 부유층, 우익 학생들을 규합하여 이탈리아 파쇼 전투단을 조직하고, 이듬해에는 '검은 셔츠단(Black Shirts)'을 결성하여 노동자, 농민 단체가 주도하는 파업 투쟁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활동에 지주, 산업 자본가, 실업자나 불우한 노동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군인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다.

1921년 이후 파시스트들의 테러 활동은 더욱 활발해져 1922년 10월까지 120개의 농민 조합이 습격당해 파괴되었고, 243개의 사회당 지부가 공격받았다. 또한 노동자 회관과 소비조합 500여 개가 파괴되었으며, 사회당 자치 단체 900여 개가 해산되었다. 무솔리니가 집권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파시스트당을 제외한 정당은 이탈리아에서 사라졌다.

독일의 파시즘 56차시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의 여파로 독일의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 자본으로 지탱되던 독일 경제는 미국의 급격한 자본 회수로 붕괴되어, 1932년에는 노동자의 40%가 실업자로 전락하였다.

경제가 파국으로 치달아 실업자가 증가하고, 계급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치당에 대한 지지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1932년 나치당은 제1당이 되었고, 이듬해 내각 구성권을 장악하였으며, 다른 정당을 해산한 다음 일당 독재 체제를 형성하였다. 1933년 1월 제1당의 지도자 히틀러는 제3당으로 부상한 공산당의 추이에 불안감을 느낀 보수 세력과 자본가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수상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이른바 의사당 방화 사건을 조작하여 공산당과 노동조합을 탄압하였으며, 7월에는 나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을 해산하고 나치당원만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였다. 1934년 대통령 힌덴부르크가 죽자 히틀러는 대통령의 지위를 겸하였다. 9월에는 국회 의사당

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국기가 사라지고 나치당의 갈고리 십자가 깃발이 걸렸다. 히틀러는 새로 형성된 질서를 제3제국이라 불렀다.

히틀러의 대외 인식 56차시

…… 나는 이 나라(오스트리아)의 수도에 여러 인종이 혼재하고 있는 모습에 혐오감을 느꼈다. 체코 인, 폴란드 인, 헝가리 인, 루테니아(러시아) 인, 세르비아 인, 크로아티아 인 그리고 어디서나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유대 인, 그 많은 유대 인들에 나는 질려 버렸다.

지금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피로 얼룩진 범죄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들은 시대를 잘 타고 나 권력을 잡았을 뿐, 인간쓰레기들이며 이 위대한 국가를 비극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고 인텔리들에게 피의 살육을 자행한 자들이다.

수백만의 고급 문화인들이 별 볼일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형편인데, 반원숭이 아프리카 인들을 교육시켜 변호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범죄 행위이다. …… 가장 큰 축복을 받고 태어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텐토트 인과 줄루 카피르 인을 가르쳐 전문 직업인으로 키우겠다는 발상은 위대한 창조주의 의지에도 반하는 죄악인 것이다.

인종적으로 프랑스는 유럽의 토양에서 자라난 아프리카 국가라고 불러야 할 만큼 너무 심하게 흑인화하였다. 오늘날 프랑스의 식민 정책은 과거 독일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300년이 흐른다면, 프랑크족의 마지막 피 한 방울은 유럽-아프리카 물라토 국가에 흡수되어 사라질 것이다.

유대 인들의 생각은 분명하다. 그들은 독일에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 인텔리들을 몰아내고 독일 노동자들을 유대 금융가들에 속박시켜 착취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유대 인들의 정지 작업일 뿐이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독일은 이 투쟁에 있어 주축이었다. 만약 우리 국민과 국가가 피에 굶주리고 탐욕스러운 유대 인 압제자가 다스리는 국가에 희생된다면, 전 세계가 이 괴물의 덫에 걸려들 것이다. 만약 독일이 이 투쟁에서 살아남는다면, 전 세계를 위해 이 엄청난 위협 세력을 꺾는 것이 될 것이다.

유대 인은 언제나 여러 국가에서 싸움을 걸어올 것이다. 각 국가의 현실과 정서에 맞게 효과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전술을 사용할 것이다. 오랜 전쟁으로 피로 얼룩진 우리나라에서는 코스모폴리탄, 평화주의 이데올로기 등을 강조하면서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국가 그리고 또 한 국가를 폐허로 만들어, 그 토대 위에 영원불멸의 유대 인 제국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 히틀러, "나의 투쟁"

공황 극복에 대한 독일 인들의 기대감 덕분에 43세의 젊은 나이에 권력을 잡은 히틀러는 1933년부터 '경제 4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다. 그 핵심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물가를 규제하고, 대대적인 공공사업과 군비를 확충하며, 수출입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나치는 '전체'를 강조했지만 '전체'가 모두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었다. 민족이나 국가의 단결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적'이 필요했다. 사람들의 막연한 불만과 분노를 이용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단순화시켜, 그 불만과 분노를 해소할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 파시스트의 술책이었다.

가장 먼저 그 희생양이 된 것은 사회주의자들이었고 그 다음으로 소수자들(정신 질환자, 부랑자, 장애인, 동성애자 등), 그리고 유대 인, 나중에는 개인주의, 자유주의자들까지 타도 대상이 되었다. 유대 인이 소유하고 있던 많은 자산은 고스란히 나치당의 차지가 되었다.

에스파냐 내전과 반파쇼 투쟁 57차시

파시즘은 이탈리아나 독일과 같은 몇몇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대공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계급 갈등이 심해지면서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 파시스트 정부가 수립되었고,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파시스트의 세력이 크게 성장하였다.

1931년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이행한 프랑스에서는 보수 세력과 혁신 세력의 다툼으로 정국이 불안정하였다. 1936년 2월 19일 에스파냐 제2 공화국에 인민 전선 정부가 성립되었다. 좌익의 인민 전선 정부는 정교(政教) 분리, 농지 개혁 등의 정책을 내걸어 중산 계급과 노동자 · 농민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자 이에 반대하는 교회와 대지주 · 대자본가의 지지를 얻은 군부 · 왕당파 · 우익 정당 진영이 프랑코 장군의 지휘하에 모로코 주둔군을 선두로 하여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프랑코군을 계속 원조하였고, 영국과 프랑스는 불간섭을 내세워 공화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거부하였다. 소련은 독일과 이탈리아에 대항하여 공화국에 무기를 제공하였고, 코민테른은 국제 의용군을 보내 공화국을 도왔다. 그러나 1939년 1월 26일 바르셀로

나가 프랑코군에게 점령되었고, 영국과 프랑스는 2월 27일 프랑코 정권을 승인하였다. 3월 23일 마드리드에서 프랑코군과의 화평을 요구하는 반공 쿠데타가 일어나고, 28일 프랑코군이 마드리드에 입성하면서 내란은 끝이 났다. 이로써 에스파냐에 프랑코 체제가 성립하였다.

피카소의 게르니카 57차시



1937년 에스파냐의 소도시 게르니카는 나치 독일 공군기들에 의해 3시간 동안 무려 32톤의 폭탄 세례를 받았다. 독일 공군기들은 피신하는 주민들까지 기관총으로 공격하였고, 게르니카는 폐허로 변하였다.

당시 프랑스에 있던 피카소는 조국에서 벌어진 학살 행위를 고발하고자 2개월 만에 '게르니카'를 그려 그해 파리 국제 전시회에 공개하였다. 게르니카는 학정에 대한 저항과 화해의 상징이 되었고, 침묵하던 세계의 지식인들이 직접 에스파냐로 달려가 총을 들게 만들었다.

그림에는 말을 탄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짓밟는 모습이 보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말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을 의미하며 말을 탄 사람은 프랑코 장군의 군부 쿠데타 세력을 의미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말을 탄 사람은 한 눈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한 눈은 옆을 보고 있다.

처음에 세계는 공습을 주도한 히틀러 정권만을 비난하였다. 이에 피카소는 게르니카 공습이 실제로는 에스파냐 군부의 사주에 의한 것임을 시사하기 위해 엇갈린 시선을 가진 인물을 그려 넣었다. 이것은 사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때 숨겨진 진실을 알 수 있다는 피카소의 생각을 웅변하는 것이다.

히틀러의 소련 침공 이유 57차시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역사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소련이 동남부 유럽에 대한 기존의 이해관계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나라 관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소련은 독일이 전시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석유와 식량을 독일에게 충실히 보내 주고 있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는 영국과 장기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히틀러는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는 데 더 이상 소련에 의존하고 싶지 않아 소련 침공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또 다른 이들은 히틀러가 스탈린이 중립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오판하여 소련을 침공하였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히틀러가 소련을 무너뜨리고 그 영토를 제3 제국으로 통합시킴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는 주장도 있다. 도네츠크 지역의 산업 자원과 캅카스 지역의 유전,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서부의 드넓은 옥수수 지대를 확보하면 독일이 자급자족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서유럽 도시 문화의 영향으로 퇴락한 독일 인종을 다시금 우수한 인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개최된 회담 57차시

• 대서양 헌장(1941)

영국의 처칠과 미국의 루스벨트가 대서양의 함상 회담에서 전쟁 처리의 원칙과 평화 수립의 이념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영토의 불확대, 민족 자결, 군비 축소, 평화 유지를 위한 기구 설립 등이다.

• 카이로 회담(1943)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가 만나 태평양 전쟁 후 일본의 처리에 관해 협의하였다. 이때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하였으며,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였다.

• 얄타 회담(1945. 2.)

소련의 얄타에서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이 모여 전쟁 후의 국제 연합 문제, 독일 문제 등을 결정하였으며, 소련의 대일 참전에 관한 비밀 협정도 체결하였다.

• 포츠담 회담(1945. 7.)

독일의 포츠담에서 미국, 영국, 중국의 대표가 만나 얄타 협정을 재확인하는 한편 일본의 항복 권고와 전후 일본의 처리에 관해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이를 거부하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었고, 소련도 참전하게 되었다.

Ⅵ. 현대 세계의 전개

04 전후 새로운 세계 질서의 전개

학습 목표

- 냉전 체제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자료를 제시하여 설명할 수 있다.
- 한국과 독일이 분단되고 열전이 전개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 1945년 이후 아시아 · 아프리카의 독립 국가 탄생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제3 세계의 결속 과정과 활동 목표를 이해할 수 있다.
- 유럽 통합 운동의 전개 과정을 현재 상황과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58	**1. 냉전 체제의 형성과 전개**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제2차 세계 대전 때 같은 연합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왜 갈라서게 되었을까?	문답식	
	[전개]		
	• 냉전의 의미와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	강의식	PPT
	• 유럽에서 냉전 체제의 양 진영이 대립한 양상을 도표로 작성하여 파악하게 한다.	탐구식	191쪽 자료
	• 냉전 체제 속에서 진행된 열전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192쪽 자료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문답식	
	1. 1947년 미국이 유럽의 공산화를 막고자 발표한 선언은?		
	2.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맞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결성한 조직은?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59	**2. 아시아 · 아프리카의 독립 국가 탄생 ~ 3. 제3 세계의 성립과 유럽 통합 운동**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1970년대 후반에 국제 연합의 회원국이 크게 증가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중국의 정치 · 사회적 변화와 패전국 일본에서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강의식	PPT
	• 아시아 · 아프리카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과 분쟁 내용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194쪽 지도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라틴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에서 일어난 변화를 설명한다.	강의식	
	• 아시아 · 아프리카 신생국들의 결속 배경과 과정을 파악하게 한다.		196쪽 자료
	• 유럽 통합 운동의 전개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그 특징을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197쪽 지도

59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아프리카 신생국이 대거 독립한 1960년을 일컫는 용어는?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문답식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냉전 체제의 형성과 전개

(1) 냉전 체제의 형성

① **냉전의 의미**: 자본주의 진영(미국)과 사회주의 진영(소련) 대립, 긴장 상태 유지

② **냉전의 전개**

- 소련의 세력 확장: 동유럽에 사회주의 정부 수립 → 서유럽 진출 시도, 코민포름 조직
- 미국의 대응: 트루먼 독트린 발표(1947), 마셜 계획 추진(서유럽에 대한 경제 원조 강화)

(2) 냉전 체제의 심화

① **냉전 체제의 긴장 고조**

- 한국 분단: 대한민국(자본주의)과 북한(사회주의)
- 독일 분단: 서독(자본주의)과 동독(사회주의)

② **집단 안전 보장 기구 결성**: 북대서양 조약 기구(미국 중심), 바르샤바 조약기구(소련 중심)

③ **냉전 체제의 대립 구도**

자본주의(자유주의) 진영	공산주의(사회주의) 진영
미국과 서유럽	소련과 동유럽
트루먼 독트린	사회주의 정부 지원
마셜 계획	코민포름(공산당 정보국)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바르샤바 조약기구(WTO)

(3) 아시아의 열전

① **중국**: 국 · 공 내전 → 공산당 승리(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 국민당 정부 타이완으로 이동

② **한국과 베트남**: 남북 대립 → 전쟁 발발

2. 아시아 · 아프리카의 독립 국가 탄생

(1) 중국의 변화

① **사회주의 정책**: 토지 개혁, 산업의 국유화 실시, 대약진 운동 추진(1958) → 실패

② **문화 대혁명**

- 배경: 덩샤오핑 등 민생 회복을 주장하는 실용주의 세력 대두 → 마오쩌둥의 탄압
- 내용: 기존의 가치 부정, 반대 세력 공격 → 사회 전반 침체

(2) 일본의 변화

① **정치 개혁**: 전후 평화 헌법 제정, 민주 사회 개혁 추진 → 자위대 설치,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로 주권 회복

② **경제 발전**: 6 · 25 전쟁 등을 계기로 경제 부흥

(3)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독립

① **인도**: 독립 후 종교 갈등 → 인도(힌두교), 파키스탄(이슬람교), 스리랑카(불교)로 분열

② **동남아시아**

- 독립 달성: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 타이: 군사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 장악

(4) 이스라엘의 건국과 서아시아의 분쟁

① **이스라엘 건국**: 주변 아랍 국가의 반발 → 중동 분쟁

② **중동 분쟁**: 이스라엘 승리 → 아랍 인의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 결성, 항쟁

(5) 아프리카 지역의 독립

① **이집트**: 나세르 집권, 수에즈 운하 국유화 선언

② **'아프리카의 해(1960)'**: 아프리카 17개국 독립 달성

(6) 라틴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의 변화

① **라틴아메리카**: 정치 불안 → 사회주의 정부 수립(쿠바, 칠레, 니카라과 등) → 1980년대 이후 민주화 진행

②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독립

3. 제3 세계의 성립과 유럽 통합 운동

(1) 제3 세계의 성립

① **제3 세계의 형성**

- 배경: 냉전 체제의 대립 심화, 신흥 독립국들의 독자 노선 모색
- 평화 5원칙(1954): 중국과 인도 합의, 제3 세계 성립의 기초 마련

② **아시아 · 아프리카 회의(반둥 회의, 1955)**

- 원칙: 세계 평화, 반식민주의, 상호 연대 원칙에 합의 → 비동맹 중립 선언(제3 세계 성립)
- 성장: 비동맹국 회의로 확대, 국제 사회에서 발언권 강화

(2) 유럽 통합 운동

① **배경**: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극 체제 → 서유럽 국가들의 영향력 약화

② 과정

- 유럽 경제 공동체(EEC, 1957): 서독, 프랑스 등 6개국이 공동 시장 건설을 목표로 창설
- 유럽 공동체(EC): 영국, 에스파냐 등 12개국 가입 → 미국과 소련의 영향에서 어느 정도 탈피
- 유럽 연합(EU, 1993)
  - 마스트리흐트 조약(1991): 유럽의 단일 시장화, 정치 · 경제 · 통화의 통합에 합의
  - 활동: 단일 통화(유로) 발행, 유럽 연합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통합 노력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90쪽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고자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고 마셜 계획을 추진하였다.

탐구 활동 ▶▶▶ 교과서 191쪽

1. 예시 답안 소련이 동유럽을 공산화하여 '철의 장막'을 치고 서유럽까지 공산주의 세력을 확대하려 하자,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으로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려 하였다. 이에 소련은 코민포름을 조직하여 공산 국가의 단합을 강화하였다. 동서 대립이 심화되면서 한국과 독일이 분단되었고, 양 진영은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WTO)를 결성하여 집단 방어 체제를 구축하였다.

2.



생각 열기 ▶▶▶ 교과서 193쪽

주로 서양 열강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 아프리카 지역

생각 열기 ▶▶▶ 교과서 196쪽

제3 세계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197쪽

1. (1) ○, (2) ○, (3) ×
2. (1) 한국, 독일, 베트남
   (2) 한국, 베트남
3. ㉢ – ㉠ – ㉡
4. (1) ㉣, (2) ㉠, (3) ㉢, (4) ㉡

내용 더하기

냉전 58차시

냉전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이란 의미로, 열전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냉전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평론가 리프먼(Walter Lippmann)이 저술한 '냉전 The Cold War(1947)'이라는 논문에서 비롯되었고, 미국의 재정 전문가이며 대통령의 고문이었던 버나드 바루크(Bernard Mannes Baruch)가 1947년 의회 토론에서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냉전을 상징하는 도시, 베를린 58차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은 미국 · 영국 · 프랑스 · 소련 등 4개국에 의해 공동 점령되어 있었다. 4개국은 독일에 수립할 국가 형태와 전쟁 배상 등의 문제에서 전부 다른 의견을 지니고 있었다. 1948년 미국 · 영국 · 프랑스의 점령 지구가 단일한 행정 당국의 통치로 통합되자 소련은 서부 독일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철도와 도로를 차단하였고, 이에 맞서 서방은 공중으로 물자를 운송하였다. 1949년 5월 12일까지 380대의 비행기가 150만 톤에 달하는 물자를 수송했던 이 사태는 소련이 봉쇄를 풀면서 해결되었다. 이후에도 베를린은 소련과 서방의 대립을 상징하는 도시가 되었고, 1961년에는 동독 지역 사람들이 서방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벽이 세워지면서 베를린은 동서로 분리되었다.

냉전 시대의 분단국가들 58차시

냉전 시기에 네 국가가 분단되었고, 그 가운데 두 국가는 오랜 기간 동족끼리 서로 피를 흘리는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 대한민국과 북한

우리나라는 일본의 패망과 동시에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가, 냉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남쪽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되고, 북쪽에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공산 정부가 수립되어 가장 먼저 분단국가가 되었다(1948). 특히 1950년부터 3년 동안 수백만 명이 희생되는 6 · 25 전쟁이 일어나 우리 민족은 냉전 질서의 최대 희생자가 되었다.

• 서독과 동독

패전 후, 미국 · 영국 · 프랑스와 소련이 나누어 점령했던 독일은 냉전 체제가 형성되면서, 소련 점령지역과 다른 연합군 점령 지역에 별도의 국가가 세워지면서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다. 수도 베를린도 동서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쌓은 장벽은 냉전의 상징물이 되었다.

• 중화 인민 공화국과 타이완

일본과의 전쟁 기간 중에 다시 손을 잡았던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일본이 패망한 뒤, 또다시 분열하여 내전을 치렀다. 처음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국민당이 우세하였으나, 마오쩌둥이 이끈 공산당이 농촌을 근거지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하여 결국 승리를 거두고 중화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대륙에서 밀려난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에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여 중국이 분열되었다(1949).

•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태평양 전쟁 때 일본에게 점령당했던 베트남은 일본이 패망하자 공산주의 지도자 호찌민의 주도로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프랑스와 미국의 잇단 개입으로 남북이 분단되었다(1954). 베트남은 이후 미국과 10여 년에 걸친 전쟁을 치르는 등 온전한 독립을 달성하는 데 20여 년이 더 걸렸다.

팔레스타인 문제 59차시

제2차 세계 대전 후 중동 지역 최대의 문제는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대립 항쟁이었다. 제1차 세계 대전 중 영국은 유대 인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시오니즘(Zionism) 운동을 지지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아랍 인들에게도 아랍 국가 건설을 약속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1947년에 국제 연합은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과 아랍 양국으로 분할하는 안을 결의하였고, 다음 해 이스라엘 공화국이 건국되었다. 유대 인은 2천 년 만에 '약속의 땅'에 정착한 셈이었지만 아랍 인들로서는 수세기 동안 반목해 온 이교도들에게 성지를 빼앗긴 셈이었다. 그 뒤 아랍 인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땅을 되찾기 위해 4차례에 걸친 중동 전쟁을 벌였다.

수십 년 동안 분쟁을 겪은 두 민족은 1990년대부터 평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크리스트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 세 종교의 공동 성지인 동예루살렘 문제로 현재까지 유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둥 회의와 제3 세계의 대두 59차시

1955년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와 섬의 반둥에서 열린 국제회의다. 이 회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29개국 대표단이 참가하여 'AA(아시아 · 아프리카)회의'라고도 하는데,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미얀마의 발기로 이루어졌다. 아시아 · 아프리카의 단결, 냉전 속의 중립, 식민주의 종식을 주장하여 제3 세계의 대두를 극적으로 보여 준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평화 10원칙이 채택되었는데, 기본적 인권과 국제 연합 헌장 존중, 주권과 영토 보전, 인종 및 국가 사이의 평등, 내정 불간섭,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집단적 군사 동맹 불참, 상호 불가침, 평화적 방법을 통한 국제 분쟁 해결, 상호 협력의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유럽의 통합 59차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이 등장하면서 국제적 위상이 떨어진 유럽은 국가 간의 통합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1957년에 프랑스를 비롯한 6개국이 유럽 경제 공동체(EEC)를 결성하여 상호 간의 경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 후 정치와 군사 면에서 통합을 추구하는 유럽 공동체(EC)로 발전하여 회원국 간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고 공동의 농업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흐트 조약 발효에 따라 1994년 1월 1일부터 EC는 EU(European Union, 유럽 연합)으로 공식 명칭을 바꾸었다. 유럽 연합(EU)은 '유럽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유럽 중앙은행 설립과 단일 화폐 사용, 공동 방위 및 외교 정책 등을 추구하였다. 마스트리흐트 조약 체결 당시 12개국으로 출범하였으나, 그 후 회원국이 꾸준히 늘어 현재 30개국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 유럽 연합기
청색은 서방 세계의 파란 하늘을 나타내며, 별은 유럽의 시민을 의미한다. 별의 개수는 완전함과 완벽함을 상징하는 12개로 고정되었다.

Ⅵ. 현대 세계의 전개

05 현대 세계의 변화와 과제

학습 목표

- 냉전 완화와 사회주의 정권의 해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사회주의 정권이 해체된 후 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현대 세계의 당면 과제를 알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과정안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방법	수업 자료
60	**1. 사회주의 정권의 해체와 자본주의 세계의 확대 ~ 2. 현대 세계의 당면 과제**		
	[도입] 주제의 개관 및 학습 목표 제시		CD
	✻ **진단 평가 실시**: 소련이 개혁 · 개방 정책을 펴고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문답식	
	[전개]		
	•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의 영향력 약화와 새로운 세력의 부상으로 냉전 체제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설명한다.	강의식	PPT
	• 동서 진영이 화해와 평화 공존을 추진하면서 냉전 체제가 해체되어 갔음을 탐구하게 한다.	탐구식	
	• 대중 민주주의 발달의 배경과 사례를 정리하고,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확대한 사회 복지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자기 주도식	
	• 소련의 개혁 · 개방 정책, 동유럽 여러 나라의 자유화 운동의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강의식	200쪽 지도
	• 핵무기, 환경 문제, 종교 문제, 민족 갈등 등 현대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들을 조사하여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발표하게 한다.	발표식	203쪽 지도
	• 남북문제가 발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찾아보도록 한다.	자기 주도식	202쪽 그림
	[정리]		
	✻ **형성 평가 실시** 1. 옐친이 소련을 해체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결성한 것은? 2. 자유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자 1995년에 창설된 국제기구는?	문답식	
	✻ **학습 내용 확인 및 차시 학습 안내**		학습지

학습 내용 정리

1. 사회주의 정권의 해체와 자본주의 세계의 확대

(1) 냉전의 완화

① **배경:**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 약화, 유럽 통합 운동의 진행, 제3 세계의 세력 확대

② **계기:** 닉슨 독트린 발표(1969) → 긴장 완화, 양 진영 간의 평화 공존과 경쟁

(2) 자본주의 세계의 성장

① **자본주의 국가의 발전:**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체결 → 국제 무역 확대, 서유럽과 일본의 경제 부흥, 신흥 공업국 성장

② **자본주의 경제 규모의 확대:** 정보 · 통신 등 첨단 산업 육성, 신흥 공업국의 경제 성장 지속

(3) 대중 사회, 복지 사회의 등장

① **배경:** 대중 소비 체제 형성,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 고조

② **대중 민주주의:** 대중 매체로 여론 형성, 대중이 사회 주도

③ **사회 복지 정책 강화:** 최저 임금제, 실업자 구제 수당 지급, 다양한 복지 정책 실시 등

(4) 동유럽의 사회주의 정권 해체

① **배경:** 사회주의 체제의 비효율성 표출

② **고르바초프의 개혁 · 개방 정책:** 시장 경제 도입, 사회 민주화, 동유럽 내정 불간섭 선언 → 동유럽 자유화 운동

③ **동유럽의 자유주의 운동**

- 사회주의 정권 붕괴: 폴란드 자유 노조의 바웬사 대통령 취임 →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 혁명
- 독일 통일(1990): 동유럽 민주화 혁명(1989) → 베를린 장벽 붕괴 → 통일

④ **소련의 해체:** 소련 내 여러 공화국 독립 → 독립 국가 연합 결성(1991)

(5) 자본주의의 세계적 확대

① **중국의 개혁 · 개방 정책**

- 시장 경제 도입: 덩샤오핑의 경제 특구 설치(외국의 자본과 기술 도입), 홍콩과 마카오 회복
- 톈안먼 사건(1989): 민주화 운동의 진통

② **쿠바, 북한:** 부분적인 개방 정책 실시

(6) 새로운 경제 질서의 대두

① **배경:** 국제 무역 불균형 심화 → 무역 체제 변경

② **자유 무역 질서 확립:**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무역 자유화 확대 → 세계 무역 기구(WTO) 창설 (1995)

2. 현대 세계의 당면 과제

(1) 핵 문제

① **핵무기 확산:**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② **원전 사고:** 체르노빌(소련), 후쿠시마(일본)

(2) 남북문제

① **남북문제의 의미:** 선진국(북반구)과 개발 도상국(주로 남반구) 간의 경제 격차로 발생하는 국제 문제

② **해결 노력:** 국제 비동맹국 회의의 제안으로 국제 연합 무역 개발 회의(UNCTAD) 설립 → 세계화 진행으로 남북 격차와 남남 격차가 확대되어 문제 심화

(3) 세계 여러 지역의 분쟁

① **특징:** 냉전 종식으로 이념 대립에 따른 분쟁 소멸, 종교나 민족 문제에 따른 국지적 갈등과 전쟁 지속

② **옛 사회주의권의 민족 분쟁:** 체첸(러시아), 보스니아와 코소보(옛 유고슬라비아)

③ **아프리카의 종족 · 국경 문제**

- 갈등: 종족 분쟁, 인종 청소
-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 등의 노력 → 인종 차별 정책 폐지, 평화적 공동체 추구

④ **영토 분쟁:** 아랍 세력(이슬람교)과 이스라엘(크리스트교)의 대립

(4) 환경 문제

① **원인:** 인구 증가, 산업화와 도시화 등

②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와 사막화, 오존층 감소, 대기와 하천 오염 등

③ **해결 노력:**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총회 등 →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

교과서 과제 풀이

생각 열기 ▶▶▶ 교과서 198쪽

동유럽 민주화 혁명이 진행되고, 소련이 해체되는 등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되고 있다.

탐구 활동 ▶▶▶ 교과서 201쪽

1.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지속되었고, 경제의 비효율성으로 소득 수준이 낙후하였다.
2. 민주주의 실시와 시장 경제 도입을 추구하였다.

생각 열기 ▶▶▶ 교과서 202쪽

핵 위협 등으로 인한 지구(인간 세계)의 멸망 시각을 표시하고 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교과서 203쪽

1. (1) ×, (2) ×
2. 예시 답안 지구 온난화와 사막화, 오존층 감소, 대기 오염, 하천 오염, 자원 고갈 등을 들 수 있다.

내용 더하기

베를린 장벽 60차시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군에 항복한 독일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4개국에게 분할 점령되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방 연합군이 진주한 서베를린과 소련이 진주한 동베를린이 점차 분리되기 시작하였고,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1961년 동독 정부는 동 · 서베를린 사이에 40km가 넘는 두꺼운 콘크리트 담장을 쌓았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후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은 방문객들만이 브란덴부르크 문을 통해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 동유럽에서 자유화 운동이 거세어지면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철거되었고, 이듬해인 1990년 독일이 통일되었다. 냉전의 상징물이던 베를린 장벽은 브란덴부르크 문을 중심으로 일부만 남아 있다.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개혁 · 개방 정책 60차시

1982년 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가 사망한 이후 소련에서는 당과 관료 체제에 대한 개혁이 시작되었다. 1985년에 집권한 고르바초프는 소련 개혁의 연장선에서, 당과 국가 기구를 엄정하게 비판하고, 그 전제로서 언론의 자유,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방(글라스노스트)을 제창하였다.

당의 지도부는 새로운 당 간부를 육성하고 국민의 참여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정체되어 있던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동안 누적된 모순들이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 혁신을 위한 대개혁(페레스트로이카)이 전면에 부상하였다.

그러나 '개방'은 당과 국가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고 권위를 하락시켰으며, '개혁'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개혁 방향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그 결과 소련은 스스로 추진했던 개혁이 실현되기도 전에 체제가 소멸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개혁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소련 지도부는 군축 회담의 추진,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 철수 등 이전과는 다른 외교 정책을 내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서방의 선진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고 막대한 경비를 요구하는 군수 산업의 비중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서방의 비난을 받고 있던 인권 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소련은 1987년 미국의 입장을 거의 수용하여 중거리 핵전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미국은 동유럽의 변혁이 이루어진 1989년 5월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 종료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12월 미 · 소 정상은 지중해의 몰타 섬에서 정상 회담을 하고 냉전의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톈안먼 사건 60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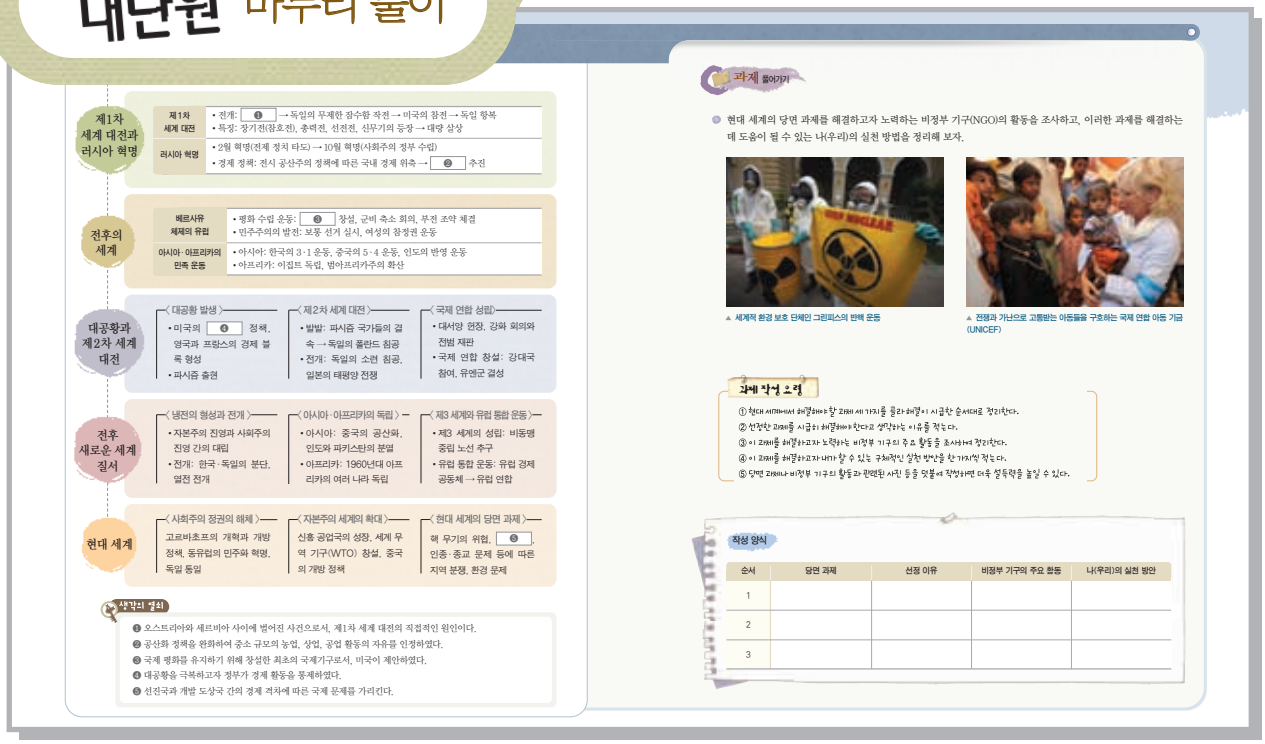
덩샤오핑의 개혁 · 개방 정책이 실시된 지 10년이 되어 갈 무렵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반적인 경제적 퇴조와 몰락에도 중국식 사회주의가 이룩한 성과는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적지 않은 부작용도 따라 그 시정을 위한 제도 개선, 즉 사회주의 정치 체제의 변혁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전개되었다. 학생과 시민들의 참여는 덩샤오핑의 정치 리더십이 한계를 드러낸 시점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났다.

덩샤오핑은 생산력이 발전하면 정치도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현실은 생산력의 발전이 오히려 시민운동을 성장시켜 정치의 불안정이 조성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 논리로 정치 문제를 극복하려던 덩샤오핑의 중국식 사회주의는 정치 개혁과 경제 개혁의 불균형으로 한계를 드러내면서 1986년 지식인의 민주화 요구 시위와 1989년 6월 4일의 톈안먼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톈안먼 사건이 일어난 1989년은 5 · 4 운동 70주년이자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 40주년이며 덩샤오핑이 개혁 · 개방 정책을 실시한 지 10년째로 접어드는 시점이었다. 당 총서기 자오쯔양의 개혁 정책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자 리펑은 정치 개혁의 속도를 완만하게 하자는 건의를 했으며, 원로들은 책임을 물러 당 총서기를 사퇴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긴장 상황에서 1986년 12월 대규모 학생 시위로 실각했던 후야오방이 1989년 4월 15일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이를 계기를 민주화 운동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단원 마무리 풀이



내용 확인하기

❶ 사라예보 사건

✚ 세르비아계 청년이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사건이다.

❷ 신경제 정책

✚ 레닌은 경제 회복을 위해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❸ 국제 연맹

✚ 미국, 소련 등 강대국이 불참하였으며, 군사적 제재 수단이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❹ 뉴딜 정책

✚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실시하였으며, 정부가 농업과 공업의 생산을 조절하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실시하였다.

❺ 남북문제

✚ 비동맹국 회의의 제안으로 설립된 국제 연합 무역 개발 회의(UNCTAD)가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과제 풀어가기

| 지도 요령 |

문제 선정과 조사 활동이 필요한 탐구 과제이므로 개인보다는 모둠 단위로 활동하도록 지도한다. 모둠에서 당면 과제를 선정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개인별로 조사한 후 모둠원이 함께 토론하고 정리하여 양식을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 예시 답안 | 국경 없는 의사회

당면 과제	차별받거나 소외된 사람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권 보호
선정 이유	사회적, 경제적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의사들임에도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
주요 활동	주요 분쟁 지역, 자연재해나 인재 발생 지역,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의료 시설 낙후 지역을 방문하여 이념과 인종, 종교의 벽을 넘어 긴급 구호 활동 전개
우리의 실천 방안	아프리카 신생아를 위한 모자 뜨기 캠페인에 참가하여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 실천

대단원 짚고 가기

01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① 대공황
② 3국 동맹
③ 모로코 사건
④ 사라예보 사건
⑤ 범게르만주의

02 다음 내용과 관련된 사실은?

- 2월 혁명과 10월 혁명
- 소비에트 정부 수립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① 제국주의의 확산
② 사회주의 정부 수립
③ 자유 민주주의의 확산
④ 민족주의 운동의 확대
⑤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

03 다음과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으로 옳은 것은?

1929년 10월 28일, 뉴욕 주식 시장에 대폭락이 일어나 미국 경제는 심각한 불안에 빠지게 되었다. 1932년까지 미국과 유럽의 공업 생산은 50%, 무역은 60%, 국민 소득도 50% 감소하였고, 실업자가 3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거리에는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 넘치고 약간의 음식을 제공하는 구호소 앞에는 연일 긴 행렬이 이어졌다.

① 영국–정부 주도로 생산량 조절, 실업자 구제
② 미국–정부 개입을 없애고 자유 경제 체제 실시
③ 독일–대규모 토목 공사, 폭넓은 복지 정책 추진
④ 일본–보호 관세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정책 실시
⑤ 프랑스–식민지와 배타적인 경제 구역(블록) 형성

04 다음 글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　　)은(는) 처음에 '국가 최우선, 반민주 · 반공'을 내세운 무솔리니의 군국주의 정치 운동을 의미하였다. 이들은 일당 독재 체제를 수립하여 교육과 언론을 장악하고, 국가나 민족을 앞세우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정치 이념을 (　　)(이)라고 한다.

① 나치즘
② 파시즘
③ 군국주의
④ 사회주의
⑤ 인종주의

05 다음 〈보기〉의 사실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기
(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 투하
(나) 독일의 폴란드 공격
(다) 독일 공군의 프랑스, 영국 공습
(라) 일본의 진주만 기습
(마) 노르망디 상륙 작전

① (가) – (나) – (라) – (다) – (마)
② (가) – (라) – (나) – (마) – (다)
③ (나) – (라) – (다) – (마) – (가)
④ (나) – (다) – (라) – (마) – (가)
⑤ (다) – (가) – (나) – (라) – (마)

06 인도의 민족 운동가인 A와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A – 완전한 독립 요구
B – 국민 회의를 중심으로 완전 자치 요구

	A	B
①	간디	네루
②	간디	타고르
③	네루	간디
④	네루	타고르
⑤	간디	압둘 칼람

07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 1950년대에 들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두 진영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이런 가운데 새로 독립한 아시아 ·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는 독자적인 노선을 모색하기 위한 원칙을 선언하였다.

① 세계 평화 ② 상호 연대
③ 반식민주의 ④ 비동맹 중립
⑤ 민족 자결주의

08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된 배경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차 대전〕	〔2차 대전〕
①	진주만 공습	무제한 잠수함 작전
②	진주만 공습	러시아 혁명
③	러시아 혁명	베를린 봉쇄
④	무제한 잠수함 작전	진주만 공습
⑤	무제한 잠수함 작전	러시아 혁명

09 다음은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을 비교한 표이다. 사실과 다른 것은?

	구분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①	배경	제국주의	전체주의
②	전쟁 시작	사라예보 사건	폴란드 침공
③	국제기구 설립	국제 연맹	국제 연합
④	전후의 세계	냉전 체제	베르사유 체제
⑤	영향	아시아 · 아프리카의 반제국주의 운동 전개	아시아 ·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 탄생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을 중심으로 한 (A)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B) 진영의 대립으로 (C) 체제가 성립되었다.

10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A – 민족주의
② A – 자본주의
③ B – 자본주의
④ B – 사회주의
⑤ C – 열전

11 윗글의 A 진영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고르면?

① 코민포름
② 마셜 계획
③ 트루먼 독트린
④ 바르샤바 조약기구
⑤ 북대서양 조약 기구

12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현대 세계의 문제는?

> 미국 · 유럽 · 일본 등 선진국들은 기술과 자본의 확대를 통해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복지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가들은 선진국들에게 공업 원료와 농산물을 공급하며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① 남북문제 ② 지역 분쟁
③ 환경 문제 ④ 동서 문제
⑤ 경제 분쟁

정답

01 ① 02 ② 03 ⑤ 04 ② 05 ④ 06 ③ 07 ⑤ 08 ④ 09 ④
10 ③ 11 ①, ④ 12 ①

집필위원

정재정 (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현) 서울시립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
집필 단원: 역사 ① Ⅰ단원, 역사 ② Ⅲ단원

김태식 (현)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집필 단원: 역사 ① Ⅰ, Ⅱ단원

박근칠 (현)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역사문화학부 교수
집필 단원: 역사 ① Ⅶ, Ⅷ, Ⅸ단원, 역사 ② Ⅴ단원

최병택 (현) 공주교육대학교 초등사회과교육과 교수
집필 단원: 역사 ① Ⅵ단원, 역사 ② Ⅱ, Ⅲ단원

강신태 (전) 용산고등학교 교사
집필 단원: 역사 ① Ⅶ, Ⅷ, Ⅸ단원, 역사 ② Ⅳ단원

구본형 (전) 성수공업고등학교 교사
집필 단원: 역사 ① Ⅰ단원, 역사 ② Ⅳ, Ⅵ단원

장종근 (현) 문현고등학교 교사
집필 단원: 역사 ② Ⅰ, Ⅲ단원

박찬석 (현) 광남고등학교 교사
집필 단원: 역사 ① Ⅴ, Ⅵ단원

강성주 (현) 월곡중학교 교사
집필 단원: 역사 ① Ⅳ단원, 역사 ② Ⅲ단원

김종현 (현) 휘봉고등학교 교사
집필 단원: 역사 ① Ⅶ, Ⅷ, Ⅸ단원, 역사 ② Ⅴ단원

김지현 (현) 거원중학교 교사
집필 단원: 역사 ① Ⅲ단원

〈심의위원〉

이종태 수지고등학교
이주원 분당고등학교
김효은 산본중학교
공일영 은혜고등학교
한용규 안성고등학교
정연진 백양고등학교
윤대중 중산고등학교
김경덕 화광중학교
반두환 안용중학교
황현정 비룡중학교
송석종 기흥고등학교
조용문 통진중학교
이승준 경기도교육청
이선자 수지고등학교
김효중 부흥고등학교
이은영 김해여자고등학교
전형주 경기예술고등학교
장희엽 별망중학교
김양식 안산동산고등학교
김기완 성사고등학교

〈경기도교육청〉

이관주 교육국장
김기철 학교혁신과 과장
이중현 학교혁신과 장학관
지명숙 학교혁신과 장학사
김효순 학교혁신과 주무관

만든 사람들

개발 책임 황해영 **편집** 윤흥상, 최윤자, 임지연 **디자인** 리트머스 **컷** 김상준, 이도훈

※ 이 도서는 '동서문명연구소'에서 감수를 실시하였음.

경기도교육청에서 2012년 9월 28일 인정 승인을 하였음.

중학교 역사 교사용 지도서

2013. 3. 1. 초판 발행 2016. 3. 1. 3쇄 발행 정가 원

지은이: 정재정 외 10인
발행인: (주)지학사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6길 5
인쇄인: (주)벽호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43

이 교사용 지도서의 본문 용지는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운영하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전화 1566-8572, 누리집 주소 http://www.textbook114.com 또는 http://www.교과서114.com)**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전화 02-2608-2800, 누리집 주소 http://www.korra.kr)**에서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내용관련문의: (주)지학사 콘텐츠본부 사회팀 전화 02-330-5460 전송 02-325-7111
공급업무대행: (사)한국검인정교과서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당재봉로 29-28
개별구입문의: 누리집 주소 www.ktbook.com 전화 031-8071-7981~4 (사)한국검인정교과서
누리집 주소 www.jihak.co.kr 전화 02-330-5302 (주)지학사

ISBN 978-89-05-04064-2 53900